

<2009년 1월 4일 주일말씀>

새롭게 변화라

본 문 로 마 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51-55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의 감동에 충만하여 모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해에는 꼭 계획한 것이 있으니 새롭게 변화하여 큰 변화의 역사를 펴자.”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모두 좋은 꿈을 꾸었습니까? 꿈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좋은 꿈이 껴집니다. 좋은 꿈이 안 껴져도 현실이 곧 꿈입니다.

꿈은 생시의 반응입니다. 꿈은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며 현상입니다. 잠잘 때 뇌에서 생각한 것이 현실같이 보여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꿈이 껴집니다. 하늘의 뜻 있는 사건을 꿈에 계시해주시기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 생각이 잠잘 때도 그대로 꿈으로 반영되어 복잡한 꿈이 껴지는 것입니다.

새해 아침에 생각대로 좋은 꿈을 못 꾸었다고 희망의 기대가 어긋났습니까? 주님은 “**꿈보다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꿈은 못 꾸었어도 생시에 잘하면 최고이며, 소원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생시에 자연을 통해 계시받고 징조로 받는 것이 더 확실하며, 이치에 따라 즉시 보여주고 계시해주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연계시를 제일 많이 주십니다. 그때그때 꿈으로 계시하려면, 사람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순간순간 깨달도록 계시해주시니다.

좋은 꿈만 꾸었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시에든 마음만 기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만 기쁜 데서 끝나고 얻지 못하듯이, 좋은 생각만을 하고 좋은 꿈만 꾸면서 실천하지 못하면 마음만 기쁘고 그저 꿈으로 기쁘고 마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기도할 때 꼭 필요 없는 꿈을 꾸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탄과 귀신에게 유혹되는 꿈을 꾸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야 그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 확실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비디오 촬영을 할 때 확실하게 녹음하고 제대로 찍어야 제대로 보이고 들리듯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장의 편지를 썼는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도 쉽게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집에 삼을 빌리러 갔다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삼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면 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니 주인이 제대로 몰라서 주지 않는 격입니다. 형제끼리든 자기 의향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확실히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건상 확실히 못하는 말도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시 때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자는 잠잘 때 영도 육체를 벗어나서 필요 없이 꿈속에서 기분 나쁜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자기 앞날을 생각하며 필요 없는 일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정신이 썩어 살면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면서 삽니다. 알고 보면 필요 없는 시간에 빠져 사는 자가 많습니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을 꾸어도 생시에 겪어보면 별 것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꿈 때문에 괜한 걱정에 불안했던 일이 많습니다. 꿈에 흔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보면 생시보다 훨씬 더 두렵게 나타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꿈보다 현실을 더 중하게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새해에 좋은 꿈을 못 꾸 자들은 기대에 어긋났으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올해의 꿈을 줄 테니 말씀 따라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희망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하여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사람은 지난날보다 새롭게 하기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더 새로운 것을 얻기 원합니다. 새롭게 마음먹고 변화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것을 또 반복하게 되고,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올해는 더 잘하여 희망을 이루며 살겠다고 모두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보았지요? 새해, 새아침에 해 뜨는 광경을 보려고 수백만 명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몰려들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는 목적은 한 해 동안 잘되도록 염원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마음으로 빌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태양이 하나님이나 되는 듯이 쳐다보며 자기 소원하는 바를 빕니다. 실컷 제 마음대로 살다가 순간 분위기를 타서 빈다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태양을 보면서 빌 것입니다.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리도 귀한 복을 쉽게 주실까요? 복은 받기도 어렵고, 주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먼 거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 해 뜨는 광경을 지켜보니 말입니다. 뉴스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사는구나.’생각했습니다.

조은소리 맨 앞장에 항상 찬란한 태양이 있지요? 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모두 알지요?

올해 자기 희망과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실천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온 국민성이 변하고 부활되어야 경제 위기와 각종 어려운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 해 자기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은 자기 수고에 달렸겠지만, 큰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해주셔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은 실천해야 실천한 것을 인정받지만, 정신은 하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한 것이 생각으로서 실천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해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을 들어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가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가 되어 죄인으로서는 간음한 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하겠다고 결심만 해도 마음은 이로 인하여 의인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그에 따라 새롭게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영계에서 보면 결심할 때 사탄 어둠의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고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결심만 하고 아직 육으로 실천하지 못했어도 마음은 행하였기에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변화를 받은 자가 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권에 있고, 사랑하면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계를 못 보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주님은 그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고 결심하면 육은 쉽게 행하여 변화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한 사람이요, 나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마음의 법을 정해놓으셨기에 마음에 결심만 하여도 영계에서 보면 생명권의 빛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자기 마음을 고하기만 하여도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음이 부활된 자가 되고, 산 자가 됩니다. 마음이 휴거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부터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됩니다.

생각에는 육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서 자기 육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생각으로서 주님을 위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생각을 하려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들은 무지로 인하여 자기 행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며 명예와 물질에 속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하는 세상의 썩은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했습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이는 썩지 않는 영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영에 속한 썩지 않는 것들이란 -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증거 하는 일, 관리하는 일, 성장시키고 신앙이 죽지 않게 붙잡아주는 일,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화평케 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행하며,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청결한 마음, 충성함, 부지런함, 서로 위로함과 감사와 기쁨, 우애함과 긍휼히 여김과 자비, 의로움과 선한 말, 절제함, 절대적 믿음과 주를 사랑함과 진실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이며 육에 속한 썩는 것들이란 -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생각과 행실, 혈기와 분노와 교만, 시기과 질투, 거짓과 음모, 오해와 각종 악한 생각, 이성적인 것, 욕심과 물질과 명예, 의심하는 것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미움과 악평과 각종 해를 주는 생각들입니다. 이는 귀신들에게 속하고 악에 속하였기에 사탄들이 주관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에 곤고함도 없어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고, 더 좋은 구원의 삶을 얻게 됩니다. 마음만 먹고 행동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행위대로 선악 간에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형제들도 그같이 대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생명입니다. 정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삶도, 천국도, 지옥도 좌우되니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요, 사망을 벗어나 생명권에 사는 자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가 있어야 될지, 성령님도 주님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신이 썩으면 육신도 썩는 행실을 하고 영도 썩게 됩니다. 생각에 따라 이같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순간 마음이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생각에 따라 힘이 오고 힘이 빠집니다.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구원해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에 사탄과 귀신이 침범하지 않고 희망에 불타며, 때가 되면 계절처럼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면 엄청난 손해요, 마음에 고통을 겪게 되고, 걱정·근심·염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생각을 잘못하면 자살해서 죽고, 인생을 포기한 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는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없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손에 늘 보호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행실까지 잘못하게 된 썩은 인생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였고, 니느웨성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 회개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생각이 그 얼마나 크고 훌륭한가에 따라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보기에다 좋아하십니다. 한 번 잘 생각하고 잘 행하면 많은 유익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주님은 율법시대 때보다 더 완전하게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까지 보시고 지적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멀리한다고 생각하여 무지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불신하며 갖은 악한 일로 대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한다.”고 설교하시며, “마 마음에 악이 있는 자는 악한 말을 하고,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마 12:34-35).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마 23:27).

어떤 자는 마음이 영경귀와 잡초가 무성한 풀밭 같고, 어떤 자는 가시나무 같고, 어떤 자는 썩은 물 같고, 어떤 자는 염소·이리·늑대·야수 같고, 어떤 자는 돌 같고,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 욕심과 분쟁하는 마음, 악평하는 마음, 훼방하는 마음, 각종 악하고 거짓된 마음들을 갖가지로 파헤치고 지적하시며 어느 시대 사람들이든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고 부활된 산 자가 되라고 지금도 외치는 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구촌의 어느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말씀을 못 들으니 모른다고 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들든지 아니 들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부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과 주님이 올해에 주시는 복을 감당하며 받고 누리게 됩니다.

‘기술이 없고, 힘이 없고, 몰라서 마음속에 썩는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 새 일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고생되어도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면 영원히 유익하도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깊은 말씀이요, 마음을 잡아주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는 마음이 진실 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의로워야 한다, 화평과 긍휼함과 자비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끝까지 오래 참음과 서로 이해하고 절제하는 마음과 악한 자들을 돕는 마음과 자기 일에 충성하는 마음과 부지런하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의 굳건함과 기쁨과 청결과 사랑으로 서로 위해주고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마음과 칭찬하는 마음과 너그럽고 솔직한 마음과 형제들의 옳은 일을 믿어주는 마음과 감사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 행하고 자기 육적인 생각을 중심하여 행치 말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과 의논하여 행하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악평하며 행치 말고, 모두 제대로 알고 주장하고 서로 화평으로 하나 되어 행하라. 늘 쳐다보고 있다. 때가 급한 줄을 모르느냐. 왜 내가 너희보다 더 애를 태워야 되느냐. 나의 말을 너희 가슴에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행할 때까지 내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했습니다.

주님의 심정에 병이 나게 하는 자는 불효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단호하게 결단하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분복을 이 해에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의 습관이 되면 자기의 나쁜 생각을 자신이 싫어하면서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습관이 되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뇌에 나쁜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으니 좋은 생각을 함으로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 물으니 “인간의 뇌에 있다.”고 했습니다. 뇌에서 생각이 작용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하여 느낄 때, 뇌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마음을 버리게 되고, 자꾸 보므로 뇌에서 그 같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게 됩니다.

나쁜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보면 뇌에 저장되어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이고,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롬 1:28) 여호와를 생각지 않으니 헛된 일을 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 행위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다 자르고 끊고 없애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습관이 된 강한 줄은 잘 안 끊어 집니다. 습관이 들어서 몇 년씩, 혹은 몇 십 년이 가도 못 끊게 됩니다. 습관으로 체질에 배어버렸기에 좀처럼 자기 생각의 버릇들을 고치기 못합니다.

흔히 술 담배가 습관이 되어 체질에 배면 좀처럼 안 고쳐집니다. 건강 안 좋아져 끊으려 해도 잘 못 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좋지 못한 생각과 행실과 습관들도 좀처럼 잘 안 고쳐집니다. 단호하게 끊고 자르고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고칠 것을 못 고치면 지상에서도 지옥의 고통이요, 죽은 후에도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집니까? 고치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은 좋아 사랑하면서 준비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고쳐야 주십니다. 자기의 소원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마음에 습관이 되었어도 자기 앞날에 고통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다 고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호리라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고칠 수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고쳤을 것입니다. 호리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은 자는 천법을 범한 자가 되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비한 것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은 아예 삶으로 체질을 만들고, 나쁜 것은 즉시 끊고 자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먹고 결단하여야 주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여 가슴에 은혜가 불붙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변화된 자가 되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체질이 되어 못 고치는 습관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체질이 된 나쁜 것들은 마음과 행실의 습관이 되어 못 고치는 병들이니, 중한 병을 고치듯 생각하면서 고

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못 고치는 자들은 병들어 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건강이 복이 되듯이 신앙의 건강이 복입니다.

단 하루만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못 고치면 고칠 때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속히 자기를 자세히 살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발을 씻으라.”하며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발만 씻어도 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얼굴만 씻어도 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몸 전체를 씻어야 될 자도 있습니다. 말씀의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고, 목은 때도 시원하게 밀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는데 애벌레가 나비로 새롭게 변화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애벌레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새롭게 변화할 때가 되었는데 육적인 생각에 처해 살기만 하고 새롭게 변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새롭게 변한 자와 변하지 않은 자는 구별된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변화된 자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그 뜻을 행하면서 기쁨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릅니다.

주님은 “**새롭게 변화되어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삶이 다르고 신부와 형제와 종의 삶이 다르듯이, 새롭게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의 삶이 다릅니다. 희망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마치, 사슴과 늑대·여우·이리의 삶이 다르듯 다르고 사람의 삶과 짐승의 삶이 다르듯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의 삶과 안 믿는 자의 삶이 다르듯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과 안 믿는 자의 삶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후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았을 때 어떤 자는 많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고, 어떤 자는 적은 점수 차이로 떨어집니다. 적은 차이로 떨어진 자는 더 아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든지 적게 나든지 모두 똑같이 떨어진 자 취급을 받고 한 곳으로 갑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많은 자가 달음질을 하나,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족도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형통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물건도 새롭게 생각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사갑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된 자들은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모두 범사에 신경 써서 생각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여 희망찬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한 단계 더 하려면 더 몸부림쳐 강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해버릇 하면 전보다 더 하게 되고, 습관이 되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더 새롭게 하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해버릇하고 강행하면 훨씬 더 힘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도 더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일으켜 후에는 오히려 힘이 안 듭니다.

고무풍선은 클수록 더 무거워져서 안 뜰 것 같아도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공중에서 더 잘 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큰일을 해야 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비행기는 가벼워서 더 잘 뜨고, 큰 비행기는 크고 무거워서 잘 안 뜰 것

갈아도 클수록 더 안전하고 잘 납니다. 공중의 벌들도 클수록 인력을 더 작용하는 운동을 하여 공중에서 힘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더 많은 일을 하면 힘들 것 같아도 희망이 크므로 정신과 마음에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월명동도 작게 정원처럼 만들었다면 작아서 희망이 별로 없었을 것이며, 큰 힘과 은혜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게 행하니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도 그만큼 더 함께 하여 우리가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크게 하니 더 큰 힘들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의 근본을 알아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조금 듣는 것과 시간을 내어 풍부하게 듣는 것은 다릅니다. 힘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큰일을 하는 자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들보다 10배 20배 힘든 일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힘든 일을 했지? 나는 작은 일을 해도 힘들어 겨우 했는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큰일은 해 봐야 압니다. ‘작은 교회를 끌고 가도 목회하기 힘든데 큰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 생각하지만 큰 교회는 큰 힘을 받아 더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작은 배로 가는 것은 힘들어도 군함으로 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마음먹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하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더 큰 마음을 먹고 행하면 더 큰 힘을 받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주님도 성령님도 더욱 다스려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가까이 하면 일도 많지만, 더 사랑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 다스려주십니다. 주님은 꼭 수시로 맡긴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천사를 통해 보고 받기도 하시고, 순간 오셔서 보고가기도 하시고, 멀리서 쳐다보기도 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엄청난 삶을 좌우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새롭게 결심한 자들은 이미 생각으로 실천한 자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옵니다.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 바랍니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며 역사하십니다. 범사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홀연히 변화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새해에는 이같이 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같이 살면 꼭 역사하십니다.

개인이나 섭리사적으로 새롭게 변화한 자에게 약속대로 새로운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변화할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것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 자만 알게 됩니다. 받는 자는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지난날 소쩍새 슬피 울던 사연들을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런 날을 위해서였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새해 말씀을 통해 희망의 꿈을 주시는데도 세상으로 흘러가 주님을 멀리하거나 저버리고, 혹은 힘들다고 하며 새롭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이 해에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함으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지라도 이미 때를 놓쳐 받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자기 받을 것까지 다 받고 누리기 때문에 후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잘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행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꼭 행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설교로만 생각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말씀은 실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계획하신 일을 선포하시며 “지켜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섭리사 전체에게 행하실 일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맛있는 월명동 작품이 나오듯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실천하시며 말씀하시니 기대에 어긋나게 하지 말고 꼭 행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로 떠나면서 곧 가겠다고 전화하듯이, 이미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 쪽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뜻 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하는 자요, 하나님과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자를 정말 믿어주는 자입니다.

환난 속에 원통했던 일들과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고통들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주님은 10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들려주며 준비해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해오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주관권으로 나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쉽게 새롭게 생각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 새롭게 변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하나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며 행하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과 강한 마음과 부지런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끝까지 확인하며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망의 생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고 실천하면 주님은 더욱 손을 잡아주시며 **“걱정 말라. 염려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걱정과 염려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낳아 늘 자기를 따라다녀 무거운 죄 짐이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다 사라집니다. 걱정하는 만큼 그런 일도 안 오고, 만일 온다 해도 살지를 못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닷물이 육지에 와서 살지 못하니 바다 속에만 안 들어가면 파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면 세상 파도에서 벗어납니다. 염려할 것이 아닌데 주를 멀리한 까닭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선생도 돕고 함께 할 테니 원망 없이 화평과 사랑으로 서로 위해주고 돕고 이끌어주고 이해하고 기쁨으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희망찬 꿈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목적지에 다 와서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할 때입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여 서로 희망을 이루는 해입니다.

<축 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함께 함으로 새롭게 생각하며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월 7일 수요일말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실천하여
변화를 받아라

본 문 요한복음 2장 1-11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아무리 새해를 맞고 살아도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현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밤과 낮이 교차되고, 모든 환경은 동일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홀연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새롭게 변화하자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말씀과 여건으로 역사해주시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각자 개성마다 새롭게 변화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섭리 역사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본인 것은 본인이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모두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께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말하니 예수님은 “내가 포도주 모자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는 실상, 잔칫집에 상관된 문제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디를 가도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저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기 비어 있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채우니 “그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했습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꼭 채운 물은 주님의 능력으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멘!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었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감탄하면서 신기해하며 잔칫집 신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먹고 후에 떨어지면 보다 못한 것을 주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 어찌이뇨.”하며 물로 된 포도주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신랑 집에서 미리 만들어놓았다가 내놓은 줄 착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실상, 잔칫집에 온 손님인 예수님이 일순간에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거기에 맞는 많은 표적을 일으켜 모두에게 새로운 기쁨의 희망을 주셨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모두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걱정할 것이 있어도 주님만 초청해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면, 지옥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천국이 되도록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고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도록 모시고 다니면서 어떤 걱정도 할 것 없이 감사와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셨듯이, 이 시대 섭리사와 개인들에게도 표적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변화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잔칫집 분위기가 뒤바뀌듯 섭리 역사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 해를 중심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해도 계속 역사가 일어났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는 자는 기쁘고, 힘을 받고,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대의 뜻을 펴나갑니다.

이날, 주님은 포도주 표적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도 전하시어 말씀의 포도주 표적이 일어나게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생각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너무 엄청난 일이기 에 믿는 자만 믿고 안 믿는 자는 속 시원히 안 믿어지니 모두들 다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월명동 샘물에 약을 탄 것도 아닌데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먹으면 죽을 자도 병이 나아 살아나지 않느냐. 귀머거리, 아토피, 암, 정신병, 각종 병들이 다 낫지 않았느냐.”했습니다.

샘물이지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주님도 표적을 일으켜주셨고, 지금도 계속 그와 같이 표적을 일으키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 때는 딱 한 번 이 같은 표적이 일어났지만, 월명동에서는 몇 십 년 동안 계속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도 작년에 의학적으로 꼭 수술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고 월명수 한 컵 먹고 100% 나았습니다. 말씀에 해당되는 날이 되니, 이를 증거 하기 위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월명동 물을 전혀 안 먹고 월명동만 왔다 갔는데 병이 나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하여 선생과 같이 30여 명이 수원에 가서 불고기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서 먹은 자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저 월명동을 돌아다니고만 왔는데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월명동에 갔다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하신 능력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계획적으로 능력을 주어 예수님이 나타나 행하시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잔칫집이 초상집이 되게도 하시고, 전쟁터가 되게도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선생이 외국에 있을 때, 얼굴도 안 보고 이름만 불러주며 기도만 했는데도 그 무서운 아토피가 낫기도 했고 각종 병들이 나았다고 했지요?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뜻이 있으면 매순간마다 행하십니다.

사람이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행해야 믿습니다. 신의 행함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영이 행하여 표적이 일어나도 육적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가 행하면 역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뿐 아니라, 주님은 약 한 봉지 안 주고도 “너는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것을 믿는 대로 나으라.” 하여 문둥병자와 혈루병자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같이 행할 수 있으랴.’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재인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분별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표적도, 생활의 표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앞에 있어 눈을 뜨고 보았는데도 안 보이게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행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초능력자가 자기 힘으로 열차를 끌고 간다면, 안 보고는 안 믿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도 안 보고는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를 시켜주어라. 그러면 믿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물맷돌 하나를 던져 대국의 군대가 모두 도망가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나가 싸워 한 명도 때려죽인 일이 없는데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 밖에서 다 시체가 되어 죽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금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고 믿어집니까?

사도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마 9:20-22) 『[20]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마 14:36) 『[36] 다만 예수의 옷가예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흠만 눈에 발랐어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요 9:6-7)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같은 역사는 그동안 섭리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같이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처음보다 후에 주님이 만든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섭리사 후반기부터 주님이 주신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여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생각하고 행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포도주 표적이 일어나듯이, 섭리사도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날의 말씀이 머리에 ‘짙’하고 생각날 것이며 깨달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면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믿을 것이며, 선생이 주님과 함께 일함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더욱 표적이 일어납니다. 때가 되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하나 되어 따라와야 큰 표적을 보게 되며, 생각지도 않은 표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보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잠언으로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해주겠습니다. 잠언을 풀어서 설명해주면 권위가 사라집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단어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되었지만, 말씀의 권위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말로 말하노니 내 말을 지켜야 합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으니 모두 지키라』라고 한 말도 『모두 지켜야 합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권장하는 말로 표현되었기에 권위의 말씀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일지라도 “예.”라고 한 말이 다르고, “응.”이라고 한 말이 다릅니다.

책 한 권의 글을 다 써놓고 끝에 가서 한 글자만 잘못 쓰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남이 쓴 것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하다고 말해놓고, 끝에 가서 “저가 그러했다.”고 하면 자기가 한 것이 남이 한 것이 됩니다. 끝에 가서 반드시 “내가 그러했다.”고 해야 자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정을 쏟아 “하라!”고 명령하신 말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성경을 제대로 세밀하게 풀어 전하는 것도 새롭게 생각할 일이고 새롭게 변화할 일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는 자들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제 잠언으로 하나,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듣기 바랍니다. 어떤 잠언은 설명하며 쓴 것도 있지만, 어떤 잠언은 설명하면 선생이 쓴 것 같아서 토를 안 달고 그대로 쓴 것도 있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쓴 것이 있습니다.

1.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면 안 믿을 것도 믿어진다.

-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말을 해줘도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니 이 같은 잠언을 주셨다.)

2.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배우고 이해하여 믿고서 기쁘게 살아라.
3. 자기 것은 이해하면서 내 것은 이해 못하느냐. 자기 것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4.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으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세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 하나님이 사는 세상은 영의 세상이니, 너희도 영으로만 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고로 오고 싶으면 영에 대해 배우고, 신경 써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6. 전능하신 하나님을 육으로 이해하면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영으로 이해해야 많이 이해할 수 있다.
7. 하나님을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믿어지고, 조금 믿어진 것을 가지고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그 나라도 갈 수 없게 된다.
8. 이해란 「그 행하신 자의 심정과 처지와 입장을 안다」 함이다. 「믿고 인정한다」 함이다. 이해를 시키는데 있어서 그에 필요한 비유나 실제 있었던 것들을 말해주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하면 쉽게 믿어진다. 고로 많은 상황들을 비유로 이해하게 해주신다.
9. 자기 입장만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 되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자요, 자기 주관권 안에서 자기에 속한 것에서만 갇혀 사는 자다.
10. 이웃과 형제들의 행함을 이해해야 자기의 것도 이해받아 그 뜻도 반영시켜 이해해주는 것이다.
11. 하나님과 주님의 행하심을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도 함께 해주신다.
12.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때, 어리석게 자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13. 사람이 행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14.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면 전혀 손해가 없다.
15. 주님이 사명을 주어 주님의 행하심을 행하여도 그가 주님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16. 사명을 준 자에게 주님은 그를 통해 자신이 행하듯 행하신다.
17. 주가 보낸 자의 말을 듣고 행함도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함과 다름없다.
18. 여기서는 귀해도 저기서는 흔하다. 인색하게 살지 마라. (여기는 세상, 저기는 천국을 말한다.)
19. 세상에는 보물도 귀하고, 의인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도 귀하다. 그러나 천국에는 다 보물이고, 다 의인들이고, 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20. 세상에서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얻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과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쓰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한지 제대로 알면, 천국에 가기 전부터 세상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 것이다.
21. 사람이 일생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가도 과분하여 몸 둘 바를 모른다. 천국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게 창조된 나라로서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낙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22.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는 아는 자만 평생 누린다. 평생 누려도 못 다 쓰고 아쉬워하며 가는데, 어떤 자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 하늘나라도 아는 자만 찾고 누리다가 죽은 후에 그 나라로 가게 된다. 모르는 자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도 또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고로 불쌍하니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어라.
23. 인생은 많이 알고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조금 알고 살다가 죽는다.
24. 많이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는 자다.
25. 세상은 자기가 평생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 결국 후회와 허무한 삶이다. 이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삶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의 삶으로 연속되므로 허무하거나 변화무쌍하지 않다.

26. 인생이 날로 늙고, 변하여 죽고 없어지니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다. 늙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죽지도 않으면 허무하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처럼 영원하다. 인간은 육신인 고로 한계가 있게 창조해놓으셨다.
27.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가 있기에 세상은 잠깐 살고 끝나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다.
28. 인간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존재물들과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몇 년, 혹은 1년, 혹은 한 달, 하루, 한 시간, 혹은 순간 있다가 없어진다. 고로 더욱 허무를 느끼고 사는 것이다.
29. 때가 되면 늙어 죽을 육도 하나님을 믿으므로 영으로 거듭나 변화되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살아야 허무한 삶을 벗어나 살게 된다.
30. 오늘 새롭게 생각하고 살면 오늘 변화가 일어난다.
31. 종전보다 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당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인생 허무가 없는 삶이다.
32. 누구나 먼저 새롭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 먼저 해나가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
33. 한 번에 새롭게 할 일을 깨달아도 실천할 때는 한 번에 못한다. 날마다 잊지 말고 하는 것이다. 매일 행하는 자가 큰일도 할 수 있다.
34. 누구든지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올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희망은 못 이루며 달리기만 하게 된다. 하나님도 주님도 명한 일이니 잘 되려면 실천하라.
35.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행하면 새롭게 할 일들이 번개처럼 척척 떠오른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
36. 사람은 그 일을 해야 그 일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나고, 할 일들이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37. 새롭게 하려면 먼저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구상하며 하늘 뜻에 맞춰 가야 된다.
38. 정신적 변화는 육체적 변화를 일으킨다.
39.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가치를 깨닫고 밤낮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40. 자기를 위한 변화뿐 아니라, 따르는 자들과 이 시대를 위한 변화와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변화까지 해당된다.
41. 새롭게 한 일과 종전에 한 일은 너무도 차이가 많아 마치, 하늘과 땅 같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해야 얻게 된다. 새롭게 하는 것과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은 성공과 실패요, 희망과 절망이다.
42. 전보다 새롭게 해야 같은 환경에 살아도 새로운 세계에 온 것처럼 기쁨으로 새 힘을 내어 새로운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살게 된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지 못하면 땅바닥에 남아 겨울철에 달달 떨어져 몸부림을 치는 고통을 받게 되듯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자는 남아서 마지막 대 환난 때 긴긴 고통을 받게 된다.
43.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자만이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간다.
44.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몰라서 종전의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정신의 핸들을 과감하게 돌려야 된다. 육적인 길에서 영적인 길로 진입하여 달려야 된다.
45. 새롭게 되어야 할 것도 계절처럼 때가 돌아와야 할 수 있다.
46.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되면 모든 환경이 계절처럼 오게 되고, 모든 여건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신다. 주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면 된다.
47. 그렇게도 새롭게 되기를 위하여 그 때가 왔으니, 열심과 충성으로 감사 감격하면서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
48. 새롭게 해야 다시 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49. 하나님도 주님도 새롭게 하기를 늘 명하시고 원하신다. 행하면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50.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섭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종전에 하던 일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할 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신다. 주님이 외치실 때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못하게 된다. 그러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도 있다. 후에 다시 기회가 와도 3배나 힘들여야 겨우 하게 된다.
51.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하여 변화의 표적이 일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집념을 가지고 각오를 해야 된다. 하기만 하면 상상도 못하는 것을 얻고, 희망찬 이상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낙심은 금물이다. 과거에 갇은 고생을 하며 여러 고통을 겪고, 험난한 길을 참고 견디며 온 것을 생각하고 꼭 행해야 된다. 모든 것을 이때에 얻기 때문이다.
52. 옛 것과 현 것을 주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그 작은 낡아진 배로는 새로운 삶의 바다를 항해하지 못한다. 큰 새 배로 부디 바뀌어야 된다. 그냥 가다가는 결국 큰 파도에 부딪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파선까지 당하여 운명을 달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에 눈을 떠 과감하게 행해야 된다.
53. 희망은 앞에 있고, 절망은 우리 바로 뒤에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야 된다.
54. 사람은 좋은 일도 갑자기 당하면, 놀라고 당황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모든 자들을 위해 주는 것이다.
55. 세상에 그렇게 호기심에 불타던 것도 얻은 후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생각과 같지 않아 버리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찾는다. 또 다른 것을 찾아 얻은 후에도 그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상적이고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새로운 것을 찾는 자만이 얻게 된다.
56. 자기 지능대로 얻게 된다.
57. 큰 것을 얻으려면 마음을 크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고, 계획을 크게 해야 된다.
58. 어렸을 때 얻은 것과 성장하여 얻은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59.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얻고, 컸을 때는 어른과 같이 얻는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큰 것을 얻듯이, 하나님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큰 것을 얻게 된다.
60. 하나님이 보고 행하는 것과 인간이 보고 만족하게 행하는 것은 그 얼마나 다르겠느냐. 생각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61. 아이들의 만족이 어른들의 만족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62.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도 못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만족하다고 하신다.
63. 인간이 최선을 다해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집에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집에 사신다.
64. 인간이 하나님이 시킨 일에 충성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65. 만일 하늘나라가 인간이 생각한 대로 만들어졌다면, 인간들이 가서 살기에는 합당할지언정 하나님이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이는 짐승들이 자기 주인 줄으라고 만든 집에 그 주인이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주인은 자기가지는 집에서 살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도 이와 같다.
66.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안에서 구상하고 생각한다. 인생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 된 천국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만 선지자나 사명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줄 뿐이다.
67.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하라. 사람이 듣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꾸 반복하면 지겹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것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힘을 받게 된다.
68. 스타라도 반복하면 인기가 떨어진다.
69. 반복되는 TV 화면만 쳐다보는 할 일 없는 자들은 그것들을 보다가 제 때를 못 맞추고 늦어서 천국 문이 닫혀 결국 지옥으로 내려간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영원히 억울한 것이다.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말고 새롭게 하라.

70. 새롭게 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함이고, ‘더 이상 자본이 없다.’함이다.
71. 새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희망을 두고 갈만 한 곳이 없는 자이며, 죽음에 이르러 신음하는 자다.
72.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가서 새롭게 하여 대 인기를 끌고, 화제를 낳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하셨다. 주님도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올 동안 주님의 그 위대함을 증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대로 자기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73. 천국을 앙망하고 희망하는 자는 천국을 못 보았어도 있다고 믿으며 긍정하지만, 관심이 없는 자나 자신이 없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지옥도 자신이 가야 할 입장 같으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편한 심리다.
74.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어서 못한다. 새롭게 하면 쉽고, 힘도 훨씬 덜 든다.
75. 새롭게 해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젊은 인생들을 몰려오게 한다. 그래야 주님도 와 보시라고 하여 표적의 역사의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76.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하늘은 내적으로 행하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새롭게 새 희망으로 살고 싶은 자들은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지 말고, 오직 말씀을 중심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중심이 되어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결국 자기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모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

<2009년 1월 11일 주일말씀>

나는 너를 믿어주는데 너는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해석 : 주님은 너를 믿어주는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일을

왜 믿어주지 않느냐. -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 문 마태복음 17장 14-20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요? 경제 불황으로 걱정되어 말씀하셨는지, 혹은 혹독한 추위에 몸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추운 겨울이 없는 나라들은 아마 우리에게도 다른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꿈에서나 생시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하심을 보면, 한 마디 말씀입니다. 그 한 마디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어주는데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왜 믿어주지 않느냐.”**

이 한 마디 말씀을 듣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고, 어떠한 의미와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믿어주는데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 혹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믿어주지 않는구나.”하신 말씀으로 핵심은 알지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겠지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니 서로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확실히 믿어주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합니까? 대답해 봐요. 나의 마음과 느낀 것이 같았는지 보겠습니다. 선생은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여 머리를 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깨닫게 됩니다.

영계에서 들을 때, 듣는 자는 한 마디로도 다 압니다. 그러나 같이 듣지 못한 자는 모릅니다. 영계에서는 육계에서 보는 것보다 상상 못하게 지혜로 즉시 깨달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척척 깨달아지고,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그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도 일순간에 다 생각나면서 충분히 뜻을 알게 됩니다. 영계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은 믿는데, 생활 속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고, 섭리적으로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때마다 기도하면 마음으로 응답해주었던 것들을 해결해주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정말 해주실까?’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환난과 여건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걱정·근심·염려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못하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와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에 해당되는 성경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보라. 내가 살아있었을 때도 제자들과 그 시대 모든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일인데 어찌 의심하느냐.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나님과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떠하겠느냐.”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2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너무 불쌍하여 보다 못해 기대를 걸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으나 고치지 못하였나이다.”하며 애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하시고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시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민망하여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병을 고치지 못했나이까? 무슨 원인입니까?”하고 물으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저 곳으로 옮기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데 믿고 행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믿고 행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주셨으니 행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참고 참아야 되겠느냐.”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의 이름

으로 행하여 표적을 일으키면서도 주를 증거 하기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고 청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오라.”고 허락하시니 베드로가 좋아서 바닷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갈 때, 바람을 보고 의식하여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하며 꾸짖으시고 “파도여 잔잔하라. 바람도 고요하라.”명하니 곧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의심하여 빠진 것입니다. 배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의심했음을 알 수 있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심을 몰랐고,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심은 - 베드로가 이를 제대로 확실히 알았으면, 주가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잔잔케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아니하여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 그 시대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한 제자들이 그같이 하지 못하여 꾸짖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믿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을 앞에 놓고 확실히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을 주로 믿지만 이 같은 일을 정말 해주실까? 함이고, 또 특별한 공적도 없는 데 기도대로 정말 그 큰일을 해주실까? 함에서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하며 섭리 모든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자와 그 아버지는 무슨 공적이 있어 고쳐주었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구원한 것이 아니었느냐.”말씀하셨습니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자를 공적 때문에 고쳐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고쳐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들을 간구하여, 주님이 응답하신 것은 해주시니 끝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응답으로 약속해주신 것입니다. 고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이 꼭 해주실 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심을 의심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을 안 믿어줘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너를 구원하는 자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을 안 믿으면 어찌하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했는데도 이루어지면 본이 되지 못하므로 제대로 간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58절을 보면,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놀라서 “이 같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하며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표적을 행하여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거는 격과 같아서 많은 표적을 행치 않으십니다.

병을 고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각종 일을 일으키는 것만이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능력과 실력을 보이는 것도 표적입니다. 지혜의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감동의 말씀이 표적입니다.** 말씀을 할 때 깨닫게 되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표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도 고쳐지고,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감동되어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돌이키고 결심하여 해주겠다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 사람들이 이를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보낸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의를 행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예수님을 중시하여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가 되어 지상에서 마음천국과 육신의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해됨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선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면 육신으로서 천국을 이루며, 그 영혼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이 의롭게 살면서 육신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법칙대로 죽어 땅에 묻히고, 그 영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 뜻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각종 표적을 보이며 행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선지자들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죄를 청산하고 사해주심을 믿고 행해야 더 이상 사탄의 주관을 받지 않고 속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절대 믿어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심은 주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고,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세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그가 자기 백성들의 악한 것을 고치신다.」 고 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 30:26)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은 “너희는 내가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연고로 인하여 표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요 4: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표적만 보러 다니느냐. 악한 시대일수록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 12:3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 2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 계속 바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교회에 올 때 많은 체험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표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자로 믿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일으켜주신 표적입니다. 그 후에 말씀의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나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이 표적을 일으켜주심은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심을 믿으라고 함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안 보여도 꼭 함께 하시므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인도함을 알게 하기 위해 홍해바다를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새벽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끄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광야에서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이겼습니다(출17:8-16).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 구원자로 보내심을 더욱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 어린 다윗 왕을 통해 사울 왕 앞에서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왕의 사명을 주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표적을 보이심은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는 일입니다. 고로 믿으라고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알고 믿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섭리사에 수백 번의 큰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증거 하는 증표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수백 번의 표적을 보아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증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도 우리가 주님을 안 믿으면 주님의 심정이 상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 믿으면 속도 상하시고 자존심도 상하시고 싫기도 하지만, 안 믿는 자에게 손해가 갑니다. 안 믿으니 자기는 다른 길로 가게 되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범사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급기야 영원한 영혼의 구원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시어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또 각자 인생들을 범사에 돕고 함께 해주심을 오늘부터 더욱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믿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는 간질병에 걸린 환자와 같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이루어주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않으니 불안하여 넘어지고, 걱정·근심·염려로 인하여 간질환자가 불과 물에 넘어지듯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걱정 마. 주님이 꼭 해주실 거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은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흔들림은 사탄과 귀신의 주관을 받은 것입니다. 고로 간질병자와 같이 좌우로 쓰러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조금만 믿으면 이리저리 흔들거립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간질병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완전한 믿음이 없는 너를 보고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작년까지는 참았지만 이 해부터는 새롭게 변화하라. 그래야 믿음으로 인하여 개인 희망도 이루어지고, 섭리 전체가 원하는 희망도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믿음이 없는 연고로 간질병자를 못 고치듯이, 흔들리는 간질병자와 같은 네 믿음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절대 믿고 행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기를 주관하는 귀신과 마귀들을 다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좌우로 흔들리는 자기 믿음의 병이 즉시 고쳐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 ‘나 같은 자도 주님이 함께 하시나?’하며 필요 없는 생각을 하므로 스스로 귀신들의 주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되어야 불경기를 이기고, 시험과 환난도 이깁니다.

마태복음 21장 18-22절을 보면, 주님은 길가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한 마디 하시며 책망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했더니 즉시 죽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이 무화과나무 표적보다 더 큰 표적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일을 하는지 역사의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에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줍니다. 선생도 모두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테니, 선생에게도 실망을 주는 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우리도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듯 주님을 믿어야 걱정·근심·염려가 없고, 해됨이 없으며, 주님이 단호히 기쁨으로 행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어 희망을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섭리사 근본 교리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성령님을 감동의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절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섭리사의 교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풀어 속 시원히 알아도 구세주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일체되어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 다 알아도 그와 일체되어 살지 못하면 사랑의 기쁨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백도, 인물도, 외모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믿음은 아는 데서 더 생기게 되고 확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의심 없이 더 믿어지게 되었고, 설명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순 없이 해주니 기성교회에 다닐 때는 안 믿어지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주님도 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란, 아는 데서 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32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하겠나이다 대답하고, 또 작은 아들을 불러 오늘은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싫소이다 했다. 저녁 때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냐고 물으니 안 했다고 하고, 둘째에게 오늘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둘째 아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주님께는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안 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했으니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 안 한 자들은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행치 않은 큰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른 자들은 안 한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행한 작은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세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며 육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이 시대도 믿고 행하겠다고 한 자들이 안 하고, 오히려 못하겠다고 한 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한 자들이 오히려 섭리 일을 믿고 행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것을 믿음을 지키고 행했습니다. 주님을 믿어준 자들로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믿음의 행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걱정이 떠납니다. 믿음은 정신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안 믿어주면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님도 믿어줘야 그것을 의로 여기시어, 공의롭게 조건을 행한 자에게 조건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천륜의 법칙입니다. 돈도 백도 없으니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절대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하면 실행하여 주십니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다 실행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일하는 만큼 일이 표가 나게 해지듯이 기도하는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함은 자유의지이고, 주를 믿고 안 믿음도 자유의지입니다.

믿음도 일입니다. 믿은 만큼만 일이 됩니다. 믿음은 위력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전쟁터에서 큰 포탄을 가진 자와 같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전쟁터에서 소형 무기를 가진 자와 같습니다. 작은 믿음은 실천이 잘 안 되고, 실천하더라도 어린아이가 행하듯 약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고, 주님이 보낸 사명자도 옵니다. 주님이 보낸 사명자도 주님과 일체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행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표적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이 함께 하여 표적을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믿는 자도 나를 믿는 자요, 그를 불신하는 자는 나를 불신하는 자로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보낸 대행자가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행하여도 주님이 행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다. 사탄을 멸하여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간절환자가 낫듯이 나오리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켜라. 내가 사명을 주었으니 대행하여라.”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소질과 재능을 주어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였으니, 주님이 주신 사명을 대행하여라.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음을 참으리요. 너희가 컸으니 믿음이 충만하여 행하라. 다윗처럼 행하고, 여호수아처럼 행하고, 중심인물들처럼 행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행하고, 주님과 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서 행하여라.”**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자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명을 실행해야 되기에 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켜 따라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고 행하는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기계나 차와 같아서 쓸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씀의 불로 뜨거워져서 개성대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믿음도 확실하게 들어가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믿어주는데 너희는 왜 나와 같이 믿어주지 않느냐.” 말씀하신 마음 아픈 주님의 심정을 뜨겁게 깨닫고, 이제 절대 믿고 실천하여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들을 꾸짖어 귀신과 사탄을 몰아내듯 쫓아내고, 간질병자가 나음을 받고 기뻐하듯이 믿음의 치유를 받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네 흔들리는 믿음을 참고 보리요.”라고 말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행하여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같이 믿고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 주님을 절대 믿는 믿음을 조건을 세우니,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어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명을 준 자들을 믿어주고 따라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불신하거나 의심하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탄과 귀신들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진리를 주장하고 주님을 증거 하며 행하면, 늘 작고 큰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어 그 사명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십 번씩 보고 겪어 왔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따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사탄도, 귀신도, 악한 자들도, 환난도, 어려운 일들도, 시험들도 물리치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의 이상세계에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자로 믿어도 생활 속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과 주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니 범사에 사람을 통해 해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은 안 보이시지만 직접 행하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들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월 14일 수요말씀>

내 말을 꼭 믿으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번 주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어 주는데, 너는 나를 믿어 주지 않는다.”며 슬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파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자의 마음이 아프게 믿어 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죄송한지 머리를 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믿어 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믿고 지킨다.”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내가 너를 믿은 것같이 너도 나를 믿고 행하니 오늘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냐.”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더 좋고, 금은보석보다도 더 좋은 것이 겨자씨만 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니, 그 믿음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20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아비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즉시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산을 옮기듯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그 겨자씨만 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하심을 꼭 말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겨자씨만 한 믿음도 없다면 정말 난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민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이 꼴을 보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배워 여러분들 각자에게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신 말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주는데 너는 나를 믿어 주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은 겨자씨같이 그 작고 작은 믿음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보았는데, 볼펜 끝으로 종이에 콕 찍었을 때 크기만 합니다. 볼펜 끝을 종이에 콕 찍어 보세요. 정말 작지요?

이보다 더 작은 씨가 무슨 씨이지요?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 씨입니다. 바로 인간의 씨, 곧 유전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이 씨가 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씨로써,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지구촌을 뒤덮는 큰 나무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절대 믿고 행한다면 큰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도 없습니까? 이같이 작은 믿음도 없이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피곤함과 추위를 이기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 작은 씨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이상 없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기는 표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섬겨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했습니다. 이 역시, 다른 말로 하면 겨자씨 한 알만 한 온전한 섬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24절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청년에게는 겨자씨만 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주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기에 자기라는 산을 주님께 옮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겨자씨만 한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란 알고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천국은 겨자씨같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절대 나를 메시아로 믿고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사랑해야 마음천국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천국이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까짓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도 없다니,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나에게도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표적을 못 일으키는 자는 누구든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간다. 고로 새롭게 생각하고 말씀을 자세히 전해 줘야 다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너희를 믿어 주는데, 너희는 나를 안 믿어준다.”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 주실 때 조금만 믿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과 같이 산 믿음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모순 없이 흠 없이 확실하게, 빈틈없이 믿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믿는 것같이 너희는 나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전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어 주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믿어 주었으면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 표상이 될 것이고, 안 믿어 주었으면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표적이 안 일어났으면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 온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온전히 믿었을 때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온 자들은 모두 겨자씨 한 알만 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 자기라는 산을 옮겨 주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10절을 보면, 사람을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계 17:9-10)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일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자가 입으로 올라올 정도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정말 믿습니다!”라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순간만 가지는 믿음입니다. 가다 보면 식고 변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졌다가도 안 믿어져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때는 믿어지다가 또 안 믿어져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믿음이 갈대같이 좌우로 흔들흔들거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 단이 자기 곡식 단에게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도 여러 고통을 겪으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외국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절대 흔들림 없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행했습니다. 꿈을 꾀 후로부터 13년이 흘렀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과 아버지의 꿈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으로 계시한 것을 믿고 가면 꼭 이루어지니, 늘 이야기하며 희망으로 가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믿고 가면 꼭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 실천하지 않게 되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3년이고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믿어야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고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견뎌야 큰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믿고 견뎌야 거자씨 한 알만 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건강의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뜻이면,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간구했던 것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거자씨 믿음은 절대적 믿음, 온전한 믿음, 굉장하고 위대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 앞이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적 믿음만이 통하고 존재합니다. 그 믿음만이 산 믿음으로서 거자씨같이 웅장하게 성장합니다. 크고 큰 나무가 되어 웅장함을 보여 줍니다.

주님은 어떤 사물을 들어 말씀하실 때, 그 사물에 그 같은 특성이 있기에 그것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많고 많은 씨들 중에서 왜 그 작은 거자씨를 들어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봐요. 거자씨는 작지만, 그 씨가 크고 자라면 다른 씨의 나무보다 크게 자랍니다. 거자씨가 자라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랄 나무가 되듯이, 거자씨만 한 믿음을 가지면 놀랄 만한 결과의 표적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어 주는데, 너는 내가 너를 믿어 주는 것처럼 나를 믿어 주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깨닫고 절대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믿기로 했습니다. 그 같은 온전한 믿음만이 산을 옮기는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같이 믿으니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면 주님도 기쁘고 자기도 기뻐 잔치하게 됩니다. 의심하므로 슬퍼하여 초상집이 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 잔치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나는 주로서 악하고 의심 많고 온전치 못한 너희들을 믿어 주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도 나를 믿어 주지 않느냐. 이런 꼴을 언제까지 참고 참으리요.” 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자기는 믿어 주는데 상대가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안 믿어 주면, 덜컥 화를 내면서 “나도 너 안 믿어.” 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또 믿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거자씨만 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모두 이같이 행하면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모두 자기가 자기에게 표적을 일으켜 새롭게 믿고 변화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2009년은 ‘새롭게

변화하는 해'입니다. 절대 믿음과 온전한 믿음, 주님과 같은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상 최고 믿음의 존재자이신 주님의 믿음의 자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성경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믿음의 표적을 일으키셨고, 가장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곳에서 열 명의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와 간질병자와 귀머거리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 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많은 자들에게 붙어 다니는 귀신과 사탄들을 쫓아내시며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13절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고 말하니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하인을 고쳐 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왜 백부장이 행한 일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연관이 되고 해당이 되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가졌으니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었으며, 의심 없는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서, 주님을 메시아로서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로 온전히 믿어야 산을 옮기는 구원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믿게 해 줘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은 온전히 주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여 지구 바깥에 있는 고통의 세계에 가서 지옥사자들로부터 갖은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풀무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지옥사자들에게 별의별 고통을 다 받고 이를 갈며 슬피 읊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가 괴롭히던 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불바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사자들도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지 않으면 산을 옮기는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기도 한다.”고 주님은 자기를 믿어 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 줘야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안 믿어 주면 주님은 공의로 우시므로 건져 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비유로 말한다면, 주님의 팔에 온전히 매달린 자만 구원받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몸과 양손과

양발 모두 주님께 매달려야 주님 품에 이끌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자가 한 손만 매달리면 순간은 나오다가 손에 힘이 풀려 놓치게 되고 결국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끌어안고 매달리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한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온전한 믿음뿐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부만 실천하고 마는 것은 온전한 실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성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진리여야 온전한 생명의 존재자가 됩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일부만 주님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아주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여 주라. 헐벗었거든 입혀 주라. 그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풀어 주리라.” 했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온 말씀이었습시다.

이같이 온전하려면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실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해 본 자, 실천자만이 그 일을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쉽다고 하는 자는 제대로 행치 않고 사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자는 제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입으로 행하는 자는 쉽다고 하고, 몸으로 행하는 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자는 행복한 자요, 믿어지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 쉽다는 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만 기쁘게 사는 자로서 꽃만 무성한 신앙인이요, 실천하면서 몸부림과 눈물로 사는 자는 열매가 무성한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주님의 뜻대로 못 한다고 책망하며 꾸중하셨습니다. 책망받고 꾸중 들을 때는 심하다, 서운하다 했지만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달았습니다. 모두 울고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살아생전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내걸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들이 일어나 다시 뭉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자기 선생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살아나신 대로 모두 살아나 하나님 의 뜻을 행하니, 세상이 점점 뒤바뀌어 오늘날 온 지구촌을 주님의 세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은 위대합니다. 세상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녕코 그 행하신 역사를 이루고야 마십니다. 주님도 역시 그러하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역사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는 점점 창대하게 되어 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던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홀로 외롭게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은 그의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 천국의 비밀을 보이시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깊은 말씀을 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알라. 천국이 이같이 있고, 하나님도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불바다 지옥도 있다.”고 하시며, 주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간 곳도 보이셨

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내서 열심히 온전한 신앙을 하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여 그 세계에 대해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사명자를 통해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써 모두 보게 하여 천국이 있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가 생명의 말씀인 고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행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모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한 말을 우리가 읽고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읽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면서 대화하십니다. 성경말씀은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양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를 읽는 자는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설교를 다 듣는 자입니다. 신약성경을 다 읽는 자는 주님과 제자들의 설교를 다 들어 보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는 문학적 계시요, 특별계시입니다. 구원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루에 성경 열 장은 읽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열 장을 읽더라도 3개월이 넘어야 성경을 한 번 봅니다. 빨리 보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열 장이 많으면 일곱 장 읽고, 일곱 장이 많으면 세 장 읽고, 세 장이 많으면 한 장이라도 매일 꼬박꼬박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빼놓는 날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기도, 사고 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 건강 기도,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친구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수십 통씩, 혹은 스무 통, 열 통씩 엄청난 시간을 내서 대화하면서 주님과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로 대화하지 않고 산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시들거리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같이 성의 없이 살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육신 구원도 어렵지만 영혼 구원은 메시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 번 구원해 주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늘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안 읽게 됩니다. 믿어지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씹듯이 천천히 하나하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장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며 읽고, 한 절 가지고 온종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주님입니다.

매일 감사기도를 수십 번씩 해 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해 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믿게 되어 감사하고, 건강하여 감사하고, 사고 안 나게 해 주어 감사하고, 자꾸 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자기를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주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지런과 열심으로 살게 해 주어 감사하고, 수시로 만물로나 말씀으로 생활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해 봐요.

이 같은 감사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감사기도를 안 해 버릇하면 죽을 때까지 못 하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누구에게 배우고 신앙생활 하느냐. 네 지도자는 누구이며, 목사는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같이 가르치지 않으셨으니, 다시 새롭게 배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했으니 매일 달라고 기도하고 꼭 간구해야 우리가 받을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가르칠 선생을 제대로 만나야, 주님께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하나 되게 해 줍니다. 잘못 가르치거나 실력이 없어 못 가르쳐 주기에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젊은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의심도 많아 안 된다고만 합니다. 잘 가르쳐 주면 젊은이들이 더 잘 믿고 일도 더 잘합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르쳐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 믿고,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배웠으니 이제 예전과 달리 새롭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현재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험한 세계를 이기고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며 병을 이기고 고치며 신앙을 유지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자도 많습니다. 육이 그러한 자도 있고, 신앙은 거의 그러합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웃는 얼굴은 안 보여도 마음으로 “그만하면 됐다.”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시원찮게 하면 그동안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안 믿어 주면 사람도 일을 하지 않듯이, 주님도 자신을 안 믿어 주면 안 해 주시고 그에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믿어 주면 자꾸 일할 것을 주십니다.

과수원지기는 과일 농사를 잘 지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농사짓는 자, 장사하는 자, 사업하는 자, 돈을 버는 자에게 각각 성공하는 비법을 말해 준다면 모두 귀가 솔깃하여 잘 듣고 마음도 즐겁고 기뻐서 실천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몸이 아름다워져 몸값이 금값이 된다고 하면, 건강한 자들의 몸매를 보고 좋아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몇 주일 하다 말고, 몇 달 하다 맙니다.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호기심이 가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로 성공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실천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유초등부들>도 어렸을 때부터 실천해 버릇해야 됩니다. 누가 안 시켜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시켜도 안 하니 실망했습니다. 쳐다볼 때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주님께서 시키셨으니 이제는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들>은 정말 실천해 버릇해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자는 앞질러 가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실천하는 자는 위대한 대걸작품을 만드는 데 시작한 자입니다. 성공의 길을 떠난 자입니다. 하는 것이 자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대하게 매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주님도, 옆에 있는 천사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돕고, 함께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대학부·청년부·가정국·장년부 모두 실천해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아멘! 믿고 실천하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모두 개인전입니다.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유능하게 부지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도와주고 따라 줍니다.

자기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선진국만큼 행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선배만큼 행해야 됩니다. 선배가 되면 말로만 하는 관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같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후배가 잘 몰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며 함께 행하며 일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놀이에 빠지거나, 거기에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을 금같이 쓰지 않는 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뺏기면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 있으면, 그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쳐 귀한 것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뺏기면 매일 제대로 안 됩니다. 유치등부·중고등부·대학부·청년부·가정국·장년부 모두 값없이 쓰는 시간들을 이제부터 모두 잘라 버리고 귀하게 써야 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해입니다. 주님이 언제 방문하실지 모릅니다. 왔다 가셔도 모릅니다. 주님이 목표를 주셨으니, 그대로 매일 살아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실력은 있는데 간판이 없다고 해서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간판 없어도 잘하는 자들을 꼭 챙겨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견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 줄여서 잠언으로 말하겠습니다.

1. 세상에서 주님의 일같이 중요한 일은 없다.
2.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계획대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
3. 주님께 맡겨 버리고 감사하며 그 삶을 사는 것이다.
4. 자기 삶으로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다.
5. 주님께 맡기고 살면 삶이 쉽고, 자기가 가지고 살면 자기 사고의 삶이라 어렵다.
6. 사랑하는 자끼리도 삶을 맡기고 살면 서로 기쁘고 가볍고 쉬운 것이다.
7.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은 푸른 초장에서 새로운 꼴을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다.
8. 주님을 이해할 때까지 고통이다. 이는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9.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10. 자기의 한 가지 일을 안 이루어 준다고 주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이왕이면 그것뿐 아니라 몇 가지 같이 더 이루어 주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범사에 수십 번씩 감사하여라.
11. 쉬운 길만 찾아가지 마라.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12. 우선 가기에는 좋은 길이 달지만, 후에는 쓴 것이다.

13. 우선 먹기는 낯감이 달지만, 미래에 가서는 손해다.

14. 하나님은 우선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신다. 미래를 보시고 그 일을 해 주셔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해가 오지 않는지 보시고 적절할 때 완벽하게 해 주신다.

15. 사람들은 우선 편한 길로 가나, 주님은 고생이 되어도 근신하면서 생명길로 가게 하신다. 생명길로 가야 영원한 기쁨의 천국길이기 때문이다.

16.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희망으로 살아라.

17.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18. 주님은 자신이 한 말을 믿고 따라오는 자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좋아하시며, 그에게 표적을 은밀히 보여 주시며 역사하신다. 그에게 무엇을 해 줄까 늘 생각하신다.

19. 뒤에서 묻혀 열심히 하는 자들과 실력자들을 교역자가 챙겨 주지 않으면 주님 눈에 거슬린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먹다 만 찬밥 취급을 하려느냐.

20.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어느 때는 영적으로만 가르쳐 주고 어느 때는 육적으로만 가르쳐 주다가, 성장한 후에는 영육 다 가르쳐 주면 다 믿고 육도 영도 같이 부활되어 더욱 빛나고 새롭게 변화된다.

21. 영적인 자는 영에 대한 말씀을 잘 믿고 따르지만, 육적인 자는 믿기보다 오히려 듣는 대로 의심한다. 이런 자들은 육적인 것들을 가르쳐 뿌리내리고 꽃이 되게 한 후에 크고 단단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22. 성장에 따라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일을 시키듯이, 신앙인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23. 어린 신앙인들은 성경에 있는 아무리 좋고 기적적인 말씀을 들어도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듯이 먹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먹는다.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싶어 먹듯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경의 단단한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영과 육이 강하게 자라난다. 꼭 구분하여 쪼개서 가르쳐 줘야 한다.

24. 점진적으로 가르쳐 줘야 잘 믿는다. 이것이 순리이며, 이해도 잘된다.

25. 독특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면 생소하게 생각하고 안 믿는다. 세상에 그같이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성경에 있는 것도 말해 주면 다 믿게 된다.

26. 사람들은 어떤 자가 많이 행한다고 하면 안 믿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행한 것도 믿게 된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냄새나는 시체를 살리셨다. 이 말을 들으면 믿기보다 자기가 안 보았을 때 옛날에 행한 일이니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게 살렸지?’ 하며 의심 먼저 하게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서 그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쉽게 믿어진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도 배워야 된다. 커야 된다.

27.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표적은 크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작은 넷물이 갈라지게 했다면 작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지만, 이해가 안 되면 넷물이 갈라지게 했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다.

28.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는 일과 주님의 행하심을 믿게 해 주는 일은 너무도 큰일이다.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무시하지 마라. 믿어지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너에 따라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 네 책임이다.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 주님이 행한 것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고 못 믿는 운명을 좌우시킨다. 선생 된 자의 책임이 크니,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배우고 가르쳐 주어라.

29. 사역자는 주의 뜻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줘야 배우는 자가 잘 성장하는 것이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니, 가르치지 말고 먼저 배워라.

30.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구원의 표적도 능력도 행치 않으신다.

31. 지금도 지구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 믿으니 모를 뿐이다.

32. 하나님이 전 세계에 행하시는 일이기에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므로 안 믿으면 시대 하나님의 방향을 몰라 결국 자기만 손해다.

33. 하나님과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니 안 믿고 산다. 믿음이 잘못 성장해서 그런 것이다. 지도자도 책임이다.

34.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 주면 신앙도 버리게 된다.

35. 자기는 성장하여서 잘 믿어진다고 해서 어린 신앙인들에게 막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다.

36. 어린 신앙인에게는 성경의 쉬운 것을 먼저 가르쳐 믿게 하고, 그같이 작은 것만 믿고 행하게 하여라. 그런 후에 성장하면 그때 그 성장한 믿음대로 가르쳐야 된다. 어린 신앙인들을 막 가르치는 것은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어린아이를 집어넣는 격이다.

37. 주님은 “네 믿음대로 행하고 되어서라.”고 말씀하셨다.

38. 믿을 자도 잘못 말하면 안 믿는다. 오히려 의심하고, 전하는 자까지 우습게 보고, 이상하게 보게 된다.

39. 아기에게는 “젖 먹으러 가자.”고 해야 따라가고, 어른에게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해야 따라간다.

40. 의심하는 자는 주님이 행한 일도 안 믿지만, 믿는 자는 아직 행치도 않은 일도 주님이 행하심을 절대 믿는다.
41. 네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인 것은 행해 오고 계신다. 네가 믿음으로 너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네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42. “네가 지금껏 주님이 네게 행한 크고 작은 일까지 믿느냐?”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네게 크고 작은 일을 행할 것과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겠느냐?” “믿습니다!” “믿으면 내가 행한다.”
43. 주가 행한 일을 믿지도 않고 주만 믿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알고 믿고, 알고 주장도 하여라.
44. 믿음은 서로의 신용이다. 네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나까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45.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행한 것도 믿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네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너도 나와 같이 행하면서 실체를 가르쳐 줄 수 있다.
46.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47. 믿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48. 믿음의 축복, 믿음의 자본, 믿음의 보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주권이다. 이것 없이는 나와 동행하지 못한다. 믿음이 이같이 크고 위대함을 알고 모두 갖도록 하라.

<2009년 1월 18일 주일말씀>

**알고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관리하기 쉽다**

본 문 야고보서 3장 1-5절
누가복음 6장 27-30절, 40절
마태복음 7장 28-29절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보람이 있고, 배울 때 보람이 있고, 실천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보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셨고, 말씀하신 즉시 이해되고 감동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을 안 좋아하십니다. 핵심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소 행하시면서 그

환경에서 보이며 가르쳐주셨습니다.

성경말씀대로 그같이 행하면서 성경을 보면 빨리 이해되고, 감동과 함께 얻어지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심정과 말씀이 전하는 자의 입에서 줄줄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어디 건강에 좋은지 구분되어 있듯이, 말씀의 내용에 따라 정신적 변화와 행실의 변화가 각각 다르게 일어납니다.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병이 오듯이, 말씀도 잘못 가르치면 신앙에 병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두 궁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29절에 『주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권세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를 풀어주시고, 속도 시원하고, 영혼도 신령하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장된 자는 성장된 자에 해당하는 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에 해당하는 사명과 일을 주고, 그에 맞게 대하도록 신경 써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대항을 받는 자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싫은 것입니다. 합당하게 구분하여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해줘야 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행하여 자신도 변화를 일으키고, 상대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치에 따라 행하는 자는 지도자로서도 잘하는 것이며, 성장하는 자들도 잘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대하면 처세를 제대로 못하는 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대해주면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사람은 꼭 분별하고 그에 맞게 대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제대로 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며 전해주고 대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르치며 대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대항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대항을 받는 자들도 이같이 하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고, 온전하게 살아야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잘 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바르게 교육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보니 유대종교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외식과 형식으로 이론적으로만 외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며,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채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새 시대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펴가니 외식적인 구시대 종교인들은 정신과 행실이 썩은 죽은 자들인 고로, 주님의 행하심을 반대하고 막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말씀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실습시키며 뜻을 펴나갔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니 따라오는 자들을 잘 관리하고, 쉽게 인도하며 다스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했습니다(마 11:28).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인생을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된 연고로 인하여 관리하고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못 알고 살면, 모르고 살기에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도 더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유대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가르치고, 행치 않으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가르치니 답답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 그 가르침과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디까지 행하시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못 인식 시켜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도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키면, 동물 서커스단이 되

어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르치면, 듣는 자들이 처음에는 모두 좋아서 잘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믿고 살아 보고 그러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예정해놓으셨으니 다 해주신다.」고 가르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같이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교파라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멸망 길은 크고 넓어 그곳으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눅 13:24)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은 100개 중에서 90개 정도를 해주십니다. 나머지 10개 정도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10개는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는 100%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형제들도 그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0: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장하면 인간의 일은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인간이 거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100개의 힘이 있는데, 10개만 해도 된다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순리요, 진리였습니다. 그같이 안 했으면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체제와 법도를 보아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자신이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더 성장하면 누구 쳐다볼 것 없이 자신이 다 행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세계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거의 다 해주시지만, 성장하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 행한 일이 남아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해준 것은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을 빨아 입히는 일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몸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커서 행한 일은 자신이 행한 것이므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성장할수록 본인이 해야 그 공적이 남아 빛나게 되고, 죽은 후에도 빛이 나게 됩니다. 신앙세계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린아이같이 크다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역사를 메고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고로 사도의 역사가 그 시대에 살아남아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공적도 남아지고, 표가 나게 섭리사에 길이 남아집니다. 모두 이같이 가르쳤기에 가르친 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각자 자기 책임들을 다하여 섭리사가 더 창대하게 커왔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기성에 있을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 다 예정해놓았기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배워왔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았습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말을 믿었으나 그대로 안 되니 신앙을 떠나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니 교회에 다닐 때보다 더 잘되어 좋아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섭리사에 와서 인간이 책임분담을 해

야 할 일 10%와 하나님이 해야 될 일 90%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간의 책임분담 10%, 즉 인간에게 해당되는 100%를 위해 열심히 뛰고 달려 신앙의 굶주림 없이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미 예전에 믿음들이 파선되어 교회를 안 다녔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여 힘을 주십니다.

잘 가르쳐야 자신도 잘 되고, 듣고 배운 자도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잘 성장하여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행하자.”**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히 믿고 행하면, 자신의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므로 못할 일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약속대로 필요한 만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할 일이 인간보다 수십억만 배 많으십니다. 고로 인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우시고, 거기에 신경 쓰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선생도 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할 일보다 수백 배 더 많습니다. 내 할 사명도 많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능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해주면 로봇의 삶이 되고, 식물인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며 피동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희로애락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로 인하여 낙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할 일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존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사명과 할 일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쁨입니다. 상호존재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은 귀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누가 물 지원을 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느니, 열심히 땅을 파고 샘을 파야 됩니다. 어디든지 땅속에는 물이 있으므로 파면 솟아납니다. 누가 해줄 것으로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안 해주면, 결국 자기만 갇은 고통을 겪고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이같이 샘을 파는 자만이 가물어도 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깊은 곳에 물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책임분담으로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가뭄 때 비오기만 기다리다가 곡식이 말라 죽게 되고, 사람도 목이 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이같이 살아보았습니다. 누가 도와줄 것만 기대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만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주신 복도 빼앗깁니다. 천국에서도 모두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사명을 합니다.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가며 고생만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인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하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실망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했을 것인데 못하여 일을 당했구나.’하고 후회하며 가르친 자를 원망하고 싸우기까지 하게 된다고 주님은 오늘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같이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라도 그같이 그릇 사고하는 자들도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야고보가 선생 된 자는 책임이 크고, 잘못 가르쳐주면 죄도 크니 선생 되기를 원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은 많으나, 오직 하나뿐이라고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마 23: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던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두고 하나님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시니, 몇 명 안 되는 자들로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 제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사는 점점 커져서 환난·핍박·갖은 고통을 받아 가면서도 지구촌에 신약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대종교인들은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들만 쳤고, 전통과 조상들의 유전만 따지고, 모세의 율법만 딱딱하게 외치며, 권위주의에 가득 차 권위에 꼭 찬 신앙만 하였습니다. 고로 인생들을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 당세 때, 구약종교는 4000년이나 되었지만 큰 역사를 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왔기에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구시대 유대율법주의자들은 6000년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였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어야 인간들이 각자 자기 책임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펴 시간이 갈수록 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펴나가며 신앙이 죽지 않고 절대적인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 절대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히 행해야 이 시대에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도 더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살면, 평생 그릇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오히려 가르쳐주어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 순종하며 영광 돌리고 형제들을 화목하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잡한 것을 가르치다 보면, 근본의 주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실 주님에 대해 잘 모르고 그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가 되도록 일체만 시켜주면 됩니다.

지도자들은 잘 들어요. 요즘 경제난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데 너무 시간을 빼어 강의만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공부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시간만 내어 요지만 말해줘야 됩니다.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강의하면 오히려 지루해 합니다. 그리고 틈이 있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려고 하다가도 오지 않습니다.

중고등부들도 꼭 필요한 시간만 내어 강의해주고 보내야 됩니다. 강의는 절도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만일, 놓고 할 일이 없는 자가 있다면 꼭 붙잡아 가르쳐주면 좋지요.

주님은 억지로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알고 싶어 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도, 믿음도, 주를 위해 하는 일들도, 전도도, 헌금도 모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면 구원 못 받을 자도 없고, 천국에 못 갈 자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적고 지옥에 가는 자는 많으니, 그 원인은 본인이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 겪어보았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할 일들을 해보았지요? 너무나도 실천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행해야 사망에서 나옵니다. 행해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하면 말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막을 홀로 외로이 고통을 겪으며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그곳을 횡단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와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하며 갔습니다.

사막을 홀로 걷던 자는 가다가 힘드니 가던 길을 멈추고 온종일 타들어가는 땀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며 희망을 걸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밤이 돌아와 그곳을 지나가던 사자 떼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하니 안 죽을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를 홀로 힘들게 걸어가니 위로할 겸,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잘못 가르쳐줘서 죽게 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가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희망이 옵니다.”하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갔으면, 그는 가던 길을 열심히 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이와 같으니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먹기에는 감보다 귤감이 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며 좋게만 가르칩니다. 순간 듣는 자는 기쁘고 좋지만, 결국은 안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자신도 성공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도 돕고 함께 하십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행해야 그 행위대로 하나님과 주님도 역시 열심히 해주십니다.

주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듣기 힘들고 마음에 쓴 말씀이지만, 제대로 된 가르침입니다. 제대로 한 말은 쓰지만, 지키면 제대로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고생이 되어도 생명 길을 가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지요?

주님은 또 이같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지와 펜과 물감을 갖다 놓고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자. 글을 쓸까? 그림을 그릴까? 몇 시간씩 구상을 하는데 구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행하지 않고 계속 구상만 하고 있으면, 생각난 것들이 머리에 떠올랐다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잘하든지 못하든지 행해야 된다. 안 하면 하루가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평생이 가도 결국 아무 것도 못 쓰고 못 그리는 것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하면서 고치고, 또 구상도 하며 멋있게 하는 것이다.”

시도, 잠언도, 그림도 행해야 구상이 글로, 그림으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 구상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고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잘못 됩니다.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 행하게 되어, 생명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 몸이지만 제대로 다스리고 관리하기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행해야 힘들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울 때는 힘들고, 가르칠 때는 힘들지만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결국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알고 가르치고,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온전하게 신앙을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행해야 됩니다.

섭리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었기에 그만큼 행하여 오늘 여기까지 신앙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더 잘 알고 가

르쳐주고, 더 새롭게 배우고 행하여 변화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행할 때, ‘우선 먹기에는 곱감이 달다.’는 식으로 쉽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뒷일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쉬운 대로만 행치 말아야 합니다.

섭리에서 중직을 맡은 자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쉽게만 일하지 말고, 섭리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며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되, 원수의 말을 듣고 끌려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은혜로 끌려 행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항상 어떤 환경과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하니,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주리면 먹여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네게 상을 베풀어주리라.”했습니다.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주님께 성경을 배우고, 주님과 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제일 좋아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히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것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것도 지켜야 거짓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는 약속했어도 상황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인간을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한 마디 말씀도 참으로 큰데, 오늘도 몇 가지를 말씀해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참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중 누구의 말이 매끄럽고 믿어질까요? 거짓말은 만들기 때문에 매끄럽지만, 참말은 그대로 하니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습니다. 참말은 자기가 행한 대로 거칠든지, 구부러졌든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의 말이 매끄럽게 다듬어져서 처음에는 믿어지나,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며 그 행위대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의 편이 아닙니다. 참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에도 회개한 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천국은 어느 시대, 언제, 누가 갈지라도 흠이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 흠은 회개로 없애고, 행함으로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삶을 통해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실상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아시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새롭게 하라.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나아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하고 물으니, 이에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백 구십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해주는 만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생각하면서 용서한다면 더 많이 용서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같이 수십 번의 엄청난 용서는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켜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잘못을 반복하면 계속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한 건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잘못을 행하고 피해를 주면, 화가 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열 번씩 일어나지 않고 계속 게으르게 행한다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보다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며 행하지 않거나 실

수를 반복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를 행하며 삽니다. 행하다 보면 이것도 실수하게 되고, 저것도 실수하게 됩니다. 또 형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각자 서로에게 잘못하게 되니 실상, 그 행위에 따라서는 각각 한두 건들입니다. 그같이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한 건을 가지고 반복해서 자꾸 안 한다고 해놓고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온전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생각을 굳히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건을 가지고 계속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나 두 번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니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일흔 번씩 일곱 번 즉, 사백 구십 번을 반복해서 잘못된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잘못했으면 서둘러서 그랬으니 용서해주고, 몰라서 그같이 행하였으니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고로 늘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사고를 가지고 행하도록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끼리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한 건을 가지고 반복하여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 혹은 저것 하나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같이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됩니다. 이를 깨닫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형제의 심정도 알고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천국의 마음을 가졌기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온전히 행한 일도 형제가 오해하여 큰 죄나 지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형제를 죄인 취급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가 무지한 형제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자기는 주님을 따라 급히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횡수에 상관없이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를 향한 희망을 이룹니다.

주님은 내게 “나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는데 너는 왜 형제의 잘못을 한두 번만 용서해주고 마느냐. 나와 같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근본을 깨닫고 이제 그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주어서 그가 낙심하지 말게 하고, 다시 잘하여 사탄의 나라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게 되지만, 자기 마음을 가지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마음이 천국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이 기쁘듯, 용서해준 자의 마음도 그같이 기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용서해주고 적을 싸 죽이지 않으니, 평생 그 기쁨이 마음속에 있으므로 기쁩니다. 우선 먹기에는 곱감이 달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적을 먼저 보았다고 마구 총을 쏘서 죽이면 속이 시원하고 훈장도 타니 그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용서해주고 자기도 살고 적도 살아 평화롭게 끝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가르친 대로 행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십니다. 자기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와 부딪히고 싸우며, 더러는 많은 해를 준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살다가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원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보고 용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크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더 큼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무엇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말씀은 어렵지만 지킨 만큼 꼭 축복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지키려면 정말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극한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받으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가르치고 외치셨기에 심정의 말씀이 더욱 불같이 나왔고, 몸소 겪으니 모든 세상을 아시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겪어야 알게 되고, 겪으면서 외쳐야 가슴에 불이 붙어 깊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입술 신앙이 아닙니다. 갇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겪고 제대로 가르쳐야 머리에 사고가 제대로 들어가 제대로 행하게 되고, 관리하기 쉽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리면 먹이고, 혈벗으면 입혀주어라. 그리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생명의 주관권에 들어가 사는 자입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월 21일 수요말씀>

내게 잘 배우고 잘 가르쳐라

본 문 마태복음 23장 1-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선생에 대하여, 그리고 지도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구약 4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로 종교 지도자이신 제사장들과 율법의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의 선생들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간단한데, 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율법을 중시하여 조항을 붙여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적극적인 조항 248개, 소극적인 조항 365개로 분류하여 가르쳤는데, 248개 조항은 사람의 지체 수를 맞추어 만든 것이고, 365개 조항은 1년 365일에 맞추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 선생들은 이 많은 것을 가르치며 끝없이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보면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 같은 변론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지겹게 생각하고, 핵심의 말씀도 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선생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고 행하되, 절대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선생이라고 하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만 하고 자신들은 행치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 주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론이 많고 변론은 많으나 행치 않으니, 할 일이 없어 말만 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선생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저 율법 지도자들은 모세의 위치에 모세처럼 앉아서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나타내고 보이려 하니, 참으로 잘못되었으며 외식과 형식적인 자들인 고로 절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하나이니 그리스도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모든 것에 대한 랍비요, 지도자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역시, 그 가르치심이 율법 선생들 같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고 세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으로서 참람비요, 참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주님을 절대 선생으로 알고 지도자로 알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성경을 복잡하게 수백 가지로 가르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또 말만 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고, 문안받기 좋아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도우려 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자들 앞에 칭찬받기 좋아하는 신앙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 하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섭리사에 있는 자나, 기성에 있는 자나,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자들 모두를 보시며 시대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니 모두 고쳐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호리라도 모순 없이 행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생이다. 지도자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지체에 머리가 하나이듯이,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는 하나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섭리사에도 선생과 지도

자는 하나뿐입니다. 만일 형제들 중에 큰 자라면, 따르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아 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면 낮아집니다. 부지런히 행하면 형제 가운데 큰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 시대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보고, ‘자신도 그것이 행하는가?’ 항상 보아야 합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순종하며 살아야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이 모르니 따르는 자들도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데, 성경을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어 가르쳐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가르쳐 믿고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30개론도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잘못 가르쳐 주면, 잘못 알고 잘못 사고를 하여 행해도 잘 안 되고 더 고통만 겪는다고 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어야 잘하게 되고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 학문을 가르쳐 주는 세계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지 않고 믿을 마음이 없어 믿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고 그 육신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구원주를 떠나 살기에 고통을 받으면서 지상의 사망권 속에 살게 됩니다.

본인 책임도 크지만 가르친 자의 책임도 너무 큼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 된 자들이 심판도 크니 너희는 선생 되기를 원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잘 가르쳐 주고, 개인들의 문제도 정말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잘못 가르쳐 주면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고 살게 해 주면, 그를 가르쳐 주고 인도한 자의 그 의는 크고, 어디 비할 바 없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말한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큰 자이고, 행치 않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생명력이 있고, 듣는 자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잘 배운 후에 가르쳐 주고 전해야 됩니다. 아무나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잘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기 자신이 먼저 감동을 받고 뜨거운 자가 되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도 감동받아 마음이 뜨겁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받게 되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움직이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감동과 은혜가 없는 자는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자에게 감동이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대개, 신앙이 오래 되고 나이 들어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과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외치고 가르쳐 주어도 지식으로 깨닫기는 하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세상과 사탄과 핍박과 싸워 이길 힘이 없고, 신앙과 희망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고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자에 따라서 듣는 자도 믿음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외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듣는 자들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이는 물을 마셔 보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고, 전문가들은 안 마셔 보아도 차가운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알듯이, 같이 이야기만 해 보면 다 압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그 입에서 토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계 3:15-16)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 열심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는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맡은 목사들은 가슴에 불을 붙일 기회를 얻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이 없는 자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니, 구했을 때 그것이 뜻이라면 후히 주십니다. 고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어야 주의 뜻을 좇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르쳐야 성령께서 친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야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도 그 입을 통해 뜨겁게 외치게 해 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박사나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신임을 못 받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후대에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로 그 모순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우주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을 주장하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주기적으로 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만 그같이 가르쳤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해 왔어도 2000년 동안이나 이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동설’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니 그제야 믿었습니다. 갈릴레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주변의 행성들도 돌고 있다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이론은 실제로 맞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약 2000년 만에 그릇된 사고와 이론이 깨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태양이 돌다가 멈추었다.’고 하는 성경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더욱 천동설을 교리화하였기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말하는 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갇은 모략을 하여 고통을 주고 무식하다고 하고 무시했습니다. 기독교는 천동설을 주장했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비진리를 현재까지 계속 주장하며 표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진리를 주님께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니 이단시해 왔습니다. 소경이 눈뜬 자를 인도하고 지적하는 격이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는 네모나게 생겼다. 고로 끝은 낭떠러지니 멀리 여행 가지 마라. 끝까지 가다가 떨어져 죽을라.” 하는 식으로 알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가르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면, 모두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태양이 지구처럼 빠르게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보고, 태양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또 6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돈을 문 물고기를 낚시로 낚아서 세금을 냈다고 성경을 폄하다(마 17:24-26).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 육체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성경을 풀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도 육체가 죽었어도 다 살아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풀면,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로 성경을 푸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썩는 양식과 썩어 없어지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고 수십 군데 나옵니다. 육적인 자는 육신만 중시하여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 6:27, 고전 5:5, 고전 15:50-54, 갈 6:8, 벰전 1:23, 벰전 3:18, 벰전 4:6, 벰후 1:4)

아담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시작된 지 6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초등학교 교과서만큼도 못하게 권위 없이 가르쳤으니,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3만 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보고 배웁니다. 자연이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새겨져 있는 모든 근거를 중시하여 밝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것은 36억 년이 되었다 하고, 사람의 역사는 300만 년으로 보고, 사람이 불을 사용한 것은 40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계산하는 것과 학교에서 계산하는 것이 너무 다르니,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신앙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면 아무 모순도 없고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6000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중시하여 종교를 시작했다고 우리는 이미 배워 왔습니다. 역시 한 분밖에 없는 선생이 되신 주님께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말씀도 주께서 선생이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20대 초반에 배운 것입니다.

‘인류 창조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되었다’, ‘6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다’, ‘태양이 멈췄으니 얼마나 기적이나’, ‘고기가 돈을 가지고 다니니 얼마나 신기하냐’고 합니다. 만일 고기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식으로 성경을 푼다면, 요즘은 경제가 불황으로 어려우니 고기 잡으러 다니려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기야 성경을 제대로 못 풀고 살아도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주님만 메시아로 믿고 살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가 있기에 모르는 자는 예수님 시대와 같이 아는 자를 배척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다 잘해도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못 믿고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 봐요.

그런데 성경을 현실과 실제와 어긋나게 이치에 맞지 않게 가르치면 믿어지지 않고 억지가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이치에 맞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고, 천국도 이와 같이 이치에 안 맞게 꿈에 불과한 세계인 것처럼 생각되니 확신이 없어 안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이치에 합당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더 이론에 맞게 가르치는 이방종교나 우상종교로 가거나, 아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문제들이 생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종교와 우상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현실에 확인된 것과 다르게 가르치면 ‘메시아도 인간들이 믿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어찌 절대적인 진리야?” 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면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천동설을 주장했을 때 성경을 썼기에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고 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면 됩니다. 진리는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이해를 하고 확실히 알게 될 때, 제자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제자들도 주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틀리게 가르칠 때, 저 또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게 되었고, 성경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수없이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 성경이 왜 현실과 다르냐고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여 주님이 쉽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고로 주님도, 성경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생이 되어 성경뿐 아니라 내 인생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어 믿게 되었고, 영계도 가르쳐 주어 그 때부터 의심 없이 배웠습니다. **“후에는 너도 선생의 선생이 되어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모두 배워 이치에 맞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같으니 의심 없이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살과 가죽이 하나 되어 부활하여 군대가 되듯이, 과학과 종교 이론이 하나 되어 말씀에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육적 지식이요, 종교는 영적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체되어야 곤고함이 없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성경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 다 가르치니 많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닐 필요 없다고 하면서 모두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가르치기보다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문도 실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니 학교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문의 세계로 갈 자라면 그쪽만 몰두하여 배워야 되지만, 자기가 인생을 살 때 꼭 필요한 것만 배우고 잘 살면 됩니다. 자기 사명인 것만 전문적으로 배워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기가 쓰여지는 데 대하여 배우고 유능하게 쓰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겠지요?

인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 없는 것을 배우며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기본은 다 배워야 되지만, 전문 과목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자나 배우면 됩니다.

잘 안 믿어질 때는 성경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배우면 하나님도 주님도 잘 믿어지고, 더욱 의심 없이 절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과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니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요 5:39).

성경을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복잡하게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머리 아프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떤 성경의 의문이나 안 믿어지는 것도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섬리사에는 표적적인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모르면서도 주님은 믿고 사랑하며 지금까지도 교회에 잘 다닙니다. 정말 표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배울 것을 제대로 바르게 배워야 모르는 자들을 속 시원히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의심스럽고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면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확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었는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조금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 더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니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혀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지만, 나는 현실과 비교해서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서인

지 나는 도저히 안 믿어져 주님께 오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에 숫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믿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해석했지만, 나 좋은 대로 믿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했기에 그같이 산 것이다. 이 시대로 계산하면, 이 시대 사람이나 그 시대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계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6000년 전에 나이를 계산하는 것과 달력이 나온 후에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옛날에 달력이 나오기 전에는 달을 보고 계산하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000년 전 옛날 아담 때는 하루해가 짧았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 일생은 약 100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돈 많은 자들은 오래 살기 위해 불로초와 산삼뿐 아니라 별의별 좋은 약을 몇 천 만 원, 혹은 몇 억씩 주고 사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더 살아야 100년을 조금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너만큼은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할 하나님의 사람들도 100년 조금 넘게 살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건강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부지런히 몇 배나 더 쓰면서 살면 몇백 년 산 것이나 다름없고, 일도 몇백 년 한 만큼 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살아도 90세가 넘으면 늙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져서 먹지도 못하고, 매일 죽는 길을 급히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20세 전의 매일 커 가는 자들을 제외하고, 20세가 넘은 자들은 매일 늙어 갑니다.

예전에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던 젊고 멋있고 예쁜 남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선교를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이 죽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내 그 목사님들인데 늙어서 젊고 멋있고 예쁜 얼굴들이 아저씨같이 아줌마같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더 예뻐 보이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세히 보면 날마다 늙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아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창문을 꼭 닫아 놓았어도 자세히 보면, 바람이 늘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시간, 시험하고 확인해 볼까요?

얇은 휴지 한 장을 꺼내 보아요. 자~ 그럼 넓이 2cm, 길이 10cm로 쪽 찢어서 손으로 들고 있어 봐요. 바람이 불지요. 휴지는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정말 바람은 불지요? 공기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든 것을 살피면 확인이 됩니다. 성경도 자세히 보면 잘못 가르치는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세히 민감하게 보아야 영계도 알고, 주님이 스쳐 가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도 민감하게 들어야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 100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보다 젊었을 때, 더 늙기 전에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가면 주님이 틀어서 망신만 당하고 자기 자리를 뺏기고 후회만 합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50세만 넘으면 늙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도록 살면 오래 산다고 했고, 70세가 되면 장명이라고 하며, 요즘의 90세 먹은 자같이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더 오래 사니,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몸 관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인생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과 같이 인생의 이론을 잘못 가르쳐 주면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되고, 신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인간만 중심하는 인본주의 가르침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가르치고, 신의 존재를 시인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잘못 가르쳐 주니 잘못되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사는 미국이나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등 기타 기독교 선진국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도록 잘 가르쳐 주었기에 잘살고, 문화예술도 번창하고, 사람들도 사회도 20~30년 발달되어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신교가 들어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가르쳐 주었기에 미신신앙과 우상종교에서 모두 벗어나 이같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대화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교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불교라고 하면 말도 않고, 기독교라고 하면 “정말?” 하면서 우러러보며 좋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평가됩니다.

성경도 인생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더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것은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말씀에 불을 붙여 비전을 심어 주지 못하니 믿다 말고 세상 사랑과 물질과 명예에 빠지고, 곤고함을 해결 못 하고, 말씀이 이치에 안 맞는 것과 같이 미래의 천국도 의심하며 메시아의 존재도 인간이 믿어 만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빠져 드는 세상 유혹들을 관리하며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서 인생길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불을 비춰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발의 등불이 되도록 강하게 비춰 줘야 되고, 희망을 얻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의 희망으로 여기며 살게 해 줘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각각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 인생길을 바로 찾아 살게 해 줘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사고가 온전해져 스스로 잘하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가르쳐 주면 사망으로 가게 되고 생명길을 잃게 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천국과 지옥을 앞에 놓고 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겨 모두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주님도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안 믿습니다. 지구 역사만 해도 45억 년이라고 배워 그 사고가 머리에 꼭 찔는데, 7일 만에 창조했다면 믿지를 않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라 어쩔 수가 없지만, 성경을 풀어 주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의심하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실상은 인간들이 의심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루를 인간의 날 1000년으로 계산해도 창조 7000년입니다. 7000년이 7일보다는 더 믿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안 믿을 때는 더 이해되도록 자세히 설명하면 다 믿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할 때 하늘나라까지 창조한 것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창조된 것과 지상이 창조된 연대가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에는 하늘나라 천국을 창조한 것에 대해 한 절도 나오지 않고, 천국에 대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주와 지구 창조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주세계와 하늘나라 천국을 같이 창조했다면 하늘나라의 존재 연대도 우주의 기원과 같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는 신령한 세계요, 다음은 육 있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상상도 못 하게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것을 오늘은 조금이나마 알고 지나가고, 다음에 더 배우겠습니다. 물과 불이 없으면 사람만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과 돌까지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랍비시요, 곧 참선생이십니다. 고로 근본을 가르쳐 주시며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속 시원하게 배워야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섬리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며 “이같이 해. 저같이 해.” 하여 문제가 생긴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 공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공금을 마음대로 내주거나 쓰게 하면 안 됩니다. 공금을 내준 자도, 쓴 자도 책임 지고 흠 없이 해야 됩니다. 공적인 일에 책임을 맡은 자는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누구든지 공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하늘의 돈은 귀히 아깝게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삭개오는 사람의 돈을 부당히 쓰고 안 갚을 때는 4배를 갚겠다고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눅 19:2-10).

잘 가르쳐 잘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지구촌을 자주 오고 가신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늘 쳐다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라. 성경의 약속대로 할 때가 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 충만하고, 주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안녕.

<2009년 1월 25일 주일말씀>

진리와 증거의 영, 성령

본 문 요한복음 15장 23-27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명절로 인하여 이동하느라 바빴지요?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은 음력으로 설을 씁니다. 명절 때문에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시니 항상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없다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것 없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님은 기쁨의 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날 슬픈 날이 있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은 각종으로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고향과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외롭게 명절을 맞았는데, 올해는 한국에 들어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되지요?

본문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 육신이 제자들과 이별하게 될 것을 아시고, “걱정마라.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도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무고히 많은 미움을 받아왔다. 실상,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저들은 내 아버지께서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도 미워했느냐?」 하면 「언제 감히 미워했나이까?」 할 것이다. 이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미워한 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니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고 말씀하신다. 내가 저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한 무지와 죄를 말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죄 없으려면, 온전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보았어도 미워하는도다. 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연고 없이 무고히 나를 미워하였다 함이 응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 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 하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너희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함은 그때를 당하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앞날에 있을 일과 과거에 당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어 일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는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보내어 일하라고 한 자를 누가 미워하면,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대로 제자들과 이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님을 자세히 증거 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메시아임을 더 확실히 알게 해주었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증거 하게 하여 더욱 사명감이 불타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까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이루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2000년 동안 이루어오셨고, 주님도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상상도 못하게 모든 자들에게 역사해오셨습니다. 각 나라, 온 세계 각 개인에게 행하신 일은 너무도 많고 많아서 세상 어느 누구도 다 말할 수 없고, 각자 자신에게 행해주신 일들도 자기가 죽는 날까지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고, 모든 자들에게도 다 증거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가정·민족·세계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이며, 또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를 도왔다는 성구는 찾아볼 수 없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주었다는 성구도 없지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도우시고, 그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듯이, 이 시대 우리들도 사랑해주시며 역사해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도왔던 자들도 함께 하여 이 시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도 각 나라와 개인들을 돕고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과 각 민족에게 성경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이 역사해 오신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도 돕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해 봐요. 그동안 각 개인·가정·민족에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돕고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인지 회상해보기 바랍니다. 알면 더 역사해주십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전쟁의 날이나, 환난의 날에나, 죽음의 날에 돕지 않았으면 호흡을 하는 자들이 없고, 살아있는 자

들이 없다.”고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음의 날과 전쟁의 날과 환난의 날들을 감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 24: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까지 도우시고, 그 생명들을 생각하시어 고통과 죽음들을 감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가정과 민족과 세계 환난의 날을 위해, 또 자기 환난의 날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민족도, 섭리도 자기같이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나 민족이나 섭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걱정되는 일과 환난이 있으면 자기 걱정과 환난으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과 각 가정과 나라들을 위해 역사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면 다른 자들도 깨닫고 알게 되니, 지난날들을 열심히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하는 해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거나,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멀고 먼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작은 일도 큰일도 돕고 신경 쓰시는 하나님, 사람보다 더 가깝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원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말하지 않으면 못해주고, 아예 관심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막연히 믿고 조금만 알면 이는 마치, 세숫대야에 들어가 목욕하는 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가정과 각 개인들을 돕고 함께 해주셨는데, 도움을 받은 자가 모르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 받고도 죄를 지은 자가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생명에 관한 것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야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일, 주님 자신의 일을 하듯이 행해 오셨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더욱 함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공중에 바람이 지나가듯 아무도 막을 수 없이 행하십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들이나 세리들과 창기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사는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는 자들과 희망 없이 가난 속에 굶주리고 혈벗은 자들과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주며, 구원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사망권에서 나오고, 고통 받는 데서 건강하게 되어 자유로운 영혼과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같은 일을 우리와 모든 자들에게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시고, 또 직접 행하기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들이 위험할 때 항상 구원하시고, 건강문제나 고민·걱정·염려를 당한 자들을 이끌어내 주시며 영으로서도 밤낮으로 작고 큰일들을 도우시며 바쁘게 우리들을 관리하십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일순간에 오셔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오시지 않고도 옆 사람을 통해 돕게 하시고, 자신에게 깨닫게 하여 이기게 하시고, 수천 가지 방법으로 돕고 행하십니다. 이같이 돕고 함께 하는데도 인생들은 늘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소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큰일은 도와준 것이 금방 생각나고 깨달아 알게 되지만, 작은 일은 도와줘도 잘 모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와주었으면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다 큰 것으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서 돕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혼자 방길을 갈 때 꼭 누구를 보내줘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사람을 보낼 수 없는 처지라면 자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심으로 도우시고, 천사도 동행하게 하십니다. 또 어느 때는 거기 있는 자를 통해 돕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는 힘드네 자기를 위로할 자가 없어 힘들어 할 때 깨닫게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내.”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꿈으로 보여 걱정이 안 되게 해주시고, 어느 때는 한 입 먹을거리를 주면서 주님이 챙겨주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해당되게 돕기 때문에 별 표가 안 납니다. 작지만 그 환경 때문에 그만큼 밖에 못 도와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 때문에 그만큼 밖에 못 도와주었어도 해결되니, 작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껴고, 이에 해당되는 말씀을 받았어도 말로 깨우쳐주기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 한 번 더 이야기해주겠습니다.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도 포도가 있을까?’하고 숲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때가 지나 반쯤 물기가 빠진 마른 포도송이 몇 개를 찾아 따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너무 양이 적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환경 상 더 이상 포도를 찾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따라 주시는 것이니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을 두고 1시간 동안 더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마른 포도 한 알을 더 찾지 못했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없어서 더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최고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철이 지나 마른 작은 포도를 찾아 먹게 했어도 그 환경에서 최고로 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같이 환경 따라서 주기에 작은 것을 주었어도 큰 것으로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심정 모르면 주님께 붙은 지체가 아닙니다. 지체는 같이 느낍니다.

-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들으면 모두 주님의 사랑에 가슴 뜨끔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극적인 어려움 속에 정말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보내던 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생각도 없이 살 때였습니다.

내 그릇에 밥과 국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을 떠주는 아주머니가 국을 세 번, 네 번 저었는데 건더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고깃국이었습니다. 다시 저으니 수제비만한 고기가 한 덩이 뒀습니다. 그것을 내 국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저어 봐도 더 없구나.’하는 소리가 번개처럼 선연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심정의 소리였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갖다 놓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를 사랑하는데 내 심정 아느냐. 내 앞에서 무슨 한숨을 그리 쉬느냐.”**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더 건더기를 찾을 수가 없구나.”**하셨습니다.

참 지극히도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주었으니 주님이 그같이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도와주니 걱정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때부터 나의 한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 그 아무도 네게 안 와도, 내가 오면 최고다.**’하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날 「지극히도 챙긴다.」는 시를 머릿속에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지극히도 챙겨주십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만입니다. 챙긴다는 말을 깨달았지요? 작아도 큰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주시어 그 환경에서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과 각종 처지에서 최고로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그같이 해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이 이같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이같이 역사하신 주님의 심정과 사랑을 모르는 자들도 이제 알았으니, 감격하며 주님에 대해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대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챙겨주십니다.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모래밖에 없는 사막에서는 모래 중에 큰 것 하나를 쥐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왕 도울 바에야 돌을 주워 주시지.’합니다. 큰 것을 받아야만 큰 것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받고도 고맙다고 하지 않고 작다고만 합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도우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때 더 크게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같이 행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주관권이고, 불만과 한숨과 원망들은 사탄 주관권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나 죄 값 받는 거야.’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까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은 독약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도 절대 그같이 생각 말아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같은 마음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여 순리적으로 자기도 자기 것을 얻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남처럼 자기도 똑같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성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하고 살면 됩니다. 자기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자기에게는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해야 되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 크게 하고, 자기는 적게 받아 작게 밖에 못한다고 비교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 되어 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요, 지체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가르쳐주었으니 알고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로 역사하시나 행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인같이 챙기시고,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이 돕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십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실 때와 같이 성경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십니다.

다 말할 수 없으니 4복음서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소경과 앓은뱅이들과 각종 병으로 아픈 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낫기를 구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낫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시대도 그러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키려 심혈을 기울이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챙기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사랑해주시ပါ.

주님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주님의 일을 자기 일같이 행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직접 행하며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아끼고 돌아보며 화평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부지런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겸손으로 행하며, 형제들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마음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그같이 사는 자들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라. 뜻이 있어 받아야 되고, 또 환난을 받는 만큼 돕고 함께 한다. 이 후에는 다 갚아주고, 그로 인하여 신앙이 더 빛나게 되고, 생명 길을 가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며 가야 앞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 너희가 고통 받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믿고 어느 때든지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자포자기 하고, 믿음을 파선하게 됩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이 해주심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쓰이는 지체입니다. 항상 주님께 쓰이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신앙으로 붙은 지체이면, 주님의 마음과 같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두 형제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한 형제가 있는데 그는 주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형제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미워하며 화평하지 못하게 지냅니다.”

이에 주님은 “내게 붙은 지체가 아니므로 그러하다. 나는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같이 한다.”고 하며 노여워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심적 고통을 받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차라리 내 맘에 들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심정 상한 한 형제를 다시 만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주님을 믿으면 잘할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고, 주를 믿으면서도 그같이 사는 형제와 같지 않고 잘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또 당신이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자기 심정을 잘 안다며 교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붙지 않은 자는 구원에 지장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 붙은 지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하나 되어 붙은 몸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주와 같이 휴거되며 데려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전 15:22-23)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이, 주님께 붙어 하나 된 자가 그와 함께 휴거되어 새로운 세계로 가서 살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수천 가지라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화목과 축복을 주시며,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시기 질투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용서치 않는 자, 외모만 치중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자, 의심하는 자, 차지도 덤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행한 대로 대해주십니다.

주님이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고 소문이 안 났어도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를 내가 안다. 살아서 동행하며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니,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다 안다. 천사들을 통해 보고 받고 알고, 또 직접 보고 안다. 그러니 죽도록 열심히 하라. 사람이 못 챙기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꼭 챙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는 일들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두고두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하여 더욱 새롭게 생각하고 주님을 대하여 감격하게 되고,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증거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시 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쳐주실 때 **“성부는 아버지 같고, 성자는 아들 같고, 성령은 어머니 같다. 모두 한 성령 안에 하나다. 성부, 성자, 성신은 한 지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존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이 증거하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감동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행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명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해줍니다. 각각 나누어 행하시지만, 어느 때는 주님이 다 행하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과 영은 각각 존재하고 있지만 일체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도 일체이시면서 각각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 있는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님은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행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감동을 일으켜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고,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의 신입니다.

모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보았지요? 성령에 감동되면 가기 싫는데 가고 싶어져 시동이 걸린 자동차처럼 쉽게 갑니다. 가보면 생각한 것이 행해집니다. 성령은 감동 감화의 존재이십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달음으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몸이 뜨겁게 되는 징조가 일어나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의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영의 세계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있는 곳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령의 역사로 사도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은 순교 당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옳고 그른 것을 담대히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둘 때 그들이 사도들을

모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같이 표적을 행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버린 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룬다. 예수는 너희가 버렸지만, 건축자들이 가장 귀히 쓰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는 내가 제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자동차를 쓸 수 없듯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움직이고 행동해야 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충만하게 받을수록 자기 스스로 원하여 행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감동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론을 가르쳐주면 행하는 자만이 직접 겪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져 느끼고, 마음에 깨닫고 몸에 와 닿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모두 가르쳐주었으니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싶으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서 불을 붙이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을 붙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때가 되어야 하니, 사도시대 때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라.”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도시대 때도 때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답답하고,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화목하고, 서로 유유상종하며 돕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서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서 행하게 되고, 가슴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벅차고, 능히 행해지고, 믿어지고, 낙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과 일체되고,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빛이 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일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어떤 자에게 감동을 주어 대신 행하게 해주십니다. 원수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여 자신이 말로 해도 안 될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감동시켜주어 이루게 해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이외에도 여러 수천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곤란한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마음을 녹여주고 감동시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크게 혹은 작게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태풍처럼, 어느 때는 봄바람처럼, 어느 때는 실바람처럼 은은히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자기 심령의 기준에 따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역사하십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함께 하나 되어 일할 때, 전도할 때, 성경 볼 때, 말씀을 다시 읽어볼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모든 일을 할 때 마음과 몸을 뜨겁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또 홀로 외로이 인생의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두려움 속에 처했을 때, 고독하고 쓸쓸할 때, 걱정할 때 성령은 바람처럼 스쳐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13절을 보면, 주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의 부모가 낳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저리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사람들이 보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났습니다. 이는 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육을 통해 말씀하심을 모두 기이히 여기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인 고로, 잘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으로 생각해야 잘 안다고 했습니다.

영에 대해 모르면 영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의 은혜도 모릅니다. 육에 대해 모르면 육이 제대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지 못하듯이, 영도 그러한 것입니다. 육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두고 살게 했습니다. 육이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천국을 천국으로 두고 살게 했습니다.

영에 대하여 배우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과 일체되어야 변화를 받고 더욱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하였으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더욱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느끼고 알듯이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을수록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성령님도 더욱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도 잘 찾는데, 성령을 잘 찾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찾으며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시켜 달라고 구해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도록 감동시키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있는 일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행하게 하십니다. 믿어주고 잡아당겨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안 갈 곳은 못 가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심력과 원심력 작용을 합니다. 돛에 바람이 달아 배를 밀어 끌고 가듯이, 마음의 돛은 성령의 바람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명하여 “가라”고 한 일들이 나와 있으니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 10:19-20)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행 11: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밖에도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행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역을 받으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아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여 그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의 사명을 받고 행하면 성령같이 감동을 주며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되면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선을 벗어나면 악이 되듯이, 진리를 벗어나면 탈선자 사탄의 주관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지체가 되고, 그의 사역자가 되어서 쓰여집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바로 알고 행해야 사람들도 걱정 안 하고, 성령님도 걱정 안 하고, 주님도 하나님도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행하시므로 자기가 행할 뿐이니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쓰이는 자입니다. 칼이 부엌에서 사람 손에 쓰여지면 무도 자르고 김치도 자르며 각종 재료들을 필요한 대로 자릅니다. 그렇다고 칼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알고 살아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제대로 성령께 쓰이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 쓰여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일을 하여도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더 역사하시고, 더 온전한 말씀을 깊이 퍼부어 주십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일체가 되어 여자가 남자 하는 일을 똑같이 하여도 지체로 볼 때,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하는 일을 똑같이 하여도 지체로 볼 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치요, 진리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이같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다 해도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도 가지 말고, 나와 같이 행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옆에서 살려고만 해도 주님이 마시는 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시는 똑같은 쓴 잔을 마시고 그 삶을 감히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그릇과 사명에 따른 쓴 잔을 마시고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쓴 잔을 똑같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요,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주를 따라가면서 겨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겨우 형제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갈 뿐입니다.

이를 알고 행하면 큰 자요, 따르는 자를 잘 인도할 자요, 복 있는 자요, 주님이 좋아하고 기뻐할 자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주님을 등 뒤에 따르게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이신 주님은 이 사명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은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 가르쳐줘야 세상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아 아버지가 되어도 자기 자녀 앞이나 아버지이지, 자기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들일 뿐입니다. 이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배우고 알라고 하시고, 모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시고, 주께 묻고 자세히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으니 배우라.**”고 하시며 “**내게도 배우고, 세상 상식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닫고 배웠어도 성경에 그같이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보고, 이치에 합당한지 확인해보고, 실천하고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30절을 보겠습니다.

(마 11:29-30)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쉽고 가볍습니다. 고로 주님처럼 잘 가르쳐주면 쉽게 잘하게 됩니다. 어렵게 가르쳐주고, 자기 주관과 이상한 변론과 이론을 붙여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 먼저 비유를 말해주시고, 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쉽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비유를 잘못 들어 말하면 본 성경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왔으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다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모르고 살고 있으니 더 자세히 듣고 더욱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야 더욱 시대의 눈을 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고, 자신도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축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1월 28일 수요일말씀>

성령 충만

본 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고, 성령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예배 마치고 마지막 축복기도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원한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주시고, 어려움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쪼개서 본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부모 같은 존재자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같은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그의 몸을 통해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심과 능력과 구원해주심을 보게 하여, 우리는 가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내가 보낸 자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했습니다.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요 14: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사도요한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요한의 영이 천국에 가서 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 행한 잘못된 일도 말해줄 것이니, 너희도 나를 증거 해야 할 것이다.(요 15:26-27)”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모두 허전하고 쓸쓸하고 슬픔에 젖어있을 것을 아시고, 주님은 가시기 전에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흠어져서 각각 행하지 말고, 먼저 모여서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것이니 기다리라.”고 미리 가르쳐주시어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 때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의 몸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모인 장소에 가득하게 되었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자들이 모두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했습니다(행 2:1-13).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고, 능력을 받게 되었으며, 주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예언도 하고, 병들도 고쳐주며 각종 기적의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이 떠나고, 희망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며,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많은 징조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행 2:14-22, 욥 2:28-29).

이 꿈들은 평소에 꾸는 사몽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 꿈입니다. 또 평소에 하던 말과는 다른 신기한 방언이 나왔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언도 하는데 이는 어떤 통계에 의한 예언도 아니었고, 신접한 자들이 예언하는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 보았습니까? 받아본 자들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요? 몸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떠져 영의 세계의 일부가 보이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영도 보고, 천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강한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각종 은혜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꼭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무 때든지 목적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슴이 뜨겁든지, 신체의 한 부분이 뜨겁게 느껴오든지, 마음이 감동되어 생각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 즉시 몸에 느낌이 오고, 기쁘고, 행실의 변화가 오고, 말의 변화가 와서 방언이 나옵니다. 담대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성경을 보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받으면 평소처럼 지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보아야 평소에 얼마나 육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몰랐는지, 무지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온전한 진리를 행하시고, 마귀와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들을 멸하시고, 또 각종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쓸 수 없어서 못 썼지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당세 에도 예수님은 말씀의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고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이 불 세례, 성령 세례가 되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깨끗케 해주며, 각종 은혜를 받는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크게 행하신 것만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말씀대로 해야 되었건만, 크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표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느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8).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부어 주시어, 주님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 하듯이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며 사탄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물리쳤습니다. 또한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표적이 일어나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받고 새롭게 변화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섭리사에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신앙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신앙을 지켜오며, 수많은 표적과 체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으나, 문을 닫아 놓은 방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못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바람은 이리저리 불며 이동합니다. 확인하려면 휴지를 찢어 공중에 매달아놓으면 공기가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때도 있고, 평소에 방 안에서나 실내에 공기와 바람이 이동하듯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은혜 가운데 움직여도 잘 표가 안 납니다. 신경 안 쓰면 모릅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야 알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몸이 뜨거울 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욱 더운 것을 느끼지요? 겨울철에는 춥지요? 추울 때도 태양이 비춰주기에 얼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육과 영이 사망으로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고 은혜 속에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더욱 받아 강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통역을 해야 알기에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면서 알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인데, 이때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국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이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지혜의 말씀을 하고,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고, 어떤 이는 병을 고치고, 어떤 이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이는 영을 분별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주었습니다. 모두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각자 개성과 사명대로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

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같이 역사하실 때와 은혜를 주실 때는 외면하고, 끝난 후에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선생이 없을 때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행해오셨습니다. 같이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줄 때 받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받아야 됩니다.

더 표가 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하고 바라는 대로 더욱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32절을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훼방하며 거역하는 것이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방해하는 죄를 ‘훼방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성령에 충만하여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훼방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거역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헤치는 자라고 하시며 말씀 끝에 성령 훼방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다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도 같은 뜻으로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는 뜻에서 한 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를 받아 깨달으려고 간구하며 성경을 세밀하게 보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영의 말씀과 육적인 깊은 말씀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지식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흠도 점도 모순도 없는,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행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사망에서 나오게 되고, 영생의 세계, 곧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비진리를 주장하던 유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이단의 주관권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사도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도, 선지자들도, 주님도, 제자들도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전한 진리를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를 전하여 받아들이는 곳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새롭게 변화된 세계가 되고,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사도시대 때나 사람들은 진리를 불신하고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좋아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사망을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차가운 교회, 차가운 자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늘 잘되고 부흥이 됩니다.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따르는 자들도 은혜를 받고 잘하게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먹는 음식과 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매일 음식을 먹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결국 며칠 못 가서, 몇 주 못 가서 힘이 없어 영이 쓰러지고, 육적으로 삶이 흘러가 쓰러지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전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의 말을 직접 들어야 더 힘을 받고,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특별한 사연이 없는 자는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음식만 먹지 말고, 더 먹고 싶으면 간식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간식은 잘하는데, 신앙의 간식들은 안 함

니다. 설교 외에도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자는 자기 신앙의 무기가 녹이 슨 것으로 꿈에 보일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차린 것 없이 별 맛도 없는 것을 먹는 것으로 꿈에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을 들어도 생소하기만 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해야 능력이 있고, 듣는 자들에게 더욱 은혜를 주게 됩니다.

선생도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또 일을 해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지식과 지혜의 잠언을 쓰고, 말씀도 하고, 각종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며 간증하고 말하지 말고, 현재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외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자도, 자신도 성령의 은혜에 더욱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행하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으로 치우쳐 살게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틀에 박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행해야 뜨겁게 살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하여 살게 됩니다.

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한 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 더욱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경 써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병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는 자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많은 자들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에 불이 붙어 모두 전도하여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더 깨닫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자신들이 책임을 하여 행해야 됩니다. 각자 받고 느껴야 됩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라, 자기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다가도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떠나가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해야 다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체적으로 조건을 세우며,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도 주님도 역사하시어 병도 낫게 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본인이 그만큼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기계의 전기와 같아서 기계에 전기를 연결하면 소리가 나면서 가동되듯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 작용이 일어나 시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도, 행실도, 마음도, 손끝도 뜨겁게 되고, 가슴이 뜨겁게 되며, 아픈 곳도 뜨겁게 되고, 주위가 훈훈할 때가 있고, 감동되고, 잊어버린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느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 안 가게 되므로 사고 당할 것을 당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조심하게 되고, 차 조심하게 되고, 계단을 조심해야겠다는 영감이 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나서 기도해주게 되고, 거리에서 만나게 되어 신앙 이야기를 하여 다시 교회에 오게 하고, 문제를 알게 되어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것으로 우연처럼 행한 것 같으나, 은밀히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를 깨닫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행하실 때, 깨닫고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이치에 따라, 수천수만 가지로 행하십니

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냥은 내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써 같이 대화도 하고, 평소에도 서로 이야기하며 통하고, 시대 일을 하자.”**고 하며 성령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각종 이론과 변론을 하며 복잡하게 가르쳐줄 것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주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로 같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도 지켜주시고, 전능자 하나님도 지켜주십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듯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동안도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버리시겠습니까? 농사짓는 주인이 농사를 다 지어 가는데 곡식들을 버리겠습니까? 과수원 주인이 열매가 익어 가는데 과수원의 열매들을 버리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식들을 잘 길러오다가 중간에 버리고 달아나겠습니까?

옛날보다 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니, 우리도 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혹시 나 버렸나? 혹시 주님이 나 잊었나? 관심 없나? 성령님의 영이 떠나셨나? 혹시 우리가 잘못되었나?’하며 의심으로 대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자세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여 주님이 멀어졌어도 일순간에 가까이 와주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가까이 해주십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도 심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직접 이야기해보면 다릅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과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주님도 그러하심을 알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행해야 맘에 들어 하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성대로 역사하시기를 빕니다.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 더욱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

<2009년 2월 1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뜻

징조와 표적과 계시

타고난 자

본 문 마태복음 26장 25절, 에베소서 1장 3-5절

마태복음 19장 11절, 마태복음 25장 15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새롭게 변화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려면,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새롭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가정으로나 민족으로나 세계나 경제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두 걱정도 많고 고생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기 힘드니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개인, 가정, 민족, 세계, 섭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사람들은 ‘축복’ 하면 선뜻 물질, 명예, 돈, 잘사는 것, 잘되는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듯이 보이는 물질세계에 뿌리를 박고 삽니다. 그러하기에 ‘축복’ 하면 물질, 명예, 돈, 사랑, 환경 등 각종 좋은 것들만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다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면 하나님의 근본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다시 말씀해 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뜻이 같았다면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이 세상은 벌써 이상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토록 가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고, 영의 몸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뜻’이란 무엇인지 빨리 이해하려면 자기 입장과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자기 뜻이란, 자기 생각을 말하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에게 각자 자기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목적, 마음, 계획, 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를 근본으로 하여 사람이 지상에서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펴면서 살다가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대로 그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재능대로 사명대로 타고난 대로 해당되는 뜻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뜻의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그에게 자기 생각과 원하는 것을 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말기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은 다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뜻을 이루며 사셨고 그 뜻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워 놓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중심으로 자기 뜻만 이루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선 먹기에는 곱감이 달지만 후에 가서는 많은 손해가 오고 많은 고통도 받게 됩니다. 하

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시며 사랑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입에는 쓸지라도 절대 믿고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것만 좋아하면 당뇨병에 걸리듯이 인생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 욕도 영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해야 사망의 생각에서 변화를 받아 사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아예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 하나님이 보낸 중심인물들과 선지자들, 사사들과 사도들은 모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천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를 가도 자기 뜻대로 살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늘 슬퍼하며 끝내 그같이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과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사는 자들은 정말 문제가 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해 놓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었으면 실망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자기 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자기 홀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잊지 말고 살아야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을 위해 6000년 동안 섭리를 펴 오셨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섭리역사란 하나님의 뜻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알지 못하니 주님을 중심하여 살면서 항상 그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중시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잘해 주셔도 자기 원하는 것과 다르니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자신의 뜻과 같으니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손해가 가도 해를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억울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다 잘되게 됩니다. 잠깐의 과정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과정은 힘들기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그제야 이해하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결국 되어질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을지언정 자신과 만민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 뜻대로 사니 환난과 핍박과 갖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그 같은 핍박과 고통들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도 없고 편하고 매일 기쁘기만 하고 외로움도 쓸쓸함도 없다고만 생각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역사를 보면 중심인물들도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사도들도 그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록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토록 받고 사는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영원한 상속이었습니다. 더 높은 산에 오를수록 힘들고 더 많은 공적을 쌓을수록 더 수고가 있듯이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더 수고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도 그같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같이 살다가 결국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같이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영광입니다.

(롬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로 배워야 됩니다. 뜻을 모르기에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판단을 꼭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상황과 처지를 겪어 본 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겪어 보고 배운 자만이 압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이 큰 죄다. 그 짓값은 그에게로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만,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말씀을 중심하여 더욱 깨닫고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뜻대로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돈, 권세, 땅과 집, 보석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도 귀하고 큰 것입니다.

“뜻대로 행치 않았으면 궁궐을 지어 놓았어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뜻대로 한 것은 초가집이라도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인 섭리가 큰 것을 알기 바랍니다. 소돔 땅은 그 시대 최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심판하여 없애 버리셨습니다. 뜻이 있는 세 명만 피하여 살게 했습니다.

식물처럼 땅에 붙어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좋아합니다. 뿌리는 땅에 박고 머리는 하늘로 솟아 열매를 열듯 하늘의 뜻에 정신도 행실도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그 영혼은 뿌리 뽑힌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모두 노트에 멋있게 그리고 크게 ‘뜻’자를 써 보세요. 모두 빠짐없이 다 써 보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축소시켜 쓴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구원이 들어 있고 천국이 들어 있고 진정한 사랑이 들어 있고 절대적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긍휼함과 위함과 용서, 기도와 감사, 기쁨과 희망과 승리, 힘과 능력, 표적과 징조, 건강과 소원, 성공과 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하며 환난과 핍박, 억울함과 고난, 굶주림과 가난, 아픔과 고통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귀하고 중하니 하나님의 뜻을 마치 사랑하는 애인처럼 주님처럼 큰 보물덩어리처럼 생각하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뜻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며 다윗이 찬양했듯이 우리를 뜻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멀더라도 뜻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노아도 모두 거쳐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에스더도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도 모두 험하지만 뜻길을 통과하고 갔습니다.

하나님도 뜻있는 곳을 꼭 거쳐 가십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퍼실 때도 지금도 뜻있는 곳과 뜻있는 사람들에게 거쳐 가시며 역사하십니다. 뜻은 마치 설계도와 같아서 뜻있는 곳에 각종 징조가 일어나고 각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고통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길을 가셨고, “너희도 힘들지만 이 생명의 뜻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길은 하늘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시켜 말씀하시고 단상의 말씀으로 외쳐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시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뜻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영원히 누릴 것을 받게 되고 그동안 역사해 오신 하나님과 주님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100배 1000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세상에서 형통하고 천국에 가서 사는 데까지 뜻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확인하고 정확히 보고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뜻이 아닌데 뜻인 줄 알고 행하여 물질 손해도 많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뜻을 알았으니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통해 보이시며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십니다.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통해 또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좋고 나쁜 것들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화재나 참사를 당한 것이나 각종 좋고 나쁜 징조들을 여러 번씩 거듭 보여 주십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치고 죽은 자들을 보게 함으로 ‘잘못하면 너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고 누구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깨닫도록 계시하시며 ‘이를 교훈 삼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그 원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구경하는 데서 끝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좋고 나쁜 것을 보면 깨닫고 충격을 받으면서 며칠 동안은 긴장하고 조심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곧 긴장을 풀고 깨우쳐 준 것을 지키지 않는다. 고로 사고를 당하고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혹은 죽기도 하고 평생 고생하기도 하고 몇 년씩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좋은 것을 깨달았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너 이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자원하여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영의 몸이라고 하지만 지구촌에 사는 68억의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빠짐없이 날날이 다 말해 주려면 어떻게 관리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같이 복잡한 방법으로 관리하시겠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방법으로 인생들을 관리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할 것들을 징조로 보여 주시고 지구촌의 사람들이 순간 모두 깨

달도록 계시하며 말씀하십니다.

계시인데 남이 당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관심 없이 본다면 자기가 사고를 당할 때 피하지를 못합니다. 차를 타면 차 조심, 불을 다룰 때는 불조심, 길을 갈 때는 길 조심 하며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일순간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시며 각자에게 민족들에게 책임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 주시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전달하십니다. 어떤 징조나 뉴스로 보이지 않으실 때는 양심이나 마음으로 직접 깨달도록 성령으로 순간 역사하십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함으로 그에 해당되는 자에게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계시하십니다. 천동 벼락을 치면서 일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중심인물들에게도 만물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직접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두 에스겔서를 읽어 보아요.

주님도 설교하실 때 만물을 들어 직접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이치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만물이나 사람들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살아도 자기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놓고 한 건을 꼭 깨닫게 해 주기 위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표적을 보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깨닫고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너는 이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도 현금도 강제로 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모든 일을 할 때 자원하여 스스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길을 제대로 온전하게 가게 됩니다.

사랑도 의무적인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사명도 의무적으로 하면 억지가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란 소리를 말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선한 행실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스스로 하는 자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자입니다. 자의로 하는 자는 영원까지 갑니다.

반드시 만물로 사람들로 보여 주는 표적을 통해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이 직접 해 주신 말씀이니 알고 근신하고 생명시하여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계시는 믿는 자에서부터 안 믿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뉴스를 통해 만물을 통해 그때그때 표적과 사건을 보여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아 알면 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주님도 표적을 보이시며 깨달도록 전달하셨는데 우리가 행치 않으면 표적을 보아도 관심이 없어서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다가 일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섬세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옆의 사람들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을 만큼 했습니다. 말씀한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활 속에 항상 실천하며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지나가면 생각했을 때만 도움이 되고 맙니다. 마음에서 잊으면 실천하지 못

합니다. 늘 생각나도록 적어 가지고 다니며 매일 외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희생시키시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죽지 않게 행하라.’고 하신 뜻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스스로 이같이 된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 원해서 이 같은 길을 가느냐. 이는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원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깨닫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 속에서부터 남자로 여자로 아예 타고난다. 이와 같이 인생들도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다. 부모의 성격도 형상도 타고나듯이, 사람의 재능도 하나님의 모든 예정함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만물들도, 산도, 강도, 냇물도, 바다도, 지구도, 해와 달과 별들도 애초부터 타고난다. 어떤 사명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처음부터 예정되어 태어난다. 선지자를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뜻을 정하시고 구세주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미 메시아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낸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사 11장). 결국 메시아는 이새의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되어 메시아로 타고났습니다.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사도들도, 중심인물들도, 왕들도, 영웅열사들도 모두 그 소질과 재능과 사명들을 타고났습니다. 타고나서, 개발하고 노력하여 만들어 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타고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력하여 만든 것 같고,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아예 타고난 주님과 같이 같은 이치로 모두 타고납니다.

바울 선생도 이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정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통도 기뻐함으로 받았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 성경에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갈 1: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하며 큰소리를 칩니다.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절대적이라면 모두 원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모두 명예를 얻지 못하고 왜 모두 재벌이 되지 못하며 왜 모두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 일까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도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모두 자기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냥 놔두었으면 다 주권자가 되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해 놓고 각각 재능을 주어 재능대로 만족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자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사람을 못 따라가겠지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각각 피부색과 성격과 얼굴과 몸의 생김새를 타고납니다.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각각 개성미가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나는 것이 각각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각자의 육과 영에게 입력시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질서 있게 살고, 개성대로 즐거워하며 자기만족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같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것을 노력하여 이루어지게 한 후에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인간의 노력 99%라고 하

였지만 하나님께로 타고나지 않았으면 99% 노력했어도 발명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타고나고 예정된 자가 99% 노력하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99% 노력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구조를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임신하여 배가 볼록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자로 타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욥 38:2)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저마다 노력하면 결국 타고난 것이 개발되어 그로 삶을 찾아 성공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타고나서 노력하여 된 것인데,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못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통의 길도, 역경의 길도 사명과 함께 타고나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으로 못 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들 하면서 살지요? 타고난 자는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여 하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타고나야 그 재능으로 소질로 정신으로 하게 됩니다. 서로 타고난 것을 가지고 개인, 가정, 민족, 세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명을 맡지 말고 재능대로 해야 됩니다. 목회가 재능인지 직장생활이 재능인지 강사가 재능인지 전도하는 것이 재능인지 행정 보는 것이 재능인지 집회 다니는 것이 재능인지 총성이 재능인지 정치하는 것이 재능인지 사업하는 것이 재능인지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여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타고난 자, 예정된 자는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달리 봅니다. 생각도 행함도 다릅니다. 타고났는데 책임을 못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는지 궁금하여 사주팔자를 보고 싶고 신앙상태가 심하게 안 좋을 때는 점이라도 봐서 은근히 알고 싶고 자기에게 무엇이 예정되어 태어났는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손금도 보고, 어떤 때는 ‘왜 나는 별것도 없지?’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며 관상을 볼 때도 있지요?

‘새해가 되었는데 올해 운수가 어떨까? 은근히 꿈으로 오려나? 누가 말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재미로 살짝 사주팔자 한번 볼까?’ 하면서 정말 보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사주팔자 보면서 조잡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크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물으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예정하고, 재능들을 주어 세상에 나게 하였으니 내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게 물으라.” 했습니다.

기도하며 물어보세요. 하지만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숨기십니다. 지금은 타고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될 일을 미리 알아도 안 되고, 만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은밀히 여건을 틀어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각 지체들이 온몸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각 지체들처럼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 몸을 위해 각 지체로 작고 크게 예정되어 태 속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떤 자는 눈에 확 띄게 눈, 코, 입, 귀와 같이 태어나고 어떤 자는 머리같이 태어나고 어떤 자는 손같이 어떤 자는 발같이 태어나고 어떤 자는 살같이 부드럽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뼈같이 단단하게 태어나고 어떤 자는 뇌같이 태어나고 어떤 자

는 속에 있는 지체처럼 사명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 중에 작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그 사람은 불구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체 중에 크고 작은 어느 지체를 막론하고 다 귀합니다. 사명이 작다, 재능이 작다, 작은 예정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작게 보면 안 됩니다. 발이 머리처럼 커도 안 되고 손가락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를 모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작다. 혹은 크다.’ 하면 이치에 어두운 자입니다.

가정으로는 교회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민족적으로 볼 때나 세계적으로 볼 때나 서로 존중히 여기고 위해 주며 그 지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와주면서 상호 존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사명을 주고 예정하여 재능들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 놓고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도 이같이 원하시기에 그에 따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못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며 주 안에서 예정을 입은 대로 그 재능대로 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노력하여 개발하지도 않고, ‘나는 특별히 타고난 것이 없다.’고 불만 불평하는 자도 많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것은 각자 개성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타고나고 예정된 것을 개발해야 무엇을 타고났는지 알게 되고 타고난 것을 가지고 살아야 개성대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나게 눈에 띄게 재능을 개발하여 행하는 자들만 쳐다보고 부러워 말고 자기에게도 재능을 주고 예정해 놓으셨으니 그것이 자기에게 맞고 기쁘고 만족한 것을 깨닫고 노력하고 개발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예정 속에 노력, 타고난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말씀 속에 신약시대가 예언된 것처럼 구약 같은 육신에게 자기 삶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육적 형상을 보고도 그의 삶과 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너무 왜곡되게 사용하고 말합니다. 고통 받고, 환난 받고,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대로 가는 삶입니다. 다 타고난 길, 예정된 길 가느라 그 같은 고통의 길을 가게 되고,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되고, 사망길도 가게 되고,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웃고 울며 간다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 모시고 사랑하며 금지와 자부심과 희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 충격 받고 좋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안 좋다, 별 볼일 없다, 손금도 별로다, 태몽도 별로 안 좋다 해도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님 믿고 살면 구원받고 영원히 잘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주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손이나, 얼굴이나, 발바닥에 예정이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새겨 있고, 영에도 새겨 있습니다. “저는 사주팔자가 안 좋으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운을 타고난 자는 영원한 운을 타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천운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운을 타고난 것이 작은 일입니까? 한 주권자를 모시고 섬겨도 대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운을 타고났으니 그 얼마나 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자는 땅의 식물처럼 땅 귀한 것만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얼마나 대운을 타고난 것인지 하늘나라에 가 보기 전에는 근본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일부밖에 모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 주는 것만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썩어 없어지는 육체만 사용하고 끝나렵니까? 영원히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위대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의 기대가 어긋나 낙심하도록 주님은 틀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사는 자는 사주팔자가 최고 좋은 자입니다. 이는 예정된 것이며 타고난 재능입니다. 고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타고나게 한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야 운이 따릅니다. 그동안 섭리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과 예정한 것들을 위해 청춘이 늙도록 개발하고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과거에 눈앞이 캄캄할 때 새벽별이 비추이며 아침이 오고 낮이 왔습니다.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며 낙심 말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형제들에게도 말해요.

타고난 자는 다른 사람이 노력해도 못 따릅니다. 기도, 몸도, 소질도, 재능도 예정된 것이니 못 따라가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것들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황금 보따리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더 부지런히 행하여 새롭게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와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2월 4일 수요말씀>

타고난 자만 할 수 있다
그 재능대로 맡겨라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로다

본 문 마태복음 19장 11-12절

마태복음 25장 14-15절

요한복음 7장 28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마태복음 19장 11-12절을 보면, 주님은 “아무나 못 하고 타고나야 하늘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로부터 타고나야 하고 둘째,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자란, 수절(守節)하는 자로 주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말하며, 하늘을 위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듣고 누구든지 자기 행위와 사명에 따라 교훈도 삼고, 계시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여도 그 이야기를 통해 ‘너도 깨닫고 이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이야기를 하여도 각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말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각각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대로 깨우쳐 주십니다. 생

각나게 해 주십니다. 깨닫고 생각나게 해 주었으면 행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힘에 겨울 때는 간구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깨닫기 어려우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 줘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달라서 꼭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인간이 10년 동안 말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더 귀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들어도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최고의 학문이고 지식이며 최고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것은 ‘갑’ 이야기를 두고 ‘을’ 이야기만 해 줍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는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사슴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하여 신경 쓰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알면 안 될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먼저 깨닫고 들으라고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말하면 30초나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같이 한마디만 하면 모두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할 테니 들어 봐요.

『인간은 타고난다.』 총 일곱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달으려면 간단한 잠언으로 하여도 80개 이상이 나옵니다. 설교로 하면 2~3시간을 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해 오신 일을 말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해야 되고, 현실에 그같이 일어난 일과 그동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이해가 됩니다.

지식이 있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모르는 자에게 잘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려면 한참 걸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지루하다 하지 말고 잘 들어요. 별것도 아닌 책 한 권도 읽으려면 날을 새워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앞날을 알고, 자기 소질과 재능과 관상과 예정까지도 알고, 자기 사명을 아는 데 거울이 됩니다. 나침반이 되고, 저울 역할을 해 주고, 컴퓨터 역할을 해 줍니다.

『인간은 타고난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보따리입니다. 한마디가 아니고 한 보따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지만 너희에게는 한 보따리다. 풀어 보면 한마디 속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 표>

인간의 천 마디 말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합니다. 많이 배운 자는 문법을 써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흔히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님도 꼭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한 시간 기도한 후에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하시든지, “알았어.” 하시든지, “낙심 말고 기도 열심히 해.” 하시든지, 혹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꼭 필요한 한마디만 하십니다. 어느 때는 “사랑한다.”, “자세히 보아라.”, “꼭 해야 된다.”, “나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타고난다.』 이 말씀의 보따리를 끌어서 잠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징조와 계시다.』 이는 하나님도 주님도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징조를 보이며 계시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보따리를 끌어서 잠언으로 말씀하겠습니다.

1. 인생은 남자로 여자로 타고나듯이 타고난다. 타고나지 않아도 노력하여 되지만, 이는 남자가 여자의 일을 하고 여자가 남자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2. 사람이 하늘로부터나 땅으로부터 타고나서 저마다 노력하고 개발하여 그같이 된 것이다. 그러나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여 그같이 되었다고 한다.
3. 무엇을 타고났는지, 살다 보면 자기 소질과 재능과 사명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끌어 행하신다. 하늘을 위해 홀로 사는 것도 타고나야 하게 된다. 억지로 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아라.
4. 늙기 전에, 늦기 전에 자기가 타고난 것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노력하며 저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
5. 타고난 것이 자기에게 복이다.
6. 만물들도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돌로, 흙으로, 나무로, 동물로, 식물로 타고나고 물과 불로, 사람으로, 하늘로, 땅으로 처음부터 타고난다.
7. 산을 바다로 만들기 힘들고, 지구를 태양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그대로 개성대로 더 개발하여 쓰는 것이다.
8. 냇물을 강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강물을 냇물로도 만들 수 없다. 그 개성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였으니 내를 좋아하면 냇가로 이사하여 살고, 강을 좋아하면 강가로 가서 사는 것이다.
9. 명승지도, 아름다운 산도, 좋은 자리도 태초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를 주인들이 개발하기도 하여 모두를 위해 쓰게 하는 것이다.
10. 사람도 저마다 하늘의 사명과 땅의 사명을 가지고 과학·예술·종교·정치·학문적 인물들로 각각 태어난다.
11.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12. 인간은 저마다 각 지체와 같이 타고났기에 다 귀하다. 어느 지체도 자기만이 최고라고 할 수 없다.
13. 하나님은 타고난 자를 불러서 역사를 시작하신다.

14.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아예 타고났다. 이미 내정(內定)하시어 그 환경에서 기르고 만들어서 때가 되니 역사를 시작하셨다.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중심인물들도 마찬가지다.
15. 앞날을 알기 위해 인간이 선지자를 만들 수 없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간이 메시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태초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16. 만일 인간이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다 된다면 모두 재벌가가 되고 명예자와 권력자가 되었을 것이다.
17.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게 해 놓으셨다. 타고난 자 안에서 살게 하셨다.
18. 자기가 타고난 대로 해야 체질에 맞고, 좋고, 만족하고, 온 세상 지체의 형상이 맞아 전체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세계가 된다.
19. 타고나서 노력하여 행하는 자만 부러워 쳐다보며 살지 말고, 자기도 지체 중에 한 지체로 태어나듯 타고났으니 자기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20. “손발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 쭈시고 아프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온몸을 위해 살아야 한다. 발은 온몸을 싣고 다니는 역할을 평생 해 줘야 된다. 손은 온몸을 씻어 주고, 평생 일하면서 먹여 주며 헤쳐 나가야 되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큰 사명자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겨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지체도 그러하고 사람들도 그러하다.
21.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싶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되고 싶어 안달들을 한다.
22.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들을 위해 울며 살아야 되고, 자기 할 일 때문에 지쳐서 울고 산다.
23. 모세는 하나님께 “왜 이 백성들이 할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타고났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애굽에도 가고 바로 왕에게 가자. 가서 내 백성들을 빼내 오자.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하셨다.
25. 타고난 자는 뛰어나서 날고 긴다.
26. 타고난 자를 쳐다보아라. 자세히 보아라. 너무나도 기발하다. 잘하기도 한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수 쳐 주고 칭찬도 해 주어라.
27.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시고 잘하셨는지 그 업적을 보아라. 건성으로 보고 행치 말고 자세히 좀 보아라. 무슨 말씀을 어느 단계에서 하셨는지 생각 좀 깊이 하고 성경을 읽어 보아라.
28. 타고난 자를 따라가려고 눈, 코, 입을 고쳐 대고 온몸을 고쳐 댄다.

29. 자연석을 가지고 인조석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하락한다. 자연히 놓고 본다면 자연히 좋아한다.
30. 강변 돌 아래쪽을 위쪽으로 얹어 놓으면 아래쪽도 반질반질하게 되듯이, 사람도 운동하고 만들면 온 지체가 아름답고 멋있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듯이 만들어진다.
31. 타고난 자는 어디 가도 타고난 재능대로 살아간다. 주님도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32. 자기는 타고난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다 타고났으니 개발하고, 또 자기가 이미 행하고 산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여라.
33. 타고난 자, 사명자가 그 위치에서 해야 잘되고 형통한다.
34. 타고나고 예정되지도 않았는데 욕심 부려서 일을 하면 힘들고, 수고만큼 얻는 것도 없다. 주님도 타고난 재능대로 말기라고 말씀하셨다.
35. 어떤 자는 남자를 여자로 개발하여 쓰고, 또 어떤 자는 여자를 남자로 개발하여 쓴다. 이와 같이 타고나지도 않고 예정에도 없는 것을 개발하며 인생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남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듯이, 한계에 이를 때는 못하고 말게 된다.
36. 타고난 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만한 생각과 능력이 있기에 하게 된다.
37. 타고난 자도 어렸을 때는 크게 못 한다. 때가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못한다고 구박 말아라.
38. 인생 억지로 살지 말고 타고난 대로 살아라.
39. 사람이 타고난 자기 것도 다 먹지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가져다 먹으면서 자기 타고난 것을 썩혀 버린다.
40. 사람들은 타고난 것인지, 스스로 개발한 것인지 잘 모른다.
41. 타고난 자는 재능도 모양도 다 갖춰졌으니 이런 자를 찾아서 더욱 개발하여 쓰도록 하여라. 타고난 자라도 커야지 하니 먼저 하는 자가 무시 말아라.
42. 타고난 것을 예정으로, 혹은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43. 타고난 소질과 재능대로 쓰지 않고 달리 쓰면 만족하지 못하여 제 갈 길로 간다.
44. 저마다 타고났는데 자기 타고난 것만 시키면서 쓰면 싫어한다. 타고난 대로 각각 일을 시키면서 서로 한 덩어리

가 되어서 하면 잘한다.

45. 타고난 자를 주인들이 찾고 다닌다. 써먹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을 보내 주어 귀히 쓰게 하신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예비하여라.

46. 재능을 타고나도 길이 없으면 못 가니, 길을 닦으려고 타고난 자는 놀지 말고 어서 길을 닦아라.

47. 어떤 사명으로 태어났는지 기도하여라. 하나님과 주님께 물어보아라. 쓰려고 말씀해 주시고 은밀하게 이끌어 주 기도 하신다.

48. 자기가 타고나고 예정된 사명이나 잘하여라. 고달프고 힘들게 남이 타고나서 하는 것까지 하지 말아라.

49. 외모 보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그가 해야 너에게도 유익이 되니 칭찬하여 도와 주어라.

50. 어떤 자는 잘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꼴을 못 보고 경계하며 같이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무지한 연고다. 이런 자는 주님이 다 아시고, 준 것 마저 빼앗아 가신다. 이 잠언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행하여라.

51. 섭리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감독자이시니, 제 것같이 하지 말고 타고난 자를 앞세우고 해야 책임받지 않는다.

52. 타고난 자는 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주께서 낮추신다.

53. 타고난 자, 사명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책임도 받고, 고통도 주신다.

54. 타고난 자는 그것에 타고나지 않은 자를 위해 서로 살아 주어야 서로 잘되고 기쁘고 만족하며, 하나님도 주님도 좋아하시고 보람 되게 여기신다.

55. 타고난 자는 그것에 타고나지 않은 자를 위해 살도록 하였으니 시기도 질투도 하지 말고, 돕고 함께 해야 자기 유익이 많다.

56. 타고난 자, 예언된 자, 사명자, 그가 행해야 속 시원하게 한다.

57. 월명동도 지역적으로 타고나고 예정되었기에 개발하니 빛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느 곳보다 귀히 쓰여지는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58. 마귀로 귀신으로 타고난 것도 아니고 예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을 하고 미움 받느냐. 마귀 짓은 마귀나 하는 것이다.

59.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그같이 했는데 사람들은 왜 자기 식으로만 하느냐고 꾸짖고, 막고, 비판하고, 악평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다.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60. 타고난 자, 예정된 자, 사명 받은 자끼리 서로 이해해 주고 도우며 살아야 된다.

61. 타고난 자, 사명 받은 자는 애굽의 느고 왕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고 행한다. 그러므로 이를 거슬러 행하면 요시야 왕처럼 생명의 해를 받아 목숨만 잃게 된다.

62. 타고나고 사명 받고 예정된 자가 자기 위치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마치 밥그릇이 화장실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는 자가 제자리에 갖다 놓아 제대로 쓰여지게 해야 된다.

63. 어떤 자는 돌로 태어났는데 모래가 없다고 다 부수어 모래로 사용한다. 모래가 필요하면 바닷가의 모래를 가져다가 써야지, 돌을 깨서 모래로 사용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돌도 버리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 버리지 말고 잘 파악하여 개발하여 써야 된다. 그 방면에 타고난 주인이 개발해야 된다.

64. 자기를 개발해 달라고 아무에게나 말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억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개발해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깨달고 개발해야 된다. 또 그것에 타고난 자에게 맡겨야 된다.

65. 말씀도 시로, 잠언으로, 설교로, 혹은 노래로 타고나 사명을 한다. 분별하여 전해 줘야 빛이 난다. 또 보고 듣는 자도 감동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66. 사람들은 자연도 아름답게 타고난 것이 좋다며 구경 다닌다.

67. 사람도 타고나고 예정되고 사명 받은 자가 뛰어나게 보이고 감동도 주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여, 원하는 대로 예정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다.

68. 저마다 그 몸과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고 타고나게 하여 예정하여서 사명을 주셨는지 자세히 보고 깨달고 알아야 된다.

69. 혼자 다 타고나면 인생 100년 짧아서 못하고, 사명 기간 20~40년 동안에는 못한다.

70. 어떤 자는 예쁘게, 어떤 자는 귀엽게, 어떤 자는 아름답게, 어떤 자는 우아하게, 어떤 자는 고귀하게, 어떤 자는 세련되게, 어떤 자는 귀티 나게, 어떤 자는 풍성하게, 어떤 자는 양전하게, 어떤 자는 순진하게, 어떤 자는 솔직하게, 어떤 자는 지혜롭게, 어떤 자는 지적으로, 어떤 자는 인자하게, 어떤 자는 덕 있게 태어난다. 어떤 자는 날카로운 인상으로, 어떤 자는 험하고 무서운 인상으로 태어나 강한 곳에 쓰이기도 한다. 또 근엄하게, 튼튼하게, 무게 있게, 가볍게, 믿음직스럽게 태어난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우같이, 염소같이, 야수같이, 사슴같이, 늑대같이, 뱀같이,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독수리같이 각종 만물들의 특성같이 태어나 그 인상을 준다. 길고 짧게, 동동하고 훌쩍하게 각자 다 특성들이 있고 장단점들이 있다.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쓰여지면 최고다. 생긴 것보다 꿀맛이면 좋아하고, 생긴 것보다 개떡 맛있으면 사람들도 주님도 안 좋아한다.

71. 관상, 수상, 인상, 사주팔자를 보면서 여기저기 눈치 보며 다니지 말아라.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실로 나타나고, 인상으로 나타나고,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셨다. 영경귀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겠느냐. 모두 사람의 인상과 형상, 마음 상과 정신 상태를 보고 팔자를 봐 준 것이다. 고로 “고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72. 하나님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속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다.

73. 사람의 눈을 잘 보라고 하셨다. 다윗의 눈이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왕으로 추천되었다.

74. 사울 왕은 인상이 교만하고 과격하고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관상이었다. 덩치는 좋은데 덩치값을 못했다. 또 과거 은혜를 잊고 현실만 보고 행하는 상이고, 사람들을 볶아 먹는 상이었다. 그렇게 살다가 운이 돌아가 자기 성질을 남한테 다 화풀이하고, 더 화풀이할 자가 없으니 자기에게 하고 죽은 팔자였다. 그리고 자기 혼자 다 하는 독재주의 사주팔자였다. 부러먹기 좋아하는 관상이라 다 부러먹고, 혈기 나는 대로 참지 못하고 칼이든 돌이든 집어 던지는 인상이 얼굴에 껍 차 있는 자였다. 정말 타고났다. 그런 주권자에게 백성들이 놀려 살았으니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다.

75. 다윗은 순수하고 착하고 온순한 상이었다. 손재주가 있어서 물맷돌로 잘 사용했고, 문학을 타고나서 시도 잘 썼고, 예술을 타고나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뤘다. 노력 형, 꾸준한 형, 부지런한 형이었다. 키는 작고, 용맹스럽고, 눈은 별같이 빛나고, 영웅적 기질을 타고났고, 카리스마 성격도 타고났다. 얼굴은 평화로운 상에다가 잘 웃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영적인 것을 타고나서 땅보다 하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기질이 탁월했다. 또한 국운을 타고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평화롭게 이끌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타고나서 끝까지 실천한 위대한 자였다. 가문도 잘 타고났기에 가문도 빛나게 된 것이다.

76. 정신도 육도 타고난 자가 있고, 겉은 뛰어나게 타고나지 못했으나 정신을 뛰어나게 타고난 자도 있다.

77. 말은 타고났는데 행동은 타고나지 못하여 말만 잘하는 자도 있다.

78. 너도 나도 장단점을 타고났다. 좋은 것만 사용하고 개발하여 쓰고 나쁜 것은 버리자.

79. 타고난 것을 해야 개인·가정·민족·세계적으로 빛나고 하늘까지 가게 된다.

80.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낸 주님을 믿고 살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한 무지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 뿐이다.

‘사람은 타고난다.’는 말씀을 잠언으로 들으니 이제 타고난 것을 깨닫고, 예정과 인간의 책임분담과 노력과 사명까지 깨달았습니까?

몇 마디만 더 한다면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말은 믿지 말아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타고났고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타고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발달되지 못했기에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원숭이처럼 짐승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타고났기에 점점 역사가 흐르니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타고났기에 어릴 때는 비슷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원숭이가 사람을 못 따라오듯이, 그것에 타고나지 못한 자가 타고난 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달걀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말도 다 헛소리입니다.

또 ‘사람이 하면 다 된다’는 말을 합니다. 99% 노력도 하지만 타고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결국 자포자기하게 하고 실망만 시키는 말입니다.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다단계 일을 하여 돈 번다고 하다가 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타고난 만큼 하면 됩니다. 못다 쓰고 죽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때 혼자 먹다가 못다 먹고 버리지 말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 먹고 도우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각종 환난과 고통과 난리가 일어나며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타나니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인자가 온다고 하시며 인자는 ‘하나님이 인 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징조와 계시에 대하여 핵심만 잠언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1. 인간이 책임분담을 못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세계적으로 징조를 보이신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물질과 경제와 돈만 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성경을 통해 말세의 현상과 징조들을 말했다.
3. 죽기 전이 개인의 말세다. 죽기 전 말세에 돈과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와 같이 세상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주님께 연결되어 하늘나라에 가서 땅의 것보다 수십억만 배 좋고 완전하게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
4. 하나님은 사람이 징조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보이신다. 그러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다.
5. 하나님도 주님도 어떤 징조를 일순간, 혹은 장기간 보이시며 사람이 직접 고통도 겪게 하여 깨우쳐 주어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게 하신다.
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고로 겪게 하고,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신다. 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된다.
7.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개인의 말세를 맞은 자다.
8. 하나님을 사랑하고 좇으면 거기서 말세를 맞지 않고 연속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진행하게 하신다.
9. 하늘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께 다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10. 재물과 돈과 세상에 깊이 체질들이 배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사랑하고 행하려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환경

과 여건을 틀어 오래도록 물질의 가뭄이 들 것을 알아야 된다.

11. 주를 사랑하며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범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기 때문이다.

12. 주님은 징조를 보이며 말씀하신다. 일순간에 보여 주어 일순간에 온 세계 68억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성령의 감동과 양심으로 사람의 정신에 전달하신다.

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징조를 안 보이시고도 일순간 양심으로 마음으로 깨닫도록 전달하신다.

14.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거나 주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실 것만 기도하며 바라지 말아라. 인생들 거의 모두에게 마음으로 징조를 보게 하면서 응답하신다.

15.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각각 개성대로 말씀하시고, 여건을 틀고 감동을 주면서 행하심을 깨닫고 살아라.

16. 꼭 먼 데까지 가서 앞날을 가 보고 그제야 믿고 행치 말고, 가 보지 않았어도 미리 깨우쳐 준 대로 믿고 행하여라.

17. 말세란, 인간들의 때가 끝났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때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때다. 경성하고 깨어 준비하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봐야 된다. 그래야 주를 맞는다.

18. 사람을 통해 하는 일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외에도 많지만 삶 속에서 더 공부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축 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2월 8일 주일말씀>

인생의 삶과 영원한 길
자기 뒤편에 있다

본 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4-15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듯이, 이 시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 귀를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또한 자신들도 근심하지 아니하므로 애간장을 태우며 속을 안 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도, 없는 자들도, 10대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근심·걱정·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또 선생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지,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별의 별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합니다. 그런 자는 쉽게 놓고,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의 병까지 들게 됩니다.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곧 고치는 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보낸 나 예수를 절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안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주님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해서 무엇을 해주시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믿어라.**” 말씀하심에 따라 의심 없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 따라 의지가 생깁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에 따라 구원도 달라집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인생에게 큰 힘입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닌 메시아이니 절대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잘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절대 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렵게 되면 ‘내가 할 일이야.’하고 자기가 하려고만 합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해주실 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믿고 살았는데 안 되었다고 낙심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얻는 길’입니다.

삶속에 고통·염려·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그 뜻대로 해주실 것을 절대 믿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처소’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늘나라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처소, 곧 각자의 집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실 처소를 직접 만들러 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과 같이 “약속대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 책의 저자를 통해 확실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세히 책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도 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 바이지만 천국은 큰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이며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히 8:5)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세상에도 사람마다 자기 집이 있듯이 천국에도 각자 집이 있습니다. 세상의 집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자기가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집은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 주님이 약속대로 예비하여 지어놓으십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아시고 뜻을 아시니 그에게 맞게 100% 마음에 들게 지어주십니다.

세상의 집은 돌, 철, 시멘트, 흙, 나무, 벽돌로 짓지만 하늘나라는 금과 각종 빛난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세상의 집처럼 값이 없고 빛도 나지 않는 허술한 흙이나 나무나 벽돌로 지은 집이 없습니다. 흙이나 나무나 벽돌로 지은 집에 살 정도의 사람은 아예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행한 대로 준다」는 말씀대로 주십니다. 금보다 못한 나무집이나 돌집이나 흙집을 지어서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한다면 천국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세계가 되고, 천국 같지 않으며, 그 세계의 일부는 이 세상과 같을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보석집과 같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빛나고 찬란하게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영이 빛이 나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은 가 봐야 알지…”하고 말하는 사람도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호리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 죽노라.”하고 말했습니다.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못된 성격과 성질을 죽이고, 혈기와 악한 마음을 죽이고,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죽이고, 육성을 죽이고, 사람의 생각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모두 그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제 성질대로 살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육과 영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체만 땅에 남고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지, 그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서 행했던 행실 그대로 자기 영체가 하늘나라에 가져갑니다.

고로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의를 행하여 천사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 죽으면 유전죄가 있어도 유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없어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잠재해 있는 유전죄를 범하므로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여 화평케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주안에서 천국같이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천국이 거의 좌우됩니다. 주님은 “**땅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못 가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불바다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볼 때는 지옥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예 주님의 말씀처럼 잘하여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갈 자들의 기준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일반 책 읽듯이 그냥 읽기만 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지식과 상식을 써 놓았고,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써 놓았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의 영원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천국을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명대로 사는지 말했고, 수한 전에 죽는 하늘의 뜻있는 자에 대해 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또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는데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확실히 계시해 놓은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과 같이 귀히 보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주님이 꼭 재림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날이 아주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어느 정도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직접 천국을 구경시키고 책을 쓰게 한 자들을 통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급히 하고 싶은 한마디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 정도와 같이 임박했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살전 5:3).

또 다른 말로 깨우쳐 달라고 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항상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임하기 전에도 성경에 이미 말한 대로 징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 너희가 쳐다볼 때 내가 임할 것이며, 너희의 마음과 몸을 마지막으로 단장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더니, 이에 주님은 **“너희가 알고 판단할 일이다. 하늘 편은 항상 계시나 징조를 보일 일이 있으면 보여 주기만 한다. 보고 깨달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징조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계획적으로 징조들을 보이는데 사람들은 답답하고 무지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계절에 따라 태풍이 불었구나.”, “지구 온난화 현상이야.”, “요즘 같은 때는 모두 돈을 사랑하니 경제 흥년이 들고 가뭄이 든 거야.”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징조들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징조가 무슨 징조인지, 너희 신앙의 급수대로 지혜대로 깨달으라. 내 말을 항상 심각하게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는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모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살전 5:1-5)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해산하기 전에 산모는 아픔과 고통이 와서 괴로워합니다. 임신했을 때의 고통은 많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 몸이 무거운 고통, 배가 나오는 고통 등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태 속의 아이가 나오려 움직이고 방향을 트니 아픈 고통이 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세상의 징조로 인하여 세상 모든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직접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시지, 절대 뒤바뀌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시지, 천둥 번개를 치면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대로 오십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만 알고 주를 맞을 것입니다.

(살전 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어느 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은 하나님도 나도 다 책임을 지고 이룬다. 그러니 꼭 성경대로 살아라.**” 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중심인물들이 말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책임을 지고 이루시니 꼭 성경대로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 고로 율법의 일정일획도 남김없이 다 이룬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깨닫고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혹은 ‘기뻐하라.’, 혹은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라.’, ‘혹은 형제를 사랑하라.’하며 자기 마음 상태와 행위에 따라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30개론 중에서 계시론에 나옵니다.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는 계시는 문학적 계시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특별계시에 속합니다.

어느 때는 만물을 자세히 보면서 성경처럼 보고 행할 때 만물로도 들려옵니다. 만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실체로 존재하게 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체이며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만물은 자연계시를 보일 때 사용합니다.

어느 때는 꿈을 통해 보이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환상·이상·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주님이 직접 환상이나 꿈으로 안 나타나도 상징적으로 다른 자로 나타나 어떤 상황을 보이며 말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재림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해놓지도 않은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며 유혹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속지도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에 올 자들을 위해 각자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들이 다시 온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저주지도 않았습니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흙이나 나무나 벽돌로 지은 하찮은 집 한 채씩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실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나 구원받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아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구원하고 남들도 구원해야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때 전하는 만큼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더 좋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더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가시면서 곧 온다고 하셨습니까? 사도들도 왜 그같이 말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재림을 쪼개서 보아라. 말씀은 항상 짝지어 한다고 말한 것을 깨달으라. 2000년 있다가 올 것인데 곧 온다고 하였겠느냐.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쪼개서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처음에는 몰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영으로서 육신 같은 실존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항상 같이 있지 않고 때에 따라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영으로 나타나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밧모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영계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실태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상상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실체가 나타나 보이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평생 보고 싶어도 못 본 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후에 1차 2000년 동안 나타나셨고, 또 제 2차 재림하십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죽은 자들은 영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하다가 주님을 한번이라도 보았냐고 물으니, 53년 살도록 딱 한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으니, 자기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수천억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얼굴을 보고 한시간만에 3천억에 해당되는 억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냐고 물으니, 금전적으로 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같이 해결된 것을 아느냐고 했더니, 아무튼 신기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될 일이었으니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은밀히 행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뼈저리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확실히 알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또 오셔서 돕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어려움을 도와주어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으로 알거나 사람들 때문에 된 것으로 압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보낸 자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해 주면 모두 자기 때문에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큰 죄를 짓게 되는 자입니다.

주님이 음성으로나 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작은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주님 꿈을 자주 꾸는 것으로 알고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예수님을 꿈에 보았거나, 자기를 찾아 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모두 옆을 보고 앞뒤를 돌아 봐요.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주님을 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느냐, 또 어떤 임무를 주셨느냐가 중요합니

다. 잘 생각해 봐요.

선생이 20대에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옛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게 되었고, 또 다시 만났을 때 월명동에 자연성전을 짓게 되었고, 붓을 주어 책을 쓰고 30개론을 받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큰 표가 납니다.

주님이 혼을 내려 오셨든지, 혹은 자포자기한다고 위로하러 오셨든지, 혹은 잘한다고 칭찬하러 오셨든지 주님의 발걸음은 정말 귀한 방문입니다. 진실로 감사해야 됩니다. 선생도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선생이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봐요. 3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집을 방문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니니 또 갈 것입니다.

주님을 꿈에서나 환상으로나 기도 중에 못 보았어도 오십니다. 그러나 영이시기에 와도 가도 모릅니다. 쳐다만 봐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모일 때 거의 나타나십니다. 한 명이나 두 명쯤은 볼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천사를 보내어 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한눈에 전 세계를 보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직접 교회에 나타나 왔다가 가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기도 중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홀로 위험할 때 동행하기도 하십니다.

직접 못 보았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못 본 자는 이와 같이 나타나심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만 못 보았지, 주님이 오신 것을 느낌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을 보겠습니다.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세상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제자와 선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인생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대로 살면 내가 간 곳에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행실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행하심이 길이었습니다. 그 생각하심이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지만 생각하고 좇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시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생을 따라가는 길이며 선생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이 어디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올바른 인생길과 생명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보면 길이 많습니다. 길로 가야 편합니다. 무고히 길을 막는 자같이 큰 죄인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길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길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길도 막으면 큰 죄입니다.

산길은 많지 않고, 절벽에는 겨우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길이 있듯이 주님은 인생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주님 자신의 길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멸망길은 넓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생명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은 적습니다. 주님을 찾도록 전도하여 그 길로 가게 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특히 ‘길’에 대한 목사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 봐요.

어느 날 큰 바위 산을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절벽을 내려다보니 도저히 생명이 위험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늦더라도 길을 찾아 길로 가야 된다. 그 절벽으로 내려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현기증이 나서 서있는데 “내가 길이다. 생명이자. 진리다.”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절벽에서 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그 절벽에서 뒤로 물러나 길을 찾으니 크고도 큰 바위 사이로 길이 보였습니다. 순간 쉽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길은 가까이 있는데 도마처럼 육적인 길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죽 길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인생길입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삶의 문제 속에 길이 되십니다. 삶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할까?’하며 다른 공리를 하거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되시고 말씀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같이 하라.”며 꿈으로나 상황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동원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절벽에서라도 길을 찾아 쉽게 내려오는 것과 같이 쉽게 길을 찾게 됩니다.

늦더라도 길을 찾아 가야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그제야 길을 닦으면 바윗길도, 산길도, 인생길도 고생만 하게 됩니다. 또 그 길은 올바른 방향도 아니며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생명길이며 삶의 길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닦듯 하지 말고, 이미 나 있는 절벽의 길과 같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진로는 뭐지?’하며 고민하지요? 정말 답답하고 걱정되지요? 주님께 백번이고 천번이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그 길이 아니면 바위 절벽에서 내려올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꼭 생명길이 되시는 주님께 붙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면 자기가 그 생명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선생도 여러분들을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께 모두 데려다가 자기 애인보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라고 묶어놓았으니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주님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준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 주님의 은혜를 잊고 현실에도 달라고만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 이 같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길이 막히면 급한 자는 가시덤불이나 잡초 밭이나 절벽을 헤치고 갑니다. 그러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며 10배나 더 힘들어 애를 먹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늦더라도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길로 가면 쉽습니다.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또 처음에는 안 되는 일도 끝에 가면 되기도 하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생들이 각자 삶의 막다른 곳에 부딪힐 때 급하다고 해서 자기를 중시하여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여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길로 가야 제 시간에 제 갈 길을 가서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길도 아닌 가시덤불이나 절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을 새롭게 닦아서 가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전쟁터에서 길을 잘못 들면 적들의 소굴로 가게 되어 많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신앙길과 인생길을 잘못 가면 사탄의 세계와 악의 세계로 가서 멸망과 실패를 맛보며 세상의 삶속으로 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따라가야만 자기 민족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악평하고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주님이 보낸 사명자들을 따라가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삶의 길에 대한 것은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늘이 틀어버려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은 욕심이 없는 길이며 공의와 화평과 사랑의 길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해주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시기 질투가 없고, 자기 사명에 만족하고 충실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가며, 약속을 지키고, 말조심하고,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으며, 악평과 이간질과 음모함과 거짓으로 거스르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무지의 길입니다.

겸손과 순종, 온유와 절제, 화평과 기쁨, 희생과 봉사, 전도와 가르침, 기도와 감사, 찬양의 일들이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외에도 손님을 대접하고, 없는 자를 먹이고 입혀 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형제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일들이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같은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번은 영계의 어떤 마을에 갔더니, 마을 청년이 바닷가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하면서 큰 바위 밑을 산짐승 오소리같이 파서 겨우 구멍을 뚫고 빠져 나갔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도 다 그 구멍으로 오소리처럼 박박 기어 들어가 흙투성이를 하고 가야되는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님이 삶의 길이니 주님을 불러 가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옆을 보니 바위 사이로 1m 넓이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가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마을에 살면서 왜 짐승같이 사느냐고 물으니,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자기가 바위 밑으로 길을 파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길을 두고 왜 사서 평생 고생을 하느냐고 하며 길로 가면 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연석을 많이 채취하는 자였는데 자연석을 보물처럼 숨겨 놓았습니다. 내가 자연석 전문가라고 했더니 잘 믿지 않으면서 자기 잘난 체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숨겨 놓은 자연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보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작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작품이 없어 내가 사갈 것이 없다고 하니, 김이 빠진 듯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힘들게 길도 아닌 길을 닦지 말고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영계의 마을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교훈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그 청년처럼 짐승 다니는 곳으로 다니며 힘들게 살지 말고 옆에 쉬운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목시입니다. 각자 인생의 삶속에 쉬운 길, 있는 길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쉽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이며 있는 길인 주님을 찾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간 길은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길이 되기도 하고, 손해의 길이 되기도 하고, 후회의 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월명동에 가서 길로 안 다니고 횡골, 가는골, 감람산에 다녀 봐요. 얼마나 힘든가요? 이미 다녀보았을 것입니다. 인

생길도 주님 떠나 다녀보면 상처투성이가 되어 결국 그 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자는 뱀과 짐승을 만나 사망길로 가게 되고 사탄들 속에 가게 됩니다. 사망길은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 어렵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길은 조금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많이 잘못 들면 오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고 길에서 서있기만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알고 가는 것이 좋았을 것이 라며 후회할 것입니다.

모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마다 타고난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10대이든 어른이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중심한 길을 가든지, 자기의 방법으로 길을 뚫으면서 가게 됩니다. 길을 뚫다가 힘들어서 못가고 늦어서 못가고 말게 됩니다. 이미 뚫아 놓은 길, 곧 주님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며 주님이 사람마다 허락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뜻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요 14:14-15)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셨듯이 또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여 받아서 쓰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우상이나 각종 신상들에게 구해서 받으면 우상들을 위해 일해 줘야 됩니다. 꼭 하나님과 주님께 구하고 받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자기를 위해 보람 있게 쓰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니 원하기만 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받기 원하는 자가 구해야 주고 싶지, 구하지도 않고 원하기만 하면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모두 구해야 됩니다. 개인의 것도 구하여 받아 풍부히 쓰고, 주님의 일도 풍부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할 테니 잘 들어 봐요.

오늘 영계의 한 지역을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옆에서 여기저기 맛있게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파서 먹는 곳에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먹느라고 바빴습니다. 같이 먹고 싶고, 또 조금이라도 주면 먹으려고 했지만 주지를 않았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내가 먹으면 부족하게 먹게 되고, 먹는 자들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각자 자기 몫이 있어 자기 것을 먹어야 양껏 만족하게 먹을 수 있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여기 먹는 데 있어 봤자 주지도 않지만 줘도 얻어먹는 거지같을 것이고, 또 내가 먹으면 모두 부족하겠고, 각자의 몫을 빼앗아 먹는 것 같아서 결국 내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 몫도 있다. 앞으로 가 보아라.”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저들도 있는데 내 것도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에 내가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산나물과 잡곡밥이 있고, 짜고 맵지 않게 만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내 몫인 것을 알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깨달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마다 자기 몫인 밥도, 옷도, 잘 곳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듯이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먹을 복도, 사명 복도, 입고 사는 복도, 집도, 환경도 주셨다. 그러니 자기 몫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곳에 가서 인생 푸념하며 곤란하게 하지 말고, 시기도 질투도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아라. 자기에 맞게 그동안 수고한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들이 먹고 마시니 누구한테 누구 어쩔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 자기 것이나 먹고, 입고, 자고, 누려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환난과 고통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때는 저가 찢값을 받는다고 하고, 환난이 지나고 그가 축복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며 어찌고저찌고 말들 합니다. 이는 못된 마음이며 마귀의 마음이니 다 고쳐야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은 영계에서 이 같은 현상을 보이시면서 섬리인들과 세상을 깨우쳐 주라고 했습니다. **“절대 남의 것을 넘볼 것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이유 붙여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하늘로나 땅으로 책망 받게 된다. 고통도 고생도 자기 사명과 자기 몫이 있으니 남의 것을 자기가 손대며 참견하지 말고 기도해주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섬리사람들의 모순은 자기 일이나 할 것이지, 사명을 받고 행하는 것인데 모르고 참견하여 일하는 자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수고하고 열심히 하여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자기도 끼어서 먹고 마시려 합니다. 그 사람의 것은 사명에 따라 따로 있으니 칭찬하고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섬리의 일을 할 때 근본도 모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며 제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보고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뜻대로 해 달라고 해 놓고,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주관을 주장합니다. 평생 그같이 하다 보면 구원길도 벗어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니 뜻대로 해 달라고 해야지, 왜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몰라서 사탄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잘되게 해주면 혈기를 부리면서 왜 이같이 했냐고 합니다. 오직 주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몫이 있으니 자기 것이나 챙겨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몫이 있는데 곤란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같이 하면 주는 자도 부족하고 얻어먹는 자도 부족하여 서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늦더라도 자기 것이 있으니 자기 몫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몫의 환난과 고통도 있고 각종 축복도 있습니다. 남의 것은 체질적으로 사명적으로 자기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 도>

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길이 되신 주님을 길로 알고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2월 11일 수요일말씀>

세상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다
주님 따라 영생길을 가기 위함이다

본 문 마태복음 21장 42절 (참고 : 시편 118장 22절)

요한복음 17장 14-17절

요한복음 10장 28절, 12장 25절

먼저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요한복음 17장 14~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에 세상이 나와 너희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다고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을 받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악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6~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하시며 「모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로 미움을 받고 갖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외식과 형식으로 믿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니, 이 길을 면케 해 달라고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모두 고통의 길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길은 영생이 없는 세상길이었기에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도 그대로 고통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영생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악하므로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늘길을 가게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영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무리 핍박하여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주님과 그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길과 세상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생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영생길로 갔습니다. 좁은 길, 곧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복음을 퍼면서 세상이 주는 고난·핍박·억울함·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자들도 그 고통에서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영생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명도 그 고통과 핍박에서 빠주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영원한 영생길, 하늘에 속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길, 곧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난길을 피하게 해 달라고 하였지만 누구 한 명도 그 고난을 피해 세상길로 가지 못하게 하여 주

님이 가시는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그 시대의 죄를 대신하였고, 따르는 자들도 죄가 없었으나 그 시대의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길로 갔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시며 죽음으로 영원한 영생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마 10:38-39)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대로 이 길을 가시는 목적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길과 억울한 길을 가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세상길로 가서 악에 빠지면 다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그 길은 주님이 가신 영생의 길로서 영혼이 살고 신앙이 사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므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같이 고통을 받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영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자신들의 죄값으로 그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땅에 있으면 싸워서 빼앗았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만 가셨습니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모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미워하는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이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버려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안 버리고 주님이 버리면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육과 세상에 속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해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가인이 선한 아벨을 미워하듯이, 세상은 언제나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핍박과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하늘의 것으로 보전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 요동함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원망 없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새 계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요동치 않음같이 모두 요동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자기 죄는 자기가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남아 자기에게 사탄이 역사하게 합니다. 사도들과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시대의 죄를 회개하였고, 요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회개시켰고, 예수님은 그 시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갇은 핍박과 누명으로 억울하게 하며 결국 죽음까지 내몰고 제자들을 핍박한 죄로 주후 70년 만

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역사를 보아도 엄청난 고통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들을 보시고, 의인 아벨을 죽인 죄부터 제사장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의 값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대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죄와 무지한 죄를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과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곧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루도 잊지 말고,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 정말 예비하고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비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사셨는지, 성경을 읽어도 그 근본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글로는 마음의 고통과 현실의 수많은 일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겪으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년 동안 계속 쫓기며 갖은 고난을 받으면서 뜻을 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은 고통들을 어느 시대 누구든지 받아 보아야 예수님 시대에 받은 고통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됩니다. 영생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가지 않으면 ‘왜 영생길이 이같이 고통스럽지? 이 길이 아닌가?’ 하며 가다가 맴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옥은 한순간도 못 견뎌니다. 고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도 영생길로 가야 됩니다. 악으로 인하여 잠시 핍박과 고통을 피하려고 세상으로 가면, 도리어 영생길을 잃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16: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야 영생길을 갑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세상의 고통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의 길을 가는 때가 가까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길로 와서 모두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은 고통을 겪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한 연고로 그 시대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본래 예정된 길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악하게 행함으로 고난의 구원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게 사는 자들을 보시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대로 받는 길로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선하게 살기 원하고, 또 구원길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키기 힘들다고 마음대로 사니,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막고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책임이 크고도 큼니다.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소돔 땅의 롯과 같이 죽음을 피해 예수님만 향해 굳건히 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 미련을 두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심판 때와 보통 때는 다릅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심판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길이라면 아무리 험하고 고생되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얼마나 위대한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을 가 보는 자만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사셨는지, 어느 시대 누구든지 그같이 당하며 살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모두 가야 되기 때문이다.”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5일 주일말씀>

천국을 위한 선한 싸움

본 문 요한복음 18장 35-36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어 싸워 이기게 함으로 나라를 세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 때도, 여호수아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대적하는 나라들과 맞서 군사들은 활과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 피를 흘리며 전쟁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여 승리하고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펴며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4000년 동안 이 같은 역사로 섭리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부터는 전쟁도, 육적인 싸움과 다툼도 절대적으로 못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일지라도 육적인 싸움을 할 때는 돕지 않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으로 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러 오지 않았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며, 화평케 하고, 서로 위해 주고 섬겨 주며,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때리면 맞을지라도 같이 육적인 싸움을 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고 해를 주고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싸우지 말고, 그들과 같이 미워하지 말아라. 싸우는 자들과 같이 싸우면 결국 패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빼앗긴다. 선으로 싸워 하늘나라를 세우고 빼앗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로 승리하여 빼앗아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전체가 그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가다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고, 또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지 않았다. 만일 이 세상 같았으면 이 세상식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면 육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개인·가정·민족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정신적, 육적, 물질적, 명예적으로 전심을 다해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믿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게 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법과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천국을 자기 나라로 삼고 살게 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베드로는 화가 나서 검을 빼 싸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싸워 줘도 선한 싸움이 아니면 못 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3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실상은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능히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싸움과 무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생영길을 목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와 선으로 살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환난과 핍박과 갖은 고통들을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자기 나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어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자가 없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생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며, 화평케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스르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대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함으로 선한 싸움을 하여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선으로 침노하여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사는 자들과 같이 마음을 먹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개인·가정·민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세상과 싸움을 합니다. 전쟁과 물질의 싸움, 권력의 싸움, 명예의 싸움, 혈과 육에 속한 싸움들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목적인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 사는 마귀들을 물리치는 싸움이며, 믿음과 선과 말씀으로 악에 속해 사는 자들과 싸워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예수님은 「모두 신앙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38-39). 세상을 포기해야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어 목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선으로 싸워 이겨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는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뭐 그리 중하고 귀한 것이냐. 환경이 운명을 좌우하느냐. 운명은 몸과 마음이 좌우한다. 몸과 마음이 중하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환경은 때가 되면 안고 가지도 못하고, 지고 갈 수도 없다. 인생 끝나면 환경도 이 세상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오직 의를 행한 마음과 영만 가지고 간다. 그러니 귀한 몸을 가지고 의와 영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살고 나면 잠깐입니다. 모두 과거를 돌아보세요. 20년씩, 30년씩, 혹은 50년 이상 살았어도 지나간 날들이 잠깐이듯이 앞으로 4~50년 더 살아도 그때 가서 보면 지난날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서 그 영이 의로 단장하여 하늘나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를 몰라서 세상에서 보이는데 빠져 먹고 입고 세상만 위해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가질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이 있어도 마음이 기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 지옥입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괴로운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기뻐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 지옥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기뻐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 뜻을 몰라서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네 마음에 임하여 기쁘다.」 고 했습니다(눅 11:20).

재물, 돈, 환경, 자기 뜻대로 하여 천국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 뜻을 알고 살아야 마음이 괴롭지 않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환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배척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 길이 예수님을 중심하여 가니 천국의 생명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몹쓸 자라고 하며 죄인 취급하여 버렸지만 예수님은 결국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 예나 지금이나 극한 환난과 핍박이 더 일어났습니다. 보다 악 편은 보다 선 편을 막고 공격하게 됩니다. 보다 뒤떨어진 시대는 보다 앞선 시대를 막고 거부했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다 그러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아도 잘하는 자를 상대가 총력을 기울여 막고 태클을 겁니다. 모두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구원길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뜻을 알고 따라가야 괴롭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 못 삽니다. 의를 위해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당하고, 생명길과 천국길을 가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 5:11-12)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생명길을 가는 것이기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은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전해 주어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기뻐 찬양한 것은 욕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관광을 가 본 자들은 알겠지만 감옥은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길을 가게 되니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기뻐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받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곧 생명길을 가기에 기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환경이 안 좋고, 삶이 어렵고, 여러 환난이 있다고 그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생명길을 가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을 더 돌아보고 고치고, 더 기도하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확실한 생명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가니 마음이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의와 사랑과 진리와 인내로 악과 싸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진실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승리의 생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흑암의 세계로 가고 맙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이 자기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오히려 가혹하게 대하고 더 배척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해도 오히려 심정이 상합니다.

일생 동안 부지런히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생각할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못 해 줍니다. 매일 부지런히 낙을 삼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대신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자기 것은 각자 자신들이 했습니다.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이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신이 태어났듯이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듯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생각과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와 다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만 행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라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는 뜻이 달라서 싸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거듭나 살지 않으면 역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산 영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거듭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길을 가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며 선한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됩니다. 악과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생명길, 영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영생길을 가니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에 속한 자들은 멸망길을 가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들은 예수님께 위로받고, 같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끼리 예수님의 뜻을 알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괴로운 마음이 풀립니다. 자기 직분을 행하며 화평으로 하나 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의로 싸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이 좁은 길, 곧 생명의 길로 갑니다.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모두 가르쳐 주었으니 몰라서 못 했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던지고 잔인하게 해도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묶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버려야 더욱 예수님께 붙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았습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더욱 믿고 따라감으로 자기 선조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이라도 밤낮 집을 지키면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또 식구들 중에 괴롭지만 어느 한 사람이 밤낮 불조심하며 관리하면 화재로 인하여 재난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각 교회와 섬리역사에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한 명이라도 희생하고 몰두하면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꼭 그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니 생명길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사도들이 모두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으로 살았기에 결국 신약의 생명 역사가 오늘날까지 펼쳐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새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요 12:23-25)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육의 싸움을 할 것 없다. 선한 싸움, 곧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 천국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으로 서

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속해 살지 말고, 참고 견디며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여 이긴 자가 되어 하늘나라를 빼앗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1. 하나님과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괴로운 지옥이 된다.
2. 하나님과 주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3.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과 일체되어 산다면 마음이 천국이다.
4. 자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 세상이라면 세상을 위해 싸워야 되고, 하늘나라라면 하늘나라를 위해 싸워야 된다.
5.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절대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며 막으셨다. 세상과 싸우는 일은 절대 필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다.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리는 자이시므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셨다. 진리와 사랑, 선과 공의, 평화와 용서로 대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서로 화평케 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 섬기고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라고 하셨다. 이는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다.
6.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7.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계시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과 어긋나게 된다.
8.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영적인 주 뜻대로 하면 살 것이요, 육적인 자기 뜻대로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죽는다’는 것은 ‘안 된다’, 혹은 ‘영이 죽는다’, 혹은 ‘육이 죽는다’ 함이다.
9. 사람들은 모두 고통과 염려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된다고만 생각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기에 안되는 일이 누구나 많은 것이다.
10.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 원하는 것이 안 되었든지 되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었느냐가 문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이다. 주님이 가신 구원의 좁은 길의 삶이다.
11.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실상 하나님의 뜻인 것이 훨씬 많다. 이는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12. 사람이 열심히 하여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다.

13.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부정하고 사는 것보다 삶에 보람이 있을 뿐이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14. 세상의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원하는 대로 된다면 세상 체제와 질서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 수가 없다.

15.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인간들의 자기 수고의 뜻대로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못 하게 하셨으니, 이는 온 세상 전체의 균형을 잡으시기 위함이다.

16. 사람은 자기 고통을 벗어나려고 항상 희망적인 생각과 사고들로 긍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것이 너무도 많다.

17.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18. 자기 좋은 쪽만 생각하면 하나님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19.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자기 좋은 쪽으로만 원하고 생각하고 살면 주님이 자기를 위해 해 주시는 좋은 쪽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는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사람은 자기 원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하게 된다.

20.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었다. 항상 예수님은 영 때문에 걱정하셨다. 영이 죽으면 영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이 살아 있으나 날마다 스스로 육신을 죽이고 영을 위해 산다고 했다.

21. 주님은 영을 구원하여 그 영을 하늘나라에 보내기 위해 오셨다. 육은 구원받으나, 못 받으나 인생 일평생 8~90년 살다 끝난다. 영이 구원받아야 영원히 살게 되고, 육도 세상에서 살 동안 잘되고 형통하여 주의 뜻을 좇을 수 있다.

22. 꿈으로 어떤 계시를 받으면 영적인 것인데 육적으로 해석한다. 영이 살아서 온 것이고 영에 관한 것인데 육이라고 잘못 해석한다. 계시는 올바르게 오지만, 사람들은 흔히 자기 좋은 대로만 육적으로 해석한다.

23.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인데 모르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육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야 아닌 것을 알게 된다.

24. 영이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누구든지 영이 살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되다. 신앙으로 육만 살아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영이 부활되어 살아야 한다. 영이 잘되기를 바라며 영을 위해 항상 힘써야 된다.

25. 주님 좋은 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 그 뜻대로 해 주시면 자기 희망이 깨졌다고 한다. 이는 주님의 뜻과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께 맡겨 버리고 살아가야 주의 뜻대로 됨을 깨닫고 기뻐한다.

26.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 주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절대 해 주지 않으신다.

27.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네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네게 해 줄 것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셨다.

28.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악행을 저지른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은 주님의 행하심이 아니었다. 주님은 그 시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셨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해 주실 것만 해 주시면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쫓고 따라야 된다. 세상이 가는 길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르다. 고로 세상과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부지런히 하늘의 생명길을 가야 될 때다.

29.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천릿길을 가야 될 사람이기에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가야 된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걸어가야 되기에 걷는 데서 힘이 든다. 날씨가 나쁘면 더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도 주님도 더 함께하시니 더 좋은 것이다.

30. 구원의 길ियो,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길ियो, 영원히 살 길이다.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다 이기면서 기쁨으로 갈 길이다.

31. 세상의 사망길을 가는 자들도 기뻐하며 가는데 주님을 따라 영생길을 가는 자들이 기뻐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

32.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 뜻으로 알고 가는 자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무서운 길을 가는 자다. 갈 길을 다간 후에야 사망길임을 알게 된다. 미리 확인하고 가라. 보기에선 좋으나 사망길이고, 보기에선 험하고 좁으나 생명길이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길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라. 지금은 확인을 할 때다.

33. 길을 잘못 가는 것을 알았으면 다시 바른길을 찾아 가면 된다. 인생길도 그러하다.

34.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한 영생길이 있고, 자기를 중심한 세상길이 있다.

35. 오른쪽은 하늘 백성들이 가는 영생의 길이고, 왼쪽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다.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길을 가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36. 예수님은 “내가 인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읽고 행하며 그를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와 더불어 사는 자다.

37.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는 악한 자의 뜻이다.

그로 인하여 의인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뜻이다.

38. 세상 편이 미워한다고 해서 하늘 편이 세상 편과 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39.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길로 가면 가는 길이 끊어지게 하여 결국 가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 잘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정확하게 들음으로 온전히 깨달아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2월 18일 수요일말씀>

천국을 위한 선한 싸움

본 문 마태복음 22장 37-40절

요한 1서 3장 10-15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받는 만백성을 구원시켜 하늘나라를 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너무도 많지만 핵심을 보면

첫째,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어 죄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 그 영과 육이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분 밖에 없으시며 오직 그만 섬겨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시며, 내 말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셋째,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주더라도 절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미워하면 살인한 자가 되고,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행실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마음에 큰 도였습니다.

넷째, 걱정·염려·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 없는 것을 육도 영도 얻으라고 했습니다.

모두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0-15절의 본문 말씀을 들겠습니다.

역시 사랑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결국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12절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미워하여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아벨은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미워합니다. 종교세계도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습니다. 섭리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가인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미워함을 보시고 가인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도 외식과 형식으로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행실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며 혈기방장하게 행하는 자는 살인자로 취급하시며 그런 자는 사망에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마귀와 귀신이 그들을 계속 주관하며 사망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워함으로 마음에 살인하면 마귀가 그 속에 있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사랑이 큼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하니 저주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떠한 미움과 고통을 주어도,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어도, 해를 당했어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원수든지 미워할 자든지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며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포기함으로 영원히 손해를 보며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길인 천국길을 가야지, 왜 화를 내고 원통해하며 가인처럼 분을 내고 미워하며 같이 싸웁니까? 영생길만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권 가운데 마귀에게 속함으로 자신의 육신도 지옥이 되고, 마음도 영도 괴로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대로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주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앞만 향해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섭리 안에서도 모두 그같이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 좋아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흔히 섭리 온지 오래된 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니, 누구 때문에 선생이 이같이 되었다고 하며 섭리사에 극적으로 해를 줍니다. 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럴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계속 그러면 예수님은 행위대로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주고 미워하는 자들과 싸울 힘이 없어 못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화평케 살아야 자녀에서 버림받지 않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같은 삶을 이미 오래 전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따라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것이 있기에 미워하고, 후에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한번 사망으로 끌고 가면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행하십니다. 전쟁에서나, 환난중에서나, 삶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는 최고 법을 범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있는 사랑이므로 하나님과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함으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미워함으로 이미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를 미워하여 싸우면서 부모는 사랑한다면 오히려 책망을 받고 그 사랑은 부모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도 형제끼리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선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사망에 속한 사랑이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지로 오해하여 몰라서 싸우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마귀의 주관권, 곧 사망권에 속하여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을 죽인 죄로부터 그 시대 의인들이 흘린 모든 핏값을 그 시대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자들이 다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마 23:35). 너무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섭리에서도 그같이 행한 자들은 다 해당됩니다. ‘라가’라는 말은 조롱하고 욕을 할 때 사용하는 경멸적인 말을 뜻합니다.

욕하는 교역자는 자격이 없으니 모두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욕은 살았다 하나, 영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니 나의 일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를 위해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뜻만 따르며 가면 기쁨 희망에 벅찬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화평케 하면서 사랑하면 더 크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여 형제를 너그러이 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차가운 자가 됩니다. 냉랭한 자가 됩니다. 말세 때는 사랑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의 나라 천국을 마음으로도 누리지 못합니다.

원통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뜻을 알고 사랑으로 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닌데 싸우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해가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남아서 필요 없이 모여 싸웁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살지 못할 땅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갈 곳은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평으로 대하고, 선과 공의로 대하며,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같이 천국을 침노하며 부지런히 가야 될 때입니다.

같은 섭리사 형제끼리 싸움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모르고 오해하여 아군에게 총을 쏘는 자와 같습니다. 알면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들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몇 분 동안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는 천사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기에 마귀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나서 기도해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자기 죄에 대하여 날날이 기도하여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가정·교회·섭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줄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민족과 세계까지 감동되어지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그럭저럭 해 버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물로 간절히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꼭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원통하고 괴로운 것과 사정들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이시며,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생명들을 사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알아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길, 그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와 천국역사의 구원길로 가는 신약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지구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같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환난과 핍박에 참여하며 가는 길이 영광과 기쁨의 길입니다. 옛날에는 모두 순교하면서 갔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희생하면서 참고 견디며 주님만 향해 가는 것이 순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 자기 할 일을 충성으로 하기 바랍니다. 선생도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기 바랍니다. 각 교회 교역자들과 모든 자들은 가인과 같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교단과 일체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일체되어 자기 신앙을 충실히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며 가야 됩니다.

선생의 이름을 대며 그릇된 것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설득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어 사망에서 마귀의 주관권에 산다. 지금도 이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형제들을 모여들게 하여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잘못된 위선자들이다. 섭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은 위선자의 사랑이므로 안 받으신다. 그는 형제를 미워함으로 사망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경멸하는 지도자들은 사명이 상실된 자들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가인 같은 자로서 악을 행하여 섭리 생명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워함으로 생명을 죽인 죄값을 시대의 것까지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늘 평화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끼리 싸움을 하니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되려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잘되려면 절대 화평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원수 맺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여 서로 모두 화목하기를 빕니다.

<2009년 2월 22일 주일말씀>

오직 독생자 예수님

본 문 요한복음 3장 16-17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이신 신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고 말했습니다.

(고후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신이 다르듯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상으로서 이 세상과 다르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아 그 나라 국적으로 올려놓고 살면, 아이는 그 나라 사람 같지만 실상 그 씨를 볼 때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본국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나라 천국인으로써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근본을 제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깨우쳐 다시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니 계속 들어 보기 바랍니다. 깨닫고 알고자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산기슭에 물이 흐르고 포도나무가 뻗어 올라가서 잘 익은 크고도 큰 포도송이가 몇 송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옆에도 나무를 감고 올라가 포도송이가 몇 송이 크게 열려 있는데 그 열매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때, “왜 저 포도송이를 따 먹지 않느냐.” 하기에 쳐다보니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포도 알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산에 열린 포도는 먼저 보고 따 먹는 자가 주인이기에 일어나 포도나무 밑에 가니 포도송이가 잡힐 정도로 손에 닿았습니다.

이때 말씀이 들려오기를 “나는 땅의 씨가 아니다. 하늘의 씨다.” 하였습니다. 내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으니 반복하여 “나는 땅의 씨가 아니다. 하늘의 씨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말이구나.’ 하며 가슴에 확 와 닿게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 포도나무 열매는 집 포도나무의 것이 아니라 산 포도나무의 것이듯이,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성경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이 성경구절이 생각나게 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났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나라에서 났나니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느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늘에 있었느니라.』 하고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떠오르며 이같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은 그 당시 예수님의 영체를 보지 못하고 육신만 보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전지전능하신 자라.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삼위일체이며 인간으로서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온 백성을 구원할 자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나타나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나니 사람이 잉태한 것이 아니로다.”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알려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믿고 사가랴의 집에 가서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복종의 아이가 뛰노는지라,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의 자손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드려 그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그 핏값으로 속죄되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형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볼 때는 독자가 아닙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혈통적인 독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더욱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으로 볼 때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사명으로 따지면 그 사명이 독생자와 같이 인식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 때도 이 같은 인식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독생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브라함·모세·이사야·에스겔·다니엘 등 각 시대의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들은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육적인 구원을 받게 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지자·사도·사사·목사·교사들로서 그때그때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니 상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이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하여도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 다 행하시나,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 더욱 함께하시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로서, 만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따르면 나의 제자요, 혹은 형제요, 혹은 친구요, 혹은 하늘의 백성이요, 혹은 나의 신부로다.” 하시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땅의 씨가 아니다. 하늘의 씨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순리대로 사람이 낳듯 낳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같이 보내어 그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모두 내가 한 말을 다시 인식하고 깨닫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영광이요 진리요 은혜이며, 독생자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종의 역사가 끝나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써 조건을 세우거나 충성하지 못하여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충성이 필요 없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품속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건을 세우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이라면 ‘인간들도 조건을 세우고 충성하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기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써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른 자들은 아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시며, 육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충성하고 잘하면 종이 양자가 되기도 하고, 충성하면 더 좋은 직책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십니다.

요한1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인간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 세상에 쓸 때는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이시고 달리 하십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법이 달랐습니다.

인간의 법은 한계에 처한 법이며 하나님의 법은 무한한 법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이 세상에서 쓰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기에 하늘의 법을 쓰고 그같이 행하면서 구원역사를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은 하늘의 뜻대로 무한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 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고,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으로서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영원히 죄 없게 해 주시고, 인간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쫓아 내주셨습니다. 또 그가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여 죽이시고,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모세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느 한 명도 나가 싸운 자가 없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저녁에 성 밖에서 멸하여 없애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행하시는 능력이며 하늘 법입니다.

땅에서 달리는 차들은 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니 땅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벽이나 밀림의 제재를 받지 않고 상공으로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달리 제재도 받지 않으며, 그 차원도 수억만 배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영들은 이 세상까지 순간 이동하여 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우주를 지나 이 세상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빛으로 가도 150억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늘의 법과 하늘의 영들이 행하는 것은 인간들은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식하듯이 하면 성경을 천 번 읽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능력과 신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이 다 행하시어 고쳐 주십니다. 만일 사람이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해서 다 손대어 고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두 행하시는 것입니다. 뜻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보시고, 때와 시기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100%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천사들은 시종을 들어 줍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절대 믿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병을 고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도 그러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도 영적인 소경이니 보이는 자만 중심하여 기도 해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다고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각자 주님께 기도하여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 손대어 고쳐 주심을 알고 고쳐 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쳐 달라는 간구뿐 아니라 모든 일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하고 간구하는 대상체입니다. 보는 것만 중심하는 자는 육적인 신앙인입니다. 기도는 늘 해주니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여 고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면 속는 것이고, 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명동 운동장에 세워 놓은 돌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가져온 것인지 모르면 알지 못하는 자가 전하여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연으로 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동네논에서 주인이 주어 빼 온 것을 확실히 알면 누가 달리 말할 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심을 그저 막연히 알기만 해서는, 잘 모르는 자들이 이상하게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여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형제나 자녀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 근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땅의 인간들과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더욱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성경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 다시 완전히 인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는 땅의 씨가 아니다. 하늘의 씨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 각자에게 해 주는 말씀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왔고 인간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를 알고 기도해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더욱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깨닫는 것이 큰일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알겠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6: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처럼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극에서 주역을 맡아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사람으로 분장을 한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통해 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 세상 사람처럼 땅에 있지 않으시고, 그 영이 본국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나에게 다시 보여 주시어 자세히 보았는데 이 세상사람 같지 않게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 입은 웃을 보니 세상의 웃을 입지 않고 빛나고 찬란한 웃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내가 또 온다.”고 하시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셨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20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늘의 일을 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이같이 많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늘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2월 25일 수요일말씀>

오직 독생자 예수님

본 문 마태복음 24장 29-31절, 3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고린도전서 15장 47-56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동안 말씀한 것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듣는 자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설교하고 말씀했듯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를 많이 읽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또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과 이야기를 해 주면 사과 이야기만 해야지, 다른 과일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날 계시한 말씀은 한 가지니 내가 말한 말씀만 해야 머릿속에 쑥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짝 지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짝을 지어 나간다는 말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항상 짝을 지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복음서를 읽어 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단상에 서는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과 지도자들도 이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를 말하면, 듣는 자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잘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을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구절은 너무 많으니 모두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신학생들도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는 휴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공중 휴거, 재림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섭리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빛 가운데 살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나팔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귀들과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과 마귀에게 짐승의 인 666을 맞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수님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 변화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와 소홀히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앞두고도 변화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올해 말씀의 총 제목은 「새롭게 변화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은밀히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 온 일반적인 재림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에 대해 잠자는 자를 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이고, 혹은 거듭난 것이며, 혹은 구원이며, 혹은 지구 공중에서 맞는 하나의 휴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에 비해 신약인들은 모두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며 부활된 자들이고 휴거된 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휴거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마지막 공중 재림하실 때의 휴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과 함께 지상에서 이루는 휴거요 부활이요 거듭남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육신을 가진 자의 마음천국과 삶의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활하리라.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24-29).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 말을 믿고 거듭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요 3:1-15). 이를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의 휴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신약역사는 땅에서 휴거를 해 왔고, 구원을 이루어 왔고, 거듭나 왔고, 부활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 있는 자도 부활되고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거기서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할 일이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으니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는 이와 같이 온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공중 휴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 공중에서 육신이 산 채로 올라가지 않고 영으로 휴거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고전 15:50).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영적 부활을 말했고,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나오는 거듭나는 부활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부활되어 그 영들이 살아나고, 또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도 주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예수님과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공중이 아닙니다. 대기권 안에 오염된 이 지구 주관권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세계를 보고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고후 12:1-4). 그곳은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주 바깥의 세계입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천국과 복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하늘의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으니,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고 휴거되어 거기서 천 년 동안 왕 노릇 할 것이라고 했던 곳이 우주 안에 있는 천국, 즉 둘째 하늘의 천국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알고자 했는데 다만 지구 공중이 아니라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지막 재림의 때 휴거란, 사람의 육이 휴거되어 지구 공중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되니 그곳이 둘째 하늘, 곧 우주의 천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모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가 쓴 ‘정말로 천국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둘째 하늘 공중에 천국이 있다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어 쓴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며 신부로서 단장하는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전초해오고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인들은 재림주가 왔다고 하며 그를 따라가 역사를 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꼭 붙잡아주셨기에 그들에게 딸려 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많이 나타나시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내가 또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재림에 대해 잠을 자지 않고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늘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했어도 구경하러 가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잡아 주어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았습니 다. 재림에 대하여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동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늘 개인에게 나타나 역사하고, 대 집회를 할 때도 와서 역사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재림 때만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흠 없이 깨끗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에도 나갔지만 해산하는 여자가 마지막 진통을 할 때와 같이 가까웠고, 타국에 있는 자가 온다고 하여 전화를 해 보니 이미 출발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가까웠고, 방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기척이 나듯이 가까웠다. 이제 말로는 더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 없이 가까웠다. 재림의 재난과 환난이 이미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번개가 쳤을 때는 이미 너 있는 곳에도 빛이 온 것을 알아라. 소리만 조금 늦게 들릴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빛에 있는 자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살전 5:4). 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어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제목의 책으로 겉표지에 ‘토마스 주남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밤새도록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썼기에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깨우

쳐 주신 말씀이 이 책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며, 이 책이 너무 좋으니 모두에게 성경과 같이 가르쳐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 뜨겁게 이같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10년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내게 말했을 때, 내가 쓰고 있으니 쓰지 말고 쓰려거든 구원에 대하여 글을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쓰고 있다고 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를 깨닫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계속 읽어 보고, 곧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사 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주님이 쓴 책뿐만 아니라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가 쓴 책도 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에 눈을 떠 보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보니 이미 1996년부터 7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보여 주시며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세하게 보여 주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쓰게 하였기에 확실하고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경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하여도 안 믿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보면 첫째, 천국은 실제로 있다. 둘째, 지옥은 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목사들도 이 책을 소설책 읽듯이 한 번 읽고 만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성경도 깊이 읽지 않고, 너희는 나에 대한 인식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고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재림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책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자세히 썼으니 가지 말아라. 또 천국이 이같이 있으니 잘 믿고 오라. 내가 곧 간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린다를 통해 전한 말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니 심정 깊이 읽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 주면서 심정 태우며 내가 곧 재림하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지도자들이 너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 대충 읽다가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이 죄인이 문제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며 깊은 사연의 기도를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예수님은 모두 정신들이 빠져 살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상하게 한 일들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 있으면 충격을 받고 깨달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육적인 자가 하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 있어 정말로 변화를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로 아무나 말씀을 전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신학도 개강을 중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교단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 책을 특별히 읽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 백성에서 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본 것이 환상이나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이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너희가 볼 때는 환상같이 보이지만 가서 만져 보면 실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보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 있는 자가 있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들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 평안한지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스 1:8-11). 그들은 하늘에서 온 사자와 말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백마, 홍마, 청마, 자마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영들을 만져 보면 살도 만져지고 다 만져진다고 늘 가르쳐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영계를 가지 못하니 모두 아리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영들은 키가 큼니다. 천사들도 너무 큼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간혹 말해 왔지만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 중신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역사하신 예수님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각종 사명자들과 부흥강사들을 쓰고 늘 나타나 일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사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쓰고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심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가 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도 2002년도에 섬리 사람들이 많이 보고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잘 보고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영적인 말씀을 많이 읽어 봐야 하고, 영적 사명자들이 쓴 글들을 많이 읽어 봐야 합니다.

30개론도 이제 말씀으로 나가니 단상의 말씀을 중심해야 됩니다. 금년도 주제처럼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해야 변화가 일어나 예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오래된 자들 중에 말씀을 깊이 안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극히 육적인 자들로서 영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한 말을 모두에게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린다 뉴커크와 토마스 주님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어떤 자를 신부로 데려가 휴거시키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읽고 자신이 예수님의 어느 법에 걸리는지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들겠습니다.

(‘린다 뉴커크’가 말한 28개 항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2009년 3월 1일 주일말씀>

기름을 준비하여라

본 문 마태복음 25장1-13절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하시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마음 깊이 잘 듣고, 감동되어 행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는 아무리 긴박한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 주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영에 속하고 나 예수에게 속한 자는 늘 기도하고 구하여 영적인 자가 됨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기에 말씀이 깊이 들려 성령에 감동되어 실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배워 알라고 많이 가르쳐 주면 어떤 것이 그날 말씀하신 계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지만 가르쳐 주고 끝날 것이니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을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줄 것이니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 위해 기다렸는데 다섯 명은 맞고, 나머지 다섯 명은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맞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상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면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신부가 신랑을 맞지 못하면 버림을 받고 인생이 슬픔으로 끝나고 말게 되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맞고 모시지 못하면 육과 영혼이 영원히 슬픔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세상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고 신부가 신랑을 맞고 살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갖가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한평생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맞고 살게 되면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공기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영의 몸이기에 공기와 상관없이 살고, 그 어떤 것도 썩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나무나 생물들도 죽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창조한 육신 세상으로서 자기 영과 함께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성장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이나 되는 것처럼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 놓고 살아도,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곧 하늘나라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치 열 명의 처녀들과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맞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사고와 교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죄인이다, 혹은 적그리스도다, 혹은 사람이 무슨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혹은 그렇다면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못 맞은 자들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았습니다. 지극히 육적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등 많은 제자들과 그 시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고 착하게 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죄도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 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

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었습시다. 구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고로 물로 거듭날 수 없었습시다. 말씀을 들어야 먼저 물로 거듭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주인으로 오셨습시다. 꿈에 계시로 보일 때도 말씀을 들으면 묵욕하는 것이나 폭포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거듭나야 됩니다.

그 시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았습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회개하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아이같이 따라갔습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성령을 기쁨 보듯 해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습시다.

그 당세에 이 비유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다 보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시다. 그러니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들겠습시다.

2000년 동안 신약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회개하고 서로 화평케 하며 살았습시다.

예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물 보듯이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이 역사했습시다. 고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형식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미련하여 신랑을 맞지 못한 나머지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시다.

예수님은 시대마다 사역자로 보낸 자들을 통해 주님을 맞게 했습시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또 거부하고 불신하기도 했습시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외면한 자들이 되었습시다. 예수님이 역사하시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시다. 우리들은 갇은 핍박을 받으며 나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시다. 모두 잘했습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시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니 모두 졸고 자고 있었다고 했습시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시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역사를 펴 오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맞는 역사를 해 왔습시다. 현 시대까지 해 왔습시다.

꼭 마지막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자기 사는 기간이 있으므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 안에 신앙의 처녀들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행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고 죽은 자들은 영계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시다. 이들은 다 주님을 맞기 위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만 불면 이들은 다 일어나 부활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과,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과,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은 자와, 마귀에게 굴하지 않은 자와, 충성한 자들의 영이 부활됩니다.

이들이 먼저 부활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이 공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본래 존재하는 둘째 하늘의 공중 천국입니다. 이곳은 우주 안에 있는 천국으로서 여기서 천 년 동안 주님과 함께 혼

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계 20:4-5).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살았던 자들도 열 처녀 중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을 맞고 재림 때 휴거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역시 영이 변화되어 휴거됩니다.

미련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 환난과 마귀들 속에 살아야 됩니다. 성경말씀대로 천 년이 다 차도록 영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하고 기다리는 기간과 같습니다. 깨달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모두 신랑이 온 것은 보았는데 다 맞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그 시대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일체이시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자가 온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고로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재림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슬피 울며 자기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화평하며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앞두고 선지자 토마스 주님을 통해 쓴 글과 사명자 린다를 통해 전한 말씀대로 자기에게 특히 해당되는 것을 회개하고 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다 나와 있지만 범위가 넓어서 외우기 힘듭니다. 린다를 통한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간단하게 전한 말씀이니, 복사해 놓고 잊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내가 한 말이니 이대로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속히 전해 주라.”고 하여 전해준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 이 시대에 신부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우리 섬리사는 지난 30년 동안 깨어 있는 신앙을 해 왔기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신랑이 늦게 오니 졸고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먼 길 간다고 새벽 일찍 깨워놓았을 때, 순간 바로 안 가면 또 잠을 자는 격과 같습니다. 일찍 깨운 자는 그만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와 4시부터 일찍 깨운 자는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하고 짐을 싸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늦게 깨운 자는 옷 입고 자기 짐 챙기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오신다고 30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듣고 외칩니다. 만일 선생도 30년 전부터 재림에 대하여 마음 설레게 외쳤으면 모두 거기에 몰두하느라 섬리역사를 이같이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해 외치지 못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준비로 공적을 세우고 전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때 오신 초림주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어떻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맞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어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맞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과 행실이 변화된 자가 깨어 주의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고 그같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일찍 들은 자들은 졸고 자고 있습니다. 늦게 들은 자들은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그대

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으면 됩니다. 잠도 일찍 깬을 때 할 일을 안 하면 졸고 또 자게 됩니다.

섭리역사는 지난 30년 동안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민족에서, 또 종교적으로 모진 핍박들을 당함으로 신앙의 잠을 잘 틈이 없었습니다. 맞지요?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이 버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금년도 말씀과 같이 새롭게 속히 변화해야 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방 청소, 부엌 청소, 응접실 청소, 화장실 청소, 정원 청소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을 씻어 깨끗케 하는 것이 다르고, 옷을 깨끗케 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을 깨끗케 하는 것이 다르고, 행실을 깨끗케 하는 것이 다르고, 입과 말을 깨끗케 하는 것이 다르고, 눈이 제대로 보는 것이 다르고, 귀가 제대로 듣는 것이 다르고, 입이 제대로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회개도 분명 마음 회개가 다르고, 행실 회개가 다르고, 영적 회개가 다르고, 형제들과 맺힌 것을 푸는 회개가 다르고, 민족 회개가 다르고, 섭리사 회개가 다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진정 회개한 것만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생각하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깨닫고 슬피 울며 통회 자복해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되었는지는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몸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각 항목마다 조목조목 깨끗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신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마지막 재림을 맞이 위해 지난 30년 동안 육신이 영과 함께 지구라는 공중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퍼 온 구원역사를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하면서 왔다. 곧 이같이 해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이 구원이요 부활이요 거듭난 것이요 하나의 휴거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 공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또 우리 섭리사는 주를 믿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를 더욱 확실하게 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듯이, 말씀을 듣고 물로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온전히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됩니다.

기도 중에 보니, 밭에는 밀과 보리가 있는데 푸른 빛과 노란 빛이 섞여 익어 가고 있었고 논에는 벼가 무성하게 자랐으나 이삭들이 다 못 커서 작았습니다. 모두 지금의 광경을 보여 준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섭리에서 순수한 자들은 밭의 밀과 보리처럼 무르익어 가고 있으나 오래된 자들이 오히려 벼는 컸는데 벼 이삭들이 무르익지 못하고 이제야 이삭이 올라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빨리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변화에 발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호흡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3월 4일 수요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본 문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열 처녀에 비유하여 재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을 맞이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잘 들었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는 주님을 맞는 자로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니 깨닫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흔히 잠에서 깨어 있으라고 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근본은 예수님을 맞는 데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도 깨어 있어야 신랑을 맞는다고 결론지어 말씀했고,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묵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 봐요.

그동안 예수님은 선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내가 말한 것을 풀어 속 시원히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서 날마다 거기 해당되는 행실을 하면서 사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2절까지는 신랑을 맞이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에 대해 말씀하면서 13절에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으면서 마지막 한 가지, 신랑이 온 것은 보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맞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직접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았어도 맞이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깨어 있지 못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구시대에 매여서 신앙의 잠과 자기 주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식과 외식과 온전치 못한 교리로 인하여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 변화를 받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외친 대로 회개한 자들은 물 같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이 태어나듯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변하여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며 따라야 거듭나고 부활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하여 깨어 있는 자만 주님을 맞았습니다. 말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 목숨을 다해 몰두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주를 믿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적인 현상을 보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계 3:1)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자신을 통치하는 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삼위일체의 존재자로 믿고 예수님과 일체되어 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나머지는 주를 믿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선지자, 사도, 사사, 중심인물들이 곧 주를 믿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신앙으로 깨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근본적으로 깨어 있다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마 5:48)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중시하며 살지 않고 주 뜻대로만 사는 삶이 근본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란,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중시한 삶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근본으로 놓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선생이 늘 가르쳐 준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형제들에게도 그같이 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곧 오시는 재림에 대해 온전히 깨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선생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모시는 삶에 몰두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명자를 통해 말씀한 것들(28개 항목)을 말씀 중에 전해 주었지요? 하나하나 듣고, 복사하고, 기록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각자에게 한 말이니 꼭 행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수시로 보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긴장하며 깜짝 놀라 주를 대하는 것이 모든 자의 도리입니다. 선생이 말해도 이제 긴장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심부름꾼의 말을 안 들으면 그를 보내 주신 주님의 말씀도 안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자만 그 말씀(28개 항목)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선생을 통해 가르쳐 오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온 말씀을 집중적으로 요약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사명자를 통해 새롭게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긴장하고 정신 차려 잘 보고 하나하나 회개하여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풀어 줄 때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말씀을 하면 깨닫고 속 시원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물 때 물을 주면 그 순간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자는 선생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 주어도 빨리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자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로서 예수님과 일체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세상과 보이는 사람을 중시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항상 영이시니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사명자와 사역자들을 통해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나 사명자가 아니면 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어 행하는 자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있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생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제 스스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자는 주님에 대하여 깨어 있는 자입니다. 선생의 시에서도 늘 말했듯이 주님이 오셨다 가셔도 모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매사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교역자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교역자 모임을 오는 길에 순간 영의 눈을 떠서 보았는데, 사람들이 모여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씩 손도 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의 사명자에게 보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전체에게 말하여 깨우쳐 주라고, 보여 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사명자나 선지자들에게만 재림에 대하여 보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후에 그들로 전체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 주지 않으시고, 사명자들에게만 보이고 깨우쳐 주어 사명자들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눈으로만 보고 전달하여 온 지체가 알게 되고, 혹은 머리로 깨닫고 외쳐 온 지체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온 지체 중에 눈이나 마음과 같은 사명을 하는 자를 깨닫게 하여 외치게 함으로 온 지체가 알고 행하게 하십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고,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 듣고 순종하라.**

주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보여 주신 것은 전체에게 말해 주라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말라고 보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 자가 사명자이니 실감나게 외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 자의 책임분담입니다. 선생도 이 일에 책임자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깨달아 본래대로 외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깨닫고 알게 해 주고 있으니 잘 듣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실감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가슴에 와 닿게 사실적으로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자. 결혼에 깨어 있는 것이란, 결혼에 대해서만 밤낮으로 생각하고 매일 결혼할 대상만 생각하며 매일 결혼에 해당되는 것만 준비하고 행하는 일이다. 이것이 결혼에 대해 깨어 있는 자다. 이와 같이 나의 재림에 깨어 있는 자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까지 지금부터 재림을 매일 생각하고, 주 예수만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성경 보고, 매일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깨끗이 사는 자다.”

깨어 있는 자란 무엇인지 더욱 깨닫고 알았을 것입니다. 섭리사 각 분야에 해당되는 대로 거기 깨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실수 없이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자니 공부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공부에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여 합격 합니다. 일반 공부는 학생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반 공부만 해서는 시험에 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운전하는 자는 운전을 하되, 특별히 사고에 깨어 있어야 사고 나서 다치지 않고 안타깝게 죽지

도 않습니다.

주님은 “**삶에 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 손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천사 같은 귀한 손님을 알고 맞게 됩니다. 모르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 집에도 귀한 사람이 왔다 갔지?”

“아니. 안 왔다 갔는데...”

“우리 집에도 왔다 갔으니 너희 집에도 안 갔을 리가 없는데...”

“아! 며칠 전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기는 했어. 그 사람이 무슨 손님이야. 그냥 아는 정도의 사람이야.”

“야~ 친구야. 너는 정말 사람을 볼 줄 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깊이 보고 집에 초대해서 잔치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집에 산다고 하면서 80평짜리 집 한 채를 나에게 줬어. 그래서 나는 다음 달에 이사 가게 되었어.”

이와 같이 모르고 못 맞지 말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압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다 가셨는지 깨어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은 꼭 사람을 통해 먼저 오셨다 가십니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때를 위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직접 오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선생을 통해,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주님의 역사이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악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 맞지 못합니다. 그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근본으로 깨닫게 하시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재림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게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신약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회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알고 회개해야지 누가 알고 회개합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주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과 주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로 선생은 섭리사를 펴 오다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못한 것과, 선생이 시킨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속상하지만 다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같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마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께 할 일을 못 한 것은 회개하여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잘못된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오신다고 나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어린아이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진정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겉으로 육적으로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사정을 고하면서 영적인 심정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그 사정도 이해하시고, 죄를 위해서 오셨고, 보혈을 흘려 대신 죽어 주셨으니 진정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시면 그 증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회개에 대하여 분명 이치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씻는 것 다르고, 옷 갈아입는 것 다르고, 방 청소 다르고, 화장실 청소 다르고, 부엌 청소 다르고, 정원 청소 다르고, 쓰레기통 비우는 것 다르듯이 행실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심계명을 범한 죄가 다르고 이성의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주님을 최고 중심으로 살지 못한 죄, 믿지 못하고 행한 죄, 사명자를 막고 하나 되지 못한 죄가 다 다릅니다,

진정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한 죄, 형제들을 미워하여 싸운 죄, 주님을 멀리한 죄, 세상을 좋아한 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죄,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시기 질투한 죄 모두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를 당한 자는 몰라도 시기 질투를 한 자는 압니다. 고로 자신의 죄는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같은 죄를 짓고도 모르는 자가 있기로 선생이 직접 편지하여 말하려 하니 주님은 **“말씀이 나갔으니 스스로 알게 하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음모한 것, 욕한 것,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 관리를 게을리 한 것,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신경 쓰지 않은 것, 그럭저럭 행하며 사명을 소홀히 한 것, 자기 교회를 잘 지키지 못하고 생명들을 강하게 다룬 것, 설교할 때 심혈을 기울여 하지 않은 것, 화목하지 않은 것, 탐내고 욕심 부린 것, 이웃과 형제를 무시한 것, 교만한 것 등 아직도 수십 가지나 회개할 것이 더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에서도 죄의 종류에 대해 100가지 이상 말하며 지적했습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쁨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야 영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상태의 영으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회개만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기쁨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 더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도자가 소경이니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지도 큰 죄입니다. 지도자가 무지하면 따르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관하고 따라다닙니다. 이를 영의 눈을 떠 보는 자는 말도 못 해 줍니다. 말해 주어도 ‘네가 잘못되었다.’고 하기에 좋은 것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불길한 예언을 하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대하18장)

모두가 다 알라고, 주님이 말해 주라고 하여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에게는 욕하지 않고 선생은 불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설교도 3~5시간씩 해 오면서 말씀을 많이 알려 주었습니다. 듣는 자는 귀가 닳고, 전하는 자는 혀가 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재림에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도 항상 예수님이 선생을 통해 전해 주신 말씀을 듣고 모진 환난 속에서도 잘 따라왔듯이, 지금 또 당하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굳세게 서야 합니다. 금년도에 예수님이 은밀히 주신 총 주제 『새롭게 변화하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 왔지만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맞도록 마음에 근신하고 긴장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은 환난이 없으니 일반 신앙에 만족하며 때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가 인도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두 시대의 눈을 뜨기를 축원합니다.

2007년에는 섭리 모든 자들에게 1년 동안 말씀을 한마디도 전할 수 없었고, 또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감히 아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지옥의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이 소식을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여 절대 지옥에 못 오게 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마치 그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한마디만 소식을 전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에 대해 한마디 소식이라도 듣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명자를 통해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식구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니 못 전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면 누구든지 오고 가는 소식을 전혀 전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한마디만 전해 달라고 하여도 그 같은 하나님의 법이 없기에 전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면 왜 지옥에 갔는지 한마디로 흰히 알게 됩니다.

선생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달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임을 영원히 귀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선생은 정말 깨달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영으로 육으로 받았습니다.

지옥에 대해 말할 테니 들어 봐요.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 년이 가도 희망이 없으니 좌절과 불행 속에서 절망의 고통이 뇌 속과 뱃속을 불태웁니다. 고통을 받으며 사형장에 서 있는 것이 연속되는 세계입니다. 실 한가닥만큼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만 년 있다가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로지 그 희망에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면 1억 년을 있어도 나간다는 희망이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좌절과 절망뿐이며 만 가지가 다 고통입니다.

찬송가에 나온 대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자기 것으로 삼고 불러야 됩니다.

지상에서 주님만이 희망인데 주님을 잃었기에 지옥에 가서 희망이 끝난 것입니다. 지옥에 간 자는 1억만 년이 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육신이 살았을 때 자기의 희망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기쁨도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희망을 잃으면 사는 그곳이 산 지옥입니다.

그때 주님께 내가 지금 지옥 견학을 왔는지, 영원한 지옥에 왔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지옥에 왔는지, 영이 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옥의 고통을 받으니 내 영이 지옥에 왔구나. 육신도 고통을 받으니 지옥은 틀림없구나.’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막연했습니다.

지옥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지옥은 후회만 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행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은 자들이 갑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과 천국으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보시고 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특별히 생중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형식적으로 믿은 자들은 믿고도 행하지 않은 자와 같이 제대로 믿지 않은 죄로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이 있는지 몰라서 온 자들은 너무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미리 알면 갈 자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세상에서 지은 죄보다 수천만 배나 더 그 대가를 받으니 너무나도 원통해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상에 살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삭개오처럼 4배나 갚으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지옥은 성경에서 말한 것보다 실제로 겪으면 수만 배나 더 고통스럽게 존재합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인간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짓게 한 후에 지옥으로 끌고 와서는 왜 죄를 지었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옥의 마귀들이 하는 말은 천가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참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하려면 지옥 마귀들의 행위를 알고, 지옥에 간 자들과 같이 고통을 겪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말할 때 그 처참함을 말해 주어라. 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해 주어라. 지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 속의 고통도 하나의 지옥인 것을 가르쳐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지옥론을 읽어도, 천국론을 읽어도, 지옥에 갔다 온 자가 말해도 모릅니다. 겪어야 와 닿습니다. 육적 지옥을 겪은 자는 지옥에 대해 제대로 가슴 뜨겁게 가르쳐 주며 계속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고 겪은 자가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깨어 있어 주님을 맞아야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휴거되지 못하면 지상에서 대환난을 받아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나는 섭리를 위해 주님의 한마디 말씀도 전해 줄 수 없으니 주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 좀 외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너 대신 사람을 통해 전해 주고 있지만 막고 무지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 자는 매일 깊이 기도하게 되고, 수시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 이같이 하는 자는 기도에 깨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그것에 매일 몰두하는 자’라고 주님은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신앙에 깨어 있는 것과 주님의 재림에 깨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건강관리 하는 것과 암에 걸리지 않게 그 병에 집중하여 신경 쓰는 것은 다릅니다. 수시로 자가 검진을 해 보고, 신경 써서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직접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기도해 보는 것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같이 하지 않은 자들은 안타깝게 암으로 죽었습니다.

도적을 안 맞게 깨어 있는 자는 밤낮으로 도적을 살피는 자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말하며 살피면 안 됩니다. 경보기도 설치해 놓고, 이상한 사람이 담장 밖에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해 놓은 모니터를 늘 쳐다보고, 밤에 수시로 옥상에 올라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도적이 이를 밖에서 보면 ‘이 집은 마치 155마일 국경을 지키듯이 철통 같이 몰두하여 지키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지키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다.’ 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방심하면 실패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일인데 실패한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도적은 어느 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도적에 온 신경을 쓰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도적같이 인식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전에 우리 집에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가장하고 들어온 사람이 도적질해 갔다고 말하면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꼬치꼬치 물으며 따지니, 도적은 이 집 주인은 도적에 정말 깨어 있어서 잘못하면 잡히겠다고 생각하여 슬그머니 나가려고 대문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눈치를 채고 문을 잠그고 이상하다고 신고하여 파악하니 도적이 맞았습니다. 그 도적은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섭리역사 모든 일을 이같이 깨어서 해야 됩니다. 도적은 여러 가지로 침투해 옵니다. 마치 사기꾼처럼 은밀히 접근하며 수십 가지 수법으로 다가옵니다. 한 가지에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깨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맞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사람들을 통하여 오시기도 하고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 직접 오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는 데 있어서 육적으로 신앙의 여행연습을 해 온 것입니다.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은 늘 말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생님, 선생님”만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늘 말해 온 대로 자꾸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야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체라서 안 보이시고, 또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다니십니다. 천사도 그러합니다. 영으로 볼지라도 얼굴은 잘 안 보여 주시고 몸만 보이시거나 뒷모습만 보이십니다. 꿈에 나타나실 때도 다른 사람으로 보여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보여도 늘 기도하고 깨닫고 찾고 진실로 간구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쓰고 나타나시고, 어느 때는 깨달음으로 나타나시고, 어느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 받아들이며 내 얼굴이 예수님 영인체 사진의 얼굴과 닮아 보인다고 하면서 내 얼굴을 더욱 껴뚫어 보았습니다. 주님께 대해 전하니 주님은 또 쓰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날 때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해 주님은 2000년 동안 기도 중에, 혹은 꿈에, 혹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직접 부르면서 영이 깨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몰두하여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섭리역사는 그동안 영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영에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집이 비었을 때, 잠을 잘 때, 낮이라도 도적에 신경 안 쓰고 살 때 사람을 시켜서 들어오고 무력으로 들어옵니다. 잠을 안 자고 누워서 눈만 뜨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매사에 각자 인생에서도 늘 깨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신다고 영계에 눈을 뜬 사명자들을 통해 책이나 인터넷의 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해 주었는데도 태만하게 살겠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 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버스나 자가용으로 어느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차의 시동을 걸지요? 주님의 재림이 그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빛에 속한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에 잠을 깨워 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아들과 딸이 전화하여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없이 바로 집 앞이기에 “다 왔다. 문 따 놓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도 마음 문을 따 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이란, 1년인지 2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비유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곧’이라는 말은 더 이상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 들어 보겠습니다.

셋째, 볼펜을 쓰는데 글씨가 가늘어졌습니다. 잉크가 다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과 섬리 사람들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당황할 것이다.” 했습니다.

넷째, “새벽별이 뜨니 아침이 가깝지 않았느냐. 마치 새벽별이 빛을 잃는 시간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섯째, “타향 땅에 간 자가 어느 쪽이 동쪽인지 알기 위해 동서남북을 쳐다보니 특히 한쪽이 다른 쪽보다 환하게 보였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쪽을 밝고 환하게 말씀으로 비추고 있으니, 그런즉 재림의 빛이 비취는 쪽에 깨어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했습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재림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과 주님이 사명자들을 통해 말해 주시는 쪽을 모두 주시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는 30년 전부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니 그중에 더러는 재림에 대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준비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열렬합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고 가셨으니 성경을 다시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혼하는 신부가 날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듯이 해야 됩니다.

손님을 맞듯이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고 따라가야 되기에 세상 미련 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맞고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손님같이 들르지 않았습니 다. 도적같이 온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 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신앙으로 예비하여 주님을 맞고 따라가는 것이니, 세상을 끊고 육적인 삶을 끊고 오직 영적인 삶을 해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 땅에 보내신 천사를 맞고 그 딸들과 함께 소알 성만 쳐다보고 끝까지 가서 죽음을 피해 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곳을 위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빌 3:12-14)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고 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보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한 때가 2000년이 지났고, 햇수로는 2009년이 되었습니

다.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온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선생을 통해 설교 때도 너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외국에 가서 20년 있다가 온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듯이 주님은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재림으로 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하는 자들은 준비가 안된 자들이고, 생각보다 늦게 왔다고 하는 자들은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섭리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신부같이 준비시키며 살아왔으니 누구보다도 부끄러움 없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됩니다. 섭리사는 한 지체와 같아서 그래도 선생의 말을 듣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리 전달되고 빨리 행해지는 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과 말세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말을 사명자들을 통해 급히 전해 주면, 사람들은 “또 말세라고 하네.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이야.”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특히 재림에 대한 말을 하면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며 또 이단시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주관 속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면서도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세상을 벗 삼아 천국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인 고로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꺼려하고 좋아하지 않고 혈통은 데 빠져 사는 자들입니다. 큰 죄인들이기에 비웃고 비판하며 주님의 재림을 막고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을 악평하든지 외면하든지 소홀히 하는 자들로서 마귀의 주관을 받고 방해하므로 시대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에 주님은 “사람들이 말로는 깨어 있다고 하지만 육과 혼과 영이 모두 선지자나 사명자들을 통해 세계 곳곳마다 전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고 행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오늘 이에 대하여 특별히 말했으니 섭리인들은 일절 깨어 있는 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인식해야 사고가 뒤바뀌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어 있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꼭 변화를 받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미루고 다른 것 먼저 행하면 안 됩니다. 믿고 행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며 산 자가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물에 뛰어들어가 빨리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물은 곧 말씀입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을 꼭 듣고 행해야 됩니다.

섭리 사람들이 빠른 구름이 되어야 하건만, 흔히 지도자들과 섭리에 일찍 온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에 늦습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늦는 것인지, 나이가 먹어 고정관념에 차서 늦는 것인지, 살과 뼈가 신앙적으로 굳어져서 늦는 것인지, 게을러서 늦는 것인지, 육적이라 늦는 것인지, 기도하지 않아서 늦는 것인지, 예수님과 떨어져서 늦는 것인지, 선생과 1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감각이 떨어져 늦는 것인지, 열정이 식어서 늦는 것인지, 거듭나지 못하여 영이 다시 성령으로 나지 않아서 늦는 것인지, 정신만 살아 있고 행하지 않아 늦는 것인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늦는 것인지, 1년 동안 말씀을 듣고서도 못 깨달아서 늦는 것인지, 혹시 외부에서 가만히 들어온 샅꾼 목자여서 늦는 것인지, 마귀 주관을 받아서 늦는 것인지, 다른 곳에 빠져서 늦는 것인지, 신앙의 잠을 자고 재림의 잠을 자고 있어 늦는 것인지, 죄 짐이 무거워서 늦는 것인지 큰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나로 지적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온전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뜬 빠른 구름들에게 말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모두 선생만 맞고,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오시는 예수님을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애태우며 말씀을 외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으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외치니 안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외쳐 왔다고 한 설교를 못 들어 보았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해 온 자들이 자기 죄도 깨끗이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접촉해 보지 못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도 못 받아 보고,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위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느껴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도 못 느껴 보고, 주님이 늘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것을 처리해 주신 것도 못 느껴 그 도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와 하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는 절대 배우거나 지도받으면 안 되니, 반드시 물어보고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배움을 받는 자들도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에 들어가며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고 휴거가 됩니다.

주일은 자기의 날이 아니니 자기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주일은 엄격히 하나님의 날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고, 필요 없이 사람들을 만나 식사나 하고, 누구 관리한다며 이유를 달고 시간을 내어 만나러 다니면서 자기의 시간으로 다 쓰고 삽니다.

인간들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일은 온전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써야 됩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구해야 될 양은 구해 내야 되지만 거룩한 주일은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써야 됩니다.

TV를 보고 오락을 즐기며 각종 대중매체에 젖어 주일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니 잘해야 됩니다. 선생은 하루에 세상 신문이나 TV를 몇 초 동안 보는지 알아요? 하늘나라 주님의 상황을 보고 그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해 주었지요? 영계에서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가끔 한 명씩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 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자만이 천국길로 갑니다.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는 결국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각자 해 온 신앙들을 보면 신앙의 잠에서 제대로 깨어 있는 자들도 있고 그저 따라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 근본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주제와 같이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니 새로운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인식하여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자가 공항으로 가는데 차 속도를 100km/h로 가다가 시간이 늦어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으면 120km/h에 놓고 밟아야 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선생이 운전해서는 안 되니 이제는 예수님이 운전하시어 150~200km/h에 놓고 달립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이 같은 주제를 주님께서 은밀히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 것이 있으니 믿고 따라와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버리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시키고, 죄를 멀해야 됩니다.

선생은 어느 날 새벽 이같이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집에 들렀다가 가시듯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세리 삭개오 집에 들렀다가 회개를 시키고 가시듯이, 주님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바닷가에서 뉘 볼까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제자들에게 들렀다 가시듯이, 희망을 잃고 버림받고 사는 문둥병자 앞에 멈춰 고쳐 주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듯이, 간음하다가 잡혀 죽을 자에게 나타나 마치 은인이나 되는 듯 살려 놓고 가시듯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인생 희망에 차 있는 자들에게 들렀다 가시듯이, 주님만 부르며 살았는데 세상이 버린 나와 우리들에게도 들렀다 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 생각이 나서 감동이 되었다는 듯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즉시 응답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도 거쳐 갔지만 그래, 내가 꼭 거쳐 갈 테니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온 세계 섭리를 살피시어 외롭고 쓸쓸하고 허탈한 자들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주님만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도 꼭꼭 들렀다가 가시라고 간절히 슬피 울며 간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하여 거쳐 갈 테니, 내가 주는 말씀을 생명시하며 안 보여도 나 예수를 중심하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여라.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을 통해 역사하며 세상에 다니면서 인 치러 다닌다. 나의 말을 명심하고 깨닫고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안녕히 가세요.

<광 고>

영적인 역사를 한다고 하며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떠들며 기도하면 안 되고, 산으로 새벽 2~3시에 기도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또 육적 휴거라고 하면서 각종으로 혼잡하게 하지 말기를 각 교회에 광고합니다.

성령은 질서의 신입니다. 요란하고 혼잡한 곳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생은 다 보고 말합니다.

<2009년 3월 8일 주일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본 문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

요한계시록 17장 13-14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만왕의 왕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먼저 주님께 말씀을 주셔서 진정 감사하다고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듣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정말 두렵고도 걱정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신하처럼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잘못 전달하면 그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바다에 수백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어도 먼저는 한 종류만 보여 주면서 거기에 대해 말하고 가르쳐 줘야 확실히 압니다. 이것저것 한꺼번에 말하면 들어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도 잘 깨닫게 하기 위해 목시해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것만 말해 주고 그 방향만 전해 주겠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마음밭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 가지만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듣는 자들이 듣고 다 깨달았으니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각각 그 마음 개성대로 잘 깨닫게 지금도 그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저 같은 수준 낮은 사람도 잘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자 하고 깨달으려 하면 다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돈 만 원짜리로 생각합니까? 백만 원, 혹은 천만 원, 혹은 1억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하고 들으려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치를 두는 대로 그만큼 깨닫게 해 주시고 유익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썩은 자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 지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가게 되며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살라고 했는데 모두 기억하고 있지요? 이는 성경의 수백 곳에 강조된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애인, 물질, 보물, 귀중품, 집, 땅, 작품 등 그 어느 귀중한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들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른 일은 그 다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이며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해도 주님은 우선으로 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본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깨어나 보니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기도도 못 하고 다 끝났다.’ 하고 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어젯밤 12시를 넘기고 새벽이 다 되도록 성경을 보며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치’라고 잠언으로 깨우쳐 말씀하셨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늦었으니 오늘은 할 수 없다. 끝났다.’고 하며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눈을 감았을 때 월명동 다리 골의 경사진 옛날 발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굵은 자갈돌이 깔린 그 경사진 곳을 잘 내려오다가 순간 가만히 서 있으니, 자갈이 그 사람의 몸무게 중량에 눌러 그만이야 자갈돌이 미끄러져 내려와 그는 10m 이상 굴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또 쳐다보니, 다른 한 사람이 잘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살살 잘 내려오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앞 사람과 같은 식으로 또 넘어져서 주저앉은 채로 큰 돌과 함께 미끄러져 내려와 그 앞에서 먼저 구른 사람과 아찔하게 부딪칠 뻔했습니다. 먼저 구른 자와 부딪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순간 보인 계시의 환상이었습니다. 간절히 주께 물으니 “늦어도 벌떡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늦었다고 해서 꼭 가야 될 곳을 아주 안 가고 말려느냐.” 하며 머리에 생생하게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은 대로 기도를 해야지. 가다가 돌길 경사진 곳에서 멈춰 서 있으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치듯이, 인생은 멈추지 말고 늦으면 늦은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가야 한다. 신앙도 인생도 걷다가 멈추면 넘어져 다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때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순간 떠오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비유로 깨닫게 하시기를 “얼음이 얇게 언 호수는 걷다가 서 있으면 무게 중량으로 그 자리의 얼음이 깨져 깊은 호수에 빠지듯이, 세상을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섭리 인생을 살아야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님이 온 것같이 급히 양치질과 세수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그 같은 환상을 보여 순리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 되도록 성경을 보며 주님이 깨우쳐 주신 글을 쓰느라 늦게 잠을 잤기에 늦게 일어난 것을 이해하시고 늦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고 깨는 것을 다스리고 계심이 깨달아지면서 절로 찬송가가 내 입에서 흘러나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육과 영이 흐느껴 감격해 울며 7~8번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다스리시는구나. 자고 깨는 것까지 다스려 주시는구나. 잠들면 누가 깨워 주는 자도 없고, 시계도 나를 깨워 주지 못하고, 깊은 새벽 피곤하여 잠든 나를 깨워 달라고 해도 깨워 줄 사람이 없는데, 과연 주님이 이같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며 감격하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왕들은 체계적으로 주권과 권력과 계급주의로 다스린다. 그러면서 개인 하나하나를 다스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나는 나를 믿고 좇는 그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직접 다스린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다스린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마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가 그동안 설교 가운데 많이 들던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의 말씀이 흰히 떠올랐습니다. 또 읽어 보겠습니다.

(계 19:11-16)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역시 설교 중에 많이 한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14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계 17:13-14)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인 것을 다 알지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통해 주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혹은 마귀들이 직접 주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마귀를 이기고, 그 짐승들의 인을 맞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뜻을 불신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여 넘어지게 하고 결국 마귀들의 인을 맞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꼬이고 이단이라 하며 자기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것도 마귀에게 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떤 환난이라도 이기고 가면 마귀에게 인 맞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의지하면 짐승들에게 인 맞지 않습니다. 짐승의 인을 맞으면 휴거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오직 주님을 자기와 1:1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듯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을 가르쳐 주는 소개자,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했습니다(딤후 6:15). 바울의 신앙이 반석 같은 이유는 주님만이 자기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 보고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계를 보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눅 23: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마음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고, 그 주관을 받아 악평하는 자들까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모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 줍니까? 사사건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죽기 몇 초 전에, 억울함을 당할 때, 모든 인생 문제에 신경 써 줍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왕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 주고, 마음천국을 만들어 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세상 어떤 왕이라도 이 세상의 체제로는 개인이나 민족을 천국으로 만들어 다스리지 못한다고 30년 동안 외쳐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나라 법으로 행하신다고 확실하게 말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를 깨달았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될 때마다 큰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제 내 문제와 우리 사회 문제가 풀리고 잘되겠지. 나라가 잘살게 되겠지.’ 하며 기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큰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지만, 후에 가서는 희망은 커녕 후회하고 실망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절대 주님과 일체된 자라야 희망을 주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줍니다.

희망을 걸었다가 결국 희망대로 안 되면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어 온 대로 방향을 100% 주님께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내 고향의 희망과 민족의 희망도 이루어 주시는 존재자로서 유일무이한 전능자라고 믿고 외쳐 왔던 지난 30년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불안해서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전능자이신 주님이 다스리셔야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갑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다스리는 자로 섬기고 모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의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통치자와 왕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임을 알고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그놈의 짐승들의 인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자고 깨는 것을 다스려 주시며 삶을 맡기는 대로 다스려 주십니다. 평화의 통치자와 주권자는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 왕들은 피라미드 조직처럼 아랫사람들을 직위 계통대로 다스립니다. 임기 기간 중에 일일이 한 사람씩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임기 기간에 한 사람당 1분씩만 시간을 내준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고로 세상의 왕들은 개인을 일일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도 교인 몇 백 명을 일일이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으로 도우시면서 수시로 도적같이 가서서 도우시고 다스리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일일이 다스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자기 사랑하는 애인 한 사람도 다스리기 힘듭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힘이 없어 못 하고, 자기 살기 어려워서 못 하고, 몰라서 못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또 영혼 문제와 마귀 문제로 인하여 못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가령, 어떤 한 사람 있다면 백 명이 그를 다스려도, 천 명이 그를 다스려도 그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저를 따라와도 제가 다스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책임은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은 능히 지구에 사는 사람 68억 명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존재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기면 주님으로서 다 다스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들어 봐요.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150억 광년입니다. 이 거리는 빛으로 가도 15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구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까지는 얼마나 더 멀겠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가면 순간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새롭게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예전부터 가르친 말씀도 다시 생각나도록 말해 줄 테니 잘 들어 봐요. 전에 들은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 주님은 영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영계는 생각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영은 생각한 곳에 순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일반적으로 부활된 영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온전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있음.)

이같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려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같이 빠른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위급한 때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사명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돕기도 하십니다. 또 인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에게만 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니 주님은 일일이 때와 시간에 따라 개인과 가정, 모임과 집회 때 방문하시면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저도 목사님이나 책임자에게 맡겨 놓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기도하며 각종으로 다스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사명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맡기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직접 일일이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어 아예 인식을 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믿으면 다스려 주고 싶지 않다. 이를 안 믿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요, 혹은 마귀와 귀신의 왕들을 자기 마음에 다스리는 자로 삼고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사람의 마음을 마귀와 귀신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속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천국이 되었고, 믿고 깨달은 자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계를 보고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만왕의 왕을 절대 믿고 그 백성이 되어야 마귀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귀들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마귀가 다스리면 결국 지옥의 백성이 되어 꼭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그들의 인을 맞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를 힐문하고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들을 계속 힐문하며 하나님께 일러바쳤습니다. 욕의 경우도 마귀가 계속 힐문하였고 하나님께 일러바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섭리에서도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 무지로 형제들을 자꾸 참소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은 실상 속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나도 알고 주님도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시니 억울하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악평한 자는 그 힘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사랑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형제들을 왜 참소합니까. 실상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게 일러바치고 관청에 일러바칩니다. 잘못된 자가 있어도 용서해 주고, 그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꼭 용서해 달라고 밤낮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죄도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행실을 보고 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35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갚으라고 하니 갚을 길이 없다며 땅에 엎드려 울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용서해 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용서를 받은 후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목을 잡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빚진 자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갚을 길이 없다고 하니, 관청에 신고하여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준 그 종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도 용서하니 너도 용서해야지. 네가 동료들을 용서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종을 가두었습니다.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00배로, 자기는 60만 배를 용서받았으면서 자기에게 잘못된 자는 60만 분의 1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참고 자료 있음.)

어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주님께 100만 배 용서받은 것이 있다고 보고, 어서 형제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자의 행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짐승의 인 666 수를 손이나 이마에 인 치고 맙니다. 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칼로 살가죽을 벗겨 내도 그 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에 인을 맞으면 손을 끊어 내도 안 됩니다.

내가 산에 있을 때 주님께 물기를 “마귀는 666 인을 친다면 주님의 백성은 완전수인 777 인을 맞겠네요.” 하니, 주님은 웃으시면서 “그 말도 이치가 맞는 말이야.”라고 했습니다. 7수는 하늘수입니다. 아무리 6으로 7을 공격해도 1이 남고, 666이 777을 공격해도 111이 남습니다. 도표에도 이 이치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기도 하시지만 사명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수시로 도적같이 오셔서 주님으로서 해 줄 것을 해 주시고 도적같이 가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재림 전에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아야 산 신앙인이며 빛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 보았을 것입니다. 못 본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며 각종으로 행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신경 써야 알게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야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왕 중의 왕, 전능하신 존재자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더욱 확실하게 다스려 주시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세상이 버려도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재림 때만 천사장 나팔과 함께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 순간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통해 모든 자들에게 도적같이 계속 찾아오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섭리사 30년 동안 각 개인과 가정에 찾아오셨고, 집회 때와 새벽 때마다 도적같이 오셨다고 가르쳐 주었습

니다.

제가 늘 말해 주었는데도 모르는 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닷물이 멈추게 하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모인 장소만 비가 안 오게 하시면서 각종 기적을 수천 번이나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관리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사람을 쓰고 다스리니 그 사람이 능력을 받고 그같이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주가 쓰는 자는 청지기로서 인간적으로 주님 다음으로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의 신앙 체험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재림을 맞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날 새벽, 주님은 ‘그 사람이 피곤한 것에 따라서 이해하시어 잠도 늦게 깨우시고 늦게 심방 오시고, 또 피곤치 않을 때는 일찍 깨우면서 그같이 자세히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손수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묻는 시간을 따져 보니 이 세상 시간으로 40초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그냥 두고 떠나신 것 같아서 가시냐고 기도 중에 물으니, 가물가물 가시는 느낌만 왔습니다. 순간 방이 썰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머리카락만큼도 안 보이시며 이 같은 말씀만 나에게 남겨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

찬송가 390장(새 찬송가 390장, 이전 찬송가 444장)을 모두 불러 볼까요? 늘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시인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따르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혹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무력으로 다스리고, 욕하면서 ‘왕따’시켜 버리고, 무관심해 버리고, 무안을 주고, 인상 쓰면서 말하고, 무섭게 대하고, 냉랭하고 인정 없고 썰렁하고 껄끄럽게 대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안 데려갑니다. 이같이 당하는 자들은 ‘선생님은 저렇게 안 하실 것인데...’ 하며 울고 갑니다.

주님은 교역자들과 관리자들과 각종 책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다. 자기 인성의 방식이며 나의 심정과 일체되지 못하고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서 다스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같이 하면서 선생도 이같이 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고 합니다. 다 아니까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고, 긍정적으로 겸손하게 위해 주며 순리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로 주님이 본을 보여 준 것같이 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겠다고 하며, 이 날은 오후 5시부터 기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 보니 새벽 1시 15분 전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다가 졸리니 눈만 뜨고 ‘일어날까, 말까? 앞으로 한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 잠은 안 자도 누워 있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순간 백짓장처럼 얇은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나타나서 영계의 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잠은 안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40분이 남았으니 잠시 눈만 뜨고 누웠는데 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보였습니다. 순간 있다가 사라져 눈을 떠 보니 아직 30분 정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내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잘못된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꺼리지 않았습니다. 고로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사람인데, 지금 관직에 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고, 무언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참다못해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눈치만 주지 말고 말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습니까? 법으로 당신에게 어긋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며 그에게 속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인상도 변하지 않고 계속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를 보니, 내가 지금 무엇인가 그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으니 그 장면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어 보니 새벽 2시 15분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정한 시간대로 일어났다고 하며 씻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제는 새벽 5시가 넘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40초쯤 말씀을 듣고 내일은 일찍 일어난다고 약속했기에 아까부터 일어났지만 선잠 들면서 2시를 맞았습니다. 어제 기도 중에 주님이 언제 또 오실지 물었습니다. 한 20일 후에는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깨달음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어제 5시에 일어났어도 주님이 번개처럼 오셨다 가셨는데, 오늘부터 새벽 2시에 꼭꼭 21일을 기도하면 10초라도 오시겠습니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전에 꿈에 본 환상들을 말했습니다.

나 : “주님, 섭리 사람들이 나를 따라 2시에 기도하는지, 그 영들이 보였습니다.”

주님 : “그들은 육체를 이탈하여 온 영이 아니고 너 깨달으라고 보여 준 것이다.”

나 : “아! 천사가 그같이 깨운 것이지요?”

주님 :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네게 보여 준 것이다.”

이에 나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다른 먼 곳에서 나를 보시고 새벽기도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같이 보여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환상이었는데,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 내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계속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도 가지 않고 쳐다보기에 참다못해 내가 당신에게 인사를 안 하지도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특별히 흠 잡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도 계속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이 물음에는 대답이 없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분은 평소에 나를 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었는데 그 분이 나를 불러서 “내 밑에 있는 자들이 몰라서 무례히 말할 수도 있으니 내게 말하세요. 저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내 밑의 사람인데 무례했으면 이해하세요.” 했습니다. 이에 나는 “당신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니, 그는 웃으면서 “그래요?”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옛 생각이 나서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을 쓰고 한 번 나타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왜 그 분이 내 꿈에 나타났습니까?”

주님은 그제야 대답하셨습니다.

“꿈으로 그를 통해 내가 아까부터 나타났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난처하고 창피하고 죄송해서 더 묻지 못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죄송하다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처음 잠에서 깬 시각부터 와 계셨는데 내가 또 자니, 나를 깨우기 위해 3번이나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 어제 일찍 일어나겠다고 말하였기에 오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 일찍 일어난 것인데 평소 시간처럼 2시에 맞춰 일어나려고 2시만 기다리니, 주님이 잠을 다스려 주러 온 것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일어나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여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의로운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실력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를 알고 30분 동안 회개기도를 하고 다시 주님께 가셨냐고 물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하니 그 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 회개하니 얼마나 좋으냐. 내가 용서해 주니 네 마음에 꺼림 없이 얼마나 좋으냐. 너도 모든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며 모두 그같이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면 이 세상 누구도 사해 줄 자가 없다. 오직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죄를 어디서 사함 받겠느냐.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회개하지 않아서 죄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 결국 육이 죽을 때까지 찢값으로 고통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지 않느냐. 회개하면 천국에 가건만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늘 단상을 통해 가르쳐 주며 외쳐도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 좋은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어제 제가 늦게 일어났지만 40초라도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5시에 일어났으니 주님께 너무 죄송하여 앞으로 20일이 지나면 오실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오실 것이라고는 100만 분의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환상을 보고도 전혀 주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제 일찍 못 일어나서 후회하며 할 일을 못 했다고 낙담하여 또 다시 기회를 주러 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에 못했어도 진정 회개하고 뉘우치면 이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너무나도 인자하시며 사랑 자체입니다. 모두 이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 : “사람들은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만 중심하며 평소에 내가 오고 가는 것을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같이 2000년 동안 왔다 갔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앙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되고 무서운 인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전해 주어라. 너희에게는 지난 30년 동안 너를 통해 말씀하며 섭리를 펴면서 도적같이 왔다가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두 너만 보고 좇지 않았느냐.”

나 : “내가 그렇게도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육적이어서 나만 따랐으니 주님 앞에 정말 민망했습니다.”

주님 : “이제 금년도 말씀의 총 주제처럼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인식하고 변화를 받게 하자.”

나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 “이같이 내가 네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오듯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리라.”

요즘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오셔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친히 기다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근신하며 신앙의 잠을 깨우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구나.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다.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네가 회개하니 기쁘고 마음천국이지 않느냐. 그 좋은 것을 오늘 더욱 깨닫게 하였으니 깊이 전해 주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정을 다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육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영도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깨끗하게 나의 강림을 맞아야 된다.”

나 : “마음으로만 죄를 짓고 행실하지 않으면 육은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않아요?”

주님 : “그것은 세상이 따지는 법이 아니냐. 내 비유를 들어 보아라. 네가 미워하는 자가 있어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뿌리니 그가 놀라고 옷이 흠뻑 젖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네 육도, 바가지도, 물도 다 공범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바가지는 육이요, 물은 마음이요, 육은 영과 같다. 고로 육이 죄를 지으면 마음도 영도 공범으로 보고,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한다. 그러니 회개할 때 마음과 행실과 영을 따로 나누어 골라서 회개하지 말고 다 깨끗이 해야 된다.”

나 : “주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육신이 사망을 좇아 행하였다고 하며, 어느 때는 육신만 죄를 짓고 어느 때는 행실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 마음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 “육신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어디 도망갔다가 오느냐. 마음과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도망갔다 오느냐. 다 공범이다. 연대죄를 모르느냐.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조상들이 죄 짓는 것을 못 보았어도 그 연대에 사는 자는 연대죄와 유전죄가 있지 않느냐.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가 아니냐. 고로 아담에게서 벗어난 자가 되어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모두 듣고 새롭게 변화하자.”

나 : “예. 그런데 이 많은 자들이 언제 다 죄를 회개합니까?”

주님 : “회개할 기회를 온 세상에 주고 섭리에도 주었으니, 급히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흠 없는 신부가 되어 나의 재림을 맞자.”

이날 주님은 못 보았지만 다른 자를 쓰고 나타나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 가셨는지 감히 묻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이날 주님과 대화를 나눈 시간을 따져보니 이 세상 시간으로 30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섭리사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십니다. 나를 항상 다스리시고 나를 항상 거느리셨습니다. 때때로 울기도 하고 때때로 웃기도 합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만 말씀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만 잘 맞으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계속 도적같이 오셨다 가시는 주님을 깨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재림 때도 깨어 주님을 맞을 수 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오셨다가 가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모두 보기는 힘드니 보는 것만 중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이 안 오실 거야.’ 하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의 그때 오십니다. 새벽기도 때도 오시지만 낮에 우리를 도우실 때도 오십니다. 평소 생활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나 대개 주님이 오셨다 가신 후에 알게 됩니다. 이런 자는 재림 때도 주님이 오셨다 가신 후에 알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신입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왕복 60km여서 새벽 3시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3시 조건기도를 세워라. 심방 시간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이 산에서 기도할 때, 평소에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재림과 같이 중히 여기고 맞았습니다. 주님은 “그같이 나를 맞아야 된다.”고 하시며 “너와 같이 모든 자들도 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섭리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고도 하나의 신앙 체험으로만 봅니다. 정말 모릅니다.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내게 그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나 환상 아니다. 실체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나에게 오셨냐고 하며,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냐고 의심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아니다. 준비되면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 마지막 재림 때만 오지 않고 이같이 오다가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다시 온다. 평소 도적같이 오는 나를 맞아야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 재림 때도 나를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예행연습을 하며 실제로 맞듯이 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는 실전입니다. 그동안 섭리는 나를 중심하여 늘 주님을 맞는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래서 섭리인들은 말씀을 잘 이해시켜 주지만 하면, 마치 한 지체와 같이 어떤 사람들보다 잘 따라 행합니다.

주님은 섭리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서 그 할 일을 도와주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심정을 알아주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의 구름을 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저에게 도적같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림 전에 맞은 주님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맞은 하나의 재림입니다. 저는 이를 누구보다 크게 깨달았기에 지금까지 주님이 써 주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개인에게나 교회에나 집회 때마다 준비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했고, 사도들도 “그가 곧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마지막 재림 때만 생각하며 늘 오시는 주님께 대해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을 맛을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이 주님을 평소에 맞고 그의 신부가 되어 같이 살아야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실 때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를 가르쳐 주셔서 30년 동안 외쳐 왔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 재림보다 평소 늘 오시는 주님을 잘 맞아야 한다고 외쳐 신앙의 잠을 깨워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섭리역사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는 데 첨경을 평탄케 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깨어 있는 자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압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그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눈팔고 중단하고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보다 얇은 얼음 위에 계속 서 있으면 중량에 눌러 얼음이 깨져 거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 쳐다볼 것 없이, 어떤 문제와 이유를 대지 말고 신앙을 연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신 후에 우리가 해 놓았는지, 이것만 보십니다. 해 놓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애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쳐다봐야 됩니다. 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4)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딤후 4:7-8)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꼭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도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줄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욱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절대 자기를 다스리시는 자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과 마귀가 마음에 오지 못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5분 정도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갈 때는 옆에 있던 천사가 마귀를 보고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체할 거냐?” 하며 끌어냅니다.

목사님이나 관리하는 자들이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늘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늦게 일어났어도, 혹은 너무 일찍 일어났어도 다시 잠자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날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늦게도 일어나고 일찍도 일어나는 것이 이치다. 시간에 인색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면 나이를 먹어도 피곤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다. 피곤한 것만 따지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말씀을 줄 때 정말 잘 듣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또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을 때 꼭 회개해야 되고, 영과 육과 마음의 죄를 꼭 회개해야 됩니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각 교회와 개인들은 말씀을 중시하여 급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 “여기 주님이 오셨다. 저기 주님이 오셨다. 내 말 들어.” 하고 수군수군하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답답하니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에게 한마디씩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자들이 있으니 경계하고, 오직 단상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자신들이 행하면 됩니다. 또 너무 육적으로 치우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으니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그것을 중시하기 바랍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도 먼저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갔는데도 태만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때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각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각 나라도 모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각 나라들은 모두 행하기 바랍니다.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신앙인들도 모여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똘똘 뭉쳐 생명들을 관리하며 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 동안 섭리역사를 준비할 때부터 생활 속에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아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 30년 동안에도 말씀 따라 행하고 전도하면서 생활 가운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생활 가운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으며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의 신앙 체험인가?’, 혹은 ‘꿈을 꾸었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도 그같이 맞으니 신앙이 힘들거나 죽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섭리역사는 신앙들이 살아서 주를 맞는 연습을 실제로 하면서 왔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는 한 번입니다. 그 때를 위해 주님은 경고까지 해 주시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실수하여 맞지 못하면 후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는다고 해서 다른 이상한 종교들처럼 집을 팔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정기적금을 갹 필요도 없습니다. 논밭을 팔고 집을 팔면서 시한부 종말론적 종교인들처럼 무지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재림 준비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주 안에서 절대적으로 사는 것이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고, 형제들과 맺힌 것을 풀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먼저 말씀을 듣고 거듭나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고, 서로 용서하고, 부지런하고, 말씀을 꼭꼭 잘 듣고, 들었으면 실천하고, 실천하여 새로운 삶의 부활을 이루고, 어린 신앙인들을 잘 관리하고, 전도하고, 마음과 행실을 단장하고, 영을 단장하면 됩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업 때문에 갈 곳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됩니다. 갈 곳은 가면서 신앙에 깨어 살면 됩니다. 삶을 중지하는 사람은 마치 화장실을 가는 것을 중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섭리역사가 주의 강림의 주관권에 들어왔으니 이에 해당되는 삶을 근신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학교에 안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못 가고 돈 없으면 못 가더라도, 꼭 갈 수 있고 가야 하는 사람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을 맞는 준비가 아닙니다. 회사도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어야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내어 회개도 하고 교회에 올 때 차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자기도 다스리고 이웃과 형제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요동하거나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말씀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즐겁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긴장을 풀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늘 근신해야 됩니다.

어제 주님이 오셨으니 오늘 새벽에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도적같이 또 오셨듯이,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면 평소에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도 못 맞고 재림 때도 못 맞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 주님은 나에게 그 실상과 실체를 보이시고, “이를 모두가 깨닫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100만 분의 1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늘 애원하고 기도하며 진정 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의 다스리심에 깨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자기를 목사님이나 책임자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야 수억 배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는 주님의 다스림의 주관권 밖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각에게 그 다스리심을 행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에게 주님은 또 가십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대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3월 11일 수요일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본 문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7장 16-20절

먼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육신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영도 육신과 같이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육이 제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영도 육과 같이 사망에서 나오지 못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먼저 육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육이 귀한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영이 귀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육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영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육의 세상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먹고, 입고, 집을 짓고,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자기 육의 몸이 귀하듯이 하늘나라에서는 영을 가지고 살기에 자기 영의 몸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늘나라가 있어도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을 세상에서 육과 같이 살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이 죽은 후에 때가 되면 만들어 놓은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 때 마음천국이 되고 육도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육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았으니 그 영도 육과 같이 의로운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삶 그대로 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좋아하고, 기쁘게 해 드리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절대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세상에 살 때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한 몸같이 일체되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같이 하면 영도 육과 같은 현상의 영이 되어 주님과 일체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육이 죽은 후에나, 혹은 육이 살았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 영이 다시 온전한 영으로 부활되어 휴거되고, 산 자들은 육신이 영으로 홀연히 변하여 휴거됩니다.

자기 육이라도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육의 상태가 곧 자기 영의 상태입니다. 자기 육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일체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자기 영도 그와 같이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산 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20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나무와 같고, 영은 열매와 같은 격입니다.

육신의 나무가 선하고 착하고 좋아야 영의 열매도 좋고 아름답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육과 영을 한 몸같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실이 영의 마음과 몸으로 그대로 흡수되고, 영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다만 죽은 시체만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육과 같은 나무만 남겨 놓고 영과 같은 열매만 따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로 들어오는 영양기와 나무 안에 있는 모든 진액들이 열매로 가서 그것이 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영이 육신의 수고와 노고, 행실과 공적, 사랑과 모든 성품을 다 흡수하여 크고 자라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신령한 몸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과 계시를 받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5:31-53).

육이 악한 자는 그 영도 똑같습니다. 육의 마음은 영의 마음이고, 육의 모습은 영의 모습입니다. 육의 모든 공적을 영도 주인이 되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영도 그와 같습니다. 불신의 육

은 곧 불신의 영으로서 그 영도 육과 같이 행합니다. 고로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행실은 나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실이 나쁘데 마음은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마음과 영의 반응이기에 영도 똑같습니다. 닭이 달걀을 낳고, 사슴이 사슴을 낳고,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행실에 따라 영도 낳음을 받는 것입니다.

육이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되어 그 계명대로 살아 온전한 자가 될 때 그 영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온전한 참영이 되어 살게 됩니다. 고로 주님은 우리의 육을 보시고 “온전하여라. 마음도 온전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면, 우리들의 영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4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도 함께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형제를 구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어라. 주린 자를 먹여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 주고 도와주어라. 악하게 하지 말아라. 정결 하라. 거룩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형제들도 그같이 대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외식과 형식을 버리고 회개하여 천국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육신은 나무와 같고 영은 열매와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기에 주님은 육을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 영은 자동적으로 온전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은 육신이 귀한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보려고 하다가 안 보이면 잘 안 믿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 육신은 제2의 영과 같다. 고로 육은 보이는 영이나 다름없으니 네 육을 보고 영의 상태를 알라.”고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늘 육신을 영과 같이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영의 세계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세상이므로 영은 육신을 쓰고 삽니다. “육은 보이는 영이고, 영은 안 보이는 제2의 육으로 생각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이에 대하여 늘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법을 정하시어 육이 영을 잘 못 보게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이 신령하면 신령한 영의 눈을 떠 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 영은 겉사람 육과 그 형상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물론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육의 지체와 비슷하되, 다만 영으로 존재하는 영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영은 자기 육신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영만 보려 하지 말고 육신을 보면 됩니다.

자기 육신을 거울로 자세히 보면, 어느 때는 자기 영의 현상이 순간 보이면서 ‘내 영도 이같이 생겼겠지?’ 하며 스쳐 갑니다. 육은 나이 들어 늙었지만 영은 육이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꿈에 자기 영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자기 육신의 현상으로 보이는 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생활하면 꿈에 육체를 이탈하여 활동하는 영을 볼 수 있고, 보면 바로 영인 줄 압니다. 영의 모습은 육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행하여 일체되어 사는 기준에 따라 좌우됩니다.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 영계를 체험할 때 육체는 땅에 두고 영으로 갑니다. 꿈에 자기 영이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자기 육신이 꿈으로 현상되어 보입니다. 진짜 영의 모습은 육신이 꿈으로 현상되어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다. 영은 육신을 닮기는 했지만 전혀 색다릅니다. 그리고 대개 자기 육보다 어렵니다.

영을 보면 느낌도 다르고 ‘내 영이구나.’ 하고 즉시 감지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 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왜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지?’ 하며 예수님께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영적인 주님이신데 왜 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육신을 귀히 여기는 세상이며 육을 중시하여 영이 사는 세상이므로 육을 통해 영이 성장되고 육의 구원이 곧 영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겠느냐. 땅에 있는 것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늘 하늘에 대하여 말하면 믿겠느냐. 먼저는 육이요,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앙의 삶과 육신의 행실을 정말 다르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육신의 삶이 일치되어 살지 못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신앙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육신의 행실과 신앙의 삶이 일치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의 문제는 육의 문제에서 옵니다. 육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나와야 됩니다. 영도 육을 따라 나옵니다. 고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 주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육신이 제대로 행하고 살아야 영도 살기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물 같은 말씀으로 다시 인식하여 “행실아, 새롭게 거듭나라.” 함입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육이 변화되어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하여 행실도 마음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영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육신과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되어 의롭게 살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며 살라. 먼저는 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버리고 영만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하게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영만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면 육도 영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교회나 그 속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산 자들은 육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았습니다. 육신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영만 구원받고 사는 자는 없습니다. 육과 영이 일체였습니다.

손으로 이웃 형제를 도와 무거운 것을 들어다 주었으면 손만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발도 하고, 머리도 하고, 몸도 같이 한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육이 하면 마음도 한 것이고 영도 한 것이다. 이를 깨달으라. 고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육신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세상에 나가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좋은 집을 모두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1순위로 하고 모든 것을 쓰고 살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제일주의로 두지 말고, 세상에 뿌리박아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몸을 가지고 와서 마음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살다가 와서 예배하고 주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주 뜻대로 세상을 살다가 그 깨끗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주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도 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며 거기에 빠져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일로 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욕과 물질에 빠져 먹고 마시는 데 모든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며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천국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지, 지고 사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 순간 다 분별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꼭 이겨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먹을 것을 아예 외면하고 굶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주님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말을 알고, 말하는 그 심정을 알라.”고 하시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나. 나와 동행하면서 내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육신이 세상에 빠져 육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말한다. 신앙은 죽어 있고, 설교 때만 나를 생각하며 입으로만 나를 찾는구나. 육신은 육신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인이 아니냐. 육의 멸망은 영의 멸망이다. 육신을 따라 영도 똑같이 행한다. 가령 육신이 간음할 때, 영이 그것이 싫다고 해서 육체를 이탈하겠느냐. 영도 육과 일체되어 행한다. 이처럼 육이 죄를 지으면 영도 같이 죄를 짓는다. 고로 육의 죄는 영의 죄다. 마음의 범죄도 육과 영의 죄가 된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4복음서를 자세히 읽어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 각자에게 계시하고 깨우쳐 주는 것을 이해하고 근본을 깨닫고, 또 늘 잊지 않게 가르쳐 주어라.”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악하게 하는 자들의 행실을 멀리하고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적 행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볼론과 납달리를 다니시며 궁핍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위해 살면 희망이 없으니 그 삶을 멀리하고,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새롭게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에 찬 삶을 현재도 이루며 영원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거친 세상에 사는 자들을 거친 세상과 환경에서 이끌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이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경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 천국과 삶의 천국을 누리며 주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심방하면서 관리해 주셨습니다. 또 창기들과 세리들과 아픈 자들과 세상이 버린 자들을 가까이하시며 그들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끌고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 다니면서 살지 말라고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도 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과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에 빠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사랑·명예·예술 등 세상 것에 빠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건만(창 1:28),세상에 빠져서 살고 끌려 다니면서 살고 있으니 축복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에 빠져 죽으니 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이 세상에 빠져 영이 구원을 상실하니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수영하지 못하여 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빠져 죽는 사람을 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구해 내든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물을 다스리게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수영하지 못하게 물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 죽으니 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더라도 물만 사랑하면서 인생이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며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자는 빠져 죽으니 절대 거기서 나오라. 물을 멀리하라. 수영을 배우고 다스려야 거기 빠져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여 육신이 거기 빠져 죽고 영혼까지 빠져 죽는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3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거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자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 나름대로 그 원하는 대로 살고, 때가 되면 신앙에 몰두하는 인생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주님과 일체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후 6:14-15)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는 지구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각종 호색을 즐기며 육신에 속해 육적으로 살지 말고, 육이 신앙에 속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을 통해 주님은 육에 속해 살지 말고 세상만 좋아하며 살지 말라고 끝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이 사망권에 속하여 죽으면 영도 죽기 때문에 그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은 살아 계셨을 때 못다 한 말을 깊고도 깊게 전해 주셨습니다. 고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편지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역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을 다시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할 것도 못 하게 됩니다.

돈을 멀리하면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옷도 못 사 입고, 잘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굶게 되고, 꼭 가야 할 곳도 못 가고, 차비가 없어 교회에도 못 나오게 됩니다. 육신이 이같이 되면 육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로 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사람들을 끌고 다녀도 절대 돈을 우선으로 하여 거기 빠지지 말고 다스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본을 두고 살고, 돈과 다른 것들은 하나의 생활의 쓰임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다.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같이 해야 육도 영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준비하여 깨어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을 맞을 자격이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귀하기는 하지만 돈이 생명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경제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자들은 마치 간음하듯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돈을 줍니다.

먹는 것을 멀리하면 배고파서 육신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치 간음하듯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이 신격화되었습니다. 먹는 낙으로 살다시피합니다. 이것이 체질에 배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중심하는 개인·가정·민족들은 정말 무섭게 이것들을 제일주의로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꿈에 큰 돼지가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나를 먹을 음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돼지처럼 그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계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느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복경 옥중에서도 “**먹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섭리를 위해 기도하여라. 나와 대화하자.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영을 위해 살고 의를 행하며 살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빵 하나, 어느 때는 공깃밥 한 그릇 겨우 먹을 때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나는 이보다 낫게 먹느냐고 먹는 것에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여 먹는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먹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중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처럼 지옥의 고통을 받는 심정이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제발 한마디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심정으로 내 가족들과 또 내 가족과 같은 섭리 사람들에게 그 부자보다 더한 말 한마디를 꼭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깨달았는데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면 되는데 그 한마디도 못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지금 손들어 봐요.

말해 주지 않으려다가 말해 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20대에도 주님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가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심은 “**육으로 살지 말라.**” 함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살려면 그만큼 육에 몰두하며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는 배고플수록 가난한 자는 가난할수록 더 채우려 신경 쓰게 되고, 잘 먹는 자는 잘 먹을수록 부유한 자는 부유할수록 더욱 거기에 빠져 신경 쓰며 먹는 데 낙을 누리고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정성스레 대접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음식 한 가지만도 족하니 마리아같이 말씀을 듣자고 했습니다(눅 10:38-42).

예수님은 먹을 겨를도 없이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시기는 했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말씀과 뜻을 제일주의로 하셨습니다. 평생 이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같이 살자. 너희는 나를 최고로 중심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애인처럼 일체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 14:1-5)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 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약속대로 주를 믿고 절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세우지 못하여 못 가면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빈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만 가까이하고 좋아하며 빠져 살지 말라. 지금 때가 되어 너희를 데리러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 어서 회개하고, 제발 세상 좀 그만 사랑하고 나 사랑하면서 순종해. 나에게 붙어야 한다. 천사장이 나팔 불면 휴거하자고 너희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요즘 나의 심정을 제발 깨달아라.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좋아하고, 나를 최고로 중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한 번이라도 원칙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가 주십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라 사람들은 더 먹고, 더 입고, 더 자고, 더 돈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땅·집·명예·예술·공부·사업 등 각종 취미와 노는 것에 빠지고 이성과 사랑에 빠져 자기 심리와 개성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며 거기 빠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종일 자기중심의 삶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그때그때 조금 부르고, 힘들 때 부르고, 기도 조금 하고, 주님이 사명자를 통하여 급한 소리를 하시는데도 말씀을 귀히 듣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 주님은 “내가 어떻게 그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새롭게 하여 나와 일체되어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잘하면 천국에 갈 자들인데 못하여 지옥으로 가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사귀는 3년 동안 여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돈 제일주의, 먹는 것과 입는 것 제일주의, 예술과 명예 제일주의, 자신만 제일주의, 환경 제일주의, 집 제일주의, 공부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남자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3년 동안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남자를 앞세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상 남자는 말도 못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세까지 가지고 있으며 세상 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며 살면서 어려울 때만 남자를 찾고 눈에 보일 때만 조금 신경 썼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남자보다 다른 것을 제일주의로 생각하며 남자는 열 번째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 여자와 결혼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모든 것을 깨우쳐 주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오직 남자만을 위해 살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남자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남자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산다 해도 인격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와 같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야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열심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할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모든 것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금과 보석으로 된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것보다 수십만 배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못 쓴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서 절제하며 하나님과 나를 맘껏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영원히 쓰고 하고 싶은 것을 하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너희를 데리러 온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좋아서 쓰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환경뿐 아니라 먹는 것도 세상 것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것들이 많다. 영원토록 맛있게 먹으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식기도를 한 후에 주님도 같이 먹자고 하니, 주님은 “육의 음식은 육이나 맛있지 영은 맛없다. 영은 하늘나라의 것을 먹어야 제 맛을 느낀다. 그러니 어서 맛있게 먹어.”라고 했습니다.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귀히 쓰던 귀중품을 죽을 때 천국으로 가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몇 가지는 꼭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천국에 간 그날 바로 버릴 것입니다. 버리려 해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못 버립니다. 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영만 온전하게 보물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이 귀하듯 하늘나라에서는 영이 귀하다.』고 주님은 오늘 새벽에 깨우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 여기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 끝나고 피곤하여 누워 있는데 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나타나시더니 내 앞에서 보따리를 끌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며 이것을 먼 나라에서 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따리를 푸니, 고구마 뿌리 넝쿨에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고구마가 열 개쯤 소담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야~ 많이 열렸다.” 하며 또 다음 보따리를 풀었는데 역시 거기도 고구마 뿌리 넝쿨에 줄줄 매달리듯이 열 개 이상의 큰 고구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생시에도 보기 드문 뿌리 열매였습니다.

어머님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구했으며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고 왔냐고 물으면서, 그 두 개의 열매 넝쿨을 양손에 쥐고 “귀하다. 정말 귀하다.” 하며 잠에서 깬습니다.

이것이 무슨 계시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주님은 “새벽기도 때 깨닫게 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이 세상은 육이 귀한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영이 귀한 세상이다.”라고 깨우쳐 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육도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절대 지켜 구원받아야 영도 그같이 된다.’는 깨달음이 들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두 개의 고구마 넝쿨 중에 하나는 육에 속한 계시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이 잘되어야 영도 잘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부모로서 나의 어머니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육도 영도 주 안에서 잘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육도 영도 잘되어야 구원이다.’라고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북경에서 올 때 그 많은 것 중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몸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죽을 때도 이같이 영만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는 다만 먹은 것을 내 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먹은 것이 몸속에서 변화되어 살과 영양분으로 가지고 왔고, 말씀을 받은 것은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아 왔습니다. 무슨 말인

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만 육이 행한 것을 영이 가지고 갑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육이 행한 것들은 홀연히 영으로 변화되어 영의 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말씀과 생각은 가지고 갑니다. 선한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이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같이 주님은 “육신 세계의 것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면 영을 위해 쓰고 하늘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음식은 못 가지고 와도 음식을 먹으면 살이 되어 가지고 올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쌓은 의와 공적도 하늘나라에서 집이나 보물로 변화되어 영원히 자기가 쓰게 해 놓았다. 그러나 썩은 시체는 마치 배설물같이 버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고로 ‘주의 강림에 특히 영과 혼과 영이 흠 없이 나타나라.’고 한 것입니다(살전5:23). 육도 마음도 영도 모두 일제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단장된 자가 되어야 평소 때도, 마지막 재림 때도 제대로 주를 맞게 됩니다.

육이 죄를 지으면 마음도 죄를 짓게 되고 영도 죄를 짓게 됩니다. 육이 의를 행하면 마음도 영도 의를 행한 자가 됩니다. 육과 마음과 영은 하나입니다. 그 행위를 회개하여 의인도 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악인도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주님과 하나 되면 영도 그러합니다.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육이 주님의 애인이 되고 신부가 되었다면 그 마음과 영도 그러합니다. 영의 상태는 육신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이로서 영혼의 구원문제도 알게 되고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의 행실을 잘 보아라. 보면 알 수 있으니 나의 법에서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고쳐라. 오늘날 나를 믿는 자들이 입으로만 믿고, 몸은 따로 제 마음대로 세상적인 삶을 산다. 고로 그 영도 똑같다. 육의 행위에 따라 마음도 그같이 되고 영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막 살던 그 몸을 제물로 드리니 잘 받겠느냐.”고 했습니다.

제물이 몸과 마음과 영이므로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쓰는 몸과 예배 때 제물로 드리는 몸이 각각인데 하나님과 주님이 받으시겠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 5:48)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을 각각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몸이니 세상에서 살든지, 주님 안에서 살든지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육의 행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영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행위를 고치고 보다 온전해지면 자기 영도 그만큼 온전해집니다. 육신의 행위가 온전해지면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 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보다 깨끗한 집에 있고, 보다 깨끗한 환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해야 육도 마음도 영도 홀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금년도 총 주제와 같이 섭리의 모든 자들이 정녕코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행하지 못하면 마음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한 자는 죽은 신앙이며 죽은 영입니다. 사망권에 있는 영입니다. 고로 주님은 정말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온전한 말씀을 늘 전하셨습니다. 온전한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빛나고 광명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어 쓰러졌습니다. 주님의 육신도 찬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에 그 영도 해같이 빛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적, 마귀와 귀신들이 가까이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감히 666인을 치지 못합니다.

누가 늘 시켜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하고 싶어 하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려고 결심하고 행해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시어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행한 자는 육도 빛나고 영도 빛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썩으면 육도 썩고 영도 썩는다.”**고 주님은 철저히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깨어 행해야 됩니다. 이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말씀이 없으면 몰라서 못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주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의 기회가 지나면 더는 없습니다.

지난날 삶을 생각해 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요. 정말 좋아했지요? 모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행하고 먹고 마신 후에 그제야 주님을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삶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면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을 제일주의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다 보면 세상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다 씁니다. 육신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체질화되어 후에는 정말 세상을 떴지 못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쓰고 삽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것 외에도 가지가지 모두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세상에서 살듯 하면 미쳤다고 다 싫어하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신고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살고 싶어도 사랑하고 좋아할 대상이 없어서 못 합니다. 사랑받는 대상도 없고 먹는 것과 즐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계 세상에는 어떤 세계를 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오직 천국만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주님의 뜻 속에서 그 나라 뜻에 따라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천국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노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무질서의 세계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뜻있게, 존경스럽게, 권위 있게, 아름답게, 의롭게, 사랑스럽게, 기쁘게, 꺼림 없이, 보기 좋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니다.

세상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주기도를 보면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도 기도하며 그같이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 배 만 배 맘에 들어 하며 기쁘게 살게 되고 영의 체질에 맞게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관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생명시하고 지켜야 주님과 일체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을 정리해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쏙 들어가게 해 주겠습니다.

<핵심 정리>

세상은 육신이 귀한 세상입니다. 고로 육신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대로 살면 영도 육과 일체되어 똑같은 자가 됩니다. 고로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나무와 돌을 옮겨다가 월명동에 갖다 심고 싹듯이, 육신이 주님의 주관권으로 와서 참포도나무와 접붙이듯이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관권에서 주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은 영으로서 주와 하나 되고 참영이 되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육과 마음과 영은 한 몸입니다.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행실을 지적하시며 고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입니다. 육신이 귀한 세계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의 성장이 멈추고, 그동안 육을 중시하여 한 것을 기준하여 지옥이나 천국으로 결정됩니다.

육신을 통해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영만 보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은 마치 육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육신이 선하면 영도 선하고, 육신의 행실이 썩어 있으면 정신도 영도 썩은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의식 없이 살다가 그 육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육도 영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지 못하다가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과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주 안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와서 그 몸과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은 제 맘대로 미워할 사람들 다 미워하고 할 짓 다 하면서 신앙은 경건한 척했습니다. 고로 주님은 꾸짖고 심판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영육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재림 때는 육과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휴거됩니다. 삶을 깨끗이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도 자기 몸 하나 금빛 찬란하게 만들고 쟁기라.**”고 했습니다. 또 “**환경이 뭐 그리 중하나. 먹는 것이 뭐 그리 중하나. 나중에는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오직 몸을 빛나게 하면 자기 영도 빛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신앙을 보석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도 그같이 됩니다. 육신의 행실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행실로 바뀌지 않고서는 그 영은 절대 사망권에 처한 영이 되어 구원이 상실됩니다.

30년 동안 섭리사의 교리는 ‘실천’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행하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로 계시에 두 개의 고구마 냉쿨에 달린 열매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이 신앙의 불구자면 영도 그러하다고 선지자들도 외치고 구약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어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행실과 마음을 계속 지적하시며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모두 깨닫고 주님을 맞는 데 있어서 육신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주님과 일체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행한 것은 일체(一切)영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악한 자는 그 영이 악하여 사망으로 갑니다. 먹는 것은 못 가지고 가도 먹고 살을 찌워서 가지고 갈 수 있고, 치약과 칫솔을 못 가지고 가도 그것으로 이를 닦아 깨끗이 하여 가지고 갈 수 있고, 책은 못 가지고 가도 머리에 외워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때는 육은 못 가지고 가기에 육신의 것을 다 소화하고 흡수하여 영이 그 공적을 가지고 갑니다. 음식을 먹고 살찌우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버리고 가듯이, 육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영만 간다고 주님은 이치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는 과일을 못 가지고 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공항에서 막습니다. 그러니 실컷 먹고 영양가를 몸에 흡수하여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와 같이 육과 육의 것은 하늘나라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육의 행실과 의는 일체(一切) 영이 가지고 갑니다. 육의 공적은 영의 살과 뼈가 되어 가지고 갑니다. 육의 행실로 인하여 자기 영이 성장하고, 때가 되면 정화되어 선으로 가지고 갑니다.

휴거도 이 같은 이치로 말했습니다. 육신이 훌륭히 변화하여 썩지 않는 영으로 살아나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훌륭히 변화하여 예쁘고 부드러운 살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변화하여 머릿속에 녹화되고, 행실로 변화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체질에 맞게 집도 환경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으니, 천국으로 가는 조건을 세우고 외롭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 살다가 후에 천국에 와서 영원히 누리라고 했습니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섭리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전도도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욕먹고 제재받으며 놀지 말고 참아라. 실컷 놀고, 뛰고, 공을 찰 수 있게 만든 곳에서 와서 아무 제재 받지 말고 놀아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놀지 않고 참고 섭리를 뛰던 자들은 월명동에 와서 보람 있게 뛰놀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하늘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데리러 오셨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하며 거기에 빠져 사는 우리의 육신들을 보고 한탄하시며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지요?

섭리사는 빨리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판이 식어 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낙심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절대 주님을 신임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었지요? 설교 때마다 말씀한 것을 반복하여 말해 주지 못하니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또 수시로 도적같이 오셨다가 가십니다. 안녕~ 모두들 잘 가고 또 만나요.

<2009년 3월 15일 주일말씀>

예비해 놓고 있으라 정말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

본 문 마태복음 24장 40-51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를 먼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도 본 후에 말씀을 들어야 나의 마음과 일체되고, 책망을 받지 않고, 제대로 재림을 예비하게 된다. 또 내가 준 원본의 말씀은 건드리지 마라. 토를 달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의 원본 그대로를 전해 주고 기록도 하라.”

주님은 주님이 주신 원본 말씀에 대하여 거둬 말씀하셨습니다.

“원본은 건드리지 말아라. 원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사도 요한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엄히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오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계 22: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나도 두렵고 더 이상이 없는 대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주님의 원본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전화번호와도 같고 주소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제한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것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제 감정대로 더하거나 빼서 전하면 너무도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좋은 세계에 오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원본 말씀과 성경 말씀을 제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서 전하면 천국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30개론 말씀도 선생이 가르쳐 근본을 인식시키는 것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게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더해서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근본으로 한 말씀인데 말씀을 받아 와서 가르치는 자를 부각시키면서 가르칩니다. 그것도 원본에 더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이 직접 가르치면 주님에 대해 제대로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말씀 중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내가 나타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받아 온 사역자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니 눈에 보이는 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본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받아서 쓰고 만든 자입니다. 그 다음은 외치는 자이며 듣는 자,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 오는 자도 절대 믿어 줘야 합니다. 모세같이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시는 자는 말씀의 주인이시며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고 목적을 이행할 전지전능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원본자이신 주님을 범사에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하고 감사하고 고마워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일체되지 않은 자는 정말 모릅니다. 왜 중매한 사람만 좋아합니까. 중매한 사람 때문에 대상자와 살게 되었다고 중매자를 대상자보다 더 가까이하면서 살면 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과 주님이 귀히 보셨기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실력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택하였기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주는 사역자를 말씀의 원본자이신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니 말씀을 받아 주는 자가 그들의 잘못을 고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항상 원본을 더욱 빛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원본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도 네게 준 말을 다른 말로 바꾸거나 빼지 말고 전하고 기록하라. 다만 원본을 놓고 그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는 설명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주님의 원본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깨닫고 설명하는 말씀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도 주님이 원본을 주시어 그것을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비유를 들거나 다른 말로 감동시켜 하게 하시니, 사람을 통해 하는 말씀도 제대로 전하면 다 귀한 것입니다.

말씀의 원본을 더하거나 빼거나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첫째, 주님이 쓰시는 문법과 문자의 근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책 한 권도 한마디로 줄여 잠언으로 짧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천 마디 물음에 한마디로 짧게 대답하셔도 천 마디 물음에 대한 답이 되게 대답하십니다. 고로 단어를 만들어도 다른 말이 됩니다.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또 문법을 어느 정도 전지전능하게 쓰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 원본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의 원본을 손대면 말씀의 본질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원본 말씀이니 그대로 전하되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고로 원본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목숨 걸고 고통을 겪으며 순교해 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또 극한 환난 가운데 옥중에서, 혹은 산속에 들어가 굶고 쓰러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데 왜 제 생각대로 빼고 더하여 가르치느냐. 편한 시대에 살면서 편히 방 안에서 성경도 주일말씀도 다시 읽어 보지 않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나를 알려고 힘써 읽지를 않느냐. 나에 대해서 알려면 읽어라. 읽을 때는 집중하여 깊이 읽어야 깨달아진다.”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쓴 책도 한두 번 읽고 끝납니다. 모든 것을 건성으로 합니다. 완벽하게 행하시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부로 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글과 겹쳐 마음에 들려야 성경 원본을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시며, 실천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과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행한 일이기에 원본을 읽고 깨달아야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원본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생명시해야 됩니다. 근본으로 보고 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잘못 풀어 잘못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도 주님이 확실히 깨우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주장하고, 확인하고 말해야 됩니다. 듣는 자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깊은 것을 몇 시간 동안 말한 후에 정말 잘 알아들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

을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행하는 것을 많이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섭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원본 말씀의 핵심만 전하려다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니 계속 교정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 ‘주님만이 구원주이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사해 주신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은 삼위일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인간은 재림주가 될 수 없고, 다만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보낸 사역자들이다.’입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원본 말씀에 절대 어긋나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원본 말씀과 표적들은 절대 그대로 전하고 다만 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짧고 간단하게 썼느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 원본 말씀만 연결하여 쓰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일일이 다 코치하고 인도하여 썼다고 했습니다.

20대에 산에서 주님의 원본 말씀을 꼭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주님은 **“성경을 내 음성같이 듣고, 내가 설교하는 것같이 외쳐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어 감격해 울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깨달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 원본 말씀이다. 원본만 기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 원본을 제대로 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고 전해야 주님과 일체되고 신앙이 생명권에서 주님의 시대 역사를 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교파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시대에 맞는 뜻을 펴는지 말씀을 들으며 지켜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열 명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차(茶)를 대접했다. 차를 대접한 자는 손님들에게 차의 맛이 어떤지, 무슨 차 같은지 물었다. 모두 대답하기를 맛이 텁텁하다고 하며 무슨 차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이 차를 많이 안 마셔 봐서 모르겠느냐. 차의 종류를 몰라서 모르겠느냐. 모두 생각해 보아라. 또 그 집의 다른 사람이 손님들에게 차 한 잔씩을 대접하고 차 맛이 어떤지, 무슨 차 같은지 물었다. 이에 손님들은 차 맛은 썩박하고, 매실차라고 대답했다. 전의 것은 모르고 후의 것은 아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한 가지 종류의 차를 타 봐야 즉시 알고, 맛도 한 가지로 동일하게 느끼지 않겠느냐. 이 시대 말씀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행함도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시대가 급하니 속히 깨달도록 깨우쳐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합당하여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의 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41절을 보겠습니다.

(마 24:40-41)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믿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풀어 전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말한 것이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자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는 2:1의 비율이라는 말이 아니고,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42~44절을 보겠습니다.

(마 24:42-44)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 재림 때에 버림을 받는 자들은 신앙이 깨어 있지 못하고, 완전하게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예비한 자만이 내가 도적같이 와도 맞을 수 있다. 너희가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러므로 깨어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정말 그리해야 나를 맞는다.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올 것이다. 그래도 그날에는 도적같이 나타날 것이다. 모두 놀랄 것이다. 그동안 내가 말한 그대로다. 생각나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51절을 보겠습니다.

(마 24:45-51)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이며, 주인이 올 때에 종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주님같이 보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자기 얼굴의 눈·코·입·귀와 같이 귀하고 목숨과 같이 귀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며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즐긴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를 보고 엄히 때리고 벌을 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속히 곧 오신다.”, “더 여유가 없다.”고 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마저 끝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늘 긴장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역사는 과정이다. 과정 속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그동안 외친 말이 기억나지 않느냐. 과정 없이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고, 과정 없는 역사는 없다. 역사는 동시성이라고 한 말을 잊었느냐.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은 재림을 곧 앞에 두고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 중에 재림을 준비하고 행하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날을 위한 지금의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과정 중에 깨끗이 회개하고 정결케 행하며 늘 주님을 맞아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 날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게 되는 것이다. 재림 전에 주를 맞고 산 자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도 부활되고 휴거되어 주를 맞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습니까? 주님 말씀의 원본은 꼭 쓰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 표시한 부분의 말씀을 다시 외쳐 주어라.)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더욱 깨닫고 실천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시는 차를 두고 비유한 말씀을 들었지요? 한 가지 종류의 차를 타 주면 누구든지 무슨 차인지 그 맛과 종

류를 금방 알 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 주고, 이에 설명하는 것은 더 해 줄 수도 있고 덜 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곧 설교이며 주님의 원본 말씀입니다. 모두 신약성경을 20독 이상 정독하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강의도 잘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워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했는데 주님께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 말을 하기는 쉬운데, 하늘 말을 조리 있게 감동을 주며 제대로 깨닫게 해 주고 은혜를 주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 말은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세히 해야 알아듣고, 그 해당되는 말만 간단히 여러 번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깨닫도록 더욱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원본 성경 말씀은 머릿속에 넣고 꼭 잊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원본 말씀을 모르거나 정신에서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마치 목적지를 잊고 가는 자와 똑같아서 방황하며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평소에 주님을 맞은 자가 마지막 재림 때 휴거되어 주님을 맞는다」는 축소된 말씀을 꼭 외우고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동시성이듯이 평소 주님을 늘 맞는 역사가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을 맞는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 재림 전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알아야 평소에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며, 혹은 새벽이나, 기도 중에나, 낮에 생활할 때나, 밤길을 갈 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 얼굴만 비치고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든지,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시든지,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시든지 표를 내고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 없이 보거나, 하나의 환상같이 보고 말하거나, 하나의 체험으로 보고 끝나거나, 신앙이 잠자는 상태와 정신이 썩은 상태로 보면 그냥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도 못 깨닫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보면 실제 온 것같이 귀히 맞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감격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맞듯이 재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보면 그 곳에 갔다 왔어도 그것을 못 보고 오듯이, 주님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살며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요즘 주님은 수시로 도적같이 오고 계시니 정말 내가 말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실제로 보이게 오시기도 하지만, 거의 모습을 안 보이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고 가십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오셔서 자기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집회 때나 예배 때 오시고,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오시고, 일할 때나 생활 속에 오시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강의할 때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구제할 때 오시고, 원수를 사랑할 때 오시고, 감사할 때 오시고, 위험할 때 오시고, 사고 직전이나 사고 났을 때 오시고, 심판할 때 오십니다. 이렇게 그 언제라도, 알 수 없이 24시간 속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꼭 알고 대화를 해야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빨리 자기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네 시간은 네 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순간 만나는 시간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자기 시간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줄 알아야 재림 때 휴거되는 자격을 갖추어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되고 휴거되어 주님을 맞아 천 년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꼭 꿈으로나 환상으로만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평소에 지혜로 계시가 전달된다. 이는 머릿속에, 뇌 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그 현상이 꿈에 보이듯 느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5절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뇌로 계시를 받고 번민했습니다.

(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큰 짐승 네 마리가 뇌에 스쳐 보였습니다. 이에 번민하니, 해석해 주는 천사가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네 왕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보인 모양에 따라 그와 같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뇌로 어떤 현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낮에 현장에서 사건이 닥쳐오는데 그날 밤에 잠자는 중에 꿈으로 전달하면 늦어서 안되기에 즉시 뇌로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만물을 보여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계시를 하십니다.

주님의 계시는 다양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도적같이 역사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말씀은 안 하셔도, 알고 맞는 자는 주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즉시 깨달아집니다.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특별히 주님을 실제로 만나면 말이 필요 없이 줄줄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말이 없어도 거의 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입이 있으니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언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 나타나셔서 인성과 신성으로 충분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가 많습니다. 신성이란 주님이 사람을 통해 원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감동으로 그를 설득 하면서 보낸 자로 말하게도 하신답니다. 이는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이같이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단상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천둥 번개 치듯이 전하고, 어느 때는 물 흘러가듯이 전하고, 어느 때는 주님의 웃음을 나로 보여 주시고, 어느 때는 주님의 모습을 느끼게 하시고, 어느 때는 그 음성을 느끼게 하며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다른 자들을 통해서도,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평소 깨어 있는 자로서 정신이 살아 있는 자가 주님을 맞게 됩니다. 평소에 주님을 맞고 만나고 교통하면서 같이 사는, 살아 있는 생명권의 신앙생활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오시는 주님을 맞는 데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못 맞으면 마지막 재림 때도 제대로 못 맞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미리 완전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맞지 못하고 마지막 재림만 기다리고 살면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멋으로 인생을 살아갈 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만 막연히 기다리며 희망으로만 살지 말라고 지난 30년 동안 외쳐 왔던 말씀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신부로서 늘 주님을 맞고 살아야 한다.」고 30년 동안 외쳤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같이 살아 온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더욱 잘 맞을 자들입니다. 평소에 늘 주님을 맞고 사는 것도 하나의 주님의 재림을 맞은 자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재림만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현실에는 그냥 주님을 믿고 사는 정도입니다. 현실이 재림보다 더 중합니다. 주님을 맞는 준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 맞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오시나 물어도 보는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신랑이 신부를 수시로 찾아오는 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나 사명자들로 노여워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마저도 들을 때만 생각하고 평소에는 잊고 삽니다. 평소에 주님을 제일주의로 하고 일체되어 살면 그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들겠습니다.

평소 때나 재림 때 주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할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낱알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에게 잘못된 것은 제게 고하고, 그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고 제가 시킨 대로 했으면 용서한다고 한 대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불순 종한 것들을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한 것도 죄지만, 할 것을 안 한 것도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알고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면 또 더러워진 것입니다. 회개하면 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 중에 보니, 내가 씻은 욕조의 물이 깨끗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피곤하여 말씀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잠을 잤더니, 그 욕조가 또 보이면서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깨달으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많이 빨아 봤지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의 말씀’에도 나간 말씀입니다. 흰옷이라도 빨아서 물을 짜면 빨아진 옷에서 구정물이 나옵니다. 완전히 빨아질 때까지 구정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입을 통해 자꾸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말이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는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빨 때 더 이상 구정물이 안 나와야 완전히 빨아진 것입니다. 구정물이 나오듯이 입에서 자꾸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이나 원망이나 용서가 안 된 말이 나오면 구정물이 나오는 덜 빨아진 옷과 같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원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12:34,마15:18). 이로써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되었는지 알게 되고, 자신이 깨끗이 회개되었는지 알게 되니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빨아진 옷은 아무리 옷을 물에 넣었다 짜도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입에서 더러운 말과 용서하지 않은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선한 말만 나와야 진정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형제를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 형제야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는 사람은 평소에 주님을 맞고, 재림 때도 주님을 맞을 사람입니다.

나를 재판한 자들이 주님을 잘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은 나의 기도를 침묵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했는데 정말 회개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를 보며 깨닫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옷 빠는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죄는 마치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폭발하여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지금의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을 맞는 자가 되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녹이 슨 철과 같아서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도 곧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철을 불에 넣어 녹을 깨끗이 벗겨 내야 됩니다. 이는 회개를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치 철을 용광로에 녹여 다시 뽑아내면 새 철이 되듯이, 성령으로 영이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자기 본래의 영을 없애고 새 영이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유컨대, 처음에 광석을 캐내면 금, 은, 동, 철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용광로에 녹이면 분류가 되어 순금만 남습니다.

이와 같이 잡철을 다 버리고 순금만 남게 하듯이, 육으로 받은 영의 사고와 생각과 행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 완전한 것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영이 성령으로 다시 나면 하나님의 신과 일체됩니다. 금과 금이 일체되듯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는 평소 때나 재림 때나 주님을 맞는 데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주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1순위로 놓고 대하며 모시고 섬기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도 주님의 일 먼저 하고 해야 됩니다. 생활하는 모든 것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존재자이신데 그냥 옆에 있게 놔두고 자기 것 먼저 하고 해질 무렵에 주님 것 조금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주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난답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을 제일주의로 하면서 살면 세상에 빠질 시간이 없고 세상을 좋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시킨 일만 하고 그만 따라다니면 자기 시간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다 보면 세상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모자랍니다.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주님을 제일주의로 대하고 섬기고 위하고 모시며 그 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그만큼 해 주셨고, 천국에도 우리를 위해 수천 배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시고 지옥에 안 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실은 절대 순종하고,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과 진정 충성된 마음으로 하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에 대해 이같이 더욱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반쯤 가다 말고, 조금 가다 말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가서 원하는 것이 안되니 포기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가야만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소나 재림 때나 주님을 맞도록 내정되어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대하여 사명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원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실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는 자로서 평소에 오시는 주님을 귀히 맞고, 재림 때 주님을 맞고 부활되어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좁거나 준비한 것이 모자라서 제한하는 세계가 아니다. 많은 자들이 휴거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휴거될까?’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완전히 예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강조하신 원본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 봐요. 너무 많습니다.

화목하라.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여 남겨라. 형제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평하지 말아라. 형식 신앙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최고 사랑하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서로 위해 주고 섬겨 주어라. 없는 자가 있으면 나눠 먹고, 주린 자가 있으면 먹여 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을 보면,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 주는 것이 곧 내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가혹하게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여, 언제 주께서 옥에 갇혔었나이까.” 하고 물으니, “나를 믿고 사는 내 사랑하는 자들과 가난하고 헐벗고 잘 곳이 없는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낙심하는 자, 충성자, 혹은 하고자 하나 아파서 못 하는 자들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이 고생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안 해 준 것이 곧 내게 안 해 준 것이다. 너희들은 염소와 같이 내 말을 안 듣는 고집 세고 교만한 자들인 고로 저기 좌편에 서라. 심판이다.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라. 그러나 저들은 평소에 나를 대하듯 형제들을 대한 양 같은 자들이니 오른편에 서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꼭 하면서 살아야 평소에 주님을 맞고 예비한 자로서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을 맞을 자격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깨끗이 맞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평소 보던 주님을 맞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오늘 주님의 원본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해 주겠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을 뽑거나 모델, 기술자, 교육자 등 각종 필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뽑는다고 말했을 때부터 면접하고, 훈련하고, 생활 속에 행하는 것을 보고, 면담하고, 수련하고, 여행하면서 과정 중에 하는 것을 보고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행사 당일에 사전 프로그램대로 심사하고 발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맞고 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공의롭게 보시고 뽑으십니다. 이렇게 과정 중에 뽑아 놓은 자가 거의 주님의 재림 때 부활되고 휴거되어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두고 시대마다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사명자들을 통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전하여 준비하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맞는 모든 자들에게 공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하다가 죽은 자들은, 살았을 때 주님을 맞고 대한 행위에 따라 재림 때가 되면 현재 살아 있는 자들과 함께 영으로 다시 부활되어 주를 맞게 됩니다. 만일 재림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만 “준비하라. 예비하라. 내가 곧 온다.”고 하여 이들만 주님을 맞으면 공의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인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시작된다고 깨우쳐 주어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예비하다가 죽은 자는 재림 때 다시 새로운 영으로 부활됩니다.

과정 가운데 뽑고 내정되기 때문에 우리 섭리역사는 지난 30년 동안 기성보다 더 새롭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다시 보고 정신 차리고 맞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눈앞에 두고, 보이는 나만 보지 말아라. 주님을 맞고 나와 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경대로 살아 보라고 하니 모두 나를 볼 때 주님같이 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주님의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거지에게도 주님의 얼굴이 비쳐 보일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그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 주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대해 주며, 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신다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삼위의 한 존재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흔히 신앙인들은 평소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의 환상이나 꿈이나 체험으로 생각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평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도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같은 주님이요 전지전능하신 같은 주님인데 왜 그같이 대하지요? 이는 대하는 자의 무지이며, 주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대하니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지 못하여 보통 생활을 하게 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야 재림 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준비된 몸으로 부활되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만전을 기하고 갓춘 자만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시동이 걸려 부활이 되고 연속 휴거가 되어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78~1979년에 기독교에서는 특히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며 떠들썩했습니다. 이때는 부흥 강사들의 초청 집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숨넘어가는 소리들을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던 때였습니다. 이보다 10년 전에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말세라고 하면서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며 소란했습니다.

석막리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여 돼지와 소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때 아랫집 남 집사님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안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흥종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속지 말아라. 또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저들처럼 가르치지 말고, 그동안 산에서 가르쳐 준 부활과 구원과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또 육신을 쓰고 살면서 육으로 주님을 맞는 휴거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배운 것이 없었으면 아마도 기성의 목사님들처럼 똑같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같이 외쳤으면, 특히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은 마음이 조금하고 민감하여 내가 외친 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 이 분의 말은 신빙성이 없고 주님이 함께하여 외친 말이 아니라고 하며 따라오다가 그때그때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30년이 넘었는데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재림을 외칠 때는 기성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달리 주님이 오지 않으시니 거기에만 희망을 두면서 교회를 다니던 자들이 더 이상 안 다니게 되었고,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럴 줄 아시고 산에서 나에게 가르쳐 준 말씀을 하나하나 외치며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말씀(30개론)을 배웠지요? 그로 인하여 말씀을 받은 저를 보고 ‘정말 주님께 받았구나.’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성경말씀(30개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식을 잘못 하고 배운 자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머리에 인식을 잘못된 것도 교정하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 가르친 것도 교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귀하고 중한 생명의 말씀이면 말씀을 주신 주님이 귀하니 주님과 일체되어야 합니다. 받아 온 자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은 조건을 세우면 자격자가 되어 주님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조건을 세우기도 정말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받아 온 사람을 귀하다고 하며 말씀의 주인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받아 온 자는 심부름의 주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꼭 차도록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그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말씀(30개론)은 다 귀하지만 몇 가지만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성 교회에서는 ‘부활’ 하면 육신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고 외칩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모든 자들이 죽으면 다시 살겠구나.’ 하는 희망을 줍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신이 부활된다고 합니다. 고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왔으니 육으로 믿든지, 영으로 믿든지 부활된다는 것은 믿어야지요.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요한복음 5장 24-29절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교리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요 5:24-29)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이며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때 들은 자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하여 어느 시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치면서 영적 부활도 되고, 육신으로는 행실의 부활도 되어 영육이 사망권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보다 사망권인 구약시대에서 보다 생명권인 신약시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구시대는 마치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에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이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부활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부활된다는 것보다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영으로 부활되고 육의 행실과 삶이 변화되어 사망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님이 가르치게 하시어 그같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두 배우지 않았습니까?

육이 삶의 부활을 하여 사망권에서 나와야 영도 육과 일체되어 빛 가운데 나와 주님과 함께 삶 속에서 뜻을 펴며 전도하며 공적을 세우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 주님을 맞는 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은 주님을 맞는 데 첩경을 평탄케 해 온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성경말씀을 중심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따라왔으면 지금 듣는 긴박한 재림의 말씀도 같이 듣고 깨어 준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 밖을 보면 이 시급한 때에 시대의 깊은 잠들만 자고, 재림에 대해 말하면 ‘또 말세냐?’ 합니다.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삶의 부활을 영육으로 해 왔기에 신앙이 살아 더욱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라.」 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는 자는 항상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중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중심하여 온 자들도 있습니다. 이같이 그릇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하여 주님을 맞기 위해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思考)가 잘못되면 꼭 사고(事故)를 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초림도 재림도 한 분이 하십니다. 초림주가 재림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저 주시고, 성경에 다시 온다고 예언하시고 기록해 놓고 가신 자가 성경대로 또 오신다고 가르쳐 왔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 부활되고 육의 삶이 부활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되고 휴거되는 자격자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그 때 부활할 것만 기다리면 준비가 안되어 주님을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하고』

이 몇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대로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기본입니다. 주님은 이를 중시하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욕하지 마라. 금홀히 여거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네게 잘못된 자를 용서하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구제하는 데 써라. 믿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죽은 자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키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지켜 구원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섭리역사는 그같이 구원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만 믿고 살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로 주님은 섭리역사에 나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구원받고 거듭난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며 그같이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연속 행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생명권 안에 살아온 것입니다.

이같이 살아야 재림 때 부활되어 휴거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제대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믿으니 교회에 다니지요.

천국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좁은 생명의 구원길은 가끔 한 명씩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만 알라고 보여 준 것이 아니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태우며 같이 고생했으니 같이 천국 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면서 불만 불평하고, 수군수군 악평하고, 헐뜯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한 자들은 멸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세 때처럼 원망하면 그같이 됩니다. 주님이 사망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원망하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시고 모세 때같이 그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며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신경 써 주어야. 그러면 내가 도와 회개하게 하여 온전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세상으로 떠나가게 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까지 못 믿도록 동기 부여를 한 자들은 결국 그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에서 제거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성기는 자를 시험에 들게 하여 섭리에서 나가게 한 자들은 자기 생명을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애타게 외칠 때 깊이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마 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런 자들은 그 영혼이 육신과 꼭 하나 된 자로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이 나간 대로 나쁜 육의 나무가 좋은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예비된 자가 되지 못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되지 못합니다. 서로 돕고 악자를 도와주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 때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늘 말씀한 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다음은 ‘말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흔히 ‘말세’ 하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만 말세라고 하며 세상의 말세는 2000년이라고 합니다. 말세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다 멸하여 세상이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말세는 세상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문자적으로 보고 가르치니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르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세란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마치 계절처럼 시대마다 온다. 신약역사도 구약역사와 같이 끝이 있다. 하지만 전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또 그 행위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진·불·가뭄·홍수·태풍·질병·해충·경제·추위·더위·전쟁 등 각종 재해로 심판하신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 환난을 받고, 천 년이 찰 때까지 지상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같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부활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마음천국과 지상천국이요, 지구 공중에서 육신을 쓰고 휴거를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믿다가 순교한 자들과 짐승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과 환난 핍박을 이긴 자들과 성결하게 산 자들이(계20:4)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부활되고, 살아 있는 자는 육신이 영으로 홀연히 변하여 휴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두 30년이나 배웠습니다. 생각납니까?

주님은 특히 성경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서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실과 육신이 더욱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되었고, 영도 육과 함께 새롭게 되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도 항상 육신과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이 긍휼히 여기라. 네 영이 구제하라. 네 영이 네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그 영의 행위를 지적하며 고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행위 그대로 영은 행합니다. 육신이 변하지 않은 자는 영도 변하지 않고 사망권에 있습니다. 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빛난 영과 빛난 육으로 보이는지, 그냥 보통으로 보이는지,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지,

그 입은 웃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맞으려면 육신이 완전히 변하여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도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 제한 없이 못 맞습니다.

주님은 요즘 나가는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처럼 말씀에 손을 대며 빼고 더하고 건드리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의 영이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도 대지 말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기성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재림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집회를 하고 있는지 창을 열고 내다보세요. 빛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숨넘어가게 외쳤으니 지금은 정말 외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가 되어 정말 새롭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늘 깨어나는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2007년부터 주님은 은밀히 재림에 대해 저에게 암시하시면서 고통 중에 극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배워야 내 놓을 것이 있다. 나와 대화하자. 먹는 것과 고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신령하여 나의 뜻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시대를 깨우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음식 종류에 따라서 먹는 대로 영양가가 몸에 흡수되어 건강이 좌우되듯이,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이 좌우되고 행실이 좌우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인식하고, 잘 믿고 행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자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쫓아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쫓겨난 곳은 지옥이라고 항상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늦게 온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마귀의 주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사명자들로 급히 곧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원본이니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여쭙었더니 ‘**먼저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예비하고 기다린 자**’라고 했습니다. 어서 빨리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너희 중에 먼저 회개하고 고치는 자가 섭리에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999년도에 했습니다.

예전에 섭리역사를 불평하고 불만하며 저를 원망한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하고 돌아킨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게 되었는데 실상은 주님이 쫓아낸 것입니다.

이제 누구 이야기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고 말할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 짐 싸 줄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짐을 부지런히 챙겨야 될 때입니다. 또 수십 가지를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루가 급하니 빨리 말씀 따라 행할 때입니다.

주께 들은 비밀의 말씀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1~5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3시까지만 말씀하시며 나머지 시간에는 심정으로만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자에게만 그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깨워 놓았으니 이제 잠자면 안 됩니다. 기성은 일찍 깨워 놓아서 또 잠들을 자는 것 같습니다. 모두 깨워 줘야 됩니다. 주님이 깨워 주셔야 일어나는 새벽장이니, 인색하게 시간을 쓰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예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오셨다 가십니다. 정신이 살아 있는 자는 알고 예비하고 기다려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혹은 계시로 나타나시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나타나시고, 혹은 꿈에 나타나시고, 혹은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고, 혹은 깨달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지 못하면 마지막 재림 때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은 평소 때도 못 맞으면 재림 때도 맞을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땅의 것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겠느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선생하고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주님과 화목하며 하나 되겠느냐.” 하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나를 맞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그인데 더 엄격한 재림 때는 맞을 수 있겠느냐. 뽕을 자는 큰 행사 전에 과정 가운데 이미 다 뽕아 놓고 그 날에 발표하듯이, 재림 전에 뽕아 놓고 그 날이 되면 부활시켜 휴거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충심자를 뽕을 때는 미리 정하시고 키우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주님도 항상 미리 행하십니다. 우리도 미리 행하는 것이 최고 지혜입니다.

천적 마귀의 인을 맞으면 끝납니다. 마귀와 귀신이 오면 느낍니다. 자기 생활과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수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666 인을 치는 짐승들은 천하의 천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정말 마귀의 인을 맞지 않도록 마귀의 주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은 인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관을 많이 받으니 절대 근신해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을 맞는 신앙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3년을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매일 섬 없이 표 나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니 예비하라.’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사는 것이 부활이며 하나의 휴거라고 할 수 있듯이, 평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 맞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맞는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맡긴 개성의 센터에서 왕 같은 사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계에 가서 주님과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말은 주님과 일체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제2의 주’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이 같은 이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도 섭리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혈통거나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러쿵저러쿵하면 정말 안 될 때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가르쳐 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면서, 욥기 40장 10~14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지옥에서 파견 나와 여러분들을 꼬이고 주관하려 하니, 천적 마귀의 주관을 받지 않도록 꼭 주님의 이름

으로 쫓아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마귀의 주관을 받고 시대 말씀을 불신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666 짐승의 인을 칩니다.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정말 지옥은 이 세상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갈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수십억 배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세계를 갔다 온 자가 외쳐야 신앙이 살아나고, 마귀를 천적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게 됩니다.

사명자들은 별의별 지옥의 고통을 다 체험하며 연단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외칩니다. 말로는 그 고통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귀히 듣지 않으면 말씀이 끊어집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늘 금식하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면 모른다고 하시면서 속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너랑 같이 천국 가서 살자고 십자가를 대신 저 사망으로 못 가게 해 주고, 또 생명의 길이 되어 주고, 또 천국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오기만 하면 되는데도 왜 오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어서 자기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도 큰 죄입니다. 전도해야 전도하지 않은 죄가 없어집니다. 저도 이를 깨닫고 수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30년 동안 쉼 없이 외쳐서 주님과 함께 섬리세계를 이같이 이끌어 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정말 부지런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더 없습니다.

주님을 제일주의로 두고 살아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시간이 없어서 세상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뛰어 본 자들은 그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빠집니다. 주님의 일을 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을 통해 주님은 수십 가지를 보여 주시면서 이같이 살라고 모두에게 말씀을 외쳤건만 행치 않는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비하여 주님을 맞게 됩니다. 이 시대의 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빌며, 성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3월 18일 수요일말씀>

내 말을 듣고 예비하라

본 문 마태복음 24장 44절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매사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쓰다가, 어떤 내용을 잘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어떤 비유를 써야 되느냐고 주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였습니다. 이때 깨달아지기를, ‘비유를 합당하게 쓰지 못하면 비위가 상하니 합당한 것을 비유로 들어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비유를 들지 않으면 그 글을 보거나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비위가 상하고 심정이 상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 정말 합당하고 이치에 맞았고, 비유한 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왜 그 비유를 드셨는지 근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머릿속에 연상되어 그 현상들이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비유뿐 아니라 나의 말을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해도 비위가 상하며 심정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을 윗사람들이 자꾸 해 대면 비위가 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주님도 저도 같이 심정이 상하고 비위가 상합니다. 평소에 혼자 있을 때나 끼리끼리 뭉쳐 있을 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완벽히 고쳐야 더 이상적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위가 상해서 못 먹는 음식이 있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만의 두부나 유럽의 치즈가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한국의 된장, 술에 끓인 누룽지, 오징어를 비위가 상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도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속 시원히 내 말 좀 해 달라.”고 하시며 30대 때부터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확실하게 깨우쳐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확실하게 성경말씀을 실천하고 확실하게 전하니 전도가 잘되고 은혜의 불이 붙었습니다.

말의 위력, 말의 능력, 말의 표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확실히 전할 때 능력이 생기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실천하며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요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먼저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심령이 감동되어 행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 그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의 심정을 확실히 알고, 또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확실히 알고 능력 있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전해 주어 심령에 불을 붙여 부흥시켜 온 것입니다.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비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비위가 상하듯이 그 시대에 맞는 말씀과 제때 합당한 말을 해 주지 못하면 비위가 상합니다. 말을 이치에 맞지 않게 함부로 하는 자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위가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합니다.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도 마음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날 때나 몰라서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물 퍼내듯 한바탕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답답한 것이 풀리고, 숨통이 트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회개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별 의식이 안 되던 것도 회개할 때는 갖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회개했어도 정말 회개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확실히 알 수 없으니 고통입니다. 화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무조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하고 풀어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도 풀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여 주님께 기도했더니 확실하게 답을 깨닫게 해 주시어 모두 풀렸다고 기뻐하며 편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풀어 주셔야 속이 근본으로 풀립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따라가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왜 자꾸 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느냐. 나와 동행하면 나와 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속상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말한다고 거기에 대답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며 가야 된다. 속상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싸우면 근본이 풀리겠느냐. 오히려 더 죄만 짓게 된다. 나와 대화해야 근본이 풀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이다.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느냐. 네가 그렇다면 아직도 진정 용서하지 않았거나 내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연상이 됩니까?

<실상 도표> “나와 대화하자.”(주님과 대화)

이 상황을 영계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묻기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삼화 들어감)

주님 : “세상 사람들과 속상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나와 같이 가는데 나와만 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일절 속상한 것을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며 나머지 속에 있는 것들도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속상한 이야기 자꾸 꺼내지 말고, 혹여 그들이 꺼내도 말을 돌려 주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과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 주님과만 대화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빠져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도리입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해도 심정만 상하여 모두 일절 끊고, 교회에 다니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모두 이같이 하는 것이 주님을 맞는 자로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말할 때 험한 말을 불쑥불쑥 하면 “저 여자 보통이 아니네. 직업 따라 말한다더니만 뻔하구먼.” 합니다. 얼굴이 그럭저럭 생겼을지라도 천사같이 말하면 “겉으로 보기보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곧 앞에 놓고 정말 이제부터는 섭리 전체가 세계적으로 은혜 있고 덕이 되는 말만 하며 다 고쳐야 됩니다.

지난날 주님이 나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 조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만 들으니 별로라고 생각하고 안 고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하라고 엄히 말씀하여 그때그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모두 화목하게 살라고 수백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예사로 생각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천사장이 나팔 불 때도 부활될 수 없으며 사망으로 갈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화목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주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할까?’ 생각하며 갖가지를 확인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했다가도 말과 행실이 어긋나면 고치라고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이혼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살다가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하고 헤어지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생 꿰뚫어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데려가 주십니다. 일단 행할 것을 다 행하고 준비해 놓은 자를 데려가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듣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산 고개를 넘어오는 한 청년을 보고 소방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온 산에서 아까부터 연기가 나고 있는데 혹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청년은 “요즘은 봄이라 밭이나 논두렁에 불을 놓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논밭 주인들이 불을 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상 청년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 대강 말한 것입니다. 소방 경찰은 “그래요?”하며 조금 마음이 놓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청년이 고개를 넘어오기에 소방 경찰은 또 물었습니다. “산 너머 연기가 올라오는데 혹시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청년은 “저는 불이 난 것을 못 보았는데, 고개를 넘어와서 쳐다보니 내가 넘어온 산에서 자꾸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산불이 난 것 같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방 경찰이 “논밭에 불 놓은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 “제가 올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산불 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그제야 소방 경찰은 대원들을 데리고 산 너머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불이 꽤 번져서 산이 타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 줘야 믿고 따릅니다. 시대의 말씀을 누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확실하게 전하느냐에 따라, 불법으로 인한 생명을 사르는 불이 꺼지고 말씀의 불이 가슴에 붙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대 말씀의 불이 가슴에 붙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팔을 부는 대로 사망자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무를 서는 사람이 자면 전체가 자는 것과 같습니다.

금주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멧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둘 중에 한 명만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여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버림을 받기도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까?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주님의 경고임을 알고 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먼저 들을 말씀은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간다.”고 원본의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42~43절을 보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만일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아는 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입니다.

(살전 5:4-5)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의 재림은 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급히 준비하며 사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하고 주님께 속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오는 시기를 아는 자는 빛에 속한 자다.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자다. 나의 재림의 말씀에 귀를 기울

이는 자다.

(-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한 달 후인지,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아무리 따져도 모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릅니다.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빛에 속하여 그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시기만 알아도 빛에 속한 자들이다.

(-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부지런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너희는 ‘주여’ 하며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맞는 것이다. 그동안 말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할 것이다.

회개하고, 화목하게 하고, 말을 온전히 하고, 육과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며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행해야 된다. 하늘나라 천사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지자나 사명자들을 통해 외치는 말씀과 매주 외치는 단상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예전에는 너희들을 키우고 기르는 기간이라 웬만한 일들은 이해하고 지나갔지만, 지금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하였으니 죄가 호리라도 마음과 행실에 남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는 눈의 티와 같아서 너희가 못 견디게 된다. 깨끗이 완전하게 빛나는 흰옷처럼 티도 더러움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 예비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려고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예비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날 일은 그날 꼭 한다. 그날 일을 그날 못 하면 일주일, 한 달, 1년씩 밀린다. 그렇게 밀린 일을 어찌 할 수 있겠느냐. 그날 일은 그날 꼭 하라고 내가 한 말을 읽어 보고 들어 보았느냐.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날 일을 다 하면 보람 있고 족하다고 한 말이다. 그날 일을 다 한 자는 그날 삶의 승리자인 것이다.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도 그날 못 하면 기회를 놓쳐 못 하게 된다. 새벽기도 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전도하는 것, 강의하는 것 등 만사의 모든 할 일을 두고 말한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두지 말고 해 지기 전에 그날 풀라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풀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로 인해 해를 받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같이 작은 일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의 재림을 맞는다고 준비한다고 하느냐. 모두 풀고 와서 나를 보아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다. 완전히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데려감을 받게 된다. 도둑이나 강도들이 집에 침투하여 오는데도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잠자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도 없는 것이다. 이때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도 없다. 잠깐 편하게 잠을 자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너희는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말씀을 들어 왔기에 누구보다도 깨끗한 흰 구름 같은 자들이 되었어야 했다. 양과 염소가 함께 뛰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린다고 했다. 모두 하늘에서 하듯이 땅에서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끌어도 끌려오지 않으니 그 같은 사람을 누가 끌고 가겠느냐.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냐.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짐승의 인을 칠 것이다. 모두 즉시 회개하여라. 이제는 행위로 회개하여라. 입술의 회개는 그 같이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회개가 아니냐. 속된 회개는 없는 것이다. 지옥은 나를 믿었어도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느 한 곳만 보고 그것만 풀어서 주장하거나 전하지 말고, 곳곳마다 한 말들을 여기저기 모아 읽어 보고 바로 인식하고 행해야 착오가 없다. ‘나의 원본은 손대지 말고 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믿고 행하라.’ 하였으니 원본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성경을 읽으려면 자세히 읽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에 대해 근본을 알려면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한 성구를 다 모아 놓고 읽어 보고 기도해야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것도, 말세에 대한 것도 모두 그와 같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

성경은 모순 없이 쓰고 말했으나 몇 구절만 중심하여 보고 주장하니 서로 싸우고 배척하고 미워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냐. 이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성경의 부분적인 몇 절만 성경의 주인이 말한 것이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모두 동일한 나의 말이다. 이 시대의 사명자나 선지자들로 말하는 나의 말도 모두 동일하게, 그 답이 같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성경에 아담이 930세를 산 것과 므두셀라가 969세를 산 것도 성경의 그 구절만 보고 그 시대의 기록만 보면 의심스럽고 안 믿어지지 않느냐. 계속 읽어 내려가면 답이 나오고 의심할 것이 전혀 없다고 가르쳐 주어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은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다. 원본을 읽고 내가 깨닫게 해 줘야 깨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 알려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자세히 읽어 보아라. 잘못 풀었기에 오히려 잘못 가게 되고 잘못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알고 주장하고 외쳐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읽어 보고, 그동안의 지난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예비하고 행하여라.

지난날 내가 외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느냐. 성경을 읽으려면 자세히 읽어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말한 것으로 생각했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나 예수가 너희에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20년이나 배워서 나가 외치는 말씀을 내가 말한 것으로 믿고 생각하고 실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실천자는 위대한 자라고 내가 칭찬하지 않았느냐.

다시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가슴이 뜨겁고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이 나올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실천하게 되어 나의 재림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는 나의 재림을 맞기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마음이 동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그날그날 나를 맞기 위해 준비하여라.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몇 년도쯤에 간다고 한 말이 없다. 그 해는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한 말 중에 그 말도 다 들어 있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진정 매일 예비하는 일에 힘써 행하라.

지구도, 너희가 사는 나라도 현실체로 보면 너무 커서 한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한눈에 보고 인식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축소하여 보면 된다고 축소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무엇이든지 축소해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인생도 일평생의 결과를 보고 알려면 아직 다 살아 보지 않아서 잘 이해도 안 가고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생을 하루로 축소시켜 새벽부터 살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루를 살고, 그 24시간을 따져 보아라.

1. 잠자는 시간
2. 식사 시간
3. 거리를 돌아다니는 시간
4. 공부하는 시간
5. 직장에서의 시간
6. 놀고 쉬는 시간
7.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8. 씻고 닦고 목욕하는 시간
9. 화장하고 몸단장하는 시간
10. 전화하는 시간
11. 책 보는 시간
12. 화장실 가는 시간
13. 자기 취미생활 하는 시간
14.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15. TV 보는 시간
16. 신문 보는 시간
17. 음악 듣는 시간
18. 운동 시간

19. 시장 보는 시간

20. 식사 준비하는 시간

21. 설거지 시간

22. 글 쓰는 시간

23. 잠 시간

24. 청소 시간

25. 기도 시간

26. 성경 보는 시간

27. 교회 가는 시간

28. 전도하는 시간

29. 강의 시간

30. 말씀 듣는 시간

31. 순회 시간

32. 차 타는 시간

33. 약속한 사람과 만나는 시간

이와 같이 자기가 쓴 시간을 따져 보고 계산해 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과연 하루에 자기 할 일을 빠짐없이 다 했는지 보고, 신앙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보자. 거의 먹고 입고 자고, 자기 육의 생활을 위해 쓰지 않았느냐. 얼마나 나의 재림을 위해 살고 예비하였느냐.

인생, 일평생 살아도 할 일 못 하고 일순간에 지나간다고 이미 도표를 그려 ‘하루 같은 인생살이’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 구상이 누구의 구상이냐. 알면 말해 보아라. 너희가 어떤 개인을 따라왔느냐. 그동안 30개론을 도표로 그려 쉽게 가르쳤다. 모두 나의 구상이며 나의 가르침이었다. 왜 하나의 학문으로만 배우고 끝나 버리느냐. 생활 속에

매일 쓰고 고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말할 때 누가 가르쳐 주어 ‘축소/확대’를 배웠다고 하였느냐. 축소해서 보면 우주 세계도 그 이치를 알 수 있지만, 확대시켜 보면 너희는 영원히 모른다.

태양을 중심한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왜 아홉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너희는 아느냐. 알면 말해 보아라. 내 말을 내게 배우는 자에게 말해 주었건만 너희가 귀히 여기지 않으니, 이제 그도 말해 주지 않는구나.

진리가 자기 생명같이 귀한 것인지 알아야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이 시대 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그 얼마나 중한지 생명같이 여기는 자에게만 주고, 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만 깨닫게 해 준다. 나의 진리를 깨달고 받는 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고통들을 겪으면서 받고 전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사도 시대의 것도 보고, 역사의 흐름도 보고, 이 시대도 보아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재림에 대해 말하자. 역시 축소시켜 말하련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하루로 축소시켜 보고 살아 보아라. 과연 재림을 위해 예비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로 축소하여 살아 보고 계산해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더욱 자세히 근접하여 알게 될 것이다. 몇 년을 준다 해도 너희가 삶을 살다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염려를 내게 맡기고 살아라. 세상이 너희를 버려 가슴이 저리고, 놀라 충격을 받아서 갈 길을 잃어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 있었을 때처럼 환난 중에도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하면서 너희 소원을 기도하면 내가 들어 주겠느냐. 서로 돕고 사랑하며 내가 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살아라. 기회를 주고 재촉하여도 못 하느냐.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루어 주는 것은 때를 정했으니 낙심 말고 기다려라. 옛적에 했듯이 열심히 하고 충성으로 하라.

평소에 나를 믿는 자가 그날에도 나를 믿는다. 섭리역사를 두고 사명자를 통해 처음부터 그같이 말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짝사랑하게 두는 자가 있으니 안타깝다.

너희는 깨어 있어 이 시대에 일어난 세상의 많은 징조와 표적들과 심판들을 말해 주어 알고 온 사람들이다. 지금은 재림으로 인한 환난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날 너희에게 내가 행한 일들을 잊지 마라.’ 함이다.

지난날 너희들에게 내가 행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고로 ‘지난날을 잊지 마라.’고 외치게 한 것이다. 사람을 통해 말하면, 왜 그같이 했는지 꼭 생각해야 된다.

아픈 것도, 약한 것도,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도 진정 내게 고하여라. 내가 실행하리라.

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예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나를 최고 우선으로 두고 매일 살아야 된다. 그런 자만이 재림을 맞을 것이다. 먼저 할 일을 꼭꼭 하고, 보통 일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다. 왜 매일 살고 겪으면서도 모르느냐.

나는 약속대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천국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왔는데, 너희는 너희 몸 하나도 아직도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나의 긍휼과 자비로 마지막 짧은 연장 시간을 준 것이다. 이것도 그나마 끝이 보이며 다가온다.

너희는 알아라. 내가 너희 각자의 생활 속에 도적같이 가리라.

나 주 예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해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더 이상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원본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말고 매일 꼭꼭 행하기 바랍니다.

대만에서는 예배 때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단상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단상으로 가는 노선 그대로 가서서 단상에 서서 성도들을 쳐다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내가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설교자가 같은 노선으로 단상에 서서 “오늘의 말씀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특히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특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가슴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평소에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내가 구원을 못 시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를 했고, 그 후부터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또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하고 걱정하며 깊은 기도와 회개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잡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직접 보든지 못 보든지 느끼고 깨달아 주를 맞고 살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

<2009년 3월 22일 주일말씀>

갖춰야 주를 맞는다

본 문 누가복음 17장 22-30절

참 고 마태복음 22장 1-14절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 시대를 말씀하시며,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와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깨어 있는 자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리 알고, 급히 예비하고 갖추어 하나님을 맞았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있는 신앙을 하였기에 빛에 속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나의 심판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어 심판할 테니 어떤 것을 예비하고 갖추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식구들과 함께 희망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홍수 심판 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왜 그같이 하느냐며 물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그들에게 외치기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좋아하며 제 좋아하는 대로만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니, 회개하고 방주를 만들어 갖추야 산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고 갖추야 심판을 면하고 산다고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빠져서 단 한 명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한 때가 되어 그곳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준비하고 갖춘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방주를 만들어야 할 급절한 그 기간에 갖추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그 시간을 모두 썼던 것입니다.

노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으면 모두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설교 가운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정말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먹고 마실 거를도 없이 방주를 만드는 데 몰두하며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 짐작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시대든지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준비하고 갖추 수 있도록 알려 주십니다. 알고 깨달은 자들은 그때 그 기간에 절대 필사적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모르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듣고 따르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판이나 재림에 대하여 들었으나 그 기간에 행하지 않는 자는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롭게 사는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을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멸할 것이니 날이 새기 전에 피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지체하니 “지금은 지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롯은 절대 믿었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되고 타락되었음을 롯이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달받고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심판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이 곧 오실 때라는 것을 시대를 보면 알고 믿어질 것입니다. 정말 부패되었습니다.

롯은 식구들에게 긴급함을 말해 주어 믿고 따라 행하게 했습니다. 또 사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농담한다고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 좋아하는 사람은 진실도 농담으로 압니다. 롯이 전하는 말을 듣고 준비하고 갖추어 피해야 될 때에 먹고 마시고 의심하고, 혹은 농담이라고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그만큼 몰랐습니다.

결국 롯과 그의 식구들만 천사의 손에 이끌리어 그 성을 빠져나와 천사의 말대로 소알 산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도

적 같은 하나님의 강림을 맞고 산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 시대 주님의 재림 때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준비할 기회를 준 것처럼 미리 알려 기회를 주어 갖추게 하는 자들도 있고, 롯과 같이 심판 직전에 예고하여 이끌어내 겨우 몸만 살게 해 주는 자도 있습니다. 재림 때도 그와 같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섭리역사는 노아 때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왔고,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같이 재림에 대하여 급히 전달받고 재림이 연장된 시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데도 “농담하네.” 하며 믿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동물들도 바닥이 뜨거워지면 지진이 날 것을 느끼고 그곳을 피하여 사는데, 사람들은 신호와 경고를 줘도 믿지 않고 며칠 더 살다가 잔인한 죽음을 당합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더 거기 빠져 살다가 그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 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수백 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곳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예감이 이상하여 밖으로 뛰어 나왔고, 뒤에서 바람이 태풍처럼 스치기에 쳐다보니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먼지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 이상하니 나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느낌을 받고서도 먹는 것을 다 먹고 나오려다가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판국에 세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살 때입니까? 이 사건이 스쳐 지나가 깨우쳐 주기 위해 주님은 이 사건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고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처음에는 믿고 가다가 후에는 의심하여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본 고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미련을 두었고 절대 믿음이 없었기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감히 천사의 말을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대도 처음에 말씀을 믿고 가다가 또 세상을 돌아보고 제 갈 길을 가면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절대 믿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뛰고 달리며 가야 됩니다. 지난날 뛰지 못한 사람은 배로 뛰고, 뛰던 사람은 시대의 말씀을 듣고 갖추며 뛰고 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어느 시대든지 심판하시기 전과 강림하시기 전에 그동안 평소 빛에 속하여 산 자들에게 반드시 앞날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외치는 사명자는 그대로 외쳐 주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빛에 속한 자가 외치는 말을 듣고 같이 행하며 갖추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노아 시대와 롯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도 먹고 마시며 그 시대와 같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같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1~4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강림하신다고 한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시어 예수님을 통해 그 모습을 보이셨으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 11:1-4)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롯은 심판하러 온 천사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같이 말했는데도 보면서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천사가 급절하게 외쳤듯이,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외쳤듯이, 예수님도 살아 계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외치셨는지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은 이 시간에 더욱 생각날 것입니다. 수십 가지 비유를 대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임금의 혼인 잔치에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 했더니, 모두 자기 생활을 위해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며, 각자의 삶을 제일로 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느라 그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아니, 하루도 못 온단 말이냐?” 하며 노하여 열 일을 제치고, 올 사람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나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후에 임금이 청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할 일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감격해서 온 것입니다.

혼인 잔치날 하루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상 ‘뜻이 없다.’, ‘생각이 없다.’, ‘성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없고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이 더 급하고 바쁘다.”, “나 살기 어렵다.”, “죽으려 해도 바빠서 못 죽겠다.”는 말은 삶의 핑계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도 청하며 외쳤어도 많은 사람들은 보낸 자를 가혹하게 대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시대가 다 지날 때까지 그같이 대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하게 대하며 비난해도 주님을 맞아야 세상에서 받는 고통도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참고 견딘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올 것을 사명자는 다 알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주님의 뜻대로 다른 것들만 외치고 갖추며 온 것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외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 더 중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급절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모두 놀란 것은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어 이같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까? 주님은 세상의 인생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또 섭리역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까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3년의 짙막한 기간은 혼인 잔치날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외치셨는데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구시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극히 반대하며 막았습니다. 마귀들이 인을 치고 그들을 썩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주님을 맞았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무지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종교의 부패,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매달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제물 드리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여 성전에서까지 비둘기와 양과 소를 사고파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책망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으셨습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은 교리에만 빠졌고, 전통에만 빠졌고, 모세의 율법 이론에만 빠졌고, 형식주의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 외식자들과 형식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두 책망하셨습니다. 외식과 형식의 썩은 신앙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못된 자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았고, 주님과 그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신성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맞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여 생활에 빠지고, 자기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기에 그 시대에 주님을 맞지 못한 것입니다.

옛 시대 율법과 교리에 빠지지 않고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않은 자, 사람을 악평하지 않고 선히 대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인정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주님을 맞았습니다.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으로 강림하심을 맞은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와 같고, 롯 시대와 같고, 예수님 시대와 같습니다. 교리에만 빠져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악평하는 것과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 빠져 세상 삶의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급히 좇는 자들만 주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에 **“갖춰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갖추듯이,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을 위해 생활용품을 갖추고 마음과 몸을 갖추듯이 갖춰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맞는 자들이 가장 먼저 갖추는 것은 첫째, 말씀을 잘 듣고 거기 해당되게 마음과 육신의 행실과 영혼을 갖추는 일입니다. 바울 선생은 제대로 안되니 자기 몸을 스스로 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야 안되는 자는 주님이 그 몸을 쳐서 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물건을 사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나의 영원한 신부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어 준비하게 하고, 그것들을 갖춘 신부들만을 데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비유컨대, 결혼하는 자가 자기 배우자만 데리러 오는 격과 같습니다. 들러리들과 구경꾼을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혼인 잔치날 먹고 마시러 온 그 많은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기를 위해 갖춘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사랑도, 마음도, 행실도, 해당되는 것을 갖춘 자들만 데리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로 **“갖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찾기 위해 그동안 갖춘 자는 신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들러리와 구경꾼들이며 분위기에 들떠 먹고 마시는 자들로서 한탕 먹는 것만 준비하고 갖춘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부처럼 신랑을 찾기 위해 애태우면서 사전부터 신랑과 의논하면서 갖춘 자가 아닙니다.

신부는 결혼 전부터 신랑이 원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TV 볼 시간도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근신하며 신랑을 맞는 데 해당되는 것만 갖추느라고 한숨 쉬며 몸부림칩니다.

신랑은 신부를 찾기 위해 집을 크게 지어 놓고, **“방이 크니 옷장도 갖추고, 너 좋아하는 것과 나 좋아하는 것을 갖추고, 마음과 행실도 천사처럼, 어린아이처럼 갖춰 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신부는 그것을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가면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같이 갇춘 자를 주님은 데리러 오십니다.

혼인 잔치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신랑 앞에 이같이 갇추고 올 자가 있습니까? 오직 신부뿐입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맞는 자들이 사전부터 무엇을 예비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갇추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고민하니, 주님은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을 통해 이것저것 자세히도 말씀하시며 이 같은 것을 갇추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갇추는 사람들만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데려가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들러리 격의 삶을 산 자들도 있고, 분위기로 신앙의 삶을 산 자들도 있고, 혼인 잔치에 먹고 마시고 끝날 손님과 같은 자들도 있다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속한 자를 통해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가 힘들지만 방주를 만들어 갇춘 것같이 갇추고, 롯이 천사의 말을 잘 듣고 끝까지 가라는 곳까지 가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이제 모두 알았으니 갇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각 교회는 물론 개인이 자고 깨는 것까지 수시로 와서 다스려 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몇 년 동안 갇추었는지 모두 알 것입니다. 롯은 심판 날 전부터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같이 도적같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사전에 느끼고 깨닫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을 때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의 재림 전에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 갇춰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 능히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갇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을 가지라’고 주님이 나로 시를 써서 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들은 묵시들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 번 했는데도 안되어, 주님이 이같이 하라고 한 것이 잘 안된다고 주께 여쭙었더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할 테니 또 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모두에게도 말씀하신다며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또 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음에 또 오실 때는 꼭 해 놓고 맞겠다고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수시로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더욱 각오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저처럼 충격을 받도록 이야기 하나 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스러운 호소’라는 책을 쓴 케냐의 안나 알리 수녀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일곱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아침 일곱 시에 미사에 참석하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1987년 9월 8일부터 1988년 10월 23일까지 195회나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시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피가 나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으로 7년 동안 갇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건강하지 못하여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앓는 자기 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밀링고 추기경을 통해 기도하게 하여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수녀가 된 후에도 안나 수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밤 10시에서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매일 철야하며 눈과 온몸에서 실제로 피가 나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195번이나 실제로 나타나 그 시대를 계

시해 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니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나 수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네가 그 얼굴을 그려 보라고 했답니다. 이에 안나가 그 빛난 모습을 감히 그림으로는 그릴 수가 없다고 하니, 카메라를 주어 찍게 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나 수녀가 기도하면 눈에서도 몸에서도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피가 흘러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피로 얼룩졌는데, 그 증거로 사진으로 찍어 책에 실었습니다. 눈에는 붉은 눈물이 흐르고, 몸에서는 보다 연한 분홍색 피가 흘렀는데 그 몸에서 향기가 진동했다고 본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에도 피가 흐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에 안나 수녀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나도 너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피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또 마귀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듯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기에, 믿는 자들이 거기 빠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안타까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안나를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추기경이 인정하게 하시면서 결국 모두 믿게 하도록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흔히 바보 같은 자, 연약한 자, 사람들이 별로로 보는 자들을 통해 은밀히 역사하십니다. 선생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 살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섭리 사람들의 믿음 점수는 평균 80점밖에 안 나온답니다. 말씀도 누가 주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특히 오래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 믿고 행합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점수가 80점인 사람은 갖추지 못하여 절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각종 발악을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시대는 재림을 앞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나 직접 유혹할 때 고임을 받고 끌려가 살지 말라고 이같이 심정 태우며 말하는 것을 모두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의 저서는 지금 절판되어서 서점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았지요? 주님이 보여 주라고 하셨기에 보여 주었습니다. 사진이 푸른빛을 띠는 것은 빛이 강하면 푸른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별들 중에서도 푸른색의 별은 열이 최고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마치 산소용접 할 때와 같이 푸른빛을 띠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모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마지막 은혜의 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고,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에 몰두하여 자세히 듣고, 그동안 들은 재림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고 행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신부처럼 갖추야 됩니다.

신부가 결혼 전에 신랑이 말한 대로 그것에 몰두하여 필요한 것을 갖추듯이 꼭 갖추야 됩니다. 전도 공적과 의의 공적과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육과 영이 갖추야 됩니다.

(갈 5:22-23)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외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꼭 갖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툼과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며 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한 것에 순종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위해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깨끗하고 청결한 신앙의 삶을 갖추고, 말을 할 때도 절대 은혜로 하여 의롭고 착한 말을 하도록 갖추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게

갖추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인들은 이때 뜨겁게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안나 수녀에게 하신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사랑의 불꽃 위에 올라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 주님 사랑, 말씀 사랑 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의 불꽃 위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갖추야 됩니다. 주님은 말과 행실이 정말 불꽃같습니다. 고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가슴이 뜨겁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주님이 사명을 주어 보낸 자들의 말씀과 그 행함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연행 심사를 갖추고 살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새벽에 완전히 기도하는 것, 시간을 온전히 쓰는 것을 갖추야 됩니다. 기도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체질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낮에 생활할 때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갖추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명자 린다로 전한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행하면서 갖추야 됩니다. 공홀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갖추고, 잃은 생명을 찾아 백 마리 양을 채워 갖추고,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말고 주님을 맞는 데 쓰면서 갖추야 됩니다.

그동안 주님이 섭리역사에 심정 타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시간 뺏기지 마라. 시간 뺏기면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5분도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어, 나는 수십 년 동안 외쳐 왔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먹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갖추지 않으면 주님과 통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대화도 안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갖추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의 천적인 마귀가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해 버리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사람은 화끈하기는 한데 오래 못 가서 그 마음과 행실이 욕조의 뜨거운 물처럼 곧 식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민족이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에서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아예 생각하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연장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섭리역사는 특히 연장된 시간에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고로 이제는 실패 없이 부지런히 긴장하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초소 근무자는 어떤 사건을 확실하게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끊이면 안 됩니다. 전달해 준 말을 듣고 행하고 갖추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연장하신 시간도 그나마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려 할 일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나태와 태만**’은 성공할 사람도 실패하게 하는 천적입니다. 마귀의 술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태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신**’은 실패할 사람까지 성공하게 해 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주님은 나를 가르치실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해 놓고 미리 갖추 놓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해 놓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난 30년 동안 항상 긴박성을 가르쳐 주셨고, 긴장하며 근신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집념과 사고력에 대해 말씀하시며 번개처럼 행하고 빠른 구름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그 터전 위에 섭리역사를 지휘하고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패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중도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끌고 가지 못합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능력으로 함께하며, 성령으로 거듭남과 그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3월 25일 수요일말씀>

이와 같이 이러하다

본 문 누가복음 17장 26-30절

먼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말함을 먼저 자세히 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씀과 주님이 근본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복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재림을 제대로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니 들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깨달은 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것을 그와 같이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과 7장을 읽으면 잘 깨달을 수 있고, 롯 시대는 창세기 19장을 읽으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 번씩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려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황을 보고 깨달은 것을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한 것과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을 깨달아 현 시대를 바로 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깨닫고 안 것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알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와 롯 시대에 노아와 롯만 피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상상하지 못할 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일어나 심오 규빗(약7m)의 물이 찼고, 롯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이같이 심판했듯이, 이 시대에도 휴거된 자만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도 하늘이 택한 자를 피하게 하신 후에 물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재림하시어 택한 자는 휴거되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남아 갖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이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말씀대로 심판으로 인하여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각종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처처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도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깨달은 것을 통해 아직 깨닫지 못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깨달으라.’ 함이며, ‘어떤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아직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함입니다.

주님은 “내가 과거와 현재에 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왜 도와줘서 감사하다고만 하고 행하지 못했느냐. 못 한 죄도 회개하라. 나와 의논하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해서도 매를 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기는 하는데 빨리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은 짝 지어 다닌다.”고 말씀하시며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해야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빨리 깨달을 수 있고, 그 근본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에 주님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어떤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뒤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두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거의 그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거의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앞에 하시면서 현 시대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번 주일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이 인자의 시대도 그와 같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깊고 고상하고 오묘합니다. 주님은 급절하게 감동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빨리 되고 듣는 즉시 깨닫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실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현실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짝 지어 가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육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을 하시며 짝 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해 말하려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 같이 말해야 됩니다. 10년을 말한다 해도 남자에 대해서만 말하면 인생에 대해 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말한다 해도 남자와 여자에 대해 같이 말해야 인생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육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육신 세상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영에 속한 마음적인 것과 영에 관한 말씀과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도 짝 지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것을 통해 성경의 짝 지어진 말씀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고로 성경을 제대로 깊이 보고 하나님과 주님이 선지자들과 사명자들로 하신 말씀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니, 앞에 말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뒤에 아직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면으로 짝 지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성경은 짝 지어 말씀했다.”고 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나 예수가 주는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짝 지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도 그러하다. 너희들에게 말씀할 때도 그러하다.”고 하시며, “자유로운 자와 감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르고, 천국과 지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는 소리가 다르고, 의인과 악인이 하는 소리가 다르고, 나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 깨달음이 그리 더디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극한 환경 중에 있는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정의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쓰십니다.

-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고통 중에 주님께 말씀을 받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

으며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전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육계와 영계의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직접 보고 외치시니 그 말씀이 간절하고 확실했으며, 읽거나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충격적으로 깊이 와 닿았습니다.

-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왜 벽과 얼굴을 맞대고 그토록 슬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가 곧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그같이 슬피 울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자기 외에 누가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 “네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간구와 회개의 눈물로 인하여 이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일생을 살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랑하여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 민족이 심판을 받아 이웃 나라에 끌려가 갖은 고통을 받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미련한 시대를 향해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셋째, 이방 민족들에게 시대의 급절한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교만하여 주권과 세력만 넓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심판한다고 가르쳐 줘도 오히려 욕에 가두고 벌을 주었습니다. 욕에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순간에 거대한 민족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한 황성 옛터가 되었습니다. 고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복을 받고 살 민족이었는데 말씀 한마디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같이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 개탄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애가를 읊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작지만,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택함을 받은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왕자같이 살고 공주같이 살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제일주의로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받아 다 쓸려 가듯이, 소돔 땅이 폐허가 되듯이 망한 것을 보고 눈물로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모두 잡혀가 여기저기 움막을 쳐 놓고 살고 있고 게다가 이웃 나라에 조공까지 바치는 신세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쳐다보니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성경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도 목이 터지게 왕에게 외치고 제사장들과 방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업신여기며 외치는 자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욕에 가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어 역사에 남겨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다시는 그같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의 거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사울 왕에게 자기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윗을 무고히 미워하며 원수시하지 말라고 양심적 경고와 전쟁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다윗을 미워하듯이 계속 그를 미워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왕궁이 무너지고, 사울과 세 아들은 전쟁 중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이미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이 주님은 경고하시며 사명자로 외쳐 알게 하십니다. 그것마저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서 후대를 이었습니다.

사명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든지, 주님이 직접 외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셔야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확실히 알아듣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실과 앞날을 다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매일 지옥으로 가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심정 태우며 하나하나 다스리고 다니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삶 속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라. 누구나 자기가 좋아서 행한 불의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니, 실상은 자기가 좋아서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일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미래의 일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어도 확신이 없고, 확실하게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모두 읽어 보겠습니다.

(눅 17:26-30)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인자’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 시대와 롯 시대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삶에 빠져 자기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현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도적같이 오실 때도 노아 시대와 같이, 롯 시대와 같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오셨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자기 삶에 빠져 살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각자 심판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모두 구원받도록 사전에 예비할 시간을 주시고, 끝에 가서는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들만 심판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주님은 심판을 하실 때 사전에 절대적으로 심판을 피하도록 마지막 예비할 시간을 주시고 경고까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예정된 날에 심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섭리역사를 30년 동안 펴 오면서 섭리 안에서나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은 반드시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끝에 가서는 경고까지 해 주십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자들은 피했고, 듣지 않고 남아 있던 자들은 죽거나 다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뉴스에도 보도되고 신문에도 기사가 나서 다 본 것이지만, 주님이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니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들어 보겠습니다.

섭리역사가 30년 동안 오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말해도 잘 모릅니다. 고로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노아 시대와 롯 시대 소돔 땅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사건만 말하겠습니다.

1. 고베 대지진 - 1995년 1월 17일, 6,300여 명의 사망자와 1,400억 달러의 피해액 발생
2. 한국 삼풍백화점 붕괴 - 1995년 6월 29일, 501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 발생
3. 한국 IMF -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달러를 지원받아 외환 위기의 고비를 넘긴 일 (월명동 전망대에서 설교할 때 물질 대 가뭄이 온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고, 모두 저금하고 아끼자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와 같이 했습니다.)
4. 코소보 전쟁 -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쟁이 발생하여 코소보인과 민간인 7,500여 명이 사망
5. 대만 지진 - 1999년 9월 21일, 2,193명의 사망자 발생 (대만 국민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대지진으로 많은 절들과 사당들이 무너졌다.)
6. 남미 베네수엘라 대 홍수 - 1999년 12월 사망자 3만여 명 발생
7. 프랑스 폭풍 - 1999년 12월 (1999년 크리스마스가 끝났을 쯤 유럽 각국은 2회에 걸쳐 맹렬한 폭풍우가 덮쳤고, 프랑스뿐 아니라 스위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도 재해를 입었다. 최근 오십년 동안 최악의 폭풍우라고도 말하여 진다.)
8. 미국 9.11 테러 - 2001년 9월 11일
9. 사스(SARS) 전염병 -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 발생
10.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몰디브 등지에 일어난 지진해일(쓰나미) - 2004년 12월 26일 발생하여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500만 명의 이재민 발생
11. 중국 심천 화재 - 2005년 심천의 유흥가 한 주점에서 발생하여 320여 명이 사망
12. 미얀마 사이클론 - 2008년 5월 2일, 13만 8천여 명의 사망자와 100만여 명의 이재민 발생
13. 중국 스촨성 지진 - 2008년 5월 12일, 7만여 명의 사망자, 1만 8천여 명의 실종자, 37만 3천여 명의 부상자, 500만여 명의 이재민 발생

주님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나라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노아 시대와 롯 시대처럼 미리 경고해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도 안심하고 ‘설마 그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하며 믿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하는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당한 후에 뉴스를 보아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징조가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이 있었는데도 ‘설마...’ 하며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누구든지 그같이 하지 않았으리라.” 주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은 “고로 노아 시대와 롯 시대처럼 되고 말았다. 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온 세계에 마지막 경고를 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인터넷으로, 책으로 읽고 알았는데도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 평소 하던 신앙생활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방인들은 농담같이 듣거나 자기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듣고 ‘설마...’ 하며 안심하고 살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순간 스치고 지나가고 만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섭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 단상의 설교를 통해 말하니, 소돔 땅의 롯에게 천사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거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측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만 내 믿음에 따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경고해 주셨습니다. 고로 설교 때 “그곳에 가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너희 민족에 놀랄 일이 일어나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못 가게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지금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모두 총동원해서 막았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경고를 듣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급히 빠져나와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도 문화 교류를 통해 전도하며 더 있으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시고 거기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에 큰 폭풍이 일어나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전에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땅을 쳐다볼 때 주님께서 “겉은 천국, 속은 지옥이다. 차라리 겉은 지옥, 속은 천국이라면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같이 세계 곳곳에 그 많은 참사가 일어났지만, 섭리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전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못 가게 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생명시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거나 계시하신 말씀은 거의 다 이루어 주셨고, 미리 경고한 사건도 어느 것 하나 착오 없이 다 일어나 뉴스로도 보도되었습니다. 사전에 이 같은 일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임을 그동안 간증해 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내가 말한 재림도 일정일획도 착오 없이 임박해 오고 있다. 고로 외쳐라. 중지하지 말고 재림 때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확실하게 전해 줘야 된다.”고 하시며 “섭리역사는 그동안 성장해 오던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방법으로 말씀하니 더욱 너희에게 맞게 성장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맞게 말씀해 주셔야 주의 날을 맞도록 예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전에 어떤 일들을 확실히 말해 주어도 자기 믿음과 신경함의 수준에 따라 어떤 이는 확실히 믿고, 어떤 이는 부분적으로 일부만 믿고 그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 그제야 믿고 외칩니다. 당한 후에는 예언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소돔 땅같이 심판 후에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거의 알려 주지 않고, 계시도 받기 어렵고, 하나님과 주님이 막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게 숨길 수 없구나.”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도 사전에 가르쳐 주시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왜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은 일이 어느 지역에 언제쯤 일어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어떤 놀랄 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 알면 되지, 구체적인 일을 안다고 해서 다 믿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고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주님이 선지자들이나 사명자들로 간박하게 말씀하신 것만 알면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시간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긴박한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극한 깊은 비밀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 30년 동안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졌듯이, 임박한 나의 재림도 그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역사를 펴 오면서 90년도 초반 해도 돈이 없어 큰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자리에 모여 설교 들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뛰고 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예배 장소와 뛰고 놀고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겠다고 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도록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더니, 일부는 좋아하기만 하고 ‘설마...’ 하며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조차도 다 잊어버렸고, 월명동을 개발하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완공한 후에 사용하면서 그제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긴박함을 이같이 생각하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진행 중인데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지 못할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된다고 외쳤어도 사람들은 ‘설마...’ 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롯이 이 성은 곧 심판을 받으니 나를 따라 나가서 살자고 했어도 ‘설마...’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면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시 믿었으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한데, 섭리 사람들 중에서 일찍 온 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환난과 억울함을 당하며 이단 소리를 듣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언론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종교보다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환난을 받아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저 막연히 지켜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오직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다가 구름 떼같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섭리역사를 오해하고 서로 싸우다가 나갔고, 나간 자들이 강 건너가 갇은 분풀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처럼 참고 견디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날 동네 개들이 물어뜯고 싸운다고 해서 같이 싸우다가는 혼인 잔치 못 하고, 신부는 신랑을 못 맞고 신랑은 신부를 못 맞는다고 하며 참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오다가 10년 만에 서로 만나려 하였지만 우리의 기대는 또 어긋났습니다. 모두 이상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2000년이나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직접 선포하시어 「재림이 가까웠다. 너희는 연장된 시간의 끝에 살고 있다. 빨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시대 말씀을 누가 전해 줘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를 통해 재림 때까지 주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하고 갈 길을 모른다고 했으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의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말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빛에 속해 있는 자란, ‘주님이 보낸 사명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란, ‘주님이 그 순간 그 순간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지진과 전쟁 등 놀랄 사건이 일어나니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가지가지 의문들이 풀리듯이, 이 시대에 외치시는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듣게 되니 섭리역사 30년의 의문이 풀리고 환난과 핍박과 근래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들이 모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깨달아 알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갖은 고통을 받으며 긴장하며 살게 하시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더욱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하시고 초간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 주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깨닫고, 성경에 이 같은 일들을 두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 섭리역사는 그동안 재림에 대하여 준비해 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통해 더 긴장하고 신앙의 잠을 못 자게 섭리해 오셨던 것입니다. 생활의 부활,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며 평소 살아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나로 외치게 하시고 본을 보여 그같이 너희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도 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온 것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들을 통해 계속 외쳐 오기도 했습니다.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니 요즘 재림을 앞에 두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들을 한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며 **“너희는 그동안 듣고도 왜 못 들은 체 하느냐.”** 하셨습니다.

선생은 그동안도 「나는 주님께 배우는 자로서 주님은 나의 선생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위해 본을 보인다.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애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주님을 백 배, 천 배 더 사랑해야 된다.」고 외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말세 때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니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고 외쳐 왔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배운 말씀 중에 재림에 대한 깊은 것이 다 들어 있었다. 다만 재림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외쳐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진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찾고 부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기 전, 연장 시간의 끝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은 **“나의 재림을 맞는 것은 일순간, 몇 달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치 찻집에서 남녀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눈이 맞아 사귀고 결혼하여 신부를 맞고 신랑을 맞듯이 맞는 것이 아니다. 일생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인생을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공적을 쌓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흉안 소년들과 흉안 소녀들이 늙는 줄 모르게 부지런히 순종하며 뛰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말씀만 잘 듣고 갖출 것만 갖추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궁을 지어 놓고, 갓은 별장들을 지어 놓고, 각종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와 같이 살 배우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기에 가 보았습니다. 환경도 경치도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예쁜 여자가 있다고 하여 가서 확인해 보니, 배우자도 없고 누구 사귀는 사람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것을 보지 않고 사람 하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궁궐과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와 이야기를 해 보고 그 행실을 보더니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 같은 여자를 보고 그냥 가다니...” 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냥 갔을까요? 궁금하지요? 미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미쳐서 거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남자가 갔어도 관심 없이 대하고, 귀에다 이어폰만 꽂고 음악을 들으며 노래만 부르고, 세상의 온갖 것에만 신경 쓰고 행동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세상에 미치고 자기 취미에 미친 것으로 잘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긴장을 하고 이리저리 숨 가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고 달동네 같은 곳에 갔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의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사람 하나만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있어 가 보니 신발을 벗어 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했는데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해가 저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여자는 누추하지만 자고 가시려면 자고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을 보니 너무 좁아서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 마치 죽은 자가 들어가는 관 속 같았습니다.

서서히 이야기를 해 보니 인물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너무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인생의 최고 우선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여자는 신랑을 만나 결혼하여 모시고 받들고 위하고 섬기면서, 신랑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매일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환경에 맞춰서 허름하게 입고 갓기에 여자도 남자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보니 여자의 사고와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그 같은 환경에서도 불평 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집은 어느 정도면 되냐고 여자에게 물으니, 자기는 남자 하나 보고 시집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며칠 못 가서 죽을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도 급한 사람이라고 하며 결혼하지 못하여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환경도 안 보고 나를 위해 갓춘 자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어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수저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또 집에 언제 오겠다는 날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오기는 또 오겠다고 희망을 주고, 그 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같은 여자가 좋다고 하며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은밀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직접 오지 못할 때는 긴긴 사연의 편지로 해야 될 일들을 전해 주면서 도적같이 오고 갔습니다.

여자는 매일 남자가 갓추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 밤잠을 못 자 가며 새벽부터 정성을 들이고 살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데려갈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직도 갖춰야 할 것이 있기에 남자는 기대를 걸고 희망에 차서 오고 가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는 그 행실을 볼 때 그 남자에게 휴거되어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섬리 사람들은 섬리 뛰느라 돈을 못 벌어 돈이 없고, 또 돈 쓸 일이 없어서 세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근성을 고치지 못하면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주관에 빠지고, 자기 사고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 사는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썸’ 하고 와 달아 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 연속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주관을 받기로 골방에 가둬 놓아도 거기서도 스스로 할 일을 못 하면 죄를 짓게 된다. 주위를 보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도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듯 해야 된다. 환경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느냐. 각자 자기 마음대로 못 하도록 환경이 나쁜 곳으로 보낸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쉽게 고쳐지겠느냐. 누구든지 본인이 깨닫고 스스로 해야 된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환경과 상관없이 전에 네게 말한 대로 시계처럼 어디 갖다 놓아도 1분도 어기지 않고 제때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환경이 살아 주느냐. 자기 하나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며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섬리역사 각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일부는 청소되었고, 일부는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며 마음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깨달은 것을 통해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너무 느리게 청소들을 한다. <구원의 말씀>에서 말씀한 죄는 모두 오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물을 청소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하기는 하는데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 이같이 하라.”고 하시며 청소기를 빼앗아 번뜩번뜩하게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섬리 사람들에게 계속 갖가지로 도적같이 가십니다. 각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듣고 안녕히 가세요. (간증문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9일 주일말씀>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본 문 마태복음 4장 17절

참 고 마태복음 4장 1-16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궁금하지요? 주님의 말씀은 다 귀합니다. 주님은 귀한 말씀과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더 귀하고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며 세상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갖추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음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과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여 모든 할 일을 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마귀가 많은 생명들을 사망권으로 끌고 갔기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고 막을 마귀와 먼저 싸워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죄에 대하여 모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손님을 맞더라도 먼저는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집을 청소한 후에 손님을 맞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맞으면 손님도 꺼려하며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맞는 자신도 누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맞을 수 없고, 마음이 꺼려서도 맞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를 맞더라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맞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맞고, 천국을 맞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맞는데 깨끗이 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전에 친구들이 맛있는 것을 사 가지고 집에 놀러 온다고 연락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즉시 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아니면 오후에 오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집을 깨끗이 해 놓고, 이것저것을 준비해 놓고, 자기도 단장한 다음에 친구들을 맞으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맞는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고도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고,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꿈에서나 기도 중에 주변 환경이나, 방이나, 화장실에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이 보일 때는 아직도 깨끗이 회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도 더럽구나. 저기도 아직 청소가 안 되었구나.” 하며 다 적으라고 하십니다.

손님이 오니 급히 청소 먼저 하라고 했는데도 시장으로 화분을 사러 갔습니다. 자기 방이나 정원에 놓고 손님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급한 것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가실 때는 화분 보러 안 가시고, 사람 보러 가시니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를 보러 왔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사랑의 조건이 잡혀 그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가 그 여자에게로 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로 조건이 잡혀 마귀가 그 손을 꼭 움켜쥐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고로 **‘먼저 회개하여 깨끗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일 급한 것 먼저 하고, 꼭 할 것 먼저 하면서 순서별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살면서 꼭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성결과 청결’**입니다. 정말로 성결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주관하여 사망권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입니다.

주님은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너와 나 사이에 높은 담이 있어 못 가겠다. 네가 회개하면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도록 내가 용서한다. 죄는 하나하나 자복해야 된다. 마치 구석구석 청소하듯이 회개해야 하며, 목욕할 때 지체별로 깨끗이 씻듯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수십 가지의 죄를 놓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백지 위에 있는 글씨를 한 자 한 자 지우개로 지우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며 하나하나 회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세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백한 후에는 뉘우치고, 죄 지은 것을 분통히 여기며 성경말씀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도록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 여호와 앞에 오라. 다 준비해 놓았다.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사 널리 용서하리라.」

(사 55:1-9)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개인의 때, 민족의 때가 되면 노아 시대같이, 롯 시대 소돔 땅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로 니느웨 성같이 빨리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샅은 사망이고, 의의 샅은 축복입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주님은 “나의 신부가 되려면 깨끗이 회개하라.”고 외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요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도 실상은 30개론 말씀 가운데 해 왔고, 설교 때 다른 말로 해 왔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것은 다 해 주니, 너희는 성경말씀대로 할 일을 하라. 회개도 하고, 절대 믿기도 하고, 절대 진실로 기도하라. 그 어떤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든지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야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충실하지 못한 것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실상 ‘주님’ 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마음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나의 재림이 곧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제대로 회개되지 않은 자들도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죄는 더러워 썩은 물과 같고, 썩은 음식과 같아서 빨리 회개하여 버려야 됩니다. 또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아서 장사하듯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슬픔으로 죄를 멸시하며 정말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통회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는 정말 깨끗하게 됩니다. 회개된 것은 자신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확실히 보여 주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재림을 위해 준비할 수가 없다. 진실로 죄를 회개한 자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소망을 두고 죄를 짓게 하여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타락시키려 하고, 주님과 일체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들을 지옥에 가게 하려는 엄청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잠승의 인을 씁니다.

“**마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너희들에게 저지르려고 밤낮으로 발악을 한다. 그런데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서 고생하느냐.**” 하고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 주고 살려 주었기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믿고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 하느냐.**” 하며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려 하시는데 내가 간구하여 지금까지 지구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섭리의 죄보다, 민족의 죄보다, 그 어떤 죄보다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 버려야 자기가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석방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나와 부활됩니다.

마귀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즉시 회개해 버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자기 죄는 깨끗이 처리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꿈도 맑게 껴집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면 깨끗한 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계도 맑게 보입니다.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1분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도 주님도 이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해야 제일 좋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 주니 진실로 회개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의 계명을 범했는데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가?’ 생각합니다. 이성의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도 다 죄니 일단 다 회개해야 됩니다. 흔히 자기가 행한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든지, ‘이것은 죄가 아니겠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일단 계명을 범했으면 진실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깨끗한 옷을 자기가 더럽히지 않고 먼지나 매연이나 다른 사람이 흘린 물은 손으로 옷을 만져서 더러워졌어도 자기 옷이 더러워졌으니 자기가 빨아야 하듯이, 스스로 지은 죄뿐 아니라 상대로 인해 지은 죄도 모두 회개하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꿈에나, 기도 중에나,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청소 안 되었다.”고 하시며 상징적으로 “네가 아직 회개가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고 계시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회개할 기회가 지나갑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읽고 복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마음이 감동되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축복을 주어도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서 다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1년, 2년, 3년 후에 돌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기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회개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은 거의 사탄이 막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놓고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 죄가 다 회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기 죄를 하나 하나 고해야 회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자기모순이 고쳐지게 됩니다. 전도하지 못한 죄, 화목하지 못한 죄, 관리하지 못한 죄, 이성의 죄 등 각종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주님은 안나 수녀에게 「너희 죄를 신부들에게 가서 고하고, 스스로도 고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님들에게 가서 죄를 고하여 용서받고, 주님께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세운 사명자 앞에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회개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고 재림을 준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보따리를 한 짐 지고 다니면서는 재림을 위해 준비할 수 없으니, 먼저 죄 짐을 벗도록 회개하여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재림 준비를 각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기록하여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루 만에 너희 죄가 없어지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고, 죄를 할문하던 마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담이 무너져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눈물까지 흘리시며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갇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쳐다보면 심정이 터질 것만 같다. 그를 위해 십자가를 저 주고 죽어 주었

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사탄이 지옥으로 자꾸자꾸 날마다 끌고 간다. 그것을 쳐다보면 가슴이 타고 괴로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부림치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옥은 실상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 자기가 허락지 않으면 결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물으니, 주님은 “자기가 좋아서 이성 관계도 하고, 자기가 좋아서 도둑질도 하고, 자기가 좋아서 거짓말도 하는 것이다. 악한 행위도 실상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이 아니냐. 좋아서 행한 것이고, 자기 마음이 허락해서 욕이 행하고 결국 영이 그 마음과 같이 지옥에 가지 않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여기고, 그것을 마음이 허락하여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남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도, 악한 짓도 마귀가 꼬이고 주관함으로 자기 마음이 허락해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그를 주관하고, 각종으로 가혹하게 해를 주고 괴롭힐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행동을 거스르게 하면서 들어오고, 각종 악평과 무지한 말과 악한 말을 하여 귀를 거스르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그 주관을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그 사람을 주관하여 스스로 행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쓰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쓰여지는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짐승의 인을 맞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도 마귀는 섭리 안에서 불만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며 섭리역사에서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섭리 밖으로 꼬여 내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항상 선과 악을 쪼개어 섭리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모입니다. 불만자들과 악평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고 쪼개 내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순종하며 따라야 좁은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깨닫겠지요?

주님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사랑과 긍휼로 얼마든지 전능하게 행하시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삼위일체가 되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도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천국에 데려가면 세상에서 했던 행위를 천국에서도 똑같이 하기에 못 데려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큰 행사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일이 몸수색을 받습니다. 무기나 각종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흉기나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몸수색을 하고 단 한 가지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가는 것을 아예 금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폭탄이나 각종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빼앗고, 그런 사람은 비행기 안으로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성격의 무기, 죄의 무기, 각종 악한 마음의 무기는 일절 못 가지고 갑니다. 다 회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진리, 선하고 착한 마음,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속히 회개하여 공적을 쌓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적이 아닙니다. 행한 것만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행한 것만 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긍휼함도 남을 긍휼히 여겼을 때 공적이 되어 가지고 갑니다. 각종 물질도 하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쓴 것만 공적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만 갈 수 있습니다. 돈과 귀중품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으니, 하늘을 위해 드리고 형제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쓴 자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20)」는 말씀대로 자기 보물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 하늘나라의 것으로 받게 하십니다.

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공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쓴 것만큼만 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지고 있지만 말고 써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음식이 썩어 버리듯이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축 도>

주 하나님 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1일 수요일말씀>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본 문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말씀들은 특히 신약성경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자신들이 깨닫고 행한 일들을 신약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왜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천국을 이루고, 죽어서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살 동안에 마음지옥, 삶의 지옥을 이루며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 봐야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축소시켜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며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하여 살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폐한다고 오해하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해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여 해를 주고 그릇되게 행하니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고 형제들을 대한 자들은 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섬리도 지난날 기성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왔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오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성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확인하지도 않고 오해한 대로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고, 온갖 말을 퍼부으며 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마음 아픈 고통을 받았고 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확실히 알고 서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성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형제들을 오해로 대하고 갖은 말을 하며 해를 주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희 의가 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십니다. 고로 **누구든지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오해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에 오해하고 행한 자들을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며, 전쟁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해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오해는 마귀가 침투하는데 있어서 큰 요인이 되어 마귀를 불러옵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빼든지 버리고 가르치는 것도 죄다.” 하시며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성경의 근본을 이제부터는 더욱 섬세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식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남의 잘못만 끌어내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은 더 완전하게 「형제를 보고 분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보고 분노하고 욕하는 자는 모두 큰 죄를 지은 자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형제들에게 행한 것들을 예사로 여기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에 주님이 외치신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세상법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령 형제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께 고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공의로 심판하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고하냐.**”고 했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주님께 고하지 않고, 세상 사망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범한 죄를 고하냐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자기를 다스리시는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이 다스리는 자로서 사탄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에 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 고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에 공의로 세밀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서로 풀고 사과하고 내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반드시 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은 더 완전하게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냐고 합니다. 음욕을 품지 않으려 해도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음욕만은 생긴다고 하면서, 차라리 여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여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든지, 남자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도 생각하면 또 마음에 음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셨든지, 여자만 창조하셨으면 그 같은 죄를 안 짓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천국은 가겠지. 정말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처럼 남자나 여자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여자끼리 있어도, 남자끼리 있어도 동성연애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셨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도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이성을 생각하니까 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관권을 벗어나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면 이성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자를 원수로 여기고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된 자라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전혀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는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성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화된 자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케 하여 죄를 짓게 하면 빼내어 버리라.」 하시며 「네 지체 중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없애 버리고, 나머지 지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죄는 결국 지옥에 가는 데 쓰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천적으로 보고, 자기 몸을 감은 뱀같이 보고 다루고 처리해야 됩니다. 언젠가 설교 때 「죄는 마치 방에 들어온 뱀 같으니 잡아 없애고 잠을 자야 되듯이, 그 날 죄는 그 날 꼭 회개하고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는 마치 뱀과 같고 마귀와 같습니다. 사탄은 죄를 자기 권세로 삼고 우리를 각종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이해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눈을 빼고 영원토록 고통 받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하다고 하며, 눈뿐만 아니라 다리를 잘라 내고서라도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에 사명자를 데리고 가서 지옥에 가 있는 자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지옥에 대한 글을 쓰게 하여 모든 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도 ‘그러하니 제발 지옥에 가지 마라.’함입니다.

모두 그 책을 읽어 보아서 알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도 지옥의 고통을 받았기에 그 가혹함을 보다 실감나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지옥의 고통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주인을 오해했느냐. 내가 너 같은 줄 알았느냐.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시며,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주인의 종으로 살다가 집 밖으로 쫓겨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으며 살고, 겨울철이 되면 추워서 이를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을 흔히 보시면서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충격을 받고 행하게 됩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으나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자는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라고, 주님은 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실 때 다시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오해하고 정죄하는 것도 큰 죄니, 선선히 말하고 기회를 줄 때 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선생에 대해서도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 그와 반대로 천국에 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재림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내 버리고 지옥에 가지 마라.’는 말은 첫째, “차라리 그같이 함이 낫다.” 함입니다. 둘째, ‘죄를 짓는 근성과 마음과 버릇을 죄지은 눈을 빼듯이 네게서 빼내 버려라. 네 몸에서 눈이 빠진 만큼 해가 되어도 근성을 빼내라.’는 말씀도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눈을 빼겠느냐, 회개하겠느냐. 어느 것을 하고 천국에 가겠느냐.”고 주님은 물었습니다. 회개하기 싫은 자는 그렇다면 눈을 빼내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눈 빼지 않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요. 이같이 회개가 좋습니다.

주님은 “죄 짓는 습관과 근성을 고쳐야 되고, 마음과 행동에서 그것을 빼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고, 악평하고, 남만 헐뜯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나를 성의 없이 대하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타락하고, 형제를 참소하는 것들이 죄로서 습관이 되었고 근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그 얼마나 좋은지 모두 알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말할 때,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기회니 어서 회개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수시로 가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가까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해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내가 대신 죽어 주었기에,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으면 마치 내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이나 괴로움을 겪는다. 고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며 무지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위를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자기 마음이 허락하여 자기 육신이 즐겨 행한다고 하시며 ‘지옥은 그 행위로 인하여 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의 저서에서도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왜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언젠가 설교 때 「하나님과 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혹시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를 찾으려나? 부르려나?’ 하며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준 적이 있지요? 하나님도 주님도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로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 뜻에 벗어난 것이라면 자기 마음이 허락하게 두지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기 원하신다면, 왜 재림을 앞에 두고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그 시간을 연장해 주셨겠습니까? 죄를 진정 회개해 보아야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사탄이 주는 고통을 받게 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므로 회개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어 선생은 죄에 대하여 잠언으로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지옥에 갈 짓을 하여 지옥에 간다. 지옥은 자기 행위로 간다.」 고 했습니다. 읽어 보았지요?

잠언은 거의 주님이 말씀하시어 쉽게 이해하고 빨리 깨달도록 토를 달아 쓴 말씀입니다. 잘못 인식하고 보면 선생의 잠언 같습니다. 성경도 기록한 자들이 깨닫고 쓴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인식해야 바로 읽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계시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말은 성경 책뿐 아니라 어디에 써 있든지 성경이니 귀히 보고 내 말같이 읽고 대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또 오른쪽 빵을 치면 왼쪽 빵도 대 주고, 거듭 화나게 해도 참고 좋게 대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5리를 동행하고자 원하면 거절 말고 10리를 동행해 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해 주는 자에게만 잘해 주지 말라고 하시며 “그러면 무슨 새로운 상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한번은 누가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기에 “너 주면 나도 없는데…” 하며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는 나에게 1원어치도 해 준 것이 없으니 주기 싫었습니다. 얼굴까지 험하게 생긴 자였는데 나에게 마구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 주라고도 했고, 또 네게 꾸고자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도 했는데…’ 생각하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10배나 손해를 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내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으니, 주님은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네게 속옷을 원하면 겹옷까지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재림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주면서, 성경말씀대로 원 없이 행해야 될 때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혼자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보다 더 어려운 계명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 자가 그까짓 것을 못 주고 고통을 받느냐. 쳐다보니 안타깝다. 주면 그도 이익이고, 너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줘야 한다. 또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내 말을 지킨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것도 안 지켰을 때 받는 고통이 너무 컸는데, 큰 것을 안 지킨 자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빨리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절실히 배우고 깨닫고 전해 주니 말씀을 듣고 속히 실천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안 주겠느냐.**” 하고 주님이 내게 물으시기에 “만일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가 그것을 원했으면 누구라도 줬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경에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말씀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그때그때 맞게 대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무조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을 주님같이 보고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를 깨닫고 그 후로는 계속 말씀대로 행하니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 네게 무엇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그를 통해 나에게 그것을 구한 것 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은 이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새벽에 제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끝 날을 살아가니 후회 없이 할 것을 다 하고 살아야 한다. 못 한 것 다 하라고 재림의 시간을 연장 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아는 자는 많이 행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천 년 동안 후회하고, 어떤 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신앙의 잠을 깨워 주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내게 해 주었다고 말하고, 주님께도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잘 대해 주시는지 모두 알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들겠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특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소문을 내면서 하니 무엇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자에게 사명을 주고 예수님도 선생도 가까이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같이 하나님도 나도 용서하니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생활을 하고, 성경에 주님이 칭찬하신 과부처럼 엽전 한 닢도 하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열의 하나라도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받아 풍부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 없는 학생들이 선교한다고 헌금을 거의 강조하지 않고, 헌금으로 빵 사 먹고 밥 사 먹으며 열심히 뛰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성경말씀대로 하지 않은 격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그같이 해 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니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성경의 과부처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정한 것은 꼭 하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은 없는 대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 (막 12:42-44)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선생도 돈이 없어서 10대와 20대에 십일조를 못 했는데 더 힘들게 되어 섭리를 뛰면서 10의 1조뿐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10의 7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얻게 하시고 풍부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에서도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라기서에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참고 말 3:8-12)

결국 헌금은 헌금을 한 자들을 위해 쓰입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제대로 하면, 여름철에 비 맞지 않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을 가지고 월명동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주님이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같이 안 해서 교회가 전세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섭리역사에 사람은 많은데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나님도, 주님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건물은 있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은 섭리를 펴 왔습니다.

120만 번 기도하면서 월명동에서 행사할 때 비 안 맞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십일조를 하고 헌금에 신경 쓰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속히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며 **“형제들의 눈의 티를 지적하는 자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니 회개하라.** 그러다가 내가 보낸 자도 지적하고, 나까지도 지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갖 고생을 해도 이 시대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문은 생명길로 가는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라고 하시며, 그 속을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했습니다. 형제끼리도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은 속과 겉이 다른 자로서 겉은 양, 속은 이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1978년 삼선교에서 섭리역사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꿈에 엄청난 바위를 불도저로 싹싹 밀어내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위들은 마치 목수가 대패로 나무를 깎는 것처럼 깎였습니다.

꿈에 주님은 **“내가 반석이 아니냐. 나를 중심하여 복음을 펴 나가면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뉘이 갇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하시면서 **“초대 교회도 그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산에서 가르쳐 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메시아로 분명히 알았으니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또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성경구절이 생각났습니다.(마 16:13-19)

그 꿈을 끈 후부터 한 명씩 전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세계로 뻗어 가, 비바람 치는 핍박과 홍수 같은 환난이 있었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섭리역사는 30년 동안 민족적으로 갇은 환난과 핍박을 가혹하게 받으면서 왔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역사를 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어 모두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는 하나, 핵심 지도자부터 예수님과 일체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그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한일서2:22-23)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낸 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제일주의로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

낸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선지자를 보냈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원망하는 자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감을 금하셨습니다.

선생도 때에 따라 제자에게 하고픈 말을 전해 주어 심부름을 시키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나 선생이 보내어 왔다고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기에 선생이 후에 또 말했는데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여, 나의 식구들이 지옥에 오겠으니 천국에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를 내 식구들에게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을 전도자를 통해 전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가서 말해도 안 믿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보낸 자로 인하여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책임이 큼니다. 선생도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고 입장을 봐주다가 할 말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내 말을 전해 주지 못하면 내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네 입을 통해 대신 말하니 담대히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섭리역사에 세운 계획이 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하면 네가 회개해도 안 된다. 회개는 각 개인들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자 자기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섭리역사에 계획한 모든 일을 못 하게 되니 엄청난 손해다.”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의 기독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며 긴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위력 있는 말을 나만 외치지 않으니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30년 동안 외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림의 사명자들과 함께 말씀하니 능력이 나가고 힘이 있습니다.

선생도 2000년부터는 긴장했습니다. 1999년에 해외에 나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자마다 각각의 사명을 합니다. 그 이루어진 일들은 감히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섭리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본 사람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본 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일부는 이미 설교로 나갔습니다.

선생이 보내지 않은 자는 심부름의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 주라는 말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무엇을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보지 않고, 보냄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말하리요.”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내가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한 번에 드러날 것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선생도 주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면 얼마나 시간도 많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보람 되고 좋지요. 하지만 사람의 심부름이 아니니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뼈가 마르고, 애간장이 타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책임이 커서 어느 때는 깊은 탄식이 나오고,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에 와 닿으면 숨도 안 쉬어집니다.

해 본 자만이 압니다. 선생의 심부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심하게 많이 하는 사람은 밤잠 못 자고, 코피 흘리고, 못 먹고, 아프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압니까? 물론 보람도, 공적도, 사명도 큰 사람이지요.

하물며 주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의 일들과 다른 것들은 1분도 하기 힘듭니다. ‘죽기 전까지 주님이 주

신 사명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언젠가 말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요즘 섭리 안에서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주님도, 선생도 시키지 않은 일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섭리역사로 착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섭리역사를 자기의 섭리역사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섭리역사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주관을 받으니 주님과도 나와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말이 통하는 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줘도 그러니, 내가 없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선생이 보낸 자까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온 섭리사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욥기서 40장 10~14절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고,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낮추라.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은 그 처소에서 짓밟아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이 달려 있는데 말씀의 활과 폭탄을 안 쓰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지요. 인정받아야 주님과 가까이하여 시대 말씀을 받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섭리 안에서 돈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모두 자기가 쓰려고 걷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광고가 나갔습니다.

경고로 주님의 심정을 말해 주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물질로 친다고 하셨습니다. 섭리역사에 손을 대니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서로 모여서 음모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일 같아도 교만한 일들이고, 악에 속한 것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선선하게 선히 말할 때 들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교만한 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형식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형제들을 고발하는 데 신경 쓰는 자들이다. 내 말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곧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같이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룻저녁 설교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으니, 신약성경 4복음서를 읽어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잘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앗수르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니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내가 보낸 자를 가두었으니 내가 더욱 보복한다.」고 하시면서 용서치 않으시니, 결국 대국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대군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오라.’ 함입니다. 주님은 “인생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실상 지옥에 가는 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많다. 하나님이 재림의 때를 연장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계시를 주어 그 말을 듣고 변화되고 돌이키라 함이다.” 하셨습니다.

금년도 대 주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듣고 즉시 행할 때입니다. 듣고 즉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의 저자 토마스 주남에게도,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의 저자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에게도, 안나 수녀에게도 주님은 「나의 재림을 마지막으로 연장했다.」고 같은 시기에 동일한 말씀을 했으니 모두 책을 보고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을 보니,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여 안타까워서 재림을 연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장된 시간이 시작되었으니 그래도 연장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숨 쉴 시간은 있다고 상식적으로,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쓴 것입니다. 80~90년대부터 연장 시간에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나 수녀나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에게 「내가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저 주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많아서 재림의 때를 연장했다.」고 말씀하셨고, 주남 선지어나 기타 사명자들에게도 재림의 때를 연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숨넘어가는 소리로 그 연장 시간마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말씀드리니 “네가 바로 보았다. 바로 그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연장하시고 책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연장한 주님의 목적은 「긴박함을 겨우 계시해 주려 함이다.」라고 세 권의 저서에 한 절 나옵니다. 고로 주님은 책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고, 사명자들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섭리사에도 많은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1990년대는 섭리사가 한창 클 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너무도 많아서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핍박도 이긴다.”고 하시며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나.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가다 보면 보람을 느끼고, 왜 이같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모르는 자들을 통해 역사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재림을 연장해 주신 기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연장하신 지 오래되었으니 주님은 미국의 사명자들에게 「연장된 시간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연장하지 않으셨더라면 섭리역사도 시작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선생을 통해 외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아도 타국에 간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도 해외로 선교를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기독교도, 우리 섭리사도 2000년쯤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오시는 때가 90년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과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와 안나 수녀의 책을 보면 출판한 시기가 90년대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연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재림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한 그 마지막 시간마저도 곧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양쪽 팀이 피 땀기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전후반이 끝나고 연장전 경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친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친구 A :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좀 사 올게.”

친구 B : “연장전은 짧아.”

친구 A : “연장전도 30분이나 돼.”

친구 B : “연장전도 어느 정도 끝나 가는 것 같으니 가지 마. 친구야~ 저 건너편을 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꾸 가잖아.”

친구 A : “화장실 가는 거겠지.”

친구 B : “야~ 화장실을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냐? 경기 곧 끝나 간다.”

친구 A : “아니야. 먹을 것 사 올게.”

친구 B : “가지 말아라. 너 축구 경기 한두 번 봤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의 끝나 가는 거야.”

이 친구(B)는 지혜로웠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앞두고 **“지금 이 같은 때니 너희도 징조를 보고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연장 시간도 연장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았습니까? 이 비유를 깨달아요.

영계를 보면, 사탄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눈이 벌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간 없다고 뛰어다니며 저 사람에게 가서 꼬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들도 알고 당황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도 빛에 속한 영들은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역사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배웠는데도 모르냐.”**고 했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때를 연장해 주신 목적은 오직 ‘게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시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때가 다 된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계시를 듣고 몰랐던 자들은 빨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대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전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기도하여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이 연장하신 시간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연장하시면 그 시간은 1년이나 5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지혜로도 모두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연장되었든지, 20년 가까이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세계로 알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외칠 시간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로 볼 때 그러합니다.

실상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 2000년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은 자들은 적어도 90년대부터는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소경보다 눈 뜬 자들이 보고 더 애간장을 태우듯이, 사명자들만 눈을 뜨고 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도, 2000년에도 별 기다림도 없었고 준비하는 모습도 안 보였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으나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 자들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가 오신다고 하는데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 이것도 죄입니다. 또 그릇 알고 그릇 준비하고 있었으니 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외치는 말씀들을 하나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섭리역사 후 최고의 생명의 말씀과 계시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게는 말씀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끊느냐고 물으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주님은 모두 깨닫게 해 주시려고 계시하여 한 장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 지역을 보여 주시기에 그쪽으로 길을 따

라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자세히 보니 진흙 수렁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큰 독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쳐다보는 곳을 보니 큰 호수가 있는데 물이 다 빠져서 고기들이 이리저리 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수로 들어가 그 고기들을 잡다가 그 늪에 빠져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물질을 말하고, 혹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 때문에 늪에 빠지고, 사람의 꼬임 때문에 늪에 빠지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도 거기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까지 보였는데, 바닥은 끝없이 깊었습니다.

나와 같이 독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다시 한 번 솟을 때 꺼내면 된다고 하며 모여서 구경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 깊은 속까지 투명체로 보이는데 솟지는 않고 30~50m 깊숙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늪을 쳐다보니 끝이 없이 넓고 깊은 늪이었습니다.

장면이 사라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계시에 대해 물었습니다. 늪과 수렁은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핵심만 한마디 해 주셨습니다. **“네가 읽은 책을 다시 읽어 보아라. 네가 본 계시에 대해 내가 한 말이 거기 나온다.”**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찾아보니 「세상은 오물과 수렁이 가득한 늪」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보여 주신 계시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 죄의 늪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 괴롭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성경이다.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은 성경을 보듯이 반복해서 보아라. 죽음과 삶을 경고해 놓은 말들을 그저 스쳐보고 마는구나. 얼마나 영원토록 후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또 **“늪과 수렁과 같은 죄의 세계에서 나오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만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에게 늪이 되고 수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죄의 늪과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 구하러 들어가도 그도 금세 빠져 버리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로 지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이 시대에 대변하게 하셨습니다. 가혹한 지옥의 고통을 이를 갈면서 겪고, 정말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나로 결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한 말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한 자라도 지옥만큼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하고 설교한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괴롭힌 자가 있다면 1년, 10년, 20년, 30년밖에 더 괴롭혔겠습니까? 지옥은 슬픔으로 이를 갈면서 불꽃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내게 잘못된 자는 내가 지옥을 안 보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지옥에 가 보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해 주시니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갑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나, 본인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니 깨달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선생도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위하여 늘 축복을 빌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한 자만 축복받고 삽니다. 축복은 물질 축복만 생각하지 말아요. 신앙의 축복도 생각하고 깨달아야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신앙의 축복을 받고 살 때입니다. 신앙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해 온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별로 없는, 기성에 두고 온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보세요. 빈자리, 쓸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도, 선생도 진실로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해 줘도 누구든지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복을 빌어 준 보람이 없고 다 헛수고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이미 저 주셨기에 진정 주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기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진정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허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저 준 것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 가르쳐 주어서 그래도 자기 책임을 많이 행하면서 삽니다. 다른 기성인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기에 신앙들이 살아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나다 구원해 주신다면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같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니 지옥에 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보고 괴로워하시며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깊고 깊은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여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선생이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롭게 도우십니다. 그 도움을 받고자 해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를 행하면,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 오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입니다. 육신이 있는 자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육신이라면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영이시니 사람같이 말이 안 통합니다. 주님을 보기 얼마나 힘들니까? 영이시니 수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몇 명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과 대화하시며 그 모습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그 같은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들과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답답하시냐고 하며 주님의 육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 시원하게 대신 외치겠다고 하면서 30년 동안 섭리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도 해 주고, 도와주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는 주님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주며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개미랑 말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세상 사람과 말하려면 주님은 세상 사람인 선생을 쓰고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선생을 통해 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과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를 알고 선생은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나 중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도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 모릅니다.

이제 모두들 주님을 직접 만나서 통하려면 정말 어렵지요? 겪어 봐야 압니다. 깨진 바가지도 있다가 없으면 아쉬운

데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천만다행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이 말씀까지 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제2의 주인공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같이 사명을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선생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내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대신 일을 하게 했으면 그가 제2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제1의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 제2의 선생인 것입니다.

선생도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30년 동안 주님의 몸이 되어 그같이 일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을 한 것입니다. 선생은 제1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실히 가르쳐 왔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셨습니다.

선생이 사람을 보내어 내 말을 전달하여 어떤 일을 급하게 하라고 했는데, 선생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믿지 않으면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선생님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제2의 선생입니다. 육체만 다르지 말의 내용은 똑같고, 다만 내가 전하니 목소리만 다른 것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대신자들이며 주님의 대신자, 대변자들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나 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면 내 사정을 전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해 온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한 제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2의 선생으로서 일했던 자가 선생이 왔으니 내 수종을 들어 주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으니 선생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종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겠어요?

선생이 보낸 자를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듯이, 주님의 시종을 드는 나를 보고 주님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말해 온 것입니다. 깨닫겠습니까? 이를 분명히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보들은 거듭 말해 줘도 모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꼭 눈에 보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 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핵심만 말해 주겠습니다.

한번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한 시간쯤 자고 일어났더니 2시였습니다. 목의 위치를 잘못 놓고 잤더니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을 주무르고 목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목이 뻣뻣하여 움직여지지 않아서 심하게 목을 주무르면서,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며 “인류의 천적 사탄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천적아! 너는 내 기도까지 방해할래? 너는 나 못 이긴다. 이 판국에 내가 결심하면 다 부서진다. 너, 나 알잖아. 북경에서 네놈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지. 지금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 영적 무술을 한없이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사탄이 왔느냐고 물으니, 안 왔다고 했습니다.

‘아! 어제 운동을 안 했더니 몸에서 표가 나는구나.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바빠서 운동 못 했더니 이렇게 표가 나는구나.’ 하면서 종얼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적들이 부비트랩으로 설치한 방망이 수류탄을 내 손에 쥐었을 때 주님은 1초 안에 안 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몽둥이로 내 목을 쳐, 손에 쥐고 있던 방망이 수류탄이 멀리 날아가 죽음을 피한 것이 머리에 ‘짹’ 하고 생각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목을 치셨지?’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 오셨구나.’ 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목이 뻣뻣하고 등이 뻣뻣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예전에 주님이 도우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 주님을 생각하라고 예전처럼 주님이 목을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역사하십니다. 고로 지난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도우셨는지 말씀했지요? 이날도 깊이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전해 줘야 된다. 저들에게는 깊은 것들을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어려우니 영인체 사진을 주었는데 이런 때 귀히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시며 **“일반 사진이 아니다. 사진으로 담은 내 몸이다.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나는 사진 속에도 들어 있고, 정결한 마음속에도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안나 수녀가 사진으로 찍은 주님의 모습을 보니 그 얼굴에 온 인류가 흘릴 눈물이 꼭 차 있고, 하도 많이 우셔서 얼굴이 부어 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 순간 그 눈물을 참은 모습이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주님을 한 번도 위로하지 않고 달라고 하기만 하니 정말 한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섭리 30년 동안 주님의 육신이 되어 행하다 보니 모두 내 심정 모르고 자기 짐만 내 등에 얹어 놓고 내 짐 보따리를 가져가는 자는 드물다고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이 통하니 “주님이여~ 이야기나 해요.”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은 좁지만 내가 윗목에 몸을 붙일 테니 쉬었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깨 보니 또 새벽이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한 여자의 얼굴이 선연히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주님의 모습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우셔서 얼굴이 부은, 안나 수녀가 찍은 사진의 그 얼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진을 보고 말한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심정에 달고 위로가 되었다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심정을 알아주니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이야기하시다가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주님이 나에게 가장 엄하게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제발 나와 상의하고, 내가 허락하거든 하라.”**었습니다. **주님과 상의하지 않고 행하면 주님을 위해 했어도 너무 심정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논하지 않은 것이 너무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모두에게 말해 주라고 하시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의논하지 않으면 해가 갑니다. 의논하지 않고 행하여 해를 받은 일은 성경 역사를 볼 때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의논하지 않고 행하여 결국 왕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찍 일어나 피곤해도 **나와 의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새벽 1시 전에 일어났기에 다시 잤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1시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24시간 도적같이 오십니다. 만전을 기하고 주님을 맞고 말씀을 행해야 될 때입니다.

육계의 일들은 육계로 보면 죄인지, 실수인지 잘 모릅니다. 영계로 보아야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며, 주님은 상징적으로 나타나시니 직접 못 보아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학교 담임선생님, 혹은 교회 목사님, 혹은 교회 교사님, 혹은 군대에서 자기를 지휘했던 지휘관, 혹은 주님의 사진 등 각종의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은 붉은 포도주 한 병이 내 앞에 보였습니다. 그 포도주는 깨끗했고, 병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옆을 보니 성찬 때 쓰는 작은 잔들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기에 계속 보니, 주님의 성찬이 생각났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이시면서 “올 가을부터 섭리사도 나의 거룩한 성찬식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성찬을 하나의 예식처럼만 여기고 행한다. 너희는 내가 나를 대하듯이 행하고, 마치 내 몸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할 것을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 예술제도 하나님과 주님 보시라고 장대비를 맞으면서까지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해 온 것이 있으니 우리는 하기만 하면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섭리 사람들은 대체로 선생의 기질을 따라 한번 하면 잘합니다.

지금부터 모두 알고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으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신성을 깨닫고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기 전에는 신약성경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변하라고, 주님은 부활절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어 보세요. 육신을 쓰고 살아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맞는 부활을 하였으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주일인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2009년 4월 5일 주일말씀>

(주인이여 1년만 참으소서)

마지막으로 연기했다

본 문 누가복음 13장 6~9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마음에 새겨 담아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안되었을 때같이 실망이 큰 때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켰다면, 실망시킨 사람은 실망한 자의 그 심정과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나, 과일나무들에게나, 땅에나, 건물에나, 논밭에나, 어떤 물질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둘 때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 기대하거나 희망을 갖지 않는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더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안되었을 때는 땅을 팔아 없애 버리고, 집이나 물건도 다 팔아 없애고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과일나무로부터 과일을 기대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베어 내고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것인데 실망시키면 버릴 것입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희망이 깨졌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지옥이고, 기쁨은 사라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 시원하게 처리하고 말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대대로 안 되고 실망시킨 것들은 다 버리고 정리해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나의 재림을 곧 눈앞에 놓고 이와 같다.”**

본문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 맺을 때가 되어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열지 않아 실망하여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정말 실망했노라. 땅만 버리니 찍어 없애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포도원지기가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찍지 말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도 주면서 노력하겠나이다.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으시려니와 만일 열매가 열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가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은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주님이십니다. 땅으로 축소시켜 더 가까이 보면 무화과나무를 심은 나무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 왔는데 3년이나 열매를 얻지 못하여 심히 실망하고, 땅만 버리니 모두 찍어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사명자인 포도원지기는 “주인이여,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하겠나이다. 열매가 열면 좋지 않겠나이까.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열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 찍으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무화과나무들은 그 시대 모든 자들과 특히 구시대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희락·화평·오래 참음·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의 열매를 비롯하여 감사의 열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열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매, 회개의 열매, 주를 찾기 위해 예비하고 갖추는 열매, 믿음과 행실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을 보는 열매, 전도의 열매,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열매, 가르치는 열매, 설교하는 열매, 용서의 열매, 봉사의 열매, 각종 사명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찍어 없애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해만 더 그냥 두소서. 땅을 파고 거름을 하리니 열매가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으소서.” 하시며, 그때의 현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3년이나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아 심판하고 찍어 없애려고 할 때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인이여, 그냥 두소서. 우리가 다시 깊이 파고 거름하여 보겠나이다. 말씀을 전해 보겠나이다.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래도 열지 않으면 그때는 찍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뜻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도 이와 같으니 나의 심각한 말씀을 들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열

매가 열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 전체가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명자들이나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의 재림에 깨어 있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준비하지 아니하여 재림을 연기했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재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 나의 재림을 맞기 위해 깨끗이 한 자들이 별로 없다.」 고 했습니다.

린다 뉴커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26번째 항목을 보면 「세상에 깨끗한 자가 별로 없다.」 고 하셨습니다. 27번째 항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오리라는 경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연장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를 알고 속히 준비하라.」 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찍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준비되지 못한 자는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여,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깊이 파고 거름하겠나이다.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래도 열지 않으면 찍어 없애소서.” 하였으니 연기한 기간입니다. 한 해만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 해는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열 수 있는 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열매를 열 나무라면 충분히 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열매를 열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셔야 될 주인공이신 주님이 땅에 다니시면서 연기해 놓은 기간에 자기를 맞을 신부들의 잠을 깨우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면서 지구촌을 한마을같이 다니시면서 계시해 주시고 관리하시고 도우십니다. 마치 포도원지기가 땅을 두루 파고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거름한다’는 말씀은 ‘계시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거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은 선지자 토마스 주남,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 린다 뉴커크, 안나 수녀 등 사명자들에게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섭리역사는 나로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마음의 땅을 깊이 파고 계시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열매를 열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 낸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도끼는 말씀이요, 나무는 사람이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로서 앞에서 말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비롯하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대로의 수십 가지 열매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안나 수녀에게 시대를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세상 죄를 네가 지은 것같이 대신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분노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다. 때를 연기해 놓고 빨리하라고 외치고 있다. 내 심정이 타들어 간다. 이미 수세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감옥에서 갇은 고통을 받고 있는 나다. 나 좀 위로해 달라.」 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주님께 맡기고, 깨어 준비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절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주님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모시고 위해 주면서 기쁨으로 살아 주는 자가 된다.」 고 했습니다.

사명자들이 외친 말씀이나 그동안 섭리역사에서 외친 말씀을 보아도 모두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 사명자들의 책을 동시에 다 읽어 보라 하셔서 한눈에 보며 몇 번을 읽었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90년도 전후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80년대 말, 혹은 90년대, 혹은 2000년대였습니다. 섭리사도 80년대, 90년대에 외쳤고, 2000년대에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명자들로 쓴 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보니, 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말씀하시고 계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80년대 말부터 연장 기간에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보면, 주님이 재림의 때를 연장하신 지 20년이 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열매를 여는 기간으로 ‘주님이 다시 파고 거름하시는 기간’이며 ‘재림을 위해 계시해 주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이 이같이 오래되었기에 주님은 ‘그나마 연기한 시간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고 더욱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을 통해 오시는 해와 그 날짜만 말씀하지 않으셨지, 실상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할 말을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그해와 날짜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알면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고, 준비하는 데 태만하거나 지장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인지 시계를 안 보아도 해(태양)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거리의 택시나 차들을 보고 사람들의 움직임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자기 느낌으로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인지 달력을 안 보아도 환경 보면 알 수 있고, 논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시작한 시간을 보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 수 있고, 시작한 시간 몰라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건너편의 사람들이 일어나 자리를 뜨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때로부터 얼마나 지났고,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축구장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 자리를 뜨는 때와 같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연기한 그 시간마저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얼마나 조금 연기했기에 벌써 그 시각이 다가오느냐고 할 것입니다. 사명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연기한 시간은 이미 20년이나 지나간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책에 써 있으니 읽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산수와 수학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져 보면 압니다.

섭리사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잔 자는 얼마 안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님 맞자고 외쳐 왔고, 마지막 재림에 앞서 하늘을 맞는 신앙을 나를 통해 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극적으로 외쳐 왔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주님이 말씀하시어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1년이 가도 이런 말씀은 한 번도 들어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지요. 그동안 주님을 생활 가운데서도 잘 모시고 살면서, 신랑같이 모시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섭리사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부터 나와 같이 주님을 늘 모시고 섬기며 새 노래도 불러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 주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만 보시도록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로 20년 동안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술 축제를 해 왔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근래에 들은 말씀으로 생소하게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단어만 표현하지 않았지,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맞는 역사를 펴 왔습니다.

주님은 “**지난날 역사를 생각하라. 다시 할 수도 없는 섭리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았고, 어떤 자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제대로 못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하라.**」고 마지막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또 주는 것입니다.

90년대를 전후로 재림의 때를 연장하셨으니, 실상은 오랜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연장해 주었으면 준비하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공적을 세우며 할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섭리역사는 자연성전을 짓는 데 10년이 걸렸고, 선교는 20년밖에 못한 셈입니다. 그래도 이같이 많이 했습니다.

선지자 토마스 주남의 책은 한국에서 200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엮는 기간과 번역하는 기간이 있고, 세상에 전해져 읽히기까지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만 해도 7년쯤 걸린 것입니다. 그 전에 계획하고 계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니, 재림의 때는 그 전부터 연기된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다른 사명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 네게 말하여 이 책이 세계에 전해져 모두 알고 마지막으로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에 관한 것을 잘 알려면 성경에 부활에 대해 기록한 구절을 다 읽어 봐야 된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말씀도 삶의 부활, 행실의 부활, 정신의 부활, 사건적인 부활이 있고, 육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있고, 나와 같은 부활이 있으니 자세히 모두 읽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나 사명자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 계시하신 말씀도 모두에게 전하신 말씀을 다 읽어 봐야 주님이 말씀하신 근본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읽을 때는 세밀하게 적어 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성 없이 읽거나 듣거나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 주님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한 사명자에게 모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지요? 이미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요? ‘감 이야기 할 때는 감 이야기만 하고, 사과 이야기 할 때는 사과 이야기만 해야 듣는 자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혼돈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에게는 지옥에 관한 것을 계시하셨고, 토마스 주남 선지자에게는 천국에 관한 것과 재림에 관한 것을 계시하셨고, 린다에게는 재림을 맞이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과 연기한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계시하셨고, 안나 수녀에게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해 세계적으로 계시해 주시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섭리사에게는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 삼아 모셔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사명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다 모아 묶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책이 10권 이상 나오도록 구체적으로 긴 설교를 연속 전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온 세계 섭리인들은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하고 변화하자’는 금년도 표어대로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선생이 이같이 이곳에 있으니 더욱 애타는 심정으로 깊은 경지에서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고, 모든 섭리인들도 여기서 나온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욱 눈물겹게 듣고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옥 소리가 소쩍새 소리 같기 때문입니다.(옥(獄)에서 외치는 소리가 소쩍새 소리처럼 구슬프다는 말임.)

섭리에서도, 기성 교회에서도 어떤 설교자는 주일날 성도들이 깊은 설교를 기대하니까 금식도 하고 산에 가서 철야하면서 깊은 심정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뼈저리게 깊이 전하는 자는 옥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친 사도 바울처럼 악한 시대와 믿는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시대를 보며 고통을 받을 때 너무 억울하고 심정이 타니, 주님의 심정과 일체되어 주님이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을 느끼고 알고 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는 등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후 11:23-31)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강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악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로 인하여 결국 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픈 시대의 깊은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펴 오면서 수백억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고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살인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통 속에 깊은 사연을 전하시고 현실과 앞날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전서 4복음서에 주님의 말씀과 행한 일과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로부터 쫓겨 다니면서 시편의 목시를 썼습니다. 선생도 이 시대 나름대로 그러합니다. 주님은 우리 섬리사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같이 보시면서 땅만 차지하니 찍어 없애자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깊이 파고 거름하여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열지 않으면 찍으소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금년도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표어를 주시고, 마음이라는 땅을 깊이 파서 거름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일과 수요일에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같이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열매를 열어야 합니다. 선생은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을 파서 거름을 넣어 주듯이,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모든 자들의 마음 깊이 말씀을 넣어 줄 테니 여러분들은 진실로 새겨듣고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월명동 야심작에 새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그곳에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 마음속에 외우고 있지요?(교역자들은 말해 주세요.)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약수 샘 옆 큰 바위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모두 마음에 새겼습니까? 또 월명동 잔디밭 옆에는 ‘자연성전’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성전의 축소판입니다.

이제 1년 동안 부지런히 거름을 줄 테니 부지런히 받아서 빨아들이고 힘을 내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각종으로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섬리사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 봐요.

월명동 ‘자연성전’이라고 쓰여진 돌 옆에 분재 소나무를 좌측으로 끼고 15m쯤 자연성전 안길을 따라가다가 좌측을 보면 두 감나무가 있습니다. 생각나지요? 거기 그늘에 앉아서 쉬고, 말씀 듣고, 놀던 자들은 생각 안 나요?

두 감나무 중에 한 감나무는 그 땅을 사기 전부터 열매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감나무였지만 선생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감나무가 감나무를 열지 않느냐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도 그 주인은 아깝다고 베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게 되었고, 월명동을 개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그 감나무는 감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른 감나무들은 감을 주렁주렁 열었고, 제자들은 그 감나무들을 보고 좋아하며 감을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을 열지 못하는 그 나무는 앙상한 가지에 가랑잎만 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저 나무는 누가 감을 다 따 갔네요.” 하기에 나는 “저 놈의 감나무! 우리가 이 땅을 사기 전부터 감을 안 연다. 수컷 감나무인가?” 했습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안 열고 땅만 차지하니 베어 없애지요. 가을에 열매를 열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너무 보기 싫네요.” 했습니다.

이에 선생은 그 감나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감나무야. 너 계속 열매를 안 열 것이냐? 땅 주인 바뀌었다. 내 말 들어. 만일 내년에도 열매 안 열면 내가 톱으로 벤다. 들었냐?” 하고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선생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몇 명 못 들었습니다. 선생이 감나무를 쳐다보니, 그 감나무는 마치 사람이 어떤 말을 알아듣고 두려워하며 몸을 떠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보였습니다.

옆의 제자들을 보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일하다 보면 저 감나무가 열매를 여는지 안 여는지 가을이 와도 잊고 그냥 지나칠지 모르니, 너희가 내년 가을이 되면 저 감나무가 열매를 여는지 확인하고 내게 꼭 말해 주어라.” 했습니다. “너는 감나무 보고자다.”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니, 제자들은 “예.” 하며 “저 감나무, 이제 정말 열매 안 열면 죽는다.” 했습니다.

성경말씀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열지 못하면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해서 주님이 찍어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듬해 여름에 보니 그 감나무는 옆의 감나무처럼 감을 열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는 풍성히 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섭리 책에도 나오고 조은소리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듯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주님은 그같이 선생의 육신을 손발로 쓰며 일해 오셨습니다. 선생은 알지요. 이와 같이 분명히 주님이 외쳐 주신 이 시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해만 참으소서. 축소시킨 섭리역사의 포도원지기인 제가 깊이 파고서 거름하겠습니다. 열매를 열면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열매를 열지 않으면, 우리 섭리역사 때문에 온 세계의 시간을 또 연기할 수 없으니 그때는 찍든지 베든지 하세요.” 하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말씀의 거름을 충분히 해 주어도 열매를 열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열매를 못 여는 인생 나무입니다. 선생이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시중을 들면서 열심히 말씀을 받아서 주도록 선생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고 신경 써 줘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거름하듯이 충분히 말씀을 주어 열매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한 해만 참으소서.” 했더니, 주님은 “그래. 예전에 기대 걸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여 다시 맺겠다고 희망한 것까지 다 걸고, 나도 한 해 동안 도울 테니 같이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갖 말씀을 다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법정 일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입니다. 어머님을 뵙고 월명동 운동장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나무를 관리하던 제자가 보고하기를, “이 나무는 링거 600명 맞았는데도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안쓰럽다. 느티나무야, 살아나라. 주님! 정말 정성을 들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살리겠습니다. 링거를 600명이나 맞았대요. 분재라도 하게 기념으로 살려 주세요.”하며 그 나무를 만지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픈 제자가 기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후로 생기가 나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언제 링거 600명이나 맞았지?” 하면서 쳐다보는 자들을 향해 “나 좀 봐요.”라고 말하는 듯이 싱싱하게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한 것을 알고 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옆에 왜 큰 소나무를 심었는지 알아요? 느티나무가 시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소나무를 예비로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 들여 기도하여 죽는다고 판정 났던 느티나무도 살리고, 기도하여 소나무도 살렸습니다.

그날 소나무도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한 소나무는 죽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안타깝게 내게 보고도 안 되었고, 어디에 심었는지도 몰랐기에 기도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하여 산 느티나무와 소나무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느티나무의 교육과 기적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느티나무를 기도해 주기 전에 그나마 시들시들 살아서 가냘프게 생명이 남아 있는 큰 가지들을 아깝지만 다 잘라 냈습니다. 뿌리는 거의 다 죽어서 수분을 적게 빨아들이는데, 가지가 많으면 비례가 안 맞아서 그나마 시들거리며 살아 있지도 못하기에 다 잘라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가는 모든 가지를 다 자르고 왔습니다. 아깝지만 그동안 그같이 해 왔기에 시들거리는 신앙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고로 지금의 주님께서 전해 주시는 시대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된 자들이 많습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수백 가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는 자들에게 그 표적을 말해 주면서 구경시켜 줘야지 거룩한 땅만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연성전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성전은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전해 줘야 됩니다. 1년에 수만 명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부끄러워 말고 전해요. 우리 집 보고 싶어서 아쉬워 구경 온 자들에게 왜 할 말을 못 합니까? 내가 가면 난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연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증거해야 능력이 나옵니다. 운동선수들은 응원해 줘야 더욱 힘차게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야 더 가까이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한 해만 참겠다.’는 것은 ‘어떤 기간을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연기한 때가 오래되어서 그나마 연기한 시간도 다 되어 갑니다. ‘곧 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암송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긴장되고 급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금방 태만해집니다.

주님께 세상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순간 땀 생각하여 죄송하다고 회개하니, 주님은 즉시 “**판생각하는 자는 정신이 죽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섭리 사람들도 판생각하는 자들은 정신이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판생각하는 자들은 피하지 말고 들어요.

새벽기도 중에 주님이 해 주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논밭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좌우되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이 결정된다. 형식으로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와 함께 그 시대 살면서도 몰랐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와서 외쳤어도, 시대를 모르고 미워하고 막고 시기 질투를 해 댔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세상과 이성으로 치우쳐 살며 속 썩이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속상하다고 했더니,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저 주고, 대신 죽어 주고, 지금껏 사람을 통해 관리도 해 주었기에 그동안 해 준 것이 아까워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태우는 것이다. 실상 내가 버리면 고기 한 점과 같은 인생들이 아니냐. 그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 한 알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다. 제발 이 같은 긴급한 시대에 고기 한 점과 같은 몸을 가지고 내 앞에 주권 좀 부리지 말아라. 아무리 비싼 몸이라도 내가 버리면 사막의 모래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좇는 자로서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고 물으니, 주님은 “**지구만 한 돌덩이로 보고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해 주고, 예비한 황금 보석 집을 주어 살게 해 준다고 그같이도 말했는데 말씀을 귀히 듣지 않고 이성으로 흐르고 세상으로 가니 열매를 열지 못하는 나무로 찍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나는 “주여! 한 해만 그냥 두소서. 마음을 깊이 파고 말씀의 거름을 하겠나이다. 열매를 열면 좋고, 열지 않으면 저도 미련 없으니 찍으소서.”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찾고 좋아해 주실 때 목에 힘주지 말고, 성의 없이 대하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제일주의로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주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독자나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 놓고 걱정하는 부모보다 재림을 앞두고 원수 천적인 사탄들에게 껴여 그들을 따라갈까 봐 수십만 배 갇은 염려와 걱정을 하신다며, 이를 꼭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일순간 활활 타고 끝나는 모닥불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희망과 기쁨이 영원히 솟아나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은 후에 약 사러 가고 병원 가듯이 하지 말고, 모두 죽기 전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때를 연장한 것은 계시해 주기 위함이다. 한 해만 참아 보겠다. 열매를 열지 않은 과일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시를 주는 기간이다. 말씀을 주는 기간이다. 그 말씀도 계속 주지 못하니 줄 때 잘 듣고 그때마다 준비하고 행하여라. 설교도 앞에 한 번 하고 지나간 것은 반복하지 않듯이, 확대시켜 볼 때 앞으로 1년 동안,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 어떤 말씀은 거듭 두 번씩 말해 주지 못할 것도 있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담아 가라.」 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씻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도 못 씻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이 아니기에 그때그때 말씀을 받아 깨닫고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4월 8일 수요일말씀>

(주인이여 1년만 참으소서)
마지막으로 연기했다

본 문 누가복음 13장 6~9절

열왕기하 2장 19-22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걸지 않고 뛸니다. 반면에 희망이 없는 자는 주저앉든지 걸어갑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기에 뛰어야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열지 않기에 주인이 도끼로 찍어 없애려다가 과수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거름을 하여 열매를 열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때도 열매를 열지 않으면 찍으소서.” 하니, 주인은 “그래. 네 말대로 한 해만 더 참겠다.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한 해만 더 참아 주시고 기대하며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는 앉아 있거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노루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포수가 오는 것을 보고 나무꾼이 깨워 주니 일어나 뛰어가듯이, 지금은 우리가 노루처럼 뛰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의 도끼로 찍힘을 받고 끝났을 것인데 청지기로 인하여 다시 한 해 동안 기회를 얻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걸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야만 됩니다. 희망이 있으니 뛰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시간을 연기해 주시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격을 정말 완전히 고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선생을 통해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작품으로 멋있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과일나무가 3년이나 열매를 열지 않아서 찍어 없애려 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도끼로 찍힘을 받았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산 것같이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입니다.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귀한 것을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 속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열매를 열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선생도 책임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2만 번 설교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기회입니다.

과수원지기는 과수원 농사를 지어 알기에, 주인은 거름을 하면 열매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그의 말을 인정하고 믿고 허락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에 깨어 있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마치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버리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예수님이 “한 번만 참으소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이 위급함을 계시할 시간만 주옵소서.” 하며, 나무에 거름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의 위급한 상황을 계시해 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재림을 연기해 주시고 참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포도원지기와 같은 저도 주님께 “주님이여, 한 해만 참으소서. 깊이 파고 거름하여 열매를 열면 좋지 않겠나이까. 그래도 열매를 열지 않는 나무는 베시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선생은 지난 10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사탄들이 활동하여 행악자들로 인해 가혹한 핍박을 받는 환난 기간이었기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주님께 배운 말씀과 뼈저리게 겪고 깨달은 말씀과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재림에 대한 생명의 말씀과 선지자들로 전하신 말씀으로 거름을 하면, 좋은 열매를 열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이 해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라고** 하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재림을 연기해 주신 이때에 시대 말씀의 거름을 충분히 할 테니, 새롭게 변화되어 꼭 주님을 맞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일나무는 병들면 거름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물면 열매를 맺어도 곧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 시대 섭리의 과일나무는 거름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거름은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종 음식과 밤이 거름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으면 힘을 내서 일하지 못하여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 각종 나무에 거름을 엄청나게 해 줘야 됩니다. 거름하는 대로 건강하게 되어 잎과 꽃이 싱싱하게 피고, 과일도 많이 열리고, 과일도 크고 실합니다.

제때 충분히 거름을 하지 못하면 품종이 바뀌고 과일나무도 버리게 됩니다. 대개 거름할 때 충분히 거름해 주지 못하면 영양분이 없어 과일나무들을 버리게 됩니다. “**섭리의 신앙인들도 제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과일나무의 품종이 변하여 버리듯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전하지 못했기에 이제 거름 같은 말씀을 1년 동안 충분히 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더욱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하여 잎과 꽃이 만발하고, 열매도 새롭게 주렁주렁 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있고, 힘 있고, 소망 있는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기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에너지는 극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 말씀의 가뭄이 든 이때에 주께서 우리들을 자상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기에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12절을 보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이 없어 비틀거리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잘 먹으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암 8:11-12) 『[1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섭리역사는 말씀의 위력이 있고 특징이 있어 말씀은 곧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을 따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 내가 베트남 전쟁터에서 쓰던 M16 총과 실탄을 주었습니다. 총과 실탄을 준 사람은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은 총과 같고, 기도는 총알(실탄)과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무에 주는 기름 같은 이 시대 계시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의 심령을 많이 변화하게 했습니다. 나무는 기름을 주는 대로 쪽쪽 빨아 먹어야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흡수를 잘하고, 정녕코 하는 기질이 있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동안 섭리 사람들은 선생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오랫동안 듣는 습관을 들였기에 오랫동안 말씀도 잘 듣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대신 전하니, 설교하는 자는 지루하지 않게 잘 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설교자들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각 교회 교역자들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방침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은혜롭게 긴급한 말씀을 주셨어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여 전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좌우됩니다.

주님은 단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역자들이 1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기에 1차 교육에 들어가 잘하는 목사님이 인터넷 중계를 통해 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중계하는 말씀보다 그래도 본 교회 목사님이 신경 써서 실감나게 전하는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다시 의논하여 교단에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하여 다시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는 교역자는 목회를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200여 명 있으니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때와 달리 ‘주인이여, 참으소서. 깊이 파고 거름하며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한 때입니다. 말씀은 곧 거름과 같은데, 만일 충분히 거름해 주지 못하여 열매를 열지 못함으로 나무가 주인으로부터 찍힘을 당하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선생이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말씀을 연구한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 하나님과 주님은 분명 내 입을 통해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데 더 노력하라.**” 노력한 사람은 표가 납니다. 노력해도 소질과 재능대로 또 표가 납니다. 보다 더 잘하는 자가 보면 속이 타고 답답합니다.

선생도 옛날에 석막교회에 다닐 때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답답하게 해서 은혜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내가 3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설교는 길었지만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큰 부흥강사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내 설교를 들은 자들은 “그 말씀 속에 정말 무엇인가 들어 있었어.” 했을 것입니다.

설교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장승같이 서서 말씀을 읽어 주기만 하니 듣는 자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맡은 일을 연구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100% 다하지 않으면 해고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맡은 일에 너무 소홀합니다. 이는 자기가 책임진 자들의 영혼 문제까지 좌우되게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누가 보아도 심정을 다해 부르짖어 외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정을 태워서 게시하신 말씀을 주님과 같이 그대로 전해야 말씀의 불이 붙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높게 불러야 할 곳에서 저음을 내고 말면 듣는 자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입장료 생각이 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역자들을 발령할 때 설교 시험과 은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발령할 것입니다.

선생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본을 보여 주었으니 화면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교는 예언이고 계시이며,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별의별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각본대로 심정을 담아 전해야 됩니다.

선생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설교할 때 ‘하늘과 나, 주님과 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의 신앙들이 되었습니다. 이날 설교를 끝낸 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실 때 유대인들이 쇠뿔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듯이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이라고 하며 꼭 주님과 일체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 아직도 주님과 일체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섬리역사는 하나님께서 한 해만 더 연기해 주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말씀을 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신령한 말씀을 주셔야만 받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지루하다, 길다 하지 말고 2007년도에 선생의 행방을 모르고 한마디 말씀도 듣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

“나무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소서. 깊이 파고 거름을 해 보겠나이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거름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거름과 같은 신령한 말씀을 잘 듣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더 달리 해 줄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연기하신 뜻은 “연기한 시간도 끝이 다 되었다. 급히 갖추어라. 오직 게시해 주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모두 그동안 주님이 게시해 주신 선지자와 사명자들의 말을 듣고, 또 우리 섬리사에 게시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같은 시대에 같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이같이 연속해서 말씀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계시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나 수녀는 밤 10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기도를 하면서, 온몸과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간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녀에게 세계적으로 알릴 계시를 주셨습니다.

토마스 주남 선지자는 주님이 ‘너는 이 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시면서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극적으로 연단시키시고 갖은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는데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직접 보고 깨달아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늘의 말씀을 받을 때 극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여 전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 신앙의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각 개인들의 신앙이 살아 뛰지 못합니다. 교역자의 책임이 큼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서 주었는데 깊이 전하지 못하고, 깊이 듣지 못

하면 주님과 먼 자입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답답해하십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잘 깨닫도록 교역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듣는 자들도 책임을 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제대로 받는 것이 책임입니다. 고로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엄청난 시간을 정성으로 드린 후에 받아서 만듭니다.

주님은 **“말해 주고 싶어도 조건을 세운 합당한 대상이 없다면 계시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깨닫게 되고, 행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되어 긴장하고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가 끊어져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못하셨던 시대는 잠을 잤고, 모두 부패되었고, 발전이 없었고, 신앙인들이 그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다른 일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눅 13:6-9)과 같이 모두 무화과나무와 같은 입장의 운명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시대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거름해 준 후에도 열매를 열지 못하면 온 세상 누구나 찍는다고 했습니다.

한 해는 확대시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고, 축소시켜 보면 섭리적으로는 1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1년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기간이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행한 자들이 바로 행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교단에서 만든다.’고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소홀히 들어 할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감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말합니까? 오늘부터 누구 한 명도 그같이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하지 않던 말씀이 새롭게 나가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때가 되었기에 주님이 그동안 해 주지 않으셨던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시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찬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책망 설교가 나가면 회개하지는 않고, 그 내용은 교단에서 만들었다고 하며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주님의 책망이 또 나옵니다.

지구촌의 어떤 종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어떤 교파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모두 주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말씀에 따라 갖춰 살아야 합니다.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재림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환난과 극한 재난은 종교에 상관없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재림에는 관심도 없이 다른 데 몰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설교 때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외칩니까? 주님의 애타는 심정과 급절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주를 믿는 자들은 정말 알고 살아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외쳐 오면서 기다렸던 이때를 알려 주었는데도 세상에 빠져 살고 자기 우선으로 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인생은 참으로 모르고 살고 있다. 주를 믿는 자도 주를 모르면서 믿고 살고 있다.’**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큰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미리 안다 해도 하늘의 뜻이라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피할 수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2007년 5월

전에 얼마든지 다른 데로 선교하러 갈 수 있었는데도 주님은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며,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네가 생명길을 가야 따르는 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앞날을 미리 알고 있어도 피하지 말고 하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은 억지로 못 삽니다. 하늘의 운명이 있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극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에 오히려 신앙이 살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봄이 와서 주인이 과일나무에 풍부하게 거름을 주니, 기뻐하며 꼭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하고 춤을 출 일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주인이 거름해 주지 않아서 거름 한 바가지도 얻지 못하는 저 울타리 너머의 무화과나무들을 쳐다보면 안쓰럽습니다. 이 시대 말씀의 거름을 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서 전도하여 다 말씀을 듣게 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요즘은 주일 단상과 수요일 단상의 말씀이 30개론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근본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시대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태양이 멈췄는지, 지구가 멈췄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까마귀에게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성에 있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게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섭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믿어져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여기까지 믿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때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듯이, 이제는 재림에 관한 것을 특히 집중하여 듣고 그에 맞게 행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강사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하고 신입생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선생도 최고로 알아주는 것은 시대의 말씀을 잘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선생의 심정을 대변할 자가 누구입니까? 봄이 왔으니 과일나무에 거름하는 것이 최고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과일나무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이론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의 근본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어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에 맞는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예술단 음악부에서 몇 명이 지도자에게 교육을 잘못 받고 안 나오는 것을 알고 걱정되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을 전해 주면 나온다.**”고 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필하여 보내 준다고 하며 그 글을 전해 주었던니, 받아 보고 오랫동안 안 나오던 자들과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자들이 힘을 내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편지를 쓰실 수 없으니 대필자를 통해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모든 일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어지게 해 주셨듯이, 이후에도 주님이 말씀하여 믿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무에 주는 거름과 같고 에너지와 같습니다. 계시입니다. 고로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고, 꿈이나 생시에 나타나 역사하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한국의 가정국 중에 한 가정이 내게 편지를 썼습니다. 분별해 달라고 함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다섯 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손짓하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기에 엄마는 이상해서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말씀같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이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인지 물어보니 아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 예수님 영인체 사진을 갖다 주면서 이 예수님이 맞냐고 하니, 아이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

면서 맞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기에 선생의 사진을 갖다 주면서 선생님이 맞냐고 하니, 아이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아이에게 다시 예수님과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묻고, 아이가 손짓하는 곳을 보고 엄마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찍지 못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일부 찍히고, 선생의 모습도 얼굴 밑으로 찍혀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예수님과 선생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과 선생이 또 나타났다고 하기에 아이에게 위치를 묻고 사진을 찍었더니 빛나는 불빛 두 덩어리만 찍혔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고 물으니, “아직 청소가 안되었구나. 청소할 때다.” 말씀하시면서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주님이 바쁘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전해 주는데,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은 일본으로 순회를 가기 전에 한 명의 제자에게만 간다는 것을 알리고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가정국 통역목사가 그 제자에게 전화하여 혹시 선생님이 순회 오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으니, 통역 목사는 다섯 살 된 자기 아들이 선생님이 오시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고 하기에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동이 되어 전화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먼저 압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신앙의 아이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알고 말해 줍니다. 어린이들도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14).

어떤 가정국은 하루에 하나씩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난절하게 하나하나 매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알아라. 그동안 내가 선생을 통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대했느냐. 내가 그 육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고, 제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구나. 또 내가 보낸 자의 흠을 잡고, 시험 들어 말하는 자들도 있고, 이러니저러니 하는구나. 참으로 답답하다. 그에게 말하는 것을 다 내게 하는 말로 듣는다. 알지 못하고 보이는 자만 쳐다보면서 모세 때처럼 입을 열어 갇은 말을 하는 자들도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나’라는 육신을 쓰고 일해 오셨다고 그동안 선생이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근본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겠습니다.

제2의 엘리야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생인 엘리야를 육신 그대로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겹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며,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슬퍼하면서 요단강에 서서 그 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왕하 2:1-14).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인 엘리야가 한 대로 행했습니다. 제2는 제1이 행한 일을 따라 합니다. 그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이 말씀을 절대 믿고 주님을 따라서 30년 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로 하게 하여 해 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선생을 통해 섭리역사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보이셨는지 아는 자들은 새로 오는 자들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신들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더욱 큰 은혜가 가슴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같이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표적은 늘 선생이 말씀한 대로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모두 환난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로 지금도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 가슴이 뜨겁고, 개인에게도 각종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한 일을 그대로 보이니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주여!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므로 토산에 심어진 나무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소금을 물에 뿌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물이 좋아져 토산의 열매들이 충실히 열렸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이 되시는 엘리야로부터 능력의 겹옷을 받아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선생도 나의 선생 되시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가 함께하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가고 이 세상이 떠들썩하여도 말 못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서해안 밀물을 멈추게 한 표적은 일본과 한국의 제자들 1200명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표적입니다.

같은 이치의 표적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인도양 연안에 있는 말레이시아 해변에서도 밀물이 멈추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소리가 나오게 하는 표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해변은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는데 그때 청소한 후로 깨끗한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표적을 일으키니 사라가 ‘주여!’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셔서 행하게 하여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표적을 보이셨고, 우리와 함께 해 오신 하나님과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 같은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늘 증거해야 됩니다.

선생이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였는데 차가 없어서 월명동에서 전북 전주까지 56km를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내가 보였는데 옛날 한국 사람들이 잔칫집에 갈 때 입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능력의 겹옷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내 고향 마을 어귀에 혼자서 있는데 수백의 사람들이 손에 농기구와 연장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들 인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여 나를 이같이 쫓아다니며 해를 주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네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편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행하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우선 피해야 되기에 나는 내 고향의 인대산 쪽으로 날아서 도망갔는데, 어느새 그들이 찾아와 온 산을 뒤덮었고 대전 쪽까지 껍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30m 떨어진 곳에 서서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못하고 쳐다보며 농기구를 던지면서 갖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우니 다 도망쳤습니다. 이는 앞날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편이 이 시대 사람들을 통해 나를 괴롭힐 것을 미리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후에 열왕기상 18장을 읽어 보니, 그 시대 사람들은 왕을 중심하여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을 닫아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먼저 이스르엘로 가고 엘리야는 걸어서 갔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앞서 가 왕을 놀라게 했다는 성구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축지를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그때 기도하다가 나가서 전도하고 나면 밤 12시였습니다. 차도 없고, 월명동이 시골이라서 오후 5시면 버스가 끊겨서 전도한 후에 집까지 140리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없기에 웬만하면 걸어 다녔습니다. 이때는 시간의 제한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선생은 축지를 수백 번 했습니다. 제자들도 몇 십 번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이 성령과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이같이 수십 번 행했어도 신경을 쓰고 보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눈앞에서 행해도 모릅니다. 지금도 까막눈이라서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태여 자꾸 말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인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말고, 알려고 결심하며 심혈을 기울여 봐야 알게 됩니다.

섬리역사가 시작되어 이곳저곳 순회하러 다닐 때도 차를 타고 천천히 가는데도 예상 외로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때는 부산 시내에서 서울 봉천동까지 3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지금 월명동 잔디밭을 관리하는 최 권사님도 그 차를 같이 타고 왔습니다. 증거한 것을 들어 보았지요? 주님은 선생의 뒤를 떠밀고 다니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누구에게나 시간적 표적이 일어납니다. 4시간 만에 할 것인데 2시간이나 1시간 만에 하는 것이 시간적 표적입니다.

엘리사가 좋지 않은 물에 소금을 뿌려서 물을 좋게 하고 열매를 열게 했듯이, 선생도 이 시대 말씀의 퇴비를 하여 모두 신앙의 열매를 열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환난도 모두 이긴 사람들이 아닙니까?

엘리아 시대에서 제2의 엘리아는 엘리사였습니다. 제2가 되려면 제1과 같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제2의 사명을 맡게 됩니다. 신약시대에서 제2의 엘리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1과 같이 하면 상징적으로 제2의 예수, 제2의 엘리아, 제2의 가롯 유다, 제2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가수 중에서도 마돈나와 같은 자를 보고 제2의 마돈나라고 하지요? 연예인들은 제2의 아무개라고 흔히 말합니다.

섬리사에서 제2의 선생 소리를 듣기 위해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오직 주 뜻대로 해야 됩니다. 모두 제2의 선생이 되어서 과거에 주님이 선생에게 역사하셨듯이 해 봐요. 주님이 함께하시니 섬리역사 30년 동안 별의별 표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내 옆에 있던 한두 명의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신경 써서 보았으면 알고 말해 줄 것입니다. 성경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가 기록했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나만이라도 성경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여 원수도 사랑하면서 주님과 같이 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면서 분명히 **“꼭 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나를 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다윗과 같이 참아 왔고, 주님의 심정으로 참아 왔습니다.

어떤 자는 야곱 같은 사명을 한다고 제2의 야곱이라고 하며 야곱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녀도 12명을 낳았습니다. 어떤 자는 사도 바울같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며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똑같이 짓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제2의 예수가 되어 주님과 같이 그 사명을 해 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2의 주님이 되어 그의 일을 잘 하고 싶다고 하며 제2의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자들을 보고 현대판 제2의 예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흥강사가 훌륭하다고 하며 자기는 제2의 그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선생은 주님께 배웠으니 주님의 노정을 가야 했고, 제2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은 신성이시니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환경의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1의 주님으로 제1의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배우는 제자로서 제2의 사람이 되었고,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가 태어난 곳도 주님이 태어나신 작은 베들레헴처럼 쓸쓸하고 적막한 월명동 달동네입니다. 주님은 33세까지 일하셨고, 제가 34세일 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도 형제들이 많았고, 저도 형제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을 7년으로 확대하여 전반기 21년 동안 뛰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3일 반 동안 계셨고, 저는 3일 반을 확대하여 전 3년 반, 후 3년 반 무덤기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함께하시어 30년 동안 역사를 해 왔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같이 제2의 주님의 사명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고통도 많고, 환난도 많고, 칼이 심장에 꽂히는 듯한 고통도 많이 받고, 억울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어 상상하지 못할 표적도 많이 일어났고,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큰일도 섭리역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특히 승천하실 때까지의 노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셨듯이 당했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듯이 해 온 것입니다. 이는 천하가 변해도 변함없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같이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자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내게 보여 주시면서 붓을 주셨습니다. 붓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떠한 표적이 일어날 때나 늘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할 때도 주님을 숨기면 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일들을 책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전형 노정을 30년 동안 동시성으로 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정이 끝나고, 섭리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던 모습을 다시 보여 주시면서 “내가 곧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같은 뜻을 두고 섭리역사를 이끌지 않으셨으면 여기도 기성 교회처럼 어른들만 꼭 찾을 것이고, 선생도 희망이 없어 목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실제로 수십 번 나타나셨고, 수천 번 역사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와 대화하셨습니다. 고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해 오며, 많은 사람들의 물음에 회피하지 않고 대답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며, 주님과 함께 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많은 일을 보고 겪었어도 다 말하지 못하고, 설교 때 은밀히 간접적으로 말해 오기만 했습니다.

한번은 그 당시 현실의 상황에 대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늘 나를 통해 ‘평화롭게 살자.’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갖은 핍박을 받으며 갖은 악평과 언론 보도가 쏟아져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악평은 끝이 없네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처럼 아무도 곡하게 여기지 말고, 잘되라고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축복한 대로 잘되지 않겠느냐. 너도 내가 안 썼으면 몰라서 저들같이 하지 않았겠니. 저들같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 아니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와 같이 가는 자가 결국 복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며, 핍박한 자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

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같이 힘들다고 잠언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나는 환난 중에도 너희들의 찬양을 기다린다. 이것저것 이유를 달고 하지 않으면 할 것이 없다. 내가 잠언으로 한 말을 다시 들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유럽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 어떤 뉴스를 보고 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같이도 전쟁을 많이 하고, 그같이도 사람을 많이 죽여 놓고 또 전쟁을 하려나 봅니다. 비밀로 바다 속으로 잠수함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 정보를 입수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정보 통신탑을 세워서 자랑하며 활동하고 다닙니다. 저 나라는 또 원자폭탄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놈의 원자폭탄이 모두 무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놈의 원자폭탄 때문에 세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늘 불안해하며 공포 속에 삽니다.” 하며 진정으로 속심을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화가 나 못마땅한 주님의 표정이 느껴지고 그 심정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도 연속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구촌을 축소해 보면 한 민족이고, 또 축소하면 한 가정과 같은데 한집에 사는 식구들 중에 누구는 빠 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싸우기만 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깨뜨리면 기분이 나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하며 선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기나긴 현실의 사정들을 주님께 자세히 고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알았다. 나도 속이 탄다.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내 손발이고 내 심정이니,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에 그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 선장실의 기계 폭발로 인하여 고장이 났습니다. 이 일로 거기에 타고 있었던 200여 명의 국가 정보원들은 산소 공급이 안 되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정보 통신탑은 상공 400m에서 불이 났고, 너무 높아서 통신탑이 다 탈 때까지 소방대가 불을 끄지 못하여 저장된 정보들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통해 뉴스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만 보며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그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은 말해 보세요.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주님이 심판의 매로써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상, 평화를 파괴하며 스스로 행한다면 그 하는 일이 역천하는 행위가 되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 군대를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보는 자들을 애간장 타게 하고 전쟁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짓값으로 먼저 그 나라를 흔드시며 재앙으로 치십니다.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며 마음이 둔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 취급을 받습니다. 섭리사에는 그렇게도 외치며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자들은 이제 더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겁주고 괴롭게 하는 자들의 생명은 땅에서 찾아도 못 찾을 때가 가까이 옵니다. 괴롭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교만히 행합니다. 섭리 안에서는 모두 겸손하게 살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름을 해 주시니 이제 우리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라는 각 사람의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열매를 열면 좋으려니와 열지 않으면 찍힌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야 된다. 열매를 맺으면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돌감나무나 돌포도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해도 좋은 열매를 열지 않습니다. 거름을 주기보다 톱으로 베고, 참감나무를 접붙여야 됩니다. 돌감나무나 돌포도나무 같은 자들은 그 행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름을 주었을 때 쪽쪽 빨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섭리사 모든 자들은 말씀의 흡수력이 강합니다. **“이때 진실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은 결단코 휴거되지 못하고 사탄의 것이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루 백 리를 가려면 쉬지 않고 계속 걸어야 해 질 무렵에 겨우 도착합니다. 선생은 걸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연장해 주시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어 겨우 외치고 있는데, 그마저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겉으로만 성의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자신이 자기를 뻔히 아는 대로 되고 맙니다.

‘주님이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 그 시간마저 끝이 다가온다. 이제는 더 이상의 연장 시간은 없다.’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연장하고 준비하게 하신 후에 다시 와 보니, 또 준비가 안되어 마지막으로 연장해 주었다는 말이라고 주님은 다시 근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 재림에 대하여 사명자 린다를 통해 섭리사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연장해 주었으니 빨리 갓출 것을 갖추어라.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린다의 글을 다시 읽어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 때 받고, 전할 때 들어야 합니다. 섭리의 말씀은 끊어지면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일나무들은 봄에 한 번에 몽땅 거름을 하면 그 해에 열매 맺을 것을 맺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과일나무는 한 해 동안 말씀의 거름을 끊임없이 해 줘야 봄에 과일나무에 거름을 한 번 해 주는 격이 됩니다.

금년도 말씀이 벌써 4분의 1이 나갔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방향을 모르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은 ‘에너지’와 같고, ‘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과 정신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1일, 2일, 3일, 1주, 2주, 3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쓰러지고 못 일어납니다.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병이 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음식과 같아서 계속 듣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또 말씀은 식물에 필요한 물과 같습니다. 식물에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시들고 꽃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열매를 열기 전에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그 처절함을 배우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있고 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돈에 비하겠습니까? 금 덩어리에 비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자기의 생명입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님으로 보고 좋아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자기를 외면했다고 심정 상해 하시며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 버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때가 왔으니, 제발 고기 한 점과 같은 인생 가지고 목에 힘주지 말아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좇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리 하니 이때 기념으로 무릎 꿇고 박박 기어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한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자존심이 상하여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대신 빌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 다 내

죄고, 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자들을 쳐다보시고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몇 명이 면회를 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 해도 안 되니 자포자기 했다가, 다시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고 면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얼굴 보고 가서 힘내고 잘해 보겠습니다.”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그가 잘하고자 하나 잘 못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또 그 눈물을 보시고 나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가서 섬리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신희골수를 꿰뚫어 보시니 다 아십니다. 양에 따라 각각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자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서 나도 그같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깊이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 주님은 “너는 보았느냐?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기뻐하고, 한 명은 속으로 울고, 한 명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나와서 흘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속을 보았느냐. 모든 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모두 각각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왜 면회를 안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시간에 쫓기면서도 면회를 하면 얼굴을 봐서 좋습니다. 얼굴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꼭 해 주는데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속 시원히 말했으니 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 본 자에게 잘하라고 한 말도 그에게는 상처가 된다.” 하며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웃으면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면 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면회 온 자들은 좋았겠지요. 주님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지적할 것과 모순이 보이는데 나뭇가지 치듯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 고쳐지기도 하고 구원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죽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해 왔기에 이제는 나도 그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역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마음에 새겨 담아 가고, 다시 글로 쓴 것을 봐야 됩니다. (부활 주일이 오기 전에 부활에 해당되는 성구들을 자세히 몇 번씩 읽고 와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이해하고 은혜가 됩니다. 모두 꼭 읽고 오세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주일에 또 만나요~)

*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말씀을 위해 부활에 관한 성구를 있는 대로 다 읽어 보고 오라고 했지요? 이제 주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 예전보다 더 깊이 말씀해 주시니 내용이 깊고, 어떤 것은 방향이 바뀌고, 어떤 것은 재해석되었고, 차원도 높아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성구를 찾아서 한 절 한 절 다시 읽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잘 읽은 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 5:20~29, 롬 8:5-8, 고전 15:45~54, 살전 4:16-17 / 기타 - 사 26:19, 요 11장, 요 20장, 요 21장, 약 2:17, 약 2:26, 벧전 4:6, 계 3:1 등등.)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나, 또는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자의 부활과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째, 육신이 살아 있는 자는 육신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 있으니 다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 나오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육도, 영도, 정신도 사망권에서 나오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

회가 아는 바라』

이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 영이 육과 함께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둘째, 육신이 죽은 자는 육이 회복되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베다니 나사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요 11:1-44)

셋째, 재림 때가 되면 살아 있는 자들의 육이 영으로 부활되고, 육이 죽은 자들의 산 영이 부활됩니다.

이같이 부활이 각각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꼭 읽고 와야 말씀을 들을 때 혼돈되지 않기 위해 핵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만이 확실히 아시니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주장해야 혼돈이 없습니다. 손 등 아니면, 손바닥입니다. 각각 쪼개서 봐야 됩니다.

1. 사건적 부활, 심령의 부활, 정신의 부활, 행실의 부활

2. 육체 부활도 있었으니, 주님이 죽은 자들의 육신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 베다니 나사로

3. 마지막 재림 때의 부활 -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은 재림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도 재림 때가 되면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합니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이 영으로 홀연히 변화됩니다.

마지막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또 직접 보고 확실히 말한 자가 없으니 모두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육이 살았는데 영이 살았다고 해도 안 되고, 영이 살았는데 육이 살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고, 신앙생활까지 못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 확실히 말해 달라고 하니 “성경에서 내가 한 말을 다시 읽으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도 주님과 함께 행하였기에 말하는 것인데, 이를 믿지 않고 따라오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는 그 전의 것까지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억지로 믿게 하려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도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선생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다시 확인하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면 많이 모른다. 가령, 세계에 있는 것들도 현지에 직접 가서 보고 믿으려 하면 하루에 몇 개 못 배운다. 하지만 본 자가 한자리에서 말해 주는 것을 믿고 따르면 10개, 20개 더 배우게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를 보이면서

‘다른 것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가서 보고 배우고 믿으려면 일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못 가 보니 성경에 나온 대로 믿고,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말하는 자의 말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얼굴을 안 보여 주셔도 말씀하시거나 느껴지면 주님을 본 것으로 알고 따르고 기록하니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때 주님께 물기를 “주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여 읽어도 헛갈립니다. 사도 바울은 육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육신 부활 같고, 부활 후에 돌아다니신 것을 보면 영의 부활이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히 믿어져야 다른 자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에 대해서는 네가 믿은 대로 믿고 가도 괜찮다. 억지로 믿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 믿음대로, 아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고로 선생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의 말씀을 읽고 영적 부활로 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나 살아났다.”고 하시며 안 믿는 자를 꾸짖으셨습니다.(요 20장)

이로 인하여 선생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두 가지 다 믿어 왔습니다. 주님의 육신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죄지은 몸을 왜 죄 없는 하늘나라로 오게 하겠느냐.’ 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을 영으로 변화시켜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행실과 정신을 영이 가지고 간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그 뼈와 살도 가지고 가냐고 하며 의아해합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부활에 관한 성구를 모두 읽어 보고 와야 됩니다.

선생은 주님만큼은 메시아시니 그 몸을 버리지 않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는 몸이고, 세상에서 당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은 모두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의 무덤에는 뼈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여기를 읽으면 영적 부활같이 나와 있고, 저기를 읽으면 육적 부활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로 교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교파는 영적 부활이라고 하고, 어떤 교파는 육적 부활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외국에서 흙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으나, 흙 그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반입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육도 그같이 변화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꼭 부활 성구를 읽고 오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부활주일에 또 만나요~

<2009년 4월 12일 부활절 말씀>

육이 영으로 부활했다

본 문 요한복음 5장 24-29절

- 심령, 행실, 생활, 더 좋은 부활, 즉 거듭난 부활, 구원의 부활, 중생 부활

야고보서 2장 17절 - 정신적, 행실적 부활

누가복음 24장 1-53절 (봉독 36-44절) - 예수님의 부활

마가복음 16장 1-19절 (봉독 14절) -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0-54절 - 휴거 부활

마태복음 28장 1-20절 (봉독 생략)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눅 24:36).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같이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날같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깜짝 놀랐습니까?

먼저 누가복음 24장 36-4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되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주님이 좋아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뭇 믿느냐.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보고 너무 기뻐했으나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죽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섭리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에서 소식조차 없을 때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다시 온다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와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며 보여 줬지요? 말씀을 교단에서 만들어 보내 준다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보고 간 자들이 말해도 안 믿었던 사람도 있지요? 고로 선생이 면회 때 만나서 “왜 의심하느냐.” 하며 꾸짖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지로 내 글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그제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그 모습을 보여 주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의 말을 믿듯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의 뜻이 있어 어떻게 우리 섭리역사를 이끌어 오셨든지 믿고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 보고 지금 이 시간 “아멘! 주님이 사셨습니다.” 시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여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으시

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할 수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건강하게 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믿지 않았고, 그들 중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후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믿지 않았느냐.” 하며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고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믿지 않으면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아야지요. 한때 선생의 행방을 알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선생이 오기를 위하여 주님이 보내 주셨는데, 기뻐하며 하나 되지 않고 걱정하며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고로 주님은 그때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사진과 같이, 선생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에 선생은 “네가 내 심정을 보았구나. 섭리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는 자들을 보면 내 심정에 불이나 피눈물을 흘리듯 한다. 네가 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곳저곳을 계속 다니시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뵈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같이 잔인하게 찢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과연 살아나실 수 있을까?’ 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못할 것이 있습니까? 인간 세계에서든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 20:19-23)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할렐루야!” 하며 박수를 쳐야지요. “주여!” 하고 불러야지요. “아멘!” 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이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느냐.” 격려하시니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완전히 믿고 기뻐서 감격하며 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으나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래서 주님의 육신이 부활된 것을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울고, 붙잡고, 매달리고, 끌어안으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면 못 가게 붙잡고 잔치했어야지요. 정말 너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고 대해야 됩니다. 꼭 붙잡고 반가워하며 좋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여쭙기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울면서 붙잡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다 울었다. 그것은 상식이 아니냐.” 하시며 “제자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핍박하던 자들이 또 죽일까 봐 쉬쉬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니,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 의심했습니다(요 20:24-25).

안 믿는 자에게는 정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들을 보고 ‘도마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현대판 도마와 같은 자입니다.

그 후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이 많고, 다른 제자들이 말했어도 믿지 않는 것을 아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사나이다.” 하며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요 20:26-29).

여러분들은 보고 믿겠습니까? 안 보고 믿겠습니까? 도마 신앙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며 심히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꾸짖음을 받고 혼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듯이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며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요 20:31).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쳐다보자마자 빛이 강하게 그를 비추어 그는 눈이 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제야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눈은 떴으나 실상 소경들입니다. 소경들은 고통이 많습니다.

사울은 영의 눈을 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 크고도 큰 일을 했습니다. 눈을 뜬 자와 뜨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같이 큼니다. 주님의 손이 가고 안 간 것의 차이가 이같이 큼니다.

섭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하는 일과 심정을 모르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먼저 본 제자들이 말해도 안 믿었던 자와 같이 섭리사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 주고 말해 주어 전하게 했는데,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선생이 한 말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선생이 나타나 말하면 그제야 믿습니다. 왜 안 믿었냐고 꾸짖으면 몰랐다고 합니다. 이에 “설교를 통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 보이시며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에 구름이 가려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천사가 말해 준 것입니다.

벌써 그 긴긴 역사가 가고, 재림을 연기하신 시간도 거의 흘러갔습니다. 주님은 “곧 온다.”고 세계 방방곡곡에 친히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전대로 재림에 별 관심 없이 일반 신앙들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살아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뒤로 갈수록 더 세밀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설교로 절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부활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주님과 같은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5장 24-29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셋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말씀과 같이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휴거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후에 살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육이 살았다.’고 보는 자들도 있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영이 살았다.’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 사신 것이라면 이 같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었다면...

첫째, 왜 세상에서 계속 복음을 퍼지 않으시고 40일 동안만 있다가 하늘로 가셨을까?

둘째,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셨을까?

셋째, 제자들은 왜 3일 전에 보던 자기의 선생을 영으로 생각했을까?

넷째,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

다섯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도 육신이 살아났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살아났다는 것과 확실히 살아난 것을 써 놓지 않았을까?

그동안 섭리역사는 오직 예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선생이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고 가르쳐 주지 않고 영적 부활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는 주님의 역사이니 그 뜻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주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을 20대에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겨울철에 얼어 있던 개미가 봄이 되어 살아나는 것을 시골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얼음 속에 개미를 파묻어 놓고 완전히 얼음덩이가 되게 한 후에 다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났다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육신의 부활보다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이 하는 ‘삶의 부활, 행실의 부활, 정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권에 죽어 있으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정신과 행실과 삶을 살리는 부활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서 전도하여 내게 데려오라. 그것이 부활이다. 급하다.” 하셨습니다.

(요 5:24-29)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영계를 보이셨습니다. 이리와 사자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주시며 “저 양들이 사람이다. 내 양들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 오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정신과 행실을 부활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요 5:24).

주님은 “나를 믿게 해 줘야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 줘야 그 사람의 영과 육이 주님과 일체되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섭리역사는 이것을 성경적인 부활 교리로 가르쳐 왔습니다. 고로 우리는 선생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 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요 5:25).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외치게 하여 듣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곧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선생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 온 여러분들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져 살아났습니다. 선생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은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요?

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요 5:28-29).

과거에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과 믿었어도 제대로 못 믿는 자들은 실상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선생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왔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생을 통해 말씀하시어 사망권에 있었던 선생부터 먼저 새롭게 부활시켜 사망에서 꺼내시고, 또 나를 세상에 내보내어 나로 외치게 하시어 듣고 따르는 자들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는 부활을 시켜 오셨습니다. 이 부활은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특히 해

당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가 아니므로 시체 부활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삶 속의 곤고, 고민, 걱정, 염려, 아픔, 허무, 가난, 무지, 악의 생활, 죄의 생활, 멸망의 삶, 세상 정욕과 욕심, 이성, 미움과 싸움과 같은 사망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 주를 믿고 희망을 얻게 되었고,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고, 걱정·근심·염려·각종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생명권으로 삶의 부활이 되어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같이 사망권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손발로 쓰시면서 외치게 하시어 지금도 사망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생명권 속에 살게 해 주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생을 통해 이같이 다양하게 부활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활을 말씀하면서 ‘지구라는 공중, 곧 이 땅에서 주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휴거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땅에서 휴거되는 부활이기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주님을 모시며 이같이 역사를 펴 왔습니다. 섭리역사는 당세 30년 동안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같이 모시며 이같이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영혼의 이 상태 그대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공중에서 휴거될 수 없습니다. 이 육신과 영혼으로는 오직 지상 세계에서만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지구라는 공중에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만 주를 맞았고, 믿고 따랐던 자만 주를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29절에 나온 부활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이루는 부활로, 주를 믿지 못하고 사망권에 사는 자들이 해야 될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하면, 흔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의식합니다. 또 그것만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앞날에 죽은 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사건적으로, 영적으로, 행실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거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과 마귀와 흑암과 죄의 주관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빛 가운데 나와 생명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 마음천국과 행실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될 수 있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휴거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이 부활을 외쳐 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사데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계 3:1-3).

회개하면 사망권 속의 죽은 영과 육이 생명권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죄지은 자는 사망권 속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행실적으로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47절에 예수님은 진리가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의심하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병을 고쳐 주지도 않으셨고, 기도해 주셔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병도 그러했고, 육신의 병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들의 지역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새벽을 죽인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해야 살아납니다.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를 읽어 보면,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거의 대부분 육신이 살아 있으나 실상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복음을 퍼셨습니다.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일은 성경을 보면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요 11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눅 8:41-56) 등입니다.

선생도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위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 30년 동안 섭리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래서 번창하는 섭리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에는 ‘심령의 부활과 행실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이 산 자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육신의 행위에 따라 그 영도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과 영은 일체입니다. 육의 행실의 부활은 곧 영의 부활로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보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시대성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생활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부활입니다. 자기 습관, 못된 성격,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활의 부활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생활의 부활은 곧 기적의 부활입니다. 각자 본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믿고 행해야 즉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생명권으로 가니, 마귀는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방해하고 막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꼬이고 시험에 들게 하여 자기 주관권에 끌어다 놓고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갈까 봐 지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부활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는 ‘주님 최우선주의 신앙’입니다. 삶 속에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여 더 잘살고 더 명예롭게 살듯이 신앙 속에서도 주님과 일체되어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믿고, 더 실천하고, 더 변화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놓고 준비하는, 완전하고 더 좋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 24-29절에 해당되는 부활에 대해 주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거듭난 부활’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활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지구 공중에서 휴거되는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자들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무덤에서 나왔고, 사망권에서 나와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지구라는

공중에서 휴거된 것임을 모른다고 선생을 통해 주님은 외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구라는 공중, 곧 이 땅에서 이 같은 휴거를 해 왔습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이해했을 때부터 휴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육이 무덤에서 살아나 홀연히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만 기다리고 외치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살아 있는 자의 육과 영이 부활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행실과 삶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부활과 구원의 부활을 이루며 사망권에서 나오는 부활을 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듯 형제를 사랑하며 의의 부활을 제대로 해야 주님의 재림 때도 제대로 휴거되고 부활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망권에서 마귀에게 묶여 있던 자들이 멋있게 생명권으로 나왔습니다. 새 노래도 있지요? 한 번 불러 봐요.

(새 노래 제목은 영광의 탈출입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차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교회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섭리역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에 관한 부활을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 휴거되어 주님을 맞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15:51-53)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지 10년, 100년, 1000년, 1500년이 된 자들도 있고, 예수님 당세에 죽은 자는 죽은 지 20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의 육신은 다 썩어 빠도 찾아보기 힘든 자도 있습니다. 이들의 영은 잠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 썩었으니 그 정신과 마음과 행실의 모든 의는 영의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휴거에 해당되는 영들이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재림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를 ‘휴거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도 어느 날 육체 이탈을 하여 영의 세계에 갔습니다. 그곳을 안내하는 두 명의 천사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길을 알려 주면서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또 왔냐고 하시며 몇 마디를 해 주셨습니다.

영계에 가면 영이 육신을 쓰고 있을 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0배 이상 뛰어나게 되어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쳐다보면 저가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휴거되기 전인데 제자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주 안에 있는 둘째 하늘의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자들은 아브라함도 천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주님 선지자가 천국에 갔을 때도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모두 부활되어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모세, 다니엘, 스가랴 등 옛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의 무덤이 있고 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바울 선생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중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어 그 육신을 보이시고, 죽은 시체를 땅에 남기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과 뼈를 찾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가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헛갈리지요? 그래서 한때 선생은 성경을 보면서 속 시원히 분명하게 쓰지 못하고 헛갈리게 썼다고 하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땅에 묻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다 보시고 답답해하시며 “내게 배우라.”고 하였고, 나는 주님께 배웠습니다.

성경은 천 년을 배우고, 수천 년을 배운다 하더라도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 있기에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배워도 순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단계까지 실천해야 깨닫고 물었을 때 주님은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실력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영계에 가서 보고 와서 말하게 됩니다. 고로 어떤 것은 40년 만에 배우고, 어떤 것은 20년 만에 배우고, 어떤 것은 10년 만에 배우고 깨달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깨닫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모르면 헛수고하고, 마귀에게 꼬임 받고, 주님의 심정을 답답하게 하니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주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니 말씀 천국입니다.

이같이 성경을 풀기 어려우니 오직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해석을 많이 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모순된다고 하며 안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믿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생은 예수님께 배우면서 성경말씀을 정말 많이 풀어 주어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믿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순이 있으면 안 믿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줘야 믿고 따라옵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태양인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그 순간 멈췄다고 하니 믿겠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이 온 천하를 뒤덮었다고 하면 쉽게 믿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이 덮일 정도의 비를 내리셨겠습니까? 천하를 다 덮을 필요까지 없지 않아요? 온 천하를 덮은 물이 150일 만에 다 말랐다고 하니 믿어집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니 물의 깊이가 15규빗 이라고 했습니다(창7:20). 한 규빗은 손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약 45cm정도 됩니다. 물의 깊이가 15규빗이라고 했으니 7m정도 밖에 안 됩니다. 7m 높이의 물이 온 천하를 뒤덮을 수 없습니다.

선생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앞부분에 이미 주님의 육신 부활을 말했지만 더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주님은 육과 영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활을 하셨는지 이해시켜 줄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듣고 결론에서 말씀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내용을 먼저 들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고 있는데,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7~8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영이라고 하며 안 믿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으니 악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완악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영적 부활과 행실의 부활만 믿어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어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리는 한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론을 붙여 전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으면 육이 살았는지, 영이 살았는지 확실하게 말을 해 줘야 따라갑니다.

“너는 기독교니, 불교니?” 물으면 제대로 말을 해 줘야 그를 따라서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닌다고 하면 그의 교리를 배우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외쳐야 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고 구원시켜 사탄의 주관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말씀과 같이 섭리 역사를 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도 어떤 제자가 나와 나의 이론을 둘 다 믿고 따라오는 것을 어려워하면, 선생을 믿고 따라오는 쪽 먼저 택하여 가르쳐 줍니다. 따라온 후에는 좋아하니 나머지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선생이 표적을 행한 것을 말하면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고 친구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며 이끌어 왔습니다. 따라온 후에 말해 주면 그들은 “이미 믿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역사를 펴셨습니다. 주님의 육신 부활을 가르쳤으며,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삶의 부활을 이루게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주님은 방법을 달리하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대는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사망권의 마귀들이 쥐고 있는 자들을 끌어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독교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했으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섭리 안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있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이단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하며 갖은 악평을 했습니다.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 쓰면서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실상 예수님을 더 잘 믿지요. 그러니 젊은이들을 사망권의 마귀들에게 뺏기지 않고 계속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권에 뺏긴 젊은이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한마디로 10년이나 애지중지 기른 자기 애인을 다른 남자에게 뺏긴 어떤 남자같이 원통해하고 분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전도하여 채워 놓았더니,

주님은 우리가 소원을 풀어 주었다고 하며 기뻐하십니다. 마귀의 손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 와서 주님께 돌려 드려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섭리역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펴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터전 위에 재림에 대한 경고까지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용한 밤중입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핍박받고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영원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역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좁은 생명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관에서 나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까지 하고 있으니, 때가 되어 주님의 육적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명동 개발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두 군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곳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앞산에 먼저 돌조경을 만들고 밤나무 산에 돌조경을 만들었듯이 모든 일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시며 섭리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영적 부활과 행실의 부활과 삶의 부활을 이루게 한 후에 주님의 부활에 관한 것은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육적 부활은 한 번만 설교하면 다 믿습니다. 한마디도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영계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 줄 때도 한 번 보여 주고 끝납니다.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육으로 부활한 것을 한 번만 말해 줘도 너희는 다 믿으니 이제 말씀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섭리역사 처음으로 근본된 주님의 부활에 대해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며, 성경을 많이 읽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생은 부활주일 전부터 매일 새벽 2시에 다 준비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은 부활에 대해 역사적 이치를 말씀해 주신 후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나의 부활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큰 물고기 배 속에 갇혀 3일 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영이 나왔습니까, 육이 나왔습니까? 육이 나왔지요. 그러니 표적이지요. 영이 나왔다면 무슨 표적입니까? 누구든지 영은 큰 물고기가 잡아 삼켜도 그 배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로 그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죽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표적과 같이 주님도 그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 보아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나도 땅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4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 12:39-40)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 시대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여 죽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을 모두 믿고 따라와 이상세계를 이루는 역사의 표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시대가 대하는 대로 표적을 보이셨고, 주님이 보낸 자도 시대가 대하는 대로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긴급한 말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무덤에서 영만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외치셨습니다. 그 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성령의 불 이 붙어 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듯이 제자들과 그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4-29절의 부활 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며, 마치 요나의 표적과 같이 보이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보인 표적이었습니다. 모두 알지요? 그 같은 역사가 또 올까요? 요나의 표적이 두 번 일어났습니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듯이 동일합니다.

표적을 보여 주었어도 그때만 번쩍 믿고 잊고 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늘 간증 하기도 하고, 책으로 쓰기도 해서 성경처럼 기록하여 후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도록 알려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영만 나왔다면 육은 어디에 있지요?

1980년 3월 예루살렘 인근 탈피요트라는 지역에서 건물 공사를 하던 중 하나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그 무덤에서 10개의 유골함과 3개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에 영국에서 이 유골함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유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에 제작된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되었는데,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의 가족 무덤’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 위에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유골함 중의 하나가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유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설과 가정’에 근거한 내용이었기에 설득력이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허점을 보이면서 성서학계와 고고학계로부터 지탄을 받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나의 ‘가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다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위대하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학자는 지식이 뛰어나지만 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세에 보고 겪은 자가 제일 잘 압니다. 선생에 관한 것도 서로 궁금하다고 해서 내 말도 안 들어 보고 제 나름 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한 것을 보았어도 허락받고 말해야 되고, 제대로 보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해야 됩니다. 안 본 자는 본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고, 본 자도 보태거나 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 한마디 하면 자기의 사상과 주관을 다 넣어서 전합니다. 그것도 선생에게 회개해야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와는 정말 천 리나 멀리하고 싶습니다. 주님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를 신부로 삼지 않으신다고 했지요?

어떤 골동품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도 아는 체를 하기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쓰던 낡은 요강에다 오줌을 가득 담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3년 만에 캐서 그에게 주면서 “발을 파다가 나온 것인데 감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골동품 박사가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적어도 150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에게 아주 비싸게 팔고 돌아오는 길에 킁킁거리고 웃다가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아담이 인간의 시조라고 하며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모른다고 하며 요즘 나오는 초등학교 역사책을 그 학자에게 갖다 주면서, 이 공부 먼저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골이 텅텅 빈 학자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원숭이가 들으면 “이 녀석아~ 너도 나와 같은 족속이니 바나나나 따 오고 같이 먹으면서 살자.”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육적 부활에 대해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줄 테니 잘 듣고, 오늘 다 믿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영만 나왔다면 어떻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도했겠습니까? 요나의 영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육이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 나와 외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고통을 당한 후에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동안 부끄러움 없이 외쳤습니다. 고로 요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칼 같은 말씀을 외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기간과 같습니다.

주님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육이 영과 함께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40일을 외치시고 결국 다 회개하게 한 후에 그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영만 나왔다면 40일 동안 외치고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자신의 몸을 만져 보게 하시며 육으로 믿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 예수님이 3일 만에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살아났으면 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면 살아 있는 영이 되어 육체는 썩더라도 그 영은 무덤에서 나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이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면서 “**육신이 죽은 자는 육신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고, 행실과 정신이 죽은 자는 행실과 정신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 영이 죽었느냐? 내 육이 죽어 동굴 속에 넣어 놓지 않았느냐. 아무리 채찍과 못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여 온 인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흘렸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들을 창조하기도 하시니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주님, 안 믿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같이 둘 중에 하나의 뜻을 먼저 우리 섭리역사에 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전지전능하시니 그 어떤 것도 못 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님이 역사해 온 것이 모두 표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에게 행하신 표적만 해도 2000번이 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떤 표적인데 2000번이 넘는지 궁금하지요? 한 센터만 말해도 설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설교한 말씀의 표적만 해도 2만 번이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었지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2000번만 물어보면서 대화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 준 것만 해도 상상도 못 하게 많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 중에 내 생명을 살려 주신 표적과 섭리역사 30년 동안 보이신 표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너도 나와 같이 섭리역사를 이끌었던 30년 동안 육신이 죽은 자를 너로 기도하게 하여 내가 살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

- 섭리사에서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났는데 기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또 충주 스키장에서 한 사람이 죽은 지 17시간이 지났는데 기도하여 살아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살기 불가능한 자들을 기도하여 살린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셨듯이, 이 시대에도 주님은 나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 부흥강사이신 박재봉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지 3일이 되어 관 속에 넣고 못을 박고 땅을 파서 넣으려고 할 때, 자기 누이가 먼 데 살기에 늦게 와서 관을 흔들면서 슬피 울었는데 그때 살아났다고 합니다. 역시 주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때가 여음이었기에 이미 시체가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죽었을 때 영계에 갔는데, 가서 보니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자들이 너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서 영계에 오는 자들은 대개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자기 자녀나 안내자를 찾고 부른답니다. 그러다가 없으면 다른 자들에게 물어보려다가 모두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영계에 있는 자가 “당신, 죽었습니다.” 하면 안 믿는답니다. 어떤 자는 “내가 왜 죽어?” 하면서 그제야 탄식하며 슬피 울기도 한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영계를 보고 온 후로 주님의 사역을 크게 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힘 있게 외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 석막리에 사는 장재완 선생의 조카 아버지도 죽었다가 이틀 만에 살아났는데, 시체를 삼줄로 너무 꼭 묶었기 때문에 살아난 후에도 뽕뽕 묶은 곳에 멍이 들어 안 풀렸다고 합니다. 그 후 15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부활주일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 미얀마에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이 되어 미얀마의 풍습대로 관 채로 화장하려는데 그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옥의 왕을 만났는데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얼굴은 사자 머리 같고, 용의 비늘 같은 것이 다리에 나 있고, 몸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름을 물으니 ‘지옥의 왕,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왕이 그에게 불의 연못을 보라고 하여 보았을 때, 그 당시 미얀마에서 가장 저명한 스님이었던 스님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님은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 깜짝 놀라 지옥의 왕에게 그토록 존경받았던 좋은 스님이 왜 지옥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지옥의 왕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며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군 복장을 하고 흉부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미얀마의 혁명가 아웅산이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 그러니 지옥에 안 오겠느냐.”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보였는데 키가 크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지옥의 왕은 “저 남자는 골리앗이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는 승려였기에 다윗도, 골리앗도 몰라 혼돈스러워 했습니다.

지옥의 왕은 그를 보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그는 피가 흐르도록 오랜 시간을 걸어 다른 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이 황금빛으로 바뀌더니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그와 같이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그가 그 남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섯 번이나 묻자 “나는 베드로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다.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곳을 갈 수 없다. 네가 지옥에서 본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너와 같이 부처를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네가 본 것을 말해 주어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전하여라. 특히 사원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스님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과 절하는 자들도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너는 이제부터 ‘아텏 피안 신토우 파우루’라는 새 이름을 사용하 여라. 이는 ‘부활한 바울’이라는 뜻이다.”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인도를 받아 도착한 곳은 자기 관 속이었습니다. 살아나 보니 자기 시체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관 속 은 액체로 가득했습니다. 화장하기 직전, 그의 부모님이 그를 한 번 더 보려고 왔다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어 화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했습니다. 3일 동안 지옥을 보고 살아서 예전보다 수천 배 더 열심히 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곳을 체험하면 충격을 받고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보면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은혜 받고 뛰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 받고 행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영도 육도 새롭게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믿어주세요?

- 하나만 더 말해 주겠습니다.

때는 2001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목사는 부인과 싸움을 한 후에 화해하지 않고 바람을 쐬 러 나갔다가 화가 풀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가 4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목사도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사는 그 목사에게 천국과 지옥의 각종의 것 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연기하셨다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연기하신 것은 세상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니 세상에 나가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 며 준비하게 하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본 많은 상황 중에 지옥에서 본 상황에 대해 하나만 말해 주겠습니다. 지옥의 한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가 보니 자기의 살을 뜯어 먹고,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뜯어 먹고 있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꾀임을 받거나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아스팔트같이 딱딱한 마른 바닥을 손에 피가 나도록 맨손으로 파고 있기에 천사에게 물으니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목사에게 보인 지옥의 경고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 중의 하나라고 천 사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보아도 잔인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오면, 누가 더 가르 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육적 부활을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고 하니, 주님은 “**육이 영으로 부활되었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육과 같지 않다. 육이 영으로 부활되었기에 영같이 보인 것이며 문이 잠겼는데 마음대로 통과한 것이다. 전지전능한 신의 몸이 된 것이다. 그같이 부활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베다니 나사로처럼 육신이 살아서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은 육신 그대로 살아나게 되지만,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갈 나는 그 같은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의 몸으로 부활된 것이다. 베다니 나사로

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신이 다시 살아나 육신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자들은 육을 중심으로 그대로 살아난다. 그래야 영이 주체가 아니고 육이 주체가 되어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육을 중심으로 부활하지 않고 육이 변화되어 영으로 부활되었다. 영이 주체가 되어 부활된 것이다. 고로 부활된 영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음대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나라 영의 사람들과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그 영체는 전능하여 순간 천국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부활된 내가 너희에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영도 지금 형태로는 휴거되지 못한다. 내가 오면 다른 형태로 완전히 부활해야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지금 육에 속해 사는 영은 누구든지 나를 믿더라도 약하다. 새롭게 하늘나라의 완전한 영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 토마스 주남도 내가 그 영을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죽었던 베다니 나사로는 세상에 살아야 되기에 육신을 중심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고로 그 전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육을 살리고, 영이 죽었으면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을 중심으로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으로 순간 오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흙이 도자기로 홀연히 부활되고 꽃이 열매로 홀연히 부활되듯이, 주님의 육이 영으로 홀연히 부활되었습니다. 고로 주님은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고 만져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고 만져 보아라.” 하셨습니다.

선생도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는데 만져지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힘줄까지 다 보였습니다. 주님이 붓을 주셨을 때와 붓을 잡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손등과 손가락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람과 똑같은데 잔주름이 없고 피부가 팽팽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영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육이 영으로 변화된 실존체이신 영체였습니다. 영체의 단점은 육체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단점은 세상 사람들과는 잘 통하는데 신령한 세계의 천사나 각종 영들을 못 보고 대화도 못 합니다. 기도할 때나 꿈속에서 겨우 몇 번 봅니다. 육체가 영체의 몸으로 부활되면 영체 중심이라 영들과 대화하며 잘 통합니다.

반복하여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알겠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네가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여 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속히 전해 주어라. 사람도 자기 답답한 것을 해 주면 좋아한다. 나의 답답한 것을 해 주면 나는 수만 배나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속 시원히 대신 말을 전해 주거나 직접 말하지 못하는 심정을 대변해 주면 대변하는 자는 그와 친구요, 그와 가까운 자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의 심정을 완전히 알면 전해 주되, 반드시 내 말을 듣고 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형체를 이루지 못한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영들은 그림자 같고 환상체와 같습니다. 귀신들의 영, 유령, 잡신들의 영, 일반 사람이 죽어서 보이는 영들을 보고 ‘그 영들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육이 영으로 부활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속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 부활에 대해 확실히 잘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하기 바랍니다.

영은 항상 육을 가진 자들에게 말해도 안 통하니, 육 있는 자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고로 그 순간 느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보이면서 깨우쳐 주시지만, 말씀으로 제일 많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먼저 부르고 찾아

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육이라서 모릅니다. 신경해야 되고 온전해야 역사하십니다. 사고가 그릇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고가 잘못된 자는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자꾸 자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중심하면 주님은 곧 끊어 버리십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이 영으로 부활되었다. 육신이 죽은 자는 육이 사는 것이 부활이다. 영이 죽은 자는 영이 사는 것이 부활이다. 행실이 죽은 자는 행실이 의롭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병든 자들과, 행실과 정신과 생활이 죽은 자들에게 충만하여 모두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 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재하신 하나님, 주님을 부활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로 속죄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복음을 전하여 우리까지 그 복음을 받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15일 수요일말씀>

육이 영으로 부활했다

본 문 마태복음 12장 38-40절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부활주일 말씀 잘 듣고 잘 보냈어요? 부활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부활절 말씀을 길게 해 주었습니다. 이 주일은 연속해서 부활 주간입니다. 주일말씀을 생각하며 잘 듣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영과 육에 대하여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였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근본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순간 나타나 다니신 것을 보면 영으로 활동하신 것 같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주님의 육이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만일 주님의 육이 살아나셨으면,

첫째, ‘주님은 왜 세상에서 복음을 퍼지 않으시고 40일만 있다가 하늘로 가셨을까?’

둘째, ‘제자들은 주님의 육이 살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에 더 기록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록했을까?’

셋째,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육은 마음대로 벽을 뚫고 다니지 못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살아 계셨을 때는 그같이 하지 않으셨는데 부활 후에만 그같이 행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지난 아주 이른 새벽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 부활만 외쳐 왔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육적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근본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의 계시는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항상 말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요나도 악하고 음란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같이, 인자도 악하고 음란한 그 시대에 표적이 되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갇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살리어 3일 만에 육이 살아 나온 것같이, 나도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매달려 갇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어 부활하여 나왔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주일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확실히 알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영이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살아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만일 요나의 영만 살아 나왔으면 어떻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겠느냐. 또 요나의 영만 살아 나온 것이라면 요나에 대해 말하면서 나도 그와 같다고 하였겠느냐. 요나처럼 나도 부활되어 40일 동안 말씀하고 외친 것이다. 계시는 항상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영원히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살아서 나온 후 니느웨 성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여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왕도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금식을 선포하여 모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또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2의 니느웨 성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그 시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와 같은 주님의 표적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이 많지만, 요나 선지자의 표적이 주님의 입장과 같은 표적이었습니다. 고로 주님은 요나 선지자를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상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고로 주님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항상 하나하나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였습니다. 모두 경기를 지켜보며 애태울 때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기 10년 전에 이미 주님은 “세계적으로 축구의 세계가 올 것이다. 너희도 축구로 문화 활동을 하며 복음을 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월드컵을 개최하여 축구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자들은 자기 나라가 16강에 들어가기에 간절히 간구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일본은 16강에 들고, 한국은 4강에 드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표적입니다. 이 같은 표적은 한 번뿐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시대를 연상케 하며 그 노정의 역사를 해 주셨지만, 패역한 시대는 또 강박하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며 불신했습니다. 주님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을 불신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믿으라고 했지, 다른 자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도 믿어 줘야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믿게 되기에, 그래서 나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자를 믿어 주고 시인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듯이,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를 펴는 만큼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표적을 보여 주며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시대 모든 자들이 주님을 불신하거나 이단시하지 않고 잘 따랐으면,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고통의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시켜 이상세계의 표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보낸 자들을 통해 뜻을 펴시는데, 보낸 자를 대하는 그 시대의 행위에 따라 주님도 그 시대를 대하시며 표적을 보이십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보이십니다.

개인의 전도자로 보내셨든지, 한 교회의 교역자나 사명자로 보내셨든지, 한 민족의 사명자로 보내셨든지, 그 시대의 사명자로 보내셨든지, 하나님과 주님은 보낸 자를 사람들이 대하는 대로 표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두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아합 왕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고, 이에 가뭄이 들어 대지가 바싹 말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은 부패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참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참신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구했으나 그 신은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린 번제물을 태우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 우선권으로 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을 치셨듯이 이 시대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치십니다. 이를 깨닫고 어서 빨리 돌이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돌이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재림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난 30년 동안 말해 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지요? 정말 그랬지요? 꼭 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선악 간에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역사

해 오셨고, 우리 섭리사를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종들을 미워하며 살 인까지 저지른 족속의 후손들이니라. 너희도 그같이 나를 대하는구나.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셨습니다(마 23:34-36).

주님의 말 한마디로 지옥이 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은 복음을 외치려 가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만일 받아들이면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마 10:1-15).

주님은 그 시대에 원치 않으셨던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깨닫고 알았으면 그 같은 죽음과 고난의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영광의 주로 표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섭리역사의 선생 역시도 만일 이 시대가 받아 주었으면, 주님은 월드컵의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한국에 보내어 청중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계속 역사를 펴는 표적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로 평화의 역사와 각종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기껏해야 촉구하는 데 표적을 보이셨으니 나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웁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보이셨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주님은 역사를 펼 때마다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보고 좋아할 표적이 있고 괴로워할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 준 것인데 표적만 보고 끝났습니다. 심판하는 괴로운 표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으나 온 민족이 하나님과 주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주었습니까? 잘되면 자기를 내세우고, 안 되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나가 이기고 잘되니, 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같이 잘하면 계속 이겨 보아라.’ 하고 운세권을 트니, 어디를 가나 ‘호랑이 앞에 고양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지요? 한일 월드컵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말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간 것은 표적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 한 번뿐이다. 아시아에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하셔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대하는 대로 주님은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고통의 표적과 고난의 표적 등 눈을 감고 있어도 각종으로 일어나는 표적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시대가 대하는 대로 하나님과 주님도 대해 주십니다.

다니엘 선지자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여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 굴속에 넣어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았고,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여 또 그들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풀무 불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살리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태워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모두 몸을 쪼개어 죽이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세 사람을 모함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개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죽음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보낸 자를 통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계속 기대에 어긋나게 하시며 그 꿈들을 깨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그러하고, 섭리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선생도 어떤 자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악하고 음란하여 누구든지 그를 악하게 대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선생도 사명을 주어 보낸 자를 그 시험과 고통 중에서 빼내 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처럼 행하면 결단코, 결단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도 또 하면 용서에 앞서 대가 먼저 주십니다.

우리 섭리역사도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여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각종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요나와 같은 표적, 주님과 같은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나 그 친구들에게 보이신 표적과 같이 각각 그때마다 해당되는 표적을 수천 가지로 보이시면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섬기는 자들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증거하면서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을 받는 만큼, 주님은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풍부한 부자보다 가난한 문전걸식 거지가 천국에 가기 더 쉬웠던 이유는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부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도 힘들 때 훨씬 더 주를 의지하게 되었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하여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룻저녁을 보더라도 잠자리가 따뜻하고 편하면 더 잠을 자게 되고 기도 시간까지 빼앗깁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일찍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콩도 땅이 너무 지나치게 기름지면 앞만 무성하고 콩이 잘 열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받아도, 살기 어려워 머리 돌 곳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더 신앙에 충실하며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행실적으로 더 좋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생되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영을 위해 신앙적으로 더 뛰면서 살면 훗날에 수만 배 이상적인 표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편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그 편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흘러갈까 봐 주님이 그같이 하셨으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마워하며 감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음과 심정을 알아주었다며 가슴 뜨겁게 화답하십니다.

개중에는 열심히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으니, 빨리 돌이켜 일어나 뛰기 바랍니다. 뛰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두 자기 상태를 영계에서 봐야 충격을 받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보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루만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겪고 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잘

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하여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 나와 표적을 보였듯이, 주님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인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살아 나와 40일 동안 외쳐 회개시킴으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살았듯이, 주님도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외쳐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 이상 흘러와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승천하신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 땅에 오셔서 계속 깨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무엇을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요나 선지자처럼 나도 육이 부활했다. 육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신이 죽은 자는 육신이 사는 것이 부활이고, 신앙이 죽은 자는 신앙이 사는 것이 부활이다. 나의 육신이 죽었으니 육신이 살아나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영이 죽었느냐? 육신이 죽었다. 고로 육이 살아나야 이치에 맞지 않느냐. 제자들도 내가 부활하여 나타났을 때 즉시 믿는 자가 없었다. 모두 내 영인 줄로만 알았다. 육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육의 마음도 생각도 영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영의 몸으로 하나 된 부활을 했다. 하늘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활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몸은 영의 몸과 육의 몸으로, 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영의 마음은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육의 마음은 육이 편하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육도 거듭나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면 육과 영은 일체됩니다. 온전히 거듭나면 그같이 됩니다. 거듭났어도 육이 은혜의 생활을 못 하면 영과 잘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선생은 영이고 여러분들은 육과 같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생활을 할 때는 나와 하나 되고, 안 할 때는 각각입니다. 주님은 영의 몸이시고 우리들은 육의 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안 하면 쪼개져 둘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는 한 몸과 같이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의견이 갈리고 싸우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각각입니다.

주님은 육이 영으로 변화된 부활을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로는 듣고 믿겠으나 한번 그 실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네 몸을 가지고 그 단계에 가려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이 보통 육체 이탈을 하듯이 하여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 토마스 주님도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고,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참을 만들었다. 본인도 몸부림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속 시원히 보여 달라고 한다고 보여 줄 수 있겠느냐.

네 꿈에서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모두 계시다. 큰 새가 여자로 변하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느냐. 나무의 꽃도 과일로 점점 변해 가고, 음식을 먹으면 부드러운 살로 변해 있고, 저녁노을이 시간에 따라 황혼으로 훌륭히 변하고, 사람도 커 가면서 그 모습과 성격이 변화하고, 초가집이 양옥으로 변하고, 월명동 산골이 자연성전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 같은 이치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표 1, 2 활용)

“부활에 대해 더 설명을 해 주겠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사람 같으면 베다니 나사로처럼 부

활시킨다. 그는 육신을 중시하여 부활했다. 부활은 ‘원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베다니 나사로는 본래대로 원상회복된 것이다. 육신이 주체가 되어 부활해야 세상 사람과 말도 하고 일도 하며 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주체가 되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의 영은 그 육의 대상이 되어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 육성이 강해서 영이 육에 끌려 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의 세계에 살아야 되기에 육이 영으로 부활되어 천사의 인도를 받고 영계로 간다. 영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 그래야 영의 세계에서 영들과 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영 속에는 육신의 정신과 성격이 다 들어 있다. 육에 있던 것이 영으로 다 옮겨진 것이다.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잘 안 통하지만, 사람들끼리 통하듯 영계의 영들과는 잘 통하게 된다. 이는 영계와 육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다. 어떤 영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하고, 어떤 영은 세상에서 재림 때를 기다리기도 한다.

<도표1>

* 좌측 : 세상 - 영이 육에 속해 산다.

* 우측 : 하늘 - 육이 영으로 변화되어 산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 육신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시 살아나 세상에 살려면 육을 주체로 하여 부활되고, 죽어서 세상에서 더 살지 않고 영의 세계로 가서 살아야 하면 영을 주체로 한 부활을 하게 된다. 깨달았느냐.” 하셨습니다.

<도표2>

* 좌측 : 기존에 배웠던 부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온 부활)

* 우측 : 베다니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이 육으로 부활.

또 주님처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육이 영으로 부활.

이에 나는 “주님,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앞의 것도 다 깨닫고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즉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혀 생각조차 못 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왔어도 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을 주체로 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더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도 마음대로 다니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살아 계셨을 때는 문이 닫혀 있는데 뚫고 다녔다고 기록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더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 살아 계셨을 때도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는 있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더 날아다니시며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며 일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이 부활되어 영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계의 법은 육계와 전혀 달라서 세상의 이치나 법칙으로 생각하면 정말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 월명동 잔디밭 상단에 회골로 가는 쪽 능선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라디오와 TV 전파는 정말 빠르다. 만물과 짐승들과 사람보다 더 빠르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을 짐승과 만물만도 못하게 창조해 놓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쭙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계속 인간의 약함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좀

아서입니까? 빛같이 빨리 다닐 수 있게 창조하셨다면 지구가 너무 좁아서 인간이 활동할 공간이 없을 것이기에 그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묻기도 했습니다.

“왜 인간을 빛보다 빠르지 않게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공중을 나는 새보다, 날짐승보다 빨리 다닐 수 있게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누가 듣든지 말든지 혼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빛보다, 전파보다 더 빠르게 창조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신’이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영에 대해 잘 모를 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 나의 선생이 되어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부터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께 정신의 세계에 대해 배웠고, 또 영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성경말씀을 읽고 인식하고, 내 영이 육체 이탈을 하여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빠르기가 빛보다 빠르다는 정도만 알았지 몇 천 배, 몇 만 배 빠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대강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과학의 세계와, 별과 달과 빛과 우주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과학자들로 알게 하시니, 나는 그것보다 인생들을 구원시키려면 신앙의 말씀과 영에 대해 더 배우면서 설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주님이 과학을 가르쳐 주실 때 배워야 했었고, 이를 생각하니 후회가 됩니다. 요즘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급한 것 먼저 가르쳐 줘야 하기에 과학 말씀은 선생만 알고 저장합니다.

영이 빛보다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 볼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1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으로 1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토마스 주님의 책을 보면, 주님이 그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그 육신은 침대에 눕혀 놓고 그 영을 데리고 가셨는데 순식간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에서 경험해 보기도 했고 영계에 가 보기도 했겠지만, 언제 그 원하는 장소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순식간에 장면이 바뀌듯이 순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많이 체험해 보았지요?

우리들의 영이 하늘나라의 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같이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영들은 지상 영계에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려면 주님이 우리들의 영을 더욱 강하고 빛나고 새롭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같이 영은 빛보다 상상 못 하게 빠릅니다.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는 150억 광년이라고 했지요? 빛으로 가면 150억 년이 걸리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의 중간에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천국까지 가는데 약 75억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영이 빛보다 몇 배나 더 빨라야 천국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강 계산이 나오지요.

주님은 ‘영은 자기 생각만큼 빠르다.’고 늘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은 빛보다, 전파보다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영의 속도와 빛의 속도의 차이는 빛의 속도와 사람의 속도의 차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루는 이 세상의 천 년과 같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언젠가 설교할 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주는 다 구경 못 한다. 그러나 영으로 구경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인간의 영을 세상의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신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놀랍니다.

이 신 같은 영이 하늘나라에 못 가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좁은 곳에 갇혀 살면서 영원히 유히불의 뜨거움 속에

서 삽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면 그 넓은 세계를 누리며 우주 세계를 다 사용하면서 삽니다.

주님께 왜 지옥은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스인지, 유황불인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영원히 불이 활활 타니 에너지도 참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지옥에 간 자들은 죄를 가지고 갔다. 그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 죄를 태우는 불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 때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지 못하거나, 주님이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후에 지옥에서 태우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불길에 휩싸여 같이 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부활 주간이라서 영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려운 세계의 일들을 더 알려고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인식하게 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야 될 몸이기에 육이 영으로 변하여 부활되었고, 선지자 요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에 육을 중심하여 원상태로 부활되었습니다. 똑같은 물을 한 그릇씩 담아서 냉동고 속에 넣으면 얼음 덩어리가 되고, 바깥에 놓으면 그대로 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 둘이 있는데 하늘로 갈 자는 육이 변하여 영으로 부활되고, 세상에 가서 살 자는 영이 육을 쓰고 육으로 부활됩니다. 그래야 영은 영의 세상에서 살게 되고, 육은 육의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전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은 분명히 살도 있고 빠도 있습니다. 영의 살은 육신의 살에 비할 수 없이 부드럽고, 곱고, 티 없이 맑고 빛납니다.

영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주님을 볼 때마다 자세히 쳐다보고 만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나 환상 가운데 영들을 보면 만져 보고 확인했습니다. 어떤 영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육신이 만지면 안 잡히고, 꿈속에서나 영계에 가서 내 영이 어떤 영을 만지면 만져졌습니다.

영은 영으로 대해야 영의 실상을 알게 되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고전 2:13).

영도 변화되지 못한 혼적인 영이 있고, 귀신과 마귀 같은 영이 있고, 그림자같이 새까맣게 다니는 영이 있고, 형체를 이루지 못한 영이 있다고 30개론에서 배웠지요? 영형체급, 생명체급, 생령체급이 있습니다.

영은 자기 신앙에 따라 변화되고 형성됩니다. 철같이, 동같이, 은같이, 금같이 그 형체가 모두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고, 의를 많이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들은 그 형체가 보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안개 같고, 물두부 같고, 순두부 같습니다. 마치 뱃속의 어린아이가 3개월 된 모습과 같고, 4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 된 모습 같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생명을 구제하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말씀도 확실하게 알고 행하면 영도 확실한 형체가 형성됩니다. 행위에 따라 영의 모습이 형성됩니다. 육도 자기를 가꾸는 대로 되듯이 영도 똑같습니다.

육의 삶이 확실하면 영도 확실한 형체를 갖춥니다. 이 같은 영이 주님과 더욱 일체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그 영과 육은 더욱 형체가 확실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아이와 같습니다. 살얼음이 얼듯 찬물 반 얼음 반과 같고, 솥에서 끓이는 순두부와 같습니다. 물건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약합니다. 밥도 짓다가 말면 집니다. 도자기도 모양을 둘 때는 물경거립니다. 말리면 단단해지고, 600도에 한 번 구우면 질그릇이 되고, 1200도에 구우면 사기그릇이 됩니다.

사람의 영도 이와 같이 이러합니다.

육신 쓴 우리의 영이 신령하고 활동을 많이 하려면 영을 중심하여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중심이 되면 남자가 여자의 일을 돕게 되고, 남자가 중심이 되면 여자가 남자의 일을 돕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 중심이라면 육이 영의 일을 돕고 살아야 되고, 육 중심이라면 영이 육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육의 세상이기에 거의 육을 중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자가 늘 남자에게 쫓겨서 살면 여자는 자유가 없다고 하며 불만이 쌓여서 남자가 잘 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쥐고 살면 남자는 벗어나려고 여자가 잘 때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육을 중심하여 영이 육에게 늘 끌려 다니며 살면 육이 잘 때 영이 밖에 나가서 지상 영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새벽쯤에 와서 육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는 체합니다.

특히 강한 육성을 가진 자들의 영은 육신에 묶여 살고 육신에게 끌려 다닙니다. 고로 육이 잘 때 영은 나름대로 육체 이탈을 합니다. 기도생활을 잘하고 육성을 약하게 하면 영이 그만큼 영의 생활을 하여 주님과 가까이하게 됩니다. 영을 중심으로 영육 간의 삶을 살기에 신령한 영이 됩니다.

안나 수녀는 주님과 함께 영의 활동을 강하게 하니 육이 영에게 끌려 살았고, 주님 선지자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다닐 때는 육이 영에게 끌려 살았습니다. 주님은 절대 육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성이 강하면 영이 약합니다. 고로 영적인 자는 육성이 약하고 부드럽습니다. 바울 선생은 육신을 쳐 육성을 약화시키니 영이 강했습니다. 육성이 강하면 영이 크지 못합니다. 금식하면 육이 약해지니 영이 활동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꼭 쥐고 살면 자식들이 개성대로 크지 못합니다.

육도 영 앞에 그러합니다. 영이 강하면 육성이 크지를 못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려면 스스로 육성을 죽여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는 영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육을 다스리게 되고, 주님은 영이시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일체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선생의 영을 보거나 육을 볼 때도 있고, 육체를 이탈한 내 영을 볼 때도 있고, 영이 육체 안에 있어서 육 그대로 볼 때도 있고, 상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잘 보아야 속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너무도 악랄하여 별짓들을 다 하며 이용합니다.

주님의 영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이 보기도 합니다. 환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본체가 안 왔는데 영으로 비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본체가 천국에 있어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남자인데 어떤 여자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부라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같이 보여 줄 때도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을 보여 주면 자기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손이나 혹은 얼굴, 혹은 발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슬쩍 스쳐 보이게 하여 이같이 자기 영을 비유했다고 알게 해 줍니다.

꿈에 자기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그 영을 보기도 하고, 육신이 영과 함께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전혀 낯선 환경을 볼 때도 있는데 이는 지상영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상영계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만들어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활 주간이 끝나도 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자들의 영적인 부활만 가르쳐 주어, 우리는 그렇게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육에 속한 것들을 가르쳐 주니 배우라.”고 했습니다.

심판도 말씀 심판을 받지만 실제 불 심판을 받기도 하고, 육에 속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지진·화산·홍수·태풍·전쟁

으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부활한 것만 부활이 아닙니다. 베다니 나사로는 육을 중시하여 육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을 중시하여 육이 부활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영만 승천한 것이 아니라 육이 영으로 변하여 승천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육이 홀연히 영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육이 영으로 변한 천사 같은 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으로 왔으니 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 성경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육이 올라갔는데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는 분명 영이었습니다. 육신이 홀연히 변하여 영체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분장만 하면 못 알아보겠고 헛갈립니다. 옷만 잘 갈아입어도 잘 모릅니다. 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같은 영을 영으로 보아 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육이 아니면 육이 영으로 변화된 영일지라도 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격과 같습니다. 한국인 2세, 3세, 4세라도 외국 사람으로 보는 격과 같습니다. 육신이 승천하여 영이 되어 왔으면 영으로 봐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영으로 변하여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얼음을 달리 보듯이 영은 영으로만 인정하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 큰 것들은 거의 다 배운 것입니다. 떡 비유도 주님은 먹는 떡으로도 표적을 일으켜 배불리 먹게 하였고, 말씀의 떡으로도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가지로 표적을 다 일으키셨다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동안 섭리역사도 말씀 표적도 일으켰고, 실제로 음식을 먹여 주는 표적도 일으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영적 부활을 중시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영적 역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 역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영만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도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영이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실제로 육이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육이 죽을 자도 살려 주시고, 경제도 살려 주시고, 먹고 입는 것 등 육적인 표적을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오해받으면서 고통 받을 것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만 계속 역사를 펴 왔기에 영들은 강합니다. 이제 육적인 것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표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주님은 “내가 말한 근본의 말씀을 몇 가지만 더 배우고, 내가 말한 대로 알고 전하면 흠이 없다. 너무 영적으로만 보면 더 큰, 육적인 세계에서 일으킨 표적을 못 본다. 나의 영만 부활했다면 표적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육에 속한 표적들을 일으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영은 살았으니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관권인 빛에 속한 생명권으로 갑니다. 죽을 때부터 아예 그 영은 천사에게 인도되어 생명권으로 갑니다. 고로 주님은 영만 부활했다고 하면 표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이 살아서 영으로 부활했기에 표적입니다.

선생이 여기 있지만 정신과 영만 살고 육은 포기하고 쓰러져 잠만 잔다면 표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뻐겠습니까? 나를 본 자들이 보고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정신이 살아 있고, 말씀을 들어 보니 영도 살아 있고, 그 육신을 보니 운동도 하시고 밤낮 뛰고 사신다. 육도 살았더라.” 하니 기쁜 것입니다. 정신과 영만 살았고 육이 살지 않았으면 영이 육을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이 살아야 영이 그 강한 만큼 일하게 됩니다.

육이 영으로 부활한 것을 이제 알았지요? ‘왜 이제 가르쳐 주지?’ 하며 나에게 불만할 것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몰랐겠어요? 안 믿어져서 안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 봐서 안 가르쳤겠어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때에 따라 가르치시겠습니까?

만일 선생이 믿음이 없고 몰라서 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회개기도를 해야겠지요.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늦게 믿어 주님의 마음을 거슬렀다면 그 완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육이 영으로 부활된 것을 믿으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늦게 알게 되었지만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해를 맞았습니다.

주님은 1년 더 시간을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듣고, 2009년 총 주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의 부활, 행실의 부활, 생활의 부활, 사망권에서 나오는 영의 부활만 집중하여 가르쳤습니다. 육이 영으로 변하는 부활을 하려면 수십 년 걸리지만 한 번 말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고로 한 번 더 말해 줄 때 자세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100% 믿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0% 믿고, 아무 의심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럼, 이제 내가 말한 것을 모두에게 전해 주어라. 너같이 믿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신앙의 표적과 말씀의 표적도 있었고, 실제로 표적을 일으켜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안 먹고서도 배가 안 고파 정신적 표적도 있고,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음식을 먹게 되어 실제로 배가 부른 표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 표적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육적 부활을 믿어야 휴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4복음서를 다시 읽어 보고, 말씀이 나가면 쉽게 깨닫고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 줘야 됩니다. 안 믿으면 완악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계에서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육계의 법을 완전히 초월하여 행하십니다. 그 능력을 세상에서 행하시면 봐도 안 믿어지고 이해도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마음먹은 대로 다 행하시니 눈으로 직접 보아도 저능한 인간의 머리에는 안 들어옵니다. 고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여 주며 극적인 고통을 받게 함으로 요나처럼 나가서 외치게 하십니다.

선생도 극적인 고통을 당한 후에, 그동안 보았으나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여 회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았고 수십 가지 죽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주님이 나로 하신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기간에 심판한다고 전하여 회개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나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한 일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안 듣고 못 본 여러분들은 감동받는 것이 적습니다. 선생만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은 꼭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1999~2009년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도 컸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두 몰라서 “너 때문에 선생님이 이같이 되었어.” 하며 형제들을 탓합니다.

실상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섭리사에서 선생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다고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껌속말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싸우고 있어도 못 싸우게 다 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고로 화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행하신 일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을 믿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주님을 믿어 줘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긴장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주님께 물어봐요.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같이 육적인 표적이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모두 들어 보았지요? 기념으로 주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활주간에 멋있게 부활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2009년 4월 19일 주일말씀>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만이 갈 길이다

본 문 로마서 8장 6-9절, 13-14절

요나서 3장 1-10절

마태복음 7장 13-14절

요한복음 6장 63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은 특히 나와 주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을 뺏기면 하루를 뺏깁니다. 주님은 “네 시간만 네 시간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각자를 위해 내주신 시간만 자기 시간이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이 넘어가 그 사람과 행하시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시간을 많이 쓰려면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제시간을 써라.” 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면담해 줄 때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자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주님은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다가 주님을 찾고 어떤 것을 물었을 때 주님은 “네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시간이다. 다음에 네 시간이 되면 말하자.” 하셨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정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만 네 시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연을 말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연을 말하려면 긴 말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면 간단한데, 이해를 하지 못하니 왜 그러한지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선생은 설명식 설교를 해야 되기에 설교가 긴 것입니다. 그 대신 말씀을 잘 깨달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게 해 주고, 하나님과 주님을 더 잘 알게 해 줍니다. 저도 주님께 배울 때는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배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자정 넘어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깨워 주셨습니다. 깨워 주시고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 날은 내 인생과 섭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앞에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쓸 수 없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쓸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깊고 심오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여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나 자기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 두 길 중에 한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 두 길 중에 한 길은 쓸 수 없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 두 길 중에 한 길은 가서는 안 될 실패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 두 길 중에 한 길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고통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몸부림치면서라도 가야 될 생명과 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축소시켜 한 개인으로 보겠습니다. 한 인생의 길에는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육적인 길은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고, 영적인 길은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육과 영은 한 몸이 되어 서로 매여 삽니다. 육을 중시하여 살면 영의 몸이 육에 이끌려 살게 되어 결국 넓은 사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이 영의 몸과 생각을 따라 살면 육이 영의 몸에 이끌려 영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더욱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들 앞에는 두 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쓰지 못하는 길이고
 그 중 하나는 가야할 길이다.
 개인으로 축소하면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다.



육은 육의 체질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편히 살기를 원하며 육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영은 영의 체질과 생각대로 영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살면 육이 천국이고, 영적으로 살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영이 육을 따라 살면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하고 끝나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영을 중심으로 살면 육도 영도 형통하고,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생 앞에는 크게 보면 두 길이 있다. 그중에 한 길은 쓸모없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꼭 필요한 길이다.” 하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길은 왜 쓸모없는 길인가 하니, 갈 필요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손해와 각종 해를 당하는 길이므로 필요 없는 길입니다.

축소시켜 개인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적으로 사는 길과 영적으로 사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사는 길은 세상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이고, 영으로 사는 길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쓸데없고, 필요 없고, 손해 보고, 헛수고하는 고통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희망과 기쁨과 유익이 있고 꿈이 실현되는 성공의 길, 보람의 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좋은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고통스러우니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야 할 길을 가다가도 거기서도 고통스러우니 다시 돌아가 먼저 가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기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면담하여 물어보고, 검토합니다. 혹은 주님께 여쭙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 후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두 길 있었고, 사람들은 개인, 혹은 가정, 혹은 민족 단위로 그 중에 한 길을 택하여 살아왔습니다. 크게 보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곧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이 있었습니다.

왕들도, 영웅 열사들도 가다가 두 길이 나타나면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두 길이 나타날 때마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한 길을 택하여 갔다가 고생되니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왔다가 다른 한 길도 고생되니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두 길이 나타났을 때 ‘이 길이 가야 할 길인가? 저 길이 영원한 길인가? 어느 길로 갈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생명길로 가셨습니다. 그 길은 천국까지 달는 길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은 완전한 길입니다. 고생되어도, 고통의 십자가가 있어도 절대 되돌아오지 말고 가야 됩니다. 험착하고, 험하고, 좋지 않은 길일지라도 절대 돌이키지 말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길일지라도 절대 돌이키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도 영에 이끌려 형통하게 되고, 영은 주님께 이끌려 형통하고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지상에서도 갈 길을 간 삶이 되어 보람 있고,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의 이론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아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길은 쓰지 못하는 길이고, 그중 한 길만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니 주님 뜻대로 해 달라고 하면

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확실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 시간을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말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생활 속에서 배우고, 성경을 읽어 깨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도표도 그림으로 보아 더욱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은 모두에게 또 한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라는 나의 진실한 말을 들었느냐. 그 말을 얼마나 귀히 알고, 마지막 이때에 깨닫고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도 실천해 보지 않은 자는 무슨 말인지, 왜 그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른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 내 말대로 살면 그날부터 육으로 가는 길에서 영으로 가는 길로 돌이키게 되고, 육이 영에 끌려가게 되고, 영은 내 손에 끌려가게 된다. 모든 생활을 그같이 하며 꼭 행하라. 행하면 내가 범사에 함께하리라.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며 행하라. 만주의 주, 전지 전능하신 자를 우러러보면서 행하고, 좋아하며 행하고, 하고 싶어서 행하고, 그동안 행하지 못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과거에 못한 것을 정말 회심하면서 행하고, 사탄·마귀·귀신 주관 받지 않고 짐승의 인을 맞지 않으려면 행하고, 내가 예비한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려면 행하라. 너희가 행한다 해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생이 되어도 행하고, 핍박이 와도 행하고, 자기 소원대로 무엇이 안되어도 낙심 말고 행하라.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 날이 가까웠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시간에 졸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각자 다릅니다. 날짜도 다릅니다. 시간도 다릅니다.

저는 주님께 섭리 사람들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몇 가지 말해 줄 테니 들어 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못 하니,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육의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사는 왕을 제일 먼저 대접하고, 그가 시키는 것을 먼저 하고, 어디를 가나 그가 먼저 앉게 하고, 매사에 그를 우러러보듯이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항상 주께 먼저 묻고, 그 말씀을 우선으로 행해야 됩니다.

섭리 사람들은 그동안 이같이 해 왔습니다. 선생이 순회 가면 먼저 선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묻고, 선생이 프로그램과 시간을 짜 주면 그대로 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짜 놓으면 선생은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묻고 했듯이, 생활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그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항상 자기를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삽니다. 매시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지 않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깨끗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누구를 모시고 살거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를 먹이고 입히고, 먼저 그 일을 해 주고, 먼저 묻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믿어 주고, 먼저 그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최우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말도 들어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

국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이 근본자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긴급히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생활 속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의 기대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여 온전하게 살 기회를 잠깐 주시고, 회개하여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대신 행하는 자에게 종심을 두십니다.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십니다.

선생도 섭리의 제자들을 30년 동안 겪어 봤지만, 자기가 아쉬울 때 나를 찾습니다. 필요할 때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는 범사에 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우선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로써 그 사람에 대해 다 압니다.

주님도 “너와 같이 나도 그러하다. 네 심정을 통해 내 마음을 알고, 너는 나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서 본을 보여라. 그리고 가르쳐 주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처음에는 얼굴만 안 보여도 못 참고 쫓아가 얼굴을 맞대고, 시장이고 거리고 부엌이고 논밭이고 따라갑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얼굴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조금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 있으면 찾고, 걱정할 때만 찾고, 아플 때만 찾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 시간 다 내어 제 맘대로 친구들과 놀고 먹고 생활하다가, 밤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니까 벽에 걸린 주님의 사진이 보이고 그제야 생각나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의 신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이 떨어져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양심이 야심(野心)인 사람’입니다. 야심만 정신과 마음에 꼭 찬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고 나서 주님 생각하고, 입고 나서 주님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님 생각하고, 실컷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서 주님 생각하고, 제 맘대로 다 하고 나서 주님 생각하고, 장편소설 쓰듯이 보고나 잔뜩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 할 말이 없으니 주님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모두 썩 자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먼저 육적인 행실과 마음과 정신의 휴거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 불 때 곧 오실 주님을 맞고 휴거하는 데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의인지 알고 복을 기다립니다. 깨우쳐 주지 않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옥에 간 자들이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을 모르니 지옥에 가고, 천국을 모르니 천국에 못 가고, 주님을 모르니 제대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지옥에 못 가니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책도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믿겠어요? 사명자들과 보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셔도 그때뿐입니다.

주님은 내게 “그때뿐이면 안 된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물이 뜨거울 때 씻든지 빨래하든지 물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즉시 행해야 된다. 뜨거운 물도 안 쓰면 찬물 된다. 내가 말한 것도 행하지 않는 자는 듣

지 않은 자와 똑같다. 계속 말해 줄 수가 없다. 계시는 한두 번 하고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주님이 버린다면 인생은 한 점의 고기 같은 인생에 불과한데, 감히 주님 앞에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살고 과시하고 사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깊이 듣고 감동받아서 주님께 진정 그러하다고 말씀을 시인했더니, 그날 밤 꿈에 한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석쇠에 굽는데, 그 밑에서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알 수 없는 새파란 불이 한없이 올라와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것이 자세히 보이면서 ‘인생도 이와 같다.’고 깨닫게 해 주는 계시였다고 했습니다.

인생도 그러하다고 축소판 지옥을 보여 준 것입니다. 원래 그 설교는 지옥을 생각하면서 해 준 말씀입니다. 지옥에 가면 각각 방이 있는데 그 바닥에서 유황불과 파란불이 올라와 살을 태웁니다.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이를 갈며 소리를 지릅니다. 고로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부르면서, 박박 기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회개를 시켜야 될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피하여, 두 길 중에 쓸데없는 길인 다시스를 택하고 그 길로 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의 선원들이 다 죽기까지 고통을 주셨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죄인이 났다고 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요나가 걸렸고, 이방인들에게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죽이지는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요나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네가 정말로 하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확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네가 어찌 바다와 하늘을 창조한 자의 말을 거역했느냐.” 하며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요나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갇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요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니느웨 성 12만 명의 생명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니 큰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는 그 속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참으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각자 겪었으며 민족적으로도 겪었습니다. 주님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다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꼭 죽을 생명들을 살려 주시고, 꼭 안 될 것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천 건이 나옵니다. 수만 건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개인·가정·민족·세계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일들이 실상은 요나 같은 표적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같이 살아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따지면 수십만 건이 됩니다. 깨달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어느 길로 갔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 무너진다.’고 외치기 위해 즉시 밤낮 3일을 걸어서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 죄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여 무너지게 하신다.”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사니 깨우쳐 주며 외쳤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데, 죄로 생각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생활로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며 죄로 보지 않습니다. 우상 자체를 자기가 좋아해서 섬기는 신으로 봅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세상의 법을 말하며 삽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 법에 통합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무슨 죄냐고 합니다. 이성의 세계도 자기가 사랑하니 그렇게 사는 것인데 무슨 죄냐고 하며, 도리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 죄인지 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으로 태어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위주로 사니까 죄인 것입니다. 이를 모르니 깨우쳐 줘야 됩니다.

요나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니면서, 자기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외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도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가축도 돌보지 말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에 온 성이 슬피 울면서 자기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거짓과 미움과 싸움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공의롭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법관들이나 상인들이나 백성들 모두 소돔 땅을 방불케 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개인·가정·민족·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진·태풍·홍수·가뭄·화재·더위·추위·경제난·각종 병·전쟁으로 치시고, 모두 보게 하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심판한다.”고 보는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재림의 환난은 시작되었기에 여기저기 재해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뉴스를 통해 모두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 심판을 받기도 하고, 혹은 전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제적 심판과 전쟁의 심판들이 날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몇 주 전, 기독교 왕국인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여기저기에 계속 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요,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끝이 다 되었다.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하는 경고들이며, 그에 따른 환난들입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모두 죄를 인정하고 진정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고, 우리 섭리사도 그러합니다.

선생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고통을 겪고 나온 요나같이 음부의 고통을 겪고 나서 그 심정으로 “모두 회개하라!”고 이 시대와 섭리사에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정한 기간까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마다, 회개한 가정마다, 회개한 교회마다, 회개한 나라마다 니느웨 성처럼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섭리의 한 목사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더욱 기도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또 회개의 설교가 나와서 ‘행여 또 있으려나?’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특히 교단의 형제들을 너무 미워하고 이것저것 모르고 말한 것이 생각나, 자기가 형제들을 괴롭히고 악평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히 많이 악평했던 형제들을 찾아가서 “실은 잘하자고 한 일인데, 회개하다 보니 그때 한 일이 죄인 것을 깨닫고 용서받고 풀려고 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도 감격하여 서로 마음을 풀었다고 했

습니다. 마치 사울이 회심하듯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회개가 되었다는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배 속에서 주먹만 한 인분 덩이 8개가 나와서 입으로 토해 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단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싸운 죄임을 알았답니다. 말씀 중에 회개하면 주님이 꿈으로나 깨달음으로 용서의 계시를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니 정말로 회개된 것을 계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나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주님은 1년이 넘도록 교단과 싸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은 선생이 총회장이 되어 이끌고, 우리 섭리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깨끗하게 할 것이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보시고 행하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이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그 죄가 배 속에, 위 속에, 심장 속에, 폐 속에 있는 인분 덩이로 보인다.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그와 같다고 한 사람의 사연을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이같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원찮게 회개하면 그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완전히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소가 풀을 뜯듯이 뜯어놓는 식으로 회개하면 금방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방 안에 들어온 뱀을 완전히 죽이듯이, 방 안에 들어온 독벌레를 완전히 죽이듯이, 잡초를 완전히 뽑듯이, 옷을 완전히 깨끗이 빨듯이, 청소를 완전히 깨끗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

회개된 것으로 알았는데 실상 회개되지 않았으면, 주님의 주관권에 제 1순위로 갈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못 가게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죄도 아닌,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회개합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고 하며, 회개하는 기회가 섭리적으로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탄이 막기도 하고, 죄지은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숨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안되겠다고 하며, 일주일에서 21일 금식을 해서라도 기어이 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 기간이 지나갔는지, 지금도 진행 중인지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회개의 설교를 또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범한 것, 마음에 꺼리는 것,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긴 것, 불순종한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가 잘 안 된다는 사람의 편지를 드렸더니, 주님은 “아직 회개되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회개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같이 여기고 너도 회개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한 사람의 편지를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면 사탄에게 사랑하는 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회개한 것만큼은 꼭 즉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니스웨 성과 같습니다. 니스웨 성은 우리 섭리사가 되기도 합니다. 확대시키면 민족이 되고, 이 시대 기독교가 되고,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니스웨 성을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회개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한 해만 더 준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열매를 열어야 도끼로 찍히는 나무가 되지 않듯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간을 40일 동안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연기 기간’은 실상 주께서 계시해 주시는 기간이고,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주어진 40일은 요나에게는 계시받은 것을 외치는 기간이었고, 성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린다 뉴커크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왔습니다. 모두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결심하며 행하니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준 보람이 있고, 자기도 우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며 절대 요동하지 말라고 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쓸 수 없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생명길로서 꼭 가야 될 길이다. 축소시키면 개인에게도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 있다.」 고 했습니다.

아벨끼리 푹푹 뭉치고, 마귀의 주관을 받고 그 손에 쥐여 마귀의 손발이 되어 악평하는 자들과 담대해 싸워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회개를 방해하고, 회개하려 하면 다 회개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시간으로 쓰게 하여 회개시간을 뺏기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영원한 거짓자들입니다.

<축 도>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22일 수요일말씀>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만이 갈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참으로, 매일, 언제든지 각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 고통과 기쁨, 심판과 축복 등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이어서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듯 모두에게 주님이 직접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이며 구원한 자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쓸 수 없는 길이고, 한 길은 쓸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내게 물어 보고, 하나님께 물어 보아라.

두 길 중에 한 길은 육이 가기에 편하나 영이 가기에 불편한 길이다. 육적으로 보면 좋고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다. 영적으로 보면 그 중 한 길이 바르고 좋은 길이다. 이 필요 있는 길을 가면서 개척하고, 닦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가야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되어 형통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앞날의 진로를 생각하면 두 길이 나타난다. 왕들도,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고 걱정한다.

어떤 길은 보기에 좋으나 실상은 필요 없는 길이다. 인생들과 특히 젊은이들은 이 길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간다. 물질도 투자하고, 엄청난 수고와 고생으로 투자하고, 못 먹고 못 자 가면서도 간다. 결국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꾼 격이 되어 그제야 실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까지도 원망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도 살다 보면 너희 앞에 또 두 길이 나타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분별하여라. 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 길 중에 후회 없는 한 길을 확실히 바로 알 수 있으니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네 마음과 목에 걸고 가라. 그러면 고민·걱정·염려가 닳았을 때 누구한테 물으려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점쟁이를 찾게 되고 더욱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물어라. 또 빛으로 가도 150억 년이 더 걸리는 천국까지 다 아는 내게 너의 앞날을 물어라. 진정 알고 배우고 싶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말씀이 내가 살아 있었을 때의 시대에만 해당되겠느냐. 이 시대 너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이고, 너희 일생동안 필요하기에 또 말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두 길 중에 필요 없는 길을 택하여 살고 있다. 90% 이상이 쓸모없는 길을 택하여 살고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그 길을 가도 고생하면서 산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거의 사망권에 살면서 인생을 보람 없이 산다. 이는 실패한 삶이다.

처음에는 육신만이라도 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험악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어 육신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한다. 영은 곤고하고 병들어 버려 그제야 ‘내가 인생의 진로를 잘못 판단하고 왔구나.’ 생각하며 후회한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보고 그 일이 끝나 봐야 알지만 나는 전능자요, 구원자이므로 미리 안다. 내가 보내어 사명을 하는 자도 내가 미리 가르쳐 주었기에 안다.

세상의 인생들을 보아라. 알기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할 테니 잘 들어 보아라.

가수가 되기 위해 수고하고 투자하여 그 길로 간 사람들은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몇 명만 가수가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쓸 수 없는 길을 간 것이다.

사업하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에 투자한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인데 그 중에 몇 십 명만 성공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돈을 날리고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끝난다. 성공한 자들은 가야 될, 쓸 수 있는 길을 간 것이다. 실패한 자들은 가서는 안 될, 쓸 수 없는 길을 간 것이다. 아예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손해는 안 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쓸 수 있는 길을 가는 자는 적다. 신앙길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자는 귀하고 많지 않다. 좁은 생명의 길을 잘 찾아가다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서서 넓은 세상의 길로 가기도 한다. 세상 쪽으로 돌아서면 넓은 길이고, 하늘 쪽으로 돌아서면 좁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 없는 길은 넓은 길이다. 하늘길도 수고함으로 인하여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가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한 천국이 있다. 천국도 지옥도 너희 앞에 있다. 천국도 가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가게 되고, 지옥도 가기 싫어 몸부림쳐야 안 가게 된다. 별 신경 안 쓰고 살면 어떤 곳으로 가겠느냐. 너희는 모두 생각해 보아라.

종교의 길도 실상은 두 길이다. 나와 내 아버지를 중심한 길이 있고, 우상을 섬기거나 각종으로 자기 인생을 중심한 길이 있다. 너희는 나를 따라 쓸모 있는 길로 와서 행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왔다. 내 길

을 가지 않으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해 주었겠느냐.

내가 말씀할 때 “하루를 살아도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면서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 헛수고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느냐.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헛되고 필요 없는 일을 한 후에는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그제야 후회한다. 매일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그 날, 그 주일, 그 달, 그 해에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에 내게 물어라. 새벽에 같은 시간에 지구에 사는 68억의 사람들이 내게 동시에 물어 본다면, 나는 충분히 여유 있게 모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능자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고 다르다.

어찌 나를 믿으면서 나의 능력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네게 해 준 것도 모르고 믿느냐. 이는 마치 결혼해서 몇 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고 산 것과 같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4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60대의 부부가 있었다. 60세가 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내 : “당신과 같이 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남편 : “뭐예요?”

아내 :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처음부터 같이 돌아다니면서 테니스도 치고, 배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이런 운동을 못 하니 곤고하게 살았어요.”

남편 :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배구 국가대표선수였기 때문에 배구를 잘해요. 그뿐 아니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탁구도 잘해요.”

여자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후회했다.

남편 : “당신이 내게 하자고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40년 동안 해 왔어요. 결혼한 후에 왜 같이 하자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 : “나는 당신이 못 하는 줄 알고 말 안 했지요.”

여자는 남편이 못 하는데 하자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기 어려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 예수가 무엇이든지 전지전능하게 행하는 것을 모르고 간구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말하지 않았느냐. 어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고 대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다 해 주었다. 어려워하며 사람이 주는 줄 알고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해 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구하여 가지고 가서 쓴다. 조건을 세우고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월명동도 구했기에 주었고, 너희 인생도 구했기에 섭리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동안도 구했기에 모두 주지 않았느냐. 후히 구하고 후히 받아라.

인생 앞에는 어떠한 면을 보아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길은 쓸모없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쓸모 있는 길이다. 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남은 시간은 서산의 해와 같다. 각자 방에다 서산의 해가 한 발쯤 남은 모습을 그려 놓고 ‘주님의 재림은 연기한 시간마저 이만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써 놓고 살아가.

너희는 오늘 이야기해도 내일 가면 또 잊고 생각도 안 한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그것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말한 것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다.

나를 피곤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자는 자신이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된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내게 그리 하여라.

안나(수녀)에게 내 심정을 말했는데 읽어 보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안나야, 나 좀 위로해다오.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적적한지 아느냐. 나에 대하여 모르고 나를 대하니 통하는 자가 없구나. 나를 멀리 두지 말고, 밤을 새우면서 나와 함께 있자. 밤이 무섭다.”

나의 말이 어찌 안나에게만 해당되느냐. 지구상에서 나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로써 모두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냐.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날아가 버린다. 이와 같이 너희라는 나무가 믿음의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고, 순종함이 흔들리고, 내가 말한 것에 흔들리고, 화평과 열심과 관리와 전도와 결심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내가 그에게 왔다가도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새가 날아가듯 곧 떠나간다. 심지가 곧고 굳은 자와 함께 한다.

나와 동행하려면 나를 따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안 보여도 그와 동행함을 믿어라. 인생은 시간 싸움이다. 24시간은 1초도 빠짐없이 금 같은 시간이다. 왜 자기 시간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하늘이 준 시간까지 사탄에게 빼앗기고, 자기 육을 위해 쓰고, 쓸모없이 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가도 너희는 너희 시간만 쓰니 기다리다가 그냥 온다. 내 시간으로 쓰면 내가 그냥 오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가 헛걸음하고 오지 않게 하여라.

영계에서 볼 때는 가슴 뜨겁게 와 달고 충격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거기서 육계로 나오면 잠이 깨고 꿈이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시장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눈으로 볼 때는 먹고 싶어서 침을 삼키고, 사고 싶어서 옷을 만져 보며 충동이 일어나 지갑을 꺼내 본다. 볼 때 감동이 되어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보던 것을 곧 잊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때가 영계에 있을 때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고 충격이 일어날 때 다짐하고,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말씀의 붓도 받고, 회개할 것을 깨달아 회개해야 된다. 이때가 지나면 육계로 바뀌니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도 내가 말한 것을 반복하여 외우고 행해야 된다. 들을 때, 볼 때 사진을 찍듯이 찍고 행하는 것이다. 어찌 주일과 수요일에 내 말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하느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나도 인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어떻게 뜻을 이루겠느냐. 뜻이 있으면 내가 행하니 인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어서 그같이 되었는데, 너희는 안 되었다고 형제와 싸우면서 원망들을 하느냐. 너희가 내 지체냐? 내 지체라면 나와 일체다. 나의 생각과 같다. 그렇지 않느냐.

내게 맡겨라. 왜 너희는 너희 뜻대로 해 달라고만 하느냐. 내 아버지의 뜻이 너희가 생각할 정도이겠느냐. 나와 같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야 어떤 일의 결국을 보아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마치 바다 물과 한 손가락에 담긴 물과 같이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생각에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나의 심정을 상하게 말아라. 심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해 주고 싶은 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전지전능한 만큼 사랑하고, 이 귀한 생명을 너희들 각자를 위해 바친 것만큼 사랑한다. 형제를 위해 죽어본 자가 있느냐. 안 해 봐서 모른다. 안 해 보았기에 육신이 모두 살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 본 나의 말을 믿고 행하여라.

여기서 내 마음을 풀어 주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와서 풀어 주려느냐. 그때는 이미 때가 늦고, 풀어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짝사랑할 때 내 사랑을 받아 주고 내 심정을 알아 줘야지, 끝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만일 고통 중에 나를 찾고 해결 받기를 원했는데 끝난 다음에 내가 도우면 기분이 좋겠느냐.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몸 하나만 보는 것과 같이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 너희 몸을 깨끗이 하고, 의롭게 하고, 빛나게 하라.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육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과 영을 생각하고 행하여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여자가 사는 곳이 아름다운 명소라고 해서 그 경치를 가져 갈 수 있겠느냐. 오직 여자 하나 데리고 간다. 몸 하나 보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냐. 나도 그러하다.

재림을 왜 하겠느냐. 성경에 늘 비유를 들어 말하지 않았느냐. 혼인잔치 비유, 열 처녀 비유들이다. 지구촌 마을을 구경하러 오겠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여도, 행악자와 마귀들로 형제들로 더러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나를 믿고 사랑하며 살았기에 천국에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너희 몸 하나 데리러 온 것이 아니냐. 오직 나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단장한 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깨끗이 준비하고 있어라. 비행기로 데리고 갈지, 차에 태워 데리고 갈지, 꽃마차에 태워서 데리고 갈지, 손을 잡고 데리고 갈지 알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여라. 세상에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살 곳으로 데리고 갈 때, 신부는 신랑이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알려고 하기보다 신랑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는 자가 어떻게 휴거되어 내가 데리고 갈지에 대하여 알려고 하기보다 깨끗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언제 모두 다 가르쳐 주고 행하였느냐. 내가 오는 때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듯이, 변화된다고 했으면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하자.

지난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도와준 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마디로 말해 보아라.

너희 육과 영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네 육신이 살아 있고, 네 영이 살아 하늘나라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보람이냐. 그것이 쉬운 일이냐. 그것이 도와준 표가 아니냐. 어찌 물질만 생각하느냐. 세상 것만 생각하느냐. 영원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지 않느냐.

내 심정을 알아라.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모르면 어찌 신부라 자부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 시대에 이 같은 말씀을 들으니 복 있는 자다. 죽음에서 산 것이 쉬운 일이냐. 영이 살아야 영원히 산다. 영이 죽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쓸 수 없는 길이고, 한 길은 쓸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쓸 수 있는 길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길이다. 험하고 험착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생명의 길이다.

소돔 땅의 롯 앞에도 두 길이 있었다. 한 길은 가진 것을 다 가지려다가 생명을 잃는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가진 것을 다 잃고 생명을 얻는 길이였다. 심판의 날에 가진 것을 다 가지려다가 결국 다 불타고 끝나 버리는 길과 가진 것을 다 잃고 결국 생명을 얻는 길 중에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생명이 살아야 내가 다시 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살아야 얻을 수가 있다. 욕이 내 안에 살아야 욕에 해당되는 것을 얻고, 영이 내 안에 살아야 영에 해당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환난 때 욕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욕신이 사는 길과 가진 것을 다 잃지 않고 욕신이 죽는 길이였다. 너희가 욕 같으면 어느 길을 가야겠느냐. 오직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만이 욕과 같은 길을 간다. 욕은 가진 것을 다 잃고 욕신이 영과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잃은 것을 욕에게 또 주었을 때 얻고 누릴 수 있지 않았느냐. 생명길을 가는 자들은 다 그러했다.

고로 나도 세상을 가졌어도 다 버리고 생명길을 간 것이다. 너희도 그같이 살아야 된다. ‘죽을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목숨을 내 주면서 말했는데도 안 믿느냐. 내 말과 내 행함을 소홀히 생각하느냐. 내 말을 귀히 여기고 생명같이 믿고 행치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간다. 다시는 구원하지 못한다.

토마스 주님이 지옥에 갔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선지자로 쓰면서도 그 어머니를 구원해 주지 않음을 책에서 보지 않았느냐. 수천 년이 가도 지옥에서 구원한 자는 없다. 지구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좌우된다. 명심하라. 다시 경고한다.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구원이 없다. 지옥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천국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

세상이 너희 것이라고 하자. 세상을 가지겠느냐? 너희 목숨을 가지겠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그 귀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가치 있는 말을 모르겠느냐.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작은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얻으려는 길로 가서 목숨을 빼앗기고 지옥으로 가니 그 얼마나 아까우냐.

이는 욕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눈에 보인다고 욕의 몸이 빼앗기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이 빼앗기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 세상의 작은 것들을 얻으려고 영혼을 빼앗기는 길을 가니, 가지 말라고 정말 경고한다.

영혼을 위해 가다가 못 얻은 것은 내가 수만 배로 갚아 줄 것이다. 천국에서도 주고, 지상에서도 때가 되면 쓸 만큼 줄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믿겠느냐. 진정 믿겠느냐. 그동안 그같이 산 자들은 나를 늘 끌어안고 사는 자들이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잘 듣고 더욱 깊이 깨달으려 해야 된다. 세상 말은 들으면 금방 다 이해되지만 내 말은 세상 말과 다르고 깊어서 금방 이해되기 힘들다. 더 깊이 깨달으려 해야 근본을 깨달게 된다. 이는 인간의 책임이다. 내 말은 문제도 오묘하고 답도 오묘하다. 세상 말같이 단순히 듣고 생각하지 말아라.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복사해서 또 읽고, 읽어 보아라.

오늘은 내 말을 내 그릇에 담아 보냈다. 어느 때는 내가 보낸 자의 그릇에 담아 보내기도 한다. 말씀은 내 말이다. 어느 그릇에 담아 보내든지 말씀은 내 말이다. 내 말을 보낸 자의 그릇에 담아 보낼 때는 말씀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내 말을 내 그릇에 담아 보낸다.’는 말을 아느냐. ‘내 말을 내가 직접 전한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내 말이 제일 귀하다. 내 말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라. 내 말은 곧 나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한 눈으로 보고 한마디로 듣자.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쓸 수 없는 길과 쓸 수 있는 길이다.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이라고 하기도 한다. 환난의 날에 마귀와 악한 자들은 물질을 빼앗든지, 목숨을 빼앗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앗는다. 목숨을 빼앗기지 말아라. 물질을 버려라. 죽는 길과 사는 길이다. 사는 길로 가라. 산 다음에 내가 또 줄 테니 믿어라. 물질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세상의 길과 하늘의 길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영계로 보면 이와 같다. 보고 듣고 더 마음에 깨닫게 될 것이다. 환난의 날과 심판의 날에 회개하고 피해야지,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아라. 행악자와 마귀가 목숨을 빼앗지 않느냐.

사탄은 환난의 날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물질을 빼앗는다. 이때 네 목숨을 물질에 놓으면 결국 다 빼앗긴다. 살아야 환난 후에 또 얻게 된다. 환난 날에는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과 자기 생명, 둘 중에 하나 밖에 못 구한다. 자기 생명을 구해야 후에 내가 또 주었을 때 얻게 된다. 자기가 가진 것, 물질,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피한 자들은 목숨이 살지 않았느냐.

(#삼화 있음)

적기가 포탄을 쏘니 깨어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빠른 구름이 되어 다 집어 던지고 산 너머로 도망가 목숨을 살렸다. 너희도 이같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이같이 이끌어 왔다. 화재가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만 꺼내면 자기 목숨을 불태우게 된다. 구원론에서 못 보았느냐. 그냥 그린 것이 아니다. 나의 계시한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린 것이다. 살았기에 그로 지금도 너희를 내게 인도하며 생명의 역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도 모두 물질을 좇지 말고 나를 우선으로 순위에 놓고 생명을 구하여라. 고로 너희 모두에게 계시한 것이다. 나를 얻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사는 자요, 천국을 얻고 사는 자다. 나를 잃는 자는 세상의 것과 영혼과 천국을 다 잃고 사는 자다. 어떻게 나를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한다. 나를 빼앗긴 자는 영혼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자다. 나를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다. 고로 나를 얻은 자는 어디를 가도 내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그때마다 내가 사람을 통해, 혹은 본인에게 직접 준다.

이 말씀도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해 주고, 너희 모두가 외치라고 한 말씀이다. 외쳐서 설교하라고 했다고 단상에서 듣기 싫게 소리만 높이 지르지 말아라. 이제 온 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돌아간다. 노래하듯이 하고, 높일 때만 멋있게 외쳐라. 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 다 죽어 가는 소리를 하고 읽어 주니 외치라고 한 것이다. 왜 이치를 모르느냐.

에스겔 4장 4~8절을 모두 읽어보자.

(겔 4:4-8) 『[4]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헛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 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 [7]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8]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 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도 해 주시고,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도 하신다. 에스겔 선지자 때는 에스겔이 그 시대의 죄를 외쳐 회개시켰을 때 그 시대가 회개하여 축복을 받으면 에스겔도 함께 축복을 받고, 회개

하지 아니하여 고통을 받으면 에스겔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하늘이 보낸 자들은 그 시대와 같은 운명이 된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의 죄악을 담당했고, 다니엘은 그 시대의 죄악을 담당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사명을 받은 자가 외치고 회개시키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민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죄인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늘 아벨편이 담당하는 것이다.

내 시대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 시대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죄값을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냐. 만일 회개하면 어느 누구, 어느 민족이나 니느웨 같이 용서로 끝나는 것이다.

그 시대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늘이 보낸 사명자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며 형제들의 죄값을 담당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성의 누명을 씌운 자가 회개하지 않으니, 요셉이 대신 그 죄값을 받지 않았느냐. 억울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하늘의 뜻길인 살 길로 간 것이다. 요셉이 고통을 대신 받고 사니, 결국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시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러 해야 된다.

너희도 형제를 오해하고 그에게 어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해 받은 형제가 의의 편에서 그 죄값을 받으며 괴롭게 살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피할 수 없이 죄값을 받게 된다.

너희들끼리는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고로 정죄하지 말고 그의 십자가를 저 주면, 네가 그 형제의 죄값과 고통을 대신 받고 기도해 준 조건으로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회개하여 살게 된다. 너로 인하여 형제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나와 같이 너도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된다. 자기 십자가뿐 아니라 형제의 죄의 고통도 지고, 죄뿐 아니라 형제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 주는 것이다.

자기 부모가 장사를 하면 자녀도 그 노정을 따라 살면서 장사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보람도 얻게 된다. 정치나 예술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과수원을 하는 일이나 부모가 그 노정을 가면 자녀도 그 노정에 해당되는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보람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세상에서 받고 살았듯이 그 고통을 시대적으로 받고, 또 영생길을 가면서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사명자를 따라 살면 그 노정대로 그 사는 자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따라왔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다른 쪽의 인생이 겪는 것들을 겪으면서 얻을 것을 얻고 살았을 것이다.

어떤 길은 보기에 좋고 바르나 실상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희가 전에도, 지금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했느냐. 내가 한 말을 생각해라. 기도는 너희가 하되, 결정은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루나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이같이 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왜 너희 생각을 제1순위로 생각해 버리고 기도하느냐.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다 실망했을 것이다.

너희는 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않느냐. 나를 믿기는 하면서도 왜 내가 한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탄이 주관하여 괴로움을 주고, 형제들과 싸움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왜 내 뜻대로 한 자들에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며 괴롭게 하였느냐. 모두 죄니라.

항상 내 뜻대로 사는 자와, 믿기는 해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길이 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오해하고, 그들에게 악한 말도 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을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에게 멧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나를 믿어

도 내 뜻대로 한 자만 데려가고, 내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데려갈 수 없는 것이다. 주인을 오해했다고 책망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한 자를 오해하고, 너희가 책망하며 죄인시켰느냐. 나를 죄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고로 회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죄인시켰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대신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누가 이 시대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다고 할 자 있으랴.” 하지 않았느냐. 시대가 악함으로 의의 눈이 멀어 죄인을 의인으로 보고 의인을 잡아 죄인으로 보니,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의인이 대신 받게 된다. 시대의 죄가 관영하여 의인도 죄인으로 보는 것이다.

의인이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대신하면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살게 되고, 의인은 그들의 죄의 고통을 받고 형제를 구한 사명을 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와 핍박과 죄를 대신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죄인은 의를 행치도 않고 의인의 자리에 앉고, 의인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인시 당하면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고,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들이 그 죄를 받게 한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도 다 악한 자들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이다.

가정에서도 형제의 죄를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 그 형제가 회개하여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그를 주관하게 되고 구원의 날에 구원도 못 받게 된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듣고 형제끼리 서로 오해하여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들려오는 대로만 듣고 그같이 인정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믿고 그 형제를 죄인 취급하면 계속 온 섭리에 번져 나간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한 형제에게 가서 “이 같은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나?” 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에 잘못된 말과 오해해서 하는 말을 풀어 줘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오해 받은 형제에게 가서 그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런 자가 내 손발이 되어 주는 자다.

말라기 선지자로 말한 대로 내 상한 마음과 내 아버지의 상한 마음까지 풀어 줘야 한다. 이러한 자가 엘리야 같은 사명자이며, 요나와 같은 심정의 사도들이 아니냐.

장로들도, 권사들도, 중고등부들도, 대학부들도, 청년부들도, 가정국들도, 장년부들도 이런 책임자를 세우고 내 손발이 공의롭게 되어주기 바란다. 정말 부탁한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말로 너희들의 심정을 상하게 하여 각종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 세상이 악하게 되었으니 원망 말고 모두 하나 되어 화평하고 자기를 돌아 봐야 된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쓰지 못하는 길이고 한 길은 쓸 수 있는 길이다. 한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보고 듣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너희 진로를 잘 보아라. 보기에 바르고 좋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나를 최우선권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내게 묻고 결정하라.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내 곁을 떠나 무슨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겠느냐. 해 그늘에 산포도를 따다가 나 주려고 가느냐. 해가 저렇게 저 가는데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다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느냐.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안 먹어도 네가 내 말 듣는 것이 좋다.

그때가 다 되었는데 출세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겠느냐. 나는 준비한 자 데리러 재림하여 온다. 이 땅에 내가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해가 지는 순간에 어서 준비하여라. 어서 회개하여라. 왜 죄를 죄인 줄 모르냐. 왜 의를

모르냐. 나를 따라 긴긴 세월 허리끈을 조여 매고 갖은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나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다른 길을 가느냐.

두 길 중에 ‘한 길만이 갈 길이다.’ 하지 않았느냐. 세상 것을 얻고 자기 육신과 영을 잃겠느냐. 자기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을 버리겠느냐. 세상을 다 버려도 영육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내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마귀는 물질과 만물 다 보이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따르면 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귀는 내게 하였듯이 지금도 너희에게 그 짓을 한다. 내가 마귀를 물리치듯 하라. 육도 영도 살아야 내가 또 줄 때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앞에 말씀했어도 벌써 너희가 잊어 다시 끝에 강조하고 경고한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이 너희에게 직접 말했다. 평소 때도 직접 말씀하지만, 오늘은 특히 왜 내가 직접 말씀했는지 이 주일에 알게 될 것이다.

평강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 새로 온 자들은 내가 사람들을 통해 넓은 길 가기에 너무 아까워 내게 오게 했다. 늦게 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더욱 신경 쓸 테니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여라.

누가 설교한지 아느냐. 오늘은 내 말을 내 그릇에 담아 전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나를 잃으면 세상도 다 잃고 천국도 잃는다. 나를 얻으면 세상을 얻고 미래를 영원히 얻고 천국을 얻는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요동치 말아라. 너희의 영이 살고 생명이 사는 길로 내가 계속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고 억울하게 해도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여라. 사랑하여라.

오늘은 주님이 직접 자신이라는 그릇에 담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두 잘 가요. 안녕~

<2009년 4월 26일 주일말씀>

네 몸은 피로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본 문 고린도전서 6장 14-20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릇과 선생의 그릇에 담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원본 그대로 전하되, 어려운 말은 설명을 해 주어 더욱 깨닫게 해 줄 것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 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주님의 그릇에 담아 주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 닿았지요? 말씀대로 그러했지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기 전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전이었습니다.

내가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 그 마차에 한 사람을 태우고 아주 깊고 아름다운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은 흰옷을 입은 남자였는데 옷과 몸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골짜

을 따라 올라갈수록 경사가 져고 길바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척거리며 마차를 끌고 가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차는 말이 끌어야지. 말은 어디 가고 내가 끌다니...’ 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순간 뒤에서 말 한 마리가 앞다리 두 발로 마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앞에서 끌어야지 왜 뒤에서 미는 거야? 참 신기한 세계다.’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말은 나를 보고 ‘말도 많다. 내가 밀어 줄게. 부지런히 마차를 끌어라.’ 하는 듯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느낌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말이 뒤에서 앞다리 두 발로 밀어 주니 마차는 나는 듯이 빨랐습니다. 나도 같이 날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보니, 양쪽 산에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들은 다섯 그루씩, 혹은 13 그루씩 한 식구들처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소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홍송이었고, 더 가다가 뒤에서 본 소나무는 약간 흑송이었습니다. 홍송은 키도 크고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정도 갔는지 마차는 다 왔다는 듯이 멈췄습니다. 멈춰 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금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국가 대표 배구 선수들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프로 배구 선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 대표 배구 선수들과 경기를 할 만한 자들을 프로 배구 선수들 중에서 뽑고 있었습니다.

나도 프로 배구 선수들 틈에 한번 끼어 보려고 했지만 ‘나는 축구가 특기니까 아무래도 안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빠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섭리사의 축구 선수들도 빠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축구다. 뒤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자.” 하고 씩스러워하며 서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때 깨달기를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해야 되고, 자기 특기대로 해야 된다. 실력도 없고 자기가 겨를 종목도 아닌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것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마차에 탔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말도 마차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 생전에 처음 온 지역이다.’ 생각하다가 잠이 깬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주님께 내가 본 것이 어떤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왜 보이는 세상이 배경이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곳이 보였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는 그 같은 배경이 없고 계시를 보일 합당한 것이 없다. 세상에 없는 배경은 영계에 들어가 보이며 계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소나무는 뭐냐고 물으니, 주님은 “네가 겪으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말과 마차와 마차에 탄 자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는 자인지 물으니, 주님은 “하늘나라 것이며 하늘나라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디냐고 물으니, 주님은 “지상영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날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대로 나가서 뛰고 자기가 배운 대로 겨를 수밖에 없다. 축구하는 자가 배구 경기에 나가서 겨를 수 없듯이, 신앙인은 신앙으로 겨루고 자기 사명대로 일을 해야 인생 승리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깨닫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겪은 후에 보니 소나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송은 보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흑송은 보다 무게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비유론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비유는 항상 그 특성을 두고 꿈에도 생시에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계시합니다. 꿈뿐만 아니라 생시에서도 주님은 만물을 보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도 보여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세상 주권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무력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주권이요, 사명입니다. 세상은, 특히 악인들은 무력과 불법과 불의에 강합니다. 게다가 마귀는 이것들의 편이 되어 역사합니다. 주님은 무력과 불법과 불의의 편에 들지 않으시고 오직 의의 편에 들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입의 검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되어 하늘이 준 권세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어두운 세계와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들을 이겨야 천국으로 가는 생명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에서 평소에 보던 지역인데도 달리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생전 못 보던 곳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상영계나 천상영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계에 대해서는 배워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부밖에 못 배웁니다. 영계는 너무 엄청나고, 범위가 높고 넓고 깊습니다.

계시는 원본을 빼고 해석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계시입니다.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원본을 그대로 말해 주면서 자기가 겪은 것도 말해 주고, 보고 듣는 자가 넓고 깊게 감동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느 날 선생의 고향 회골의 옛날 밭이 보였습니다. 그 밭에서 여러 사람이 밭을 매고 있기에 누구인가 가까이 가 보았더니 교단의 몇몇 사람들이 밭의 잡초를 깨끗이 뽑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맨 밭을 보니, 그중에 한 가지 풀만 안 뽑았기에 “얘들아, 이것도 풀이다. 뽑아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풀 중에 한 가지만 안 뽑은 것입니다. 내가 말해 주니 그 풀을 뽑았습니다. 이는 지난번 교역자 세미나 때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회개는 밭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잡초입니다. 곡식은 성경대로 사람을 말하고 할 편을 말합니다. 섭리사 전체가 자기가 행한 잡초를 뽑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고, 꿈으로나 생시에 계시해 주신 것이 그대로 맞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신기하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어적 표현을 보면 더욱 오묘하고 신기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몇 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쓸모 있는 길과 쓸모없는 길이 있다. 쓸모 있는 길을 갈래, 쓸모없는 길을 갈래?” 하고 내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야 당연히 쓸모 있는 길로 가지요.” 했더니, 주님은 “그런데 섭리 사람들은 쓸모없는 길을 바란다.”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가는 길이 쓸모 있는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길 같아도 나를 따라가는 길이 쓸모 있는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한다.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고생되지만 생명길이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거의 생명길을 버리고 쓸모없는 길을 간다. 정말로 내게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 가다가도 그때의 상황과 이치에 따라 또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 가야 된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늘 내 손을 잡고 다녀야 된다.

영생길이 세상길과 같으냐? 영생길은 세상의 어떤 길처럼 쉽게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인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간다. 그러니 오직 나만 꼭 붙잡고 그 길로 평생 전심을 다해 살아야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가야 된다. 세상의 부부같이, 애인같이 사는 정도로는 안된다. 그들이 얼마나 싸우고 헤어지는지 아느냐. 매일, 매시간 나를 찾아라. 내 손을 꼭 잡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한마디로 말해 보아라.” 하셨습니다. ‘지금껏 육도 살아 있고

영도 살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잠언의 말씀은 너무도 오묘하기에 말씀이 정말 오묘하다고 주님께 말했더니, 주님은 “너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 말이 귀한 것을 알아준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주님의 말씀>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내 말과 같이 귀하고 영원한 말이 어디 있느냐. 내 말이 최고니라. 세상 누구의 말을 감히 내 말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였은즉 일순간에 소돔 땅이 되고, 내가 말하였은즉 일순간에 황무지가 되고, 내가 말하였은즉 일순간에 이상세계도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였은즉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고, 내가 말하였은즉 전쟁과 평화가 좌우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말을 그 어떤 말보다 너희 삶에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믿고 지켜라. 그리해야 걱정·염려·고민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한다. 내 말을 제 1로 여기는 자에게 내 말을 계시해 준다. 이런 자를 나의 사역자로 쓰고 외치게 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 말이 곧 나인 줄 알고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나같이 대하고 마음에 품어라. 돈이나 보물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들만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법을 행하면 나의 말로 인하여 모두 심판을 받을 자들이 되어 버린다. 내 말을 생명시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므로 사망으로 가며 영생의 길로 오지 못하는 것이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내가 너로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내 말 한마디를 온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지 않았느냐. 얼마나 권세 있고 두렵고 위대하냐. 내 말을 들었을 때와 그 말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나의 재림에 대해 말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는 1분도 더 연기가 없다. 그 날과 그 때는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았지만, 정한 그 때는 1초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대로 지금 환난이 진행 중이다.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천하가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하겠으며, 얼마나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나쁜 쪽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좋은 쪽을 보고 기뻐하여라. 너희가 나쁘다고 실망한 것에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실망한 만큼 좋은 것이 있다.

또 나의 말을 들어 보자. 물고기도 살았을 때 대하는 것과 죽었을 때 대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도 신앙이 살았을 때 대하는 것과 죽었을 때 대하는 것이 다르다. 살아서 생활해 봐야 자신이 죽었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젊었을 때 대하는 것과 나이 들었을 때 대하는 것이 다르다.

젊은이들과 나이 든 자들의 사명도 다르다. 어린 자라도 사명이 큰 자가 있으니 어른이라도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순종자가 따로 있고, 명령자도 따로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순종해 버릇해야 내게도 순종할 줄 아는 것이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건이나 원상태가 변하면 기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대하는 것도 달라진다. 좋게 변해야지, 나쁘게 변하지 말아라. 순종은 미요, 아름다움이다. 왜 외모의 미만 보고, 그쪽으로만 눈이 가느냐. 사람은 눈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선의 미, 순종의 미, 나를 사랑하고 극진히 섬기고 믿고 행하는 미, 겸손의 미, 생명을 귀히 보고 전도하고 가르치

고 돌보는 미, 서로 위해 주고 화평케 하는 미, 인격의 미, 말씀의 미, 끝까지 해내는 미, 변함없이 꾸준히 행하는 미, 나와 하나 되어 사는 미, 말씀을 귀히 보고 찾고 내게 배우는 미,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미, 어디에 갖다 놓아도 시계처럼 끊임없이 착오 없이 사는 미... 이 같은 미는 자기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영혼의 미가 된다. 그리고 육신의 미도 더욱 빛나게 한다.

음란한 자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고서야 어찌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내 나라에 들어오니 회개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회개는 돈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도 없다. 뜨거운 물을 주니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빼는 것이고, 자기의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이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자라도 보기 싫다. 너희도 너희의 옳은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를 보면 싫고 밉지 않느냐. 나라고 해서 그런 자들을 보면 좋겠느냐. 계속 불순종하면 나의 자비와 긍휼도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내 자비는 사랑이다. 나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날마다 찾는다.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신경을 쓴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사정없이 나를 무참히 대하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좋아하며 가고 있다. 배신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모르는 자는 나와 대화할 수 없으니 배워라. 알아야 나와 대화가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 자기 세상에 사는 자이고, 내가 다스리면 나의 세상에 사는 자다. 누가 너를 다스리느냐. 지금 생각해 보아라. 만일 네가 너를 다스리면 결국 세상이 가는 길로 가고 끝난다. 내가 다스려야 내 세상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다.

너희의 몸도 마음도 내게 아주 맡겨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맡겨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 의논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를 내게 맡기면 내가 무엇을 해 주겠느냐. 영혼을 소생시켜 하늘나라에 가게 해 줄 것이다. 영이 잘되면 육신도 같이 잘된다. 육도 영도 다 내게 맡기고 내가 명한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해도 너희들이 모르는 대로 내가 알아서 때에 따라 인도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지 말아라. 나의 생각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실천하고 살아라.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면 걱정·염려·고민에 빠지게 된다. 실패하고 그제야 내 생각을 한다. 내 말도 들어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은 스스로 닦친 일을 보고 생각하며 걱정·염려·근심들을 한다. 내게 묻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행하니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다.

너희는 나의 생각대로 살면서 제 2의 내가 되어 살아라. 나의 지체가 되어 살아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다. 내게 붙지 않은 자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맺어도 돌 포도요, 쓴 포도요,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다.

내가 너희의 몸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주고 샀다. 너희의 몸이 아니다. 내 몸이다. 너희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려 함이다. 너희의 몸은 내가 산 몸이니 나와 같이 사랑하여라. 나와 같이 행하여라. 나와 같이 긍휼히 여겨라.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여라. 나와 같이 너희도 생명을 보살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대하고 갚아라. 사람을 분별하고 나를 대하듯 하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주권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너희는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다.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나와 하나 된 자요, 제 2의 나다. 내가 샀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는 어찌 너희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었냐고 하느냐. 너희가 그를 샀느냐. 피는 생명이니 내 피로 산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 내 것을 자기 것같이 생각하고 말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너희 생각을 나의 생각과 말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사느냐. 누구든지 나의 말보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말, 어느 누구의 말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자는 내 주관권 밖에 사는 자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들어라. 이제는 모두 나의 말을 듣고 고쳐라. 너의 병든 정신을 고쳐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지 못하여 찌침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값을 주고 너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제 것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산다. 이런 자들은 마귀가 자기 몸으로도 수시로 쓰게 된다. 내가 쓰는 자를 감히 마귀가 쓰겠느냐.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느냐. 내 것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좋아서 자기 것으로 삼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나의 말을 깨닫고 너희는 내 것임을 알고 살아라. 너희는 내 것이니 제 2의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누구든지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임을 더욱 알고 내 것이 되고 내 몸이 되어 사는 자는 자기 몸을 제 2의 나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며 그만한 주권을 얻게 된다.

너희 속에 내가 있어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내게 속한 자가 된다. 너희는 제 2의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라. 이를 허락하고 용납하지만, 그 대신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 온유와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과 사랑과 위함이다.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 주며 서로 돕고 화평하고 근신하여라.

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와 하나 되어 살면 누구든지 제 2의 나다. 내가 그를 나의 육체로 쓰니 제 2의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하나 되지 않는 자는 제 2의 나로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말하였은즉 지켜 행하여라. 내 말은 어느 그릇에 담아 말하여도 내 말이니 지켜 행하여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눈팔지 말고 행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모두 자기를 근신하며 살피지 않는구나. 자기를 보는데 눈을 뜨도록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자기를 보고 고쳐라. 형제의 것을 보거든, 자기도 그와 같이 그러한지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힘써 행해야 내 귀한 말을 자주 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전할 자가 있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행하여라.

새벽 2시에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말씀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사망권에 있고, 천국도 알지 못하여 찾아올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어 주었다.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어 나를 믿는 자들은 생명권으로 나왔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샀으니 내 것이 되었다. 그 목적은 너희들이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나 실상은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살려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주님과 같이 죽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같이 너희들을 살려 놓고 천국으로 가게 해 주는데, 어찌 너희들은 너희 몸을 너희 몸같이 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육적으로 살다가 또 죽는 길을 가느냐?” 하셨습니다. “너희를 살린 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구나.”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지체가 된 귀한 몸이니 자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창녀의 지체를 만들듯 하

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쓰면 창녀의 지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기계는 곧 망가집니다. 화가들이 쓰던 붓을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쓰면 붓을 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 갈 자기의 초상화라도 화가가 다 그릴 때까지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가 시작도 하고 완성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놓으실 때까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구원해 달라고 맡겨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 달라는 의향을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은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말로는 맡기는데, 쓰는 것을 보면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씁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1급 화가가 그 사람의 초상화를 중간쯤 그렸는데 초상화를 그려 보지도 않은 자가 나머지를 그려서 그림을 망친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 얼굴같이, 도깨비 얼굴같이, 짐승 얼굴같이 전혀 자기 모습과 닮지 않게 그린 것입니다.

초상화를 그려 보지 않은 자는 얼마나 예리하게 그려야 그 사람답게 그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든지, 자기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한번 그려 봐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모습과 닮게 그렸는지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내 말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자기 얼굴을 제대로 그리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이다.” 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초상화를 그리듯이, 정밀화를 그리듯이 말씀도 그같이 정밀하게 배우고 가르쳐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자는 마치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자가 자기 눈을 소 눈같이 그리고, 자기 입을 돼지 입같이 그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도 그 뜻을 제대로 온전히 표현해 주지 못하면, 자기 얼굴이나 지체를 다른 인상으로 그리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몸을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과 재산과 논과 밭이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집과 땅과 소유들을 다 산 사람은 이전의 땅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곳에 새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여러 가지로 계획한 것이 많으니 자기의 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와서 보니, 그 전 주인은 그 땅들을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논밭에도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작물들을 심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새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 땅을 가지고 어떻게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 빌딩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필요하여 지은 것들을 자진해서 다 헐어 주십시오. 논밭의 농작물들도 다 베 주세요. 거기에 풀을 길러 내 양떼를 먹이려고 하니 베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 주인은 결국 다 헐 수밖에 없었고,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 주인은 옛날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의 것을 쓰듯이 썼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이미 우리들이 지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사망권에 넘어가 사탄의 세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서 6장 19-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피로 값을 주고 샀기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없애는 것이 하나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인데 제 것같이 사용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일체가 되었으면 남자는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값을 주고 산 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이 사람에게 팔았으면서 또 저 사람에게도 팔면 사기꾼이 되어 법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을 자기 몸으로 쓰는 자는 죄를 지은 자이며 법을 범한 자입니다. 자기 몸으로 쓰는 자는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로 주님은 '지옥론'을 먼저 읽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행하시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다 함께하십니다.

주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능력자요, 모사자요, 무소부재하신 거룩한 신성의 존재자이십니다. 언제든지 못 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는 강하사 그가 행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야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주님은 영원합니다. 먼저 어린 예수와 같이 되고, 성장된 예수와 같이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의 몸에 붙은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뜻은 하나이되 사명은 각각입니다. 개성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생각하고 살면 자기 길로 가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주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일체 되어 살면 사탄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가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으면,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고로 주님을 부르는 이름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구세주, 어느 때는 나의 반석, 어느 때는 나의 친구, 어느 때는 나의 부모, 어느 때는 전능자, 어느 때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며 자기가 겪는 대로 주님을 부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모든 힘을 육에 속하여 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모든 힘을 영을 위해, 주를 위해 씁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의 몸도 무력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물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쓰고 써서 더러워지고 각종으로 썩어 오염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정수해야 합니다. 정수한 물도 쓰면 또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정수하지 않은 물을 먹고, 그 물로 씻고, 그 물을 생활수로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정수하여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매일 삶 속에서 물과 같이 쓰니 오염되는 것입니다. 수돗물 정수장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

들을 깨끗케 하여 써야 됩니다.

주님은 더러운 물과 같은 우리들의 정수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수하지 않고 그 물을 쓰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고, 한 번 썼던 물을 가지고 또 씻게 되고, 더러운 물로 밥을 해 먹는 격과 같습니다. 고로 욕도 영도 곧 신앙의 병이 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정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적인 것은 샘을 파서 항상 깨끗한 물을 쓰는 것입니다. 월명동 약수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샘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바다로 흘러가서 정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염된 물과 썩은 물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썩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이르러야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이나 오염된 물에서는 생명체인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썩은 육체의 행위나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오염되어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썩지 않는 바닷물에는 아름다운 해초와 크고 작은 각종 물고기들이 가득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일체 되고 그의 것으로 알고 사는 자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와 불의로 썩고 오염되어 영과 육이 죽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어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너희 몸이 아니라 살리신 자의 몸이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살렸으니 예전처럼 죽는 길로 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생되어도 이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바다로 가서 정화되듯이,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는 자들이 그를 믿고 살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행하므로 온전하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정화된 물은 제대로 먹고 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되어야 그 나라를 그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면 어둠의 주관을 받기에 걱정과 염려와 번민이 지속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 마.**” 이 세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역시 “**걱정 마.**”입니다.

선생도 염려와 걱정하는 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으니 “걱정 마.”입니다.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린이는 몰라서 울고 걱정합니다. 먹을 것, 혹은 입을 것을 놓고 울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걱정 마.” 하며 어린이에게 줄 것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꺼냅니다.

그리스도의 삶만이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의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욱 주의 몸이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의 몸이 되어 살지 못한 자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기의 것으로 쓰며 산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그 몸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의 몸이 되어 그의 정신과 영이 되어 살지 못합니다. 그의 몸이 되어 사는 자라야 그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생각은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철도 된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철도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생각은 금을 얻게 하고, 은 같은 생각은 은을 얻게 하고, 철 같은 생각은 철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행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젊음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 악한 육신을 위해, 육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결혼한 몸은 배우자의 몸이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가 내 몸인 것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네 몸을 내 것으로 써야 된다.』고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 쓰면 자기의 육체요, 창기들을 위해 쓰면 창기들의 육체요, 세상을 위해 쓰면 세상의 육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쓰면 주님의 몸입니다. 절대 주님의 몸이 되어 자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하시어 필요 없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귀히 쓰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기도해야 주님은 즉시 들어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기에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너희 행함을 하나하나 내게 말하여라. 회개되었는데 모르고 자꾸 죄의식을 갖는 자도 있다. 또 회개가 안 되었는데 회개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도 있다. 작은 것도 매일 씻듯이 회개하라. 제때 잠을 안 자면 잠이 밀려서 어디를 가도 졸리고 쓰러진다. 죄도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면, 눈치, 위신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들과 화해할 것이 있으면 꼭 풀어야 됩니다. 말로 할 것은 꼭 말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한마디 하면 깨끗해질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꺼리게 살면 안 됩니다. 말로 하기 곤란하면 편지로 하면 됩니다.

주님 앞이나 선생에게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자꾸 피하지만 말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선생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비로 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게 하십니다. 선생도 주님의 마음같이 늘 용서해 줍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피하거나 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고 부지런히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작곡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요. 주님이 원하시는 곡을 달라고 하여 작곡도 작사도 주님이 해주셔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작곡하시고 작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천지창조’는 주님이 계획적으로 만든 곡입니다. 재림에 대한 곡은 주님이 린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본으로 하여 7절까지 써 놓았습니다. 성지땅에 대한 곡은 주님이 “네가 겪었으니 네가 해 보라.”고 하시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도 선생의 시가 있고, 주님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인데 내 그릇에 담았을 뿐입니다. ‘주편’이라고 쓴 것은 주님의 시로서 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들은 말씀을 생명력 있게 외치라고 했다고 그 의미를 모르고 단상에 서자마자 설교 내용의 곡조를 무시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은혜롭지 못합니다. 듣는 자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다 그럴지는 않지만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꾸 들어 보고 서로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도 예전에 설교할 때 설교가 끝나면 항상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고쳐 가면서 했습니다. 집회 때도 청중의 맨 뒤에 한 사람이 서서 말이 빨라지면 (X) 표시를 들어서 보여 주어 즉시 고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하면 (O) 표시를 보여 주어 그대로 했습니다.

교역자들도 심정 타게 외치다가 설교가 깊이 들어가면 대개 빨라지니, 누가 뒤에서 신호를 보내 주면서 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는 빠르다고 말해 주지 못하니깐요. 노력하고, 지혜로 하면 됩니다.

섭리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방향은 열심히 잘하는데, 안 하는 방향은 전혀 모르고 안 합니다. 어떤 것은 내게 해 줄 일인데도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자는 몰라서 그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줘도 전혀 보고하지도 않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제야 보고합니다. 정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가 손해 가니 바꾸라고 하십니다. 자기만 손해 보고 말면 용서로 끝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체가 손해 가면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것과 같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주의 몸이 된 자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느끼니까 알아서 말합니다. 주님의 몸에 붙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차 저 어둠으로 가는 짐승들과 싸우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니 내게 맡겨라. 조금도 요동치 말아라. 이 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 누구든지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세상으로 넘어간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모두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나의 때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몸을 써야 된다.”

<축 도>

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그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4월 29일 수요일>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다

생명을 주고 산 주의 몸이다

본 문 고린도전서 6장 14-15절, 19-20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12장 27절

로 마 서 12장 5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내가 피로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내가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생명을 주고 산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내 몸을 샀지? 나는 예수님께 몸을 팔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내 몸을 샀다고 하지?”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잘 모르니 주님이 선생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건이나 집이나 땅이나 동물 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면서 같이 살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삽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값있게 공의롭게 사셨습니다. 메시아의 생명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망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신 과정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중에 사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사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전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은 구약성경을 통해 서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생생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어 회개하게 하였고, 참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대로 살면 악한 귀신과 마귀와 사탄들이 네게서 떠나 마음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의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삶이 변하여 소망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병든 자와 불구자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여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며 그의 아들임을 더욱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을 빌어 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먹여 주고, 서로 재워 주고, 서로 입혀 주고, 없는 자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 주며 살아야 삶의 천국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같이 사셨습니다. 그같이 사는 것을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이 붙어 모두 그렇게 행하며 사니, 사람들은 더욱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공의롭게 대해 주시며 서로 화평하고 의롭게 살게 해 주시니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고 마음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왜 구하지 않느냐. 나를 알았으니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의 병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 산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세계, 죄의 세계, 흑암의 세계에 살던 자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생명권으로 나와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네 몸을 샀으니 너는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 왜 그러한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이같이 행하시며 사탄의 몸들을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생이 주님께 배웠으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복음으로 낳아 사랑으로 기른 자녀들같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살던 자들이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하며, 터무니없고 무지하고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막고 불신하고 이단시하고 잘못된 자라고 했고, 귀신 씌 자라고 했고,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 부르듯 한다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멸시했습니다.

율법 속에 있던 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죽어 외식과 형식으로 사니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신앙이 죽은 자는 사망권에 살기에 자동적으로 사탄의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생각과 혈기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에 마귀들이 그 무지한 자들을 자기 몸으로 쓰고 역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기에 믿음의 굳건하여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막고, 모든 모임을 못 하게 하였으며 쫓아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배척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그같이 대하니 구원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말씀하면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기에 메시아를 거스르면 구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의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더러는 잡아 죽인 더러운 자손들아.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너희는 의인 아벨이 흘린 억울한 피로부터 제사장 사가랴가 흘린 피까지 그 죄값을 너희가 다 감당하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못 하게 막으니 “어쩔 수 없구나. 너희가 그 책임을 져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고 사망자도 아니니 시대의 죄를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 민족과 함께 그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막는 개인이나 민족은 그들과 같이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불신하고 막으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외치셨듯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 주며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펴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

니다. 제자들이 말했으나 주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종전에 하나님을 믿던 자들과 예수님을 믿다가 불신하고 배신한 자들은 "죄인이 왔다, 이단이 왔다."고 하며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악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며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이신 전능자 중의 한 존재자십니다. 주님은 「누가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할 자가 있으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하시며 「내가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 하였건만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버렸도다. 이 나라와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군이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폐허의 황막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의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와 종전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본래 메시아를 중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불신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얼마 후에 그같이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같이 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같이 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한 이후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은 다른 방법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를 다 심판해 버리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빼놓고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한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고 죽은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인생들을 위해 주님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를 불신하고 죽이려 하였고, 주님은 시대가 악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시므로 자기를 불신하고 원수시하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온 것을 모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몰라서 이같이 하였으니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시대의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대신 받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신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 없는 독생자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자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생명을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되던 새벽에 영과 육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복음을 펴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내가 간 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 게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의 진리의 영이니라. 그가 나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해 줄 것이다. 또 너희는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만민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망권에 있는 죄인들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주고 산 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몸을 사신 바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 싶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살림을 받은 주님의 몸인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보혈로 씻어 속량해 주시고 속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메시아의 몸 자체로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핏값으로 모든 생명들을 사셨기에 주를 믿고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몸 대신에 그 핏값으로 속량됩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몸이 되었으니,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 시대가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모두 믿고 따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모두의 몸은 복음으로 주님이 사신 바가 되고 주님이 낳은 자녀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으면 그것으로 주님이 사신 몸이 되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민족이 되어 세계의 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만민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바가 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의 몸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니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더욱 주님의 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고 지옥에 갈 자들을 주님의 것으로 사셨으니,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며 주님이 사신 몸으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실상 사탄이 우리의 몸을 사망권에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사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으면 결국 사탄 마귀들과 꼭 지옥으로 갈 몸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 영이 되어 살면, 주님을 따라가기에 절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갑니다. 아무리 주님이 만민을 피로 값을 주고 샀을지라도 이를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회개하지만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 지옥으로는 안 가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행복하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몸을 사망에서 사 오셨습니다. 이는 어떤 자가 노예로 팔려 가는 몸을 사 와서 노예로 가지 않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 온 자의 몸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죽을 자를 위해 대신 죽어 주고 살렸으니, 대신 죽어 준 자의 뜻대로 사는 격과 같습니다.

월명동에 ‘구원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도살장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 선생이 한화 만 이천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결국 죽지 않고 계속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 도살장에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만 사 온 것입니다.

‘구원이’는 나와 여러분들을 표상하여 주님이 나로 그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도살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사 오지 않은 개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 오지 않으셨으면, 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사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것이며, 지금도 지상의 지옥 주관관 안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를 사 오던 날,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이러하다. 그 개를 표상으로 생각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수백 번 감사하면서 “주님, 살았으니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다 사 오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영이 사망에서 죽지 않고 산 것임을 알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고,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집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을 주님이 그 피로 사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면 주님의 것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마귀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을 보고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 몸을 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으니 절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알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이것을 제1순위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빨래할 때 꼭 비누를 사용해야 하듯이 꼭 알아야 됩니다. 전화할 때 전화번호를 먼저 알아야 하듯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 자라면 주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생명의 일과 구원의 일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잘 알면서, 그 귀한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서 깨끗이 청산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고와 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도하면 아픈자가 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에 그 대가를 지불한 공로로 낫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더욱 깨닫고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더 잘 나올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자들아! 신앙의 병이 든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으니 모두 나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주님이 모든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사야 53장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같이 주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몸이 된 자들은 어느 시대 누구든지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주고 산 자들의 몸을 가지고 그 시대와 그 시대 생명들을 살리십니다.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을 더욱 살리시려 항상 그같이 행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든지 형벌을 받으면, 의인도 죄인처럼 생각하며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섭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그 시대는 주님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도 이들이 죄값으로 형벌과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너희는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그 시대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대신 회개해 주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죄인 취급하면 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섭리사의 우리들끼리 죄 없는 자를 죄인같이 오해하고 취급하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참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면 죄인은 회개의 기회

를 얻고 살게 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모두 책임지고 받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죄인이 죄를 담당하지 못할 때 의인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으로 죄인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담당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멸망할까 함이었습니다.

형제를 살리거나 어떤 잘못이 있는 자를 살리려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마치 대신 빛을 갹아 주듯이 하면 그 대가로 그를 살리게 됩니다.

선생은 10대에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근본도 모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군대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수십 번이나 죽을 것인데 살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더욱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려다가 주님의 뜻과 심정을 모르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문턱에 갔습니다. 몰라서 그같이 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큰일을 해 보고 출세하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선생은 주님께 내 생각의 잘못을 진정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내 고향 월명동의 조상 때부터 살던 집을 부수고 다시 짓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월명동을 개발하는 일이었고,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같이 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줄이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같이 쓰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쓸모없는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고향으로 몰려들게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의 길로 오게 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는 뜻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같이 될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알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월명동을 개발하면서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면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바치니, 주님은 내 몸을 주님의 몸으로 더욱 쓰시기 위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며 전도하러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 것을 처음에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감동되어 알았습니다.

‘나를 감동시켜 데리고 다니시듯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안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직접 모시는 시대에 살았구나. 단지 이것이 다를 뿐이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성경의 4복음서를 읽게 하시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나도 주님과 같이 전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구나.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 행한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 아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내가 행하는 것

인가? 나는 공부도 못 하고 신학도 못 했으니 이같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확실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고 행하는 대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꿈에서나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면 이야기해 보세요. 각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더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해 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육계에서 만나지 않고 꿈에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영계에서 만나 자기 영이 말하기 때문에 생시에 말하듯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선생도 주님을 만나면 영계에서 만나니 육신이 물어보듯이 못 물어보았습니다.

앞날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므로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흔히 아시면서도 절대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되 어지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대해 주십니다. 절대 나쁘게 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좋게 대해 주시지만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나와 섭리사에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미리 알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올 때는 주님이 크고 좋게 행하실 것이 믿어집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믿어 주는 데 표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선생이 20대에 간혹 꿈으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월명동에 전기가 들어오고, 차들이 올라오고, 내게 면담할 사람이 끝이 안 보이게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보여 주었어도 실상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근본을 몰랐습니다. 믿음이란 희망입니다. 믿어도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 꿈의 현상대로 실제로 월명동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개발되니 그제야 ‘자연성전이 되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나니 그제야 ‘주님이 이같이 쓰셨구나. 아! 이래서 그동안 꿈으로 보여 주셨구나. 내가 세상으로 나가 출세하고 성공하여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혼을 내고 채찍질하시고 고통을 주셨구나. 정말로 잘못된 길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선생을 통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뜻을 좋은 일이 있어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행하고서 고통을 받고 손해가 간 후에 그제야 ‘이래서 못 가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미래에 얻을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대가입니다. 주님이 잘해 주실 것을 절대 믿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으로, 믿음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해 주신 것같이 희망의 날과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지금껏 정성을 쏟으며 돕고 역사해 오셨는데 오죽이나 잘 알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

선생은 공부하여 세상을 알고, 멋있게 꾸미고, 멋있게 웃도 입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달리 나를 이끄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시며 갖은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 누가 보아도 이해 못 하는 삶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산의 열매를 따 먹고, 그것도 없으면 칠편리를 캐 먹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거지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와서 사람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따분했습니다. 정말 막연했습니다. 정말 고독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원래 주님에 대해 배우려면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 같이 하시나?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식하여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전도사나 동네 선배들은 나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한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쳐다보시다가 그냥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집에 안 갔는지 주님이 확인하러 오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작은형이 산으로 나무하러 왔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던 굴에 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는 “큰사람이 되려면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며 한마디 해 주고 갔습니다.

정말로 곤고한 때였습니다. 가족들까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주님의 뜻인지 알 수도 없고, 몇 년 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니 주님께서 작은형을 보내어 힘내라고 한마디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작은형은 나에게 집에 가자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히려 큰사람이 되려면 큰 그릇이 되어야 큰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나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또 기도를 시작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작은형은 한 번도 그 굴에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내가 거기 있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혹시나.’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작은형은 “네 소원대로 해.” 하며 나를 격려해 주고 갔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같이 사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나를 보고 ‘모두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했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순간 약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보고 확실하게 잘한다고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속에 가서 짐승처럼 살면서 정말 모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내 육신을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나도 주님께 인생을 바쳤으니, 주님은 긴긴 세월 동안 나를 연단하고 가르쳐 주님의 육으로 쓰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하나 배운 말씀들을 주님은 도표로 그려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날같이 해 왔습니다. 나뿐 아니라 따르는 자들까지 주님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 주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역사를 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하여 선생의 삶을 확대시킨 섭리역사입니다. 모두 선생과 같이 주님의 몸이 되어 그가 원하시는 뜻을 시대에 맞게 펴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함께하리니 모두 끝까지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낙심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선생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것보다도 잘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주님도 나를 그들보다 더 크게 쓰셨고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쓰고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나를 돕는다고 했으나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생명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최우선으로 두면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작은 길로 가게 됩니다.

선생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기에 이같이 생명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한다고 하고 살린다고 한 자들은 면목 없으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옴을 충고했던 친구들과 같았습니다.

선생이 가는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인데 결국은 잘됩니다. 어떤 길은 좋은 길 같은데 결국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주님도 고난길을 가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시대 어느 누가 예수님의 역사가 이같이 될 줄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만 해도 영영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흠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감히 예측했습니까? 어느 누가 그 죽은 몸이 살아날 줄 알았습니까?

주님이 “나 죽은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했어도 믿은 자가 없었고, 살아 오셨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영인 줄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육이 영으로 부활하여 육신으로 영체같이 양단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보는 자가 영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다니셨고, 어느 때는 육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모두 잠깐은 혼돈스러워 했지만 주님의 육신이 영으로 부활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로 병행하여 행하니 신후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전도서7장14절).

주님이 영같이 행하시니 혼돈되고 몰랐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주님의 영이 부활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육신도 부활했다고 주님이 나로 말하니,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혼돈스러워 했으나 이제는 모두 믿고 따릅니다. 이제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도 다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생애 때보다 더 놀랍도록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는 몸이 풍선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들도 결국은 모두 이같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인성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그 정도만 알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처럼 나타나셨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 정도의 메시아로 알기도 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어떤 임금이 변장을 하고 한 시골로 갔더니, 사람들은 임금인 것을 모르고 한 농부로 보았습니다. 그 후에 왕이 변장한 것을 알고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임금이 사는 궁에 가서 보고는 백 배, 천 배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볼 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까지 보아야 됩니다.

지난 30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선생의 몸을 쓰고 일하시며 정말 누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더 크게 하려고 내 스스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하시고 여건을 틀어 나를 험착하고 험하고 고생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선생은 ‘나의 잘못으로 형벌 받는 길로 가나?’ 생각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은 여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벌길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길에도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하시며, 왜 그런지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시인케 하셨습니다.

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아라. 아벨에서부터 의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함을 받고 살았는지 보아라. 내 길을 따라오면 잘했어도 못 했어도 고통을 받는다. 끝까지 가야 영생길이다. 고통을 받고 가야 긴장되어 생명길을 감당하고, 따라오는 자들도 너와 같이 생명길로 가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하십니다. 이에 고통도 따릅니다.

새가 좋으면 기르는 자도 날려 보내지 않습니다. 전에 선생도 새를 길렀는데 그 새가 너무 좋아서 잘 대해주며 계속 길렀습니다. 그 새는 내가 말하면 늘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보았지요? 그 새의 종자는 ‘화매’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한번은 새장 문이 열려서 새가 없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서 까치에게 찾아오라고 하였더니 까치 세 마리가 멀리서 그 새를 찾아왔습니다. 신기하지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모두 믿어저요? 믿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 믿어야지요. 아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벌판에서 까치를 나로 명하여 “까치야, 너는 그 새를 아니 빨리 찾아 와라.” 했더니 그 말을 하고 30분 만에 그 새를 찾아다가 정원에 놓고 찾아왔습니다. 선생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보는 자들도 놀라서 “주여!” 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 봐요.

주님과 나의 길입니다. 선생이 온전히 가야 따르는 자들도 온전히 맘 놓고 가게 됩니다.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생은 지불이다. 앞날의 대가를 위해서 지불해야 된다. 앞날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생명길을 갈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필요한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받는다.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이 받는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산속에서 기도하고 많은 고통을 받으며 조건을 지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대가로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대가를 받았고, 후에는 천국에 가서 또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쓰니 크게 쓰이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길은 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대신 수십억 배 영원한 기쁨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니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는 말을 모두 잘 알겠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우선 보기에 편합니다.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자들은 생명길로 가는 자들을 조롱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과수원지기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잘 모릅니다. 황금벌판이 되어야 알고, 과수원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야 알게 됩니다. 그때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서 희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자랑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날에 큰일이 있으면 크게 조건을 세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낙심 말고, 의심 말고, 고통스럽다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못 할 것이 없으신 주께서 우리 몸을 주님의 몸으로 쓰시니 절대 헛되이 쓰지 않으시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10년이나 기다렸던 선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선생을 통해 말씀을 주시어 더욱 변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최고의 대가를 치려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이라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어떤 조건이든 세우게 하시어 모두가 완전한 생명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쓰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옥의 고통을 받고 갇은 고통을 받게 하시면서 스스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절대 지옥만은 안 가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내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옥만은 보낼 곳이 아니라고 시인케 하셨습니다. 지옥을 생각할 때 세상의 어떤 고통도 다 견딜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 더욱 근신하며 전적으로 생명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었으니 이같이 간절한 말이 나옵니다. 섭리사도 겪은 자만이 설교를 해야 심정의 불타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은 나무에 주는 퇴비와 같습니다. 선생은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사 모든 자들이 더욱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게 되어 더욱 사망권을 벗어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나간 후부터 모두들 정말 많이 변화되었고 정신들이 살아났습니다. 주님께 “새롭게 말씀이 나간 후부터 얼마나 살아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섭리사 생명들이 80% 이상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은 몸과 정신과 영들이 이제 80%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따지지 말고 말씀을 주는 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활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몸이 살아났어?” 하면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 자신의 영과 육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말씀을 까딱거리면서 전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육신 부활을 믿어야 자신들의 육신도, 정신도, 영도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번에 절대 믿어야 됩니다.

올해는 말씀을 듣고 절대 모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몸을 샀으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몸을 쓰듯이, 우리의 몸을 주님이 쓰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더 좋게 구원시키실 수 있고, 이 시대에 합당하게 써 주십니다.

주님의 몸이 된 자는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자기를 씁니다. 이는 마음이 거듭난 자이며, 행실이 거듭난 자이며,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살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몸을 사망권 사탄의 세계에서 피로 값을 주고 사 오셨으니 주님의 몸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신부된 육의 몸이 되어 날마다 온전히 귀하게 써야 됩니다. 헛된 세상으로 가서 자기 몸같이 쓰면 자꾸 사망권의 사탄의 주관을 받으며 손해만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쓰시면 깨끗이 쓰시고, 온전히 쓰시고, 가치 있게 쓰시고, 사랑으로 쓰시고, 긍휼과 화평의 몸으로 쓰시고, 주님의 몸을 세상에서 쓰셨듯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시키면서 쓰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헛된 시간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2010년대겠습니까? 2020년대겠습니까? 2030년대겠습니까?” 주님께 이같이 물으니,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안다.**” 하셨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때가 얼마나 귀중한 때인지 알고, 자기 몸을 자기 몸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사용했는데, 마지막 때마저 그같이 하면 나와 상관없이 끝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못하고 끝까지 못 가고 맙니다. 주님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여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말씀의 역사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섭리사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역사를 펴십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지키면서 성령을 받기 원해야 성령과 말씀을 뜨겁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내 몸은 주님의 몸이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있어야 산 영과 산 육이 됩니다.

주님이 사신 몸인데 세상의 몸으로 쓰면, 다시 사탄의 것으로 넘어가고 흑암의 세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시급히 준비하여 몸이 그 영과 함께 주님을 맞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에는 더 많은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더욱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을 맞도록 예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사고 나지 않고, 세상에 그 몸을 뺏기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 교역자들에게 - 교역자는 전체를 위해 쓸 공적 시간에 성경만 보고 자기 시간만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니 공적 시간은 전체를 위해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3일 주일말씀>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본 문 요한복음 6장 48절, 14장 6절, 14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0절, 20장 31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이 린다 선지자로 전한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나 정신 상태를 보면, 아무리 주님이 무섭게 숨넘어가는 소리를 했어도 그것을 듣고 시간이 가면 분 위기가 식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생명시하며 외쳤습니다. 왕 앞에서도 외치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외치고, 어떤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외쳤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당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고 했으나(다니엘 6:7),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했습니다. 결국 사자 굴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당시 왕이 명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 불에 넣는다고 했으나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 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불에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을 때는 요나처럼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하셨고, 회심하고 다시 하고야 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죽임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녔지만 끝내 자기를 해하는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도 그 시대 무지한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음으로 산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살았지만, 이기고 나와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뜻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담대히 외치면서, 어떠한 환난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결국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31개 왕을 다 물리치기까지 담대히 싸워 결국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절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보낸 사명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의 정신을 따라 세상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어도 절대 굴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세상이 가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뜻을 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들은 육신을 빼앗겨도 그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을 대항하고 괴롭히는 세상과 거기에 속한 자들의 육신은 끝나면 그 영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정신과 사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고 할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정신과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즉시 자르고 안 하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한 일인데도 자기의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못 고치고 계속 세상에 끌려 사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주님이 이 노래를 주셔서 20년 이상 불러 왔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모두 불러 봐요.

주님이 그같이 가사를 주시고 **“나를 따르려면 그같이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두 선생의 정신을 따라 그같이 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주님도 역사하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섭리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먹고 마시고 이성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선생도 다른 전우들과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같은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섭리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만나면 항상 죽인다,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나보다 먼저 죽고 사망길로 가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사망길입니다.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정신이 죽은 자는 행실도 죽은 자입니다. 섭리의 정신,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의 정신, 선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기고 물리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외칠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을 받아 전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엄청난 연단과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께 받은 말씀을 뼈저리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각종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감히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린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겠습니다.

1. 『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경고한다.』 하셨습니다.

- 린다를 통해 말씀하신 계시는 **‘재림에 대한 급절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급절한 계시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주의를 준다는 말입니다. 경고했을 때 안 하면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고는 ‘마지막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선생을 통해 경고를 준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선생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고’란 너무 무서운 말임을 알았습니다.

경고하기 전에는 여러 번 말해 줍니다. 그러다가 경고를 줍니다. 경고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자신이 돌이키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2. 『너희는 내가 몇 개월 안에 오리라는 나의 의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 이는 **‘약속대로 계시하러 왔다.’** 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이것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구를 뒤집어 놓더라도 내 말은 이룬다.”**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3. 『천국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외친다.』 하셨습니다.

- **‘주님 편이 준비되었으니 실행한다.’** 함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장이 다 준비되면 곧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올 손님들을 더 기다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더 기다리다가는 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하늘 준비가 되었으니 뜻하신 바를 시작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맞을 준비는 안 하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이것이 지나면 더 이상 지연은 없을 것이다. 나의 자비와 긍휼이 짧은 시간을 연장했다.』 하셨습니다.

- 특히 린다를 통해 경고하신 때부터 **‘짧은 시간’에 들어갔음을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시는지, 그 의도를 여러 가지 이치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연장해도 특별히 더 올 자가 없다.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계속 말해도 안 듣는다. 차라리 준비된 자들을 데리고 천국 시간에 늦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해 가면서까지 긍휼은 없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안나 수녀에게 수차례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같이 하셨습니까?”

그같이 묻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한 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흙탕물에서 놀면 나오라고 한다. 그래도 안 나오면 계속 나오라고 말한다. 지구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들도 내가 말했는데도 계속 사망권에 살고 있으니 반복하여 말했노라.”

5. 『너희는 준비되는 순간에 서 있어라.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림 직전, 재림의 순간, 재림의 끝부분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6.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인터넷 등 여러 가지로 접한 후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단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나의 신부가 아니다. 휴거되지 못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신부로 삼지 않으십니다.

섭리 안에서도 정말 쓸데없는 소문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정말 경고한다.”**고 하셨습니다.

7. 『증오와 악의의 마음을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 **‘증오와 악의를 품는 자들은 나의 신부가 아니다.’** 함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갖추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증오와 악의를 품을 수 있으니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악의가 없어야 됩니다. 증오와 악의는 폭탄입니다.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례> 90년대 중반에 선생이 미국 순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호신용으로 누구나 어느 총이든지 소지할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절대 총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 자만 따라오게 하도록 주님은 선생을 통해 명하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미국에서 총알을 열발 이상 장전 되는 공격살상용 총기를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조건을 세우니 이루어졌습니다.

증오와 악의는 자신이 품는 것입니다. 고로 자신이 알고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선생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한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나에게 폭탄을 던지고, 내 앞에 폭탄을 매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 물으니 **“악한 자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은 곧 폭탄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8. 『깊은 슬픔으로 회개하여 너희를 구하고 모든 악에 대한 나의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 **‘진정한 회개를 하여라. 죄를 분통히 여기며 자복하라.’** 함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깊은 회개를 하면 눈물과 슬픔이 복받쳐 솟아납니다. 회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신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 ‘기도하라’ 노래를 모두 불러 보세요. (이번에 작곡하신 곡)

9.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 이는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한 몸이 될 신부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고 자격이 없다.’ 함입니다.

만일 선생이 섭리사의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와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으므로 그 주관권 속에서 나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사랑 실천’은 절대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은혜가 차고 넘쳐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10.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해야 그 심정을 영원히 알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미워함으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사망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빛에 속한 자가 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11.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떠나지 않고 그것으로 올라미를 삼고 끌고 갑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풀어야 됩니다.

12.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각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정말 행해 보아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같이 살아야 주님과 일체 됩니다. 주님의 자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강도(強度)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용서했는데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자만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13. 『잃어버린 자, 상처 입은 자, 고통 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으시니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동안 깊이 기도하며 그같이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같이 못 하는 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14.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의 용서를 통해 죄를 씻음 받고 회개 해 주도록 내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육신이 되어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15.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과 다른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을 제1순위에 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변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TV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선생은 1분도 안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 시간을 빼앗기면 주님을 빼앗깁니다. TV를 안 보니까 또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까짓 것도 못 지키면서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TV에 중독된 자들은 즉시 고쳐야 됩니다.

지옥은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갑니다. 지옥은 생활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십니다. 받는 자 외에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있는데 그를 쳐다보지 않고 TV만 쳐다보고 그것에 중독까지 되면 사랑하는 자를 물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니 애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 정신이 정상이 아니니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정말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맞지 못합니다. TV뿐 아니라 삶 속의 여러 가지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 자들도 많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듯이 다 끊어야 됩니다.

TV를 보니 시험에 들게 됩니다. 폭력적인 것들과 자극적인 것들로 인하여 정신과 사상을 버립니다. 수준 낮은 것들을 취하러 보고 있습니까? 영계를 보고 살아야지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보면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이 가고, 듣는 대로 생각이 돌아 갑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렘 1:13-15) 『[13]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육체를 따라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이성으로 타락되어 육적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주님의 신부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17. 『나의 진실한 사역을 중상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을 돌아보아요. 선생이 한국에 없었을 때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를 시켜 일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사명을 받은 자도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니 말을 안 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 고쳐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고쳐 버려야 됩니다.

각 개인, 교회, 이 시대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 주님은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 『세상 것을 즐기고 탐닉하는 데 늦게까지 머물며 나를 마지막에 두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즐기고 탐닉하는 데 빠져 주님을 마지막에 두는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될 자격자들과 그렇게 휴거되지 못할 자들의 명단을 다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19.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신부로 삼을 수 없다.’ 함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신부의 자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완벽해야 됩니다. 세상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냥 택하기에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같이 살다가도 싸우고 서로 미워하여 원수까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괜히 결혼했네.’ 하면서 이혼까지 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아예 완벽한 자만 뽑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관심사들을 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기에 그 나라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신부라면 드레스를 입고 갖춰야 되듯이,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늘나라의 행실을 갖춰야 됩니다.

20. 『다른 사람을 색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탐하거나 질투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정욕으로 흘러가 이성애에 빠져 사는 자들과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 질투하는 자는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 상실인 자입니다.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질투하는 자를 주님이 보여 주셔서 영계에서 보니, 한 여자가 있는데 그 가슴은 썩어 들어갔고 거기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성경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잠 14: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기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받은 복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21.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실천해 봐야 알게 됩니다. 항상 주님 것 먼저 챙기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 먼저 하다 보면 자기 시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세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해 봐야 압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후에 밥 먹고, 기도를 먼저 한 후에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편지가 와도 주님 먼저 보시게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의 의중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의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하늘까지 달는 나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 봐요. 다니엘서를 보면 왕을 말합니다.(단 4:10-

22.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돌은 주님이라는 반석을 말합니다.

“나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자로서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을 몰라보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고 행해야 됩니다. 한번 그 같이 살아 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그같이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나의 신부다.”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람을 중심하지 말고 주님을 중심하고 선생을 중심하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어 보지 않고, ‘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월권을 행하는 자는 사명이 바뀌게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생은 20대부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칭송하고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말씀을 잘하신다고 했고, 지구 세상 사람을 다 합쳐도 주님의 생각을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안나 수녀의 저서를 통해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미 20대에 주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주님과 살아 봐야 합니다.

섭리사 사람들도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내 심정도 모릅니다. 섭리사에서 나를 최고로 많이 위로해 주고 편지해 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하긴 해도 내게 해가 되는 편지이거나, 보고 편지이거나, 자기 안타까운 내용의 편지들뿐이었습니다. 고로 편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제자는 365일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내게 편지 쓰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지하지 말라고 광고했는데도 그는 내 심정을 꿰뚫어 알고 행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사람 찾는 기준을 두셨고, 또 그런 자에게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선생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못 해 준 것은 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면회 왔다가 간 후에 거의 편지 한 장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늘 신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들도 범석 목사만 꾸준히 편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 편지는 1년이 넘도록 한 통 정도씩만 받아 보았습니다.

선생이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편지를 보낸 줄 알아요? 내 편지를 안 받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월명동에 가 보면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같이 한 것입니다.

편지를 해도 인사치레로 하고, 보고가 있으니 하고, 선생을 부르는 호칭도 모르고 골치 아프게 문제 되게 쓰니 오히려 내게 해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적어도 내게 꾸준히 편지해 준 자가 30여 명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500명 이상이 되는데 30명도 없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를 외롭게 하여 연단시키셨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신앙의 표준을 말해 준다. 네 심정같이 내 심정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말해 주는 것입니다. 편지가 와도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만 늘 써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야 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을 용서하듯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서 주님께 위로받고 살았습니다. 내게 편지 못 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림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 『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심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명입니다. 성경말씀만 계명이 아닙니다. “나의 말씀은 다 성경 같이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3. 『회개하라.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서 온다.』 하셨습니다.

음식도 더러우면 그것을 먹었을 때 병이 생깁니다. 더러운 사람과는 같이 살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은 시체같이 장사 지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영계에서 보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4. 『아주 속히 올 것임을 경고한다. 이때, 곧 나의 은혜의 때에 너희들이 깨끗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급속히 지나간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때 정말로 꼭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은 그동안 주일과 수요 단상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섭리사처럼 내가 많은 말씀을 해 주는 곳은 세계적으로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도 여러 각도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보여 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계시로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그 날과 그 시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림을 앞에 놓고 이같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래도 못 하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선생은 육계와 영계의 지옥을 2년 동안 극도로 체험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지옥만 안 가면 천국’이라고 단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지옥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정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섭리 사람들을 보시고 “70% 이상이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지옥이 무섭다고만 생각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면 그 세계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길이 지옥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안 지키는 편한 길이 지옥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고통이 따르나 반드시 생명길로 갑니다.

주님은 나로 지옥을 겪게 하신 후에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선생이 이 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동안 이 같은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고 나는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섭리사 모든 자들이 생명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섭리 사람들에게 “그같이 살면 지옥으로 간다고 경고한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진실로 근신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25.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별로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계를 보시고 “자신을 깨끗이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각자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경고의 말씀과 주님 선지자로 말한 것을 보고 듣고도 많은 자들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준비하는 자들이나 어서 열심히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요? 세상 쪽을 향해서는 더 어려운 것도 이긴 자들이 왜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못 하겠다고 합니까?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26. 『재림을 앞두고 내가 온다고 한 경고가 부족해서 모두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연기하는 시한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해 보면 저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놓고 항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시간에 착오가 많습니다. 그런 자는 재림 때도 그와 같습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나를 빼앗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네게 갔다가도 그냥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은 마치 결혼하는 남녀와 같습니다. “결혼하는 자들은 보통 때와 전혀 다르게 준비한다. 이와 같이 나의 재림을 맞을 너희들도 보통 때와는 전혀 달리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시니 신앙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로 신앙의 잠을 자게 되고, 세상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전에 보여 준 것을 생각하며 믿음 위에서 계속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생이 안 보여도 계속해야 됩니다. 가다가 말씀이 없어도 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속하여 행해야 됩니다. 선생이 안 보일수록 주님은 더욱 가까이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다.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쓰고 그날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고는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들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못 지켜도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7. 『나는 너희 아버지 야훼이며 여호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하셨습니다.

-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자인지 제대로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듯이 행한다. 상천하지의 통치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 권능과 권세를 알아주지 않으니 ‘알고 살아라.’ 함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삼위의 존재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아주 큰사람도 사정을 하면서 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끝났을 때는 대하는 것이 달라 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랄 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다르고, 그때가 지나고 끝나 버렸을 때 대해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전지전능하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호랑이를 고양이 보듯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죽어지내십니다. 사정하십니다. 주님이 하찮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추한 집까지 찾아다니실 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신답니다. 사람도 한 번 손 떼면 미련도 없이 끝내 버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 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 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길어야 10년, 15년, 20년입니다. 길어야 일평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셨을 때처럼 사람들이 또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믿는 자들도 주님을 맨 뒷전에 놓고 살기에 주님은 그 심정의 고통을 이천년이나 받아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못 받겠다.」고 안나 수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가 내가 이같이 고통 받는 것을 알겠느냐. 너희를 구원시켜야 하겠느냐.」 하시며 속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들로 인한 고통을 다 받고 산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수들의 손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마귀가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생활 속에서 그저 육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 행해야 됩니다. 매일 매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잠 언>

1. 번개처럼 생각하고 총알같이 행동할 시대다.

2. 시간이 밀리면 일이 밀린다.

3. 제때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4. 시간을 다스려야 행동을 다스린다.

5. 시간 뺏긴 자는 실패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 5월 6일 수요말씀>

정말 시간을 아껴라

본 문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밀리면 일이 밀린다. 일이 밀리면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리고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매시간 나에게 일이 오는데 그때마다 맞춰서 하지 못하니 내 앞에 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쌓이니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는 기술자가 와서 밀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는 ‘주님’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아껴 써라.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마라.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적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생활 속에서 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15세 때, 세상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시간을 쓰도록 나를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에서 20년 가까이 오직 하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썼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같이 하였기에 주님께 대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군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군에 가서 베트남으로 파병이 되어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격게 하시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이 함께하심을 실전 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실 때 내가 있는 곳에 얼마나 큰 영향과 혜택이 있는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격게 하셨습니다. 앞날을 위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달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두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겠지?’ 생각하고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주님의 근본 뜻을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일생 동안 그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도 주님은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기반으로 하여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체를 보고 행하시고, 앞날을 보고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와 같이 그러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이같이 하겠다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할지라도, 실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선생이 깨달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둔 삶이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선생을 위한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지 않고 한 일은 거의 다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보시고 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한다고 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님은 나를 다른 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구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선생을 위해서 일했지만 내게 묻지 않고 했으면 헛수고한 자가 되고, 헛돈을 쓴 자가 됩니다.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행했어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한 일이지만, 실상 주님이 행하신다면 절대 그같이 안 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항상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 주려면 반드시 그에게 묻고 말해 주면서, 그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선생의 10~20대의 시간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시간’, 청중이 있어도 ‘시간’입니다. 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황금이 냇가로 떠내려 와서 내 앞에 있다고 해도 시간이 없으면 주우려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시간이 없으면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 자기 애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만 것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아껴라. 제발 필요 없는 곳에 시간을 쓰지 마라. 먹는 데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옷 입는 데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자기를 위해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와 네 영을 위해 시간을 써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위해 쓴다.’는 말은 전도하는 데, 기도하는 데, 생명을 관리하는 데, 성경을 읽는 데, 선한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쓰는 것이 육신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한 시간만 시간을 썼는데도 자기 육신을 위해 열 시간을 쓴 것보다 수십만 배 유익이 됩니다. 이는 영원한 유익입니다.

인생은 먹든지, 입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존재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인간은 영체가 아니

고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울을 통해 말한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고, 영을 위해서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라.」고 한 말을 깨닫고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생은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육신이 존재할 만큼만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두 끼를 간단히 먹고, 존재할 만큼 운동합니다. 운동하면서도 운동만 하지 않고 감사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천 번, 이천 번 이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이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픈 것이 생각나면 꼭 주님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써서 보내 주면 주님께 가장 먼저 올린 후에 아픈 것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너무 아깝지만 존재하려면 조금이라도 잘 수밖에 없으니 잠을 자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같이 나도 잠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영에게 말씀해 놓으시면, 내가 잠을 깨었을 때 마치 컴퓨터를 열어 보듯이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잠만 자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잠도 깨워 주시고, 꿈에 내 영과 말씀하시면서 내 영과 내 정신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입력시켜 놓으십니다. 그러니 잠을 자면 육적인 피곤이 풀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영적으로 쓰게 됩니다.

먹을 때도 주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10분, 15분, 30분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잠언도 써 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기도시간에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이 운동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잠은 잠대로 자면서 꿈에서 주님께 배우고, 먹을 때도 먹기만 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도 밥만 먹지 말고 서로 대화하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고 경고한 말씀을 잘 들어라. 너희가 행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다. 시간만 많으면 그래도 할 수 있건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들을 행하는 것에 몰두하며 모든 시간을 써야 된다. 육신이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도 그 육신 자체가 나의 몸이 되어 살면서 시간을 써야 내가 말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고로 선생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말해 준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필요 없는, 썩는 시간들을 보내는 자가 많고 시간이 남아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분만 성경을 읽어도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주님은 내게 성경을 한 장, 두 장씩 찢어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와 길가에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집에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라. 생활 속에서 수시로 읽어야 된다. 읽되 장수만 넘기지 마라. 많이 읽는 것보다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루에 몇 가지, 혹은 한두 가지의 사건을 꼭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거지 나사로 비유 등 하나라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날 때는 많이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많이 본다고 해서 다 머리와 마음속에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수시로 읽으면서 한두 사건씩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써라.’는 말에 대해서 핵심을 설명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짧은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 제일 먼저 그 시간에 기도하여라. 청산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된다. 회개했으면, 생활 가운데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신하며 생활하여라. 회개는 말로 하되 간절히 깊은 슬픔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행함으로 주님과 일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사랑하는 자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으로만 끝나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하면 죄, 하면 의다.” 하셨습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대로 행해야 공적이 되고 의가 됩니다.

‘시간의 승리는 곧 인생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시간에 실패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도 오셨다가 그냥 가십니다.

선생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주님께 받는 말씀이 다르고, 2시에 일어나서 받는 말씀이 다르고, 3시에 일어나서 받는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모두 해 봐요. 선생의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모두 각자 행해 봐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생은 이론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보다 실천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은 ‘마귀 철학’이라고 선생은 규정짓습니다.

주님은 나를 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 그 시간에 못 하면 못 한다.’고 주님은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날 새벽예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낮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이다. 시간 밀리지 않게 반드시 새벽 시간을 빼앗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역사하실 일은 꼭 새벽에 행하십니다. 낮에 역사하실 일은 낮에 행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목숨 걸고 행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 매일 철저히 내가 말한 것만이라도 꼭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들은 시간 낭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셨다가 그냥 가십니다.

주님께 충분한 시간을 내놓고 있어야 주님이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고 가십니다.

‘시간이 밀리면 일이 밀린다. 일이 밀리면 결국 못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단이나 각 교회 책임자들, 모두 할 일이 밀리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신앙 안에서 결정한다 해도, 자기 생각과 선생의 생각은 다르고 주님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선생도 시간을 충분히 내어 행하도록 주께서 나를 이 좁은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모두 검토하러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 모든 자들에게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의 평강을 빕니다. 안녕히 가세요~

<2009년 5월 10일 주일말씀>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본 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 편 141편 3절

시 편 34편 13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결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운명이 좌우되는지 깨우쳐 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동의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결정되게 하니, 아무리 좋아도 절대 불의에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준다고 하십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안나 수녀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온 세계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지옥이 좋아서 동의하여 가느냐?’ 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자신들이 허락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지옥이 좋아서 허락하여 가겠습니까? 허락지 않으면 정말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네!) 그럼 지옥은 안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해석하여 들어 보겠습니다.

‘지옥을 허락한다. 지옥에 동의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들어 보겠습니다.

“너 지옥에 갈래?”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제가 미쳤어요? 지옥에 가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 불법을 자기 마음에 허락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또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마귀의 법을 생활 속에서 잘 행합니다. 고로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참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 받는 것은 참고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예 참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비유1) 한 가정의 있는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자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교회에 다니니까 못 다니게 했습니다. 자녀는 그래도 다녔습니다.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마. 믿으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거든 그때 믿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녀는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자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동의하고 허락했기에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비유2) 교회에 안 다니는 어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보니 교회에 가더라. 내가 진짜 내 가는 곳에 데려갈 것을 그랬다. 나와 같이 절에 가자. 우리 가문의 종교는 불교다. 이제 교회에 가지 마. 하나님은 석가를 보내어 구원하기도 하시고,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기도 하신다. 집안이 불교이니 너도 불교도가 되면 마음이 불같아진다.”

이에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슴이 뜨거워요. 불교도가 되면 불 속에 가요.”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자간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안 줄 것이다.” 했습니다. 아들은 “네, 좋아요.” 하며, 결국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허락했으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범했기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동의해서 지옥에 가고, 동의하지 않아서 지옥에 안 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지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이 좋아 허락하여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동의하고 허락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누구든지 세상만사 모든 것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허락되어 행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행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법에 걸리면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마음에 동의하여 기뻐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법에 벗어난 것이면 죄가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실상 자기가 좋아서 동의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또 말씀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자신의 마음이 동의하고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좋다고 마음이 동의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동의하여 행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이므로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들이면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의 삶이든지, 이성의 사랑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실상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깨우쳐 주지 않아도 지옥에 가면 알게 됩니다.

이같이 지옥으로 가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구세주이니 절대 주님을 믿고, 물랐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벗어나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도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행하면 가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행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성질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말을 하는 것, 악평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비판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것,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 전도하기 싫어하는 것, 생명을 관리하기 싫어하거나 관리받기 싫어하는 것, 싸움하고 욕하는 것, 찬양하기 싫어하는 것 등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마치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아서 쉽게 회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비방하고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막는 자는 주님을 거역하고 신성을 모독한 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회개가 됩니다.

“육적으로 자기 마음이 상해서 심리에 따라 행한 것이 실상 죄가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주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아도 동의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지옥은 절대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지요?

이같이 자세히 풀어 말씀을 들어 보니, 단순히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요? 꼭 이 말씀을 생명시하고 생활 속에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대개 동의합니다. 지옥에 갈 행위인데 자기가 동의하고 좋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로 인하여 인생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철저히 말씀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허락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힘든 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쉬운 지옥의 법을 지켜 삽니다. 지옥의 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믿기만 하지,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 삽니다. 실상 주님을 떠난 죽은 신앙의 삶입니다.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 허락하여 행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 정말 섬뜩하지 않아요? 이것을 꼭 알고 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기에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허락하여 지옥에 간다.’는 말만 들으면,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지옥이 좋아서 그곳을 허락하여 가겠느냐?” 할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갈 사람 하나도 없겠다.” 할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임을 꼭 알아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라면 행하면 안 된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어라.” 하셨습니다.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선생도 10~20대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아예 세상을 안 보다시피 하고 피해 버렸습니다. 그 후 산에서 내려와서도 세상 것을 접하지 않고 TV도 아예 안 보았습니다. 그때 영안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 배우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TV는 1분도 안 봅니다.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이 귀한 시대에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생명 구원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옥은 자기가 좋아서 허락하여서 가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마음에서 허락하고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좋아해서 자기 마음이 허락하여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됩니다. 고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맞지요? 만일 자기가 싫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섬기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달았지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이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한다면 ‘자기가 허락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일을 자기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허락지 않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안나 수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려우니 주님께 해석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같이 깨닫게 해 주시며 그 실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매일 수많은 자들이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모두 자기가 좋아서 동의하여 행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깊고 깊은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행하여 그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99%를 모르고 삽니다.

선생은 주님께 배우면서 ‘인생은 무지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배우고 가르쳐 줄 테니 여러분들은 배우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갈 일을 허락하고 행하였기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떠나 행하는 자만 지옥에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서 행한 자들이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뜻을 벗어나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은 주님을 떠나서 행한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행위는 살았다 하나 죽은 행위다. 사탄 주관권의 행위다. 사망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계 3:1)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주님은 “내 말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심을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생명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믿으면 의로운 자 취급을 받고,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행실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의를 행해야 영도 같이 의를 행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영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쉽게 볼 수 없고 영의 마음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의 마음을 통해 자기 영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행실을 통해 자기 영의 행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은 보이는 제2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습니다. 감사함으로 헌금도 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에서 살 때도 자기의 육신이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의 법을 좇아서 행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서, 그 육신을 가지고는 자기중심 하여 먹기 위해, 입기 위해, 자기 위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도 했으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그대로 주님을 최우선에 놓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개 지구상에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행위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중심한 세상살이를 합니다. 이를 보고 주님은 **“나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지 않는구나.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자기가 좋아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활을 생각해 봐요.

유럽의 기독교국들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선진 문화를 빛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말임.) 성당도 걸을 금으로 칠해 놓아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하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지켜보니 겉과 달랐습니다. 겉은 금칠을 했으나 속은 철이었습니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양각색으로 사는 자들과 몇 달씩 같이 지내보았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혹은 늘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주님의 향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지극히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누가 보아도 신앙이 죽어 있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몸이 아니냐. 가정에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묶여 살고 죽음의 삶이듯 종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살았습니다. 미사나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하고, 혹은 부활절에 한번 교회에 나가고, 혹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성당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정도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자유주의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 이성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운동을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 뜨겁게 말하는 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안나 수녀를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뿐 아니라 성직자들도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적하시며, 그 같은 행위는 부패한 것으로서 사탄이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국의 젊은이들은 자기들 조상 때부터 주님을 믿어 온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따집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정도 밖에 안 되었고, 개신교 역사는 더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실상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주님의 심정도 마음도 근본도 몰랐고, 영의 세계도 하나의 환상적인 세계와 꿈에 불과한 세계로 알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아도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술과 담배가 주를 이루고, 이성과 오랜 시간 동안 어울리고 노는 것이 일상이 된 삶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있는 성당과 교회에 많이 나가 보았지만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독교의 왕국으로서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생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불붙이기 위해 여러 번 복음을 전했으나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가 잘 안 되었습니다.

주님이 안나 수녀를 통해 말씀하시어 발간된 책 ‘성스러운 호소’에서도 주님은 애태우시면서 부패된 신앙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국들이나 미국이나 실제로 가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죽어 있었습니다. 기독교국이라고 해서 갔다가 정말 대 실망을 했습니다.

섭리적으로 오히려 아시아 쪽이 훨씬 더 주님을 잘 믿고 잘 받아들였고, 주님을 신랑같이 믿었습니다. 고로 선생이 주님을 신랑같이 믿고 살아온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넣어 주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낄느냐?’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잘되는 나라를 중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함으로 사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실상 사망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 구원까지 상실 되고 맙니다.

섭리의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민족 사람들이 전도 하고 시대 말씀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 나라 사명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잘되는 나라는 국제선교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허락하고 동의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변화되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유대인들을 보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외식하느냐. 왜 형식으로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도 어찌하여 말만 하고 행치 않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집을 짓는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마음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망상의 생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행하면 고통도 받지 만 얻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존재시키게 됩니다.**

주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고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으로 믿기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려면 고통스러우니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삶 속에서도 육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몸부림과 고통 중에 얻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보아도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으로 갑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 생각대로 육적으로 세상으로 행하면, 지금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옥은 자기가 허락해서 간다. 허락지 않으면 안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잘 들어라.”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여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은 매일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정이 타서 슬퍼하시며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여 지옥에 가는지 한마디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동의하고 허락하여 행한 것으로 인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하여 무기처럼 쓰고 살아야 사탄의 유혹과 고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만 번씩 설교를 들어야 생명길을 가겠습니까? 이제는 설교를 그만 들어도 왜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도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의 나라 지옥에 가서 사는데, 왜 계속 자기 좋아하는 대로 육적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선생은 10대에 주님께 한 번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선생은 섭리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2만 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렬한 말씀을 전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놀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무서워하는지 압니까? 말씀이 없으면 환난도 시험도 못 이깁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선생에게서 편지를 받으면 이기지요? 꿈에 예수님이나 선생이 나타나 말하면 이기지요? 고로 주님은 선생을 쓰고 잘 나타나십니다.

선생은 꼭 주님께 기도합니다. 힘든 자들이 있어도 내게 편지나 말로 잘 전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니 꼭 그들의 꿈속이나 환상으로 나타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꿈에서 말씀을 듣거나, 주님이나 선생이 나타나 말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와 같이 단상의 말씀도 주님이 주시어 전하니,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만은 꼭 전해 주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세요. 그 시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산 영이 됩니다.

‘지옥은 자기가 허락지 않으면 안 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법인 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천국에 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에는 한 명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는 자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면서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환난과 어떤 억울함도 참고 이겨야 천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받더라도 지옥의 10일 고통도 안됩니다.

지옥은 새파란 풀무 불로 된 곳이 자기 방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거기에 앉아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불에 데는 즉시 살이 지글지글 타고 뼈만 남습니다. 지옥의 악마들이 풀무 불을 더 뜨겁게 하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정말로 이를 갈면서 갇은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지릅니다.

지옥의 악마들은 세상의 악인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들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온 영혼들에게 고통을 주며 그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과 자비의 주님으로만 보지 말아요. 주님이 손 때시면 곧 딴 세

상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꼭 잡고 계시면 지옥에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주님이 도와십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애태우시며 지옥에 못 가도록 하시는데도 인생들은 지옥에 갈까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살 때 그 영혼들을 꺾어서 지옥에 데려다 놓고 갖은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위로 꺾어서 세상에서 그같이 하게 해 놓고서 지옥에 데려다 놓고는 ‘네가 한 것’이라고 꺾꺾대고 웃으면서 각종 고통을 줍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천적입니다.

주님도 “**그 악마들의 말은 듣고 행하면서, 어찌 너를 구원할 메시아인 내 말은 듣고도 행하지 않았느냐.**” 하고 탄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힘들기에 듣고도 행하지 않으며, 악마의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에 잘 행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좋아 허락하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과 악마들의 말과 그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악마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야비하고 교활한 줄 압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한 줄 압니까? 허리 위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를 땅에 탁탁 치면서 제 세상인 척, 제 사람인 척 온갖 잘난 척을 다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 영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로 악마의 목을 쳐 버렸습니다. “이 천적 악마야, 너는 10억 마디의 말마다 다 거짓이다. 지옥의 저주의 영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라졌습니다. 한번은 주먹으로 마귀의 얼굴을 멍이 들도록 때렸더니 사라졌습니다.

사탄을 경멸하고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들을 죄인이라 규정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악한 자들에게 들어서 의인이신 주님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악한 자라고 한다.”고 하며 완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100% 거짓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자이신 예수님께 “너는 창녀들과 살았다.”고 했습니다. 실상 그 말을 하는 자들이 창녀들과 산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러하니 예수님도 그같이 본 것입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요, 마귀들의 주관을 받고 행한 자들입니다.

그같이 행한 자들은 결국 자기에게서 마귀를 떼어 내지 못하고 사탄의 나라인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을 경멸하고 하나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이 좋아하는 것을 조금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은 악마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괴악한 짓들을 보고 분개하시며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에게 지옥을 보여 주시고 지옥에 관한 책을 쓰게 하여 온 세상에 악마들이 하는 짓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계에 갔다 온 자들이 지옥을 보고 온 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지요? 성리인들에게도 주님은 순간순간 지옥을 보여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쉽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가 많고도 많습니다. 제 맘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은 결국 다 지옥으로 간다.”고 주님은 영계에 대한 책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사명자들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고로 주님은 재림 전에 특별히 마귀를 멸시하라고 지옥론을 써서 보게 하셨습니다. 글만 봐도 놀라는데 직접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귀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 들통 났습니다. 야비한 짓, 더러운 짓, 영원히 저주를 받을 짓을 행하는 마귀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자비의 존재자시라 마귀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로 값을 주고 귀하게 산 자들을 꺾어 사망으로 끌고 가니 안타까워서, 모두 그 행위를 알라고 책으로 쓰게 하여 모두 보게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때,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과 마귀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은 좋은 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면 당장 고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주님의 법을 지켜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환난, 고통, 억울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좁은 생명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고생되어도 나를 따라 생명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너도 구원길로 간다. 너를 따르는 자들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 생명길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에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지옥은 세상에서 천국같이 제 마음대로 살다가 쉽게 가는 곳이다.”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생이 지옥의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런 때 말씀을 깊이 듣고 사망권에서 완전히 나와 생명권의 삶을 살도록 힘써 행해야 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라.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고 살아요.

한번은 어떤 제자가 선생에게 선물을 사 준다고 하기에 “나는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여 번 돈으로 사 준 선물은 안 받는다. 그 돈으로 현금도 하지 마.” 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큰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나 선생에게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계시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때마다 깊은 계시를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 것과 명예만 큰 것으로 알지 말아요. 주님의 계시, 곧 생명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힘과 능력입니다. 지금은 특히 주께서 이 시대에 계시해 주신 말씀이 생명같이 귀한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희망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전쟁터에서 총과 무기 없이 전쟁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사탄도 무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귀들은 칼도 가지고 다니고 흉기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19절까지 봉독할 테니 모두 잘 들어 보세요.

(엡 6:10-19)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세상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천국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꿈에서 자기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지 보세요. 성경말씀대로입니다. 꿈에서 죄 보따리만 메고 다니면 되겠어요? 꼭 기도하고 보여달라고 해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5월 13일 수요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본 문 마태복음 13장 39-42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일에는 ‘자기가 허락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 주어 모두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불법에 동의하여 말하고 행한 것으로 인하여 실상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항상 매일 생활 가운데 이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동의하고 행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혈기를 내는 것, 불의에 가담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같이 자기가 동의하고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로 이 말씀을 철저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겨야만 지옥에 가는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자기가 허락하고 동의하여 불법을 행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철저히 불의한 일을 허락하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자기가 동의하여 행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좋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동의하여 행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혈기로 인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가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분 내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항상 네 문턱에 있으리라. 네가 죄를 다스리면 죄를 짓지 않게 되거니와,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리라.” 하십니다.

둘째, 무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여 죄를 짓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죄지을 것도 안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고, 인간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셨느냐.”고 합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을 안 주면 의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사망길인 줄도 모르고, 생명길로 가는 것인 지도 몰라서 더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이 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생명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의 법을 지킴으로 영생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법도, 주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법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시 19:7-10) 『[7]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 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하게 삽니다. 이로써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를 죽은 후에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게도 법을 주어 그것을 지킴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법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불신하거나 구원받을 자로서의 책임을 못 했을 때는 본래 뜻인 영광의 섭리를 펴지 못하시고 고난의 뜻으로 섭리하시며 구원역사를 펴십니다. 이를 모르면 고난의 길은 뜻이 아니라고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자를 위해 어떻게 하는데, 그가 알지 못하고 막으면 고통을 받으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이미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졌을 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 자는 어느 시대든지 주님처럼 그 시대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속죄시키는 조건을 세워 줍니다. 믿고 따라온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못 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그 시대는 짓값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책임을 못 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짓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짓값을 받았고, 그 자손들도 계속 짓값을 받아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책임을 못 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1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고통을 받았고, 다섯 달 동안 그 좁은 방주 안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의인도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안 믿는 자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를 믿으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해도 자기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므로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라.(마 13:41-42)』

축소시켜 볼 때, 개인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거나 불신하면 위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 주님의 선고는 곧 민족의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신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을 갔을지라도 불신한 민족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축소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 시대가 사명을 못 하고 불신하여 고난길을 가지만, 인자를 판 너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결국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낸 자나 주님이 보낸 자를 시대가 몰라서 고통을 주면, 그 시대와 모르고 고통을 준 자들에게는 화가 붙어 떠나지 않고 천 배, 만 배 그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선생의 길이 이미 결정되어 생명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선생이 주님께 들은 말씀들을 섭리사 모든 자들에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른 사명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말씀들을 듣고 읽어 보기 바랍니다.

선생은 이미 주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안 되어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욕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선생과 함께 보낸 자들을 막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몸과 같은 성전에서 감히 세상의 안 믿는 자들도 하지 않는, 섭리 30년 동안 없었던 행위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연성전에도 불을 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나의 전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주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신성을 모독한 자요, 피와 땀과 정성으로 지어 섭리에서 귀히 쓰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같이 하였은즉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며,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그의 직들을 해제하고 해임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행위대로 섭리의 거울이 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본 모든 자들에게 다 회개해야 되고, 섭리 전체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갔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주님께서 단상에 계셨는데 무릎을 주었으니 곧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운동을 못 하게 하였으니 성령을 거스르고 훼방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고 섭리역사 공적인 일을 막는 자는 고의적으로 행하는 자요, 혈기를 부리는 자요, 선생을 빙자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계획적으로 섭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했는데도 또 하였으니 이들의 행위는 절대 고의성 행위로 봅니다. 기분 나쁘게 자꾸 내 이야기를 거론하는 자들도 나에게 상상 못 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전에서 그 같은 행위를 했으니, 주님은 그 행위를 더욱 불법으로 보십니다. 그들은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기묘한 마술을 씁니다. 사탄의 술법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선생이 여기 있다고 각종으로 나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더욱 심정이 상합니다.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침범하고 난동을 부렸으니, 선생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침범하고 불법을 행하였으니, 제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각자 자기의 책임을 지고 그 값을 모두 받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파는, 아주 불법한 수작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내 심정을 모른다.”며 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그런 자를 위해 죄 짐을 대신 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오직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을 바리새인처럼 형식으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평소에 내게 진지하고 진실하게 편지하지도 않은 자들이며, 선생을 이용하여 유익이나 구하고 혈기를 내며 섭리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그 험한 환난 때도 없었던 행위들을 했습니다. 역시 30년 동안 없었던, 그 행한 대로 갚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되었고, 음모에 아주 능숙한 자들입니다. 섭리사 전체를 모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급한 이때, 나의 재임을 방해하는 불법한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교단에도 말했고, 면회 온 목사에게도 말했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4일 전에 주님은 예배 때 가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셔서 분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 설교하러 간 자에게만 그들이 그같이 한 것으로 보느냐? 그들이 던진 계란은 내가 맞았노라. 그들이 내 머리를 쥐고 흔들었노라. 모두 소경들이라 모르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묵시를 기록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구세주라. 너희는 그들이 한 형제에게 그같이 한 것으로만 보느냐? 하나님께 한 것이고, 내게 직접 한 것이다.』

주님은 그날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그와 같이 가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자가 그같이 하였으니 그 구원이 상실되겠느냐, 굳건해지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선생 역시도 나에게 그같이 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섭리 전체가 말씀 듣는 것을 은근히 방해한 자요, 섭리 사람들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와는 대화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그 입이 항상 선생을 이용하여 형제들을 모독하기 때문이고 악평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주님과 의논하여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주님과 선생을 무시합니까? 그들은 어떠한 말을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섭리사는 아직 특별한 교단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각 교파는 교단 법이 있습니다. 교단 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자들 역시, 앞으로 불법한 자로 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행할 것입니다. 그날 불법을 행한 자들이 가정국이면 가정국에서 다 책임지고 해결하고, 청년부면 청년부에서 다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선생이 해외에 나간 후에 섭리 안에 아주 못된 암적인 병이 생겨서 걸핏하면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선생의 이름으로 휘두르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도 말합니다.

“내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우지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사들이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고 정말 급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을 침노하여 괴이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편이 아니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주님 주관권 밖에 살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꼬이고 악평하고 괴악한 말들을 하여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함으로 신앙생활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도 천사들이 끌어내어 풀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 직전이라 이미 천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말씀대로 거두어 냅니다. 풀무 불은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는 책에 자세히 다 나옵니다.

선생의 허락도 없이 내 말을 이용하여 좋지 않게 하는 자들은 가만히 섭리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순한 자들입니다. 이같이 선생을 괴롭히는 자들이 선생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사상을 펼치려는 자들입니다.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계획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섭리역사와 선생에 관한 여러 가지 말 못 할 일들을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나야 이미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계속 조건이 되는 자를 통해 계시하시며 섭리사에 말해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수요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주께서 섭리사의 한 형제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내가 그에게 말한 대로 또박또박 내 말을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이 계시를 주님께 확인했더니 **“맞다. 내가 그동안 너를 이같이 인도하여 너도 그 핵심을 알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내게 계시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많은 생명을 살려라. 너는 내 육이고 내 손발이니, 네가 지고 가지 않으면 누가 지고 가겠느냐. 재림 때니 더욱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항상 영광의 역사가 깨져서 고난의 역사로 가지 않았느냐. 한 사람에게 계시했지만 섭리 전체, 혹은 온 세계에 해당되는 내 말이다. 내가 한 말이니 믿고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섭리사에서 조건이 되는 자들에게 계속 계시를 해 주시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흔란스럽게 아무에게나 계**

시하지 않겠다. 꼭 확인하여 사탄들에게 속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잘 안 보여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가라.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내가 옆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준다.” 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목시를 받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어 주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해같이 빛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깨달았습니까?

모두 잘 들었지요? 이해 안 되는 말을 보충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미 설교로 나간 말씀도 있어서 더욱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나 수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는 늘 울고 있다. 너는 나를 알려라.」 하셨습니다.

선생이 주님을 보았을 때도 얼굴의 살 속에 눈물이 꼭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울었던 표를 안 내시려고 순간 눈물을 닦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도 한탄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눈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 더욱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안나의 저서에서도 「내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슬퍼서 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섭리사 한 형제를 통해 계시하신 대로 많은 사연들을 그같이 주님과 나만이 알고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 모두 알라고 예수님이 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섭리 사람 모두가 더욱 선생의 손발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외쳤던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깊은 계시는 너무 커서 조금씩만 전해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말씀과 영계에서 본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말해 볼까요?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 그제야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데도 그 영혼은 이미 지옥의 판정을 받고 그 육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사탄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충격이지요?

오늘 새벽에 지옥의 한 현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깊은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자들인지 자세히 보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지옥의 기결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포악했습니다. 성질을 내면서 폭력을 일삼고 난폭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족속이 아닌 내가 온 것을 눈치 채고, 각종 흥기를 들고 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무리 속에 묻혀 버리니 몇 사람은 그냥 떠났고, 또 몇 사람은 “우리 족속이 아니더라도 해를 줄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그들의 몸으로 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차마 살지 못할 지역과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내가 손님이나 되는 듯이 나를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 주며 자랑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거지들이 쓰는 그릇과 같았습니다.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깊고 험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비탈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알프스 산의 험한

절벽에 사는 산양이나 염소들처럼 그곳을 잘 걸어 다녔습니다. 역시 영들은 강하고 초자연적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사탄의 인을 맞은 자는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지상 지옥권에서 그대로 영계 지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더욱 지옥의 인을 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회개를 방해하고 화평을 방해합니다.

『지금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다. 늘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니, 정말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화평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법정에 선생님 증언하러 안 나갔다고 말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는 어느 누구도 증인으로 서면 안 됩니다. 이미 시대의 죄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누구보다도 수심 배나 나를 위해 수고하면서 나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자가 항상 일을 저지릅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육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제1순위에 놓고 말합니다. 절대 믿지 말아요. 오직 주님을 제1순위에 놓고 그 말씀을 중심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니. 아멘.

<2009년 5월 17일 주일말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실패한다

본 문 고린도전서 2장 8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은 영계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와 모든 자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듣고 전하여 모두가 외치게 하겠나이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어느 시대 누구든지 나를 몰라서 영원히 실패한다. 지옥도 몰라서 가고, 천국도 몰라서 못 간다. 지옥도 제대로 알면 안 가고, 천국도 제대로 알면 간다.

지옥을 제대로 알면 지옥으로 안 가는 길 찾아서 안 간다. 지옥으로 안 가는 길이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을 제대로 알면 천국으로 가는 길 찾아서 간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한다면 영원히 몸부림치고 이를 갈고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가겠느냐.

이스라엘 민족과 그 시대 사람들은 나를 몰랐다. 너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라. 그 시대에 나를 알고 믿고 따른 자들은 좁은 길로 갔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넓은 길로 갔다.

나를 따르는 자들도 어느 시대 누구든지 내 심정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면 넓은 길로 간다. 나를 아는 자가 적고, 내 말을 들어도 순종하는 자가 적고,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지막 기대다. 마지막 은혜다. ‘말세에 은혜를 준다.’는 성경말씀대로 반드시 은혜를 준다. 그리고 말세에는 환난과 고통도 일어난다.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을 이긴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자들이 악한 자들을 잡아 주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나를 아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행복이다. 행복도 모르면 그것이 행복인지 모른다. 나를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내 심정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 각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내가 말한 것을 잘 읽어 보아라. 심각하고 간절하게 내가 너희 각자에게 한 말로 알고 읽어 보아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같이 성경을 읽는지 내가 볼 것이다. 내 말대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실천케 하여 내 눈에 띄어 그 사람에게 가 볼 것이다.

단상의 말씀을 깊이 들어라.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을 꼭 하여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된다. 내가 안 보여도 믿고 행하고, 내 말인지 꼭 확인하고 행하여라. 내가 안 보여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여라. 모두 화평과 진리와 은혜로 하나가 되어라. 은혜는 너희들이 갈급해하고 애원해야 준다.

그리고 자기 죄는 자기가 아니 진실로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즉시 지옥의 길을 벗어나 천국의 길로 가게 된다. 너희는 죄 지을 때는 좋아서 지으나 회개는 싫어서 안 하는구나.

내게 배워라. 내 앞에서 행해 보아라. 나를 모르면 넓은 길로 가게 된다. 인생 실패하게 된다.

하루를 살아도 나를 알고 사는 자는 좁은 길로 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다. 하루를 살아도 나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날은 넓은 길로 가는 자라고 본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산 그날은 나를 따라 내가 원하는 좁은 천국의 길을 간 것이다.

군중 속에서 내 뒤를 따르니 한눈팔면 나를 잃어버린다. 내가 되돌아가서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대로 내 갈 길을 간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라. 매일 행하여 보아라. 너희도 형제들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너를 뒷전에 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나는 어떠하겠느냐.

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 예수’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고 있다. 자기를 구원한 자는 중간에 놓고, 혹은 맨 끝에 놓고 살고 있다. 이는 의가 아니고 악이니라.

나를 모르고 살면 누구나 실패한다. 영원한 실패다. 내가 시키는 일과 내가 감동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어린 소년 소녀든지, 어른이든지 모두 나의 몸인 것을 인정하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내 몸이 되어 살아 보아야 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나를 모르면 영원한 실패다. 나를 믿고 사는 자들이 나에 대하여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을 모른다. 나를 믿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저버린 자는 실패한 자다.

나에 대하여 더 알아라. 나에 대하여 더 알고 내 마음을 더 알게 되면, 나에 대하여 정말 깊이 모르고 살았다고 너희가 스스로 시인하며 한탄할 것이다.

기도하라.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자들은 그때나마 깨달았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통회 자복하면서 “주님

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며 진정 회개하지 않았느냐.

생활 속에서도 이를 깨닫고 살아라. 나를 다른 세계에 사는 자로 생각지 말고 나의 애인이 되어 한집, 한방에 사는 자와 같이 대하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라.

내가 안 보이니 너희는 눈에 보이는 자만 생각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하게 된다. 너희에게는 내가 안 보여도 나는 범사에 너희를 본다.

너희가 나를 사람 보듯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나를 사람 보듯이 늘 본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아 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보고,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보이리라.

나를 본다 해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자는 나를 보나, 안 보나 똑같다.

좁은 곳에 살든지, 넓은 세상에 살든지 정신이 산 자라야 할 일을 하게 된다.

너희가 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확실히 하겠다고 하였기에 말씀을 해 주었다. 이제 들었으니 해 보아라. 어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했는데도 너희가 귀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말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다.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때를 따라 이루어 주며 지키지 않았느냐. 어찌 너희 중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느냐. 나를 모르고 사는 자와 그 시대는 실패했다. 나를 알고 행한 자는 민족도, 시대도, 개인도 성공했다.

힘난한 세상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기 어렵지만,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안 지키고 살면 인생 쉽고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후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청중 속에 살아도 통하는 자가 없으면 홀로 갇혀 사는 자와 똑같지 않느냐. 홀로 살아도 나와 같이 살면 청중과 통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다.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통하며 살아 봤자 육적인 사람만 되지 않느냐. 통하는 자 없다고 쓸쓸하다, 외롭다, 적적하다, 고독하다 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며 통하면서 살자. 영원한 대화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알게 되어 더욱 도울 것이다.

나에 대하여 모르면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실패한다. 이는 영원한 실패다. 나를 아는 자는 행복한 자다. 나와 통하고 내 심정을 알고 살아 주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너희는 나의 시에 해당되는 인생이 되어라.

<시 1> - 주 편 -

내가

사랑하니

허물은

보이지 않고

사랑만

보인다

<시 2> - 주 편 -

너는

알미운 예쁜이

사랑하니
어쩔 수가 없다
애지중지
길러서
너는
알미운 예쁜이

선생이 이 시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그가 행한 허물은 보이지 않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벧전 4: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애인도, 사랑하는 자식도, 제자도 알미운 행동을 하지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랑으로 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알미운 행동을 했으나 봐주고 대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애지중지 길러서 길이 들고 정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애인이 애인을 너무 애지중지하여 기르고 대하면 정이 들어서 어떤 것을 잘못했어도 혼내지 않고 알미운 고양이나 알미운 강아지 대하듯 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알립다고 말하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고 혼을 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알미운 예쁜이’ 시가 ‘어여쁜 예쁜이’로 바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옥, 지옥, 지옥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천 년의 고통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한 다 해도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천 년 동안 영화롭게 살지라도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니 그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지옥은 쳐다보기만 해도 고통이다. 내가 지옥에 가는 자들을 쳐다보며 지옥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더욱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계시하는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안 가게 된다. 천국에 갈 자신이 가슴에 완벽하게 차고 넘쳐야 가게 된다. 그러나 나를 모르면 지옥으로 간다. 나를 알아야 천국으로 간다.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도 모르는 자는 실패하고,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죽기까지 하지 않느냐.

알고 행하고, 알고 주장하여라. 꼭 확인하고 행하여라. 모르고 행하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내게 묻고, 완전하게 확인하고 배우고 행하여라. 모르면 또 실패한다. 모르면 죽는 길도 자랑하며 희망으로 간다.

이제부터 나를 더욱 알아라. 내가 말한 것을 깨닫고 내 말을 절대 믿고 행하여라. 내 말이 그 얼마나 귀한지, 생명을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목숨같이 귀한 것임을 지옥에 간 자나 천국에 간 자나 지옥이나

천국으로 갔을 때 그제야 안다.

세상에서 알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느냐. 세상에 내 말같이 가치 있고 귀한 말이 어디 있느냐. 그 귀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같이 귀한 자가 된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그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 이런 자는 그 육신이 ‘천인’인 것이다. 그는 세상에 살아도 보이는 천사와 같은 자다. 그런 자들이 세상의 인구에 비해 참으로 적다.

나를 몰라서 인생 앞날과 현실에 실패하고 산다. 무엇이 인생의 영원한 성공이냐. 너희는 육신의 삶이 순간 잘된 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느냐. 그 영화는 꽃과 같다. 일순간의 성공이 성공이냐.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를 해 놓고 살아야 된다.

너희 죄를 회개하여라. 목욕탕에서 씻다가 만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매일 깨끗이 하여라. 시간이 없다. 매일 준비된 삶을 완전히 살아야 된다. 내가 올 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오전일지, 오후일지 너희는 알 수가 없다. 모르니 완전히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려야 된다.

재림의 심판도 세상에 벌써 시작되었다. 환난이 하나의 심판이다. 노아 시대에 비가 왔어도, 자기들이 비를 맞고 있었어도 죽을 줄 몰랐다. 점점 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니 그제야 알았다. 죽기 직전에 안 것이다. 그때는 죽는 것을 알았어도 피할 곳이 없으니, 알았다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피하라!” 말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죽음을 피하는 길이다.

인생들은 정말 모르고 산다. 나를 모르면 세상도 모른다. 내가 하는 일은 눈으로 보아도 모른다. 나를 알아야 한다.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격을 때 깨닫게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격어도 모른다. 나를 모르면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머거리가 된다.

나를 모르는 자는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어느 시대도 영원한 실패다.

나를 알고 내 심정을 알고, 내 말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행하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성공을 한다. 인생 승리자가 된다. 내가 보낸 자에 대해서도 알아라.

평강이 너와 네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다. 내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말을 듣고 정신이 살아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2009년 5월 20일 수요일말씀>

모르면 망한다

본 문 누가복음 17장 27-30절

마태복음 11장 28-30절

(핵심 : 내게 배워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도 중에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인생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저에게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전하려면 천 마디를 더 해야 되니, 한마디만 꼭 해 주옵소서.” 하고 일곱 번을 줄라 대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인간의 무지를 말해 주겠다.**” 하시며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모르면 노아 시대와 같이 롯 시대와 같이 망한다. 내게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리라.**” 하셨습니다.

선생도 주님께 인생을 배우고 인생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어 인생길을 가니 이 길은 영생길이고, 망하지 않는 길이고, 영원한 형통의 길입니다. 그냥 보면 고통만 받고 가는 길 같지요?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한 무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를 지적하셨으니, 곧 영적인 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이를 듣고 깨닫고 성경께서 감동을 주시어 알게 해 주신 말씀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무지는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하겠습니다.

<인간의 무지>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모른다 해도,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1.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2.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 신앙의 삶을 살 때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4. 자기를 위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5. 건강을 어떻게 살피야 되는가?

6. 하나님이 주신 자기 개성과 타고난 것은 무엇인가?

7. 자기가 노력하여 할 것은 무엇인가?

8. 무엇을 위해 일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이 자기 존재와 정신과 마음에 대하여 모르고, 또 자기 영에 대하여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미 없이 살고, 보람 없이 살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괴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하면 살인한 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 전체를 볼 때 자신에 대하여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80%를 넘는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았으면, 지금 인생을 그같이 살지 않는다. 자기를 모르고 살면 인생을 살기는 하는데 A급으로 살지 못하고 B급, 혹은 C급, 혹은 D급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주님과 일체된 삶이 A급 인생의 삶입니다.

인간은 타락과 각종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게 되었습니다. 고로 인간은 사망권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무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되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에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형제의 티를 빼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 7:3-5)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복음 8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인이 죄인을 지적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요 8: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성경에 있으니 다 읽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은 자세한 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도 그러합니다.

한번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이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편지를 읽었어도 그 사람이 누

구인지 모르는구나.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해 놓고서도,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와서 읽었어도 모르는구나.”

이에 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편지를 읽었는데도 내가 기도한 사람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두 통이나 와서 읽고서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소개한 그 아이다.” 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은 세심하시고 정확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꼭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여 먼저 보시게 한 후에 선생이 봅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세밀히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시어 알게 됩니다.

새벽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억나는 시간이고 깨달는 시간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일체 되어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개인의 무지를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 필요 없는 먼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진로를 잘못 결정하여 필요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청춘과 인생을 아깝게 쓰게 됩니다.

선생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10대, 20대, 30대에 다른 인생길로 가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개인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되면 자기 삶의 노정과 프로그램이 즉시 바뀝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결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며 앞날의 진로를 바꾸었지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하나 될수록 진로가 더 좋게 바뀝니다.

선생도 그같이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느니 주님을 위해 살아서 영원히 보람 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은 모두 몰라서 못 삽니다. 인생은 무지, 무지합니다. 선생이 주님께 물어서 코치해 준 대로 산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그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무지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하여 모르는 무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니 남에 대해서도 더욱 모릅니다. 고로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도 상대에 대하여 알아야 방어 운전을 하여 미리 피해서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기는 잘해도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상대로 인하여 해를 받게 됩니다. 상대를 알아야 자신이 상대를 모르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되고 멀리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상대적인 무지는 직접 상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먼저 적을 알아.’고 늘 가르칩니다.

상대에게 찾아가 배우지 못하거든 자신이 연구해야 되고, 상대를 아는 자들을 통해 배워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여 깨닫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도 서로 교류가 없으면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 자꾸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상대를 아는 데 있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한은 북한에게 당하였고, 남한의 강산이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섭리사 전체는 모두 하나 되어야 하고, 지도자들은 상대를 아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은 상상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로 앞날에 대한 걱정, 자기에 대한 걱정, 상대에 대한 걱정,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하늘에 대한 걱정을 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지를 벗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상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전쟁을 당하여 온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무기들을 만들게 되었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고, 군사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과거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 늘 대책을 세워 놓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무지한 자들로부터 당하지 말고 지도자들 전체가 싸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선생을 대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선생에게서도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선생을 보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은 과거에 선생을 대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모두 쫓아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교회도 자체로 하나 되고 뭉쳐서 서로 보호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벌통의 벌들은 사람이 그중에 한 마리만 건드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몰려나와 떼를 지어 벌을 건드린 자를 쫓아가 씹니다. 동물들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항상 악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뜻인가?’ 합니다. 선이 악을 다스리는 것이 뜻입니다. 여호수아같이 담대하고 다윗같이 용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상대, 단체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상대적인 천적임을 알고, 모두 하나 되어 쫓아내고 멸해 버려야 됩니다. 과거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기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상대를 알고 그 능력으로 하나 되어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벌처럼 하나 되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고, 정신이 죽고, 행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라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 무지는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는 무지한 자의 삶을 빼앗고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삽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며 성령과 은혜를 받아야 뱀같이 징그러운 악마의 존재가 자기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형제들에게 붙어살면서 괴롭히는 사탄을 쫓아내고 형제들을 이끌어 내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면 없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늘 감동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알게 되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게 되고 사망의 길을 벗

어나 생명길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하여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잘되려고 섬겼는 데, 무지로 잘못 택하여 결국 지옥길로 가게 되고 맙니다. 모르고 사는 자는 정말 불쌍합니다. 무지한 자는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지하기에 아는 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반드시 기도생활을 꼭꼭 하여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정신이 살아 있으면 무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깨어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서로 화평으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야 형제 중의 한 사람을 누가 해하면 모두 하나 되어 그를 저지할 수 있고 오히려 혼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도 같이 해를 받게 됩니다. 한 가정의 식구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교회도 한 지체입니다. 섭리 전체도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뼈는 뼈끼리, 살은 살끼리, 힘줄은 힘줄끼리 흩어져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방 안 통소처럼 안에서만 큰소리치지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이리와 사자와 여우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모두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나서 하늘의 의의 대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틈을 타서 사탄은 인간 이리와 사자 같은 가인들을 쓰고 들어와 거짓말을 일삼고 모두 흩어지게 했습니다. 누가 공금을 횡령했다, 누가 어떤 짓을 했다고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무지하여 형제들을 괴롭혔습니다. 선생이 해외에 나간 후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선생의 말 외에 다른 말을 믿는 자들은 마귀의 말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탄들은 수작을 부려 꼬이는데,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을 거짓으로 이간질하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행한 자들은 모두 근본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섭리사에서 이런 것 들이 반드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안 믿고, 마귀에게 유혹된 자들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충성자들을 거짓으로 욕하거나 형제들끼리 오해하도록 이간질하는 자들은 우리의 천적, 마귀들의 유혹을 받은 자들로서 인사탄입니다.

사탄을 몰아내려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말을 믿어서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인간이 무지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의 욕으로 사용합니다. 사탄의 주관을 계속 받으면 결국 사탄의 인을 맞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계로 보면 사탄의 인을 맞은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나갔지요?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은 이미 지옥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영도 육도 지옥 주관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이 죽으면 그 영이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고 했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몸부림치느니 지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주권같이 큰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그 시대 중심인물들의 말

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십니다. 고로 그들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회복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도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주권은 어떠하겠습니까? 천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좌우하는 주권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 구세주의 주권입니다.

지옥의 사자들도 지옥에 온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살 때 예수를 안 믿지 않았느냐. 믿었어도 너 할 짓 다 했지? 의인들을 괴롭히며 갖은 고통을 주었지? 그래서 너는 지옥에 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를 사용했으면 서로 다 뒤집어씹습니다.

인생들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99%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기에 주님께서 선생을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행합니다.

- 누구에게도 돈 빌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을 빌려 주어 돈놀이하는 데 다 떼이고 해를 당합니다. 전도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주어 고통을 받습니다. 선생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서울 총성교회’ 지적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그 직책은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는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 어찌 몇 십 배나 더 어려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는 일이 있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리지도 않고 빌려 주지도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기니 잘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다 떼었으니 얼마나 손해입니까? 돈놀이하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여 신앙이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성문제가 있는데도 숨어서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고 목회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와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면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단상에 있는 자들의 상태를 보여 주시고 하늘 앞에 보고하게 합니다.

회개는 청산입니다. 청소입니다. 정리입니다. 제 위치에서 완전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 보고되어 완전히 용서받고 해야 됩니다. 전에 하늘 앞에 고하고 회개한 자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인간들과 통하지 않으니 그 말을 알아듣는 선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지 속에 살면 요시아 왕과 같이 자기 앞에 죽음이 닥칩니다. 무지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 몸이 건강하지 못한 교역자들은 흠뻑이 아니고 한 교회를 위해서 뛰는 공적인 사역자니 건강을 회복한 후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 대한 무지, 상대에 대한 무지, 하늘에 대한 영적 무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현재와 과거의 일들을 더욱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알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는 그 책임이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주님께 확실히 허락받고, 또 선생에게 확인받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섭리사의 무지를 근본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설교를 기다리며 듣고자 하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 무지 속에서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난날 무지하게 행한 것을 반성하고, 개탄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같이 반복하지 말아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2009년 5월 24일 주일말씀>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는다

본 문 마태복음 24장 44절

참고성구 요한복음 17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천국성령운동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매주 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변화를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몸부림 없이는 영혼의 걸작품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을 이루고, 그동안 원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일도 그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변화되지 못하여 못 하고,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워 못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겪어 보았습니다.

만사에 모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힘들든지, 환난을 받든지, 고통을 겪든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섭리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때를 지키고 참석하여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때에 은혜를 받아서 개인의 모든 고통, 아픈 심정, 쓰라린 마음, 말 못 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하여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홍해바다가 그들의 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였고, 그리하여 모두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 은혜의 때에 전체가 일어나 성령운동에 참여하여 큰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 남은 자들을 위해 홍해바다를 두 번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섭리사는 한 지체로서 한 명이 움직이듯이 행하며 가는 노정입니다. 고로 이 은혜의 때에 어느 누구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불은 받는 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주는 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성령운동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집행하십니다. 주님이 사명자로서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로 쓰시는, 외치는 자의 준비와 힘도 큼니다. 고로 기도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 이 시대 주님을 맞기 위한 뜻이 가장 큼니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아 깨끗이 회개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비유컨대, 은혜는 돈과 같습니다. 어느 때는 꿈에 돈을 받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 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준비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 되니 먼 길을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어서 마지

막으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도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같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을 빨리 준비하여라. 나도 이제 가면 천사장과 함께 와야 되기에 준비하느라 못 온다. 지금 빨리 마지막으로 준비하여라.” 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잠깐 오셔서 우리가 못 한 것을 하게 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낙심한 마음들을 챙겨 일으켜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때’입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집니다.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서 과감해집니다. 이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지 않는 자는 뒤처지게 됩니다. 혼자 힘들게 됩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수영하여 건너듯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절감해 보았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때를 놓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 보았습니까? 때가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안 되었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요?

이때 성령과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못한 것을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아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을 끌고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인들이 모두 은혜를 받으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건장한 말처럼 스스로 잘 됩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와 같아서 밟기만 하면 잘 달립니다.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이 꺼진 자는 엔진이 꺼진 오토바이나 차 같아서 전진할 수 없고 달릴 수가 없고 늘 그 자리입니다. 결국 힘들게 끌고 가야 됩니다.

은혜와 성령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같이, 애인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도 주님도 꼭 잡고 빼앗기지 말고, 형제들도 꼭 잡고 한 명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마음천국을 만들어 주고, 앞의 장애물도 없어지게 해 주고, 악의 가시덤불도 태워지게 하고, 벌처럼 쏘는 악한 자들을 소멸하고, 마귀들을 멸하고, 전도가 잘되게 하고, 관리가 잘되게 하며,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줍니다. 꿈을 이루게 해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느끼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태우고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뜨거운 불로 나타나십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다르고, 형제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하나 되어 행하십니다. 옮김 같은 불의 뜨거움을 느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님이 느껴져 주님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님이 느껴져 성령이 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위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위의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생의 시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떠오르는 태양같이 힘 있고 찬란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저녁노을같이 황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포근한 은혜로 여성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도 ‘진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와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과 불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 14:16-17)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뜨거운 불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동의 신이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신성의 몸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보기가 힘듭니다. 상징적으로 보이시고, 느낌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보여 주실 뿐입니다. 특별한 자가 아니면 그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4~5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를 믿고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느껴 보고 생각할 뿐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했습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선생이 어렸을 때 여자 천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여자는 키가 컸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많은 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품에 안겨 “엄마!”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컸으니 내 품에서 떨어져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천사를 보고 ‘엄마’라고 하며, 마치 육신이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듯 불렀습니다. 그때 영의 어머니님, 곧 성모님, 천모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도표를 그릴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지상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와 같은 격이라고 이해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본 어머니 격의 존재자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에게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불로도 역사하셨고, 능력과 신유와 표적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이 보았던 천모는 지금도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문구부터 다릅니다. 지금도 선생은 매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각각 700번 이상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말씀하신 것인지 분별해 보세요.

1. 나와 대화하자.
2. 죽음을 면하면서 가는 길인데 고생된다고 하느냐.
3. 나 네 옆에 있다. 걱정 마.

이 음성들은 중국 감실에 있을 때 들은 말씀들입니다. 각각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겠어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말씀이 들렸는지 이야기하며 답을 주겠습니다.

1. 첫 번째로 들은 음성입니다.

『나와 대화하자.』

온종일 옥에만 있는 삶 속에서 말이 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고, 노래도 못 하게 하였기에 찬양도 못 하고 온종일 병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흰 구름 한 덩이가 손바닥만 한 창틈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구름은 순간 다 흘러가 버렸는데, 그 흰 구름은 그 자리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아니하여 마음속으로 그 구름을 불렀습니다.

‘구름아! 다른 구름들은 순간 떠 있다가 급히 흘러가는데 너는 내게 무슨 사연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식이라도 왔나? 혹시 언제쯤 나간다고 전해 주러 왔나?’ 생각하며 소식이 있으면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구름은 ‘하나님이 대화하자고 하신다. 이 말을 전해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음성을 듣고 ‘구름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 줘요. 이제 벽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하겠다고 전해 줘요.’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답했습니다.

실상 그 흰 구름의 형상은 큰 사람의 형상이어서 하나님 같다고 생각했었고, 그 앞에 사람 같은 작은 구름 형상이 확실히 보여서 ‘나와 같네.’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니 흰 구름은 즉시 움직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깨질 정도로 천둥 번개가 쳤는데, 번갯불이 마구 번쩍었습니다. 모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천둥 번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징조로 들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번갯불은 하나님의 위력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름에게 전한 말을 내가 들었다.’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사역자로 보내신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구름을 통해 ‘나와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다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치며 대답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 걱정과 초조가 사라지고 내가 있는 환경이 딴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뒤바뀌어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그같이 더욱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매일 2000번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세계의 교회 이름도 부르고, 생각나는 대로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니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자꾸 부르니 이름이 외워지고, 또 기도하니 이름들이 생각났습니다. 6~8시간 동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작사 작곡도 했습니다. 이때 ‘천지창조’와 ‘성지땅의 백합화야’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몇 곡 더 남았습니다.

2. 두 번째로 들은 음성입니다.

『죽음을 면하면서 가는 길인데 고생된다고 하느냐.』

나의 모든 상황을 볼 때 계속 초조하고 막연하여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속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볼 때 그러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기를 ‘죽음을 면하면서 가는 길인데 고생된다고 하느냐.’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여자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말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연하게 들리어 그 음성이 머리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때는 몰라도 한국에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언제 가나요?’ 기도하니 ‘곧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보고 싶다고 푸념하니,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예전에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어라.’ 하셨습니다.

그날 성령님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날은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자마자 눈알이 주먹만 하고 체격이 큰 놈이 나타나서 내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막 소리를 지르니, 평소에 나를 미워하고 늘 쥐어박고 때리던 자가 나를 깨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기에 말해 주니, 그는 어떤 사람같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 같다고 하니, 그는 중국 사람 중에 눈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그러면 그놈이 바로 마귀다, 악마다. 그놈들을 감옥에 가둬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맞다고 하며, 우리한테도 악

마가 올지 모르니까 나를 보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그는 내가 기도를 하면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후부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섬리사 사람들이 계속 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각종 사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루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탄을 물리치고 자야 꿈에 밝고 맑은 영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저녁노을 같은 성령님’이라는 시를 썼는데 저녁노을을 보고 쓴 것입니다.

포근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저 모습은

성령님 모습

같아여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음을 면하면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후에 알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3. 다음은 세 번째로 들은 음성입니다.

『나 네 옆에 있다. 걱정 마.』

한번은 조사를 받는데 조사하는 자들이 내게 어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나는 만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맞다고 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는 것은 내게 해당되는 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 보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은 그들이 중국에 왔다 간 사람들이라고 자꾸 억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 네 옆에 있어. 걱정 마.”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나는 조사관들에게 한국에 가서 그들의 여권을 확인하고 그들이 중국에 왔었는지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조사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 조사 때는 그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주님이 ‘나 네 옆에 있어. 걱정 마.’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은 음성도 다르고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구분이 되지요?

선생의 잠언의 말씀도 선생이 깨달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썼습니다. 시도 주신 이에 따라서 각각 쪼개어 썼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주 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 편', 선생이 쓴 것은 '선생'으로 표시했습니다. 성령님의 시는 표시하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4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며 그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누가 역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선물을 받아도 누가 주었는지 알고 해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선생도 선물을 받았을 때 개인이 주었는지, 합동으로 주었는지 세밀히 알아볼 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존재가 합동으로 역사하실 때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뜨겁고, 성

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뜨겁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뜨겁습니다. 삼위 중에 누가 역사하셔도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삼위에 대하여 배우고, 또 생각하면 누가 중심이 되어 역사하시는지, 누가 주시는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삼위는 각각, 혹은 합동하여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고, 준비된 자에게 직접 임하여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적 존재이신지라 그 본체를 잘 보여 주지 않으십니다. 봐도 여자 천사인 것으로만 알지 잘 모릅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보고 ‘엄마’라고 부른 존재자는 옷을 아주 차분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희고도 흰 옷이었습시다. 그에 비해 천사들의 옷은 가볍고 화려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입은 옷과 딸이 입은 옷이 차이가 나듯이 차이가 나게 보였습니다. 단상에 서는 자들은 옷을 차분하게 입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참고 -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모성신을 구분한 말임.)

하늘나라의 성부, 성자, 성신의 존재를 이 땅의 것으로 비유할 때 아버지는 성부 격, 어머니는 성신 격, 자녀는 성자 격입니다.

(히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삼위는 각각이지만 하나와 같다.’는 말을 이치에 합당하게 설명하려면 축소한 가정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비유하여 깨우쳐 줄 말이 없고 이해시킬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체제는 세상 가정의 체제와 다릅니다. 삼위는 전지전능하시므로 그 행하심에 대하여 배워도 세상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시어 그 행하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뜻을 박아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삼위의 존재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설교가 나갔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두 그루를 보여 준 것을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두 그루 중 한 나무의 열매는 익었는데 ‘왜 안 따 먹느냐.’고 하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말해 주었지요? 그 옆에 다른 한 나무의 열매는 아직 덜 익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에 대한 것인데 ‘그 신성에 대해서는 더 있다가 가르쳐 준다.’ 함이었습니다.

먼저 선생이 다 배운 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신성에 대하여 더 깨닫게 해 주실 것이며, 계시를 받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우다가 만 것은 다시 배워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배우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마음대로 막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받는 자만 알고 인도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선생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섭리사에도 안나 수녀나, 린다 뉴커크나, 토마스 주남같이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생기게 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본체는 안 보여 주십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상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의 계시에 대해서 말했지요? ‘해산의 고통 후에 옥동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육적으로 해석하면 선생이 옥에서 나간다는 말인데 그것이 아니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금년도 주제와 같이 ‘선생이 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더 새롭게 태어나야 육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과 육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구촌에는 영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에 대하여 보고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주님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의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시는 사명자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안나 수녀의 ‘성스러운 호소’를 보면,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성모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모님은 천모, 여(女)성신이 맞습니다. 선생이 어렸을 때 영의 어머니를 본 대로 섭리역사 30년 동안 영의 아버지도 있으니 영의 어머니도 있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본 것을 말해 온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말할 것이 있고, 말하지 않을 것도 많습니다.

영혼의 어머니는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가 삼위일체에 속해 있는지는 곧 말씀으로 도표와 함께 옛날보다 더 자세히 나갈 것입니다.

안나의 저서를 보면, 예수님도 성모님의 존재를 말씀하시며 ‘나의 거룩한 성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모님이 삼위의 한 존재이신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모는 여자인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의 시에서도 주님은 성모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영의 어머니가 계심을 밝혀 왔습니다. 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더욱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지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 읽어 보겠습니다.

(요 17: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의 듣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 보세요.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는다.’는 말은 ‘어제 예비했어야 오늘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해야 오늘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완전히 깨끗이 예비했어야만 오늘 주님을 맞게 됩니다. 개인으로 축소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듯이, 확대시켜 볼 때 그와 같이 예비한 자만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육신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어제 같은 시대에 살던 구약인들 곧, 유대 종교인들은 예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살아온 자들도, 현 시대 기독교인들도, 우리 모두도 재림의 때를 따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알라라. 나의 재림을 과연 누가 맞을 것인지 궁금하냐? 가르쳐 주마. 어제 준비한 자가 나를 맞듯이, 매일 그같이 하는 자라야 앞으로 있을 나의 재림을 맞게 된다. 평소 신앙이다.” 하셨습니다.

‘축소시킨 역사에서 맞은 자가 확대시킨 역사에서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축소시킨 것을 행하여 성공해야 확대시킨 것도 행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어요? 무엇이든지 축소시켜 해 보고 잘되었을 때 확대시켜서 해야 실수 없이 잘됩니다. 사업도, 어떤 다른 일도 그러합니다. 깨달았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축소시켜서 선생을 먼저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여러 번을 새벽 시간에 제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꼭 보고할 것만 간단히 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나눠서 한 통씩만 편지해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편지가 내게 오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의 심정을 알고 때에 맞춰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자니 새벽에 주님의 시간에 제대로 못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님은 ‘예비하라.’고 코치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나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시간으로 상징하면서 ‘시간이 나다.’ 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도표의 게시가 왔습니다.

(* 참고 - 선생님은 자기 전에 3시간 동안 꼭 기도를 합니다.)

《도표 보여 주세요.》

- 주님의 말씀 -

“이같이 해야 시간적으로 나를 맞기 위해 예비할 수 있다.”

“새벽에 내 시간에 일어나려면 절대 초저녁 시간을 당겨야 된다.”

“시간을 당겨라. 당겨야 나를 만난다.”

“저녁 9시에 기도하면 밤 12시에 잠을 자게 되니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 8시에 기도하면 밤 11시에 자게 되니 새벽 2시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 7시에 기도하면 새벽 1시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 6시에 기도하면 자정에 일어나게 되지 않느냐. 그래야 너와 내가 약속한 시간을 시간적으로 예비할 수 있다. 더 여유 있게 예비하려면 5시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가르쳐 주셔서 시간을 당기게 되었고 새벽 1시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주님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는 “성령은 향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께 성경에도 없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이 되니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은 향수다』 이 말을 풀어야 모두 알게 됩니다. ‘향수’ 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첫째, 여자가 생각납니다. 둘째, 향수는 ‘풍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 성신으로서 풍김이 다릅니다. 향수를 뿜어내면 온 방에 향기가 풍깁니다. 그윽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각종 나쁜 냄새가 없어집니다. 온통 향수로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향수의 그윽한 향기를 맡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향기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시면 잘 보이는데, 성령님은 역사하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좋아서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욱 호기심이 생기게 하고,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누가 역사하시는지 모르니 하나님도 부르고, 주님도 부르고, 성령님도 부르게 됩니다.

성령은 봄날에 콩콩 언 대지가 녹듯이 봄날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월명동 꽃밭같이 포근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성부가 하나님임을 알고, 성자는 예수님임을 알지만 ‘성령, 성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에 대해서 숨겨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 가더라도 남자는 잘 보이는데 여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애인도 여자는 남들에게 잘 안 보여 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비해야 주님을 맞는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예비하지 못하여 맞지 못한 곳은 모두 멸망받았습니다. 롯 시대의 소돔 땅도 예비하지 못하여 멸망받았고, 노아 시대에도 예비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를 맞도록 예비해야 할 자들이 메시아를 불신하고 핍박하여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구촌의 현실을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모두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자가 예비하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불신하여 심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축소시켜 절대 매일 예비하고 주님을 맞는 자가 확대시킨 역사의 재림 때 주님을 맞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어제는 예비하는 날이고 오늘은 주님을 맞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못 하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셔도 못 맞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도 어제는 바빠서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 절대 주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알고 보니 주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것을 알고 애태우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서 나를 맞는 것이 아니다. 어제 준비를 다 하고 새벽에 기다리고 있어야 나를 맞는다. 재림도 이와 같다. 내가 오기 전에 다 예비해야 나를 맞는다. 마치 도로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며 서 있어야 차를 탈 수 있듯이, 어제 다 준비하고 새벽 제시간에 깨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맞는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맞을 수 있는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새벽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버스라도 구간마다 시간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버스를 타는 구간의 시간만 맞추어 늦지 않게 나가 있으면 됩니다.

버스 터미널 옆 구간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이른 시간이 될 것이고, 버스 터미널에서 먼 구간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선생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 입장과 같습니다. 고로 가장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옆에 사니까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주님은 버스와 같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일 때 차를 많이 보여 줍니다. 어느 때는 차를 못 타고 걸어갈 때도 있었지요? 주님을 못 맞은 것을 보여 주기도 하는 계시입니다. 주님을 버스나 자가용으로 보여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비유로 보여 주는 것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깨달으라고 함입니다.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는다.’는 말씀을 꼭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 보았지요? 새벽에 어마어마한 손이 공중에서 보이다가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손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때가 끝났다.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예비하고 회개하는 기간이고, 내려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회개로 쳐 주지 않고, 죄도 속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목숨을 내걸고 체면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앞날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 것입니다. 안나 수녀의 ‘성스러운 호소’를 보아도 주님이 그와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때를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서 빨리 준비하는 데 힘써라. 충성하라. 더 이상 연장은 없다.” 하셨습니다.

오해받은 자보다 오해한 자가 문제고, 악평받은 자보다 악평한 자가 문제입니다. 오해하고 악평할 때는 거침없이 했지요? 회개할 때는 돌과 바위를 끌고 가듯이 힘듭니다.

의인들은 회개할 때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악평하고 억울하게 한 자보다는 회개할 것이 없습

니다. 악한 자들에게 당하였으니 증오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회개하면 끝납니다. 고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노래도 나왔지요?

제 마음대로 혈기를 내며 죄를 지은 자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선생과 같이 회개해요.

어떤 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회개가 이같이 무서운 것이었으면 정말 죄짓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알았습니다. 회개할 때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가 다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 물으니 “회개한 것은 회개되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남아 있다.” 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신입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괴로워서 1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선생에게 그가 회개되었다고 전해 주라고 하셔서 전해 주었더니, 실상 21일 금식할 것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회개되었기에 그만 끝내도록 했습니다.

어린 자들도 이같이 하는데 목사나 지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며 “회개되었겠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정국들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죄가 너무 많고 많아 무거워서 지구가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회개되었는지 저울에 몸을 달아 보세요. 무거운 죄가 회개되었으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곡이 또 나왔지요? 다음에는 이 곡이 새롭게 나갈 것인데 가사를 낭독해 줄 테니 들어 보세요. 중국에서 기도한 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가사 낭독>

- 1절 -

인류의 죄 많고 많도다

씻으려면 바닷물도 부족하도다

씻고 또 씻어도 씻어지지 아니하니

아버지여,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2절 -

인류가 지은 죄 그 가짓수를 세어 보니

저 사막의 모래같이 많고도 많도다

세고 또 세어 회개하여도 줄어들지 않으니

아버지여,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국 감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죄, 섭리의 죄, 각 민족의 죄, 개인들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듯이 회개하며 한없이 울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같이 노래하면서 기도하는데 영계에서 보니 사람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씻으려면 바닷물도 부족하고, 씻고 또 씻어도 죄가 너무 찌들어서 씻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회개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도 린다의 글을 통해 ‘차라리 나의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 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계와 민족과 섭리의 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100년을 고해도 못다 합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씻었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가짓수는 68억 가지만이 아닙니다. 개인당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제대로

회개해 보았습니까? 회개한 자들은 압니다. 회개해 보니 회개할 것이 너무 많지요? 나중에는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었지요? 지옥을 포기하려면 회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욕탕에서 한창 때를 밀고 있는데 때가 너무 많다고 밀다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영계에 깊이 들어가야 자기가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생각납니다. 죄가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수천 가지 행위가 다 죄입니다. 죄는 사막의 모래와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죄를 자복하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죄는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회개로서는 죄를 씻기가 불가능하다고 뜨거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죄가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보니 회개하는 자는 없고 사람들은 갈수록 죄만 더 짓고 있으니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으니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말하며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못 할지라도 내가 그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용서를 비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볼 때 선생이 기도했다고 다 용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전해 주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개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 성령운동을 하게 하여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짓고 살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기도한 것으로 조건을 세워 준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생은 시대의 조건과 섭리사의 조건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세워 주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지금은(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간) 새벽 1시 30분입니다. 7시간 30분 동안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초저녁 기도시간 빼 놓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글씨를 보세요. 손에 힘이 없으니 볼펜을 놓칩니다. 그만 쓰고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쓴 것을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말해 줍니다. 손이 자꾸 놓여집니다. 힘이 없어 볼펜을 놓칩니다.

글씨를 보여 줄 테니 봐요.(글씨 보여 주세요.) 읽을 수 있겠어요? 교정 작업을 7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 글을 누가 볼 재주가 있겠습니까? 한 자도 착오 없이 쳐서 보내야 됩니다. 글씨를 잘 쓰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선생은 명필가라 잘 쓰지요. ‘시간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제 맘대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곳에 있기만 한다고 해서 조건이 세워져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서 말씀을 받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대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은 악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사는 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어떤 편지를 보니, 자기 아이가 TV에 중독이 되어 있기에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TV에 중독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 TV 보고 지옥 갈래, TV 안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천국 갈래?”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아이는 TV를 끊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TV를 보는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이같이 기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하며 온 가정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TV에 중독된 자들이나, TV를 거룩하게 보는 자들이나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다. 시간이 없습니다. 10원짜리 TV를 보다가 1억 원짜리 하늘이 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선생은 TV를 전혀 보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하늘 일을 위해 씁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하면서 신문이고, TV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할 일 없는 자가 TV를 보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영계의 상황을 듣고, 영계의 TV를 보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뉴스를 보아야 됩니다. 거짓 없이 보도되는

참된 하늘나라 뉴스를 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황과 현재와 앞날의 참된 상황을 알아야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자기가 할 일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늘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집중하여 보고 성경도 보며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행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들은 보아도 세상 자체가 그같이 돌아가고, 세상 자체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할 일이 보이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제는 예비하고 오늘은 맞는다.』입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고 매일 행하며 살아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맞다가, 앞으로 정한 날 재림의 때에도 주님을 그같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꼭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실천해 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천하는 자는 재림 때 나를 맞을 자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예배 때도 꼭 모두 나와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말씀 예고편을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은 기도 안 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쁜 병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반(半)병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예배 때 주님께 계시받는 자의 간증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뜨겁게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5월 27일 수요일말씀>

기도는 애인이다. 사랑이다. 주님이다.

본 문 요한복음 14장 14-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를 믿는 자들과 섭리 사람들 중에서 예쁜 병어리들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참 예쁘데 병어리라면 보는 자가 얼마나 안타깝고 실망이겠느냐.” 하셨습니다.

병어리는 말도 못 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고 병어리라고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신앙의 병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병어리’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빠지는 것 없이 예쁜데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기도를 얼버무리고 마는 자들은 반병어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와 결혼하는 때니 빨리 고쳐야 나와 결혼하는 신부가 된다. 정말 급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쁜 사람인데 병어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는 자들에게도 실망입니다.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주님께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자들과 결벽증이 있는 자, 우울증이 있는 자들도 기도 많이 하면 다 낫습니다.

할 것을 안 하면 수족이 멀쩡해도 병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병들이 다 낫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 병들이 다 낫기를 선생도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다 나아서 주님의 예쁜 신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병어리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신앙의 병을 다 고치기 바랍니다. 그 병이 낫기만 하면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껏 자랑하며 소개할 것인데,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하니 하나님은 “병어리를 애인 삼았네.” 하신답니다. 그러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고치겠으니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하니, 하나님은 “이제 한 해도 남지 않았다. 6개월 남았다. 여름 수련회 하기 전에 다 고쳐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꼭 고치기 바랍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섭리사에 예쁜 병어리들과 반병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로 많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보시고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 56:10)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수님은 그래도 ‘예쁜 병어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모두 예쁜 신부로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애인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애인을 빼앗긴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자들이 섭리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영계에서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애인을 빼앗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고로 **기도는 애인**입니다.

몇 년 전에도 설교 때 말씀했는데, 주님은 **“새벽기도는 애인을 만나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애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것을 빼앗깁니다. 기도로 지켜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주님이 꼭 쥐고 있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애인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애인이 있어도 사랑해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사랑해야 기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면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도 빼앗깁니다.

자기 애인이 있는데도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만나도 억지로 만나거나 만나는 시간도 지루하게 생각하면, 애인이

‘나 싫어하는구나.’ 생각하고 땀만 먹고 떠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애인’이니 가지고 있지만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자기 자신을 독점해야 됩니다. 기도 앞에 꼼짝 못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화평을 얻고, 영계에도 들어가고, 신령하여 주님도 만나고, 노래도 작곡하고,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마음천국을 이루고, 힘과 능력을 받아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많이 해야 주님을 제1순위에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영도 힘을 얻고, 시험에 든 것도 풀리고, 천적 마귀도 이기고, 억울함이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형제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기도해야 육신과 정신과 영이 살아납니다.

안나 수녀는 기도를 많이 하여 주님의 심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하니 주님께서 심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기도 안 한 죄는 큰 죄입니다.

‘기도는 주님’입니다. ‘사랑은 주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함으로 내가 너의 애인이 되어 주고, 기도함으로 나와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시며, “이 말씀을 섭리사에 알려 모두 그같이 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많이 말하면 오히려 헛갈리니 기도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럼 한 막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섭리사는 30년 동안 선생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애인 신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 되어 조건만 제대로 세워 주면 주님이 어떤 교단보다도 마음 놓고 계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섭리사에 여러 환난이 있었습니다. 선생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짜증을 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은 사람을 쓰고 더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는 전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없이 은혜를 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증거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격함과 두려움으로 서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섭리사는 신앙 축복과 물질 축복을 한없이 받을 조건이 되어 있으니, 전체가 하나 되어 행할 때 한없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체가 주님을 애인으로 삼는 신앙을 가지고 그같이 삶을 살기에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조건을 세우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시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5~6개월 전에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말씀으로 계속 잡아 왔습니다.

싸우고, 헐뜯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잘하고 축복을 받아야 개인도, 가정도, 섭리도 어려운 이때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섭리 전체는 한 사람과 같은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말씀해 주시면 모두 듣고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 되어 실천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다 계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어도 다 단상에서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섭리의 수십 명만 계시를 받아도 선생이 검토하려면 짐이 됩니다. 개인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교회 교역자가 검토한 후에 교단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섭리나 세계에 해당되는 계시를 수십 명, 수백 명이 받고 내게 주면 그것을 다 읽고 주님과 검사하고 확인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립니다. 한 사람이 받은 계시도 5~6번씩 주님과 만나 깊이 이야기하며 확인합니다. 왜 그 같은 계시를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있고, 받은 자만 알 것도 있고, 선생의 선에서 알고 끝날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알게 하려면, 먼저 선생이 ‘주님의 계시’라는 전초를 해 줘야 됩니다. 대개 계시를 받아 간증하면 받은 자의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믿게 되기에 착오가 생깁니다. 고로 선생이 증거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며 남모르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안나 수녀도, 토마스 주남도, 린다도 모두 겉으로 볼 때는 순수하여서 세계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읽어 보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같이 계시하여 키워 오셨구나.’ 알게 됩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네가 무슨 목회를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네게 무슨 계시를 주셨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학자나 신학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보다 생각지도 못한 자들을 은밀히 길러서 계시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천국성령운동 집회를 하는 조은 목사도 순수하게 컸습니다. 처음에는 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컸고,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가 그같이 집회하러 다니며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지요? 처음에는 선생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이야기나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고, 억울한 소리 듣고 참고 견디며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자들은 개성마다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맨손으로 상어를 잡아 오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 같은 기질과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서 맨손으로 노루를 잡아 오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 같은 기질과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예수님은 그를 알아주시고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때 그 같은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연단받아야 서서히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맡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산에서 호랑이와 싸워서 호랑이를 잡아 온 자와 같이 연단과 고통을 받은 자’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니, 모두 돕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은 할 수 없이 억센 배추에 소금을 뿌리듯 하여서 그 억센 마음이 꺾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개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형제들이니 돕고 위해 주어야 그와 더불어 사명도 주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구경꾼처럼 쳐다보면 절대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재림 때는 완벽해야 됩니다. 선생도 누가 되었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알기만 하면 일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꼭 주님과 의논합니다. 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주님께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주님은 그 행위대로 대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고 대하지 말고 사명을 보고 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해서 사람만 좇지 말고 주를 좇아야 됩니다.

내가 꼭 받아 봐야 될 사연이 있는 편지는 교단을 통해 받아 보고 있습니다. 편지에 자기 근본의 죄를 회개하면 끝까지 읽어 봅니다. 편지만 봐도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 혹은 ‘완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리만 하는 편지는 시간도 없는데 보겠어요? 편지 쓸 때는 근본을 써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 보셨을까?’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15 줄이면 근본의 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줄을 쓰면서도 땀소리만 합니다. 제일 반가운 편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과 선생님이 일 맡긴 자와 하나 되어 일하겠습니다.’라는 편지입니다. 또 ‘어떤 형제를 전에는 오해하고 대했는데 가서 회개하고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편지입니다. 또 ‘영원불변 주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심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려워도, 누가 힘들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는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제일 좋아하며 ‘나의 면류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편지도 역시 속이 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고 풀었습니다. 이제 오해한 자들을 풀어 주고 다닙니다.’ 이 같은 편지를 보면 기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도 ‘제가 이같이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돕겠습니다. 이제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편지를 보낸 자들의 것을 다 읽고, 주님께 이 같은 편지가 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편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이 계속해서 합니다. 설교를 통해 내 심정을 한마디 말해 주었더니 이제는 너무 많이 편지합니다. 편지로 인하여 말씀을 쓰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단과 각 나라에서 보내는 중요한 편지를 받는 데까지 지장이 있으니 다음에 해 줘요. 하루에 몇 장은 볼 수 있지만 답장은 못 합니다. 말씀이 선생의 편지입니다.

그동안 내게 편지한 자들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내게 지장이 될까 봐 편지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게 안부 전하며 선생은 잘 있다고 소식 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기도만 해 줘요. 그동안 편지 안 온다고 섭섭했던 마음 다 풀렸습니다. 이제 섭섭하다고 하지 않을게요.

오늘 밤은 가정국 전미정 집사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이 먼저 보고 주님과 의논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니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전미정 집사는 예전에 신학을 했었고 전도사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순회사로 임명합니다. 필요하면 집회 때 가야 되니까 주님은 순회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했기에 말씀을 전할 때 부흥강사같이 하지 않고 또박또박 전해 줄 테니, 듣는 자들은 ‘왜 강사가 저렇게 설교하지?’ 하며 의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미정 순회사는 전에 초상화를 공부하여서 계시도 세밀하게 받았습니다. 또 전에 말씀자료부에서 7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서 꼼꼼히 잘 받아 적습니다. 주님도 꼼꼼하여 말씀을 잘 적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생명들을 잘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옳은 사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계시입니다. 자기의 옳은 생각도 계시에 들어갑니다. 듣는 자들도 ‘나도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고로 자료가 오면 5~6번씩 읽어 보며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 일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먼저 그것을 달라고 해서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선생에게 전달되어서 주님께서 한 줄, 한 줄 검토하신 후에 내보내어 간증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깎는 계시가 아니라면 확인하고 모두 듣도록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것은 선생이 늦게 내보내면 안 되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내보냅니다.

주님께 받은 계시를 따로 전하지 않고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 중에 설교에 넣어서 하면 어떠하겠냐고 물으니, 주님은 계시받은 자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주님이 선생을 칭찬하는 말은 빼고 싶다고 하니 “그래서 너한테는 그

런 계시 안 준다. 중이 제 머리 못 꺾듯이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못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전부터 이 큰 섭리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린다나, 토마스 주남이나, 안나 수녀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섭리 자체에서도 이 큰 방에 창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섭리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 놓고 계시해 주지 않으시겠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선생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시의 말씀이 왔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은 5년, 7년, 10년 전부터 미리 역사해 오십니다. 그리 알고 듣기 바랍니다.

선생은 그동안 미국의 토마스 주남에게 초청 강연을 해 줄 것을 몇 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정으로 힘들 것 같으니 책이나 동영상 간증을 보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도 주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후하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각 교회에서도 주님께 들은 말씀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고 간증도 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의 간증을 듣고 의문이 드는 것이 있으면 교단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간증을 통해 ‘성령님’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말해 주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만 강조하여 가르치니, 주님께서 요동치 말라고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생이 그 이치를 주일말씀에도 전해 주었지만 다음에는 도표로 그려서 더 자세히 인식시켜 주겠습니다.

주님은 안나 수녀에게도 성모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으니 더 확실합니다. 토마스 주남에게도 성령에 대하여 물어보았지만 답이 안 왔습니다. 주님은 여건이 되어야 계시해 주십니다. 사명이 각 각입니다.

섭리사는 성령님에 대하여 이미 배웠습니다. 선생은 20대에 성령님을 배우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성령님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7일에 전미정 순회사가 받은 주님의 계시 중에 ‘너희 순수한 마음과 나에 대한 사랑이 사탄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다.’ 했지요? 내 속이 시원합니다. 전에 주님은 선생을 통해 섭리 사람들 너무 답답하다고 목 놓아 심정 타게 외쳤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양처럼 순하기만 하다. 그 양 같은 마음을 가지되, 제발 호랑이처럼 강한 마음으로 살아라. 사탄을 이기고 행악자들을 두려워 말아라. 그 대신 사명을 주면 어깨와 목의 힘을 빼고 주권으로 다스리지 말아라.” 하면서 선생을 통해 늘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외치셨던 말씀을 계시를 통해 또 외치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모두 한 지체가 되어 계시받은 자들의 것을 서로 들어야 많이 알게 됩니다.

선생은 50년 동안 계시에 대한 공부를 해 왔지만 그 방대한 영계에 비하면 내가 너무 어렸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받은 계시와 꿈의 세계와 영계에 대해서도 점점 말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해 주겠습니다. 선생에게 여러분들의 영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내게 오는 것인지, 선생의 영안으로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영을 보고 편지로 그 사람

에게 물어보면 자기 영은 선생님을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은 까치가 지저대기에 “왜? 누가 왔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편지가 왔는데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쪽지만 남기고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는 길에 까치에게 “선생님에게 가서 반가운 소식을 꼭 전해 줘. 몇 번 지저귀면 선생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해 줘.” 하며 심정이 타서 까치에게 사연을 전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까치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 그래서 그때 까치가 내게 와서 지저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백 리, 천 리나 먼 곳에서 까치더러 내게 가 보라고 심부름시키지 말아요. 가라고 해도 안 와요. 그렇게 먼 데서 오겠어요? 그러면 까치가 교통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부패되어 까치까지도 말을 안 듣습니다.

천사들이 만물을 명하여 시켜야 행합니다. 예수님도 만물을 시키며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까치를 시키느니 오히려 본인들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이 직접 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영이 못 오면 자기 수호천사를 시키든지요.

꿈에 어떤 사람의 영이 보여도 그 영이 직접 올 때가 있고, 그냥 환상으로 화면처럼 띄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은 한 여자 영이 내게 왔는데 얼굴은 안나 수녀가 찍은 예수님 얼굴이었고 몸은 여자였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니 “네가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조은이구나!” 하니, 얼굴이 스르르 바뀌면서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어느 때는 어떤 영이 와서 “저 몰라요?” 하기에 “잘 모르겠다.” 하면 울기도 합니다. 영이라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 수고했다.”고 꼭 말씀하십니다. 이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생을 통해 ‘고맙다. 수고했다.’고 꼭 말씀하셨지요? 선생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주님께 그 말을 듣고 전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이 증거해 주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 말아요. 계시받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야 주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할 정도면 주님도 칭찬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에게 전화해서 주님께 자기 좀 물어봐 달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공적인 계시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도 여러분이 편지로 물은 것을 다 대답하다 보면 공적인 설교를 못 받고 주님과 대화도 못 합니다. 알겠지요?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간증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섭리사를 특별히 사랑하여 계시해 주었으니 심각히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야 자꾸 말씀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받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꼭 기도해 줘요. 알겠지요? 그리고 주님께 계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고요.

그럼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말씀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2009년 5월 31일 주일말씀>

분쟁하는 자는 황폐하게 된다

본 문 마태복음 12장 25-26절, 30-31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가정이나 개인은 서지 못하리라.”

섭리 안에서나, 섭리 밖에서나, 민족적으로나 누구든지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자는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넘어지고,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분쟁하고, 편을 나누고, 싸우고, 주님을 해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분쟁함으로 멸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리라. 너희가 분쟁하여 내 양들을 끌고 나가 너희 주관을 세우고자 하나, 너희 생각대로 너희의 주관을 세우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결국 분쟁한 자들의 말로는 멸망과 황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며 귀신들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네 마음속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지옥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나간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끌어내어 한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나라나, 가정이나, 섭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분쟁하는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불평하고 악평하며, 선생에 대해 악평하고 선생의 이름을 빙자하여 분쟁하는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분쟁하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린 신앙인들과 마음에 서운함을 타는 자들을 찾아 꺾어 분쟁하고 원망하게 하느냐. 왜 생명들을 섭리에서 갈라놓느냐. 한 생명이라도 상하게 하면 그 생명을 해한 자가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너희가 분쟁하고 내 말을 어기고서 어찌 황폐하지 않겠느냐. 내가 말하였은즉 속히 행하리라. 모두 사탄의 행위요, 귀신들의 행위니라.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쪼개고 나뉘 놓으리라. 그리고 사탄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분쟁하며 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이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분쟁하는 자들을 보면 형제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혹은 선생이 어떠하다고 하면서 말하고, 선생이 준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악용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서운함을 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꾸 모여서 별말들을 다 합니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자들이 그같이 행하는지 알 것입니다.

선생이 써 준 편지를 악용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불신자입니다. 아무도 그런 자를 따르지 말고, 그 말을 듣지도 말기 바랍니다. 변질된 자입니다. 숨어 다니면서 은밀히 사탄 짓을 하고 귀신들의 짓을 하니, 그들을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게 되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과 귀신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러니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끊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은 원편에 두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원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은 천국을 말하고, 원편은 지옥을 말한 것입니다.

말세 때 재림으로 인한 환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과거도 생각 말고, 미래도 생각 말고, 지금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걸린 자는 사망길에 있는 자요, 좌측에 있는 자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지 않으면 점점 자신이 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으로 가고 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섭리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께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고, 서운함을 타고, 자기의 생각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빼내어 분쟁하여 행하는 자가 있으니 이런 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자비 뒤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주님이 등을 돌리면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영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설마 하나님과 주님이 그러실까?’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속히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탄과 사람들이 악으로 꼬여 가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구경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집회에 참여하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나의 용서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누구 때문에 내가 이같이 되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선생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일 수천 번씩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탄이 들어와 서운함을 갖게 만들고, 형제들이나 선생을 원망하며 서운하다고 하면서 여러 말을 퍼뜨리며 다른 자들까지 그 말에 동조하게 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감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서운함을 갖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걸핏하면 선생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쏠려서 마음이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행함을 보시고 마치 주님께 그같이 대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지옥은 자기가 동조해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자기가 좋아서 ‘불법’을 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불법’이란, 스스로 분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30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섭리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함정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조건을 잡힌 것이 너무 큼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디에 사나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자기가 이겨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참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룹니다. 흔들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분쟁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우선으로 하면 주님은 “끓는다.”고 하셨습니다. ‘끓는다.’는 말은 ‘그들을 신부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단체로 가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사망으로 가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넓은 길을 가는 자다.” 하셨습니다.

섭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섭리와 선생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나, 중고등부, 캠퍼스,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안에서 분쟁하는 자들이 있는지 더욱 찾아보고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섭리를 이탈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사고로 자기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섭리 나가서 일반 교회 다니겠다.’ 하면서 별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한 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심판을 받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르면 패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잘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잘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잘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섭리 안에서 누가 잘못했으면 자꾸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잘 대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전에 죄지었다. 말썽에 나왔다.” 하면서 아주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었으면 죄인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전에 무슨 활동 했다.” 하면서 자꾸 죄인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전에 행여 잘못된 활동을 했을지라도 지금은 다 회개하고 잘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죄인같이 보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그런 자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말기지 않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행위를 하며 악한 신앙인들을 자꾸 꼬여 내고, 섭리사를 악평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같이 주님의 섭리의 지체를 찢는 자요, 쪼개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황폐하게 되고, 자기 뜻을 세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섭리의 생명들은 주님께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의 주관을 받아 섭리의 생명들을 자꾸 꼬여 끌고 가는 자는 이리요, 여우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내 생명들을 끌어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절대 이리나 여우 같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섭리에서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은밀히 계획하고 산 자들로서 주님의 뜻은 뒤에 놓고 산 자들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최후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마음속에 뜻한 대로 안 되니 섭리를 뒤흔쳐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니 마음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라는 금년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서 주님이 땅만 차지한다고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섭리의 한 지체가 되어 행하면 주님은 다 귀히 쓰십니다. 참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섭리 나갈까, 그냥 있을까?’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다. 어서 하나를 택하여라.”**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곤란하게 두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에게 곤란하게 두 길이 나타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심지가 굳지 않은 자를 주님은 택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섭리에서 누가 잘못하면 스스로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말해 주지 않으니, 어린 신앙인들은 분별할 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이에 주님은 어린 신앙인들을 끌고 가는 것을 더 이상 못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경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인생들이 행치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전에는 주님의 심정의 말씀을 즉시 전해 주는 자가 없어서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주님의 입이 있고 귀가 있으니 즉시 즉시 말씀해 주십니다.

섭리사에서 아직도 뒤에서 은근히 사람들을 분쟁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그 행위를 보았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자꾸 섭리사와 선생에 대해 불만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불러내어 오라고 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지리라.”** 하셨습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말하면 앞에서는 잘한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숨어서 은밀히 또 말을 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상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일말씀을 안 보고, 수요일말씀도 안 보고,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자들… 너도 내가 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곧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들 때문에 선생이 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여. 너는 물질에 빠져 아무리 물질을 잡으려 해도 바람을 잡듯이 물질이 잡히지 않으리라. 회개하라.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그같이 하느냐. 네 앞에 죽음이 온다. 속히 회개하여라. 그러면 죽음이 피해 갈 것이다. 네가 죽음도 이기겠느냐. 정녕 피하지 못한다. 내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만이 시한폭탄같이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섭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하여 한쪽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탄에 의하여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성령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느냐. 은혜도 때가 있다. 자기 때가 있다. 이미 자기 때를 놓친 자도 많다.

신혼골수를 쪼개어 보는 나 예수가 흰히 너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잘 감찰하고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좇는 자만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 진정 기도로 좇고, 진정 회개로 좇고, 이 은혜의 역사에 주를 찾고 좇으라.

오래된 자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내가 더 이상 안 본다. 내가 등 돌리면 너희는 그제야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행하여라. 많은 자들이 가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너희는 자신들을 알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한 말은 곧 이루어진다. 이는 너희 선생의 말이 아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인 나 예수의 말이다.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서 외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회개할 때 나는 감격하여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은 불꽃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외면할 것이다.

섭리 사람들 모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환난을 겪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가고 있다. 누구는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바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느냐. 알곡이 들어 있는 벼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들은 정말 잘했다. 내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내 말은 백만분의 일도 삭감 말고 절대 믿고 절대 행해야 한다. 이같이 행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이 부딪히지 않는다.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여 쫓아내라. 너희 마음속의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되리라. 기도하라. 마음속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전하는 이 시대 말씀을 들어라. 내 양을 꼬여 섭리 밖으로 끌어가는 자는 정녕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결단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시대의 말씀을 들어라. 속히 행하라. 나와 같이하지 않는 자는 겉은 양이나 속은 이리니라. 이리를 몰라보는 자도 소경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알고 믿고 스스로 조심하라.

흘로 투덜대거나, 나 예수를 옆에 놓고서도 함부로 말한 자들은 회개치 않으면 제가 말한 대로 되니 무릎 꿇고 진정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평한 대로 그 죄가 네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막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말하는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지옥을 갔다 온 자를 통해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하여 그같이 많이 말씀을 듣고도 지옥을 하나의 고통스러운 정도의 곳으로만 보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중에서도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 지옥길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실상 자신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을 알아도 뒤돌아 생명길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고로 생명길로 가는 자가 잡아 주고 끌어내 줘야 된다.

죽은 후에 지옥이 결정되고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살았을 때 결정된다. 너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시로 너희 선생을 통해 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으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나의 계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느냐.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때다. 온 세계가 죽음의 끝에 서 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듯이, 이 시대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너희 생명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뜻을 벗어나 분쟁하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마치 식물에 뜨거운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그 영혼들이 시들어 죽는다.

너희는 영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기에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이끌었으나 내 손을 몇 번이고 뿌리쳤다. 고로 사탄

이 너희를 끌고 가느니라.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더 크게 역사하게 된다.

정녕코 말하노니 나의 양들을 끌어내어 분쟁케 하지 말아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거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임을 곧 흠으리라. 바벨탑이 될 것이다. 너희 육과 영이 황폐케 되리라. 너희끼리 분쟁할 것이다. 모두들 말씀 선포되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 듣게 함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련다.

모든 섭리인들은 나의 재림을 예비하며 하나가 되어라.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기도하기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하여라. 말씀도 끝까지 듣고, 끝까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은혜도 끝까지 간구하여 받아라. 성령의 뜨거운 불을 충만히 받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니라.

주님은 특히 섭리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래에 선생이 예전에 편지해 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을 이용하고 불만 불평을 하면서 악한 신앙인들과 서운함을 타는 자들을 끌어내는 남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주님은 내 양들을 끌어낸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 이름을 나쁘게 팔지 말라고 했지요? 선생이 여기 있다고 내 이름을 악용하는 자는 정녕코 그 행위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를 건드리면 무지 속의 상극세계입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할 일이 많으니 기도하고 준비하라.’ 했더니 나가서 선생의 편지 보여 주면서 악평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에 선생이 싸인해 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을 행하며 교단과 섭리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선생이 써 준 격려 편지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 봐라. 본인이 이같이 쓰지 않았냐.”하며 악한 영혼들을 껴서 섭리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선생의 글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에게는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천법에도 걸리고 인법에도 걸리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선생을 위하여 한 일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내게 편지할 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참이었다면 결과적으로 그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자는 사람들을 찾아가 섭리와 선생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이름들을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 알라고 말해 줍니다. 말해 주어야 자신이 알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회밖에 없는 때입니다.

섭리사 30년 동안 분쟁하고 나가서 뜻을 이룬 자는 없습니다. 결국 선생이 주님께 고하여 다 흠으셨고, 주님은 다른 데서도 받아 주지 않으셨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섭리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명자를 통해 전체에게 즉시 말씀을 내보내셨습니다. 선생이 한국에 없을 때는 즉시 말씀이 안 왔지요? 주님은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나를 아주 무섭게 연단시키시며 **“내 말을 들으면 즉시즉시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섭리세계에 전해 줘야 됩니다.

선지자나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님이 쓰십니다. 그들의 말을 비방하며 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입의 검, 곧 말씀’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같이 행하십니다.

지금도 선생에게, 혹은 주님께, 혹은 하나님께 서운함을 타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급할 때 선생을 그같이 그냥 두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애타게 하느냐. 못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 주일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포기하고 삽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빨리 돌이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증거케 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악하고 섬리인들이 책임을 하지 못하여 고난길을 가지만, 주님은 그냥 고난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가를 치러 주어 섬리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펴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살린 후에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모두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힘들지만 음식을 준비하며 몸소 희생하면 모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았지요? ‘나 하나 희생할 테니 모두 이것으로 끝내 달라.’ 하고 유서를 써 놓고 죽었습니다. 고로 거기서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리사는 육의 죽음으로 대신하지 않고 심정의 십자가, 정신의 십자가, 육의 십자가를 대신 저 주어 사망을 벗어나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고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도 육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자기 몸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쓰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합니다.

누가 나를 피로 값을 주고 샀습니까? 이같이 하지 않았으면 섬리사가 이같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백 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을 겪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선생도 굳건하게 잘 가는데, 어찌하여 넓은 바깥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고, 갖은 고통을 받고, 신앙에서 탈선하는지, 정말 그 정신들이 썩었습니다. 그동안 인성적인 신앙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섬리인들의 죽었던 신앙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을 해 온 자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신앙들이 살아났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성령운동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서 편지들이 왔는데, 과거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섬리의 환난 기간이었지만, 섬리 사람들의 신앙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거의 그러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았으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듯이,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하고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가면 지도자들은 근본의 뜻을 모두가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책임을 못 하는 자들입니다. 분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육의 생각과 자기 영의 생각이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패 가르지 말고 모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분쟁의 영입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 분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보니 내가 가는 길에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 뱀들은 내 눈에 안 띄려고 너무나도 빨리 이리 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선생은 뱀보다 더 빠른 행동으로 손에 든 쇠 지팡이를 가지고 일부를 때려잡았습니다. 그 뱀들은 마귀의 주관을 받고 분쟁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분쟁하는 자들이요, 선생과 분쟁하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뱀보다 더 빨리 행동해야 뱀을 잡습니다. ‘모든 일을 뱀 잡듯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또 내 앞에 큰 뱀이 지나가기에 손에 든 채찍으로 뱀 한가운데를 한 번에 잘라 놓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같이 뱀을 잡듯이 모든 일을 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선생의 몸은 갇혀 있지만 예전보다 영이 더 살아서 정신과 함께 날카로운 검과 화살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채찍입니다. 쇠 지팡이입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전쟁터의 총입니다. 화살입니다.

선생의 영은 밤낮으로 더욱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의 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육도 보니까 확실히 그 행함을 압니다. 본인들은 “설마 나는 모르겠지.” 합니다. 혹여 선생이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쓰게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할지라도 각자는 매일 행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매일 심판을 받거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았는지, 화를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자신들은 잘 압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 스스로 다 압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손색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매일 자기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씻고 닦듯이,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잠을 자듯이 신앙도 그같이 해야 됩니다.

선생은 내 할 일에 비해 하루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느 때는 앞에 쌓인 일을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섭리세계 전체의 일을 혼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능력을 주셔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무엇을 그리하시나?’ 궁금할 것입니다. 세계 행정이 다 오니 꼭 결재를 해 줘야 됩니다. 다 읽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위해, 섭리 위해, 민족 위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고할 것을 다 고한 후에 각 개인들의 것까지 고해야 됩니다.

편지를 잘못 읽고 결재하면 큰일 나니 모두 몇 번씩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받은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몇 번씩 교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잘못 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병듭니다. 과로가 옵니다.

고로 편지가 와도 다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지 쓰는 것을 일로 삼는 자들의 편지는 거의 안 봅니다. 아마 알면 안 쓸 것입니다.

선생은 편지를 받았어도 ‘편지 잘 받았다.’는 한마디 답장도 하기 힘듭니다. 선생의 말씀이 편지입니다. 정말 꼭 편지를 해야 하면 보고 편지를 해야지요. 이것은 교단을 통해서 하도록 해요. 보고 편지를 보낼 때는 몇 줄로 간단히 줄여서 보내야 합니다. 축소, 확대를 배웠으니 실천해야지요.

오늘도 말씀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본 문 마태복음 12장 30-37절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같이 행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비방하는 말을 하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사탄과 귀신들이 그같이 하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황폐하게 되느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귀신의 왕이 나를 통해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마귀와 귀신과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분쟁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비방하려고 항상 이같이 말하느니라. 사람이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하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말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 정죄함을 받아 심판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나쁘게 소문을 퍼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저지하고 막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이용하여 말의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 사람들에게 나쁘게 인식시켜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그 같은 자들은 자기가 악함으로 인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꼬투리를 잡는 말이 나온다. 자기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보내면, 꼭 예수님 시대와 같이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사역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 말하며 비방합니다. 꼬투리를 잡고 흠 잡은 말을 퍼뜨려 따르는 자들을 꾀어 못 따르게 방해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데려가 바리새인 교육을 시키고 그들도 또 그같이 행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섭리사에도 그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선생을 통해 말씀하신 것의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이 써 준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을 비방하고 섭리를 비방하며 악한 신앙인들을 자기들의 말로 설득시키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다.”하시며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사를 반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은 선생을 반대하고 악평하고,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각종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는 주님이 보낸 시대의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맞지도 않고, 지극히 거짓된 말들입니다. 특히 ‘섭리 사람 중에 누가 무슨 짓을 했다. 돈을 횡령했다. 누가 비방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같이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같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그같이 하겠습니까? 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거짓말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려 한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자들이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말한 것들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 놓은 자는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거짓을 쌓아 놓은 자는 거짓을 말하고, 마음에 악을 쌓아 놓은 자는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거나, 혹은 악하다 함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든지, 그동안 교회에 나왔던 자들이든지, 섭리를 반대하고 선생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악평하는 자들을 모두 영계에서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사망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며 섭리를 따라온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자신이 좋아서 그 말에 동의하였기에 그들과 같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섭리 밖으로 데려가는 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기들의 악한 행위와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인하여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선생의 글을 보여 주며 그것을 악용하여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으니, 선생도 주님과 함께 그들을 섭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줄 알고 한계를 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섭리 안에 있으면서 계속 사명을 맡으면, 그 사명을 이용하여 기회로 삼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간) 새벽 2시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썩은 과일을 좋은 과일과 함께 한 그릇에 넣어 놓으면, 좋은 과일도 같이 썩게 됩니다. 고로 쪼갬니다.

섭리를 나가는 자들은 주님께 쫓겨나는 것을 모르고 흔히 “섭리 나가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썩은 사과가 다른 세계에 가면 복직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온 세상 구원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둘이 아닙니다. 삼위 되시는 주님께 심판을 받으면 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께도 심판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심판받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낸 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섭리 안의 모든 자들은 자기 말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함부로 말한 것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기에 그 마음에 거짓을 쌓아 놓아 거짓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여 그 마음에 악을 쌓아 놓았기에 필요할 때마다 악한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선한 자는 평소 생활 가운데 선한 생활을 하여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놓았기에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나옵니다.

평소 형제들에게나 하나님과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것과,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악평한 것이 다 자기 속에 쌓였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모두 회개해야 안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니 근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되지 않았기에 악한 말과 나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였기에 그같이 나쁜 말의 열매가 입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선생에 대하여 투덜대고, 스스로 불만을 품고, 서운하게 생각하여 나쁘게 말하면, 꼭 사탄이 끌어다가 고통을 주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신앙에서 탈선하게 하는 것을 30년 동안 보아 왔습니다. 섭리를 나간 자들은 거의 선생을 비방한 자들입니다. 따를 자를 비방하고, 악평하고, 흠을 잡으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신의 신앙이 다 죽어 가도, 누가 비방하여도, 누가 선생을 악평하는 말을 해도 그들과 같이 비방하지 않고 그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절대 섭리를 나가지 않고 섭리에서 잘 성장하고 축복받고 삽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사명을 주어 보낸 자들을 비방하거나 악평하면 하나님과 주님을 비방하고 악평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결국 그런 자들로 인하여 다른 자들도 물이 들고, 그같이 썩는 짓을 하니 쫓아내 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던 자들을 문둥병이 걸리게 하여 쫓아내게 했습니다. 모세를 악평하는 자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지금도 신앙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신앙이 죽게 되고, 육신의 병으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고로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악평하면 이상세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이상세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모세 때 악평했던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불평하지 않은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악평은 이같이 나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에 소낙비가 쏟아지려고 먹구름이 급히 밀려들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워낙 엄청난 일을 외치니 믿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수군거립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실까? 지구 세상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합니다.

선생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지요? ‘극과 극’이라고 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큼, 긍휼히 여길 만큼 다 털어 주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랑한 만큼 반대로 극으로 행하십니다. 사람들끼리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해 주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외면하고 차갑게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도록 사랑과 자비로 대해 왔다.**” 하셨습니다. “**온 지구에 사는 자들은 이제 더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 함입니다. 이때 회개하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끝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시간을 주니,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구촌 모든 인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심판에 들어갑니다. 심판받는 곳을 보았지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소돔 땅은 하루 새벽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회개할 시간을 40일 주었습니다. 개인마다 회개할 시간을 각각 다르게 정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 때 3년 6개월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3일 반, 혹은, 3년 반, 혹은 40일, 혹은 40년이 고통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 한마디를 해 주십니다. 심판 전에 꼭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을 심판하니 피하여라.**” 하십니다. 소돔 땅도 심판 전날에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 곳곳 심판하신 곳을 보면, 소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 전에 피하라고 했듯이 꼭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심판이 있으니 피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가 지 했어도 피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를 박고 살고 있으니 옮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집과 정원과 농토와 모든 것을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자연과 만물의 징조를 보고서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멸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자들은 “참으로 미련하다.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피하지 못했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자기의 심판 때가 닥치면 그들과 똑같은 길로 갑니다. 남들이 고통 당하고 겪은 것을 볼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는 자기에게 닥칠 때는 모르고 똑같은 길로 갑니다. 회개하라고 자기에게 보여 준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 오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말세에 온 인류에게 처참하게 닥칠 환난과 비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서서히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큰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까이 문 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은혜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비방하고 다니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옛 시대나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을 통해 외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며 비웃고 경멸하기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그들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파괴의 불꽃같은 눈으로 더욱 그들을 겨누시며, 사악한 자들을 기어이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섭리사에도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치 않는 자들을 보시고 ‘목이 굳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비방하고 비웃던 자들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여 **“암곰들이, 숲에서 나오라.”** 하니,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 평소 그같이 행하던 자들을 남김없이 물어 죽였습니다.

노아를 비방했던 함도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함은 하나님을 비방한 자가 되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아요! 특히 주님의 사역자들이 뛰고 달리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름만 안 부를 뿐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요? 빨리 시장에서 사 오면 되건만, 일어나서 사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다.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었지요?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빨리 준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데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때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안 봅니다.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옥을 천국으로 생각하느냐. 그러고서 돈을 버느냐. 세상을 멀리하라고 해도 안 들리느냐. 너희는 더욱 빛을 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 바람을 잡듯이 돈이 잡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섭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돈 벌어 성공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계획을 다 틀어 버렸으니, 어서 내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돈을 벌고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말로 인하여 의롭다, 악하다 함을 받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고난을 선생이 대신 지고 가고 있는데, 선생을 대신하여 할 일을 안 하고 세상으로 갑니까? 게다가 비웃고 비방까지 하고, 주님의 양 떼들을 하나씩 빼 갑니까? 한 생명을 빼내 가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선생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섭리사 모든 자들은 이를 알고 유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자기 생명을 구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고, 주일을 꼭 지키고, 말씀을 깊이 듣기 바랍니다.

은혜와 성령을 쏟아 주실 때 간절히 준비하고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대가로 사도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고, 선생을 통해 대신하게 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슬피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한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빛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주님은 이를 노래로 부르라고 하시며 작사 작곡을 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이라는 곡입니다. 모두 부르고 있지요? 주님이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간증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이 자꾸 손을 잡으셔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가서 깊은 지옥의 함정으로 떨어진다.’고 하며 그런 자가 섭리사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도 일어나야 빛을 발한다. 정신도, 행실도 일어나야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을 함부로 한 자들은 자기 말대로 심판을 받으니 빨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집회에 다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으로 다 퍼부어 주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대로 다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심판도 약속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두고만 보고 있겠느냐.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판의 날을 연장해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연장할 시간이 없다. 급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자가 되어라. 회개하면 세상의 환난을 감해 줄지언정, 심판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멘.

<2009년 6월 7일 주일말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섭리사에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집회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1년 이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어 듣게 하시고, 이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준비시킨 후 지금과 같이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집회에 참여한 자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도 때가 있으니 정말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선생은 재판에 신경도 안 쓰면서 심정을 쏟아 말씀을 받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신경을 안 쓰고 회개도 안 한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때가 되면 다 표가 납니다.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물리치십니다.

1년 이상 말씀을 듣고 회개한 조건에 의하여 이제 성령의 은혜를 쏟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받은 환난과 억울함을 이기고 참고 견딘 대가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집회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성령과 불로, 말씀으로 거듭나 새롭게 변화해야 각자 기도한 바가 더욱 이루어집니다.

조건을 세워 주고, 준비가 되었기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고 더욱 깨끗이 청산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귀신과 함께 죄악을 모두 태워 소각하시려고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 집회 때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도록 지독하게 나기에 전기 과열로 불이 난 줄 알고 교회 안팎을 모두 확인했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지독한 냄새가 다시 나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니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죄를 바싹 태워 달라고 기도한 대로 성령 집회로 지금 섭리사의 죄들을 모두 태워 소각하고 있다.’고 가슴 화끈하게 응답이 왔답니다.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집회에 참여하여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죄를 바싹 태워 없애야 됩니다. 만일 지옥에 가서 죄를 태워 없애면 멸망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영으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은 순종치 않아 심판받고 죽었으나 그 영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벧전 3:18-20)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4:6)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않다가 물로 심판을 받고 그 육신이 생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자들의 영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복

음을 전하셨어도 이 세상 현실과 같이 그들 역시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계에서 영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행여 탄생각을 할까봐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은 대상들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홍수 심판을 받고 일찍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탈 차를 못 탔는데, 다른 차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는 더 지체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절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 미련을 두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육신이 영과 같이 구원받고 살아야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날이 몇 년 더 남았다 해도 그것을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가뭄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만 비가 오고 쏟아집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도 절대 그에 현혹되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차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가는 차를 타지 못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서라도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로서,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지난 30년 동안 섭리사에 성령의 역사를 감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뜻에 따라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불같은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며 역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애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말씀과 은혜의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심정과 근본을 깨닫고, 회개하고, 목숨 바쳐 외치며 복음을 펴 나갔습니다.

이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성신으로서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고, 화목케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불로 표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게 해 주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일체 되어 한 가정의 일을 충분히 해 나가듯이, 삼위체가 일체 되어 보이는 이 지구 가정의 일과 보이지 않는 저 천국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각 개성마다 때를 정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섭리사 전체는 한 사람과 같습니다. 각 교파를 축소시키면 한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사에 성령과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집회가 끝나면 주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신답니다. 그러니 성령과 불로 집회할 때, 이때 어서 받아야 됩니다. 일은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뒤로 미룬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기회를 잡았을 때 서둘러서 한 일은 결국 해 내고 말게 됩니다. 일은 서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긴장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형제들과 같이 은혜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지 않고 뒤에서 투덜댑니다. ‘왜 나는 충성

했는데 은혜도, 성령의 불도 안 주시지?’, ‘왜 마음이 냉랭하지?’ 하며 그 불만을 자꾸 형제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 줄 알고 주님은 선생을 통해 묵시하시어 모두에게 경고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선물로 받아라. 신앙의 무기로 은혜와 성령을 받아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빛을 발한다.”

새벽에도 일어나야 빛을 발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는 평소 시간과 평소 프로그램을 모두 켜 바꿔서 특별히 행해야 됩니다.

선생이 간증할게요. 한마디만 들어 봐요.

예전에는 새벽 3시에만 기도해도 내가 좋아하는 차가 번쩍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수는 내 앞에다 차를 갖다 대고 “타십시오.” 하며 나를 태우고서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요즘은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3시에 기도하면 자전거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나마 운전수도 없고 내가 손수 발로 페달을 돌리고 힘겹게 가야 했습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요. 며칠 전 이틀을 철야하고 나니 시간의 착오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느냐.”

이에 나는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은 늦도록 기도할지라도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과 약속한 대로 일어나니 겨우 새벽 2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티코라도 타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라도 타고 가야지요.

‘오토바이 타면 홀아비 되고 과부 만든다고 해서 나는 오토바이 안 배웠는데 정말 타야 되나? 오토바이 타다가 영의 몸이 사고 나면 홀아비 되고 과부 만드는데 어찌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자는 차를 타고 내 앞을 달리면서 “따라오세요!”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속력을 낼 수 있는 만큼 밟아 버렸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죽는데...’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위험한 모험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 한 시간 늦게 일어나서 이 죽음의 꼴을 겪느니, 정말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나서 안전한 자가용 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은 지상영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보였고, 섭리 나간 자들이 까만 옷을 입고 기웃거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오고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섭리사 어떤 여자는 남자를 만나 키스하고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지요? 다 편지했습니다. 이 판국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땅바닥을 보니 여기저기서 물이 팡팡 솟아올랐습니다. ‘물이 잘 나는구나.’ 하고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땅속에서 솟는 샘 같은 곳이 있었고, 땅 위에 고여 있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분수처럼 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계시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 성령 집회 때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열기에 의해서 섭리 사람들의 가슴마다 뜨거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 집회가 끝나면 그 불이 식어 들어간다. 마치 장마 때는 여기저기에 고인 물들이 땅에서 솟아나고 물이 땅에서 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비가 개고 날이 좋으면 곧 샘솟던 물들이 말라 버린다.』

이와 같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은혜와 불이 식는 자들이 많다. 물론 다는 아니다. 샘솟듯이, 땅속에서 물이 나듯이 자기 속에서 성령의 불과 은혜가 솟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가면, 장마 때 물이 솟던 땅바닥이 장마 후에는 점점 마르듯이 은혜와 성령의 불이 말라 들어간다.

은혜와 성령의 불도 자신이 뜨겁게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때에 모두 참여하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죄를 태우고, 그동안 쌓였던 인생의 모든 오물과 때를 없애야 한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였던 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 이 은혜를 지속하며 순간 남은 시간들을 아껴 쓰면서 나의 재림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신속히 생명들을 전도하고 이끌어 생명길을 가게 하라.』

이와 같이 주님은 성령의 불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성령의 불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직 불과 은혜를 못 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급절하게 필요한 말씀이니 다 들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섭리의 사람들과, 기도하라! 정말 시간이 없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예전보다 더 같이 모여서 소모임에서든지 각 교회에서든지 기도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여라. 너희가 수시로 기도하는 그 간구에 따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나도 다른 곳을 돌아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부디 은혜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야 된다. 장작으로 태울 나무가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나무를 갖다 놓아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은혜와 성령의 불이 꺼진 자들은 정말로 다시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예전같이 긴장 풀면 안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혜와 불을 받아라. 그러므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며 살라. 불이 꺼지면 열심히 뛰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불이 타는 자에게 가서 또 붙여 와야 된다.

‘은혜 못 받았다. 내게 불이 안 떨어졌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가슴에는 은혜와 불이 안 오지?’ 하는 자들은 더 큰 불을 받도록 끝까지 기도하여라. 각자 받을 은혜와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 있으니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집회에 참여하여라.』

선생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편지로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혹은 찬송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서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은혜 받으려면 성령 집회에 가라고 하셔서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못 받았습시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은혜를 안 주셨다고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었습시다. 꿈으로 은혜를 받고, 지혜로 은혜를 받았습시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지혜의 은혜를 받았고, 꿈꾸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습시다.’ 했습니다.

개꿈은 은혜가 아닙니다. 육적인 자들이 꾸는 꿈입니다. 영몽이란,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꿈으로 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1. 기도해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 모두 해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자기 마음과 대화를 주고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와 중얼거리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2.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감동이 되는 것은 시동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3. 기도해야 우리의 천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칩니다.

-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알아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육적으로 흘러가게 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성으로 꼬이고, 노는 것으로 꼬이고, 세상 것에 빠지도록 꼬이고, TV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도록 집중 공격합니다.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 가기 싫게 합니다. 수심 가지로 꼬입니다. 혹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평소 약점 몇 가지를 가지고 목을 조이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짓을 보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며칠만 잘 지 켜보면 사탄과 귀신들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꼭 잡아내요! 알면 안 속고, 죄도 잘 안 짓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면 영웅도 껴지면서 알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알아볼 정도로 양심에 꺼린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체험적으로라도 귀신을 보게 해 달라고 하고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놓은 것처럼 가슴 속에, 배 속에, 허벅지 살 속에, 종아리 살 속에 온갖 오물을 넣고 그 살이 볼록볼록 튀어 나온 채로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죄가 회개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에 죄를 쓰레기로 비유하여 말하고, 몸의 때로 비유하여 말했지요?

4. 기도해야 금년도 표어와 같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 선생의 영이 각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보입니다. 선생이 가도 몰라요. ‘저 사람 누구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5. 기도해야 받게 됩니다.

-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쌓아 놓은 것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평생 못 받고 고생하며 살다 죽습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신앙 축복도 주십니다. 거의 다 주십니다.

‘기도하라.’ 노래 부르고 있지요? 이 노래는 주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을 선생이 받아서 먼저 배우고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를 읽다 보면 눈물이 줄줄 쏟아집니다. 주님은 “이 노래 부르면 모두 너와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좋은 노래가 많은데 많이 안 부른다.” 하셨습니다.

6. 기도하면 형제가 달리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믿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제가 변화되어서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 형제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형제가 변화되어 잘해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형제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여도 꼭 변화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 어떤 사람은 섭리사 환난기 때 어떤 자가 자기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여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용서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어떤 이유든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자기 죄를 빨리 회개해야 선생이 빨리 나갑니다.

7.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생의 마음 알고, 형제들의 마음 알고 제대로 더 좋게 대하게 됩니다.

8. 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수호천사들이 용기 내서 능력을 발하여 사탄과 귀신과 싸워 우리에게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 자기에게 배치된 천사들을 매일 칭찬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천사는 자기가 지키는 자가 믿음을 잃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즉시 철수합니다. 그리고 면목 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인도되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천사가 다시 그 사람에게 옵니다.

인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돕는 것이 천사의 임무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하는 일도 도와줍니다.

그림을 그려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도와줍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각종으로 기분 좋게 해 주면 잘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일을 할 때는 방해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천사는 생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탄과 귀신들 앞에서는 사자나 호랑이 같고, 전쟁의 장수같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줍니다. 자기를 위해 싸워 주는 데 우리는 못 봅니다.

주님도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물건을 손에 잡은 것같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로 전해 듣고 느낌이 오는 듯하고, 기도하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같이 현실감 있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초보적인 영계와 꿈의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씩 보게 됩니다. 꿈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때 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 중에 순간 환상이 보이고, 번뜩 상황들이 깨달아집니다. 자꾸 영에 대한 공부를 해야 영적인 자가 됩니다.

섭리에도 사탄들이 교묘하게 역사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꼭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뱀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거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을 꼬입니다. 크게도 보였다가 작게도 보이고, 별짓들을 다 하면서 변장합니다. 자기 주관권 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교묘한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과 귀신들도 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 마귀들도 “너 예수 안 믿어서 여기 왔다!” 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데 너는 모르냐?” 합니다.

기도해야 자기 수호천사들이 기도의 힘을 받고 더 열심히 도와줍니다. 또 자기 스스로 굳건하게 되어야 천사도 좋아합니다. 천사도 칭찬해 줘야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해야 자기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자꾸 진급되어 계급이 높이 올라갑니다. 천사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급이 올라가면 천사도 관리 잘했다고 계급이 올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천사는 계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날개로도 계급을 따집니다. 날개가 클수록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입니다. 천사마다 옷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6개씩 됩니다. 그 날개를 펼치면 마치 소형 비행기 날개만 하다고 할까요? 천사들은 그 날개를 때에 따라 더 크게 하기도 하며 자유자재로 다릅니다.

(계 4:6-8)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천사는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니까 믿어요. 성경을 안 믿으려면 왜 읽어요? 재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여자 천사, 남자 천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간 떨어지게 놀라서, 마치 병어리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같이 반갑게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불러 주어서 너무 기뻐요.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께 배워서 저를 부르는 것이죠?” 묻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불러서 말해도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니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면 천사가 다 들으니까 대답하는 것을 못 들어도 말하면 됩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흔히 “제가 좋아서 도울 테니 염려 마요.” 하며 꼭 존칭어를 씁니다.

이 설교가 나가면 섭리 사람들이 모두 천사를 부를 것인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는 대로 대답한다고 꼭 전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한대요. 열심히 하고, 예수님 속 좀 썩이지 말고, 세상으로 살지 말고,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어요. 사탄이 들어올 만한 조건을 주면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니 제발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건 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선생의 수호천사가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광고했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나간 자들은 천사들이 거의 철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인들의 수보다 천사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천사도 은 칼, 혹은 금 칼, 혹은 일반 무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설교 때는 교회마다 단상 옆에 천사들이 서 있고 뒤에도 서 있습니다. 경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경호한다면서, 왜 설교하는 단상에 계란을 던지고 무력으로 침략하는 자들을 막아 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탄들이 사람을 통해 들어와 난동 부리는 것을 막는 일은 보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행위를 끝까지 보아야 하나님과 주님도 판단하시고, 또 결단을 내리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두고 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체가 더욱 하나 되고 뭉칠 수 있는 계기와 교훈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자가 지나치게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도 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특히 사탄과 마귀들과의 싸움에 아주 능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위력이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포를 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천사 설교가 나갔으니 더욱 천사를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9. 병에 걸리면 수한대로 살지 못하고, 살더라도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건강하게 해 줍니다. 기도하면 낮습니다.

- 아픈 자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은혜를 받았을 때 고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이나 집회 강사님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신유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고 남의 고통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혹은 죄 때문에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게을러서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혹은 무지로 살피지 못하여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도 아픕니다. 고로 기도하여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도 후유증으로 시간이 지나야 낮기도 하고, 즉시 낮기도 합니다. 약도 마귀와 귀신도 쫓아내고 먹어야 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10. 기도하면 신령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총명해지고, 정신이 살아나고, 썩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11. 기도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제1순위에 놓고 살게 됩니다.

12. 기도하면 빠른 구름이 되듯이, 빠른 바람이 됩니다.

13. 기도하면 자신이 과거에 잘못 산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간증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 못 견딥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답답해서 못 봅니다.

- 편지 중에 어떤 여자는 이성의 타락을 하여 회개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나니 평생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죄를 짓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너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평생 꺼린 것은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순간 미련하게 행한 일이 너무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기가 한 일을 섬리뿐 아니라 온 세상에 낱알이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짓지 말라고 외치고 싶다고 하며 전국과 섬리세계에 간증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듣고 죄를 못 짓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죄를 지은 자는 결국 모두 후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벗고 다니면서 외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옛날 선지자들같이 외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심정의 호소가 너무나 간절히 전달되었기에 오늘 말씀에 넣었습니다. 죄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너무 분하고 원통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죄를 안 짓도록 말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로 부흥강사들이 자신들이 겪고 깨달은 것을 심정에 호소하며 뜨겁게 털어놓고 불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영적으로 보면 심정이 타서 어떠한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끔찍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허락하면 외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자가 압니다. 옛날 선지자같이 알몸으로 외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인 줄 아세요. 정장하고 외쳐도 말이 안 먹히면 본격적으로 해야지요. 사명도 각각이니까 통제부가 통제하기 곤란한 것이 정말 많아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죄짓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네.”

하십니다.

이성의 범죄 한 자들은 주님이 ‘그 죄의 회개 조건으로 팬티 바람으로 한 달씩 외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법을 안 만들기 다행입니다. 죄지은 것을 숨어서 회개해도 결국 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으로 결국 다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도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14. 기도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회개해 봤지요. 회개는 죄짓는 것보다 100배도 더 힘듭니다. 아무리 회개하는 것이 힘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십억만 배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은 내가 앞모습을 보이며 사정하고 빌기도 하지만, 때가 되어 등 돌린 후에는 너희들이 눈물을 한 통씩 흘려도 눈 깜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혀 마음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병아리 눈물만 흘려도 감격하여 내 눈시울이 뜨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눈물 흘리는 것 봤어요? 병아리 열 마리가 있는데 좁쌀을 9개만 주면 그중 한 마리가 못 먹고 읊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자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찬밥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뒷전에 놓고 대한 것을 생각하면 서운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항상 뜨거운 밥을 먹으면서 앞자리에 많이 앉은 자들도 눈물이 잘 안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도 대우를 잘 해 주고 주님도 잘 대해 주셨는데 형제들의 심정을 몰라줘서 원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심정이 타서 눈물보다 더 뜨거운 아픔의 눈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밖에 눈물이 안 나오는 자들은 선생이 목숨을 걸고 뭘 때 하지 못한 것과, 그 좋은 기회에 같이 하자고 챙겨 주고 빌고 애원하던 때에 같이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날이 다시 언제 오겠냐고 생각하면 한이 되어 눈물이 펄펄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잘 대해 주셨는데 그 좋은 젊은 날 다 보내고, 크게 일하지도 못하고, 몇 사람 전도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짝사랑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신입생들 중에서 처음에 잘 몰라서 악평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또는 악평도 하다가 섭리에 온 자들은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늦게라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불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기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악평을 하는데도 섭리로 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만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 함께하기를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라

본 문 히브리서 13장 18-19절

사도행전 8장 22절

야고보서 5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이 이 밤도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일에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고, 은혜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주일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기도해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즉시 알게 됩니다. ‘아!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고 머릿속으로는 감동을 받지만, 직접 기도해 보기 전에는 얼마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에게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이 80% 이상이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았습니까? 기도하면 고통을 80%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주님이 막아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고통 받을 지역의 상황이 돌아가고, 또 미리 준비하게 하여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지요? 일을 못 하더라도 기도는 꼭 해야 되겠지요? 돈으로나, 다른 어떤 방법과 백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세력, 기도의 주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조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것만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주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선생이 그동안 얼마나 애간장이 타면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잘 아시지요. 신이시라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인간은 신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특별히 계획적으로 부르신다면 인간들이 알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신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사명을 받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부르셔도 인간들은 못 알아들으니, 선지자들이나 사명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과는 잘 통하지만 신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에 속하여 깊은 단계에 들어가 살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 행하는 자만 신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내어 말씀하셨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 전달된다.’고 하였지요?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명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를 위해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운 자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하면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한 것을 다시 잘 생각하고 그것을 알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사탄과 귀신들의 꼬임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은혜 받은 자들을 잘 꼬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다른 계시를 주어도 따라갑니다. 섭리를 나간 자들이 꼬여도 따라갑니다. 선생이 허락했다고 하며 거짓말로 꼬이기도 하고, 선생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꼬이기도 하고, 말씀에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약점을 잡으면서 꼬여 더 이상 섭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은 섭리를 떠난 자들입니다. 섭리 안에 있어도 섭리를 악평하고 선생의 꼬투리를 잡으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꼭 내쫓으셨습니다. 30년 동안 그같이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주님이 보낸 자를 악평하든지 흠을 잡는 것은 보낸 하나님과 주님을 흠 잡는 것으로 봅니다. 사탄은 사명자를 넘어지게 하고,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못하도록 나간 자들을 통하여 악평하고 막습니다.

근본은 사탄과 마귀들의 짓이고,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같이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 악평하게 되고 흠을 잡게 됩니다. 무지로 시험에 들고, 무지로 꼬임에 넘어가고, 무지로 사망길을 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만 잘 따라가면 결코 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 모세 시대에 모세의 말씀대로 따라간 자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으면 물로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노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사망길로 간 것입니다.

- 다윗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다윗을 따라갔으면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은 자들만 망했고 사망으로 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사울 왕이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세상에서 저지른 행위들을 보면 누구든지 사울 왕이 지옥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세웠을 때는 사울 왕도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보낸 다윗을 미워하고 악평하고 흠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자살한 영은 구원받을 자였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매일 자살하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자살한 그날, 거의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살하겠다는 그 무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아봐요. 너무 괴로워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주님을 부르며 며칠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못 죽게 하십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기쁨으로 살게 해 준다고 하십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말하고 간증해요. 내게도 편지해요.

요즘 우리 섭리사는 주님 맞는 준비 하느라 너무 바쁘지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고 제 맘대로 한 자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자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를 쓰고 나타나 일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유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흠을 잡고, 이단시하고, 멸시하고, 각종으로 고틀리를 잡고, 악평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좌우됩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한 자가 하나님이 보내어 세상을 통치하고, 천국으로 갈 운명을 좌우하고, 구원을 좌우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했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한 것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같이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천국에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를 사랑한다는 자들이 어찌 눈이 멀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낸 자를 죽이기까지 하느냐. 내게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선생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줘서 쓰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실상 주님을 불신한 격이 됩니다. 선생도 선생을 사랑하는 자들이 선생이 주님과 의논하여 보내서 선생의 일을 대신 하는 자를 불신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그 행위대로 대해 줍니다.

선생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선생이 보낸 자를 모를 수 있습니까? 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도, 선생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누가 주님이 보낸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주님이 보낸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잘 대해 주다 보면, 주님은 그제야 **“내가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도 주님이 보낸 자를 깨닫고 수고한다고 편지를 보내 주니, 주님은 그제야 **“내가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린다나 토마스 주남에 대해서 선생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쓴 글과 책을 읽어 본 후에 주님이 보낸 자들임을 인정하고 좋아서 계속 편지도 보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을 사귀고 좋아하니 주님은 **“내가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들은 메시지가 있으면 나에게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 어느 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해 왔듯이 또 전해 줄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섭리사에도 섭리에 해당되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맞아. 여기 섭리사에도 따로 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섭리사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미정 집사를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계시받은 것을 내게 보내 주어 확인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주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선생은 주님이 보낸 자를 분별하고 사귀고 환영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 그리고 내가 나가서 외치지 못하니 나를 대신하여 외칠 부흥강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자를 몇 년 동안 찾았습니다. 주님은 선생과 의논하여 조은 순회목사를 세워 사명자로 보냈습니다. 그를 좋아하며 쫓아다녀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직도 “별로야. 나는 나 혼자 기도할 거야.”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선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와는 별개로 지냅니다. 정말 선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썩은 사랑, 육적인 사랑,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같이 겸손해 보세요. 특별한 사명도 없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주님과 선생이 세우면, 내가 직접 못 하여 대신 세운 것이니 그를 중시하여 해야 됩니다. 선생이 하려고 하는 것을 그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고, 유익 때문도 아닙니다. 사명으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 각각 행정의 사명을 준 자들이 있고, 교단의 사명을 준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이 못 하니 대신 맡긴 것입니다. 선생은 여기서 합니다. 말씀도 주고, 교단과 서로 교통하면서 행정도 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선생이 보낸 자들과 하나 되어야 선생과 하나 됩니다. 선생이 보낸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다니시니 가 봐야지요. 선생만 사귀려고 사랑한다고 편지가 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명을 주어 내 말을 외치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여쭙 봅니다.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낸 자와도 잘 사귀고 통합니까?” 하고 물으면, 주님은 5초 내로 말씀해 주십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말로만 좋아한다. 진실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에 선생은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하나하나 깊이 여쭙 봅니다. 선생은 지구력과 끈기와 사상이 무섭게 박혀 있습니다. 아주 끈질겨서 끝까지 주님께 묻습니다. 결국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근본 마음을 알게 되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과 정신을 계속 파악하고, 영계에 가서 그 영의 실상을 봅니다.

고집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호리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기도 질투도 일절 없어야 됩니다. 오직 100이라는 완전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 근성 때문에 온전하게 고치지 못하여 훨훨 타는 저 불바다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 ‘정말 곧 오실까?’ 생각하지요? 선생이 급한 말로 외치는 것 같지요? 선생은 10대, 20대부터 주님께 수학을 배웠습니다. 알아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역사를 따지는 것을 주님께 다 배웠습니다. 알지만 말해 주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급하다고만 말해 줍니다. 심정에 불이 붙으니 급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지점은 압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속이 타서 심정으로 외칩니다.

2007년도 중국에 있을 때 주님께 언제 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간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날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10번 정도 나갈 시기를 잡았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중에 슬쩍 ‘10일 있다가 나간다.’는 영감이 스쳤습니다. 그것을 내가 풀어야 가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루를 일주일로 계산할지, 한 달로 계산할지, 6개월로 계산할지, 1년으로 계산할지, 이것을 계산하여 푸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10년인데 말도 안 되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일주일로 계산하면 70일인데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날과 그 시기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물어도 “그게 뭐 그리 궁금하냐? 그 날이 되면 간다. 기도하고 옆의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시간이 잘 간다. 섬리 사람들을 부르면서 한 명씩 기도해 주어라. 그럼 여기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한국에 가면 희망적인 일이 많다.”하셨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초저녁 꿈에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의 맨 위 층에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행기 맨 뒷좌석에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 마라. 네가 기도한 대로 조용하게 들어가게 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루를 한 달로 친 날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수학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정말 맞나?’ 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도해야 앞날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저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아야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고 필요한 일만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낸 자들과 하나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되는 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생이 보낸 자들과 하나 되어야 선생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선생을 사랑하여 한 일이라도 어떤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보실 때 뜻이 아닌 일이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싸우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지라도 해가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같이 대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께 잘못된 것은 몰라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 되었습니다.

선생이 보낸 자들과 싸우면 몰라서 그렇게 대했든지, 오해를 해서 그같이 했든지, 선생을 위해서 했든지, 선생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막아서 그 일을 못 하게 했다면 일단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생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선생을 사랑해서 선생이 다칠까봐 그 일을 못 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못 하게 했다면 선생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이 보낸 자를 막은 것은 이와 같은 격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사탄

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마16:21-23)

사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그가 가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사탄이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늘 사명자만 되어도 아는데, 만왕의 왕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선생이 가는 길을 막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책임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책임을 하지 못하여 가는 길인데 막으면 안 되지요. 누가 고난의 길을 좋아서 가겠습니까? 잘되도록 길도 닦아 놓지 않고, 일도 해 놓지 않고 잘되기만 원하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일한다고 해서 그 큰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은 못 하게 막고 좋게 되는 것만 바랍니다. 다 좋게 되는 것을 바라지요. 좋게 되려면 모두 묵숨 다해 하나 되고 화평으로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 놓고 좋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두 패, 세 패로 갈라져서 서로 선생을 위한다고 싸우면 되겠어요? 오직 선생이 보낸 자와 하나 되고 일체 되어서 하는 것이 선생과 하나 되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는 기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체 다 회개하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자기만 사망길로 가게 됩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오면 어떤 것도 다 풀려고 할 것입니다. 체면이고 고집이고 다 버리고 잘못된 것을 칼로 도려내듯 해야 됩니다.

선생이 살아서 말할 때 빨리 들어요. 선생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나마 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섭리사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이 기간이 섭리사 마지막 최고의 기회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생이 한국에 없었던 지난 10년 동안 서로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이 10개월 동안 중국에 있었을 때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형제들과 서로 싸운 것과 분 낸 것과 마음에 품은 것들도 선생이 왔으니 다 풀어야 됩니다. 법정 문제로 의 상한 것들도 다 끝났으니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일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 싸우게 되고,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 평대협에서 활동했던 자들도 선생을 위해 한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의식하는 눈으로 보거나, 죄인 취급하는 눈과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설교 중에 단상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생이 나왔으니 말씀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죄인 취급하면 그같이 하는 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했으나 계속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갈 때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각 교회에서 그때 활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은 의식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자들은 요동하지 말고 그대로 해요.

그때 평대협으로 활동했던 일부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섭리를 스스로 이탈하겠다고 한 후에 섭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화하여 꼬여 가기에 선생도, 교역자들도 염려되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을 줄이고 이 말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 활동했던 자들이 자꾸 섭리를 악평하고 걱정스럽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 중에서 끊는다.”** 하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잘하는 자들은 자꾸 말씀이 나오면 소외감을 가지고 의식되어 교회에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하는데 왜 또 말씀이 나오지?’ 할 것입니다.

불이 났기에 소리를 지르듯이, 그때 활동했던 자들 중에 섭리를 나가서 자꾸 한 명씩 꼬여 나가고 거기서 선생을

악평하며 섭리의 별별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는데, 수만 명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선생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전에 자기들과 같이 활동했다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는데, 선생이 좋아하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선생이 섭리에 있으니 선생을 중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 자들을 죄인 취급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활동했던 자들 중에서 섭리를 나간 자들과 연락하며 섭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며 같이 행하면, 주님은 주님을 그같이 대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 행한 대로 썩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쪼개 낸다고 하셨습니다.

섭리 안에서 자기 사상을 전개해도 안 되고, 자기의 방법과 이론을 전개해도 안 됩니다.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상 불순자로서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누구든지 걸립니다. 오직 주님의 시대 말씀만 전개해 나가며 복음을 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형제들끼리 재판하지 말고, 주님께 말기고 선생에게 말겨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만 경계하고 조심시켜야 되지, 전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복한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100% 마음을 돌리고, 은혜 받고, 서로 풀고, 마음에 품은 악의와 증오를 다 없애야 됩니다. 어떤 불순한 것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항상 선생을 속이지 말고, 모사도 쓰지 말고, 정직하게 대해야 됩니다. 선생이 여기 있어도 제자들을 시키면 내 대신 가서 일합니다. 안 보인다고 알잡고 행하면 안 돼요. 안 보일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무섭지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 무섭지요?

섭리사 전체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전에 평대협 회원이었던 자들을 색다른 눈으로 쳐다보지 말 것.

둘째, 그들을 죄인시하지 말 것.

셋째, 평대협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실수 없이 할 것.

섭리를 나간 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섭리에 불만을 품고 또 나가는 자들이 생기면 주님이 그에 대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생이 이같이 짚어서 말했으니, 각 교회는 의식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거나 심판하는 말씀이 나가면 ‘누구 때문에 나온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각자 ‘나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근신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간다면 그쪽 면에서 말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미워하면 적이 됩니다. 미워하면 자기 식구도, 부모도, 자녀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모두 은혜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속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전도할 때입니다.

앞으로 환난이 곧 닥칩니다. 최고로 편안한 때가 그래도 이때입니다. 이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환난 날에 정말 후회합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세계는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 파도가 높아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정확한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섭리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더 거센 태풍이 와서 세상 파도는 더 드높게 될 것입니다.

선생이 압록강 근처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님, 북한의 열차가 뒷문으로 다니지 말고 앞문으로 다니게 해 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같이 하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화물차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기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싸늘하고 냉정하게 대하니, 또 남북 관계가 싸늘하고 냉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명의 좁은 길을 완전히 가게 되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집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서로 화목해야 선생이 어디 있어도 편합니다.

세상에서나, 민족 안에서나, 섭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생각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쓸데없이 말하는 자들을 신부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에게 편지들이 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묻기도 합니다. 선생은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말해 주었지요? 왜 일어났는지 말한 것을 알아야지요. 모르면서 아는 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선생의 심기가 상합니다. 알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니까 물이 파도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에게만 알려 줍니다. 외치는 자는 알고 심정이 타서 외칩니다. 알려 주고 외치면 심정 타는 불같은 말씀이 식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두 성령의 진리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선생이 전도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선생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꼭 기도해 줘요. 선생의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해 줘요. 안녕히 가세요.

<2009년 6월 14일 주일말씀>

주님께 딱 붙어 살 때다

본 문 요한복음 15장 4-5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빕니다.

주님 따라 성령의 집회를 하는 강사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주님 따라 같이 손발 맞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 보는 자들은 깨닫고 느낄 것입니다. 마음도 영도 기쁘고 좋는데 육신이 힘들 것입니다. 육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때 꼭 자고, 먹을 때 먹고, 제시간을 지켜 행하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각종 일을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리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고, 바빠서 제때 밥을 못 먹다 보면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의 리듬을 잃게 되고, 또는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할 일들은 많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하다 보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앓다가 눕게 됩니다. 모두 각자 자기 분량껏 조절하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리듬을 잃고 제대로 못 하게 됩니다.

각자는 자기 분량대로 다스리며 지혜롭게 해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노래할 때도 합창으로 하면 개인이 리듬을 잃어도 금세 다시 따라할 수 있지만, 개인이 혼자 노래를 할 때 리듬이 깨지면 다시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전도되어 교회에 오는 신입생들의 때를 놓치지 말고 전적으로 강의해 주고, 신입생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 편지 온 것을 보고 말하니 부지런히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집회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집회 때 새로 온 자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교회로 인도하여 신입생들을 잔칫집의 손님처럼 대해 줘야 됩니다.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가 닳도록 말하여 전도해 왔는데 교역자가 바쁘다, 혹은 시간 없다, 혹은 피곤하다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짧게라도 가르쳐 주고 진지하게 대

해 줘야 됩니다.

매주 한 명씩 새로 오는 자들만 잘 인도해도 1년에 50명이 부흥됩니다. 부흥 안 되는 교회의 교역자는 교체할 것입니다. 교역자 한 명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 1년에 10명은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전 교인이 3년에 3명 수료를 시킨 정도입니다. ‘말렸으니 할 수 없이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해야 됩니다.

주님도, 선생도 정말 심정이 타고 답답합니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 교역자들도 온 교회도 모두 전도해야 됩니다. 선생은 이 같은 곳에서도 1년에 3명은 더 전도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요? 이곳의 환경과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선생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들보다 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섭리역사 주님의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고자 하면 주님이 다 연결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으니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도 함께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전도하여 교회로 못 데려가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심어 주고 이때를 알려 주면 됩니다.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열차 안에서 외치고, 지하철에서도 외쳐서 교회까지 데려와도 교역자들이 강의도 안 해 주고, 성의 없이 대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교역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교역자로서 맞지 않으니 다른 사명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섭리사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오니 다 알게 됩니다.

노방전도를 해 본 자들은 선생이 옛날 20대에 노방전도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것입니다. 선생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섭리를 뭘 때 모두 그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이제는 더 전도하여 충만케 해야 됩니다.

차 안이나 거리에서 외치려니 힘들고,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처음에는 한 명씩 만나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노방전도를 나갈 때 처음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인이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또 자기 믿음도 약해지고 영적인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전도해야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과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집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가 먼저 깨닫고 알고, 나가서 생명들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때가 가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담임목사는 각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교역자, 부교역자, 장로와 권사 대표, 집사 대표, 장년부·가정국·청년부·대학부·중고등부 대표들이 빨리 문제를 수습하여 해결해 줘야 됩니다. 담임목사들은 이를 철저히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책만 받고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가 선생에게 옵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안 따라 주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나 사회에서도 직책으로 일하지, 나이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겼으니 주님의 사역자임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정말 어떤 모순이 있으면, 정확하게 교단에 이야기해 주면 선생이 알고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역자나 교인들 중에서 이성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사탄이 침범하여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이성문제가 있으면 교역자가 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교역자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중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온 교회가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이 단상에 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괴롭고 두려우니, 이제야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이 꺼리니까 선생에게 편지들이 옵니다.

주님은 “가정국 중에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때 안 하면 돌아올 수 없는 넓은 길로 간다.”고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서 행정을 보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음란 채팅을 하는 총무들이 있었고, 그러한 교역자들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행위를 보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특히 체통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도 교역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생명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직도 연속극을 연속 본다고 주님은 정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인들은 정말 자중하고, 이제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뉴스 정도를 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연속 속는 연속극을 본다는 것은 교역자로서, 주님의 재림 끝에 서 있는 자들로서 태만한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때를 부지런히 살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교역자로서의 자질을 본 후에 보다 프로급들로 교체시킬 것입니다.

가정국 중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서라도 그런 자들을 꼭 보신답니다. 어느 때는 가까이 가서 보신답니다. 어떤 가정은 남자가 여자를 질식시키기까지 때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 살기에 사탄의 인을 맞을 자들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가정국들이 너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섬뜩하여 ‘결혼 안 하기를 잘했다.’ 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수시로 각 가정을 심방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에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구 전체 인생들의 행위를 다 보고 다니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살면 천국에 가서도 자주 만나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못 만납니다. 아무튼 주님은 부부 싸움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로서 하나님께 딱 지어 준 사람이 있는데도 이성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끊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아내 삼아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으면 곧 주님이 명령하신 천사가 간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기 전에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교역자들 중에 이성으로 범죄 한 자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 괴로우니 이성의 죄를 고백하는 편지가 여기저기에서 왔습니다. 선생은 너무 어이가 없어 파악해 보니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구나.’ 했습니다.

하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고 서약하고 사는 자들도 그같이 하였으니 주님을 사랑으로 배신한 죄를 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깨끗이 회개하고 근신하고, 주님이 다시 단상에 서라고 허락하실 때까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더 연단하고 단련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남 살리려 함이 아니다. 결국 섭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선생이 외국에 나가 있었던 10년 동안 이만저만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지른 자들은 지옥을 손바닥만큼도 못 가 본 자들입니다.

이 같은 죄들을 짓기에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이 꺼린다고 하며, 아직 회개가 안 되어서 그러냐고 묻는 편지가 옵니다. 주님께 기도해도 속상하여 대답이 없으시니 선생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도 속상하니까 대답을 안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신부 되어 사는 자들이 이성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니, 사명자도 이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보낸 자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시대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시대의 운명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개인과 민족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울 왕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자들을 막아 주지 못하였고, 결국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와 민족을 치고 사울 왕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 결국 자결했습니다. 전쟁에 대패하여 백성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들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고통을 주면, 그들이 사명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막지 못하고 운명을 돌려놓지 못하니까 민족에 극한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북방의 앗수르, 갈그미스, 혹은 북이스라엘로 부터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한국도 항상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여름철에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2006년, 선생이 압록강 강가에서 남북 간에 평화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무리 나의 원수들이 무고히 나를 괴롭히며 다윗을 무고히 쫓았듯이 나를 쫓아다녀도 참고, 지금껏 10년 가까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주고 참았습니다.’ 했습니다. 고로 내가 가는 곳에는 그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조건을 세운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민족과 북한이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압록강의 끊어진 다리를 보며 꼭 열차도 다니고 서로 왕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이 기도를 하도록 이곳을 잠깐 거치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내가 응답하여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때 남북을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정녕코 평화롭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문산 쪽으로 화물 열차가 다니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서울에서 떠난 열차가 북한의 평양을 거치고 신의주 거치고 중국의 단둥을 경유하여 중국 안산을 거치고 심양을 거쳐서 북경으로 곧 다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철길은 깔려 있으니 개통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오고 갈 때 비라도 피해 가고, 더울 때 그늘에 앉았다 가고, 늦으면 자고 가라고 중국 안산에 처소를 예비해 놓게 하셨습니다.

2007년 늦봄까지 중국도, 한국도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중국은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희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손에 차가운 것이 채워진 후부터 날씨가 변하여 점점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점점 북풍한설이 몰아쳤습니다.

티벳은 퍽퍽거리며 대국에서 열리는 세계 올림픽을 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준비는 잘해 놓았는데 테러 등 전염병이 일어나니 두려워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날씨가 안 좋아져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노아시대 물 심판이라도 하는 듯이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뉴스를 보니 홍수로 인하여 1200명 이상이 죽고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라 춘절(한국의 음력설)에는 폭설이 몰아쳐 수백만 명의 발이 묶여 고통을 겪는 것을 옥에서 보았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경제의 찬바람이 불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 했지만, 마치 가을에 서리를 맞은 고구마 냉쿨처럼 모두 얼굴 색깔들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리가 아닌 눈보라가 쏟아질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서리에 죽고, 눈보라가 치면 이제 땅속에 있는 고구마까지 얼어붙을 것입니다. 척추마비를 일으킨 신경환자처럼 되어 허리를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마침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민족이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극렬할 것입니다. 모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환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의 때가 되면 으레 한파가 밀려오고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예상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쏟아질 것은 해마다 오는 장맛비도 아니고 눈보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추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바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피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은 평화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까마귀들만 떼를 지어 지저귀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눈보라가 치지 않고 계속 봄날이 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절이 오면 그 계절에 해당되는 눈과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지금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었다.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순간 왔으니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은 소돔 땅에 살던 롯이 천사를 만난 날 밤과 같은 때다. 천사의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함을 받았다. 이 시대에 내가 하는 말을 말씀으로 외치는 자를 통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안 지키면 육과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환난의 눈보라가 칠 것이며 비바람이 점점 세계 몰아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은 이미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의 삶은 그같이 정한 바 되었다. 세상이 하늘을 그같이 대하였구

나. 평화의 꿈을 이루겠다고 북쪽에서 자진해서 행하던 일들인데, 왜 북쪽은 자신들이 그 평화를 포기하고 순간 냉랭하게 변해 버려 얼음장이 되었을까? 자신들도 모를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싫어하면서도 해야 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였건만 너희는 내가 보낸 사역자들의 품으로는 오기 싫어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 이 시대도 그러하오니, 기도하면 다만 그날을 감하시리로다.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 이 감하지 않으신다면 남는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책임을 다하였으면 남북이 막히지 않고 서서히 한 몸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몸 중에 상체의 마음과 하체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고 같은 마음이 됩니다. 앞날의 날씨를 보니, 민족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많이 칠 것입니다. 모두 자기 삶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냉랭하게 대하면 어느 시대든지 다 동일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앞날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후에 그대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시대나 민족이 책임을 못 했을 때 일어날 환난이었지만 의인의 기도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무지로 대하여 그가 사명을 못 하면 사명자는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은 더욱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기록된 대로 고난의 길을 가지만, 너는 인자를 그같이 대하였으니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가롯 유다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환난 전에 성령의 인 치심을 받아라. 이제 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잠을 안 깨우셔도 본인들이 알아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불이 꺼진 자는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여 또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묻기를 “앞날에 이같이 환난이 올 것인데 건물도 짓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공적을 많이 쌓으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니, 죽는 그날이 내일이 되더라도 자기 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말한 찬바람, 비바람, 태풍의 비유를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두 형제들과 싸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라. 지금은 섭리사에 은혜를 주는 때며, 너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는 클라이맥스의 때다. 이때가 지나면 비바람이 더 쏟아진다. 어찌하여 이렇게도 민족이 소란하게 되겠느냐. 그때가 되면 모두 말들을 하게 되고 여러 소문을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모진 고통이 오니,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받는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도, 민족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직도 형제들과 싸움하고 말다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화평치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열차를 못 타면 안 됩니다. 타고 가면서 말다툼을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열차를 타야 됩니다. 타는 것을 먼저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흠 없이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던 자들인데 성령집회 때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이 있어 울상들을 한다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은 “걱정 말고 쫓아가 은혜 가운데 뭉쳐라.” 하셨습니다.

한번은 누가 조은이 강사에게 “성령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체험도 못 하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울상을 하고 찾아 왔기에 다음 집회 때 오라고 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에 와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쫓아가서 기도받고 성령을 받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선생을 대신하여 집회하고 있으니,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기 바랍니다.

나도 예전에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깨끗이 단장하고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으러 하루가 급하게 전진하고 있는데, 저 건너 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잠만 자고 있습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미워하는 것도 머리가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은 자는 다리를 뻗고 단잠을 자며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니 행복한 사

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따르는 자들이 너무도 잘해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성경말씀을 안 지키면서 사는 큰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큰 환난이 닥쳐 올 것도 모르고, 주님이 앞에 곧 오시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미워하고, 혈기를 내고, 막말을 할 때는 속이 시원하지요. 스트레스가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지 않은 것을 모두 경험해 보았지요? 강 건너 큰 마을 늙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냉랭하게 대하였으니, 그 행위대로 냉랭하게 대한 자들에게는 여름철에 더욱 찬바람이 극심하게 불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인하여 춥지 않지요.

숨긴 환난은 환난 전날까지도 모릅니다. 환난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다만 사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큰 소나무들이 흔들리고, 눈보라가 치면 솔잎이 갈잎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추워서 달달 떨어집니다. 산불이 나면 큰 나무라도 타고 맙니다. 흑송도 청송도 모두 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냉랭하고 가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 욕을 한 것도 많습니다. 이는 주님이 보낸 자를 욕하고 가혹하게 대한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보낸 자를 냉혹하게 대하고, 욕하고, 거슬리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고, 그런 자에게는 뜻이 없으니 그냥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자를 쓰고 같이 다니십니다.

같이 섭리를 뛰어오다가 서로 선생을 위한다고 하다가 몰라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게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전 것을 들춰내어 서로 심정 싸움하면 뭐 합니까? 선생이 원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심정 몰라서 그같이 했으니 다 꿈이라 생각하고 깨 버리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천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 사탄을 공격하고 기도하여 없애야 됩니다.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밖으로 나간 자와도, 안에 있는 자와도 싸움하지 말아요.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전체가 변화하여 은혜로 방향을 바꾸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화하여 서로 자기의 심정을 말해야 압니다. 대화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들과 풀었는데도 안 풀리면 내게 풀기 바랍니다. 내게 못 풀면 주님께 풀면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도 그까짓 것 용서하려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 봐야 선생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사망길과 생명길을 두고 그까짓 것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형제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서로 주님을 대하듯 바뀌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진 자와 낙심한 자들의 편지를 받고 선생이 구하러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결국 내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돌질하지 말고 눈총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함정에 빠진 자들을 건지려 선생이 그 함정에 들어갔으니, 돌을 던지면 선생의 머리에 맞고 얼굴에 맞습니다. 돌 던진 자는 누가 되었든지 후에 광고할 것입니다.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고, 선생님이 행하니 일제히 내게 말기고 하기를 바랍니다.

섭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집회를 이끌어 주시며 일일이 잡아 주시니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동안 세상의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30년 동안 주님을 극진히 모셔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갈 곳을 정해 두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니 섭리역사 최고 기적의 때입니다. 정말 복 받았습시다. 이때 주님을 환영하며 모두 뛰어들어야 됩니다.

육신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야 되지만,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말 그렇지 않는데 보는 자들이 좋게 말하지 않고 눈 흘겨보면, 눈 감고 귀 막고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별 말을 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게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말해 주라고 하셨기에 전해 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1.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자다. 더 아름다운 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말없이 기뻐하며 지고 가는 자다.

2. 현재 신앙이 살아 있고 정신이 살아 있는 자는 과거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현재도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안다.
3. 지금은 섭리사 클라이맥스다. 은혜와 계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들이다. 이때가 지나면 우리끼리 서로 성령의 불을 붙여 줘야 된다. 이때 자기 짐들을 모두 벗어 버리고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4. 주님을 바짝 따라다녀야 그 바람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쉽게 할 수가 있다.
 -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붙어 다녀야 그 바람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떨어진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여 스스로 장단점을 깨닫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따라가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진 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느끼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주님 바람에 초월하여 눈으로 보면서 가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진 자는 스스로 힘써서 행하여 바람을 일으키며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너무 힘듭니다. 자신이 잠도 깨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5. 성령을 만나면 감동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오고 담대해지고, 주님을 만나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무조건 좋다. 주님은 “안 보여도 그런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우리를 만나면 애인을 대하듯 하십니다. 안 보여도 그같이 느낌이 옵니다.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섭리사는 성령의 잔치 중입니다. 이 잔치 때 주님을 신랑으로 꼭 맞아야 됩니다. 이때 주님을 맞은 자는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을 맞습니다. 지금 예비 심사 중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서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안 주시지? 왜 나는 각종 은사 중에 하나도 못 받는 것이지?’ 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은 “성령께서 은혜를 차별해서 주시겠느냐. 혹여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직 집회가 남았으니 끝까지 몰두하여라.” 하셨습니다. 또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뒤처진 자들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과, 형제들과 서로 심정 싸움하다가 집회에 가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자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성령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생이 함께 가고 있으니 이제 한 명도 뒤처지지 말고 선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걸어오고, 더러는 오지도 않고, 더러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고 선생이 성령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다 데리고 가려고 내렸으니, 이제 선생님의 정을 알고 한 명도 뒤처진 자 없이 선생과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뒤로 처지면 선생도 정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 수녀, 토마스 주남, 린다 뉴커크, 메어리 캐더린 벅스터의 책들을 읽어 보았지요? 주님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만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지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자기가 안 하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을 통해 늘 책임분담을 외쳤지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도 주님도 인간을 찾을 만큼 찾으셨습니다. 목자가 깜깜한 밤에 잃은 양을 부르며 찾을 만큼 찾았으니, 이제 양이 소리를 내어 목자를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저기 있구나!” 하고 계속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집회 장소에 쫓아갈 자들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화면으로 볼 자는 전심으로 교회에서 간구해요. 선생도 같이 특별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중에서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집회 장소에 쫓아가서 감사한테 기도를 받아요. 갈 교통비가 없으면 차비를 꺾서라도 가요. 해 놓고 봐야 됩니다.

선생은 10대에 금산까지 걸어 다니면서 부흥집회 장소 맨 앞에서 부흥강사의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다 끝나고 다시 집에 걸어오면 날이 샅습니다. 새벽예배까지 보고 뛰어오기도 했습니다.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집회 때 ‘저기 누구 왔다.’ 하며 힐끔거리고 수군대지 말고 반갑게 대해 주고 화목하게 하기 바랍니다. 섭리사에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이 억울함을 가혹하게 받아 보았기에 그 같은 고통을 받는 자들을 이번 집회 때 다 챙기려 합니다. 그러니 모두 억울함 없이 대해 주고, 이제는 모두 선생 대하듯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답장이 안 가니까 못 받아 보았냐고 계속 묻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편지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편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보고 편지와 결재 편지는 해야겠지요.

편지가 제일 아깝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정말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어느 때는 편지를 읽고, 선생 같아도 편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간단하게만 답장을 써 준다 해도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읽는 것도 극히 귀한 시간과 내 공적 시간을 아껴 쓰면서 읽어 봅니다. 꼭 편지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지도자들에게 두 줄 정도로 말해 주세요. 그러면 지도자가 30명 이상씩 한 편지에 써서 모아서 보내 주면 간단히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편지가 많이 와도 눈총을 받습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면회는 아주 극적인 공적인 면회만 됩니다. 한 달에 5회 이상 못 하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 받은 곡을 전해 줘야 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말아요.

편지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편지를 3장씩, 4장씩 쓰는데 정말 문학에 신경 좀 써서 써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는 편지를 길게 썼는데, 읽어 봐도 꼭 써야 할 것을 안 써서 읽고도 속이 상합니다. 핵심을 쓰면 읽고서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다른 내용만 씁니다. 어떤 자는 내 주소는 잘 썼는데 본인의 주소를 제대로 안 써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는 선생을 잘 알겠지만 선생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알던 자들도 같은 이름이 많아서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알쏭달쏭합니다. 어떤 자는 이름을 안 쓰고 사연만 써 보내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길게 썼는데도 잘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쪽지를 넣고 가는데 번거롭게 하지 말아요. 여기 오느니 그 교통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선생은 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서 편지 보낼 자들은 꼭 핵심만 써요. ‘새가 운다. 꽃이 폈다. 날이 덥다.’ 이런 말들은 다 빼요. 새는 울고, 꽃은 필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서 새들과 꽃들이 달리 하겠어요? 그러니 핵심만 써요. 편지가 오면 읽기는 하지만, 답은 꿈으로 받고 주님께 받기 바랍니다. 편지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선생은 어디를 가나 잘 있으니 염려 말아요.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닐까 걱정, 교통사고 날까 걱정, 먹고 사는 데 문제없나 걱정,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못 받나 걱정, 서로 오해하고 싸우나 걱정, 뛰쳐나가는가 걱정입니다.

선생은 잘 있습니다. 섭리에 밀린 일들을 여기 있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섭리사 손해 안 가게 100배, 200배 할 테니까 모두 힘내서 해요.

계시받는 자들은 분별하는 자들이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사탄들이 계시하여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소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소란의 영입니다. 편만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모두 잘 살펴 봐요.

그러나 꼭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잘 분별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설명해 줘야 분별하는 자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야 그 바람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행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자는 자기가 바람을 일으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 힘듭니다. 그리 알고 주님과 일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국 섭리사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파악할 때는 어떤 자를 전도했는지 보고, 지금도 교회에

잘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의논해서 교단 선교국의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국장직입니다. 한 명만 뽑아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보고들은 교단 민원국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에게 직접 하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할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단 사무실이 아니라서 더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교단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각 교회 전세등기서도 교단에서 관리하고 계약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각 교회별로 하니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6월 17일 수요일말씀>

주님께 딱 붙어 살 때다

본 문 야고보서 1장 12절, 2장 13절, 2장 16절, 4장 9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도 충만하기를 빕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루한 시간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잔인하고 가혹한 시간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못 잡고 괴로워 지옥의 고통을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그같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주님과 떨어질 때 그같이 됩니다. 어느 때는 깨달으라고 그같이 겪게 하십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지겹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날들로 뒤바뀌게 됩니다. 가혹하고 냉랭한 세상과 가혹하고 냉랭한 사람들로 인하여 가혹함과 잔인함을 겪어 본 사람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며,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함으로 더 좋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세상의 것을 넉넉히 축복해 주어 잘되게 해 주실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영원히 가도록 영적인 것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들에게 세상 축복만 해 주시면, 인생들은 세상으로 자꾸 마음의 뿌리가 썩어 가고, 행실과 삶의 가지가 썩어 가서 결국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얻고 사명을 하려면 육적인 것은 등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육이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 힘들지라도 영원한 기업을 위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고, 영원한 행복의 삶입니다.

흔히 ‘주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같이 힘들냐?’고 하는데 육적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과 영의 축복과 영원한 세계를 얻고자 그것을 위해 행해야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순간 알사탕을 먹는 것같이 일순간 달콤한 삶입니다. 인생들은 ‘우선 먹기에 곱감이 달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믿는 자들까지 세상에 미쳐서 세상을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세상만 위해 사니,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물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쟁의 불안과 공포의 세계가 닥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혹독히 추워야 어린아이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의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 거센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대의 파도가 드높게 치고 있습니다. 모두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파도가 높으면 배들을 바다에 띄울 수 없습니다. 모두 예전처럼 바람 잘 날만 희망차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잡는 직업을 육지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좀처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위한 육적 직업을 주님께 쓰여지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0대, 20대 어렸을 때부터 그동안 섭리 신앙생활을 해 왔기에 길이 들고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때에 잘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자격자들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하는 자는 자기 혁신을 일으키고, 자기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육신에 끌려 사는 자는 육신의 종입니다. 주님께 끌려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눈앞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놓고 ‘주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를 놓고 싸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정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루는 지옥에 가까운 삶, 하루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사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가능성이 희박한 자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바짝 붙어서 지옥을 불살라 버리고, 사탄 마귀 귀신들도 불살라 버리고, 자기 행위도 불살라 버리고, 매일 주님께 붙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완전히 모셔 살지 않고서 세상과 붙어살면 마음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없습니다. 가혹한 시간, 잔인한 시간, 지루한 삶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과 떨어지면 순간 오게 됩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살아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 바람에 날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아 보아라. 삶이 지루하여 지옥이 될 것이고, 가혹하고 잔인한 시간으로 괴로운 삶이 지속되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선생과 멀어졌다고 하지 말아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 마음을 잡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도, 선생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니까 실망할 것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못 빨듯이, 때 밀듯이 깨끗이 회개하여 올해 말씀의 주제와 같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준비하여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미적미적하면, 선생도 갈 길을 가야 하니 자꾸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뒤흔친 자, 낙심한 자, 주저앉아 포기해 버린 자, 되돌아선 자들 모두 선생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야 됩니다.

‘주여!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나의 짐을 가볍게 해 주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용기와 결단’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하면 자기에 해당되는 자기의 것은 불가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곳에 살고 있지만, 선생과 같이 자기 주관권의 삶 속에서 모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잡아 줄 때 용기 내어 일어나기 바랍니다. 선생이 잡아당겨 줄 테니 모두 힘을

내어 가요. 선생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해 줄 테니, 그 대신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끈기 있게 끝까지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꼭 주님께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 주님께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령 역사의 은혜의 차와 비행기에 꼭 타야 될 자들이 많이 타지 않았기에 너무 안타까워 제가 성령의 차와 비행기에서 내려서 모두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너도 힘든데...’ 하며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고로 말씀이 이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줄을 잡고 붙어 따라와야 됩니다. 은혜의 집회 때 모두 같이 데리고 다니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탄, 마귀, 귀신들의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영안을 못 뜨게 방해하고, 계시를 못 받게 방해하고, 헛된 계시를 받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선생과 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형제와 의가 상하고 심정이 상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아예 붙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아예 자기의 육으로 삼고 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온 것 같으면 10번, 20번, 30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쫓아내고,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안 보여도 이같이 하면 주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이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이 수시로 방해하고 주관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매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는 매일 모기약을 뿌려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아 죽이는 격과 같습니다.

정말 힘든 자들은 내게 편지해요. 풀어요.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불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과 의논하여 날을 잡아서 간식으로 건빵 한 봉지씩 주고 국밥을 먹여 가며 월명동에서 온종일 집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날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을 바짝 따르는 삶을 살아야 주님 바람결에 여러 가지 못할 일들을 초월하여 결국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평소나 긴장을 풀지 말고 근신하며 낙심 말고 꾸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주님을 보고 힘 받아 행하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져서 가면 자신이 기도하며 깨닫고 행하며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기쁜 일이 없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열렬하고 불같이 뜨겁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포기합니다. 천국에 갈 자도 자기가 포기해서 못 가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서 못 가게 되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힘들다고, 세상이 좋다고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택하는 자는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인생입니까?

우리 섭리역사같이 퍼부어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곳이 드뭅니다. 다른 데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며 살기 힘듭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노래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를 가든지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생명들을 보고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관리해 줘야 그 영과 육이 사망권에서 죽어 살지 않고, 주님 안의 생명권에서 살게 됩니다.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생명권에서 살아야 영원한 희망에 불타서 마음이 기뻐 날게 되고, 인생이 지겹지 않고, 실망스럽게 살지 않고, 가혹하고 잔인한 시간에 빠져 살지 않게 됩니다.

조건은 혼자 세우고, 삶은 좌우 앞뒤로 하나 되어 뭉쳐 살아야 자기 신앙이 약해질 때도 더불어 힘을 받고 힘들지 않게 가게 됩니다.

섭리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같이 사는 자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 힘들게 하여, 신앙의 삶에 큰 영향을 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안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만, 자꾸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고 한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면 지도자들이 방향을 돌려 주어 뛰게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결국 같이 못 살고 헤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격을 고쳐야 될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지나친 성격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도 나타나서 성격이 좋은 자라도 감당을 못 합니다.

성격이 나쁘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도 **“성격을 안 고치면 나의 신부로 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에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못 산다. 가자! 사람 좋은 섬리사로 가자!”** 하셨습니다. 서로 자기를 좋게 만들어서 자기가 살기 좋게 만들고, 더욱 살기 좋은 섬리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좁은 방에서도, 환경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좋아야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성격을 다 고쳐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성격이 곧 영의 성격입니다.

안 좋은 성격을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안 고치면 그 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좋게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격이 안 맞으면 음식이 안 맞는 것과 같아서 정말 곤란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과 성품을 꼭 가져야 됩니다.

좋은 성격은 마치 보석 덩어리와 같이 귀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자는 정말 보물의 인생입니다. 성격 때문에 삶도 달라집니다. 성질대로 하면 결국 자기만 빚나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양 같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과 같이 못 삽니다. 강한 성격, 무서운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 남을 위축되게 만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안 좋은 성격을 다 고치고, 나쁜 성격을 다 태워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천사 같은 성품, 어린아이 같은 성품,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 중에서 성격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품이 양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인물이 뛰어나 미인이자도 성격이 나쁘면 같이 못 삽니다. 착하고, 의롭고,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영의 인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말 열심히 하여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놀랄 만한 좋은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공적대로 하늘나라의 자기 집이 아름답게 건설됩니다.

주님은 집에 대하여 정말 크게 보십니다. 천국에 가면 저마다 자기의 집들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은 집을 자랑삼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들 개인 소유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천국의 집’입니다. 이는 주님의

크고도 큰 선물이며,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공적을 행한 만큼 주님은 그 터전 위에 천국의 집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집은 자기 소유입니다. 집도 좋고, 정원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에 살려면 이 찰박한 시간에 부지런히 빨리 뛰어야 됩니다.

선생이 생각할 때 이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공적은 변화되고, 주님과 일체 되고,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시일에 가장 빨리 큰 공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천국에 300층, 200층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못 본 자들은 몰라서 천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여 이야기해 주니 부지런히 하기 바랍니다. 열 살, 열네 살 되는 아이들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받고 열심히 하여 어떤 자는 천국에 70층짜리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안 가르쳐 줘서 못 했다고 하지 말고, 이제 알았으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그 날 일은 그 날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뺏기면 주님 뺏깁니다.

육신과 세상의 삶만 위해서 시간을 쓰면 하늘나라에 가도 자기 소유로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둡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떠날 때는 빈 몸으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공적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그 대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때 못 먹으면 상하고 썩어 버립니다.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살로 가지고 다니면 썩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을 신랑 삼고 그를 위해 살면 마치 음식물이 자기 몸에 들어가 영양분이 흡수되어 살이 되듯이, 천국에 좋은 집이 생기게 되고 그 집에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자기 영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 영이 천국인으로서 하늘나라에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나라에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세상에만 눈을 뜨지 말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섭리에서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오면서 세상에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단칸방살이를 해도 전혀 후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으면 걱정 말아라. 하늘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고 해같이 빛이 나서 살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서서 직접 확인시키시고, 그들로 책을 써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모두 변화가 되어 삶이 뒤바뀌는 해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많이 뒤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끊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영의 눈을 떠서 보고 깨닫고 간증도 해 주며 일을 해야 됩니다. 은혜는 끝이 없으니 쉬지 말고 행하며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의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귀신과 사탄을 분별하고,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어린아이같이 붙잡아 주지만은 않으십니다. 성장되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본인이 하도록 쳐다보실 때도 있고, 천사들을 시켜 도와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도우시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키우고, 가르치고,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

은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어서 배우고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자기 것을 다 빼앗깁니다. 육이 편안하게 살면 앞날의 희망이 희박해집니다. “육이 편안하게 살면 빛지고 살게 되고, 영이 편안하게 살면 육도 영도 빛지지 않고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뒤쳐진 자, 소외감에 처한 자들을 꼭 챙겨서 같이 가야 됩니다. 이야기도 해 주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거리를 줘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 행하신 일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도 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안녕히 가세요.

<2009년 6월 21일 주일말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본 문 사도행전 2장 16-21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말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요즘 설교에 대하여 말을 안 했더니 설교에 신경을 덜 쓰는 설교자들이 있어, 또 말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말이 빠르면 듣는 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음식을 씹다 말고 넘기는 것과 같아서 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과 같아서 제대로 목적지를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 쥐도 전하는 설교자들이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는 선생이 정말 맥 빠지게 됩니다. 말씀은 그 날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때 제대로 못 들으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때 전하기 위해 제대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단상에서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말을 빨리 하든지,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여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 설교 시간에 물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 귀한 계시의 말씀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께 받아써서 보내는 것이니, 정말 신중히 심정 깊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주어도 빨리 전하여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설교 때 말을 빨리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설교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3개월 이상 다른 지도자가 설교를 하게 할 것입니다.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로 신경을 써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매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편지가 오면 꼭 시정할 것입니다. 이같이 한계를 정해 놓아야 주님도 말씀을 쥐 놓고 걱정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도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교역자와 함께 3년 동안 전도를 2~3명밖에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교역자는 모두 교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체할 것입니다. 만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못 한다면, 또 3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생명의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 했다는 것은 신앙이 죽었다 함입니다. 교역자라도 살아서 6개월에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6명은 전도했을 것이며, 3개월에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12명은 전도했을 것입니다. 일단 15~20명 이상 전도해 놓은 교회는 교단에서 다시 잘 파악하여, 교회에서 원하면 1차로 6개월 더 그곳에서 목회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앞에 놓고 행하시니 예전보다 더 긴장하여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 맡았을 때보다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면 빨리 다른 사람을 세워 줘야 되는데, 교인들과 심정의 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하니 답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 왔을 때 주인이 원하는 만큼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도, 선생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진하여 했습니다.

사명을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맡은 할 일을 한 자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천사들도 함께하여 도와주는데 왜 못 합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죽는 길도 누가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 자살하는 자들도 많은데, 살 길 가고 복 받고 잘되는 길 가자는데 안 따라오겠습니까?

사명자들이 정신이 죽어 있으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야 할 자들이 자신 없어 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귀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며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인생들을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다 사 놓았기에 주님의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데려오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행 1:8)

교단 선교국장을 뽑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잘 뛰는 자를 대표 선수로 내보내지 않으면, 청중은 목 타게 응원하다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또 교단 인사국장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실적자를 찾습니다. 교역자로서 성공하고 교회를 번성시킨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이동시키고, 교회들을 살피며, 교역자와 교인들과 잘 맞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해 주고, 빈 교회 없이 신속하게 합당한 교역자를 보내 주는 사람으로 선생에게 잘 보고해 주어 제대로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교단 국장직은 선생과 같이 일해야 되는 사명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단과 교역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기에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고 잘 파악하여 교단과 교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산다고 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성 문제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생이 법적 일로 고난을 당하는 기간에도 그같이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두면 전 섭리에 손해고, 자꾸 말들이 나오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엄명하셨습니다. 더구나 가정국 남자들과 범죄 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섭리사 교역자나 목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섭리 안에서 그같이 한 자들이 있고, 섭리 밖에 있는 자들과 그같이 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단상에 서니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야 처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풍랑을 만났듯이, 모두 찾아 가야 할 곳으로 보내야 잔잔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잘못들을 고하게 할 테니, 그들이 고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전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회개를 시키고 다시 일을 주면서 더욱 목숨을 다하여 공적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또 실수를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일을 맡기지 말고 연단시켜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단련해야 마귀가 또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 한동안 근신 기간을 주어서 영적인 자로 만들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리를 쓰면 안 된다. 급해도 쓰지 말고 다 치료될 때까지 정신적 수양을 하면서 근신해야 된다. 다리도 낫고, 또 정신도 건강하여 나와 일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연단하여 전보다 자기를 10배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성 문제가 있고 몇 달도 안 되어 단상에 서면 안 됩니다. 모른 채하고 계속하면 죄를 더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설교를 해도 주님이 양심으로 책망하시어 결국 고하는 자들을 통해 선생에게 고하게 합니다.

사탄과 사람들에게 다시는 유혹받지 않도록 1~2년 이상 강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자가 모른다고 그대로 행하면 주님이 심정 상하여 입에서 토해 내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10배나 더 힘듭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뜻인지 알고 계속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철저히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낫을 피하다가 심판에 걸리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선생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 있어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10년, 20년씩 따라온 자들이 낙오자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속상해서 형제들과 싸우고 낙심한 자들은 형제들과 풀었는데도 잘 안 되면 선생이 풀어 주고 해결할 테니 내게 편지해요. 화평케 해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집 앞에 쓰레기차가 왔을 때 훌훌 털어 버려야지, 그때 못 버리면 다음에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집 앞에 쓰레기를 두고 그 냄새와 씨름해야 됩니다.

이때 섭리사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할 때입니다. 이때 모두 회개하여 버려야 됩니다. 이때 못 버리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재림이 10년 후에 있든지, 7년 후에 있든지, 3년 후에 있든지 시간은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3년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지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도 3년, 7년, 10년은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곤하게 잠을 자는 자가 1시간 자고 깨나, 2시간 자고 깨나, 3시간 자고 깨나 잠 속의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모두 순간 같지 않더냐? 더 잠을 잤어도, 덜 잤어도 순간의 시간과 같다. 이와 같이 3년이나, 7년이나, 10년이나 너희의 날들이 꿈결같이 순간 지나간다. 고로 앞날의 10년이나, 7년이나, 3년이나 모두 똑같은 시간으로 짧은 시간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비하고, 전도할 자들을 빨리 전도하고, 빨리 나와 일체 되어라. 하려면 빨리 하여라. 안 하려면 나 실망만 시키지 말고, 성전 문턱만 닳게 하지 말고,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구원받을 다른 자들이 앉도록 자리를 내주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은 못 하더라도 구원만은 확신할 수 있도록 넉넉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못 했어도 주님을 맞으면 인생으로 태어난 최고의 보람이 있는 사람이며,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받은 노래가 또 나갔지요? ‘영원히 행복한 길을 가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행복한 길을 가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랑을 두고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되어서 그 순간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후에 또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런 자는 사랑에 있어서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고 사랑해야 사랑의 영원한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놈이 잘못했는데… 저년이 잘못했는데… 나에게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양심이 없네.” 하면서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선생에게는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내게 “너는 내 애인인데, 누가 이같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때 나는 주님께 “내게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 따라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2007년 7월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없느냐?”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고해서 처리하지요. 저는 먼저 용서해 버리니까 제게는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야지요.”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그 얼마나 맛있는 사람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매일 한마디 잠언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줄 테니, 내 말을 외우고 마음에 기록했다가 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종이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일 받은 잠언을 앞으로 새벽예배 때 15~20개씩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벽마다 전해 주기로 오늘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는 읽어는 봐도 답장은 주님이 해 주시든지, 선생이 꿈으로 해 주든지, 기도 중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미운 자도,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이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다.”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제자라면 나의 말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혹여 선생이 억울하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고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시인하면서 따라와야 맛있는 제자이고, 튼튼한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혼내거나 책망하면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지 않고, “선생까지 나를 억울하게 해? 형제들도 그러더니… 한 짝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지적하면 “주님까지 나를 이해 못 해?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는 자와 같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깨달아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형제가 보고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재림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전에 시급하게 행하시는 성령의 집회입니다. 재림을 잘 맞으라고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섭리역사의 최고 거룩하고 신령한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여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젊음을 불사르고 청춘을 바치면서 늙도록 뛰어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과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한이 되어 왔습니다. 선생도 고통과 억울함을 받고, 갇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가니 나와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이 생겼을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화병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선생은 하늘 입장에서 이 귀한 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하게 당하고 각종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까지 각종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과 고통을 받아서 가슴에 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 숨을 못 쉬게 되어 쓰러지곤 합니다. 중국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시대에 당하신 고통들을 심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는 더했다.”고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살이 찢어지도록 맞았고, 그들이 화나는 대로 그 분풀이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죽이는 것도 억울한데, 죽기 전까지 계속 맞으면서 갈보리 산까지 갔답니다. 따르는 자들은 쳐다보고 있지, 인생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무서운 채찍을 맞아 가면서 가셨답니다.

선생도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갈보리 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가는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혹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무고히 갇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깨닫고 그 심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가슴에 박혀 그 힘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도 이기면서 생명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은 그 같은 고통을 받다가 결국 가슴에 화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수시로 당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화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또 따르는 자들까지 고통을 받은 것을 보고 안쓰러워 그 화 덩어리가 더 커졌습니다.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며, 서로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싸우는 것을 보며 더 마음이 아프고 심정이 타서 화 덩어리는 중국에 있을 때보다 3배나 더 커졌습니다.

주님은 계시받는 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생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 죽어 간다.”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도 빚을 내어서 하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돈 잃고 낙심할 것을 내가 알고, 또 주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이미 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했습니다.

결국 공적인 돈을 쓴 자는 쓴 자가 다 채워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을 살린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구해다 썼습니다. 일이 끝나니 말들을 합니다. 실상 선생이 시킨 일이 아니고 인간들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같이 한 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섭리 전체가 화병이 생겨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선생이 당하는 일로 인하여 화병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악평자들로 인하여 화병이 생기고, 형제들로 인하여 화병이 생겼습니다.

이에 섭리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섭리사 대 집회를 계속 집행해 주시며 “모두 나의 신을 받고 치료받라.” 하셨습니다.

모두들 은혜를 받고 기뻐 뛰고 좋아서 신앙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계속 성령의 역사가 불붙어 가는 것을 보고, 그 은혜로 이제 화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남들을 나를 불행하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길로 가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생뿐만 아니라 섭리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모두 똑같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로 가슴의 화병을 녹여 없애고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화병들이 나왔지요? 아직도 선생의 마음이 아픈 것은 나 때문에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심정을 몰라 줘서 가슴에 화병이 생긴 자들 때문입니다. 또 억울한 말을 듣고 풀어 줄 자가 없어서 가슴에 화병이 있는 자들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생 때문에 그 같은 고통의 병을 앓게 되었으니, 선생이 치료해 주고 그 심정을 풀어 주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꼭 이야기해요. 속상하다고 뛰쳐나가면 누가 그 마음을 풀어 주겠습니까? 다 돌아와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으면 몸이 뜨겁지요? 진동이 오지요? 환상이 보이지요? 계시가 오지요? 꿈이 깨지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오기도 하지요? 기쁘지요? 감동이 오지요?

이 같은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복창해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16~18절까지 읽어 보고, 나머지 21절까지 또 읽어 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행 2:16-21)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짐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도 실상 구약의 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빈 그릇에 물을 부어 주면 물이 차지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 그릇에 부어 주면,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방언한다. 방언을 통역한다.’는 은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같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뜨겁기만 한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도 함께하시고 성령님도 함께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뜨거운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며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뜨거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불덩어리가 태양같이 자기 앞에 다가오지요? 너무 뜨거워서 타 죽도록 뜨겁기도 했지요?

‘성령은 뜨겁다.’, ‘성령을 받으면 아홉 가지 은사를 받는다.’ 이같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함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라.’ 함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만 하면 이는 밥을 먹는데 밥맛이 어떠한지 한 숟가락 먹어 보고, 과일이 있는데 한 입 먹어 본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맛만 보다가는 결국 굶어 죽습니다. 충만히 배불리 매일 먹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네 육체에 쏟아 부어 주는 것이다. 내 영이 네 육체를 쓰고 세상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를 중심하여 주님도 일체 되고, 천모님도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감동시키시고 **할 일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들의 육체에 그 영을 부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의 형체를 입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몸에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서 부어 주시어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게 임하면 육체에 각종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니, 곧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나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 하늘에 속한 영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영으로 덧입게 됩니다. 천사같이, 혹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금년도 표어와 같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했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육신이 은혜로 변화하고, 영은 하늘의 형체로 변화받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없으면 자기 영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 하셨습니다.(요 3장)

꼭 `12월 전에 모두 다 변해야 됩니다. ‘주여!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주님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영도 육도 변화시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전력을 쏟아 직접 집회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이 같은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날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받았어도 주님이 이같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각 육체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성령은 삼위체라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장간에서 쇧덩어리가 불에 들어가 뜨거워지면 쇧덩어리에 붙은 녹이 다 벗겨집니다. 이에 쇠는 좋아하며 뜨겁다고 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녹만 벗기려고 뜨거운 불에 쇠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 쇧덩어리는 형체가 변하여 칼이 되고, 농부가 쓰는 연장이 되는 등 변화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뜨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이 하늘의 천사나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형체가 변화됩니다.

설교 때 선생이 말했지요? 누가 꿈을 꾸었는데 새가 사람이 되고, 소가 예쁜 여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의 영들이 하늘의 형체로 변하는 것을 영계에서 본 것입니다. 선생만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 보게 되니 너무 기쁘지요?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숨같이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같이 된 것입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그 신이 그 육체에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탄이 오면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주님은 삼위체이시니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받아야 됩니다. 아는 대로 계속 말씀해 주겠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주님께 자주 물어봐요. 개성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서 성령에 대하여 말해 주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뜨겁다고 하지요? 성경에 ‘사랑은 불같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같이 뜨겁다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니 기쁨이 옵니다. 희망이 옵니다. 사랑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옵니다.

결혼한 새 가정들은 서로 진정 사랑하니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오지요? 화평하고 절제하게 되지요? 예전에 혼자 하던 것을 이제는 절제해야 되겠지요? 또 지식의 은혜가 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는 지식, 여자가 남자를 아는 지식이 옵니다. 또 지혜가 옵니다. 여자와 남자를 다루는 지혜가 옵니다. 또 방언이 옵니다. 사랑의 방언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던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하며 각종 사랑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의 통역관은 결혼한 자들입니다. 결혼하여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으로 인하여 성경에 나온 아홉 가지 은사와 같이 사랑·희락·화평·인내·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 같은 육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서로의 유전자 생명체가 하나 되어 어머니 태 속에서 남자나 여자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면 이 세상 사람으로 나와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쏟아 부어 주시면 뜨겁고 감동이 일어나 남녀가 사랑하면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육신에 사랑·희락·화평·인내·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유전자 생명체의 형체가 변화되어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 주시면 우리의 영이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됩니다. 천모 성령님은 영의 어머니로서 변화된 영들을 키워 주십니다.

형체가 변하여 하늘나라의 천사나 주님과 같은 형체가 된 영이라야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때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며 인생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는 그같이 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각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시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형체가 하늘나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 주고 계십니다. 고로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행하시는 성령 집회에 절대 참여하고 힘써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은혜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전에 변화된 영은 또 잠을 자고 죄를 지었기에 어둠의 주관권에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선생도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축구공만 한 불이 강대상 쪽에서 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장마철이었는데 교회를 가려면 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냇가를 건너다가 물이 불어나 죽음을 면하고 비를 흠뻑 맞고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강대상 위쪽에서 불덩어리가 오면서 타 죽을 정도로 내 몸이 뜨거웠습니다. 순간 수십 개 나라의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와서 내가 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뜨겁습니다. 불은 곧 신의 강림입니다.

그날 새벽에 뜨겁게 회개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은혜의 생활을 하며 산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하게 되었고 거리와 버스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전주나, 천안, 대전 지역에 갈 때는 차가 없으니 밤에 날면서 다녔습니다. 천사가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 그 형체가 변해야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 되어 성령의 감동 속에 더욱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첫째,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욱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둘째, 본인의 신앙이 살고 정신이 살아서 죄의 함정을 알고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사탄의 유혹과 꾀도 지혜와 지식으로 알고 다스려집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히 옆 사람이 받는 불에 의하여 체험적으로 뜨겁게 느끼기만 하는 체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늘나라의 영으로 거듭나 버려야 됩니다. 약간 뜨거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예비 느낌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애태우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신이 자기와 하나 됨을 알고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육체에 그 영을 부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계 섭리의 교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도, 은혜를 체험한 자들도, 아직 못 받은 자들도 연속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인도하여 주님께서 집행하실 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모아서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역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금요일뿐 아니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원하고 준비되면 혼자 있어도 그 영을 부어 주십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들도 자기 위치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타작 기계 한 대만 가지고서는 그 넓은 벌판을 다 타작할 수 없습니다. 곧 눈보라가 몰아닥칩니다. 빨리 성령 충만한 자를 임명하여 각 교회에 빠진 사람 없이 다 성령을 받도록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되, 절대 질서 있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빼앗아 모두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시간은 주님이십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주님을 빼앗깁니다. 주님을 우선권으로 하여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동안 선생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미루고 은혜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아야 옛날 선생이 한 것처럼 한자리에서 수백 명씩 전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행 2:41)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0:35)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시대가 악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랐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하셨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퍼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책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했기에 하나님은 뜻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선생을 통해 전하는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아홉 가지의 은혜를 받아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늘의 형체를 덧입어 역사를 계속 퍼 나갔을 것입니다.

시대의 십자가를 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섭리의 모든 육체들에게 쏟아 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을 증거해 줍니다. 특히 메시아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할수록 능력이 나갑니다. 주님을 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 시대에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나를 증거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을 증거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여 역사를 펴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그 시대의 급절한 상황을 외치게 하시며 구원 역사를 펴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에 다윗은 사자 입을 찢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골리앗을 쳐 죽였고, 블레셋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영을 육체에 쏟아 부어 주시면 이같이 큰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몇 명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백 명, 천 명, 만 명씩은 해야지요. 섭리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삼손과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자기 민족을 쳐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쳐부수고 멸망케 하여 40년 동안 민족을 화평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일을 해야 됩니다. 수십 명이 섭리의 운을 타고서도 3~4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그 같은 것입니다. 모두 잘못을 회개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시대를 외쳐 줘야 됩니다. 죽기 전에 모두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주님은 기독교에서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는 세상에 7년 대 환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원본을 읽어 주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날이 오면 모두 뉴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스(SARS) 기억 안 납니까? 또 잊었어요? 그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난, 환난, 심판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당하지 않아서 멀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일들이 지구 전체에 일어납니다. 이때, 편안할 때 전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심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구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높은 곳에서 구르는 참혹함을 모두 겪게 된다. 너희들도 그 차 안에 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내 손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제 그 날은 연장할 수가 없다. 빨리 뛰고 행하는 것만이 연장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밤에 퇴폐적인 향락과 타락의 세계로 지옥이 이루어지며 왔습니다. 새벽에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빼앗기면 신랑 되신 주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성령님을 빼앗깁니다. 모두 겪어 보았지요? 천국에 가서 실컷 쉬니까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 꼭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한마디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이지만 큰 뜻을 박듯이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회하다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떠난 줄 알아라. 나도 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도 집회 때 오라고 선생을 통해, 외치는 자를 통해 말씀했는데 안 온 자들… 정말 섭섭하다고 나 떠난 후에 전해 주라.”

주님은 갈 길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만나면 갈 길을 먼저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영도 바쁘다. 그리고 피곤하다.”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지요? 천천히, 차근차근 어려운 말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니 좋지요? 설교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정독하여 읽어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설교자들에게 3일 전에는 도착할 것입니다. 선생이 일주일 전에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삼위의 역사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본 문 아모스 3장 7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요즘은 모두 정신이 들지요? 정신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신이 살지 않은 자, 잠자는 자는 주님이 지금 섭리사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모르고 선생의 마음도 모릅니다. 산 자는 산 자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자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주님도, 선생도 집회 강사를 통해 잠들을 깨우니 다 일어나야 됩니다. 잠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기도하여 살려야 되니,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표적이 일어나야 살리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깨워 줄 수 있습니다.

산 자는 산 자와 하나 되어 그 말을 믿고 같이 행동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마 22:32). 신앙이 살아 있고 정신이 살아 있는 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뛰고 달립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신앙이 죽은 자들을 깨우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이요, 심정이요, 손발이며,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그 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개성대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칼 같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처럼 속을 갈라서 다 꺼내 보듯 날카롭게 보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앞날에 일어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그대로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외칩니다. 속 시원히 거침없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나 주님께 받았기에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외치면 사람들은 비웃었고, 믿지 않았고, 나쁘게 예언한다며 잡아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인간들의 부패를 외쳤습니다. 종교·정치·사회적 부패들을 외쳤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외치면 악하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본 것을 칼날같이 외치게 하여 그 시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치신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꼭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인간들이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신다면, 그것은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가만히 두고 보면 다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고,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털어 놓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전체가 니스웨 성같이 회개하면 용서하여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멈추십니다. 회개하였으나 일부만 하면 심판하시되, 때로는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일부 회개하면 일부 심판하십니다. 감해 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고로 선지자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시대의 부패함과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숨겨 놓고 은밀히 외치게 하시다가 때가 다가올수록 온 세계에 외치게 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앞둔 때이기에 온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온 온 지상 세계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 영을 준비된 모든 육체에 쏟아 부어 주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들과 준비된 지파들에게 그 영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섭리사는 최고 황금기 은혜 기간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 은혜를 받아 그동안의 아픔이 꿈같이 사라지게 하였고, 주님은 우리의 슬픈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는 소리와 슬픔의 소리와 신음 소리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며 모두 그 영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도록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박자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전 교회와 지도자들과 개인들 모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이 운동장을 뛸 때도 힘들다고 쉬면 더 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은 운동장을 열다섯 바퀴 돌다가 힘들다고 쉬었더니 그날은 더 이상 못 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30바퀴 돌겠다고 마음먹고 뛰었습니다. 힘들면 천천히라도 뛰어야지, 멈추면 땀도 식고 근육이 당겨 금방 다시 뛰기 힘듭니다.

우리 섭리사 은혜의 역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실 때 멈추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멈추고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 역사를 다시 하려면 기약이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전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이 썩은 부분들이 있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흔들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들이 그 머리채를 잡고 이 남자를 만나고, 저 여자를 만나게 하며 세상으로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혼돈의 영이기에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혼돈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신 차려요. 자꾸 지옥으로 향하면 괴씸해서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았기에 살아 있는 자들과 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일체 되어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같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린다를 보고,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던 버릇들이 병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시대의 눈을 뜨고 살아야 따르는 자들도 같이 눈을 뜨고 생명길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 신약시대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그 근본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선생은 이를 읽고 또 읽은 후에 주님께 여쭙 보았습니다. 주님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두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 곧 7년 대 환난에 해당되는 린다 선지자와 매튜 스테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밤 천천히 읽어 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선지자를 몰라보고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거나,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시하거나, 외치는 자를 쫓아내거나,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같이 대하는 자들을 반역자로 보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눈이 그들을 조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동안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이제 경고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빨리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섭리사는 처음부터 선생이 말씀하면 믿고 따르는 것에 길이 들고, 훈련이 되고, 양 갈아서 선생이 인정하면 다 믿고 따릅니다. 고로 주님은 선생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네가 먼저 주께서 말한다고 하면서 내 글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말한 것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진정 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 줄 말씀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주님은 먼저 은빛이라는 제자를 통해 내게 보내어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선생이 먼저 충분히 읽어 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신 후에 이제 모두에게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본입니다.

과학적인 용어는 섭리의 전문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단총선’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고, 심판하는 위치의 지도를 화면으로 보여 주며 설명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주님은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환난 날은 잘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전에 선생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도 어느 지점인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쓰나미를 기억하지요? 그때 주님은 그해 연말에 어느 지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들었지요? 거기 안 가고 피한 자들은 설교를 듣고 가지 않았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재난은 200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해 2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까지 발생하여 그같이 많은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해 10월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의 지진은 그해 6월에 말씀하셨는데 3개월 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코베 지진은 주님께서 말씀한 날로부터 1년이 되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코소보 전쟁은 말씀하시고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태풍은 말씀하시고 4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테러는 말씀하시고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테러가 있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레이시아 해변가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 징조로 밀물을 멈추시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하나님이 오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노을을 슬프게 보이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일어날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설교 때 은밀히 말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말씀이 나가면 가슴 뜨끔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쓰촨성 지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3일 동안 까마귀 5천 마리 이상이 창밖 상공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날아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까마귀를 보고도 징조인 것을 몰랐습니다. ‘대국이라 까마귀도 많다.’ 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중국에 나가 있는 제자들 다 들어오라고 했지요? 2008년 2월에 선생이 제자들을 시켜서 중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한국에 들어오든지, 다른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5월에 일어났습니다. 선생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한 것들은 말씀으로 나간 후에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재난이 일어났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중국에 있을 때 순간 TV를 보는데 한국 제주도 밑에서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태풍이 제주도를 거치고 부산을 거쳐서 중부 지방으로 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묶여 있으니 누가 막으랴.’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도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하니, 마음속에 “더 사명을 하러 왔는데...”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럼 태풍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동해 쪽으로 가면 일본 제자들이 생각나고, 중국 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었으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해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태풍아! 내가 여기 있어도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성지땅 나뭇가지 찢어 놓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작은 나라에 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해로 올라가라. 우리 민족을 지나가면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우리 민족 지나가면 너도 갈 길을 알 것이다. 네가 공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냐. 해당되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 태풍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말해 봐요. 그때 그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듣고 제자들 중에 선생이 기도해 주어 태풍이 돌아갔다고 믿은 자도 있다고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뉴스로 보니 그 태풍은 꺾어서 중국 해안을 치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선생은 태풍이 그렇게 되는 것 보고 힘든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고, 하루에 3천 번씩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더욱 힘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선생이 지난날 어떤 것들을 말씀하면 크게 충격을 받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결국 다 닳았습니다.

오늘 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충격을 받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음, 캐나다나 미국에만 해당되니까…” 하지 말아요. 주님은 **“지구라는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뒹구는 참사가 일어난다. 너희도 지구에 살고 있는 한, 그 버스 안에 있으니 당하게 된다. 다만 휴거되어 지구를 떠난 자는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요. 먼저 ‘주님 말씀하시길’ 노래부터 부를까요?

산속에 은둔한 예언가로부터 온 12번째 책의 43번 메시지
(린다 뉴커크의 예언중에서)

오, 울부짖으세요. 모든 사람들이여!

곧 있을 미국과 캐나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의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다가올 거대한 파괴의 재앙지가 될 미국의 New Madrid Fault (새로운 마드리드 단층선) 지역에 대해서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파괴가 일어날 곳의 지도를 주시기를 간구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지 며칠이 지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도와 함께 곧 다가올 재앙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래 적힌 메시지를 읽고, 또한 과거 2008년 2월 1일에 내가 받았던 경고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래 첨부된 매튜 스테판의 증언 -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혹하고 무서운 경고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곧 이루어질수 있는 이 파괴에 관한 지도를 보게 될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여, 비통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3일간 금식을 하라고 하였고, 이 거대한 재앙의 지도와 메시지를 금식을 시작한 첫날 아침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디가 아픈듯이! 내가 너무 가슴아파하고 심령이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저에게 금식을 그만하라고 하시고, 이 일들을 나에게 행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저는 그 일을 할 만큼 강인하지가 못했습니다. 오, 온 인류 앞에 닥칠 이 무서운 재앙! 오, 이 비참함! 엄청난 파괴의 재앙은 그 어떤 말로도 이 모든 파괴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회개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회복하지 않으시면, 뉴마드리드 단층이 강타하게 되면, 1억 천5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죽게 될 죽게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3억 만 명이 현재 미국 인구임)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 만큼의 인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당하게 될

파괴와 혼돈에 대해서는 말도 안했습니다. 진실로, 나의 이 깊은 애통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긴급한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하루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지고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돕겠습니까? 당신은 한쪽에 앉아서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들을 알리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에게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메세지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되어, 이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대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과 캐나다의 사람들이 하루 빨리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수백만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가 가든지 진흙과 바위에 깔릴 것입니다.

첨부된 지도를 보세요!

무엇을 할것입니까? 이 지도를 복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널리 나눠주시겠습니까?(어떤 인쇄소는 가격을 깎아줄수도 있고, 요청하면 무료로 복사해 줄수도 있습니다! 문의해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밤낮으로 올리고 미 의회와 국회를 포함하여, 이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시의원과 기타 공공기관에게 알리시겠습니까? 밤낮으로 이 경고를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이 경고를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주시겠습니까? 밤낮으로 이 메시지들을 공공장소나 기차역, 버스 정류장에서 외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바를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은 곧 사라지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도요!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이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퇴직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걸요!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함께 말이에요!

“산의 예언들!”을 위한 기금모집

추가로, 사람들에게 대량 메일 발송을 위해 “산의 예언들”에게 모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호 천사들을 배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으로 멸망키로 지명한 지역을 내가 방문하여 외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나처럼 이곳들을 방문할 많은 천사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을 갈려면 나는 현재 있는 차보다 더 새로운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차는 15년 된 21만5천 마일을 달린 차인데, 수리도 많이 해야 할 오래된 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뤄드릴 수 있을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자 한다면, 다가올 환란의 날에 물이 창궐하여 덮칠 때 멸망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명이며, 이 방대한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위해 바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가올 재앙때 물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촉박한 관건이며, 이 환란이 오기 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린다 뉴커크 주소- P.O. Box 17277, North Little Rock, AR, 72117, USA 수표를 제 앞으로 써주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이여, 계속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한글자도 빠지말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캐나다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비통한 메시지!

(2008년 3월 1일)

내 아가야, 나는 너의 아버지 야훼이며 여호와 가장 높은 신이니라. 나의 소중한 아가야, 네가 꿈쩍한 New Madrid Fault (신 마드리드 단층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 나에게 간구하고, 금식하며 찾고 나에게 왔다! 비록 내가 수년전에 너에게 이 대 재앙에 대해 보여주었으나, 이제 더욱 세부적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이제 네가 크나큰 간구함으로 나를 찾으니, 장차 미국과 캐나다에 닥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불안정한 단층 지대 (fault line)에 대해 보여 줄 것이라. 이 단층선은 아주 깊고도 깊으니! 이것의 지류들은 멀리까지 뻗어 있고, 미국과 캐나다 내부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갈라져 쪼개지게 되면 엄청난 황폐함(파괴)을 가져 오게 될 것이라!

네가 나에게 간구하고 물었기에, 이 거대한 지역들 가운데 곧 임박한 재앙에 대해 너에게 그동안 보여주었노라! 나는 너에게 장차 완전히 물에 잠기거나, 부분적으로 물에 잠기거나 물에 잠겨 여기저기에 일부의 지형만 남게 될 그 지역에 대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노라! (지도는 제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렇다, 거대한 바다 물 (the ocean)이 덮칠 것이라! 북쪽, 캐나다 지역, 허드슨 베이이 있는 곳을 보아라! 나의 소중한 아이야, 참으로 거대하도다! 이 거대한 물의 몸통으로부터 수많은 지류들이 뻗어 슈퍼리어 호수로 흘러들어갈 것이라! 이제, 서쪽의 위니페그 호수를 보아라! 또 하나의 불안정한 지형이니 이곳도 쉽게 붕괴되고 그 물들이 슈퍼리어 호수로 쏟아져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휴런(Huron) 강으로부터, 동쪽, 대서양을 보거라! 또 하나의 거대한 지역이니, 쉽게 붕괴되어 대서양의 물이 에리(Erie) 호수로 넘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물들이 서로 연결되면, 거대한 형태의 Y자 그릇모양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 그릇을 미시시피 강과 연결하여 보거라! (via 직선모양)! 그런 후 이러한 지역들이, 휘몰아치는 물들로 인해 그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걸 짐작할 수 있으리니, 이는 곧 대 파괴니라!

Little Rock Arkansas(리틀 락 알칸사스) 지역으로 물들이 쉽게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루이지애나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 휴스턴과 휴스턴 북쪽의 대부분 지역들, 심지어 150마일 이상의 내륙 지역이 그 큰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 육지는 쪼개질 것이며, 오직 작은 섬들만 남게 될 것이니라!

물들은 미조리 주로 들어가, 이곳저곳에 오직 섬들만 남기게 될 것이라! 미국 전역에 이 호수들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미국의 주(States)들은 모두 거대한 양의 물들로 범람하거나 씻겨 내려가게 될 것이며, 물이 빠져나간 후엔 이곳 저곳에 오직 몇몇 개의 섬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물들이 Knoxville, TN(테네시) 로 흘러갈수도 있고 미시시피강을 따라 몇 개의 섬만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 물들은 흘러넘쳐 알라바마의 절반 이상을 잠기게 할 수도 있으며, 플로리다 북쪽은 해변가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붕괴될 것이라! 거대한 해일과 조류가 대부분의 플로리다와 걸프만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니라!

뉴욕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아주 거대한 지진! 뉴욕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 워싱턴DC도 그렇게 될 것이니! 조지아는 더욱 파괴될 것이라!

아틀란타로부터 시작하여 조지아, 아우거스타(Augusta), Macon

Georgia로 연결된 단층대들을 타고, 물들이 Macon, Ga, 내부지역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 물들은 조지아주 중부지역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엄청난 파괴가 버지니아에 다다르고, 오클라호마 도시까지 파괴가 진행될 것이며, 텍사스 일부에서부터 달라스까지 이를것이라! 알칸사 북쪽 지역은 붕괴될 것이니! 알칸사강 (Arkansas River)은 점점 거대해져서 알칸사 리틀락이 항구가 될수도 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아이야, 그 너무나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얘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네가 간구한대로 이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날지 아웃라인만 얘기해주었노라! 이 사악한 나라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이 속히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 캐나다 또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리니 그녀는 사악한 미국의 쌍둥이 자매라!

나는 너에게 New Madrid Fault line(뉴 마드리드 단층선) 지역에 대해서만 말했으나, 또한, 나머지 미국 지역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서부 해안과 동부해안의 파괴는 훨씬 더 어마어마할 것이며, 또한 다른 곳 들 중 특별히 엘로스톤은 화산폭발로 인한 망연자실할 피해가 있을 것이라!

이것들을 막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가장 존귀한자이니, 나는 나의 신실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단다! 그리고 길을 잃은자,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말도 듣는 단다! 만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릎을 내 앞에 꿇고 진정한 회개를 내 앞에서 한다면, 나는 이 거대한 재앙을 줄여줄 것이라!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사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겠다면, 내가 이글에 명시한바, 심지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들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 이보다 더 심각할수도 있느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야훼이며, 여호와, 가장 존귀한 신이니라! 나의 소중한 아이야, 이것들을 기록하거라!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 주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재정적으로 너를 돕게 할 것이니, 우편을 보내고, 네가 더 좋은 차를 갖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곳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러 갈 수 있겠으며 그 특정한 지역들에 보호천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도울 사람들을 일으키고 네가 필요한 돈은 내가 대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야훼이며, 여호와, 가장 존귀한 신이니라!

2008년 3월 1일, 보고 들은대로 기록함.

린다 뉴커크

Linda Newkirk

아래는 나의 이 예언과 관계된, 아버지께서 2008년 2월 1일에 주셨던 메시지와 환상에 대해 읽어보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http://www.prophecies.org>에 2008년 2월 21일에 게재되었고, 12예언서의 3파트 42장에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2월 1일과 2월 21일. 매튜가 받은 메시지도 “21”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보실 겁니다.

이글거리는 여인에 관한 환상!

며칠 전, 약 2008년 1월 마지막 주 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 환상이 나타났는데, 남쪽부분을 보니 한 불에 이글거리는 듯한 여인 혹은 천사를 보았고, 그 여인의 손에는 활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화살을 빼어 워싱턴 DC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나는 마치 지진이 우리의 수도 워싱턴DC에 일어난 것과 같이 엄청난 벽돌과 콘크리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사는 다른 또 하나의 화살을 빼어, 지금은 정확히 그 순서가 기억에 나지 않지만 내가 본 것을 최선을 대해 다시 기억해보면, 뉴욕시를 향해 그 화살을 쏘았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지진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동부 해안 쪽에 화살을 쏘았고, 나는 그 곳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곧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캘리포니아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화살을 맞은 캘리포니아의 부분이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거대한 호수(the Great Lakes)의 근간을 향해 화살을 쏘았고, 나는 뉴 마드리드(New Madrid)가 머지않아 요동치게 될 거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파란치콜라 플로리다(Apalachicola Florida) 근처의 바다에 화살을 쏘았고, 나는 어마어마한 물의 거대한 산이 그 대양 가운데서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해일이 걸프만과 플로리다 지역을 초토화 시킬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해변가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나는 이 해안가 지역에 거대한 파괴가 일어날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화살을 엘로우스톤을 향해 쏘았고, 그 곳도 역시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터의 경고의 메시지 ...
(02/01/2008)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나의 복된 아이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가장 높은 하나님이다. 소중한 나의 아이야,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적거라. 그리하여 모두가 좀 더 현명해지기를! 모든 나라들아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일어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보려거든 눈을 떠라! 들을 수 있게 너의 귀를 찢어서라도 열어라! 너는 전 세계가 벼랑 위에 서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전 세계가 지옥을 바라보고 있구나! 누가 나의 심판의 손을 건디어 내겠느냐? 누가 나의 심판의 손을 늦추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결단코 말하건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내 손을 막지 못할 것이며 나의 방법을 알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건 주님에게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는 그렇게 꼼짝하게 신자들에게 행하지 않아! 그는 그런 심판을 하지 한적이 없어! 절대 그는 그런 식으로 멸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들은 무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 어리석은 말을 하는도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창조하고 파괴하노니! 나는 깊은 사랑의 신이며 또한 나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이니라!

오, 그렇다! 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니라! 그리고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빼내려고 하지! 그들은 내가 사랑의 신이라는 것만 믿기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나의 사랑은 뜨겁게 탄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악을 쳐다보고 기뻐할 수 없느니라! 오, 그렇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노력한다. 태초부터 너희 모두를 위해 노력해왔으니! 너희 모두 말이다. 죄인들아! 왜냐하면 너희 모두를 위해 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또한 나는 태워버리는 불이라! 그리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을 때 너는 나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나의 선지자들을 모욕했으며 심지어 너의 생활가운데에서 그들을 배척했다! 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나는 그 모욕했던 자들에게 나의 등을 돌릴 것이라! 비웃는 자들과도 관계를 끊을 것이며 내 눈을 너에게 향해 네가 완전히 부셔질 때 까지 바라볼 것이라! 사악한 자들을 철저히 멸할 것이라! 모욕했던 자들을 멸할 것이라! 반역자들을 멸할 것이라! 그리고 나의 말씀에는 그런 경우가 많도다. 오, 내가 그동안 너희 즉, 전 세계에 사는 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고했느냐! 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그동안 계속 경고를 해왔으니! 하지만 너무나도 정말 아주 조금 아주 극소수 만이 들었구나!

오, 목이 뻗뻗하고 굳은 세대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모욕자들, 비방하는 자들, 뒤에서 속닥거리는 자들, 고발자들, 강간자들, 남색자들(소동사람들), 변태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도둑들, 규율도 없고 날뛰는 자들! 파멸에 합당한 자들! 속임수가 가득찬 자들! 오, 나의 채찍이 너희들에게 무섭게 내려칠 지니! 별안간 네 발아래 융단을 찢을 지니! 불시에 네가 소중히 기르고 간직한 것을 빼앗을 지니! 순식간에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 같이 너를 부술 것이니! 불쑥 너의 가정을 멸하고, 너의 집을 멸하고, 너의 이력을 멸하고, 너의 안락한 생활을 빼앗을 지니! 별안간 너의 도시와, 너의 해안선과, 너의 고상한 국가조직자들과 그리고 너, 두쟁이들, 거짓과 허위를 퍼뜨리는 바로 너! 순식간에 나는 내 소유의 집을 불어 날려 버릴 것이며 사탄의 왕국 즉, 뉴 월드 오더-신세계질서-를 날려버려 무릎이 약하고 흔들리게 할 것이라!

오, 그렇다! 바로 그대로인즉, 이것은 손달을 만큼 가까이 있구나! 왜냐고? 내가 나의 신부를 데려갈 때 나는 이 세상을 재앙 속에 빠뜨릴 것이니, 별안간 헤아릴 수 없는 굉장한 기아가 올 것이라! 별안간 방대한 수가 휘몰아치는 홍수 속에 사라질 것이라! 별안간 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그동안 한 번도 수치를 재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지진으로 그 산산이 부서지는 바위 밑에 방대한 수가 깔려 죽을 것이라! 오, 그렇다. 별안간 방대한 수가 전기 공급을 못 받겠으니 음식도 없고 방대한 수가 죽을 것이라! 은행이 문을 닫으며 돈도 없을 것이며! 전쟁, 끔찍한 전쟁이 빠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사탄이 세계정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일이니라! 끔찍한 고문, 학대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죽음! 마음 조종하기(마인드컨트롤) 재교육 캠프가 네 삶 한 가운데 있겠고 뉴 월드 오더-신세계질서- 마음 조종하기 팀들은 악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열광적으로 일할 것이니! 대학살 캠프이며 이전에 히틀러가 했던 그 괴기주의 소름끼치는 일보다 훨씬 그 이상이니라! 전쟁, 소위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한 이 전쟁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나 하나님과 나의 아들을 비난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고 그 모든 방법론적인 수단들을 총 동원할 것이라!

불의 심판들! 오! 모든 종류의 손실들과 박해, 기아, 전쟁의 거대하고 끔찍한 불의 심판들! 가혹하다! 엄격하다! 핵 전쟁으로 인한 황폐여! 독이 든 음식이여! 가혹하다! 엄격하다! 오, 눈물! 오, 통곡!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너희 보는 가운데 증발되어 버릴 것이다!

오, 그렇다, 전 세계가 지금 끝없는 구렁의 가장자리에 서있으니! 네가 끝없는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너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이나? 바로 나 이니라! 나는 나의 손을 조금만 더 참아내서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겠노라! 하지만 이 한 가지 알아라. 아주 확실하게 알아라! 요한계시록 12장의 역사가 끝나면 전 세계는 끝없는 구렁으로 곤두 박칠 것 이라!

이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정말 적은 시간을 허용하노라! 이 시간을 주는 이유는 네가 회개함으로 겸허해지기를 원함 이니라! 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죄를 자백하라! 너의 죄를 버려라! 나는 간절한 마음과 진정한 회개에 용서를 주노라!

이 때문에 나는 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약간만 늦추는 것이니라! 또한 나는 네가 다가오는 혹독한 세월을 준비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기다린다! 모두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모두 도시를 피하거라! 생존주의가 되어라! 대 기근과 엄청난 국력 상실 및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라! 삼년 반 동안 먹을 음식을 저장해 놓아라! 정원에 심을 씨앗을 모아라! 생활필수품을 비축해 놓아라! 이 파괴가 일어날 때 너는 가게마다 선반 위가 온 통 텅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 나는 네가 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 파괴에 대해 말을 하고 있으니!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라!

그렇다! 나는 나의 신부를 데리고 갈 것이니 그녀는 나에게 돌아 올 것이라! 혼례에 초청을 받은 대부분의 손님들 또한 돌아 올 것이니! 이들을 내가 지킬 것이라! 그런데 너는 지금 이 모든 일로부터 도망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해안가로부터 멀리 피하라! 그레이트 호수에서 멀리 이동하라! 그레이트 호수와 미시시피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라! 곧 여기에 있는 호수들이 모두 미시시피강으로 짝 쏟아질 것이라!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벗어나고 내륙으로 충분히 들어오라! 곧 바다가 이들 모두를 덮칠 것이라! 나의 사람들아, 너에게 말하노니 짐을 싸고 플로리다를 떠나라! 확실하노라! 엄청난 심판이 플로리다에 내려질 것이니 이 때 섬들은 오직 실처럼 가느다란 모양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 짐을 싸고 걸프 해안에서 벗어나거라! 빨리 하라! 나의 크나큰 심판이 이 해안을 따라 이루어질 저!

네가 어디를 갈 것이냐! 급히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내가 나를 제일위에 놓으면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보이리라!

그렇다! 나는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하고 있노라! 하지만 극히 잠시 동안 일뿐이라!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라! 나를 위해 살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최우선 순위에 놓거라! 많은 이가 멸망당할 지라도 나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모두 데려감을 입을 것이라! 너의 몸이 감옥에 갇혀 죽어도 너는 평화로울 것이니 나의 아들이 너를 데리러 그곳에 갈 것이니라!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길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환란동안 이곳에 있으리라! 나의 말을 들어라! 힘껏 준비하라! 뉴욕에서 나와라! 동쪽 해안을 떠나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곧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이 세계를 칠 것이니 너희들이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것이라!

나는 너희 아버지 여호와니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하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멈춰라! 내것을 나에게 줘라! 나의 선지자들과 내가 기름부운 종들에게 복을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나의 것을 훔쳤으면 사탄이 네 것을 훔치도록 허락하리라! 네가 내 것을 도둑질 했도다! 너는 나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쳤도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에게 속한 것을 내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확실한 것을 주리라!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가장 높은 신이니라!

2008년 2월 1일 보고 듣고 기록합니다.

린다 뉴커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매튜 스테판에게 주신 말씀을, 그의 동의를 구하여, 첨부합니다.

VINE MINISTRY INTERNATIONAL
(바인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포도나무 목회 인터내셔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가 내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으니, 나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 것도 아니라
(요한 15장 5절)

THE WATCHMAN REPORT

(파수꾼의 증언)

에스겔 3:17; 이사야 61:1-3;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지켜보고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울리나니! 심판의 칼이 준비되고 있으니!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온 나라들에 그의 왕국이 임한다

실로암의 새 포도주--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파수꾼의 전갈--주의 종들의 부르짖음

VMI 5번째 긴급 메시지 : 심판을 유예하고 있노라

어느때 처럼 스포카네에서 산속 나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분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잘되기를 기도할 때 감동이 되어 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던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 나는 불을 보았고, 나는 비를 보았고,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 같은 해맑은 날을 보았고, 나는 친구가 없었던 외로운 날들도 보았네”라는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고, 벽난로가 지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들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2시간 동안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왕 앞에 찬양하는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내 면전을 엮드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빵을 좀 먹은 뒤, 다시 저의 특별한 자리로 돌아와서 얼굴을 묻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린 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심정을 녹여주시고 깨끗게 하였기에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간까지 있으니 매우 피곤하여, 주님께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기도 올리고, 저의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로 가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네가 나의 말을 받아 적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들고, 구약성서의 한 구절을 열었습니다. 나는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더욱 울었습니다. 그런 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벌떡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이야, 기억하거라.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노니, 지금부터 너에게 할 말을 실행하기 위한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약속한 그때가 임하고 있노라.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 새벽 12시21분이었습니다. 그때 방안이 환해지면서 손에 큰 칼을 든 흰색 린넨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뒤부분을 보았을 때, 나는 거대한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손으로 가르키는 곳을 보았는데, 바로 미국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4명의 큰 천사들을 보았는데, 한명은 서부 해안에 서있고, 한명은 동부 해안, 한명은 오대호, 한명은 걸프만(루이지아나, 텍사스 부근)에 서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무기들이 들려져있었는데, 그 각각의 끝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몸을 뒤로 제치며 그 무기들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자야, 신성한 땅을 등지고 저 미국 땅을 향해 예언하라. 주 하나님은 미국을 대적한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국 전역에서 의로운 사람들과, 사악한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도망치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나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후 다시 보니, 허리에 금빛테를 두른 하얀 린넨 옷을 입은 남자가 그의 두 손으로 그의 무기를 들더니, 그는 그의 칼을 공중을 향해 360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그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빛이 났습니다. 그가 그 칼을 백악관의 중심을 향해 내리 쏘았습니다. 백악관은 쪼개졌고,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도 쓰러졌습니다. 나는 911사태 보다 7배나 더 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군대들이 온 도로를 에워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부 해안에 서있던 천사가 태평양 바다를 향해 몸을 틀더니, 4명의 귀신같은 짐승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일으켜 가게 하라. 그러자 네 마리의 짐승들이 큰소리로 두 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칼을 태평양을 향해 던져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수백 미터나 높게 공중으로 솟아 오르며, 그 짐승들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짐승들을 향해 칼을 쏘았고, 그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닷물들이 무서운 속도로 서쪽 해안을 향해 밀려드는 것을 보았고, 많은 나라들을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찾던 그 천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삶의 방법을 회개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저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라고 여쭙어 보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많은 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단다. 그들은 세상이 지금처럼 있기를 원하고, 편안한 그대로의 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니. 내가 그들의 편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경고했건만 그들은 그들의 부를 버리기 싫어했고, 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느니라. 마치 롯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요구했었으니. 그들은 모두 죽었고,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들만이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채 몸만 살아남았느니라. 아들아,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라.”

그때, 오대호에 서있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조준하더니, 그가 나에게 “오대호를 쳐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 시간이 곧 임박했으며, 시간이 다 되간다. 서둘러라.” 나는 다시 앞드려 울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벌벌 떨며, 그 목소리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을 알지만, 너는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한 손이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저는 다시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더욱 울면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관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거라”하셨습니다. “설사 제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맨 처음 보았던 허리에 금띠를 두른 그 천사가 하늘을 가르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들 앞에 커다란 칼을 찬 4명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지구를 내려치자, 미국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 천사가 거대한 석유/오일 탱크를 내리치자 온 나라에 불이 붙기 시작했으며, 세 번째 천사가 공중을 향해 내리치자 수 천개의 토네이도 태풍이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사방에서 일어났고, 모든 농작물들이 파괴되었고, 수 만채의 집들이 쓸려나갔습니다. 네번째 천사가 모든 정부기관들의 빌딩들을 쳤습니다. 모든 경제와 부의 상징들이 땅에 떨어졌고, 불타올랐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나는 많은 군대들이 습격을 받는 것을 보았고, 태평양의 함대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걸프만에 서있던 천사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까이오라, 걸프만과 루이지애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카트리나보다 10배나 더 큰 태풍이 올 것이다.” 그러더니, 그 천사가 걸프만을 치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부 해안 쪽에 서있던 천사를 보았더니, 그가 바다를 치자, 12개의 허리케인이 생겨나더니, 대서양의 바닷물이 동부해안과 해변가로 밀려드는 것을 보았고, 20마일부터 60마일 안 내륙까지 물에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재앙이 온 땅에 올 것이라. 오, 미국이여, 너는 진실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으니, 그리하여 전능한 나 여호와와 너 미국에게 심판을 결정하였노라. 미국의 죄악이 하늘까지 달았느니라. 슬프도다, 슬프도다, 미국이여.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심판이 다가왔노라. 나는 더 이상 나의 심판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그 시간이 다되었다. 그때가 다가왔다. 너 미국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 심지어 지금도 내가 너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고 있노라. 나의 명령을 실행할 천사여 미국에게 내려갈찌어다. 미국이 악함으로 죽게 한 모든 무고한 자들의 피를 미국에게서 다시 찾으라. 미국에게 말하거라. 나는 나의 심판을 되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이 말 이후 환상이 끝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환상들을 보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

12시 21분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든 환상들이 진짜인 것인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1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상에 관한 것을 읽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에스겔서 2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1,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구절은 1993년 11월 20일, 미국의 파괴에 관한 지도와 함께 저에게 주셨던 200개 성경구절들 중 하나였습니다.

2008년 2월 9일에,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새벽 2시 22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

과 그의 성스러운 책의 여러 부분들(chapter)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에스겔서 21장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언해 쓸 8개 다른 편지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보았던 이 환상은 이 편지들 중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환상은 2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3장을 읽으세요.

"지금 회개하라, 근신하라 , 나 여호와를 위해,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한 신이라, 나는 모욕을 당하지 않을 지니라"

특별 메시지 : 나는 2008년 1월 21일에 전도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서부해안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나의 삼목 막대기로 태평양을 치고, 캘리포니아 주와 오레곤주 워싱턴주의 수도를 쳤습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현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편지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2008년 2월 21일

매튜스테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2008년 3월 1일 나에게 주신 파괴에 관한 지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끔찍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 이 나라, 미국과 캐나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하여, 거대한 파괴로부터 예정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화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합시다! 위대한 일들을 시작해야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께 큰 사랑을 전하며 빠른 시일내에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 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의 자매,

린다 뉴커크

<2009년 6월 28일 주일말씀>

은혜와 목적

본 문 고린도후서 6장 1-2절, 6-10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섭리사 전체를 보시고, 또 각 개인들까지 보시고 선생을 통해 말씀하시니 잘 듣고 행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나 어떤 것을 해 줄 때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을 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실 때나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는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인간들이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기를 바라시고, 또 주시는 자의 목적을 이루면서 행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게 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가니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모두 궁금해 하는 것과 어찌할까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생에게는 전국과 세계의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재할 것과 꼭 답해 줘야 할 것만 해 줍니다.

마지막 이때, 주님의 총지휘 하에 성령과 은혜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주님께 말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육체에 쏟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이같이 역사를 행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받고, 주시는 자의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섭리사는 ‘새롭게 변화하라.’고 주님께서 금년도 총 주제를 주셨지요? 이같이 하시려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같은 제목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에 선생을 앞세우고 하시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을 앞세우고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같이 하고 있지요? 주님이 메시아이시니 전체를 통제하시고 통솔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어서 행하십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속 시원히 일체 물을 쏟아 붓듯이 마음을 쏟으며 따르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련하게 선생을 중심하여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못 하게 하기보다 선생이 못 하게 해야 되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한 명도 선생을 중심하지 말고, 근본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중심해야 될 때입니다.

선생은 늘 주님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주님과 세상 사람, 특히 주님과 섭리인들의 다리 역할을 하며 중보자 사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주님의 통역관이라고 예전부터 말했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서 전해 주고, 또 어떤 사연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여 섭리인들에게 전해 줍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선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개성대로 주님의 통역자가 되어 일하게 하기도 하시니, 선생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꼭 하기는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못하고, 또 여기 있어서 못 하니 너무 심정이 타고 괴로웠는데 주님이 각 분야대로 모두 들어 쓰시니 선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많은 자들을 사명자로 쓰면 번거롭고 혼잡스러우니 한국과 각 나라에서 핵심자들을 필요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모든 계시들을 확인해야 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단상에서 외치고 증거하는 말씀과 계시는 잘못 나가면 안 되기에 모두 주님께 정확히 확인받고 전해 줄 테니 믿고 따라 전진하기 바랍니다. 선생과 모두 의논하고 합니다.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생은 보고되는 상황들을 신속히 주님과 의논하고 지시해 줍니다. 섭리사는 30년 동안 선생께 묻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꼭 물어보고 해 왔습니다. 선생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꼭 주님께 물어보고 행해 왔습니다.

어떤 자가 계시를 받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의 계시인지, 마귀의 계시인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인데 기도하니 떠오른 것인지, 자기 영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천사가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자로서 말해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시받은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믿기 힘들고, 또 계시받은 자들이 평소애 봤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충성자도 아니고, 눈에 띄는 자도 아니므로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자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맞는 것도 같고 믿어지기도 하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으니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필요하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생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선생은 왜 아는가 하니, 선생이 장본인이니까 잘 압니다. 누가 선생을 보고 주님이라고 계시를 받으면 믿는 자도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어 잘 분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생이 본인이니까 잘 알아요. 선생은 주가 아니지요. 그런 것은 금방 압니다.

주님만이 메시아로서 갈보리 산에서 죄 없이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주님 밑의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쓰는 자들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사사로 하나님과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십니다. 중심자 모세와 여호수아같이 주 앞에 감람 나무로 세워져 쓰기도 하시고(계 11장),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혹은 부흥강사로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주님은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신부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와 같이 그 뒤를 따라 그 노정을 확대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받으셨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제자들을 신부같이 대하셨듯이, 이 시대도 우리를 그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70일 동안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고로 먼저 나로 배고픈 고통을 겪게 하시고, 여러 아픔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 마라. 네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 죽음이 너를 피해 간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으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근본을 다 깨닫고, 20년 이상 말씀을 배운 후에 30년 동안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전했고, 늘 거리로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혼자 하고 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해 주어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각종 각색의 병에 걸린 자들을 기도하여 고쳐 주었습니다.

섭리사 30년은 주님의 3년 노정과 같았고,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기간 같았습니다. 선생이 주님을 대하듯 모두 그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님을 대하게 했습니다. 고로 기성인들보다 훨씬 더 주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 주었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주님은 섭리 전체를 재림에 맞추어 총지휘하시며 각자의 개성대로 신앙을 이끄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섭리사는 선생이 주님의 전형 노정을 두고 뜻을 펴 왔기에 더욱 선생을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오시는 주님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에서 대역을 쓰니 실제 주인공같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격입니다. 연극 볼 때, 선생의 대역을 하는 자를 선생으로 착각하고 보는 신입생과 같습니다. 선생은 주님이 세상에서 역사를 펴셨듯이, 주님의 역할을 하는 주연을 맡아서 복음을 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재림 때를 맞춘 것입니다.

주님이 30년 동안 선생을 통해 역사해 오시니, 선생을 보고 “주여.”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도 아브라함을 보고 “주여.” 했고, 선지자들을 보고도 “주여.”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주라고 부를 때마다 선생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구원받고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해 준다.”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고를 그릇하여 선생의 말도 잘 안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전통파’라고 하며, 선생은 예수님이 보낸 자니 선생을 중심해서 해야 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사명을 두고 모사를 쓴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날 주님의 전형 노정을 걸으며 주연을 맡아 그 사명을 한 것이지, 주님이 주인이지요. 물론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행한 자는 과정 가운데 정말 귀하고 중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 역시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선생도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주님 시종되기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과 일체 되어 은혜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 이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니 꼭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종의 몸, 구시대 구약을 벗어나 양자 된 몸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고 주님의 신부 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심은 우리의 과거 신앙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둘째,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가혹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아 중병들이 났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아 모두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 맞을 준비하며, 감사하고 살라고 합니다.

지금 이때 주님이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고 계신데도 참석하지 못하여 성령과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더라도 자기의 주관을 선생에게 쏟고 고정관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참석해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슴의 신앙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압니다. 말만 선생을 위한다고 하는 자들은 행하지 않으니 죽은 신앙인들입니다. 선생은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시다. 예전에는 늘 사랑으로 잘못들을 덮어 주기만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두 쪼개어 뒤집어 놓으십니다.

지금도 선생을 위한다고 하며 절대 선생을 앞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단이 잘못되었다, 혹은 집회를 잘못한다며 가정국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선생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 위신, 체면을 위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싹 걷어치우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거기 동참하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기 바랍니다.

선생이 직접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집회하는 자들과 평소에 안 좋게 지낸 원인 때문에 선생을 업고 그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씀을 듣고 모두 돌이키기 바랍니다. 마귀들은 모르는 만큼 역사하고 꼬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증거하며 모두 일제히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남자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선생 이야기를 90% 하고, 주님 이야기는 10% 정도만 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얼굴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같이 하면 단상에 안 세울 것입니다.

설교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선생에 대해서는 증거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주님에 대하여 잘 모르니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 대해 잘 말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성령을 주는 자가 아니니 선생을 부르지 마요.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선생도 주님의 신부로서 갖추기 바쁜데, 내 옷자락만 잡아당기면 내 갈 길 못 갑니다. 주님이 선생에 대해 한마디 증거해 주는 것이 섭리사 사람들이 100번씩 증거하는 것보다 큼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증거를 받으니 그리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주님을 확실히 메시아로 믿고 신부로서 주님과 일체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장년부나 가정국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 했는데...’ 하지 말고, 재림을 위한 역사니 빨리 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먼저 믿음으로 자신을 확실하게 만들고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전체가 꼭 변화되어야 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원한 품은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섭리사 이성의 범죄는 계속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대 집회 때 무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타락하고도 무대에 막 올라갑니다. 회개되지 않은 자는 집회 때 무대에 올라가지 마요. 또 양심을 속이고 선생을 속이면서 하면 제명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그러면 선생을 통해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생을 무시하고 숨기고 행하는데 쫓아가서 책망하지도 못합니다. 자꾸 선생을 심정 타게 하면서 선생이 더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섭리사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니 안되겠습니다. 이성에 수상한 자들은 선생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지땅에서부터 전체에 이르러 그 같은 자들에게 1차 경고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성으로 타락한 자는 직책을 모두 거두고 3년간 근신 기간을 줄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였고, 30명을 전도해야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는 회개될 때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위해 사는 자들을 타락케 한 자들은 더 죄가 커서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는데 그 형벌을 받아야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도 동일하다고 하시며, 다 용서는 해 주었어도 그에 대한 형벌이 끝나야 죄가 완전히 사함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연성전에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자를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회개하고 자기 위치로 가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역자들은 임무를 주기 전에 먼저 이성문제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임무를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니 그 앞에 드리는 제물도 깨끗해야 됩니다. 교단이나 교역자는 상황을 모르니, 타락하여 이미 공직을 놓은 것을 모르고 또 직책을 줍니다. 알고 줘야 됩니다. 근신 기간을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재림에 대해 완전히 깨어나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전도하여 생명들을 깨우고 살려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기 먼저 사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기 먼저 완전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됩니다. 섬리인들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엄청난 자들이 전도되어 부흥됩니다. 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이 가르쳐 주어서 선생이 전도했던 대로 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가 금년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수만 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자들만 하면 1인당 10명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혼자 10명 전도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전체가 한 사람이 한 명씩 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선생이 30년 동안 해 왔기에 알아요. 몇 사람이 수십 명씩 하는 것보다 전체가 한 명씩 하는 것이 더 큼니다.

각 교회는 한 명씩 꼭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신자가 오면 그를 통해 또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연고자가 있습니다. 친구 말이에요. 아는 자는 데려오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5~10명은 아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전도하였는데, 뜻 있는 자를 성령에 감동되어 전도하였고, 거리에서나 환난 중에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된 자들이 계속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전도하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0단계 관리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곧 내려 보내겠습니다.

전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명을 정해 놓고 하든지, 방법을 정하여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마치 운동장을 뛰는 것과 같아서 빨리 뛰면 곧 지칩니다.

선생은 10대부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상대를 파악하면 더 좋습니다.

-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유의 능력 받고 하니 더 쉽습니다.

- 사탄은 사람들을 보고 항상 자기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며 꼭 쥐고 있습니다.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 전도하는 자는 상대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은 시원한데 그 사람과 멀어져서 감정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친하게,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 전단지를 전달한 후에 반응이 어떠한지 보고, 별 반응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전도 전단지가 무엇인지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전도 나가서 변론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떤 자는 자기 곤고하다고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자도 있고, 교회에 다녀 본 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싫증을 느끼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상처 받고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불교도인 사람도 있고, 혹은 종교를 싫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실속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10명에게 말을 걸어 7명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중에 결국 1명만 남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1명을 전도했는데 2명이 왔으니, 전도받은 자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한 명 더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전도를 해 오면 교회에서는 유능하게 강의를 해 주고, 새로 온 자들을 잘 대해 주는 자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손발이 같은 수준으로 맞아야 됩니다.

전도를 1명도 못 한 자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무익한 자와 같아서 결국 쫓겨납니다. 기본이 3명입니다.

니다. 10명 전도한 자는 그래도 생명을 구하러 다닌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명 전도한 자는 전도하는 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30명 한 자는 교회 하나를 낳은 자입니다.

섬리사에서 지금까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0명을 전도했고, 전도된 자들이 현재 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이번에 교단 선교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선생은 예전에 전도대회를 열어 1인 1명씩 전도해서 오게 하고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한 번 집회 때 500명, 400명씩 결실했습니다. 말씀으로 연결시켜 제자들로 삼았습니다. 환난, 핍박, 악평 다 상관없습니다. 전도하면 오히려 우리를 악평한 자들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말하기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모두 1인 1명씩,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도록 해요.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공적이 너무 없어 그 집이 쓸쓸하고 본인도 빛이 안 납니다. 전도한 자는 별같이 빛납니다.

대학부 전도가 안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전도가 안되는 교회는 특별히 전도자들이 파송되어야 합니다. 파송된 전도자들을 일주일 동안 밥 먹여 주면서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를 전도하게 해야 됩니다. 가정국들도 중고등부와 대학부와 청년부를 전도하기 바랍니다.

환난이 시작되면 전도가 정말 안됩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은혜 집회는 계속해야 됩니다. 각 교회들도 계속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집회를 끝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계시받은 자들은 선생에게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으면 즉시 종이에 써야 됩니다. 자세히 써야 됩니다. 먼저 교역자나 집회 강사들에게 묻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월명동에서 8차 성령 집회를 할 때 전주 스타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 간증했지요? 그 계시대로 선생은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늘 무릎이 아팠습니다. 엉덩이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선생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지금은 별로 안 아픕니다.

선생은 전주를 생각하며 근심에 쌓여 특히 전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주에 이성문제가 많고 나간 자들이 많으니, 안되겠다 생각하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정말 잘하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섬리 사람들이 계시받은 것들을 모두 교단에 집결시키고, 책임자들이 모아서 검토하여 책으로 펴내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는 선생이 해 주겠습니다.

계시의 문을 열어 놓았더니 여기저기 계시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계시를 받아서 자기 계시만 보면 맞는데 모든 계시들을 조합해 보면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 계시를 받기도 하니, 주님은 계시받은 것들을 총 확인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신으로 주고받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본도 집회가 있다고 하여 말씀을 보냈는데 집회가 끝나고 말씀이 도착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아무리 빨리 보내 주어도 편지가 가다가 자고 가는 날이 있으니 늦습니다. 금, 토, 일요일이 끼면 아무리 속달로 부쳐도 4일 만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전화나 말로 하니 좋습니까?

보고하는 편지나 비상적인 편지는 받고 답을 주지만, 일반 편지는 읽어 보는 것밖에 못 합니다. 나의 시간을 최고로 많이 잡아먹는 것이 편지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만 명이 1년에 한 사람당 편지 한 통씩만 해도 매일 30통씩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답장을 30통씩 쓸 수 있겠어요?

선생은 다른 일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답장을 다 못 씁니다. 세계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편지 답장받는 것이 표적 중의 하나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왜 내게는 편지가 안 오지?’ 합니다.

편지가 오면 너무 반가운데, 읽어 보면 답장을 해야 하기에 부담되어서 쌓아 놓기도 합니다. 결재 편지만 해도 많이 올 때는 하루에 70~80통 옵니다. ‘선생 없을 때는 어떻게 했지?’ 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계속 철야하면서 365일 꾸준히 해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말씀과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써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곡을 작곡 작사해야 하고, 글을 써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밥을 안 먹고 해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단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행정을 다뤄도 바쁘지요? 수천 명이 여기저기서 보고하니 선생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하고 편지 쓰는 자들이 아직도 4장씩, 5장씩 편지를 길고 길게 씁니다. 그 편지를 읽느라 시간이 다 가서 답장은 못 해 줍니다. 법을 어기니 안 됩니다. 선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는 소경입니다. 심정의 소경입니다.

선생을 사랑한다며 편지를 쓴다고 하지만 그 편지로 인하여 밤잠 못 자게 하고, 시간을 다른 곳에 써서 섭리 일을 못 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내용이 없는 글들이 있으니, 정말 글 쓸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10장을 써 보내도 5 줄만 쓴 사람만 못합니다.

선생은 편지를 이같이 합니다. 「네 편지 잘 받았다. 선생 잘 있다. 열심히 성령 충만히 받고 주님과 일체 되어 살라. 낙심 말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힘들면 기도하고 내게도 고하라. 선생 편지다. 안녕.」

편지는 늘 쓰던 자가 하게 됩니다. 편지를 받고 답을 주면 또 다음 편지에 문제를 써서 보내니 또 답을 줘야 되고, 연속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 계시하실 때가 많으니 자세히 보고 이러쿵저러쿵하며 상처 주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런저런 말을 하면 엄중히 말씀이 나갑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안 통하니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불은 너무 받고 싶은데, 두려워서 걱정하여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탄이 주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보면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꺼리는 자도 많습니다. 자기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을 통해 사람마다 자기 영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체험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는 의식하면 못 받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서는 수영을 못 배웁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영 분별도 하고, 꿈을 꾸어 자기 영과 다른 자들의 상태도 보아야 합니다. 주님도 보고 싶다고 애원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탄을 물리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성애 눈을 감게 됩니다. 이성애 빠진 자는 성령을 못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힘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죄를 더욱 안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선생이 분별해 줄 테니 척척 뛰어들어서 성령과 은혜를 받아요. 영계에서 보면 주님이 사탄과 마귀들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선생도 기도해 줍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사탄 마귀들을 다 쫓아내니까 걱정 말아요. 행여 사탄이 와도 기도하며 주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우면 됩니다.

자기 영은 육신이 강하게 해야 강해집니다. 자기를 수호하는 천사도 본인 자신들이 강하게 기도해야 강하게 돕고 사탄 마귀들과 싸워 줍니다. 자기 영이 강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영도 봐 주고 해요.

환상을 보고 영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개 어린아이들이 많이 봅니다. 영을 못 보는 자들은 영을 보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섭리에 5살 된 아이도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빨리 나오기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하니깐 “너만 알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 몇 살 먹으면 온다.” 하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주님은 통하면 누구에게나 자기 비밀을 말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도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야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니, 외모나 나이와 연륜을 깔보고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선생도 옛날 10대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았으면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끼리끼리 전하기도 하는데 무슨 계시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받은 계시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계시는 받으면 인봉할 것도 있고, 빨리 말할 것도 있으니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은 계시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시 받은 것을 모두 확

인한 후에 내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맞게 말하다가도 끝에 가면 결국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꿈보다 해석이라고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고 잘못 해석하면 계시를 잘못 받았다고 하게 됩니다. 풀지 못하면 잘못 받은 것이 됩니다.

예전에 선생이 한 계시를 받았는데 ‘네 무술을 가르치러 남미로 가라.’는 계시였습니다. 꿈에 선생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때 꿈을 통해 그 계시를 받고 생각하기를, ‘그 나라에 어떻게 가지? 말도 안 통하는데…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그 미개한 나라에 가라고 하실 리가 만무하다. 개꿈이다. 주님은 내가 남미 말 못하는 것을 아시는데… 사탄 계시다.’ 했습니다. 또 ‘나는 태권도 사범도 아닌데 그 같은 꿈을 꾸었으니 헛계시다.’ 했습니다. 계시를 못 푸니 헛계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의 큰 계시였습니다. 그 후 기도 중에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술은 30개론 말씀이며, 영의 능력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한 나라 남미로 가라고 한 것은, 주님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가르친 성경말씀을 모르는 미개한 자와 같은 기성으로 가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를 풀고 더 깊이 생각하니, 주님을 메시아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을 메시아로 가르치는 교파도 역시 미개한 남미에 사는 자들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계시대로 30년 동안 말씀의 무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무술을 연마하고 따라온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요즘도 선생은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너 나 뭐하는지 알아? 무술을 배우는데, 나는 너 마귀에 대해 잘 안다. 왜 우리 섭리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여 싸우게 하고, 서로 이성 타락하게 하느냐. 천적 마귀야! 내 검을 받아! 네 배를 찌르고 목을 자를 것이다!” 하고 고향을 지르면 눈알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서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은 불같은 기도와 절대 믿음과 말씀이 무술입니다. 그 무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탄과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계시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비유와 상징을 배웠으니, 계시는 현실이 그러하고 성경에 있으면 맞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끝에 가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속이고 역사합니다. 단상의 말씀과 그동안 배운 말씀을 벗어나서 계시를 받으면 확인하고 제재해야 됩니다. 방언도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꼭 끼어들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꼭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지구가 공포와 두려움에 울면서 탄식할 때가 곧 오고, 나라들은 나를 부르나 대답이 없을 때가 곧 온다.

바다가 육지로 밀려와 물이 육지를 뒤덮고, 나라들이 작은 섬으로 남아져 보는 자가 두려워 떨고, 큰 산들이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자부하던 것들이 태풍에 날아가 버린다.

지구는 중상을 입어 절룩거리며 슬피 울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슬피 울 때가 문 앞에 다가왔다.

“서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할 시간이 가까웠다. 돈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세상에 미친 자들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돈, 사랑, 세상 다 싫다. 오직 살고 싶다.” 할 때가 온다.

이 말은 허공에 외쳐도 정녕 이루어진다. 외쳐라. 내 말은 진실하고 참이니 전하라.

이는 예언의 소리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일체 되어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여 화목하고, 하나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지금도 섭리 안에서 따로 모여서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가정국들입니다. 주님은 불순종할 때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요즘 섭리사 성령 집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를 짓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자들이 집회를 하니 미워하고, 자기가 싫으니 하나님의 역사까지 부인합니다. 서울의 모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있는 자들도 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하지 말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선생 말도, 주님 말씀도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채찍을 맞고 다 고생하게 됩니다. 주일날 각 교회에 예배 안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교역자가 파악해서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 대해 광고 해 주어 유혹되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형제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보고한 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7월 1일 수요일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이치

본 문 요한복음 3장 17-21절

요한복음 5장 20-23절

요한복음 12장 46-48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이 밤도 말씀을 통해 깨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어떤 자이며,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행한 일들을 보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권의 구원자이시므로 인생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주님은 몸소 십자가에 그 몸을 드려 희생하시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심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 연대죄, 혈통의 죄값을 받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므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세계에서 구출되어 나왔으니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기에 사망권에서, 죄 중에서, 죄의 사망의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 자체가 죄의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며, 죄의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며, 심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세계에서 나와 회개하면 죄의 고통은 끝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표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대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직접 너를 심판하리라.”하시기보다, 항상 먼저 의와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멸망의 세계와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좌우되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로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구원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요 1:1-3)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속(救贖)함을 받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생들을 대신 살리셨으니, 자기 죄를 회개하면 그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하게 구속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분으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땅에서 나타나셨지만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하늘의 근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의 존재자로서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들이 멸망 받지 않도록 전도하여 살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일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였으니 심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으셔도 결국 그들은 죄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들과 같은 인생들을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 고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끌어당겨 구원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나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이 자기 죄를 회개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주님께로 손과 마음을 내밀지 않는 자는 급류에 휩쓸려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죄악이라는 흙탕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즉 심판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세계에서 나와 회개하였기에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또 고통을 받습니다.

- 의를 위해 의롭게 살려고 하니, 세상을 편하게 접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주님께 쓰여지기 위한 연단의 고통도 있습니다.

- 의의 세계에서 성장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습니다.

- 다른 자를 위해 희생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 주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조건을 세우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 주를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여 죄로 인하여 사탄이 괴롭히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통은 죄악의 세계에서 죄로 인하여 사탄으로부터 받는 고통보다, 영광을 위한 희망의 고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통입니다.

이제부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 시간이 길지 않고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순간 끝납니다.

- 마치 전쟁터에서 포탄이 터져 일순간에 끝나는 격입니다.

- 방 안에 모기들이 가득 차 있어 방새도록 물어뜯고 피를 빨아 먹으며 괴롭혔으니 심판해야 됩니다. 모기약을 1분 동안 뿜으면 순간 다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개인, 단체, 혹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와 같이 순간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성은 순간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블레셋 민족을 순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주님이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여기저기에서 지역적, 민족적으로 각종 재난으로 심판하신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지진·홍수·가뭄·질병·전쟁·태풍 등 만물을 통해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닥칠 때마다 순간 끝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태풍이 순간 지나가면 아주 짧은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이다. 심판하는 그 시간이 순간이다.”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온 세상의 심판도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곧 육신이 살았다 하나 영이 죽은 자, 근본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살아 있다 하나 실상 주님이 보실 때 그 생각이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신앙이 깨어났으면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네 행위를 온전케 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근거> (계 3:1-3)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2.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네 행위를 빨리 차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근거> (계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3.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경고하시며 “처음 신앙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근거>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 ‘우상적인 신앙 즉, 우상을 인정하는 신앙, 음란한 신앙, 우상의 제물을 먹고 부정하게 한 것들, 모두 죄’라고 경

고하면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근거> (계 2:14-21)

그리고 주님은 사탄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어 굴복시키셨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히 나오니 꼭 읽어 보고,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알고 현실에 대하여도 알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자가 바른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를 받으려면 성경 곳곳에 여러 방면으로 하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잘 풀어 보아야 됩니다.

심판의 이치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이 살아 있는 자를 땅에 묻지 않는 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을 보면 다 죽어 가는 자도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굳세게 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그같이 하지 않을 때 심판한다고 하시며 심판의 이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듣고 모두 자신이 해당되는지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살 가능성이 없는 나무에는 물을 줘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잎이 마르고, 퇴비를 하여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뿌리가 죽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손을 떼고 나무에 링거주사를 놔주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합니다. 톱으로 베어 냅니다. 이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순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이치로 심판하시는데 왜 억울하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합니까? 고로 주님은 “심판의 이치에 대하여 말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신앙으로 살 가능성이 없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줘도 빨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의 사명자를 통해 주는 말씀을 빨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영도 육도 사망권에 있는 자로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사망권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요? 3년이나 땅을 깊이 파서 거름하고 수고했는데,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수원지기는 “주인이여, 딱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거름을 잔뜩 하여 정성껏 가꾸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톱으로 베어 내시고 나무를 캐내시지요.” 하며, 경고하고 한 해 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눅 13:8).

섭리도, 지구상 모든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때 하늘의 경고를 받고, 시간을 연장해 주어 한 해에 해당되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름을 주고, 성경의 물을 주고, 치료해 주고 있으니 살아나고 회복되어 한창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어 해 줄 것을 다 해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죽어 가는 과일나무를 정성껏 가꾸며 퇴비하였어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베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장사를 지내고, 숨이라든 쉬고 있으면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살 가능성이 있는 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없는 자는 치료를 중단합니다. 신앙으로 볼 때도 살 가능성이 없는 자는 죽음의 심판을 받도록 운명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고 장사를 지내듯이, 신앙이 죽으면 사망 흑암권에 장사를 지냅니다.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고 장사 지내면 끝나지만, 영이 죽으면 사망권에 장사를 지냈어도 기도해 주어 주님이 그 조건을 통해 이끌어 오기도 합니다.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지요? 섭리를 나가 세상의 사망권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살다가 기도해 주어 다시 와서 회복되어 살아난 자들을 보았지요? 어떤 자는 시름시름 앓으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자와 영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심판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근본으로 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요 5:22)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 주님의 복음을 막는 유대 종교인들을 심판하셨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심판하셨고, 제자들이 잘못하거나 심정을 모를 때 사탄이 들어왔다고 사탄의 마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되어 작동하지 않을 때, 작동을 해도 제대로 일이 안 될 때는 처분합니다. 신앙도 이 정도가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이치에 대해서 알았지요?

이성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이 나갔습니다. 이성문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보고 아십니다. 선생의 지시대로 해야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공적인 돈 문제도 똑같습니다. 공적인 돈을 개인들이 허락 없이 쓰고 만 자들도 다 선생에게 보고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고, 앞날의 심판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 민족, 세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를 톱으로 베는 것이 왜 잔인합니까? 죽은 자를 땅에 묻으니 잔인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보다 10분, 20분 늦었는데 가 보았더니 이미 비행기는 출발했습니다. 제시간에 출발하여 떠났는데 왜 잔인합니까? 가능성이 없으니 떠난 것입니다. 모두 가능성이 있어야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알겠어요? 뛰어야 됩니다.

자신도 가능성이 있는지 보세요.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요. 일이 밀렸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며칠 철야하면 불가능한 것도 능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희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무를 베듯이, 죽은 자를 땅에 묻고 장사하듯이 이치에 맞게 세상도, 민족도, 시대도, 개인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환난 때 그와 같이 지구가 우는 때가 오고, 마치 절름발이가 걸듯이 하는 때가 온다.” 하셨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사망권에 살고 있습니다. 고로 사망권의 세계와 연결된 지옥으로 갑니다.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자와 주님을 외치는 자들은 심판치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하십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며 주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계시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계시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정확히 분별해 주고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들로 인하여 혼잡하고 질서가 어지러우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계시는 2009년 6월 23일부터 주님이 꼭 보고하고 검토 받은 후에 간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 받은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주님도 하나인데 대조해 보면 서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 계시를 주시지만 서로 맞아야 됩니다.

상행선에 있는 자는 상행을 해야 되는데 하행을 하면 하행하는 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다 주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의 흐름의 법칙상 안 맞는 것들이 있으니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계시는 80%만 맞으면 안 됩니다. 100% 맞아야 됩니다. 사탄은 100에서 처음에는 10%를 속입니다. 나머지 90% 믿고 따르면 다음에는 70%만 옳은 말을 하고 30%를 속입니다. 결국 서서히 속여서 자기 주관권으로 끌고 가게 되

니, 주님과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압니다.

개인의 소소한 계시들은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지만, 큰 계시들은 정말 심각히 검토합니다. 작은 계시라고 할지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계시를 전하며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교회나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빈 마음이어야 제대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시면, 그 계시와 함께 자기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도 나가고, 자기가 평소에 사고하던 것도 나가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도 나갑니다. 고로 자기가 깨닫고 하는 말인지, 자기가 본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섞여서 잘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으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것도 깨달음의 계시입니다. 대개 자기가 깨달은 계시가 많습니다. 토마스 주남, 안나 수녀, 린다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처음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선생이 함께하니 걱정 마요. 혼잡하거나 무질서하지 않게 할 것 입니다.

계시를 받고 내게 편지를 보내는 자들이 대개 세밀하게 내용을 써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다른 보고도 대강하면 잘 모르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세밀히 보고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도 많습니다. 교단에서 세밀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을 등에 업고 말하면 모두 두려워서 따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업고 계시를 받으니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어기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말할 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사탄도 주님을 업고 할 때가 많아서 감히 손을 못 대고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선생을 업고 했는지, 선생이 장본인이니 내게 확인하면 압니다. 선생에게 사실인가 확인하면 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압니다. 큰 계시는 주님께 물어도 잘 모르니 내게 물어보면 주님께 묻고 확인해 줄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주님께 물으면서 하니까 걱정 마요. 주님은 섭리사가 손해 보도록 놔두지 않으니 걱정 마요. 알겠습니까? 한동안 계시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 받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표현상 맞는 것이 있고, 잘못된 계시도 있고, 감정에 치우쳤을 때 그대로 계시가 왔기에 교정할 것도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대로 물이 담겨지듯이 자기 감정에 의해 계시도 받게 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계시 받은 자들은 선생에게 보고한 후에 결과를 듣고 말해야지, 누가 어떠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선생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시어 계시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주에서 받은 계시도, 전미정 순회사 계시도 교정할 것들이 있어 교정해 주겠습니다.

선생은 50년 동안 주님의 계시를 받고 분별해 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방에 모기가 들어왔을 때 모기약을 뿌리지, 사람 죽으라고 모기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성령 집회는 계속 꼭꼭 참석해요. 선생도 더욱 은혜를 받으려고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를 깊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흥강사들도 있지만 자기도 깊은 기도를 해야 그 그릇에 성령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꼭 기도해 줘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2009년 7월 5일 주일말씀>

주님의 계시의 말씀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깨닫고 알고, 마음을 풀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글로 전해 듣는 것보다 말로 직접 들어야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고 겪어야 훨씬 더 잘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님은 그 말씀을 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어 말로 하십니다. 성경의 글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선지자로나 사명자들을 통해 말로 외치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면 스스로 격게 하십니다. 고통을 주든지, 어떤 형벌로 심판하시어 고통에 부딪혀 스스로 격게 하십니다.

선생도 먼저 편지나 말씀의 글로 말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어 말로 합니다. 그래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스스로 격게 놓아둡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제 갈 길을 가는 자들은 고통과 갖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절벽 길을 만나게 되고, 뛰어내릴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길로 가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주님도 처음에는 성경의 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읽지 않거나, 혹은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깨달도록 고통·염려·근심·곤고·불안과 갖은 문제에 부딪혀 격게 하십니다. 다 겪은 후에는 탕자처럼 거지가 되어 알몸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더 갈 길이 없으니 그제야 돌아옵니다.

빨리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갈수록 산’이라고 더 고통, 더 염려, 더 근심, 더 곤고, 더 고생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상황들을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를 제대로 받으려면 자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나한테는 계시를 안 주시지?’ 하지만 말고 깊이 기도해야지요.

며칠 전 새벽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으면 성경에 꼭 기록해야 될 것인데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더라도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면 마치 자기 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사랑하며 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수를 세면서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 읽을수록 깊은 것을 깨달으려 해야 되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래 한 알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지구와 우주에 이르기 까지 실천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천자는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자는 예전보다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실컷 행하다가 실컷 고생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알고, 실천하고, 회개하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고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주님은 나한테는 계시를 특별히 안 해 주시지?’ 하며 의문을 품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같이 생각한 자들이 많지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싶지요? 선생도 주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계시 받는 자들을 보면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냐고 묻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봐요. **“정말 모르고 살고 있구나. 너희 선생을 통해 주일과 수요일 단상에서 말씀하는 것과 편지로 부드럽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은 나의 계시가 아니냐? 내가 개인에게 주는 것만 계시냐?”** 하셨습니다.

섭리사 전체가 어떻게 하여 30년 동안 이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되어 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전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30개론으로 만들어서 전해 주어 믿고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어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통해 주님이 계시하여 말씀하신 것을 단상에서 외치게 하시고, 주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쳐다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듣는 자들의 마음까지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각각 따라다니는 천사가 모든 상황들을 마치 비디오로 녹화하듯이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배가 끝나면 천사들이 기록한 것들을 모두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볼 수 있냐고 합니다. 별걱정을 다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하루는 인간의 나라 천 년입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으니 지구상 68억 명의 상황을 한꺼번에 다 보고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순간 처리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계시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과 새벽말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만물로 계시하시고, 자기가 겪을 때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계시 받는 자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부흥강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깨닫도록 감동시켜 계시하십니다.

이 많은 계시를 다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찬양으로 계시하여 작곡 작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찬양을 통해 뜨겁게 계시가 옵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때 주님과 대화하면 마음에 응답이 옵니다.

이제 잘 깨닫고 풀렸습니까? 섭리사에 계시를 받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다 간증을 못 합니다. 주님은 많은 자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섭리사의 10여 명은 많은 계시들을 받고 주님이 선생에게 보고하라고 하시어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 때문에 다 간증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확인받은 것을 그들이 직접 전할 것입니다. 어떤 자는 계시를 잘못 받기도 하니 분별해 줄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들을 보면, 계시를 받기까지 여러 고통을 받으며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통들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보면 시대에 따라 받는 고통도 달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들은 계시를 받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인지, 마귀가 계시하는 것인지, 귀신이 계시하는 것인지,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인지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들어보면 보편적으로 알게 됩니다. 가다보면 알게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사탄의 계시인지, 주님의 계시인지 알게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끝까지 가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가보면 참 계시인지, 거짓 계시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시를 잘못 받고 잘못 알고 행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계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잠깐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계시 받는 자들을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그 나름대로 연단시키셨습니다. 계시 받은 자들은 계시를 받기까지 고통과 괴로움과 갖은 역경을 겪어 사연이 많고 많습니다. 그 고통을 들어 보면 ‘아! 이래서 주님은 저 사람에게 그 같은 계시를 주셨구나.’ 하게 됩니다.

선생도 주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평소보다 육신의 고통이 더합니다. 얼마나 더 조건을 세우고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나 괴롭히고 방해하기 때문에 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받은 계시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일 단상에서 나가는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단상에서 외치는 부흥강사들과 계시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부흥강사와 계시 받는 자는 그에 맞는 사명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키우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명을 주고 외치게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 곡절을 겪었습니다. 부흥강사나 계시 받는 자들뿐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시 받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전부터 주님이 자신을 향해 그같이 섭리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계시 받는 자만 알게 됩니다. 다른 자들은 격지 않아서 모릅니다. 부흥강사도 그러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계시를 전하면 듣는 자들이 모두 ‘주님!’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고통이 있고 혼돈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계시하셨어도 현실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고로 ‘이 계시가 맞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좋게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헛 계시, 헛 응답을 받았나?’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계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영광의 주로 오셨으나 세상이

악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십자가를 진 것같이, 잘된다고 응답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힘들어 책임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시를 잘못 받아서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자는 계시를 잘못 받아서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활 속에, 꿈속에서 작고 큰 계시를 받으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계시 받는 자들은 특히 잘 듣기 바랍니다.

1. 계시 받는 자들의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뜻이 있으면 외모를 안 보고, 뜻을 보고 계시하십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성직자나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면 그때그때 계시해 주십니다.

실상을 알아보면 ‘이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은 계시를 받게 된 동기를 먼저 말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의식하거나 의심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주님은 왜 저런 사람을 쓰실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여건을 보시고, 사연을 보시고 쓰십니다. 주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갑자기 좋다고 끌어안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길러 오다가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어 전하게 하십니다.

계시를 받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도 계시를 줍니다. 잘못하면 사탄이 계시하기도 합니다. 사탄도 주님이 계시하시듯이 조심하면서 계시합니다.

사탄이 주는 계시인 것을 모르고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이 그 마음에 아주 들어가서 계시하기도 합니다. 영안이 뜨여서 마음대로 사탄을 보게 되면 사탄과 귀신이 자기 마음과 몸 안에 들어온 것을 알지만 안 보이니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계시하는 것을 들어 보고, 내용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사탄과 귀신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100% 옳은 말을 못합니다. 흔히 사탄과 귀신은 형제를 지적합니다. 주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없으니 주님의 이름을 대며 죄를 지적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쪼개고 갈라놓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끌어내어 말하니 ‘현실도 그러하니 주님의 계시가 맞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원본인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성경대로 계시하면 맞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자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결국 압니다. 모순이 있는 계시를 보면, 평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인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은 사탄과 귀신들로 받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주님이 주시지만, 조건이 생기고 틈이 있으면 사탄과 귀신도 줍니다. 또 자기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하여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 계시를 받고 자기 마음에서 깨닫고 말한 것인지, 자기 영이 말한 것인지, 사탄이 계시한 것인지, 정말 주님이 계시하신 것인지 확신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꼭 물어봐 달라고 편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일이 답장해 주지 못하여 말씀으로 합니다.

선생은 그 내용들을 다 읽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시 받은 자들이 그 내용과 같은 것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느냐?”** 물으십니다. 계시를 받은 후 자기가 평소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말한 것인지, 정말 주님의 계시인지 모르겠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평소 생각보다 더 깊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역시 주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계시는 수준이 높고 내용이 깊고 표현도 오묘합니다.

계시를 받을 때는 주님의 계시와 사탄의 계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를 많이 하여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이 침을 뱉다 보면 가래침도 섞여 나오니 구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시가 자기의 생각과 섞여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2. 그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 계시한 것과 저기서 저 사람에게 계시한 것이 맞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자기 생각이 앞서 말한 것이든지, 아니면 혹여 사탄 마귀가 틈타 준 계시이든지, 한 쪽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주님께 여쭙어 계시를 잘 해석하고 대변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만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잘못된 것만 잘못된 것이지, 누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섭리세계의 은혜 기간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는 이때 사탄과 귀신이 틈을 타니 선생은 특히

자세히 봅니다. 계시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하여 분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금인지, 아는지 확인하면 압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참 계시인지, 천사의 계시인지, 선영들의 계시인지, 자기 영이 자기 육에게 계시한 것인지 확인하면 압니다.

사탄이 무섭다고 그것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절제시키며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각종 은사를 퍼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계시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시인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 계시 받은 자들은 계시를 받고 편지로 자세히 써서 꼭꼭 보내 주세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면 은혜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니 부지런히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일이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각자 분별할 것은 분별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도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혼란케 하는 것도 있어 이런 계시는 꼭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교역자들이 꼭 파악해 줘야 됩니다.

어떤 자는 자기는 주님께 계시를 받으니 터치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계시를 받으면 모두 듣고 은혜 받아서 즐기는 한데, 혹시 사탄에게 잘못된 계시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서 여러모로 확인하여 모순이 없어야 모두 같이 듣고 같이 주님의 뜻을 펴 나가게 됩니다. 잘못 받은 계시를 믿고 따르면 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고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계시를 받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말아야 할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계시는 자기 하나만을 위해 주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확인받고 속히 전하여 모든 자들로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사람끼리 서로 말을 전해 받는 것도 인간 속의 하나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말도 잘 받아야 사고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의 계시를 잘못 받으면 사고가 잘못됩니다. 옳은 말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선생의 이름으로 말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절대 선생의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 선생에게서 개인적으로 편지로 전해 받은 계시가 있고, 또 전체에게 전해주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혼자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니 전체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계시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계시 받는 자들을 보면 본인의 깨달음이나 느낌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혹은 꿈으로 받든지, 혹은 새벽에 기도할 때 예전의 생각과 평소 때와는 달리 강력하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같이 계시를 받으니 받는 자는 ‘정말 주님의 계시인가? 평소 에 상식으로 아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인가?’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주님의 계시인지, 아는지 더욱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라고 하겠어요? 화평 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간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니 재림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든가, 분란하게 한다든가,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든가, 말로 명령을 한다든가, 무력으로 하는 것은 모두 검토해야 됩니다. 계시로 자기 성격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편안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모순 없이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계시를 들으니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됩니다. 고로 주님은 계시를 통제하십니다.

계시도 자기중심이 되면 잘못 받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의 말을 전하여도 계시 받는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더 잘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계시 받는 자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자입니다. 계시 받는 자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흥강사가 아무리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어도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들의 육체에 쏟아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됩니다.

계시를 받고 선생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방 안에서 따로 모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주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사탄도 주님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권위 있게 계시를 줍니다. 천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그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는지 보여 달라고 해 봐요. 사탄이라면 안 보여 주면서 “별것을 다 묻네.” 하며 꺾꺾거리며 가 버릴 것입니다.

병아리처럼 닭다리인가, 여우다리인가 보여 달라고 하면 알게 됩니다. 닭다리와 여우다리는 완전히 달라서 보면 확 표가 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자국을 보여 달라고 하면 사탄은 “감히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왜 곤란하게 보여 달라고 하느냐.” 하며 더는 상대하지 못하니 주님인 척하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손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왼손에 大(큰 대)자가 있으니 확인하면 못 속일 것입니다. 지문은 못 속이듯이 못 속입니다. 코를 보여 달라고 하면 코가 큰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얼굴을 보여 달라고 하면 금방 알지요.

사탄은 거의 99% 변장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결국 자기들의 나라 사탄국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맞는 길로 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 다른 길로 갑니다. 고로 알게 됩니다.

게시 받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절대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선생에게 주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어긋나면 주님의 계시가 아니므로 즉시 전체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시를 잘 받다가도 인성으로 흘러가면 제대로 계시를 못 받게 되고 사탄 귀신들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고로 교역자들과 책임자들은 계시 받은 자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에게 보고하여 한번 인정해 주었다고 다음에 계속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계시를 받으면 교단에도 보내고, 부흥강사에게도 보내고, 선생에게도 보내어 허락해야 집회를 하는 것도 이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3.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는 데만 즐겨 마음을 쏟지 말고 그들이 온전한 계시를 받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고, 사탄과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꼭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부흥강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은혜를 쏟아주시도록 부흥강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력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4. 선생은 어떤 지정된 자에게 지시하기도 하고 사명을 주지만, 한 사람에게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성대로 지시하고 사명도 줍니다. 책임자가 의심스럽게 행하면 선생이 그같이 허락했는지 내게 확인하면 됩니다.

주님도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성대로 각 지체마다 그 사명에 따라서 계시를 줘야 하기에 여러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이것은 계시했는데 저것은 안 했다.”고 하십니다. 알고 보면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자기 영이 스스로 계시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인데 계시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이 지시하고 사명을 주었어도 그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든지 빼고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교정할 것은 교정했는데도 안 되면 중지하게 합니다.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선생님과 안 통하니까...’ 하지 말고요. 형제들이 선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며 어떤 일을 해도 꼭 내게 물어보고 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늘 뜻대로 하는 일이니 꼭 그같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선생의 이름을 너무 많이 팔면서 행한 자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수습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뜻이다. 뭘 물어보냐?’고 하면서 돈을 걸기도 하고 투자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끄러워서 선생의 이름을 안 써먹고, 선생과 섭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와 별짓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절대 속지 말고 섭리를 위해, 선생을 위해 꼭 물어봐요.

지난날 선생을 위해 한다고 하며 돈을 걷어놓고 선생을 위해 하지 않고 그 돈이 달리 쓰인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자기를 위해 한 자들이 많아요. 다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받은 것이 없어 확인해 보니 돈이 다른 곳으로 쓰인 일이 많았습니다.

내게 물으면 내가 본인이니 다 말해 주고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만일 선생을 위해 하지 않았으면 그에게서 돈 이고 물건이고 다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직접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선생의 특별 계시입니다.

5.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외치게 하려고, 보낸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밀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계시 받은 것이나 어떤 문제를 두고 보고했는데 답이 안 온다고 해서 ‘별것 아니라서 답장이 안 오나? 다른 사람이 보고해서 처리되었나?’ 하지 말고 답이 올 때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일주일, 혹은 한 달씩 간구해야 됩니다. 한 번 편지하고 답을 받기 원하는 자는 알뜰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정신과 인내와 상식으로 천국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300통의 편지를 했는데도 선생의 답장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를 선생의 일을 도우면서 몇 달 동안 같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남자입니다.

오늘 계시에 대한 말씀을 다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또 해 주겠습니다.

선생도 50년 동안 주님의 계시를 받아 왔지만 다 모릅니다. 영계는 너무 방대하고 엄청난 곳이라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상상할 수 없이 넓고 다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볼까요?

주님이 계시하시면 사탄이 계시하지 못하도록 신경 쓰고 지켜보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하셔도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에 대한 지식이 없고, 처음이라 잘 안 믿고 의심하며 ‘이것이 내 생각인가? 내 영이 하는 말인가? 천사의 계시인가?’ 하게 됩니다. 고로 주님은 **“기도를 깊이 해야 더욱 영계에 들어가 나의 계시를 알게 된다. 두려워 말고 기도를 깊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면 안나 수녀를 지켜 주셨듯이, 주님은 말씀으로 늘 지켜 주시고 천사를 통해 지켜 주십니다. 선생도 지켜 살피고 분석해 줍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누구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자가 계시 받은 것을 보면 자기 영의 말도 섞여 있고, 주님의 계시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은밀히 깨닫도록 그 마음속에 계시해 주십니다. 지난날 그동안 늘 가르쳐 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섭리역사 지난 30년 동안 주님은 선생을 통해 귀가 넓어지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모두 깊이 깨닫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고 컸던 것입니다.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클라이맥스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요.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것만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했다. 남자가 사랑한다고 돈을 주면 여자는 자기 좋아하는 곳에 쓰고 여행을 다녔다.

또 남자가 속이 타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전혀 딴생각하며 들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남자라면서 싫어. 사랑? 남자와 여자가 왜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면 하나가 낫지.” 하면서 전혀 딴생각만 했다.

<주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짝사랑이 아니냐. 내가 이같이 해 왔다. 사랑하여 옷을 사 주었더니 그 옷을 입고 나타나지도 않고, 알고 보니 친구들한테 옷 자랑이나 하러 다니니 남자는 얼마나 심정이 타겠느냐.”

<비유> 할 수 없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데려와 자기 심정을 말해 주고 저 여자에게 말 좀 해 주라고 했다. 그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듣고 그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서 심정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 여자는 조금씩 알아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말씀> “남자가 얼마나 좋겠느냐. 나도 너희에게 그리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 보낸 자를 통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남자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섭리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목적하고 오셔서 가까이 대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오직 재림을 목적하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해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며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목적과 심정을 모릅니다. 정말 알고 주님을 애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가뭄 때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사랑 때문에 그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 때 사랑이 아니면 그같이 쏟아 부어 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오직 재림 때문에 이 은혜의 불경기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로 정말 귀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받아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정신이 살아서 용기 내어 다른 것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죽을 자를 살려 주니 재갈 길만 가는 격입니다. 그러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함정에 빠지면 쳐다보지도 않도록 생각이 돌아갑니다. 너무나 야속한 자들이 섭리에 많습니다. 죽을 자를 살려 주었는데 세상을 향하고 육적인 일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비유로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심정을 모르니 다른 여자를 데려다 자기 심정을 대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계시자들을 통해 심정을 말씀하시며, 외치는 자들을 통해 그 생각과 심정을 뜨겁게 외치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케 하여 맞으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따라 하게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놀랄 만한 환난과 재난이 지구상에 닥치기 전에 주님은 재림 준비를 완전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 준비를 완전히 하여 환난을 피하고 주님을 맞고 같이 떠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정이 타서 계시하는 자들로 계시하시고, 외치는 자들로 외치시니 정말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맞고 일체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할 때 주님을 못 맞으면 주님이 진짜로 재림하실 때 못 맞습니다. 예비할 때 거의 결정 나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나를 맞는 자가 재림 때도 나를 맞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동안 준비한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계시도 하시고 외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에게는 긴장하면서 전체를 예민하게 살피도록 주님의 뜻대로 이같이 하 게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불을 받고도 그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 주신 줄 알고 사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대하면서 주님과 일체되어 살라고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지 못하고 아깝게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계속 더 역사하십니다.

연애 기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결혼 준비하고 신혼살림 마련하라고 함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남자가 사랑을 목적하고 잘해 주니 절대 남자의 마음을 깨닫고 그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대해 주면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주님도 재림을 목적하고 대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좇아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면 주님은 이때 필요한 은혜를 더 주십니다.

다른 말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잘 들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 주는 것은 오직 사랑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니 조심하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 타락하면 생이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암송하고 다녀야 됩니다.

새를 잡을 때 새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 잡습니다. 새가 좋아하는 것을 줘도 안 먹고 속지 않으면 그물을 치고, 또 약을 모이에 섞어서 뿌립니다. 너무 무섭게 잡습니다. 약 먹고 안 죽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섭리의 여자들은 그냥은 안 속으니 ‘섭리사를 위해 큰 헌금을 하겠다. 교회를 지어 주겠다.’고 하여 속입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주님의 뜻인가?’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몸만 뺏깁니다. 그러고는 무서워 말도 못하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느 때는 공갈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네 선생에게 문제 생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섭리인들이 다 일어나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누가 교회를 지어 준다고 말해 놓고 지어 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떼땀이 주님 앞에 헌금하라고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선생의 법적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고 하니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따라갑니다. 선생을 사랑하는 자이고 선생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로서 그같이 한 것입니다. 결국 남자는 몸을 요구하였고 그 말대로 몸을 준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며 이용하는 사탄에게 속은 자는 미련한 자요, 속인 자는 선생을 이용하여 하늘의 사람들을 취했으니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나중에 그 수법을 알고 뒤로 빼면 남자는 소문을 낸다고 하면서 협박하니, 하는 수 없이 두려워서 부인이 있는 자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을 이용하여 그 같은 일을 저질렀고, 선생이 더 고통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그 여자를 하늘의 사람으로 길렀는데 그같이 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다. 선생의 뜻이다.’ 하면서 이성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많으니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다 뿌리를 뽑아야 선생이 고통을 덜 받고 나온다고 하였기에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완벽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선생을 위한다고 하며 취지는 좋게 시작하였지만 돈을 걷은 후에는 나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쓴 자들이 있으니 이것도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모두 다 편지로 보고해요. 선생이 여기 있다고 너무 나를 이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선생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같이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선생은 파악하는 대로 해결할 것이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광고할 테니 전체가 해결하도록 사역자를 명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빚지고 너무 고생하는 자들의 편지를 받고 잠이 안 왔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돈을 썼단 말입니

까?’ 주님께 흐느끼며 물어보니 주님은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선생을 위한다고 하며 선생을 이용하여 돈을 걷었고, 일부는 필요 없는데도 나를 위해 썼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쓰기도 했고, 사업을 위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이 말을 안 하면 선생 때문에 돈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정성을 모아해준 것인데 공적으로 쓰이지 않은 돈은 걷은 자가 다 갚아주고 돌려주라고 할 것입니다.

선생을 위해, 섭리를 위해 사업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을 걷었다가 날리고, 선생이 허락도 안 했는데 허락했다고 하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에 설득 당하여 동참한 자들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고, 법적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모두 욕적으로 했고 지극히 인간의 방법으로 하였기에 그같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못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어떤 자는 집을 몇 채씩 날리는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지 않고 욕에 끌려 선생만 사랑해서 그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보고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돈을 가지고 사업하고 투자한 교역자는 일단 교역자 자격 상실로 주님은 파악하여 단상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현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현금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다니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써야지요.

예수님은 현금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선생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현금은 마치 쌀과 같아서 밭에 뿌리면 썩게 된다. 그리니 현금을 가지고 이익 보겠다고 투자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투자한 자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도 말고 본전은 채워 놔야 됩니다.

겉핥하면 교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남으면 선생의 법적 문제를 위해 뭉갸고 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은 말을 못 합니다. ‘정말 그렇게 쓰이는구나.’ 하며 궁금해 하기만 합니다. 선생은 그 돈이 정말 나를 위해 쓰였는지 주인이라 다 압니다.

주님은 하늘 공금에 이상 있게 한 자들을 보시고 꼭 갚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것은 안 갚는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너와 내가 조사하여 사람들과 같이 채우도록 모두 알게 하자.” 하셨습니다.

재림을 놓고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선생이 여기 있으니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을 안 하다가 주님이 감동시키니 모두 선생에게 편지로 보고합니다. 숨은 것은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는 그럭저럭이 없습니다. 모래만한 것까지 호리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섭리사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됩니다.

섭리사의 현금은 선생을 위해 써도 절대 안 됩니다. 선생의 이름을 대고 가져다 쓸까봐 도적 같은 자들을 막기 위해 철저히 장로들로 재정팀을 세워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니 모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개인이 걷어 간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강하게 외칩니다. 부흥강사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교회는 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은혜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부흥강사처럼 뜨겁게 외쳐 주었으면 좋겠다는 편지들도 옵니다.

말씀을 외칠 때는 말씀 내용에 따라 목소리 톤을 높여 외쳐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목회 기술입니다. 그때에 맞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조용한 자, 뜨거운 자, 과감한 자, 뜻뜻미지근한 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고로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집회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부흥강사가 더 차원 높게 외친다고 편지들이 옵니다.

교역자들은 듣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 봐야 됩니다. 들으면서 외쳐야 됩니다. 또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과 절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하는 데 힘이 안 듭니다. 선생은 강대상에 설 때 듣는 자들에게 모순을 적어서 끝나면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참고하여 고칩니다.

요즘 교역자들은 교만해서인지, 무지해서인지 말을 해 줘도 안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지적인 것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시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니 모두 겸손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는 힘 있게, 열 있게, 뜨겁게 해 줘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부흥된 교회들을 보면 전체 지도자들이 뜨겁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조은 부흥강사도 선생이 집회할 때의 설교를 듣고 ‘설교는 저같이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답답한 심정이 풀

린다.’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니 교역자 모임 때 첫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자기에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자도 길이 좋을 때 속력을 내어 밟아야 차를 탄자도 좋고 시간도 아깁니다. 주님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집회하며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외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세계로 불붙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캐나다, 미국에도 주님은 사람을 세워 계시해 주시고 외치게 하시어, 성령 집회를 통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은 주님의 계시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설교는 노래와 같습니다. 맛있게 조용하기만한 곳은 뜨지 못했습니다. 날지 못했습니다. 맛있게 조용하게만 설교한 자들의 교회는 전도가 안 되었고, 전도해 온 자들도 수료는 했으나 결국 나갔습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 있게 외치니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고음을 내서 외치면 듣는 자가 부담스럽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도 계시를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맞추어 그 심정을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세밀하게, 혹은 긴박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지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전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을 위해 헌금한다고 하는 자들이 선생을 만나서 직접 주겠다고 하며 가지고 있다가 결국 다 쓰게 됩니다. 교단에 갖다 줘요. 이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에게 줘도 그 돈은 다 주님께 드려서 공적인 일에 써야 됩니다. 월명동에 숙소를 짓든지, 화장실을 짓든지, 개척 교회 선교비로 주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몸을 위해 약도 먹고, 추우면 옷도 사 입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 주면서 간식도 사 먹고, 또 나가서 쓸 것입니다. 편지를 먼저 해 주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님이 통괄하십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써야 됩니다. 사적으로 개인이 원해서 법정 일로 준 것이 있으면 쓰고 남은 것은 본인에게 돌려주게 하든지, 본인과 의논하여 헌금으로 돌릴 것입니다.

오늘 이같이 말씀하는 것도 주님이 그같이 하라고 하여 하는 일이니 전체가 그리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재림을 위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받고 다른 데 쓰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산다고 짝사랑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꼭 물어보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묻는 것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생의 이름을 팔고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름을 밝히면서 광고할 것입니다. 정확한 보고를 꼭꼭 하기 바랍니다. 글로 할 때 안 들으면 말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몸소 겪게 한다고 했습니다. 겪고, 실컷 고통 받고, 실컷 후회하고, 실컷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컷 하늘을 위해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7월 8일 수요일말씀>

말씀의 불 받고 주님 심정 알고 대하라

본 문 누가복음 12장 49-50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께서 지금도 외치시는 말씀을 보면, 듣는 자들이 말씀

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같이 속 시원하게 심정 맞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여 심정 태우며 간절히 말하는데, 듣는 자가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겠습니까?

보통 인간의 생각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더욱 애절하게 표현할 때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너무 몰라주어서 애절하게 말할 때 ‘내 심정 모른다.’고 더욱 강렬하게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 심정 모른다.’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심정을 몰라줄 때는 자꾸 말을 하면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을 해도 몰라주면 심정이 탑니다. 또 말을 해도 듣는 자의 심정을 모르고 말하면 듣는 자가 안 받아들입니다.

선생부터도 누가 내 심정의 근본도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한다면, 선생이 어떤 이유로 여기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오히려 선생의 심정을 건드립니다. 정말 심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격과 같아서 말해도 안 들립니다.

선생을 좋아하면 선생을 따라 말도 하고, 선생을 중시하여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직접 일을 겪기 때문에 선생은 주님과 의논하여서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구경꾼은 보아도 모릅니다. 더구나 선생이 말하기 전에는 더욱 모릅니다.

주님의 심정도 사람마다 자기 심정을 통해 더욱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심정이 타서 우리들을 위해 복음으로 외치시는데, 듣는 자가 즉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같이 화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같이 너희들 가슴에 말씀의 불이 붙기까지 내 심정이 오죽이나 답답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이나 꿈이나 기도 가운데 그 심정을 급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급히 말씀하시는데도 듣는 자가 불같이 화끈하게 뜨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모순이 있기 때문이니 꼭 고쳐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말씀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자만 손해입니다.

주님께서 그 병들을 지적해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치료됩니다.

첫째,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육적으로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이다.”

- 고로 ‘살아나라. 깨어나라. 근신하라. 믿음을 가지고 믿고 행하여라.’ 한 것입니다.

둘째, “무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 고로 ‘배워라. 불러라. 연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 들어 보아라.’ 한 것입니다.

셋째, “어린아이처럼 평소에 나와 가까이 지냈으면 내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척척 순종했겠건만, 말로만 가까이 지낸다고 하였지 실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 고로 ‘평소 신앙’을 외쳤던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생각나면 그제야 나를 찾고, 아쉬우면 찾고, 고통당하면 찾는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자들이다.”

- 고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한 삶을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밝고 깨끗하게 하지 않음으로 육적인 자가 되었기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귀히 보지 않는 것이다. 즉시 듣고 확실히 믿고 실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자는 나와 멀리 있는 자이며, 내 말을 전해 듣고도 감각이 예리하지 못하여 금방 세상 생각에 묶여 버린다. 고로 뜨겁게 확실하게 믿고 행하지 못한다.”

- 고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는 얻지 못한다. 고로 믿음과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의 병이 많지만 다른 말씀이 있기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정을 태우며 급히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믿고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3~4년 있다가 그제야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합니다.

선생이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말한 것인데 이제야 믿고, 더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 때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이 더합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 육적 손해입니다. 실천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즉시 실천합니다. 자기 지체는 자기 마음이 명령하면 즉시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주님과 일체 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믿고 뜨겁게 감동을 받아 실천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일체 되듯이 주님과 일체된 자는 즉시 믿고 행하게 됩니다. 선생과도 일체된 자는 말씀하면 듣고 즉시 실천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섭리사에서도 그들이 선두에 서서 달리며 상을 얻기 위해 선생과 같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말만 합니다. 이러니저러니, 누가 어떠하니, 결국 선생이 어떠하니 하며 입만 살아서 바람에 휘날리는 열매 없는 에덴의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즉시 믿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재는 내 심정으로구나.”** 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들도 그것이 주님의 계시인지 확실히 모르니 의심하게 되어 주님의 심정을 타게 합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혹시 사탄의 계시를 잘못 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고로 주님은 선생에게 확인을 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는 받되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어져도 전체에게 말하든지 어떤 개인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선생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두 명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섭리사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계시를 받는 자들은 꼭 자세히 써서 선생에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계시를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확인한 후에 내보낼 것입니다. 단상에서 간증하는 자들은 꼭 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들도 간증하려면 꼭 확인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확인받은 것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게 계시받은 내용을 써 보낼 때는 자기가 좋은 것만 몇 가지 적어 보내서 허락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내야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들도 주님과 비슷하게 계시를 주기 때문에 정말 분별하기 힘듭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영이 계시해 주는 것도 있고, 천사가 계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계시만큼은 하나하나 명확히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이 확인하고 간증하게 하면 혼돈되지 않고 모두 같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같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계시받는 자는 계시를 받는 것도 사명이지만, 주님의 계시이니 지혜롭게 잘 전해 줘야 됩니다. 일반 설교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해 주기에 듣는 자도 평소에 듣던 말씀이라 별 의심 없이 듣고 믿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생소한 것이 많고, 특히 예언적 계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기에 듣는 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계시도 처음에는 잘 받다가 차원이 높아지니 혼돈하면서 받기에 듣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사탄이 끼어들어 계시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옳은 계시까지도 의심받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 교정해 보면 틀린 문구와 글씨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안속이고 계시해 줍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속이기 시작합니다. 고로 매번 확인해야 됩

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속이면서 별별스럽게 계시합니다. 선생이 주님께 확인하여 앞뒤 다 재보고 달아보고 분석하면 주님의 계시인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인지, 사탄의 계시인지 분별이 됩니다.

모기는 작아도 몹니다. 그러나 깔따구나 날파리는 커도 못 몹니다. 사탄은 염소와 같아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계시자들도 선생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금방 압니다. 현재까지 계시자 본인들의 보고를 한 달 이상 받아 보았습니다. 몇 명은 사탄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자는 개인에게 편지를 해 줄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영이나 마음으로 받아도 맞는 것이 많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주신 것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계시의 내용이 말씀과 대조해 볼 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주님의 계시인지, 주님이 허락하신 계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탄들도 거의 다 맞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계시가 맞다고 그 계시를 표준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계시를 받아도 이미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받으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자들이나, 주님 아닌 다른 영에 속하여 계시를 받는 자들도 상당 부분 맞게 계시합니다. 많이 맞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6수라 항상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있습니다. 선생은 50년 동안 주님께나, 혹은 다른 영들로부터 계시를 받아 오면서 계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선생에게 계시에 대해 이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보면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다.’라며 못 박아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며 계시를 주었어도 주님은 다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지난 30년 동안 선생을 통해 2만 번 이상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도 20년 동안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을 보고 비교하고 재보면서, 요즘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선생이 중국에서 잠언으로 받은 주님의 말씀과도 대조해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외친 말씀과 비교해 보고, 성경말씀과 겹쳐서 보며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받은 내용을 보내 와서 보았더니,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다.’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몇 가지 계시를 지적하시며 사탄이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보아도 주님의 계시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에 대한 것과 집회하는 자들을 두고 말한 것을 보고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 신앙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개인을 위로하시거나 깨우쳐 주는 것들입니다.

계시를 받으면 그동안 말씀한 것을 비춰 봐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귀신들은 자꾸 계시를 합니다.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들었는데도 스스로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거나 말씀의 근본을 흐리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봐 주는 것이나, 환상을 본 것이나, 주님의 계시를 전해 주는 것 모두 하나하나 보고하고 확인받은 후에 하기 바랍니다. 허락 없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에게는 동쪽의 해를 물어보아 그때는 동쪽에 해가 있었기에 동쪽의 해가 맞다고 대답했는데, 해가 서쪽으로 갔는데도 계속 동쪽 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과 장사만 하라고 허락했는데 여러 가지 과일을 다 팔면서 선생이 과일 장사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계시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섭리 안에서 작은 것을 허락받아 놓고서 큰 것같이 말하여 이것저것 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일이 모두 보고해 주고 선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섭리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한 번 말하면 ‘주님의 뜻인가?’ 하고 믿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특별계시>

행악자들이 그동안 악한 자들을 유혹하여 많은 자들이 사망으로 갔습니다. 영적인 것도 지난날 문제가 많았기에 세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 주면 모기까지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옵니다.

주님은 “나의 계시를 받으라고 허락했더니 틈을 타서 사탄들도 계시를 주니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마치 밤에 불빛을 보고 날아와 파고들어 오는 모기나 깔따구나 해충같이 의의 빛의 세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마귀, 귀신, 행악자들은 마치 밤의 모기와 같다.”고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기는 틈만 있으면 몰려옵니다. 할 수 없이 모기약을 뿌립니다. 모기약을 뿌려도 사람은 안 죽으니 마구 뿌립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양 떼를 보고 은밀히 숨어 있다가 순간 달려드는 이리와 야수들과 같습니다. 이리와 야수들은 양 떼가 있으면 저 숲 속에 숨어서 엿봅니다. 악한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도 꼭 뒤에 숨어서 엿봅니다.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공격하여 들어옵니다.

모두 하나하나 긴장하여 자기를 살피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목자들이나 인도자들은 양만 신경 쓰지 말고, 사탄 귀신과 도적질하는 자들과 행악자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지 않은지 하늘의 사명자들이 되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철저히 신경 써야 됩니다. 주님의 특별계시입니다.

섭리사는 선생의 이름을 말하면 잘 믿기에 선생의 이름을 이용하여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속지 않으려면 꼭꼭 내게 확인한 후에 행해야 됩니다. 선생이 허락했어도 행하면서 또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섭리인들은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 확인도 않고 그냥 합니다. 선생의 이름을 대고 말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확인하려고 하면 뭘 의심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마 7:15).”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선생의 이름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으니 다 다스리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달하면, 교역자들을 칭찬한 말은 크게 외쳐 주고, 교역자들을 책망한 말은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주님은 이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런 자들을 단상에 세우겠느냐. 내 말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요한 계시록 22장 18-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리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상에 서는 것이 합당치 않으니 단상에 서는 것을 제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이 나가면 무슨 말씀을 빼고 전할는지 모르니 걱정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 교인을 대표한 자에게 설교가 나가기 며칠 전에 설교 원본 한 부를 꼭 주라고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미 2008년부터 지시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인들에게서 이미 편지가 왔으니 주님께 회개해요. 자기 모순을 가리고 단상에 서지 말고, 다 회개하고 떳떳하게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선생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보이니 더 잘해야 됩니다. 선생이 못 보니 10배나 더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주님께 묻고, 교인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설교자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는 자기 스스로의 무지입니다. 이미 결재가 나갔으니 해당되는 교역자는 준비했다가 다시 해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더구나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빼고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걸만 보아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니 정말 못미더워서 말씀을 못 주겠습니다.

교역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교역자들은 더 잘해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으니 귀히 여기고 행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에 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을 확인받으면 믿고 행해야 됩니다. 계시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계시받는 자들이 있는데 각각 개성적이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린다에게 계시한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섭리사 캐나다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이 주님께 확인하였으니 여러분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궁금하지요?

린다의 예언을 듣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로 주님은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고 다시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환난과 재난이 일어난다는 린다의 예언을 듣고 모두 당황하고 요동하니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캐나다 섭리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 선생을 통해 또 계시하여 말씀으로 나갔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을 통해 중국에 있는 자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몰라서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국 교단으로 전화가 온답니다. 주님이 이에 대하여 계시하셨으니, 캐나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수요일 말씀 후에 해 주겠습니다. 한국에서 외쳐야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전해 줄 테니 잘 들어요. 앞으로도 섭리 안에서 받은 계시들 중에서 완전하게 확인된 것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하나씩 전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캐나다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까? 들어 보니 주님의 계시인 것을 알겠지요? 선생은 캐나다에도 꼭 계시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해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고, 잘 해석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요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광 고>

선생에게 편지로 보고할 때는 확실하게, 세밀하게, 간단하게, 형제들 억울하지 않게 보고해야 됩니다. 선생은 보고만 듣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또 편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에 내용을 제대로 안 써서 궁금하게 만드는데 자세히 좀 써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요. 전체가 해야지, 일부 불 받은 사람만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전체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전도특공대들은 열심히 해서 전체가 불붙도록 해 줘요. 진주교회는 교인이 50명인데 신입생을 50명 전도해서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또 교역자들이 비어 있는 교회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가면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교회에 안 나타나는 교역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못 하면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으니 교단에 휴직계를 내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서 새벽예배를 드린 후에 휴일같이 쉬면 안 됩니다. 각 교회는 다 보고해요. 힘든 교역자는 바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교인들은 노방에 나가서 외치는데 교회의 대장인 교역자가 나가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못 하니 교역자가 꼭 나가 봐야 됩니다. 선생 같으면 나가서 힘나게 외치지요. 교역자들은 시범을 보여 주면서 이같이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할 때나 개인이 전도할 때 주님은 여러 수백만 군데서 쳐다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을 주었는데도 그 시간마저 제대로 안 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못 하면 내일 해야지.’ 하지 말아요. 오늘 못 하면 끝납니다. 어제 할 일을 오늘 하려면 오늘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 날 일은 그 날 꼭 해야 됩니다.

모두 각 나라 화목하게 지내요. 과거 잘못된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회개한 자는 충성으로 열심히 해요. 안녕~

<2009년 7월 12일 주일말씀>

계산하고 살며, 이렇게 살아라

본 문 창세기 ~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면 그쪽 방향은 잘 아는데 다른 것은 모릅니다. 고로 오늘은 짧게 잘라서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을 잘 기록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기록을 잘합니다. 일반 기성 교회말씀은 들어도 기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자주 기록하면 글씨도 잘 쓰게 되어 명필가가 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속기도 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차원이 높아 배우고 깨달으면 지혜가와 지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이니 기록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수님을 부드럽게 칭할 때 흔히 ‘주님’이라고 합

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잘 불렀습니다(요 21:15, 요 13:25, 눅 6:46).

먼저 ‘전도와 관리’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요즘 전도자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전도하면 말도 잘하게 됩니다. 말을 더듬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우물증으로 신음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하는 자들이나, 부끄러움을 타는 자들은 특히 노방에 나가서 외치고 개인 전도를 하면 그 병들과 버릇들이 치료되고 낫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의식하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선생도 노방전도 하면서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가 숙여져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았는데 그 성격과 버릇들이 다 고쳐졌습니다.

자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도 해 보고, 노래도 불러 보고, 안되면 웅변도 배워서 자꾸 말을 해야 자기 성격이 고쳐지고 마음의 위축감이 다 고쳐집니다. 전도해서 공적을 세워 영원한 의를 쌓고, 돈 안들이고 자기의 고민과 병도 고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전도와 관리’는 한 쌍입니다. 커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하늘나라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해 놓고 세밀히 다스리십니다. 창조해 놓고 다스리지 않으셨으면 우주나 지상에 있는 것들은 자연의 변동과 여러 가지의 변동으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더 대단하고 위대한 것은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그때그때 다스리는 자는 훌륭한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는 자가 잘 다스려 주지 못함으로 이성으로 타락되고 물질에 빠져 각종 손해를 당하고, 성공할 자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영에 속하여 계시를 받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의해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은혜를 받으며 각각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자기 교인들을 행정으로 꼭꼭 기록하고 순리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계시하는 자들에게도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하십니다. 재림을 앞에 놓고, 혹은 세상 심판을 앞에 놓고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피해야 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단상에서 외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각종 사역을 맡은 사람들과 시대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보낸 사명자들에게 숨넘어가는 소리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긴급히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도 가까워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쭙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시간만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나?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외국에 나가야 하나?’ 생각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금을 깨야 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두 할 일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 안 간다고 재림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신앙이 살고 영이 살아야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 ‘1년 남았나? 2년 남았나? 3년 남았나? 아주 짧은 기간이 남았나?’ 생각합니다. 흔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몇 년 안 남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섭리에서 한 오피스텔에 모여 전문인 모임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내용을 보내 왔기에 보니, 주님이 오실 날이 8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자가 그동안 계시받은 내용을 다 보내 와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조은 강사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 주님께 여쭙어 보니 사탄의 계시라고 말씀해 주시어 모두 통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계시 중에는 맞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설교로 내보낸 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맞는 것입니다.

또 내용을 보니 ‘누구와 결혼하여라. 선생과 결혼하여라. 너를 통해 선생을 나오게 하겠다.’는 등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8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영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한가 계산을 해 봐도 아니었습니다. 계시 감별사인 선생은 주님께 모든 내용을 사심 없이 다 보고하고 의논하여 공의롭게 봅니다. 병아리 감별사는 뒤져 보면 병아리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주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시며 해 주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재림과 환난의 날을 앞에 놓고 시간을 따져 보고 한 말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따져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시계를 보니 아직도 예배 시간이 두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주님은 예배 시간을 놓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도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교회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보시고 시간을 따져 계산하신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다 올 시간 40분, 화장실 갈 시간 10분,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올 시간 20분, 밥 먹는 시간 20분, 미용실 들러야 할 시간 20분, 차를 타고 교회에 갈 시간 30분을 합하면 모두 140분입니다. 예배 시간은 두 시간 남았으니 그 시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따져 보시고 시간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따질 것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시간상 예수님을 맞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난주 토요일에 선생에게 급한 소리로 **“시간이 없다. 빨리 설교 써야 돼.”**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까지만 설교를 써서 부치면 되니, 아직까지 토요일과 주일까지 이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밀렸던 급한 편지들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15시간 정도면 설교를 쓰고 교정할 수 있으니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주일에배를 드리고 조용히 설교 말씀을 썼습니다. 이때 주님은 또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왜 이리 급하시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월요일에 설교 말씀을 못 보냈습니다. 선생은 시간이 무려 20시간이나 있기에 맘을 놓았고, 또 ‘안 되면 철야하면 되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도저히 말씀이 안 나오고 잠이 와서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날 다른 일들이 생겨 제대로 못쓰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토요일에 시간이 없다고 급히 말씀하셨을 때 즉시 써야 했는데 영감이 지나가고 주님의 계시의 시간이 지나가, 주일날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썼는데도 교정을 못 보아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하루 종일 교정을 보고 화요일에 겨우 보냈습니다. 시간의 실패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남은 시간이 6개월, 혹은 1년이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는 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시간을 따져 보시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쓰다 보면 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도 다 자기를 위해 쓰다가 환난을 맞게 된다.

너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쳐 시간들을 빼앗기게 된다.

앞날에 환난이 닥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어 나를 맞을 준비를 못 한다. 환난이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너희 하루를 두고 보아라. 오전에 할 일을 계획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과 걱정할 일이 닥치면 마음이 잡히지 않아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과 몸을 빼앗겨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앞에는 환난이 꺼 있다. 그때는 못한다. 환난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느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며 피하느라 기도할 시간과 은혜 받을 시간을 빼앗겨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다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이 없다고 한 것이다.

주님이 선생에게 토요일부터 서둘러 설교를 쓰라고 했는데 그때 안 써서 못 했듯이,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고로 세상 시간을 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자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 다 하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밤을 맞습니다.

이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한 웬만한 일은 다 끊어 버리고 하늘 시간을 전적으로 내라. 그때는 시간이 있다.**” 하셨습니다. “**TV 보는 것 자르고, 컴퓨터 하는 것 자르고, 때로는 목욕을 포기하고, 때로는 안 먹기도 하면서 매일 자르고 할 것만 하면 시간에 늦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선생도 일이 밀려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안 먹고, 안 씻고, 안 자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감당합니다. 고로 주님은 계시자를 통해 ‘네 선생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계시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르고 하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해냈습니다.

모두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과 일체 되어 살면서 세상을 확 자르고 사니까 시간이 많지요? 시간이 충분하지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목욕탕 안 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 안 사고 목적인 것만 하니 시간이 충분했지요? 친구를 만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생활 가운데 TV 안 보고, 좀 늦게 자고 좀 일찍 일어나고, 밥 조금 안 먹고, 조금 더 기도하며 하늘 시간 내니까 할 수 있지요?

과감하고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고요. 이 시대 사람들 모두 세상 시간을 잘라야 하늘 시간이 많아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을 성공합니다. 주님이 “너 시간이 없다.”며 심정 태우며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너 시간이 있다.”며 “여유 있게 하자.”고 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전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빨라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믿고 실천하며 사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집회를 감행하시면서, 또 계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배나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고 하며 쫓기는 자들은 다른 일을 포기하고 접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성공의 길입니다. 세상의 시간들은 희생시켜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과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TV 하나에 투자하는 시간만 잘라도 가쁜 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은 TV 안 봐서 주님께 성공했습니다. TV는 수준 이하의 존재입니다. TV를 보다가 끊고 수준 높은 삶을 살면 TV가 얼마나 자기를 실패하게 했는지 압니다.

TV를 하루에 한 시간 반만 보아도 10분의 1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의 시간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TV를 보면 머리가 TV 화면으로 바뀌어서 영감이 오는 것을 막고, 영의 눈을 소경이 되게 하여 영계를 못 봅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을 보고 TV 중독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주님도 못 만나고 주님의 계시와 지시도 못 받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만사에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사람들은 시간에 매여 살기에 문제입니다. 고로 시간 문제를 해결하여 여유 있게 쓰고 준비해야 주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3시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봐요. 똑같이 대해 주시겠어요? 3시에 해당되는 계시를 해 주십니다. 늦잠 자 봐요. 늦잠 자고 깬 후에 주님을 불러 봐요. 무슨 응답이 오는지 다들 겪어 봤지요? 고로 **제 시간에 준비하고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재림 전에, 지금 실제로 예행연습을 시키시고 실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맞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한 자라야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주님을 맞았는지, 하루에 천 번, 이천 번씩 매일 물어보세요. 그럼 자신의 영이 말해 주든지, 자기 양심이 영감으로 대답하든지 할 것입니다. “내 영아, 너 주님 맞았니? 내 육아, 너 지금 행동으로 주님 맞는 생활을 하고 있니?”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평소에 주님을 맞은 자가 되었어요?” 물어보기 바랍니다.

계시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 말고, 본인의 문제이니 자신에 관한 것은 자신이 각각 물어보기 바랍니다. 공적인 자는 공적인 섭리를 위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또 계시받는 자에게 전화하지 말고, 꼭 본인이 자신의 영을 위해 주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기 것에 해당되는 계시를 받아 봐요. 죄가 다 회개되었는지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어도 세운 자 외에는 심령을 투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계시받고 자기 관리하기 바랍니다. 계시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반드시 계시받은 것을 다 선생에게 보내 주어 검토를 받은 후에 행해야 됩니다. 한 번 받아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00% 완벽한 계시를 받아도 가면서 점

점 잘못되게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생은 처음에 받은 계시부터 나중에 받은 계시까지 다 읽어 봅니다. 처음과 나중 것을 비교해 보고 앞뒤가 안 맞으면 모순이고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계시이니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볼 때 나의 계시가 어디 모순이 있느냐?”** 하시면서 그 실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인간 세상의 또 하나의 계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취지는 좋은데 실체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주관으로 갑니다.

선생에게 허락받을 때는 좋은데, 결국 다른 길로 점점 갑니다. 그런 자가 많습니다. 고로 지금은 허락한 것일지라도 선생이 계속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합니다.

계시뿐 아니라 말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처음 말과 같이 안 하면 중지시킵니다. 고로 선생에게 허락받았어도 일을 하면서 계속 보고하라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따라가는 자들도 보고하라고 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사진부, 출판부, 도예부, 구상미술관, 구상чат집, 섭리의 각 부서, 교회 재정, 교단 전체를 선생이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있으면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적 돈을 쓴 자는 다 채워 놓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하던 일을 다 중단시키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소경인데 어떻게 남을 인도합니까?

사업을 하면 남기고 선교에 쓰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한 자도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 교체시킵니다. 열심히 했어도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으면 역시 교체합니다. 주님도 무익한 자를 문제 있는 자로 보시고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자들이 시험에 들고 은혜가 안 되면 주님이 보아도 심정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주님을 답답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 주는 일입니다. 섭리사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욱 더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답답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에 월명동 작업하는 자들 중에서도 새벽예배를 안 드리고 TV 보고 채팅하는 자들이 있어 다 내보냈습니다. 기타 모든 것들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성지땅을 쓰기만 하지 말고 모두 정성 들여 신경 써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1년에 일곱 번씩 꼭 작업해야 됩니다. 체크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꼭 해야 됩니다. 못 하면 대신 품꾼을 사 보내든지, 품꾼을 사도록 환산하여 월명동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드는 것도 크지만 만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든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만든 것이 제대로 존재합니다.

앞으로 모두 1년에 1일 품삯을 월명동 관리비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하루 자기 품삯을 월명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로 내게 할 테니 모두 그같이 하기 바랍니다. 성전을 쓰는 전 교인들은 그같이 하여 성지땅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간 후부터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단에서 하고, 재정은 전체에게 공개하면서 월명동을 운영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다시 수리하여 임시로 쓰고, 새로 건물과 함께 지을 것입니다. 식당도 다시 지을 것입니다. 월명동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단에 건의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월명동 1년 개인 관리비는 자기 1일 품삯 식입니다. 자기가 하루 얼마를 버는지 계산하여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선생은 한 달의 품삯을 낼 것입니다. 재정 담당자는 장로님들과 종직자들이 선생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연성전을 관리하도록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성전이며, 나와 함께 만든 성전이니 자꾸 멋있고 아름답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망대에 멋있는 정자도 지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급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건물을 짓고 화장실을 짓나?’ 할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는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씻고 닦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목이 타면 물을 먹어야 되듯이 모두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을 맞는 데 공적이 됩니다. 믿습니까? 고로 주님의 구상 하에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 원하시는 대로 다시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 것입니다.

성전 관리를 위해 이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의 있으면 편지하세요. 주님께 건의해서 말씀 중에 다시 교정할 것입니다. 관리비가 들어오면 성전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쓸 것입니다. 또 수련회 할 때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것 봐요. 월명동 자연성전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전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어디에 내놓아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정말 여기밖에 없는 자랑거리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귀한 것을 귀히 안 봅니까?

잘 관리하면 자연성전이 좋아 웃을 것입니다. 늘 사용하는 자들은 좋고 귀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월명동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먼 곳까지 가서 얼마나 서러움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장소를 빌려 쓴 줄 알아요? 교통비도 많이 들고, 무더운데 많은 타인들과 같이 쓰니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잘 관리하여 빛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자들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것을 더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다른 수련장이나 해변에 가서 수련회 해 봐요. 낼 것 다 내야 되니 돈이 많이 들고, 장소도 시원하지 않고, 우리 것이 아니니 정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리비를 제대로 안 내는 부서는 월명동에서 집회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은 월명동을 사진으로만 보아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온종일 사용하고 1년 내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도 가서 일도 안 하고, 월 해 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비도 안 내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연성전 관리는 하나님과 주님 관리입니다. 선생 관리입니다.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까지 다 참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씻고 자기 관리들은 잘하면서 주의 전이 자연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연성전 관리비는 세계 각 나라까지 다 내게 할 것입니다. 개인당 1년 관리비는 자기 하루 품삯입니다. 월명동 작업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요?

선생이 월명동에 있을 때는 서로 나무 심겠다, 돌 사 오겠다고 해서 자기 것을 다 심어 주고 세워 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편지가 그렇게도 많이 와도 하나님 성전에 월 해 놓겠다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생이 전도한 자는 월명동 사진만 보여 주었는데도 그곳에 월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해 놓으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성전을 쓰면서도 그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해 놓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도 새롭게 하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성전은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선생이 주님과 대화하기를 “영계와 육계에는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하자니 끝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배우려면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즉시 많은 것을 배우고 할 수 있는데, 안 믿으니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배우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명자들을 통해 밝혔는데도 안 믿으면, 그는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믿으면 즉시 알고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급히 밝히셨는데도 모사라고 하며, 혹은 때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로 생각하고 예사로 여깁니까? 재림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사로 여깁니까? 이런 자들은 본정신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에 극심한 환난이 점점 더해 갑니다. 경제와 물질의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좋아 말고 하나님과 주님을 찾아 구원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천국에 오라.’는 채찍질입니다.

선생 말씀도 안 믿고 자기중심 하며 지금도 몰라서 소경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의 말을 믿고 행한 자들은 불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깨끗이 청산하고 거듭나 빛난 영이 되었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선생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설마 했는데 적들과 아군들이 한자리에서 300

명씩 때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어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는 자가 말할 때 믿어요.

여러분들은 선생은 믿겠는데 세운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믿겠습니까? 선생이 앞장서서 일일이 감사(監査)하며 정리할 테니 따라가기 바랍니다. 개인까지도 뛰어들어 정리하겠습니다. 선생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것입니다. 다 깨끗이 해 놓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입니다.

불만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쳐부수고 몰아낼 수 있는 위력은 오직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고로 선생은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수천 번씩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같이 하지 않으면 선생은 못 견뎌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이 나올 때면 감사함으로 무섭게 몰아내고 박살내고 불만 불평이 마음에 오지 않게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으로 지옥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면 마치 전쟁터에서 적에게 패한 격이 되어 적들이 부려 먹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 죽고 싶도록 괴롭습니다. 고로 매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병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모두 선생을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나오지요? 집회 때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지요? 찬양을 불러 봐요. 왜 주님께서 선생에게 그 노래를 주셨는지 노래를 부르면 선생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심정도 알게 되면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요.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 회개하고 주님을 불러 봐요.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시는지 들어 봐요.

‘나는 행복하다’ 노래에 나오지요? 주님은 선생이 못 견딜 것 같으니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만 부르면 천국이 됩니다. 사탄은 “저 노래 또 불러?” 하며 침투하려다가 되돌아갑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큰일 하며 천국으로 가니 행복합니다. 여기 있어도 세계적으로 할 일 다 하니 행복합니다. 편지가 와서 읽어 보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며 끊임없이 따르니 행복합니다. 또 주님 모시고 영원히 행복한 길을 가니 행복합니다. 전보다 더 잘되니 행복합니다. 밖에서 못 한 일들을 전체가 시키는 대로 하니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내 집도, 내 별장도 아닙니다. 영의 눈을 감고 육의 눈으로 보면 지옥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같이 살면 매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대화하자고 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는 자기 몸 하나 편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늘과 일체 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넓은 세상에 살아도 할 일 못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지옥이다.**” 하셨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도 주님도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몸을 건강하게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 하나님과 일체 되고 주님과 일체 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옥의 환경에서 최고 이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받은 책 6권 분량의 말씀을 새벽에 잠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출 타기를 배운 자는 줄을 타면서 청중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위력을 과시하면서 묘기를 보이고 돈도 법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의 지옥입니다. 외출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고로 주님은 내게 닥친 외출과 같은 삶을 사는 방법과 십자가 고통 길에 매달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사니 외출을 타듯이 고통의 줄을 타며 즐거움으로 노래도 짓고 말씀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선생도 여러분도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선생을 희망으로 삼고 오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나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나를 여기 잡아넣으면 날 따르는 자들이 모두 절망에 빠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섭리 사람들의 몸을 총동원하여 나타나시고, 선생이 보낸 자를 통해 나타나시어 더 좋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옛날 산에서는 누가 밥을 안 줘서 굶었고, 너무 추웠고, 물이 없어서 씻기는커녕 열흘씩 목과 속을 태우며 이슬을 먹고, 물이 없으니 풀잎으로 이를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집에 가 버리면 주님은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잘 견뎌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 “주님 정말로 힘듭니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산에서 있었을 때보다 100배도 더 낫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자정이 넘어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할 때만 오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다 비밀 마이크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특히 네가 하는 말은 다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조심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도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말하면 지금까지 인정했던 계시도 다 의심받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한 말인데 주님이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과 주님의 계시를 구분해서 전해야 됩니다. 계시 받는 자들이 평소에 말한 것까지 다 내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모순이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 선생까지 잘못되었다고 하며 안 믿습니다.

계시받고 허락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시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쪼개서 말해 줘야 됩니다. 누가 자기를 서운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면 ‘이상하다. 저건 예수님의 인격이 아닌데…’ 하고 다 내게 묻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계시자들은 잘해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허락한 자들 외에는 혼돈되지 않도록 계시를 받고 자기만 알고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동물이나 만물에게 말하고, 섭리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생이 주님께 받는 계시까지 의심하게 되기에 허락한 자 외에는 못 하게 했습니다. 허락한 자도 확인받은 것만 하게 했습니다.

개인이 계시를 받고 모르면 편지해요. 확실한 것만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고 다 검토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다 간증하게 해 주겠습니다.

계시를 잘못 받고 잘못 전하면 모든 자들에게 치명적으로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을 사탄의 밥이 되게 합니다. 계시를 잘못 받은 자가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지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말했는데도 계속 계시받고 섭리인들에게 그 계시를 전하면 그 사람은 전체 광고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교육상 거울삼으라고 밝힐 것입니다.

별 계시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선생이 주님과 같이 일곱 가지로 분별합니다. 7월 8일 수요일말씀에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이 나갔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꾸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서 몸만 책망하느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못된 마음을 찢어 없애라. 그릇된 근성과 썩은 정신과 마음을 파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네 손이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네 정신이 때린 것이다. 네 손과 발이 형제를 때렸지만 그 주인은 네 정신과 마음이다. 그러니 네 마음을 찢고 깨부수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손이 잘못했으면 손만 때리지 말고 그 머리, 즉 정신과 마음을 때려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뇌를 들어낸다면 아마도 형제를 때리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뇌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죄를 짓게 되니 못된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고치고 회개해요. 선생을 속이고 주님까지 속일 것입니까? 속인다고 주님이 속습니까? 절대 안 속아요. 선생도 안 속아요.

자기 근성과 못된 마음과 음란한 생각을 모두 때려 부수세요. 그렇게 하고 꿈에서 봐요. 그러면 뱀을 칼로 자르는 꿈을 꾸든지, 자기 속에서 사탄이 나가는 꿈을 꾸든지, 맑은 물에서 씻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자기와 관련되어 꺾지고, 자기 아는 자와 연관되어 꺾집니다. 좋은 꿈은 현실의 좋은 것을 반영해 주고, 나쁜 꿈은 현실의 나쁜 것을 반영해 줍니다. 꿈도 계시이니 잘 풀어야 됩니다.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젯밤 선생의 꿈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들어 봐요.

어제는 편지를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이성 문제를 저지르고, 돈 문제를 일으키고, 각종 문제들을 일으켜 놓고 편지했기에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편지 쓰는 것이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또 이해를 시키고 선생의 입장을 말해 주고 주님의 계시를 전해 줘야 되기에 긴 편지를 써야 합니다. 한두 장도 아니고 매일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질 일들이 계속 내게 옵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십자가입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사탄이 쥐고 있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게 되니 심정이 타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다 써 놓은 편지와 함께 쓰던 편지를 모두 손에 잡아들고 찢어 없애려고 했습니다. 순간 주님의 사진이 앞에 보여 차마 찢지는 못하고 다시 책상에 놓고 편지를 보았습니다. 편지를 보니 욕이 나왔습니다. 무슨 욕인지 여러분들이 인봉을 떼세요. 여러분들도 하는 욕입니다. 한번 해 봐요, 맞는지 보게요.

.....

정말 잘 맞혔습니다! 그 욕을 편지를 쓰면서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하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르게 한 마귀들에게 했습니다. “이 쌍~놈의 마귀들아! 지옥에서 뜨거운 쇳물을 마시고 살 마귀들아! 나 없는 사이에 온갖 잔인한 짓들을 다 했느냐?” 하면서 죄지은 자까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무엇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또 욕이 나왔습니다. 물건을 찾으면서 “이 잡~놈아! 어디 갔어? 나 바빠 죽겠는데 나오기만 하면 없애 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았는데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나 차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찾던 것이 제자리에 없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사랑 때문에 제 처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자는 다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고로 주님은 모두 감사하시며 검토하고 계십니다.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선생도 일 안 하면 표가 납니다. 모두 설교를 못 듣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찾았냐고요? 편지를 다 쓰고 종이를 붙이기 위한 풀입니다. 풀이 없어지면 다른 풀을 쓰면 되고 밥풀을 쓰면 되기는 하지요.

조금 있다가 또 화가 났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소변이 급한 거예요. 또 욕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바쁜데 잡 것… 고통이 와도 참아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소변을 안 보게 이제 물을 안 먹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물 먹으니 시간 뺏기고, 화장실 가니 시간 뺏겨 편지 한 장을 더 못 쓰면 생명이 좌우되는데…’ 하고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소변도 참고 편지를 썼습니다.

밥을 제때 안 먹으니 속이 비어 배가 고팠습니다. 또 욕이 나왔습니다. “바쁜데 배고픈 것이 문제냐? 너는 굶어도 싸다. 매일 처먹으려고만 해! 너 오늘 밥 굶길 것이다.” 하고 철야하며 강행했습니다.

편지가 오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을 쓰는 것은 보는 것보다 10배 더 시간이 걸립니다.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안 가지요? 선생이 안 보내니 답장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편지 쓸 때 30분씩, 1시간씩 걸리지요?

편지뿐 아니라 결재하는 것도 힘듭니다. 결정하려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편지했는데 답장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라면 또 해요. 중요한 것은 또 편지해야 됩니다. 기도도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또 해야 됩니다. 자꾸 봐야 생각이 납니다. 편지 쓸 때 제발 자세히 써야 됩니다. 세계에서 오는 수만 건의 일을 선생은 혼자 합니다.

온종일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소변도 참아 가면서 그날은 끝내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자는데 꿈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는 2m가 넘었고 체구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욕을 해 댔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욕을 하냐고 물었는데,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해 댔습니다. 들어 보니 내가 낮에 욕했던 것이 마치 녹음이라도 된 듯이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기에 ‘안 되겠다. 따지자!’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또 내게 욕을 해 댔습니다. 그 남자는 키도 크고 덩치도 너무 커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욕을 해 대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뒤로 완전히 꺾고 다른 한 손으로 그를 부동켜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팔 하나가 빠져 버렸습니다. 팔이 빠지니 5m를 도망갔습니다.

그의 팔이 빠졌어도 나는 그의 손바닥을 꺾은 채로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마귀야. 너 낮에 내게 와서 내 입을 통해 욕하게 했지? 이 잡~놈아~ 내가 그냥은 욕을 할 리가 없다. 네 놈이 왔었구나!” 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사라졌습니다. 그놈은 사라졌지만 나는 계속 그 빠진 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꿈에 이리저리로 바빠다녔습니다.

얼마 후 그 마귀는 또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팔뚝과 손을 제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손바닥을 꺾어 쥐고 있으니 지독하다고 하며 잘못했다는 듯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나는 “이제 네 욕을 뽐 것이다. 이리 와! 네 놈이 우리 애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나까지 짜증나게 하고 욕하게 했지? 너는 나의 천적이다. 네

손모가지 평생 안 줄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섭리인들에게 간증하려고 그 팔을 가지고 다니다가 꿈에서 잤습니다.

그 마귀는 내게 걸려서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꿈을 생각하며 해석하니, 낮에 마귀가 나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하려고 공적인 시간을 내어 편지를 쓰는데 편지까지 못 쓰게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에게 고하여 해결하려 하면 죄를 짓게 한 마귀가 짜증나게 하고 못 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귀나 악한 자는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 낙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입에서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탄이 마음에 와서 그같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평하면 사탄 마귀가 왔는지 잘 보세요. 음란한 마음과 행실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섭리를 벗어나 하는 각종 일들은 사탄이 꼭 자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대군으로 활동하고 각 개인에게 파견되어 유혹한다고 주님께서 사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면 “주님과 성령의 겹으로 꽃는다! 성령의 겹이여! 저 사탄에게 꽃혀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대로 되니 안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기 바랍니다.

이를 더욱 말해 주기 위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의심되거나, 소외감이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각종 일로 수군수군하며 비웃고 빈정대거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의 감정으로 서로 전화하고 만나는 자는 절대 마귀의 주관을 받는 자이며, 마귀는 그런 자를 따라다닙니다.

또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자,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 섭리사를 악평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모하는 자는 모두 마귀의 주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이런 자들을 다스리며 늘 따라다닙니다. 선생처럼 그놈의 마귀의 팔과 다리를 뽑아 놓고 되돌려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놈의 마귀가 자기 팔 달라고 내게 안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꿈에 올 것 같아서 선생은 작전을 짭니다. 잠을 안자고 철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마귀는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이 팔을 어찌해야 되냐고 물으니, 주님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 버려라.**” 하시며 한 술 더 뜨셨습니다. 바싹 태워 없앤 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을 들으면 미쳐 버릴 것입니다. 마귀를 대하듯 여러분들을 꾀는 자를 대해야 합니다.

범죄 한 자들의 편지를 보면 상대가 말했을 때 사랑도, 어떤 것도 그 요구를 꼭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고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선생은 이제 예전보다 더 무서운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모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하나 되어서 끝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방 안에 100마리의 모기가 있는데 99마리만 잡으면 나머지 한 마리가 철야하며 피를 빨아 먹습니다. 잠을 자지 말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야 됩니다.

섭리사의 양 같은 자들을 이성으로 취해 놓고 “너 말하면 섭리사에 다 소문난다!”며 공갈치고 압박감을 주고 두렵게 하여 계속 숨어 살면서 끌려 다니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다 신고해서 처리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법으로 대해 줘요. 용서하다 보면 그런 놈들은 섭리사를 깔보고 버릇이 되어 계속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처리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요. 전미정 순회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들어 봤지요? “섭리사 사람들, 순진한 것이 다가 아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했지요?

사회나 섭리 안에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다 말해요. 본인 망신 안 시키고 해결해 줄 테니까요. 담임 목사들이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처리하는 사명자들이 자기 동생을 살피듯이 해 줘요. 그로 인하여 몸 뺏기고 구원까지 뺏기게 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영까지 지옥에 가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교단에 말하고 교역자에게 말하여, 해결하는 전문 목사들이 다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같이 억울함을 받지 않게 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던 자들을 손대고 괴롭히니 다 뿌리 뽑도록 해결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고, 선생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입니다. 자식들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편지로 오는 각종 일들로 인하여 선생에게 고통이 많습니다. 해결해 주면 내 십자가는 작아집니다. 잘못을 했으면 기도하여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지, 왜 내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편지가 오면 그중에 기쁜 편지가 있는지 봅니다. 이리저리 뒤져 보고 찾아보다가 있으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답

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청주에 사는 서연경의 간증과 주님이 역사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 도>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이 주일도 모든 세계 성리인들에게 충만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7월 15일 수요일말씀>

그 여자, 그 남자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하여 묻는 편지가 많이 와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그 말씀대로 믿고 왔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며 묻기에 말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최고의 그 남자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의 묵시를 받아서 쓸 때 다른 남자가 태어나서 역사할 것을 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전부터 주님을 선생으로 부르며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또 계시록 1장 17-19절을 보겠습니다.

(계 1:17-19)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요한아, 네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전해 주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4~5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종드는 천사들과 특별한 자들을 보여주어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10장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묵시를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 보내는, 시대마다 나타나는 두 감람나무 사명자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두 감람나무 사명자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고, 종교개혁 선지자로는 루터와 칼뱅을 들 수 있습니다. 왕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다 두 감람나무 사명자에 해당됩니다. 말씀으로는 구약말씀과 신약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묵시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기간 3일 반을 확대시키면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고통 기간, 환난 기간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로서, 특히 예수님을 죽인 시대를 영적으로 보고 그 실상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자 역시 주님입니다. 그 남자가 다른 남자라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지 않아도 모두 알지 않아요?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꼭 선생에게 물어봅니까?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머리의 열두 면류관은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이루어졌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자들을 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빌 4:1, 살전 2:19).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여자의 열두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열두 지파를 말합니다. 축소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고, 확대하면 그 자손들이 각 족속을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여인과 같이 사랑하시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 민족아! 나의 택한 자여!”라고 많이 부르셨습니다(렘 31:4, 렘 31:21, 암 5:2, 사 44:1, 사 45:4).

달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요한이라고 주님은 선생이 20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봅니다.

계시록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인 된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사탄은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왕은 그의 병력들을 동원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탄들이 사람을 통해 갖은 악랄한 짓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헤롯왕을 통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주님을 잡아 삼키려 한 것을 말합니다. 사탄들은 지옥의 최악질 영물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를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축소해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또 천주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 안나 수녀와 계시자들로 말한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16절에 답을 말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계 19:15-16)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늘의 많은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로 말한 것입니다.

(계 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영계를 보면 예수님은 군대의 최고 대장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군대입니다. 우리들이 군복을 입고 말

을 타고 현대식 무기를 들고서 사탄과 싸우고 악인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 계급도 달았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계를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군대로 보여 줍니다. 영계로 보면 육계로 육을 보는 것보다 훨씬 실감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의의 옷입니다. 행실을 그대로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행실이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권 주관을 받아 옷이 더럽고 어둡습니다. 행실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철저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하면 자기의 의의 옷과 영의 옷이 깨끗합니다. 빛이 납니다.

영의 옷도, 육의 옷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행실도 신경 쓰고, 말도 신경 쓰고, 의도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감사 생활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계급도 올라갑니다.

우리 섭리 사람 중에는 별을 단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걸만 보고 대하지 말아요. 영계 계급을 보면 압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있으면 계급을 몰라서 실수하듯, 걸만 보고 대하면 실수하게 되니 영계로 봐야 합니다. 누가 별을 달았는지, 몇 개나 달았는지는 영계로 보기 바랍니다.

이름에 ‘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정말 이름값 해야 됩니다. ‘별’자가 들어갔는데 이름값 못 하면 주님과 의논해서 다른 이름을 줍니다. 별처럼 빛이 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같이 살지 않으면 자기 가치가 상실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뜻을 두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사람들의 그 행위로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장 같은 말씀을 주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철장 같은 말씀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듯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철장 권세를 받고 싶습니까? 받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4~29 절을 보겠습니다.

(계 2:24-29) 『[24]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탄을 이긴 자, 환난을 이긴 자, 핍박을 이긴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어 다스리게 합니다. 사탄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볼까요?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 각종 가혹한 고통을 줍니다. 정말 지옥의 고통입니다. 악당과 악평을 늘어놓으며 입에 담지 못할 별의별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흉측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공금을 횡령했다, 창녀다, 사탄의 자식이다, 사탄의 종자다, 선생을 죽이려고 태어난 자다, 섭리를 말아먹으려고 한다며 이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면서 누명을 폭 씹웁니다. 선생도 이같이 당해 왔습니다. 환난을 받은 자는 잘 압니다.

지옥에 가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지옥에 끌어다 놓고 또 그 짓들을 합니다. 지난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사탄의 특공대 역할을 했던 자들은 스스로 잘 생각날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한 자들은 선생에게 회개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답해 주기를 ‘네가 인정하니 사탄이 물러갔다. 이제 사탄을 멸하는 특공대가 되어라.’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필요할 때 실컷 부려 먹고 떠납니다. 떠난 후에는 자기 잘못이 생각납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안 떠납니다. 지금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은 아직도 사탄의 군대로 쓰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생은 한국에 들어와서 법적 문제로 사탄의 지독한 행위를 보았습니다. 온 민족 사람들을 동원하여 각종 말을 퍼부었습니다. 또 사탄은 형제들을 통해 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들을 나를 괴롭히듯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주님과 함께 철장 같은 말씀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다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선생의 이름을 가지고 악평, 더러운 말, 누명, 각종 거짓말들, 교활한 작전을 하고 있었기에 철장 같은

말씀으로 다 깨부셨고, 주님께서 친히 철장 같은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수셨습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는데도 모릅니다. 알면 안 받지요.

그같이 극렬하게 역사하는 악독한 사탄을 이긴 자에게 주님은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는 알아라.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과 싸워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워라. 내가 올 때까지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굳게 잡아라. 그리하면 철장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 2:24-29).

선생이 외국에 갔다 와 보니 사탄은 개지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주님과 같이 내 문제와 사탄들이 형제들을 통해 하는 짓들을 깨부셨습니다. 환난을 이겨야 철장 권세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선생도 중국에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지키고 왔더니 주님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말씀의 철장 권세를 주시어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환난을 이기고 주님과 일체 된 자에게 사명적으로 철장 권세를 주어 다스리게 하십니다.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철장 같은 말씀으로 섭리를 다스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육적인 것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들을 알고 이겨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악평하고 갖은 난폭한 일을 하는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선생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사탄의 짓으로 보고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철장 권세로 사탄 권세를 부숴 버려야 됩니다. 회개로 자기 죄를 부숴 버리고 불의를 때려 부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때려 부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7~28절에 주님은 ‘나도 아버지께 받았다. 너희도 내 말을 들으면 이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새벽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광명한 새벽 별이 나타나면 다른 별은 빛을 잃습니다.

선생도 주님께 철장 권세를 받았기에 30년 동안 주님께 이끌리어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줍니다. 줄 때는 주님과 의논합니다. 이 권세는 개성대로 단상에서 외칠 때 쓰고, 전도할 때 쓰고, 악한 자의 행위를 부수는 데 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집회를 마치고 옛날에 했던 대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또 하면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떠나면 그 후에는 정말 힘듭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지옥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을 파선하기까지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로 연결하여 ‘신앙’이라는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주었는데 또 행치 아니하여 서서히 은혜의 가뭄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미 설교 때 말했지요? ‘비 올 때만 물이 나니 그때 깊이 샘을 파라’고 했지요? 계속 은혜의 생활을 하는 자는 깊이 샘을 파는 자입니다. 각 교회는 교역자와 은혜 받은 자들이 자꾸 모여서 기도로 은혜를 연결해 나가고 교회 단위로 집회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받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심령 투시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밥도 한 끼만 안 먹으면 별 표가 안 나지만 2~4번 안 먹으면 표가 납니다. 운동도 매일 안 하면 표가 나게 약해집니다. 힘들지만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선생도 힘들지만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내 일을 누가 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 힘들게 됩니다. 편지 답장도 안 써 주고, 말씀도 안 해 주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선생을 위해 기도해 줘요. 기도해 주면 표가 나게 해줍니다. 편지 보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답장이 안 써집니다.

지난 환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면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선생의 소식도 전혀 없었고 잠언 하나 오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 봐요. 선생이 죽었는지,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개인 편지까지 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형

제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난날 몰라서 사탄에게 쓰여진 자는 돌이켰으니 사탄을 멸하는 주님의 특 공대가 되어서 일해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사탄이 하는 일들을 잘 알기에 사탄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빠진 자들을 구출하며 주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일하기 바랍니다. 선생도 함께하니 열심히 해요.

아무튼 섭리 안에서 형제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마요. 절대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선생과 싸우게 됩니다. 오직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형제와 싸우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니 결국 주님과 싸우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침니다.

형제들과 싸우며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들은 선생이 말씀의 철장으로 주님과 함께 치겠습니다. 안 깨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름을 다 밝히고 섭리 전체가 공격하겠습니다. 섭리인들 모두가 배제하겠습니다. 돌이키고 열심히 하는 자들은 모두 신경 써 줘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바랍니다. 린다가 ‘주님의 재림 때 재앙이 있다. 환난이 있다.’고 하는 말세관으로 전도하지 말고 오직 ‘성경에 주님이 이같이 오신다고 했다. 때를 볼 때 2009년도 다 지나가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섭리에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선생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자기가 깨달은 것과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린다의 말세관을 외치면 ‘여기가 린다 교단인가?’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주신 말세관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하나하나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즉시즉시 행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놓고 주님이 선생에게 풀어 주신 대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온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주님을 낳으신 마리아이고, 천모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오직 예수님이 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서 이미 2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그러하기에 4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의 세계로 머리를 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서 곧 오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시대의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도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조금 있으면 나온다. 미역 사 와라. 돈 가지고 와라.’ 하는 자들이 있어 ‘너 사탄에게 속고 있다.’고 편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말 중에 옳은 말이 있고 그릇된 말이 있듯이, 계시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가 글을 써 놓고 다시 보면 틀린 글자가 있듯이, 자기 행위를 볼 때 자기는 잘했는데 남이 보면 틀린 것이 있는지 잘 보고 고쳐야 됩니다. 믿는 자와 따르는 자들은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말하는 것도 하나의 말의 계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 봐야 합니다. 실수로 하는 말인가, 자기가 주장하는 말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받는 자들은 특히 선생에게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틀린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자꾸 주장하면서 이론을 전개시켜 갑니다. 그러면 선생이 세운 사명자들이 듣고 즉시 말을 해 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어 쓰십니다. 주님께 쓰이는 자는 상징적으로 주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사명적으로 주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선생도 30년 동안 그같이 쓰여 왔습니다. 지금도 더욱 새롭게 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명적으로 쓰이는 것과 근본자 주인공은 다릅니다. 근본자는 하나뿐입니다. 재림주도 초림주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시대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아 쓰이는 자는 주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그는 제2의 주님의 몸이 되어 쓰여집니다. 그가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사명으로 주님의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인이 사명을 주면 사명을 받은 자는 주인의 사명을 받아 주인의 입장이 됩니다. 아직도 어떤 제자들은 30년 동안 선생이 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주님 아니야? 왜 이러지?” 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주님과 같이 일을 합니다. 암행어사 마패를 주면 암행어사의 일을 대행합니다. 사명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받는 자마다 합

니다. 그러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연단시키고 주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을 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사명을 준 사도들은 주님과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 대행입니다. 지금도 선생이 내 사명을 주고 내 말을 써서 외치라고 한 부흥강사나 교회 목사들은 선생 대행이지 선생은 아닙니다. ‘누가 나와 같이 똑같이 하느냐?’에 따라 더 선생을 느낍니다.

주님이 그같이 하시기에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명을 대행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주님을 대신하기에 벗어나서 하면 금방 압니다.

계시를 받아 전하는 자도 다 사명 대행입니다. 정확히 받고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잘못 받아서 전하면 모두 입이 있기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은 아닌 것을 두고 옳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하십니다. 혹은 “그 말을 했으나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내 말도 잘못 받아 전하면 이상해서 선생에게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뜻에서 말한 것이고, 재는 저런 뜻에서 말한 것이고,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말을 하다가 자기 말이 나간 것 같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가령 선생에게 병아리를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고 허락을 받았으면 병아리만 관리해야 되는데, 점점 큰 닭까지 관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큰 닭도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백만 원을 허락했는데 천만 원, 일억 원에 손을 대는 격입니다. 결국 다 나타납니다. 더 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흔히 선생에게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끊임없이 직접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자를 시켜서 사실을 보고받고, 교단에게서도 보고를 받습니다.

모든 일을 보고하지 않고 하면 일단은 중단시킵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고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 보고했어도 내게 보고를 해야 선생이 알고 광고해 주고, 전초 말씀도 해 주고, 주님이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들으라고 말해 줍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물어볼 필요 있어?’ 하면 안 됩니다. 섭리사를 지금껏 그같이 이끌어 왔으면 다 깨졌습니 다. 그동안 ‘주님의 계시 받았다. 내가 사명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지 집에 가서 다 떨어진 비닐을 걷어치우고 새 것으로 해 준다고 해도 물어보고 해 줘야 좋아합니다. 하물며 매일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과 의논하는 선생과 의논하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됩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계시받은 것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내게 보고하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 계시받은 것을 모두 자세히 써서 보내야 제대로 분별하고 감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할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합니다. 단점과 약점을 다 보고해야 분석해 보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이 있어도 회개했는지 봅니다. 근신하며 믿음을 굳세게 했는지 봅니다. 수술하고 수술한 곳이 나았을 때 일을 시킵니다. 회개했다고 그냥 바로 일을 시키면 사탄이 틈을 타서 잘 들어옵니다. 꼭 회개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하는 기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줍니다. 자기만 준비되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시간이 없다.’고 했지요? 이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되지만 **“너희가 다른 것에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나를 맞을 시간이 없다.”**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풀어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축소시켜서 하루를 생각해 봐요. 하루에도 5건, 10건, 20건씩 쪼개서 시간을 쓰다 보니 24시간이 다 지나가서 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선생도 하루를 쪼개서 쓰는데 50가지로 쪼개서 씁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일일이 쪼개서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이 많은가?’ 할 것입니다. 말도 말아요. 보고 결재와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까지 서류건만 해도 매일 40가지가 넘습니다. 기도, 찬양, 감사, 운동, 성경 보는 것, 글 교정…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자르고, 편지도 읽기만 할 것은

읽고 끝냅니다. 어떤 일은 한꺼번에 겹쳐서 합니다. 운동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도 하고, 바쁘니까 부식과 국과 밥을 한 그릇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정말 모두 시간이 없지요? 열심히 하는 자들은 시간에 쫓기면 웬만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꼭 할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을 1번으로,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 있으면 하면 됩니다. TV만 안 봐도 시간에 덜 쫓깁니다.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쉴 때 너무 쉬면 열심히 하고 빨리 했을 때 얻은 시간을 다 날려 버립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시간 외에는 다 잘라라. 세상에 쓰는 시간, 필요 없이 쓰는 시간을 다 자르고 희생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유능한 사람이라도 실패합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하늘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포기하고 한숨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할 편지들과 결재할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며 결국 철야하고 안 먹고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다 했습니다. 다른 것을 희생시키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일을 희생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도 희생하니 섭리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희생하면 해지니 제발 섭리를 위해 희생해요. 은혜 받고 해야지요. 주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깨닫고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시간 없어서 못 하고 맙니다.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맙니다.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주님은 10개월 동안 특히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상상의 곁을 갈게 하셨습니다. 영계로 한국의 실정을 알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교회들이 생기게 기도했고, 몇 명밖에 없는 나라는 70명 이상이 넘어가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제자들의 육신을 못 만나니 영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데리고 온 신입생들과는 한 달, 두 달씩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 세상 다 끝나 간다. 너 위해 써도 네 몸 다 못 쓴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보던 그들이 자기 육신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 왔습니다. 꿈에 본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보니 꿈에서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에서 보고 전도하니 그대로 되었지요? 영계에서 자기 영이 가서 그 영을 사망에서 끌고 나오면 생시에 그 사람의 육신이 다시 회복됩니다.

선생의 시에도 있지요?

보고 싶어
오라고 하여 왔지만
앉을 곳이 없어
어쩌나
급한데 서서
몇 마디 이야기나 하고 가자

이 말은 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영들은 육 대신 할 일을 다 합니다. 선생도 집회 때 갑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도 있지만, 직접 선생의 영이 갑니다. 선생의 영이 집회 장소에 가도 육신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애간장 태우지 않게 시간을 여유 있게 써야 됩니다. 비행기가 떠나기 5분 전인데, 전화도 없고 인기척도 없으면 애인은 불안하고 속이 타고 눈이 빠집니다. 주님은 **“나도 그와 같다.”** 하셨습니다. 제발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시간 때문에 애간장 태우면 빠른 자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너 좋은 대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쓰니 축복해 준 것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요?

게시받는 자들이 있으면 목회자나 책임자들은 못 받게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게시만 절제시키고 잘 들어 보고 합

당하면 써서 보내 줘요. 그리고 조은 강사에게도 물어봐요. 이미 분별의 세계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7년 전부터 영계를 다 보았고 그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라고 했습니다. 물어볼 때는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서 보여 주세요.

주님이 철저히 하시니 모두 잘해요. 의문이 나면 묻고 해야 됩니다. 간증할 자들은 교단에서 연락해 줄 것입니다. 특히 단상에 세운 자들은 미리 보고하고 전초하고 해야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 참조> 10쪽 14-16째줄 “그 남자는 예수님으로서 이미 2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그러하기에 4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의 세계로 머리를 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참조 내용입니다. 2009년 발표된 세계 선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현재 지구 인구 68억의 40%인 22억(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포함)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주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캐나다 간증

깨어 기도하니 내가 왔다. 내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어 기도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게 마음을 돌려라. 조목조목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되고 재가 태워지고 거듭날 수 있다. 불은 가슴으로 받아야 사고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다. 그 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애원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만 받게 된다. 항상 예비하여라. 그래야 나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은 섭리사에서 여태까지 간증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시하고 읽고 또 읽고 새겨라. 그 길만이 네가 갈 길이다. 아직도 많은 자들이 자고 있구나. 언제쯤 깨어 기도할 것이냐. 새벽을 깨워야 된다. 나와 만나려면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다들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 이토록 얘기하는데 왜 긴장하지 않느냐. 새벽을 충분히 흔들어 깨워라. 어서 속히 기도해라. 선생이 말하지 않았느냐. 어제 예비해야 오늘 맞을 수 있다고. 정녕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거한 땅이 물로 강을 이루어 차고 넘치고 있는 줄 정녕 모르느냐. 하나 되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들 움직이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진노가 극에 달 했다. 깨어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을 받고 나를 맞아라. 나를 아는 모든 자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무엇이 더 급하냐. 깨어 나를 맞고 성령을 받으라.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찬양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온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끌려간다. 스스로 구할 것을 스스로 구하여라. 내게 너의 사랑을 고하였느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였느냐? 캐나다 전체에게 말하여라. 오직 나와 대화하라. 섭리인들 모두 오직 나와 대화 할 때다. 새벽을 깨워라. 성령의 불로 조목조목 죄를 태워라. 회개가 시급하다. 서둘러라. 나를 혼자 두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할 수가 없다. 너희의 순수한 사랑을 받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 나를 사랑한다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 행동하면 안된다.

(결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섭리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캐나다, 특히 미국. 위선과 야만과 시기로 가득 찬 것을 낱알이 지적하시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최우선에 둔다면 나와 항상 대화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즐거웠고 내가 위로가 되었다. 너의 선생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속히 기도하라. 기도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너희의 삶에서 빠져 나와라. 지진과 환란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아주 급하구나. 나도 기도 할테니 같이 기도하자. 너희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찬양해 다오. 노래소리, 기도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찬양이 없구나. 너희의 사랑을 표현해다오. 기도하라. 그래야 이곳의 심판이 사라지리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역사하는 때니라.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라. 회개하여라. 하나되지 않은 죄, 이성으로 타락한 죄, 물질의 지배를 받은 죄, 서로 이해하지 못한 죄, 시기질투 한 죄, 방관한 죄,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고하여라. 너희가 깨어나 기도할 때 달라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날을 깨어 기도하므로 준비하라.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너희 선생을 생각하라. 그의 심정을 받아라. 몸부림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역사함을 진정 알지 않느냐. 마음으로, 기도로, 생각함으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어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라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회개에 매진하여라. 어서 한마음으로 나를 찾고 불러라. 매달려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라. 오,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보화같이 여겨라. 말씀을 생명시 하여라. 단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나는 깨어있는 자를 찾고 있다.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한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매달리며 애원하여라. 죄를 용서받으라. 엄청난 태풍이 닥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저 찬란한 희망의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어서 준비시켜야 된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 탄식하는 자가 적구나. 나의 아버지의 심판이 가까운 이 때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 되여라.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제대로 잘 보아야 거울삼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다.

(계시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있죠. 말씀을 깊이 보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깊은 단계에서, 정말 사모하는 단계에서, 원하는 단계에서 주님과 심정이 만났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보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온전하게 되어 지도록 기도하라. 나의 복음을 귀히 보지 않는 자는 거둬들이리라. 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진정코 감행하시리라. 너희가 어서 일어나야 다들 긴장할 수 있다. 보고 깨달은 자는 벌써 행동하는구나. 내 아버지께 분노를 참아달라고 매달리는구나. 그러나 힘이 너무 약하다. 어서 동참하여라. 사탄은 활동을 시작했다. 눈 있는 자는 정녕 볼 수 있느니라. 속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세상으로 아직까지 눈을 돌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오직 너의 눈을 나에게 맞추어라.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기도하라. 내 말을 100%믿고 집중하여 기도하여라.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라. 나를 느끼고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해다오. 나는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나도 해 줄 수 없으니 너희의 책임분담을 하여라.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전심전력으로 나에게 매달려라. 너희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를 고하여라. 너희가 거한 땅을 위해 기도하라.(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재림을 알고 맞을 것이냐. 너희들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는 선생의 가르침을 뼈 속 깊이 새겨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아라. 그래야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아는 자는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어서 속히 서둘러 깨어 기도하기 바란다. 사탄이 난리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너희를 요동치게 하는구나. 자기의 생활에서 빠져나와라. 무엇이 급하냐.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라. 입으로만 재잘 거리지 말고 진정 온몸으로 긴장하고 기도하여라. 항상 나를 먼저 기쁘게 하여라. 그 다음에 너희의 것을 구하여라. 죄도 구하고, 복도 구하여라.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나를 차지할 것이다. 나를 어찌 대하든지 내 눈에 띄게 하는 자가, 그런자는 나를 찾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어서 하나되어 회개하여

라.

먹는 것, 입는 것, 절대로 중하지 않다.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보아라. 지금 어떤 맘으로 내 말을 전하는지, 그가 자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신경 쓰느냐? 너희 선생은 저리 외로이 홀로 그 길을 가는데 너희는 왜 그리 심정을 몰라주느냐. 갈 길이 급하다. 불같은 성령의 때도 다 되어 간다. 어서 일어나라. 나를 깨워라. 말씀을 읽고 잘 분별하여라. 모든 것은 말씀에 잘 나와 있다. 내 심정이 너무 타니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나의 십자가와 나의 심정과 너희 선생의 그 고난의 심정을 깨어있는 자들이 잘 알려주어라. 마음만 갖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에 맞는 행실을 하여야 내가 쳐다본다. 너희는 정녕 내 뒷모습을 보는 날에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시대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긴장하여라. 비바람, 태풍, 천둥 번개가 온 천하를 진동하는 구나.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으랴. 대지가 갈라지고 내가 자랑으로 삼던 나라도 넘어지리라. 눈물로 기도하라.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달은 나의 신부들아 기도하여라.

(이것이 6월 19일 핵심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차 목이 메는 구나. 너희가 먼저 일어나라. 우뚝 솟아 나를 증거 하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증거 하여라. 그 날이 되면 모두가 큰 환란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깨어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 나가서 외쳐라. 천하 만물이 넘어지며 천지가 요동치고 온 인류의 선망의 대상이 저리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개탄스럽구나. 마치 나를 없는 듯 대하는 구나. 내가 세운 나라가 저리 되니 슬프다. 진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므로 그 날을 피하여라. 너희는 정녕 말씀의 깊은 가치를 깨달아라.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여라. 선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그 어깨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위로하고 힘을 주어라. 너희가 하나되어 일어날 때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월 24일 수요일말씀이 나오고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빠지 않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시자,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 야훼니라. 내 사랑하는 어린양의 소리를 들었다. 너를 위로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먼저 나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걱정 말라, 내 사랑하는 어린양아 걱정 말라 나 예수니라. 내 아버지와 같이 왔노라. 더욱 기도하라. 나의 날과 나의 때는 오직 내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 너희가 거한 땅이 서서히 물이 차고 있다. 알았느냐. 얼마나 긴급했는지. 선생의 말에 집중하여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자는 내가 살피 주겠노라. 더욱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라. 이 시대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어서 빌어라. 날날이 조목조목 빌고 또 빌어라. 아직도 먼 나라 얘기 같으냐. 깨어나라. 다급하다. 오죽이면 너희 선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겠느냐. 어서 속히 아뢰어라. 하나되어 하여라. 모두 같은 차를 타고 있으니 다 같이 고하여라. 네 일이 아닌 것이 없느니라.

(우리 섭리 다 같이 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날과 그 때를 구하지 말라. 허나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게 된다. 아직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구나. 아직도 나를 느끼고 알지 못하는 구나. 아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느냐. 보이지 않는 나를 수시로 무시로 찾아라.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활하여라. 너희의 먹는 것 자는 것이 아직도 문제이냐. 지금은 통화 자복하는 마지막 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나를 인정하라. 지금은 제발 나만 생각하라. 그리고 목 놓아 울어라.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여라. 혼자 중얼중얼하고, 혼자 투덜투덜하는 자 정신 차려라.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근신하여라. 순리대로 질서 있게 하여라. 선생의 말을 기다려라. 함부로 판단 말라.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함을 알고 내가 세운 자를 통해 함을 알라. 나 예수의 말이니라. 곡식의 벼들이 물에 잠기는구나. 무엇을 먹을 것이냐.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때가 정녕 오리라. 준비하여라. 천천히 하여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사님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지난 6월 24일날 선생님 말씀 중에 중국에 계시는데 제주도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그것이 부산을 거쳐 중부지방으로 온다는 뉴스를 보시고, 주님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그 할 일 때문에 여기 왔지 하시면서 그 태풍을 몰아냈죠. 태풍이 북쪽으로 갔죠.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시고 힘이 나서 하루에 3000번씩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찾았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서 함께해주시는 구나 그것이 생각나면서 집사님이 예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면 저희도 선생님이 그 한계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힘을 얻고 3000번씩 기도했는데 저희도 하루 3000번씩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찾으면 되겠습니까? 물었대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셨대요. 하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것을 기다리나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무적으로라도 하다보면 몸에 밴다. 체질을 만들라.” 선생님의 아주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안 되면 체질을 만들어 버리세요. 기어코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은 하되 당황하지 말라. 너희들이 우왕좌왕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차근히 하여라. 기차가 출발하려면 기차에 있는 모든 것이 서서히 같은 수준으로 움직여야 신나게 달려서 목적지를 가듯이 너희 모든 자들이 다 같이 하여라. 큰 자, 작은 자, 늙은 자, 젊은 자, 어린 자 모두 다 같이 하여라. 사랑한다 너희야. 포기치 말라 애를 써다오. 움직이면 회개가 되고 말고! 어서하여라. 더욱 분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니)

일어나서 내 앞에 간구하여라 심정을 아는 너의 기도가 정말 크구나.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앞의 일들임을 알려주어라. 항상 내 말 들을 준비를 하여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캐나다에서는 새벽기도 외에 40일 릴레이 기도, 40명 기준으로 1인당 777번 찾으니 하루에 3만 번 이상 하나님·성령님·예수님 부르고 있음, 40일 릴레이 금식 조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십니다. 정녕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시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대답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을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 매일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간증은 꼭 하라고 하셨어요. 천국 성령 운동 때 주님 어디 가실까봐 막 우리 부르자고 했었죠. 그 때 생방송 연결 안됐었죠. 그 때 ‘주여~’ 하고 그 잔디밭에 모인 7천 명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 때처럼 부르라 하셨습니다. ‘주여~!’ 어디 가시는 주님을 붙들 듯이, 마치 어디 떠나시는 주님을 붙들듯이 ‘주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섭리사에서 매일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계시를 주셨는데요.)

너희 모두는 회개해야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 지구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지금 나를 찾고 울면서 자복해야 한다. 모든 자여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한다.

(귀한 말씀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주일말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26-27절

요한복음 14장 26-27절

누가복음 10장 22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은혜와 성령의 불길이 점점 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고 아직 은혜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 모두 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은혜의 집회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섭리사는 이때가 성령 역사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희망의 역사가 온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거듭나라. 변화해야 될 때다.**”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때가 지난 후에야 더 이상 특별한 기회가 없는 것을 알고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며 땅을 치

고 후회합니다. 선생은 이를 알기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라고 하시어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때는 섭리사의 영적인 황금기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은혜의 계절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이며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과 주님께 잘못을 진정 회개하고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때 사망권에 처한 자들이 생명권으로 나올 기회입니다. 이때 나와야 됩니다. 이때 주님과 일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과 육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 놓듯이, 홍수와 태풍이 몰아닥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듯이, 지금 이때 자기 영과 육을 위해 만반의 기도를 해 놓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하면 해 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같이 해 준다 해도 결국 자기도 일어나 같이 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하여라. 그래야 양이 가시덤불 숲 속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처한 괴로운 세계에서, 문제 속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나온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 말이 곧 생명의 길이다. 간구하는 자들에게 이때에 너희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었으니 개인 것은 개인이 행하고, 섭리 전체를 위해 한 말들은 모두에게 전해 주어라. 내 말은 모두에게 한 말이니 듣고 지켜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근본은 같으나 나라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들의 처지가 다르고 처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저기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읽어 보면 진지하게, 확실하게, 자상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섭리사를 한 애인같이 진정 사랑하시고 주님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한국뿐 아니라 섭리사 전체에 주님이 직접 집행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강사들이 해외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전하는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와 찬양의 은혜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모두 변화되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불이 개인마다 교회마다 번져 나가 섭리세계에 더욱 뜨겁게 일어나도록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삶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살면 이 은혜의 뜨거운 역사는 10년, 20년이 가도 식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충분히 준비하여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맞은 자는 연속하여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정말 주님을 맞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저 막연히 사는 자는 주님을 맞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 깊이 기도하여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에게 편지가 온 것 중에 몇 가지 말해 줄까요?

-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기에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제 집이 있습니까?” 물으니, 주님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집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자기를 중심하고 살면 실제와 다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주님께 묻기를 “하늘나라 생명록에 제가 있습니까?” 하니, 주님은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섭리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 어떤 사람은 주님께 “저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맞지요?” 물으니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아니냐고 물으니, 주님은 말로만 신부라고 하고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주일말씀을 들으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섭리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계시받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선생처럼 심

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살아라.”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받는 자들의 계시에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선생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하라.”, “너희 선생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입니다. 주님은 “너희 선생은 하고 있으니 모두 인정하고 그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정받아 “저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계시받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선생에게 계시하여 설교로 나가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답을 찾는다. 그 말은 다 내가 목시한 말이다.”입니다. 그러면서 “왜 말씀을 적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자를 통해 주님이 집회를 집행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사탄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선생의 말을 집회 강사에게 전해 주어 그들로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렇게 외치십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일 성령 집회 CTN 방송을 틀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잘못된 자들이라고 즉시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맡은 자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주님의 역사이니 자기 주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 쪽입니다. 그 교회는 선생에게 소식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하시어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의 말을 들어 봐요. 선생을 중시하는지, 안 하는지 봐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후에 꼭 선생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같이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계시해 주시고 그냥 대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꼭 선생에게 묻고 허락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첫째, 주님께서 선생에게 자세히 계시하심을 더욱 알게 하고, 말씀으로 같이 나가게 하려 함입니다. 둘째, 사탄의 역사를 막고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각 개인, 교회, 섭리사에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그 기회가 자기에게 오는지 압니까? 어떤 것은 10년 만에, 어떤 것은 동시성 역사가 올 때, 어떤 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떠나갈 때는 자기가 좋아서 냉정하게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마음으로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 부르시고, 선생을 통해 부르실 때는 외면하고 매몰차게 뿌리치며 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길이니 결국 다시 섭리에 돌아와 회개하고 삽니다.

그러나 섭리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사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회개를 해도 괴로우니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통화 자복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괴로움이 안 떠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답하기를, ‘주님과 선생의 속을 썩이며 마음 쓰리게 한 것과 그동안 길러 놓았는데 냉혹하게 대하고 자기 길로 갔으니 그때 주님과 선생이 받은 괴로운 고통을 받고 내 심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고 묻기에 주님께 여쭙 보니 “**행한 대로 받고 끝나면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되 회개해도 죄의 값을 받게 되고, 또 복직하려면 공적을 세워야 하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길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몸부림쳐야 하는 힘든 일이 있듯이 신앙세계의 일들도 그러합니다. 회개는 ‘청산’입니다. 공적인 돈은 섭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친 것으로서, 몸부림쳐서 땀 흘리고 밤잠 못 자면서 벌어서 그 중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섭리 안의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썼거나 자기 실수로 안 쓸 곳인데 쓴 것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은 돈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제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선생도 공적 돈은 공적인 곳에 썼어도 모두 갖다 놓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선생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성 문제를 깨끗이 다 청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국인데 여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사업 망하고, 몸도 망하고, 빚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뿐 아니라 이러다가 자기 영이 지옥에 가겠다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회개하니 살려 달라고 낄낄고 고백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경제의 가뭄이 연속되고, 마음의 지옥이 연속된다. 축복을 거두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 지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대신 다른 자를 불러 숫자를 채운다.” 하셨습니다.

섭리사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른 자를 세워 이 급한 시대에 주님의 뜻을 펴고 계십니다. 사명을 하지 못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현실에 처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일들로 생각되어 행하였으나, 지나고 보면 안 해 도 될 일인데 한 것이 너무 많았다. 고로 돈 손해, 시간 손해 등 가지가지 고통을 당하고 심정 태우며 살았다. 나와 의논하지 않고 너희 선생과 의논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에 처하여 꼭 해야 할 일도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자세히 완벽히 파악하고, 사방으로 100% 파악해야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령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든지 자기가 잘못하여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갚아야 되듯이, 섭리사 안에서도 공적 돈을 가지고 나와 선생과 의논도 없이 선생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나와 선생의 이름을 팔아 돈을 걷어서 여기저기 쓸데없이 쓰다가 빚을 졌으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쓰다가 빚을 졌으면 누가 그 돈을 채우겠습니까? 누가 현금해서 채우겠습니까? 아마 자기 돈 같았으면 아까워서 그같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준 자들이 자기 돈을 다 받아 갈 것입니다. 못 주면 주님은 그 행위대로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성경의 아나니아 짝이 납니다(행 5:1-11). 지금은 성령시대이니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니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모두 일을 할 때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주님은 섭리사 전체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때 안 하면 선생이 해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선생과 관련된 일이고 하늘과 관련된 일이니 그럭저럭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주님의 사명자가 꼭 해야 됩니다. 주님은 “네가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알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는 것은 주님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호리라도 남김없이 깨끗이 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망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계시하시기를 “섭리사같이 자세히 말씀해 주고, 가까이 대해 주며 역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그같이도 깊이 신경을 쓰고, 깊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고, 또 내가 한없이 은혜를 주며 잘해 주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책망하시면서 “만일 이 기간에 끝까지 내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구원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모두 깨끗이 회개하고 청결하게 했는데, 만일 주님이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사망의 냄새가 나서 모두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으니 누가 가까이하겠습니까? 각 교회, 각 부서, 개인들 모두 회개한 자는 마치 더러움을 청소한 것같이 영적 분위기가 표가 나고 화목하지 못했던 일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전 문제, 이성 문제, 교역자가 자기 식으로 다스리는 교회나 개인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들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선생이 여기 있어서 내 육이 못하니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들과 하늘 군대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심판하시며 대행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하고 있습니다.

사탄 편, 회개하지 않은 편에 있으면 그에게는 불안·초조·공포·염려·지옥의 고통이 연속될 것입니다. 선생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 다 들어주십니다. 실행하십니다. 주님 앞에 잘못해 놓고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양심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산 자가 말해 줄 테니 말씀을 들어요.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에서 성령 집회를 마치고 7월 3~4일까지 하와이에서 집회를 한다는 보고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하와이에 미사일을 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7월 3~4일은 하와이가 너무 시끄럽고 불안한데 집회를 해야 되냐고 급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도 하와이에 가지 않았고 그곳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고, 미국은 군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집회 팀들도, 하와이 교회의 교역자들도 걱정이 되어 북한이 미사일

을 쏘겠다는 그날을 피해서 집회를 해야 되냐고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은 이 보고를 받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미사일을 쏘면 독수리 발로 볼 차듯 차 버릴 테니 내가 너희와 함께 정한 날, 7월 3~4일에 성령 집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7월 3~4일까지 하와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하와이에 큰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들은 항상 공포를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사 깨끗이 처리하시고 악한 자들을 주관하십니다. 눈만 깜빡하셔도 거짓된 것이나 사탄이 쓰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독재자보다, 수만 개가 동시에 터지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전능자이십니다. 한 나라가 몇 십 년 동안 만들어 놓고 쓰려던 전쟁의 무기도 다 소멸하십니다.

주님 말씀만 순종하면 다 막아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안막아 주십니다. 주님은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와이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미국 군인들까지 배치되어 모두 걱정했으나, 섬리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악인들을 자기 몸으로 씹니다. 특히 무신론자들과 무력을 일삼는 자들은 항상 전쟁과 싸움을 합니다. 걸핏하면 미사일과 핵폭탄을 들먹이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전쟁’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떠날 날 없이 외쳐 왔습니다.

지금은 영과 육을 지옥불에 사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이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게시자들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이미 말한 것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말대로, 그들이 속으로 계획한 것들을 입 밖에 내뱉은 대로 일을 저지른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1950년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남한은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날에도 잘 몰랐습니다. 앞날을 안다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앞날에 대하여 미리 은밀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려운 날이 온다.**”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계시받은 자가 주님의 계시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야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보고, 또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시키는 대로 해 보았지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며 감동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면 갈수록 더 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집회 때나 주일과 수요 단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하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니 그 말씀대로 절대 행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깨끗이 회개하고 순종해야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마음천국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성령의 큰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충만하기를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7월 22일 수요말씀>

1. 나 여호와와 처음과 나중이다
2. 첫사랑을 찾아라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장 4-5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요즘 정말로 바쁩니다.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시간에 쫓겨서 설교 말씀을 빨리 쓰려고 펜을 잡고 “주님,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급히 물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말씀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주님, 한번 기도 시작하면 몇 시간씩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 수요일 말씀 못 보내겠습니다. 말씀 보낼 시간이 정확히 5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쓴 후에 교정하고 끝낼 때까지는 15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벽 1시 반입니다. 가능할까요?” 했습니다.

주님은 또 “기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썼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이 시간에 쫓겨 이제야 말씀을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꼭 결재할 것이나 어떤 문제 편지들이 와도 그것 먼저 손대지 말고 말씀 먼저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편지가 오면 ‘선생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몇 줄이라도 줄으니 생명 좀 살려 주세요.’, ‘누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옵니다. 기적으로 만났는데 교회에 갈 마음도 없고 자기 갈 길 바쁘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찾습니다.’ 이 같은 편지들이 내게 몰려와 급하다고 빠른 결재를 부탁드립니다.

결재를 하고 답장을 쓰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못 쓸 때가 많아서 설교 쓸 시간을 놓칩니다. 고로 주님은 항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 먼저 받아쓰고, 그 후에 시간이 있으면 결재해 주고 생명을 살리는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야 하는데, 생활 속에서 정말 급한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이 하면 같은 공적인 삶이라도 육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적인 일이라도 뒤로 미루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뒤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새벽은 절대 꼭 쥐고 놓치면 안 됩니다. 섭리사는 새벽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이날,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기도 먼저 하라고 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 3분도 채 안 되었을 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주님은 선생이 이제 말씀 써서 보내기에 늦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니 금방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라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의 근본은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나중까지도 변함없이 대하십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반갑게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진리와 기쁨과 각종 기적으로 대해 주셨듯이 지금도 안 변하시고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떠서 질 때까지 동일하게 빛을 비추고, 뜨겁게 찬란하게 환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만물들을 대하듯이 나는 지금도 처음같이 너희들을 대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나? 주님이 변하셨나?’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에게 오는 편지를 보면 선생이 자기 대하는 것이 변했는지 제일 걱정하고, 더러는 자포자기하면서 편지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섭리를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관리했던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기에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선생이 변했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생의 기대대로 못 해 주어서 예전같이 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음같이 안대해 주면 구원도, 사랑도, 믿음도, 화평도, 이상세계 희망도 이룰 수 없기에 선생의 마음은 처음같이 여전합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편지해 주지 않아도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이 할 일을 못 해서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없이 대해 주는데 너희는 왜 나를 처음같이 안대해 주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께서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 와서 신앙생활 하며 말씀과 은혜의 불이 붙어 하나님을 주님을 애인 사랑하듯 사랑하며 사는 자들을 보면 ‘나도 한때는 저같이 했는데… 나는 이제 나이 먹고 오래되어서 안 돼. 못 하겠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음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같이 하나님 사랑도, 진리도,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뜨겁게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지금도 처음같이 다 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변하여 처음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과 나중이 다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정에 안 맞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었고, 걱정하시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모두 처음같이 다시 생각하며 행해야 됩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 처음같이 해야 됩니다. 못 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선생이 여러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같이 행해야 처음같이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보통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최첨단으로 극적인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희망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믿어 주시는데, 우리가 절대 믿어 주지 않으니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믿고 행해야 표적이 일어나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믿어 주는데, 나를 대하는 자들이 안 믿어 주니 이루어질 것이 깨어지고 안 되어 정말 실망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희망하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수요말씀을 쓰기 전에 너무 바쁘지만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어 기도하니 3분 만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 풀어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처음 사랑하듯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너희를 대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처음같이 대해 주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처음 대하듯 대하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음부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즐겁게 먹고 입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랑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직행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처음 대하듯 대하는 그 신앙만이 ‘천국으로 가는 직행 길’입니다.

처음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믿고 온전한 신앙을 쏟으면서 사는 삶이 희망이요, 기쁨이요, 천국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으니 자기 길로 가서 함정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지옥의 갖은 고통들을 겪는 것입니다. 처음같이 하면 됩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못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섬리사에 오게 되었지요? 말씀 좋고 선생이 좋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안 좋았으면 안 따라 나왔습니다. 말씀 좋아하고 선생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주님도 좋아하게 되어 결국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같이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선생도 마음 변하지 않고 처음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는 마음도 행실도 변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오늘도 여전히. 선생 오해 말고 너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아라.’ 했습니다.

섬리 사람들은 왜 선생을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놓고 선생을 오해하고 자기만 마음고생 합니다. 남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가 오해하여 함정에 빠져서 고생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처음같이 여전히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처음같이 대하지 못해 놓고 하나님과 주님도 자기 맘 같은 줄로 오해하고 ‘주님이 나 버렸다. 나는 희망이 없다.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내 나름대로 섬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늙어도 하나님과 주님은 처음같이 대해 주십니다. 모두 첫사랑을 잃지 말고 처음같이 하라고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 받고 현실에서 그같이 되는 실체를 통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다. 슬퍼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울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느낌으로 오고, 깨달아지고, 그같이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위대한 예수님께서 그같이 눈물을 보이며 우실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이 주님께 말씀을 받았으니 들어 보기 바랍니다.

선생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안나 수녀가 쓴 책에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내용을 보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모두 그같이 느끼고 계시를 받는 것입니까?” 이에 주님은 **“사람들이 어느 때 우는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울지요? 사람들은 어느 때 울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옵니다. 남이 죽은 것을 보면 슬프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기 식구나 자기와 친했던 친구나 애인이 죽으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주먹으로 막아도 눈물이 펄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주고 사랑으로 사 놓은 자가 마귀에게 끌려 사망으로 가서 죽을 것을 보시고 우신답니다. 사망 주관권 멸망의 삶을 좋아하며 살면서 갖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신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몰라주고 그 하는 짓을 보면 불쌍하여 그 근본을 아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주님이 안 우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며 사랑하는데 그 심정 몰라주니 눈물밖에 안 나오신답니다. 아 우리 참아도 눈물이 줄줄 흐른답니다.

그리고 세상 환난이 점점 닥쳐오고,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가오는데 모르고 살기에 마지막으로 심정 태우며 외치는데도 심정 모르고 사니 너무 심정이 타신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울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가니 주님은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몰라주니 그 심정을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신다.’는 계시나, 환상이나, 깨달음이나, 느껴지는 것 모두 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왜 주님은 그렇게 자주 우실까?’ 합니다. 안 믿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울어 주실 때 우리들도 같이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주님의 심정을 느꼈지요? 자기의 눈물은 곧 주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눈물로 생명을 찾고 구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고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모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찾을 때 울면서 찾으러 다니면 자기 자녀에게 사고가 난 것 같고 이미 죽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찾으러 다니면 자기 자녀가 기쁨으로 할 일을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인을 찾는 자가 애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찾지 않고 끌어안고 대화합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안 보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걱정되어 찾습니다. 찾고 찾았는데도 없으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슬픔으로 찾습니다. 나중에는 울면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걱정되어 부르니 이미 타락해 버렸습니다. 선생도 안 보이는 자가 있어 걱정되어 불러 보면 이미 타락되었거나 다른 자와 키스하며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양심에 꺼려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울면서 찾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 것이 다 크고도 큰 죄입니다.

선생도 안 보이기에 찾아보면 꼭 다른 자와 둘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이미 끝났고, 어떤 자는 사귀고만 있고, 어떤 자는 자기 위로자를 삼고 있고, 어떤 자는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서 끝납니다. 돌아와도 그렇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복직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대신 갚아 주겠습니까? 복도 아닌데 누가 대신 받겠습니까? 돌아와서는 세상에서 놀 때를 저주스럽

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주님이 찾으실 때 웃으면서 사랑으로 찾게 해야 됩니다. 슬픔으로 찾든지, 울면서 찾든지, 책망으로 찾든지, 노여움으로 찾든지, 걱정으로 찾든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대하면서 찾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 배, 만 배 더 속을 태우셨습니다. 구원자를 그같이 대하면 무슨 기분으로 돕겠으며 무슨 기분으로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선생도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원해 놓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가서 그 귀한 몸을 더 바치고 드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너 평생 후회할 것이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으니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계시받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다 계시만 받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몇 사람이 받으면 같이 들어야 됩니다. 계시받는 자들을 위해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안 옵니다. 계시를 받아 선생에게 보내는데 마치 책같이 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선생이 그 내용을 받아서 주일예배 때나 수요일예배 때 전해 줘야 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받을 때는 주님께 자잘한 것은 묻지 말고 섭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나, 덕을 세우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온종일 받아써야 됩니다. 계시받은 내용을 보면 너무 길어서 끝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단상에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전해 줘야 됩니다.

부흥강사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기에 계시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내면 듣는 자가 힘들어서 감당을 못 합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설교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로 나뉘어서 전하되 핵심들만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기가 깨닫는 계시로서 기도하면 다 받게 됩니다. 어떤 자는 주님께 계시를 달라고 하니 ‘말씀으로 이미 다 나갔다. 수요일, 주일, 새벽말씀으로 다 나갔다. 너희에게 계시하는 것들도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미 말씀으로 다 나간 것이다.’ 하고 주님이 계시하셨답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편지가 많이 오기에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집회 때는 찬송을 부르고, 부흥강사가 설교를 하고, 기도까지 하면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계시까지 전하면 30분만 말해도 3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계속해서 새로 나와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으로 하듯이 해야 복직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같이 대하십니다. 의식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제 갈 길 가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생이 자기를 잘 대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서운해서 자기 갈 길 갔다고 합니다. 더 큰 죄를 짓는 자입니다. 자신이 처음같이 안 해서 점점 그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들을 웃으면서 찾게 해야 합니다. 눈물로, 슬픔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찾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 안 보이거나 두문불출할 때 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역자도 일반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두문불출할 때 이성 문제가 있었든지, 세상에 빠졌든지, 자기 주관에 빠졌든지 했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였기에 엄청난 경제의 피해를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갖은 고통들을 받았습니다. 그같이 하여 물질 손해를 보았기에 어떤 자는 사명을 박탈당했습니다. 자기도 손해를 보고, 섭리에까지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최고 좋아하는 대상은 늘 주님 옆에서 대화하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걱정 끼치지 말고, 나를 슬프게 하지 말고, 내가 눈물 보이지 않게 하여라. 나를 처음 사랑으로 대해라.”** 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선생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변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선생도 질렸습니다. 다시 신임하도록 무엇인가 보여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과 믿음을 모두 복직해야 됩니다. 신임을 잃은 자들은 다시 찾도록 이제 10배나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첫사랑과 첫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말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변하면 본보기 사람은 못 됩니다. 첫사랑이 변한 자에게 주님은 “너도 저 사람같이 하여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주님은 첫사랑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자들을 가리키시며 “너도 저 사람같이 하여라.” 하십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 억울함, 누명, 미움을 받았어도 오직 첫사랑을 간직하고 온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저 사람을 보아라.” 하시며 큰 사명을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온 세계 각 나라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받아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모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 약 네 시간 만에 교정까지 다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시간적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맞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재림을 맞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를 못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 선생이 절대 내 말을 듣고 행하듯 해야 표적이 일어나 나의 재림을 급히 준비하여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행함으로 나를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은 자도 말씀을 듣고 오로지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해야 겨우 복직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선생은 한 시간 동안 세 군데에 보낼 말씀을 또 써야 됩니다. 내게 편지를 쓴 자들이 ‘왜 내게는 답장이 없지?’ 하지만, 선생은 안 먹고 잠을 안 자 가면서 해도 다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집회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조은이 강사는 내 심정을 꺾어 봐서 알기에 한마디 계시라도 해 달라고 몇 번이고 간구했습니다. 전복 생방송 말씀입니다. ‘한마디 계시라도 해 달라.’는 그 말을 듣고 ‘너는 내 심정을 잘 알아. 그리고 많이 컸다. 전에는 설교를 써서 줘야 했는데, 이제는 한마디 계시를 가지고도 주님의 심정을 맞춰서 외치고 다니니 내가 하듯 하는구나.’ 했습니다. ‘선생같이 되면 만족한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마10:25).

선생도 주님의 한마디 계시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하여 계속 계시를 받으면서 말씀을 씁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마디 계시가 전체 말씀이 되도록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천 마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계시받는 자들이 풀어서 받으면 20쪽, 30쪽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니 계속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선생도 긴 편지 안 합니다. ‘알았다. 나도 변함없다.’ 합니다. 문제 있는 자들은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하니 골치입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좋아서 내 심정을 아니 긴 사연을 전해 주며 대화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끼리 말하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러니 말을 잘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서 쓰는 자들은 제대로 쓰고 정확히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읽는 자가 계시를 잘못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시가 길면 안 되니까요.

<2009년 7월 26일 주일말씀>

이기는 자, 그 대가와 축복

본 문 요한계시록 3장 4~5절, 12절, 21절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

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요즘 새로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기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옳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 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보여 주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저 역시 아무리 지난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갔던 일이 최고 역사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안 믿었으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기에 그것이 표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러 온 것이 영원한 기적이에요,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하며 살아온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요. 모두들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자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도자도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고통 받는 세계로 가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이상의 세계, 생명의 세계인 천국에 가도록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참으로 표적입니다. 이를 깨닫고 그 가치를 최고의 참단으로 크게 알 때 더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돕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복한 길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 영생을 얻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도록 이곳으로 왔으니 얼마나 기쁘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현재는 삶이 기쁘고 여러 가지를 누리며 쾌락 속에서 먹고 즐긴다 해도 결국 멸망과 고통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이라면 웃을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 주를 믿으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 세계를 생각하면 슬퍼할 일이 아니고 울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에도 나와 있지만, 행복이란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원곡을 배워서 전해 주어 여러분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말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인생길로 가면서 주님이 맡긴 일을 하니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니 어려울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위로해 주고, 구름같이 쫓고, 배고플 때 굶지 않게 해 주고, 웃도 사 보내 주고, 아껴 주니 행복합니다.

내가 이 같은 일을 당하여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여도 악한 자들이 하는 것임을 알고 한결같이 믿어 주고 따라오니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귀한 말씀 받아 주니 행복하다며 따라오니 행복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인생길을 물으면서 선생으로 모셔주니 행복합니다.

주님은 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어려울 때 능력으로 함께하시지, 성령님은 불같이 역사하시며 감동시켜 주시지, 온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제자들이 선생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 주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세계적인 구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시고 살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극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귀한 자를 만나게 하여 전도하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시간을 빨리 가게 하여 지겹지 않고 오히려 아쉽게 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사람이 잠만 자도 지겹고, 놀기만 해도 지겨운데 선생은 날마다 희망에 차 밤낮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안 가서 지겨우면 어디 있어도 지옥의 삶입니다.

이 같은 곳에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 행복하지요?” 하니, 주님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을 알고 사는 자야. 행복한 사람이야.”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요즘 새로 오신 신입생 여러분, 모두 기적의 행복에 싸여서 왔습니다.

‘행복의 노래’는 비단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르면 은혜가 충만하

고 행복을 깨닫게 되어 주님은 그 가슴에 행복을 더욱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를 깨달을 때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주님께 받은 노래 중에 눈물 없이 받은 노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곡을 주실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노래만 보입니다. 눈물과 함께 노래가 흘러갑니다. 모두 ‘나는 행복하다.’를 불러 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신입생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도 선생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행복을 깨달아야 누린다.**” 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신입생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 예수가 이 같은 말을 하면 새로 온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들어보아라. 그 긴긴 역사가 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가까이 왔다. 바로 너희가 말하는 말세, 곧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그렇다고 한두 달 남은 것은 아니다. 1년을 마치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 너희들의 삶을 위해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늦게 왔으니 일찍 온 자보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일찍 온 자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 된다. 오래되어서 단단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빨리 뛰려면 절대 내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지체 말고 믿고 행해야 된다. 열심히 감행해야 된다.

앞으로 온 세상에 환난이 몰아닥친다. 이 환난기 때 너희는 신앙으로 태어났다. 어서 단단하게 커라. 내가 너희와 더욱 함께할 것이다. 헛된 말,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자들과 악평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아라. “여기 이단이다. 이상한 곳이다.”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나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같이 성장했다. 이곳은 말씀으로 신앙을 빨리 성장시키는 곳이다.

어서 뛰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자. 이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피난 가는 자들같이 긴장하면서 서둘러 행해야 된다. 항상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오늘도 내 말을 설교로 하니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모두 들었어요? 이제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겨라’입니다. 이겨야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모든 일들을 이겨야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도 그 영이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아직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시어 기록하게 하였고, 이 시대 이 주일에도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며 “내가 계시하는 대로 기록하여 섭리세계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의 선한 행실이 곧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 즉 믿는 자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착한 행실보다 더 큰 것은 ‘**주 안에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주님을 믿지 않으면 착해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평생 어린아이같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지옥사자들에게 지옥 간 자들의 영혼들이 “우리는 종교 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왔습니까?” 물으니, 지옥의 사자들이 하는 말이 “이놈아. 상식을 묻느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야 될 이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흔히 착하게 살았으니 “우리는 천국에 간다. 좋은 영혼의 세계에 간다.”고 하는데, 죽은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됩니다. 선한 영계가 있기는 하나, 그곳을 잠깐 거쳐 결국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선한 영계는 대기소에 불과합니다. 똑똑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모두 겪어 봤지요? 극적으로 괴로울 때, 극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조금씩 지옥의 고통을 겪어 본 것입니다. 천국도 겪어 봤지요? 극적으로 기쁠 때, 극적으로 좋을 때 천국을 겪어 본 것입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살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주님을 애인보다 훨씬 더 사랑하며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애인을 두고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애인이라면 애인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줘야 됩니다. 더구나 자기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를 절대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 공적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을 떠서 꿈속에서나, 기도 중에나, 비몽사몽간에 희고 깨끗한 빛난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이나 천사나 영들을 봤습니까? 본 사람들은 손들어 봐요. 한번 뒤로 돌아봐요. 모두 손을 내리고 본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못 본 자들도 보게 해 줄 테니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 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때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물어보지요? 이에 주님은 “그래, 있다.”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다가 자꾸 물어보면 “없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흰옷을 입었는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요?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 대화할 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이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기라고 하니 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가 떠오르고 싸움이 떠오를 것입니다. 운동이든지, 싸움이든지 이기려면 강해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힘이 센 자가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치고 박고 때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행실을 함으로 강한 마음과 행실로 세상과 마귀에 속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격이 황소나 코끼리같이 크지 않아도 되고, 운동선수처럼 단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니 정신이 정말로 강해야 됩니다. 강한 정신으로 실천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끝까지 가면 의로 이기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각자 이기는 데 있어서 체구는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지요? 정신이 있지요? 그 마음과 정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싸움을 하여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로서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시며, 또 다른 센터로 보면 상천하지 영계와 육계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통치하시고 마귀와 악마도 다 통치하십니다. 만일 마귀를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마귀가 천국도 침범하고 지옥에서도 나와 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천국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가 세상

을 구하라고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절대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이긴 자입니다. 지금의 자기 체격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체격이 작아서 못 믿겠다. 체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나이가 어려서 못 하겠다. 마음이 어때서 못 믿겠다.’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된 자들이나, 오늘 새로 온 자들이나 그 체격과 체력, 그 마음과 그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안 믿는 것보다 만 배나 더 좋습니다.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만 배만 더 좋겠어요? 억 배, 조 배나 더 좋지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체 되어 살면 사탄과 싸워 보지도 않고 사탄을 이긴 자가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천적입니다. 악질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해를 주고 병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무섭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을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갇은 고통을 주며 지옥 불바다, 그 뜨거운 쇠물 속에 넣고 펄펄 끓는 쇠물을 우리에게 퍼먹이며 수백 가지로 고통을 줍니다. 그 사탄 마귀를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누구든지 이놈의 악질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믿는 자들을 꼬이고 유혹하여 결국 못 믿게 만듭니다. 이들은 보다 악한 자들을 통해 악평하고, 이단시하게 하고, 갇은 누명을 씁웁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자는 걸만 사람이지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행하기에 마귀같이 갇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의로 담대하게 싸우고, 성령의 능력과 공의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마귀의 말이니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이깁니다. 주먹 싸움해서 이기거나, 어떤 욕을 같이 하고 큰소리치며 무력으로 대항하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말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견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게 해 주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 편은 기껏 마귀들이나 돕고 악한 자들이나 돕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선한 자만 도우시고, 선한 자의 기도만 들어 주십니다. 주님도 동일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안 보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발악을 하면서 꼭 기도를 방해하려 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담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계에 깊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인생 삶 속에서 마귀에게 지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 중에서 최고 힘써 하는 짓이 있으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싫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는 악마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자는 것입니다. 이 악질 마귀들, 그 얼마나 끔찍한 자들입니까?

마귀는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영이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꼬이고 방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군인들이 몰려다니듯이 다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모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결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필요성을 몰라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서 안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불교는 석가를 믿게 해 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게 해 줍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해 주고, 감동받게 해 줘야 따라 믿게 됩니다. 말씀을 믿게끔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석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외에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천국이 아닙니다.

열두 살 때 스님을 만나 물어보았을 때도 천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친다고 하며 ‘착해야 된다.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에 간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천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세상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세상의 세계, 곧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욕신을 쓰고 태어난 자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만들고,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이치에 맞는 말 같습니까? 천국에 있는 자가 천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를 믿게 하고 그가 천국으로 데려 감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살던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욕신을 쓰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고 인생들을 구원시켜 그 영혼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톨스토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길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한국 불교의 큰 대사였던 유명한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나는 인생길을 잘못 왔다. 내가 믿을 자를 잘못 선택했다.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그가 죽기 전에 지옥의 영계를 갔다가 지옥의 사자들을 보고 와서 한 말입니다. 지옥에 가보면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으니 모두 보세요. 인생 다 살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천국에 가는 생명길을 깨달으면 뭘 합니까? 그 글을 보는 자들에게 거울이 될 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은 고통스러우나 미래가 있는 종교이고, 불교는 현실 종교입니다. 종교를 잘 택하고 인생의 싸움을 해야지, 잘못 선택하고 선한 싸움을 해 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교, 회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침례교 등 각종 교파가 많습니다. 잘 택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잘 고르고 좋은 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참외 씨를 심고 수박만 하게 크게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름을 하며 땀 흘려 길러도 참외를 수박만 하게 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씨를 잘 골라서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택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제대로 신앙을 넣어 주고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토끼 새끼를 사다가 아무리 잘 먹이고 사랑해 주며 큰 농장에 길러도 결국 토끼만큼밖에 못 큼니다. 사슴 만하게 기를 수는 없습니다. 아예 종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섬겨야 할 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 지도자도 잘 골라야 됩니다. 또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구원도 이상적으로 얻을 수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을 믿으면서 악평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그 종자가 마치 참외와 같고 토끼와 같아서 아무리 수고하고 키워도 더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박과 같이, 사슴과 같이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오면서 다른 종교를 혈뜰고 악평하지 않았으며 이단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그러합니다. 이기는 데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22절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 5:21-22)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을 견학하고 온 자들도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이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나라 지

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지 말씀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야 이긴 자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며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형제를 위해 살아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절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일편단심 끝까지 참고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이긴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해 주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형제들을 통해 갖은 누명을 씌우고 악평하며 중상모략 해도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믿고 선생을 따라온 자는 이긴 자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딘 자는 이긴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끊임없이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고 사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성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성애 빠지지 않고 이성애 깨끗이 사는 자는 이성애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는 남녀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묘하게 역사하면서 우발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이에 빠지지 않은 자, 속지도 않은 자는 이성의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 자입니다.

어떤 자는 아직도 마귀의 주관권을 받으면서 주님을 배신하며 성적 행위를 못 끊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사랑을 못 끊겠다.”고 하며 남자를 따라갔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을 버리고 여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성적 사랑은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주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면서, 때가 되면 결혼해서 하면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다루고 주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빠지거나 끌려 살면 물질과 재물로 진짜 패한 자입니다. 돈과 물질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예에서 이겨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는 죄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깊이 하는 자는 기도로 이긴 자입니다. 성경을 매일 볼 만큼 보는 자는 말씀을 읽는 데 이긴 자입니다. 근신하고 시간을 아껴 신앙으로 쓰는 자는 시간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과 싸워서 다 이겨야 합니다. 어리다고 못 이기고 큰 사람이라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과 같이 일체 되어 능력으로 이기고, 기도하여 이기고, 지혜로 이기고,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4-5).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그 기둥에다 그 이름을 새겨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12). “이기는 자는 주님이 예비한 보좌에 앉게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21).

노아·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다니엘·모세·여호수아·다윗·에스겔·에스더·모르드개·기드온·엘리아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주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마귀도 이기고, 악한 자도 이기고,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도 다 이기고, 이성으로 유혹하는 자들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앞에 천국과 지옥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겨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자기 앞에 싸울 것이 자기만큼만 오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해야 이기는 것이니

결국 자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겼습니까? 참고 견디며 선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긴 자들입니다. 주님을 절대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이겼습니다. 지면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섭리를 악평하고 이단시하며 중상모략을 하고 선생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거짓 음모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 세상과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을 싸워 이겨 왔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지옥의 사자들에게 꼬임 받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갖은 고통을 준 자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의 몸이 되어 그렇게도 오랫동안 쓰여진 자들은 그 주관을 벗어나려면 정말 오랫동안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 왔듯이 오랫동안 몸부림쳐야 그 악마들을 벗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마귀들이 귀히 사용하고 자기 군대로 삼던 몸들이라 쉽게 놓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데 쓰였던 마귀들의 몸보다 그동안 핍박받고 고통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쓰였던 우리들이 결국은 나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마귀들이 악한 자들의 몸을 쓰고 너무나도 괴롭히고 마치 전갈이 쏘는 것같이 갖은 고통을 주니 ‘차라리 저들에게 가서 고통을 받지 말자.’ 하며 그들에게 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6.25 남북전쟁 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게 괴롭히니,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북한 공산당을 따라간 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곳에서 50년 이상을 생지옥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 빛나게 하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여 하나님도 천사들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몰라주고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고,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7월 29일 수요일말씀>

빼앗기지 말아라

본 문 요한계시록 3장 11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성령 집회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술단이 함께 모여 더욱 하나 되어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케 하려 합니다. 또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전체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행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더욱 한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환난이 닥쳤던 때와 그동안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며,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더욱 영력 있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과 악마들은 악한 자, 무지한 자들과 함께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통함과 비통함을 당하고 한숨 쉬며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때에 조금도 해이해지거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마들과 우리를 괴롭힌 자들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철강같이, 영웅같이 정신의 무장과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마들을 경멸하고 행악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여 초개같이 불태워 소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정신일도 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며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모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육적인 것은 이길 수 있어도 영원한 세계의 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악마의 세력은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는 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사망에서 나와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격하며, 뜨거운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 일체 되어 절대적으로 주와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뱀을 설죽이면 또 살아납니다. 간신히 잡은 뱀, 자기 몸을 감고 갇은 고통을 준 뱀, 목숨을 빼앗아 버리려던 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어 간신히 벗어나,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고 주님이 함께하시어 자기 다리통만 한 뱀을 잡아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겹으로 자기가 뱀을 찌르고 죽여야 합니다. 다 죽어 가는 그 뱀을 놓고 그냥 가면 뱀이 다시 살아나, 또 집이나 생활지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몸을 칭칭 휘감고 목을 물고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예 이렇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 주시니 어서 이놈의 뱀을 동강 내서 죽여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뱀을 보면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동강동강 끊어 놓았습니다. 산 채로 목을 자르거나 몸통을 잘라 버리고 끝장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뱀과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탄을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꿈에도 사탄을 뱀으로 계시합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3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악질들을 잡아서 공공 묵어 무저갱에 집어던져 잠그고 천 년 동안 못 나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 20:2-3)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속이 시원하지요? 우리도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탄과 싸워 이겨 이와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뱀의 허리를 꺾고 악한 자들의 허리를 꺾었을 때 ‘뺏다’ 하며 끝내지 말고, 특히 과거 10년 동안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악한 괴물을 불사르고 모래알만큼도 남김없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멸하고 악인을 멸해야 세상은 천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악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물려나지 않고 싸울 때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면 즉시 오시니까 이를 알기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고로 끝까지 불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계시를 받으려면,

첫째, 자기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멸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육성으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 사탄은 자기 육성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를 보면 가슴 속에 큰 뱀이 보입니다. 그 뱀은 검은 마귀입니다. 꿈쩍합니다. 기도하여 물리치면 나갑니다. 자기의 육성이 죽어 장사 지낸 바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육성이 강하거나 자기 육성이 죽지 않으면 계시를 못 받습니다. 받아도 사탄의 계시를 받습니다.

제2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잠을 잘 때는 자기 영이 활동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육신이 잠을 안 잘 때도 자기 육성이 죽어 육적으로 생각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면 영이 활동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어느 때는 주님을 만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육성이 살아 있을 때는 계시를 받아도 겨우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는 계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먹어야겠다.

입어야겠다. 놀아야겠다.’는 계시를 받거나,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계시와 이성의 계시가 마음으로 옵니다.

육성이 살아 있으면 물질의 계시, 각종 음욕과 욕심의 계시, 미움의 계시, 음모의 계시, 지극히 별것도 아닌 계시들을 받고 마음이 동하여 몸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육성이 죽고 영으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일생 동안 살아야겠다.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야겠다.’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신앙에 속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갈수록 깊은 계시들을 받는데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전도하여 지옥으로 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다.’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또는 자기가 주님께 칭찬 받는 계시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계시들이 머리에 들려오고 마음에 깨달아져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는 이 같은 계시들은 참된 계시들입니다.

이같이 참된 계시를 받고 실천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으니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 하게 됩니다. 계시를 잘 받았어도 가는 중에 또 자기 육성이 살아나니까 육신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계시를 받아도 육성이 살아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안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육신을 죽이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롬 8:12-14)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전 15:31-34)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육을 위해 하면 육적인 삶에서 끝납니다. 영의 생각에서 행한 것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에서 행한 것은 사망입니다. 온종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 봐요. 꿈도 그에 해당되는 것이 꾸어집니다. 좋은 꿈과 좋은 계시는 좋은 행실에서 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그냥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여라.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마귀가 너와 나 사이에서 있다. 그것을 먼저 처리해. 기분 나쁘니 네가 빨리 처리해.” 하십니다. “주님, 없애 주세요.” 하면, 주님은 “네가 충분히 없앨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없애 달라고 하느냐. 쓰레기 같은 마귀, 썩는 인분 같은 마귀들을 없애라.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싸워. 내 이름이 검이다. 폭탄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다가 우리가 지게 생겼으면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검을 주어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기면 “잘했다. 사탄을 사탕같이 입에 넣고 녹여 없애듯 싸워 녹여 없애라.” 하십니다. 사탄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전주도 사탄과 잘 싸워 이겨요. 기도해 주세요.

사탄들은 몸을 아프게 하며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병마입니다. 악질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과 주님은 그때 대화하십니다.

“잘했다. 이겨야 돼. 담대해. 늘 아기같이 나만 붙잡고 해 달라고 하지만 말고 지옥사자하고도 싸워야 된다. 내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담대하면 다 이긴다. 저놈의 마귀 악마가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지한 자들과,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해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하는 일을 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 싸워 이겨야 된다.” 하시며,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준비가 되고 해당이 되면 계시하십니다.

선생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 말해 주니, 이를 믿으면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세계 각 나라에 계시를 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음으로 다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고 느끼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기도하며 마귀와 싸워 이긴 후에 주님께 직접 계시받은 자들이 전해 주는 계시를 통해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외치는 자를 통해 계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음으로 모두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는 자들을 통해서는 나라마다 들어야 될 계시를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었고, 그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해당되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

신 것을 합하면 책으로 수십 권이 될 만큼 해 주셨습니다.

선생에게 직접 보내 준 계시들도 모두 읽어 보고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혹은 성령님, 혹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용들은 계시를 받은 자들이 다 전하지 못하니 교단과 집회 강사에게 지시하여 두고두고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니 그 얼마나 새롭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일입니까? 계시받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전하고 또 전하게 할 것이니 기다려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압니까?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돈이라도 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계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선생 편지를 통한 주님의 계시도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읽어 보면 모두 한결같이 진지한 말씀이었습니다. 간절한 애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간곡한 계시를 주시면서 “꼭 전해야 한다. 선생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니 안 믿고 마귀인 줄 알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진땀을 빼시고 심정 태우시면서, 그래도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하니 끝까지 서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다. 정말 믿어라.” 하고 애태우시며 계시를 전해 주었다고 주님은 나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 애들이냐고 물으니, 주님은 혼내지 말라고 하시며 전주 스타교회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주 스타교회 애들은 선생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사탄 아니냐고 하며 손의 못 자국까지 보여 달라고 하기에 결국 보여 주고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정말 주님이신지, 손의 못 자국을 보여 달라고 하라고 했지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계시받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 때문에 전지전능한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섭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람들은 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정말 알아주기를 원한다. 정말 알고 믿으면 힘도 안 들고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시 중에는 “제발 나와 같이 대화 좀 하자. 왜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끝내느냐? 평소 때는 왜 나와 대화하지 않느냐? 너희와 통하지 않으니 내가 늘 혼자 있어 얼마나 쓸쓸해하고 외로워하며 울고 슬퍼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아픈 마음도 알아 달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영적으로 어리니 자기가 궁금한 것만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사탄인지 아닌지 계속 물어보니까 주님은 계시를 주실 때까지 더 애간장을 태우시고 심정을 태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심정을 털어놓으시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실까? 우리가 마음 몰라준다고 정말 우실까?’ 의심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온 인류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을 믿다가 버리고 간 자들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섭리사로 인하여 상처 받은 일과 세상으로 인하여 상처 받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심정 말로 다 할 수 없기에 우시는 것인데 그 심정을 모릅니까? 전체가 주님의 심정 알라고 선생이 알고 전체에게 말해 주니, 각자 이를 깨닫고 알고 주님을 대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예전같이 “내가 곧 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꼭 온다. 사실이다.” 하십니다.

주님은 “환난이 시작되었는데 왜 실감치 못하느냐. 너희가 죽어야 알겠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느냐. 지금도 또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극한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마귀들과 악한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더 고통을 받아야 환난으로 생각하겠느냐. 지금도 너희 선생과 너희는 환난 중에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재림 때문에 너희가 받는 환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온다. 참고 견디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가 영혼이 죽어 영영 끝날 것 같기에 내가 친히 와서 함께하여 섭리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고 살아나게 하였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 때 한없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었다. 이 성령의 불로 영도 육도 툇튼히 하여 다시는 사탄에게 잡혀 종노릇하지 마라. 온전히 나와 일체 되어 살라.”고 하셨습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에도 주님은 선생을 세워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왔다고 하며 따라 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마지막 재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강림하셨지요. 여러분들은 보았지요. 주님이 같이 살고 계시지요. 하지만 마지막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한다는 그 재림은 아닙니다. 마지막 재림 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 맞으라고 신부들을 준비시키러 오셨습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의 재림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오시는 재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땅의 역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재림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높은 하나님으로만 보느냐. 나를 사랑하면서 왜 나를 진지하게 찾지 않느냐. 왜 애인같이 대하지 않느냐. 왜 가까이하지 않느냐.”** 하시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 하는지 아느냐. 왜 기도만 하고 끝내느냐.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니 꼭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엄마 품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셨으니, 꼭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하지 않게 해 드리며 믿어야 되고 속 썩이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애간장 태우지 않으시도록 해 드리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일체 되어 기쁨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섭리사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재림에 대하여 혼동하는 자들이 있기로 주님을 직접 만나 계시받는 자가 선생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선생은 내가 사명자로 보낸 자가 맞다. 내 육과 같이 썼다. 지금까지 선생을 쓴 것이 맞다. 참이다.”** 하셨습니다.

또 묻기를, “정말 선생님이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잘 지내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못 보니 선생님이 잘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걱정됩니다. 주님이 꼭 말씀해 주세요.” 했답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 선생은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며 너희를 위해 말씀을 받느라 정신없어서 죽기 살기로 한다.”**고 했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곳에 못 가니, 내가 범사에 가서 너희 선생을 대한다. 너희는 기도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계시받는 자들을 통해 섭리 사람들에게 네 기도 많이 해 주라고 하였다. 또 내가 너 있는 곳에 자주 가고 늘 살피 주니 걱정 말라고 계시해 주었다. 그리 알아라.”** 하셨습니다. 정말 끔찍이도 챙겨 주시니 감격했습니다.

주님은 신인데도 지칠 정도로 행하십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의심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행하십니다. 그 심정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계시 못 받았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잘 대해 드려야 합니다.

어떤 자는 집회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불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하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안쓰러워서 선생이 답장해 주기를 ‘그것만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여라.’ 했습니다. 선생이 계시해 주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기에 ‘그럼 열심히 전도하여라. 지금 전도하는 것도 실상 큰 은혜다.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는 교단에서 결재받을 것과 계시받는 자들이 계시받은 내용만 교단에서 확인하고 보내 주도록 해요. 일반 편지는 주님께 구하여 각자 기도로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련회 때라 말씀 쓰느라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절대 편지 답장 안 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편지하면 영적인 자들이 되니 더 좋습니다. 선생은 일이 밀려서 편지를 읽어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자는 편지가 안 가니까 그제야 깨달을 것입니다.

선생이 주님께 “편지는 많이 오는데 안 읽으면 주님께도 죄가 되고, 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 주님은 **“읽어 보기만 하고 기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일일이 다 기도해 줄 시간도 없고, 편지를 읽으면 머리만 아픕니다. 거의 다 머리 아픈 편지들입니다. 세계 여기저기에서 가끔 한 장씩만 편지해도 산더미같이 오는 것을 섭리 사람들이 모르니 주님이 모두에게 계시해 주세요.” 했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대답하니깐 자꾸 편지가 오는 것이다. 아예 대답하지 말고, 이야기 다 들어 보고 마지막에 결론짓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면 다 받아 보다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전체에게 편지해 주려고 합니다. 대개 자기가 할 일 못 해 놓고 선생에게 다 떠밀어 버립니다. 선생이 밖에 있을 때는 찾지 않고 지금 찾는 자들도 많아요. 기도로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편지 써서 보내지 마요. 알아서 할 일까지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선생과 직접 통하려고 선생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니 너무 많습니다. 교단에 보내서 선생이 처리할 것이면 교단이 선생에게 보냅니다. 각자 알아서 편지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선생에게 짐이 되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현실에서 직접 겪는 일이고 선생이 여기서 볼 수 없는 일까지 선생에게 물으니 답답한 자들입니다. 교단에 보내어 분류해야 합니다.

선생은 주님께 계시받아 그 말씀을 전해 주고,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선생 몸 관리도 해야 됩니다. 편지가 산같이 오니까 여기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선생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섭리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오죽이나 답답하실까 생각하니 그 심정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반드시 교단을 거쳐서 보고서를 보내야 선생이 이중 삼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말씀 보내 달라고 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에서 뽑아서 깊이 전해요. 그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모르면 실력자로 교체합니다. 부흥강사처럼 선생의 핵심 말씀을 빼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동안 깨달은 것과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고 영감 주신 말씀을 강하게 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줘요.

어떤 대표 지도자들은 충분히 자기가 해도 되는 하찮은 것까지 몇 장씩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 봐야지요. 동시에 7~8개 집회를 하니, 집회하는 곳마다 일일이 말씀을 다 써 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써 줍니까?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귀히 여기고 핵심 내용을 뽑아서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통해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압축하여 말씀하겠으니 깊이 들어요.

주님은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뺏기지 말라고 했지요? ‘각자에게 준 면류관’입니다. 이는 사명으로 인한 면류관들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영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계시받는 면류관, 전도로 인한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각종 축복의 면류관, 영의 흰옷의 면류관, 그리고 시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감사의 면류관, 전도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못 하면 빼앗깁니다. 사탄이 빼앗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빼앗기기도 하고, 주님도 빼앗아 가십니다. 이 성에게 사랑을 빼앗기면 사명도 빼앗깁니다. 회개해야 복직됩니다. 거듭 이성의 타락을 한 자에게 주님은 **“장기간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랑의 몸을 사탄의 꼬임을 받아 하와와 아담같이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으로 오시는데 사랑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가을에나 여름에 과일을 보러 오는데 누가 과일을 따 가 버렸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과일나무의 과일을 도둑놈들이 따 가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참새 쫓듯이 쫓고 안 주면 얼마나 안 빼앗깁니다. 안 주면 사탄은 하와를 꼬였듯이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꾀니다. 안 믿는 자들은 물질로 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며 명예나 여러 가지로 사람을 통해 꾀니다. 그들은 사랑과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꼬임을 당하는 자들을 쳐다보시고 심히 안타깝게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자는 평생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피눈물 흘리며 돈을 벌었는데, 누가 3~4배 남길 수 있다고 하니 꼬임에 넘어가 돈을 쥐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날려 버립니다. 다시 벌려면 그때는 늦습니다.

섭리사를 보면 선생의 이름을 대고 꼬여서 돈을 가져간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쓸 필요도 없는 곳에 자기 생각대로 씁니다. 그래 놓고 “선생님이 잘되는 일이니 믿어라.” 합니다. 돈을 써서 뭐가 잘됐습니까? 그들은 돈에 미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한강에 오리 알 던지듯 필요 없이 그 돈들을 썼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 없이 돈을 쓴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계시하는 자들에게 **“속 터지는 일을 해 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날같이 이야기하는 선생을 통해 모두 말하여 알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말해도 물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 위해 쓸 돈 있으면 헌금해요. 믿습니까? 생명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10배, 100배 유익하게 써야 됩니다.

신앙으로 얻은 은혜도, 성령도, 방언도, 새벽기도 시간도, 하늘 영적 시간도 모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깊은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숨넘어가는 소리 하니까 돈을 주고, 사랑도 허락하고, 어떤 일도 악착같이 한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고 나면 실상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한 것을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해 봐요. 그때 그 순간은 꼭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행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면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 결론짓고 행했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지나고 보면 쓸 필요 없는 데 쓰고,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때 그 분위기로 봐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지나고 보면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보고 파악한 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같이 하면 돈도 시간도 손해 안 갑니다.

그동안 마귀가 사람을 쓰고 꼬이는 일이 많았고, 선생의 이름을 이용하여 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무지한 만큼 사용했습니다. 제발 무지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로 선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니, 마귀들과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용해서 꾀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전치 못한 것을 이용하여 일하면 큰일 납니다. 섭리사에서 인정받는 자들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선생의 이름, 섭리사에서 인정받은 자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일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선생에게 결재받았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걸리면 사명과 직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걱정되어서 “너희 선생의 일이나 어떤 일을 돕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돈도 주지 말아라. 오직 나 예수께 부탁하고, 돈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로 내게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빼앗기지 말아요.

누가 ‘섭리사 어떨다. 선생님 저렇다.’고 나쁜 말을 하며 꾀어도 그 말을 듣고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나쁜 말이나 나쁜 계시는 다 중단시키고 좋은 계시만 허락했습니다.

건강도 빼앗기지 않게 운동하고 기도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주님께 묻기를 “선생님도 사랑해도 돼요?” 하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럼 선생을 미워해야 되겠냐?” 하셨습니다.

정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주님의 것이니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한 생명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일할 때도 뱀을 설죽이듯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뱀을 잡아 놓고 반드시 동강 내야 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악평만 보고 섭리 사람을 끌어내는 사탄 나라 666 수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면 사망으로 갑니다. 주님은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니 거기 따라가는 자는 지옥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쓰이다가 사탄의 세계로 갈 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자들을 끝까지 잘 다뤄야 됩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쳐들어오는 적을 다 쫓은 후에 “이제 됐다.”하고 부대가 잠을 자는데, 적들이 또 철조망 넘어와 공격해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끝장을 낸 후에 그때 쉬어야 합니다.

모두 일일이 편지 못 하니 영계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어 다시 구원을 빼앗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구원을 빼앗기면 다시 찾지 못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어 다시 얻게 되었으니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성에 관한 것도, 다른 것도 창자가 나오도록 회개하였기에 겨우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빼앗기면 어렵다.”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빼앗기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남에게 마루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역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자들과만 통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뒤에서 열심히 하는 자들과 소외감을 타고 있는 자들을 품어 주어라. 그렇게 안 하면 소외감 받고 찬밥 취급당하는 자에게 선생을 통해 비밀로 큰 직책을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같이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단에서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의논 없이 하기에 교단의 모든 일을 그 목사에게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찬밥 취급당하는 자를 통해 선생에게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교역자에게 사명을 주면 그 사명으로 서로 의논하고 해야지, 권위로 행합니다. 주님은 선생 통해 절제시킵니다. 의논할 것인데 자의로 행해 놓고 선생에게 보고할 때는 의논한 것처럼 보고합니다. 선생이 결재했어도 이상이 있으면 무효화시키고 다시 결재합니다. 자기 좋게 보고하고 결재만 받아 내는 수단에 능숙해졌습니다.

전체가 의논하여 균형에 맞추어 보고해야 됩니다. 후에 가도 이상 없게 보고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처럼 부정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행하듯 해야 됩니다. 마음 꺼리면서 결재만 받아도 안 됩니다. 결재한 후라도 모순이 있으면 사람을 다시 뽑고 임명할 테니까 그리 알기 바랍니다. 결국 다 드러납니다.

교역자를 임명했어도 그 교회에 안 맞고 교인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니 교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인들에게서 보고가 오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역자들은 즉시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같이 묵회하면 안 됩니다. 초임 묵회자들은 선생에게 물어봐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말아요.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하고 확실히 압니다.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는 부흥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흥되는 것을 보고 지도자 자질을 평가할 것입니다. 1차로 6개월을 파송하고 볼 것입니다. 혼자 전도했는데도 한 달 동안 10명을 전도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이 가도 몇 명 전도하고 맙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서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자들을 육신 있는 너희가 빨리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섭리 전체가 뛰기 바랍니다. 수련회 때 모두 데려와요.

묵회를 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개인 전도를 1~2명밖에 못 한 자들이 있으니 발령 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묵회 대기를 하면서 전도 안 하고 대기만 한 것입니다. 전도해야 묵회 나간다고 했는데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려고 묵회 나가는 것인데 평소에 전도하지 않고 실전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묵회자가 되려면 7~10명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일 많이 전도한 자는 제일 좋은 교회를 골라서 가라고 특권을 주었습니다.

모두 전도된 자들을 끝까지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하여 빼앗기지 말아요. 자기편이 된 자들 잘해 주고요. 뒤에서 찬밥 취급당하는 자들 잘해 주고요. 섭리사 전체가 하나 되고 뭉쳐야 됩니다. 교단과 일체 되어 교통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 모두 수고 많아요. 성령과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2009년 8월 2일 주일말씀>

하나님은 합당한 것만 들어주신다 절대적이어야 절대적이다

본 문 시편 18장 25-26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밀려서 할 수가 없으니 같은 시간 안에 다 해 주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답을 받기 바랍니다.

10분 정도씩 나눠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설명하며 전해 줄 테니 잘 듣고 기록하기 바랍니다. 들을 때는 계시도 말씀도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연속 다른 말을 듣다 보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고로 꼭꼭 기록하는 자는 천재같이 안 잊어버립니다. 실상 천재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아이큐가 낮아서 기억력이 발달되지 않은 자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서 스스로 심정이 상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메모리가 안 되면 머리에 기록하지 말고, 노트가 자기 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남게 되고, 잊어버릴 때는 다시 노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빨리 펜을 들어 날날이 천천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경지에 올라 깨닫는 말씀도 기록해야 잊지 않게 됩니다.

<1. 계시 분별>

게시받는 자들의 게시 내용을 보면 수준이 높은 말씀과 깊은 말씀이 많습니다. 평소 때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자기 스스로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깊고 높고 오묘한 말씀과 신혼꿀수를 아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또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이란, 목소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용적인 음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첫째, 그 말씀과 현실이 맞는지 보고 확인합니다. 둘째, 게시의 내용을 보고 주님의 음성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성경적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주일과 수요일에 나간 말씀인지 확인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으로 나간 말씀인지 확인합니다.

옳은 말씀이라도 이치에 합당한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이라도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잠언의 말씀으로 나간 것인지 확인하고 이치에 합당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은 맞는데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시는 인성적으로 흘러서 자기 의지로 현실을 보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치에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2. 은혜 분별>

요즘에 은혜를 받고 춤추는 자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주님 선지자처럼 춤을 추면서 자기의 기쁨과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춤추는 것도 행동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 선지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마다 개성적으로 연단하시고 만드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정말 그같이 만드시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예술이 개발되어 춤추는 기질이 있으니 감동이 되면 춤을 추게 되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전체가 같이 기도할 때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 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도 지나치게 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인지, 사탄의 주관 받은 것인지, 은혜를 못 받아서 자기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인지 여러 가지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르고 말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모른다고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주님의 은혜 있는 손발 사명을 해 줘야 됩니다.

<3. 성령의 불의 역사 분별>

요즘 김용두 목사의 ‘불세례를 주노라’ 책을 사다 보면서 자기도 사탄과 싸워서 영계에 간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보고들이 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 책을 보라고 한 것은 사탄이 그같이 있다는 것과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세상 모두가 그들같이 되라고 그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읽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탄이 막고 있기에 주님과 막혀 있다.’ 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통제하시는 단상의 말씀을 잘 들어요.

섭리사는 누가 말하기가 무섭게 무리하게 행하여 문제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뜻을 펴 가고,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뜻을 펴 갑니다. 그러니 섭리 사람들은 섭리를 중심한 뜻 안에서 모든 책의 내용들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책을 보아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섭리사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불의 역사는 우리 자체에서 섭리에 맞게 주님이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섭리 역사를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중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섭리에 맞는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섭리사에 맞는 계시를 계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섭리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계시들이었습니다. 섭리인들에게 주신 계시는 우리들이 특히 듣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몇 교회들이 특히 책에 쏠려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같이 전체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대적이어야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삶이다.’ 라고 했지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행해야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글자라도 절대적으로 잘

써야 절대적으로 멋있는 글이 태어납니다.

가령 새벽 1시든지, 2시든지, 3시든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절대적인 기도의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시어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그에 해당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옆의 사람과 똑같이 안 준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꿈의 영계를 열어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관리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마귀와 귀신을 보게 하여 분별하게 해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깊이 듣고 감탄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외에도 화평, 절제, 겸손, 충성 등 수십 가지 은사들 중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주십니다.

<1. 절대적으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라.”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준다는 법을 정해 놓으셨기에 절대 그 행위에 따라 주십니다. 안 하면 만 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인도, 자녀도, 종이로 하는 자도 누구든지 완전히 온전히 절대적으로 행해야 신부는 신부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종은 종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책임분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내 구하고 절대적으로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표적을 일으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두 그 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개인을 위해 고치지 않으십니다. 선생도 제자들에게 “섭리의 법이 있으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면 남이 세우지 못한 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내 세워야 한다. 하늘이 명한 것을 참고 견디면서 행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다.

섭리의 최고 스타는 주님과 일체 되어 죽은 심령들을 살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 되게 해 주는 자입니다. 예술의 스타, 운동의 스타, 인물 스타 등 각종 스타들이 있지만 이 시대로 볼 때는 신앙의 스타가 최고인 때입니다.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 직전이니 주님과 일체 되는 자가 최고 스타입니다. 섭리의 모든 자에게 최고 유익을 주는 자라야 섭리의 스타가 되고, 사도가 되고, 표상자가 되고, 기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금을 드리면 금을 주시고, 은을 드리면 은을 주십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절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어려움이 오면 이겨야 됩니다. 좋은 것이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안 됩니다.

<2. 절대 온전히 온전히 행하라>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여 주십니다. 자기가 완전해져야 주님은 그제야 주의 완전함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면 온전치 못한 것과 짝이 됩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이 많이 나갔지요?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는 꿈에도 생시에도 온전한 것을 보여 주시고, 영의 세계도 온전한 것을 보여 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꿈의 계시도 깨끗함으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온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받는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지요? 그 기도예 대한 응답은 “절대 온전히 온전히 행하라.”입니다. 절대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절대 온전한 것을 보여 주시고 온전히 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매일 뜨듯이 절대 행하면 태양같이 절대 빛을 발합니다. 열 개 중에 단 세 개를 행하여도 절대 온전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 개에 해당되는 것을 절대 얻습니다. 열 개를 행하여도 온전히 행치 않으면 한 가지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돈을 투자한 것과 수고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니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행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절대

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같이 안 하십니다.

세상에서 육이 잠깐 편하게 살기 위해 육만 신경 쓰고 살다가는 그 영이 영원히 고통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자기 육신은 죽어서 모르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육체에서 영체로 갔고 육체가 영체로 변화되었기에 영이 고통을 받으면 자기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것에서 100분의 1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하고 안 해서 못함으로 지옥에 온 것을 영의 몸은 일정일획도 빠짐 없이 다 훤히 압니다. 영의 몸으로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살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행한 것들을 다 보면서 후회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받지 말라고 아는 자는 전도하고, 가르쳐 주고, 관리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면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그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죽음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빌면서 애원하듯이, 우리가 헛된 멸망의 길, 세상 흑암의 길을 가면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간청하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간 후에 그제야 울며 주님을 부르고 발버둥 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가지 말라고 애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냥 볼 때는 좋은 길 같고 축복받는 길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고 안 통하니 눈물만 흘리십니다. 영계의 눈을 뜬 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직접 그 모습을 못 본 자들은 주님이 우시는 것이 느껴졌고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못 보았어도 그 느낌과 깨달음과 영감이 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뜨거운 것이 앞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더운 물이 있었든지, 불이 있었든지 뜨거운 것이 온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 집회를 할 때 주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상 옆에서 주님이 울고 흐느끼시는 것 같았다고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주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감격해서 우셨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못 보니 안타까워 우셨고, 또 주님의 심정을 몰라줘서 우셨다고 합니다.

선생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무시하고, 특히 별것들도 아닌 자들이 내게 그리했을 때 말을 해도 안 통하면 눈물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지상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 알 것이다. 그때 돌아와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는 나를 불러도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도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도, 그 음성이 안 들려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른다.**” 하는 느낌이 오거나 깨달아지면 그 계시는 맞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음성이 귀로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들리기만 해도 맞습니다. 100분의 1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은 순간 스칩니다. 100분의 1 정도의 느낌이 오지만,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는 계시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앞에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된 때입니다.

섭리사는 대개 주님과 ‘핸드폰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 보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통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지 못합니다. 애인과 핸드폰으로 통하듯이 주님과 영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역사입니다.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과 못 통했지요? 10개월 동안 전혀 못 통했습니다. 지금은 통하지요? 말씀으로, 글로 통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전체가 영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중에 더러는 증거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직접 보여 주어 주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기에게는 주님의 모습을 안 보여 주냐고 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무슨 공적을 쌓았냐고 하면서 자기도 그 공적을 쌓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보여 주는데 왜 자기에게는 안 보여 주냐고 합니다.

주님의 뜻은 다 보여 주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뜻 있는 자에게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라고 보여 주기도 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알려 주라고 보여 주십니다. 선생이 편지를 쓸 때도 모든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주며 ‘모두 안부 전해 주어라. 모두에게 다 쓸 수가 없구나.’ 합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어떤 자가 “주님, 좀 보여 주세요. 마음으로 전해 오는 계시가 주님의 말씀이 맞나요?” 하니, 주님이 “답답하다. 내가 말로 해도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예구, 답답하다. 나 맞다. 나 바빠.” 하시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에 확인하려고 편지가 왔는데 주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 주님이 하고픈 말씀을 하셔서 좋은 데 의심을 하니깐 너무 애간장이 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절대적으로 대한다’는 말씀과 영적 상황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과 선생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절대적인 회개는 절대적인 용서입니다. 절대적인 화평은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절대적인 건강관리는 절대적인 건강입니다. 절대적인 순결은 절대적인 하늘 신부입니다. 아직 습관이 잘되어 있지 않지만 자꾸 절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절대적으로 들어야 절대적으로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동안 모두 절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안 했기에 안 된 것입니다. 했는데도 안 된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로 그것이 안 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이라는 이 철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절대적이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의 특별 계시이니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절대적으로 행하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대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끌려가고 손해를 봅니다. 절대적으로 행하면 ‘사탄 불가침’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절대적인 삶이 오직 주님과 일체 된 삶입니다. 오늘부터 그같이 살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단도 주님의 일을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것을 구하고 원하고 행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열 개 중에 두 개, 혹은 세 개, 혹은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같이도 진정으로 많이 구하고 행했는데도 몇 개, 혹은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구한 것 중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해 주실 것 같았으면 벌써 해 주셨을 것이고, 주실 것 같았으면 벌써 주셨을 것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도 안 주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못 구해서 안 이루어 주시나?’, ‘죄 때문에 안 주시나?’, ‘누가 구하는지 보고 안 주시나?’ 하며 별의별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성도인들의 궁금증을 주님께 여쭙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를 해야 주신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하면서 걱정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달라고 이같이 간구하느냐.” 했습니다. 솔로몬은 “돈, 부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아. 네가 내게 합당한 것을 구했으니 주리라.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어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기타 수많은 자들도 하나님께 구하여 합당하면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이 합당해야 주시고, 구한 자도 합당해야 주시고, 모든 자들을 보았을 때 합당해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주십니다. 구한 것이 작든지 크든지 합당치 않았으면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소경이니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구한 것이 합당하니 이루어지게 하여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네 믿음이 너를 살린다.”** 하셨습니다. 아

픈 자가 주님께 건강을 간구했을 때 합당하면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형제들끼리 땅을 가지고 싸우니 주님께 공의롭게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눅12:13). 주님은 그것이 합당치 않은 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땅을 나눠 주러 오지 않았다. 사람의 부가 땅과 재물에만 있지 않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깨닫고 따르면서도 부와 재물이 내게 있는 것을 모르느냐?’는 의미가 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사람들은 주님께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대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병고침을 받은 자가 많았습니다. 병을 고쳐 달라는 것은 합당하니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합당하니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의학으로 손댈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잘라 낼 것은 잘라 내야 됩니다. 대체 의학과 물리치료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도 어렵습니다. 기도해서 나을 것은 절대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합당한지 보아야 됩니다. 합당치 않은데 무지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의학으로 치료할 때도 여러 가지를 신속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절대적인 주치의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고통을 겪습니까? 설교 때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니 관리해야지요? 절대 해야 됩니다.

선생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은 절대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도 합니다. 물리치료인 운동도 하여 병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며 합니다.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섭리사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봉사를 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약해져서 병이 옵니다. 음식에서 병이 옵니다. 더럽게 하면 병이 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음으로 병이 옵니다. 체질적으로 병이 옵니다. 유전적으로 병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옵니다. 마귀가 몸을 침범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아파서 몸이 약해져 아프다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마귀가 너를 침노하여 아팠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있으면 아프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어서 마귀가 침범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 마귀가 침범하기도 하니 기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어느 때는 불순종하여 병으로 매를 맞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불순종함으로 너를 침상에 넘어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했어도 합당한 것이 아니기에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같이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간구했어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섭리 사람들 중에는 흔히 이런 기도 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의 90%는 전도하는 데 쓰고, 10%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생활하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 보고 저렇게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복권 당첨이 되는지 주시해 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도하면서 “아, 이번에도 안 걸렸어. 아니, 복권 당첨되면 돈을 다 드리다시피 하겠는데, 왜 안 걸리게 하시지? 하나님은 돈과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도 말씀에 끝까지 해 보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사 봐야지.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하며 말씀을 거기에 결부시키고 행합니다. 정말 몰라요. 우리 섭리사 3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보고하지 않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당치 않으니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면 이미 주셨어야 합니다.

전도하여서 전도된 자로 하여금 얻을 때가 있습니다. 복권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얻을 것은 생명을 구하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합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욕심 부리고 고래 같은 사람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끌려가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끌려가면 죽습니다. 끌어 와야 됩니다. 생명 복권 속에 물질 복권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요,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섭리 사람들을 끌어들어서 말하기를 “혼자서는 안 되니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자. 10억 정도 투자해서 100억을 벌면 70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섭리를 위해 쓰자. 이같이 하면 하나님도 합당하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하니 그것은 되겠다 생각하고 돈 있는 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했습니다. 섭리 사

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본금까지 태풍에 종이쪽 날리듯 다 날렸습니다. 돈 없어서 월명동에 숙소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섭리 교회 짓는 데 지원해 주고 현금한다고 하니 그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합당했으면 주셨을 것입니다.

흔히 섭리인들은 그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본금까지 다 날렸습니다. 합당치 않으니 하나님이 안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했을 때 합당하다고 다 해 주셨다면, 섭리인들 모두 자기 집 사고 별장까지 사서 섭리 사는 빌딩 숲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빌딩 짓게 축복해 주세요. 천 개의 빌딩을 건축해서 하나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섭리인들 다 주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며 주실 것 같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빌딩 만 개 지어서 한 개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다 섭리인들에게 준다고 해도 합당치 아니하여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횡적인 것과 종적인 것을 다 보고 주십니다. 지구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밸런스가 맞아야 주십니다. 때가 되어야 주십니다. 수백 가지 따져 보고 합당하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도 세금 나가자, 형제들 찾아오지, 친척들과 친구들이 찾아오지, 사회의 각 단체들이 찾아와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당첨금의 3분의 1도 안 남는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100% 받게 됩니다. 병도 순간 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그냥 주시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일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어서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 돌을 주셨듯이 섭리사가 필요할 때 채워 주십니다. 자연성전에 돌을 쌓을 때도 기술이 없는데도 주님은 현장에서 선생과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어 상상도 못 하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꼭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행했는데도 하나님과 주님이 안 주셨다고 서운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마치 전화번호를 모르는 자가 전화번호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번호를 맞게 눌러야 친구나 애인이 대답하듯이, 하나님께도 합당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십니다.

합당한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화평하게 살겠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 형제들을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어 합당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이라고 해서 부담되어 안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로 그 교회를 심판할 것인데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에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을 알겠습니까? 혹은 아직 때가 안 되어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선생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것은 후에 보면 ‘아~ 이래서 안 들어주셨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선생을 위해 자기 돈을 써 가면서 일했는데도 자기 소원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수고한 자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안 들어주셔서 안 되었고 이에 낙심했지만 선생을 위해 모두들 그같이 했으니 축복은 선생이 빌어 주었습니다.

선생이 주님께 여쭙기를, “저를 위해 일한 자들을 위해 제가 축복을 빌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였으니 축복을 빌어도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축복을 빌어 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만 선생이 나를 위해 일해 준 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에는 내게 꼭 묻고 주님께 묻고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또 선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들을 위해 다른 면으로 축복을 빌어 주면 축복해 준다. 속상하게**

한 쪽으로 축복을 빌면 합당치 않아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정말로 꼭 묻고, 시키면 해야 됩니다. 선생부터도 여러분들이 합당치 않은 일인데 돈을 들어가면서 필요 없이 하면 싫어합니다. 합당치 않은 일은 수고하면서 해 줘도 싫다는 것입니다. 정말 합당한 일을 해야 좋아합니다.

만사에 하나님과 주님께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선생의 돈을 주면서 하더라도 안 들어주십니다.

가령, 월명동 운동장 한가운데다 누가 1억짜리 소나무를 꼭 심고 싶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면 안 들어줍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소나무를 심는 것이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운동장이고 어디고 선생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 물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합당하니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들어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 시간을 투자하여 월명동에서 일한다고 하면, 주님이 무조건 “좋다. 합당하다.” 하며 들어줄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것만 들어주십니다.

<간증>

새벽기도 때 주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더랍니다. 그는 부여 사람으로 목회를 대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월명동 채 권사가 성전 잔디를 관리하지 않느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느냐. 누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서 해야 되겠다. 잔디밭뿐 아니라 연못, 동그래산, 팔각정 모두 성전이다. 관리자가 있어 다 관리해야 된다. 그것도 목회다. 네가 내 말을 믿고 할 줄 알고 나는 간다. 나는 정말 바쁘다. 시간이 없어.”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계시가 맞는 것인지 선생에게 묻는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대기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잔디밭의 풀을 뽑는 곳으로 발령을 내셨는지 물어보는 편지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채 권사는 잔디밭의 풀들을 사탄 마귀로 생각하면서 싹싹 뽑았다. 너도 잡초들을 보면서 네 마음속의 잡풀이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서 뽑아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그 편지를 받고 주님께 묻기 전에 주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누가 그리 자세히 그 작은 사건까지 알고 신경 쓰겠습니까? 역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수고한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채 권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니, 잔디밭 관리를 하느라 힘이 다 빠져서 아픈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치료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은 주님께 감격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만 결재받기 위해 제게 묻는다고 말씀 드리니, 주님은 “내가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곧 답장을 써 주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격하여 수련회 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본인에게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기 바랍니다. 모두 가슴이 뭉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배치하십니다. 목회자도, 섭리사의 각 분야도 그러합니다. 예술단, 모델, 치어, 장로, 권사, 교단, 신학교,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가정국, 장년부 다 주님께서 배치하십니다. 모두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 서로 존중해 주고 도우면서 해야 됩니다.

섭리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이 되는 자연성전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끼고 귀히 여기고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 자연성전에 계획한 것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휴거되어 갈 자는 먼저 가고 휴거 안 된 자들은 사용해야지요. 모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월명동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련회 때 사명상 2~3번 월명동에 오는 자들은 오물비를 1회만 내면 됩니다. 오물비는 회계를 맡은 자가 어떻게 썼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수련회 회비는 각 부서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각 부서는 수련회 때 먹고 쓸 정도만 회비를 걷어야 됩니다. 수련회 회비를 남겨서 다른 데 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수련회 때 교단에서 돕지 못하여 각 부서별로 무대를 꾸며야 하면 회비를 내고, 안 꾸민다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서별로 필요한 만큼만 내면 됩니다. 오물도 본인들이 가지고 가면 실상 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섭리사에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회비를 걷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이 왔으니 모두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밝혀야 의심병이 없어지고 지도자들도 일해 놓고 오해받지 않습니다. 전기세는 모두 내야 됩니다.

다. 이미 교단에 지시했으니 그리 알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수련회 주제는 ‘희망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희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섭리역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 와서 인생의 꿈들을 저마다 이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하며 아직 은혜 받기 전에 있는 자들도 모두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역사임을 알고 참여하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루는 역사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설교 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월명동에 모이게 하여 점심 먹여 가며 은혜의 집회를 한다고 했지요? 이에 선생이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했더니 주님은 **“다 주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각자 각종 은혜를 받았어도 모르는 자가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은 상태에서 더 불이 붙으면, 어느 날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선생은 뒤에 처진 사람들 때문에 다 챙겨서 जाएगा겠다고 했지요? 이제는 선생도 날개를 저으며 날 것입니다. 뒤처진 자들과 찬밥 취급당한 자들을 거의 다 챙긴 것 같습니다. 편지로 챙기고, 기도로 챙겼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도 특별기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섭리 전체를 위해, 민족을 위해 써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하지 못하여 뒤에 있는 사람을 챙기다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맞을까 걱정되어 이제는 주님 따라 앞에서 날아야 되겠으니 뒤처진 자들도 모두 같이 날아야 되겠습니다.

수련회 때문에 세계 각 나라에서 매일 오는 편지들에 대한 답장이 안 가도 기다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날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편지 쓰고 관리하느라 계속 철야하고 식사를 건너뛰면서 해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교단에 말해서 정확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기도 응답을 받고 평생 그같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만 믿고 있는 자들 중에는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다 해 주셨으면 왜 지옥에 가는 자가 그같이 많겠습니까? 충격 받을까 봐 말을 못 해 줍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합당하면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하라.’는 말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절대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꼭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밥 세 끼 절대적으로 꼭 먹고, 하루에 세 번 절대적으로 양치하고, 절대적으로 잠을 자지요? 나머지도 그같이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고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 중에 실패자가 많습니다.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하며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이니 자기가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해 주기만을 바라고 말기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바쁘신데,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게을리 말기만 있습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진 자입니다. 선생은 그런 식으로 섭리역사를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에게 편지를 쓸 때도 자기 할 일인데 거의 선생에게 다 물어봅니다. 나는 여기서 현실을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다 물어봅니다. 본인들이 현실에서 겪고, 먹고, 마시고, 잠자기에 본인들이 잘 압니다.

선생이 보기라도 했으면 알겠지만 못 보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주지요. 현장이 문제입니다.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에 처한 자들이 문제를 아니 답을 찾아야지요. 편지에 문제도 제대로 안 써 놓고 답을 달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기가 할 일을 미루듯이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해 달라고만 졸라 댄다. 그러나 합당한 것만 해 준다. 자기가 하는 것이 합당하니 자기가 하는 것이 더 빠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잘 들어요. 수련회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했습니다(마 5:48). **“완전한 자에게만 주의 완전함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생도 내게 합당한 편지가 와야 답을 주듯이, 하나님도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8월 5일 수요말씀>

방심하고 태만하면 실패한다

본 문 베드로전서 5장 7-9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요즘 수련회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더욱 힘을 내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현실과 같이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작고 큰 것을 따지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구해 놓고 막연히 희망으로 기다리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합당치 아니하여 안 주시면 낙심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못 받은 것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됩니다. 셋째, 그 기도가 합당치 않았으면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잘 이루어지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 정결하게 하는 기도,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절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 주의 몸이 되어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 형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화평케 되기 위한 기도, 이웃과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돈을 많이 달라는 기도,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 세상에서 날면서 살게 해 달라는 기도는 합당치 아니하여 잘 안 들어주십니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태만 때문입니다. 얻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도 자기 태만 때문입니다. 태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함과 열심과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의 현실의 삶의 입장을 말한다면, 누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 없어졌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일일이 모두 내가 해야 됩니다. 선생이 처한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자야 되고, 내가 글을 써야 됩니다. 바깥의 일도 내가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담아 먹은 그릇을 안 씻고 거기에다 밥과 국과 음식을 또 담아 먹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그릇을 씻고 거기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 먹듯이 삶의 모든 일들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회개로 씻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사는 자는 그릇을 계속 안 씻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격과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완전히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하지 못한 나머지의 것들은 늘 불완전하다가 결국 사고가 납니다. 운전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이 하시면 완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하는 것만이 해를 받지 않는 길이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온전하게 행하여라. 온전하게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마치 위험한 방길을 가는 자가 철저히 가듯이 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하나는 아는데 상대적인 것까지 아는 둘은 모르고 행한다.” 하셨습니다. 동물은 ‘하나’에 해당되는 ‘뗏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둘’에 해당되는 ‘먹이를 물면 뗏에 걸린다’는 것

은 모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나으니 둘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문제점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얻으려다가 당합니다. 완벽하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할 때도 장단점을 보고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봐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구했나요?

주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도 다 얻었다고만 생각지 말고 더 얻기 위해 태만하지 말고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방심하지 말고 또 다른 것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간장 태우며 고생하던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얻은 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얻은 것으로 인하여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얻어 놓고도 태만하여 빼앗깁니다. 정말 안쓰러워요. 빼앗긴 후에 몸부림치고 울면서 다시 얻으려 하지만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 영은 각 개인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얻었으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면 다시 찾기 힘듭니다.

정신이 살지 못한 자는 사망에서 사는 자입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가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길을 가는지 잘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신이 살아 사망을 벗어나 살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부림쳐 얻은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병을 얻고 큰 수술을 해 봐야 건강관리와 건강이 그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병들어 쓰러져 지옥 같은 아픔의 고통을 받기 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건강이 무너지면 마치 벽돌이 무너지듯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며 얼마든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내게 물어요. 선생이 뼈 교정도 무료로 하게 해 줄 테니 말해요. 선생도 혼자 나를 치료하며 살기에 지금까지 이상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뼈 교정하는 것에 거금들을 쓰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신앙의 일들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심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안 합니다. 자기 앞날에 지옥의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심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아군들을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짐승 같이 배를 땅에 깔고 거리를 좁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우리를 해하는 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도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선생 주변에 있던 자들도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멀리 산을 넘어서 오는 것들을 안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멀리서 산짐승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파수꾼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태만과 방심은 적이 오는 길을 예비해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해 주시고, 내가 직접 나를 지켜 살아야 된다.’ 하고 삼니다. 모두 자기 스스로 눈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눈 밖에 있는 짐승들의 행위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당하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만큼 잘됩니다. 정신이 태만한 사람은 곧 문제에 갇히게 될 사람입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뒤통에 사고가 날 것을 안다면 그 차에서 내려서 소낙비를 맞으면서라도 백 리라도 걸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자기 분노의 날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자기의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고와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당해 놓고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늘 근신해야 합니다.

전정터에서 포탄이 날아와 2분 후에 자기 위치에 떨어지는데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생명만 챙기고 거기서 100m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태만하고 방심하면서 ‘설마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살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상식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도와주셔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고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자기 맡은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대로 해 버릇해야 날마다 강자가 됩니다. ‘실전의 강자’는 날로 발전합니다.

목회도 정말 바람을 일으킬 자를 찾습니다. 태풍과 돌풍을 일으킬 자를 찾습니다. 초임자도 좋고, 각 기관에서 충성했던 자들도 좋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사는데 못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도 그 여자를 위해 못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데 못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안 가게 해 주셨으니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고맙다고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충성

해야 됩니다.

지옥, 그 영원한 고통은 생각만 해도 몸에 경기(驚氣)가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알몸으로 떨어듯 부들부들 떨립니다. 선생이 먼저 겪고 그 고통을 말해 주니 믿어요. 지옥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밥도 못 먹고 주님의 일을 해도 감격합니다. 지옥은 한 시간만 들어갔다 나와도 정신이 확 돌아 버립니다.

주님이 왜 우시는 줄 압니까? 정말 그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통 받을 지옥에서 빼내 줬는데 빼내 준 주님을 안 따라가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자들도 있습니다. 100년이나 같이 살자고 하며 좋아라 뛰어 놓고,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을 흠어 버리셨습니다. 서로 원수 되어서 싸우고, 버리고 다시 섬리사로 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미안하니까 뒤에서 찬밥이 되어 씹니다.

젊었을 때 주님이 불러 주셔서 한참 주님과 사귀며 가까이할 연애 시절에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세상 남자 품에 안겼다가 다시 장년부로 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리고 매몰차게 가혹하게 돌아서서 갈 때 나도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가슴이 터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칠 정도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받았던 그 고통을 받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때의 심정을 말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주님의 대변자이고, 심정 통역자입니다. 주님과 한 지체라 다 느낍니다. 가혹하게 돌아서서 가는 자들을 보고 선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압니까? “내가 만일 주님이라면 그런 자들을 영원히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선생보다 10억만 배 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지능지수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영으로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위로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할까 막연합니다. 그래서 답해 주기를 “어찌 내가 너의 젊음을 원상회복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제 남은 섬리의 삶을 미련 없이 살아라. 몰라서 그랬구나. 한이 된 만큼 주님 사랑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하늘 앞에 일편단심 드린 몸을 제 몸으로 삼고 세상 남자들과, 혹은 섬리 남자들과 천 년이나 살듯이 산 자들, 그러고서도 선생님이 잘 안대해 줘서 그같이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사는 자들… 하나님과 주님께 선생이 잘 안대해 줘서 소외감으로 그같이 되었다고 기도하면서 용서받아 봐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선생에게 떠밀고 죄가 벗어질까요? 모두 자기가 좋아서 가 놓고 선생 핑계 댑니다.

영계의 법으로 볼 때 주님을 버리고 다른 자들을 좋아하며 산만큼 1년, 2년, 3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좋아했으면 하루 동안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한 달 그같이 했으면 한 달, 1년 그같이 했으면 1년, 3년 그같이 했으면 3년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이 범죄 한 햇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라.” 했습니다.

(겔 4:5) 『내가 그들의 범죄한 햇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삼백 구십 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기가 범죄 하여 그 사명을 못 하게 되면 다른 자가 그 위치의 사명을 하게 됩니다. 이성 타락은 인간 타락입니다. 사탄, 이 잡놈들은 예배 때도,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성의 사랑을 낚싯밥으로 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천적이요, 영원한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타락했으나 주님을 만나고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섬리사가 왜 신부 역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섬리사는 타락론을 가르쳐 주어서 이성 범죄를 차단했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주님의 신부로서 10대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두들 정결히 행하여 나의 신부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구상의 역사는 신부 역사다. 기독교는 형제 역사, 자녀 역사다.”** 하셨습니다. 구약은 종 같은 역사였습니다.

섬리사는 30년 동안 신부 입장의 역사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왔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보이는 선생만 쳐다 봤지요. 지금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 때 신랑으로 오시니, 평소 때도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 재림 때도 그대로 맞게 하도록 섬리를 역사해 왔습니다.

기성 기독교에 가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면 어색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들입니다.” 보통 모두 그같이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대하지 않으면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같이 기도하는 것과 저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죽도록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貞潔)을 지키고 깨끗이 살게요.” 하면, 즉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주님은 “내가 너를 믿겠다. 정말 **그같이 살아야 돼. 누구처럼 배신하지 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제대로 못 한 것, 오늘부터 정말 잘하겠습니다.” 해 봐요. 그러면 주님은 “**나와 같이 하자.**”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형제와 같이 잘 지낼게요. 열심히 하겠어요.” 하면 “너 기성 교회에서 온 지 며칠 되었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바빠. 다음에 만나자.”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바쁘다고 하시면서도 주님은 끌고 가면서 대화할 것 다 하고 가십니다. 또 핸드폰을 사 주시며 “내가 안 보일 때는 수시로 전화해.” 하십니다. 영 핸드폰이고, 영 하트폰입니다. 영파로 통합니다. 마음이 전화통입니다.

죽기 전에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돼요. “주님! 나 사랑하지요?” 물으면, 주님은 “그야 말에게 당근이지.” 하십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랑은 다이아몬드 사랑입니다. 주님께 “나 사랑하지요?” 물으면, 주님이 미워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래, 사랑해.” 하고 대답하도록 주님을 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미련 없이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신이어서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그같이 사랑하고 대하지?’ 생각합니다. 주님은 안 보여도 도울 것 다 도와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태만하고 방심하면 빼앗기고 얻을 것도 못 얻습니다.

신입생들은 주님과 첫사랑의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됩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할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함께하기도 하시고 꿈에 보여 주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더 못 쓰겠습니다. 나머지 못 한 말씀은 성령으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꼭 전도하세요. 전체가 전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는 전적으로 전도하기 바랍니다. 현 인원 비율에 비해서 전도 많이 하는 교회와 캠퍼스는 시상할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들과 계시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 심각히 잘 들어요. 수련회 때 전도해서 데려와요. 그럼 여기서 안녕.

<2009년 8월 9일 주일말씀>

마음의 계시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본 문 에베소서 1장 17-19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성령 집회와 더불어 수련회 기간에 들어섰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밀리고 일에 쫓기면 피곤하고 두 배나 더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때에는 꼭 할 것만 하고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보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주님은 “너희가 내 방법으로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빨리 해버리고 아예 주님 우선권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주님을 위해 하자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주님 우선권의 삶이 살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 몇 개 하다 보면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작은 일도 한번 손대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은 순간 다 갑니다. 작게 주님께 시간을 줄지라도 주님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나 적은나 먼저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제일 앞부분 시간을 먼저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계시 받는 자 주님과 대화하는 자들은 우선 주님과 대화를 하든지 계시를 받든지 기록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께 먼저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후에 자기 기도하고 기타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게 세워 놓고 자기 기도 다 한 후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주님을 우선 순위에 놓고 대하는 다른 자에게 갑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했습니다. 주님이 대화하고 계시하러 왔는데 자기만 말합니다.

기도가 대화입니다. 대화한 내용이, 주님이 말한 것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계시를 받는 자들이 묻는 대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소소한 개인 문제를 묻지 말고 섭리사나 민족, 교회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어보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묻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뺏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격하고 간절하게 대답하고 꼭 꼭 주님의 심정을 맞추어 응답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나 전능자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여 너를 구원시켜주고 섭리사 모두를 너와같이 사랑해서 너에게 계시를 주어 모두에게 사랑한다 말해주니 깨달아라.”하십니다. 주님께서 심정 깊이 말씀하셨으면 그에 해당되는 감격스런 심정을 뜨거움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별것도 아닌 것을 묻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대하다가 선생도 가까이 못 대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시하러 가든지 뜻이 있어 한번 그와 대화하여 계시했으면 그냥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연애하듯이 계속 만나고 대화하십니다. 한두 번 계시하시고 끊어버리면 그가 신앙에 좌절하기에 계속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좋아서 또 그 사람에게 가셨는데 주님을 의심하고 피곤하게 말을 하고 사탄이나고 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혹은 주님이면 나타나 보이라고 한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보면 정말 피곤하다고 하시며 심정이 타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주님이 내게 오시면 피곤하지 않게 대합니다. 믿고, 알고, 의심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옛날 왕의 명령을 받듯이 중히 여기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많아서 그중에 전체에 해당되면서 수준 있는 것만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순서를 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선생이 물으면서 순서를 짚니다. 그때 해 줘야 될 계시가 있고, 보관했다가 해야 할 계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시를 받고 귀신들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내게 말하고 주님께 고하여 물리치고, 낙심치 말고 다시 주님의 것을 받으면 됩니다. “왜 나는 귀신 마귀가 계시를 주지?” 하며 낙심하지 말고요. 선생도 기도생활 할 때 사탄 마귀들과 싸우면서 주님 앞에 가서 계시받고 대화했습니다. 주님을 대하면 사탄도 마귀도 방해하기 위해 계시를 줍니다. 그러나 받으면 누가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 계시도 받고 마귀 계시도 받으면 그때는 혼돈되니까 본인이 받은 후에 생각을 해 봐요.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계시는 마귀 계시입니다. 마귀들은 그 순간만 임시적으로 얼렁뚱땅해 버리고 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볼 때 그러하고, 이치와 진리로 볼 때도 다 맞습니다.

계시받는 자가 주님께 어떤 사람에 대해 묻기를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요?” 하니, 주님은 “그는 내 사랑을 몰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계시받는 자가 계시를 잘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가 주님을 대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선생에게도 누가 물어봅니다. “저 제자는 선생님 마음에 들게 선생님을 사랑하지요?” 하면, “아니야.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게 합당하게 사랑해야지요. 선생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제자는 나만 사랑합니다. 나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같이 모으고 헤쳐야 내 마음에 합당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영계로 보면 육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정을 받은 자가 선생을 사랑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선생 마음에 들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이 그를 보고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시골의 뽕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주님이라는 뽕논에 사랑이라는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 밑의 아랫논까지 물이 넘쳐흘러 내려옵니다. 그 아랫논은 선생입니다.

뽕논에 물이 먼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순리이듯이, 섭리역사도 먼저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뽕논에 물이 차고 넘쳐 내려와야 아랫논에도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섭리 전체로 보나 각 개인으로 보나 그와 같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대해야 됩니다. 이같이 하지 않는 자는 선생의 생각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오히려 나를 욕먹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선생을 혼나게 하고 책망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선생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주님보다 먼저 선생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마치 물을 아랫논에 넣어 주는 것과 같

아서 선생은 그 물을 함지박이나 양동이로 퍼서 윗논인 주님께 채워야 되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는 순리가 아니라 무력입니다. 말씀한 대로 안 하면 순리가 아니기에 선생도 더 이상 그같이 안 합니다.

섭리 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나 번거롭게 무력으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 놓고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편지와 보고도 교단으로 보내야 거기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선생이 결재하도록 올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정확히 파악한 후에 교단으로 보내고 교단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선생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통한다고 내게 보내고,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내게 바로 보냅니다. 그런 자는 선생을 교단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자입니다. 왜요? 나는 보고 받은 후에 또 교단에도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아래에서 위로 하고,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지 않을 것까지 다 내게 합니다. 그런 보고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교단에게도 알리지 않고 헛수고로 돌리겠습니다.

편지도 한번 답을 해 주면 이제 길이 열렸다 생각하고 계속 보냅니다. 답을 받으면 좋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선생이 설교를 못 쓰고 기도를 못 합니다. 시간 없으면 읽어만 보려고 합니다. 매일 내게 오는 편지와 보고를 합치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니 어떻게 그것을 다 읽고 일일이 답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중에 몇 십 개도 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도 편지 써 봤지요? 막대한 시간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그같이 할 것을 깨달았고, 아예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보면 미안해서 답을 해 줘야 되니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기도했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곳은 교단이 아니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오직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에 바빴습니다. 선생도 그와 같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됩니다. 선생이 편지 한 장 하지 못했을 때 행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안 하여 문제가 생긴 것까지 선생에게 보고하면 어쩍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교단에게 말하고, 주일과 수요일에 나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뛰어어야지요. 주님께 기도하여서 용서 받고 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해 버리고 ‘선생님은 사랑이 많으니 허락하시겠지?’ 하며, 결혼해도 되겠냐고 묻는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 드리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생을 통해 사전에 너희는 짝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무력으로 했습니다.

재림 때인데 깊은 함정에 빠지는 행위를 합니까? 그런 자는 이성범죄를 저지른 자이며, 섭리에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선생은 섭리 안의 모든 일들을 다 결재하니 결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자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죄를 짓고, 그 형벌의 십자가를 내 등에 얹어 놓고 제 갈 길 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 행위대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교회에서 순회를 요청하여 갔는데, 순회하는 자가 교역자 편만 들어 주고 교인들이 말한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목사 편만 들어 주고 교인들이 말한 것을 듣고도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올 때는 선생에게 편지하면 다시 파악하여 다시 교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의는 저울로 달 듯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끔 여기 저기 목사님들이 교회들을 무섭게 잡고 있다가 때가 되어 교체되어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을 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목사가 그 교회에서 떠나니까 그제야 보고들을 합니다. 서울 쪽 여자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표현하기를, 교역자가 마치 구렁이가 몸을 감고 목을 쪼이듯이 해서 정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전 교인들이 구렁이에게 감긴 듯 억압과 제재 속에서 살았다는 편지들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목회자를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재생시키기 전에는 목회 지역으로 안 보낼 것이며 공적인 위치에도 안 보낼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니 그같이 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스타일의 목회가 아닙니다. 목자다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가장 현실적인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계시해 주십니다. 이미 선생을 통해 말씀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다시 계시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계시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주님의 계시가 안 맞으면 이상이 있지 않아요? ‘인간 책임 못해서 안 되었다. 다시 책임을 하여서 되게 되었다.’고 하며, 인간이 책임을 하고 못함으로 그같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이치에 맞지만 선생은 그것까지 다 재보고 저울에 달아 봅니다. 모두 파악하여 알아보고 분별합니다. 또 주님께서 선생에게 계시한 것과 맞는지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한다고 하며 날짜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계시는 주님이 섭리사 계시받는 자들에게 해 주지 않으셨답니다. 계시를 받으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섞인 계시는 일단 간증하게 허락하지 않고, 맞는 것과 현실적인 것만 간증하게 합니다.

자기 의지로 깨달은 것은 주님이 주신 계시라고 해도 자신이 옳은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시는 차원이 높고 깊고 오묘합니다. 선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내년 1월에 낳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사탄의 계시임을 아는데 믿는 자들이 어리석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선생의 말을 안 믿으니까 그 같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선생이 이미 사탄 계시라고 했는데도 믿고 따라갑니다. 발이 머리 노릇하며 가니까 사탄이 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확실히 느꼈다. 감동을 받았다. 자기 과거도 다 안다.’고 하며 따라가지만 모두 사탄이 꼬이는 것임을 절대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 잉태’에 대한 것은 여자를 가지고 사탄이 꼬입니다. 메시아를 임신하여 배가 지구만 하게 불룩하여 잠시 후에 낳는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시를 받으면 사탄이 주는 계시인지, 혹은 자의로 깨달아지는 것인지, 혹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니 배운 것이 체계 있게 떠오르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히고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이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의 문을 통해서만 오지 않는다. 이와 같으니 말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며 눈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귀로 들리면서 귀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대화로 하시면서 입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심정과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할 때 행동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섭리인 모두 잘 들어봐요. 전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도 잘 모르고 주님이 가셔도 잘 모른답니다. 새벽에 계시받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가시는 줄로 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시면서 왜 자기에는 안 해 주시냐고 합니다. 빵이나 먹을 것을 전체의 대표가 받아 모두에게 나눠 주듯이,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계시해 주시어 그들을 통해 개성대로 나눠 주게 하십니다. 그들은 계시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역시 개성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섭리사 모두에게 전해 주시는 계시가 있으니, 곧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통해 주는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깨달으려 할 때 가장 많은 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깨달아 알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말씀의 계시입니다.

잘 들어봐요. 계시받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직접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많지 않고 그 중의 몇 명만 봅니다. 나머지 계시받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와 같이 섭리인 모두가 주님을 못 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마치 소경이 눈을 뜨기 원하는 만큼이나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 영의 사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 주시는데 굳이 보려고 하면 주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합니다.

누가 눈으로 주님을 보면 ‘나보다 뭐 잘한 것이 있나? 혹은 주님께 어떤 서약을 해서 보여 주셨나?’ 하며, 왜 보여 주시는 거냐고 각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바가지 긁듯 긁어 댁니다. 선생부터도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선생에게는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 주십니다. 상징적으로 보았어도 본 것이니 좋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 주시는 것이, 마치 면회를 통해 누구는 선생을 직접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것처럼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도 모두 다 보고 싶지만 못 보니까 사진으로 봅니다. 청중이 찍은 사진을 보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사람이다. 사진이 본인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는 안 보여 주신다고 난리치고, 오해하고, 섭섭하다고 하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보여 주시면 어떨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내가 어렵히 알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생각이 짧고 내 심정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심정 모른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니,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향수 비유를 들어서 말했듯이 향수병이 안 보이는데 향기를 맡게 되면 더 향기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떤 향기인지, 향수병은 어떻게 생겼지, 어느 나라 제품인지 더 신비하게 생각되고 관심이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안 들리고, 입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과 심정으로 느낄 때 온몸이 다 느껴지고 충격과 감정과 심정이 더 불이 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안 보여도 평안이 찾아오고 감동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고)할 때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심정이 느껴 오고 조여 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아껴주고 대하는데 그렇게도 모르냐.”하며 가슴을 태우고 심정을 태우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져 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됩니다. 약속하게 됩니다.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 강이 됩니다. 주님의 흐느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세상 모두가 느껴지고 섭리 모두가 느껴집니다. 형제들의 입장이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일단상과 수요단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지난 날 주님이 도우신 것들이 다 생각합니다. 못한 것들이 다 기억나 흐느끼게 되며 주님께 죄송하여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눈으로 안보여 주셔도 심정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 스며드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눈으로 보여 주시어 일시적으로 눈이 팔리게 하기보다, 안 보이시고 혼으로 느끼고 심정깊이 영혼까지 느껴 흐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느껴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고, 눈으로 보여도 다 전달이 안 되고, 귀로 듣게 해 주어도 다 전달할 수 없다.”고 하시며 “오직 마음과 느낌으로 전달된다. 천 마디 말보다도 심정깊이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님을 안보여 주신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보는 것을 허락하면 보는 데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정말 주님이 맞아요? 혹시 마귀 아니에요?” 하며,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시간 다 보내고 결국 주님의 명함과 마패인 손의 못 자국을 보여 줘야 된답니다.

마귀는 못하나요? 했다가는 주님께 혼이 납니다. 하더라도 마귀는 손에다 코딱지 바른 후에 속이고 거짓으로 나타냅니다. 마귀는 광명하게 나타나지만 전신을 보면 발이 이상하게 생겼든지, 꼭 몸의 어느 한 곳에 어둡고 모순된 곳이 있습니다. 666 수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귀들도 옳은 말로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옳게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표가 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 분하다고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꼬임 받고 당했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나를 눈으로 순간 보는 것보다 못 보아도 마음으로 느끼고 심정으로 느끼고 온몸과 혼과 영으로 느낄 때 많이 느끼게 된다. 모든 섭리 사람들에게 이같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받고 느꼈지요? 주님은 “왜 나의 마음을 받았어도 모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와 생활 속에서 심정으로 오는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앞에 오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움의 감정이 오고 의심이 듭니다. 또 이성적 감정과 각종 이상한 감정이 옵니다. 사탄은 똥과 같고 썩은 것과 같아서 썩는 냄새만 풍기고 향기는 못 풍깁니다. 사탄이 오면 그대로 사탄 냄새가 납니다. 무섭습니다. 말도 무섭게 하고 행동도 섬뜩합니다. 이제 주님이 왜 안보여 주고 역사하시는지 알겠지요?

심정의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고전 2: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심정 계시 중에서 “왜 너희는 내 심정을 모르냐? 나는 섭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 주며 그때그때 잘 대해주는데 왜 너는 모르냐.”는 계시가 정말 많습니다. 또 주님은 “재림 때가 가까웠다. 너희가 환난 날을 당할 때 그제야 내가 말한 것을 믿겠느냐?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는 믿어도 조금 관심을 두거나 믿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환난과 고통의 그 일이 닥칠 때 그제야 두려워 나를 찾는다.”며 주님은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모두들 자기에게 하나하나 환난이 닥쳤을 때 그제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닥친 환난을 다 당할

니다. 적어도 환난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알아야 됩니다. 대개 1년 전에는 개인의 환난도 예고해 주십니다. 선생이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때 일 년 전, 혹은 세 달 전, 혹은 한 달 전에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십 년 전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알게 되면 거의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피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하면서 적과 싸우면서 자기 몸을 구원하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피해야 환난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게 됩니다. 고로 오래 전부터 시대에 닥칠 앞날의 환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는 자가 환난을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맞고 사는 자가 환난을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맞으려면 지금 주님을 맞고 늘 주님과 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못 맞으면 재림 때도 못 맞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섭리인들이 주님을 맞은 상태를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맞은 자도 있고, 맞기 위해 주님을 쳐다보고 뛰어 달려가는 자도 있고, 쳐다보기만 하는 자도 있고, 선생을 사역자로 보냈으니 선생을 맞으면 주님을 맞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세상으로 향하여 섭리사를 등 돌리고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고 ‘사탄이 데리고 사망으로 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세례요한같이 주님을 맞는 신부들을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이미 주님을 맞을 기회가 자기에게 왔는데도 맞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고 있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빨리 주님이 또 다른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절대 나를 못 맞는다. 아직도 나를 목숨 걸고 맞으려고 하지 않는 정신이상 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점점 닥쳐온다. 재앙이 닥쳤을 때 나를 부르나 대답할 수 없고, 보낸 재앙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나를 맞은 자는 내가 떠나도 마치 애인이 떠나고도 늘 전화로 통하듯이 마음과 심정의 전화로 늘 통한다. 이들에게는 재앙대신 복이 찾아와 환난 때도 잔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도 환난 때 마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어떤 자는 기도하니 주님이 “오늘은 내가 또 네 게 계시하여 선생에게 편지할 거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생각인가?’하고 두려워 머뭇거리면서 적지 않으니까 “너는 내가 없어 봐야 알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도해.”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심정이 냉랭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속 기도하니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이제야 알겠느냐. 내 마음 알겠지?”고 하셨습니다. 이때 계시받는 자가 “주님, 대화해요?” 하니, 주님은 “적어라. 모든 일에는 대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계시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니, 당장 주님은 “나는 네게 위로 받으러 왔는데 너까지 나를 모질게 대하려느냐? 거짓되게 꾸며서도 나를 대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나를 대할 수 없겠니?” 하시면서 계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계시를 누가 받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부흥강사를 통해 전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겸손한 너의 기도에 감동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고, 선생과 끝까지 의논하라.”고 하시면서 “계시받는다고 즐기만 하겠느냐. 내가 온 인류를 보고 느낀 그 뼈저린 심정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기도하는 것, 참는 것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도해서 사탄을 물리치기까지 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해도 힘들 것이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기대해요.

주님이 계시를 주시어 받는 자들은 뼈저리게 받고 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고 깊은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 주님과 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계시를 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선생은 많이 웃게 되었고 주름살이 퍼졌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의 심정을 더욱 깨닫고 주님의 마음 안 아프시게 기쁨으로 일하여 마음 주름과 심정의 주름도 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섭리역사는 정말 신부역사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같이 계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체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심정을 알아 드려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의 깨끗한 품속에 주님을 품어 드리며, 그 마음이 주님의 보금자리가 되어 편히 쉬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선생은 주님이 내게 오시면 걱정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체 모두에게 일을 시키시고 오히려 저를 쉬게 해 주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섭리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제가 칼날같이 말씀을 써서 외치게 할 테니 며칠만 기다리세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과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편지를 써 주어 확 뒤집어져

주님을 맞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부담되게 하면 골치 아파 안 갑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으로 품어 맞고 해야지 서운해 하는 자, 투덜거리고 불안해하는 자는 사탄 주관 받으니 기분 나빠 주님은 더 쉬려 안 갑니다. 그런 자를 보시면 과거 주님이 해준 것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저 빙쟁이 저기 간다.” 합니다.

주님은 온 종일 일하시고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거하며 같이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하나?” 하시며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다가 기도하며 깊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심정을 알아주는 자에게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셨듯이 조용히 가십니다. 가서 이야기하시며 피곤을 풀고 오십니다.

주님을 잘 맞도록 정말 잘해 봐요. 예전에 선생이 있을 때 제대로 못한 것과 한이 된 것을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니 이때 다 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께 묻기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말이 맞다면 왜 월명동에 화장실을 다시 만들고 정자도 짓는다는 말씀을 하느냐며, 말씀이 모사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왜 모사냐?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하셨습니다.

다시 묻기를, “환난 때 월명동은 괜찮아요? 지진이 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하니, 주님은 “재림 때 월명동 자연성전 때려 부수는 목적으로 환난을 일으키겠느냐. 영영하다. 더 보전케 할 것이다. 천년이 지나도록 보존케 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쓰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에 나갔지요? 선생님이 말한 것도 계시임을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는 화장실에 가야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있을 대행사와 집회를 위해 무대를 꾸미고, 연극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기 위해 각종으로 몇 달씩 연습하지요? 그 한순간 5분, 10분, 20분을 위하여 몇 달씩, 혹은 1년씩 연습합니다. 100m 육상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서 10초 동안 뛰기 위해 4년 동안 연습합니다.

휴거를 위해 주님은 2000년 동안 섭리해 오셨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휴거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간 ‘뽕’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뽕’이 아니라 ‘뽕’으로 끝납니다. 어떤 자는 창피하게 ‘뽕’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도 웃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 주님을 따라 아폴로처럼 하늘로 ‘뽕’ 치솟고, 육적으로 산 자는 ‘뽕’ 육체적인 세계로 끝나고, 그것도 못한 자는 ‘뽕’ 하고 냄새만 풍기고 맙니다. 깨달았지요? 휴거 인사를 나눌 때는 서로 반갑게 ‘뽕!’ 해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자에게 뽕, 사탄주관 받고 악평자, 주 무지자들에게 뽕입니다.

인터넷에다 누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에 해당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도 각자의 사명의 센터가 다릅니다. 각 지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섭리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직접 계시를 해 주십니까? 린다 뉴커크도 토마스 주남도 섭리역사를 계시해 주는 사명자로 보낸 것이 아니고 각자 그 센터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30년 동안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해 왔습니까? 주님이 선생 통해 2만 번 이상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섭리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님께 예술 문화로 영광 돌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섭리역사는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주님이 다양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섭리 전체가 심정으로 주님을 느끼면서 계시를 받고, 또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아 왔습니다. 선생도 계시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계시받는 자들같이 설교가 나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같이 주님의 계시가 설교로 나갑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 주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고 모두 깨닫고 뛰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에 해당되는 계시를 주시고, 기독교는 기독교에 해당되는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받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받아 행하고, 깨닫고, 느끼고, 주님의 심정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지금 주님을 마음에 맞고 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재림 맞기 힘들다.’ 하는 자들은 실상 힘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확신에 차야 됩니다. 섭리인 전체는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여름철에 수영장에 뛰어들듯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울이 와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순간입니다. 기회는 순간입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기에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고 행해야 됩니다.

한 덩이 고깃점 같은 인생을 가지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뒤로 빼고, 생색내고, 재고, 버리고,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값은 실상 고기 한 점 값입니다. 청춘 때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모든 시간을 자기 위해 다 써 놓고 때가 지나서 다 늙은 몸으로 “주여!” 하고 찾고 올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그에게 주님 대신 대답도 안 해 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사정하실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주님 위해 살고 내 몸을 주님께 바칠게요.” 해야 됩니다. 그 순간 대답하지 않고 끄끙거리고 말 돌리면 주님도 마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 버리십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나 천사들이 옆에서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있다면 “병신, 뭐가 잘났다고 고기 한 점의 인생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제때가 지나면 땅이 갈라지도록 후회할 자로구나.” 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이 일생동안 구경해도 다 구경할 수 없는 보석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인간은 그 영화로움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나라에 같이 가서 살자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뒤로 빼고 생색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잠깐 살 수 있도록 흙덩어리 세상을 주셨습니다. 가다보면 늙어 꼬부라지고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살면서 생색냅니다. 자기의 젊은 몸은 자기 몸이니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앞에 놓고서도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은 정말 본정신이 아닌 철없는 자들입니다. 지구촌에서 살다간 영웅열사들도 왕들도 주님을 아는 자는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후에 선생을 찾아온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는 돌은 자입니다. 찾아오면 선생이 좋아할 줄 알아요? 성공하고 돌아와서 밤새도록 벨을 울려도 듣기 싫어서 벨 떼어 버리고 안 열어 줍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합니다.

그의 성공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환난 때 같이 환난 받고, 같이 먹고, 같이 주님을 모시고 가야지요. 섭리인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오면 알아 줄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 같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같이 사는 자가 최고의 스타입니다. 세상 스타가 좋았다면 선생도 했지요. 주님 품에 안긴 스타, 주님 말씀 잘 듣는 스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섭리사에서 그동안 자기 갈 길 안가고 선생을 도우며 그때 그 순간 뛰던 자들이 모두 섭리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쓰여졌습니다. 사명을 맡았어도 자기 사명에만 빠져 살지 말고 사명하면서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빠져 살면서 해야 됩니다.

선생은 사명 없나요? 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섭리사 안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자기 사명만 하느라 시킨 자에게는 관심 쓰지 않으니 더 큰 사명을 못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큰 사명을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늘 주님과 통하고 선생과 통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선생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계시를 받습니다.

둘째, 말씀을 쓰고 완성합니다.

셋째, 건강 위해 시간을 씁니다.

넷째, 시간이 있으면 밥 먹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결재할 것 결재하고, 다음에 편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이 없으면 못 자고, 못 먹고, 편지도 못 읽고, 결재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교단으로 보낼 것을 내게 보내면 답이 안 갑니다. 가이사 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일 못해 놓고 교단에 짐을 맡기지 말고, 주님과 선생에게도 십자가 지게 하지 말아요. 어떤 힘센 장수가 있어도 그에게 섭리사의 것과 개인의 책가방 하나씩만 맡겨도 수십 트럭이 됩니다. 계산 좀 해 봐요.

교단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20~30명이나 되어도 전국에서 오는 보고를 다 받으면 밤잠 못 자고 해도 끝이 없는데, 선생에게는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선생이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처리할 문제를 교단에 보내고, 교단에서 할 일을 선생에게 보내니 감당을 못 합니다.

선생에게 편지 한 통씩만 받고 싶다고 편지 보내고, 교회 이름 지어달라고 편지 보냅니다. 교회에서 모두 의논하고 지어야지요. 선생을 피곤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니 주님도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담 없이 대해야 주님이 자주 오십니다.

그 많은 편지들 중에 ‘누구 편지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고 한 장을 골라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쓴 편지였습니다.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고 하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며, 타락한 자와 같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답장을 기대 안하고 1년 동안 답장 못 받아 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주님이 편지하라는 감동을 줄 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즉시 편지 써 주었습니다.

‘부담 없는 편지다. 주님께 붙어사니 고맙다. 항상 주님께 잘하여 주님과 같이 먹고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네 소원대로 항상 주님의 뜻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도 계시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어 보라. 내가 계시하는 것을 깨달나 보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지옥을 축소판으로 보여 주시고 설교를 축소판으로 보여 주시며 깨달도록 계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이 모두 계시이니 깊이 깨닫고 거듭나서 영적인 자가 되어 주님 심정의 계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눈으로 안 보여도 심정으로 느끼며 감동과 뜨거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으로 오시니, 천 마디 말로 주님을 보여 주어도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고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받은 자들이 받은 계시를 잘 듣고 귀한 것을 알고 살기 바랍니다. 주님이 악평자들의 공격에 늦성벽이 되어 주시니, 주님만 메시아로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누가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일순간만 사랑하지 말고 오랫동안 변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꾸준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생이 그곳에 있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더 역사하여 뛰게 하고 뒤집어 놓을 것이다. 거기서 심정이 타니 더 행하고 더 새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으로 가지 말아요. 세상에 나가서 결혼하는 희망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세계에 가서 다시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8월 12일 수요말씀>

마음의 계시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본 문 에베소서 1장 17-19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모두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역사’에서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때 해야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보듯이 영의 세계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알면서 주님을 믿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만큼 신앙생활을 못 하고, 주님과도 멀리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관리하는데도 영적인 것에는 감각이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몸은 눈과 달라서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고 깨닫습니다. 마음은 느껴 보는 눈이고 느껴 듣는 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와는 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 하고, 강의도 못 하고, 설교는 잘 못 해도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게 잘합니다.

가정국 사모들 중에 몇 명은 월명동 화장실 청소를 3년이나 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못 하고, 주님과 선생님을 위해 해 드릴 것이 없으니 화장실 청소라도 죽도록 하자.’ 생각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만큼 청소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화장실을 새롭게 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다시 하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책임자를 통해 보고가 올라와서 이번에 새롭게 하라고 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충성자가 자기 센터의 일을 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더 잘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희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잘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 뛰면서 기도, 뛰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성전이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받고 죄를 청소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잘 못 봐도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이 영적인 실천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하루는 누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아! 화장실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화장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화장실에서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도 오랫동안 안 나오나?’ 하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노크를 해 보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주님이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람으로 보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보고 안 알아줘도 주님은 다 알아주시고 다 쳐다보십니다.

주님은 화장실뿐 아니라 일하는 곳들을 다 쳐다보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못 본 자들에게도 그같이 가서 쳐다보았다. 가까이에서도 쳐다보고 멀리에서도 쳐다보니 전해 주어라.”** 말씀하시어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도 일을 맡기면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 옆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고, 일한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그 옆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모두 이를 알고 행하면 좋겠습니다.

1년에 20명을 전도했으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배가 되었으면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하루에 몇 백 명씩 전도한 사람은 큰 표적을 일으킨 자입니다. 기록을 세우는 자가 되어 봐야 합니다. 섭리에서 기록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심정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강대상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청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 준비를 위해 청소뿐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왕이면 집회나 행사 때 가서 일해 보는 것이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국 집회나 행사, 그리고 월명동 행사 때 가서 행사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명 없이 충성한 것입니다.

행사 전에 준비해 본 사람은 알지만 뒤에서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도 전에 집회 다닐 때, 뒤에서 행사 준비하는 자들을 보고 정말 수고 많다고 인사하고 단상에 올라가면 더욱 마음에 부담이 없고 감격스럽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더 큰 곳으로 보내어 개성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책과 간판이 없으니 직책을 가진 몇몇 선배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또 그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 데도 직책이 없으니 선배들이 무시하고 안 따릅니다.

일을 하는 자는 일머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압니다. 그러나 위에서 직책 있는 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뻔히 힘든 것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면 배나 힘이 안 듭니다.

일을 해 본 자가 좋은 방법으로 하면 뒷사람이 무시하며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주위에서는 별 사명도 없는 자가 눈에 띄게 일하려고 한다고 시기 질투까지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억울하지만 열심히 했으나, 집회에 따라다니는 목사가 “너는 내가 길렀는데 왜 다른 쪽만 챙기고 내가 하는 일은 안 챙기니?” 하며 혼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주눅이 들어서 무섭다고 하며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뭐냐고 내게 물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선수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남들보다 기본에 앞서 있

고 충성을 잘하니 주님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대한 것입니다.

선생이 외국에 있을 때 편지로 자기 진로를 묻기에, 편지로 면담하여 ‘너의 길도 좋은데 주님의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생같이 키도 작고, 또 어리니까 아무 백도 없는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보이는 자들이 다스리니 주님이 쓰시는데도 꿈쩍 못 하는 것입니다.

흔히 누가 계통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그가 직책이나 사명을 맡으면, 올려 준 자들이 자기 때문에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개인을 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도 주님께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억지로 공을 팔이라고 하여 허락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 때문에 공인데 팔이 된 거야. 내 덕이야.” 하지 않습니다.

그도 본인이 잘했고 이미 예전부터 뜻이 있어 옆에 심부름하는 자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같이 심부름하는 자가 없었으면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껏 길러 오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목사들이 알아야지요.

섭리사에는 이 사람과 같이 직책이 없어도 뒤에서 옆에서 찬밥이 되어서 꾸중 듣고 혼나가면서도 주님을 보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공적으로 대가를 주고 있으니 서운함 타지 말고 해요. 그런데 이름 없고 직책 없는 자들이 계속 충성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직책을 가진 자들이 몰라주고 힘들게 하니 더 이상 거기 못 있고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로나 책임자들도 하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일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린 자들을 일하게 한 후에 “너는 나 때문에 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주님께 심정의 십자가를 더 짊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직책자들이 필요할 때 자기 밑에 쓸 때도 오직 주님이 자기를 통해 쓰신다고 생각해야 되고, 쓰이는 자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다고 생각하면서 모두 주님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제일 우선주의라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부딪힐 때는 자기 성격들을 못 고쳐서 그만이야 누누이 자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동행하며 보시다가 결국 실망하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안 통하니 그 자리에서 심정만 태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옆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님과 말이 통하는 선생에게 다 보고하게 합니다. 실상 주님은 보고 원자탄이십니다. 보고할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명령도 하시어 보고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선배들은 나이는 먹어 가는데 젊은 신입생이나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초초하여 인성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놀림을 받은 자들은 주권이 사명이니까 열심히 충성하며 잘할 테니 사명을 달라고 각자 사연들을 내게 말해 옵니다.

이에 선생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줘야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또 윗사람이 볼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보고 꾸짖고 책망하고 힘들게 하지 않느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그에게 목사나 강도사나 어떤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발 애들 꾸짖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버릇이 되어 자꾸 그같이 하면 그같이 하는 자는 그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하시며 섭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또 **“특별한 직책을 안 주었어도 내가 이름 없이 쓰는 자니까 심정으로 느끼고 나를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니 더 열심히 하라고 몇 자 써 주었습니다. ‘주님께 더 충성하고 너같이 놀림 받는 자를 빼내 주어라. 극히 담대하여라.’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모두 그리 알고 별 직책 없이 충성하는 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죄를 짓지 말고 칭찬하고 잘 대해 주어 의의 공적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로 인하여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교단을 거쳐 편지를 보내면, 교단에서 뿔 것 빼고 수정하여 보낸다고 생각하고 속 심정의 편지를 안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단은 선생에게 오는 편지를 보고 뿔 것 빼고 좋은 말만 전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같이 하려고 거기 근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은 누구에 대해 말하든지 다 선생에게 올립니다. 다만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릇되게 보고한 것이 있으면, 선생이 참고하라고 옆에 소견서를 써서 보냅니다.

선생이 억울함을 당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해를 받지 않게 해 줍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감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보고를 올리는 자는 능선에서 좌우를 다 보고 정확히 올려야 됩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여 올리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 올립니다. 주님은 세밀하게 그 입장과 처지와 심정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한번은 누가 계시를 받고 분별해 달라고 하기에 보니, 자기 기질대로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받았습니다. 계시도 자기 그릇대로 받습니다. 이에 선생은 “네가 받은 계시를 보고 주님과 의논하니 주님이 맞다고 한다. 또 내용을 보니 성경적이고 이치에 맞다. 현실 상황을 봐도 맞다. 기도 많이 해라.” 말해 주었습니다. 계시받는 자는 기도가 에너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자 모두가 그러합니다. 모두 기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다른 자에게 편지하여 ‘네 부서의 늙은 자는 주님의 계시를 알차게 받는다. 그리 알고 기도해 줘.’ 했습니다. 그가 내 말을 듣고 편지의 내용을 전해 주면서 기뻐하니, 계시받는 자는 자기에게 늙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슬퍼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선생님이 저를 보고 늙었다고 해요. 정말 슬퍼요. 저는 아직 50도 안 먹었잖아요.” 했답니다.

이에 주님은 “늙었다는 말을 왜 육적인 나이로만 따지냐?” 하셨습니다. 그가 “그럼 늙었다는 말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물으니, 주님은 “네가 섭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좋은 말이다. 섭리에 온지 오래되었기에 늙었다고 한 것이다. 오래된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같이 말한 선생의 입장과 심정을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어 자기의 슬픈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계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계시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이 일일이 다 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 피곤합니다. 각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전진하고, 날개를 달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섭리사에서 사명이나 직책이 없으면 꼭 놀림을 받으니까 자꾸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 직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강도사 직책이 섭리사에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맡았을 때 목사로 임명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목사 사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자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주님의 일은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면서도 목사 사명록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단에서는 모두 정리하기 바랍니다. 직책을 맡았을 때 목사 사명을 받은 것인데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명예 퇴직자입니다.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직장만 다니는 자 역시 퇴직 목사입니다. 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정리하게 바랍니다. 공직자만 공직자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보수가 나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섭리사에서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직책이 있는 자만 중직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 못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직책이 없다고 무조건 밑의 사람 취급하고 심부름만 시키면, 그도 목사에게 심부름을 시킬 것입니다. 모두 존경해 줘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 체제도 아니고 사회, 정치, 군대 체제도 아닙니다. 자기 개성과 사명의 지체 체제입니다. 사명대로, 일하는 대로 각자 자기 의견과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누구에게 놀려서 못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의지로 막아서 사명자가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맞는 자들도 있지만 안 맞으면 맞춰 가야 됩니다. 교역자가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심정을 알아주는 자만 몰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찬반이 있으니까 좌측도 우측도, 손도 손가락도, 발도 발가락도 모두 자기 지체와 같이, 주님의 지체와 같이 골고루 다루면서 성세히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것이나 전체에 대한 것을 보고할 때 잘못 보고 하면 허락할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나 자기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로 잘해야 잘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이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는 천릿길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도되게 해 달라고 금식도 해 가면서, 전도만 되면 소원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되고 어디서 누구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심정적으로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놓아둡니다. 섭리사에 부모 없는 고아처럼 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님이 그들의 엄마가 되시고 주님이 그들의 신랑이 되어 주심을 깨닫고 보이는 자만 중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자들이 못해 줘도 이로 인하여 주님을 더 찾고 성령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찾아, 보이는 신앙과 육

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위로 받고 답을 받으면 그런 체질의 신앙이 들어갑니다. 습관이 됩니다. 먼저는 자기와 주님의 일대일 신앙 속에 살면서, 그 다음에 형제를 대상으로 삼고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핵심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과 계시받는 자들과 주님과 가까이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이 얼마만큼 뜨거운지 느끼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느껴야 합니다. 불이 자기 품속에 와야 겨울철에 쓰는 열주머니나 불같이 뜨겁게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도 가 봐야 보고 느낍니다. 세상 지옥은 마음으로 몸으로 겪으면서 느낍니다.

주님의 몸을 안 보여 줘도 주님이 가까이오시면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로 느껴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과 그 깊은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보여 주어도 그 깊은 심정을 다 전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자들이 말씀을 깊이 들으려하면 할수록, 기도를 깊이하면 할수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커가 되어 들려옵니다. 육적 세계의 것은 육신의 귀로 들려오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이 말씀한 것들은 영적 세계의 것으로 마음의 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음으로 깨닫거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자기 마음을 통해 느껴져 들려오니 자기 의지에서 자기 마음이 그같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느껴졌어도 주님인지 모르겠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보여 달라고 말을 한답니다.

주님을 보여 줄 단계가 된 자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안 보여 주십니다. 지체 중에 눈을 제외하고 몸의 지체들은 느껴 보기밖에 못 합니다. 대화하면 심정으로 느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눈으로 주님을 보면 사탄으로 가장한 마귀가 아니냐고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충격적으로 믿어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안 보고 가슴으로 그 심정을 느끼는 것이 더 주님의 깊고 깊은 심정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들 선생을 못 보고 늘 기도하니 순간 보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고 더 느껴집니다. 면회와서는 순간밖에 못 봅니다. 보았는데도 갈 때는 ‘봤나? 안 봤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눈으로 보던 것은 눈에 안 보이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눈으로 보았어도 사라지시면 곧 눈에 안 보이니까 본 기억이 희미해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껴 보는 것은 언제나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온종일 느껴지고 자기 가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생각이 실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도 생각하면 지난날의 생각이 흰히 떠오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영안으로 보이지 않고 보여 주지 않으셔도 서운하게 생각 말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심정에, 마음에 그 뜨거움과 느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의 눈으로 느껴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볼 때만 눈이 즐겁습니다. 볼 때만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다가 안 보이면 볼 꺼진 마음입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 여러 가지로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섭리인 모두는 이를 알고 주님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행하시니 이를 깨닫고 날마다 이에 합당한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느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느낌이고 음식도 맛의 느낌입니다. 모두 느낌이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느낀 것을 실제로 생각하면 그때 영이나 환상이 보이고 아른거립니다. 느끼는 대로 현실이 그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의 영감과 느낌으로 실체를 알게 됩니다. 영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는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주 느끼게 해 달라고 말하면 마음으로 느껴 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심정으로 강하게 느껴 오면 은혜입니다.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범사에 주님께 대해 생각하며 자주 주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심정이 터지도록 느끼는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간사하게 거짓으로 나타나기에 뱀이나 짐승같이 무섭게, 두렵게, 섬뜩하게, 어둡게, 더럽게 느껴져 옵니다. 사탄 마귀들은 자기들에 대한 느낌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각종으로 수작을 부리면서 자기 모습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죄와 악이기 때문에 결국 알게 됩

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마귀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하기에 “네가 하는 말의 내용을 보니 마귀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놀라서 혀를 내두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섭리사에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눈으로 흰히 보이는 악평자들이 행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말하면 귀가 솔깃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점점 느낄수록 알게 됩니다. 속닥거리고 수군거립니다. 느낌으로 볼 때 결국 마귀 느낌이라고 판단하고 대화하면 마귀는 대화도 안 하고 사라집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느낌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인지, 악평자인지, 착한 자인지 각종으로 느껴집니다. 은하수나, 10대 아이들을 막론하고 신령한 자들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인터넷에 우리 섭리를 악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꼬이고 섭리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을 꼬여 가려고 인터넷에 사망과 지옥의 울무를 놓고 기다립니다. ‘교리가 잘못 되었다.’ 하면서 섭리를 욕하고 선생의 흠을 잡습니다.

그들은 전에 섭리에 있다가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주님이 섭리에서 쫓아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인처럼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람들을 꼬여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보고 **“꼬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가인들의 모임이며, 사탄의 회당이다.”** 말씀하셨습니다(계 3:9).

섭리에 있을 때도 신앙이 온전치 못하더니 어디가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도 말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도 말아요. 느낌이 안 좋고 썩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주인이 먹고 버리는 것을 주워가고 물고 가는 개들입니다.

넓은 길은 흠이 너무 많습니다. 호리라도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니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느낌으로 알고 판단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이 시대를 알고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생이 이곳에 있다고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나를 더욱 씹고 쪼아댑니다. 선생은 밤낮으로 더 강철같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가게 할 것입니다.

가인들은 알고 보면 악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으시고 그 편을 들어주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인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사고 자체가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자는 사람을 쪼아 대고 흠잡고 악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행위를 보고 악인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6:43-45).

사탄의 손에 잡혀 사는 자들은 음침한 행위를 보고 압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면 사탄의 것이 되겠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못하니 야비하고 비굴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그 야비하고 비굴한 행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어 주십니다. 사탄의 세계는 아벨들의 주권에 지배당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라. 심정으로 느끼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도 하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불같이 와 달아도 어디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역사해 오셨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았어도 만물과 태양으로 상징적으로 보여 주실 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느낀 자는 하나님을 느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요 14:9-10). 느낀 것도 제2의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은 옆에 와 계시니 심정으로 느껴 보는 자가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자는 심정이 죽은 자요, 영이 죽은 자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느낌과 감동과 심정의 뜨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주님을 못 보는 자는 생각해야 그 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주 하나님을 불러야 응답하신다

본 문 이사야 55장 6-9절
요한복음 4장 23-24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지금은 수련회 기간입니다. 올해도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해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프랑스, 러시아에서도 왔고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몽골에서도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다 가요. 그리고 많이 겪고 배우고 돌아가서 더욱 주님의 손발이 되고 충성하고 본을 보여 복음을 전하며 자기 민족의 생명을 많이 구원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뛰면 선생도 같이 뛰어야 되니까 바쁩니다. 그리고 모두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염려하니 주님이 늘 관리해 주시고 더욱 함께하시어 영육 강건히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나라도 수련회로 한창 바쁠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는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가르치고 행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수련회 때는 특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하고, 뜻있게 주님과 동행하여 희망을 이루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경 써서 잘해야 모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피곤한 몸을 풀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는 은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기도로 주님과 상의하여 주님의 심정에 거슬림 없이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늘 근신하며 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평안하며 기대가 어긋나지 않아 기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과 의논하여 좋은 의견과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고, 또 기도하여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선생과도 의논하는 것이 지도자가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지도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중심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집회나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는 죽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꼭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나 주는 사람에게도 때가 있으니 그때를 따라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만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생을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모두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 만나려 하고, 보고 싶어서 만나려 하고, 혹은 하고픈 말을 하고 또 선생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만나려 할 것입니다. 선생 역시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나를 진실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가 원해도 다 못 만나니까 ‘화면을 보며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싶으면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과 기타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그리고 편지로도 대화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련회 행사로 말씀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공적인 말씀만 겨우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최고 기대하고 믿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싶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 역시도 모두 그러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뿐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때에 맞춰야 만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만날 수 있고 가까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도 주님도 가까이할 수 있고, 응답을 받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니 잘 듣기 바랍니다.

거리상으로 자기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목소리를 높여 불러야 그가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월명동 잔디밭 성전 끝에 있는데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나 식당 쪽에서 불러 봐요. 목이 터지도록 불러야 겨우

알아듣고 대답할 것입니다. 보통으로 불러서는 애타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애인도 못 들어서 대답을 못 합니다.

사람들도 크게 불러야 알아듣고 대답하듯이, 하나님도 크게 불러야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께는 진실로 부르는 것이 목청 크게 부르는 소리다.” 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작은 소리를 내어 조용히 불러도 진실로 부르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서는 크게 부르는 소리로 들린다. 고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불러야 알아듣고 바로 응답하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의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불러야 응답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 대답을 듣게 된다.”고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24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실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온전하신 존재자이십니다. 주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직도 주님을 진정 모릅니까?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바로 알고, 그에 해당되도록 자신을 깨끗케 하고 엄위와 두려움과 충성과 사랑과 감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 진실, 참’이라는 마음과 행실을 잃고 대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는 것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상달되어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상하게 해 놓았으니, 그 상한 마음이 풀리도록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모두 각자 맡긴 일을 할 때도 진실로 참으로 감사하셔서, 사명을 주심에 고마워하면서 해야 일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맡겼으니 의무적으로 하거나,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하거나, 어떤 입장 때문에 하거나, 따르는 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자들은 진실과 충성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하늘나라에 그 공적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 공적이 빌딩같이 높이 솟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두 진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없는 일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진정과 진실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숨을 쉬셔도 모릅니다. 답답해 울고 계셔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특별히 계시한 말씀으로 삼고 말씀대로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친구 사이도, 형제 사이도, 애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도,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 사이도 진실로 하지 않으면 다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는 고로 알게 됩니다. 또 행실을 보고도 형식인지 진실인지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대하지 않으면 상대는 말로나 행실로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에게나 진실로 대하고 행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의 말은 진실 같으나, 지혜로운 자는 열 가지 센터로 다 알아보고 대하여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다 옳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님께 물어보고 옳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께 응답받기 전에 믿고 따르면 믿은 만큼, 따른 만큼, 투자한 만큼 손해 갑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가까이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자들은 다시 진실로 부르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자도 더 받기 위해 진실로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 왕은 진실로 늘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나오지요? 그렇게 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 11:38).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되었는지 선생에게 물을 것도 없이 회개된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든지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 앞에는 사탄도 개입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빛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2단계 섭리역사는 성령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때 진실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영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들에게도 진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시니 ‘진실’만이 통합니다. 주님은 참이시니 ‘참’만이 통합니다.

게시받는 자들도 ‘참과 진실의 계시를 받느냐?’ 보면 압니다. 자기 의지로 받은 것인지,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것인지, 누구를 의식하였기에 하게 된 그에 해당되는 자기 말인지 다 압니다. 고로 계시받은 것을 저울에 달아 보듯이 자로 재 보듯이 하여 알고, 속까지 금인지 용광로에 녹여 보고 압니다. 진실이 아닌 말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에서 끝까지 진실하고, 무게 있고, 아름답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앞뒤가 맞습니다.

게시받은 자들이 내용을 보내오면 모든 자들이 계시받은 것을 한곳에 놓고 비교해서 봅니다. 주님은 동일한 계시를 하시고, 근거 있는 계시를 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진실로 실천할 계시를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굳이 다시 계시하시고, 시고 모르는 것들을 다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생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이미 말씀하고 행하였어도 제대로 모르면 다시 계시해 주시며 **“지난날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지난날 주님과 선생이 해 준 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깨달으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의 은혜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진실로 행하고 말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행함도 진실로 하여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어 그 생명이 기도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자기 생명도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수한대로 존재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섭리사에서 어떤 계시받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하고 만나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에 “정말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하니, 주님은 “오늘 밤 누구한테로 갈까 생각하고 모든 자들을 살피는데 준비하고 내게 기도하는 자가 안 보였다. 네가 어리지만 나를 만나기를 진실로 간절히 원하여 네게로 왔다. 오랫동안 대화하자.” 하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계시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이 계시를 보고 선생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밤에도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많은 자들이 기도하는데 갈 곳이 그렇게도 없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 물론 진실로 참으로 기도를 해야겠지만 나를 만나려고 애태우며 원하고 준비되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간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다 말자’ 하지 않고 할 만큼 하는 자에게 간다. 그리고 내가 가도 나를 만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옆에도 서 있다가 온다. 나를 부르고 찾고, 나와 같이 대화하고, 수준 높게 상대가 되어 줘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때와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어디 합당한 자가 있나?’ 하고 찾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간마다 그 시간에 합당한 자를 찾는다. 내게 합당한 자가 있으면 예비된 그곳에 내가 간다.”** 하셨습니다. 혹 밤에, 혹 낮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주님은 합당한 곳이 없으면 갈 곳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랍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온 세계, 온 섭리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가실 곳이 없으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게 오랴?’ 합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어느 때 주님은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십니다. 모두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으면 확인하고 그에게 가신답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오늘 밤부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새벽에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합당하면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가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실과 참으로 대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몸도 마음도 준비되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이게 뭐야? 마음을 보니 청소하다 말았네. 아니, 이것이 네가 말해 놓고 행해 놓고도 모르냐. 먼저 깨끗이 하여라.”** 하십니다. 또 **“왜 일이 이같이 밀렸느냐? 제때 일을 안 했구나. 게을렀구나. 매일 해야지.”**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에게는 안 오신다며 “주님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 주셔. 나 같은 사람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한탄하지 말고 흠 없이 준비만 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골프공을 홀에 들어가게 하려면 가까운 데서나 먼 데서나 제대로 굴리고 쳐야 됩니다. 제대로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쉽게 부족하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 들어간 것인데 공만 때려 대고 깨부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골프 구멍과 같아서 제대

로 넣어야 ‘땡그렁’ 하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골프를 못 치는 사람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계속해서 골프 구멍을 향해 끝까지 굴러 넣으면 결국 골인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는 자는 한 번에 넣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자는 두 번에 넣고, 그 다음으로 잘하는 자는 세 번에 넣고, 나머지는 여러 번 더 수고하면 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프로가 아니니까 더 수고하고 더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자기라는 공을 주님께 골인시키기 위해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 골인시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너희 모두를 각각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춰야 되겠습니다.

선생을 만나는 것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이 때에 맞춰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서 때를 따라 선생이 편지로나 혹은 사람을 시켜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원하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선생에게 도전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겪어 봤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전에는 성공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어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도 선생도 자꾸 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때를 맞춰 하나님께 도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갖출 것을 갖추며 진실과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응답하시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사야 55장 6절을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사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만남이 아닙니다. 그 음성만 들어도 대화로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은 안 보였어도 서로 대화했으면 대화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마음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대화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옆에 계셔도 거의 99%는 못 봅니다. 허락하셨을 때 순간 만나고, 상징적으로 만물이나 다른 것을 보여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 얼굴을 못 보아도 전화로 통하면 대화로 만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안 보이시는 대신, 여러 가지로 통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락지 않은 길로 만나려 하지 말고 허락한 길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통하고 만나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만물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대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통하듯이 하나님은 만물이라는 전화를 가지고 통하시고, 사람이라는 전화기 가지고도 통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니 넓게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동안 배워 왔지요?

선생도 그러합니다. 얼굴은 못 보았어도 글로 통합니다. 글의 대화입니다. 글로 게시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고 대화합니다. 얼굴이야 사진을 보면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진이 실제 사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선생도 여러분도 실체가 옆에 온 것 같습니다. 모두 신령해야 되고 정신일도 하여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진실로 불러라. 그러면 쉽다. 가까이 있을 때 진실로 불러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처지대로 만나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때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 행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모르니까? 빨리 기도하여 제발 깨달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계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주님께 물어보니, 그러하다고 하시어 말씀합니다. 섭리 전체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집회 기간 동안 모두 나름대로 회개하여 회개할 만큼 회개한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덜 된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 때 현장에 있었던 자들과 집회를 멀리서 화면으로 본 섭리 세계 온 나라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일과 수요일 단상의 말씀을 통하여 **“꼭 방언을 못 받았어도, 꼭 뜨거움을 못 느꼈어도 여러 가지 역사로 개성에 따라 사명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었다. 이제부터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나 충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집회가 끝나면, 마치 장마철이 끝나면 샘에 물이 나다가 안 나듯 하니 깊이 파야 샘이 된다.”**고 주님은 특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들었지요? 분명 설교 말씀으로 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마철이 지나서 건수(乾水)가 마르고 샘의 물이 줄어들어 가**

듯이 모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 애간장 태우지 않는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안 한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들이 많다. 그러니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잃은 것같이, 속이 텅 비워진 것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더 깊이 파야 된다. 샘을 1m, 2m, 3m, 5m, 6m, 7m, 8m 깊이 파듯이 깊은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답답하다. 하는 자는 계속해서 열심히 깊은 기도와 행실의 샘을 파듯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 이러하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첫사랑이 모두 식어 간다. 이러다 아주 식어 버리면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기 어렵다.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자는 잘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앞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받으려고 할 때는 목숨 걸고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셨습니다. 점점 보다 보니 ‘그렇구나.’ 하고 열렬함이 식어 들어갑니다. 권태증이 와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막고 방해해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 이성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과 주님과도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맺고 통하였고, 주님과 사랑을 맺고 통하였고, 성령님과도 일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으로 하면 되겠어요?

주님은 경고 1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진정으로 불러라.”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도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빨리 진정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러하기에 주님은 이미 조은 강사에게도 “이래서는 안 된다. 불같이 하다가 식으면 나의 재림을 맞다가 만다. 다시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늦추지 말자.” 하셨습니다.

게시받는 자들도 계속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니 피곤하고, 또 기록하려니 힘들다고 점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해 놓고, 나는 점점 적극적으로 하는데 게시받는 자들은 점점 귀한 것을 모른다. 그러면 나와 멀어져 보통 사람 되고, 사망자에서 자격이 상실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에 크게 됩니다.

선생같이 끝까지 다른 길 가지 말고 주님께 처음 약속한 대로 힘들어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고통 중에 계시의 걸작품을 낳는 것입니다. 선생은 20년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청중 속에서 주님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청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대신자가 얼마나 큰일을 하는 것입니까?

실상 선생에게 다 보고하지 못해서 그렇지, 특별히 게시받은 자 외에도 주님은 전체에게 거의 다 마음의 대화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편지로 물어오는데 다 답을 써 줄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말인데 의심하겠습니까? 개인 계시도 끝까지 받아 보면 처음과 나중까지 일사천리로 모순이 없으면 분별이 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도 온전한 깨달음인지 앞뒤 전후 다 확인해 봐요.

섭리사를 나쁘게 말하는 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어떻게 말해도 그것은 사망권에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섭리에 대해 나쁘게 계시를 받았든지 깨달았으면 잘못된 계시이고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말하면 나쁜 말이 아니고 나쁜 계시가 아닙니다. 사기꾼은 처음에는 좋게 말하지만 믿으면 그때부터 사기를 칩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온전합니다. 모두 기도할 때 한마디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성전을 청소할 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마음에 음성같이 들립니다. 대개 이런 계시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분별해 주는 자들도 세밀히 들어 보고 분별해 줘야 됩니다. 가볍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계시를 받는 자들이 섭리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를 “이 섭리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까?” 묻고 또 물으니,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말씀하시며 “왜 그리 의심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주로 믿고 나를 섬기는데 온전한 역사가 아니냐? 나 하나님이 이 섭리역사를 시작했다. 지금도 내가 역사하니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내 영을 쏟아 부어 주고 있지 않느냐. 내 참된 역사가 아니면 이같이 사랑하며, 이같이 세계적으로 역사를 펴 올 수 있었겠느냐. 너희 선생을 중심하여 내가 해 왔고, 내가 보낸 아들 예수로 이 역사를 섭리해 왔다. 고로 이 섭리역사를 이탈하여 나가는 자들은 나의 품을 떠나가는 자들이다. 다른 데서 나를 찾으나 온전치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시받는 자가 또 묻기를 “사람들은 섭리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니, 하나

님은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내게 합당치 못한 자들이요, 사망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셨다고 계시받은 것을 보내 왔습니다.

주님은 “계시받는 자들이 계시를 받으면서 별의별 것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왔으니 내 말 좀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자들이 주님과 통하니 그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궁금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물어본답니다.

이 말씀을 쓰기 전 새벽 2시 반쯤에 내 앞을 보니, 아주 큰 백조 한 마리가 내 앞에 앉았다가 두 날개를 훨훨 저으면서 구름 위까지 날아가 구름 속에 묻혔습니다. 그 백조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순간 잊었습니다. 다시 몇 마디가 왔는데 그나마 사라졌습니다. 백조가 나타났을 때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아 그 모습을 순간 찍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무엇인가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는지 기도해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기록을 안 하니 순간 말씀이 들렸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록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고로 선생은 10대부터 연필과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잠언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축소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백조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알 수 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구든지 이를 일찍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가기에 기뻐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니 희망찬 것이다.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일찍 깨닫고 일찍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야 한다. 모르고 살면 인생의 진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곤고하겠느냐. 모르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알아야 제 갈 길로 가면서 살지 않겠느냐. 행여 너희가 모를지라도 나의 섭리는 뜻이 있으면 이룬다. 그러나 너희가 알고 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후 백조가 안 보이니까 다음 말씀이 안 왔습니다. 그 백조는 이미 그 전에 왔다가 시간이 되어 날아간 것입니다. 백조는 주님이었습니다.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백조를 찍지 못했다.’는 것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카메라도 순간 찰칵 기록하고, 노트에도 순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두 꼭 순간 기록하지 않으면 다시 깊은 기도를 하여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순간 왔다 가십니다. 그러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순간 왔다가 순간 가신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반이었는데 백조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낮 12시부터 시작하여 철야하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쓰니 오후 6시가 되었고, 처음부터 다시 보며 교정 중인데 밤 12시 30분입니다.(1차 원고 완성 후 교정 시간)

주님이 옆에 와 계시면 안 보여도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여러 가지 느낌도 오고, 징조도 오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받는 자들에게 “그리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계시나 받지, 왜 다음 단계인 내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네 말에 일일이 대답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안 보여 주면 사탄 취급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주님은 선생에게 와서 정말 골 때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주님이면 보여 달라고 하며 안 보여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웃음이 납니다.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 보여 주실 것을 어렵히 알아서 보여 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며 믿고,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순서 있게 순리적으로 인격으로 대해야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모두 선생을 통해 보여 준 것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백조처럼 순간 앉았다가 가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때 즉시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면서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이 무엇이나고 깨달도록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기도하여 향해 살아야 기쁘고, 하나님의 기도섭리를 응답게 됩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역사’입니다. 어떤도하여 두고 섭리하시는지 그동안 많이 말씀했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가다가 말기도 하고, 가더라도 힘 있게 가지 못합니다. 알면 환난도 핍박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동안 밖에서 기르다가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믿습

니까?

자기가 섭리사에 오기 전에 갖가지로 인생을 겪으면서 각자 그 같은 코스의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뜻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위해 옮겨 오게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자기에게 어떤 섭리의 뜻이 있는지 꼭 깊이 찾고 진정으로 물어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확대시켜 볼 때 유년기와 초년기 때부터 일찍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악착같이 기도하여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과 진로가 제대로 설정되어 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일찍 깨달으면 일찍부터 가게 됩니다.

축소시켜 보면 그날그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습니다. 일찍 새벽부터 기도하여 일찍 깨달으면 일찍부터 그 섭리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기뻐하며 그 섭리의 뜻을 향해 뛰고 달리게 됩니다. 그같이 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중심하여 살기에 허무하게 살게 되고 힘들게, 지겹게, 별 재미없이 곤고하게 동당거리는 삶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일찍 깨닫고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자는 슬프게 만족 없이 살기도 하고, 어떤 자는 점심때쯤 기도하여 깨닫고 그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씁니다. 어떤 자는 밤이 되었을 때 깨닫고 그제야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새벽에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백조 이야기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같이 늦게 알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순간 왔다가 가 버리십니다. 구름 속에 묻혀 버리면 끝납니다. 재림도 그러합니다.

어떤 계시자가 기도 중에 주님께 “휴거에 대하여 제대로 속 시원히 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며 진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때가 되면 너희 선생에게 말하여 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휴거에 대해서 말해 주셨냐고 묻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직도 근본은 비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앞부분의 말씀을 연결하며 말하겠습니다.

10살짜리 가정국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 주시기에 천국 보여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천국을 보여 주기 전에 사탄도 보여 주시고, 지옥의 나쁜 곳도 보여 주신 후에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서 “네가 어리지만 크면 할 일이 많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는 인생의 일찍부터 주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며 관심을 쓰면서 잘 길러 줘야 됩니다.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뜻을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이 어린이가 천국으로 가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저요, 죄지은 것을 정말 열심히 회개했는데 아직도 죄가 남았나요?” 하니, 주님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반을 그리시더라고요. 아직 반쯤 남은 것입니다. 이에 그 어린이가 자기 동생 이름을 대면서 “내 동생의 죄는 어떻게 해요?” 하니, 주님은 “그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동생은 4살이랍니다.

나이만 먹으면 죄가 생깁니다. 죄가 있어도 천국을 견학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요? 임시 견학이니까 주님 뜻에 의해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 아이에게 천국을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자기 죄가 또 있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기도해야 됨을 깨달았지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살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마귀요, 죽음이요, 전염병이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회개해 버리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자기가 죽게 됩니다. 사탄은 죄를 물고 늘어져 지옥 쪽으로 계속 잡아당겨 갑니다. 죄를 회개하면 사탄은 잡을 것이 없으니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부리고 마음대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 죄가 없으면 사탄과 잘 싸워 이깁니다. 죄는 사탄에게 무기가 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제자에게서 편지가 와서 읽다가 선생은 또 웃었습니다. ‘키익’거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웃을는지 두려워할는지 모르겠어요. 짧으니깐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예전에 인생 살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무슨 사연인지 그것은 말을 안 했습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지독하게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공포가 몰려와 못 죽었습니다.

그 후 ‘사는 대로 살아 보자!’ 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인생 살기 너무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또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화난 음성이 들리면서 “또 죽으려고 하느냐?” 고향을 치시며 “전에도 네가 자살하려고 할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을 주어 살려 줬는데 또 자살하려고 하느냐? 자살이 무슨 벼슬이냐? 그럴

게도 말씀으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안 도와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가슴 뜨겁하게 혼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지가 떨린다며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자살하려고 하면 그냥 놔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주님이 그같이 살려 주셨는데 못 깨닫고, 두 번째에 혼나면서 죽음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자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선생에게도 서약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혼자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주님이 잘 혼내 주셔서 웃었고, 주님이 살려 주셨으니 좋아서 웃었습니다.

선생도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주님이 살려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중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신앙이 아주 좋을 때였는데 철도에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말씀을 외치기 위해 열차를 탔습니다. 죽어 가는 생명을 전도해야 뭘 깨달았는데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 외칩니다. 그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 봤자 앞날에 별 희망이 없다.’ 단순히 생각하고 경주에서 서울로 달리는 급행열차의 승강구로 나와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내 목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내 목을 잡기에 ‘누구지? 열차 차장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살고 싶은 내 자신의 욕망이야.’ 하고, 또 뛰어내리려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 주었다. 왜 죽느냐? 내 대신 살아서 내 일을 해 줘야지.” 했습니다. 나는 “전도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외치겠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했습니다.” 하니, 주님은 “어찌 어린아이가 큰 것을 못 든다고 낙심하고 죽음을 택하느냐. 크면 잘한다. 처음에는 한 명씩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야 주님이 뒤에서 내 목을 잡아당긴 것을 확실히 알고 ‘역시 주님은 안 계신 곳 **이** 없고 전지전능하시다. 나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 진실로 내 생명을 귀히 보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때 선생이 노방전도를 다니다가 전도된 사장이 선생에게 “월 도와주기 원하느냐?” 해서 석막교회 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종을 해 준다고 하여 경주에 가서 지름 75cm 종을 맞추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오는 고등학생들을 보고 전도하려다 못 하고 그같이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주님의 몸이 되어 열심히 그 심정으로 대신 살아오니, 현재와 같이 한국은 물론 온 세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괴롭고 어려워도 앞날의 희망이 산 같으니까 이기면서 살아요. 현재의 고난은 앞날의 영광에 족히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어도 지금 전도의 한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부끄럽습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해도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이 되어 사니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극히 사랑하니깐요. 다른 자의 몸이 되어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니 어떤 고통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시면 “주님, 걱정 마요.”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마음과 정신만 제대로 하면 받은 만큼 앞날에 희망으로 옵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은 역사를 펼 수 있고, 고난 받는 만큼 주님이 더 가까이 함께하시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 싫어하고 못 견딥니다. 특히 선생 밑에서 나의 정신을 배운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선생은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은 사고를 가슴속에 보물이나 되는 듯 못 버리고 가지고 사니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줄지 않은 사고를 모두 싹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 버리면 안 도와준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고 타일렸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평소 괴로울 때마다 ‘죽어 버려야지, 자살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회개하고 근거도 남김없이 싹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같이 해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연애하는데 그 여자가 조금만 괴로우면 ‘자살해야지.’ 하며 불쑥불쑥 말을 내던지고, 평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무서워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투자하겠습니까? 죽을 사람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어느 날 남자는 저 여자와는 못 산다고 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선생도 극한 배고픔과 가난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죽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못 배워서 멍청하여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 역시 내 자신을 싫어하여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누구는 극한 괴로움을 안 당해 봤습니까? 다 당해 봤습니다. 주님이라는 희망으로 살아야지요.

주님은 “앞으로 잘산다. 앞으로 내가 가르쳐 주면 천재가 된다. 걱정 마라. 죽는다고 해결되느냐? 죽으면 영계 가서도 똑같이 괴로운 것이다. 여기서 해결해야지.” 하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7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었어도 자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섭리사에서 누구든지 굶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말하라. 주겠다.’고 말해 놓았습니다. 급한 것을 다 선생이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선생은 결국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배우는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사니 다 해결된 것입니다. 배운 것을 다 써 먹지 못하겠습니다. 못다 쓰고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못 먹고 못 입어서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만족입니다. 주는 것을 못다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으니까 몸무게가 67~68kg까지 나가서, 뛰는 데 힘들어 하루 두 끼만 먹습니다. 그래도 66kg입니다.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올 때마다 밥 먹는 모습만 보인다.”며 창피를 주었습니다. 영양가가 없어서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 주님은 “공짜라고 그렇게 계속 먹으면 돼지 된다.” 하셨습니다. 결국 한 끼를 줄이고 사는데도 튼튼합니다. 모두 먹을 것을 다 먹다 보면 아줌마 되고, 레슬링 선수 됩니다.

‘배고프다.’, ‘고생된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습니까. 선생이 늘 “네 힘으로 안 되면 편지로 말해. 그리고 죽도록 괴로우면 내게 말해.” 했습니다. 나와 일체 되기만 해도 어찌 죽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병어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구하면 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기른 것을 생각해야지요.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섭리인들을 생각해야지요. 자살하는 사람은 사탄의 주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책임 못 했다면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면 누구도 말리기 힘듭니다. 자기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몸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주님은 그를 불순종자로 보십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절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현재도 희망에 차서 살아야 합니다. 희망 찬란한 하나님의 섭리에 살면서 그 뜻을 알고 살면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꼭 내게 말해요. 내가 다 풀어 주니까요. 내게 말을 안 하면 선생이 어떻게 압니까? 이미 예전부터 “끝까지 내게 말을 해라. 내가 주님과 의논하여서 해결할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계시받는 자들에게도 선생에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의 계시를 받았어도 잘 모르니까 선생에게 말하면 분별해 준다. 너희는 선생이 말하면 육신이 있는 자의 말이라서 잘 믿으니까 선생에게 말해라. 내가 말한 것을 잘 풀어 줄 테니까...” 하십니다.

가끔 마귀도 계시를 하고 선생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계시받는 자가 내게 편지를 했기에 ‘그놈은 마귀니 다음에 기도할 때는 마귀인 줄 알고 쫓아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욕을 하면서 ‘괜히 선생에게 말하라고 했네.’ 하고 떠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계시를 옳게 잘 받아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점점 자기 주관적으로 받고 자기 의지로 받기에 다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또 받으면 사탄의 침범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하니 오히려 선생을 육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몸으로 쓰여집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영을 분별하는 법을 10대 때부터 가르쳐 주셨고, 지금은 계시를 다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분별하는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분별하고 또 여쭙어 봅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계시인지, 자기 의지로 깨달은 것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글을 보고 내용을 보면 시계같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보입니다. 잘못된 계시를 받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로만 설명하고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옆에 몇 명을 세워 놓고 그의 행위가 어떤지 계속 기록하여 보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은 주님의 계시를 설교로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손도 아프고, 내 시간을 내야 하고, 초저녁부터 기도해서 백조가 날아오기 전에 맞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말씀을 8장에서 10장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백지 앞뒤를 꼭 채워서 25장 썼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초저녁 기도는 또 못 하겠습니다.” 하니, 주님은 “내가 섭리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자르겠느냐.” 하셨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입니다. 오전부터 말씀을 썼습니다.(1차 원고 완성 시간) 이것을 교정하려면 4시간이 걸리고, 2차로 교정하려면 3시간이 걸리고, 3차로 교정하려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오밤중이 됩니다. 얼마나 내 기도 시간을 갖고 싶은지, 주일설교와 수요일설교도 맡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흥강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타 계시

받는 자들이 받은 계시도 밀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전체를 향하여 말씀이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 선생의 기도를 꼭 좀 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여 말씀이 나가는지 주님만 근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참으로 진실로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크게 소리쳐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진실로 참으로 불러야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선생에게도 참으로 솔직히 편지해야 응답을 주는 답장이 갑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확대해서 모든 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후에 기도의 첫사랑을 잃어 간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다음 것은 안 잃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진실로 부르는 이들에게 응답하길 바라며,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8월 19일 수요일말씀>

첫사랑을 지속하여라

본 문 베드로전서 4장 8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의 처음 사랑과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계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어떤 문제도, 짊어진 짐도 기울면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첫사랑이 식어 간다’는 것은 ‘기울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식으면 얼음장이 됩니다. 뜨거운 것이 식으면 극적인 세계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첫사랑이 변하면 마음도 행실도 변하게 됩니다. 변한 자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일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영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보아 왔지만 첫 신앙, 곧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변한 자는 결국 죽은 신앙이 되었고 복직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섭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섭리사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첫사랑을 찾지 못하니 나름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자도 있었습니다.

첫 신앙, 곧 첫사랑이 상실된 자는 실상 주님이 보실 때 신앙이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전이 없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사랑은 어떤 곳이나 적용되고 필요합니다. 마치 돈이 살아가는 데 어떤 곳이나 필요한 것같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을 쓸 만큼 써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듯이, 주님이 필요하신 만큼 충만히 주님을 사랑해야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신앙의 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화평, 기도, 찬양, 전도, 관리, 금홀함 등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충만하게 해야 빈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가 돈을 쓰듯이 풍부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첫사랑은 100%여야 됩니다. 100% 사랑하고, 100% 활동하고, 100%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90%를 드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처음 사랑할 때 90%만 사랑하겠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자는 90%, 80%, 70%만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의 어린아이가 볼지라도 배은망덕한 자요, 위선자요, 미련한 자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요, 천국에 갈 마음이 100% 없는 자입니다. 지옥은 100%를 하지 못했을 때 가게 되는 곳이니, 100%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조건에 처한 자로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므로 주님의 말씀이 선고됩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제대로 배우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잘못 갑니다. 잘못 배우면 원하고 바라던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듣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말하고, 주님이 보시는 진실한 천법에 의하여 말합니다. 선생이 제대로 몰라서 못 가르쳐 주거나, 입장 곤란하다고 안 가르쳐 주면 그 책임을 선생이 다 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로 얻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지도자든지, 큰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지도자는 그만큼 할 것을 하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더 얻고 받게 됩니다.

선생이 지난 30년 섭리역사에서 겪고 행한 바를 밤낮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사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였고, 그를 믿는 자만 구속되게 하였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사도도, 각종 사명자도 주님의 지체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 씁니다. 이와 같이 각 사명자들도 주님 앞에 그러합니다. 누구나 자기 지체는 마음대로 하듯이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 100% 좋아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100% 사랑을 줍니다. 100%란 마음의 사랑과 몸의 사랑이 모두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이 지속되면서 사랑의 결과체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꽃들도 암술과 수술이 결합되면 그 사랑의 결과체로 열매를 열게 됩니다. 동물도 암컷과 수컷의 사랑이 결합되면 그 결과체로 새끼를 낳게 됩니다. 자녀는 사랑의 결과체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하늘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결과체와 같이 원인체인 하늘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결과체입니다.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체 중의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육신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였고, 하나님의 지상 섭리의 세계 속에 살게 하였고, 주님을 믿는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하므로 주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던 일들을 대신해 주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의 결실체입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체는 전도되어 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았기에 주님 사랑의 결실체로서 하나님의 혈통이요, 신부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기르시고 도와주시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100% 사랑하시고 관리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셔도 인간이 깨닫고 알고 받아야 됩니다.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고 그 영양의 효과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연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그 행복한 첫사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첫사랑 때 그러했는데…’ 하면서 자기도 과거를 회상하며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면 사랑 천국이 됩니다.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위해 주고 귀히 여깁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예뻐도 자기 사랑하는 자처럼 예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사 주고 싶고 해 주고 싶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만 최고로 보입니다. 본체는 별 같은데 사랑하니 해같이 보입니다.

첫사랑에는 흠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 예쁘게 보이고 다 잘생기게 보입니다. 작은 키도 크게 보입니다. 뚱뚱한데도 자기가 원하는 날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보이도록 다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눈인데도 촉촉한 눈망울로 보입니다. “어쩔 너는 미운 곳이 없고 다 예쁘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뭘 잘했다고 이같이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마음씨 고운 사람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늘 감사해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겨 주고 웃음으로 대해 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늘 웃음이요, 심부름입니다.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상처를 줄까 봐 늘 혀 조심, 입 조심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여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술하게 지나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따라올 수가 없어.’ 합니다. 비 오는 날에 자기 사랑하는 자와 걸을 때는 우산도 안 씌워 주고 자기 품만 쳐놓고 자기가 우산이 되어 줍니다.

첫사랑의 위력이 참 대단하지요? ‘사랑은 불같이 뜨겁다’고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못 먹어도, 못살아도, 못 입어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모두 사랑으로 막고 가볍게 이겨 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사랑의 천국입니다. 이같이 사니 싸움이 없고, 불만이 없고, 화목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모든 자들에게도 잘 대해 줍니다.

사랑하면 평화와 화목과 기쁨이 옵니다. 첫사랑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이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변치 않고 열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열렬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무력으로 꼬여서 사랑하게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니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악을 쓰고 주님 사랑을 빼앗아 가는 악물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주님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이와 같은 참사랑이 변하지 않고 날로 사랑을 불태우며 가야 되건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으면 겨울철에 뜨거운 물이 식듯이, 방이 식듯이 식어져 서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며 왜 자기를 택했냐고 합니다.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냐고 서로 따지며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불만을 늘어놓는데 “왜 우리는 못사느냐? 이게 팔자냐? 신의 예정이냐? 돈을 벌자. 돈 벌어 와라. 돈 없이는 못 산다. 사랑은 없어도 살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만 살자. 지겹다. 남들처럼 잘살아 보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서로 사랑에 빠져서 철없는 짓 했어. 새끼들만 우르르 토끼 새끼같이 많이 낳았으니 이를 어찌지? 시장에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지? 크면 학교도 보내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괜히 이렇게 많이 낳았네. 큰일 났네.” 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다툼과 미움이 시작되고, 희망은 절망이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니 세상 물욕만 생기고, 타인의 사랑만 돋보이고, 이웃이 잘사는 것만 보이면서 자기의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랑하던 사랑이 미워하는 사랑으로 뒤바뀌고, 사랑의 결과체인 자녀들도 부부간의 첫사랑이 식으니 사랑으로 기를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자기주장을 하며 다툼과 싸움이 연속됩니다. “못 살겠다. 지겹다. 서로 안 보는 것이 천국이다. 차라리 각각 사는 것이 기쁨이다.” 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이혼하는 자도 있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자도 있습

니다. 사랑은 이처럼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남남같이 면 이버렸습니다. 첫사랑이 식으니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여자도 남자도 예쁘고 멋있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몸을 가꾸어 몸짱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서 없어졌으니 자기를 가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배가 나오든지, 히프가 처지든지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분쟁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사랑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멀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가서 7장에 속한 자로 대해 주고, 아가서 8장 3절에 속한 자로 서로 대우해 주다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해당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읽어 주세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불행히도 다리를 잃은 병사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국들은 첫사랑에 대하여 프로급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첫사랑들이 식어서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저렇다.’는 강의를 더 잘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맺어진 첫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어 가정 천국을 이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과 첫사랑을 맺었습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맺고 범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했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고생되어도 감사했습니다. 가정과 민족의 환난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감동 감화 속에 감격의 눈물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절규하면서 수십 곡씩 노래를 부르고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 못 보고 마음에 느낌만 줘도 감격하며 신부로서 꽃단장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하며 솔선수범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주님 것이 내 것이다.’ 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해가 떠서 해가 지도록 전도하고 관리하고, 피곤해도 주님을 부르면서 풀어 버리고 기뻐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극치의 사랑을 했습니다. 100%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그 얼마나 밥을 굶으면서 철야하며 기도했습니까? 집회에 찾아가 성령을 받으려고 애태우면서 “왜 저에게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제가 그같이도 하나님과 주님과 업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주세요.” 하며 애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주님, 저도 남들같이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하면서 깊이 기도할게요. 저에게도 주세요.” 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첫사랑을 맺었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 “오직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과 화목의 첫사랑 때문에 항상 웃음과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 거의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과 첫사랑을 맺었습니다. 이제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과 사랑의 불을 붙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첫사랑입니다. 주님을 느끼고 증거하며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첫사랑으로 인하여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하여 주님과 첫사랑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잘되게 해 주고, 신부들과 사랑의 잔치가 끝나면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섭리 전체적으로 성령의 불이 식어 가고, 벌써 첫사랑이 식어간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왜 이렇게 살지?’ 하며 주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원망스럽게 생각됩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대화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고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듭니다. 사랑은 처음과 나중까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첫사랑 잃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다 해 준다. 걱정 마.”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은 우시면서 눈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섭리인 모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식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전도가 잘됩니다. 성령 받고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생명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섭리역사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하늘과 뜨거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화목하고 하나 되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사랑하기에 섭리사에 계속 계시를 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연속되어야 칠보단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여기저기 나타나시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하나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맞아야 재림 때도 맞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맞은 자를 체크하시고 재림 때도 데려가십니다.

선생은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도록 깨워 주러 왔습니다. 선생도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모르는 자들을 깨워 주님을 맞게 해 주러 왔습니다. 주님을 맞을 때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사랑으로 회복되어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오직 사랑으로 100% 맞듯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시고, 사랑 때문에 구원시키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휴거되겠습니까?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붙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사랑 때문에 신랑에게 붙어살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붙어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가서 7장에 속한 자 취급을 해 줘야 하고, 우리는 아가서 8장 3절과 같이 주님을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봐 늘 불안해하십니다. 심정을 태우십니다. 짝사랑을 그만하게 해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 원통해하십니다. 사랑해 놓고 너무 손해가 가니 원통해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 주십니다. 주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주님을 버릴까 봐 못 주겠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재림으로 인한 환난은 급절하게 가까웠다.”고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벌써 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면역이 되어서 이제 보통으로 들리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는 환난을 당해 볼 것이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삶을 포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땅에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얻은 믿음과 성령의 불과 은혜로 무장된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있을 때 잘하여라. 내가 외칠 때 어서 하여라.

어떤 자는 성령운동이 언제 끝나느냐고 하며 피곤하다고 한다. 하늘을 위해 산다고 서약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한 자들이 그 같은 말을 하느냐? 그같이 하였은즉 회개하라. 사탄이 틈탄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에게 네 복이 돌아간다.

이때는 하루를 100일같이 봐야 될 귀한 때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며 다닐 때 잘하여라. 내가 섭리사에 계시한 것을 들었느냐. 너무 많이 해 주었다. 비밀의 계시들은 아직 말하지 말고 내가 간 후에 하라고 했다. 지금 급히 전해 주어도 모두 내 말을 경히 여기며 나의 계시를 귀히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선생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기성처럼 시대의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보낸 자 아니고서야 어찌 나의 재림의 잠을 깨울 수 있겠느냐. 이 사명자를 만났기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여 나 예수가 이 야단을 치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끌어 역사하는 것이다.

왜 그가 거기서 내 말씀을 받아써서 보내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어찌 신앙의 잠을 자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벗고 가는 자는 세상으로 인하여 편안하니 곧 죽음의 잠을 자게 된다.

고통을 받지만 마지막 최고 귀한 재림의 말씀을 끝없이 받아 외쳐야 된다. 한두 번만 외친다고 해서 모두 믿고 따라오겠느냐? 조금하다고 해서 한두 번만 하고 끝내겠느냐? 너희는 그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사람이 죽어 가는 것을 보여 주며 내가 경고를 해도 며칠 못 가서 잊어버리고 보통으로 생각하는 인생들이 아니냐.

하늘나라 사람들은 내가 한 번 말하면 모두 절대 순종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말을 해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너 그같이 하면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말을 해도 들을 때만 무서워하고 시간이 지나면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다가 ‘설마...’ 하고 그 길을 가다가 죽은 자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 선생의 말이라면 껌뻑 죽고 믿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나의 재림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와 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겨우 죽음의 잠을 깨게 한 것이다. 곧 시대의 잠을 깨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도 기성과 같이 저 시대에 처해 살았을 것이다.

너희 선생이 누구를 믿으라고 그리 외쳤느냐? 누가 시킨다고 그리하겠느냐? 누가 가르친다고 그리할 자겠느냐? 너희 선생은 내 말 외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다. 내가 말하였기에 그같이 외친 것이다. 그같이 하려고 이 역사를 30년 동안 이끌어 온 것이다.

실상 내 아버지는 이전부터 섭리해 오셨다. 너희가 선두로서 이 시대를 알려야 된다. 이때와 이 시대를 너희처럼 확실히 아는 자들이 없다. 너희들은 기반이 되어 있기에 성령을 물 붓듯 쏟아 부어 준 것이다. 은혜 받고 은혜 생활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이때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합심해서 기도하여라. 시대가 그러하니 내가 더욱 들어줄 것이다.

나는 이제 말씀의 차원을 높이기로 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때와 시대를 따라 고욤나무 그늘도 옮기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말씀의 차원을 높이시겠느냐. 내가 묵시로 말한 한 잠언이 생각나느냐? 이제 말씀과 시대의 차원에 따라 잠언이 생의 차원도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의 정한 날을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형제들과 청산할 것과 나와 청산할 것을 빨리 청산하여라. 늦은 다음에 청산하는 것은 너희 유익에 포함이 안 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격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인 고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깨끗이 죄를 회개하여라. 기도는 남기지 말고 몸부림쳐서라도 하여라. 그날그날 기도할 것을 남기고 하면 안 된다. 마지막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여라.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아직도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사망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다. ‘선생만 믿으면 됐지.’ 하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밤에도 그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

너희가 깨달았으니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말해 주어라. 섭리사 예전에 같이 뛰던 정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라. 그 날이 닥치면 그들 스스로 못 온다. 그리고 모두 자기 형제들을 은혜의 집회에 참석시켜 나의 외침에 인연이 되기를 구하라. 내가 너와 네 집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였으니, 구하면 지금껏 해 왔듯이 실행하려나.

너희는 왜 나의 재림의 날을 늦추느냐? 내가 그 날을 늦춘다고 하였느냐? 늦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유혹받은 자가 하는 말로 믿어야 된다. 그 날을 정해 놓고 모든 것을 그 때에 맞춰 실행하기 때문에 정한 날은 변함이 없다.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는 몰라도 어느 시점에는 올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 말하였기에 너희는 그 시점을 안다.

세상을 두루 돌아보아라. 세상 사람을 메시아로 맞은 자들은 그저 육적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더냐? 나를 메시아로 맞고 좇는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섭리해 오신 대로 행하니, 그 영을 부어 주심으로 온전히 나를 맞고 나의 신부가 되어 희망으로 날마다 사랑에 불붙어 살며 앞날에 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예비하며 더욱 희망에 차서 사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 선생은 사람을 메시아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바로 깨닫고 나 예수 외에는 메시아가 없고 그 외에는 재림할 자 없다고 깨달았다. 바로 알기에 너희 선생 말을 믿는 것이 내 말을 믿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주었다. 30년 동안 그같이 하다가 이제 나의 때가 되었기에 내가 나의 재림을 예비시키러 왔다.

너희 선생을 믿고 따랐듯이 이제 나를 1대 1로 믿고 따르고 내게 붙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바울에게 내가 말한 것을 읽어 보아라. 나의 재림 때에 내게 붙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시대급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나와 붙어야 된다.

너희 선생이 나의 말씀을 받아 너희로 외치게 하고,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내가 계시한 것을 속지 않게 분별하여 그들로 전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모두 내 말을 굳건히 믿고 말씀과 계시에 따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수십 년 동안이나 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2년이 가깝도록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외쳤으면 이제 모두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시간을 주었으면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까지도 준비할 정도가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더 시간을 준다고 해서 더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안 하는 자는 앞으로 10년을 더 주어도 못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맞을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준비하지 않을 것을 안다. 재림의 때를 더 연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고, 또 많은 자들이 특별히 더 와서 구원을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대가 악하여 사탄들에게 빼앗기고,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으로 가는 육적 신앙인들이 더 많아진다.

너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첫사랑을 잊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생명들을 전도하여 공력이 있게 하여라. 심판 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 영혼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을 당해 보지 아니하여 너희는 심판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내 아버지의 심판대에 오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일정일획도 없어야 된다. 공력이 있기보다 죄가 없어야 된다. 공력이야 조금 있으면 작은 집으로 가면 되지만, 죄가 있으면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된다.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 얼마나 좋으냐? 회개가 그 얼마나 좋은지 황금, 보석, 돈 한 트럭보다도 더 좋은 것임을 알아라. 너희 선생을 통해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가 그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라.’는 말은 영계에 가서 본 자여야 확실히 안다.

회개는 때가 지나면 못 하게 된다. 모든 것은 제때가 있다. 그때 못 하면 후에 한다 해도 유익이 없고 공적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환난 전에 알고 피해야 유익이 있는 것이다. 환난 당한 뒤에는 예언의 가치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늘 긴장하고 근신하고 두려워하며 내 말을 좋아하고 믿고 지키는 자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된다. 나의 심정을 가슴에 받아야 내 말이 마음에 들린다. 나는 늘 계시하지 않는다. 나의 말씀을 마음 판에 걸고 새기고 외쳐라. 수시로 보아라.

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와 닿아 생명시하도록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 기도를 남기지 말고 하여라. 끝까지 해야 내가 나타난다. 내가 하루 저녁에도 갈 길이 그 얼마나 많은지 밤새도록 길을 섰지만 못다 섰다. 나는 매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밀리지 않고 다 다닌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고 밀리게 하느냐.

나의 신부야. 내가 사랑하니 간청한다.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실행하라. 네가 실천하는지 멀리서 보다가 실천하면 간다. 실천하지 않기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기로 사랑한다 말하고 떠난다. 안녕.

오늘 주님은 설교로 말씀하시다가 토를 안 붙이고 직접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토를 안 붙이면 마음에 와 닿고 뜨거운데 깊은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말씀해 주세요.

수요말씀은 짧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어찌 갈 길을 가다 마느냐? 어찌 할 말을 하다 마느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할 말을 다 하시고는 “외치는 자가 심정을 쏟아 내 심정 맞춰 진지하게 외치지만 하면 내 속이 시원한데…” 하며 걱정하십니다.

외치는 자는 정말 잘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애인이 목메어 죽음의 문턱에서 외치는 말을 듣듯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달리 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애인 1급, 2급, 3급 취급하십니다.

선생이 처음 수요말씀을 쓸 때 ‘환난은 뜻을 싣고 간다.’는 말씀을 깨닫고 붓을 잡았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여자를 그리다가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남자부터 그리느냐?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주일말씀에 이어 할 말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붓을 돌려 이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은 기고 나는 말씀으로 ‘말씀 짱!’입니다. 할렐루야!

밤새 철야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믿어 주는 대로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인일수록 깊은 말씀을 하시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십니다. 계시자들에게는 각 지체별로 계시해 주십니다. 전체 계시들을 읽어 보면 각 지체별로 골고루 계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수준을 높여야 수준 높은 말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수준, 사랑의 수준, 실천의 수준, 화평의 수준, 회개의 수준,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으니 잘 가르쳐서 보내 줘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말씀으로 또 만나요.

<2009년 8월 23일 주일말씀>

영으로 행해야 할 수 있다
영적인 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

본 문 로마서 8장 5-11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님이 섭리세계에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요? 주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미리 알 사람이 없고, 선생이 보낸 말씀을 미리 보지 않고서는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일에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영적이다.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그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다 알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신령하여 미리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이나 하는 것같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름은 안 부르고 책망만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육신으로 하면 결단코 안 된다. 오히려 사망이다.’ 했습니다. 육신은 육적으로만 가고, 육적인 일만 하게 되고, 육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늘 손해를 끼치며 걱정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을 줍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고 실천하여 그같이 살았기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자가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 육성을 죽이고 기도하며 영적인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았기에 성경을 통해 그가 전한 말씀을 보면 모두 영적인 말씀으로 눈에 띄게 빛이 납니다. 영적인 자로서 주님과 의사소통이 잘되었습니다. 영을 보고 속사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영체에 대해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할 때는 육도 혼도 영도 흠 없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살전 5:23). 주님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바로 눈에 띄고, 소문이 나고, 세계의 마이크를 잡고 외치게 됩니다. 평소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모르던 사람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나와서 말할 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은 우리랑 늘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닌가? 교회 단상에 한 번도 서 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향해 말씀을 전하네.’ 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선생도 영적으로 하였기에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복음을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듣는 자가 영적이면 영적인 말씀인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자들이 육적인 자들에게 눌러서 크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섭리사도 육적인 자들은 선생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킁킁’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선생을 위한다고 합니다. 선생이 그 어린 자들에게 속겠습니까?

빛에 속하여 영적으로 사는 자들이 어둠 속에 속하여 육적으로 사는 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린 자라도 영적인 말을 하면 듣지만, 사회에서 간판과 철판이 있는 어른이라도 육에 속하여 말하면 그 말은 듣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외칠 때도 영적으로 외치는지, 영으로 말씀을 대언하는지 듣는 자들은 다 압니다. 신령한 자들이 영으로 외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마음에 와 닿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설교 말씀은 선생이 늘 영으로 주님께 받았기에 영으로 외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근본으로 느끼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이지 못한 교회는 부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역자가 목회한 지 얼마나 되었든지 그 기간에 상관없이 영적인 자로 대체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을 살피는 지도자 또한 지극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역자가 영적인지 알고 분별합니다. 그 교회의 상황은 교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은 앞으로 더 철저히 영적인 인물을 보고 뽑겠습니다.

선생도 정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에 주님이 뽑으셔서 더 정신적이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가르치고 기르셨습니다. 사도 시대 때도 영적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7명을 뽑아 외치게 했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신앙 세계에

서 큰일을 못 합니다. 육적인 자들은 아마도 세상 육에 속한 것에 있어서는 큰일을 할 것입니다.

영에 대해 모르거나 영적인 자가 아니면 영의 소경이요, 병어리요, 귀머거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지고, 어떤 것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마 15:14).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소경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지옥에 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에 있습니다. 영계에 갔다 온 자들과 지옥에 갔다 온 자들은 다 압니다. 어떤 종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영적인 영웅들과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교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경이면 따르는 자들까지 다 빗지게 합니다. 모든 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경이면 다른 자도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육적인 자들은 육에 속하여 시대의 말씀을 답답하게 전하고, 재림의 말씀에 갇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갇힌 암흑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비웃던 자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은근히 ‘저 종교 없어져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섭리 역사를 가지고 시대를 깨우십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사탄 귀신들에게 속아서 소경같이 헛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에 속한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섭리사 은하수 중에 마귀를 잘 보는 자가 있어요. 그는 10세입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 보세요. 마귀가 붙어서 따라다니면 속여도 본인은 몰라요. 마귀가 자기 교리를 가르치는데도 섭리 나이가 15년, 20년 썩 된 목사들이 속아요. 정말 개탄하고 한탄하고 통곡할 일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생을 통해 가르친 말씀에 소경이라 그렇습니다.

인사탄에게 속고, 우리를 악평한 자에게 속고, 가까이 대해 주니까 속습니다. 섭리 역사를 두고 한눈팔면 이제 복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해도 육적으로 가면 늦습니다. 영적으로 가야 온전히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영적인 것이며, 사람의 생각은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자일수록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육적인 자는 성령의 역사 덕분에 성령을 받고 잠깐 영적으로 가다가도 다시 육적으로 생각하고 살기에 후에는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에 속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통합니다. 사람마다 육도 있고 영도 있으니 영에 속하여 영이 중심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영은 기도해야 신령해집니다. 절대 주님 제일주의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여야 영이 육신을 주관하고 영적인 삶을 삽니다.

영이 하늘나라에 가니 영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영을 중시해야 육도 영과 같이 홀연히 변화를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을 중시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자가 되었어도 다시 육에 속한 자가 되는 이유는 영을 중시하지 않고 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점점 육에 속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늘 영을 중시하여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얻었으면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두 시간이 부족하여 아쉽게 제 갈 길을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시간이 부족하여 각자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함으로 주님을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편이 맞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의 재림 전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동안 모두 시간을 써 보았기에 자기 시간은 자기가 잘 압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지요? 주님은 아시고 전체에게 특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요.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와 지금 우리들이 행하는 정도를 정밀히 꿰뚫어 보시고 시간을 따져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심은 우리가 게을러서 할 일을 안 했기에 그럴다는 것도 아님을 계시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신앙이 살아서 뛰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적극적으로 전도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아도 적극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교회마다 살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와도 모두 예전보다 열심히 하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섭리 전체를 보면 전체가 살아서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열심히 뛰지 않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계시를 잘못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뛰는지 못 보니까요. 선생 의지로 이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선생은 섭리사의 모든 자들이 하는 일을 여기서 직접 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섭리사의 모든 자들과 상대가 되어 마치 시소를 타듯 일하기 때문에 알고, 또 주님과 같이 움직이기에 압니다. 선생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쫓깁니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너무 늦게 안 것일까요? 주님은 섭리역사를 펴 오시면서 이미 30년 전부터 준비시켜 오셨고, 2008년부터 깊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벌써 주님의 재림을 2년 가까이 외쳐 왔습니다. 늦게 믿은 사람은 얼마 전부터 외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 육으로 뛰면 부족하여 못 간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더욱 영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을 보니 육적으로 하면 못 하지만 영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육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게 된다. 영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말해 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보통 모든 것은 육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육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지만, 이제는 육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재림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나를 맞지 못한다. 시간이 짧다.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라.’고 배운 대로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영으로 하는 자는 넉넉히 하고 있다. 너희 영의 사람이 나를 깨닫고 느끼고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계에서 자기 상태를 보고, 계시자들을 통해 내가 계시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영이 육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게 되어서 할 일만 하고 안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영이 나와 대화도 하고, 영이 기도하고, 영이 내게 간절히 진실로 회개하고, 영이 뛰어야 된다. 영이 육신을 시키고 명령하고 다스리면서 뛰어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재림을 육도 영도 준비해서 맞는다. 신령한 자만이 나의 재림을 맞는다. 육에 속한 자는 열심히 하여도 나의 재림을 못 맞는다.

그 시대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육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내가 보였으나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니 맞지 못했다. 육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영에 속한 자만이 나를 맞았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이 시대도 영적인 신령한 자만이 나를 맞는다.

육으로 하면 늦어서 재림 전에 각자 할 일을 못 하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 육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다. 영으로 하면 능히 할 수 있다. 육으로 하면 10배, 20배 시간이 더 들어간다. 육이 지혜로워 열심히

히 하여도 영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영이 주인이 되어 육신을 운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육신은 그 말대로 따라가야 된다.

기도도 육으로 하면 오래 해도 얼마 못 하고 깊은 기도를 못 하게 된다. 영으로 하면 10분, 20분, 30분, 1시간만 해도 온종일 한 만큼 하게 되고 깊은 것을 알게 된다. 회개도 영으로 해야 근본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영의 말은 영적으로 전해야 원본을 그대로 전하게 된다. 너희 선생이 원본의 말씀을 보내면 그 원본 글씨만 안 틀리게 전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말씀이니 영적으로 전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된다. 설교도 영적으로 해야 나의 말을 근본으로 전해 주게 되고 짧은 시간에 다 말해 주게 된다. 너희가 영적이어야 짧은 시간에 말씀을 영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육적이니까 육을 이해시키려고 영의 말을 육으로 풀어 전하기 때문에 길다. 영에 속한 자는 몇 분 만에 끝난다.

오늘의 말씀은 실상 두 마디다. 너희 선생에게 이같이 계시했다.

1. 영적으로 가야 하지, 육적으로 가면 시간이 늦어서 못 한다.

2. 영적인 자만이 나의 재림을 맞는다.

너희도 이같이 말하면 근본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자만이 내 아버지를 맞고 나도 맞아 후회 없이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었다. 육신을 중시하여 살면 천 년의 감절을 산다 해도 하늘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영을 중시해서 영을 우선으로 살아야 영의 사람이 된다.

그러나 영은 뒤에 세우고 육이 앞에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섭리사의 특기는 영적인 것이다. 너희 선생부터가 영적인 것이 특기다.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신령하면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육에 속한 자는 나와 먼 자다. 영에 속한 자는 나와 가까운 자다.

육적으로 산 자들은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맞지 못하고 죽었다. 현실도 그러하다. 이제는 너희에게 남은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영으로 하지 않으면 나의 재림을 다 예비하고 맞는 것이 불가능하다.

육의 생각으로 자기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당연한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같이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산 자는 그동안 나 예수가 하늘 보좌에 편히 앉아서 너희들을 위해 간구해 주는 것으로만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 심정을 알겠느냐.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심정의 대상이 되어서 내 마음을 받는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나를 보고 책에 기록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증인이 되어 말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심정 태우며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말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희를 쳐다보고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고 안 하니 답답해서 운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 육으로 하니 하고도 나를 맞을 수 없기에 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 내가 외치고, 오늘 내 심정의 사연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감으로 넓은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만 흘리겠느냐. 나는 너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을 쳐다본다. 나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신령한 영의 몸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신령하여 제발 나에 대하여 알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마음을 알게 되니 대성통곡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너희가 내가 보는 것을 다 보았느냐. 내 심정을 느끼고 울었을 뿐이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만이 느끼고 보고 맞듯이 재림 때도 그러하다. 재림 때 내가 사람처럼 육체로 오겠느냐. 영으로 온다.

지금도 너희와 함께 오래 거하며, 집회 때마다 가서 세운 자들을 통해 그때마다 외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다. 성령 집회 때 내 손이 닿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은혜, 축복, 성령의 역사를 받도록 했

다. 내가 하는 것을 다 봤느냐. 강사의 손이 닿지 않은 자는 내 손이 닿아 내가 다 축복해 주었다.

나를 영으로 본 자들이 증거하지 않더냐. 너희가 봐야만 믿겠느냐. 너희가 영적이면 다 볼 수 있겠지만, 못 보면 본 사람을 통해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자기가 탈 차를 누가 보았는데 그 차가 떠났다고 하면 직접 못 보았어도 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안 믿고 계속 기다린다면 자기만 손해일 것이다.

지금은 나의 재림 준비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다. 내가 언제까지 이같이 하겠느냐. 내가 이미 계시자들과 너희 선생을 통해 말한 것을 생각하여라.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준비하는 이때는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여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신랑이 결혼 전에 와서 너무 사랑하여 돕고, 준비 안 된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하여 돕는 것과 같은 때다. 신랑이 신부를 도와주며 준비시키다가 결혼식 날을 조금 앞두고 가지 않느냐. 나도 곧 갈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으면 육적인 자다. 영적인 자는 나의 말을 믿는 자요, 영의 말을 받은 자의 계시를 믿는 자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순간 모든 행사가 끝난다. 결혼을 준비하는 날은 길지만 신랑을 맞는 날은 하루다. 그 하루 중에서도 몇 시간이다.

지금 신부로서 준비되고 택함을 받는 자만 내가 다시 올 때도 데려감을 받는다. 나머지는 신부와 신랑을 위하여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다.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잔칫집 분위기와 음식 분위기만 맛보고 끝나게 된다. 지금 너희가 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들이라면 재림 전부터 나를 맞을 것이다. 잔칫집에는 미리 예비된 신부만 데리고 가듯이, 재림 때도 준비된 자들만 데리고 간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아! 정말 시간이 없다. 영에 속한 자는 지금 내 말을 영으로 듣고 이 말을 믿을 것이다. 육에 속하여 육으로 듣는 자는 보통으로 들을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는 자는 나의 재림에 대하여 깨어나기는 했으나, 시대는 날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못 하고 말게 된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제부터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여라. 영으로 해야 각자 자기의 것을 준비하고 능히 나를 맞을 수 있다. 너희는 나의 재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나 육이 중심이 되어 하는 자가 너무 많다. 내가 섭리 온 세계를 꿰뚫어 보았기에 안다. 신령한 자만이 내가 재림하여도 나를 보고 맞는다. 영적인 자만이 나를 보고 맞는다.

육은 무익하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이 영의 생각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육이고 나는 영이니 내가 한 말을 꼭 생각하라. 선생이 늘 잠언으로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나와 한 몸이 되어라. ‘선생이 육이라면 주님은 영이시다. 구약은 육이고 신약은 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모두 나 예수의 말씀이었다. 나 예수가 준 법이었다.

너희 선생이 나를 따라오면서 오늘날 이같이 될 것을 몰랐듯이, 나의 재림 때도 생각한 것과 다르게 될 것을 모른다.

마지막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올해에 한 번 남았다. 이때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신부로서 시간에 늦지 않게 영의 생각으로 뛰고 영이 행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쳐다보면 애간장이 탄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육으로 하는 자, 모르는 자를 보면 눈물만 나온다.

내가 각종으로 한 말씀을 잘 들어라. 특히 섭리 안에서 은밀하게 여러 사람을 통해 계시한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을 잘 알고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더욱 힘들고 어렵다. 나는 영이니 너희 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아 이때도 맞고 재림 때도 맞아야 한다. 영으로 하면 쉽다. 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성령 집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 영이 육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는 집회다. 영이 근본적으로 사는 집회다. 영이 나 예수와 대화하고 의논하고 영이 알고 깨달아 어른이 되는 집회다.

너희의 영을 보았느냐?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알고 깨달고 영이

주인이 되어 하면 성장된 자가 된다. 섭리사에서 바깥에서도 일을 주어 일하게 하면 바로 경험이 생기게 된다. 행해 보니 겪고 알게 되어 어린 자들도 어른같이 된다. 이와 같이 영이 중심이 되어 하면 바로 영이 성장된 자가 된다.

지도자들이 어리다고 일을 맡기지 않고 선후배를 찾고 일을 안 맡기면, 그들의 신앙이 크지 않고 섭리사에서 그 개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바쁜 때 모두 맡겨서 일하게 하여라. 맡기면 처음에는 미약하나 자꾸 하니 창대케 된다.

성령 집회를 이끄는 강사도 선배보다 어리지만 맡기니까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결국 창대케 되었고 강자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계시해 주는 자들도 보아라. 그들은 4세, 혹은 10세, 혹은 10대 초반이고, 혹은 섭리사에서 어린 자들이다. 그들이 영을 중심하여 영적으로 하니 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모두 영적인 자가 되어라. 자기 영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애원하고 기도하여라.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느끼고, 육으로 행하면 못 한다. 불가능하다. 아예 못 한다. 앞으로는 영으로 하는 것과 영이 성장하는 것과 영에 대하여 말해 줄 테니 늘 들어라.

너희는 섭리역사 30년 동안 너희 선생을 통해서 지상에서 육으로 나를 맞고 살았다. 그것이 뜻이다. 나를 육으로 맞는 것과 영으로 맞는 것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육으로 나타났을 때 맞았듯이, 나의 공생애 3년을 확대시켜 30년 동안 너희 선생을 통해 내가 역사하면서 너희 선생을 맞는 것이 나를 맞는 것같이 역사를 펴 왔다.

사도 시대 부활 복음 때는 내가 영으로 나타나고 나를 영으로 맞았듯이, 지금은 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재림을 준비하려고 내가 영으로 왔으니 나를 영으로 맞아야 된다. 지금도 영으로 오듯이 재림 때도 영으로 온다. 고로 영적인 자, 영의 사람만이 나를 보고 맞는다. 육의 눈으로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나는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는 나를 못 맞는다.

너희 선생은 육의 몸이니 너희의 육이 깨어나면 맞을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너희 선생의 육을 통해 나타나 육의 눈을 뜬 자들은 선생을 통하여 나를 맞고 따라오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육으로 나를 맞던 시대에서 이제 더 차원을 높여 너희 영이 나의 영을 직접 맞는 때가 왔다. ‘영과 영의 만남’이다. 육신은 그릇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영의 사람은 항상 영이 우선권이다. 육은 영의 생각과 영이 받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영에 속한 자가 나와 가깝다. 영에 속한 자가 나를 만난다. 영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영에 속한 자가 시대를 내다본다. 영에 속한 자가 내 심정을 제대로 알고 직접 내 사정을 말해 준다. 그곳에 내가 역사하고 성령이 임한다.

올해 마지막 대(大)기대를 하자. 모두 영에 속한 육신을 쓰며 살았지만 이제 영의 사람으로 만들 테니 모두 기대하자. 영이 알고 행해야 실패하지 않고, 가지 않을 곳을 미리 알고 안 가게 되고, 꼭 영이 할 일만 하게 된다. 고로 시간이 충분하다. 육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나의 재림의 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결혼식 준비를 다 할 수 없다.

내가 섭리사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순간에도 깨닫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되고, 영이 깨달아 몸에 느낌이 오고 자극이 올 것이다. 영이 나와 대화하고 통해야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느냐? 그래서 섭리역사가 그 많은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으나 지금까지 이같이 창대케 역사해 온 것이다.

육에 속하여 육적인 일만 하지 말고 영에 속하여 영적인 일을 중심하여 하라. 그 다음에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영이 기도해야 깊이 기도한다.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누가 나에게 합당하게 하는지 보고, 합당하면 누구에게든지 간다. 나를 만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 선생을 만나는 것도 지혜롭게 한 자는 못 만날 자인데도 만나지 않았느냐.

사랑의 공적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라. 내가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같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만나 주었고 역사해 주었다. 만나 준 것을 귀히 보지 않으면 또 육적으로 흘러간 것이다.

성령 집회 때 하나님도 너희의 영을 만나 육까지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 영이 나와 대화하게 되었고, 나도 만나게 되었고, 성령님도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을 계기로 하여 더 깊이 다가오고 간구하고 더 열심히 한 자들은 천 리나 더 높이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은 자는 다시 육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를 만나는 단계에 오르려면 다시 해야 된다.

마지막 은혜가 남아 있으니 금년도 마지막 선물이다. 몸부림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 간구하고 관리해야 된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만큼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다. 꺼져 가는 불을 보고 빨리 더 타 오르도록 나뭇가지를 놓아야 된다. 꺼진 다음에는 다시 불붙이기 어렵다.

신령한 기도다. 절대 내 말을 믿어라. 육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던 일이 영적으로 하면 능히 된다. 내가 얼마나 더 말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 말을 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 말대로 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이는 시대에 따라 나를 육적으로 대하거나 영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나를 영적으로 대하는 자가 나와 가깝다.

영에 속하여 영으로 행하는 자를 어찌 육에 속한 자가 따라가겠느냐. 영으로 해야 될 것을 육으로 하니 필요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오히려 해를 받기까지 한다. 그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 나만 원망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안 주시는구나.’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믿음까지 버리는 자가 너무 많다.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너희의 행실을 보고 다 말해 주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곧 시작하는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여 네 영에게 네 인생의 운전대를 쥐어 주고, 육은 거기에 타 조수가 되어 영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은혜 받는 것이 힘들다 하느냐?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 하느냐? 천국길, 생명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 하느냐? 지옥길, 넓은 길, 육적인 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영적인 자라야 좁은 생명길을 간다.

그동안 섭리역사는 육신을 쓰고 영적으로 왔기에 다른 신앙인들보다 앞질러 온 것이다. 이제 영을 중심하여 행하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게 된다. 마치 차로 가다가 비행기로 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영이니 육으로 하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영으로 하는 자는 늘 나를 쳐다보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쳐다본다. 영의 눈으로 보고, 혹은 영의 마음으로 깨닫고, 혹은 영의 귀로 듣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온다. 육은 보이는 자를 따라간다. 그러니 나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과 동행하는 자다.

역사는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 역사로 차원을 높여 왔다. 나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시대를 바로 좇게 된다. 구약은 타락함으로 인하여 육적 역사였다. 신약은 영적인 나로 인하여 영적 역사였다. 이제 재림의 때가 되어 더 차원을 높인 영적 역사를 선포한 것이다.

온 세상 누구든지 영이 나를 좇아야 능히 나를 따라온다. 육으로 좇으면 못 따라온다. 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살며, 육이 세상에서 살 때도 내 뜻대로 살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 영이 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내가 한 말씀도 시인해야 인정받는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섭리를 시인했다가도 환난이 오거나 신앙이 약해지면 부인하고 섭리에서 나간다. 모두 영으로 시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영으로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시인하지 않았느냐?

왜 거기서 끝나는 자들이 많고 쉬는 자들이 많은 것이냐? 쉬지 않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간 자들은 한없이 갔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어느 것 하나도 흘려보내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근신함으로 믿고 지키는 자는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며 나의 재림을 맞을 자다. 누구에게 자기가 재림을 맞을 자인지 묻지 말고 네 스스로 내 말을 지켜라. 자신에 대해 파악하면 나의 재림을 맞을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게 된다.

누구든지 나 예수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 예정이 좌우된다. 그가 받는 것이 좌우된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가까이 대할 것이다. 나의 심정을 알고 즉시즉시 속 시원히 행하는 자가 나와 가까울 것이다. 너희 선생도 가까이한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더냐.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와 가깝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내 손에 달을 정도로 가까워야 되고, 내가 보통 소리로 말해도 들릴 정도로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나와 일체 되어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서 애인처럼 일체가 되어야 한다.

새벽에 기도할 때 가면 내가 온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자도 있다. 기도해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내가 그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 놓았기에 순간이라도 가서 한마디 하고 간다.

나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나는지 배워야 된다. 직접 만나고, 간접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나고, 느낌으로 만나고, 스쳐 만나고, 음성으로 만난다. 이외에도 수십 가지로 만나고 가까이해 주었다. 알지 못하면 만나 주고 가까이 했어도 내 심정을 태우며 한탄하게 한다.

나를 더욱 가까이 맞으라고 너희 생활 가운데 동행하면서 만나 주는 것이다. 나와 영적으로 사랑하며 살자고 만나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힘들다. 내가 가까이했을 때 힘써 만나야 된다. 육으로 보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것이다. 영이 신령해야 멀리 있어도 나를 느끼고 나와 통하며 대화도 하게 된다. 육으로 생각하는 자는 옆에 있어도 모르고,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외쳐도 모른다.

나의 신부는 나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듣는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이름을 안 써도 글씨만 봐도 알고, 안 보여도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누가 편지나 말로 전해 주어도 사연을 보고 안다. 너희 선생의 자필을 타자로 쳐서 보내도 내용을 보면 알지 않느냐? 직접 그 목소리를 안 들어도 전해 달라고 하여 누가 대신 전해 주어 그 내용을 보면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신부라면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알아라. 모르면 너희 선생에게 물어보아라. 내게 물어서 내가 다시 확인해 줄 것이다.

섭리역사는 신부 역사로 역사를 펴 왔기에 너희는 너희 선생의 신부가 아니다. 나의 신부다. 신랑 되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는 영이니 너희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너희 선생을 나로 상징하여 신랑같이 역사를 펴 왔던 것이다. 상징적인 신랑으로 대해 온 것이다.

낮이 되기 위해 먼동이 트면 달도 별도 사라지고, 새벽별마저 사라지고 광명한 태양이 비추인다. 지금은 낮이다. 밤이라 할 수 없다. 이미 동이 텅으니 이른 낮이 아니냐. 동이 텅으니 새벽별이 빛을 내지 못하고, 동쪽 하늘이 흰해졌으니 낮이 아니냐.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 그 해 뜨는 때를 나의 재림의 때로 보아라.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하며, 초능력을 가진 너희 영으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준비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영이니 내가 영으로 재림할 때 너희의 영들이 아는 것이다. 성령의 대 집회 때도 영으로 느끼고 받는 것이다. 영이 나를 보고 영의 세계의 것들도 보지 않았느냐. 영이 보니 육도 느껴 함께 믿게 되는 것이다. 육이 믿은 것은 곧 변한다. 그러니 영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공적 일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람을 설득하는 것, 글을 쓰는 것도 육으로 하면 그 시

간을 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지만, 기도하여 영으로 받고 영이 주인이 되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같이 해서는 나의 재림을 못 맞는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보통 설교를 들어서는 누구든지 나의 재림을 못 맞는다. 늘 깨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성 시대 신앙은 육적인 말씀만 듣고 육성만 크게 발달되었다. 그들은 만일 재림 때 내가 육신으로 사람처럼 오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승천 후 2000년 동안 나는 영으로 지상의 개인과 청중에게 나타났다. 육으로 왔으면 모두 기념사진을 찍어 뵈을 것이다. 내 육신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느냐? 모두 영으로 나타났으니 영 사진만 있다. 영이니까 육과는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이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다른 세계에 있으니 마음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선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 직접 말이 통하지 않느냐? 나도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있으니 너희가 영으로 살아서 나의 단계까지 와야 나와 말이 통한다. 알겠느냐?

나는 영이니 너희가 영의 단계에 올라와야 너희의 성장된 영과 마음대로 할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사람이 되어 나와 동행하고 재림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육으로 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은 짧은 시간 안에 도저히 못 한다.

오늘의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제 육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한다. 영이 육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 영은 순간 번쩍 가지만 육은 평생 해도 그곳에 못 간다. 그래서 영을 개발하고 영을 훈련시켜 영을 내세워야 된다. 영을 중심하고 영이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하여 청중의 마음을 순간 녹이지 않느냐? 전도, 관리, 은혜의 역사 모두 영적 역사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해야 된다. 영적인 자만이 나의 재림을 맞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알라고 오늘 여러 가지로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내 속이 시원하다. 나의 말로 인하여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평강을 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잘 들었어요? 이제 선생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풀어 쓰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니 주님께 풀어 달라고 하여 주님이 이같이 풀어 주시어 받아썼습니다. 받아쓰는 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정말 표적이지요? 주님과 내 영이 하는 것을 육이 따라서 받아썼습니다. 영적으로 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내 육과 영이 하면 육을 중심하지 않아도 교정까지 보는 데 15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의 영과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해야 불가능한 시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범을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선생이 해 보아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중에 본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선생이 꼭 갈 곳이 있었는데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 다. 한 시간쯤 걸어가서 역전에 가보니 내 느낌에 열차가 이미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떠난 것 같은 생각도 들 었습니다. ‘만일 열차가 떠났다면 안 되는데… 빨리 가자.’ 하고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한 곳을 가보니 내가 타려던 열차가 서 있기에 올라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차 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열차의 종착역에 왔기에 내리라는 신호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걸어가려고 하니 서산의 해가 세 발쯤 남아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가다가 어두워지면 할 일을 못 하니 가 봤자 소용이 없겠다. 꼭 열차를 타고 갔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열차는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해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할 일 도 있습니다. 걸어서 간 곳과 걸어간 길은 육적으로 할 일이었습니다. 열차 길이 안 난 곳은 걸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열차를 타려고 갈 때 육적으로 걸어갔기에 열차가 떠난 것입니다. 열차로 이동할 곳은 너무 먼 곳이라서 꼭

열차를 탔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할 일은 열차와 같습니다. 또 주님이 열차와 같습니다. 자기가 영적이어야 주님과 열차를 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아쉽게 끝납니다. 이 같은 계시를 받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직접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으로 하여 기적적으로 5배나 빨리 끝낸 것입니다.

재림도 영적으로 준비해야 남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불가능한데 차를 타고 가면 능히 갈 수 있듯이, 이제 모두 육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지만 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보니 사람 키만 한 포도 한 송이가 방 밖의 발코니에 보였습니다. 그 옆을 보니 포도를 다 먹고 남은 3~4개의 포도 꼬투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무슨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미 먹은 포도송이는 그동안 말씀과 성령 집회를 통해 준 은혜다. 너희가 받고 맛있게 먹지 않았느냐. 나머지 포도 한 송이는 금년도 마지막 성령의 집회와 그에 따른 주일말씀과 수요말씀들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주님은 “그 후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하시며, “이제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다.” 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개인들의 간구에 따라 집회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압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은 잠수하듯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과 선생의 심정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선생도 이제 결재 서류고 편지고 간에 기도에 들어갈 것이니 답장이 안 오면 의논해서 하기 바랍니다. 선생도 갖은 고생 하면서 내 갈 길 가야지요. 늘 힘든 사람들 챙기다가는 내 갈 길 못 갑니다.

마지막 한마디 남았습니다.

기도 중에 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선생이 옛날에 살던 집의 방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밖에서 말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여 내가 문을 안으로 잡아당겨 못 열게 했습니다. 밖에서 너무 힘이 센 사람이 말도 않고 문을 잡아당긴다고 형제들에게 말하니, 형제들은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잡아당기며 안 열어 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예감에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서 그러니 힘을 모아서 문을 같이 당기자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망신이고 실수냐고 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잡아당기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작아서 못 들어올 정도로 큰 덩치의 씨름 선수 같은 자가 말도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제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문을 당길 걸...’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 놈이 자리에 앉으니 방이 좁았습니다. 그가 인상을 쓰며 내게 두려움을 주기에 ‘나는 작지만 이 정도야!’ 하고 그의 손을 꼭 감아쥐었더니 ‘오도독’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손이 깨지도록 아파하며 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야! 내 손은 철강이다. 알고 대해! 내가 보니 너는 마귀가 아니냐? 네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답을 쓸 수가 없어서 읽기만 하고 기도에 들어가려고 찢어 소각시켰습니다. 서류 때문에 내 갈 길을 못 가고 주님과의 대화 시간도 빼앗기니 결심하고 모두 청소해 버렸습니다. 이제 서류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만 신경 쓸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계시가 나옵니다. 전체에게 시간을 줄 것입니다. 편지도 어떤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두 말씀으로 할 것입니다. 답장이 안 가더라도 그리 알기 바랍니다. 단, 계시 말씀만 분별해 줄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답장

을 안 보낼 것입니다. 교단과 책임자들이 보고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지 때문에 몸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편지와 서류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새우잠도 잘 수 없게 되었기에 싹 없었습니다. 읽고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그 마귀는 방이 깨끗하니까 자기가 거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입은 옷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자기 코로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방은 깨끗한데 자기 옷에서 냄새가 나니 창피해하며 일어서면서 문이 좁으니 옆으로 비껴서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덩치가 큰지 230kg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는 편지 때문에 틈을 타서 내게 왔습니다. 시간이 주님인데 그 시간을 개인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기도를 못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온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편지는 끝이 없으니 보고 답장 쓰지 말고 기도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면 답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편지하기 시작하면 마약에 중독되듯이 계속하게 됩니다. 편지 때문에 100일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선생과 심정 일체 되어 같이 방문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사탄은 노력도 없이 무력으로 도적같이 문을 잡아당기며 들어옵니다. 개인의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잡아당겨야 됩니다. 여자들은 사랑의 문을 꼭 잠가야 됩니다.

이성 문제를 저지른 자를 주님이 용서해 준 후에 조건 세우라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이성의 죄를 지은 자는 주님이 계시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이성 문제를 저지른 자는 휴거가 안 된다.”고 주님은 계시받는 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가 언제 말해 줄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는 교단에 말하여 언제 말해 주기 바랍니다.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사를 쓰는 사업가들, 마귀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아예 문을 열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제대로 불을 꺼야 합니다. 불났다고, 사람 떠내려간다고 계속 신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꺼야지요. 가서 구해야지요. 선생 보고 직접 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옆에 다니면서 제재하고 광고하여 속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전화만 해 주고 끝내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달려가서 속 시원히 해결해야 됩니다.

내게 꼭 보고할 것을 분류한다면 지금의 10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일까지 다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꼭 보고하고 결재받을 것만 보고해야 됩니다. 개인 생각으로 하는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여 세우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개인들이 전초해서 부흥 집회 때 데려오는 것입니다.

둘째, 잘 전초하여 전도 집회와 부흥 집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합니다.

셋째, 교회로 연결하여 말씀으로 뼈를 세워 줘야 합니다.

넷째, 성령 집회로 인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줘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을 받게 해 줘야 합니다. 이때 주님과 일체 되게 해 줘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에서 관리해 주며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세워 준다고 하며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안 세워 주면 사회로 나갑니다. 세워 줘도 만족하지 않고 사회로 나갑니다. 처음에 꼭 절대 신앙을 넣어 줘야 합니다. 특히 치어와 모델들은 처음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각종으로 수고하며, 신학을 하고, 주를 모시고 뛰는 자들에게 작더라도 사명을 맡깁니다. 모두 이 같은 다섯 가지 순서로 생명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집회를 하면 혼잡하니까 교단의 질서에 의해 한 틀로 해야 합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집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계시하신 후에 “꼭 너희 선생에게 물어보고 행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사탄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계시를 막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계시가 아니라도 자기를 중심하여 하면 안 되기에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았지요? 꼭 선생에게 물어보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께 계시 받았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자기를 중심하는 자니 중지하라.”고 하며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같이 행하는 자는 불법자입니다. 그냥 하면 사탄이 침범합니다. 결국 사탄의 육체가 됩니다.

주님은 “질서의 법을 정한 대로 지켜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급하다고 월권을 행하여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에게는 제사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의 사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을 나무라며 “이를 행하였으므로 왕권이 다른 타인에게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삼상 13:8-14). 그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으로 사명자를 교체시키셨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선생을 통해 주님께서 섭리의 방향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바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유익이 없으면 왜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모두 근신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 사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다른 자로 교체하십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아시기에 이때 쓰시려고 모두 거기에 맞춰서 여건을 틀어 모든 사람들과 섭리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고 오다가 선생이 없는 사이에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거기서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해야지요. 신부의 틀을 벗어났으니 되겠습니까?

섭리사 안에서도 마지막 재림 때를 위해 쓰시려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살다가 자기 길로 갑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은 자존심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더 잘하는 자 7명 이상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안 해도 주님이 세우면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사는 자는 자기를 써달라고 편지가 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보면 자기를 중심하다가 한 번 자기 사명지를 뜯은 자들은 다시 그 위치에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님께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쓰여지기도 어려운데 주님께 쓰여지는 것이 그 얼마나 중한지 모르면 빼앗깁니다. 선생도 이같이 극적으로 고통을 받음으로 더욱 깨어 섭리인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섭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한 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모두 영적으로 살고 영으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수요말씀>

영으로 하라

본 문 로마서 8장 5-14절 (핵 : 13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맞고 살려면 꼭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삼위체는 모두 육신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감동과 말씀들이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도 우리의 영이 맞는 것입니다. 육신은 주님이 오셔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이 알고 나가 맞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그 순간 임신하거나, 혹은 마비되거나, 혹은 육에 여러 짐조가 일어날 뿐입니다. 꿈속에서도 육신은 잠들었지만 영이 주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영을 따라 그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의를 행하면서 갑니다. 마치 육은 차와 같고, 영은 차 주인인 사람과 같습니다. 육의 주인은 영입니다. 영은 속사람입니다. 신령한 영이 주인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일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영이 행해야 모든 일을 늦지 않게 행합니다. 하루를 두고 보아도 영적으로 자기 영을 중심한 날은 그 날 주님의 뜻에 해당되는 일을 충분히 늦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육을 중심한 날은 절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육적으로 행하면 너희 육신이 땀을 뻘뻘 흘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금식을 하면서 행해도 안 된다. 영이 행해야 된다. 천 리를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자.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면서 목숨을 다하여 뛰어가도 그날에는 못 간다. 거기까지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야만 여유 있게 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차는 자기 영입니다. 또한 주님입니다. 영은 육보다 천 배, 만 배 이상적이고 빠릅니다. 영은 빛보다 빠릅니다. 영이 1초 만에 가는 거리를 육은 평생을 가도 못 갑니다. 영은 하루의 일을 해도 정말 서둘러서 합니다. 새벽부터 씹니다. 육을 데리고 해야 되기에 지체롭게 서둘러서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영은 미리부터 예비하고 지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날 일을 쉽게 합니다. 영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육은 느린데다가 하는 것도 늦게 합니다. 육에게 맡기면 실패합니다. 육은 모든 일을 안 되는 쪽으로 합니다. 육은 미련합니다. 육이 하면 실패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대상입니다.

영적인 자들 중에서 기도를 조금만 하는 자는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육신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과 의논합니다. 영적인 자는 늘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인 자는 새벽에 신령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만나려면 새벽에 꼭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그 시간에 기도하니 처음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시어 귀한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그 영과 교통하신다. 하나님이 그와 일체 된다.’ 함입니다. 주님도 영과 일체 됩니다. 선생도 기도 중에 보면 주님이 내 영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육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육은 방에 있고 육의 일을 합니다. 물론 육도 신앙에 속한 일을 합니다.

육은 성경말씀대로 육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행하고 육의 생각대로 육신을 위해 행합니다. 육은 혈기를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때그때 육적인 분위기에 따라 행합니다. 누구든지 육성을 죽여야 영이 크고 성장하고 주님과 가깝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성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위한 삶을 죽이고 참고 견디며 아주 계획적으

로 처세하여 성공했습니다. 고로 영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가 되니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바울이 말씀한 신약 14권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가 영을 중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모두 영에 속한 말씀입니다.

육성이 강해지면 영은 실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놓고 영에게 시간을 주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에게 시간을 주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해야 선교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재림을 앞두고 남은 시간 동안 너희가 육적으로 나의 재림을 준비하면 할 수가 없다. 모두 영으로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과 의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선생의 육은 여기 있지만 영은 주님과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지요? 그 영이 선생의 영체입니다. 영이 하는 것입니다. 선생의 영은 세계 각 나라에 갑니다.

육은 IQ가 높아 봤자 150~180 정도입니다. 영은 신령할수록 상상하지 못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육의 지능보다 수천 배 높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하면 잠깐 해도 육이 1년 한 것보다 더 합니다. 1년이 가도 육은 영이 깨닫는 단계까지 못 깨닫습니다. 선생도 영계에 가서 영이 시를 쓰거나 잠언을 쓸 때는 깊게 씁니다. 육적으로 하면 1년이 가도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그 내용을 받지 못합니다.

게시받는 자들을 보세요. 그 내용을 보았지요? 20~30년 동안 백지 한 장도 못 받았던 내용을 순식간에 수십 장씩 매일 받습니다. 선생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았으면 월명동 옛날 그 골짜기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영으로 했기에 수만 배 더 이상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으로 살라는 것은 ‘주님과 일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영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 육은 영이 하도록 밀어 주고, 기도해 주고, 영이 시키는 대로 꼭 쥐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육도 영의 신부가 되어 애인이 되어 삽니다.

영적으로 살면 영도 육도 유익하고 기쁩니다. 육이 고생할 것도 영이 생각하고 사니 고민과 염려가 없고 곤고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신랑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생각을 주시어 영이 그대로 행하니 영이 걱정·염려·고민·근심하지 않고 곤고와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으로 살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삼분설>에서 배운 대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과 육이 있습니다. 자기 육이 신랑이 되고 영이 신부가 되어 사는 자는 육적인 자입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중심하는 세상적인 자입니다. 주님과 천 리나 멀리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이 신랑이 되고 육이 신부가 되어 사는 자는 영적인 자입니다.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자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육은 사탄에게 조건이 잡혀 끌려가도록 죄를 잘 짓고 그로 인하여 영이 고통 받게 하는 짓을 잘합니다. 육적으로 살면 육도 고통이고 영도 고통입니다. 혈기를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사람들이 상처 받게 말하고 육성으로 행하는 자들은 무섭고 거칠고 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염소 같은 성격, 호랑이 같은 성격, 섬뜩하게 하는 성격은 모두 육성에 속한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순간순간 행하는 행위들도 모두 육성에 속한 것입니다. 선생도 육적인 자들에게 늘 당해 왔습니다.

육적인 자들은 주님의 심정거리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있으면 모두 근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육성을 안 고치면 무섭다.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마디 원어로 말하겠다고 하시며 “그런 자는 아직도 나의 재림을 100% 준비하지 못한 자다. 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자기 행실을 고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입으로 회개했어도 또 그같이 행하면 아직도 안 고쳐진 것이고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은 자다. 특히 단상에 서는 자들이 육성을 고치지 못하면 보는 자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도 못 받게 되니 고쳐라. 성격도 은혜다. 겸손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진실로 나의 신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의 행실을 죽여야 영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행하는 자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육성이 문제입니다. 육성이 강한 자는 절대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육이 어린아이 같아야 영이 잘 성장하고 공력을 세우고 형통합니다.

주님은 겸손이 전지전능하시고 자비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영적으로 보고 대해야지 육적으로 보고 대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영적인 자는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합니다. 지난날 남의 고통을 알아줍니다. 그 말과 행실이 은혜 자체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자만이 지금도 나를 맞고 재림 때도 맞는다. 영이 나를 맞는 것이다. 지금 나를 맞는 자는 재림 때도 나를 맞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어떻게 맞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이 신령해야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육이라면 육으로 통하겠지만, 영이시니 영으로 통합니다. 주님께 자기 영을 보여 달라고 해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중에나 꿈 속에서 보고 느끼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만 만나고 가십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이야기할 때는 육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이 말할 때 육을 통해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과, 복숭아 등 각종 과일을 그릇에 담아 방에 놓으면 결국 썩어 버리게 됩니다. 먹어야 썩지 않습니다. 각종 과일을 먹으면 몸속으로 들어가 소화되어 필요 없는 것은 배설물로 나오고 핵심 영양가는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면 썩지 않습니다. 10~20년 정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은 보이는 사과, 복숭아 등 각종 과일이나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뼈와 살이 되듯이, 육이 의를 행하면 영이 그 의를 흡수하여 영체로 변화됩니다. 그냥 살기만 하면 과일같이 그 날그날 썩어 없어집니다. 육은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육은 방의 과일같이 말라 가고 썩어 가듯이 날마다 변합니다. 영을 위하여 영이 육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빛이 나고 은혜의 살이 찌고 건강합니다. 미의 신부가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보다 영을 보세요. 영을 보면 영이 입은 옷을 보고 육의 행실을 알게 되고, 영이 빛나는 것을 보고 육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육적으로 하면 못 한다. 땀을 흘리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잠을 안 자고 해도 육으로 하면 못 한다. 영으로 하면 잠잘 것 다 자 가면서, 제시간에 먹을 것 다 먹어 가면서도 할 수 있다. 영적인 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재림 준비 때문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데 영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는 주님과 만나고 통합니다. 물은 물과 통하고 불은 불과 통하듯이, 영은 영과 통합니다. 주님은 영체이십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이다. 고로 너희가 육으로 만나려고 하면 애간장 태워도 못 만난다. 기도하여 신령함으로

내 심정을 알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정될 때 나를 만나고 맞는다.”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야 재림 때도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 거의 99% 결정해 놓고 가신답니다. 아예 재림 때 주님을 맞을 신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가신답니다.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모두 하루를 축소시켜서 해 봐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육적으로 한 일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답니다.

‘영적’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의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육은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모두는 육이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도 육도 절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섭리역사에서 육으로 하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낙심을 줍니다. 육적인 자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교회 부흥도 안 되고 힘듭니다. 영적인 자들에게서 은혜가 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지도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나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자는 힘들어서 못 합니다. 할 말도 없고, 받은 것이 없으니 육적인 말만 하게 됩니다. 육적인 자는 육에 속한 깨달음만 받고, 육신만 기쁘게 하고, 육성만 기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도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선생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성이 나타나 사람들이 그 행실과 말을 듣고 놀라서 “어떻게 성령을 받는 자가 그렇게 할까?” 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육이 있는 고로 육성이 안 죽으면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육성을 통해 역사합니다. 영의 사람인 선생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멀리합니다. 섭리의 모든 자들은 영을 중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말씀도 계속 신령한 말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육적인 자에게는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섭리의 모든 자들은 영을 중심해야 됩니다. 육적인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육적으로 읽기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생각과 심정을 느껴 그대로 즉시 행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며 말씀이 나간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자는 선생이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영적인 자는 반드시 주님과 일체 되어 주님을 우선으로 하고 주님 따라 삽니다.

어디를 가나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대해 주고 사랑과 은혜로 화평케 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얼굴입니다. 선생이 말했지요?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웃이 없으면 떨어진 것을 입더라도, 인격이 떨어지면 인기가 하락합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선생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항상 옆에 주님이 있다. 선생이 있다. 선생이 보낸 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선생이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선생이 대신해서 더는 못 집니다. 실 오라기만큼도 더 지면 쓰러집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선생이 여기서 늘 십자가만 지고 행실의 더러운 쓰레기만 쳐야 되겠어요? 본인의 것은 본인이 쳐야 됩니다.

주님도 주님의 심정을 태운 자들이 회개해도 잘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를 속상하게 했어도 참고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육성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바라고, 육은 영의 대상이 되어 절대적으로 영을 중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2009년 8월 30일 주일말씀>

용서는 있으나 연기는 없다

본 문 마태복음 24장 21-22절
 누가복음 21장 34-36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요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두 확실히 압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 같고 친구나 어떤 연고자나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이 사랑하시어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면 압니다. 교회에 온 날부터 하나님과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면 압니다. 사람을 통해 대하기도 하시고 직접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더욱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바랐기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선생도 하나님과 주님을 50년 이상 겪어 보았지만, 하나님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말없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말씀과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개성에 맞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점점 행하게 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인생의 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고 인도하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늦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왜 나를 일찍 부르지 않으셨나?’ 하며 심히 안타까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때에 불렀으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몰라서 그때 못 오고 이제 온 자도 있습니다. 또 제때 온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상에서 허무하게 살면서,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받으며 날마다 지옥 같은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롭게 살아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영원히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자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두를 다 부르시고 다 그 뜻대로 살라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서 자기 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모르고 삼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인생, 벌써 이것으로 끝나? 너무하다. 짐승 같은 삶이네.” 하며 그제야 허무하게 산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인생길을 찾습니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허송세월을 하니 허무한 것입니다. 뜻있게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면 왜 허무하겠습니까?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길이라도 늦게 깨달으면 알아도 못 갑니다. 인생, 숨 떨어지면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고 숨이 떨어지면 천국과 반대되는 영원히 고통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앞에는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선생은 이를 일찍 알았기에 모든 인생을 오직 하늘만을 위해 투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한 그 공력과 충성한 그 행위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받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라.’ 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교회에 조금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제대로 알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자의 책임도 크고, 본인 책임은 더

큼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여 영생길을 가지 못하면 영원토록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평생 보통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자보다 행복하지 못한 자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나 지옥에 갔다 온 자들은 이 비밀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의 부모를 통해 낳고 길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같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나갈까봐 새로 온 사람들과 요즘 온 사람들이 걱정되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전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과 특히 관리하는 자들은 정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하고, 반가움으로만 대하지 말고, 분위기로만 대하지 말고, 음식이나 같이 먹으면서 대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교회에 오게 하였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주님 대신 심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기 전, 세상에 있을 때에 다들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이것저것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문제에 부딪혀 곤고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자기의 각종 문제가 안 풀려서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나?’ 하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왜 오게 하셨는지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턱을 고이시고 이 많고 많은 지구 세상의 인생들을 여기저기 살피시다가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해서 긍휼과 자비로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이것 먼저 깨우쳐 줘야 됩니다. 한 시간이면 확실히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먹고, 이야기하고, 분위기 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것 먼저 깨우쳐 줘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주님은 사람을 통해 직접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해 감동시키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첫 신앙과 첫사랑의 부름을 모르고 그 귀한 것을 몰라서 책임을 못하고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깨닫고 오거나, 혹은 전도자를 통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7년 만에 왔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감격하여 기도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전도해서 데려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게 한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100명, 혹은 500명 중에서 한 명 왔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자고 택하여 불러왔으니,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도 뜨겁게 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온 세계를 향해 이 주일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선생은 주일말씀을 받기 위해 전날부터 자정을 넘기며 기도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이른 새벽에 주님은 오셔서 이것저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에도 섭리 공적인 말씀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섭리 사람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슴속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그러워라. 너그러워라.”** 주님은 열 번 이상 연속 내 입을 통하여 **“너그러워라. 너그러워라.”** 하셨습니다.

어떤 뜻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근본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너그러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꼭 너그럽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잘못된 자에게도 네가 너그럽게 대하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열다섯 번 이상 너그러우라고 말씀하시어 그제야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나의 심기를 상하게 한 자들을 너그럽게 대해 줘야 함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선생은 내 심기를 상하게 한 자들을 그 행위에 따라 대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꼭 너그럽게 대하겠다고 하니 그다음 위의 단계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 **“왜 주님이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내 말을 들어 보지도 않으시고 **“맞다. 그래, 바로 그것이야.”** 하셨습니다. 나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하고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나도 주님과 같이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달았다는 내 말을 듣고 **“바로 그것이다.”** 하신 것임

니다.

주님은 “주일말씀이 나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누가 섭리의 공적인 일로 선생의 심기를 너무 상하게 했기에 주일말씀으로 나갈까 봐 주님이 먼저 너그럽게 대하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기로 하셨기에 선생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기를 거슬렀기에 ‘주님의 심기를 거스른 대로 말씀이 나가면 어찌나?’ 하고 선생은 선생 나름대로 주님의 마음이 가라앉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대하고자 했는데, 주님이 안 따지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선생은 너무 감격하여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자는 자기 육성대로 행했기에 주님은 예전부터 그에게 계획한 뜻을 옮겨 왔기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너그럽게 대하기로 했으니 너도 너그럽게 대하라.” 하시며 너무나도 크고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눈물로 주님께 화답했습니다. 실상 섭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면 주님은 그에게 계획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의 심기를 상하게 했으면 빨리 풀어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생명이니 정말 잘 듣고 가야 됩니다. 너그러움은 자비와 긍휼에서 옵니다.

오늘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그럽게 대하니 너도 너그러워라. 너그러워라. 너그럽게 대하라. 나도 그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하였으니 너도 그를 너그럽게 대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니 너그럽게 대해 줘라.” 하십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니 너그럽게 대하라.” 하십니다.

선생은 어떤 자들이 주님의 심기를 상하게 하고 내 심정을 상하게 하였기에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모두 회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급히 오셔서 “너그러워라.” 말씀하시어 오늘 온 세계에 너그러운 말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마다 자기 심기를 상하게 한 자들과 하나님과 주님의 심기까지 상하게 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그럽게 대하기로 하였으니 너도 너그럽게 대하라.” 하고 급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멘.” 하고 감격해하기 바랍니다. 너그러움은 긍휼히 여기는 데서 오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옵니다. 모두 깨달았지요?

우리 모두 함께 복창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라. 나도 너그럽게 대하기로 하였으니 너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리하는 자는 나와 같이 모으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심기를 상하게 한 자들을 다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기쁜 일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은 “나도 정죄치 않고 힐문치 않으니 너도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를 반대하는 자요, 주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모두 알았고 깨달았으니 이제 다음 말씀 들겠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깨달아지고,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기는 없으나 용서는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연기인지, 무엇을 용서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여 주님께 물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정한 나의 재림은 이제 연기는 없다.’고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은 ‘너희가 간절히 간구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재림 전에 닥쳐오고 있는 재난과 재앙 중에 거둘 것은 거두시고, 감할 것은 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고로 주님은 “정말 잘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내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순간의 시간에 서 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떠나가면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 나 있을 때 이 시기에 관한 것을 어서 배워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1차 재림을 연기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기다린 대로라면 주님의 재림은 1999~2000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모두 세상 말세라고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과 같이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어도 1999년 이후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각종 재앙과 환난과 징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은 그것들을 직접 보았는데, 주님은 말세에 해당되는 재난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1차 연기하고부터 지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 함께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밀히 역사해 오셨습니다. 특히 섭리인들은 모두 환난들을 견디고 이기고 참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이후는 우리 섭리역사에서 최고의 환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촌은 재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환난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재림을 연기했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예언자들과 섭리사의 계시받는 자들에게까지 한결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죽어서 영계에 간 자들이 주님께서 1차 재림을 짧게 연장하셨으나 실상 연기한 그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을 천사에게서 듣고 살아 돌아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재림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연기한 그 시간마저 다 되었다고 주님은 사명자들과 계시받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어느 곳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기에 모두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1차 연기하셨다는 것을 모두 알고 믿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이제 교회에 온 자들이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 영이 어린아이 같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걸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기는 없으니 더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풀려 있는 자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산다면 주님의 재림을 못 맞는다’고 하신 말씀이며, ‘생각을 늦추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섭리사의 모든 자들을 보시고 오늘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는 없으나 용서는 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선생은 마치 벼랑 난간에 서 있는 듯 충격을 받고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선생은 주님의 재림에 더 이상 연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연기할 때는 한 번만 하지,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기는 없으나 용서는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은 왜 벼랑 난간에 서 있는 것을 느낀 듯이 충격을 받고 정신이 차려졌을까요? 만일 선생이 주님께서 재림을 연기해 주실 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연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더 이상의 연기는 없는 것으로 알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모든 이치를 볼 때 주님의 재림에 더 이상 연기가 없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주님은 연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연기는 없다>

선생은 연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았기에 마치 순간 눈을 떴을 때 벼랑 난간에 서 있는 듯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를 중심하여 섭리인 모두 지금보다 더 빨리 준비하라.’**는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20일 전부터 “나는 너희 짐들을 더는 못 진다. 실오라기라도 나에게 짐이 된다. 내 갈 길도 바쁘니 일반 편지들 좀 그만해라. 자체 해결할 것은 너희가 알아서 서로 의논하여 할 일이다. 내가 준비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한 것입니다. 편지와 결재할 것들을 7천 통 가까이 받아 봤지만 자체 해결해도 될 내용들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도울 때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는 것까지는 해 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짐들을 얹으면 십자가마저 질 수가 없기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단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재촉하십니다. 선생은 주님의 일을 하며 겨우 전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20년, 10년, 5년 동안 시간을 주었을 때 목숨 걸고 배워서 하지 않고서, 이렇게 급할 때 모두 내게 해결해 달라고 물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섭리 온 지 2-3년만 되었어도 생명을 걸고 배웠으면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 신앙 해 놓고서 이제야 상식적인 것들까지 내게 물어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큰 것이나 되는 듯 물어보는 편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교단과 상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선생의 시간을 뺏으면 섭리 전체가 손해며 개인까지 손해입니다. “어떤 자에게 사명을 맡깁니까? 어떤 자를 기증자로 뽑습니까?” 묻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이고 이미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교 때 선생이 허가 닳도록 심정 태우며 가르쳤는데 선생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형식으로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면

서 참고드립니다.

어린 신앙인들은 이제 왔으니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교단에 물어보고 안 될 때 내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성도 안 들이고 묻기만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잘 모르는 자들이 물으니 대답을 못 해 줍니다. 자기소개라도 하고 물어야지요. 소속도 안 밝히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본 자도 있고, 봤어도 그 사람만 기억할 수 없으니 소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답답한 편지는 읽고도 답답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선생의 설교 원문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뺄 것을 빼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섭리 세계 전체는 한국 교단에서 선생을 중심으로 지휘할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 설교하는 목사는 3년 동안 목회를 정지시킬 것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확인되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너그럽게 하라고 하시어 너그럽게 대하고 지나갑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어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연장은 없다. 연기는 없다. 지금 너희가 그대로 해서는 내 마음이 불안하다. 고로 영적으로 하라. 육적으로 하면 못 한다. 영적으로 하라는 것은 영으로 하라는 것이다. 육신이 육적으로 생각하고 무지하게 하지 마라. 설교 말씀도 영이 받아서 전하는 신령한 말씀이니 전하는 자들도 영으로 제대로 외쳐줘야 된다. 육이 하면 열심히 해도 지혜 없이 하니 늦어서 못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맞는 준비는 영이 해야 됩니다. 영이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영이 주님을 맞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육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주님이 와도 못 봅니다. ‘지금은 영이 해도 육과 같이 하는 고로 늦으니 더 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연기는 없어도 용서는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마음이 크게 감동되면서 주님 재림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이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고 말면 후에 미련이 남고 후회 되니 제가 느낀 것과 크게 깨달은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경점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정녕코 그 말은 하지 마라.” 하시며 “그 말을 하면 너희 모두가 나를 맞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손해다.” 하셨습니다.

이래도 미련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모사다.” 합니다. 혹은 “말씀처럼 급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왜 화장실을 고치겠느냐?” 합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시한부 재림론자가 됩니다. 열심히 공적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자가 제대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용서는 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하고 열심히 하면 내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로 너그러움으로 용서는 하신다.” 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지었으니 지극히 진실하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선생도 섭리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섭리사의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마치 선생이 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주님은 용서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셨을 때 또 “용서했으니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도 간구하지만 본인들도 꼭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 형제에게 말로 상처 준 것, 약속 안 지킨 것, 자포자기한 것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꼭 개인과 형제와 주님께 다 풀어야 됩니다.

주님은 전도를 열심히 한 자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 더 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을 더 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있다’는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해 주어 환난과 재앙을 면해 주고 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있되, 재림뿐 아니라 정한 시간에 있어서 연기는 없다. 개인의 재난과 환난을 두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고 감해 준다. 가정·민족·세계적으로 오는 재난과 재앙과 환난을 두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고 감해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기도하여 용서받아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오늘은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재림 연기는 없다.’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온 세계에 말씀이 나가 모두 듣게 되니까 주님은 선생에게 말씀을 해 주고 가신 것입니다. ‘연기는 없다. 용서는 있다.’라는 말씀을 이같이 풀어서 전해 주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빨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섭리의 계시자들이 주님께 받은 계시를 확인받으려고 매일 선생에게 그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그 계시들을 읽어 보면 한결같이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함께하여 전도되게 한다. 마지막 이 순간, 하나님이 바라시고 내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전도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내 앞에 돌아오게 하면 전도한 자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리라. 이때가 너희의 최고 공력 기간이다. 한국은 10만 명을 전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계시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2년에 10만 명을 전도하겠으니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너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지휘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다. 하나다. 그럼 된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은 “주님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씩 전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전체 섭리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 사랑도 하나, 믿음도 하나, 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 전도하는 것도 모두 하나가 하듯이 전체가 하나같이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해만 참으소서>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해 한 해만 참지, 두 해를 참지 않는다. 너희와 약속한 것도 연기는 없다. 무엇인지 이미 말했다. 올해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올해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자만 열매를 맺은 나무로 본다. 변화되지 않은 자는 열매 없는 나무로 볼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읽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마 3:10)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만 참으소서>라는 말은 너희 선생이 내게 간구한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한 것이다. 그 긴긴날이 다 가고 이제 한 분기가 남았구나. 하늘은 숫자에 의해 심판한다. 소돔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다. 노아 때도 실상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았다. 모든 가정·민족·세계는 그 시대 심판 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숫자만큼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왔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그동안 전도했으면 이 시기, 이렇게 바쁜 때 버겁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제 섭리인 모두는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은 10만 명을 향해 전도해야겠습니다. 전체가 한 사람 움직이듯 해야 됩니다. ‘기도하자!’ 하면 전체가 다 기도하고, ‘뛰자!’하면 전체가 하나 되어 한 사람이 뛰듯 해야 되고, ‘전도하자!’ 하면 모두 전도해야 됩니다.

신입생들에게 말씀을 복잡하게 가르치면 늦어요. 오늘 말씀의 서론과 같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핵심을 말해 줘야 됩니다. 교단이 내게 신입생 전도용 강의안을 보내왔는데 너무 길어요. 옛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행한 것을 다 말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선생도 그것을 읽다가 말았습니다. 바빠서 다른 일 했습니다. 때가 어느 때라고 열차 세워 놓고 긴 이야기 합니까? 곧 열차 떠납니다. 그러다가는 둘 다 못 탑니다. 몇 마디로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열차에 태워야 됩니다. 가면서 이야기하자 하고 태워야 됩니다. 전도자는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용 강의안을 잘못 사용하면 전도될 것도 더 안 됩니다. 핵심만 해야 됩니다. 핵심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몇 장만 하면 됩니다.

내게 보낸 전도용 강의안은 40장이 넘습니다. 현대인들은 깊은 논리나 지식을 가르쳐 줘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선생처럼 뜨거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감동시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노방전도 다닐 때 5분 정도 뜨겁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때 깊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 긴 교리를 앞세우면 10명 전도할 것인데 한 명 하기도 힘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가르치다 보니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요즘은 단상 설

교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또 부흥 집회를 하고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시니 넉넉합니다.

교육국과 선교국은 방법을 달리하여 주님과 함께 간단히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전도 대회 때도 지혜롭고 슬기 있게 하나님과 주님의 계시를 받고 핵심만 외치면 됩니다. 믿을 수 있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전도 대회 때 복잡한 교리를 내놓을 것도 없어요. 시대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과 주님이 오늘 너를 부르셨다고 성령으로 뜨겁게 전해 줘야 됩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전체가 전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2일 수요일말씀>

용서는 있으나 연기는 없다 너그럽게 대해 주어라

본 문 마태복음 24장 21-22절
 누가복음 21장 34-36절
 요한계시록 12장 7-11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전합니다.

주님은 “나의 재림은 더 이상 연기는 없다. 이미 연기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기한 때마저 끝이 가까워 온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연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도, 우리 모두도 확실하게 더 이상 연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또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주일 단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재림에 있어서 연기는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연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태만할까 봐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다른 맘을 먹을까 봐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재림에 관하여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 현재 그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앞으로는 더 여유가 없으니 목숨 걸고 확실히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가 생활 가운데 겪는 일들을 보기 바랍니다. 한 번에 잘해야 되는데 두 번까지 하던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을 남기고 준비하면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제 100% 해야 된다. 100%만이 사는 길이다. 100% 하지 않으면 70%만 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못 하나? 할 수 있다. 95% 하려면 50%만 하고 말지,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무엇이냐? 금이 안 되고 은이 되면 소용없다.

힘들어도 100% 해야 된다. 사탄은 95%, 98%, 99%까지 간 자들에게 가서 사람을 통해 기어이 손을 쓴다. 사탄들이 한다. 사탄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날에 1%, 2%, 3%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못 맞는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조금 모자라서, 목숨을 걸고 해 놓고서도 보통으로 뛰던 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나의 날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남아 있는 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같이 고통 받는다.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혀를 깨물며 끝까지 할 걸...’ 할 것이다. 후에 가서, 후회는 다 필요 없다. 누구 원망해도 소용없다.

너희는 그동안, 특히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갖은 환난을 당했다. 너희를 욕하고, 악평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각종으로 힐문하는 자들로부터 갖은 악담을 들으며 핍박받아 왔다. 그래도 너희는 넘어가지 않고 생명권에 살아남아 졌다. 그러니 보람이요, 기쁨이요, 앞날의 희망이다. 너희는 지금 나 예수의 사랑을 받으며 가까운 미래의 재림의 소

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환난을 일으킨 자들을 원망하고, 사탄 마귀를 원망하고, 혹은 자기를 핍박한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며, 자기도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복직이 되겠느냐? 후회해도 안 되는 것이다. 조금 원망하고 나간 자나 많이 원망하고 나간 자나 모두 섭리권을 벗어나 보다 흑암권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서 100% 하지 못하고 95%, 98% 하면 주님께 데려감을 받지 못하기에, “100% 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 신경 쓰느라고 못 했어.” 하며 누구를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선생에게 심각하게 계시하시며 **“전하라!”** 하셨습니다. 결눈 팔지 말고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앞날에 그 날이 닥치면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을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말은 바 사명을 다하며 각자 가던 길을 가야 됩니다. 100%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100% 갖춰야 됩니다. 고치고, 행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최우선 순위에 놓고 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 형제들로 인해 어떤 시험에 들 일을 당하면 그냥 잊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여 깊은 생각에 빠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딴생각하면 마귀는 한 마리 붙어 있다가 다섯 마리, 스무 마리씩 쫓아와서 눌러 버리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천적이기 때문에 선생은 날마다 연구하고 살펴봅니다. 고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검을 100개, 200개씩 날려서 초전 박살을 내놓고 그 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을 100개 날려서 사탄에게 쏜는다.’고 하면 그 말대로 말씀의 검이 사탄의 가슴과 눈에 꽂힙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침범하려고 틈을 보기 위해 계속 형제들을 통해 흠잡고, 건드리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거스르고, 말로 거스르고, 행동으로 거스르며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틈만 생기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떼 지어 옵니다.

선생이 옛날에 기도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지금 청기와 집이 있는 골짜기 논골에서 인삼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집 식구들을 통해 마음을 거스르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화가 난다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며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내 심정을 모른다고 하며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럴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맘 편하겠다. 내가 너한테는 무슨 말을 못 하겠다.” 했습니다. 동생들은 옆에서 어머니와 내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일하기도 힘든데 제발 싸우지 마세요.” 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 그만 좀 해. 어머니도 똑같아요.”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네 엄마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엄마가 그랬어도 사탄이 마음을 거스르고, 말로 거스르고, 행동으로 거스르며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집>에 나오지요? 잠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쓴 것과 깨닫고 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놈의 사탄이 우리 어머니와 내가 친하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 들어오는구나.’ 하고 어머니 쪽을 쳐다보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이놈의 사탄아! 나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어머니는 나를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그때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대답하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을 계속 쳐다보시면서 “너 결혼하면 이 골짜기 나가야 이 일 안 한다. 여기 계속 있으면 네 마누라까지 고생시켜. 젊은이도 이 일 하면 늙은이처럼 허리 구부러진다.” 했습니다.

사탄이 나가니까 화평하게 되었고, 그날 사탄에 대해서 배워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어느 때 사탄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나를 쫓아다니면서 꿈속에서도 나타나 나를 보고 나쁘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 사탄은 그냥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탄, 마귀, 귀신은 억지를 부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옷을 더럽히려 하기 때문입니다. 옷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더럽히려 하고 쫓아다니며 틈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영의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자가 되면 사탄 마귀는 형제들을 통해 자꾸 마음을 거스르고 말과 행동으로 거스릅니다. 사탄

은 특히 형제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자주 괴롭힙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따르는 자들까지 힘을 잃으니 사탄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자는 더 신경을 씁니다.

사탄은 각자의 생활 속에 침범하여 그 영이 하나님과 주님께, 또는 선생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선생이 오해하게 하여 그들을 책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보고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유익한 쪽으로만 하여 선생을 화나게 함으로 선생이 그 형제를 꾸짖게 만들어 마음 아파 주저앉게 합니다.

그동안 편지를 받아 보니 각종 각색으로 보고를 합니다. 편지를 허락하니, 편지를 통해 형제들을 일러바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풀릴 것인데, 대화하지 않고 내게 일러바쳐 오해하게 합니다. 고로 앞으로 일절 편지를 사절합니다.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점점 버릇이 되어 자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자를 책망할 것입니다. 교단은 양쪽 말을 잘 들어 보고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편지를 이용하여 형제들을 헐문하게 합니다. 거의 단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만을 위한 보고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했는데도 보는 자가 자기의 육적인 사고로 보고 제 맘대로 판단하여 선생이 세운 자나 형제들을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흠잡아 각종으로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선생에게 계시하시어 **“방에 모기약을 뿜듯이 하여 그러한 사고의 병을 고치자.”**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형제들을 그리 오해하고 네게 고하느냐?”** 하셨습니다.

흔히 선생이 말씀을 주어 강사에게나, 각종 행정을 맡은 자에게 전하게 하면 “저 말씀이 선생의 원본 말씀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먼저 파악합니다.

주님과 선생이 말씀을 넘겨주면 그 사명자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때그때 주님이 집회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자기 노력과 수고와 실력과 영의 능력껏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흥집회 성령운동 때는 선생이 거의 방향만 잡아 주었습니다. 왜요? 선생도 그 시간에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대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명자가 영의 능력을 받았기에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으십니다. 자기 능력과 실력껏 외칠 수 있기에 세운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런 자들은 설교를 판단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고는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며 죄가 됩니다. 사탄 마귀가 말씀을 못 받게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운 자를 통해 마음껏 외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본인이 사명자니 외치게 하시고, 주님이 옆에 가셔서 깨닫도록 감동시켜 직접 외치십니다.

선생이 외치라고 한 말도 주님의 말씀이고, 강사가 외치는 말도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깨닫게 하여 외치게 하는 말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능력과 실력껏 할 수 있기에 말긴 것입니다. 선생이 주님과 의논하여 강사를 세울 때 “네 실력껏 외쳐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외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능력을 받아 영의 능력자가 되고 성장하여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선생에게 받은 원본 말씀이고, 어떤 것이 자신이 감동되어 외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지 말아요. 마지막 남은 집회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 먼저 하고 집회 하신답니다. 사탄이 침범하여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이니까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 되어 믿어 주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섭리사에 아직도 남아 있는 병폐를 싹 없애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생이 세운 자를 통해 각 분야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계시받은 자들의 글이 200페이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설교 분량의 10배 이상 됩니다. 이만큼의 분량이 거의 매일 옵니다.

주님은 현재 섭리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직접 신혼골수를 꿰뚫어 보는 자들을 통해 선생에게 말하게 하기도 하고, 선생이 직접 영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하시는데 육적인 자들은 다른 눈으로 봅니다.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자들을 모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주님의 심정과 일체됩니다.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자들을 막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됩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진 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재림으로, 온 지구상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 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일생 동안 신랑을 맞는 것과 같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지상에서 신랑을 맞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 본 자만이 압니다. 지옥에 가 본 자만이 압니다.

주님은 “연기는 없으니 이제 100% 잘해야 된다.”고 하시며 재림에 대하여 수백 번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정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섭리사에서 계시받는 자들이 50여 명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적군들이 전쟁의 날을 두고 밀려오듯이 그 날이 닥쳐온다고 하시며 애간장 태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자, 들은 자만 더 속이 탑니다. 아는 자만 더 속이 탑니다.

마치 시장에 갔다가 한 보따리씩 사 가지고 오는 자들이 철도에서 건널목을 건너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산모통이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못 보고 어린아이들을 손에 잡고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건널목 가운데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본 자가 얼마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는 자만 소리치는 것입니다. 소리쳤을 때 그 말을 알아 듣고 빨리 움직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자기의 다급한 말을 듣고 피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시대를 외치는 자가 사명자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열차가 한쪽에서 달려오는데 그것을 못 보고 건너려 하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선생이 거기 건널목에서 있으면서, 산모통이에서 열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건너려 한다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이 같은 심정으로 외치는 자가 시대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곧 닥칠 것입니다. 주님도, 선생도, 내가 보낸 자도 마치 철길 위에 서 있는 애인에게 외치듯 심정 태우며 외쳤습니다. 사명자는 할 일을 합니다. 듣는 자가 문제입니다. 역사의 사명자들과 선지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여 그 시대 사명을 담당했는지 모두 깊이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 봐야 합니다.

열차는 달려오는데 아직도 철길 위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가 달려오니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재림 때도 주님이 오시는 전 날에는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7개월 전, 1년 전에는 완전히 준비를 끝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닥쳐오면 당황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몰라야 됩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았는지 대강 느낀 자들은 밤잠이 안 올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간절히 회개할 것입니다. 죄짓지 않도록 혀를 깨물면서 참을 것입니다.

정말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너무 힘들습니다. 사탄이 그 조건을 잡고 방해하니 너무 힘들습니다. 정말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 죄를 꼭 쥐고 들어와 역사합니다.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죄는 사탄이 주관합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보고 벌 때같이 달라붙습니다. 못 보는 자는 몰라요. 이를 모르는 자를 사탄은 가볍게 움직이고 끌고 다닙니다.

죄를 지으면 의의 옷이 바로 더러워집니다. 옷은 행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계에서 그가 입은 옷을 보면 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도 권위와 위치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옷부터 다르고 날개부터 다릅니다.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봐요. 자기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주님께 기도하여 자꾸 물어보고 확인해 봐요.

섭리사의 어떤 계시받는 자가 주님께 재림과 천국에 관하여 여쭙어 보니, 주님은 “사람들이 나의 재림을 못 맞아도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분별해 달라고 내게 전해 왔습니다. 분별하나 마나 맞는 말입니다.

선생은 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책임자이니 말씀으로 외쳐서 깨우쳐 주려고 “주님! 열 명 중에 몇 명이 낙오자이며, 몇 프로가 주님의 주관권 안에 있습니까?” 하고 항상 묻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 주님의 주관권 안에 있다면, 왜 선생이 설교 때 급한 말로 ‘이것 고쳐라.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한다는 말씀만 나가야지요.

선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모두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며 신속히 열차가 오는 건널목에서 비호같이 행해야 됩니다. 늦게 고치면 고치나 마나입니다. 왜요? 끝났는데 뭘 고칩니까? 시험지 걷기 전에 잘못 쓴 답을 고쳐야지,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 걷어서 갔는데 그때 고쳐서 가져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마 그때 가져가면 답안지 보고 옮겨 썼다고 하며 실력껏 쓴 것까지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감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기 전에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해 줘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때 고치고 회

개하지 못하면 잘못을 회개하여 용서해 주더라도 선생부터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괴롭고 네 신세가 고달프니 네 행위를 이제야 고치냐? 이제 쉬고 자라. 다 끝났다. 내가 그리 말할 때 말을 들어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서 하니 볼일 끝났다.” 합니다.

급해서 화장실 찾을 때는 외면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제야 “아까 화장실 찾았지요? 여기 열쇠 있습니다. 참느라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하고 열쇠를 주면, “아까 주지 그랬어요. 이제 볼일 끝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의 집과 당신이 쓰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화장실의 주인입니다.” 합니다.

주인 : “이번 달에 1차 계약이 끝나는데 더 이상 연장은 없습니다.”

세입자 : “몰랐습니다.”

주인 : “연장은 없으니 25일에 집을 비워 주고 가게도 비워 줘요.”

세입자 : “제발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주인 : “하루도 더 안 됩니다.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6일에 우리 집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아쉬워할 때 돕고, 용서해 주고 주님이 사정하면서 고치라고 하실 때 고쳐야지, 때 지나가면 안면 몰수입니다. 때 지나가면 고쳐도, 용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연기는 없습니다. 안 고치면 다른 사람 불러다가 고쳐 쓰십니다.

지금은 정말 고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민족은 택한 민족이기에 다른 살 길이 있지만, 만일 네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여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림뿐 아니라 너희에게 닥쳐오는 일들에도 연기는 없다. 부지런히 하라. 못 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연기해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쓰기 시작할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오후 5시 전에 끝내겠다고 하니, 주님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그 시간이면 충분하니 걱정 마세요. 영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못 해요? 제가 놀지 않고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밤 기도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흥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5시까지 끝낸다고 했을 때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선생은 반드시 그 시간에 끝내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은 더 해야 끝내고 겨우 새벽기도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재림 준비만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칩니다.

이미 말씀했지요? 「앞으로 환난이 있으니 그 전에 빨리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고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여라.」 했지요? 지금 신종 플루 감염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의식하여 전도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공기 중에 침으로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를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분담을 빨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집회도 의식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개인에게 환난이 오고, 가정·민족·세계에 환난과 재난들이 닥칩니다. 얼마나 큰 것이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에게 작은 일만 닥쳐도 제대로 기도도 못 하지요? 환난을 당해 봐요. 재앙이 와 봐요. 민족이 소란해져 봐요. 세계가 소란해져 봐요. 자기의 평소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렇게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했던 자들도 환난이 오니 비틀거리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선생이 철야하며 기도해 주고 주님이 돕고 함께하시어 겨우 위기를 면했습니다.

모두에게 심각하게 진실로 말하니, 환난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신앙을 완벽하게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해 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이때가 남은 앞날 중에서 제일 편안한 때입니다. 계절은 다가올수록 추워집니다. 갈수록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은 연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써서 이 가을에 해야 됩니다.

선생은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은 액자 짜여 있듯 짜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기에 선생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온 섭리를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보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이런 곳에 있다고 스스로 내 자신이 낙심하면 수십 배 손해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로

깊이 들어갑니다. 선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알고 자기 생명같이 기도해 주고 생각해 주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를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오히려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을 접하며 뛰기에 불리합니다. 형제들과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세상에 부딪혀 유혹을 받으니 나보다 더 걱정됩니다. 선생은 사람을 안 만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찾으니까 좋습니다. 사탄과 일대일로 싸우면 끝나고, 나 자신과 싸우면 됩니다. 인사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편지로 인사탄들이 역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어요. 계시록 12장 7-12절을 보면 「형제들을 밤낮 힐문하고 참소하는 자는 사탄으로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서 사람들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을 참소하고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형제들을 쓰고 밤낮 참소합니다. 형제끼리 참소하다가 이제 선생에게 참소합니다. 선생에게 고하면 선생이 그들을 책망하니 자꾸 일러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이를 알았습니다. 선생이 이를 알고 형제를 참소한 자를 책망하고 지적하니 섭리를 나간다고 합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께 속했다면 말했을 때 순종해야지요. 말씀을 전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섭리를 나간 자들을 보면, 형제들을 밤낮 참소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알고 이겨야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에 가서 그같이 해 봐요. 하루도 못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섭리사는 너무 환난과 핍박들을 많이 받아 봐서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형제를 그토록 참소해 놓고 자기 죄를 지적하면 도망갑니다.

어떤 자는 선생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낙으로 삼고 편지합니다. 내게 그 같은 편지를 20~30장씩 써서 계속 보냅니다. 사탄은 지적하면 ‘들켰구나!’ 하며 도망칩니다.

사탄은 선생을 치기 위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쓰고 들어옵니다. 대개 보면 ‘저는 선생을 절대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위합니다.’ 하면서 형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을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요. 오히려 감싸 주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해야지요. 자기 눈 속의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 속의 티를 지적하며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자기도 하나님과 주님께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만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한 건을 가지고 그만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은 수백 가지입니다. 3분의 1만 실수해도 70건이 넘습니다.

오른쪽 빵을 맞으면 왼편도 대 주는 너그러운 각오와 정신과 마음이 되어야 신앙이 굳건한 자입니다. 그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거듭 속상한 일을 계속 당해도 참아 줘야 됩니다.

선생에게 거듭해서 속상한 편지가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매일 그 같은 편지가 옵니다. 머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여 편지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런 편지가 오면 사람들을 보내어 그 병들을 고쳐 줄 것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두 파악할 것입니다. 그동안 파악해 보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자기도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생에게만 말하면 참고 끝낼 수 있는데, 점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니 문제입니다. 당하는 자는 상처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선생이 편지를 써 줘야 됩니다.

선생이 할 수 없이 그같이 참소하는 자에게 ‘그러지 마라. 네가 오히려 회개하라. 네 갈 길이 바쁘니 그 길을 가라. 네게 교만이 있다. 회개하라. 형제에 대하여 내게 참소하거나, 앞뒤 상황 보지 않고 보고하는 자는 그 인격부터 보고, 과연 보고하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 보고했는지 보고, 그 사람의 보고가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고 편지를 써 주면 선생의 말을 안 받아들이고 나갑니다.

앞으로 내게 민원을 보내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니, 죄 없는 자가 형제에 대하여 말해야 됩니다. 교단 민원 담당자에게도 죄 없는 자가 형제에 대하여 말하면 어떨겠냐고 건의를 해요. 지도자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가서 선생이 어떤 생각을 할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나쁜 근성을 다 고치는 것이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과 마음과 행실을 100% 천사같이 고쳐야 됩니다. 흠도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 큰 천국에는 손바닥만큼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고 작은 몸엔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점만 흠이 있어도 100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쓸데없이 이야기하면 서로 시험만 들고 시간만 빼앗긴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자기를 만들어라. 그 시간에 생명을 전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각각 한 사람씩 고칠 것을 지적하신다면 어떤 자는 아직도 수십 가지나 고칠 것이 있고, 어떤 자는 열 가지, 어떤 자는 다섯 가지, 어떤 자는 세 가지, 어떤 자는 두 가지, 어떤 자는 한 가지씩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됐다.” 하는 자는 지금 여기저기 등성등성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열흘 내에, 혹은 한 달 내에 자기 성격과 마음을 고쳐서 주님께 “너는 됐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떠나십니다. 그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합니다. 아직도 못 한 자는 불안한 자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 섬리사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깊이 말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섬리사같이 주님이 계시해 주시며 속 이야기를 해 주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섬리사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섬리사같이 주님이 전체를 신부로 대하시며 그렇게도 신경 쓰시는 세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30년 동안 아예 신부로 대하면서 살아왔기에 그 터전 위에 그같이 대한다.” 하셨습니다.

선생도 요즘에 몇몇 목사님의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열세 번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재림’이라는 두 글자도 못 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재림에 대하여 깊은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으니 깨어 있게 되었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몰라서 주님을 못 맞았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못 듣고 몰라서 못 맞는 것이 아니라 준비 못 한 자만 못 맞는 것입니다.

우리 섬리사는 주님이 시대에 대하여 직접 알려 주시고 끌고 나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선생이 말씀을 하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시대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준비해야 될 때라고 외쳐야 속 시원해하시며 좋아하시는 때이고, 마지막으로 전도하자고 결심하면서 행하는 자들과 생명을 잘 관리하는 자들을 보시고 최고로 좋아하시는 때입니다.

치어 회원 중의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누구 좀 데려와 다오. 그 아이가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 나와 같이 가서 그 아이를 설득시키자. 네 육을 쓰고 내가 말할게.” 하시더랍니다. 주님은 정말 세밀하십니다. 마지막이라서 챙기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은 그 심정을 알고 속 시원히 외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붓게 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모두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 나도 너그럽게 대하기로 했으니 너도 그리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자들도 아니고 악한 자들로부터 10년 동안 모진 환난 핍박을 다 겪어 오고, 개인과 가정적으로도 가혹한 핍박을 겪어 온 자들인데 너까지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나와 같이 더 사랑하며 너그럽게 대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된 자, 형제를 잘못 알고 대한 자, 죄를 지은 자 모두 너그럽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생은 압니다.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화가 닥칩니다. 너그럽게 대하면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게 되고, 주님이 더 역사하십니다.

선생은 주님께 “주님,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과일을 따려면 6개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일나무에 거름하고 열매를 열게 하기까지 농사를 짓는 기간이 1년 걸립니다. 하늘 열매를 거두는 인생 농사도 1년 걸립니다. 한 해만 참으소서.” 하고 재판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생은 금년도 1년을 지난 30년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해로 보았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몸부림쳐 회개하고 간구하여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제 결실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열매가 떨어진다’는 말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행실의 열매, 마음의 열매, 첫사랑의 열매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연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2010년도 또 한 해만 참으소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 한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섬리사 이 한 해만 참으소서.’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행하는 대로 자기 열매가 무럭무럭 커집니다.

어떤 자는 아직도 열매가 앹두만 하고, 어떤 자는 자두만 하게 크고, 어떤 자는 주먹만 하게 큼니다. 원래 두

주먹만 해야 본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 손을 모아서 손끝을 마주 대고 최대한 공처럼 만들어 봐요. 열매의 크기가 그만큼 해야 됩니다. 손이 큰 자들은 대단합니다. 머리만 하게 키울 수 없냐고요? 그러면 너무 커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큰 것은 열매라기보다 호박입니다. 수박이고요.

금년도에 주님은 우리들을 과일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일나무가 충분히 물과 햇빛과 거름을 빨아들이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변화되어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열매를 키우고 12월에는 무르익어야 됩니다. 과일은 크는 기간까지만 크고, 최후에는 포도당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12월 1~20일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6일 주일말씀>

속지 마라. 주께 맡겨라. 겸손하라
수시로 감사하고 기도하라

본 문 베드로전서 5장 6-8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모두 각자 한 시간에 서너 번씩은 꼭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으므로 불만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꺼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백 번, 천 번씩 부르며 감사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감사,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기보다 생활 속에 나눠서 진실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의 일까지 감사해야 할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그같이 해 달라고 하였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시고 더 좋게 해 주셨는데 왜 물질 감사와 입술 감사를 안 했습니까? 현실에도 꼭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옆에 선생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감사하고 대화도 하지요? 하나님과 주님 앞에도 기도할 때만 한꺼번에 다 하고 끝내지 말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선생도 그같이 합니다. 말은 그때마다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며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습관이 들고 버릇이 들면 죽을 때까지 그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게 구할 것은 그 사람에게 구해야 됩니다.

말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주님이 섭리사의 모든 계시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말을 하고 살면서, 나에게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산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이 주님께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만 조금 하다가 맵니다. 말할 때 뜨겁게 해야 통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친하게 지내야 기도도 잘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에는 정이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주님의 뜻을 두고 하는 것이면 공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서 영이 성장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영에게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부터도 선생을 옆에 놓고 자기네끼리만 말하면 기분 나빠서 귀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귀청이 찢어지도록 “주여! 주여!”하며, 그 많은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기도할 때만 부르고 사는 자는 주님과 가까이 정이 드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힘든 자입니다. 매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온종일 욕의 눈에 보이는 생활에 빠져서 주님을 몇 번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하루에 백 번 부르려면 한 번에 부르기보다 한 시간에 다섯 번씩 불러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애인이 옆에 있는데 온종일 말없이 그냥 지내다가 저녁에 식사할 때만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서 말하면 오히려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며 “어떻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감동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루에 열 곡의 찬양을 하려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부르기보다 온종일 나눠서 부르는 것이 자기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훨씬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무시로 틈을 탐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생활에 빠져 살게 되면서 주님을 잊고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 주님을 불러 보고 이야기하면서 살아 보세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그냥 온종일 일과 삶에 빠져서 살다가 밤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아보세요. 남을 대하는 것같이 어색할 것입니다.

월명동 성지땅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만났는데 온종일 말하지 않다가 저녁때쯤 말하려면 어색한 것입니다. 선생이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편지를 한 번도 안 쓰다가 편지 쓰려니까 어색해서 안 써지지요?

이제부터는 수시로 무시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부르지 말고 지난날의 일들을 말해 가면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에 생각이 떠올라서 좋아하십니다. 선생도 편지할 때 ‘지난날 언제, 어디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잊지 않고 있다.’고 의미 있게 근거를 대면서 말하면 더 반갑게 답이 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께도 꼭 그같이 기도로 대화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선생도 그같이 합니다. 이같이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좋아서 대답하십니다. 기도와 감사의 대화는 범사에 꼭 해야 됩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도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께서 그와 대화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마음으로 보편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그중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깊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라고 심정의 깊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영계는 가까운데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과 대화술도 있어야 되고,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애원해야 주님이 보시고 합당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전체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개인에 속한 것은 개인에서 끝내고,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만 전하게 합니다.

사탄들이 꼬이고 주는 계시를 냉혹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나와 대화하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허락했더니, 못된 사탄 마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꼬이고 속이고 미혹하며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 가도록 두었다가 아주 가까이 가니까 주님을 가장해서 역사하고 계시를 줍니다.

‘주님은 왜 방해하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실까?’ 모두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스스로 멸망합니다. 곧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유혹하는데도 뿌리치고 자기 애인에게로 갈 때 여자의 애인인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꼬이고 세상이 유혹해도 다 버리고 주님을 최고로 뒀야 주님도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사탄이 “나는 예수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여호와 야훼다.” 하며 나타나니, 개중에는 그냥 믿어 버립니다. 확인하려고 물어보면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나 간다.” 하니, 이에 “주님임을 믿겠으니 계시해 주세요.” 합니다. 서울에서 나타난 마귀가 지방에서도 나타나 비슷한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 내용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마귀의 계시는 꼭 주님과 같지 않게 주면서 자기를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나는 예수다.” 합니다. 마귀도 “나는 여호와 야훼다.” 합니다. 계시에는 선생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에 대해 꼭 넣어서 계시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마귀가 하는 짓을 압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사용하는 단어와 문법을 보면 압니다. 또 선생에 대하여 말

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압니다.

마귀가 내 옆에 오면 말씀의 겹으로 컷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 구멍 등 구멍마다 찔러 놓으니 가까이 오지 못하여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내 속을 잘 모릅니다. 못 보고 모르니까 틀리게 계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생을 꿰뚫어 보니까 내 속을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속, 내 심정을 모르면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하찮은 것인데도 꼭 한 가지씩 모자랍니다. 완전치 못한 6수이기 때문에 다리가 없든지, 손이 없든지, 눈이 없든지, 귀가 없든지, 생명나무가 없든지, 꼭 지체 중의 하나가 없습니다. 마귀는 6수라 온전한 말을 못 합니다. 이로써 분별하니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계시를 받고 선생에게 물어보고 확인은 합니다. 주님과 선생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주님과 나와 의논한 것에서 맞지 않고 틀리면 사탄 마귀의 계시입니다.

요즘 마귀는 주님이 계시하시는 대화술을 배워서 주님과 비슷하게 계시해 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것은 문법부터 다르고, 읽기 전에 느낌만 봐도 다릅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마치 마귀가 꼬이듯이 각종으로 꼬입니다. 악평하며 꼬이고 거짓말하며 꼬입니다.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섭리사를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꼬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결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일체 주님과 선생만 애인처럼 따라와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보내는 자들 중에 어떤 자는 개인 것까지 한꺼번에 보내는데 60페이지나 됩니다. 글씨도 작아서 읽기도 힘듭니다. 혼자만의 계시가 아닙니다. 8개국에서 계시받은 내용이 내게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것만 합쳐도 친구약 성경 두께만큼 됩니다. 다 읽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밀려서 늦어지니 선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게 계시의 내용들이 오면 몇 번이나 읽어 봐야 됩니다. 사탄의 계시를 완전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받는 자들도 분별하기 힘들어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기 때문에 혼돈될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받은 것과 사탄이 준 것을 꼭 분별해야 됩니다.

먼저 각 교회 교역자들에게 보내어 교역자들이 1차적으로 보고, 이 계시는 보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교단에 보내고, 교단에서 계시를 분별하여 읽어 보고 꼭 보내야겠다고 판단되면 선생에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교단에도 계시를 받아서 분별하여 보낼 자를 꼭 세워야 됩니다. 통합하여 꼭 이 같은 방법으로 계시를 내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으면 교단에도 보내고, 감사에게도 보내어 읽어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수백 페이지씩 계시의 글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시간 만에 수만 명에게 계시하십니다. 선생은 사람이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받는 자는 수십 명입니다.

각 교회에서 한 명씩만 보내도 400명에 가깝습니다. 세계까지 하면 선생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편지를 못 하게 하니까 편지까지 계시로 돌려서 보냅니다. 섭리사 전체를 생각하고 분별하여 행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섭리 전체를 위해 주님께 계시받아 선생에게 보내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자들은 전 세계에서 5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짧게 계시받고 확인하여 옳다고 한 자들이 30여 명 됩니다. 편지를 안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고,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통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고,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더 깊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도 아직 간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꼭 간증할 계시들입니다. 두고두고 하게 할 것입니다. 교단으로 보낸 것은 잘 보관했다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간증하게 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자꾸 말을 해 주어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 주고, 교회에서도 간증하게 해 주고, 평소에도 초청하여 듣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기 바랍니다. 초청을 하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시를 분별해 달라고 내게 오면 각자 그 사람에게 ‘이것은 옳다, 저것은 아니다.’ 편지 써 주었으니, 반드시 허락한 것만 해야 됩니다. 교역자에게도 이야기하여 허락한 것만 듣게 하고, 그중에 자기에 대한 것은 빼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만 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을 앞에 두고 말세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그

때 전해 줘야 됩니다. 계시받은 자가 어떠한 처지에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다고 계시받은 경위를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이 계시하신 것을 말해 줘야 듣는 자가 더욱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계시받은 경위를 말할 때도 핵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나는 인물 안 보고 생명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물은 배운 것과 생김새를 말합니다. 주님은 선생을 택하실 때도 인물 안 보시고 정신, 사고, 성품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는 영계의 한 세계인 꿈속에서도 받습니다. 신비하게 교훈을 줍니다. 이치에 맞게 줍니다. 꿈으로 받는 계시는 특히 자기에게 주는 것이 많고, 혹은 교회에 대한 것이나, 혹은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이 꿈에 볼을 차는데 아쉽게 골인이 안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없었는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골대를 너무 멀리 두고 볼을 차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 계시는 무슨 계시일까요? 한번 풀어 볼까요?

그날 새벽은 2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자정이 넘도록 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은 골문으로부터 20m에서 볼을 차는 것과 같고, 새벽 2시에 기도하는 골문으로부터 40m에서 볼을 차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계시는 풀기를 잘해야 됩니다. 골대를 기준하여 시간에 따라 골대와 나와의 거리를 보여 준 것입니다.

어느 때는 축구공이 작은 공으로 변했습니다. 탁구공만 하게 변할 때도 있었고, 앵두만 하게 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계시는 무슨 뜻인지 풀어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수록 축구공이 작은 공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선생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시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니까 축구공 그대로 놓고 찼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만물로 계시하기도 하고, 꿈에도 보여 계시하십니다. 늦게 일어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꿈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면 큰 뱀이 나타났는데 굴로 들어가 버리고 꼬리만 남아 아쉽게 못 잡아 죽입니다. 모두 일찍 일어나라는 계시입니다.

자기에게 보여 주는 계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꿈에도 여러 가지 비유로 보여 줍니다. 반드시 계시를 받고 풀어야 지키게 됩니다. 낮에도 만물로 계시받고 풀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풀어야 됩니다. 뇌로 받는 계시도 있지요? 생각이 실제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주님이 옆에 와 계시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그 마음이 느껴져 전해집니다. 마귀가 옆에 와 있으면 마귀 느낌이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경 쓰면 다 압니다. 영적인 자가 되면 사기꾼도, 도둑놈도, 이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도 다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자기 영이 압니다. 영적인 자들은 쳐다보면 상대의 마음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집니다. 사탄도 느껴지고 귀신도 느껴집니다. 이름만 알아도 그 사람을 압니다. 안 보았어도 압니다.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고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전보다 10배나 더 빨리 통합니다. 육적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영적이어서 주님과 통합니다. 지금은 육적 시대가 아니라 영적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귀들은 주님과 가까이 사는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서로 의견이 다르게 하여 다투게 하고, 서로 미운 마음이 들게 하고, 각종 각색으로 유혹하고, 시험과 핍박과 사람들을 통해 낙심하게 하고, 희망에 찬 일들을 실망스럽게 하며 우리와 전쟁을 합니다. 항상 마귀를 경멸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공격하되 형제들은 공격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마귀가 쫓아다닙니다.

주님은 전체의 각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이 시간 나의 말을 들어라. 사람마다 사탄 마귀가 따라다니며 나 예수를 멀리하게 하고 형제와 화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니 기도하여 멀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또 “마귀가 와서 불안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형제와 싸운다.”며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마귀는 어둠이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 되시는 주님과 일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귀를 경멸히 여기면 나갑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 백성 취급하며 꼭 그 옆에 따라다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가까이하더라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집집마다 사탄 마귀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게 되고, 부부끼리 싸우게 되고, 화평치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악한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관하며 사람의 좋지 않은 성격과 마음을 이용하여 화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마귀가 안 보여도 수시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며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귀는 선생 옆에서 뭘 하느냐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지금 네가 전념하여 말씀을 쓰고 있으니 가까이 못 오고, 틈만 있으면 네게 들어오려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의 검아! 날아가서 마귀 눈에 꽂혀라!” 했습니다. 영계는 말이 실체가 됩니다. 주님께 마귀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주님은 “마귀의 양쪽 눈에 검이 꽂혀서 쓰러졌고 사라졌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틈타지 못하게, 신앙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항상 깨어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자는 열여덟 살인데 이성으로 타락하고 주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정결한 자로 봤는데 정말 기대에 어긋났다. 실망했다.”고 하셨다며, 그 계시를 내게 보내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주님도 선생도 정말 실망합니다.

마귀는 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의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뱀입니다. 모두 기도해서 마귀의 실체를 보여 달라고 해 봐요. 한번 봐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놈의 마귀는 꼬리를 땅바닥에 ‘탁탁’ 치면서 바짝 다가옵니다. 마귀를 수시로 쫓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각자 지옥에서 개성의 왕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합니다. 거짓으로 참말을 해서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마귀도 남자와 여자의 두 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자 마귀는 아주 악질입니다. 지구만큼이나 악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자 마귀는 무식하고 무력적입니다. 이 악질적인 마귀 귀신들은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악랄하게 활동합니다.

이 마귀가 가정에 역사하면 집안이 망합니다.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가정이 화평하고 형통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오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천국에 갑니다. 마귀를 이겨야 주님을 차지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마귀를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랑을 빼앗아 자기 사랑의 주권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뱀이 인간들의 목과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반대로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고 쇠사슬로 꽂꽂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을 가로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같이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쳐부수는 자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영계로 보면 마치 영웅 취급을 해 주십니다. 그 공적으로 계급을 더 달아 주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귀는 첫째, 인간의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빼앗으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신부의 조건을 세우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또 옛날 에덴동산에서 하와의 사랑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취하듯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니, 사탄 마귀는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게 하여 주님의 신부 된 자들의 사랑을 빼앗고 그들을 취하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십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사탄은 영물이니까 사람을 쓰고 꼬이고 각종으로 유혹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자기가 좋아서 따라갔더니 결국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랑을 빼앗아 가는 괴물입니다. 우리의 천적입니다. 선생은 주님의 십자가의 한을 풀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주님께 몸을 바쳤기에 이 같은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십니다.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원수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의 도끼로 원수 마귀의 목을 찍어 멸합니다. 마귀의 주관을 받고 범죄 한 자들도 말씀의 도끼로 찍어 회개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멸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니 그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선생은 새벽 1시 이후, 마귀들에게 말씀의 화살을 날리고 말씀의 검을 날립니다. 자기에게 오는 마귀는 자기가 마음대로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믿으니 그 힘과 능력이 탁월하여 은하수, 중고등부들도 스모 선수나 레슬링 선수와 같은 마귀가 열 마리씩 몰려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기의 정체를 알면 설설 겁니다. 저마다 모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말씀의 검이 마귀 한 마리당 열 개씩 꽃혀라!” 하면 말씀 자체가 무기이기때문에 말대로 꽃히는 것입니다.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말이 실존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로 때리면 아픕니다. 말로 책망하면 그 말을 듣고 쓰러 집니다. 말씀으로 책망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 결국 쓰러지지요? 마귀도 말로 책망하고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 몸에 박혀 도망갑니다.

마귀는 특히 교역자들을 늦잠 자게하고 새벽 시간에 일찍 못 나오게 합니다.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깨워 주시니, 두 번째는 자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기에 주님의 계시를 받는지 간증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 보고 여러분들도 해 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교역자도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하나, 어떤 교회는 교역자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빠져 들어 심정 통역을 해 주면서 옳지 않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을 전멸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진 무기보다 우리들이 가진 무기가 더 신형이고 훨씬 좋고 우세하여 싸워 이기기에 유리합니다. 우리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마귀는 시골의 꿩이와 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마귀가 오면 ‘뽕!’ 쏘 버리면 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이 오면 찍힙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졸고 잠을 자면 꿩이와 삼을 가지고 오는 마귀에게 당하여 죽게 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안 와도, 방해하는 자가 없어도 자기 인생은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육과 영이 싸워서 영이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 육적인 사고와 행실을 모두 이겨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차게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모두 부흥강사가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기에 대하여 부흥강사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개혁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고치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해야 된다. 부흥강사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신령하라고 외치고, 부흥강사처럼 몸부림치면서 항상 자기를 교육시켜 자기를 살려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온전히 살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형제들에게도 외치는 것이다. 부흥강사가 청중을 놓고 긴장을 풀지 않고 하듯이, 자기라는 부흥강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각오와 집념이 대단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꼭 자기에 대하여 부흥강사가 되어야 한다.” 하셨으니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선생은 세상을 안 보고 세상을 접할 기회가 10분도 없으니 나만 정신 차리고 하면 잘되는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습니다. 온종일 밤늦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한 번 갈 시간 안 뺏기고, 세상 일에 시간 안 뺏기고 시간을 다 잡아서 씁니다. 섭리세계의 악한 자들과 각 나라를 위해 다 기도해 줍니다.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고 영적으로 싸우기도 좋습니다.

선생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섭리사 사람이 이같이도 많은데 선생을 위해 깊이 기도해 주는 자들은 많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받기에 잘 압니다. 기도 많이 해 주고 깊이 해 주면 그 사람이 영계에서 보입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깊이 기도해 주는 자들은 표가 나서 내가 압니다. 선생이 기도를 해 봤기에 어느 정도 해와 도움이 되는지 압니다. 대부분 겉 기도 정도만 해 줍니다. 그러니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도 큰 도움이 없고 구원도 못 시킵니다. 자기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부흥강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줘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를 회개했으나 아직도 회개가 덜 된 자들이 있다. 그런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마귀들이 “너는 다 회개되었다.”고 하며 다닌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하시기를 “마귀들이 이제 죄 없다고 하는 마음을 주고 다닌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모두 완전히 회개한 자에게 가서는 “너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됐어.” 하며 낙심하게 만들고, 회개가 덜 된 자

들에게 가서는 “너는 다 회개되었는데 왜 자꾸만 회개해?” 하고 다닙니다. 이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그 눈에 창을 꽂아야 하고, 말 못 하게 그 입에다 쇠말뚝을 몇 개 박아 놔야 됩니다. 악하고 교활한 여우같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여유 있다는 마음을 주고 그같이 말하여 긴장을 풀게 합니다. 고로 그같이 말하는 자는 인마귀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구원의 열차가 지나온 곳이 있다.” 하셨습니다. 구원 열차가 이미 지나온 곳에 있는 자들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애타게 외치셨는데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구원의 열차를 타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구원 열차가 지나간 후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섭리사는 아직 기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열차는 지금 섭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 열차, 말씀과 성령의 구원 열차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 빨리 예비해야 됩니다.

‘주인이여, 마지막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마지막 성령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야 됩니다. 이번만은 모두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각종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는지 확인하고, 회개가 덜 되었으면 빨리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 앞에 할 것이 무엇인지 약속하고, 안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하며, 주님께 드릴 십일조를 떼먹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으면서 불신하고 배신하고 세상 여자나 남자에게 사랑을 주고 주님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 대해 주님께 다 물어보았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나를 불신한 죄로 선고받은 자들이니 나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나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회개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가정 핍박으로 인하여 지은 죄, 혹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은 모르고 하였기에 주님이 이해는 하시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내가 행하는 일인 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나님과 내가 행하는 일인데 악평하고, 이단시하고, 괴롭히고, 중상모략 하고, 억울하게 했으면 그렇게 한 만큼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았기에 그 면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핍박받고 억울함을 받은 자는 회개의 고통보다 참는 고통을 겪으면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짓고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마귀가 방해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이성으로 배신한 죄와 주님의 애인들을 타락시킨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성 때문에 주님께 향한 사랑이 다른 자에게 가면 주님을 사랑으로 배신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그때 내가 받은 심정의 쓰라림을 말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타락한 자, 타락시킨 자, 특히 하늘이 세운 자를 타락시킨 자, 결혼한 자를 꼬여 타락시킨 자들에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고, 만왕의 왕을 저버리는 그 행위에 주님은 분노가 솟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100년을 땅을 치고 회개해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자나, 큰 자나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자에게 간 자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너는 끝났다. 지옥이다. 너는 내가 받은 고통을 허를 깨물면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배신자와는 정 떨어져서 평생 같이 못 살고 결국 이혼합니다. 다시 돌아와도 본래같이 되기 힘듭니다. 사랑의 배신처럼 가혹한 행위가 없으며, 사랑의 배신처럼 심정의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는 또 다른 자를 택하여 사랑함으로 치료하면 되지만, 상처를 준 자는 절벽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고통으로 복직해야 됩니다.

회개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받은 지난날의 심정과 그 고통을 알려주면서 통곡하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대하여 치료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용서는 해 주지만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이 천국까지 미친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불신하고 회개하여 복귀한 자는 천국에서도 행한 대로 받으니 집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주님에 대해 주시는 것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을 모신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신 행위에 따라 천국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최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끝나면 끝나고, 사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섭리사는 기성에서는 감히 일으킬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재림의 때에 맞추어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맞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추어 마치 한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시듯이 섭리 역사를 낳아 섭리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다른 자들을 통해 받지 못할 영광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섭리해 왔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개인까지도 일일이 특별히 섭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를 이단이라 하며 갖은 악한 말과 듣지 못할 말을 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흑암으로 가게 된다. 너희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왔지만 정말 잘했다.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가 핍박받았으나 이기고 끝까지 행하였기에 마지막 이때 결국 섭리역사 너희들에게 축복이 돌아가지 않았느냐. 나의 축복은 이것이니, 마지막 때를 알게 해 주는 축복이다.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해 주는 축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는 축복이다. 마지막에 준 축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때를 알게 되어 더 좋은 구원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왜 나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만 알고 잘 찾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모두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째, 사탄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를 부흥시키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일체 되고 주님과 일체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영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어느 지점이라고 말했는데 거의 동일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환란은 이미 시작되어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 모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자들을 통해 대만 홍수에 대한 계시가 나온 대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대만에서 홍수가 난 지역은 1999년에 지진이 났던 남부 지역으로 불교가 성한 지역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절이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등 불교의 종주국들이나 불교가 성한 편이지, 세계 전체를 보면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체 인구의 13%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앞으로 지구 세상에는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환란을 겪으면서 큰 환란으로 인한 끔찍한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으로 일체 되어 살아야 그 엄청난 환란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의인을 치는 심판과 환란이 아닙니다. 의인을 괴롭힌 악인들을 치는 심판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의인이 악인의 시중에 들어가면 같이 심판을 받으니 정말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며 최고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벌써 그 뜨거운 열기가 식었습니다. 이같이 하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악인들의 시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댐이나 식수용 상수 댐에 가뭄을 대비하여 물을 더 충만히 받아 놔야 됩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에 차고 넘치게 받아 놔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포도송이는 딱 한 송이 남았습니다. ‘포도송이가 한 송이 남았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100% 다 이야기하셨는데 “집회가 끝나면 간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간 다음에는 너희들의 가슴이 몽글할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제야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제야 계시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성령집회가 얼마나 중한지 깨닫게 되고, 부흥강사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때가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월명동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떠들썩하다가도 행사와 집회가 끝나고 때가 지나면 그 큰 잔디밭 성전과 운동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쓸쓸할 것

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나 예수가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된다. 지금은 내가 아쉬워서 더 은혜를 준다. 계시도 준다. 여기서 못 받으면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못 받은 자가 거기에 가서 받기 쉽겠느냐? 말씀과 불의 차원이 달라서도 못 받는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맞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 시대입니다. 주님이 답답하시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계시해 주십니다. 지금은 신령한 시대입니다. 신령한 말씀이 아니면 모두 듣지 않으려 하고,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전하는 자만 따릅니다.

설교자들도 불을 토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제는 교역자들도 영적 실력이 없으면 안 될 때입니다. 교단이 체계화되어서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다른 자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지금은 자기를 온전케 할 때입니다. 지금 전도하고 공적을 쌓지 않으면 영영 못 하고 말게 됩니다. 갈수록 사탄은 악해집니다. 이때가 마지막 순간의 기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정말 흠 없이 단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지막 이때를 위해 30년 동안 섬리역사를 이끌어 왔다. “섬리역사에 젊음을 바친 자들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할 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말씀과 계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히 여기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9일 수요일말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행하라

본 문 에베소서 5장 19-20절
에베소서 6장 13-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번 주일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꼬이고, 사람을 쓰고 거짓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악물로서 갖은 악한 행위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뱀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다는 말만 들어도 번쩍 후다닥 일어나 “어디 있지?” 한마디 하며, 얼른 몽둥이로 후려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을 보고 대해야 됩니다. 사탄 중에는 뱀의 몸으로 그 영체가 구성된 놈도 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지질히 못생기고 지독한 짐승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과 영계를 합쳐서 제일 더럽고 뱀새나는 영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도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도 세상에 속한 허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 그 재미에 빠져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여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탄의 몸이 되고 맙니다.

잠시 후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불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받아야 될 사탄은 이것을 생각하며 지옥에 가기 전에 갖은 악한 짓을 합니다.(계 20:10) 이 악한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탄의 몸이 되어 순간순간 쓰이거나 장기간으로 쓰이는 자들은 주님을 100%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성격이 과격하고 혈기적이고 교만하며 행실이 거칠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과 주님

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과 행실을 고치지 않은 자들을 자기 도구로 쓰며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과 행실을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봐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영체라서 영안을 떠서 보기 전에는 안 보이지만, 각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며 자기의 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각자 날마다, 시간마다 사탄이 오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놈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와 방해하고 갖은 악한 짓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를 줍니다. 그러니 그냥 두지 말고 수시로 무시로 사탄을 꾸짖고 멸시하고 대적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사탄은 주님께 순종하며 잘되고 복 받는 자를 그렇게도 시기 질투합니다. 사람을 쓰고 시기 질투하여 화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탄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사탄이 사람을 통해 하는 짓을 알면 기도하여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형제가 그같이 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탄이 그에게 또 역사합니다. 미워하면 사탄이 옵니다.

사랑하고 화평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옵니다. 선을 행해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선은 의의 빛입니다. 사탄은 어두움에 속한 영체입니다. 악을 행하면 사탄이 자기 일을 한다고 하며 달라붙어 역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은 선생을 통해 사탄에 대하여 알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모든 가혹한 짓과 못된 짓을 합니다.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사탄은 여우같이 교활하고, 아주 능글맞고, 형제의 흠을 잘 잡고, 형제를 이용하고, 하는 짓이 아주 지독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모르면 주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사탄이 안 보여도 이같이 영의 세계에서 행동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을 특히 방해합니다. 그러니 정말 사탄의 몸으로 쓰이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철저히 사탄을 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탄의 주관을 받든지 귀신의 주관을 받으면 모두 알고 “저 목사님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 저 지도자는 사탄, 마귀, 귀신의 주관을 받는다.”고 바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잘해야 됩니다. 만일 잘하면 “저 지도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천적이며 원수요, 우리의 대적이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안을 떠서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을 괴롭히고, 그 육신의 손을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무조건 꼬이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조건이 잡히면 더욱 사탄과 귀신에게 끌려 다닙니다. 사탄은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기도와 찬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며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막습니다.

사탄이 오면 기분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어느 때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게 여겨지고, 어느 때는 믿었던 것에 의심이 생겨 안 믿어지고, 어느 때는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정상이 아닌 각종 이탈된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마 12:28, 눅 17:21).

사탄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특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천국에 가려는 자들을 괴롭히고 각종으로 역사하여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자기에게 그같이 수시로 역사하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너무 심정 답답하시니 선생을 통해, 혹은 계시자들을 통해 사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탄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들어야 됩니다.

사탄을 소홀히 하면 사탄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큰 희망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때문에 천국에 갈 자가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사탄을 멸해야 됩니다. 사탄은 갖은 짓을 다 하여 꼬이고, 갖은 거짓말로 꼬이고 괴롭히며, 화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지옥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누명 씌우고 괴롭힙니다.

주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조건을 세워서 사탄을 잡아다가 부엌 가스 불에 얼굴을 대고 지글지글 태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지옥에 가서 사탄에게 그같이 당합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찢듯이 사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됩니다.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선생은 이를 알고 사탄을 멸하고 주님의 한을 풀어 주기로 다짐하고 주님께 나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그의 능력을 주시어 이같이 주님의 몸으로 써 오신 것입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몸이 되어 사탄을 멸하는 말씀을 함으로 섭리인 모두 천국에 기도록 주님의 신부들로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을 아는 것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을 고기처럼 불에 굽고, 오징어처럼 찢고, 도끼로 뱀을 찌듯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 선생이 주님과 약속한 것을 100% 절대 행했더니, 그날 밤 꿈에 뱀이 나타났는데 지팡이로 그 머리통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뱀은 80kg되는 여자의 허벅지만 하고 길이는 10m쯤 되었습니다.

-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한 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낙심하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사탄이 와서 싸움을 했는데 그 사탄은 덩치가 씨름 선수만 한 놈이었습니다. 선생이 사탄의 머리를 손으로 깨부수어 수박 깨듯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같이 해야 됩니다.

- 한번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잘못을 해도, 어떤 보고가 들어와도 네 사랑하는 애인 대하듯 너그럽게 대하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라.” 하셨습니다.

원래는 잘못하여 리스트에 올라온 자들에게 말씀의 매를 들어 교육하려고 편지를 다 써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너그럽게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다 찢어 없애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내 마음이 천국에 온 것같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사진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면회 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컸습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많은 섭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 보고 싶다고 쫓아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실컷 만났습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 옆에 흥측하게 생긴 마귀와 귀신들이 너무 많이 있기에 보았더니, 선생이 좋아하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따라다녔던 마귀 귀신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그럽게 대하니 사탄은 분립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사탄을 분립시켜 놓고, 사탄들을 쫓아가 모두 오징어 찢듯이 찢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마른 오징어포가 되었습니다. 육계의 현상이 영계의 현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모두 이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사탄을 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몸부림쳐 사는 것이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모두 무장시키니 사탄이 듣고 부담이 커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 앞에 수천만, 수십억만의 사탄들이 쫓아다녔어도 다 이기고 섭리역사를 펴 왔습니다. 주님과 일체 되어 조건을 세웁니다. 세계 각 나라 교회의 그 많은 자들이 그까짓 사탄 마귀를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선생이 무슨 힘으로 사탄을 이겼는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절대 해 주지 못할 것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탄을 쳐부숴야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야지요. 사탄을 이겨야 천국에 가니까요.

사탄은 선생의 이름만 대고 쫓아내도 도망갑니다. 만일 안 도망가면 선생이 잡아다 오징어 찢듯이 찢어 놓고, 불에 고기 굽듯이 하는 것을 아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사탄이 내게 오면 손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정말 손힘이 세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모두 용감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아주 신령하고 영적인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자꾸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안 떠지면 영적 지혜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흑암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그를 조종하는 사탄 귀신들을 물리쳐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육신이 나쁘게 행한다고 해서 육신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나쁜 것이니 정신을 고쳐 주고 자체 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정신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역사하니 무릇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 비원리적 사랑의 마음과 행실, 각종 그릇된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니 주님의 이름으로 다 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여 그 육신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지키고 차 열쇠를 지키면 차를 못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마음의 운전대를 주지 말고 ‘허락’이라는 열쇠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니 자기가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운전하다가 금방 사고를 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운전 면허증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 형제, 저 형제를 말로 박고 몸으로 박는 것입니다. 몸으로 박는다는 것은 형제와 행실로 부딪히고 심정으로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주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저기에 조건이 되는 자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전해 주라고 계시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니 주님은 선생에게 미리 계시를 주시어 그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하여 내게 보내면 분별해 주고 확신을 주어 담대히 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분별하고 모두에게 전해 주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를 하여 꾀사리 껴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투를 따라서 “내가 예수다. 내가 여호와 야훼다.”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님과 비슷하게 계시를 줍니다. 특히 요즘에 더 기승을 부립니다.

계시의 글을 선생에게 보내면 주님의 계시와 달라서 사탄의 계시인 것이 완전히 표 나는 것을 알기에, 이놈의 사탄들은 아주 조심성 있게 언어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계시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계시 글들이 오면 성경책 위에 계시 글들을 놓고 횡적으로, 종적으로 살펴보며 두 번, 세 번 읽어 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 주신 일이 있느냐고 묻고, 주님이 안 주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왜 이같이 했는지 묻습니다.

계시는 어떻게 받는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사탄에게 받는 계시가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평소 들었던 것이나 자기 영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깨달아지는 계시가 있습니다. 셋째, 주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는 틀린 것 없이 온전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사탄이 주는 계시는 아무리 주님과 비슷하게 계시를 줘도 온전치 못합니다. 사탄이 주는 계시로 분별되면 계시받는 것을 즉시 끝내야 됩니다.

자기가 깨달음으로 받는 계시들은 너무 많아서 다 간증할 수 없으니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써야 됩니다. 그 정도를 깨달는 계시는 섭리사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이 대표로 계시해 주시는 자들의 것만 교단과 조은 부흥강사에게 보내고, 그런 후에 선생에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쓰기 바랍니다. 확인받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꼭 교역자에게 확인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확인받기 위해 내게 보내는 서류가 상상할 수 없이 너무 많으니 선생이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교역자가 1차 확인하고, 교단이 2차 확인하면 압니다. 설교로 말씀했으니 그것을 보고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섭리사에 지정된 자들은 10명 정도니 그들만 선생에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말했기에 누구인지 선생이 압니다.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여 거짓 계시가 섞였다고 경고를 준 자들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온전히 배워야 됩니다. 사탄의 꾀를 받아 계시를 잘못 받고 전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도 손해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어서 모두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짓 계시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본인에게도 말했고, 교회에도 말했고, 교단에도 말했으니 또 하면 광고가 나갑니다. 전체를 위해서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피 당합니다. 꼭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도 계시를 받겠다고 자꾸 입으로 말하니까 사탄이 계시를 준다. 제발 내 말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더욱 깨끗한 자가 되고 전도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모두 계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섭리사 대표로 계시를 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을 들으면 됩니다. 듣는 것도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으로 주시는 계시는 모두 다 받고 있으니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쓰면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영적인 자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을 물리치게 됩니다. 단상에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 됩니다.

계시를 안 받아도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계시받는 자만 큰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자기가 임의로 받으면 안 되고, 받고 미리 전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꼭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허락받지 않았으면서, 주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묻고 허락받으려면 늦으니까 미리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님과 선생이 사전에 의논한 것과 다르니 사탄이 침범합니다.

어떤 계시는 주님의 계시가 맞는데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시로 인정을 못 받기도 합니다. 자기 주관에 들어간 계시가 길고, 사탄이 주는 계시가 길고 김니다. 또 사람들이 심정 투시를 하며 심정을 봐 주는 것도 허락한 사람 몇 명 외에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하실 때는 이것저것 물어보면 안 됩니다. 친구 것, 사촌 것, 자기 교회 목사님 것 등 각종으로 물어보면 육적 계시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알아서 말씀하시도록 받기만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만 물어봐야 됩니다. 육적으로 흘러가니 처음에는 괜찮다가 변질된 자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가 완전해야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틀리게 계시받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절제시키고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알 것입니다. 단상의 말씀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지금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준 계시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 힘든데 왜 사서 죄를 짓습니까?

한국과 각 나라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자들은 제대로 받지 않았으면 아예 보내지도 말아요. 자기가 몇 번이고 기도하며 분별하면 압니다.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깨달은 대로 다 써서 보냅니다. 선생은 지금 심각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장이 많으니까요.

계시받으면 교회 교역자에게 알리고, 교역자는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혼자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계속 계시만 받아서 보내는데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할 정도로 보냅니다. 선생이 그 사람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을 위해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을 모르고 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았으면 나가서 뛰어야지요. 중요한 계시는 거의 다 설교로 나갔습니다.

(참고 : 손이 굳었다. 글씨가 안 써진다. 1분에 열 자도 써지지 않는다. 어쩌냐? 누가 알랴? 그러니 편지가 써지겠느냐? 글씨는 감각으로 쓰는데 감각을 잃으니 글씨가 이 모양으로 써진다. 그래서 쓸데없는 계시나 편지를 내게 보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답변하는 편지를 못 쓰게 좀 하라. 사탄은 제자들을 쓰고 내 시간을 빼앗으려 한다. 이놈의 사탄... 내가 알았다. 물러가라!)

이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고 핍박이 없어도 자기가 안 하면 실패합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못 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정신이 죽어 있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사탄, 귀신, 행악자, 핍박자, 반대자들이 안 막아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과 중한 것을 모르고, 앞날에 일어날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자기가 책임분담을 못해서 못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긴장의 허리끈을 풀고 살고, 자기 앞에 닥쳐올 극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태만함, 무지함, 게으름, 소홀함이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인데 안 하여 자기를 고통의 장소로 가게 그냥 놓아둡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정신 차리고 빨리 자

기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환경이 나쁠수록 더욱 유리하고 우세합니다. 편안하면 오히려 못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죽음의 날, 파멸의 날, 자기가 다치는 날, 자기가 불구의 몸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현재 편안하다고 안 피할 것이냐?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 나 예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안 할 것이냐? 태만하고 게으른 자, 자기 길로 가는 자에게 그 날이 홀연히 닥쳐온다. 그때는 피하지 못한다.”

언제는 마귀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언제는 행악자들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언제는 가정 핍박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했지요? “이제 해결되었는데도 왜 안 하느냐?”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안 하면 당장 다른 사람을 부르고 끝난다.” 하십니다.

주님은 섭리의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계시해 주고 가시면서 “나 정말 바쁘다. 이제 붙잡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섯 장, 열 장 정도의 분량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한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했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재발 잡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바쁘다. 시간이 없다. 세계를 빨리 돌아다녀야 된다.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이에 몇 마디 써서 선생에게 보내면서 주님의 계시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으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계시, 개인에게 주는 계시였습니다.

주님은 선생에게도 오셔서 “계순아.” 하고 떠나시기에 “주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다. 나 바빠.” 하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빨리 남은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간이 지나가면 10배나 더 힘듭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신앙을 위해, 자기 구원을 위해, 주님과 일체 되어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 하면 끝납니다.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100% 귀히 사랑하십니다. 메시아가 그렇게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 말고 해야 됩니다. 형제도, 선생도, 주님도 오해하지 말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이 사명을 주고 세웠는데 선생이 모르고 계속 “너, 그 사명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라. 다른 것을 해 보아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편지를 받고 쇼크를 받고 중앙에서 뛰다가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너 왜 왔느냐? 선생을 통해 내가 중앙에서 뛰라고 했는데 왜 위치를 뺐느냐?”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중앙으로 갔답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선생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지금은 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냐? 찾았으면 내게 빨리 편지해야지. 그냥 그곳에서 있을 것이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못 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억지로 하냐? 아직 안 떠났으면 떠나고 다른 사람을 거기 배치시켜라. 너는 네 맘에 맞는 제2의 장소를 빨리 찾아서 내게 편지해. 다른 일을 해 보자. 선생이다. 안녕.」 했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에게서 긴 편지가 와서 그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쇼크 받고 본 교회에 갔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계시를 주시어 다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선생님이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또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사연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똑같고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편지와 보고와 결재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보고할 때 정확히 하지 않기에 선생의 머리가 열을 받아서 자체 인식을 잘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혹 그런 편지가 가니까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밤 12시 20분입니다. 정말 밤낮으로 뛰어야 겨우 일이 됩니다. 밥 안 먹고, 밤잠 안 자고 철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일하다 보니 철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리고 밀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내게 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은 요즘 특별 기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바쁘시니 한마디만 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자신감이 없어 못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고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환경과 여건이 유리하고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일을 행하여 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다. 환경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불리하다.’ 생각하는 자는 생각대로 못 한다.” 하셨습니다.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한다.(마 9:29)”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안 된 자를 보시고 주님은 “저 사람은 나를 안 믿었구나.” 하시며 그 생각과 마음을 더욱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일을 놓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할 것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나는 환경과 여건상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행하는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계시입니다. 주님은 수준대로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의 계시는 이와 같이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 섭리사는 환경과 여건상 유리합니다.

- 주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 섭리 사람들을 가르쳐 오셨고 신부로 대해 오셨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는 데 있어서 여건상 지구상의 어느 교파보다도 유리합니다.

- 개인적으로 보아도 주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성령 역사까지 뜨겁게 일어나게 해 주시어 하나님의 신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니 모두 주님을 맞기에 유리합니다.

- 자기 사명을 하는 데도 누구보다 유리합니다. 선생이 알고 그동안 가까이해 왔기에 사명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니 자기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 선생도 옛날처럼 세상 안 보고 뛰게 되니 환경과 여건상 섭리사에 주님이 더욱 함께하시니 좋고, 선생이 주님과 가까이하기에 좋고, 주님과 일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사명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 많은 자들을 전도하고 이 시대 복음의 바통을 쥐었기에 어떤 교파보다도 유리합니다.

- 깊은 재림의 말씀이 있지요, 성령 집회의 부흥강사가 있지요, 교단이 조직되었지요, 젊은이들이 많지요, 선생 있지요, 월명동 배경 있지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요, 예술과 문화로 무장했지요, 시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을 멸할 수 있지요, 계시자들도 있지요,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선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계 섭리인들은 한 번에 듣지요, 그러니 우리가 시대를 잡기에 유리합니다. 믿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마음에 깨닫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재림도 맞고 휴거도 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계시를 받았으면 코치인 선생이 있으니 유리합니다.

작은 일을 하든지, 큰일을 하든지 자기 앞에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과 선생님이 함께하시고, 그동안 고통 받은 것만큼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불리할 것 없다. 모든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잘된다.’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도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님도 더욱 함께하시니 하는 일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고 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꺾여서 못 합니다.

주님은 “절대 환경 보지 말고 따지지 마라. 언제 환경 좋아서 네가 이 역사에서 나의 시종을 들고 사명을 해왔느냐? 잘 먹어서 이 사명을 해왔느냐?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쓸수록, 가정과 민족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반대할수록 더 크게, 더 열심히 해 오지 않았느냐? 항상 ‘내가 유력하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유리하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니 유리하다.’ 하고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돈 따지고, 직분 따지고, 인물 따지고, 키 따지고, 몸무게 따지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장점이 별로 없어도 그것만 보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점을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환경과 여건상 유리하다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충만하여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13일 주일말씀>

1. 나를 따르라. 생명이 보화다. 전도하라
 2. 때를 지켜야 때에 맞는 것을 얻는다
 3. 지금은 전도할 때다. 성령을 받을 때다.
- 주님의 재림을 맞이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다

본 문 전 도 서 3장 1-11절
마태복음 4장 18-22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생기가 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때를 따라 살아야 제때 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두고 보아도 제 계절에 할 일을 못 하면 그다음 해의 그 계절이 돌아와야 하게 됩니다.

- 봄에 뿌릴 씨를 못 뿌린 자는 그다음 해 봄이 돌아와야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려다가 준비가 안 되어 못 간 자는 그다음 해 여름이 돌아와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준비하고 열 일 제치고 가야만 가게 됩니다.

- 가을에 꼭 해야 될 단풍놀이를 못 했으면 그다음 해 가을이 돌아와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열 일 제치고 자기 할 일을 다 해 놓고 가야만 가게 됩니다.

- 겨울에 스키를 타거나 겨울 풍경을 즐기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 겨울이 왔을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어떤 단체가, 혹은 어떤 나라가 그때 할 일을 못했기에 해야 한다고 해서 계절을 법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절을 뒤바꾸거나 당겨서 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절의 때는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서론부터 이렇게 이치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며 이유를 달 수 없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사가 그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 하면 못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겪으면서도 제때 안 하여 실수하고,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고통 당하고, 원망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화평치 못하고, 안 되었다고 주님을 멀리하며 믿음을 파선하고, 주님과 사랑이 식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제대로 못 느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너희는 만물의 이치를 알면서도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이치에 어두우냐? 소경이냐? 볼 구자냐? 왜 그리 어둑하냐? 왜 그리 미련하냐? 왜 그리 모르느냐? 왜 신경 안 쓰느냐?”며 책망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도 속상해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가 늘 잘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가 잘되는 것이 곧 주님이 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이고 애인이니까 우리가 잘되어야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잘되는 것과 같이 여기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필요하면 해 주십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같이 봐야 됩니다. 현실에서 모순된 것들이 쌓여서 미래에 닥쳐온다는 것을 알고, 현실의 일들을 할 때 현실에서 모순된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모순을 해결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론에서 계절의 법칙과 비유를 들어 말씀한 대로 그 계절에 할 일을 못 하면 못 하듯이, 제때 못 하면 그 누구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무섭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자기의 꿈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은 근본이지요. 알고 주님 안에서 행하여 성공

한 것과, 모르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 행하여 성공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주님을 떠나서 행한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그 공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에만 속한 것이 되고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기 때를 모르는 자들이 실패하고, 고통 당하고,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후회하고,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때, 이 시대의 때,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때를 꼭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이때에 맞는 일을 못 합니다. 때는 봄인데 여름에 할 일을 땀을 뻘뻘 흘리고 갓은 애를 쓰면서 하게 되니, 수고했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그때 그 일 먼저 했어야 했는데…’ 하며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님의 때, 곧 이 시대의 때를 먼저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이 선생을 가르쳐 보내어 때를 외치게 하시니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시하시고 계시하시며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모두 읽어 보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때를 깨달을 때까지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자기 때가 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겪어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계절이 돌아오듯이 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정말 때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때 속에 하나님의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과 일체 되고, 주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하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았으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우선권인 주님과 함께 그때에 합당한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필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때가 되었을 때 희망이 이루어져 정녕코 거둘 수 있습니다. 제 때 해 놓고 관리하는 대로 잘됩니다. 모든 것은 지난날 수고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기의 때를 알고 행했느냐에 따라 축복이 좌우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원하시고 바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때를 몰라 행하지 못하고, 때를 알았어도 몸부림쳐 행하지 않고, 제 때 제 일을 못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제 때에 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가 현실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깨닫고 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게 되기도 하고,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모두 지난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때를 지키면서 살았나, 못 지키면서 살았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해당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때를 알고 수고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섭리사를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개인의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감동받고 따라왔기에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안 왔으면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때 관리해 주고 수고했기에 한 명, 두 명, 수십 명씩 결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월명동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를 깨우쳐 주시어 알게 되었고, 그때 돈도 없고 여건도 어려웠지만 몸부림치며 개발했습니다. 돌이 무너졌지만 또 쌓았습니다. 좋은 돌이 없으면 좋지 못한 돌이라도 구해서 쌓았습니다. 돌 쌓는 때, 나무 심는 때, 호수 만드는 때 모두 여건이 불리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먹는 물도 모자라 하루 종일 일하고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물을 먹을 수도 없는데, 주님은 “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환경적인 천국은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호수를 파니까 물이 났고, 또 여름 장마철에 물을 채워 놓으니 아름답고 작은 신화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배를 띄우고 섭리의 뱃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호수의 정자 밑으로 배를 다니게 하는 멋진 구상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때의 실력으로는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면 쉬웠겠지만 5m 이상 되는 길고 두꺼운 일정한 돌 10개 이상을 구하여 깔아야 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다 돌 틈에 소나무들을 심어 살리는 작업도 힘들었는데 지혜롭게 하여 성공했습니다.

길고 두꺼운 돌들이 없었는데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긴 돌들을 싣고 오니 아랫마을에서 길을 막아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알고 보니 때가 되어 그 해 마지막 전국 순회를 떠나야 된다는 경종이었습니다. 선생은 순회를 하면서 작업을 지시했고, 순회하다가 월명동에 잠깐씩 들러서 지시했습니다.

때는 97년 가을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95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선생이 월명동에 없는 사이에 정자를 짓는데 또 문제가 생겨 연못에 짓기로 한 정자를 동그래산에 옮겨 짓고 다시 연못에 지을 정자 재목을 큰 것으로 사다가 지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하면 유리했고, 결국 더 좋게 되었습니다.

돌들을 웅장하게 쌓으려면 큰 돌로 쌓아야 되는데 큰 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두 개는 기념으로 구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를 구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주님은 때를 재촉하면서 **“어서 뛰어라. 이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니 결국 자연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아시니 제때 해야 된다고 하시며 몸부림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여건이 안 좋았지만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선두에 서 계시며 우리는 실천하였기에 완공하여 자연성전이 되었습니다. 수고한 것보다 천 배, 만 배 이상적으로 보람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함께 행한 자가 사용할 때 더 보람을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결단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니, 하나님과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어 돌과 나무와 물과 인력을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미약하고 힘들지만 결심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들을 보면 성공한 만큼 고생하며 갚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줘야 그와 심정이 통합니다.

만일 그때 자연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자연성전을 못 지었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서러움을 받으며 장소를 빌리러 다녔겠습니까? 전도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밀려오는데 장소가 없어서 고생들을 했을 것입니다.

정든 성지땅이기에 환난 때도 나가지 않고 기도하여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선생도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 성지땅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희망이 솟아나고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연성전과 섭리 궁궐을 지었으니 뿌듯합니다.

하나님은 그 터전 위에 쉬지 않고 표적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한 가지를 축복받으면 그 뒤에 따르는 축복이 또 옵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행해야 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 정신으로 현실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 어렵다고 못 했더라면 선생과 섭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하나님께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 집을 채워라.”** 하셨습니다. 밥그릇이고, 국그릇이고, 반찬 그릇이고, 찌개 그릇이고, 자기 마음의 그릇이고, 하나님 성전의 그릇이고 다 차고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인 세계 각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놓으신 택한 생명들을 데려다 채워야 됩니다. 큰 그릇에 과일이 채워지지 않고 그릇만으로는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을 주신 보람이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깝습니다. 각자의 마음도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각 교회는 돈을 들여 성전을 크게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생명들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야 됩니다. 큰 성전을 얻어서 크게 꾸며 놓았는데 생명을 채우지 않은 교회는 전도단을 파견하여 이때가 때니 전도하여 충만하게 할 때입니다. 이때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면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선물을 주시고 크고도 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인도 교회도 전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늘 예전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전도하여 한 명이라도 새로운 자가 생기면 하나님과 주님도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두 명 전도하면 두 배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대로 일어납니다.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자가 없으면 조용합니다. 교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손님이 와야 음식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만일 누가 결혼하여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정신과 희망을 얻게 되고, 그 집은 분위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고 손님도 오지 않으면 썰렁하고 적적하여 예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도 희망도 없고, 기분도 안 나고,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게 됩니다. 주님도 잘 안 가십니다. 주님은 희망 있게 제때 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십니다. 요즘은 주님이 오픈하여 다니시는데 주님을 못 만난 자는 정말 깨어 근신하고 긴장하며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자들은 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믿습니까?

각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주님께서 말씀의 잔치, 환경의 잔치, 은혜의 잔치, 새 역사의 잔치를 하시며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꼭 해야 쉽고 뜻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순간의 때입니다. 마치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까지 전도하지 못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앞에 계절 이야기를 한 것은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철 과일을 못 먹으면 식욕이 당기지 않아서 많이 못 먹고, 또 비싸서도 못 먹게 됩니다. 제철에 씨를 뿌리고, 제철에 가꾸고, 제철에 거두어들듯이 제때에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제때 전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열차에서 내려 버리면 못 하고 맙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인데 망설이기만 했네, 아쉽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하며 가슴만 찢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정신이 죽은 자입니다. 평생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 순간 지나간다 생각하고 의식하지 말고 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거의 주님이 전도자를 쓰고 전도하십니다. 실천자만이 승리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모두 순간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그때,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고 헤어지면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장소와 그 위치에서 만날 자가 누구인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보물을 찾듯이 인생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은 보물입니다. 눈이 아프도록 열 일 제치고 찾아야 인생 보물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자도, 전도되는 자도 서로 뜻이 있는 자들끼리 만나게 해 주십니다. 계획적으로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냥 지나치고 끝나고 딴 이야기 하고 끝나면 주님은 심정이 상하셔서 **“너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하십니다. 항상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 병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께 물어봐요. 즉시 대답해 주시니까요. 지금은 심정 핸드폰 시대인데 왜 안 써먹습니까? 지금은 영적 시대로서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미 뜻이 있어 주님의 뜻에 맞추어 길러 왔기에 사연과 인연으로 연관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대화로 연결시켜 전도자와 전도될 자가 서로 융합하게 해 주십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나고 연결된 것을 알고 놀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을 때는 가슴이 찡하고 머리에 번쩍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본인이 깨달고 확신해야 주님의 마음이 놓입니다.

전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크게 깨달아지고, 사명감이 들고, 감동이 와 자신감이 있어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하는 중에는 깊은 심정으로 형제들의 영혼을 두고 강한 기도를 해야 전도의 불이 오고,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되고, 더욱 강한 지혜와 열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평생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자를 못 만나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의 요셉은 배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는 자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디를 가도 돋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였습니다. 그같이 사랑하고 뜻이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타국으로 팔려 가게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요셉을 미워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악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억울하게 해도 낙심하지 말고 악착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더 희망차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뜻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기뻐 뛰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 가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허락도 없이 자기 혼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충성하기는 했으나, 그 여자를 절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왜 자기 남편을 두고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더구나 타국에서 온 몸종을 좋아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정열이 불타는지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만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이 몸종이니 제 맘대로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발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미쳤지요. 본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섭리사에서도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며 산다고 서약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두고 종을 사랑했듯이, 신랑 되신 주님을 두고 다른 자를 사랑하여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놓고 회개할 때는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에게도 자기가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하며 괴롭다고 용서를 비는 편지들이 왔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정신이 나가서 사탄의 정신으로 일을 저지르고, 끝나고 본래 정신이 돌아오면 정말 괴로워하며 후회합니다. 비단 사랑뿐 아니라 믿음을 파선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의 신앙을 잃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그의 옷을 휘감아 쥐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왜 이러십니까? 참으세요. 안 됩니다.” 하며 말리고 자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종의 몸으로서 과분하지. 나와 사랑하자. 나 미치겠다. 요셉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요셉이 그 여자를 보고 미친년이라고 따지고 싸우면 그나마 종살이에서 쫓겨날 것이고, 행여 주인이 알면 분노하여 해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들 얘기해 봐요. ‘이게 웬 떡이냐! 웬 하늘이 준 찰떡이냐? 웬 숲 속의 과일이냐?’ 하고 감격하면서 좋아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사랑하여 한 몸이 되면 종살이를 할지라도 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같이 요셉을 아껴 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랑에 응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칙에 벗어난 일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대로 평소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결국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벗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걸옷을 움켜쥐고 이를 부드득 갈면서 소리를 질러 다른 몸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요셉이 나를 사랑하려고 우발적으로 나를 끌어안고 내 육체를 빼앗으려 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 도망갔고 그때 내가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니 저 놈의 옷이 벗겨져 내 손에 있지 않느냐? 증거물이다.”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꾸며 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근거가 있네. 요셉의 옷이 맞구먼. 나쁜 놈! 강간 미수야. 강간이야. 추행이야. 저 놈을 옥에 가둬야 해.” 하며 요셉을 꽂꽂 묶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모든 말을 듣고 요셉을 때리며 “이 놈아. 내 아내가 어떤 여자라고 건드려? 나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순결한 여자인데 네가 건드려?” 했습니다.

요셉은 어처구니없이 억울하고 분통하게 사랑의 누명을 씌웁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입장이 반대로 뒤바뀌어 누명을 뒤집어썼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떤 변호사를 써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왕의 친위대장을 하고 있었으니,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면 자기가 남편에게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되니 사생결단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있던 것이 근거라고 했지만, 실상 그것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근거였습니다. 그 옷에 난 흠집을 봐도 그 여자의 손톱으로 움켜쥐고 비틀었기에 그 여자의 손톱자국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옷이 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옷은 멀쩡했으니 요셉이 여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있는 자들은 그 미친 여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여 마음속에서 열불이 나고 정의가 용광로같이 끓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가 당한 억울함을 다 아셨습니다. 요셉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그가 축복받는 길을 향해 가게 하였고, 먼저는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3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에 충성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면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신령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열한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아니, 부모와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냐? 개꿈을 꾸고서 그것이 형제들인 줄 알고 말하는 것이냐? 듣기 싫다. 기분 나빠. 꺼져!”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살피러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형들은 요셉을 함정에 넣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중 한 형제인 르우벤은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함정에 던지되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곳을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또 사랑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동하여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모두 믿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꿈을 꾸면서 외롭지만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삶도 충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 하여 옥에 갇혔으니,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였고, 요셉은 여러 날 동안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에 팔려 왔고 그로 인하여 또 사랑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기에 ‘꿈은 내게 치명적 고통이다. 꿈 신경 쓰지 말고, 꿈꾸지도 말고, 꿈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지.’이같이 할 만했건만, 옥에서도 꿈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곧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두 사람 다 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왕의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는 꿈이었고,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꿈대로 3일 후에 옥에서 나갔습니다. 요셉은 왕의 술 말은 관원장에게 나가서 복직하여 잘되면 자기도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왕의 술 말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술 말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뜻이 있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바로 왕은 번민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날고 기는 신령한 자들을 다 동원했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점술가들이라 해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 그 수준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계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망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술 말은 관원장이 자기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꿈을 풀어 주고 그 말대로 된 것이 생각나 바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왕은 꿈을 풀게 하기 위해 요셉을 급히 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상천하지 최고의 신인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을 나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숫자와 이치에 의하여 현실에 합당하고 통쾌하게 꿈을 풀었습니다. 요셉이 명확하고 신령하게 꿈을 풀어 주니 왕은 번민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왕은 민족의 앞날을 예시한 꿈을 푼 요셉에게 총리 직을 맡기고 민족의 큰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니 요셉은 더욱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열한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요셉에서

부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자기 선조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 터전 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가혹하게 당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심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됩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썼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희망으로 삼고 계속 실천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동안의 고통을 풀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실상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대국 애굽에서 역사를 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습니다.

어떤 가혹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 믿으면 결국 잘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뜻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성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니, 이를 깨닫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희망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뜻있는 곳으로 보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같이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에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없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대신도 못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에게 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히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심정 모르면 죄만 짓게 되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의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세계와 순풍의 세계에만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경 속에 더 잘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더욱 역사를 일으킵니다.

요셉도 옥에서 만날 자를 만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꿈을 풀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요셉도 잘되고 그를 만난 자도 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꼭 제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풀어 준 자와 궁에서 만나 같이 왕을 모시고 살았으니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기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대신이 된 것을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알고 얼마나 속이 타고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행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들도 더 이상 요셉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다르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주권으로 자기들에게 해를 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 섭리역사도 교파가 다르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왔습니다.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미움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에 이르기까지 선생도 여러분들도 이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어머니)가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도 교파는 다르지만 다들 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배가 다르다. 교파가 다르다.’해도 하나님과 주님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신령한 꿈을 풀어 주었듯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외치게 해 주신 회개와 재림에 대한 신령한 말씀을 외쳐 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외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이 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뜻 있는 자를 만납니다.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극한 환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도할 자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뜻있는 자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또 가슴 아파하는 자들과 각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며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펴 나가고, 자기의 꿈도 이루어지고, 섭리사의 꿈도 이루어지고, 2009년 총 주제처럼 새롭게 변화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은혜 받아 섭리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 맛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해야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함께하시니 이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때

를 놓치지 마라. 성령을 주고 내가 함께해 주는 이때, 이 순간이 지나면 전도할 자를 못 만나고 그와 헤어져 기회를 놓친다. 이때가 지나면 정말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념을 다했습니다. 꼭 전도하라고 했으니 해야 됩니다. 모두 이때가 자기의 기회이고 때입니다. 기도하여 계시 받는다고 욕심 부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릴 때가 되었을 때 내리고 압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여 만나야 될 사람이 옆에 있는 데도 그냥 있습니다. 빨리 입을 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해 보면 주님이 택하신 자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대화 속에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꿈에도 전도할 자를 보여 주십니다. 선생에게도 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꿈에 내 영이 쓰레기통에서 다이아몬드를 주웠는데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이 꿈을 꾸고 새벽에 깊이 기도하니, 사람을 보화로 보여 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서 여러 전도 대상 중에 오늘 만나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정말로 전도하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고 하니, 그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자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믿고 만나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자기를 꼭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며 자기가 준비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주님을 믿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더욱 더 주님의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집중하여 며칠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도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다고 하고, 나도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다고 하며, 서로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한 사람을 전도하니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 줄 사람을 전도하니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자. 너는 앞으로 나를 형이라 불러. 나는 너를 동생이라 부르겠다.” 했습니다. 내가 바깥에 있을 때도 전도하면 그같이 기쁘고 좋았는데, 내가 환난 중에 매인 몸으로 바울 선생같이 한 생명을 낳으니 더 뜻이 깊었습니다.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편지로 선생에게 연결시켜서 얼굴도 못 보고 편지로 전도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편지해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니 고마워서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잃은 양 찾기’를 하여 1500명이 돌아오게 하였고, 그중에서 900명이 다시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적어도 700명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은 전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께 내가 바깥에 나가면 제자들과 함께 2년 만에 10만 명 전도할 수 있다고 하니, 주님은 **“바깥에서 할 자라면 여기서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명씩만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선생은 지옥의 고통을 겪은 후에 지옥에 갈 자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할 것을 생각하니, 평소보다 천 배나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지옥을 겪어 본 자는 원수를 보고도 “지옥에 갈 놈!”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끌어내고 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늘같이 높은 공적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도 전도하려고 전도자를 순간순간 도우십니다. 모두 다 같이 전도하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마귀가 열 마리, 천 마리 달라붙어 붙잡고 있는 자도 혼자 가서 기도하고 능력 부려 빼앗아 와야 됩니다. 주님은 그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그같이 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금년도 가 가기 전에 모두 저마다 한 명씩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해 보기 바랍니다. 기회와 때가 왔을 때 못 하면 정말 못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선생은 사건 문제로 인한 싸움보다 전도에 신경 썼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싸움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천직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지옥 생활을 하며 고생해도 형제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되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같이 하면 다 전도됩니다.

전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사망으로 가는 형제를 자기 애인으로 보면서 해야 되고, 연애했듯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 생명을 주님께 데려다 놓으면 주님께서 대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께로 생명을 빼앗아 오는 자는 생명의 영웅입니다. 전도를 잘해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백 명도 전도하게 되고 수천 명도 전도하게 됩니다.

선생이 주님의 명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다가 죽음을 선고받고 하루도 더 못 살게 되었을 때, 주님은 “너를 죽음에서 구해 줄 테니 무엇을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에 나는 “3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3만 명을 전도해? 너 살려고 그 말 하는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 주시는데 3만 명은 전도해야 값이 되지요. 그 대신 제게 지혜와 능력만 주세요.”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 나의 결심과 각오를 전해 주시고 주님이 증인이 되심으로 주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의 선고를 받은 내 생명을 죽음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도할 때 함께해 주시어 결국 30년이 걸려 3만 명 이상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나를 연단시키셨고, 기도하게 하였고,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우쳐 주셨고, 영계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에게 전할 말씀을 받게 하였고, 생명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결국 전도된 자가 또 전도하고 전도하여 섭리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면 생명들이 세계적으로 구름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교회들이 작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주님은 “전도하면 그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어 준다. 교회를 만드는 사망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 말고 전도해. 교회에 앉을 곳 없으면 방송 채널을 사서 방송 설교하면 집에서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된다. 내가 이전부터 말한 대로 가정 교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장소가 문제냐? 1부, 2부 예배로 나눠 드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자연성전에 모여서 대 모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비 맞을까 걱정되면 큰 우산 만들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인생들은 열차를 타고 몇 시간 달려가는 것과 같으니, 이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만나서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희망을 찾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전도해 주어 정말 희망 있게 살게 해 달라고 합니다.

모두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함으로 그동안 섭리역사에 살면서 고통 받고 지탄받은 한을 풀어야 됩니다. 온 세계 50개국 나라의 각 교회들이 모두 전도해야 됩니다. 각 교회들은 전도하고 내게 보고해요. 매일 개인 편지나 쓰지 말고 교회에서 전도된다는 소식이나 전해 줘요.

선생은 전도할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정말 힘들고 불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섭리사를 나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인식관만 돌려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악평을 듣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에 불리하지만, 제대로 인식만 시키면 일반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활동한 것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야, 나라에서 하는 행사야?”합니다. 그러니 훨씬 더 유리하지,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그 여자 처녀 아니다. 아주머니다. 아이가 있다. 나쁜 여자다. 늙은 여자다.” 해도 보여 주면 아닌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선생도 자주 책자에 나온 청중 모임을 보여 주며 말하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를 악평하는 자들이 그만큼 악하다고 했습니다. 내 편이 되었습니다. 보여 주면서 말하니 수긍하며 “나도 안다. 당신도 나를 좀 믿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 후로는 선생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교회에 꼭 나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바깥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 편이시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은 그물이 커서 큰 고기들만 얻히지,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선생이 전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를 알고 좋아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닦고 또 닦아야 사람들이 대해 보고 느낌이 좋으면 그 말을 듣고 전도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전도가 잘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뜻있는 자를 골라서 그를 전도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보화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야기해 보면 느낌으로 알게 되고, 주님께 자주 기도하고 대화해 보면 결국 꿈에 보여 주시어 알게 되고, 전도해야 될 자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전도할 때 첫사랑으로 대하듯이, 전도된 후에도 늘 변함없이 관리하고 잘 대해 줘야

됩니다. 주님처럼 친구도 되어 주고, 형제도 되어 주고, 거짓 없이 끝까지 자기 몸과 같이 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못 빼앗아 가게 교육시켜 주어 주님의 군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행악자들과 우리를 악평하는 자들을 대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말씀의 감뉘를 입혀 주어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전도하기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있고, 30년 동안 해 놓은 것이 있고, 구름 같은 청중이 있고, 외칠 말씀이 있고, 자연성전 배경이 있고, 예술단들이 있고, 세계 50개국에 복음이 펼쳐 나가니 보여 줄 것이 있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도 절대 못 합니다. 전도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전도할 때는 청중이 모인 축소판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며 저마다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 전단지입니다. 믿습니까?

9월과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두 달 줄 테니 모두 한 명씩 전도할 것입니까? 중고등부 전도가 제일 잘됩니다. 모두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백 명씩 하겠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만 명 하겠다, 혹은 10만 명 하겠다고 크게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때를 놓치면 만날 사람을 못 만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찾고 다니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 전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 되듯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 전도해야 됩니다. 선생은 이런 환경에서도 전도하는데 골치 아픈 문제도 없는 자들이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함으로 자기의 고통도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지나갔기에 평생 다시는 못 만나서 못 하게 됩니다. 기회를 잃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밭을 갈아도 깊이 갈지 않으니 거기에 깊이 묻힌 보화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야 합니다.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운을 타야 하나님이 허락하여 보화의 주인이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캔 자는 좋아서 매일 기뻐합니다. 금년도에도 전도된 자들 중에서 그 나름대로 개성의 보화들이 올 것입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돌쇠처럼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야 전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은 “전도하자. 은혜만 주고 그냥 가고 싶지 않다. 전도하는 데 불을 붙여 놓고 가려다. 섭리사에 많은 생명이 몰려와 너희로 큰 역사를 이루도록 모두 한 명씩, 열 명씩, 스무 명씩 전도하라.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진주가 들어 있는 조개를 찾듯이 만나게 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대회 때 많은 생명들을 데려다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에 선생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하였기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낙심했다면 전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전도하다가 말았으면 전도되는 자도 안타까워하며 자기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으니 자기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모두 선생같이 해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뜻있는 자 같은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선생이 전도한 자는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정말로 전도해야 할 자를 보고 마음이 강하게 감동되어 전도하게 됩니다. 지혜자는 속을 보고 좋아합니다. 겉을 보면 정말 모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정말 땅에 묻힌 보화는 캐내기 전에는 모릅니다.

선생도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겉모습대로 대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다. TV에 나왔지!” 합니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니까 내 말도 한번 들어 보라고 하고 말하면 일단 듣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다시 인식하고, “그 녀석들이 옳은 말을 안 하고 그 쇼를 부렸구나.” 합니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세계적으로 구름같이 따라오는 자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참이니 믿고 인정해 줍니다. 10년을 악평했어도 몇 분 이야기하면 인식관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있기에 감동을 주십니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의식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에게도 운이 돌아옵니다.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수십만 번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니, 주님은 “네가 억울한 만큼 잘되게 해 줄 것이며, 손해 간 것을 다 채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다. 전도하지 않으면 너 정말 큰 손해다. 전도하면 너 정말 큰 복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전도하라고 주님이 그동안 숨겨 기른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데려와야 됩니다. 늦게 데려오면 다른 자가 데려갑니다. 다른 종교에서 데려가고, 사탄이 꼬여 보이지 않는 사망길로 자꾸 끌고 갑니다. 눈에 보일 때 해야 됩니다. 죽음의 사선을 아주 넘어가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선생을 찾아 섭리길로 와서 선생을 믿어 주는 자도 행복한 자이며 천복을 탄 자입니다. 선생도 이 기회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으려 합니다. 어디서든지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의 신은 역사합니다. 기도해야 자기에게 운이 기울어집니다.

주님은 “모두 전도하고 전초하여 전도 집회에 데려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부흥 집회에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데려가야 신입생과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해서 데려가기만 하면 다 은혜 받고 결실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을 못하여 놓치니 전도 집회를 한 감사도, 성령 집회를 한 부흥강사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전도의 불이 붙어 모두 한 명, 두 명, 세 명, 혹은 수십 명씩 전도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16일 수요일말씀>

속히 생명들을 구하여라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본 문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잠 언 3장 1-8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요즘에 새로 전도되어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생명길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들을 전도해 온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하느라 수고하고 지쳤으니, 이제 전도된 여러분들이 뛰고 달리면서 전도자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전도된 자들이 열심히 하면 전도한 자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힘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합니다.

전도된 자들은 자기 연고자나, 친구나, 형제들을 또 전도해서 같이 크면 신앙생활 하는 데 훨씬 힘을 받게 됩니다. 또 자기의 첫 신앙이 배 이상 강해지고, 주님이 더욱 표적을 보이시어 정신에 힘이 생깁니다. 전도되었을 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종일 중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때는 새벽입니다. 세상이 오픈되기 전에 고요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도 새벽에 좌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요즘에 새로 나온 신입생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 말씀을 들겠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은 손을 들어 보세요. (손 든 것을 보고 내리게 한 후)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나의 전도자들을 통해 너희를 오게 하였다. 왜인지 아느냐? 지옥에 가서 너희들의 영이 그 뜨거운 유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받지 말고, 내가 예비해 놓은 황금과 보석의 나라 천국에 가서 나와 영원히 사랑하고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고 부른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 고마움과 가치를 천만 분의 일도 제대로 모른다. 내가 말한 것을 이 자리에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느껴 알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 인생이 뒤바뀌어 변화가 일어난다.

나에 대하여 알아라. 세상의 각 나라 주권자들이 몇 명의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나 예수는 수백 억, 수천 억의 생명을 다스린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내가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을 신경 쓰고 애간장 태우며 내게 오기를 간구하고 빈다. 내가 언제까지 이리하겠느냐. 올 사람이 모자라서 내가 그러는 것이겠느냐? 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다. 한 번 가면 영원히, 영원히 못 나온다. 바다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한 번 가면 못 나온다. 나는 그것을 알기에 그같이도 너희에게 말씀하며 애원하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믿어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실력껏 실적을 쌓아 영의 실력으로 지옥을 보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평생 잘 믿을 것이다. 하늘의 사명을 받고 내가 지옥을 보여 주어 그곳을 보고 와서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라. 책을 보아라. 믿어라. 들어 본 것도 본 것이니 믿어라.

온 세상에 점점 대 환난이 닥친다. 그 환난은 민족마다 다르고, 한 민족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들도 개인마다 다르고, 종교들도 교파마다 그 재앙과 환난이 다르다. 그런가, 안 그런가 지난날을 보아라. 어떤 자는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자는 병들어 죽고, 어떤 자는 홍수와 지진 등 재난으로 죽고, 어떤 자는 괴로워서 자살하여 죽고, 어떤 자는 싸우다가 죽고, 각종 고통들을 당하지 않았느냐.

왜 지난날을 보고도 현실에 어둡고 미래에 어두운 것이냐? 소경이 아니냐? 내 말을 믿고 눈을 떠라. 너희가 지난날에 받은 고통이 제각각이듯이 앞으로도 그러하다. 내 말을 믿어라. 고로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기 전에 전도하고 기도하여 피하라는 것이다.

내게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라 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재난을 피하지 않으면 죽거나 크게 다쳐 불구자가 된다. 사망의 세계, 악의 세상에서 빛과 선의 세계로 와서 나 예수께 피하라. 그리하면 정녕 너희 영도 육도 구원받고 상함과 해됨도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 잘 들었어요? 선생도 지난날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닥친 환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며 피하여 살아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역사를 펴 온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며 돕지 않으셨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라도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갚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았으면 칭찬으로 대해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면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로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 선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 물에 뛰어 들어가 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으니 생명의 귀함을 알면 죽기 전에 건져 내어 살리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누가 되었든지 건져야지요.

물을 먹고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는 어린아이, 혹은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 혹은 아가씨, 혹은 청년들을 보고 누가 구경만 하겠어요? 바짝 가서 그 얼굴을 보고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네.” 하고 그냥 오겠어요? 끌어내야지요. 평소보다 10배나 담대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10배나 힘을 쓰면서 끌어내야지요.

가볍다고 끌어내고, 무겁다고 끌어내다 말겠어요? 힘들다고 끌어내다가 말겠어요? 한 명 끌어낸 후에 나머지는 떠내려가게 그냥 놔두겠어요? 온종일 끌어내야지요. 한 명 끌어내고 이야기하며 앉아 있겠어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 한 사람 구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만 끌어내겠어요?

한두 명 끌어내고 허리 펴고 만족하고, 몇 명 끌어내고 기뻐 만족하니까 섭리의 그 귀한 역사 30년이 지나도록 어떤 자는 20년, 15년, 10년, 5년씩 됐는데 한두 명 전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생은 30년 동안 2만 번 이상 외쳤습니다. 힘들어도 계속하여 사망의 바다, 영원한 멸망의 불바다로 가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여 그 역사가 세계로 뻗어 가게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지옥에 갈 운명인데, 주님이 구해 주시고 먼저 온 형제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이끌어 내 주었기에 구원의 길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생명들을 이끌어 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들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세주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악인일지라도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지옥으로 갑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누가 그들을 설득시켜 인도해 오겠습니까? 지옥의 고통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아는 자가 데려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날에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지옥에 왔는지 몰라서 소리를 지르면, 그나마 지옥사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었기에 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 그 무서운 영원한 불속의 지옥에서 받는 가혹한 고통을 알았다면, 누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역시 몰라서 못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모두 몰라서 죽고, 다치고, 해를 보고, 못사는 것입니다.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압니까?

선생은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육적인 고통을 통해 영원한 영의 지옥을 절실히 깨닫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다.”** 하셨습니다. 오늘 알려 주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는지 알고 삽니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지 정말 알고 삽니까? 정말 알고 사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은 몰라도 지옥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등 영원히 걱정 없이 사는 나라입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감동과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해할 자가 영원히 한 명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크고 큰 나라에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해충 한 마리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영혼이 되려면 그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늘나라 천사와 같은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실이 완전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그 영이 악했던 자는 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들은 마치 목욕탕에서 10시간 동안 때를 밀고, 단장하고, 옷도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 놓은 자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때는 자기 행실로 인하여 깨끗한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마음과 행실도 천사 같이 고쳐 놓은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몇 번 계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나만 중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기를 “주님, 저를 사랑하시면 천국에 데려가 구경 좀 시켜 주세요.” 했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천국 문까지 갔는데 천국 문이 안 열리더랍니다. “열려라! 참깨!” 하며 별말을 다 해도 문이 안 열려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물으니, 주님은 “네 죄가 아직 다 회개되지 않았다.” 하셨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식으로 머리를 깎고 모두 군복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때도 주님이 모든 자들의 행실을 깨끗케 하여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천국에 가게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온 자들이라도 모두 천사같이 착하고 선하고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성품의 확대체들입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천국 문까지 갔다가 결국 옆길로 가서 보다 악한 세계로 갑니다. 고로 회개하라고 할 때 주님 옆에 꼭 붙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자와 같이 억울한 자는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 100%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 되도록 한 번에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선영계를 거쳐서 거기서 잘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첫 번째로 천국에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첫사랑을 맺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첫 신앙과 첫사랑이 식거나 잃었기에 다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첫 신앙과 첫사랑을 찾으라고 했지요? 주님이 선생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섭리역사 30년 동안 선생이 바깥에서 외칠 때는 “선생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듯, 너희도 나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선생만 중심하여 주님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복음으로 매인 바가 되어 이같이 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통해 외치고, 나머지는 각 나라에서 계시자들을 뽑아 그들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빨리 지켜야 됩니다.

왜 사명자를 통해 그렇게도 외치게 하시는지 압니까? 왜 주님께서 섭리세계 여기저기 각 나라별로 여러 명을 택하여 계시하시는지 압니까? 때가 되어 주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재림할 날 때문에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표가 날 것입니다. 마치 선생이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선교하러 떠났을 때와 같이 표가 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빨리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에 때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전도의 때에 전도해야지, 이때 못 하면 끝난다. 주님을 맞을 때 절대 맞아야 된다. 이때 못 맞으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 외롭다고 편지를 보내도 오죽하면 선생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과 일체 되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눈치를 채야지요. 왜 선생의 심정을 모르고 편지 못 하게 한다고 야속하게 생각합니까?

선생이 살아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주님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애로 사항과 각자 계시받은 편지들을 다 받아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급한 상황들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전해 줘야 되겠습니까?

새는 외로워야 읊니다. 그런데 새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야 심정의 소리가 나옵니다. 억울함을 당해야 하늘의 슬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고통을 더욱 알게 되고, 따르는 자들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선생이 고통을 당함으로 주님은 시대의 말씀을 더욱 깊이 주시고, 급절한 이때 더욱 깊이 외치게 하십니다.

단상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육적인 목회자들을 영적인 자들로 교체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적인 자는 주님과 통하지 않고 주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겪을 것은 겪으면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심정을 알고 외쳐야 됩니다.

선생이 이같이 될지 몰랐듯이, 주님의 재림이 말씀하신 대로 될는지 모두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고 단상을 통해 외치게 하시는데, 비밀의 말은 못 하게 하십니다. 다만 모든 말씀을 심정 태우며 외치게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고로 주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가 깊은 것을 깨달은 자이며, 그 심정을 외쳐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에게 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 못 하게 하셨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만 심정 태우며 급절히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정을 깨닫고 때를 맞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전도할 때다.”**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주님은 **“급하다. 너희는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선생에게 매달리던 정신과 행실을 나 예수에게 돌려 내게 매**

달려라. 전에는 너희 선생이 활동할 때라 보이는 욕을 중심으로 하게 했지만, 지금은 나의 재림을 앞에 놓고 나와 일체 되어라. 나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찾으며 내게 몰두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여라. 호리라도 남기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메시자로 100%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일체 되듯이 주님을 대접합니까? 연애하는 것과 같이, 사랑이 일체 되듯이 온종일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되지 않고서는 선생에게 무엇도 부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이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성 범죄가 있어서 내게 회개했지? 네 선생에게도 고백해라. 내가 말했다고 하면 후회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선생님은 제가 이성의 죄를 지은 것을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했답니다.

주님은 “네 선생은 모른다.”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선생님이 알고 용서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하니, 주님이 “모른다. 설교 때 이성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 말은 선생에게 고한 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는 내가 자꾸 말을 했는데도 안 믿느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편지해 보아라. 나의 계시와 함께 선생에게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선생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죄에 대하여 눈치 채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알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왜요? 하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자가 그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선생을 배신한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이 얼굴 한 번 못 봤을지라도 선생이 주님 앞에 증인으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기에 허락하고 선생이 관리자로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선생도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해 줍니다.

그 편지를 받기 일주일 전에 선생은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전보다 빛을 더 볼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기뻐하니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때다!’ 하며 “주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이 걱정이에요. 애들이 주님의 심정을 몰라서 잘 대해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해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무섭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섭리사에 이성 범죄가 너무 많아서 그 명단을 보니 심각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사망으로 가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며 의논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이성의 죄는 자기가 다 알지요. 용서받은 자도 있지만 아직 용서받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감동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기에 그 순간 이름을 다 부르며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강을 이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에 주님을 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케 씻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용서해 주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모두들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로 진정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자들의 죄를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자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관리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짓값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세워 주었으니, 본인의 죄는 본인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도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이성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선생이 감옥에 있는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이성으로 범죄 한 자들을 보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갈까 봐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몇 년 동안 본인들에게 떠맡기려 했습니다.

주님께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섭리사의 깊은 비밀들은 지금 알아도 알 못 합니다.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셨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그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선생도 누군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거쳐 가십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때 목숨 걸고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가실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역 남았습니다. 이 역에서 모두 꼭 주님을 맞고 그 기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선생이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주님은 이성으로 범죄 한 어떤 사람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계시를 받는데 사탄이 침범하여서 1차 경고를 주고 계시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본으로 회개치 않은 자는 사탄이 힐문합니다. 땅에서 풀지 못하였기에 사탄이 침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서 이성 문제를 저지른 자는 주님은 절대 최고 영광의 자리에는 안 쓰십니다.

금주 말씀은 「자기 단장을 하라. 주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때다. 그동안 허가 닳도록 말씀했기에 이제 전도해야 될 때다.」 하시며 전도하도록 외치게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이때에 마지막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수없이 말한 대로 연장은 없다. 섭리사는 내가 해 줄 만큼 해 주었으니, 갈 때는 말없이 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몸부림치지 않고 여유 부리는 자들, 자기 잘못을 회개치 않고 아직도 형제를 참소하는 자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는 아주 힘듭니다. 회개하는 것도 힘들고, 무엇을 하기도 힘듭니다.

선생이 그렇게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 늘 편지와 말씀으로 관리했어도 말을 안 듣는 자가 있기에 “그만두어라. 이제는 네가 나를 불러도 다른 사람 신경 쓰겠다. 네 힘으로 따라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정하지 않겠다.” 했더니, 주님은 사람을 통해 그를 데리고 와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체이십니다. 주님은 “그가 지옥에 가기에 끌고 왔다.”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전도하고 싶고 전도가 됩니다. 그 생명이 지옥에 가니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쓸 때 해외에서 주님께 계시를 받은 말씀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 외치게 하면 전 세계가 다 들으니까 선생의 말씀에 이어서 그 계시를 전하게 하니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대만 가정국 후페이이 계시입니다.

<2009년 9월 20일 주일말씀>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생활이다.

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새로 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사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였습니다. 이를 확실히 깨닫고 모두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고마워하며 자기를 부르신 뜻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기가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단순히 생각하면 친구를 따라서 오게 되었거나, 혹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만 오게 된 것으로 무의미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뜻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지 속에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잘 모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영이 영원한 멸망의 세계인 지옥에 가지 않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택하여 전

도자를 통해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일체 되어 사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가 보면,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지옥 쪽으로 가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적은 인원이 천국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은 자의 영과 믿었어도 정말 구원받으려고 전심으로 행하지 못한 자들의 영은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 자들의 영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자보다 지옥으로 가는 자가 비교가 안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은 자들은 의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런 자가 어찌 천국에서 살라?” 할 정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아서 그 행위대로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어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셨고 천국에 오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키어 생명길, 구원길을 가게 하셨어도 누구든지 본인이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교회에만 다니면 구원의 길은 가되, 그 의가 부족한 고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선생이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저는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처럼 제대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니 의가 부족하여 걱정이 산 같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큰소리로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 보라. 넓은 세상에서 나의 말을 외치고 전도하며,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만 의를 많이 행한다고 생각 말아라. ‘의’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심정을 알고 나와 일체 되어, 내가 최고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의다. 그러므로 골방 같은 이곳에 있다고 밖에 있는 자보다 의를 더 많이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 말아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줄줄 흘렀고, 감격하여 심정이 뜨겁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처한 곳이 그 어떠하든지 의를 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부지런히 행하여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일체 되어 살면 됩니다.

‘일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 되듯이, 나 예수와 일체 되어야 일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도, 행실도, 영도 나와 일체 되어야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나의 일을 하게 되고, 나의 손발이 되고, 내 몸이 되어 내 대신 행하게 된다. 고로 처지와 입장과 환경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일을 주면 어디서나 나와 일체 되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개인·가정·민족·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의를 산같이 쌓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일체 된 자는 전도를 잘한다. 나와 일체 된 자는 말씀도 잘하고, 그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5장 27~30절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에 대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의를 저울에 달았을 때 의가 부족하였기에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의를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그때는 머리털 하나의 무게만큼의 의라도 정말 아쉽고 귀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자기 때에 정말 부지런히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날부터 자기의 정한 날을 향해 똑딱똑딱 시계는 출발합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놀지 말고 부지런히 뼈가 닳고 몸이 닳도록 뛰어서 살과 근육이 경주마처럼 튼튼해야 됩니다.

의가 많은 자는 꿈에 자기가 천사같이 공중으로 잘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꿈에 사탄이나, 뱀이나, 나쁜 자들이 쫓아오면 공중으로 높이 날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고, 자기를 쫓던 자는 놀라서 쳐다봅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

기며, 형제들을 위해 주고 섬겨 주며, 회개하고 봉사하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그 영이 꿈에 육신과 함께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도 계시인데 각자 의가 있는 대로 의를 상징하여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꿈에 잘 날지 못하고 날았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높이 날지 못하면 의가 약하기 때문이며 신앙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약하다든지, 회개가 덜 되어 죄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며, 주님이 시키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는 의가 날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날개지요? 이 세상에서 돈을 쓸 때 주님의 뜻대로 쓴 자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하늘나라에 황금과 보석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돈이 다 떨어져 가거나 얼마 없으면, 자기 육신의 돈이 떨어졌다기보다 자기 의가 바닥이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때도 자기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날이 다 된 것도 자기 때라고 합니다. 그날까지 못 하면, 마치 육신이 죽어 더 이상 못 하는 사람과 같이 때가 지나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저울에 달리기 전에 빨리 목숨 걸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한 때가 하루하루 아무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선생같이 과감하게 의를 행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죽을 날이 있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제자들에게 죽음의 사고가 자주 나니 그들의 죽음의 날을 보여 주세요.”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늘 말씀으로 은밀히 나간다.**”고 하시며, “**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혹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섭리역사와 같이 생명을 위해 외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교회는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에서 바쁘게 끝나지, ‘몸조심하라. 주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하면서 칼질하듯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맛이 안 납니다.

선생도 주님이 나를 통해 외치시는 말씀을 다시 또 읽어 봅니다. 정말 자상하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는 한 번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자세히 또 읽어 봐요. 그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며 현실과 미래에 대한 영적인 말씀인지 말씀을 깊이 듣고 또 깊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 부르셨으니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이 죽어도 그 영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생활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월 11일 새벽에 주일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한마디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해 주셨는지, 무슨 뜻인지 풀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모두 함차게 심정으로 외치고, 노래를 하듯이 사연에 따라 외쳐 은혜가 충만케 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하라고 세계 각 교회에 보냅니다. 외치는 자도 잘 외치고, 듣는 자도 잘 듣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시받는 자들은 보통 백지 5장, 10장, 20장, 30장씩 계시를 받습니다. 선생은 20자 안팎으로 받습니다. 어느 때는 10자 안팎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짧게 받는 것이 알찬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선생같이 짧게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많은 줄 압니다. ‘깨달음이 계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심정이 우리 마음에 심정으로 와 달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계시는 깨달음’입니다. 수준이 높을수록,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을수록 계시는 짧습니다. 요즘은 짧고, 확실하고,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계시만 간증하게 합니다. 개인에게 해 주는 계시는 길고 길니다.

이제 선생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풀어 듣겠습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생활이다.**” 했습니다. 이는 섭리사 모든 자들의 현실을 보시고 주일말씀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어떤 행사처럼 하지 말아라. 생활화하라. 특별히 철야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갖은 힘을 다 써서 기도를 마치 축제 행사, 예술 행사, 연중 행사, 계절 행사, 수련회 행사, 체육대회 행사처럼 하느냐?**” 하셨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조용합니다. 행사는 가끔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도는 행사하듯이 하면 안 된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분명히 알아라.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기도는 생활이다. 생활 속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된다. 간절한 대화, 진지한 대화, 깊은 대화, 뜻있는 대화, 이상적인 대화, 간구의 대화, 기쁨의 대화, 용서의 대화, 심정의 대화다.

네가 하고픈 말을 털어놓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 하루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는 것이다. 행사를 매일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매시간 수십 번씩 행사를 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는 매시간 열 번이고 수십 번이고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아멘!)

섭리사 모든 자들은 이제부터 꼭 그리하여라. 그 기도를 깊이 받겠다. 지금은 그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하다가 사탄에게 유혹 당하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제 발로 걸어서 사탄 세계로 가게 된다. 내 말은 생명이니 듣고 즉시 행하여라.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사탄이 침범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기도가 유행이 되고 행사처럼 되었구나. 기도는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 순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축소해서 들어 보자. 하루는 24시간이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하자. 그 나머지는 할 말이 있는데도 참고 그 다음날 기도 시간에 하려느냐? 사랑하는 자끼리 살아가는데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을 대화 시간으로 정해 놓고 입이 아프도록 말한 후에, 그 나머지 시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다음날 대화 시간에 하겠느냐? 기도가 생활이 되지 않는 자들은 이같이 하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이다.’하였다. 기도는 음식과 같다.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듯이,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마다 간절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들의 삶을 하루로 축소하여 보니 모두 기도를 행사처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들이 틈타서 침범하는 것이다.

기도를 새벽에 하고 끝내고, 철야하고 끝내는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께 할 말들이 있는데도 기도 시간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냐? 모두 이같이 길이 들었으니 문제다. 나는 그같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가 그같이 하느냐? 그러니 사탄이 침범한다. 모두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을 생활화하여라.

잘 들었어요? ‘생활’이란, 무엇이든지 삶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말을 하면서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옷을 입고, 옷을 벗는 등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기도도 이같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행사처럼 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깊이 기도하겠다고, 조건을 세우겠다고,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며 철야를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기도 때 졸고, 낮에 졸고, 주일예배 때 졸고 있으니 덕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계시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계시를 받고 온 세계에 방송하여 증거하게 하니 모두들 계시를 받기 위해 행사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요즘에 오는 계시들을 보면 너무 틀리고, 안 맞고,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이 많고, 자기 의지로 계시를 받고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영이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계시는 착오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셔도 일치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것과 다르고, 앞뒤가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는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 사람을 배치할 때 영적인 자로 바꾸라고 주님이 선생에게 계시하였기에 새로운 자들로 이미 세웠는데, 또 바꾸라는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모순이 있고, 어폐가 있고, 폐단이 있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주님이 계시하셨다면 이름 바꿔 주기도 합니다. 선생을 통해 주님이 이미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다시 지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옆의 사람은 안 쳐다보시고 이름을 지어 주실까요? 같은 약국 이름이 옆에 있는데도 그 이름을 또 짓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선생을 통해 주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는 옆 사람이 이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계시받는 자들 중에 어떤 자는 선생의 허락도 없이 계속 이름을 지어 주고 다닌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그 전에 이미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전에 새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왜 또 다시 바꿔 주시는지 궁금하다.’고 확인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정말 바쁜 때라서 설교 쓰기도 바쁜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는 일이 더 늦어

지게 됩니다. 선생이 십자가를 그만 지게 해야 됩니다. 방에 종이 한 장씩이 더 쌓일 때마다 내 몸이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은 어떤 한 교역자에게 “네 이름을 옛날 이름 그대로 쓰지 말고 ‘심정’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은 주인이 있는데요.” 물었답니다. 주님은 “내 심정, 선생 심정 맞춰서 알아주고 나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고 지어 줬는데, 그가 사명을 못하여 내 심정 답답하다. 네가 내 심정 알아주니 너에게 준다. 그러니 꼭 내 심정 알아주고 이름값 해.” 하셨다고 선생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께 확인하니 “그렇지 않느냐? 네가 아는 바가 아니냐? 맞다.” 하셨습니다.

이전에 광주 지역에 있는 자가 이름값을 못 하기에 다른 자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별’자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선생에게 그 이름을 선물받은 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인입니다.

이름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좋은 이름을 받아서 팔자가 퍼진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선생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사명 못 하면 뺏깁니다. 선생이 주님께 받아서 준 이름은 큰 그림 한 장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름값 하여 주님께 잘하라고 그냥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이름값 못 하는 자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주님께 이름을 받고 이름값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자에게 같은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받아 주님이 주셨다고 하고 다니면 이미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왜 내 이름을 빼앗아 가지?’ 하며 주님께 묻고 선생에게 물어봅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요? 혹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 값을 못 하면 ‘내가 안 하니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셨구나.’ 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 주려면 이치를 알고 지어 주되, 선생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이 몇 천 명의 이름을 지어 주었기에 서로 이름을 파악하고 지어 줘야 됩니다. 좋은 이름만 지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같이 살 때 주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그같이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혹은 반석, 태양, 독수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어 보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도 그같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심정을 통역해 주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봐 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뜻이 있어서 해 준 것이라면 좋지만 지나치게 영적으로 치우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령해졌으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개인·가정·민족·섭리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투시해 주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편지가 오게 합니다. 잘하다가도 한 번 틀리면 마귀 계시라고 바로 경계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계시하시어 누가 어떠하다고 선생을 통하여 전해 주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계시자에게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시만 받게 하십니다. 계시받은 자가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주님은 “너는 내 계시를 받고서 너희 선생에게 전해 줘. 너는 몰라도 돼. 선생이 받고 내게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말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계시 내용을 보면 “그는 나 예수가 찾아갔어도 모른다. 그래서 너를 통해 내 말을 선생에게 전한다. 너희 선생은 육신이라 편지로 하면 통하고 알지 않느냐. 너희 선생 말은 잘 들으니 그를 통해 내 말을 전해 준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만 알도록 은밀히 행하십니다. 그 계시를 받은 자는 이웃나라 사람입니다. 주님은 계시자에게 계시를 주시면서도 누구에 대해서 계시하시는지 모르게 계시해 주십니다.

선생도 어느 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자는 알게 됩니다. 선생도 모르게 말씀으로만 쓰게 하여 그 당사자만 알고 회개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선생을 통해 확실하게 말하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생활이다.’ 했지요? 이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이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선생을 따라 같이 기도하자구요. 선생은 9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7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기도에 길이 들도록 선생과 같이 해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날부터 시작해요. 새벽기

도도 생활 기도입니다.

철야하고 졸면서 기도한 자들이 받은 계시를 확인했는데 실수가 많고 착오가 많아요. 계시받다가 틀리면 일단 중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순회사들이나 지도자들은 계시를 잘못 받아 전하면 실상 사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홀몸이 아니고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에 간신히 정상으로 만들어 놓았

는데, 지도자가 따르는 자들에게 잘못된 계시를 자꾸 가르쳐 주어 잘못되면 큰일 나기에 일단 중지시킵니다. 따르는 자들이 불안하니까요. 여러분들은 걱정 말아요. 잘못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교단에도 알리고 교회에도 알려 줍니다. 계속 못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경기 때나 각종 운동경기 때도 자격을 상실하면 그 경기는 못 뛰는 것입니다. 체조경기 때도 자격상실하면 그 경기 못 뛰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경고)를 받으면 제대로 못 씩니다. 옐로우 카드(경고)를 받을 정도로 심하게 하는데 심판이 그냥 놔두면 상대방도 그같이 해 버리게 되고, 모두 그같이 하다가는 과격해져서 경기를 못 합니다.

계시의 법은 엄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자중하고, 완전히 금같이 연단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순이 있는데도 그것을 빼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이상이 없어야 하고, 또 주님이 전체에게 주신 계시여야 됩니다.

요즘은 계시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이 다 검토를 못 할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시라기보다 자기 생각들과 주님과 대화한 다 써 보냅니다. 그러니 눈이 아프도록 봐도 다 못 봅니다. 각자가 처음에 받은 계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계시를 다시 보면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처음과 나중에 같은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도하면 주님의 깨달음이 옵니다. 30년 동안 섭리를 이끌면서 제자들도 다 그 같은 깨달음의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외치니 그것에 중심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외치기도 하십니다. 심령의 기준이 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로 귀한 말씀은 하루가 늦지 않게 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다양하고 뜻 깊게 하신 말씀은 선생도 깊이 봅니다. 주님의 계시의 글을 제자들로부터 받고 읽어 보고 깨닫고 감격합니다. 온전한 계시는 두고두고 전해 줄 것입니다.

계시자들이 계시를 치중하여 계시만 받으려고 하면 계시를 치우쳐서 헛계시를 받게 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안 맞을 수가 없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야 됩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기에 깊이 기도하면 깨달아지니까 맞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있으니 안 맞는 계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선생 고생한다. 아프다. 또 옆의 사람이 고통 준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런 계시는 자기가 걱정하니까 그같이 치우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해도 그런 계시는 다 틀린 계시입니다. 선생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멘.

답안지를 불러 주니까 잘 알아야 해요. 그러나 다른 답안지를 또 불러 주면 그것을 피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마귀들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처럼 계시를 주니 다른 답안지는 안 불러 주겠습니다. 선생은 행복한 사람인데 ‘몸 아프다. 괴롭다.’ 하겠어요? 항상 ‘튼튼! 통통!’입니다. “네 선생 걱정 마. 선생이 너를 걱정한다.” 하면 그 계시는 100% 맞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걱정되어서 받는 계시가 있으니 분별하도록 해요.

계시만을 받으려고 주님을 생각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옆에 있다가 사탄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든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계시가 나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는데 사탄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나요? 사탄이 아니냐고 묻지만 그것은 자기 영이 사탄에게 하는 소리지요.

사탄은 은밀히 들어와서 주님께 대해 좋게 계시하고, 선생에 대해 좋게 계시하고, 또 그럴듯하게 계시합니다. 계시자가 계속 계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면 압니다. 자기네 소를 과연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면 압니다. 자기네 집으로 끌고 오지 않고, 산 넘어 끌고 가면 그는 도적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하려고 일단 모두 계시를 받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받아 보니 3분의 1은 정말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자기의 주관적 계시·심리적 계시·자기 의지적 계시이며, 자기 영이 주는 계시, 타 영이 주는 계시, 선한 영들이 주는 계시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사탄과 귀신들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격을 받을까 봐 모두 영도, 신앙도 어린 연고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계시를 잘못 받고 말하면 사람들이 혼돈되고 두려워하기에 이같이 말씀했으니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계시하실지 모르니 선생은 최대한으로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니 기도 좀 해 줘요. 잘못해도 너그럽게 대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계시해 주시고 좋아서 선생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심정을 쏟아 놓고 모두에게 전하게 하니 좋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두 다 계시를 받으라고 하고 싶지만, 귀와 같은 사명자만 해야 됩니다. 선생이 그만하라고 하면 꼭 해야 될 자도 그만하라는 것으로 알기에 일반인들까지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영장의 물이 깊어졌으니 초보자나 일반 사람들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계시 분별력을 완전히 갖춘 자가 없기에 선생이 봐 줘야 되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계를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듣고, 생활 속에 기도하면 주님이 완전하게 될 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계시를 받으면 모순이 생기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틀린 것만 틀리다고 분별해 주고 맞는 것은 맞다고 분별해 줘야 되는 것 같지만, 사탄은 맞게도 말해 줘야 믿기 때문에 맞게 계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맞게만 계시해 주면 자기의 뜻을 못 이루니 틀리게도 계시를 해 줍니다. 고로 사탄의 계시를 보면 유혹된 말과 틀린 말도 있고 옳은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과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기에 주님의 것은 맞다고 분별해 주고, 자기 깨달음으로 잘못 계시를 받은 것은 틀렸다고 이해를 시켜 주면서 분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두 잘 듣기 바랍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제 섭리인 모두는 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신앙의 잠을 깨라. 세상을 멀리하라.”**하셨습니다. 신앙의 잠을 완전히 깨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되어야 잠을 깬 자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또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한결같이 심정 태우며 하신 말씀,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고 하신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외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에게 빨리 말씀으로 외쳐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해 주겠습니다. **“전보다 80%는 좋아졌다. 그러나 20% 때문에 너무 애간장 탄다. 정말 너무한다.”** 하셨습니다.

선생을 중시하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선생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아닙니다. 선생이 한국에 있을 때 잔디밭에서도 외쳤지요? 95년, 98년에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다.’라고 했지요? ‘단, 선생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는 아니다. 나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절대 중시하고 주님과 일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는 나와도 일체 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0여 일 동안 선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절대 주님과 먼저 일체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일은 100%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못 한다고 주님은 애간장을 태우십니다.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심판자이시고, 신랑이십니다. 선생은 주님을 맞는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신부인 선생을 사랑하면 비원리이고, 동성연애입니다. 알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꼭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선생의 말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선생을 1%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절대 100% 사랑하기 바랍니다. 선생을 1%라도 사랑하다가 주님께 가는 사랑이 1% 부족해서 100%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휴거가 안 되면 어쩍니까? 여러분이 선생을 사랑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생을 사랑해서 선생의 의를 보고 휴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100%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또 내가 가르친 자들이 100%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나의 의를 산같이 높여 주시고 휴거되게 해 주십니다. 꼭 그같이 하면 주님은 선생에게 기적을 보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만 사랑하면 그 교회의 교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고로 교체시킵니다. 선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교역자가 점수를 따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교역자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알미워서 교체합니다.

이와 같이 선생은 섭리사 전체의 목회자이지 않아요? 설교하지요, 가르치지요, 전 세계 섭리사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중시하면 알미워서 주님이 설교도 못 하게 하십니다. 선생 심정 타니까 정말 그러지 말아요. 주님을 100% 사랑하고 중심해야 됩니다. 중심자를 중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중심을 두고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계시자들로 계시하여 자꾸 내게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이 애간장을 태우시는 계시로서 모두 일치했습니다. 주님은 “계시자가 아니면 내 속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느냐. 재림 때 마지막이라 말해 준다.”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화나면 속 이야기 나오지요? 주님은 “너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선생을 통해 나를 따라왔기에 채찍질하지 않고 선생을 통해 말씀한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주님의 심정을 알고 꼭 주일 설교 때 속 시원히 말씀해 주겠다고 했더니, 주님은 “네가 이 두 가지 말을 세계적으로 속 시원히 해 주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목숨 걸고 참사랑을 주셨기에 참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절대 메시아를 100%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의를 저울에 달 때 모자라 심판을 받고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100%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섬리인 중에서 천국에 갔다가 천국 문이 안 열려서 그냥 온 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가 모자라서 천국 구경도 못 하고 문전까지 갔다가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티켓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사랑 티켓을 안 내놓으니까 “안 된다. 사랑이 열쇠다.”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1%만 부족해도 천국 구경도 못 하는데, 천국에 살려고 갈 때는 사랑이 일획도 부족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선생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1%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가면 어찌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형제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듯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요?” 묻습니다. 주님을 중시하여 사랑하고, 절대 주님을 100% 사랑한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100%여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범사에 주님과 통합니다.

주님을 100% 사랑하고 선생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100%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께 갈 사랑을 왜 선생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왜 형제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의 잔을 완전히 채워 주고 남으면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왕께 드리는 포도주인데 왕의 잔을 채우고 남는다고 해서 신하의 잔에 붓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것은 왕의 것입니다. 떡을 해도 왕의 것은 쌀부터가 다르고, 떡을 찌도 왕의 것은 떡시루부터가 다릅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께 드리는 그릇부터가 다릅니다.

하물며 자기를 구원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니 차이가 나게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듯 대하면 안 됩니다. 신을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신으로서 대하고, 형제들은 형제 입장과 주님이 쓰는 사명자 입장에서 대해 주는 것입니다. 고양이 대하는 것 다르고, 호랑이 대하는 것 다르고, 호랑이 주인 대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형제 대하는 것 다르고, 메시아 예수님 대하는 것 다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분별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삽니다. 선생은 그 같이 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마지막으로 정한 70일 동안 다 고치고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섬리인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 모두 하늘나라에 데려갈 테니 목숨을 다해 내가 시킨 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절대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둘째, 100%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70일 동안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모두 회개하고 고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도 하는데 이것을 못 합니까? 안 하면 죽고 지옥에 가는데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면 육은 죽은 삶을 살게 되고, 영도 죽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면 다시 살아나서 영육이 살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 안 할 것입니까? 하겠지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가시기 전에 이것을 체크하고 가십니다.

사탄은 666 인을 치러 다니고, 주님은 휴거될 신부를 찾아 777 인을 치러 다니십니다. 어떤 자는 주님께 ‘7’수

만 받았고, 어떤 자는 ‘77’수를 받았고, 어떤 자는 ‘777’ 인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사탄이 1차 ‘6’수를 찍어 놓았고, 어떤 자는 ‘66’수까지 사탄의 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666’을 맞은 자도 있습니다. 이들을 영계에서 보았는데 주님은 “**나를 불신하는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6’수나 ‘66’수를 맞은 자는 빨리 회개하고 없애야 됩니다. 빨리 주님과 사랑으로 일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중심해야 됩니다. 최고 의를 행하는 것이란, 절대 주님만 중심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성 문제가 있었던 자는 사탄의 ‘66’수까지 인을 맞았던 것입니다. 진정 회개한 자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몸부림치고 회개하여 용서했다는 주님의 말이 나올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사탄이 인을 쳤어도 없어집니다.

666 사탄의 인을 맞은 자가 다시 생명권에 돌아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마치 전쟁 때 적에게 잡혀간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주님은 가서 빼내 올 수 있지요.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은 싸우다가 적에게 잡혀갔습니다. 적들이 그를 잡아다 큰 칼을 씌워 놓았는데, 징기스칸은 큰 칼을 쓴 채로 도망 와서 살았습니다. 적들은 설마 그가 칼을 쓰고 도망갈 줄은 미처 몰랐나 봅니다. 사탄은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알아서 막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막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생명길**이요, **이길 수 없는 사탄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웅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선생을 통해 가르쳐 놓았으니 회개만 하면 영웅입니다. 앞으로 선생과 같이 70여 일 동안 말씀대로 행하여 모두 새로운 세계로 나오고 신앙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조마조마했던 심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놓이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일체 됩니다. 주님이 믿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를 받고 선생에게 말 안 하고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은 거의 거짓 계시를 받고 귀신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선생에게 보내면 다 걸리니까 급하다고 하고, 주님의 대행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행하게 합니다. 선생은 그것을 다 압니다. 그같이 한 자도 회개하고, 속은 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생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물어보면 주님은 속 이야기를 다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계시를 주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 속에서 사탄이 유혹한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감정에 의하여 받은 계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해외에 있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에 들어오라는 계시를 받아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만 들어오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라고 한 날짜가 이미 지났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현실과 안 맞고, 틀린 것은 아주 틀린 계시입니다.

또 12월 25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받아서 내게 보냈습니다. 주님의 생신날에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2005년 동남아 심판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습니다.

이같이 심판의 날짜를 알렸지만 그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계시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급하다. 속히 하라. 해외 사람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라. 선생에게 속히 알려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단 한 명도 해외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 계시 중에 다른 말은 맞는 계시였습니다. 무조건 다 틀리게 계시하면 받는 자가 아예 안 받아들이고 사탄인 줄 아니까 사탄은 맞는 말을 많이 해 주면서 자기 것도 계시합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선생이 그 계시를 볼 때 믿게 하려고 가슴을 조이며 쫓그리고 앉아서 내가 결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검을 날려 사탄의 머리에서 엉덩이를 뚫고 땅속 깊이 검이 박히게 했습니다. 어떤 사탄은 자기가 섭리 사람들에게 준 계시를 내가 확인할 때 멀리서 황소 같은 두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모른 채하고 있다가 성령의 검으로 그 눈을 오려 내서 발로 밟아 놓았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이겨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시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자기가 인사탄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도 쫓아내기가 힘들니다. 이는 아닌데도 자기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시인지, 주님의 계시인지 받는 자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을 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볍게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계시받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기도해도 주님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힘들니다. 계시받는 것은 정말 힘들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은 선생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말씀했는데 무슨 계시가 또 필요하냐?” 하시며,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들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의 최고 계시가 아니냐.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나의 계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살면 된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 나온 이 계시를 받고 그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길, 영생길, 천국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길입니다. 그같이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입니다.

선생은 이 말씀대로 항상 도전하고 목표로 하고 삽니다.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선생의 최고 도전이며 목표입니다. ‘성경’하면 선생은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관리도, 부지런한 것도 모두 목숨 다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정말 믿고 행하며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40절 말씀 다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섭리의 모든 자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과 내게 맡겨라. 하나님을 믿어 주어라. 나도 믿어 주어라.” 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살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니까 손해를 보고, 필요 없는 일을 하고,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 줘요.

주님은 “무슨 새로운 도를 그렇게도 찾으려 하느냐? 다 성경에 있다. 그리고 주일과 수요일에 늘 말씀하지 않느냐? 또 요즘 계시자들로 말씀하였으니 말해 주면 듣고 믿고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제야 깨닫고 “새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이미 말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요즘 극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니, 선생도 은혜롭게 읽고 은혜 받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부터 뛰었어야 됩니다. 그 많은 날 아깝게 그냥 보내고 이제야 뛰니까? 이제야 하겠다고 합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에 하나님과 주님이 복음으로 불렀을 때부터 목숨 걸고 뛰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깨닫고 되고, 그때그때 받을 것을 받습니다. 어떤 자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며 이제야 뛰겠다고 합니다. 선생같이 바로 깨닫고 그때부터 뛰었어야 됩니다.

새벽장을 깨고 그때부터 하루해가 지도록 그 시간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 일생을 하루로 축소하여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부터, 혹은 저녁부터 그제야 알았다고 하며 뛰는 자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생이 아깝습니다. 정말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통해 인생살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도 애절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선생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몰랐으나, 말씀을 깊이 듣고 성령을 받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니 이제야 알겠지요? 그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산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육신이 죽은 자들의 영들이 계시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 정말 할 일이 많았는데 죽었다.”며 탄식하더랍니다. 원래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왔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하나님과 주님께, 세상의 형제들에게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때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역사가 지나갔기에 그때 못 한 일은 지금 못 합니다. 다만 정신 차리고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현실의 일들이나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못 하고, 핍박받는다고 못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못 하고, 각종 이유를 대면서 못 하면 못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중에서 축복이 옵니다. 핍박을 받는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지옥 같은 고통 중에서도 일생 동안 기도했던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극적인 고통 때 옵니다. 그때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선생도 극적인 인생의 고통 중에서, 핍박과 시험과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받고 외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러했습니다. 최고의 고통 중에서 성지땅 월명동을 개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개발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골짜기였지만 지금은 얼마나 황금 같은 곳이 되었습니까?

사람도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섬리의 인생들을 개발하고, 신입생들을 신앙으로 개발해 줘야 됩니다. 예술의 개발만 하지 말고 신앙과 정신을 개발하고, 전도하는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대 희망을 품고 개발하고 땀을 흘려야 대 희망을 이루게 됩니다.

계시받는 자도 사탄과 싸우면서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받으며 개발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도 50년 동안 계시를 배워 왔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악착같이 배워야 됩니다. 쉽게 주님과 대화하려니까 사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몸부림의 걸작품’입니다. 사탄에게 속았으면 다시 속지 않도록 제대로 알려고 해야지,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강하고, 호랑이같이 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시받는 자들을 우습게 보지 말고 자기들도 깊은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산다면 주님과 늘 통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불러 봐요. 마음에 한마디라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자기의 현실과 맞는지 확인해 봐요. 더 잘해야 되나, 그만큼 하면 되나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마디만 해 달라고 해요.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해 봐요. 그러면 “됐다.” 혹은 “더 하라.” 하실 것입니다. 또는 “Yes.”, 혹은 “No.” 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하고 뛰면서 생활 속에서 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한마디라도 꼭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는지 압니까? 사탄은 주님의 계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써야 제대로 확실하게, 빠지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써야 시인하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종이는 제2의 마음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에 사탄이 못 빼앗아 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니깐 못 빼앗아 갑니다. 주님은 깨닫게 하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못 빼앗아 가고 틈타지 못하도록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계시가 오면 즉시 기록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영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육계에 나오면 곧 잊어버립니다. 일부만 잊어버려도 그 계시는 주님의 계시로서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하여 한 틀이 못 됩니다. 선생은 지금도 항상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다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한마디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세상, 그 순간을 누리려다가 영원한 세상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순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 빼앗깁니다.

사탄은 기록하면 제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단상에서나, 어디서나 나가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시인하고 마음에 기록하면, 사탄은 ‘아이고, 틀렸다. 저렇게 받아들이니 내 어찌 저놈을 꼬이랴? 의심해야 꼬일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제 행동 못 하게 막아야지.’ 하며 제2의 작전을 합니다. 말씀을 믿고 시인하니깐 정말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지 사탄도 그 마음을 다 검사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말씀을 시인하고 기록했을 때 진실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하십니다. 진실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과 주님이 맞다고 역사하시고, 진실로 안 받아들였으면 사탄이 맞다고 역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사탄도 잘 오고 천사도 잘 옵니다. 사탄이 오면 볼펜으로 사탄의 눈을 쿠~욱 쏘서 버려요. 어떤 자는 교회에 와서 마음에 말씀을 꼭 채워서 가는데, 어떤 자는 마음 바닥에만 말씀을 채우고 갑니다. 주님은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외치는 사역자에게 주시어 외치게 하시니, 그 말씀을 순간순간 받아들이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 가슴에 뜨겁게 불이 옵니다. ‘아멘!’ 할 때 성경과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쳐 없애게 되고, 자기와 천사와 함께 사탄을 물리쳐 망하게 하고, 자기를 꼬이는 사탄이 헛수고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인데 주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 길고 길지요? 주님의 한마디지만 많지요?

주님은 “기도는 행사가 아니다. 생활이다. 축소해서 볼 때 마치 행사처럼 새벽에 기도하거나 철야하며 기도하거나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말아라. 대화는 온종일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듯이, 새벽은 기본이고 하나님과 주님께도 늘 기도로 간절히 대화하여라. 행사같이 가끔 기도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두 번만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행사같이 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니 수시로 무시로 범사에 시간마다, 분마다 기도로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처한 처소를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데 꼭 참고 있다가 환경 좋으면 그때 할래요? 그때 그 순간 해야지요.

주님은 “오늘부터 70일 동안 모두 이같이 하는 사람들로 아예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여 안 하는 자가 부러워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는데 안타깝게 준비하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심정이 답답하다. 평소 시간에 나와 통하지 않으니 세상으로 치우쳐 제 갈 길 가고, 시간도 영의 시간으로 못 쓴다.” 하시며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요? 축소시켜 볼 때 기도하는 집이란, 자기의 육신과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자기 방, 자기가 처한 처소가 모두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를 확대하면 자기 민족이고, 더 확대하면 지구 세상입니다. 지구 세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고 만들어 준 곳입니다. 간절히 생활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것과 너희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내게 하겠다고 혀를 깨물면서 약속한 것은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대면서 못 했다고 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지킨 자와 약속한 대로 행한 자만 데리고 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못 한 자의 말은 들어 보지도 않겠다. 오직 몸부림쳐 행한 자만 만날 것이며, 약속대로 행한 자만 약속대로 해 주겠다. 그러한 자만 재림에 예비된 자로 예선에 뽑아 놓고 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말씀을 통해 「선생을 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선생을 중심하다가 1%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심하지 못하여 주님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선생은 책임 못 지니 꼭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중심하고, 100% 주님과 일체 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온전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준 것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이 말씀했으니 오직 주님만 중심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국은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고쳐졌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문밖에 세워 놓는 자들이고 주님이 불러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쪽을 보시며 주님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해야 합니다. 선생도, 앞에 서 있는 지도자도 중심하지 말고 오직 100% 주님만 중심할 때입니다. 주님을 심장깊이 부르고 찾으며, 그동안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선생을 통해 주님을 중심하라고 2년이 가깝도록 심정을 다해 외쳤습니다. 2009년은 ‘새롭게 변화하는 해’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라는 말씀을 준 후에도 변화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때,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꼭 변화해야 됩니다.

앞의 지도자들을 의식하고, 지도자들을 중심하여 체제가 돌아가고, 행사가 돌아가고, 의논이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그같이 한 것에 대하여 지도자가 다 책임을 지고 그 짓값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세계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 의식하고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됩니다. 보이는 자를 중심하면 육적인 자입니다. 육적인 자는 구원받는 영이 되지 못하고 주님과 일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직 영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육과는 일체 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영이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자기 육도 자기 영이 주관하여 주님의 것이 되어 삽니다.

섭리인 모두는 앞으로 70일 동안 다 고쳐야 됩니다. 10일 안에 고친다면 금년도에 얻을 것을 더 빨리 많이 얻게 됩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도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남에게 넘어가기 전에 애간장을 태우고 각종으로 몸부림치면서 신경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넘어가서 다른 자의 몸이 되어 버리

면 그때는 본래의 생각이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볼 때 그 영이 사망권에 가서 사탄의 것이 되기 전이기에 심정 태우고, 몸부림치고, 신경 쓰고, 울며 사정하는 것이다. 아예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신경이 써지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니 나 예수가 신경을 쓰고, 애간장 태우면서 사정하고, 애타게 울면서 찾을 때 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주님의 심정을 받은 자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선생이 외치는 것으로 알고, 주님이 단상에서 외치는 것으로 알고 절대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순간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선생이 잠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모두 놀라 반가워했습니다. 선생은 그 장소에 있는 마이크를 뺏어 잡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크게 못 불려서 목청 높여 크게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거리로 돌아다니자고 하며 나간다고 하니, 제자들 몇 명이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했습니다. 선생은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안 가 봐서 내 심정 몰라. 여섯 뺨 몰라? 네 영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갇힌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부끄러움 때문에 자유를 막느냐? 너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물리치면서 이 시대를 외쳐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각각이니 주님께 계시받는 것만 중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몸의 각 지체와 같이 각 사람들을 쓰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계시의 사명을 하는 자들이 따로 있으니 모두 자기가 할 일을 하며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먹다가 자기 것을 못 먹고 자기 복도 놓치게 됩니다. 사망자만 계시를 받아야 사탄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심정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성령의 능력과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23일 수요일말씀>

매일 의를 행하여 의인이 되어라
세상 순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 빼앗기지 말아라

본 문 마태복음 13장 41-43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창 세 기 18장 26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이 나며 영원히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없는 자는 악인으로 취급을 받아 곡식 취급을 받지 못하고 밭의 잡초나 가라지와 같이 불사름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도 악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불사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회개시켜 의를 행하게 하여 의인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오십 명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정하며 의인 열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정말 의인이 귀하구나.” 하시며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

나 그 큰 성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이 편안한 곳이었던, 일순간에 하나의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합니다.

소돔 성의 롯과 그 식구들은 멸망받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소돔 성을 나올 때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멸망받는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봄으로 순종치 아니하여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제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인을 찾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수를 묻고 세는 시대입니다. 각 교파마다, 각 민족마다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의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명자로, 중심자로 보낸 자들의 말을 믿고 그와 일체 되어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세 때는 모세를 믿고 따른 자들만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를 믿고 따른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의인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며 진실로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섭리세계에도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10만을 전도하면 시대의 재앙과 환난과 심판을 감해 준다.”고 계시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일생의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크고도 큰 의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의인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겨우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미리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사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르쳐 줘도 그렇게 못 사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과 계시로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셔서 미리 알고 늘 준비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힘들다고, 안 믿어진다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듣고 알았는데도 핑계 대고 안 할 것입니까? 때 지나면 못 해요. 선생이 이 같은 곳에서 외치니 주님의 깊은 심정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천 군데에 시대마다 의가 없으면 나라나, 시대나, 족속이나, 가정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가 부족하거나 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전에 의를 행할 시간이 없으면 즉시 회개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에 속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자기 생명과 같습니다. 매일 의를 행해야 됩니다.

각자 의를 행할 것이 수십 가지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적어도 하루에 7~8건씩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누가 막아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의를 행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어떻게 의를 행하는지 몰라서 못 행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알려 주셨으니 얼마나 행할 의가 많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고마워하며 주님의 사랑의 깊은 대상이 되어 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과 심정을 알아주고,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를 보시고 감격해하시며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의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다시 깨닫고 배우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주고 의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주고 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이제 말씀할 테니 들어 봐요.

돈이 있으면 자기 의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산이 아까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자기의 돈과 재산을 나눠 주는 것도 의입니다. 돈을 가지고 의롭게 쓰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자기가 가진 것도 의롭게 쓰면 의가 됩니다. 돈 가지고 불쌍한 자와 배고픈 자를 위해 쓰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의입니다.

또 주님은 하늘 앞에 귀한 물질이나, 돈이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 의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갈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나 물질을 주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위해 쓰는 것도 ‘의’라는 것입니다.

섭리의 여러분들은 하늘 앞에 돈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바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생명을 구하느라 빛진 자들도 많습니다. 귀한 몸과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더 좋은 마음을 드리고, 더 좋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왔습니

다. 또 형제, 친구, 애인들도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면 모두 버리고 섭리역사에서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 많습니다. 모두 ‘의’입니다. 그렇게 섭리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 의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그 의가 영원토록 자기를 따라와 천국에 갔을 때 그 대가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쌓다가 만 자들은 천국에 자기 집을 짓던 것도 중단되고,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명을 하게 되면, 그에게로 축복이 넘어가 그 사람이 자기가 얻을 것을 얻고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옛날부터 그같이 행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자기 원한도 풀어지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요셉같이 꿈도 이루고, 지난날 손해 본 것을 다 얻게 되고, 오히려 환난으로 잃은 것을 전보다 배로 얻어 더 영화롭게 되고, 다니엘같이 기적을 보고, 아브라함같이 새로운 땅을 찾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야곱같이 자기 배필을 만나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앞에 쌓는 의가 있습니다.

둘째, 땅을 향해 쌓는 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앞에 쌓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따질 것이 없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자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의가 되어 누구나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사랑해야 의가 됩니다.

주님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조건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아 숫자 제한 없이 천국에 갑니다.

주님은 100% 모든 인생들이 천국에 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세워 놓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믿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중시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만큼 노력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것도 성공합니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어떤 곳을 개발하여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행합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신경 쓰고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며 정성 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두 자기를 중심한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는지 모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회개했나, 얼마나 전도했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나,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나,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나, 얼마나 희생했나, 얼마나 감사하며 하늘 앞에 드리고 살았나, 얼마나 주님의 일에 충성했나,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존귀히 여겼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자신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다.’ 혹은 ‘나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안다. 또 너희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은 ‘나는 좀 부족하다.’ 혹은 ‘나는 이제부터 정말 주님 모시고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겠다.’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깨닫고 알고 점검하라.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 없어야 나도 너희를 볼 때 꾸짖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꾸짖을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의가 많아야 됩니다. 의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의를 행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너희가 의를 쌓는 데 있어서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 의를 세우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에게 ‘나를 위해 큰 재물을 써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각자 그 사람의 위치·장소·환경·기질·재능·사명대로 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생긴 대로 의를 행하

기 원하십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픈 자는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잘생긴 자는 잘생긴 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 주고, 섬겨 주고, 그 심정을 알아주면서 자기 처지대로 얼마든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처지대로 의를 행하기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의의 왕 중의 왕 되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 주고,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변함 없이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 앞에 의를 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불리하다고 합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불리하다.”, 혹은 “나는 못생겨서 불리하다.”, 혹은 “나는 가난해서 불리하다. 나는 골방에 살고 초가삼간에서 사니 불리하다.”, 혹은 “나는 남자라 불리하다. 주님이 남자니까 여자가 훨씬 유리하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성적인 것을 목적하고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자들은 자녀들이요, 신부들이요, 한 몸의 각 지체와 같이 보십니다. 키가 작으나 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건져 내준 자에게 “내가 못생겼으니 나를 끌어냈어도 네 의는 적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죽음에 있는 자를 끌어내어 살게 했다면 그것이 큰 ‘의’입니다. 국가를 위해 금메달을 따 왔는데 “너는 미인이 아니니까 금메달을 따 왔어도 저 사람만큼 대우를 못 해 주겠다.” 합니까? 또 “너는 백인이니 다른 사람과는 의에 차이가 있다. 너는 황인종이라서 달라. 너는 흑인이라서 더 대우해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없이, 어떤 구분도 없이 하늘 앞에 의를 행하는 데는 누구든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모두는 공의롭습니다. 이제 깨달았지요?

한마디 했는데 천 가지를 깨달으면 하늘 천재이고, 만 가지를 깨달으면 만재이고, 말한 것 그 한 가지만 깨달으면 부영이 같은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부영이는 하나의 소리밖에 내지 못합니다. 모두 확실히 깨달으라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행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의가 훨씬 약합니다. 회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애인이 이성의 죄를 짓고 와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조건을 세우고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언제 회개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가니까 기도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지어서 마음이 꺼려 못 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해 드려야 사랑하고 수고한 만큼 자기에게 의가 쌓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의를 쌓는 데 불리한 것이 없다. 다 동일하다. 하나님도 나도 차별하며 대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무지자든지, 미인이든지 못생긴 자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과 마음을 본다. 또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는지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어떤 환경과 처지와 외모를 보고 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일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환경에 처해서 주님 앞에 의를 행하지 못해. 나는 불리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각 사람의 개성대로 행한 의를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심정 일체 되어 주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면 그것이 큰 의입니다.

자기가 의를 행한 것은 남에게 주지 않으니, 얼마든지 의를 행하여 저금해야 됩니다. 의의 저금통장에 얼마나 의가 있는지 기도하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을 향한 의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등 의를 행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자를 돕고, 주님의 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각 교회의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심판받을 개인과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들이 모두 ‘의’입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의를 행할 때입니다. 의가 없거나 부족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의가 부족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유향불이 장대비같이 쏟아져 불로 멸망을 받았습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화산이 폭발하여 그 불덩어리가 12m나 치솟아 온 성을 덮었습니다. 불로 잣더미가 되었습니다.

니스웨 성은 의가 없어서 심판이 선고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의인들이 되어 심판을 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어 의가 없을지라도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심판 날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자기가 지난날 의를 행한 것이 살아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지난날 의롭게 산 것도 소용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산 자들은 그 착한 행위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야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자들은 그 행위로 세상에서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의는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끝납니다.

세상에서의 착한 행위만으로는 하늘나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산 것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야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것과 의롭게 산 것이 인정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놓고 의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의를 밤낮으로 행하고 쌓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의, 십자가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 주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기 목숨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심정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일은 정말 급합니다. 의가 없으면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을 맞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어느 정도인지 꿈을 통해 알아보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꿈에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화목의 의, 사랑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 영광의 의, 감사의 의, 전도의 의, 잃은 양을 찾는 의, 주님만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의, 관리의 의를 쌓아야 됩니다. 사람이 수천 가지의 수고로 돈을 벌 수 있듯이, 수천 가지로 의를 벌 수 있고 쌓을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의를 쌓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 말아라.”** 하셨습니다. **의를 행하다 낙심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를 행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별것도 아닌 일로 알고 삽니다. 지옥에 가 보고 천국에 가 봐야 알 것입니다. 주님은 의에 대하여 이같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애원해도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자요, 하늘나라에도 관심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편지 한 통치가 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 내가 기뻐하는 편지가 왔나?’ 하고 말씀을 쓰다가 잠깐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기쁜 편지가 있기에 읽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가정국 여자 집사님의 편지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관리를 하던 자가 그동안 힘들어하고 교회도 안 나와서 낙심했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수년 동안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 어느 날 그에게 전화하여 교회에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다니지도 못하겠으니 섭리를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가지고 관리하고 기도해 왔는데 섭리를 나간단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섭리를 나가겠다고 하던 자가 왜 우냐고 하면서 울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껏 눈물 흘리며 관리해 왔고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 애써 왔는데 이제서 나간다고 하니 참을 수가 없다.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길래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나오나 하고 더 죽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나간다고 하니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해서 울음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나갈 테니까 울지 마.” 했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며 교회에 안 나오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 오해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고 자연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제 결혼도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기뻐해 주세요.’ 하면서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관리도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돌이키는 것도 이 정도로 해야 되고, 새로운 삶도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모두 듣고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관리자는 붙잡고 울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선생이 관리하던 자는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 버렸습니다. 그가 간 후에 선생은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과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겠습니까? 독한 사람이라서 선생이 눈물 흘려도 모르고 주님이 눈물을 흘려도 모릅니다.

독하니까 말 한마디 없이 시집간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섭리에서 그렇게 길러 주고 정성을 쏟고 귀하게 여겨 준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생명길을 버리고 넓은 사망길로 등을 돌려 사라지는 자는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도 여러분들도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기르고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자도 있고, 잃은 양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 영영 못 돌아오는 자도 있습니다.

정말 깊은 정성을 들였는데 매정하게 등 돌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자를 보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의 기도와 눈물과 원통한 심정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는 이미 끝났다. 더 좋은 자를 세워 줄 것이다. 속 아픈 마음과 상처를 없애자.” 하십니다. 어느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 그가 돌아오면 예전같이 대해 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생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른 자가 섭리를 나가면 마치 자기가 낳아 기른 자식이 죽은 것같이 충격을 받지만, 주님은 그 터전 위에 더 좋은 자를 주시니 걱정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전도하기 바랍니다.

선생은 2009년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에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일어나 시험에 들었고 결국 섭리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갖은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만 선생을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섭리를 나가면서 그동안 주님께 드린 것까지 다 가지고 나간다고 하기에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축복 기도를 해 줘서 하는 일도 30배나 잘되었다고 본인이 선생에게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 섭리에 물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꿈에 부풀기도 했던 자입니다. 결국 섭리를 나갔습니다. 그를 시험에 들게 한 자의 죄가 참으로 큼니다.

선생이 여기 있으니 손해가 많다며 주님께 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저것 손해의 손해가 연속되니 참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 심정 나도 느끼고, 나도 그같이 심정이 상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걱정 마라.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를 전도하게 해 줄 테니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후에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심정의 애통함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고 말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된 자가 신앙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보다 수천 배 더 속상해하십니다.

섭리사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자가 섭리를 나가 꼬리를 치고 날개를 치고 다니기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 한마디 했더니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푸른 초장이 순식간에 사막 모래벌판으로 변해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탕자처럼 쥐엄 열매를 먹다가 돌아오지만, 온 다음에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순간 누리다가 영원히 누릴 세상,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지옥에 가서 쳐다보니, 세상을 위해서는 실오라기만큼도 살 필요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가 선생이 말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세상을 쳐다보니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세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위해 산 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에게 지옥을 배우게 하시려고 지옥에 견학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옥에 간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확실하게 지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니 그동안 못 한 일들이 생각나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고통보다 세상에서 못 한 것이 생각나 후회하는 고통이 어떤 불 속의 고통보다, 악령들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크고 괴로웠습니다.

한 시간, 혹은 하루만이라도 육신이 세상에 살아 나와서 못 한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간절한 생각뿐이지 전혀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루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회개가 아무 소용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할 일을 못 한 것이 정말로 후회가 됐습니다. 도와주지 못한 것, 형제들에게 못해 준 것, 더 전도하지 못한 것, 용서할 것인데 용서하지 못한 것 등 못 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섭리인 모두 지옥에 가서 겪고 배우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선생을 통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선생에게 지옥을 겪고 오게 하셨습니다. 모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못 한 일이 그렇게도 후회가 되고, 짧은 순간이라도 세상에 다시 살아 나간다면 그 어떤 일도 하겠다고 각오하게 되고, 절대 죄는 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맹세하게 됩니다. 지옥에 갔다 오면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살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실오라기만큼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육의 일을 할지라도 모두 주님을 위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지옥에 갔을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지옥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살았는데, 그것이 모두 자기를 지옥으로 오게 한 행실인 것을 지옥에 간 후에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후회의 고통과 그것을 참는 고통은 불 속에서 받는 고통보다 더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일생, 누구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일생 동안 호의호식하며 누려도 잠깐입니다. 지난날 긴긴날도 모두 일순간과 같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짧은 순간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 천국을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순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시간을 천국을 위해 쓰지 못함으로 영원히 누릴 세상,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짧은 순간을 주님을 위해 쓰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도 실상은 순간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서 영원, 영원, 영원히 사는 천국의 세상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삶을 산 자입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깊어졌는지 듣는 자는 알 것입니다. 깊은 말씀을 하니 섭리인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재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지구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2000년이나 기다린 주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여 못 맞고 죽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인지 압니까? 빛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깨어 있어 맞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제 내가 재림할 것을 모두 알았다.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나의 재림을 위해 너희 선생을 사역자로 쓰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체휼하고 시대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두 죽음의 잠을 잘 뻗었습니다. 선생이 고통을 당함으로 섭리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순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을 빼앗기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가장 중대한 때다. 이때 잘못하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잘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사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순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을 빼앗기면 영원히 끝납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80년, 혹은 90년은 순간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인생 100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정말로 얼마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하루를 이 세상 시간으로 계산하면 1000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하늘나라의 날로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 100년밖에 못 사니 하늘나라의 하루의 10분의 1밖에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순간’입니다. 마치 인간은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죽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 100년에 비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으로 보는 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깐 살 때 세상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세상을 빼앗기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천국에 오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어 천국에 가게 해 놓으셨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 순간 누리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내 말을 10분만 들어 보라고 하고 말해 줘 봐요. 뜻이 있으면 올 것입니다. 안 와도 상관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사명이니 꼭 전해 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그저 교회에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이 나가라는 감동을 주셨고, 주님이 애타게 부르고 있다고 전해 주라고 하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순간 누리다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정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말라고 전해 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를 행하라.’, 둘째 “**세상에서 순간 누리려다가 영원한 세상을 빼앗기지 말아라.**”입니다.

사랑·물질·명예·권세·환경 모두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실오라기만큼도 순간 누리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산 것은 단 하나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행하며 산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쓰면 다 가지고 갑니다.

외국에서 자기 나라로 들어올 때 금지된 것은 못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것을 먹으면 살과 건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과 물질과 환경은 주님을 위해 썼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렸으니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백 배, 천 배로 갚아 주십니다. 금·은·보석으로 된 집과 환경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한 것은 세상에서 죽으면 일획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생은 지금까지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서 묵시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전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까지 한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나의 말을 기록하였으니 믿고 행하라. 때가 급하다. 다 되었다. 곧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 깨달아라. 이제 나의 발길이 달지 않는 곳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거쳐 왔기 때문이다. 너희 섬리사도 이 순간이 지나면 그러하니, 영원히 후회 없도록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하리라.

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사탄이 그에게서 내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믿는 자는 빼앗기지 않는 자요, 행하는 자는 사탄을 이기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내 아버지가 상속한 나라에 나를 영접하여 들어갈 자들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비노니, 나의 평강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너희를 밤낮으로 불꽃같이 살피는 주라. 마지막 이때 서로 하나 되어야 사탄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시대를 이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그 생명의 값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 각인에게 할 말이 있다. 단상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자들로 내가 한 말을 들어라. 깊이 기도하고 행해야 깊이 깨닫게 되리라. 나는 너희와 한 치도 떨어지지 않고 살고 싶지만, 너희가 나보다 세상을 더 보고 사니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깨달아라.

계시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위해 운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너희가 넉넉히 내 마음을 알고 천국으로 간다면 내가 왜 울겠느냐? 웃으며 좋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앞날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울 때 너희도 같이 울고 통곡하라.

영원한 저 지옥의 깊은 불바다에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노라. 너희 중에 의가 부족하여 그곳으로 기울어지는 자들이 있으니 어서 자기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라. 너희 영혼이 지옥을 쳐다보며 거기 갈까 두려워 몸서리를 친다.

이 마지막 때 나 예수만을 따르라. 통회하고 슬피 울며 기도할 때다.

<2009년 9월 27일 주일말씀>

육의 세계는 육으로, 영의 세계는 영으로 영들과 싸워라

본 문 에베소서 6장 11-17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일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짝이 있습니다. 상대성 세계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같이, 상대적이면서도 짝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상대성 세계로 창조하시고, 또 짝이 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을 보아라. 그 어느 것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와 같이 창조하였느니라(사 34:16).”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상과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감히 창조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창조했고, 얼마 동안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옵니다. 일점일획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한 번 의심하면 그 사람을 다시 믿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사람인데 안 믿어 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만 손해입니다. 사람도 자기를 안 믿어 주는 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잘 주지 않으며 유익하게 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님을 안 믿어 주면 잘 도와줄 수도 없고 유익하게 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도, 인생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믿어 줄 때 그것들로 도와주시고 유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며 그 뜻을 펴 나가십니다. 선생은 절대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드렸기에 오늘날 하나님과 주님께 쓰이는 자가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 죽음가운데서 삶을 얻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어떤 곳을 가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믿고 산 사람과, 그럭저럭 믿고 산 사람과, 아예 안 믿고 산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살고 잘되더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육의 세계에서는 잘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영원히 고통 받는 곳으로 갑니다. 영원히 잘되는 것이 잘되는 것이고 행복입니다.

어제까지 잘되다가 오늘부터 지옥이면 그게 행복입니까? 어제는 행복했을지라도 오늘 지옥으로 간다면 “어제의 행복 때문에 이같이 지옥에 왔다.”며 후회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행복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어제만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행복 때문에 지옥에 왔다면 그 행복을 저주하게 됩니다. 지옥에 가봐야 합니다. 알고 말하고,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안 믿고 사는 자와 믿어도 제대로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주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실로 인하여 미래에 멸망의 세계로 가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현실에 100%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미래를 확신하게 되며, 이 같은 삶은 현실에도 미래에도 행복한 삶입니다.

행여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미래의 영원한 행복과 이상적 삶을 확신하니까 미래를 생각할수록 희망이고, 현실에서도 고통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영의 세계의 그 실상을 아는 자들은 육의 세상에서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삽니다. 이런 자들은 가장 지혜롭고,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본인이 이것을 알 때까지 모르고 삽니다. 누가 이를 확실히 가르쳐 줄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알고 주님과 일체 되어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시인하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기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선생은 아니까 확실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아는 자가 말해 주는데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역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서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까요? 1년? 2년? 5년? 10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확실히 아는 선생과 같이 깨닫고 믿은 만큼 그 위치의 삶으로 즉시 부활되게 해 주십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동시에 그 위치로 마음이 옮겨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깨닫고 아는 만큼 그 위치의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믿고 살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 세계, 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곤충의 세계,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부인할 수 없이 상대성 세계입니다. 그 상대는 곧 짝이 됩니다. 다 짝이 될 수 있지만, 피차간에 가장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게 됩니다.

곤충, 동물, 식물의 세계는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세계를 볼까요? 사람의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상대적으로 모두 짝이 되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자기와 가장 맘이 맞고 행실이 맞느냐에 따라 상대가 결정됩니다. 마음과 행실이 최고로 잘 맞을 때 천생연분, 천상배필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상대가 되지만, 다 자기 상대로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동물도 수놈과 암놈이 서로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슴과 암노루는 상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너와 나는 배필이다. 짝이니까 같이 살자.” 하면

살기는 할 것이나 얼마 못 갈 것입니다.

산노루와 들노루도 사슴과 같은 사슴과라고 하지만 수사슴과 암노루는 짝으로서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사슴끼리 짝을 짓는 것이 노루보다는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러나 사슴끼리도 그 많은 사슴 중에서 서로 맞는 사슴과 짝을 이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는 모두 상대가 되어 짝을 이루어 살 수는 있습니다. 그 구조가 모두 다 상대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구든지 구조상 짝이 되어 아기를 낳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자라고 아무 여자나 짝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여자라고 아무 남자나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누구든지 서로 짝이 될 수 있지만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와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고 행실이 맞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조가 상대가 된다고 해서 짝을 지으면 ‘연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상대적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면 짝이 되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좋고 예쁘고 멋있어서 사랑하고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헤어집니다. 최고로 사랑했는데도 헤어집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때는 사랑을 남기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을 다 퍼붓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랑을 하기 때문이고, 처음에는 서로 잘 맞추며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개성이 안 맞아 못 사는 것입니다. 원인은 많습니다. “살다 보니 성격이 안 맞다.”, “살다 보니 처음 같지 않더라.”, “살다 보니 별로더라.”,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는 등 그 가짓수를 다 말하려면 말씀을 더 못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첫째, 첫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격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처음 봤을 때 자기 눈에는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고 멋있고 천사같이 보였으나 살면서 다시 보니 그렇지 않더라,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자기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조는 맞아도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만큼 싸우면서 살든지, 아니면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마음이 값입니다. 영혼이 값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도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남녀 간에 짝이 있고, 동물도 짝이 있고, 식물도 짝이 있고, 곤충도 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100% 압니다. 아는데 왜 자꾸 말할까요?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세계도, 영과 육의 세계도 상대적으로 짝이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해 주려 하실 때면 항상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말씀을 해 주시려고 먼저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이해를 시켜 주시면서 의심 없이 확실히 믿게 해 주십니다.

온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짝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이는 자체 상대입니다. 육이 있듯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육이 어머니 태 속에서 크듯이, 영도 육을 통해서 큼니다. 영은 영체로 살고, 육은 육체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육체가 있는 한, 절대 자기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면 그 영도 남자이고, 자기가 여자면 그 영도 여자입니다.

영은 자기 육을 닮았습니다. 자기 육은 자기 영을 닮았고, 자기 영은 자기 육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나 꿈에 자기 영을 보면, 거울로 자기 육신을 보듯이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닮았지만 조금 닮았기 때문입니다.

영은 마치 호두 알맹이, 곡식 알맹이, 밤 알맹이가 크듯이 자기 육체 속에서 육신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과일은 나무라는 육을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 먹고 성장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영은 육신의 영양분인 육신의 각종 행위와 생각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합니다.

육의 생각과 행위가 악한 자는 그 영도 육의 성격을 닮아서 그 성격과 행실로 성장합니다. 육의 생각과 행위가 선하면 그 영도 육을 닮아서 그 마음과 행실이 선하고 착하게 성장합니다. 영은 반드시 육을 따라 성장합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짝이 되었을 때, 남자가 너그러우면 여자도 그 남자와 같이 살면서 약간 너그러워지기는 하지만 거의 일체 되듯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성격이 안 맞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이 못 삽니다. 그러나 자기 영과 육은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100%라고 해도 맞습니다. 육이 거짓말을 하면 영도 거짓말을 하고, 육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도 믿습니다. 육의 생각을 영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들은 서로 짝이 있고, 사람도 서로 짝이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100% 짝이

있으니 안 가르쳐 줘도 압니다. 하지만 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만물과 사람들의 세계는 상대성 세계로서 모두 짝이 있듯이, 육과 영은 상대성 세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자기 육의 짝입니다. 영은 남자 격이고, 육은 여자 격입니다. 이는 절대적입니다. **「만물과 사람들에게서도 짝이 있듯이, 육과 영은 상대성 세계이며 짝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육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천생연분입니다. 일체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천생연분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가깝고 늘 옆에 사는 한 짝입니다. 거의 일체 되어 알고 살면 100% 맞습니다. 영과 육은 생각도 행실도 맞습니다.

자기 영이 없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영이 없으면 동물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고 혼과 정신만 있습니다. 어떤 자는 사람의 정신이 영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동물 보듯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정신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정신은 육신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뇌에서 발생되지요. 모터에서 전기가 발생하듯이 뇌에서 정신이 발생합니다. 모터는 돌기만 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정신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생각, 즉 마음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마음이 발생합니다. 5관 중의 하나인 코로 냄새가 들어오면 뇌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생각이 발생되고, 몸으로 느낄 때 생각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을 하거나, 몸에 직접 부딪혀 느껴지거나, 코로 냄새를 맡으면 먼저 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봤으니 먹을까, 먹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서 뇌에서 발생합니다.

영은 영의 뇌가 있고, 육신에 5관이 있듯이 영의 5관이 있습니다. 영은 육신보다 생각이 월등하고, 몸도 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고로 영의 일은 영을 사용하여 해야 됩니다. 영은 육보다 수백 배 더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이 하고, 육의 일은 영이 육을 통해 해야 육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이 1분 만에 갈 거리를 육은 100년을 가도 못 갑니다. 가다가는 늙어 죽습니다. 영이 1분 동안 갈 거리는 인간이 만든 아폴로 우주선, 비행기, 열차, 세단 차로 평생을 가도 못 갑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영에 대하여 배워서 자기 육의 주인이 되는 영, 자기 신량과 같은 영과 함께 하거나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은 영 자체로서 할 것이 있고, 자기 육을 통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육계의 일은 육신을 통해서 하고, 영계의 일은 영 혼자 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일을 할 때는 영 자체로 합니다.

이제 자기 영이 있다는 것을 더 말하지 않아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자기 영이 있는지 자기 영을 자꾸 불러 보세요. 영이 대답하면 자기 마음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는 자체 영통입니다. 평생 자기 영을 불러 보지도 못했는데 육이 죽어 흙이 되고, 영은 흑암 세계로 가기도 합니다. 자기 영과 통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기 영은 절대 자기 육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을 위해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이 능력이 있고 신령해야 됩니다. 육이 영과 같이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자기 영이 화음을 맞춰 함께 부르는 것을 육신이 느낍니다. 자기 영의 노래 소리를 느끼고 깨닫고 대화해야 됩니다. 자기 영을 칭찬해 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영과 대화하면 육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 영에게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자기 영을 위해서 꼭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은 육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육이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영이 성장되고 육이 영에게 잘해 주면, 밤에 잠을 잘 때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지상영계나 천상영계에도 다녀옵니다. 유능한 영이 되면 낮에도 육체를 이탈하여 영계에 갑니다. 이같이 되려면 정말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계에도 법이 있어 절대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더욱 더 자기 영을 사랑하고 자랑하여, 안 보여도 자기 애인같이 생각하고 늘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같이 하면서 일주일에서 한 달이 가면 자기 영을 보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은 자기 육의 짝으로서 절대 상대체입니다.

예수님의 영 사진을 보았지요? 그리고 기타 사진을 통해서 영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최고 미남입니다. 의와 사명에 따라 영이 아름답고, 멋있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인격과 성품을 품습니다. 육신이 의를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자기 영은 빛나는 영이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보면 어느 급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대적 세계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짝을 두고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물들도 상대적 세계로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그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같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는 100% 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육의 세계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선의 세계인 천국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사시고, 천군 천사들이 사는 천국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흑암의 영계가 있으니, 곧 지옥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관권 세계인 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주관권 바깥에 있는 흑암의 세계인 지상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짝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여 살고 있는지,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와 삶을 보면 알 것입니다.

육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 영이 있듯이, 육신의 세계인 이 세상과 우주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축소한 소우주와 같이 영과 육이 있듯이, 확대한 대우주와 같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도표로 30개론에서 배웠지요?

주님은 선생을 산에 데려다 놓고 21년 동안 영계와 육계에 대하여 수백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사들이 제대로 알고 실력 있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생이 20대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 주일말씀으로 더 자세히 해 주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그 단계에서 배우려면 아주 어려우니 사명자를 통해 주님이 주신 것을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말씀해 온 것의 근본을 말씀하겠습니다. 특히 영적인 자들이 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육신은 자기 짝과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남편이고, 부인이고, 애인이고 헤어져야 됩니다. 자기 영도 자기 육신이 때가 되어 죽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이별입니다. 육이 세상에서 영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은 악한 영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든지, 선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거의 자기가 죽어서 자기 영이 어느 영의 세계로 갈 것인지 압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님은 사명자들과 계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고 주님의 재림을 맞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죄를 회개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오늘 주님은 지금까지 꼭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말할 테니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 중에 본 것이 지금 이 순간 떠올라서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이 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 번뜩 몇 개의 잠언이 마음에 떠올랐는데 깊은 말씀을 받으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평상시에 아는 말씀이라서 기록하지 않고 더 깊은 말씀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삼 몇 뿌리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삼 준 사람을 또 만났는데, 그는 내게 “아까 내가 준 인삼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습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내가 놓아둔 곳에 가 보니, 인삼 뿌리가 조금 시들시들했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니, 그는 “아니, 지금 크고 있는 인삼을 주었으니 땅에 심으면 더 크는데 그냥 삶아 먹으려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 인삼은 손가락의 중지만 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라지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웬 인삼이 보이지요? 생시와 상관이 없는 것이 보이네. 꿈인가, 환상인가?’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또 조냐고 하며 내가 나를 꾸짖으며 오래 기도했으나, 주님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제야 주님께 인삼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이라든가 있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때 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은 “내가 깨우쳐 주었다. 계시는 깨달음이다.” 하셨습니다.

왜 인삼 꿈을 꾸었는지 말해 주겠습니다. 선생이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깨우쳐 주신 잠언의 말씀이 평소 아는 것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했지요? 그 잠언은 곧 인삼과 같은 영혼의 특효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삼을 바로 땅에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은 것은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으로 생각한 고로 빼앗긴 것입니다. 인상을 바로 심지 않으니 시든 것과 같이, 깨달았을 때 기록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씀 같았는데 인상같이 특효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그 꿈만 떠오르게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과 ‘말씀을 귀히 받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인상이 죽지 않도록 즉시 땅에 심는다’는 뜻이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계시받는 사명자들도 그같이 즉시 믿고 기록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계시를 받는 사명자들은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쥐도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상을 땅에다 심는다는 것은 네 마음 밭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지금까지 주님이 선생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자는 인상 같은 약초를 받아 자기 정원에 심는 자입니다. 심어 놓으면 필요한 때 쓰게 됩니다. 몸이 약할 때 캐서 삶아 먹으면 됩니다. 인상은 삶아 먹어야 힘이 나고, 말씀은 믿고 행해야 마치 인상을 삶아 먹은 것과 같이 힘이 솟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을 때 능력이 오고, 행할 때 능력이 오고 유익이 됩니다.

왜 말씀을 인상으로 보여 주셨을까요? 인상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온전한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불이 식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며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주십니다. 첫째, 깨달아잡니다. 깨달아졌을 때 즉시 기록해야 됩니다. 둘째,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강하게 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스치면서 오기도 합니다. 계시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선생도 스치는 영감의 계시를 받고 즉시 피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영이 강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강하게 느낌이 옵니다. 급할 때는 천사가 계시하기도 하고, 주님이 계시하기도 하고, 자기 영이 느끼고 깨닫기도 합니다.

자기 영감은 자기의 경호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코앞에, 혹은 잠시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악 간에 미리 영감이 스쳐 옵니다. 그리고 앞날에 심판이 있거나 장차 세상에 큰 재앙과 사건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외치게 하시고 영적인 사명자들을 깨우쳐 외치게 하십니다. 듣고도 안 믿어질 때는 자기가 직접 며칠 동안 깊이 기도하면 자신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섬리사에는 계시를 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말씀할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고 분별받으려고 선생에게 보냈는데 한 달, 두 달이 넘어도 답이 안 오니 ‘왜 답이 안 오나? 밀려서 안 오나? 잘못 받아서 연락이 안 오나?’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말해 주겠습니다. 계시를 받아 내게 보낸 자들은 잘 들어요.

9월 18일에 교단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7월 이후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여 보낸 자는 300명이었고, 지금 교단에 계시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선생님에게는 일부만 보내고 못 보냈는데, 아직도 400부나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동안 계시를 받아서 보내는 자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 못하여 다시 책임자를 뽑아 모든 것을 조합하니 400부가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밀려서 선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 누가 그 많은 것을 확실히 분별하여 전하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400부를 다 선생에게 보내면, 선생은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 확인만 해야 합니다. 3번씩 읽어 보고, 답을 주고, 사연을 쓰고, 잘못된 계시에 대해 이해시키고, 잘 받은 자들을 코치해 주려면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도 못 쓰고, 각종 결재들도 안 하고 해야 20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또 받아서 보내는 계시 중에서 급하게 외칠 것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나의 말을 들으시고 잘 아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400편의 계시 중에 90%는 주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나머지 10%는 자기 의지로 받은 계시, 협조 영들이 준 계시, 천사가 준 계시, 혹은 사탄이 준 계시입니다. 본인이 3~5번씩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면 알고, 교역자와 같이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계시의 내용 중에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시가 잘못되었는지 말해 주겠습니까.

- 주님이 정확히 어느 날에 오신다.
- 하나님이 정확히 어느 날에 심판하신다.
- 자기가 주님이다.
-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뜻이다.
- 주님과 우리의 육이 이성적 사랑을 해야 된다.
- 심판이 연장되었다.
- 재림을 한 번 더 연장했다.
- 한국의 3분의 2가 물에 잠긴다.
- 몇 명이 죽는다.
- 조은 부흥강사의 강의는 뜻이 아니다.
- 지금 성령 집회가 잘못되었다.
- 선생 사명이 끝났다.
- 형제를 참소하는 계시
- 교회에서 속닥거리며 이간질하는 계시
- 주님이 선생을 통해 이미 지어 주신 이름을 다른 자에게 똑같이 지어 주는 것.
- 앞뒤가 안 맞는 계시
- 어제 계시와 오늘 계시가 자꾸 바뀌고 안 맞는 계시

이런 계시를 받는 자들은 자기 의지와 생각에 치우쳐 잘못된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혹은 사탄의 주관을 받거나 불안한 영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혹은 협조 영과 선영에 의해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 같은 계시를 주고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그리스도 예수다.” 합니다. 이 같은 계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자들이고,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잘못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잘못된 계시는 무엇인지 크게 나눠서 말해 주었습니다. 각자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는 교역자들과 함께 읽어 보고, 계시를 받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역자는 계시받는 자에게 모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간증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해외도 그같이 하기 바랍니다. 선생에게 보내는 것들은 최대한 분별하여 보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온 것은 분별하여 편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잘 들어 봐요.

그만큼 계시를 받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만을 위해서는 그같이 안 주십니다. 전체가 들어 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계시의 내용을 들어 보면 확실히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를 받는 자의 수준을 볼 때 그 같은 말씀이 나가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생이 또 설교로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 봐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천국에 와서 살라고 예정해 놓으시고, 인생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천국에 오기를 진정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시대마다 이를 먼저 믿고 깨달은 사명자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그렇게도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라고 사명자를 통해 외치지만 인생들은 거의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같이 되느냐?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어도 세상으로 치우쳐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진정 청결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깨끗한 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믿을 때 육적인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사람들의 육신을 쓰고 핍박하고 꼬여 이성으로 타락시키거나 각종으로 고통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불신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계로 보면 사탄의 영은 구원받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영을 막고 주님과 일체 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 사탄이 불신한 자들의 욕을 통해서 방해함으로 육적으로 환난이 오는데 이를 이기지 못하기에 천국이 예정되어 있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이 우리의 영을 방해함으로 영적으로 환난이 오는데 이를 이기지 못하기에 천국이 예정되어 있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 꼭 두 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세계로 오는 환난은 육신으로 싸워 이긴다. 그리고 영물인 사탄이 오면 너희도 영이 나가 싸워야 이기지, 육으로 싸우면 패한다.” 하셨습니다. 육의 것은 육으로 싸워 이기고, 영의 것은 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지난 10년 동안 사탄 마귀들이 사람을 쓰고 육적으로 우리를 가혹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생은 이같이 복음으로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선생을 가두면 섭리사가 좌절하고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대항하면 하나님이 그 육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망으로 치십니다.

선생은 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성경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과 일체 된 몸이기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함으로 순리로 사탄을 이기니, 육신은 내준 바가 되었지만 영은 산 바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와 섭리 전체가 고생되고 고통스러워도 생명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주님은 아주 무섭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믿고 더 행하면서, 이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회를 놓칩니다. 선생이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때 새롭게 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천국을 예정해 놓았어도 너희가 육적으로 오는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강한 자들이 되어 이겨야 된다. 육적 환난은 육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육신이 담대히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섭리사 전체가 일체 되어 마귀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을 불신하라. 그들은 사탄의 육신들이니 아예 부인하라. 그들의 말은 한마디도 옳은 말이 없으니 믿지 말고 오직 섭리 안에서 내 말만 믿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님을 믿어 천국에 오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육신의 세계에서 육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는 것인데 영으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육이 오면 육으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가 몸으로 덤비는데 말로 하면 됩니까? 말로 하는데 몸으로 하면 됩니까? 상대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은 사탄이 그들의 몸을 쓰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신한 자들의 욕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육신으로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대처해야 이깁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가 마귀 귀신의 주관을 받고 악평하며 생명들을 꼬여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말로, 진리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섭리의 수만 명이 불과 몇 십 명에게 쫓겨왔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생도 주님도 도와서 통제하니 모두 하나 되었고, 하나 되어서 하니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물바가지로 물을 퍼부으면 소방 호스로 물을 뿜어 대야 이기지, 침만 뱉으면 되겠습니까? 상대가 화나게 만들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 화나게 해야지요. 인사탄이 꼬이면 우리도 인사탄을 꼬여 그 행위대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싸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에게 고통을 주고 악평하며 갖은 악한 짓을 다 합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육에 속하여 육으로 방해하는 것은 육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계에서 사탄의 영이 방해할 하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육신은 눈에 보이고 악해서 안 됩니다.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어느 때는 키가 크게 보이게 변장하고, 어느 때는 여자로 변장합니다. 세상에 못 하는 짓이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사탄은 앞뒤 좌우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은 사탄이 예수님으로 가장하여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나는 예수다. 그런데 너는 왜 의심하느냐? 안 믿으면 간다. 나 바쁘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는 절대 사탄이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킁킁거리면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뒤쪽은 어두운 색이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체가 새카만 마귀로 변하더라고요. 정말 잘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탄이 영으로 와서 막고 싸우려고 하니, 너희도 너희의 영으로 나가서 싸우고 쳐야 되지 않겠느냐? 사탄이 영으로 오면 너희도 영으로 나가 싸워야 된다. 사탄을 마음대로 하는 나 예수와 너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된다. 육도 나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섭리나라를 위해 싸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사탄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조건이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간증으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이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맞아 예정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보다 수천 배 더 유능하고, 수십억만 배 더 빠르니까 사탄의 영이 올 때 영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싸워야 됩니다. 섭리의 몇 사람이 사탄을 보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온 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에 사탄을 물리치라고 허락했더니 10년, 15년씩 사람의 몸에 들어와 살았던 사탄과 귀신과 영들을 쫓아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은 첫째, 육에 속한 자들을 통해 육적으로 막고 둘째, 영으로 막습니다. 영물인 사탄 마귀는 영체로 우리의 영을 직접 방해합니다. 영계로 보면 사탄이 우리의 영이 천국에 못 가도록 막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을 때리고, 꼬이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며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렇게 수십 가지로 자기가 할 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사탄과 악착같이 싸웁니다. 우리의 수호천사도 와서 같이 싸워 줍니다. 미가엘 천사장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자기에게 배치된 천군 천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우리를 구해 주려고 천군 대장 미가엘이 순간순간 와서 도와주고 갑니다. 주님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 주십니다.

말씀의 도끼로 사탄의 머리를 마구 찍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도끼로 찍느냐?”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한번 당해 봐야 그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손해 가게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끼로 사탄의 목을 찌고 그 머리통을 완전히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도 영이라서 아주 죽지 않고, 패했을 때는 도망갑니다. 안쓰럽다고 생각 말고 맘 놓고 가위로 자르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됩니다. 영계에서 사탄 마귀를 만나면 싸워서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선생도 기도 중에나 꿈에 사탄이 나타나면 그 목을 비틀고, 손을 잡아 빼고, 다리를 찢고, 눈을 빼놓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쓰러졌다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악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늘 쳐다 보십니다. 사탄에 대하여 모르는 자에게 사탄은 마음대로 영향을 주면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결국 사탄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격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다 영물들입니다. 영체들입니다. 영으로 덤비고, 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영으로 싸우는데 너희가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희도 영으로 싸워야지. 고로 내가 영으로 사탄과 싸우라고, 깊이 기도하여 조건이 되는 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를 주어 사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준 것이다. 섭리사 수백 명에게 계시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깨달도록 주일, 수요일을 듣게 하여 영이 강해지게 한 것이다. 또한 성령을 받게 하여 더욱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한 것이다.

영이 약하면 수만 명이 있어도 사탄의 영을 못 이긴다. 기도하여 모두 영적인 자가 되어라. 너희의 영이 이 시대 나의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 사탄이 오면 다 멸하여라. 육에 속한 것은 육을 강하게 하여 대적하고 육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지만, 영에 속한 것은 너희 영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신령해져서 영으로 싸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결론을 지어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되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기며, 너희를 구원할 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을 세워야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 있으니, 곧 사탄 마귀들이다. 너희 눈에는 잘 안 보이니 모르나, 나는 다 알고 말한다. 왜 사탄이 그같이도 하늘나라에 못 가게 막는 줄 아느냐? 자기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시기 질투하여 막는 것이다.”

첫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세우니, 우리의 육신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방해합니다. 앞으로 사탄들이 전쟁 때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방해하려면 보다 육신을 통해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이나, 믿어도 사탄의 주관에 받는 자들이나, 악평하는 자들과 무지한 자들의 몸을 쓰고 방해합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을 위해 조건을 세우는 것을 제재하고, 방해하고, 악평하고, 억울하게 하고, 별의별 거짓된 말들을 하고, 근거 없는 별의별 흠을 다 잡으며 역사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사탄은 육신을 통해 참고 견디고 공격하고 불신하며 선한 싸움을 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육으로 오면 육으로 대항해야 승리합니다.

둘째, 사탄은 영계에서 영으로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이때 사탄은 영이니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고 당하고 맙니다. 육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영을 강건하고 신령하게 하여 주님과 통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잘 깨달아 영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사탄과 영으로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시해 주시고, 사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어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싸울 때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여 자기 영이 힘을 받아 영이 육신을 돕고 함께해야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쓰시고 함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 싸울 때도 자기 육이 영을 도와 함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이겨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기는 자는 너희를 위해 예비한 집을 차지하게 된다.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계 3:21, 마 13:43).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싸움이 있으니, 어려운 여건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계시하시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싸움과 근본의 말씀을 새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시자들을 많이 세워 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모두 믿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두 영도 육도 강하고 담대해야 영과 육이 승리하게 됩니다. 영도 육도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에 속한 정신이 온전해져야 영도 육도 새롭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행치 않으면 인생을 평생 살아도 그 단계에 머물러 더 올라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각오를 다지고 강한 집념으로 사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승리하고 삽니다. 정신이 제대로 살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기에 죽은 자입니다. 그 영이 사망권에 살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는 만큼 영도 육도 그 위치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성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가다가 시험에 들거나, 세상으로 나가 사는 자들의 영을 보면 그 영이 즉시 변하여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닙니다. 그 육도 얼굴에 빛이 사라져 즉시 표가 나고, 보는 자도 마음으로 그 상태가 느껴져 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알면, 사탄은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눈을 피해 다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찰보다도 자기를 알아보는 이웃집 어린아이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도둑인 줄 알아보면 즉시 신고할까 봐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 아이의 집은 경계하고 안 갑니다. 사탄도 자기를 아는 자와 자기에 대하여 알려 주는 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모두 사탄 마귀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알면 유혹받지 않고 영도 육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악에게 지면 악의 세계에 갑니다. 악을 마음대로 하시고 사탄 마귀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누가 더 많이 간구하여 도움을 받고 그 힘과 능력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은 안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행하는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깊이 기도하고 회개의 조건을 세워 봐요. 각각 모두 역사해 주십니다. 사탄을 이기는 조건을 세워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이긴 자는 그때부터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행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1순위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때가 주님과 일체 될 기회입니다.

영계를 못 보고 사탄의 행위를 못 보는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 그동안 하나님과 주님을 잘 믿고 사는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행위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또 사탄에게 가게 되고, 사탄의 주

관관에서 살게 됩니다.

사탄은 일단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속닥거리며,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고, 온갖 거짓말로 악평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대로 헐문하고, 자기 고집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 사고, 정신, 고집, 혈기, 교만, 주관들을 이용하여 역사합니다. 서운한 일을 당하게 하여 좌절시킵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섭섭함과 소외감을 타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나, 주님께나, 세상 형제들에게나 서운함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그 같지 않으신데 자기가 하나님과 주님을 온전히 몰라서 스스로 그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으니 자기가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든지, 기도하고 회심하여 돌아오든지 해야 됩니다. 만물로 계시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계시하실 때 꼭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에게나, 전도한 자에게나, 지도자에게나, 선생에게나 서운함을 타으면 자기가 이겨야 됩니다. 말을 할 사람에게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해하고 주님 뜻을 따라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실상 자기가 그 형제를 서운하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응당히 자기 성격상 행한 일에 불과하게 생각합니다. 고로 자신들이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서운함을 타 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수십 번씩 당해 본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더 잘해서 자기도 축복받고 살면 됩니다.

선생에게 서운함을 탄 것이 있으면 혼자 풀지 말고 편지해요. 다 풀어 줄 테니까요. 오해도 있고, 몰라서 못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선생이 여기 있다 보니 손이 못 간 곳도 있습니다. 선생이 못 하면 사람을 보내어 풀어 주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하면 풀어 줄 자가 많습니다.

자기는 안 챙겨 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교회에 안 나오는 자도 많습니다. 선생도 당해 봐서 다 이해합니다. 이제 선생 좀 챙겨야지요. 선생도 그 행위에 따라서 챙기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컷기에 안 챙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30, 40, 50이 되었어도, 섭리에 온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챙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섭리에 온 지 3년 되었어도 악착같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서운한 일 다 당했습니다. 전혀 안 챙기고, 설교만 해 주고, 편지 한 장 안 써 줘어도 장하게 잘 큼니다.

다른 사람보다 섭섭함을 잘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옆의 사람은 편지가 오는데 자기에게는 편지는커녕 안부도 안 묻는다고 하며 섭섭해 합니다. 그러나 편지를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안부도 전했습니다. ‘너는 편지 받는 대신, 그 조건으로 모두에게 내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편지해야지요. 한두 번 편지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또 해야지요. 자기는 소외감이 있는 자라고 해야 선생이 압니다.

답장을 못 받았어도 꿈에 선생을 만난 자도 있고, 주님이 찾아가신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내게 10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자기는 답장 한 번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100통의 편지를 계속 했겠어요? 수년 동안 했겠지요. 선생이 수많은 자들을 대하다 보면 착오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여러 가지로 있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타는 자는 사탄이 아주 공격하기 쉬운 자입니다. 서운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에게까지도 서운함을 갖게 됩니다.

옆의 어떤 사람은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자기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전도사도 안 되었다고 서운함을 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그는 신학을 안 하고 공적만 있는데, 교역자가 그의 공적을 올려 주지 않고 사연을 말해 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선생에게 말을 하든지, 중앙에 말을 하든지, 집회 때 부흥강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응당하면 즉시 임명해 주라고 지시했으니 해 줍니다. 선생 대신 사명을 주는 것은 선생이 이미 다 가르쳐 주었기에 즉석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냐고 물으면 ‘4’라는 것을 아니, 내게 묻지 말고 계산하여 즉시 하라고 합니다.

해 볼 것 다 해 보고 자포자기를 하든지 해야지, 해 볼 것이 많은데 안 하고 서운함을 갖는 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하지 않아서 조건을 세운 다른 자가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비교하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선생도 지금까지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도 서운하다고 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편지 안 써서 서운했다고 하니깐 그러냐고 하며 너무 많이 편지가 와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를 받고 답을 써 주었는지 알아요? 7000통 정도를 받았고, 반 이상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선생이 주님께 서운함을 가졌을 때는 기도하니,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뜻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서운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무지로 인하여 주님의 심정을 몰라서 서운함이 생겼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아서 사탄이 틈타 서운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모두 형제들의 서운함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이해시켜 주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내게 고하고 주님께 고해요. 다 풀어 줄 테니까요. 나는 자신 있으니까요. 형제들에게 미움 받고 서러움을 당해도 주님과 선생님만 절대 믿어요. 내게 고하면 내가 다 풀어 주고, 주님께 고하면 주님이 다 풀어 주십니다.

조은 부흥강사도 그러했습니다. 섭리인들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모두에게 오해받고 서러움을 당했지만 선생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겨 냈습니다. 선생은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아니까 조금 기다려. 힘 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 주시니까.” 했습니다. 선생이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였습니다. 조은 부흥강사는 “선생님만 절 믿어 주고 함께해 주시면 돼요. 주님만 믿어 주시면 돼요.” 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고 잘못된 자들이 내게 편지하여 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러움과 오해를 받았지만 선생과 통하고 주님께 매달린 자들은 때가 되니 주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계속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해받은 자의 편을 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선생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높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별로 소문내지 않으니,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선생을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 보면서 정말이냐고 다시 주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이 계시자들을 인정해야 되겠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게시한 다른 말들을 보면 알지 않느냐. 다 맞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인지, 계시받는 자들이 그 같은 수준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는지 자세히 보라. 영으로 보면 육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계시받은 자들이 감히 것처럼 깊은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아라. 어찌 그리도 일반 사람과 나를 분별 못 하느냐?”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심한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헛된 말을 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잘못 생각하면 영혼이 망하고 육신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고로 마음을 잘 먹고 주님과 일체 되어야 강해집니다. 주님을 버리면 천국을 버리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오늘 말씀한 두 가지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첫째, 육으로 오는 싸움인 사람을 통해 오는 핍박과 고난들은 육신이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자기 영과 함께, 형제들과 하나 되어 싸워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탄과 모든 악의 영들은 영으로 오니 영으로 나가 싸워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남자가 나와서 싸우는데 여자를 내보내고 이기라고 응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나오면 남자가 나가 싸워야 되고, 여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가 싸워야 됩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싸움이 있으니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에 대처하며 이기고 싸우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9월 30일 수요말씀>

영적 싸움

본 문 에베소서 6장 12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펜으로 쓰기 바랍니다.

영계로 보니 펜이 총으로 보였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는 영적인 총을 가진 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총과 무기로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에서도 신앙의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사탄을 말씀의 총으로 쏘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전쟁터에서 총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고로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때나 꿈에서 자기가 군복을 입고,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지요? 그것은 사탄과 싸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를 보여 준 것입니다. 적은 총으로 쏘고 공격하는데 칼을 가지고 싸우면 해 보나 마나 집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정말 신앙의 총과 무기가 있는지 궁금하지요? 총도 있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입니다. 기도는 총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총알, 곧 실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자는 새총 총알을 가진 자이고,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총탄과 대포 탄알을 가진 자입니다. 모두 신앙의 무기를 가져야 사탄을 물리치고 멸합니다.

사탄은 악평하고,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마음을 거스르며 두렵고 무섭게 하고, 불안과 공포를 주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이성으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못 지키게 하고, 군대 용어로 각종으로 기습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하기 싫게 하고, 잠이 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기도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막는 방법과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섭리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모두 막고 방해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다 천국에 오라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몰라서 못 믿고, 알 아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기 싫어서 안 믿고,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으니 마귀가 우리의 영을 막고, 방해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나 불신하는 자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쓰고 역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의를 쌓으려면 막고, 부정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정해 놓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게 예정해 놓으셨지, 지옥에 가게 예정해 놓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안 믿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믿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도 연장시켜 가면서 마치 하루를 천 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리 안 오시냐고 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환난이 일어나고, 지구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환난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는 지구 세상에 엄청난 재난이 오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이 옵니다.

성경에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때를 보아도, 이 시대 연도를 계산해 보아도 이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지났습니다. 주님은 2000년경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9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 주관권에 들어갔다. 이미 재림으로 인한 환난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행위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오면서 살았기에 이 시대에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살다 보니 시대마다 당하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살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풍랑이라고만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재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사명자들과 계시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한결같이 ‘재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난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세상 끝에 와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주님과 심정이 통하고 일체 되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합니다. 1000만 분의 1이라도 의심하면 전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안 통합니다. 전깃줄이 1cm 끊어지나, 1m 끊어지나, 50m 끊어지나 일단 끊어지면 전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도 이와 같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무지한 자로 여기시고 배은망덕한 자로 취급하십니다. 선생부터도 선생이 그가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안 믿으면 기분 나쁘고 심정 상해서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고 하며 안 해 줍니다.

100% 믿어야 해 줍니다. 절대 믿어야 해 줍니다. 절대 100% 믿지 않았는데 해 주고, 90%, 70%, 50% 믿어도 해 줘 버릇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절대 안 믿으면서도 해 주기를 바라는 자가 되고, 내 말을 안 믿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 시키시려고 100% 믿어야만 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일을 자꾸 보고, 또 자신이 그 말씀을 행해 보면 실체를 확인하니까 믿어집니다. 믿음과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이 살아나고, 행함으로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형제끼리 자기가 한 말이 맞는데 안 믿어 주면 어떻게 하지요? “그만둬!” 하고 등 돌리고 갑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누가 봐도 무지한 자요, 복을 버리는 자요, 죄인이요, 화를 불러들이는 자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마음을 가진 자요, 악에 속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으면 절대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틈을 못 타고, 오히려 그것들을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대에 따라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주님의 재림 주관권 시대입니다. 절대 믿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인생들에게 각종 고통들이 오고, 인생들은 그 고통들을 느끼고 당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기도하면 안 될 것이 되나?”합니다. 자기가 못 하니까 하나님께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니 안 되지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믿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엇이 되나?’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감동되면 실천하십니다.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에게 지시하시고, 천사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움직여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평생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사람을 통해 행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만큼, 지구 만물들을 일순간에 없앨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니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즘 섭리사를 보세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 번 못 해 보고,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은 꿈도 껴 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보세요. 직책도 없던 평신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일순간에 행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선생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후에 1년 동안 급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섭리사 앞에 처한 일들과 나의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기도해 줬던 자들이 교회에 잘 나오는지 편지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의 다 나오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예수님께 여러 번을 물었습니다. “주님, 그 얼굴은 아른거리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스무 살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했더니, 주님은 기도하면 생각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 타는 자’ 하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실상 그가 말 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에게 편지를 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기뻐했습니다. 작은 부흥강사에게 그 아이 좀 챙겨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못 만나 보았지만 기도해 주었는데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며,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키울 때 절대 근본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모두 골고루 공통적으로 해 줍니다. 농부가 밭의 곡식을 기를 때나,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대할 때는 모두 똑같이 대합니다.

어느 날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자기는 선생을 못 보아서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고 싶으면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나와 같이 새벽에 깊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깨달은 것이 맞냐고 하며 편지를 써서 내게 보내왔습니다.

주님께 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 날날이 기록하여 선생에게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가 보낸 것을 보니 주님은 그에게 점점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어서 전체에게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 번도 못 해 보고, 설교 한 번도 못 해 본 자로서 오히려 관리를 받는 자였습니다. 선생이 바쁘니 작은 부흥강사를 따라다니면서 틈나면 주님이 말씀한 것을 말해 주라고 하여 몇 번 해 줬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계시를 받는 중에 “주님 맞아요? 저 속이지 마세요.” 하면서 주님과 심정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통하니, 주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시어 전체가 깨달도록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여 매일 가야 된다고 합니다. 20여 교회에 초청되어 일단 날짜를 잡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몇 군데는 급해서 했는데 모두 듣고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선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계시받는 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다.” 하시며 앞날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정말 사탄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크게 쓰냐? 안 믿어.” 했답니다. 주님은 “나 예수다. 사탄 아니다. 네가 쓰여질 때 알 것이다. 곧 쓰여진다.” 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보냈기에 맞다고 해 주었으니, 믿고 계속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사람은 못 하는데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시면 이같이 약한 자도 한다. 너희는 강하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지난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못 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못 했습니다. 이제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동하시고, 뜻이 있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선생은 그에게 ‘은혜를 받게 된 사연만 간증하지 말고, 온 교회에 전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도 중에 달라고 하여 그 말씀을 핵으로 전하라.’고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입에서 불이 나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에 선생이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말 타는 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지금 말 탄 자와 같이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걸는 자가 어찌 말 탄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주님께 “저는 선생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으니 만나게 해 주세요.”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만나게 해 주마.” 하셨습니다. “정말이요?” 물으니, 주님은 “정말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이 주님께 확인하니, 주님은 “면회 때 만나 주어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셨습니다. 결국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말 타는 자들처럼 검은 얼굴로 생각했는데 흰 얼굴이었습니다.

선생은 주님께 “나도 애들처럼 재미있게 계시를 주세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섭리사에 준 계시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하시며, **“너와 같이 모든 섭리인들도 계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계시자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사역자입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계시를 받고 선생에게 분별받아 허락하여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때 모두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도 받겠다고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주님이 주십니다.

게시받는 자들은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 기도해야 하니 정말 힘듭니다. 어떤 자는 힘들어서 교회에 못 가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며 편지를 써 주라고 하시서 편지를 써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리니 힘듭니다. 잠 못 자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해야 됩니다. 듣고 행하기만 하는 자는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통해 계시를 듣는 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조건이 갖춰지고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한마디씩이라도 주고 가십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영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자기 육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영으로 오기에 우리가 육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육신을 쓰고 오면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의 육신이 되어 싸워야 인사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영이 자기 육신을 쓰고 육적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악한 자와 악평들을 이겨야 됩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예정한 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창조하신 천국의 근원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공로로 천국에 가게 예정해 놓았으니 그 예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필수로 행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적이 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자동적으로 천국에서 쫓겨나 심판을 받은 영물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갑니다.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리 와. 너는 천국에 갈 자격자가 못 돼.” 하며 자기편, 곧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그 흑암에서는 여건상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사탄의 법을 따라야 인정하고 고통을 주지 않으니, 천생 그 주관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쁜 자들에게 끌려가면 그들의 법대로 해야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영계로 엄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영이 흑암 세계에 살고, 그 육도 흑암 세계에 사는 것이 보입니다. 영에게 비취는 빛으로 구분되고, 입고 있는 옷으로 구분되고, 주관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사탄과 귀신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 세계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로만 나뉘져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신앙을 가진 자들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로만 갈라져 보입니다.

영계로 보면,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일지라도 그 마음과 행위에 따라 다 다르게 보입니다. 1mm의 차이점까지 다 계산되어 모두 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다 가게 예정해 놓았어도 첫째, **예정한 대로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싸워 이겨야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사탄이 주는 것으로서 **사탄은 우리들의 영을 직접 괴롭히며 영적으로 막고, 또 사람들의 육신을 쓰고 육적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막고 괴롭힙니다. 무력으로 막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조건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당기고 사탄의 주관권으로 끌어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섭리를 나가는 자, 교회에 안 나오는 자, 이성의 사랑을 쫓아 남자나 여자를 따라가는 자들을 보면 마귀가 몇 마리씩 그들을 따라갑니다. 마치 인간이 죽었을 때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듯 합니다.

내 말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능력이 옵니다. 사탄을 이기는 지식이 있습니다. 배워야 알게 되고, 알아야 자기를 보호하고 삽니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다스립니다. 죄만큼은 사탄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주관합니다. 회개하면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빛을 지면 빛쟁이가 그 조건으로 돈에 해당되는 만큼 괴롭히며 돈을 갚으라고 끌고 다닙니다. 돈 갚으면 끝나듯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끝납니다.

돈 갚기는 힘들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루 저녁 회개하면 해결되는 죄도 있고, 어떤 것은 일주일 회개하면 해결되는 죄도 있고, 어떤 것은 회개하고 전도하고 자기가 공적을 쌓아야 해결되는 죄도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따라다니는 사탄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멸하시고, 본인에게 능력을 주어 쫓아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신령한 영이 되어 육신이 영과 하나 되어 절대적으로 행하면 사탄을 이깁니다.

영으로 오는 영물인 사탄과 영적으로 싸우라고 주님은 계시를 주시고,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으로 영을 강하게 하시며 불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한 생명이라도 더 뺏어 가려고 하니 모두 일체 되어 잡아당겨 주고 그 죄를 회개해 줘야 됩니다. 영물인 사탄을 이기려면 자기 영이 그에 맞서 싸워야지, 육이 맞서 싸우면 절대 집니다.

어제는 새벽 1시 15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3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남자와 나와 겨루게 되었습니다. 서로 뒤집어졌다 얹어졌다 하면서 한 번은 내가 이기고, 한 번은 그 남자가 이겼습니다. 선생은 그 남자를 발로 걷어차고, 격투하면서 쓰러뜨렸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단계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서로 5m씩 떨어져서 넘겨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을 보내어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손이 5m씩 뻗어 나가서 넘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계속 쳐 넘기고, 또 손을 안 대고도 넘기다가 결국 이겼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실력의 싸움입니다. 영은 능력껏 팔을 5m, 10m씩 내뻗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도 손을 뻗어 지구촌 사람들을 잡기도 합니다. 영계는 신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 남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결국 내게 패하고 기도 중에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야 영이 힘을 받아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영은 기도해야 힘을 받고 사탄과 싸워 이깁니다. 모두 선생같이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합니다. 기도 시간을 뺏기면 영계로 확인하나, 안 하나 사탄에게 패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면 온종일 육적 시간에 매여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영은 영으로 싸워라. 그래야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싸워 이기게 하려면 육은 생활 가운데 늘 영을 위해 기도해 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의를 참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간인데 육이 그 시간을 쓰면 영이 영적으로 쓰지 못하니 육적인 세계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쓰려고 하셨는데, 자기중심으로 쓰면 주님이 자기를 통해 쓰려고 한 시간을 쓰지 못하시고 오셨다가 그냥 가십니다.

쉬운 비유로, 사과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먹어 버리면 자기 애인이 배고파서 기어와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고프다며 사과를 달라고 하셔도 자기가 먹었으니 못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쓰는 자는 주님의 사과를 자기가 먹어버리는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곧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자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 자꾸 빼앗아서 자기가 쓰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니 사탄이 역사하게 되거나, 자기 육이 그 시간을 쓰기에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애인의 시간인데 자기 애인과 같이 안 쓰고 혼자 쓰면 애인과 점점 멀어져 결국 자기 애인을 누가 쓰는지 압니까? 칭기즈칸은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못 여자들을 취하였지만,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애인을 자기 부하한테 뺏겼습니다. 자기 애인에게 시간을 안 주고 다른 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시간을 주지 않으면 주님을 뺏깁니다. 오늘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네 육을 완전히 맡겨라. 바쳐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써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10대부터 내 육과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몸을 주님의 몸같이 만들어 주셨고, 내 정신도 마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도 오직 하늘 사랑만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사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불의를 가르쳐 주시며 **“그것들은 사탄 세계로 가는 행위니 행치 말라.”** 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꼭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그냥 똑같은 인생의 삶으로만 봤습니다. 결국 보세요. 똑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결론을 봐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니 다른 자들과 결국 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신령한 자요, 영적인 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신령한 옷을 입습니다. 흰옷을 입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선생을 통해 그렇게도 외쳤는데,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기에 흰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섭리인들은 깨끗한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섭리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주님은 영적으로 단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영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왔기에 영적으로 한 단계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영적인 자가 되려면 보이는 선생을 중심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던 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중심하여 영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그같이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으니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탄이 영적으로 방해하니 싸워 이기고, 육적으로 오는 사탄을 막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육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영이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막으려면 약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육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영으로 막으면 안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쓰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대적하고, 심정을 거스르게 하고, 악평하며, 우리가 못 믿고 의심하도록 갖은 방해합니다.

이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악평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인내와 절제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대적하는 자가 사람이지만 인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불신해 버리고, 받아 주지 말고, 그 말을 절대 부정해야 됩니다. 악평이나 다른 이론을 말하면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이 사람의 육신을 쓰고 왔어도 패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느 때는 형제끼리 오해가 생기고 선생과 오해가 생겨서 심정이 상할 때 자기 육신을 쓰고 마음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때도 ‘이야기하고 편지하여 알아봐야지.’ 하며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이니까.’ 생각하며 이해하고, 또 ‘선생님이 미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며 이해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사탄을 이깁니다.

어떤 일은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편지하여 확인된 것들이 많은데, 그 사연을 들어 보면 참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항상 말조심해야 됩니다. 오해가 생겼으면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대화하여 풀어야 됩니다.

지금은 육신을 쓰고 들어오는 사탄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들어오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도 인격이나 마음이 닳이지 않아서 사람을 거칠게 대하고 다루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가서 말해 주고, 사명이 있어서 강한 자면 선생에게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선생이 바른 교훈을 해 줍니다.

둘째, 사탄이 영으로 와서 방해하고 막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성령을 받고 싸우면 다 이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주님을 절대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절대 예정해 놓았으니 꼭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육신을 쓰고 오는 인사탄을 이기고 육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기며, 영적으로 오는 사탄을 이겨야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환난이 오는데, 이때 모두 영적인 자가 되어 주님과 일체 되고 섭리인들이 모두 일체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나 어떤 소수의 무리로는 못 이깁니다. 뚝뚝 뭉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도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을 위해 가시기 전에 모두 영적인 자들이 되고, 신앙의 군사들이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섭리를 따라오다가 나간 자들을 보면 영과의 싸움에서 져기 때문이며, 육적으로 외부인들이나 형제들을 통해 들어와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형제가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줄로만 알고 그 형제를 미워하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대 사탄이 하는 짓이며,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인격으로도 오는 것이니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천적인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탄을 몰라서 나를 오해하고 형제를 오해하고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치고받고 싸우는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의 영과 싸우는 일이고, 육의 세계에서는 사탄의 주관을 받은 자들과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같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버려도 그 버려진 곳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받을 것을 다 받게 됩니다.

섭리사는 전도가 많이 되고 있고, 전보다 신앙이 살아났고, 형제들끼리도 하나 되었고, 주님과도 더 일체 되어 살고 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화목하고 하나 되면 사탄을 이깁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아직도 하나 되지 않은 자는 결국 사탄이 끌고 갑니다. 한 겹 줄은 약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길,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려면 총칼이 있어야지, 적은 총을 가지고 싸우러 왔는데 칼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영들도 육적 세계와 같이 싸울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각자 모두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총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자, 활을 가진 자, 칼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빈손이고, 어떤 자는 신형 무기를 가졌고, 어떤 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 무기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이 시간에 전체를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자기는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내리세요. 자,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선생에게 보여 주시면서 “모두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시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일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주물렀습니다. 그야말로 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지만 뜨거웠습니다. 너무 팔이 저리고, 손가락이 뜨겁고, 힘이 빠져서 손을 좀 쉬게 해 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질까 봐 기도했습니다.

이때 보니, 내가 손에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이 너무 뜨거워 칠 수가 없어서 식도록 옆에 놓고 있었습니다. 계속 총을 쏘니까 총이 열을 받아서 뜨거워져 손가락이 데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많이 쏘면 총 끝부분에 열이 나고 뜨거워져 손을 대면 덥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쓰는 총이 열이 나서 식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저 멀리 자기편 쪽으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총소리를 듣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깨고 보니 순간 기도할 때 보인 계시였습니다. 이때 내가 말씀을 쓰고 있던 볼펜이 방금 본 총으로 보였습니다. ‘나에게는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이 볼펜이 복음 전선의 영적인 무기다. 그렇지! 맞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글을 쓰니 손가락이 뜨거웠습니다. 글씨 한 자, 한 자는 총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펜도 영적인 신앙의 무기요, 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갈 때 기록하면 신앙의 총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기록하지 않는 자는 신앙의 총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기록했다가 자기 때 자기에게 써먹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써먹어야 됩니다. 특히 계시받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꼭 적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생생한데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고 심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총과 영적 무기는 펜입니다. 선생이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온 세계에 말씀을 보냅니까? 여러분들도 기록하지 않고서는 편지나 계시도 못 보냅니다. 펜이 무기입니다.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알면 꼬이지 못하니깐요. 그다음 작전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못 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고 게으르게 하며 별짓들을 다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의 순종자이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순종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생활 가운데 행하며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며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말씀과 매주 나오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이 말씀을 주는지 알고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상에서 외칠 때 심정으로 권위 있고 영력 있게 외쳐야 됩니다. 멋있고 실력 있게 내용 따라 음률을 조

절하며 외쳐야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잘 전달하며 음률을 조절하며 잘 불러야 청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상이 날아갈까 봐 양손으로 단상을 꼭 움켜잡고 전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제스처를 쓰며 양손이 살아 움직이면서 외쳐야 됩니다. 듣는 자들이 말귀를 알아듣도록 천천히 외치고, 말투와 음성이 아름답지 못하면 월명동에 가서 발성 연습을 하며 배워서 외쳐야 됩니다. 성악가같이, 가수같이, 웅변가같이, 대변자같이 연습하고 해야 귀에 잘 들어오고 마음에도 받아들이기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외칠 준비를 할 때는 먼저 본문에 빠져들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선생은 계시를 확인만 하는데도 몇 번씩 읽어 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일찍 보내 주는데도 목사들이 먼저 깨달도록 깊이 읽지 않는 자가 많다.”**고 하시며, **“이 같은 자들은 설교를 은혜롭게 불이 오게 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선생도 설교할 때 음성을 잘 내려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압니까? 교역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선생이 사람을 보내서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압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봅니다.

교인들은 교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는지 보고 잘하면 칭찬해 주고, 틀리면 고치도록 말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칠 것 말해 줘도 안 고치면 꼭 교체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주님과 선생의 대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도 외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듣는 자들도 듣고 믿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주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 잘 기록해야 이후에 때 되어 나가서 원고를 보고 외칩니다. 그리고 잘못 받은 계시는 선생이 혼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교정하는 자들이 틀린 문법을 찾아내듯이 찾아내어 가르쳐 줍니다.

계시를 잘못 받았다고 “왜 사탄 계시 받았냐.”고 하며 혼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유혹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을 들으면 배워서 압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모두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시든지, 사탄의 계시든지 자기가 지나치게 의식하고 생각하여 그릇되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운동도, 수영도, 군대에서 총 쏘는 것도, 축구하는 것도, 탁구 치는 것도, 배구하는 것도, 운동장을 도는 것도 처음에는 서툴고 제대로 못 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고 안 하면 운동 못 합니다. 기도하며 도전해야 됩니다. 원수 사탄을 이기도록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들을 다 관리하면서 일일이 계시에 대하여 코치하지 못하니 선생은 그야말로 애간장이 탑니다. 신앙의 전쟁터에서 싸울 특수 하능 군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 애가 탑니다. 교역자들은 선생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배우기 바랍니다. 그 많은 자들을 다 코치하지 못하니 말씀으로 내보냅니다.

계시를 받으면 먼저 교역자가 검토하고, 계시받은 선배들이 검토하고, 영 분별자들이 검토하고, 선생에게 보내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능하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 검토한 것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는 사람을 보고 분별하지 말고 내용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신입생이든지 신급 보지 말고 미인인지, 아닌지 얼굴도 보지 말고 내용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지의 답을 보고 분별해야지, 사람을 보고 분별하면 부정입니다. 사람 의식 말고 계시의 내용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진정으로 회개하면 누구나 영감이 오고 깨달음이 옵니다. 영적인 단계에 오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있으면 대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알게 되고 마음에 뜨겁게 깨닫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기에 모두에게 역사하시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의 개성대로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마치 자기 애인은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는 안 쳐다봐서 모르는 격과 같습니다.

본인이 주님께 물어봐요.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자기에게도 주님이 오셨느냐고 물어봐요.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가 자기가 몰라서 그냥 가셨냐고 물어봐요. 마음과 양심의 깨달음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안 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쪽 대답이고, 갔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쪽 대답입니다.

사탄 마귀는 부정적 존재입니다. 악평자도 부정적 존재이지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우리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자들도 부정적인 자들입니다.

계시를 잘못 분별해 주어 옳은 것인데 아니라고 해도 그 책임이 크고, 아닌 것을 옳다 해도 책임이 큼니다. 계시를 받으면 본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깊이 물어보고, 마귀가 주는 것 같으면 그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숨기는데, 이것저것 마구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드러날수록 좋으니까 다 말해 주십니다.

마귀 같으면 “너 마귀 아니냐?” 하고 물어봐요.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느냐?” 하면서 자꾸 말하면 드러납니다.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마귀는 “내게 굴복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나에게 네 몸을 사랑으로 달라. 내가 취하고 화를 안 받게 하겠다.” 하는 등 그 근성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마귀는 “내가 너의 육체를 취하게 하면 앞날에 민족의 화를 모두 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주님은 “**회개하라.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중심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도 “**주일과 수요일에 설리사의 핵심적인 말씀과 방향이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리사 전체와 교회에 구체적으로 말해 줘야 될 자들에게는 계시하여 말해 준다. 절대 나를 중심으로 단상의 말씀을 듣고 절대시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모두 전도하여 10만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면 다 됩니다. 생명들이 전도되면 잘 관리하고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면 잘 안 오니까 왔을 때 한 번에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시입니다.

신입생들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5년, 10년 앞질러 갑니다. 그럭저럭하면 3년, 5년이 가도 그 위치입니다. 말씀도 적극적으로 듣고, 평소에도 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며 성장하면 몇 달 만에 신입생인지, 오래된 자인지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신앙이 튼튼하면 바로 신급도 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기가 힘써 하면 다 이기는데 안 하니까 지고 패하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고 행치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막게 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으니 강하게 행해야 됩니다. 강한 자만 승리합니다. 누가 빼앗으니 빼앗기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빼앗아서 해야 그날은 승리하는 날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에 대하여 기도해 줘야 그에 해당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게으르면 그것에 대해 알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선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선생의 영적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기도해 줘요. 늘 내 육신이 아픈 줄로만 알고 아픈 쪽만 기도해 줍니다. 사탄은 선생이 안 아픈데 아픈 것으로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 선생의 영적 능력을 위해 기도해 줘요.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009년 10월 4일 주일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표적이 일어난다

2. 보이는 사람 중심 말고, 자기 육신과 생각을 중심 말고, 자기 영이 오직 주님과 의논하여 행하라

본 문 로 마 서 8장 5-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1장 43-44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특히 반갑습니다. 전도하고 관리하는 자들 수고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통해 이들을 데려왔으니 귀히 보고 꾸준히 두 겹, 세 겹으로 관리해 주고 신령새 주어라.” 하셨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고, 돕고, 말씀을 깊이 가르쳐 주고, 신앙의 근본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기가 깨닫고 믿고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신앙에 대하여 제대로 온전하게 알게 해 주면 많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님과 일체 되게 해 주면 주님이 관리를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전도자는 힘이 안 들고, 또 새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자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주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제일 기쁘고 좋았던 때를 말해 보려면, 선생은 지난날을 모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알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손을 드는지, 선생 편을 드느라 손을 드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선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온 천지가 울리고 귀청이 울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트남 전쟁터에서 적의 총구 바로 앞에서 살았습니다. 꼭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라.”였습니다.

선생은 죽음을 내걸고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내가 적을 총으로 쏘지 않아 적도 살았고, 적도 나의 행위를 보고 감동받고 총을 쏘지 않아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적도 죽고 나도 죽어 지금 현실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총을 버리고 너에게 총을 겨누는 자에게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말씀대로 행하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같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을 줄 압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하여 좌절하지 않았고, 환난 가운데서나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면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마다 엄청난 것도 얻었고, 나의 소원 중에서 하나씩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선생에게는 수백 번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여러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신다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런 후에 마음을 잡고 <구원의 말씀>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툼툼이 운동하려고 혼자 공원에 나가면 꼭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 독수리 구름이 확실하게 보여 즉시 비디오로 찍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만 했어도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역사에 많은 일들이 남아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강림하신 후에 재로 남아졌고,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언어를 혼드시어 더 쌓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건너가고, 그 뒤를 쫓던 자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 인생의 진로를 물어봤습니다. 평생 주님만 따라 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면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같이 돈도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라다니겠다고 했더니 주님은 “**네 의향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다니려면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더니 갖은 표적들이 일어났고,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길을 오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았더니 주님과 같이 행하지 않았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의 역경도 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과거에 그같이도 죽음 가운데서 지켜 주었는데, 또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였고, 지금까지 섭리역사를 뛰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징조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받

았습니다.

신약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고, 말씀의 표적이 일어나 구름같이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는 표적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도망갔고, 사탄들을 물리쳤고,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등 수백 가지 사건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읽어 봐요. 성경에 있으니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 한번은 꿈에 주님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셔서 누구를 연결해 줄 테니 전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낮에 전도하고픈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에 감동받은 자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걸려서 대화도 하고 사귀었습니다. 주님이 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기만 해도 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 월명동을 처음 개발할 때도 순간 하나님과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몇 분 동안 내게 보여 주신 구상을 보고 자연성전을 그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그 초가집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짓자, 한마디로 월명동 신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한번은 월명동 야심작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말씀을 다 배운 신입생들이 산 너머 회골 쪽에서 선생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린다고 하기에 “지금 내 옆에 와 있어도 이 작업장에서 돌 쌓다가 내려가지 못해. 월 회골까지 가서 인사를 받아? 나 못 간다.” 하며 잘라서 말을 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가 보라고 말씀하시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감동되어 회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작업하다가 지친 몸, 허리를 펴게 하면 좋지 않느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10분도 안 쉬고 개발 작업을 했습니다. 왜 10분도 안 쉬고 그같이 했는지 압니까? 선생이 쉬면 중장비 포크레인이 쉬게 되고, 수십 명의 일하는 자가 쉬게 됩니다. 잠깐 쉬는 그 순간 돌을 한두 개라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쉬면서 하자고 해도 “너나 가서 쉬었다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순간 골프차를 타고 잔디 성전을 가로질러 회골 쪽으로 능선을 넘어 올라갔습니다. 골프차가 마지막 경사진 곳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자들이 밀어 주어 결국 올라가 회골로 갔습니다. 너무 바빠서 골프차로 갔습니다.

말 타는 곳이 내려다보이고 천사 돌이 있는 데에 깨끗한 옷을 입은 7~8명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옷을 입고 이 산중까지 왔느냐?” 했습니다. 드레스 비슷한 흰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전도된 신입생들이라고 했습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10분 정도 순서를 짰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일하던 모습으로 갔는데 ‘나도 얼굴이나 씻고 올 것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갔으니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얼굴이나 닦고, 손가락으로 머리 고데라도 하고 올 걸...’ 했습니다.

그들과 15m 떨어진 곳에 누가 청바지를 입고 서 있기에 “애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들을 인솔한 자가 “예. 같이 왔는데 저 애는 관찮습니다. 신입생인데 전도 중입니다. 같이 가자고 했더니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수료하고, 저 애는 이제 입문 말씀 들어가려 합니다.” 했습니다.

선생은 “아, 그럼 같이 왔으니까 저 애에게 먼저 잠깐 몇 마디 하고 너희에게 시간 내주면 좋겠다. 준비해.” 하고, 혼자 서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 혼자 있어? 청바지 차림이라 같이 못 끼고... 이런 곳에서는 청바지가 최고야. 드레스 웃긴다. 넌 아직 말씀을 안 배워서 같이 못 있는구나.” 했습니다.

청바지 신입생 : “오늘은 선생님께 인사하러 간다고 하면서 자꾸 구경 가 보자고 하여 서울에서 같이 왔어요.”

선생님 : “잘 왔다. 이 작은 차 안 타 봤지? 시간 없으니까 20m만 태워 줄게. 타. 꼭 잡을 것도 없어. 천천히 가면서 내릴 때까지 이야기할 시간 줄게. 나 정말 바쁘다. 정말 바빠. 너 지금 내 말 잘 듣고 꼭 믿어. 나를 따라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같이 보고 따라와. 예수님이 너를 보내 주셨으니 따라와. 알았지?”

청바지 신입생 : “예.”

선생님 : “평생 의심 말고 따라와. 오늘 나, 너 만나러 여기 왔다. 저 애들 봐. 골프차도 안 태워 주고 악수 한번씩만 해 줬다. 나 믿어. 바빠. 한마디 더 할게. 앞으로 청중 집회 때마다 네 발로 쫓아다니면서 내 설교 꼭 듣고 끝까지 있다가 인사하고 가는 거야. 됐지? 나 청중 속에 들어가면 못 만나니까 알아서 혼자 하는 것이다. 안녕. 내려. 20m 더 왔다.”

선생은 다시 수료한 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나 바쁘다. 노래 한 곡만 합창해 봐.” 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인사하고 악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가지고 왔기에 하나 먹으면서 “저기 서 있는 저 애도 하나 주자.” 하고 청바지를 입은 신입생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옷이 예쁘다. 이 산속에 드레스 입고 온 것도 기적이고 표적이야.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왔으니 대단하다. 내가 월명동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후에 모두 그렇게 입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나 바빠.” 했습니다. 그들이 골프차를 태워 달라고 하여서 “다음에 하자. 나 바빠. 잘 가. 빠이 빠이.” 했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한 20여 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쓰고, 내게 인사하려고 온 자들보다 그들을 따라온 자를 만나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기성과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기성인들 때문에 핵심을 두고 역사해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 바쁘다”고 하시며 지금 만나 주고 계십니다. 청바지를 입은 그 신입생에게 깊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섬리인들에게 깊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후로 그 소녀는 집회 때마다 참석하면서 선생이 축구를 하면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인사해 주고, 모두 식당으로 가니 그곳으로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겠다고 하기에 “처음 만날 때 말한 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다니라고 하지 않았냐?” 하여, 그 소녀는 항상 끝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한번은 이 아이가 집회 때 왔는데, 주일예배 후에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는 얼굴이 보였다가 다 끝날 때는 안 보였습니다. ‘그냥 갔구나. 누가 챙겨 주는 자가 없으니 서울 가는 사람을 따라갔군. 내가 처음에 끝까지 따라다니라고 했는데 그냥 가 버렸네.’ 했습니다.

사방을 쳐다보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키가 커서 잘 보이는데...’ 하고 중얼거리면서 모두 기다리기에 ‘바보. 가 버렸구나.’ 하고 내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건들면서 영인체인가 하고 이름을 부르니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 차 타라고 했느냐?” 하니, 그 아이는 “제가 탔습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라고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선생은 “잘했다. 오늘은 인사도 안 하고 간 줄 알았다. 밥 먹고 가. 서울 가는 차 있으니 걱정 마. 밥 먹을 때 보면 다 서울 사람들이다. 자가용이 있는 자들이니 남아서 밥 먹고 같이 타고 가면 된다. 밥 먹으면서 서울 가는 사람 찾아 났다가 따라가. 알지?” 했습니다.

이같이 관리는 확실하게 해 주고, 본인이 할 일을 분명히 말해 줘야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책임분담을 합니다. 자기 할 것을 가르쳐 주고 관리해 줄 것만 해 주면 자기가 다 합니다.

그 소녀는 여러 가지 사연 곡절을 7년 이상 거친 후에 연단받고 성장하여 섬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부흥강사가 되어 선생을 대신하여 주님과 나의 심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섬리역사는 주님 앞에 이 같은 입장으로 커 왔습니다. 부흥강사가 주님과 선생의 심정을 외쳐 섬리인 모두를 깨닫게 해 주듯이, 섬리인 모두는 이 시대 모든 자들을 향해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 중에 그때는 모두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같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선생의 육신을 통해 섬리인 모두를 그같이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키워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 대신 쓰시려고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자기 책임분담을 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모두 부흥강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강하게, 당대하게, 심정 있게, 그리고 거침없이 외쳐야 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워 오신 것을 절실히 깨닫고 행하면 됩니다. 사명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클수록 주님이 합당하게 빨리 쓰십니다. 자기와 섬리역사가 어떠한지 깨닫고 알수록 주님은 더 크게 쓰시고, 자신들도 확실하게 뛰고 달립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깨닫고 빨리 해야 더 유익이고 더 주님을 가까이합니다.

외치는 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강하게 외칩니다. 지금도 주님은 급하다고 하시며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생에게도 급하다고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급절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골프차를 타고 그 소녀에게 급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나타나시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깨달음으로 감동되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역사하여 오기만 하시면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표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표적의 역사는 자기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계시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이 시대 모든 만민을 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 음성을 듣거나, 깨달았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병도 낫고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선생은 나의 인생 중에서, 내가 겪은 모든 일들 중에서 최고 기쁜 일과 역사에 남는 일은 하나님과 주님을 뵈고 만났을 때와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라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30년 동안 선생의 육신을 쓰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선생같이 주님을 절대 중심하는 자를 쓰고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처음 온 자들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들과 일찍 온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이 나타나시기 원합니까? 그 만남을 자기 인생의 최고 희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만나서 속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하루를 천 년같이 애타게 기다리시며 조건을 갖춘 자를 찾으십니다. 그토록 인생들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왜 모두에게 안 나타나실까요? 갖추 것을 갖추고 조건이 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듣는지 보십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이 간절히 간구할 때 나타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나시고, 사랑할 때 나타나시고, 행사 때 나타나시고,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시고, 예배 드릴 때 나타나시고, 외롭고 쓸쓸할 때 나타나시고, 병들어 고통 당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나타나십니다.

주님께 묻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게시자들로 말씀하였으니 자세히 읽어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 보니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킨 일만 하지 말고, 사명에 빠져서 일만 하고 살지 말고, 만나자고 하며 나를 부르고 찾아라. 전도에 빠져 거기에만 마음도 몸도 빠져 있지 말고, 나도 너희와 같이 전도하고 있으니 나 좀 쳐다보고 말 좀 하자. 또 기도할 때 기도에만 빠져 하지 말고 나 예수를 부르고 찾아라. 내가 만나려고 옆에 와 있는데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건이 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각 교회에게, 각 민족에게, 각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심정과 마음을 말씀하시려고 기도의 조건, 회개의 조건, 깨끗한 조건, 주님 사랑의 조건이 된 자를 찾으십니다. 어느 때는 섭리 전체를 순간 쳐다보시는데 찾아갈 자가 없어 혼자 막연히 쳐다보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세우고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오랫동안 조건을 세워 온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꼭 만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해야 되기에 만나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주고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과 심정을 알아주니 내 마음이 네 마음과 일체 되어 너에게 왔다.” 하시면서, “그렇게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말해 주고, 계시자들을 통해 말해 주었어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진실로 깨닫고 아는지 나는 쳐다보면 다 안다. 진실로 내 심정을 알아줘야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깨우쳐 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심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타납니다. 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해당되는 것을 갖춘 자에게 나타나시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가 안 믿으니 주님이 자기를 그같이 사랑하시는지 감히 생각을 못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고 우리들을 사셨습니다. 고로 자신의 몸같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어 만민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육이 없으니, 자신의 몸을 주고 산 육신을 쓰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육과 영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서 모르면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몸들을 사탄이 끌고 가고, 꼬여 가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주님이 천국을 예정하여 모두 오도록 하셨는데 몰라서 자기 뜻대로 살고, 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그로 인하여 죽은

후에 좋은 세계에 가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삽니다. 또 잠깐 있다가 떠날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갖은 물질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이를 보시고 정말 애간장을 태우시며 쳐다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삽니다.

10000의 1%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꼬임과 주관을 받고 육신이 그런 쪽으로 살다가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 주님은 하루에도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신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애타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대하시며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주님께 해 드린 일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주님을 믿어도 특별한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니 이해를 못 합니다.

섭리인들도 이를 다시 깨닫고 전도하여 새로 온 자들도 이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서 대화하십니다.

선생도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를 30년 동안 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도 귀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같은 자를 뭘 보고 그리 귀히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멀리하기도 하고, 이성으로 생각한다며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자들에게 말도 하고 소문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어떤 여자가 말씀을 배우고 수료한 후에 나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기에 내 손이 가니, 그 여자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요.” 했습니다. 파리가 도망갔으니 증인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똥파리가 붙어 있기에 쫓아 주려고 손이 갔다고 했더니 그 여자는 자기 주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가까이에서는 안 보였습니다. 잡놈의 파리 때문에 한 생명이 오해했습니다. 파리 때문에 내 손이 갔는데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니 잘해야 됩니다.

선생이 잘 대해 주면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해요.” 하면서 청춘이 늙는지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멋있고 예쁘니까 사랑하지.’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섭리에 쓰려고 귀히 여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여 교인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니, 당연하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은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 제대로 안 입고, 갖은 핍박과 억울함과 누명을 쓰면서도 참고 한결같이 귀히 여겨 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대신 죽여 주어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해 놓으셨으니 영원히 이를 갈며 갖은 고통을 당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사는 지옥에 가지 말고, 지상에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주님의 육신이 되어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님은 선생을 통해 그같이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사고와 해됨 없이 지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겠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도, 명예도 매일 허무하게 저 하늘의 뜬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그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을 위해 그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 때문에 그같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옥에 갈까 봐 주님이 그같이 하시니 우리도 영을 위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 깨닫고 주님께 고백해도 주님은 “내 심정 안다.”고 하시며 당장 오십니다.

이 시간 이후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해 봐요. 주님께로부터 “맞다.”고 한마디라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오해하고 섭리 품을 떠나간 자들과 별 관심 없이 따르던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또 따라오더라도 이와 같은 근본을 모르고 따라온 자는 성장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이 심정을 알아주니 “내 심정 모르고 육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가다가 휴거되지 못하여 지상에 남아 환난과 핍박을 받아 지옥으로 가면, 그때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메시아인 나도 세상 나의 때가 끝나면 등을 돌린다. 내가 등 돌린 후에는 아무리 불러도 쳐다볼 수 없다. 각자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는데 안 해서 끝난 것이다. 그러니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육신이 늙고 나이 먹었다고 마음 느슨해지지 말아요. 주님은 영을 보시고 더 역사하십니다. 영은 아주 젊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나 자기 애인이 자기가 무엇을 해 주어서, 공적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무 공적이 없어도 부모나 애인은 사랑으로 낳고 길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못 받고, 후에 가서 후회하고 멸망할 세상 사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와서 살라고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육신을 내어 주고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의 신부들이다.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였기에 내가 하려고 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전해 주어 사탄을 멸하고 악인을 돌이키게 하면서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에 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나의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것 못 하고, 못 누린 것을 천국에 와서 다 받고 누려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놓아두면 별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그리도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설교로 풀어 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자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 사탄이 끌고 가려고 힐문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그냥 있으면 끌려가겠기에 쳐다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계시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해야 될 기간까지 다 못 한 것입니다. 고로 사탄이 조금 남아 있는 그 죄의 조건으로 인하여 기어이 끌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그냥 놓아줘. 거기 놓아줘. 그 남은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고, 그 죄를 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답니다.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십니다. 고로 주님은 “**제발 자기 죄를 회개하라. 내 고통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았을 때 육적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후에도 우리의 영들을 살리시려고 영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 심정을 알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는 자로서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선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생을 너무 걱정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 앞에 할 일을 다 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정말 맞냐고 분별해 달라고 보내왔습니다. 맞지요. 뭘 물어봅니까? 빛 값으면 빛진 자는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일말씀 때 섬리인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섬리 전체를 보시고 심정이 답답한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말씀에 이해되게 잘 써서 거침없이 외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다 이겨도 육적인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의 혈기와 성깔 머리를 못 이기듯이, 나도 육적인 자와 황소 같은 자기 생각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깨달겠습니까? 주님은 무력으로 안 하시니까요. 순리로 하시니까요.

육적인 자는 주님이 와 계셔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육적인 자와는 안 통하십니다. 영적으로 해야 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사고, 육성, 교만, 자존심, 혈기, 이기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 육성을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 주셨는데, 왜 육성이 또 나타나느냐고 하며 사탄과 육에 속한 생각을 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육성이 살아나면 영은 위력도, 효과도, 기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육이 나타나면 주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육성을 죽이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이고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성은 정말 암적인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사망권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육성이 강하여 시대가 악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사탄이 더욱 활동하게 되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축소해서 교회나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심판해야 육성이 죽고 악이 약해집니다.

주님은 “**육성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육성 때문에 그 마음에 육의 생각이 꼭 차 있으니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버리니 쳐다보다가 그냥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육성으로 인하여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통하는 자는 자기 생각과 주관, 육성을 다 버린 자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간다. 천국은 육성이 있으면 못 간다. 육성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나? 자기 육성을 장사 지내라. 그래야 된다. 영으로 생각해야 나와 통한다. 나를 우선권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교역자들도, 또 교단에 세운 자들도, 각 기관들도 아직도 자기 생각을 우선권으로 하고 결정한다.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물어보아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도하여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왜 자기 육의 생각으로 결정짓느냐? 좋은 의견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묶어서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은 주님께 육에 속한 자들이 모르니 앞으로 영에 속한 자들을 세워 놓고 주님이 그에게 계시하시어 의논하고 결정하게 하자고 의논했습니다.

주님은 “그럼, 육적인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고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육이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해만 참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모든 육성과 육에 속한 생각을 죽이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나 예수의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개인도, 교단도, 각 교회도, 각 부서도, 온 세계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같이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계시자들을 통해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주님을 우선권으로 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마음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행할 때는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이 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육성으로 행합니다. 이런 자는 자기 우선권자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절대 주님 우선권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니 기도하고 물으면, 주님이 개성대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깊이 기도하며 하고, 주님이 회장이 되어 해야 됩니다.

섭리세계 각 나라 교단, 교회, 각 기관, 각 개인들 꼭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한때까지 짧게 지켜보시다가 상황을 틀어 버리십니다.

선생도 주님께 깊이 안 물어보고 하면 육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여 주님의 생각을 받아 다시 결재하여 나갑니다. 육이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주님의 생각이 와도 육이 막아 영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살아 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그 시대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육성이 살아 행하면 영이 못 하고 육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고 육이 보이는 대로만 필요 없이 해 놓습니다.

육성이 앞서면 사탄의 계시를 잘 받습니다. 사탄은 육성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면 실상 사탄과 일한 꼴이 됩니다. 육성을 다 죽여야 됩니다. 육성으로 행한 일은 사탄이 개입되어 하였기에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별하면 자기 육성으로 받은 계시인지, 자기 영이 주님께 받은 계시인지 알게 됩니다. 분별하면 육의 생각, 육의 의지, 자기 주관이 결국 다 나옵니다. 제대로 배우고 계시를 받으라고 주님이 육성과 영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아 선생에게 보내왔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기를 “선생을 면회하게 해 줄 것이니 가 보라.” 고 하셨습니다. 이에 각각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만나 주고 한 사람은 안 만나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기 육의 주관으로 계시를 받았고, 한 사람은 자기 영이 주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를 면회 때 보니 그 하는 말이 맞았고, 선생도 감동이 되었고, 주님께도 물어보니 “내가 약속했으니 만나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분별해 보면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육성에 의해 받았는지, 자기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들은 말 때문에 흥분에 의해서 깨달아졌는지,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주관에 의해 받았는지, 영과 육에 속한 계시를 알게 됩니다.

선생도 산에서 기도생활을 할 때 계시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시가 올 때가 많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주님이 맞다고 하시고, 비원리와 무지로 생각하면 사탄이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비진리에 사는 사탄은 비원리, 비진리, 무지가 자신들의 교리니까 맞

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심리적으로 볼 때 자기가 생각한 사고대로 남의 말도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니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진리와 생각만이 온전하니 먼저 진리를 배우고 온전한 사고를 가져야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선생은 육적인 사고, 생각, 심리에 의해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것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한 것이라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계로는 육성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신에서 배운 것들이 깨달아져서 계시가 오기에 맞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확인을 하면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지식과 실력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의 내용이 좋다고 해서 주님이 다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옳고 바르게 깨달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인정해 줍니다. 틀린 것도 다시 온전히 배우라고 해 주는데, 자신이 옳고 바르게 깨달은 것을 인정 안 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전하여 은혜를 주니 주님도 인정하는 실력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계시뿐 아니라 자기의 바른 지식에서 오는 계시,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받는 바른 계시, 자기 영이 알고 기도할 때 신령한 단계에서 자기 영이 말해 주는 계시를 전해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주님이 직접 주신 것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단계 중에 잠재의식 단계로 들어가면 타 영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계시를 해 주고, 천사도 계시해 주고, 사탄 귀신들도 자기 몸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시해 줍니다. 영계에 대하여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영계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성령 집회 말씀을 잘 들어요. 주님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어떤 자는 ‘주님은 어떻게 그 많은 자들에게 같은 시간에 다 계시해 주실 수 있나?’ 합니다. 사람들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주님은 같은 시간에 얼마든지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자이십니다.

또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자보다 실상 육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정말 계시를 해 주셨나?’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용을 듣고 감동되는지 보고, 하나님도 주님도 그 말에 역사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먼저 주님의 입장과 그 심정을 우선권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닌, 주님의 애인들이라 자처하는 섭리 사람들이 왜 나 예수를 옆에 놓고, 그렇게도 늘 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보면서도 모르고 보이는 사람만 중심하느냐? 왜 나 먼저 생각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의식하고 판단하느냐? 내가 90%를 주관하고, 어느 때는 100% 주관해서 하는데 어찌하여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느냐?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육의 사람만 보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 단상에서 있는 나 예수를 못 보고, 못 느끼는 것이다. 평소에도 그렇게 습관이 들고 버릇이 되어서 내가 가기 전에 정말 못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 오늘부터 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주님은 “오늘 하는 자만이 예비하는 자다. 오늘 못 하는 자는 내일도 못 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존의 섭리사에 왔던 나이 든 자들을 제일 걱정하시며 “성격이 굳어서 정말 문제다.” 하셨습니다. “차라리 10대, 20대, 이제 온 자들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기 쉽고, 보다 나를 신경 쓰고 쳐다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 의식 말고, 사람 중심 말고, 자기 육 중심 말아라. 또 기도만 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면서 불러보아라. 전도하는 것에만 빠지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자기 사명에 빠져서 일만 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빠져 나와 먼저 일체 되고 일하라.” 하셨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음성과 내용을 보면 육성으로 하는지, 영성으로 하는지 바로 압니다.

월명동을 개발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기에 선생은 거기에 빠져 정신일도 하여 일했습니다. 사고가 날까 봐 일에 빠져 현실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죽을 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구사일생 표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두 놀라 30분 이상 쉬면서 조심해서 잘 작업하자고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에만 빠져 하지 말고 나와 이야기 좀 하면서 하자. 너희들끼리는 이야기하면서 어찌 나에게는 한나절이 다 가고 해가 지도록 말이 없느냐? 나도 옆에서 같이 한다. 섭리 노정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작업이 다 끝나고 밤에 기도할 때 작업장 현실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 뜨끔하게 말씀하셔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 앞과 선생 앞에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현실에도 모두 사명에 빠져 일만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 좀 하고, 의논도 하고, 속 이야기도 하면서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만 대화냐? 새벽에 나와 대화한 자는 낮에도 나와 대화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본다.” 하셨습니다. 천사도 다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새벽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몇 명이나 직접 만나 주시겠어?” 합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각각 계시받는 시간을 써서 선생에게 보냈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를 기록하면 어떤 사람은 30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편지를 좀 길게 쓸 때도 새벽까지 교정하고 다시 보충해서 쓰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선생도 이 말씀을 아침부터 썼는데 지금 오후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주님께 토요일 오전에 다 써 놓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웃으면서 오전에 말씀을 다 쓰고, 오후에는 교정하고, 남는 시간은 편지를 쓰고 결재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기에 내일 오후까지 해야 교정까지 끝납니다. 설교도 한 권의 짧은 책임입니다.

계시받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같은 시간에 주님이 주신 계시가 똑같은 내용이면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고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각각 다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계시받은 자가 3명쯤 나와서 대언해 봐요. 똑같은 시간에 받은 계시인데 신기하게 내용은 다릅니다.

주님은 “백만 명이고, 천만 명이고 조건이 되면 각각 같은 시간에 계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들은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어느 정도는 하지만 주님처럼은 못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삼위체가기에 하십니다. 그러니 섭리인들이 많다고 같은 새벽 시간에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지 못하실까 걱정 말아요. 그 걱정도 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아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영계와 육계도 다르고, 영과 육의 그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육은 자체 몸으로는 공중을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영은 마음대로 다닙니다. 육의 눈으로는 불과 한 거리밖에 못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늘나라까지 보고 지구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법도, 삶도, 이치도 다릅니다.

육성은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영적인 자들이 되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육성을 다 죽이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명에만 빠지지 말고 진정 주님을 부르면서 깊은 대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애간장 태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하여 몇 분 동안 말씀할 테니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는 회개를 했는데 회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괴롭다고 하며 선생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사연을 써서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안 지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도 회개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너는 겪어 봤지? 네가 한국에 가면 내가 용서해 주듯이 너도 진정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겠느냐, 안 해 줘야 되겠느냐.**” 하면서, 영계의 한 장면을 보이면서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정 회개를 하고도 아직도 꺼림이 있고 사탄이 험문하여 괴롭다고 편지를 하는 자들에게 그때 생각이 나서 주님과 같이 편지를 써 줍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겠다.」 합니다. 오죽했으면 선생에게 회개 편지를 하게 되었는지 모두 잘 모를 것입니다. 죄지은 것들을 보면 정말 한동안 고통을 겪도록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죄는 자기가 좋아서 지어 놓고 용서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섭리와 주님과 선생에게 얼마나 손해가 갔는지 깨달아야 용서해 주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용서해 주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용서해 주고, 죄를 지으면 자기 영과 육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해 주고, 죄를 무서워하고 배척하며 마귀의 행실로 봐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 보따리를 내놓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주고, 그 죄값으로 조건을 세우겠다고 해야 용서해 줍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선생이 그 죄값을 대신 받는 것도 모르고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선생이 죄값을 받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선생이 주님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 따르는 자들이 못했어도 당연히 이끄는 자가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지면 자녀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죄값을 대신해 줘도 회개는 죄를 지은 자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은 자가 그 십자가를 저서 대신해 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죄를 같이 지었으면 그가 죄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고통 받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고, 또 네가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사명 받고 복음을 전하며 내 대신 그들을 구원해 주러 왔으니 구원받도록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으니 사탄이 개입하여 또 괴롭히겠습니까?

선생은 며칠 전에 주님께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또 육적으로 시간이 넘어졌습니다. 죄가 되기에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마디도 안 오고 잠만 왔습니다.

새벽 4시경에 다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나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어찌 잠만 자게 되고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대화로 진정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같이 했더니 주님은 그제야 “용서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가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자기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호리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제 갈 길을 못 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침 6시부터 말씀을 씁니다. 지금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와 변론하자. 대화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사 1:18).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고, 간절히 고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 봐요. 혼자 일방통행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풀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확실히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알아줘요.

선생은 새벽 1시에서 4시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데 5시에 주님과 대화하고 회개하여 20여 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모두 이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명에만 빠져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불려서 속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사명만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며 풀어야 됩니다. 사명에 빠져서 일만 하고, 전도만 하면 자기가 일한 것으로 알고, 자기들끼리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자기 혼자 일방통행 회개를 하게 되니 회개했어도 죄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직접 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지, 제 갈 길을 가는지 보면 압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았는데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다가 천국 문까지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제야 회개할래요? 정말 확실히 회개해야 돼요.

선생에게 죄를 짓고 혼자 기도하면 선생이 “너, 내게 죄지은 것 회개됐다.” 하겠어요?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용서해 주지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자는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없거나 흐려져 있습니다. 육성으로 일하는 자도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이 맞는 자끼리 하나 되어 일하면, 주님이 보시고 “**정말 재미있게 놀아나네. 두 개의 고깃덩어리들이 해서 잘되나 보자.**” 하십니다. 고깃덩어리끼리 하나 되어 행하면 육과 육끼리 연애하고 사는 취급을 하십니다. 영과 영끼리 해야 되고, 주님의 영과 자기의 영이 일체 되어 해야 됩니다.

영계를 밝혀 주니까 잘 들어요. 오늘 설교로 다 알게 해 주고, 주님은 “또 인성으로 하는지 곧 보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에게 가서 자꾸 자기 영을 봐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기도하여 자기 영이 어떠한지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만일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너는 육성을 고쳐라. 안 고치면 나와 멀어. 나는 영이야. 영과 통하지 육 고기와는 안 통해.” 하시며 대답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계시받는 자들에게 자기 영을 봐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보여 달라고 해요. 계시받는 자들이 지난날 자기가 행한 것을 다 끌어내면 소문이 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자는 영을 보니까 감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잘못 보았을까 하여 다시 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던 것, 수술했던 것들도 보이는데 말해 주자니 정말 혼동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한 자는 안 보입니다.

자기 삶과 행위가 육적인지 영적인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주님이 더 잘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받는 자들의 것만 믿지 말고 자기가 어떠한지 주님께 깊이 물어보아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자기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집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영적인 문제로 사고가 많이 나니 철저히 조심하고 관리들 해 주며 부지런히 신경써야 됩니다. 전도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노련하고 재미있게, 심정적으로 전하며 근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그 깊은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0월 7일 수요말씀>

너희 영과 육이 주님을 중심하고 중심을 잃지 말아라

본 문 사무엘상 16장 7절

아 가 서 6장 10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요즘 섭리세계에서 무엇이 가장 인기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세계 섭리사 여기저기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아주 자상하면서 정확하게 신혼골수를 쪼개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주님은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진리의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고, 이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 한 해만 참아 달라고 애원하고는 정신을 차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지도록 마지막 충성과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 위하여 신부 단장을 정말 꼭 충분히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으니 꼭 영원한 성공을 해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더욱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이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육신의 행위들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기도 하였고, 죄를 알게 됨으로 회개하여 없어지게 하였고, 사탄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을 알고 사탄을 경멸히 여기고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주일말씀에 이어 육과 영에 대하여 말씀하며, 주님이 지금 이 시대, 이때, 이 해 마지막 몇 달을 앞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니 모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잘 듣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자체로 볼 때 귀하고 필요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자가 볼 때도 남자는 정말 귀하고 절대 필요합니다. 여자에게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도 여자 자체 존재로서 절대 귀하고 필요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자가 볼 때도 여자는 정말 귀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못 살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남녀가 모두 귀하고 필요하듯이, 자기 육신과 영은 모두 정말 귀하고 중합니다.

육에게 영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은 영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만큼 필요합니다. 또 영에게 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육이 죽으면 영도 세상에서는 더 살 수가 없게 되어 떠나가야 됩니다. 영과 육은 절대 상응하면서 존재하고, 함께 존재해야 생명이 유지되고 존속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육은 서로에게 정말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그중 하나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같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영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에 대하여 말하면 생소하게 들으면서 어떤 꿈에 불과한 말로 듣고, 혹은 생시의 육 사람이 꿈에 나타난 것같이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거의 영의 존재를 모르고, 영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안다 할지라도 ‘영도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또 누가 영에 대해서 말해 주면 “있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육신이 형상화되어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 하기도 합니다. 영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영에 대하여 믿지만, 자기 영을 보고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영을 위해 살면 세상에서 무엇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고,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야 그것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알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고 사용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건축가는 집을 어떤 구조로 짓는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자신이 직접 지어 봐서 그 수고와 노력과 돈 등 모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귀히 사용합니다. 또 건축물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곳을 찾아내어 고칩니다. 전문가이기에 잘 압니다.

의사는 사람의 각 지체의 분야에 대하여 알기에 몸이 병들지 않도록 사전부터 신경 써서 다루라고 심혈을 기울여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병도 없는데 미리부터 돈을 쓰면서 치료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합니다. 의사는 일반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자는 초기에 치료합니다. 그다음으로 신경 쓰는 자는 병이 난 후에 못 참으면 치료합니다. 그다음으로 신경 쓰는 자는 병으로 넘어져 아픔으로 때우다가 그 아픈 기간을 다 참고 견디면서 병이 깊이 침범하여 고통 받을 것을 다 받은 후에 그제야 일어납니다.

병에 대한 전문가들은 한 단계 위에서 삽니다. 영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도 전문가들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삽니다. 그보다 더 위의 단계는 영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의 근본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 계시하셨는데, 모두 같이 들으면서 풀어 보기 바랍니다.

작은 비행기 한 대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자가 나를 보며 타라고 하여 탔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조종사 한 명과 부조종사 한 명이 타고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이 탔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떠서 한참을 갖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내부를 보니 아주 예리하고 가볍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더 탈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비닐이나 극히 가벼운 알루미늄과 같은 자료로 종이같이 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창밖을 구경하려고 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내가 가는 쪽으로 기울면서 중심

을 잃었습니다. 더는 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당황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그는 내게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중심을 잡으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비행기는 역시 기운 채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도 몸부림을 쳤고, 조종사들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선생은 그것도 모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가 다시 중앙 쪽으로 오니 비행기는 다시 중심이 잡히면서 수평으로 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 본 위치로 가니 비행기는 그제야 수평을 잡고 정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부조종사는 내게 한가운데 있는 조종사와 일자로 일렬이 되도록 3명이 일체 되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비행기 조종석과 연결된 일자 의자는 비행기 꼬리 쪽에 있었는데 뒤로 기댈 수 있는 등 받침대가 없어서 양다리를 좌우로 벌려 의자를 한가운데 끼고 앉았습니다. 중심을 잡고 앉아 있으니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세상을 내다보려고 자리를 옮겼다가 하마터면 추락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나는 ‘왜 미리 안 가르쳐 주어 모두 혼 빠지게 하였지? 정말 예리하게 비행기를 만들었네. 자기 위치에 안 있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앞으로 쳐다보니, 전면 유리라서 바깥이 훤히 보였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배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니,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내가 깨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종사의 눈을 따라서 맞춰 보면 얼마든지 세상이 보이고 바깥이 보이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비행기는 큰 산을 넘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앉았습니다. 나가 보니 시골 식당의 마당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식당 마당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식당 주인이 식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조종사의 수준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니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저쪽으로 날아가 보면 큰 건물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 크기가 커서 비행기가 앉기에도 좋고 고급 식당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오. 여기는 도시 변두리 식당이고,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맘 같으면 그냥 먹고 가고 싶는데 음식을 만드는 자가 못 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계도 수준대로 삽니다. 그러고 나서 순간 그 장면이 없어졌습니다.

펜을 잡고 말씀 쓸 준비를 하면서, “주님, 무슨 뜻으로 그 같은 장면을 보이셨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네게 보인 것은 이것이니, 육신의 정신과 행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네가 탄 비행기가 기울어 생명이 위험하듯이, 네 영혼의 중심에 따라 영혼의 운명과 생명도 사망으로, 혹은 생명으로 기울게 된다. 같이 타는 자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종사와 같은 나의 운명도 좌우된다.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이 어느 위치에 타야 할지 그 중심을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위치에 타야 되듯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육신의 중심에서 위치를 뜨지 말고 살라고 하셨다. 그러나 온 인류가 중심을 잃고 살고 있으니 지구 세상이 사람들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사람들로 인하여 말세에 추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인생들이 육의 중심을 잃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 2000년이나 살았으니 지구 세상의 운명이 기울어져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비행기 추락 사고와 자동차 사고 등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을 볼 때도 중심을 보아야 실수가 없다. 중심을 보고 대하지 못하니 얼마나 실수가 많은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중심을 보아라. 하나님도, 나 예수도 인간의 중심을 보고 대한다. 너희가 사람의 겉과 외모를 보고 대하는 것과 다르다. ‘중심’이란, 육에 속한 것으로 볼 때 ‘마음, 깊은 생각, 심정’이 아니냐.

육만 보고, 겉만 보고는 모른다.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아라. 차만 보고 그 차가 사고 날 차인 줄 알겠느냐?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사고 나는 차를 보면, 모두 차가 사고 낸 것이 아니다. 운전수가 술을 먹고 사람을 치고,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앞차를 치고 사람을 치지 않느냐.

육신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니, 사람은 마음을 보고 다뤄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지가 곧은 자를 찾는다(사26:3)’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과 양심이 곧은 자라야 행실도 곧고 삶도 곧은 것이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과 정신이다. 물체로 말하면 물건의 속과 질을 말한다. 음식으로 말하면 맛과 영양이 아니

나. 보기에에는 좋은데 먹어 보니 맛이 없고, 알고 보니 영양이 없는 음식이라면 이왕 돈 주고 사 먹는 것인데 다음에 그것을 또 사 먹겠느냐?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요, 음식의 중심은 맛과 영양이요, 물건의 중심은 질이다.

길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 길이 전체의 중앙이 되는 지점을 ‘중심’이라고 말한다. 물건을 들 때도 중앙인 중심에 맞춰 들고 가지 않으면 물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힘들어서 결국 못 들고 간다. 사람도 중심을 잃은 자는 결국 추락하여 끝까지 가지 못한다. 섭리사를 떠나간 자는 추락한 것이 아니냐.

너희 모두 건강에 있어서도 중심을 잃으면 중병으로 넘어가서 고치기 힘들다. 관리하여 건강하게 하고, 기도하여 건강하게 하여라.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사랑의 중심을 빼앗기고 잃어서 사망으로 기울어져 추락되었던 것이다. 고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다.

사탄은 중심을 잃게 만들고, 세상 쪽으로 가게 한다. 중심을 빼앗기면 패한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마음과 정신이 중심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중심이니 사탄에게 빼앗기면 패한 것이다. 고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너희 몸도 마음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몸과 마음을 너희 맘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이 와도 내 것이니 빼앗아 갈 수 없다. 내게 맡긴 삶을 살아라.

사람은 처음에는 육을 만들고, 그다음에는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계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들지 않으니 고생하고, 고통 받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 다니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겉을 보고 좋아하고, 어른들은 속을 보고 좋아한다. 지혜자와 영에 속한 자도 속을 보고 좋아한다. 육은 겉이요, 영은 속이다. 저금통장은 육과 같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영과 같다. 통장이 귀하냐, 돈이 귀하냐? 육보다 영이 귀한 것이다.

육은 잘 변하고 오래가지 못하여 허무하다. 10억 명이 있어도, 50억 명이 있어도 세월이 가면 세상에 남는 자 없이 다 죽어 없어진다. 영은 한 명만 있어도 세월이 가도 영원히 존재한다. 구원받은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을 위해서, 영을 신경 쓰고, 영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나 예수는 실상 너희 영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너희 영 때문에 세상에 구원하러 온 것이다. 너희에게 육만 있다면 인생 100년 살고 끝나는데 왜 왔겠느냐. 하늘나라 천국으로 너희 영을 데리고 가려고 세상에 온 것이다.

나 예수가 시킨 일을 육적으로 하는 자는 육에 속한 육적인 자요, 영적으로 하는 자는 영에 속한 영적인 자다. 육적으로 하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요, 영적으로 하는 자는 영의 마음으로 영이 중심이 되어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다.

각 분야마다 영의 마음으로 영이 중심이 되어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 행해야 된다. 나와 같이 마음도, 영도 일체 되어 행하는 것이다. 중심이 하나 되어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영이 중심을 잃고 추락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가 시킨 일을 영적으로 하면 영의 형체가 날로 형성되고 성장되어 찬란한 빛의 영이 되어 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육적으로 하면 저 땅에 속한 육의 형체가 발달되고 형성되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때가 되어 죽으면 사망에 속한 자가 된다. 신령한 자만이 신령한 나와 통하고 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육은 영의 보화를 담은 그릇이다. 그러므로 육만 사랑하고, 육끼리만 사랑하고, 육만 가꾸고 살지 말아라. 저금통장만 쥐고 있지 말아라. 수시로 통장을 확인해 보라. 누가 네 통장 번호를 알고 돈 빼 간다. 사탄은 육의 통장에서 영을 빼앗아 간다. 사탄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면서 육의 행위를 하게 함으로 영이 약해지게 하여 결국 영을 빼앗아 간다. 영을 빼앗기면 미래의 세상을 다 빼앗긴다.

육은 곧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중심을 잃고 산다. 영은 육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육신보다 정신이 강한 것같이 영은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영으로 누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육도 힘이 안 들고, 쉽고, 빠르고, 나 예수도 하나 되어 할 수 있다. 그러면 육은 잠시 세상에 살면서 육의 가치를 발하여 수십 배, 수백 배 더 가치 있게 큰일을 하게 되고, 영과 함께 하늘에 속한 일을 하게 되어 육도 영도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영으로 나 예수를 보아라. 깨달아라. 영원한 것들을 알아라. 육으로 살면 육만큼만 느끼고 안다. 고로 희망도 약하고 삶의 행실도 약하다. 영의 세계 천국은 찬란하다. 영으로 보아야 찬란하게 느껴지고 보인다. 하늘나라 천국을 너희가 육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놀라지만, 후에는 세상을 보듯이 할 것이다.

영으로 보아야 영원토록 찬란하게 느껴지고 보이고, 그 기쁨도 영원한 것이다. 육을 쓰고 영으로 보고 깨달아

야 천국같이 기쁘고, 찬란함을 느끼고 알고, 육신이 희망차고 크게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뜻있게 창조해 놓으셨건만 육의 눈만 뜨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 조금만 느끼며 살고 인생을 가치 없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너희 육에 대하여 내가 한 비유를 들어 말할 테니 잘 들어 보아라.

봄에 농부가 한 알의 호박씨나 박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자라나 잎을 피우고, 넝쿨이 뻗어 나가고, 꽃을 피우고, 호박이나 박을 열어 열매의 아름다움을 보인다. 그러다가 가을을 맞으면 잎도, 넝쿨도 사라지고 열매도 없어진다. 육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육은 너희가 쓰는 볼펜같이 짧게 쓰이다가 끝난다. 영은 마치 바닷물만큼이나 볼펜의 잉크가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영은 영원하면서도 찬란하다. 천국에 가야 이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서 고생한 것을 다 찾아서 수십억 배 누린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영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보다도 더 영원하다. 별도 열이 식으면 어둠 속에 사라져 흑암에 유리하는 별이 된다. 너희 영혼은 나와 하나 되어 구원받고 살면 영원하다. 어찌 유형 세계의 해, 달, 별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유형 세계에 속한 것이어서 영원히 못 간다. 그러므로 너희 육신은 너희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희 영도, 육도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영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영원히 살 너희들의 영혼이 무가치하게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면, 나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서 내 머리와 가슴에 지구를 얹어 놓은 것만큼이나 고통을 느낀다. 전도하여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라. 너희 영혼도 지옥에 떨어질 때 그제야 알고 천지가 떠나가는 고통을 지르게 된다.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다.

내가 이같이 심정 태우면서 이런 말을 하며 너희와 함께 사는 기간도 아주 아주 조금 남았다. 너희 손톱이 자라는 만큼 남았다. 너희 손톱이 자라는 때만큼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만큼 조금 남았다는 것이다. 사랑도, 믿음도, 나를 의지하는 것도 지금 이때다.

나를 찾고 불러라.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옆의 보좌에 있는 줄 알았느냐? 내가 와서 너희들을 사랑할 때 나를 의지하고 찾아라. 세상에는 내 육신이 없으니 너희 육신을 찾지만, 실상 나는 영이니 너희 영 때문에 찾는 것이다. 나는 영이니 너희 육은 내가 외쳐도 모른다. 고로 너희 육신을 가지고 외치기 위해 갇춘 자를 찾는다. 갇춘 자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다.

이때에 나와 통하지 못하면 언제 통해 보겠느냐. 나와 통한 육신은 기적의 인생이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선생도 사람들이 별로 쳐다볼 자가 아니나, 나와 통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이같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재림을 왜 하겠느냐. 사람들이 왜 나를 기다리느냐. 나 예수를 맞고 천국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나를 맞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된 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너희가 있는 곳에 와서 준비를 시킨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재림의 약속만 지키면 나는 성경에 약속한 것을 마지막으로 다 지키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해 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는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육은 영의 뜻대로 쓰여져야 가치 있고 허무하지 않은 것이다. 영은 나의 뜻대로 쓰여져야 영원하다. 육이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 끝나듯이,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영은 저 사망의 사탄의 세계에서 영원히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

19세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한 명이라도 살아 있는 자가 있는지 보아라. 모두 죽어서 썩어 흙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와 하나 되어 영을 중심하여 살던 자들의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가 예비한 집에 살고 있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사망의 지옥으로 기울어져 갔다. 너희를 구원하는 나 예수가 그 실상을 말해 주니 의심 없이 믿어라.

참포도나무에 접붙이듯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이 너희는 영에 속하여 너희 영이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다. 모두 나와 의 첫사랑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생명들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 성장한다.

내가 시킨 일에만 빠져서 살지 말고, 수시로 온전히 온종일 나와 통하면서 하여라. 새벽에 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낮에도, 밤에도 항상 통해야 된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낮을 새벽이라 생각하고 깨워 나를 찾아라. 너희 구원자인 나 예수를 언제나 진정으로 찾고 불러라. 나는 직위나, 겉모습이나, 명예를 보지 않고 오래된 자들이나, 이제 온 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반갑게 대하며 가련다.

나를 눈으로만 보려 하지 말아라. 영의 눈으로 못 보면 영과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듯이 내 말을 듣고 분별하여라. 사탄이 하는 짓과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같이 자세히 가르치며 너희와 가까이 있겠느냐. 이 밤에 하는 나의 말을 모두 듣고 마음에 새겨라. 글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럼 행하라.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오늘부터 너희가 더욱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하고, 꼭 그리되기를 간구한다. 희망한다. 축복을 빈다.

영으로 나를 맞고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 육으로는 보증을 받지 않는다. 육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육과 안 통한다. 영과 통한다. 네 영과 네 육이 통해야 된다. 육이 늘 영의 뜻대로 살고 행해야 영의 의에 의하여 육도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세상에서 육도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 내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

배워야 그같이 살게 된다. 내게 배워라. 나의 명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명에를 메고 배워라. 네 영혼이 나를 사모하여라. 진실로 사랑하라. 너희 중심인 마음이 나를 사랑해야 육의 행실도 나를 진정 사랑하게 된다. 영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안 통한다. 육은 나와 통했다고 시인하나 실상 그렇지 않다. 나와 통해 보아라. 그래야 너희 영이 나와 무엇이 통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영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빈다. 성령의 불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힘쓰고, 하나 되고, 화평케 하라. 소망은 나다. 세상에서 희망이 꺾였다고 낙심 말아라. 나를 불러라. 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안녕.

선생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이제 모두 영을 중심한 사람들이 되고, 주님을 중심한 사람들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일체 되고, 여러분의 육도 영과 일체 되어 사망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영을 중심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중심하여 살지 않으면, 중심을 잃고 영이 추락된다고 했지요? 세상으로 정신과 행실이 기울면 육이 추락됩니다. 절대 주님 중심, 영 중심 하며 주님과 영을 우선으로 하는 자만이 의의 날개를 달아 공중을 날듯이 세상을 날게 됩니다. 그런 자만이 걷거나 자전거나 차를 타지 않고, 영적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선생도 육으로 기울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마다 영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말씀을 들은 후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살 때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을 꼬여 세상으로 끌고 다니면서 육과 영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이때 10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해에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지가지 열매들을 주령주령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9년 10월 11일 주일말씀>

1. 이 시대도 노아와 롯 시대처럼 그와 같이 그러하다

2. 지체하지 말아라

주가 독촉하시고 이끌어 내실 때 속히 행하라

본 문 누가복음 17장 22-30절

창 세 기 19장 12-17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어느 경점까지 오셨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 기간이므로 주님은 재림에 대하여 더 깊이 말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과 그 순간 해당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때 그 순간에 맞추어 들어야 때에 맞게 제대로 행할 것을 행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선생이 외국에 10년 동안 있을 때 주님은 때를 따라 섭리사를 다스리셨습니다. 어느 때는 전화로 지시하게 하여 다스리셨고, 어느 때는 전화는 일절 안 하게 하시고 편지로 지시하게 하여 다스리셨고, 어느 때는 편지는 일절 안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시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만나서 해외 수련회를 하면서 모두 직접 만나게 하여 말씀하고 지시하며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편지도 못 하고, 전화도 못 하고, 말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체 소식이 끊어진 후에는 기도로 다스리며 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놓고, 서로 보지 못하게 하시며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에 해당되게 행할 일들을 전해 주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그 날과 그 시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느 지점쯤에 와 있는지는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오니 주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주님께도 손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비하지 못하여 주님을 제대로 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육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세상 끝 날, 곧 인자가 오는 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눅 17:22-23)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오는 그 날에 모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뜻 비취듯 인자도 그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순간이라서 못 본다.’는 말씀도 되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지니 너희 육으로는 못 본다.’는 말씀도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두고 성경말씀을 기준하여 여러 가지로 상상하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휴거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생각하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완전히 예비해 놓을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 해석을 해 주셔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보다 먼저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어느 경점까지 와 있는지 말씀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난 지난 역사 노아 시대와 롯 시대를 말씀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눅 17:25)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오기 전의 징조와 시대의 현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인자에게 고난을 주고 인자는 버림을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 그 시대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버렸습니다.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갇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님이 보낸 사명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니 쫓아내고 배척했습니다.

구원자와 그가 보낸 자들을 배척하고 불신하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을 시키려는 자들과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에 해당되는 고통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시대는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실 때 역사는 꽃을 피웠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신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세에 못 한 일들을 하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고,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역사를 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족은 대 환난과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시대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종교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시대의 사명자들도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합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나, 영으로 보면 내 심정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육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 안나 수녀에게 나타났던 모습대로 나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있다. 너희가 형식으로 나를 믿으니 나를 모독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섭리사의 계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너희는 내 심정과 하나 되지 않았다. 육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내게 심정의 고통을 주는 것이 되어 나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속 썩는 일과 걱정거리가 있는 자는 정신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속을 안 썩이고 기쁜 일을 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고 같이 기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사탄에게 이끌려 행하고 사망과 흑암에 속해 살면 주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이를 깨닫고 속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주님께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주님을 매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고로 주님은 “**깨끗이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실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 일체 되면 구원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만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되고 억울하게 끝나고 마는 격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 되시는 주님은 상상도 못 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탄과 어울리며 사는 무지한 행위를 알려 주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상실하게 됩니다. 인생 평생 동안 몸부림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생 몸부림쳐 구원을 얻어도 구원만 받았다면 영원한 유익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늘을 멀리하고 주님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 실상 주님을 멀리하고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도, 이 시대 말씀으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히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자는 나를 믿기는 하나 영원한 나의 나라 천국에는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부패되고 사회도 부패됩니다. 음식도 오래되면 부패되듯이, 시대도 오래되면 부패됩니다. 이 시대도 마지막 때라서 온 세상이 부패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민족도, 사회도, 종교도, 개인도, 주를 믿는 자들도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든지 세탁하여 입으면 깨끗해집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부패되고 더러워지면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회개함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영원히 죄를 없애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낱알이 고하여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야 자기 영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도 그에 따라서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의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생활의 증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패되고, 더러워지고, 참보다 거짓 속에 살고, 인간을 중심하여 살고, 인간의 감정대로 하늘을 멀리하고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마지막 때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최후의 행위들을 합니다. 축소시켜 개인을 보아도 개인의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 멸망으로 가는 자는 지극히 육적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삽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를 극적으로 사랑하고, 이성에 극적으로 빠져 살고,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 냉혹하게 되고, 사람들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썩을 대로 썩고 더러워진 인생들과 쓸모없는 세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 손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의 썩은 마음과 행실에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자연을 통한 재해와 고통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물질 사이에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 희망이 깨집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심판의 날이 닥쳐 멸망하게 됩니다. 악의 세계가 심판을 받으면 노아 시대의 노아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같이 보다 의로운 자들이 남겨져 또 역사를 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 시대와 롯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도 마치 노아 시대와 같았고 롯 시대와 같았다. 모두 심판받는 그 날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말세 때 그 시대를 보면 마치 심판받기 전의 노아 시대와 롯 시대 사람들과 같이 의가 바닥이 나고, 불의는 하늘까지 솟고, 의인을 찾으나 찾기가 힘듭니다. 롯 시대에도 수십만 명 중에 의인을 찾았으나 의인 열 명이 없었고, 노아 시대에도 실상 의인 열 명이 없었습니다. 롯 시대에는 의인이 겨우 롯과 그의 딸 둘, 세 명이었고, 노아 시대에는 겨우 노아의 식구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그같이 귀합니다. 의인이 되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육신이 죽더라도 그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고 죽으면 그날 그 영혼이 사망의 세계 지옥으로 갑니다. 고로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니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말하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어느 경점까지 오셨는지 말씀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생을 통해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의로운 자, 곧 지상에 세운 대표자에게 은밀히 심판할 지역을 말씀하시고, 어떠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 의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네게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말하니 들어 보아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최악이 관영되었다. 회개치 않고 날이 갈수록 죄악을 행하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간다. 나 여호와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라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 양심적으로 삶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는다. 고로 내가 그 성을 멸하리라. 그리 알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래도 그곳에 의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저의 조카 롯의 가정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 “그럼, 의인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 나 님 : “그러나 의인 40명이 없다.”

아브라함 : “그럼, 의인 3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 나 님 : “그러나 의인 30명도 없다.”

아브라함 : “그럼, 의인 2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 나 님 : “그러나 의인 20명도 없다.”

아브라함 : “그럼,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 나 님 :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가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도 없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전도했으면 의인 10명은 만들었을 것인데, 거기 사는 롯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성이나 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의인이 금과 다이아몬드 한 트럭보다도 귀한 것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모든 국가나 사회나 도시에서 정말 귀한 자로서 보물 열 트럭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과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의인이 심판을 받는 자들의 운명을 얼마만큼 좌우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 때문에 죽을 자가 살고,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롯 시대, 노아 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홍수, 지진, 태풍, 가뭄, 전쟁, 전염병 등 각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민족과 그 지역에 의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조사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준이 안 되면 정한 날에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지역인데 억울하게 심판받은 곳이 있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떠올려 봐요. 어떤 지역이었는지 봐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곳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가,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곳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던 곳이었는가 모두 생각해 봐요. 깨닫고 배워야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수백 배 더 높은 차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분담이고 상식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해줍니까?

선생은 알아도 일일이 말을 안 해 줍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게 사니까요. 언제까지 부모가 책의 그림을 짚어 가면서 설명해 가르쳐 주고, 언제까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면서 말해 주고, 언제까지 화장실에 데려가서 도와줍니까?

영계로 보면 섭리인들 중에서 육의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설물을 못 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발달이 되어 프로급입니다. 세상 것은 손이 안 닿는 곳에 있는 것까지도 잘 찾아서 먹고, 뒤통수에 있는데도 잘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육적 세계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최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로 정신을 고치고, 커야 됩니다.

수준이 낮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수준 낮은 자들은 수준 낮은 것에 잘 빠져 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랜만에 잠깐 TV를 보았는데 정말 못 보겠습니다. 왜요? 수준이 낮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수준 낮은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수준 낮은 세상입니다. TV 프로그램은 결국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TV를 10000시간 동안 봐도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한 것보다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중독되어 시간을 빼앗기니 하늘나라에 갈 자인데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가지면 만족하며 삽니다. 커서는 생활 용품을 가지고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생활 용품입니다. 결국 취미 생활들입니다. 아폴로를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자도 지나고 보면 인생 한때의 취미 생활입니다. 아무리 우주를 누비고 살았을지라도 어린아이가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한 번 갔다 온 것에 비하면 실속이 없습니다.

세상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을 발견하여 그것을 누리면서 만족하며 삽니다. 하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하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에 가야 만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을 누린 자라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사망 지옥 쪽으로 간다면, 지옥에 갔을 때 세상에서 보람 누린 것이 단 1분도 유익이 없습니다. 모두 다 후회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누린 영광이 모두 가혹한 후회로 돌아옵니다. 전용 비행기 10000대를 준다 해도 세상 쪽으로 가지 말고, 비행기 10000대를 다 팔아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늘 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양쪽 세계를 겪으면서 현지 중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보면서는 생중계를 못 합니다. 선생은 지상지옥에 살면서도 왜 행복하다고 하는지 압니까? 고생을 할지라도 천국 쪽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90세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에서 갖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그 영혼이 천국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선생은 그를 보고 절대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구 세상이 다 그를 보고 부러워하며 행복한 자라고 해도 선생은 그를 보고 절대 행복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 배우고 확인하여 그 영혼의 앞날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영원히 계속 행복해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소시켜 인생 하루를 볼까요? 어떤 자가 온종일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며 하루를 보내니 자신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행하기 위해 어제 그같이 살았구나. 지옥을 앞에 놓고 저승사자 밥을 먹었구나.” 할 것입니다.

인생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두려워야 됩니다. 알고 말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행복하다’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면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고 하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주님을 떠나 세상 육에 속해 사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야.’입니다.

인생 일생을 축소하여 하루를 사는데, 배고픔과 가난과 짓밟힘 속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고,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하며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세계로 갔습니다. “그의 하루는 천국에 가기 위한 몸부림의 삶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의 고통도 실상은 행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도 이런 자에 속한 행

복을 누리고 삽니다. 섭리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인에 대하여 대화하시고, 즉시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셨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들이 성문을 통과하고 날이 으스스할 무렵에 성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니, 사람들이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길을 물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사람같이 보이며 대화하니 모두 모를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현실에도 있습니다. 우리 섭리사 사람들은 의심도 없이 믿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에게 길을 알려 준 자들 중에 한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롯 : “날도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저희 집에 가서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날이 새면 가시지요?”

나그네(천사) : “아닙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밤이라도 갈 길을 가야 될 몸입니다.”

롯 : “저는 여관 주인이 아니고 가정집 가장입니다. 늘 성문에서 보면 해 질 때가 되었는데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집은 좋지 않지만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여 이튿날 편히 보내 주니 너무 좋아하면서 가더군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모두 하나님의 아들딸로 생각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성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형제라고 생각하고 봉사합니다. 그저 하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합니다. 무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는 것이니, 절대 폐가 되지 않으니 같이 가서서 인생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감시다.”

나그네(천사) : “오늘 마음 착한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끌립니다.”

두 사람은 롯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평소에 하듯이 진정으로 대했습니다.

롯은 “가는 길에 이 성에 오는 자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날이 저문 틈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오는 자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일부 나쁜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완전히 털어서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세상 말세입니다. 겉 보기에는 이 성이 화려하고 사람들도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롯은 집에 가서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와서 피곤하니 이제 자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내어 “네 집에 온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이 성에 해를 주러 온 자가 아니냐?” 했습니다. 롯은 절대 아니라고 했으나, 성 사람들은 가혹하게 롯을 밀쳐 냈습니다.

롯은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해 보지도 않았다. 너희가 데려가서 좋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내 집에 온 저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하루 저녁 재워 보내려고 데리고 왔으니 제발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곳까지 모셔 왔는데 너희가 끌어내어 고통을 준다면 내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잘 곳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려 한다고 했는데 너희가 이같이 하면 어찌냐?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롯은 손님 대접을 이같이 훌륭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대접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역시 롯의 의로운 행위를 보았습니다. 자기 딸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을 돕는 그 책임분담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롯은 평소에 늘 그같이 하다가 이날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집으로 모셔 대접한 것입니다.

성 사람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롯을 떠밀고 문을 잡아당기고 농성을 벌이면서 평소 행위대로 혈기를 부리며 살벌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방에 있던 천사들이 보다 못해 나가서 그들을 떠밀고, 롯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 문을 넘지 못해 넘어지고 결국 흩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묻기를 “롯이여, 당신에게 속한 자가 여기 보이는 자 말고 또 있습니까? 당신의 사위나, 시집 보낸 딸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빨리 불러 모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성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롯이여, 어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 모으세요.” 했습니다.

롯은 너무 놀랐습니다. 천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동트기 전에 이 성을 빠져나가야 삽니다.” 하며 급한 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요즘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듯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롯은 즉시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니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그냥 집에 돌아오니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럼, 여기 있는 딸들과 당신 아내와 함께 이곳을 떠나세요. 여호와께서 곧 이 성을 멸하십니다. 이삿짐도 싸지 말고 몸만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말고 새벽 동이 틀 때에 떠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내의 손을 잡으시오. 두 딸의 손을 잡으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성을 떠나가면서 뒤돌아 쳐다보거나 서 있으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산까지, 끝까지 급히 가야 됩니다.” 했습니다.

이때 롯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민감한 두 딸들은 동작이 빠르는데 롯과 그 아내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무디고 동작도 느렸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는지 자꾸 꾸물거렸습니다. 이 시대도 그와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급한 말로 독촉했습니다. “지금에 어느 시대라고 딴 생각을 하고 여유를 부릅니까? 긴장하고 번개처럼 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요즘에 주님을 만나 계시를 받는 자들마다 주님께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소돔 땅의 천사같이 나는 시간이 없다. 나 바쁘다. 지체하지 말아라. 이제 육으로 하면 늦어서 못 한다. 영으로 해야 된다.” 하십니다. 천사가 롯을 향해 말하듯 하는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지체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여러 가지로 급하게 숨넘어가는 말을 했으나 롯이 계속해서 지체하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현실에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입장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급한 말을 해도 지체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결국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은 말로 해도 안 되니 손을 잡아 당기며 데려오십니다. 육적으로 보면 전도자나 사역자로 손을 잡고 그 위치에서 잡아 끌어 오십니다. 또 선생을 통해 편지하게 하여 그 위치에서 끌어내십니다.

결국 롯과 그 식구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집에서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가다가 뒤를 돌아보든지, 가다가 멈추든지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성을 쳐다보려면 그 산까지 다 가서 쳐다보십시오. 쳐다보고는 놀라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결국 천사는 롯의 식구 네 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이 그 성을 피하자 천사들의 말대로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비는 온 성을 덮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웠습니다. 땅속까지 용광로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되었는지, 그와 유사한 폼페이 유적을 통하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 죽기도 했지만 남녀가 끌어안은 채로 굳어 화강암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대에 보라고 그같이 한 것입니다. 그 성은 화산으로 인한 잿더미가 12m나 높이 쌓여 있으며,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았는지 그때의 생활 모습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순간 그같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도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첫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에 죽음을 내걸고 뒤돌아 불타는 성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이같이 됩니다. 특히 여자들, 그중에서도 마음이 약한 여자들, 세상에 체질이 밴 여자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딱 끊지 못하는 여자들은 평소에 주님의 재림을 절대 믿고 살지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성으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실수하고, 서운함 타고 뒤돌아 세상을 보았습니다.

마음 약한 여자들, 유혹에 약한 젊은 여자들, 성장기 여자들, 그렇게도 선생이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훨씬 좋아. 섭리는 힘들어. 이제 섭리 안 올 거야. 청춘이 아까워.” 하며 영원히 안 올 듯이 하고 세상으로 가 버리고 세상에 간과 쓸개를 다 떼어 주고 살던 여자들… 안 돌아왔으면 예정된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천국으로 가지 못하면 사탄이 예정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도 정성을 들여 길러 놓았건만, 매몰차게 주님을 버리고 선생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여자들이 얼마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생의 그 마음은 나밖에 모른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니 대단하다. 나 예수가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으면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가슴에 한이 있었다. 너희 선생은 정말 원수를 용서해 주고, 배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용서해 준 자다. 그래서 네 선생이 내게 말하면 들어주는 것이고, 너희가 선생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와 같이 대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네 선생은 여자들을 100% 안 믿는다. 오직 나만 믿는다. 너무

도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나도, 너희 선생도 섭리 사람들 때문에 성격이 이같이 됐다.”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의 심정이 찢겼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한지 봐야 합니다.

여자들은 잘해야 됩니다. 선생은 매몰차게 주님과 섭리를 버리고 나간 자들을 보며 “나는 너희가 지옥에 가도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요나가 외친 후에 니느웨 성을 보며 회개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접었으니 운명대로 돼라.”고 하며 요나의 심정으로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도 안 해 주었습니다. 소식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선생이 얼마나 심정이 찢겼는지 그 원통함을 아시고 “당연하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자들로 “네 선생은 더 해 줄 것 없이 다 해 줬어. 해 주려고 해도 더 할 것이 없어서 못 해.”라고 말씀하신 계시가 내게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앞날의 영혼을 보시고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탄이 주님 앞에 절대 굴복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보니, 주님으로서 끝까지 다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못 합니다. 주님은 **“사랑한 자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받은 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받기만 했으니 모릅니다. 사랑해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니 검은 연기가 웅기 가마의 굴뚝같이 온 성에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시며 섭리사와 각 종교, 민족, 세계에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을 파악하시듯이 이 시대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듯이, 지금 이 시대도 세상 말세로 인한 심판을 위하여 천사가 왔다 가는 일도 끝났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때도 이미 끝났습니다. 천사들은 말세의 재림을 앞두고 벌써 각 개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천사와 자꾸 대화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롯을 힐문하고 괴롭히는 때와 같은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는 환난기 때입니다. 지금은 이미 천사가 힐문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한 때입니다. 시대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고 심판하기 위해 왔으니 혈통과 친지들을 이끌어 오라고 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앞두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 열려 진행 중입니다. 주님은 의인들을 찾아 이때 어떻게 해야 휴거되고, 환난을 이기고 피하여 구원을 받는지 은밀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만이 압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믿고 행하는 자만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천사는 롯의 집에 가서 롯과 그 식구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되어 의인의 부르짖음이 큰 고로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 맞다고 하면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듯이, 이 시대도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큰 고로 하나님이 보시고 맞다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 말세 때, 곧 심판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천사를 보내어 모두 와서 의인들을 위해 마귀와 싸우게 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 주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롯이 성을 빠져 나가기 직전과 같은 때입니다. 롯이 지체하니 천사가 독촉했습니다.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롯 시대와 같은 때니, 시간적으로 새벽 몇 시쯤 되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외치니, 일편단심으로 선생을 따르던 자들도 “모사다.” 했습니다.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믿지 못하고 모사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놓고 말씀하는데도 섭리인들은 “모사다. 법정 문제 때문에 그같이 돌려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러했지요? 그러나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계시로 엄히 말씀하시어 80% 이상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는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재림을 믿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석 달 동안 성령 집회에 모두 참여하고 다 믿고 준비해요. 아마도 준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영으로 하면서 몸부림치며 뛰어야 합니다. 주님은 **“섭리사의 50% 정도만 겨우 근본의 잠을 깨우고 시대를 위해 내가 원하는 선을 넘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령운동 기간에 100% 같는지 걱정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모두의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지체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오시어 급히 성령과 함께 행하시며 “뒤돌아보지 말아라. 한때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섭리인들과 세상에서 재림의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농담이지. 설마…” 하며 지체한답니다. 주님은 재촉하고 독촉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체하는 자들을 독촉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봐요.

“가능성이 없는 곳을 먼저 심판한다.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그다음으로 하고, 충분히 가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고 의의 기준을 세워 줄 가정이나 민족은 늦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는 연기가 없고, 열심히 하는 개인·가정·민족·교단들은 심판의 순번이 늦게 정해져 보다 늦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를 들 때 회심할 기미가 보이거나 가능한 자는 뒤에 세우듯 늦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있으니 보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으로 인하여 환난과 재난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 중에서도 어떤 지역인지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때가 왔는지, 재림으로 인한 현상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천사들이 롯과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는 때와 같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 전에 잠깐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시간이 없다. 이 시대에 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연장은 없다. 어서 예비하라. 회개하라. 서둘러 행하고 깨끗케 하여라. 세상을 멀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나의 재림을 위해 나 예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라.” 하며 독촉하고 재촉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체하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시는 때입니다. 멈추어 있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지체하는 형제들과 재림이 믿어지지 않고 모사 같다고 말하는 자들을 설득시켜 이끌고 가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구해 놓은 생명들을 사탄이 꼬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뜬 자들은 보고 선생에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생입이 보았습니다. 사탄들이 악한 자를 통하여 전도한 생명들과 이미 주님 품에 돌아온 자들을 꼬여 데리고 갔으니, 우리도 천사들처럼 모두 쫓아가 의의 싸움을 하여 잃은 양들을 끌어 와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시며 섭리인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사정하시며 “한 번만 나를 불러 살려 달라고 하라.”고 심정을 쏟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진정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구원자인 나 예수가 구원할 수 있으니 제발 자기 좀 구원해 달라고 나 예수를 불러라. 마치 성경의 문둥병자들이 내가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여, 나 좀 구원해 주소서.」 하듯이 불러야 된다(마 8:2-3, 막 10:47-5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른 문둥병자들은 다 나아서 평생 기뻐하며 살았고, 그때 안 부른 자들은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도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갖은 천대를 받고 살다가 죽었고,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고, 자기가 찾고 부르고 믿는 조건을 세워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부르고 살아가야 될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섭리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될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기독교도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곧 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재림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섭리사가 민족이 떠들썩하게 주님의 재림을 외치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재림에 대하여 생각하니 주님도 역사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 해당되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한 사람만 유행하는 옷을 입어도 순식간에 번져 모든 자들이 그 스타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순간의 시간을 남겨 놓은 이때, 우리 섭리사는 마지막으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10만 명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뛰면 된다고 했습니다. 10만이 되면 개인과 섭리의 환난이 감해지고, 민족의 환난도 감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재난은 아주 없앨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다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면 주님의 재림은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환난도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로 꼭 뭉쳐 있어야 훨씬 더 쉽게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태풍이 불 때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나로 뭉쳐 잡고 있으면 안 날아갑니다. 어미 닭의 품을 떠난 병아리는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 섭리사의 품을 떠나면 날아가

세상 바다에 빠집니다.

주님은 섭리역사 3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들을 신부로서 키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가장 잘되어 있기에 수백 명에게 계시를 해 주시고, 그중의 몇 십 명을 세워 나라마다 계시를 해 주십니다. 또 도시마다 각 교회와 지역에 맞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섭리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같이 계시자들을 수십 명씩 세워 계시해 주신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섭리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목숨 다해 후회 없이 뛰어와야 됩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면 선생은 내 힘으로 도저히 이끌어 올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서 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10여 개국의 수십 명에게서 집중적으로 선생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 확인된 계시는 모두에게 간증해 주고, 계속 각 나라마다 집회를 하면서 즉시즉시 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듯이 해 주시니 표적입니다. 계시를 소홀히 여기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섭리사 어린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만일 계시받는 자격자들이 없으면 이 시대에 이 중한 때에 나 예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계시를 몇 번씩 읽어 보면,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나의 신부’라고 하면서 속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없으면 지금도 예전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선생도 이 시대 주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였기에 올해 섭리사를 새롭게 하였고, 성령 역사의 불길을 더욱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모두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각자 일대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마지막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도 전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새벽 1시가 기본입니다. 어느 때는 일찍 자고 전날 밤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같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선연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이 잠을 자던 방의 옆방을 가 보니 도둑이 들었습니다. 내가 옆방에 신발을 벗어 놓았는데 도둑이 내 신발을 가져갔습니다. ‘이놈의 도둑놈!’ 하며, 도둑이 든 시간이 몇 시였는지 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신발은 복음을 뜻합니다. 기도해야 시대의 복음을 받는데 새벽 1시나 2시에 받을 말씀을 늦게 일어나서 못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에 자면 게으른 것이 되어 그 순간 복음을 도둑맞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지요? 「게으른 자에게 도둑, 강도가 온다.」 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시간을 꼭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선생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제시간을 지켜요. 계시받는 자들은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깊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계시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헛계시받지 말아요.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계시를 선생에게 보내면 선생이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섭리세계 전체는 서로 이끌어 주고 용기를 주며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동안 내가 기르고 준비시킨 자가 세상 사람 중에 섞여 있는데 전도자가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왔다. 사람을 의식했다.”**고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거리에도 준비된 자가 지나간답니다. 말하면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섭리사로 오게 하면 10만은 넉넉히 된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담대히 전해 줘야 됩니다. 전도도 프로가 되어 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역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강력한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도 아니고,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마치 임금이 전하는 급한 조서를 전해주는 신하와 같은 일을 하는 주권자입니다.

생명은 똑같으니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간판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으니,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성령과 함께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바닥을 기는 자에게까지 시대의 복음을 전해 줘야 됩니다. 선생도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이 예비하신 자다.’라고 100%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전도하여 초가집으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섭리사 청중 속에 데리고 가서 보이는 것입니다. 월명동 돌덩어리만 보여 줘도 대단하다고 하며 좋아합니다. 섭리세계는 외롭지 않습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말해 주고 섭리역사를 낳은 것을 말해 주면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는 것보다 낫고, 오늘 오기 잘했다고 합니다.

전도하여 데리고 왔으면 천사를 대접한 듯처럼 끝까지 대접을 잘해 줘야 됩니다. 전도된 자를 위해 위험한 것에서 보호해 주고, 그 생명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듯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발에 감춘 인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차 좋은 것입니다. 숨은 보화들이 많습니다. 누가 큰 보화를 전도하는지, 누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전도를 많이 한 자들을 보면 보통 100명씩 했습니다. 섭리사는 말씀도 좋고 배경도 좋은데 겨우 5명, 10명, 30명, 50명 전도합니다. 100명, 500명, 1000명씩 해 봐요. 인터넷 운전대만 잡아도 팬들이 몇 십만 명씩 되는데, 인터넷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뽐아 넣어 주어 믿게 하면 다 전도한 것이 됩니다.

전도는 방법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금년도에 1인 1명씩 전도해야 합니다. 실력자는 2명씩 하면 12월 전에 수만 명이 주님 품에 돌아옵니다. 그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어 불같이 뜨거운 마음과 영과 육이 되어 시대 사명을 하며 살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0월 14일 수요말씀>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쯤 되었는가?

본 문 누가복음 17장 28절

창 세 기 7장 1-5절

참고성구 창세기 6-8장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날에 대하여, 자기 끝 날에 대하여 그렇게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말세에 대하여, 자기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앞날이나 세상 말세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고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날과 세상 말세에 대하여 안다면 해를 피하고 아는 만큼 유익이 되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세상 말세나 개인의 앞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날에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과 그 시대가 당했던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앞날에 닥칠 세상 말세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앞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할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롯의 시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대는 어느 지점과 어느 상황까지 왔으니 너희는 이때를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세상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세가 있었고, 또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 시대의 말세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나머지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보다 더 수만 배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보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고 가치 있고 뜻있게 살면, 그 영혼에게 의가 되고 공력이 되어 그 영도 구원받은 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영이 되어 살게 됩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행복입니다.

신입생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창세기 6~8장을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20분이면 읽으니까 꼭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세계적인 말세가 온다. 그때 지진·태풍·전쟁·전염병·가뭄·추위 등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으로 재난이 닥칠 것인데, 이는 마치 노아 시대 말세 때같이 되**

리라.”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일들을 이 시간에 다 말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모두 집에 가서 읽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핵심만 말하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사는 노아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이 시대의 죄가 관영하였기에 내가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아내와 남편을 삼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 나는 세상을 창조할 때 최고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였건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니 내 뜻, 곧 인간을 창조한 뜻을 이 땅에서 이를 수가 없구나. 고로 그 행한 대로 이 땅을 모두 멸할 것이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할 때 너와 네 식구들이 악인들과 같이 죽지 않고 피하여 살게 되리라. 배의 크기는 내가 정해 줄 테니 그대로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나오고, 배를 다 만들고 홍수가 땅에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그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600세, 120년이라는 것은 이치로 볼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 먼저 믿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인생은 100년이 아니냐. 시대마다 날짜를 계산하는 법도 달랐고 국가법도 달랐다. 노아의 나이도,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도 그 시대 법으로 날짜를 계산했기에 그같이 나온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으니 나이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지금의 계산법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다시 따지면 노아의 나이 50세에 홍수가 난 것이다.”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나이로 50세에 홍수가 난 것이고,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면, 이 시대 날짜 계산법으로 기간을 따졌을 때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40대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달력이 없을 때이고, 지금같이 1년을 365일로 계산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모두 800세, 900세를 살았다고 나옵니다.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다시 계산하면 나이가 60세, 70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요?

노아 시대에 나이를 따졌듯이 지금도 그렇게 따진다면, 현재 중고등부들과 대학생들도 나이가 100세가 넘을 것입니다. 30세가 넘는 자들은 400세 먹은 격입니다. 50세가 넘는 자들은 600세 넘게 먹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노아 시대와 구약 시대의 날짜 계산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최고로 발달되고, 늙지 않는 약을 만들어 먹어도 인생 100년이 가면 98%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과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에게 적당한 운동은 약이다.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다가 10일, 20일 운동을 쉬어도 별 표가 안 난다. 그러나 나이 든 자들은 운동하다가 일주일만 쉬어도 탄력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진다.

60세 먹은 자가 50세로 보이게 동안(童顏)이어도, 70세 먹은 자가 60세로 보이게 동안이어도 80세 먹은 자가 60세로 보이게 동안이어도, 90세 먹은 자가 70세로 보이게 동안이어도, 또 실제로도 그같이 건강해도 결국 어쩔지 모르나? 죽음의 날은 거의 다 같아. 그리 알고 살아.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이 그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고생되어도 그 나라를 향해 살면 행복한 것이다.

90세 먹은 자는 아무리 건강하고 흥안 소년 소녀 같아도 죽음을 넘어가서 사는 자다. 다만 젊어 보이고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80세 먹은 자가 아무리 동안이어도 120세, 130세를 넘어서까지 살겠느냐? 인생 90이면 거의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으로 따진다.

차를 아무리 깨끗하게 타도 엔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턱없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한 마디로 알아듣게 말할까요? 여자의 얼굴이 아무리 젊어 보이고 동안처럼 보여도 여자는 50이 넘으면 생리 현상이 멈춥니다. 남자도 알아듣게 말할까요? 60세 먹은 남자가 30세로 보이는 동안이라 해도 정력의 한계는 장마철을 지난 계절같이 가을 계곡입니다. 그러니 나이 먹었어도 다른 자들보다 젊게 보이고 더 오래 산다고 계산하지 말고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드느라 고생했다. 고생되어도 살 길을 가야 된다. 앞으로 40일 동안 비를 내려 이

지역을 홍수로 멸하리라. 7일 후에 비를 내릴 테니 너는 너와 식구들과 네게 딸린 가축과 이 지역의 짐승들 한 쌍씩을 배에 태우고 배 문을 닫아라. 지금부터 급히 행하라. 지금부터 7일 후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이 지역은 바다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식구들을 배 안에 태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 세 명, 아들의 아내 3명 합하여 모두 여덟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소돔 땅의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듯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하며 배를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니,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비웃으며 그저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도,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완벽하게 행하면 자기 의지와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고해지게 되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생각할 때 자부심이 있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니, 그 어떤 신을 믿고 사는 자들을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와 정신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천법으로도, 인법으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로 보고 대해야 됩니다. 자기 애인보다, 자기 남편보다, 자기 부인보다, 자기 부모보다, 자기 형제보다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로 보고 대해야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 부모와 형제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절대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같이 창조하였기에 그같이 행해야 됩니다.

노아는 배를 다 만들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구원의 배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 성을 빠져나가자.”고 했을 때 농담으로 생각하고 전혀 믿어 주지 않았듯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자만, 그것을 믿는 자만 행하게 됩니다.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압니까? 무지하면 불행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몰라서 고통에 빠지고, 몰라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만이 절대적인 전능자시니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아는 자에게 역사하여 더욱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비방하고 믿어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서 자기 식구들과 자기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동물들까지도 배에 실어 살렸습니다.

선생도 지난 30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동안 극적인 환난이 있었어도 기어이 하나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여 ‘섬리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실을 것을 다 실은 후에 배의 문을 닫으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40일 주야로 퍼부어 그 수위가 15규빗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약 45cm 정도 됩니다. 15규빗이니 675cm, 즉 6.75m이니 약 7m가 갑자기 불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평야 지대에 비가 7m나 차오르니 어디로 가서 피하여 살겠습니까? 나뭇잎으로 원주민같이 초가집을 지어 살던 자들이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10m가 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잠시 피했다 해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퍼붓고 먹을 것도 없으니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물이 빠질 때까지 150일이 걸렸는데 다섯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빠졌어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다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4~5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서는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산 자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노아의 여덟 식구는 의인으로서 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공의롭습니다. 심판 날에 하나님은 오직 의인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 전에 죄인들을 마치 의인 대하듯 하시면서 그렇게도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어 “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돼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을 보세요. 악인도, 죄인도, 의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회

개할 기회 때에는 사랑해 주시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정한 날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자는 심판을 면하여 살고,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영과 육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여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었고,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멸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자가 갖은 몸부림을 쳐서 수만 평의 땅을 사 놓았습니다. 목적은 그곳에 빌딩을 짓고 호텔도 짓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2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며 수고하여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 땅에다 빌딩과 호텔을 지으려고 돌아와 보니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자들이 자기 땅에 움막과 초가집과 흙벽돌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보는 자들은 “땅이 너무 아깝고 보기 흉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남들이 자기 땅을 침범하여 그같이 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여 쌀도 팔아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서 자기가 그 땅을 산 목적에 대하여 이해시키며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사 놓은 땅인데, 이곳에 빌딩과 호텔을 지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살던 자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맙다고 하며 나갔으나, 일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 기간을 주고 모두 다 나가 달라고 했지만 그날까지 나가지 않아서 결국 철거했습니다. 법적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이 작은 비유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도록 최고의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생도 주님과 함께 이같이 섭리를 펴 왔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반항한 자들의 현실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지옥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경점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각자의 행위대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이제 시작된 곳도 있고, 이미 끝난 곳도 있다. 곧 대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 하나님이 그 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때와 같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후면 비가 온다. 그 비는 40일 동안 쏟아지리라. 너는 각 동물 한 쌍씩과 네 식구들을 배에 들여보내라.’ 하신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일이 남았다는 말씀이 나갔다고 해서 ‘1일은 1년이다. 그러니 7년 남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계시받는 자들 중에 몇 사람들을 보면 틀리게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니깐 선생이 전하는 말씀 비슷하게 받아서 보내고, 자기가 볼 때 이상 있게 받은 것은 안 보내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보내기도 합니다. 실상 선생은 계시의 내용을 안 보아도 주님께 그 이름만 대면서 그에게 계시하신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압니다.

좋은 계시들을 보면 거의 자기 깨달음과 지혜로 받고, 혹은 협조 영과 천사들의 계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곱 명 정도만 주님이 많이 계시를 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자기 생각과 지식,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그중 일부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 귀신들의 계시도 섞어서 받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사탄의 계시를 심하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다행히 선생이 이야기해 주면 모두 잘 듣고 따라오니, 더 이상 계시를 받지 말고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에 충집중하라고 말해 주면 그대로 합니다.

선생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맘 놓고 계시에 대해 가르쳐 주고 일일이 코치해 주겠는데, 편지와 글로는 한계가 있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절제시키고, 마치 운동장을 도는 데 끝까지 선두에 뛰는 자들을 세우듯이 사명자를 세워서 사명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 알기 바랍니다.

가다가 계시를 잘못 받았어도 그동안 확인받고 간증한 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깊이 깨달은 것과 자기가 겪은 것을 간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는 ‘주님의 계시다.’, 혹은 ‘자기가 겪은 것이다.’, 혹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다.’ 구분하여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에 들어가라.’고 하신 때와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주님께서 외치는 생명의 말씀, 즉 재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배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는 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주님이 택하신 자들과 우리들 모르게 주님이 기르신 자들을 찾아와 생명의 말

심을 전하여 시대 복음의 배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의 품, 사랑의 품, 주님과 심정 일체 되는 배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때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계산법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목적하신 ‘섭리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섭리사가 노아 시대와 같이 그러하다고 그 시대를 생각하며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배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구교와 신교가 만들어 왔습니다. 다양하게 복음을 퍼 많은 자들을 구원하며, 여러 종파로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에 따라 그 복음이 더욱 이상적이기도 하고, 더욱 뒤떨어지기도 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말씀의 차원도 다르고, 그 시대에 사역하는 것도 다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영혼이 죽고 제대로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섭리역사도 지도자들이 선생을 따라 희생하면서 뛰고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 이만큼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섭리사 성령 집회를 할 때 기성 교회에서 와 보고 “여기는 신앙이 살았다. 속이 시원하다. 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며 밀려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생명이 살아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말세를 놓고 어느 경점까지, 어느 때까지 왔느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다 만드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7일 후면 심판이 시작되니 지금부터 각 동물 한 쌍씩을 배에 들여보내라. 물로 멸하면 물고기를 빼놓고는 다 죽으니 각 동물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각 동물 한 쌍씩을 배에 들여보내어 살려라. 그리고 네 식구들도 배에 태워라.” 하신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심판 후 후대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씨앗들을 남기시거나, 혹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때와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모르고 짐승같이 육신만 위해 사는 자들에게 이 시대 말씀을 전하여 인생들을 끌어 모아 이 시대 복음의 배에 들어오게 하라. 너희들도 완전히 회개하고 섭리 복음의 배에 들어와라. 섭리사가 가난하다고 하며 돈 벌러 세상에 나간 자들도 들어오게 하고, 각종 이유로 세상으로 나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여 들어오게 하여라. 또 너희 부모, 형제, 친척, 친구와 인연이 되어 얽힌 자들도 모두 오게 하여라. 그동안 내가 밖에서 기른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택해 놓았다고 확실하고 진지하게 말하여 오게 할 때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문은 심판과 함께 닫힙니다. 앞으로 환난이 일어나면 자기 신앙 관리해야지, 남 신경 쓰기 힘듭니다. 이 때가 남은 앞날에 비하여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행하는 자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전도 집회에서 외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시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전도자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생명을 데려옵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그날 정확한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기대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하면 생명들을 데려온 자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진지하고 실력 있게 이 시대에 대하여 능력 있는 말씀을 쏟아 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는 그들도 이미 다 들었으니 오직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데리고 올 때는 전초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생명들이 얼마나 남는지 봐요. 그 자리에서 100% 다짐하게 하고, 80% 이상 남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인생 강의를 하지 말고 생명 강의를 할 때입니다. 여유 부리지 말고 솔직한 말씀을 직접 전해 줘야 됩니다.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심정이 뜨겁도록 뜨겁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개인이 전도할 때부터 숨기지 말고 아예 신앙의 근본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며 확실히 시대 말씀을 전해 줘야 됩니다. 개인 전도가 최고로 실속 있습니다. 1:1 전도가 실속 있습니다. 2:1은 힘듭니다. 자기가 확실히 한 명을 전도하고, 그와 같이 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실히 한 명을 전도하여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을 잘 추려서 전해 주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해다가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확실히 말해 줘요. 뱅뱅 돌리지 말고 해요.

이미 전도된 신입생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말할 때 오고 싶었는지, 어떻게 할 때 마음이 감동되어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부족한 것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며 그들의 심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아 성령에 감동되어 나 예수와 함께 가서 하면 다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이 부흥강사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대 걸지 말고 자기가 해요. 주님이 전도자를 통해 불같은 말씀을 하시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집회 때 말씀이 지루하면 안 받아들이니 핵심과 근본의 메시지를 전해 줘야 됩니다. 좋다고 하는 자 70%, 싫다고 하는 자 30% 하면 안 됩니다. 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짐하고 믿게 해 줘야 됩니다. 집회 때 한번 오고 다시는 안 올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전도해 온 자들과 전도된 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연결되면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실상 소규모 집회가 실속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웅장하지만 실속은 적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장점은 보는데, 자기 모순과 단점을 모르고 고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나 지도자는 경지에 오르려면 단점을 다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자기가 왜 지옥에 갔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과 자기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지옥에 왔는가?’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쳤으면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패자는 자기의 장점만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인생을 살 때도 단점을 고치고 살아야 되고, 집회를 할 때도 단점을 보고 고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첨단에 오르려면 빨리 자기 단점을 보고 고쳐라.” 하셨습니다.

선생에게 장점만 보고하면 제대로 고치해 주지 못하니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장점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자기가 날카롭게 봐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단점을 죄인지 모르니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회개하여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에게 세밀하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이끄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포자기하지 않으려면 자기 장점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꼭 보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성만 갖겠다며 자기 단점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잘 들어요. 옆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 선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은 매일 자기의 단점과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을 생각하며 고치고 연습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도 재림 때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흠 없이 나아가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특히 요즘 주님은 각 개인에게 자주 가시니 제발 흠 없이 맞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흠 없이 주님을 맞으라고 선생이 독촉합니다.

얼굴은 미인인데 코가 비뚤어졌든지, 눈이 애꾸눈이든지, 입이 찔려거나 돌아갔든지, 귀가 찌그러졌든지, 얼굴 형에 모순이 있으면 미인이 아닙니다.

- 어떤 자가 코만 세우고 “나 미인이지?” 한다면, 코 미인은 될 것입니다. 눈을 짹짹이인데 코만 세운다고 해서 미인이 될 수 없지요. 코만 미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어떤 자는 자기가 몸짱이라고 자랑합니다. 가슴은 풍성한데 히프가 빈약합니다. 가슴만 몸짱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자는 가슴과 히프 모두 끝내 줍니다. 정말 몸짱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허리는 대짱입니다. 배는 임신 9개월, 10개월 만삭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몸짱이 아니지요.

- 어떤 자는 가슴도, 히프도, 허리도 끝내 주는 몸짱입니다. 100점짜리 몸짱입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사슴 발목만 합니다. 사막의 노루 다리입니다. 그러니 전체 몸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같이 힘들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신앙의 모든 것도 다 갖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몸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선생의 말 좀 들어 봐요. 운동을 매일 하는데 가슴 운동만 하면 가슴만 나오지, 히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그렇습니다. 히프 운동을 해야 히프가 튼튼해집니다. 다리 운동을 해야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지체는 각각 운동하는 대로 그 지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약한 것과 단점을 보강하고 튼튼하게 해야 거기에 유능해집니다. 믿습니까?

서운함을 잘 타는 자들은 서운함 타는 것을 다 고쳐요. 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서운함 타는 것입니다. 그

런 자는 절대 나 만나러 오지 마세요. 선생 시험 듭니다. 주님도 그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서운함을 잘 타는 자는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다 뜻이 있어서 그 일을 시킵니다. 어느 때는 생각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순종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큰일을 시킵니다. 이때는 앞날의 환난을 위해 다 고쳐 튼튼하게 해 놓아야 하는 긴급한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출 것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지체와 같다고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골고루 매일 행해야 각 지체가 튼튼해지듯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몸짱인데 정신이 썩은 자들이 섬리 안에도 있고, 섬리 밖에는 너무 많습니다. 육은 미인인데 영의 존재가 원주민입니다. 정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섬리사에서 특히 지도자들은 청중이 보고 기대하니 두루 갖춰야 됩니다. 사람이 수영복을 입으면 자기 몸매가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행실이 다 보입니다. 신앙을 두루 갖춘 자들을 부러워할 때입니다. 영의 눈으로, 지혜로, 이치로, 말씀의 거울로 비춰 보면 사람들의 행위를 다 알게 됩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노파심에 경고 한마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이 지체 비유를 했다고 해서 “당장 쌍꺼풀 수술할 거야. 코 높이는 수술할 거야.”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수술하라고 한 말이 아니고 비유를 들어 신앙을 갖추라고 한 말입니다. 속눈썹이 눈을 심하게 찌르면 의학적으로 손을 대고, 코가 너무 비뚤어져 숨이 안 쉬어지면 해야지요. 자기 스스로 외모에 위축받아 수술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데 괜히 눈을 찌고 코를 올리면 안 됩니다.

섬리사에 초승달 눈을 가진 자가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너는 쌍꺼풀 수술 안 하면 눈 값 할 것이다. 작품이다. 초승달이 크듯이 네 인생도 점점 클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두 생긴 대로 특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섬리사에 눈이 동그랗게 나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금붕어다. 멋있다. 작품이다.” 하셨습니다. 이에 선생이 그를 보면서 “금붕어야.” 했더니, 한번은 “선생님! 저는 정말 눈이 콤플렉스예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선생은 “네가 울어도 나는 너를 금붕어라고 부를 거야.” 했습니다. 그 금붕어는 섬리 어항에 끝까지 남아 현재는 종직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생긴 것을 보시고 별명을 지어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마다 사자, 호랑이, 치타, 통통 돼지, 코끼리, 공작, 사슴, 사막의 낙타, 타조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 했다고 또 편지로 자기 별명이 무엇인지 내게 묻지 마요. 자기가 거울 보면 떠오릅니다. 또 주님께 꿈에 전해 달라고 물어봐요. 자기 행위나 생김새를 보고 별명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허리가 개미 같은데 코끼리라고 별명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가까이하고, 최고로 믿고, 최고로 순종하고, 최고로 일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수백 번씩 부르며 일체 되어 찾고, 그때그때 구하고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체가 기도하여 사탄을 몰아내고, 섬섬함과 서운함을 타면 사탄이 침범하니 선생에게 편지해요. 나와 의논하고 자기의 생각과 속 이야기를 내게 해 줘요. 그러면 풀어 줍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되어 오는 자들이 많다고 “누가 다 가르치지?” 하지 말고 50명, 100명, 200명을 모두 한꺼번에 가르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명이 한꺼번에 와서 감당 못 하겠다며 걱정된다고 내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000명이 와도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지요. 담대하고 과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세계 각 나라도 전도 열심히 해요. 의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았다고 해서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영원한 의의 왕이십니다.

인생들과 주님을 비교하여 여쭙었습니다. 초가집과 빌딩같이 차이가 있느냐고 하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초가집과 지구같이 차이가 있느냐고 하니 이 말에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초가집과 우주같이 차이가 있느냐고 하니 그제야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와서 보면 그제야 다 알고 나를 대할 것이다. 제발 이 세상에서 나를 우러러보라. 너희 생명을 귀히 생각하여 나 예수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사정도 하고, 참아 주고, 견디는데 입으로만 구세주로 표현하지 말고 솔직히 제대로 대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각 인생들을 찾는 것을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의의 왕이신데 한낱 사람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자주 만나는 때도 이때가 지나면 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땅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도 순수하게 우리를 잘 대해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각 개인에게 찾아가 만나 주고 사랑해 주고 도와주며 메시아로서 할 것을 다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죽는 날을 알고 자녀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서 내가 말한 대로 살라고 하는 격과 같이, 주님도 떠날 날을 아시니 섭리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고, 이 시대 사람들도 그같이 대해 주시면서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를 알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며 간절히 주님을 대해 봐요. 꿈에, 혹은 생시에 마음으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선생도 제자들에게서 지난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몰라서 못 했다고 깨닫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편지가 오면, 몇줄이라도 그러했다고 답을 해 주면서 지금도 내 마음 변함없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계시란, 자기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짚어 내고 말할 때 맞으면 ‘그렇다.’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께 “저는 죄가 있지요?” 해 봐요. “다 회개되지 않았지요?” 해 봐요. 아직 죄가 있으면 “그래.” 하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혹은 “다 회개되었지요?” 해 봐요. 죄가 없으면 “그래.” 하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즉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네가 너를 알면서도 묻느냐?” 할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해 봐요. 주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면 즉시 대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전도자들은 전도할 때 “세상에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하여 왔습니다.” 하며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봐요. 그러다가 더 깊은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며칠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해 보라고 해 봐요. 주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킬 테니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신입생들에게 계속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0월 18일 주일말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본 문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 예수를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자들은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선생이 사는 한국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춥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생은 새벽에 일어나 냉수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보통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새벽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적은 땅에서 받고 하늘 나라에 가서 받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정신이 번뜩 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할 것입니다. 자기 몸인데도 왜 그 작은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요? 정신이 육을 못 이기고 못 다스리는 자는 못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자는 인생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봐요. 모두 뒤를 쳐다보세요. 정말 얼마 안 되지요? 손 내려요.

축구 선수, 배구 선수, 수영 선수, 테니스 선수, 탁구 선수 등 각종 선수들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몸이 잘 따라 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한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신’입니다. 자기 정신과 영혼이라는 신이 행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행하라!’고 말씀했지만 잘 안 되었지요? 행하기는 했지만 100% 안 되었지요? 행여 행한 자 일지라도 오래 못 하겠지요? 안 되니까 낙심되지요? 포기하고 싶은 자도 있다고 내게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해야 된다. 그 시간에 못 하면 그다음 시간에 늦더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1시에 못 일어나면 2시에 일어나고, 2시에 못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고, 3시에 못 일어나면 4시에 일어나고, 4시에도 기도를 못 하면 5시에라도 일어나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은 것은 용납할 수 있으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면 자신이 날마다 못 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행한 위치로 옮겨집니다. 자기가 행한 위치는 꿈으로 보이기도 하고, 계시로 알기도 하고, 낮에도 자기가 행한 위치대로 삶이 살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좋게 마음먹고 행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해 보면 되다가 안 되고, 오래 지속적으로 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주님은 “왜 그런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네 마음은 원하는데 네 육신이 약해서 못 하는 것이다. 고로 육신과 정신을 연단시키고 체질화해라. 습관을 들여라. 습관이 들기까지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10번, 20번, 30번 하면 한 단계 습관이 든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타고난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습관이 들어야 된다.

네 선생이 내게 어떤 것이 잘 안 된다고 탄식할 때, ‘좋은 것은 습관화하라.’고 가르쳤다. 습관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판기 알지? 너희의 몸이 자동적인 몸이 되면,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천사가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난 사람이 깨워 주지 않아도, 시계의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잠이 깨지는 것이다.

이 시대는 발달되어 모두 자동화되었다. 실상 만물들을 보아도 때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너희 몸과 마음이 수동이기때문에 발전이 더딘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한 대로 수십 번 거듭 행하면 체질화되어 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이 하기 바란다. 그리하면 자동적인 편한 인생들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부른다.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나를 부른다. 나를 부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구원을 위해 부르고, 사랑하니까 부르고, 고통스럽다고 부르고, 좋다고 부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감사하다고 부르고, 무엇을 물어볼 때 부르고, 기도할 때 부른다. 모두 좋은 습관이 들고, 정신과 영혼에 좋은 체질이 배어야 이와 같이 골고루 때마다 나를 부른다.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하시고 도우시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불려라. 불려야 될 때 아니 부르는 자는 게으른 자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다. 열심으로 불려라.

지금 너희는 세상 끝에 서 있다.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니 매일 나를 불려라. 너희 선생이 나를 수천 번씩 매일 부르듯이 불려라. 너희 선생은 자신과 너희를 위해 나를 부른다. 불려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면 왜 부르라고 하겠느냐. 불려도 소용이 없으면 왜 부르라고 하겠느냐. 나를 부르고 찾고 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영생의 길을 가고, 그 육신도 복을 받고 살게 되리라.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희를 부르고 쳐다본다. 그러나 너희는 육이라서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육의 눈이라서 나를 보지도 못한다. 영과 육의 세계는 다르다.

너희가 만일 나를 부른다면 10번, 100번, 1000번 부르는 대로 나는 너희의 말을 다 듣고 그 행위와 모습을 다 본다. 전능한 신이라서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불려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너희가 나를 불려야 책임을 하게 됨으로 내가 부르는 대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보게 된다. 그러니 항상 너희가 나를 불려라.

그리고 너희 사정을 내게 고하라. 자세히 고하라. 자세히 회개도 하여라. 그래야 꺼림이 없는 것이다. 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를 받아도 심리적으로 죄가 남은 것같이 늘 생각되는 것이다. 고로 생각나는 대로 낱말이 고하여라.

‘고하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한 자도 안 틀리게 읽듯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하나 낱말이 고하라는 말이다. 죄를 지었을 때 한 동작, 한 동작의 행위와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왜 고하지 않느냐. 왜 막연하게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느냐. 기억이 안 나면 성령을 받고 깊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러면 신혼골

수에 있는 것까지 생각날 것이다. 그때 고하라.

사탄이 힐문하지 못하게 깨끗이 고하라. 심판 전에 고해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고통 받고 나서 고하고 회개하겠느냐. 이는 어린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벌지 않다가 실컷 맞고서 그제야 비는 격과 같으니 부모가 속상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죄의 대가가 어찌 한낱 매 맞고 끝나는 정도이겠느냐.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이 육신이 재난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받으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말세에 처한 너희는 영도 육신도 보전하기 위해 심판 전에 회개하고, 심판 전에 전도하고, 심판 전에 자기를 만들고, 심판 전에 공력을 쌓고, 심판 전에 성령을 받아 재림 전에 예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때에 따라 영도 육도 예비해야 된다.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재림하기 전에 온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빛에 속한 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심판 전에 회개하여 재림 전에 완전히 예비하여 나를 맞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심판과 고통을 당한 후에 나를 부를 것이냐? 네 육신이 죽었든지, 이미 사망권으로 갔는데 그제야 구원자 나 예수를 부른다면 내가 오더라도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는 멀리서 보고 이미 알기에 불려도 가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어 내 마음 답답하니 사람들을 보내어 내게 오라고 외친다.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지금은 세상 끝에 왔으니 나는 너희의 웃을 스치고 마음을 스치고 다닌다. 이때 나를 불려라.

지금 ‘주여!’, ‘예수님!’ 불려 보아라. 내 속이 탄다. 지금 부른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늘 불려 사탄이 너희에게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아쉽겠느냐, 너희가 아쉽겠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주가 가까이했을 때 찾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시하는 자들에게 한 말을 자주 듣고 행하라. 이제 나의 계시를 받는 자들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했던 말을 반복하여 계속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급히 전할 말을 수십 명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한 것은 전체가 빠른 속도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계시하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너희에게 계시한다.”고 하면 귀가 쫑긋 솟으니, 오늘은 설교를 통해 계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다 사연이 있기에 내가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아라. 누구를 부르면서 사는지 보아라. 누구를 부르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누구를 부르면서 잘되려고 하는지, 누구를 부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보아라. 전능자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우상 신을 부른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나 우상 신을 부르며 살았던 자들은 하늘나라에 없다. 어찌 내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어찌 구원자를 믿지 않고서 나의 시대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나를 부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나 예수가 보낸 사명자들을 따라 내게 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용납이 되고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자기가 구원시킨다고 하거나, 마치 자기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듯이 자기를 섬기라 하는 자들은 다 인간 우상이다. 천하에 나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구원할 구원주로 보내지 않으셨다.

내 말은 영원히 변함없다. 속지 말고 매일 내 이름을 불려라. 종 부르듯이, 심부름꾼 부르듯이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엄위와 존경과 사랑으로 우러러 나를 불려라. 도움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나를 불려라. 그리고 나의 심정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며 의지대가 되어 주며 나를 불려라. 내 심정을 아는 자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나를 전능자, 저 높은 하늘 위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로만 생각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쳐다보지 말아라. 나는 네 옆에서, 이곳저곳, 이 민족, 저 민족 돌아다니며 애간장을 훔훔 태우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자기 애인 처다보듯이 너희들을 쳐다본다. 홍수 때 댐이 터져 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 식구들에게 말해 주고, 자기 애인에게 말해 주는 자와 같이 심정 태우면서 너희들을 챙기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하고 나와 같이 외치면서 내 심정도 알아달라는 것이다. 천국에 와서는 내 심정 알아달라고 이같이 심정 태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영원히 안 한다. 이 한때뿐이다.

내가 안 보여도 보이는 자를 대하듯 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 행위를 다 보고 있다. 범사에 나를 부르고 나와 의논하는 자가 적구나. 정신이 신령하지 못하니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내 심정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한숨 덜 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기도해야 세상 잡념이 없어지고, 그 순간 집중하여 정신이 영적 세계로 향하여 자기 정신이 자기 영혼과 일체 되어 영의 세계를 느끼게 되고 나와 통하게 되기도 한다. 너희 정신과 마음이 신령해져야 실수하지 않는다.

내 일을 해 주려면 반드시 나와 의논해야 된다. 어린 자들은 마음이 순수하여 나의 계시를 많이 받는다. 신앙의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어린 자들을 말한다. 나는 너희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야 되기에 지금도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간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니까 내가 받는 고통과 내 심정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 줘도 그저 마음만 안타까워 울지, 어른들이 느끼고 나를 대하는 것만 하겠느냐. 아쉽다.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계시를 줄 수도 없다. 마음, 바탕, 조건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이다. 고로 어린 자들에게 계시한 말을 듣고 너희가 내 심정을 알고, 나의 애대움을 알고 깨닫고 행하라.

사탄의 유혹과 계시를 받게 된 자들은 사탄을 물리쳐라. 인성 계시로 치우친 자들도 있다. 인성, 감성, 사람의식, 자기 우선권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 생각대로 계시를 받게 된다. 고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받아라. 내가 계시를 주다가 그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계시를 준다. 너희 선생은 내 심정을 알고 분별하여 계시를 전하게 한다.

화목하여라. 근신하여라. 이 시대가 어느 경점까지 왔는지 이미 말하였다. 나의 불같은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숨넘어가는 소리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너희는 그 자리에서만, 혹은 몇 주만, 혹은 몇 달만 새기고 마는 자들이 많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계속 불을 때어라.

계속 기도하여 나의 심정을 받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라.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움직이고 행동하여 옛 위치의 삶을 싹 버리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모두 새롭게 되어야 한다. 열매 없는 나무는 모두 벨 것이다. 못하는 자 대신 새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안 보이느냐. 먼저 된 자인데 나중 된 자가 많다. 섭리에서 연륜이 된 자들은 뛰어라.

지옥이 상상 못 할 고통의 세계인 것을 너희가 1억만 분의 1만 알아도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애간장 태우며 말할 필요가 없다. 나 예수도 지옥을 쳐다보며 마음의 괴로움을 지옥같이 느낀다. 그것을 보면서 계시하니 지구가 녹아지는 듯한 급하고 애간장 타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앞날에 밀려오는 환난을 생각하라. 무시무시하고 상상도 못 할, 성경에서 말한 각종 환난들이 너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마치 어린 꼬마들이 바닷가에서 정신을 빼놓고 놀고 있는데, 수백 미터 앞에서 40~50m의 높이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몇 명 보내어 어서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

원자폭탄이 터지기 하루 전에만 알았다면 누가 거기 있었겠느냐. 그 차가 사고 날 차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 차를 탔겠느냐. 추락될 비행기인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탔겠느냐. 기암절벽에서 떨어질 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날 등산을 갔겠느냐. 노아 시대에 그같이 될 줄 알았다면 배에 타지 않을 자가 있었겠느냐. 롯 시대에 그같이 될 줄 알았다면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지 않을 자가 있었겠느냐.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똑같다. 나는 분명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 진정 나를 부르고, 오직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내게 피하라고 말했다. 이 시대 사람들도 환난의 전날까지도, 그 날 그 시간까지도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하다가 그 날을 당하게 된다.

내 말을 듣고 너희 영혼과 육신을 위해 나를 불려라. 나를 부르고 구원을 받으면 너희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내 나라에 갈 수 있고, 육신도 환난을 감하여 받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몸부림치면서 행해야 된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도망가는 자가 힘들다고 가다가 앉아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롯과 그 식구들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서 몸부림치고 자기 걸음을 재촉하며 끝까지 갔기에 살았다. 이와 같이 이 시대 너희도 그같이 하는 자만이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게 된다. 만일 육신이 죽어도 두려워 말아라. 영혼이 멸망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느냐.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형제들로 인하여 심정이 상한 자, 자기를 몰라주어 서운한 일을 당한 자, 실패한 자, 내게 잘못된 자, 외롭고 쓸쓸한 자, 사랑에 굶주린 자,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든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앞날이 불안한 자 모두 나를 불려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책임질 테니 진정 나를 불려라. 내 아버지 전능자에게 간구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진실하게 찾아라. 성령을 받고 행해야 사탄이 와도 물에 기름이 섞이지 않고 돌듯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환난과 고통과 각종 재난들이 어떻게 닥칠지 너희는 상상을 못 한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예비하듯이, 대홍수가 나기 전에 예

비하듯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그곳에서 떠나 피난을 가듯이 피해야 된다. 그리하면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오해하지 말고, 절벽에서 밧줄을 잡고 디딤돌을 밟듯이 나를 굳건히 잡아야 된다. 모두 나와 내 아버지를 부르기를 간구한다. 사탄, 악마, 귀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을 나는 다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여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당하지 않게 해 주리라. 천사들도, 나도,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너희가 불러야 돕고 구해 주신다. 너희가 관심 없이 사는데 종처럼 도우러 다니겠느냐.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나의 평강을 받아라. 나를 부르는 자가 거울철의 솔처럼 남아지고, 저 산의 기암절벽처럼 남아지고, 소돔 땅의 롯처럼 남아지고, 아라랏 산 기슭의 노아 여덟 식구처럼 남아지고, 나와 같이 영원히 남아 지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와 네 형제와 민족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하여라. 기도해 주어라. 너희를 구원한 자는 나 예수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10분 정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말씀을 쓰려고 하는데 이 일, 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는 주권자의 주권과 통솔에 매여 신앙의 자유가 없어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삽니다. 주권자의 무지로 인하여 그의 통솔과 권력과 그 나라 법에 공공 묶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권력과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한마디만 하시면 다 뒤집어질 것인데, 왜 그같이 하지 않으시고 애간장 태우실까? 무신론자, 독재자, 악한 주권자들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데 왜 50~60년이 넘도록 그냥 두실까?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악한 자들 밑에 사는 악자들은 살면서도 당할 것 다 당하고 고통 받는데 왜 그냥 놔두시나?’ 생각하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애간장 태우시며 고통을 받으실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같이 애간장만 태우지 마시고 능력을 부려서 모두 뒤엎으시면 될 텐데, 왜 시골 아저씨가 노동하듯이 하시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국의 왕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세로 자기 말을 안 듣는 나라를 즉시 쳐부숴줄 것입니다. 옛날 대국의 왕들은 마치 ‘신’처럼 섬겨졌습니다. 대국의 왕들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나라 밑에 속한 이웃나라의 왕들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일 해가 못 뜨게 할 것이다.” 하면, 즉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사상과 주권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주권자들에게 이같이 하시면 즉시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요즘 주님의 애타는 심정의 말을 듣는 자들도 그같이 생각하기도 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쓰겠으니 주님께 써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 “네가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못 풀면 하나님도 별것 아니고, 주님도 별것 아니라고 하며 끝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인간의 생각, 속뜻에 의한 전지전능이 아니다. 공의와 의와 사랑과 모든 것에 의한 전지전능이다.”

선생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주권자들과 독재자들 밑에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가시나무 불사르듯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 “그러니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 : “우리 민족이 북한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도 북한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만일 북한이 한 대국의 왕을 그같이 대했으면, 일주일이면 그 나라 왕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대국의 왕들을 신이라고 하며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도 왕이 알고 원하면 즉시 저를 이곳에서 끌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옛날 왕들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설교를 쓸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설교를 써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선생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없다.”고 하거나, 혹은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보고 “보이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같이 놔두실까? 대국이 힘이 있고, 주권자가 능력자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거의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불렀는데 안 도와줘서 안 믿게 된 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문을 속 시원히 못 풀고 삽니다. 섭리사 모두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살기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주권자의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거의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인간이 하면 되지, 신이 뭘 해 준다는 것이냐?” 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특별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육성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삽니다. 자기가 가난과 어려움에 떠내려가지 않으니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보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며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전지전능이지, 사람이 원하는 뜻을 위한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만을 해 주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믿도록 책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게 되며 결국 그 죄값으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주권자 밑에 사는 약자들은 그들과 같이 사망길로 가야 되니 정말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고, 민족의 권력자와 주권자들의 죄로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받으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주권자들이나 강자들을 통하여 받는 고통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 같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교회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냥 계시나?’ 생각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전지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국 앗수르나 우상의 나라 바벨론을 통해 치셨습니다. 의인 아벨이 사명을 하지 못하면 악인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밤 큰일 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기에 그 말을 안 믿고 제 할 일을 합니다. 순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해 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전도된 자들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며 참아 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입생들의 각종 의문들을 풀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스테반도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항상 영생이 따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이해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 주님에 대하여 잘 깨닫게 되고 의문을 풀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선생은 주님을 불려서 현재 육신도 살아 있고, 영혼도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불렀기에 나의 육신이 꼭 죽을 환경에서 60여 번이나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불렀기에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주님의 시종을 들면서 섭리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가정국도, 장년부도, 특히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주님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부르는 자는 만사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영육으로 꼭 원하는 것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쉬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0월 21일 수요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 문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금주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 생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구세주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흔히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첫째, 육신이 살아야 영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은 마치 어머니 배 속의 태아와 같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살아 갑니다. 고로 누구든지 자기 영은 자기 육과 절대적으로 생명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태아를 배고 있는 어머니가 죽으면 배 속에 있는 태아도 죽듯이,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죽지는 않지만 그 육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육신이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면 그 영도 육신을 따라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고, 육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사망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자기 영과 육은 절대적인 생명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육신도 잘되고 구원을 얻고 그 영혼도 잘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흑암의 세계, 곧 사탄·마귀·귀신들이 사는 세계의 주관권에서 나와 하나님을 믿는 세계, 곧 빛에 속한 세계, 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이 구원받은 삶’이란, 자기 중심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존재를 섬기는 체제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는 하나님 주관권 세계의 삶을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 영도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절대 중심으로 살게 됨으로 흑암과 사탄의 주관권 세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빛의 생명권으로 나와 구원받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 - 새벽에 완성)

구원에는 영적 구원만도 없고 육적 구원만도 없습니다.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육신이 잘된다.’고 했습니다(요3 1:2). 육신이 주님을 제일 근본으로 하여 잘됨같이 영혼도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영육 구원입니다. 살아 있을 때 육신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도 영도 잘되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만 영이 잘되면 손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한 명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도 그중 하나가 그로 인하여 잘되면 손해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부모가 고생해도 그 대가로 자식이 잘되면 영광입니다. 둘 다 잘되면 더 좋은 영광이지만 한난 때는 둘 다 잘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이 금식을 해 가면서 참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면 자기 영은 그 대가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환난 때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갈 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쉬운 이야기로, 힘들 때 부모는 자녀 생각, 자녀는 부모 생각하면서 가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가면 고통을 받을 때 이깁니다.

선생도 힘들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희망을 걸고 갑니다. 왜요? 내가 힘들게 기르고, 도와주고, 노력하며 키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은 힘들 때마다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자!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니 저들이 잘된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며

이겼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자녀에 대한 희망, 형제에 대한 희망, 물질적 희망, 사랑의 희망 등 보이는 자들로부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이 운동장을 돌 때 똑같은 빠르기로 하루는 30바퀴, 또 하루는 40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30바퀴를 뽀 날보다 40바퀴를 뽀 날이 훨씬 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30바퀴를 돌 때는 바퀴 수만 세면서 돌았고, 40바퀴를 돌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부르면서 감사하디고 말하면서 뛰었기 때문 입니다. 그때는 몇 바퀴 돌았는지 세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몇 번 불렀는지 그 수만 세면서 거기에 빠져 뛰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뛰니 영적인 힘이 와서 숨 가쁘지 않게 잘 뛰었습니다. 영이 잘되니 육도 잘됐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살 때 주님을 부르면서 가면 이깁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패합니다. 어떤 자는 선생의 이름만 부르고 갔는데도 힘들지 않고, 이겼디고 했습니다. 선생도 전에 중국에서 고생할 때 매일 50여 명의 제자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면서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뒤바꾸어 보내니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정신이 빠져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 재미나 이성에 빠져 살면서 육적 고통을 잊는 자는 마치 아편을 먹고 잠간 고통을 잊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 영도 육도 그와 같은 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영과 육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고 형벌을 받아도 역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 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 적들에게 추격받고 포위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목이 터져라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 적들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 우리가 잡으려 하는 아합 왕이 아니구나.” 하며 더 추격하지 않음으로 여호사밧 왕은 살았습니다(대하 18:28~32).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대하 18:28-32)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30]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1]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2]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왕이든, 주권자든, 권력자든, 명예자든, 스타든, 미인이든, 장사든, 세상 어떤 간판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불러야 위기를 면하면서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첫 번째로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구원해 주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책임을 해야 구원해 주는 구원자도 책임을 하고픈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책임을 못 하는데 구원해 주는 자만 책임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입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를 생명체로 비유하면 구원자는 정자와 같고, 구원받을 자는 난자와 같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일체 되어야 생명체가 탄생하듯이, 구원자 예수님과 구원받을 자가 일체 되어야 ‘구원’이라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인간이 각자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자기 책임분담만 하면 천국은 꼭 갑니다. 육적 구원도 꼭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책임을 못 했기 때문이 아입니다. 항상 인간이 책임을 못 하여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 했으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공하려면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주관권의 뜻을 펴면서 성공했느냐, 자기의 욕망과 육체의 뜻을 이루며 성공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성공이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의 성공이냐.’가 좌우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 보이는 사람을 자기의 구원자로 삼고 찾습니다. 물론 사람도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육적인 구원만 임시로 받으면 안 된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

주시는 구원을 이뤄야 육은 일생 동안 구원을 이루고, 영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온 지구가 자기 재산이고 자기 주권 아래 있다 해도 미래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는 순간 없어지는 눈사람 조각상을 가지고 놓고, 지혜로운 자는 돌과 쇠덩어리 조각상을 가지고 좋아하며 삼니다. 봄이 오면 눈사람은 순간 녹아 없어져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날이 되면 육신은 시체가 됩니다. 육신만 가지고 산 자는 눈사람을 가지고 눈 사람과 같이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고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 영, 영, 영, 영이다. 영을 위해 온몸을 투자하라. 영은 영원히 산다. 영을 구원해야 된다. 불이 났으면 사람을 꺼내 구원시켜야지, 물건만 꺼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의 구원’ 때문에 애간장 태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자기 육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자기 영도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시면 별것을 다 해 주십니다. 받는 자만 알게 됩니다.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살았기에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영도 육도 살아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좋아하며 불러야 삶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과 주님도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흔히 보이는 사람만 부르고 의지하게 됩니다. 역시 육적인 자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은 그저 작은 육적인 쉬운 일은 해 주지만 큰일들은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고로 사람을 우선권으로 생각하고 찾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 될 때 그제야 주님을 부르지 말고, 아예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온 세계 모두 주님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차가 수렁에 깊이 빠졌는데 사람만 불러서는 끌어낼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부르고 크레인을 불러야 되지요. 인생들도 그 깊은 사망과 흑암에 빠져서 사탄이 쥐고 있으니 사람을 불러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불러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부르고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잘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부르면 어느 때는 사람을 보내 주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 돕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그 사람의 정신 가운데 역사하시어 지혜와 용기로 스스로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고, 어느 때는 주님이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 내 주기도 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도 아플 때나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오직 주님만 불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주님은 틀어 버리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도 주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가십니다.

아무도 선생에게 올 수 없었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니까 주님은 “**걱정 마라. 무슨 걱정을 그리하느냐. 너는 나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듯이 너도 걱정하지 않게 돼. 나를 부르지 않고 사람만 부르면 행여 그것이 해결되어도 천국이 될 수 없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찾고, 나를 믿어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선생이 해 줄 수 있는 책임 안에서는 나를 믿어 주는 만큼 사명도, 일도 결재해 줍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건들면 주님은 사탄에게 “**감히 지옥에 있는 자들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방해하느냐. 배설물 같은 사탄아, 왜 나를 부르는 자들을 방해하느냐.**” 하시면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미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어디를 가도 강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좋지 않습니까? 선생이 정신도, 몸도 약해서 늘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나를 의지하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강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강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끝까지 굳세게 해야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지금껏 수고한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됩니다. 최고로 힘들 때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큰 운동장을 10바퀴 돌 때, 마지막 9~10바퀴를 돌 때 최고로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지막 직전에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해야 승자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지면 늘 패자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힘든 것이 있으면 자꾸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그래도 힘들면 편지해요. 이런 것들을 편지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게 말했는데 안 되면 옆의 사람에게 말하고 교단에 말해요. 서로 도우면 됩니다.

혼자 놀지 말고 항상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각 개성의 사명자들인 우리도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는 하나가 되어 그 엄청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도 이를 따라 한 덩어리가 되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을 받아 상호 존재하고 다스리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원인이 많은데, 주님은 그중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행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각각 증거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신답니다.

-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것 하나, 예수님 것 하나를 증거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게 하신답니다.

-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시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머지는 예수님 것과 성령님 것을 증거하여 나타나게 하신답니다.

이와 같이 3분의 2 비율로 일하시고, 나머지는 증거하여 함께하게 하시니 항상 한 덩어리가 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 되어 돌아가듯이,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하나 되어 시계가 돌아가듯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일하십니다.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 나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주인이 되어 해야 하니 두 가지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각각 증거해 주어 나타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할 때는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자녀와 부인도 증거해 주어 같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같이 하면 상호 일체가 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도 자기가 맡은 것이면 두 가지를 하고, 사명을 맡지 않은 자에게 한 가지씩 사명을 주어 증거해 주고 자랑해 주며 함께 해야 됩니다. 섭리사 모두 이같이 하면 소외감도 없고, 서로 증거해 주고 말해 주니 같이 일을 함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하여 그리도 일체가 되시냐고 감탄하며 그 비밀을 하나라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같이 가르쳐 주시며 “너희도 그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나타내고, 상대에게는 일절 말도 안 해 주고, 일도 안 주고, 자랑도 증거도 안 해 주니까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생과 통하면서 다른 자는 증거해 주지 않으니 속상한 것입니다.

항상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사역자는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상대와 같이 하면 삼위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남편 자랑, 자식 자랑입니다. 자녀도 아버지 자랑, 어머니 자랑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도 모두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주님 자랑해야 됩니다. 증거할 때 힘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증거할 때 함께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해 줄 때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들이 상대의 약점을 보고 증거해 주지 않고 자기만 나타내니 하나 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으니 하는지 보겠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 했지만 이제 알려 주고 법을 주었으니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로 증거해 주고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히 나와 생명을 구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련다

본 문 마태복음 4장 18-19절
마태복음 4장 23-25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선생도 시간이 가을 구름같이 빨리 흘러가는데, 넓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그래도 새벽부터 뛰니까 몇 시간을 더 얻고 사는데도 시간에 쫓길 것입니다. 요즘은 밤은 길고 낮은 짧아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서 해가 서산에 기울어 어두워집니다.

금년도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빼놓고 보면 5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우리 섬리사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섬리인 모두 뛰고 달리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몇 배로 된 것 같습니다. 부흥강사에게서 철야하는 때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 지도자들, 특히 교단의 일을 맡은 자들도 그런 줄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주님이 “한 해만 참아 준다. 그러니 최고로 살아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최고로 뛰어 주며 함께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선생도 극적으로 뛰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50여 일 동안 성령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포도 한 송이를 각각 먹는 성령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간입니다. 이미 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편지가 오기를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식어 갑니다. 어쩌면 좋아요?” 했습니다. 7월, 8월, 9월 성령운동을 하여 땀이 나게 했는데 이제 되었다고 쉬어 버리니, 운동을 하다가 쉬는 동안 땀이 식어 몸이 차가워지는 격과 같습니다. 계속 뜨겁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잘됩니다. 자기의 가슴에 불이 떨어져야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계속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집회 후에는 집회 때 몸부림치듯이 하지 않으니 성령의 불이 식게 된 것입니다. 힘들게 성령의 불을 받아 놓고서 왜 불이 식어지게 했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질까 하여 서둘러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일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약속대로 한 해만 참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며 마지막으로 성령 집회를 총 집행해 줄 것이다. 나는 섬리사에도, 기성에도, 여기저기 계시하며 재림을 위해 시대의 잠을 깨우고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9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이 해의 태양이 서산에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선생이 지난날 겪은 것으로 볼 때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이끌어 올 때는 전도자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자기 혼자만 마지막 성령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꼭 한 명씩 데려와서 전초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고 시대를 깨워 주어 그와 더불어 성령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핵심>

1년이 다 가도록 전도 한 명 못 하다니요. 선생은 여기서는 여기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꿈에 보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자꾸 면회 신청을 하기에 계속 취소했습니다. 이미 섬리사에 와서 수십 통씩 편지를 하면서 10년, 혹은 몇 년씩 면회를 원하며 기다렸어도 못 해 주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자들이 면회를 신청하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통해서 허락받고 오라고 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각각 이름이 다른 자들이 3번이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주님께 도대체 누가 오는 것이냐며 정말 모르는 자라고 했더니, 주님은 이번에 신청한 자는 나가서 만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한 사

람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면회실에서 면회를 기다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냐고 물으니,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하며 그동안 길러 왔다. 오늘은 너를 부르는 날이다. 너와는 직접 말이 안 통하니 말 통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면회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어젯밤 꿈에 계시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고 대하듯, 너도 내게 그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꿈에 보여 주시면서 ‘네가 나와 통하니 내 말 좀 전해 달라.’고 하여서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알아도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교회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월명동에 대해서도 말해 주면서 가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해 주었더니,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흐느꼈습니다. 교회에 꼭 다니라고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다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전해 주니 가슴이 뜨겁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불을 가슴에 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에 와서 “주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했습니다. 여기서도 10분 만에 주님과 함께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주님과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여건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가 또 전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10분밖에 못 만나니 10분 안에 전도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씩, 몇 달씩 전도하지요? 그래도 잘 안 되지요? 빨리 할 때는 5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길러 온 자를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니 주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소개한 대로 꼭 우리 섭리사 교회에 나오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10일 후에 또 그 이름으로 면회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가 봐야 하냐고 여쭙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데려왔으니 나가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만났습니다. 교회에 갔냐고 물으니, 지난주에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줄 사람이 시간이 안 되어서 다음 주일에 꼭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다음 주에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하기를, 꿈에 선생이 자기 집에 찾아와 인생 이야기를 해 주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는 “주님께 찾아가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안 찾아가시고 내가 갔지? 주님 대신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이 찾아간 것이나 다름없지. 오늘도 주님이 데려왔으니 면회 나가 보라고 하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도 오늘 어렵게 와서 나를 못 만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말씀도 하나도 안 배우고 처음 만난 자가 두 번이나 내게 면회를 와서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 누가 들어도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옆의 사람인가 잘 봐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한마디로 잘생겼습니다.

처음 신앙을 할 때 주님은 전도자에게도, 전도되는 자에게도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께 바깥의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고 간구하니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소원을 성취하듯이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 구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전도자인 선생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주님도 내 마음같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으로 가는 생명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도 심정 태우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인 1명 전도해야 됩니다. 선생은 각각 1인 1명을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두 해야 됩니다. 갈혀 있는 선생도 하는데 넓은 세상에서 왜 못 합니까? 주님은 “문 밖에만 나가면 전도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면 죄도 잘 용서해 주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그렇게도 큼니다.

모두 1인 1명 전도하여 성령 잔치에 데려오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도할 때 잘 가르쳐서 데려오면 하나님의 신과 모성신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습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 자기도 참여하여 불을 받

고, 전도한 자도 참여하게 하여 같이 불이 붙게 해 줘야 됩니다.

선생과 같이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일대일 전도하면 된다고 주님이 선생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남은 50여 일 만에 많은 자들이 전도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실적입니다. 모두 이같이 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긴 말씀을 들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선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글을 쓰느라고 손가락만 아프고, 목사님들은 외치느라 입만 아픕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시고 자르려고 심판의 말씀을 통헤 도끼와 톱을 찾으십니다.

‘주여, 금년도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이제 ‘50여 일만 참으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어야 되고, 전도하여 **생명의 열매**도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가면 금방 전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뭘 빙빙 돌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 되지요. 한 명 있으나, 천 명 있으나 말씀으로 녹아집니다. 연애하는 자들이 동물 이야기나 하고, 먹는 이야기나 하고, 철학 이야기나 하고, 성공한 이야기나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 이야기 해야지요.

지난 섬리역사를 보면 선생은 개인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도 개인·가정·민족 전도를 잘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돈이 없을 때라서 경비 안 들이고, 장소 안 빌리고 개인 전도 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없어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어느 때는 절간 마당에서, 식당에서, 짬뽕 집에서 만나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감당 못 하게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실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금방 친해지고, 속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선생의 철학 중 하나가 ‘실속’입니다. **‘실속 없으면 실족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역자부터 1인 1명 전도해야 됩니다. 간사, CL,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도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단상에 설 때 ‘자기는 금년도에 몇 명 전도했다. 또는 못 했다.’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섬리역사 지난 10년 동안 너무 전도 못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받고 꾸지람 듣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전도하여 주님께 “전도했습니다!” 해야지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재림 때 전도 못 했다고 할래요? 그때는 예수님이 바빠서 못 만납니다. 주님은 절대 묻지도 않으십니다. 재림 때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한 명을 10명, 100명 같이 볼 때다. 매일 내게 기도하라.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나와 같이 전도하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봐요. 찾으면 성령으로 감동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서 전초하고, 또 교회에 데려와 가르치고, 성령 집회 때 데려와요. 은혜 받게 해 주고 계속 관리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사들도 전도하는 데 적극성을 띠니다. 천사들은 전도된 자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들이 방해하는 데서 지켜 줍니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하면 한 명 정도야 꼭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강가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도 전도하는데 왜 못 합니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모두 한 명씩 전도하겠습니까? 1인 1명씩 전도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도, 여러분들도 운명이 영광의 세계로 기울어집니다. 세계 각 나라 모두 ‘전도’입니다. 성령을 받고 전도하여 그들도 성령을 받게 해 줘야 됩니다.

선생이 지난주에 이곳의 교회에 갔더니 설교 전에 50대 한 남자가 기타를 들고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찬양 세 곡을 부르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6개월이 넘으면 죽으니 오직 천국 가는 데만 신경 쓰겠다.’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서 죽는 날까지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죽기 전의 간절한 말을 해 주며 감동적인 가사를 붙여 노래를 지어서 기타 연주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다녔답니다. 자기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께 영원히 남을 구원을 전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믿고 수긍하더랍니다.

‘이 달에 죽을까, 저 달에 죽을까?’ 생각했지만, 계속 전도하고 다니다 보니 현재 8년을 더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전도하는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찬양하며 전도하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감격해하며 은혜로

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도 많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람은 극에 처해 살아야 변화됩니다. 이같이 전도하여 생명을 살려 주면 하나님과 주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10배나 더 정신이 차려져 행하게 됩니다.

어제 하와이 교회에서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 70세가 넘는 장년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섬리 교회에 다녔는데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다 죽어 갈 때 선생이 하와이 순회를 와서 선생의 기도를 받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담배를 피우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암이 재발되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자기도 몸이 안 좋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병원마다 병명을 한 가지로 말하지 않고 각각 말하여 두 가지 약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약기를 다루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좀 하게 기도하여 낮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편지였습니다.

선생은 그 편지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홀몸으로 사는데 아프기까지 하니 이를 어쩌나? 하나님을 찬양하니 믿음대로 낮기를 원한다. 걱정 마.’ 했습니다.

주님은 전부터 그 장년부의 아내인 여 권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구사일생했는데 그까짓 담배를 못 참고 또 피웠다니요. 선생이 기억하는데 그때 기도해 주고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죽을 때까지 담배를 못 피우게 했습니다. 지금도 선연히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영혼도 주님께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끌어내 놓으셨는데, 못 참고 다시 사망권으로 가면 하와이 권사님 짝 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탄권 죽음의 함정에서 나오게 해 주셨으니, 제발 참고 견디며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담배를 못 끊다니요. 자기 생명을 살리는데 담배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자기 버릇과 육성이 문제입니까? 잠이 문제입니까? 잠을 못 끊어서 새벽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돈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자기 주관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고, 세상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담배 때문에 폐암이 재발하여 생명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남 이야기로 듣지 말고 자기도 그런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기 성격, 자기 버릇, 자기 육성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빼앗기고 보직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경고 말씀 나왔으니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섬리사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몇 주 시간을 줄 테니 하루에 술 두 말 마시고, 담배 세 갑씩 피우고 빨리 끊어라.” 하십니다. 정말 ‘킉킉’ 웃음이 나오네요.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장로, 목사 직책이 있는데도 술 담배를 분명히 끊지 못하면 교단에서 직책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섬리의 수치입니다. 알면 광고 나가니까요. 본이 안 되니까요. 음식이 배 속에 들어가고 7시간 후면 다 술이 됩니다. 그런데 왜 술을 먹어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중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요. 알겠어요? 끊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천국 가려면 끊어야 돼요. 천국 갔다 온 자들에게 들어 봐요. 천국에서 술 먹고 술주정하고 담배 피우는 자는 한 명도 못 봤답니다. 담배 피우는 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술 담배 안 하시는데 거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울 것입니까? 흠 없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와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아픈 가운데 기도하여 살려 놓은 자들 중에서 그 후 생명을 걸고 건강관리를 안 해서 치명적인 상태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야 할 준비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은 건강을 꼭 챙겨야 됩니다. 쓰러지고 난 후에 기도해도 안 낫는다고 주님께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요. 무리하면 쓰러집니다.

왜 선생이 지난주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생도 행정 편지 때문에 무리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때 주님만 불렀습니다. 고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행정으로 역사를 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편지와 보고 사절 광고가 나간 것입니다. 이해해요?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온 세계 섬리역사의 모든 자들은 전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잔치를 위해 전도는 각자 다양하게 하기 바랍니다. 전초는 전도자들과 각 교회에서 목

사님들이 하고, 정 못하면 교단에서 보내는 목사님들이 전도 집회를 해 주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가서 외쳐 주기 바랍니다.

새로 온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때 자기 생명을 영원히 살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어떤 자는 고등학생 때 전도되었는데 그때 제대로 못 믿고 나가서 결혼하고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대로 사명을 하지 못하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한 번 부르십니다. 좋은 세월 다 가고 온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천국에 가 봐요. 얼마나 부끄러운 곳에 사는가 보세요.

세상에서 살 동안 자기 일생의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못 한 자는 천국에 가서 1000년씩 다시 가르칩니다. 제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압니까? 다른 자들은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 안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제대로 못 한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는 했지만 천사들에게 1000년 동안 매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계산하는 1000년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고생되어도 세상에서 잘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간 자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된 자들은 정신 차리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도 손끝뿐 아니라 온몸이 저리고 힘들어도 하루고, 이틀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쓰고 교정하여 보냅니다. 글이 나간 후에도 밤새워 또 교정합니다. 정성들여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써서 보내니 정말 잘 외쳐야 됩니다.

사명을 받고 일하는 자들은 모두 힘들지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주님의 발령을 받고 아마존 밀림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송충이를 잡아먹으면서 선교합니다. 아나콘다 뱀에게 물리면 죽기도 해 가면서, 참새나 메뚜기에게 뜯겨 가면서, 수많은 모기들에게 뜯겨 가면서 선교합니다.

독벌레에게 물려 쓰러지면서, 웃도 안 입고 사는 무서운 자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생각해 봐요. 어느 땐 원주민들의 눈이 뒤집어지면 선교사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런 환경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전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어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해 줍니다.

그런 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상천국의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문명이 뒤떨어진 짐승 같은 자들도 복음을 전하니 듣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사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도 제 뜻대로 사니 그들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나라에서 말이 통하는 자들을 전도하니 얼마나 유리합니까? 우리 섭리사에서도 해외에서 선교하는 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챙겨 줘야 됩니다.

몇 주 전에 필리핀으로 간 선교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이곳저곳을 심판하신다는 설교가 나가고 2주 후에 필리핀에 태풍이 일어나 홍수가 나서 휩쓸고 갔답니다. 교인들 중에서 피해를 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가 있기에 그 지역에 가 보았다고 합니다.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는데, 그런 것을 처음 봐서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니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어 있고, 엄마가 자식을 끌어안고 죽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필리핀 교회의 사람들은 아무도 죽은 자가 없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제야 말씀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재난을 당해보고 직접 눈으로 봐야 실감하고 놀랍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 보거나 직접 당해 본 사람이나 그 심정을 알지, 듣기만 하거나 화면으로만 보면 그 심정을 모르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계시자들을 통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너희 각 민족들 앞에 점점 환난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과 나를 믿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어떤 자는 자기가 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고 사니까 나도 잃었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용기를 잃은 자도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처음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 앞에 처음같이 하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관리하여 성령 잔치에 데려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잔치에 참여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전도하고 관리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삼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말씀>

극히 나와 생명을 구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련다

본 문 전도서 4장 9-12절
참고성구 시편 23편, 42편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전도서 4장 9~12절까지를 보면 튼튼함의 법칙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하나 되어 수고한다면 좋은 것을 많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갈 때 둘이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고 잡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겨울철에 밤이 되어 같이 붙어 자면 따뜻하고, 어디 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도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겹 줄이 되면 누가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스스로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도하려 갈 때도 보다 육적인 자와 보다 영적인 자가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가면 더욱 튼튼하고 잘 됩니다. 육적이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적인 자는 보다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해 주는 자를 말하며, 영적인 자는 보다 영에 대한 것과 신앙에 대하여 말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각각 쓰여지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듯이, 보다 육적인 자가 할 말이 있고 보다 영적인 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영적이거나, 혹은 육적이어서 혼자서는 전도 못 하나?’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두 겹 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면 따뜻합니다. 육이 넘어지면 자기 영이 일으켜 줍니다. 많이 경험해 보았지요?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혹은 형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을 때, 몸도 마음도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가 많았지요?

‘이래서 되겠나? 누가 나를 일으켜 주랴? 다시 하자. 주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편지하고, 다시 이야기 들어 보자.’ 하며 용기를 내어 일어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영이 낙심한 육의 마음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자기 영은 자기 육신을 애인보다도 훨씬 더 사랑해 줍니다. 자기 영과 육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짝 지어 주신 ‘영원한 짝’입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영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서 패했든지, 혹은 영혼이 몸부림쳐 하는데 육신이 몰라주어 혼자 하다가 지쳤든지, 영이 육을 그렇게도 도와주었는데 육이 영의 심정을 모르니 영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 불안하면 자기 육의 마음도 불안하고 편치 못합니다. 영이 불안하면 육도 기쁘지 않고 괴롭습니다. 육신은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반영하여 육신의 마음이 영혼의 상태를 느낍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면서도 영혼이 낙담하는 일이 있을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며 스스로 물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를 불러라. 너 혼자 했느냐? 내 영혼아! 너 스스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며 ‘여호와여! 내 영혼이 낙심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긍휼히 여

기사 돌아보소서. 죄를 지었으면 정결케 하옵소서. 사탄과 싸웠으면 이기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게 하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불러라.’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시 42:1-6).

다윗 왕도 늘 자기 영혼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친구나 형제나 애인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듯이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영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과 육의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육신이 영접함으로 영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읊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와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와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과 육이 두 겹 줄 되고, 그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겹줄 되어 살면 튼튼합니다. 튼튼하면 사탄이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사탄과 악의 주관 받는 자들이 섭리에서 꺾어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여 형제에게서 마음에 상처 받는 말을 들었거나, 형제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육도 마음도 영도 튼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기 육신이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돕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기 영혼이 자기 육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돕고, 용기를 주고, 잡아 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으며 위로할 자를 찾을 때는 육도 영도 다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육도 영도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이 반드시 한 쌍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겹줄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와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죄지은 것을 회개하여 사함 받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도 육도 힘을 잃게 되고, 용기와 희망을 잃게 되고, 영혼의 황소 같은 힘이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즉시 힘이 옵니다. 짐을 짊어지면 힘을 모두 짐을 짊어지는 데 쓰기 때문에 힘을 못 쓰다가 짐을 내려놓으면 힘을 쓸 수 있는 격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말씀도 한 주일에 두 겹 줄로 나갑니다. 주일에 한 겹 줄 말씀이 나갑니다. 전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한 겹 줄이 나갑니다. 후편 말씀입니다. 주일과 수요일 두 번의 말씀을 들어야 튼튼합니다.

영계에서 섭리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도 주님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뒤를 쳐다보니 힘차게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 처져서 힘들게 따라오는 자들이 여실히 표가 나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지기를, 잘 먹어 배에 힘이 있고 허기지지 않은 자들이 보다 앞에서 힘차게 따라오고, 밥 먹은 지 오래되어서 배에 힘이 없는 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에 살찐 것이 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제때 먹어야 배에 힘이 생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말씀을 들어야 기본적으로 힘이 생겨 두 겹 줄이 되어 튼튼하게 됩니다. 주일말씀은 아침 식사이고 수요일말씀은 점심 식사인데, 주일 한 끼만 먹고 점심을 안 먹는 자들이 많습니다. 점심을 안 먹고 산을 타니 허기가 집니다.

주님이 급해서 재촉하시니 하루에 한 끼 먹듯이 일주일에 정식 한 끼만 먹고서는 힘이 없어서 할 일을 못 합니다. 온몸에 살이 찌서 윤기가 나도 위가 비워지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점심 안 먹고 온 사람들 있어요? 저녁 안 먹고 온 사람들 있지요? 얼굴 보면 압니다. 손들어 봐요. 힘이 없지요? 손 내려요. 힘이 없으니 손들기도 싫지요? 먼저 영의 양식을 뽕뽕하게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밥을 먹든지, 가다가 먹어요.

선생은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습니다. 살 빠졌겠다고요? 운동 살이 있어서 66~67kg 나갑니다. 선생은 육영 모두 뽕뽕합니다. 모두 게으르지 말고 방에서도 운동해요. 신앙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면 다리가 저립니다. 몸도 풀어 가면서 튼튼하게 하여 신앙을 위해 자기 몸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주일말씀은 아침식사이고, 수요일말씀은 점심식사와 같습니다. 금요 천국성령운동까지 하면 저녁식사가 다 챙겨 먹는 것입니다. 금요 천국성령운동 때는 순전히 영적인 양식으로 성령님께서 잘 차려 주시지요? 영혼의 뜨거운 밥,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오장육부가 뜨거워져서 육신까지 그 영향을 받아 뜨거워 팔팔하게 뛰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각오하고 기도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힘이 오고 말씀을 들은 것이 불이 붙습니다. 말씀 들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뛰어어야지요, 자야지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편지 쓰다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 쓰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 선생도 여러분도 양쪽 다 손해입니다. 선생이 편하려고 편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말씀을 주려고 편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혜롭게 해야지요.

보고는 할수록 늘고, 편지는 할수록 통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 누가 파견 나온 줄 압니까? 역시 선생 혼자입니다. 갈수록 행정이 쌓입니다. 갈수록 보고를 많이 합니다. 보고는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것도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축소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는데, 지도자인데도 의식하지 않고 엄청난 양을 써서 보냅니다. 말씀을 안 지킵니다.

교단도 다 똑같습니다. 10줄 할 것도 5줄, 3줄로 축소하여 해 버릇해야지요. 오죽해야 행정 보고하면 직책을 옮긴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그렇게도 말을 해 주셨건만 안 듣습니다. 법칙에 벗어나 안 되는 것인데, 보고 편지하여 선생을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식으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연구해야지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방향을 맞춰야지요.

한 가지 건인데 교단도, 교회도, 개인들도 반복해서 몇 부씩 보내옵니다. 타자를 쳐서 20장, 혹은 30장까지 만들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지면 몇 자인 줄 압니까? 8000자, 10000자, 15000자 됩니다. 긴 편지뿐 아니라 1장, 2장, 3장씩 써서 보내도 수십 명에게서 오니까 엄청난 양이 됩니다.

선생이 분명히 꼭 필요하면 핵심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부는 3줄, 혹은 10줄에서 끝내라고 했습니다. 국장들도 자기 국만 생각하지, 다른 국을 통해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국마다 보는 것이 다르니 각각 보고하고, 또 개인들도 보고합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반복하여 보고가 들어오니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뛰면서 충분히 세밀히 보면 됩니다. 또 목회자나 교단과 의논할 일도 다 내게 보냅니다. 이것저것 빼고 보내면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편지도 핵심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수요예배에 나와서 꼭 말씀 들어요. 어느 말씀 중에 주님이 표적이 일어나게 하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버릇이 들어서 수요일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천사들이 다 체크합니다. 천사가 봐 주면서 기록할까요? 생긴 대로 품 잡는 대로 사진이 찍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행위대로 10000분의 1까지 다 보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수요예배 다니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행실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볼까요?

“이 시대에 너희가 날아가도 내 마음이 조이는데, 수요일에 쉬어 가느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느냐? 그러니 사탄이 잡고 좋아한다. 네 육신 좋은 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나는 하고자 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고 뛰어 준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모두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을 보고 답답하시니 가슴 찡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핵심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구원되었으면 그다음으로 ‘형제 구원’입니다. 화재가 나서 자기 집으로 불이 활활 타들어 올 때 먼저 자기를 구원하고, 그다음에 식구들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옆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이 되었으면 옆의 형제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앞날을 보면 마치 산불이 나서, 또 건물에 불이 나서 불이 점점 타들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구촌 여기저기에 타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 너머에서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이 타들어 오고 있고, 옆집에 불이 나서 점점 불이 번지고 있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이를 확실히 믿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삼화 - 이때가 이와 같이 이렇다.>

삼화 설명 : 이번 주 수요일 같은 때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데 모르고 자는 자들이 있다. 산 너머에서, 건넌집에서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산토끼같이 쿵쿵 잠만 자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당기셔서 불이 타 들어오는데 알지 못하고 깊은 잠만 자고 있다.

지금은 자기를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할 마지막 찰나입니다. 믿습니까? 화재가 났는데 형제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만 꺼내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 물질을 생각할 때입니까? 형제들이 잠들어 있으니 잠만 깨우고 “불 났다!” 하면 다 나옵니다.

전도할 때 몇 마디 하면 됩니다. 10분, 20분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이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심판 직전이다. 지금 심판해 들어온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그러면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 주님이 부르셨다. 기도하며 물어보아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교회에 가서 설교자를 통해 들어봐라. 가자. 불난 집에서 잠을 자듯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어 타들어 오는데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고 재촉하며 외쳐야 합니다. 연극부도 실감 나게 실제와 같이 외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선생에게 전해 온 소식 중에 한 가지 사연을 전해 줄게요. 어떤 자에게서 선생이 들으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말대로 선생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모두에게 말해 주라고 감동시켜 주셨으니 말해 주겠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자들이 모두 나가서 낙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전도하여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섭리의 어떤 여자 청년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10명을 전도했는데 환난 때 악평을 듣고 다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로 몸부림쳐 전도했는데 악평을 듣고 다 나가서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가 죽은 듯이 낙심이 되어 한 달 동안 앓아누웠습니다. 악평자들은 그 생명들의 피 값을 대신 하겠지요?

이 여자 청년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단단히 기르자. 악평자들과 사탄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며 기르자.’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자기 잘못도 회개하고 다시 전도하여 4개월 만에 20명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내게 전하며 아무 직책도 없으니 그에게 직책을 주면 어떻겠냐고 하며 편지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20명도 하는데 50명, 100명, 150명 되는 교회가 혼자서 전도한 만큼도 못 한다면 되겠어요? 충격을 받고 힘을 내고 분발해야 합니다.

20명을 전도한 청년부 회원은 미국 LA교회의 한국인입니다. 이 설교가 나가면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한 자가 일곱 명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입생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생명을 연결하여 전도하게 해야 합니다. 감나무도, 과일나무들도 새순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만물의 이치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하면 그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됨으로 전도자는 참으로 큰 공적자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번 손들어 봐요. 90% 이상이 누가 인도해 주었기에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도해야 생명들이 옵니다. 올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꼭 전도해야 됩니다.

잔칫집에도 주인이 오라고 해야 가게 됩니다. 사정해 봐요. 오라고 이야기해요. 잔치한다고 하며 데리고 와요.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게 해 준다고 하며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보시고 뜻이면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실력을 갖추어 자꾸 전해 봐요.

전도는 10분이면 됩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본을 말하라고 합니다. 용건만 말하라고 합니다. 뱅뱅 돌릴 것 없습니다. 확실하게 전해 주면 됩니다. “와 보라! 가 보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데려오라고 하셨기에 바쁘게 네게 왔다. 후회하지 말고 가자!” 하면 됩니다. 쉽게 해야 쉽게 전도됩니다.

모두 전도의 부흥강사가 되어 외치라고 했습니다.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대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하면 감동되어 현장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외쳐야 속 시원히 외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선생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현장에서 감동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니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니 어찌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하며 울어 났습니다. 멀고 먼 낯선 땅, 밀림 속 원주민들에게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고 계속 외쳐 줘요. 계속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입생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좁다고 무리하게 이사만 가려고 하지 말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기성 교회들은 거의 이사하지 않습니다.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성전을 2배, 4배 큰 것을 얻은 것과 같고 돈도 안 들어갑니다. 교역자들은 성전에 욕심을 부리며 교인들도 적은데 큰 교회에 이사 가려고만 하지 마요. 교단 통해서 모두 움직이기 바랍니다.

선생은 예전에 가장 좁은 데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교단에 말하고 의논하여 옮기기 바랍니다. 이사 갈 무렵에 보고하면 교역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큰 성전을 얻어도 강의실 등 각종으로 나누니 예배실이 좁습니다.

교단이고, 교회고, 개인이고 행해 놓고 보고하면 결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재가 안 떨어졌는데 하든지, 행하면서 보고하면 그곳 지도자에게 바로 공문 보낼 것입니다.

교역자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설교 때문에 답답해서 울고 있는데도 교역자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식으로만 하니 교인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도 자기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발령 받기 전에 소개할 때 소개자가 잘 소개하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소개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재만 받으려고 좋게만 보고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결심하고, 심령의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1명, 2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100명, 1000명 하려고 해 봐요. 10000명 하려고 하면 10000명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섭리사 안에는 10000명을 전도할 사람도 있고, 7000명을 할 사람도 있고, 3000명을 할 사람도 있고, 1000명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못 합니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한다(빌 4:13).’고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구름 같은 청중이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전도의 불길을 제대로 일으키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표적을 일으키면 됩니다. 성령의 불로 뒤집어 놓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1년에 10000명은 넘게 하게 됩니다. 한국은 숫자가 많아서 모두 전도하도록 정신을 넣어 주면 전체가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10000명, 5000명, 3000명씩 전도하게 됩니다.

선생도 과거에 그같이 해 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니깐 구름같이 밀려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었으니 이끌어 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면 핍박 못 합니다. 그냥 자기 발로 스스로는 못 옵니다. 이끌어 와야 됩니다. 오라고 권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 줘야 됩니다.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집회는 아주 실속 있는 집회입니다. 전도에 불이 붙은 자들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백 곳에서 하면 수천 명이 연결됩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각 나라도 언제까지 몇 명을 새롭게 전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몇 분까지 어디를 통과하겠다고 하고 가 봐요. 그러면 빨리 가게 됩니다. 부엌에서 몇 분까지 설거지하겠다고 정해 놓고 해 봐요. 그 시간에 능히 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하면 3배 이상 시간이 들어갑니다. 재촉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재촉하시는지 알아요? 재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을 준다 해도 주님 맞을 준비나 다른 모든 것도 못 하기 때문입니다. 끝에 왔으니 재촉해야 됩니다. 재촉 철학, 재촉 생활입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도 계속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지 않으실 때가 없습니다. 전도도 재촉, 회개도 재촉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일해야 됩니다.

‘한 해만 참으소서.’ 했습니다. 200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빨리 새롭게 변화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남만 변화시키지 말고 자기도 변화해야 됩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자는 돌연변이 인생입니까? 여

유 부리는 것입니까? 설교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자기의 생활을 재촉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경마를 보아도 더 달리자고 말을 재촉하면서 쫓니다. 뛰는 자도, 뛰지 않는 자도 모두 자기를 재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자기 주관대로 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촉하며 뛰어야 합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행실, 근성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은 속상해서 **“정말 너 아니면 없느냐?”** 하신답니다. 제발 변하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변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게 변하고, 미지근한 자는 뜨겁게 변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휴거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해 주겠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한 자가 휴거됩니다. 주님은 **“휴거될 자는 지금 심령과 행실이 변한다. 하늘의 형제로, 나의 마음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 주시니 마음이 감동되면서 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보세요. 변화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자는 휴거되지 않을 자입니다. 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강하게 행해야 변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변화합니다. 마지막 성령 집회를 준비함으로 맞아 성령을 받아야 변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모두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식으로 변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변하고,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져 하나님과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온 자들도 모두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오면 불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전도와 관리란 한 짝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된 생명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전도한 자도 힘을 얻습니다. 설교자는 데리고 온 생명들을 다 녹여야 됩니다. 50%, 60%만 녹이면 녹아지지 않은 나머지를 보고 전도한 자들이 실망합니다.

“한 번에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깨달아요. 일생에 한 번의 기회인 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한 번 설교에 녹여야 됩니다. 설교로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 꼭 녹여야 됩니다. 썩이 앉아 있는데 총 한 방에 못 맞추면 썩은 그 총소리를 듣고 날아갑니다. 한 번에 명중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못 하면 두 번째에는 배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데리고 오셨으니 100% 다 녹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발하며 주님과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전도된 생명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뜻을 만들면 전도 대상들을 만납니다. 반가운 까치도 오고, 반갑지 않은 까마귀도 있으니 잘 봐야 됩니다.

금주도, 다음 주도 전도하면 생명들이 꼭 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하려고 결심하면 전도할 자가 생깁니다. 걸어옵니다. 주님도 준비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십니다. 전도할 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생명은 준비된 전도자를 통하여 천사가 데려오든지, 주님이 데려오십니다.

어떤 자가 자기는 기도해도 힘들고 주님도 안 느껴져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 보니 **“내가 그에게 갔다가 통하지 않아서 그냥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에게 **“그 정도 해서는 안 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편지해 주었습니다.

그 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과 통하게 되어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한 것을 8장이나 써서 보내 주며 선생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냐고 여쭙니, 주님은 **“그럼! 약속대로 해 주었다. 내가 할 말을 하니가 속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깊이 기도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회가 가기 전에 전도하여 보여 주어라. 또 성령을 받아 너희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어라.”** 하셨습니다. 전에 선생에게 보여 주려고 안달하던 때와 같이 주님께 보여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11월 15일 성찬식날까지입니다.

11월 15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혹한 죄인

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이를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떼며 깊은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작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나를 잊지 않도록 이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특히 우리 섬리사 신부들로부터 성찬식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금년도부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전까지 마태복음 26장 19-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까지 여러 번 읽어 봐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선생도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중국에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식사를 하는 곳에 다 같이 앉기 좁으니,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식사나 같이 하자.” 하고 며칠 동안 같이 있던 자들과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언제 이같이 밥을 먹겠냐? 기념이구나.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차린 것 중에서 먹고 싶은 것 맛있게 먹자.” 했습니다.

이 시대 섬리역사는 주님의 뜻이 있어 주님이 함께하시고 행하신 역사입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봐요. 다 주님이 이리저리 뜻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행하고서도 모릅니다. 가르쳐 줘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어도 며칠이 안 가서 또 잊어버리고 탄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알고 깨닫듯이, 생명들도 자꾸 말을 해 주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스스로는 안 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는 안 하니까 자꾸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보호와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2009년 11월 1일 주일말씀>

그 날에는 다 표가 나고 다 드러난다
어서 회개하고 갓출 것을 예비하라

본 문 마태복음 22장 1-14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식물들의 꽃의 계절이 가고, 아름답고 웅장한 단풍의 계절이 서서히 지나고 이제 쓸쓸한 계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도 11월 한 달은 쓸쓸함을 느끼며 거리를 다녀도 다닐 만합니다. 대지의 꽃도 지고 단풍도 지면 쓸쓸하지만 섬리의 인꽃들을 피우면 겨울에도 화창합니다. 아멘!

사계절이 있는 한국은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만, 열대의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거리를 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섬리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달을 멋있게 미련 없이 뛰어어야 됩니다. 11월 15일 성찬식 전까지 박차를 가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고, 크리스마스 전 주까지 부지런히 뛰어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계산하고 봐 가면서 뛰어어야 실적이 올라가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나그네가 해 그늘에 걸음을 재촉하여 갈 길을 가듯이 모두 재촉해야 될 때입니다.

눈이 쌓이면 사람들은 거리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물고기들도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산짐승들도 모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는 사냥꾼도 낚시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 철이 지나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집회하는 것도 계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쌓였는데 야외에서 집회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겨울철에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두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1월부터 재촉해 오신 것입니다. 재촉해 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를 말해 주겠습니다. 일을 놓고 처음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재

촉해야 됩니다. 선생은 10대부터 광야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나이처럼, 전쟁 때 달리는 말처럼 인생을 재촉했습니다. 뛰고 있는 자도 더 뛰도록 재촉하면 우습습니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긴장을 풀고, 긴 숨을 쉬는 자들 중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림을 받게 되고 승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긴장하고 근신하는 자에게 삶의 성공이 기울어집니다. 태만하고 나태한 자는 서두르고 재촉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거족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긴장하시면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10대부터 주님은 서두르시고 재촉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40년 전부터 선생을 재촉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선생은 더 재촉하며 뛰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섭리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고 힘을 얻었는데도 제때 일하지 않으면 그 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힘이 있을 때는 착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너 이 일 좀 해 보라.” 했을 때 “예” 하면 즉시 시키지만, “배운 다음에 할래요.” 하면 다음에 시킵니다. 일하면서 배운 자가 먼저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착수하고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납니다. 착수하고 믿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알게 되고 얻게 됩니다. 자꾸 배우고, 보강하고, 연구하고, 고치고, 더 이상적으로 하다 보면 유능해집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들은 모두 그 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며 따르니 늘 연구하고 보강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 성공을 이루고 따르는 자들도 성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실천해야 되니 신중히 듣기 바랍니다. 기어 다니면 고양이가 잡아먹고, 강자들이 취해 가고, 자기 주관으로 끌려갑니다. 아마 쥐에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다면 고양이는 쥐를 잡지 못하고 하품만 하고 말 것입니다. 기어 다니는 것들이 날아다니면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같은 수준급에 속해 있으니 보다 빠른 자와 강자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약자일수록 날아야 됩니다. 못 날면 빨라야 됩니다. 빠르면 잡히지 않습니다. 날파리도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잡기가 힘듭니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면 사람들이 잡다가 포기하고 말아 버립니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같이 놀면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면 나는 인생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어느 환경에 가셔도 나름대로 자기 사명을 두고 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날아야 그 환경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의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기어 다닙니까, 걸어 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선생이 있는 곳은 환경적으로 날 곳은 못 됩니다. ‘여기서 내가 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 하나님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날 것이 무엇이라?’ 하며 그 길을 찾고 날기로 결심하고 날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경에서 개성대로 각자 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날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혀 살게 되고, 세상에 잡혀서 종이 되어 살게 됩니다. 제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인생을 날아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이같이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의 날개를 쳐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종을 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들은 날개를 4개,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의 크기가 클수록 사명도 크고 권위도 큼니다.

모두 의를 행하여 의의 날개를 달고, 기도하여 기도의 날개를 달고, 전도하여 전도의 날개를 달고, 말씀을 잘 전하여 말씀의 날개를 달고, 감사하여 감사의 날개를 달고, 찬양하여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날개를 달고, 관리하여 관리의 날개를 달아 날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는 날개, 화평의 날개, 부지런함의 날개, 열심의 날개, 담대함의 날개,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날개, 절제의 날개, 신유와 건강의 날개, 믿음의 날개들을 달고 날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세에 있었던 상황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겠으니 집에 가서 성경 본문을 몇 번씩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싫

어했습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보지도 않았고, 어떤 자들은 밭과 논을 갈러 가고, 어떤 자들은 상업 차 가고, 또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악평하며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임금을 무시하고 짓밟은 자들이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임금을 능욕한 자들입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닥칠 일을 정말 모르고 삽니다.

임금은 또 종들을 보내어 길에서나, 들에서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누가 왔는지 보려고 혼인 잔치 궁궐 마당을 골고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소?” 물으니, 그는 먹던 음식을 입에 물고는 아무 말도 않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에 임금은 사환들에게 명하여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아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역사의 잔치에 청함을 받고 온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택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세 때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 임금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신랑같이 보내어 맞은 자는 신앙적으로 그의 신부 격이 되어 구원을 받아 그와 한 몸 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첫 번째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했지만 믿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만 한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 임금이 종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잔치에 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으나 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활 터전으로 가고, 혹은 세상에 빠져 사느라 따라오지 않고, 혹은 관심이 없어 안 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단시하고, 배척하고, 보낸 자들을 욕하고, 개중에는 죽이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세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적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잡으려 다니며, 잡으면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임금 같은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세 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잡으려 다녔습니다. 잡는 자들은 특히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던 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걸핏하면 그들에게 일러바쳤습니다. 로마인들은 대개 군대로 이스라엘을 쥐고 다스렸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서 들어 보면 별 특별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 청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오게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오게 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 잔치에 많은 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 잔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함락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행하셨습니다.

-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에 온 자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박당하여 쫓겨났습니다. 잔칫집에 간 자라면 다른 것은 못 해도 예복만은 갖추 입어야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보기에 기분 나쁜 것입니다.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끝 말세에 보내시어 재림을 앞두고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해 은혜와 성령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님 맞을 혼인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혼인 잔치, 은혜의 혼인 잔치, 성령의 혼인 잔치,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혼인 잔치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다니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청하여 오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 마치 임금이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했듯이, “세상 끝 날이다. 재림 전이다. 내가 약속대로 성령을 주리니 오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데니 오라. 인생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니 오라.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영생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섭리역사는 지난 30년 동안도 연속 행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끝 날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랑으로 삼는 혼인 잔치에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어 갔지만 오지 않고, 더러는 악평을 하고 이상하게 보며 안 왔습니다.

처음에 한때는 사람들을 골라서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 아무나 오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거나, 의인이거나, 섭리를 나간 자들이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나, 잘 따라온 사람들이나, 죄인이거나, 고통받는 자들이나, 걱정 근심이 있는 자들이나, 버림 받은 자들이나 다 오라고 하는 때입니다.

고로 교회가 은혜의 잔치, 하늘나라에 가는 말씀의 잔치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하는 성령의 잔치에 초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앙의 신랑으로 맞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며 성령과 은혜와 말씀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기저기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러 다니십니다. 마치 임금이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사환들에게 명하여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듯, 하나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보시고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예식장에 오는 하객들이 입는 예복과 신부들이 입는 예복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의 예복 같으면 시장에 가서 사 입으면 됩니다. 시장에 가서 드레스나 각종 깨끗한 옷만 사 입으면 쫓겨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잔치에는 하나님이 비유하신 깨끗한 예복의 실체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8절을 보면 ‘깨끗한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봉독 - (계 19: 7-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살면서 옳고 선한 행실을 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 옷이 입혀집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그냥 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고 진정 회개한 자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게 해 주십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영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쫓겨났듯이,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지난 섭리역사 속에서 섭리를 나간 자들은 환난, 핍박,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남 탓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치 않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섭리를 나갔다가보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람들끼리 지은 죄, 서로 미워하고 다툰 것, 화목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 참고 견디지 못한 것 모두가 다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로 회개할 뿐 아니라 행실로 옮겨야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통회 자복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회개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회개하는 것과 같아서 자존심도 안 상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 소문도 안 납니다. 누가 들어서면 안 될 때 속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 회개를 거부하거나 귀를 틀어막고 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혼인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취급을 받습니다. 신부가 결혼하는데 드레스를 입어야지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존재자이십니다. 고로 무엇보다도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

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정 잘못했다고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절차에 의해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 전 새벽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회개했는데도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할 자가 있을까요?”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너희 인생들이 지은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었노라. 회개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서 지옥에 간 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회개하면 끝까지 다 용서해 주었다. 회개한 자는 다 용서해 주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일대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생에게도 편지로 진정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었는데 또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회개했는데 선생이 용서해 주지 않아서 교회에 안 다니게 되어 결국 지옥에 가면 어쩡니까? 그래서 진정 회개한 자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것만 용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고 진정 회개가 안 된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다니며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천국 구원의 혼인 잔치에 온 자들이라면 누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성으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산 것,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산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하며 회개해야 의인이 되어 신령하고 빛나는 흰옷을 자기 영에게 입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신령한 영안을 뜯은 자들은 누가 의의 옷을 입었는지 다 봅니다. 이번 성령 집회 때 모두 예복을 입는 성령 역사의 잔치가 되도록 행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는 자, 회개하지 않고 의를 행한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자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자기는 빛나는 흰옷을 입기는 했는데 평소 입던 옷 위에도 껴입은 것을 꿈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회개가 다 안 되었기에 예전에 입던 옷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치명적으로 더럽게 합니다. 썩은 것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살 때는 옷에 별 차이가 없으니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식장에 가면 표가 납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은 일자리에서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입은 그대로 깨끗한 곳에 가면 표가 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가 있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죄인 것이 표가 납니다.

운동을 안 할 때는 운동 못 하는 것이 표가 안 납니다. 수영 못 하는 자가 물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폼 잡고 다니면 수영 못 하는 것이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다가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표가 납니다. 다리를 저는 자는 앉아 있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걸어갈 때 표가 납니다. 목욕탕에서는 모두 벗었기 때문에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도 벗고 다니면 금방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바깥에서 벗고 다니는 자와 같이 바로 표가 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팔방미인도 한 달이나 씻지 않고 살면 냄새가 나서 옆에 못 갑니다. 표가 납니다. 돼지도 씻겨 놓으면 표가 납니다. “너는 돼지인데 어찌 그리 깨끗하냐?” 하며 표가 나서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의인의 느낌을 풍깁니다.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의 느낌이 풍겨 옵니다. 영적인 자들은 척 보면 즉시 압니다. 선생도 눈을 감고 보아도 압니다. 눈을 뜨고 보면 행실로 표가 나서 더 잘 압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기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생명이 살아야 생명이 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자정 12시가 넘어갈 때 냉수욕을 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표가 났습니다. 기도해 들어가려는데 표가 나서 도무지 꺼려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표가 났습니다. 모두 그냥 있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깨끗한 세계에 들어가면 표가 나서 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게 온 계시였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고요? 온몸을 다 씻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척 표가 났습니다. 이를 안 닦은 것입니다. 너무 꺼렸습니다. 호리라도 남아 있으니 꺼리고 표가 났습니다. 온몸 전체에 비해

이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호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바로 표가 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꺼려서 그대로는 기도하지 못하여 다시 일어나 이를 닦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호리라도 있으면 회개해야 예수님과 통하고 꺼림이 없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맞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다 드러나고 표가 난다.’고 했습니다. 고로 회개하여 없애고, 행할 일을 어서 속히 행하여 표가 나게 해 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령 집회 때는 호리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깨끗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영혼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같이 닳으로 변화하듯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듯이, 생명의 유전자가 태 속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듯이, 흙을 빚어 1200도 불가마 속에 넣으면 흙이 도자기로 변화하듯이, 잠철이 3000도 도가니 속에 들어가 금만 남아지듯이, 악인이 선인으로 변해야 됩니다. 세상만을 위해 먹고 즐기고 사랑에 빠져 이성으로 살고 물질과 명예와 각종 육적인 것을 중시하며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던 자들이 절대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고 영을 중시하고 하늘나라를 중시하여 사는 자로 모두 변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이후로 지금 이때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한없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신과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를 받아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휴거 받는 자가 됩니다. 휴거의 비밀에 대해 주님은 진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단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휴거되느냐고 물으니, 주님은 “너희 선생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휴거의 1차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거는 변화다. 변화되어야 휴거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계시를 자꾸 듣고 실천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주님은 “어린이같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집회를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든지 신입생들에게 전초를 해 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이며, 모(母)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라고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게 해 주고 천국에 가게 해 주는 구원자로 절대 믿게 해 주고, 죄에 대해 가르쳐 주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 줘야 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재하여 거듭나는영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영이 된다고 모두 전초해 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집회 준비를 꼭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거듭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닦지 않고 기도하려다가 꺼려서 다시 이를 닦고 기도했던 날 새벽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육보다 강하고 신령한 영이 있는데 육으로 살면 정말 약하다. 육의 희망은 잠깐이니 육으로 살면 육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다. 육만 중시하여 사는 자는 마치 자전거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사는 인생과 같아서 너무 힘들게 산다.

육으로만 사는 자는 마치 소경이 되어 사는 자와 같이 답답하고 힘들게 살고, 영으로 사는 자는 마치 눈을 뜨고 사는 자와 같이 편하게 산다. 육적으로만 사는 자는 마치 기계로 할 것을 손으로 하는 것같이 힘들게 일하며 산다. 육적으로만 사는 자는 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사는 자와 같이 불편한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이와 같이 육적으로 사는 자와 영적으로 사는 자의 그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종일 한 발로 걸어 다녀 보세요. 불구의 삶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을 해도 육으로만 하고 영으로 하지 않고 사는 자는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불을 받지도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시니 힘들게 산다. 기도하여 영계의 눈을 떠 보면, 육으로만 사는 자는 마치 차를 운전하는데 자연서 달려가다가 갠 것과 같이 쇼크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지옥 쪽으로 가게 되고, 회개하면 천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은 자는 사망의 지옥 쪽에 깊이 빨려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옥은 이 세상이고, 영혼의 지옥은 육신이 죽은 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육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나 죄를 지은 자는 육신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 지옥의 삶을 자기 생활 속에 겪으면서 살기에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앙의 첫사랑을 뺏긴 자들은 육신이 그만큼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섭리세계에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연애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도 삶이 지옥이었다고 하며 더 이상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디서나 짓값으로 고통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어서 천국, 죽어서 지옥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적 지옥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지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영원한 지옥에 안 가니까 육신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짓값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을 안 주시지만, 육신은 죄지은 것에 대하여 형벌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벌이 끝난 후에야 애굽의 종 된 몸에서 풀려났습니다. 섭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의 세계를 벗어나야 육신도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 지옥에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자들, 주님과 일체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주님을 섬겨 살지 못하는 자들은 걱정·번민·고통을 받으며 각종 생지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큰 주권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허무한 인생이로구나. 영원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왜 인생이 살아야 하는가? 영혼의 기쁨의 무엇이냐?”고 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도 천국의 삶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청하십니다. 속히 오라고 하십니다.” 하며 데려와 시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여 기쁨의 옷, 희망의 옷, 사랑의 옷, 믿음과 평강의 옷을 입고 주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살아 재림을 맞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마지막 이때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불철주야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 지난 10월 21일 수요일 설교와 10월 25일 주일 설교 중 정정된 부분이 있으니 알려 주기 바랍니다.
(말씀 후에 꼭 전체에게 알려 주기 바랍니다.)**

1. 10월 21일 수요일말씀 중 (3페이지)

- 선생도 전에 중국에서 고생할 때 매일 50여 명 -> 500여 명의 제자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면서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뒤바꾸어 보내니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2. 10월 25일 주일말씀 중 (11페이지)

- 아나콘다 뱀에게 물리면 죽기도 해 가면서, 참새나 -> 참새만 한 메뚜기에게 뜯겨 가면서, 수많은 모기들에게 뜯겨 가면서 선교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들어가 봐야 그제서 알게 된다

본 문 마태복음 22장 11-13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겨울철에 못 견디게 추울 때 누구든지 불이 급선무입니다. 뜨거운 음식, 따뜻한 옷과 방, 뜨끈뜨끈한 사우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세계에서도 냉랭한 자신의 마음과 냉랭한 세상을 대하면서 자꾸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고 열기가 식어질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해 줄 ‘성령의 불’이 급선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우나 같은 뜨거운 성령의 뜨끈한 말씀과 따뜻한 옷과 같은 따뜻한 사랑, 의의 행실, 화평의 행실들이 필요합니다.

냉랭한 생활과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의 기온이 점점 떨어져 가면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희망이 없어지고, 걱정·근심·염려를 함으로 자꾸 마음이 식어져 가니 그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온이 36~37도에서 자꾸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세계에도 지정된 법칙이 있습니다. 기준치에서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면 살고 싶어도 생명권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떨어지면 결국 사망권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곧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같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뜻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냉랭한 삶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한 세상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봉독 -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애원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더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더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으로 비유하면 돈을 더 많이 충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집 지을 땅만 구입하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격입니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집 지을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끼리는 못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못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못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사망권에서 나와 새로운 행실로 살아야 더 좋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삶의 구원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살아도 각자 행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모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제야 세상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서는 늦습니다. 더 좋은 곳에 못 간 자는 그제야 후회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말씀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간 자는 쫓겨난 것처럼 갓출 것을 갖춰야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제도에 따라 갓출 것을 못 갖추면 제한된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갖추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갖추지 않고서 하나님께 사정하지 말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낙입니다. 속이 시원하고, 기뻐입니다.

혼인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 갔어도 쫓겨났듯이 하늘의 운을 탔어도 갖추지 않은 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의 운을 탔어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해 준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못 갈 자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못 가는 자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을 하거나, 혹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 곧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 비유에서도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고 데리고 왔으니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초청받은 자가 할 일이지, 임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일을 안 했기에 쫓겨난 것입니다. 예복을 갖추는 것은 실상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혼인 잔치 말씀은 우리도 그같이 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 이야기로 듣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하늘의 혼인 잔치도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할 일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나라도 준비되었기에 사람들을 보내어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행하는데 힘들면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과 함께 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삶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으로 살면 세상의 삶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는 축구복을 입어야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신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자는 하늘나라 의의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안 입으면 아예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수백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만일 하늘나라에 갈 자로서 갖추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간다 해도 천국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만든 자만 가는 곳입니다. 부지런히 만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둘러라. 왜? 자기 때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스스로 너를 재촉하여라. 시간에 늦으면 만들다 만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해 주라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일이든지 말로 듣고 아는 것과 실제로 부딪혀서 당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지옥도 성경을 읽고 말로 들으면 여러 가지로 고통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 유황 불바다에서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그 괴로움을 몸으로 표현한다. 불 속에서 너무 목이 타고 혀가 타서 헛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한다. 너무 괴로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 준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한다.’ 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옥에 갔다 온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서 본 대로 표현하기를 ‘지옥의 고통은 너무도 잔인한 고통이다. 지옥에 간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 영혼을 잠깐씩 불 속에 넣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온 후에 지옥에 대해 쓴 책을 읽어 보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다. 세상의 고통을 한꺼번에 받는 것과 같다. 무게로 따지면 지구를 머리에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하며, 정말 괴로운 고통을 상상 못 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뜨거운 불에 손가락을 넣어 보면 지옥의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온몸이 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희망이 없는 고통이기에 너무 괴롭습니다.

지옥은 ‘세상 지옥’이 있고, 죽은 후 ‘영계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세상에서 살 때 육신과 마음으로 받고, 영계 지옥의 고통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서 그 영혼이 받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도 지옥 고통을 받습니다. 믿는 자라도 하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고통을 받습니다. 영으로 가서 받는 지옥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생활 속에 받는 육적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서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고 살았다며 주님께 회개했어도 너무 괴롭다고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선생에게 부탁하기를 주님께 이야기해서 제발 용서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약한 자들을 꼬이고 이성 관계를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마치 신하가 왕비를 취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섬리 바깥에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산 자들은 물질 축복이 끊기는

것은 물론, 그 영혼이 사망권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이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이성 죄를 저지르고 온 여인에게 너의 지은 죄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11).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서약한 후에 죄를 지은 자들은 주님을 사랑으로 배신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배신은 정말 큰 죄입니다. 순간 실수한 자들도 있고, 개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몇 년씩 자기 좋은 대로 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격이 상실된 자들입니다. 과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 걱정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선생도 주인이 아니니 제대로 판단을 못 해 줍니다. 잘못 판단했다가 선생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선생이 ‘용서되었다. 용서 안 되었다.’ 말해 주지도 못합니다. 각자 주님께 괴로운 마음과 꺼림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초조함, 불안함, 두려움, 괴로움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악마와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사탄의 것이 되어 사니 사탄이 따라다니며 고통을 줍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선생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개되었다.’ 할 수도 없고, 혹은 안쓰러워 ‘괜찮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었는데 회개되었다고 했다가는 그는 선생 때문에 구원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일대일 회개’입니다. 선생에게 편지가 오면 선생은 코치를 해 줍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 범죄 하고 회개한 자와 아예 주님께 서약하고 깨끗하게 산 자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고 여쭙니, 주님은 “**범죄 하고 회개한 자는 깨진 항아리가 박물관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결혼 후에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이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고 다시 살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도 항상 죄인 된 입장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그 본래 자리는 뺏깁니다. 선생은 섭리역사를 오면서 30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일반 직책을 가진 자들도 사명을 못 하면 다른 자가 그 자리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대개 법을 어기고 주님을 사랑으로 배신하는 것은 다 사탄의 주관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로 보면 대낮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겪어 봐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정국들 중에서는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자들과 사랑하며 산 자들이 있으니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은 가정국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할 짓 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자들과 같은 자격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보고 주님은 이름은 대지 않고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섭리사에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선생 앞이나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암에 걸리고서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숨기면 사탄이 계속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에 갔다 와서 이야기하여도 무서운 것만 알지, 근본의 고통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느냐고 여쭙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옥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한 발자국 전까지도 모른다.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깝냐? 죄를 지으면 마치 지남철이 쇠를 잡아당기듯 지옥의 블랙홀이 빨아들인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발자국 전에도 모른다. 그러다 앞발을 내디딜 때, 영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떨어질 때, 그때 지옥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을 영의 몸이 몸소 느끼며 가물거리는 볼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때부터 영이 느끼니까 육의 정신보다 수천 배 생생하게 괴로움을 느낀다. 고통을 지르며 벗어나려고 해도 자기 죄의 무게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떨어진다. 그리고 지옥 바닥에 떨어져 그 뜨거운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세상에서도 교통사고가 나기 1초 전에도 모른다. ‘꽂’ 하고 부딪혀야 그제야 몸소 고통을 겪으며 아는 것이 아

니냐? 그같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모르고 산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매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복음의 사람들을 보낸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어서 구원하여라.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천국에 들어가야 그제서 알게 된다. 월명동에 처음 가는 자들도 월명동 삼거리 갈 때까지, 석막리 갈 때까지, 중말거리 갈 때까지 아무리 말해도 모르지 않느냐? 연못을 보고 운동장을 보기 시작해야 아는 격이다. 천국도 지옥도 그러하다. 재림 전에 내가 외쳐 주며 계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죽해야 재림을 코앞에 놓고 재림의 주인공이 이같이 외치고 다니겠느냐?

기도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촌의 그 어떤 곳이라도 내게 말해 보아라. 내가 모르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아라. 너희가 크면서 너희가 사는 동네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기에 알듯이, 나도 그 넓은 지구촌 곳곳마다 안 가 본 곳 없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관리하려고 다니고 또 다녔기에 지역도 잘 알고 사람들도 잘 안다. 깊은 산골짜기라도 한 사람을 보고 길이 닳도록 다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쫓아다닌 것이다. 사랑을 짊어지고 그렇게도 쫓아다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같이 기르고 키웠다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주님께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심정을 알았으니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지쳤다. 나를 위로하라. 뛰기만 하지 말고 나를 구원할 나의 심정을 알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뛰자.” 하셨습니다. 선생부터도 내 심정 모르고 내가 시킨 일만 기계처럼, 동물처럼 하면 소같이, 자동기계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국도 지옥도 가 봐야 그제서 안다. 지옥에 떨어질 때 그제서 알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제서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늘나라에 간 후에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그제서 그동안 못 한 것을 후회하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된 자는 주님의 심정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과 달았다가 떨어졌다가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은혜 받은 때만 하면 안 됩니다. 다 회개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소홀히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지옥에 떨어질 때 그제야 안다. 나를 위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며 산 것도 천국에 가 봐야 그제서 안다. 회개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에 가서 알게 된다. 의를 행하며 악평자와 행악자들과 싸우지 않고 참고 견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된다. 근본은 천국에 가서 알지만 세상에 있을 때 내 심정을 알고 위로하면서 사는 자는 정말 내가 사랑하며 재림 전에 큰 희망으로 삼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옥도 닦쳐야 알고, 예비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재림 때 닦쳐야 압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혼인 잔치날 부딪히니 알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도 신랑이 와서 부딪히니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못 맞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전쟁의 날이 닦쳐야 그제서 압니다. 성경을 보면 예비하지 않은 자들도 그 날이 닦치니 알았습니다. 소동과 고모라 성도 불비가 쏟아지는 그 날이 되니 알았습니다. 앞날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환난과 재난이 닦쳐야 그제서 모두 알 것입니다. 선생은 이미 수백 번 앞날의 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미 그 날들이 닦치고 지나갔습니다. 앞날에 또 옵니다.

선생은 환난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외치고 싶습니다. 재림 전에 예비하라고, 회개하고 온전히 살라고 더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으니, 열 처녀 중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듯이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에 입을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온 SS 신입생 중에 마귀를 보면서 그들과 열렬하게 싸운다며 내게 편지가 옵니다. 절대 주님을 중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영안으로 보고 외칩니다. 오래된 자들은 사탄도 제대로 못 느끼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영적 시대입니다. 섭리사에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이 3분의 2쯤 됩니다. 놀랐지요? 회개해야 벗어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사슴의 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가면 얽혀 버립니다. 빨리 발을 들어 빼야 됩니다. 그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는 2차 경고입니다. 3차 경고는 올무의 주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쇠줄

로 묶어 버리니 그 쇠줄을 끊고 벗어나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벗어나야 됩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고 식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섭리사같이 열렬히 외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생도 고통 중에 기도하며 외치니 주님께서 더욱 깊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온전하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주일말씀>

주님의 성찬 예식의 뜻과 의미

본 문 마태복음 26장 26-29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뜻과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열두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근심하여 “주여, 저는 아니지요?” 여쭙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기다리는 자들이 알지 못함으로 악으로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인 나 예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지금 떡에다 손을 대는 자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주여, 저는 아니지요?” 여쭙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축복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주시면서 “받아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졌던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예정이라도 해 놓은 것처럼 많은 자들 가운데, 한 팀 중에 꼭 한 명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예정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아서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했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 문제, 돈 문제, 불신하는 문제, 혹은 각종 책임을 못하고 실수하여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경계하고 잘 다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잔칫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나, 섭리세계에서나, 어떤 팀에서나, 각 기관에서 예의 없는 짓을 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모두의 의 옷을 입어 깨끗하니 행실의 옷에 이상이 있으면 금방 표가 나게 됩니다.

꼭 한두 명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들통 내 버리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의 사랑하는 생명들을 위해 말해 주십니다. 그런 자는 가는 곳마다 그 같이 하니, 일을 맡기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사고가 잘못된 가룟 유다를 알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섭리사에서도 어떤 문제 되는 자가 있을 때 지도자들은 먼저 알고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줍니다. 교단이나, 중고등부·대학부·청년부·가정국·장년부 중앙의 지도자들은 이제부터 더욱 따르는 자들 중에서 주를 팔 자가 있는지 잘 보고, 또 문제를 일으킬 자가 있는지 잘 보고 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도 잘 안 되고, 부서도 잘 안 되고, 그 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교회와 부서와 어떤 팀이 발전하지 않고 힘들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뒤늦게 회개함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 앞에도 1년, 2년, 10년이 가도록 회개하지 않다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만큼 형벌이 따릅니다. 근본으로 회개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모두에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성찬식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예수님을 불신한 그 시대의 죄를 그냥 놔두면 멸망을 받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입니다. 택한 자들이라도 모르면 반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고, 구약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해서 사명자들을 보내면 그 시대는 모르고 배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무지가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무지한 만큼 무지하게 손해 갑니다.

모르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알면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몰라서 못 하고, 알아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사람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무식한 것 같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 지혜로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판단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 대신 죽어 줘야만 불신한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므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어떤 연극의 각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에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몰라보고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면 성경에 고난의 주로 기록된 대로 가기는 하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판 후에 괴로워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화가 그 뿐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지옥의 화가 있습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민족이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그를 위해 대신 죽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믿는데 왜, 왜, 왜 죽어 줍니까? 상대가 잘하는데 왜 그를 위해 대신 죽어 줍니까? 정신적 심정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애인이나 자식이 말을 잘 듣는데 왜, 왜, 왜 그로 인하여 고통 받습니까?

성경에 주님은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영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며, 영광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구촌 전체를 다스리셨다면 세상이 얼마나 태평하고 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태평과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는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저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 메시아다.” 하고 믿고 산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자기에게 오신 것입니다.

선생 역시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며 부정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고로 주님을 영광의 주로 맞이했습니다. 영광의 주라고 기록된 대로 주님을 성경대로 모셨습니다.

성경에 ‘고난의 주, 영광의 주’라고 기록된 대로 두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의 주’로, 믿고 맞은 자들에게는 ‘영광의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불신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불신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은 사명자와 함께 참아 주시며 심정의 십자가를 저 주시고, 육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 모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주’가 됩니다.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믿고 따른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성경의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주님이 고통 당하신 것은 예정이니 당연한 일이다.’ 하며 모순되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같이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한 곳만 보며 이치에 맞지 않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세 때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일체 되었다면 주님은 절대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다. 인간들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메시아가 받아서는 안 될 고통을 당하셨으니, 주님의 심정을 알고 영광의 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늘의 운명으로 돌아가셨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섭리사는 그들이 몰라서 주님을 죽였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어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가르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심정을 모르면 주님의 참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깊이 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너희 위해 죽어 주었다. 왜 나의 심정을 모르느냐?” 하시며 그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죽는 것이 뜻이었다면,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었는데 너희는 왜 괴로워하느냐?”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불신했습니다. 주님은 악인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니 그같이 하라.”고 하신 성경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같이 했다면 왜 행한 대로 받았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너희를 모으고 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싫어하였도다. 보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짐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정대로 했으면 축복을 해 주셔야지요. 왜 이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속 시원히 성경을 풀어 전해야지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계시를 받는 자는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눅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이 못 되어서 주후 70년에 함락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시며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래도 주님이 본래부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경말씀을 바로 해석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인자를 팔았으므로 그같이 운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행하는 자들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같이 대한 자들도 동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게 좋았으련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그 육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한 자들’입니다. 인생 100년 동안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해봤을지라도 죽은 후에 그 영이 지옥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고생했어도 죽은 후에 그 영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행복한 자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수십억 배 낫습니다. 태어났으니 모두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평생 자기의 원수라도 지옥을 겪고 온 자라면 지옥에는 보내고 싶지 않을 만큼 지옥은 영원히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우고 교육해야 할 것은 꼭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어떻게 해서 그같이 되었는지 정말 알고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꼭 할 일들을 재촉하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실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다했을 때 못 합니다. 현실에서 현재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과거에 못한 것을 하는 때를 맞게 되고, 현실에서 미래의 성공을 위한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현실은 미래의 운명을 조종하는 귀한 때입니다. 현실에서 흥청거리면 미래에도 그 인생은 흥청거리며 끝납니다.

주님은 **“중심을 잡아라. 균형을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과거와 미래의 중심’입니다. 전체를 중심해서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전체의 중심을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전체 중심은 전체를 보고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늘 물어보고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하면 ‘죄’라고 합니다.

섭리사의 갖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선생에게 물어볼 것을 안 묻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직을 맡은 자들인데 안 묻고 행합니다. 이는 선생에게 보고하면 문제가 있어 허락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묻지 않고 거짓말하며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보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문제가 있으니 즉시 사명을 철수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것 하나를 선생에게 허락받으면 그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합니다. 옆에서 이상하다고 하면 선생에게 허락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상해서 선생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가지를 허락했다고 말해 주면, 그들은 “5~6개씩 합니다.”라며 그 행위를 말해 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사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달걀 하나 사 오라고 하면 하나만 사 오지, 왜 다섯 개씩 사 옵니까? 달걀 주인을 좋게 하면 됩니까? 섭리사에서 형제는 죽든지 살든지 자기만 유익하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형제에게 돈이 있으면 선생의 이름을 대거나, 각종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어이 빼 갑니다. 선생이 늘 참으라고 하니 그 기회를 이용하여 거짓 행위를 합니다.

요즘도 모사를 써 가면서 섭리사에 돈 있는 자들 찾아다니며 또 그같이 행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짓인지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선생도 잘못된 자라고 판단합니다. 선생까지 속이니 안 됩니다. 겁 없이 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형제들에게 공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빼내 갑니다.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몇 억씩을 그리합니다. 왜 뺐냐고 물으면, 선생이 교단에 임무를 준 사람이 섭리 교회를 만든다고 하고, 그같이 하면 선생도 좋게 될 수 있다고 하여 뺐다는 것입니다.

선생을 이용한 사기들 좀 그만 쳐요. 이제는 그냥 안 듭니다. 돈을 준 자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 모두 다 거짓이었다고 하며, 자기가 돈 준 것이 잘못이라고 자기가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아직도 사명을 이용하여 형제들의 돈을 빼 갑니까?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주님은 **“불법자는 내게서 물러가라.”** 하십니다.

선생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들통 날까 봐 선생에게 묻지 않고 행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 해도, 왜 돈을 주는 자는 선생에게 묻지 않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끝까지 용서해도 그같이 행하며 계속해서 선생을 이용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섭리사는 모두 주님이 양같이 만들어 놓아서 이리나 염소들에게 정말 이용을 잘 당하니 절대로 선생의 허락 없이 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또 합니다. 그런 자들도 선생의 말을 안 믿는 자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편지가 옵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신앙을 지켜 열심히 할 때인데 이같이 하면 됩니까? 그같이 행하는 자는 안 고치면 평생 그같이 행합니다. 섭리사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하게 광고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종직자와 교역자들에게 다 말해 주기 바랍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이나 충성해야지, 사명의 권한으로 자기 유익을 챙기면 안 됩니다. 일을 맡길 때 다 서약 받고 맡기는데도 안 됩니다. 행한 대로 대해야 됩니다. 절대 선생이 보는 데서 말하기 전에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을 주는 자들은 돈이 남으니 주는 자들입니다.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만민을 위해 흘리는 구속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몸을 제자들을 위해서도, 불

신자들을 위해서도 다 내어 주셨습니다. 마치 제물로 드리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몸과 피가 되어 내 정신으로 내가 못 한 것을 대신 행하여라. 내가 피로 값을 주어 너희 몸을 샀으니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어 준다. 죽으니 없다. 그리 알라. 이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것으로 난 것을 먹기 전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판국으로 보아서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니 ‘죽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가 주님을 환영하며 영광으로 모시고 세상이 좋은 때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으면, 아마 제자들은 “주님, 걱정 말아요.” 했을 것이지만, 이미 판국이 기운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쫓겼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은 늘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며 잡으러 다녔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의 현실은 극히 혈안 되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제자들과 모였을 때입니다. 다만 안 잡히고 있을 순간의 때였습니다.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야 나를 잊지 않는다. 너희 몸은 내가 피로 값을 주고, 몸을 주고 산 것을 알고 기념해야 된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와 한 혈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한 몸이 되어 나는 너희의 신량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같이 주님과 제자들은 한 혈통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갓은 환난이 왔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불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외치며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선생이 지난날 행악자들로 인하여 쫓기고 억센 손에 잡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자들을 모아 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맛있게 먹어라.” 하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쨌든 그리 상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노정을 따라 행했는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신중히 이야기한 후 며칠 있다가 그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안 믿고 불신하면 고난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데 세상의 무지와 악함으로 인하여 본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 편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길로 결단코 뜻을 이루십니다.

본래 뜻대로 안 될 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본래의 뜻대로 못 하게 될 때 인간들에게 많은 손해가 갑니다.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못 받게 됩니다. 영광으로 가면 많은 자들이 구원에 참여합니다. 고난으로 가면 많은 자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믿고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극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의 것을 다 받고 돌아가셨으니 세상의 가혹한 고통을 극적으로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도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었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같이 가혹한 최고의 형을 받으셨으니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속량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피 값과 그 육체가 대신 죽은 값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생각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 살인자들이 받는 형을 받으셨고, 최고 죄인들이 받는 형을 받으셨습니다. 만민을 위해 그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은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늘 쫓기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의 고통까지 극적으로 잔인하게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당한 자만이 압니다. 고통을 받고 맞은 자만이 압니다. 어떠한 사명을 하면서 비슷하게라도 받아 보아야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혹하게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고 죽

으셨는지 성경에는 세밀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날에 다 드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글을 통해 주님의 고통에 대해 말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은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의 궁중 생활 기록문서 중 개인 소장품 중에서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는 글로서 후에 발견된 기록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 달라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글은 **이태리 마리아 발도르다**의 글입니다. 그녀는 37세부터 27년간 죽기까지 침대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4년 동안 환상을 보여 주어 글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것이 15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핵심만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사 한 목사를 통해 보내어 읽게 하였습니다. 모두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알아야 그 심정 알아주지, 그냥은 모릅니다. 오늘 다시 들어 보고 주님의 고통을 알고 심정을 알기 바랍니다.

1.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체험의 글

이 글은 **헝가리 황제의 딸, 엘리자베스 공주**의 궁중 생활 기록문서 중 개인 소장품 중에서 후대 사람에게 남기는 것으로 발견된 기록이다. (1207~1231년)

그는 어느 날 질병으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주님이 고난 당하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목상을 하다가 한 번만이라도 줄으니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만나 뵈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뒤뜰에서 끌고다 언덕까지의 과정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주님 : 그때 나를 둘러선 빌라도의 군병은 150명이었고, 그중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끌고 간 군병은 23명이었다. 나를 사형 집행할 때 흑 민중들이나 제자들에 의해 민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무장 군병 83명을 추가로 주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 머리는 150번이나 주먹으로 크게 맞았고, 180번이나 발길질 당했으며, 양쪽 어깨는 채찍으로 80번이나 맞았으며, 내 머리칼은 곤처럼 꼬인 채로 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으며, 나는 24번이나 심문을 당하느라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 세례를 받았고, 11번이나 채찍으로 머리를 맞았다.

나는 낮 12시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머리가 찢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렸다. 특수 채찍으로 뼈가 부서질 듯이 100번을 맞았으며, 머리에 씌워진 강철 같은 가시관은 가시가 7~8cm나 되었으며, 그 가시관은 너무나 아파서 신 포도주를 머금지 못하고 3시에 운명하였다.

가시관의 가시 숫자는 72개였는데 머리에 박힌 상처는 110개인 이유를 물으니, 이 가시관을 한번 벗겼다가 다시 씌웠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박은 못은 20cm로 그중 하나가 산타클로치인 예루살렘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2.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체험의 글

마리아 발도르다(Maria Valtorta) : 1897년 이태리 가제르카에서 출생. 37세부터 죽기까지 27년간 침대에서 생활했다. 예수께서 나타나 영화처럼 보여 주신 환상을 4년 동안 기록한 것이 15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가 목상 중에 받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환상 중 일부를 소개한다.

네 번째 집행인은 머리가 둥글고 팽팽한 1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기다란 못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며 나무에 뚫어 놓은 구멍이 손목 관절과 꼭 맞는지를 확인한다. 사나이는 쇠망치를 들어 올려 손목 끝에 세워 놓은 못을 향해 일격을 가한다. 눈을 감고 있는 예수님은 극심한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을 감아쥐고 눈물이 흥건한 눈을 뜬다.

이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 못은 근육과 맥과 신경을 찢고 뼈를 부수고 관통한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린다. 예수님은 너무 아파 신음하다가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그 아픔을 입으로 삼키며 다시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당시의 태형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리 때리는 방편으로 로마 군병이 때릴 때도 있지만, 이집트의

가장 포악한 노예 6명을 선출하여 그들의 울분을 마음껏 채찍으로 풀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는 것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들 6명이 교대로 술을 마시며 지칠 때까지 때렸다.

- 1차 : 두 명이 탄력 있는 흰 가죽 채찍으로 피범벅이 될 때까지 때리다 지치면,

- 2차 : 다른 두 명이 딱딱한 파칠라우스 채찍으로 때리는데, 끝에 뼈가 달려 있어서 때릴 때 살점이 튀고 피가 튀었다. 그들도 지치면,

- 3차 : 마지막 두 명이 끝에 갈고리처럼 동물의 뼈 같은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는 채찍으로 때릴 때 옆구리, 등허리, 이마가 깊숙이 패어 피범벅이 되고 녹초가 되는데 이때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에 맞는 감각이 없을 때까지 때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였다.

모두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같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든, 악이든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주님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자꾸 죄를 짓는 자는 현재도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욕을 보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괴롭히는 대상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쉽게 좋아서 지었지만, 죄를 없앨 때는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받아 주시고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도 대가가 따릅니다.

<중요 : 성찬 예식의 의미>

주님의 이 같은 고통을 알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라고 성찬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신성해야 됩니다. ‘성찬식의 뜻과 의미도 모르면서 성찬식에 임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꺼림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고 준비하고 참여하면 더욱 거룩한 자, 깨끗하고 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또 자기 몸을 주님의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섭리사는 다음 주일(11월 15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왜 안 했을까요? 주님이 희생하시기 전에는 성찬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시대가 악함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불신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신 셈이 됩니다.

주님은 늘 “이 시대에 나의 심정을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난 30년 동안 마치 주님의 3년 노정과 같이 우리를 통해 복음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주님의 견본 노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보고 성찬 예식을 하라고 하셨으면 벌써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금년도부터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마음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섭리역사는 주님이 행하신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7년, 7년, 7년을 마치고 섭리사에 시대의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고, 복음에 대한 불신과 악평들이 와 우리를 막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심정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의 주인인 구세주 예수님은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선생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고 용서의 길을 열어 주어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모세 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모세의 노정 역사와 같이 역사를 펴셨습니다. 야곱 노정, 요셉 노정, 천주교 노정, 기독교 노정, 섭리사 노정, 주님이 가신 노정은 모두 십자가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사가 하나님의 참된 역사, 주님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죄인들의 죄는 의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며 갔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왔기에 이야기하면 잘 알 것입니다. 전형 노정, 혹은 본보기 노정, 혹은 주님의 노정을 개인도, 시대의 사명자들도 맞추어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몸을 내어 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은 영체의 몸으로 나타나 제자들과 복음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 주시어 제자들에게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의 불이 붙어 역사하셨듯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제자들이 성령, 곧 하나님의 신을 받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알고 믿고, 알고 증거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두고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책임을 못함으로 본래의 뜻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고

난을 받고 희생함으로 기어코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의 뜻을 잘 알고 신성하고 거룩하게 예식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왜 성찬식을 하는지 알았습니까? 모르는 자들은 ‘왜 이제야 성찬식을 하지?’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서 어렵히 알고 지휘하시겠습니까?

몇 주 동안 주님으로부터 성찬 예식에 대해 눈물겹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시대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꼭 성찬식을 해야 된다. 너희 신부들의 성찬식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이 역사를 알고 시작할 때 주님께 동시성 역사를 배우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알았습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무지하니까 반대한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반대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함께 모으고 헤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을 반대했고 불신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 선수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오직 주님만 섬겨 왔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한 자들은 우리들같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교회에 다녔든지, 혹은 다니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어디를 가나 ‘주님. 주님.’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잘 가르쳐 주고 깊이 가르쳐 주니 주님만 위해 살겠다는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부르기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영원한 신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 주었습니다. 신부 입장의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근본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예 그같이 신앙을 넣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주님을 보통으로 가르쳐 주고 보통으로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이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보통으로 교통하고 보통으로 교제해서는 주님을 그저 믿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애인, 부인, 남편, 형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으며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극적으로 좋아해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신부 취급을 해 주고, 믿는 자들도 주님을 신랑같이 모시고 살게 됩니다.

세상의 남녀 사이도 보통 가까워서는 자기 신부나 신랑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 신부고, 신랑인데 보통으로 대한다면 그를 위해 자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세상 물질과 세상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최고 신랑으로 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 합니다.

선생도 처음 교회에 다닐 때, 그냥 예수님을 가까이 대할 때는 주님을 보고 ‘친구 같다.’, 혹은 ‘형제 같다.’ 여기며 그 정도에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깊이 하고 주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니 주님을 만날 때마다 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대하는 것을 보니 보통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선생도 더욱 주님을 보통을 넘어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치를 보니 아주 나를 키워 애인으로 만들어 쓰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꿈에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대하시는데 주님이 짝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애인같이 대하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좋아하다가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냐?’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여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주님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자가 많으니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주님 곧 오신다고 할 만하지요. 정말 선생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집을 지어 주지도 않으셨고, 월명동 개발을 해 주신 때도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주님과 애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대만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이 타 종교의 한 여자를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나의 사랑을 몰라주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 가르쳐 줘도 그 여자는 자기 종교 지도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크게 보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3년이나 쫓아다니며 물심양면으로 살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주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받기만 한다면 다 해 줘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뭘 해 줘도 잘 받지 않았습니

다. 다른 자가 해 주는 것은 달갑게 잘 받는데 내가 해 주는 것은 잘 받지도 않고, 받아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사랑으로 받지 않고 도리 상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심정을 말해 주면 좋겠는데 정말 애간장이 탔습니다. 주님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도 성경을 풀어 주면서 가르쳐 줘도 안 믿었습니다.

그녀의 환상에 내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고, 해가 자기에 떨어지는 꿈도 꾸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 주님을 상징하여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보여 준 것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믿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이미 약혼하여 사랑하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은 난생 처음 사랑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나타나시어 “네가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도 그 여자가 네 심정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듯이, 내가 인간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여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자기 좋은 대로만 사니 나는 너와 같이 짝사랑으로 끝나고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 되고 끝났다.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짝사랑하게 두고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만 알게 된다. 너도 내가 그렇게도 사랑한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그 심정 모르고 나를 대하면 너도 내가 짝사랑하는 자로 끝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 여자를 사랑하다가 끝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짝사랑의 한을 풀어 달라. 나도 너의 한을 풀어 주겠다. 나를 극히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여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은 주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짝사랑의 충격과 한은 자기가 사랑했던 자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자를 만나 열렬히 사랑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짝사랑의 충격과 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한을 섭리사로, 나로, 우리들로 푸셨습니다. 고로 섭리사는 주님을 신앙으로 삼고 예술과 말씀의 불을 붙여 왔던 것입니다.

섭리사는 주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 주며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도 풀며 왔습니다. 선생도 짝사랑의 충격을 섭리사에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 줌으로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이 짝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선생은 그때 그 같은 일을 겪고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고, 또 수만 명씩 전도하여 나와 같이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그같이 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동안 주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예전 역사에서 받은 충격을 섭리사에서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섭리사 사연이 깊습니다. 주님의 짝사랑 한을 풀어 주니까 때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니 특히 주님의 때를 알도록 말씀해 주시며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부의 신앙을 30년 동안 해 오게 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왕이면 지난날이고 현재고 깨끗이 살면서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떳떳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더하게 이성으로 범죄 하며 살고 와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랑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이란, 먼저 자신을 주님께 흠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은 먼저 선생 자신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고, 따르는 자들도 주님의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섭리는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이같이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너희와 함께했는지 아느냐? 다 내가 해 왔다.”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의 예술로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이 이전 역사에서 받았던 짝사랑의 충격을 다 없애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이 같은 전통의 하늘 뜻을 더욱 빛내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야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됩니다.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니게 해야 됩니다.

요즘 섭리사의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대화하시면서 “너를 멀리서 쳐다보다가 내 마음에 안 차서 보고 싶어 대화하려고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주님, 정말이예요? 정말이면 그 말을 믿게 해 줘요.” 하니,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충격 받고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의심해서 잘못했다고 다시 와 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이 옆에서 “울지 마라. 옆에 있다. 네가 안 보이게만 한 것이야. 내 심정의 사실을 증명하려고… 맞지? 내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온 것을 이제 믿겠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예. 믿겠습니다.” 했답니다. 주님은 “섭리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너와 같이 그러하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계시를 잔뜩 받아서 내게 보내왔고, 선생은 그것을 다 읽느라고 눈이 피곤했습니다. 제발 주님 심정 몰라 주어 주님이 오래도록 계시하게 하지 말아요. 긴긴 대화, 긴긴 계시 확인하다가 주님이 선생에게 맡긴 섭리사의 일과 책임을 다 못 합니다.

섭리사에 자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자들이 매일 계시를 받아 보내니 끝이 없습니다. 이제 선생이 답장을 안 보내도 잘못되어 답장 안 한다고 생각 말고, 섭리의 다른 일 하느라 못 봐서 그러니 그리 알기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의논하며 한정된 자들의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바쁘니 짧은 것만 결재하겠습니다. 어떤 계시는 주일말씀보다 훨씬 더 길습니다. 개인들이 각각 한 번에 20장, 15장, 10장 받은 것을 일주일 동안 합하여 보내면 엄청납니다. 개인 것이 우리 섭리세계로 나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이 개인에게 그같이 길게 계시하는 자들이 소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 의지로 받는 것이나, 협조 영이 주는 계시나,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깨닫는 것이나, 은혜로 깨닫는 내용은 너무 평범하니까 설명 없이 답이 안 갑니다. 성령 시대라 거의 모두 영적 체험을 하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사람마다 뜻이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깨달으니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써 보내면 다 못 씁니다. 눈이 피곤해서 돋보기도 안 통하고, 아무리 글씨를 크게 해서 보내도 온종일 읽다 보면 안 보입니다. 시간 있으면 다 봐 주겠는데 한계를 넘었습니다.

계시받는 자들은 꼭 보낼 것과 보내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선생의 심정을 알면 주님께 간단히 달라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확인해 주어 간증케 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보낸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자기가 계시받은 것들을 컴퓨터 열어서 계산해 봐요. 본인도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섭리사 온 세계 각 나라에서 몇 명씩 계시를 확인해 달라고 온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봐요. 선생도 말씀 받아야 되고 기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성찬 예식을 잘 준비하고, 대상자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새벽예배 때 성찬식에 대해 더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 11월 11일 수요말씀>

성만찬식과 동시성 역사

본 문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준비한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 성찬식에서부터 이 시대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악인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죽음과

고통과 역경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임과 만남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하고픈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주님에게도 앞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고통 당할 것을 생각하시며 슬픔과 아픔과 비애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실상 직접 그 상황을 당해 봐야 아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걱정·근심·염려·불안만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말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순간에 처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정을 이야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우리 섭리사는 2007년에 극적인 고통을 몸소 당해 보았으니, 그때 애간장 태우고 심정 태우며 울고 통곡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때가 어떠했는지 느낄 것입니다. 선생도 내가 직접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직접 당해 본 자만이 그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 줍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고 살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그 몸을 내어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길을 떠나시면서 유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을 지켜 줍니다. 애인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 산 자는 그것이 자기의 정신이 되어 지켜 주고, 풀어 주고, 그 말대로 살아 줍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어라. 이 떡은 내 살과 같다.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의 살을 준다.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 너희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죽어 줌으로 너희를 영원히 살린다.” 하셨습니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죽어 주면서 흘리는 내 피와 같다. 상징이지만 실상은 내 피와 같다.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 온 인류에게 준다. 이제 너희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육신뿐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모두 내 몸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라. 내가 살았을 때 그 뜻을 이루었듯, 내가 살았을 때 너희에게 늘 말씀했던 것들을 실천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분명 말하지만 너희 몸은 내 것이고, 나는 너희 것이다.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롯 유다를 보시며 ‘대답이 없어도 이해한다. 대답을 받고 싶지도 않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마음과 영이 되어, 너희의 육신을 내 육신처럼 쓰면서 일할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용기와 굳건함을 심어 주셨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한 여자와 혈연관계를 맺어 놓고 죽으면서 “이제 자녀를 나로 생각하면서 길러야 한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다.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오직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홀몸이 아니다. 내가 네 살과 피가 되어 네 속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늘 영으로 너와 붙어서 살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며 내 몸이 되어 살아야 한다.” 하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단단하게 변하지 않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이와 같이 이루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혈통을 맺어 놓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영원히 변치 않게 척척 행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대못을 바위에 때려 박듯이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금세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삶과 피로 접붙임을 받았고, 그 정신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마치 돌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듯 하였고, 부부가 일체 되듯 일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일생 동안 살아 계시면서 퍼야 될 뜻을 개성대로 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가롯 유다는 제자가 아니라고 쪼개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을 팔 사람임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에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은 열한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만찬이었습니다. 신성한 예식이었습니다.

섭리사 사람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로서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것이 되어 살고자 하는 자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됩니다. 물론 성찬식 전에 마음에 꺼린 것들을 다 회개하는 목욕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일 성찬식에 임할 자들이 꼭 알고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자들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찬식은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거룩한 예식으로 알고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시대가 받아들이고 환영했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했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유대 민족도,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의인인데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 주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되기 전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빵 한 쪽,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운명이 고난의 주로 돌아간 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 섭리역사도 주님의 그 시대를 동시성으로 재현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펴신 3년을 확대하여 21년 동안 역사를 펴 왔습니다.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누가 반대하든지 주님을 영광의 주로 모시고 선생을 중심하여 21년 동안 복음을 펴 왔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3년 복음의 역사를 이 시대로 확대하여 21년 동안 역사를 펴 왔습니다. 주님을 죽이기 전까지 3년 동안 복음을 폈듯, 우리도 핍박과 각종 역경 속에서 21년 동안 복음을 펴 왔습니다. 주님이 실제 나타난 것처럼 사명자를 통해 역사를 펴 왔던 것입니다. 자체로 주님을 영광의 주로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대와 같이 이 시대도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했듯이, 우리 섭리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보낸 자를 미워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막는 격이 된 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한 바가 된다고 했습니다(요일 3:15). 결국 이 시대가 주님을 미워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되었고, 주님이 보낸 자를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자들을 미워함으로 주님을 죽인 것이 되어 십자가를 진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보낸 사명자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쓰시는 사명자의 몸은 이 시대가 미워함으로 죽임을 당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하는 역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섭리사에서 뛰던 선생의 몸이 대신 고난을 당했으니, 여러분들은 선생의 몸과 마음과 생명이 되어 그동안 퍼

온 복음의 역사를 이어 나가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으로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같이 쓰시던 사명자의 몸이 복음으로 인하여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었습니다. 선생이 주님의 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피가 되어 뛰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깊은 뜻을 이제 알았습니까?

시대가 악하지 않고 이 복음을 환영했다면 왜 심정적,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받겠습니까? 좋아서 따라오는데 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제 희생함으로 생명의 길을 굳건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퍼 오신 이 섭리역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잘못된 눈으로 보는 것같이 그릇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우리는 육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주님 시대같이 이 시대 생명의 역사를 퍼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후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번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와 온 세계로 주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듯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퍼 나가지는 것을 보고 그 시대 반대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섭리역사도 전보다 더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과거보다도 더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이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으니 모두 주님의 몸과 생명이 되고, 선생의 몸과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날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더욱 성스럽고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니 주님의 신부 된 입장으로 더욱 의미 깊게 예식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생되어도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리를 다니다가, TV를 보면서, 모든 종교인들을 보면서, 잘못된 구원의 길과 인생의 길로 들어 사는 자들을 보니까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환경, 추운 것, 먹고 입고 사는 고통이 문제입니까? 이 길을 가면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상세계가 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환난 중에 계속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어 살면 주님이 앞장서서 살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틀어 주십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 오히려 더 불안하고, 또 자기 맘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교육국과 교역자들은 이 시대 성찬식에 대하여 그 근본을 자세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니까 아쉽지요? 그럼 알차게 10분만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영이시고, 능력자이시니 늘 위로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만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기도 좀 해 봐요. 주님을 위로하는 단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 도가 깊고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너는 정말 나의 신부다.”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는 못 합니다. 알고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심정을 알고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온종일 자기 자녀 치다 깨리합니다. 부모를 위로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 피곤함을 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애인도 그렇습니다. ‘위로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로했는지, 주님은 자신의 심정을 말해 주는 자들을 통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최우선 순위의 삶’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철학으로만 삼지 말고, 생활 가운데 정말 그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을 해 놓고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으로 갈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행동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절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 주님은 “나를 진정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테니까 나를 진정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다 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날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고 낙심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전체가 배워야 하기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계시는 모두 다 받으니 잘 들어요.

특별한 것만 계시가 아닙니다. 작은 것도 계시입니다. 자가용만 생활필수품이 아닙니다. 작은 시계도 필수품입니다. 머리만 지체가 아닙니다. 손가락도 귀한 지체입니다.

주님은 “크든지 작든지 필요에 따라 계시해 주니 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기 때문에 큰 것만 주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맞게 주십니다. 큰 간판만 간판이 아닙니다. 작은 명함도 간판입니다. 계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길다고 해서 큰 계시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계시가 옵니다. 첫째, 육체의 징조로 느껴 옵니다. 둘째, 마음으로 느껴 옵니다. 셋째, 영으로 느껴 옵니다. 영계는 말없이 느껴 오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이는데 입을 다물고 계셔도 그 심정이 느껴 옵니다. 주님이 안 보여도 그 심정이 느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영의 귀로 들려 육체에 들리기도 하면서 오는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에는 스스로 느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계시가 있고, 평소에 배웠던 것이 번뜩 생각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또 지혜의 계시, 영감의 계시, 환상의 계시, 꿈의 계시가 있습니다.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영계에 가서 보는 계시도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영을 데리고 가서서 봄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대개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지는 계시들을 많이 받습니다.

계시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것인지, 협조 영의 것인지, 자기 영이 스스로 영계를 접하여 깨달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본인들도 자기가 받아 놓고 한번 보세요. 다 주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분명 자기 영의 계시도 있고 협조 영의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며 보내옵니다.

선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내온 계시를 보면서 ‘나는 협조 영이다. 나는 네 영이다.’라고 받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것은 마귀와 귀신의 계시인데 ‘나는 예수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중단시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다. 나는 야훼다.’ 했습니다. 내용이 틀리고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받는 자들에게 선생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다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도 않고 계시도 안 했습니다.

계시도 이미 배운 것이 그때 필요하면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계시도 있지만, 대개 본인의 마음과 대화를 나눈 것이 많습니다. 온전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도 온전하면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시인 것은 분별해서 인정해 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서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거의 짧게라도 계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이 옆에 있으면 뜨거움을 느끼고, 얼음이 옆에 있으면 차가움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와 계시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천사가 오면 천사를 느끼고, 마귀가 오면 마귀를 느낍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느껴지고, 앞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느껴집니다.

계시에 대해서도 배우고 깊어져야 주님이 깊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기도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시대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재림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성령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교회나 개인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는 섭리에 대하여 각각 계

시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모두 합하여 맞춰 보면 딱 맞습니다. 본인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에 따라 영감이 걸려 오고 주님의 생각이 걸려 오고 주님께서 그 생각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깨달아져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본 사람은 한번 손들어 봐요. 영적 세계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사탄도 꼭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가세요.

<2009년 11월 15일 주일말씀>

영과 육,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영과 육,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본 문 빌립보서 4장 12-13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인생과 삶에 대해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과 미래,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나의 방법대로 살면 쉽다. 내 길은 쉽고 어렵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11:29-30).

예수님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 못지않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며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까지 당하시면서도 다 이겨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개념과 생각이 다른 구시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막고 반대하며 각종으로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매일 열심으로 하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몸소 실천하시며 모두 보게 했습니다.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행하셨습니다.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것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두 몸소 행하며 사셨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 행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주관권의 삶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삶의 사망권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실천의 삶, 행동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인생들이 행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말씀과 영원한 세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니 정신세계도, 영의 생각도, 영도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의 신이 강림하였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육의 몸이 되어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병든 자를 고쳐 주듯, 죽은 자를 살리듯 인생의 심령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고쳐 주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이 죽은 자를 살려 주시면서 **“너희 영도, 육의 삶도 이같이 사망의 세계로 가 죽은 몸인데 살려 놓았다. 이제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다시 죽지 않는다.”** 하시며 그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몸소 보여 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대로 살게 해 주셨고, 그 영혼은 하나님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형상과 형체로 변화되게 하여 능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당장 삶이 변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명예와 권세

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변하여 형통하게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육적으로는 삶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의 행실이 의의 삶으로 변하고, 영이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또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며 그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받아쓰고 있는 새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스스로 존재하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조금 더 자세히 보아라. 식물들이 얼마나 강하고 굳건하고 힘 있게 존재하느냐? 저 바위 절벽에 어린 씨앗이 떨어져 스스로 자라나 거목이 되고, 가뭄과 추위를 이기며, 퇴비를 주는 자가 없어도 그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느냐?

동물들을 보아라. 영하 20~3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눈이 쌓여 한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도, 가뭄이 들어 물을 제대로 못 먹어도 견디고 사는 것을 보아라. 창조주가 스스로 견디고 이기고 살도록 아예 창조해 놓았기 때문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다. 고로 추위도 더위도 이기고, 70일 동안 음식과 물을 못 먹어도 견디고, 못 입어도 참고, 환경이 나빠도 이기고, 애가 타도 견디고 이기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창조자가 아예 창조할 때부터 자력으로 이기도록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영의 능력과 정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기고 고칠 수도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능히 견디며 이기려고 마음먹고 행해야 된다. 마음이 약해서 어려움을 못 이기고 쓰러지는 것이다. 모두 내 말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게 견디며 살아 보아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지혜와 지식의 눈을 떠서 생각해 보니, 인간이 스스로 행하여 살 수 있게 창조해 놓으신 그 실상에 대하여 놀랍게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웅이었던 칭기즈칸이나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자력을 쓰면서 살았기에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영웅 같은 정신을 넣어 주고, 그들도 그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그 정신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고, 그 강한 행동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보면 자력에 의하여 민족을 세우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존재할 수가 없다면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찾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살 수 있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주권을 행사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현실에서 사는 것을 볼 때 너희와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는 자들로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더 잘되고, 잘 누리고 사는 자들의 말에 호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돈, 명예, 사랑, 권세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보았을 때는 하늘나라에 이름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 영을 위해 사나 육에 속해서만 사는 자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든지 자력에 의해서 능히 살아가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자력에 의하여 자동기계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포크레인, 크레인, 자동차들도 자동화해 놓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을 합니다.

차는 하루 천 리를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앉아서 손과 발을 까딱거리며 편히 가는 사람이 정말 피곤하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은 온종일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합니다. 월명동에서나 공사장에서 보았지요? 온종일 땅을 파내고 밤에 또 해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크레인에 타서 발만 까딱거리며 양손만 움직여 주었는데도 피곤하여 코피가 나고 몸살이 나고 야단입니다.

사람이 왜 기계를 그렇게 강하고 힘 있고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 편하라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 때 어느 차든지 그 차에 해당되는 엔진을 넣어 주고, 그 차에 해당되는 만큼 기능을 만들어 내보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 사람에 해당되는 대로 만들어 내보내셨습니다. 사망대로 능히 감당하도록 정신과 육신을 만들어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항상 가담하지 않으셔도 인간 스스로 능히 상상 못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신앙의 영웅, 삶의 영웅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되고 엄청난 일을 하지?’ 하며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일수록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더 영웅같이 살아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영웅과 스타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축복하여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까지 다스려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하나님과 주님만 쳐다보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섭리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쫓기며 무서워했지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현재도 그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만 역사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을 내걸고 했고, 우리는 죽음을 내걸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그냥 왔기 때문입니다. 수만의 무리가 일체 되어 그들이 하듯이 해 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 격이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간에게는 그만큼 자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력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면 다윗같이 이깁니다. 다윗은 하늘 편이었고, 전쟁 때 목숨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력을 다해 싸웠기에 이긴 것입니다. 자기 자력으로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못 이깁니다. 왜요? 인간의 책임을 하지 않고 행하였기에 안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 위력과 세력인지 압니까?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불러 봐요.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행하도록 절대적 자력을 주셨는데 그 자력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왜 신앙에서 패하고 넘어지고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함께하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인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승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불도 받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참 은혜로웠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넘어지고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가 식었다.’ 생각하고 맙니다. 혹은 ‘그렇게 은혜롭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며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력의 능력, 영적 능력, 정신적 능력, 육적 능력, 행동적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할 때 ‘자력(自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도록 자력의 능력을 실행하고, 내 능력과 은혜를 받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잘 알고 이해했습니까? 아멘. 할렐루

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행동의 능력과 자력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깨닫고 알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보람이 있고 주님도 속이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극적으로 행하듯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력을 발하여 영웅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신이 알아서 실천을 잘하다가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미루고, 선생에게 미루고, 알아서 해 줄 것으로만 믿고 사니까 문제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자력의 불이 붙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이 식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니까 약해진 것입니다.

자력의 능력, 정신의 능력, 행동의 능력, 영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절대적인 이론이요, 실제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책임을 못 하여 자기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치 씻지 않고 헨 옷 위에 새 옷을 입은 격이 됩니다. 새 옷은 입었으나 냄새가 나서 이상하다고 합니다. 은혜는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냄새가 납니다. 지극히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자기 자력의 능력을 행치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은 자는 자기 마음 그릇에 찬물이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을 받은 격이라서 금방 식어 버립니다.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뜨겁게 자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그 심정을 말해 주는 자들은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겠다. 육과 영과 그 마음이 흠이 없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야?’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 중에 “너 아직 회개가 안 되었구나. 아직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그 내용과 함께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주님께 왜 그런 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대화하셨냐고 여쭙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이 있으면 악인에게도 역사하고, 선인에게도 역사한다. 마음의 조건이 되어 있으니 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육신의 조건이 안 되어 있어도 마음, 정신, 영의 조건이 되어 있으면 대화한다. 만일 다 깨끗하면 다 통하고, 행실의 대화도 하게 된다.

가령 네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를 불러서 무엇을 물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성 문제도 있거나, 혹은 교회에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네가 지나갈 때 너를 부르서 무엇을 묻는다면 그냥 지나가겠느냐? 대화해야 할 조건이 되니 대화하고, 혹은 나의 의 안에서 필요하면 대화하는 것이다.

계시받는 자들도 인격과 행실 등 영혼이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다. 답답해도 대화해 주고, 할 일 못 했어도 대화해 주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뉘아야 하고 고쳐야 한다.

사명을 받은 자도 말을 거칠게 하고, 인상 쓰고, 또 인격이 안 된 자도 있고, 싸우고 다투기도 한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명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자기 육신의 행실과 말과 정신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을 보면 흔히 ‘시험에 든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나도 시험 든다고 말할 정도다.

모두 그런 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이래서 그렇구나.’ 생각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신앙이 파선되면 어찌하냐? 자기만 손해가 아니냐? 기도해 주어라. 먼저 된 자가 빛과 소금같이 본을 보이며 행케 해 주어라. 이 세상에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다 고치고 온전히 만들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한 말을 아직도 모르느냐?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답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력의 능력을 넣어 주셨기에 인간 스스로 육의 능력으로, 행실로, 정신으로, 영의 능력으로 행하여 영웅 열사까지 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틀어 버리시면 일정일획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틀어 버리시면 일정일획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력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없이 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웅 열사가 되고, 스타가 되

고,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한다 하여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력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지라도 인생은 100년에서 끝나고, 자기 한때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존재하라고 자력을 넣어 영웅도 되고, 스타도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살 때 강하게 살라고 함입니다.

인간 자체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창조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해 주겠습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가 자력으로 겨울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며 살아도 자력의 힘으로는 월명동 돌 조경 사이에 못 옵니다. 월명동 돌 조경에 있는 소나무는 사람이 캐다가 심었기에 거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도 누구든지 자력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섬리역사 안에서도 각자 자력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선생이 같이 해야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자력의 힘과 그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력의 힘을 무한히 주셨으니 각자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한한 자력의 능력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보여 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렇지요? 흔히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진다고 하며 일찍 잡니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난다고 교훈하고 가르치며 그같이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방법이며 육적인 답이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이치와 원리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선생도 주님께 맞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것이 생리적이고 체질적인 방법이다. 그것이 육적인 방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여러분들이 보내온 서류와 편지들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여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것들을 보다가 밤 11시를 넘기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그때 마치고 정리하고 자니 새벽 2~3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안 해 버린다고 하며 저녁 7시에 잠을 자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제가 피곤하여 단잠을 재우셨습니까?” 하니, 주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찌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상합니다.”라고 여쭙었던 것과 같이, 선생도 참 이상하다고 하며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어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어찌 세상 법칙과 원리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어찌 육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영의 방법, 영의 능력, 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모두 육적으로 계산하고 환산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이요, 지극히 육적인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니 안 되는 것이다. 육적으로 하니 실컷 잠을 잤어도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새벽을 못 깨운다.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하면 1000대 1이 아니냐. 1000배가 된다 함이다. 하늘나라의 하루가 인간의 날 1000년과 같다 하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밤 11시에 자도 새벽 1시에 능히 일어날 수 있다. 영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면 잠 안 자고도 철야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섬리인들 모두 육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저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두 겪어 봤지요? 과학적으로나 육적으로 계산하여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육도 하면 불가능한 것 없이 하는데, 영으로 하면 수백 배 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두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체질적으로 안 돼.’ 하며 제발 엄살 그만

떨어요. 혹은 ‘나는 살이 많이 찌서 잠이 많아.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할 수 없어. 나는 못 해.’ 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은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빌 4:13).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저 주셨으니 혼자서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며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할 수 있는데 왜 어리광 피우냐? 몇 살이냐? 나 예수는 33세 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 포악한 일을 다 당하면서 수십 명이 주는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했다. 모진 고통, 갖은 고난, 인간으로서 더 받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다. 저들을 다 살리는 길이니 행복하다고 하며 그 고통을 받고 갔다.

너희는 왜 못하느냐. 나도 사람으로서 받았다. 내게 비하면 코끼리 다리에 새 다리 같은 격으로 너희의 고난은 아주 작은 고통들이다. 그런데 왜 한두 번 해 보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며 그만두느냐.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해 95%를 해 주었다. 천국의 희망, 나 예수의 사랑의 희망이 약속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라! 자력의 능력, 정신의 능력, 잠재 능력, 영적 능력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 마음의 능력, 뜻의 능력, 목숨의 능력이 있으니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혼자라고 못 한다고 하며 약한 척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구와 같이 지고 갔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조금 메고 갔을 뿐이다. 그만큼 내가 질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다. 지금의 장정들도 맨 정신으로 끌고 가기 힘든 것이었다.

너희가 지는 십자가는 육으로 지는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가 아니지 않느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인데 그 정도도 못 끌고 가느냐? 들고 가도 될 것들이다. 내가 말한 것을 안 지키고서 나를 또 민망하게 하지 말아라.

나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올 수 있는 자는 와서 보아라. 세상에서 못 한 것, 나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대한 것을 생각할 때 마음 아파할 것이다. 나의 세상은 영의 세상이라 하늘나라에서 나를 볼 때는 세상에서 보듯 안 본다. 수천억만 배 달리 본다. 너희가 세상에서 알고 행하면 현실에도 좋고 미래에도 얼마나 좋겠느냐.

또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과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도 심정을 몰라준다고 하시며 늘 계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섭리 전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어리광을 부리거나 힘들어서 사탄의 주관이나 받는다면, 주님은 그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실제 영으로서 지고 심정 태우고 애간장 태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내가 재림을 위해 떠나면, 너희들이 과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려나? 어떻게 행동으로, 기도로, 영의 능력으로 이기려나?” 하며 걱정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함께하며 극적으로 역사하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퍼부으며 역사할 때 해야 된다. 이때 안 하면, 마치 여름 장마 때 댐이나 호수나 연못에 물을 받아 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되듯 안 된다. 이때 완전히 배우고 새롭게 되어라.” 하셨습니다.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고, 잠잘 때 꼭 자야 먼 곳에 여행을 같이 가듯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됩니다.

행복한 자들 중에는 불행한 자가 꼭 있습니다.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다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렸기에 신랑을 맞고 행복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지만 준비하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것을 알아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리, 생리적인 논리로 따지면서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 못 한다.’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따지고 계산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선생은 이 말씀을 쓴 다음 날 아침부터 온몸이 쭈시고 팔다리, 어깨, 무릎이 아프고 쭈셔서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쓴 것이 생각났습니다. ‘자력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파도처럼 오고 가기에 간신히 일어나서 말씀 교정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라. 일어나자.’ 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두 선생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육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면 이같이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염살 피우지 않고 하니 그 세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사탄도 불가침이고, 능히 쫓아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맘에 안 들어도 나머지 맘에 드는 한 가지를 보고 하면 결국 좋아집니다.

어떤 지도자는 교회는 맘에 드는데 자기가 거할 사택은 맘에 안 들어 하였습니다. 두 가지 다 맘에 드는 곳에 가려면 기다리라고 하고 철수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도자는 사택은 맘에 드는데 교회는 맘에 안 들어 하여 교회를 신경 쓰지 않기에 주님과 의논하고 철수시켰습니다.

두 가지 다 맘에 들 장소를 찾고 있는데 과연 있을까요? 하나만 맘에 들면, 그것을 보고 뛰어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도 해결됩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좋게 됩니다. 선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곳에서도 감사하면서 뛰어아 됩니다. 이 비결을 꼭 알고 행해야 됩니다.

선생도 항상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나머지를 메워 나갑니다. 주님께도 십자가는 안 좋았지만, 만민의 구원은 좋았습니다. 만민의 구원을 보고 견디시며 인상 찌푸리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랑에 있어서 일정일획도 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서 가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존경해야 되겠지요? 우러러봐야 되겠지요? 훌륭하지요? 그래서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이런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누구를 증거하고 믿고 좋은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좋은 세계에 간다고요? 한 명도 못 갑니다. 성경의 수백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과 신상을 섬긴 자는 삼사 대까지 그 자손들이 땅에서도 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출 20:5-6, 출 34:7). 살아서도 그런데 죽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선생이 주님께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어떤 사람은 잘 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대해 주시는데 정말 그럴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것은 나의 의향이야. 너희들 말로 ‘내 맘’이 아니냐? 너희도 그와 같이 대함을 받도록 하라고 성경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또 여쭙기를 “주님도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을 고르십니까?” 했더니, 주님은 “성경에 내가 말한 대로다. 좋은 사람, 더 나은 자, 더 멋있는 자를 찾는다. 나는 겉도 보고, 마음의 중심도 보고, 내 자유의지대로 사람을 찾는다. 나라고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없겠느냐. 바다에서 각종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도할 때 잘못해 놓으면 속 썩어서 전도자가 힘들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르셨고, 사울은 사무엘이 골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거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도 사람 잘못 고르고 쓸 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심정거리였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고 다 파악하고 결재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나 버리고, 너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자들 너무 신경 쓰다가 가슴에 멍들고 속 썩어 내가 말긴 더 큰일 못 하고 갈 길 못 가면 안 된다. 높은 나무 올라간 자 다리 저리면 내려오고, 안 내려오다가는 떨어져 버릴 것이 아니겠

느냐. 한계를 못 견딜 것이다. 때가 되면 한계를 못 견디고 온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오랜 시간이 가면 온몸이 저려서 일어나는데, 법칙에 벗어나 사는 자들이 얼마나 가겠느냐.

육적 세계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사랑... 모두 한정된 세계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누려도 한정된 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했건만, 기어이 나가서 후에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아예 하늘 길만 간 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냐.

모두 육적인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그 세계는 순간이다. 어떤 것을 얻으려 할 때는 그것이 100년이나 갈 것 같고, 몇 십 년이나 갈 것 같아도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일순간이다. 배고팠을 때 진수성찬을 먹으면 그 맛이 온종일 갈 것 같아도 다 먹고 손가락 놓으면 맛도 사라지고 거기서 끝난다. 사랑도 그러하고, 물질·명예·권세·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다 그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아예 떠나 자기를 구하여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자와 같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큰 자가 없다. 온 천하 지구 세계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자다. 빼앗기지 말아라. 하늘에서 받을 것이 온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어찌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을 비교하겠느냐. 굳세어라!

세상 것을 다 누리다가 하늘 세계에 못 간다. 정자 좋고, 물 좋고, 산 좋아도 거기 앉아 쉬고 자고 놀다가 갈 길 못 간다. 자기 앞에 사랑으로 누리고, 물질로 누리고, 명예로 누리고, 권세로 누리고, 영화로 누릴 것이 있어도 분토같이 버리고 하늘 길을 가야 할 때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얻는다.

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말한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너희는 참새 같은 머리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된 하늘의 머리다. 너희는 천국을 상상하는 자들이고, 나는 그 세계를 만든 자다. 너희는 구원받을 자이고, 나는 구원할 자다. 세상 부귀영화 얻으려고 세상을 쫓아가느냐? 해 지는 줄 모르고 어린아이가 깊은 산속으로 토끼를 쫓아가느냐?

행여 사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얻었으면 모두 나눠 주고 이 시대에 전하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하늘나라에 와서 보고 생각해 보아라. 하늘나라에 못 오는 자는 지옥에 가서 보고 생각해 보아라. 세상의 것들은 차를 타고 창 밖에 스쳐가는 것을 보듯이 봐야 된다. 스쳐가는 것인데 내려서 즐기고 살려느냐?

‘참새는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방앗간을 두고 그냥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참새라고 하자. 참새가 방앗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다가 죽을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방앗간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다.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있어도 가면 안 된다. 때가 그런 때다. 그러면 갈 곳을 못 가기 때문이다.

너희 인생은 나그네야. 정자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먹고 마실 것이 있어도 갈 길 향해 가야 할 때다. 인생 사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사랑하며,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영광이 있어도 도시락이나 간단히 먹고 가야 될 때다. 안 그러면 영원한 저 천국 본향을 놓친다.

천국 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잘 먹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곳에 가서 지난날 잘 먹고, 잘 입고,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 명예·권세·영광을 누렸던 것이 기쁘다고 하겠느냐.

나 예수가 말한 것을 믿고 결심하라. 돌이켜라.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이 모두 어디로 간 줄 아느냐.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자들이 사탄의 세계, 최악의 영들의 세계로 가서 불못에 떨어지고 있다. 내 말을 믿어 주고 몸부림치고 고생하며 행한 자들이 어디로 간 줄 아느냐.

오늘도 너희에게 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축복해 주고 간다. 이는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다고 내게 원망할까 함이다. 후에 내가 너희에게 못 해 준 것으로 맘 아픈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어느 누구도 내게 “주님이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그도 천국에 왔을 것인데요.” 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경의 약속대로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다 실천하고 가기 위함이다. 내가 갈 때 너희를 위해 내가 해 줄 것을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해 주었다고 말하고 떠나기 위함이다. 십자가에서 한 말을 또 하고 가기 위함이다.

내가 있을 때 잘하고 몸부림도 쳐라. 내가 간 후에 나 보라고 잘하지 말고 이때 보여 주어라. 각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 ‘내 의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된다. ‘내 맘에 들게

해야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 준다.’는 말이다. 내 말대로 잘해 줘야 내 마음이 감동되어 나도 잘해 주는 것이다. 너희도 얻도록 그리하라.

게시받는 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울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였어도 잘 이해되지 않았지? 내 말 한마디 들으면 이해될 것이다. 너희 섭리사에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그 생명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해야 생명길로 가게 된다. 각자 자기가 자신의 행위를 알지 않느냐.

이제 왜 너희를 보고 내가 우는지 알았느냐? 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자는 너희 생명을 물에 떠내려 보내는 자와 같다. 내 생명의 말씀을 네 생명과 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서는 네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같은 시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진정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진정 축복해 주셨다

못 먹고
못 자고
못 누리고
온갖 고생으로
긴장으로
재촉으로
외롭고 쓸쓸함으로
홀로 독방에서
축복해 주셨다

술 곳 없고
앉을 곳 없고
누릴 것 없어
밤낮으로
주님 따라
갈 길만 간다

<축 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과 생명이 되어 사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자기 책임과 능력
능력 주시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본 문 빌립보서 4장 13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고백에 따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범사에 신앙의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 위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함 없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 자신의 책임을 하며 최선을 다한 것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전도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마음과 행실을 닦는 것 모두 자신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케 해야 주님이 쓰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행하라’고 한 것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자신이 자기 위치에서나 어떤 대 집회에 가서 얻게 되는 것은 모두 자기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같이 행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처한 몸이 됩니다. 마음만 생각하고 감동받고 끝나면 마음만 즐겁고 기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행실하면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 실체가 됩니다.** 사망의 계곡에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걸어 나와야 그제야 그 음침한 사망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기쁜 데서만 끝난다. 감동받았을 때, 능력을 받았을 때 즉시 행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깨달았을 때 즉시 기록해야지, 지난 후에는 잊어버려서 못 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감동되고 나 예수의 심정을 깨달았을 때 즉시 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마치 잔디 깎는 기계나 차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동을 거는 것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과 주님은 감동과 깨달음으로 먼저 역사해 주십니다. 시동을 걸어 놓았으면 차는 빨리 달려야 되고, 잔디 깎는 기계는 빨리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감동을 주어 역사하시는데 계속 감동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할 일을 두고 감동 강화시키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행하지 않으면, 때가 지나 그 감동이 식어 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때에 행치 않음으로 결국 못 하게 됩니다.

자기 자력의 힘을 다하고 자기 책임 분담을 다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에 해당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고 감동을 주며 역사하십니다. 그때 결사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꼭 행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행하면서 그 위에 하늘 편이 역사함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매일 매시간 자신의 할 일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겪고 살아 보았지만 그 날,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일과 책임들은 한계를 넘어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자기 때에 할 일이 있는데 게으르고, 태만하고, 책임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안 하면 일이 밀려서 못 한다. 일이 한 번 밀리면 할 일이 배로 커지니 결국 못 하게 된다. 그때에 꼭 해야 된다. 모두 네 일이지만 그것도 내 일이다. 네 일을 해야 내가 역사한다. 네가 행해야 내가 그 일에 역사한다. 안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역사하겠느냐. 무익한 역사를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행한 자는 주관권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처해 살고 있습니다. 행한 자와 행치 않은 자가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보면 각자 살아가는 모습을 현저히 보게 됩니다. 행하는 자만이 마음도 행실도 새롭게 변화되어 주

님이 원하시는 주관권에서 살게 됩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면 좋기는 좋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덜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그같이 살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며 몸부림치지 않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잘살려면 고생하고 힘들어도 행하는 만큼 잘살아서 좋은데, 나는 어느 정도 힘달는 데까지만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좋다. 신앙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의 삶이 세상의 삶과 같다면 주님이 그같이 애간장 태우시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 멸망의 세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포기하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즉시즉시 말씀해 주시며 **“너희 육신이 힘들어도 행하여 너희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벗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기 책임을 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 영혼은 흑암 주관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의 삶은 너무나 위험한 삶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영의 몸으로 영의 세계를 매일 보시면서 그 심정을 전해 줄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단상의 설교 중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믿느냐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신혼골수를 다 쪼개어 보십니다. 누구나 믿고 행할수록 주님은 더욱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요, 무소부재 하신 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때라서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은 환난이 닥치고, 개인적인 고통이 닥치고, 병과 아픔이 닥치면 그때는 못 합니다. 그제야 ‘왜 건강했을 때 못 했나? 왜 보다 태평했을 때 못 했나?’ 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고통, 병, 아픔을 당해야 그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말로 들었을 때는 모릅니다.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자들이 고백하기를 “당하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후회하고 뼈저린 회개를 했습니다. 육신으로 지옥을 겪었습니다. 이를 갈면서 지옥을 겪었기에 이제는 그런 지옥의 고통보다 덜한 고통을 받을 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받는 지옥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신이 병을 얻게 되거나, 혹은 몸을 다침으로 겪는 지옥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어떤 걱정과 근심하는 일로 뼈저리게 겪는 지옥 고통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영이 지옥에 가서 견학하면서 그 주관권에 속하여 겪는 지옥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겪은 것이다. 지옥을 경험해 보고서도 목숨 걸고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함으로 평소에 겪던 고통보다 수억만 배 더 혹독한 고통을 받으러 지옥으로 가느냐? 과거에 그 같은 고통을 겪은 것은 그로 인하여 정신 차리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을 잊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 책임을 못 하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세상에서 살 때 고통을 당했으니 항상 잊지 말고 의롭게 부지런히 거울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육신이 고통을 받거나, 혹은 마음이 고통을 받거나, 혹은 자기 영이 극적으로 고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찾을 정도로 이를 갈고 몸부림치면서 고통 받았던 일이 있었지요? 그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을 잊으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할 일을 안 할 때 주님은 또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함으로 정신 차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행함으로 그 주관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셔도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듣는 자와 자기 책임을 안 하면서 듣는 자는 그 인식관이 각각 완전히 다릅니다. 받는 감동도 다릅니다. 행하고 듣는 것과 행치 않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를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각각 다르게 들리고 마음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자기 책임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통하게 됩니다. 사탄이 끌고 다니지 않고 죄로 혈문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며, 주님이 애타게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낱알이 회개하여 친히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

니다.

그다음에는 자기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의를 행하여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욕이 받고 영도 받고, 또 천국에 가서 영이 받습니다. 회개해야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흠이 없어 주님과 일체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행하여 그 뜻을 이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받고 행하여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나’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다면 그는 ‘중매자’입니다. ‘주님을 소개해 준 자’입니다. 사람을 중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입니다.

섭리사에서 신앙의 뿌리를 못 박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뿌리가 병든 자들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흰옷을 입는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희생 않고, 수고 않고 얻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엄히 다스려 줘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자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주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흠을 잡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책임을 못 하고 주님을 흠 잡고 팔았습니다.

원망하면 가나안 복지는 상실됩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저 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자에게 사탄이 개입하고 역사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저 줍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능력 주실 때 꼭 해야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고, 보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역사하신다. 감동받았을 때 행하라. 그때가 능력 받은 때다. 감동받았을 때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역사하시며 능력 주신다. 그러므로 능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육신의 고통과 아픔, 정신의 고통과 아픔, 영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세상에 있을 때 세 가지의 지옥 고통을 겪게 된다. 이를 겪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됴를 깨닫고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섭리 신앙의 뿌리를 못 박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야 된다. 그곳에 가 보아라. 섭리가 어뵈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니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각 교파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역사를 흠 잡고 불안하게 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은 자이니 유혹받지 말라.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과거에도 잘못된 인식관을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계속 주님과 같이 일체 되어 성령을 받고, 전도하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은 개인, 교회는 교회, 지역은 지역대로 전도하여 부흥해야 됩니다. 1인 1명씩 전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신입생들도 자꾸 뺏어 나가면 됩니다. 어느 교회가 몇 배나 부흥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의 짐’은 각자 짊어지면 간단합니다. 한 명이 두 명씩 전도해 나가면 바로 몇 십만, 100만이 됩니다. 지치지 않게 차근차근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운동장도 빨리 뛰면 두 바퀴 돌고 지쳐서 더 이상 못 뛺니다. 천천히 돌면 10바퀴도 거뜰히 뛺 수 있습니다.

큰일은 돌연적으로 장기간 못 합니다. 태만하지 말고 늘 긴장하며 부지런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는 완전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해야 되는 기회의 때입니다. 모두 힘내요! 할렐루야. 아멘!

<전체 광고>

성령 집회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준비가 안 되었는데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사람들을 집회에 데리고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앞으로는 준비된 곳만 집회를 하고, 준비가 안 된 곳은 자체적으로 하거나 일반 목사님들이 가서 준비 집회를 하기 바란다. “발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령 집회 부흥강사는 한 명이고 집회할 곳은 섭리 세계적이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하여 각자 전도자가 책임을 지고, 교역자들이 책임을 지고 착오 없이 하기 바란다. 모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 모두 준비하여 온전히 주를 맞기 바란다.

<2009년 11월 22일 주일말씀>

회개와 구원

본 문 마태복음 11장 25-27절

마태복음 12장 35-37절

요 나 서 3장 3-10절 (핵심 : 10절 강조해서 읽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히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의 전초를 해 주시니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자인 나를 소홀히 하는 자다. 말씀이 곧 나 예수다. 이를 알고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섭리사에서 계시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시급하여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가지고 안 되어 급한 것들을 계시해 주는데 계시를 받는 자들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듣는 자들도 여기저기 계시한 많은 말씀들을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계시는 나의 심정을 토하는 것이니 그것을 소홀히 하면 큰 죄가 된다. 계시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무지로 나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 나를 가까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때가 되면 내 계시를 듣지 못할 것이다. 줄 때 감격하고 고마워하며 속히 듣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침범하기 좋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어도 마음 깊이 듣지 않는 자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깊이 덮지 않으면 곧 새가 날아와 쪼아 먹듯이, 내가 깊이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 깊이 듣지 않으면 사탄이 곧 빼앗아 가 버린다. 또한 말씀이 너희 마음에 없는 연고로 사탄이 각종으로 꼬이고 역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영계로 보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과 신앙의 어린이들을 통해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으로 듣지 말라.”고 주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5-27절까지를 읽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두 읽어 봐요.

읽어 봤지요? 해석이 필요 없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린이’란,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자들이며 행실이 어린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실제로 나이가 어린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섭리세계에서도 주님은 그 같은 자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웃기게 보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을 모욕했다고 양심적으로 책망하시고 교만한 자 취급하면서 안 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선생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시대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도 이 시대도 자칭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친히 나타나 역사하시며 시대를 놀라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실상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자들이란 권위, 교만,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을 말하며, ‘섭리에 일찍 왔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큰 자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나를 그같이 대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일을 안 시키시고 그냥 끝나게 하셨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정말 선생이 싫어하고 주님도 싫어하시고 일을 안 시키십니다. 일을 안 주면 공적을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섭리세계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와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집회를 하게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과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타나 계시하며 “전해 줘라.”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큰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기특하여 주님께 매일 감사하다고 기도해 줍니다. 선생이 겪었고 지금도 그같이 가기에 그 심정을 아니까 주님이 주신 계시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주님은 선생에게 보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계시를 받는 자들도 귀히 받고, 듣는 자들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들어야 됩니다. 선생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계시받는 자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할 때는 틀린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선생이 겪어 봐서 압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받지 않은 말씀이라고 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마치 성경에 선지자들이나 주님이 쓰시는 자들이 받은 계시를 자기가 받지 않았다고 귀히 여기지 않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회개와 구원’입니다. 그동안 이에 해당되는 말씀의 죄를 지은 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사망의 주관권에서 벗어나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은혜만 받으려 하면 곡식밭에 잡초도 뽑지 않고 퇴비를 하는 격이라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마음에 선도 악도 무성해집니다. 이런 자는 은혜도 주고 다니면서 불법도 잘 행하고 다닙니다. 불법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정 회개하면 자기 망속에서부터 죄가 사라지면서 하늘나라 죄의 장부에 있는 죄들이 사라져 깨끗하게 됩니다. 꺼리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각자의 마음들을 불꽃같은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과연 말씀을 듣고 그 생각들이 어떠한지, 회개를 하는지 한 사람을 보시듯이 전체를 다 쳐다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 신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해당되는 마음의 고통과 삶의 육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사탄과 악마들이 괴롭히면서 병을 주기도 하고, 각종으로 방해하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그것이 끝나기도 하고, 회개해도 그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서 주님의 역사에 손해 가게 한 것과 주님의 마음이 상하여 고통 당하신 것들을 다 풀어 주며 진정 회개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풀립니다. 또 본인이 앞으로 주님께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며 조건을 세우고 행한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는 사망권에서 나와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괴로워서 못 삽니다. 불안해서 죄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이 옵니다. 계속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류의 신앙적 조상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는 회개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므로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일반 과일을 따 먹을 때 옷을 벗고 따 먹나요? 과일을 먹고 부끄럽나요? 하체를 가려야 되나요? 입으로 먹으면 입을 가려야지요. 신종 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을 가리지 않습니까? 모두 죄짓고 하체 가리지 말고, 신종 플루 안 걸리게 꼭 마스크 하고 다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씩 이성의 죄를 짓고 하체를 가려 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르시니 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대로 아담과 하와는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중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니 시기 질투하여 미워함으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가인은 미움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은 정성 들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정성 들어 제사를 드렸으니, 가인도 아벨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정성 들어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도 아담 하와와 같은 죄를 짓고, 가인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에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를 하라. 회개해야 사탄이 떠나고,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고, 육신의 고통이 떠나고, 정한 심판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신중하게 정성 들어 자기 몸을 하나님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안 받으시면 가인 격이 됩니다. 성령 집회에 가셔도 주님이 쓰시는 자의 흠이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라는 제물을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 몸을 빼앗은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받는 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이성 문제가 그렇게도 큰 죄가 됩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이성의 죄를 지었지만, 행동으로는 이성의 죄를 안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도 행동한 것과 똑같이 취급당하니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이성의 죄를 짓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가 무너져 왔다. 사랑을 절대 지켜라.” 하시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선생에게 전해 왔습니다.

주님은 한두 사람에게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성의 죄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미워하고 살인함으로 인하여 죄의 대가로 삭막하고 메마른 곳, 가시나무도 살기 힘든 벌판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고통스러운 지상지옥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명을 맡은 지도자가 좋은 조건을 세워 놓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좋은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자들로 말씀하시기를 “선생이 내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워 놓았기에 너희도 그같이 대해 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도 ‘사망이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문자대로 과일나무의 과일을 따 먹은 죄를 지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에덴동산의 과일나무가 없으니 아담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 온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성의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세계에 그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성으로 꼬여 타락시켜 놓고 아담의 범죄는 그것이 아니라며 성경을 풀게 하고, 이성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 1600년 후에도 이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이 시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사랑하며 살면서 내가 계획한 뜻을 어지럽혀 혼인 문란하니 이 죄악을 다 심판하리라. 사람부터 만물까지 호흡하는 것들을 다 물로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정해 주는 고펀르 나무로 배를 만들어 너와 네 식구들을 피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1600년 전 아담과 하와 때도 이성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져 심판을 받더니,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의 이성 타락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양심 없이 사는 자들을 물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노아 여덟 식구만 하나님을 믿고, 혼인 문란하지 않고 완전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행하여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 여덟 식구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법을 어기고 회개 기간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지구 세상의 22억의 인구가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삽니다. 이들이 다 시대 법을 지킨다면 왜 주님이 심정 태우시겠습니까? 믿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주님이 애간장 태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지적하신 것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여 혼인이 문란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노아 시대에도 노아와 그 가족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 믿고 살면서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니 완전한 자가 된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믿음은 하나의 의지하는 정도로 형식으로 살았기에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나를 믿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고, 제 맘대로 살면서 사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행하고, 하나님과 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의 심정을 거스르고 분노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사망으로 가게 된다.

이 시대도 누구든지 완전하게 하나님과 나를 믿고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다. 죄를 지었는데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믿어도 구원이 없다.

너희는 정녕 알라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간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믿었어도 심판받아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과 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었어도 완전하게 믿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물로 진정 회개하고, 눈물로 이를 갈면서도 참고 진정 법을 지켜 살아야 회개한 것이다. 법을 지켜 행해야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탄이 쪼개져 나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 날날이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

아라.

주님의 말씀을 보통으로 들어서는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사탄도, 악마도, 귀신들도 즉시 알고 괴롭히고, 손해 가게 만들고, 오만 가지로 해를 줍니다. 꿈속에서나 영계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탄 귀신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행하고 다닙니다.

기도를 깊이 하여 모두 사탄이 하는 짓들을 보고 영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도 못 보고, 영의 실상도 못 봅니까? 노력하지 않고 깊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섭리사에서 속 썩이는 자들이 몇 명 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한 장면이 보이면서, 선생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하실 같은 작은 홀이 있기에 들어가니 작은 무대도 있었고, 1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평소에 보던 사람이 있기에 선생이 “여기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물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어떤 남자 목사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러 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남자 목사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내게 거짓말하고 속 썩이는데 왜 내가 말씀을 주겠느냐? 얼굴 좀 보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거기 여자들도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옷을 봉날처럼 입고 있었고, 화장도 봉나들이 가는 아가씨들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섭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내게 바짝 와서 얼굴을 가까이하면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턱수염을 민 흔적이 보였습니다. 남자인데 완전히 여자로 변장한 것입니다. 얼굴까지 다 변장했지만 마귀는 6수라서 100% 못 속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선생은 ‘마귀들의 모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을 전한다고 하는 자도 역시 마귀들의 주관을 받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귀들의 모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준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남자 목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고 그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적 세계에서 본 대로 사탄과 귀신들이 변장하고 다니듯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니 믿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섭리사 주인이시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그 모임은 엘리트 모임이었는데 거짓된 모임인 것을 알고 다 해체시켰습니다. 어떤 목사가 1년 반 이상 그 모임을 운영했는데, 깊이 안 보고 그냥 다루다가 같이 변질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소동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소동과 고모라 성도 에덴동산의 아담 하와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음란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롯의 식구들뿐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나 롯과 같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악인들과 같이 멸망을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우고 알라.

롯의 아내는 살 길을 가는 도중에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김으로 심판을 받고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의 법을 지켜야 용서의 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법을 범하면 구원의 길을 가다가도 악인들과 같이 멸망을 받는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회개와 구원’이다.

고속도로나 번잡한 차도의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들이 비호같이 달리는데 거기 뛰어들어 길을 건너면 개미로부터 사람까지 차에 치여 죽게 되듯이, 법을 범하면 현장에서 검거되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육신에게는 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되어 사망에 묻힌 자가 되고, 육도 사망에 처한 자가 된

다.

법이 생명이다. 내 생명의 말씀은 법이다.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지켜라. 매일 회개하라. 그래야 영과 육이 매일 생명권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할 일을 못 한 것이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인간을 신격화했습니다. 또한 남녀가 음란한 사랑을 하듯이 우상을 사랑하듯이 섬기며, 왕부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경배하며 국교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리가 있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어 심판하셨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신격화와 우상의 신격화와 그 권력이 하늘까지 달았기로 하나님은 정한 날에 완전히 멸해 버리셨습니다.

신약시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미워하고, 주님을 죄인으로 누명 씌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종교 부패, 정치 부패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따른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 복음은 결국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구교와 신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섬리사도 신교에 속한 한 나무의 새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시대는 종교 부패와 정치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좇지 못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20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인간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이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개인·가정·민족·세계가 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죄의 가짓수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개인이 지은 죄도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가짓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선생도,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야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깊이 파헤쳐 주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자 자격이 없고 주님이 속 시원히 쓰시는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의사는 숨어 있는 병을 확실히 끌어내 수술하여 고쳐 줘야 위대한 의사이며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죄는 마치 썩은 만물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부패하고 썩는 것을 모두 눈으로 보고 격어 봤을 것입니다. 물고기도, 고기도, 음식도, 과일도, 나무도, 철도, 옷도, 땅도, 물도 썩어 부패됩니다. 사람의 몸도 썩어 들어갑니다.

썩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섭게 썩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이 썩는 것입니다. 변질된 자는 썩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썩는 곳에 날파리가 들끓고, 신앙이 썩은 자에게 사탄과 귀신들이 들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 썩은 자와 대화하면 금방 옮겨져 썩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죄는 썩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부패되어 썩어 들어가고, 죄로 인하여 썩는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썩는 것들을 보면 금방 알듯이 사람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만물보다 더 썩고 부패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 행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썩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죄는 영과 육을 썩어 들어가게 합니다. 회개는 썩은 것을 다 도려내어 썩는 것이 끝나게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말을 합니다. 악평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섭리사에도 사기꾼들이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뜯어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양들에게 고통을 주니,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며 쫓아다니면서, 처음에는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줍니다. 섭리사에서 이상한 자들은 다 조사하여 그 실상을 파 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섭리사에 수백억을 돕겠다고 한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백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돈을 갖다 준 자가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며, 계속 다른 말로 핑계를 댑니다. 자기를 믿도록 거짓으로 꾸며 자기 명예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팀이 되어 서로 증거하면서 믿게 합니다. 사기단입니다. 모두 조사하여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선생에게 소개하며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두고 보시다가 결국 들통 나게 하시어 확인해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거짓 사기였습니다. 선생에게 소개시켰던 자가 그같이 소개시켰습니다. 조사하여 알아보니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습니다. 모두 사기였습니다. 옛날에 선생에게 사기 치고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더니, 나이 60 넘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은 상대가 자기를 모르게 하기 위해 조금씩 도와주면서 큰 것을 노립니다. 특히 따르는 자들에게 “작은 것을 투자하면 큰 것을 얻는다. 주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목사니까 믿은 것입니다. 또 “네가 하면 너도 유익이 된다. 나도 너도 선생을 돕자.”고 하니 같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을 이용하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고 살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사명을 다 중단시키니 그리 알기 바랍니다.

주님은 **“섭리인들은 그리 알고 각자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그냥 놔두시나?’ 하지 말고 자신들이 욕심 부리며 따라가지 말고, 가장 먼저 조사하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단에 사기꾼 단속국을 만들어 놓을 테니 다 신고하기 바랍니다.

섭리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하고 따라갑니다. 사기꾼은 믿어 주는 만큼 속이고, 해를 주고, 이용합니다. 속으면 말이나 속아 줘야지, 행실까지 속아 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섭리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파악하고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가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투자 사기, 보험 사기, 땅 사기, 외국 보내 준다고 하고 이성 관계하는 사랑 사기, 돈 빌려 가는 사기, 거짓 사기에 절대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제대로 하면 사기 안 당합니다.

작은 것을 투자하면 큰 것을 얻는다고 하는 말도 다 사기꾼들의 짓입니다. 사기꾼들은 거짓말로 꼬입니다. 목사고, 지도자고, 누구도 믿지 마요. 선생에게 편지를 보낸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사기 당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기 치고 지옥에 간 자들의 영은 거기에 해당되는 고통을 반복해서 영원히 받습니다. 사기 치고 사람에게 고통을 줬으면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손해를 본 자를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에 해당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넘어갑니다. 어떤 일에도 돈 주지 말고 투자 말아요. 선생의 이름을 대고 말하기에 돈을 줬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못 믿어요. 왜요? 선생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생의 이름을 판 자는 그 죄를 용서 안 해줄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을 돕는다고 하며 돈 달라고 하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직접 당한 자들이 선생에게 보고

하여 다 알아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두고 선생을 설득시켜 허락하게 하여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섭리를 팔면서 “섭리를 돕겠다. 나는 밥만 먹겠다. 같이 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사기꾼 상술입니다.

<섭리의 법>을 세우겠습니다. 선생의 이름을 팔고 행한 자, 섭리사 이름을 팔고 섭리사를 이용하는 자들은 섭리사에서 추방시키고, 이름을 밝혀 사진과 함께 섭리 전 세계에 광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수백 명 보내어 뿌리를 뽑고, 손해배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섭리사는 늘 용서해 주니까 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네가 결재하니까 권한을 결재받고 그것을 이용하니, 교단에 넘겨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자기 남편과 부인이 이성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국인데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와 산 자들도 많고,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 3-5년씩 딴 여자와 산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러니 회개가 쉽게 되겠느냐. 심각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 예수만 믿어라.” 하셨습니다. 가정국들이 이렇게 문란하니, 이런 자들은 가치 상실로 가정국에서 제명됩니다.

어떤 자는 선생을 보고 15년 전부터 이성의 죄를 지었다며 지적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주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죄를 지었다고 편지 봉투가 찢어지게 편지를 써서 내게 보내옵니다. 선생에게 이 같은 편지가 오니 여기서 보는 자들이 어떨겠습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섭리사에 있으면 모두 알게 되니까 섭리사를 나가서 결혼한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보통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카드 빌려 주지 말아요. 어떤 자는 정수기를 한 대 사 달라고 하도 간청하여서 같은 섭리인이니까 믿고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정수기 세 대 값을 굶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300만 원짜리 정수기였답니다.

섭리사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보기 민망한 일입니다. 형제도, 애인도 돈 때문에 마음 변하고 상황이 극에 처하면 본정신으로 행치 않습니다. 섭리에서 빛진 자들을 보면 그같이 많이 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 앞에 헌금은 잘 안 하면서, 형제들이 1000만 원, 1억씩 빌려 달라고 하면 잘 빌려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떼이고 선생한테 사기 당했다고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일반 편지는 교단을 거치지 않고 너무 많이 선생에게 직접 옵니다. 이제 그런 편지들이 오면 집으로 그대로 다시 보낼 것입니다.

아주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선생은 1년 열두 달 끝이는 때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같은 사연을 받아서 읽고 있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편지가 안 옵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주님께 무조건 말기고 막연히 ‘해 주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구원과 죄 문제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행할 일입니다. 섭리사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선생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그동안 섭리사가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고 불안하니, 전체가 총력을 다해 이런 자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돌려 듣겠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계시받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70% 이상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회개가 덜 되었다. 회개한 자는 회개했지만, 왜 회개를 하다가 마느냐. 밥이야 먹다가 말기도 하고, 일이야 하다가 말기도 하고, 환경이야 더 좋게 만들다가 말기도 하면서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죄의 회개는 하

다가 말면 안 된다. 구원은 회개와 맞바꾸는 것이다. 회개해야만이 사망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나 나오게 되고, 심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을 향해, 좁은 길을 향해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죄가 정말 회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내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실상 필요 없이 내게 편지를 보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아시지요.

아직도 선생만 중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여 영적인 단계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영과 육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왜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선생에게 물어보나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선생에게 회개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물어야지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선생이 그 사정을 모르고 죄 없다고 했다가 심판 날에 그에게 죄가 있어 심판을 받으면 선생도 같이 당합니다. 말을 잘못된 자도 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묻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행하기 바랍니다. 선생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니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녹슨 칼을 갈듯 해야 됩니다. 광택이 나는 약으로 수십 번 문지르고 닦아 내듯이 계속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선생도 내 죄와 섭리인들의 죄를 30년 동안 회개해 왔습니다. 지금도 섭리인들이 각자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선생도 계속 내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 반드시 버릴 오물이 있듯이, 씻을 것이 있듯이, 매일 생활의 죄가 있습니다. 지난날 할 것을 못 한 죄, 무지한 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수백, 수천 가지의 죄들입니다.

인간은 죄 덩어리입니다. ‘인류의 죄’ 다 씻으려면 바닷물로도 부족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받는 자들과 같이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만 있으면 자기의 죄, 가정의 죄, 형제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죄와 가정·민족·세계의 죄를 회개해 주는 자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살리는 자다.”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모두 그같이 해야 됩니다.

선생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죄를 지은 자들은 책임 의식을 못 느끼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사는데 그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것같이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자가 빗을 졌는데 양심에 가책도 안 느끼고 저만 먹고 사는 자가 있다 하자. 정한 날에 그 빗으로 인하여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네가 그 빗을 갚아 주면 그에게 그 빗이 없어짐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게 되듯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또 묻기를 “주님. 그런 자들을 위해 밤잠 못 자 가면서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 사는 자가 해 줄 수만 있다면 해야지.” 하시면서 “세상에서 잠시 얹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으로 가서 멸망받는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해 주면서 살리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죄인을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돌아오게 하여 살리면 그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 구원이 자기 구원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도 나도 역사 하니 죄 없는 자들이 생명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사망으로 가는 자들, 하나님도 나도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가 기도해 주고 전도하여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가정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도해 주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어져 사탄도 죄 있는 자 취급을 안 합니다. 영원히 죽는 길을 가면서도 몰라서 즐겁게 가니, 아는 자가 기도해 주고 알려 줘야 됩니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아는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생명권으로 이끌어 오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고, 지옥으로 직행하게 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 가정, 성리사의 모든 자들, 민족, 세계를 위해 꼭 기도해 주어라. 때 지나고 환난이 와서 죽은 후에,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 사망으로 가 버린 후에는 다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이 따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밤잠도 못 자고 몸도 약해집니다. 선생은 여기 있어도 밤낮으로 정말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사만 반갑게 하지 말라. 반갑게 인사만 하고 사는 자들같이 신앙인들도 내게 그같이 대하고 산다.” 하시며 외식과 형식적인 삶의 현실을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봐요. 동네에서나, 사회에서나, 성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 인사는 웃으면서 반갑게 합니다. 그러고는 삶 속에서 생활할 때는 반갑게 웃으면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인사만 반갑게 하고 살듯이, 나 예수와 부딪힐 때만 반갑게 인사치레하듯이 하고 끝난다. 인사할 때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나, 모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주님과 대화할 때나,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회개 기도를 깊이 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과 부딪힐 때만 반갑게 대하지 말고 온종일 24시간 낮에도, 밤에도, 잘 때도, 꿈에서도 사랑으로 진정 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눈이 마주쳤을 때와 같이 내가 안 보여도 늘 그같이 대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받고 성리 신학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300만 원씩 내고 목사 안수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부정입니다. 안수를 받게 한 자는 역시 사람들을 꼬여서 그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곳을 안내한 자가 선생을 속이고 결재받고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본이 안 되니 성리사에서 받은 목사직을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다니면서 성리가 어떠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다.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자들도 성리를 지도하는 주님을 모독하고 무시한 자로서 본이 안 되니 사명을 해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리사는 이 시대에 맞게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시고 주님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성리사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한 자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소외감을 타고 뒤에 처져서 기성 교회나 다니면서 선생을 헐뜯으니, 주님과 의논하여 단호히 처리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도, 여기도 내 피 값으로 이끌고 가는데 왜 형제들을 화평하게 하지 않고 불안하게 하느냐. 누가 내 역사를 욕하느냐.” 하시며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실제로 과일을 따 먹은 것이다.”라고 하며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탄이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여 교단과 교인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기 전에는 제단에 설 수 없고, 공석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직책도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선생을 누명 씌우는 목사들로 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할 때인데, 오히려 시험에 들어 자기 주관을 가정국들이나 성리인들에게 은근히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가 직접 선생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선생이 주님께 보고하여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분별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욱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15년 전부터 선생에게 항상 어떤 교회가 잘된다고 말만 했던 자입니다. 성리에 온 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본인이 직접 행하며 수백 명씩 전도했어야지요. 이 급한 때 주님 앞에 조건 세워 일하지 않고, 자기를 세워 주지 않는다고 불만만 털어 놓으니 오히려 듣는 자들이 책망하며 편지들이 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갖가지 사명을 주

면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까? 사명을 가지고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불만만 말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일 처리하는 자들을 세워 놓았으니 선생에게 보고하지 말고 교단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는 자들은 미혹되지 말고 시험에 든 자들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섭리사에서 지도자들이 이성이나 말이나 행실로 큰 실수를 하면 어떤지 압니까? 주님은 나로 실습을 시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쓰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화장실 변기통에 넣었다가 꺼내어 씻은 후에 그것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변기통에 빠졌던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삶고 비누로 씻은 후에 그것으로 음식을 먹어 봐요. 실습을 해 봐요. 마음이 꺼리고 화장실 생각이 나서 음식을 못 먹을 것입니다. 숟가락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며 화장실 생각이 납니다. 선생은 결국 그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못 먹고 손으로 먹다가 새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도 그러하니 죄짓지 말아라. 각종 큰 죄를 지은 자들도, 이성의 죄를 지은 자들도, 악평자들도 그러하다.” 하시며, 선생에게도 실습시키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화장실 변기통에 빠뜨렸다가 꺼내어 씻은 숟가락으로 다시 밥을 먹으려면 꺼려서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숟가락으로 먹겠습니까? 쇠 숟가락은 아까우니까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실습 한번 해 봐요. 실습해야 압니다. 주님은 “네 심정과 같이 나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거듭하여 죄를 짓고 살면 용서를 받았어도 마음이 꺼리는 것입니다. 내게 보내온 편지들을 보면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꺼리다고 합니다. 용서 받았어도 마음이 꺼리는 이유는 변기통에 빠진 숟가락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용서가 덜 된 것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는 회개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든지, 용서받았어도 그 죄로 인한 형벌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의 법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선생이 공적으로 쓰는 물건은 부정한 것이면 절대 못 쓰게 하셨습니다. 가령, 공적으로 쓰라고 누가 선생에게 준 물건이 부정하면 잃어버리게 하든지, 고장 나서 부러지게 하든지 하여 못 쓰게 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정성스레 해 준 물건을 잘 쓰다가 못 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그것을 해 준 자가 부정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물건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게 써야 될 것을 부정하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부정하게 쓴 것을 거룩하게 못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일을 하면 절대 그 일이 안 됩니다. 부정하게 금전을 모아 선생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셨습니다. 일은 깨끗한 자가 해야 됩니다. ‘정성이 부족한 떡은 설익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행실로 주님께 드려야 그 제물이 하늘나라까지 상달됩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주님이 받으시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불꽃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부정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부정한 것을 드린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하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회개하고 드려야 주님께서 사랑 제물, 희생 제물, 심정 제물로 받습니다. 부정한 것을 드리면 사탄이 옵니다(창 15:10-11).

주님이 보실 때 수십 가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자기는 한두 가지만 회개하고 다 한 것으로 압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주일을 안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본이 안 됩니다. 적당주의 신앙인입니다. 그런 자는 지도자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이 되지 않으니 직을 주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알고 충고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알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곧 죄에 대하여 각자 코앞에 심판이 시작되고, 사탄의 때가 되어 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급히 회개하라고 하며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각자 지은 죄에 대하여 날날이 생각하고, 속히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연말 심판을 하신 후에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온 세계 개인부터 가정·민족·세계 모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고 행하십니다. 연말 심판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위해 절대적으로 준비하는 때이므로 주님은 이때에 더욱 정밀하게 말씀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드러내고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섭리사도, 개인들도, 민족도, 세계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하여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기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죄도 없는 형제들에게 이러니저러니 하는지, 참으로 무지합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 그럴습니다. 주님은 **“자기 눈 속의 들보나 어서 회개하여 꺼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매일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케 하면서, 형제들을 힐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 책임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 하면 좋은 날을 못 본다.(벧 3:10)’고 했습니다.

(벧전 3: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 다윗 왕은 말로 범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시 141:3). 다윗은 늘 입을 조심하며 입으로 범죄 하지 않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읊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을 감동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자는 그가 은혜로운 말을 해도 주님은 그 입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며 은혜롭게 쓰지 않습니다. 귀히 쓰여지는 입이 되려면 입으로 범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회개의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그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으로 갈 줄로 알았던 자가 그 날에 다른 세계로 가면 그 얼마나 애통할까요? 선생도 어떤 일을 놓고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막연히 ‘천국에 간다.’, 막연히 ‘회개되었겠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온전히 완전히 확인해야 됩니다. 온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닥칠 앞날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가 많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묻지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그저 자기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된다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절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주관을 내세우며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에게 결재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주님은 **“절대 결재해 주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 너는 해 주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선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수십 번씩 나를 이해시키면서 끝끝내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문제입니다. 섭리사는 선생을 직접 만나 결재를 받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제부터는 교단에서 철저히 파악하도록 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탄은 천하를 놓고 꼬이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선생이 여기 있으니 육적인 것은 확인 못 하니까 밖에 있는 자들이 100% 실체를 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꼬임을 안 받게 됩니다. 누가 선생 이름을 대고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기를 법으로 정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보면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구해 준다고 합니다. 이는 안타까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돕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은 능력과 실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실제로 역사하여 행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허무로 끝납니다. 심리와 말에 속지 말고,

물욕에 속지 말고, 이성에 꼬여 속지 말기를 제발 간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속이고 이용하니 제발 조심하기 바랍니다. 약점을 이용하여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말하니 속지 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일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사명 받은 일이나 하면 되는데 오버해서 행합니다. 오버해서 행하면 불법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죄로 규정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자기에겐 시킨 일만 해야지,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섭리사 일이라고 하면서 행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말씀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기본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 후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초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해야 사탄의 자식이 된 것에서 벗어나고 주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에게, 정치하는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가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며, 죽은 신앙입니다. 빛을 갇지 못하면 죽어지냅니다. 빛을 갇으면 살아 지냅니다. 회개는 ‘청산’입니다. ‘부활’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적으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가정·민족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전쟁과 각종 재해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입니다.

회개한 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회개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를 죄인시한다고 하며 회개를 피합니다.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구원이다.” 주님의 말씀을 꼭 암송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구원이다.’ 이 말씀을 쓰게 하려고 주님은 선생에게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셨고 나와 섭리의 죄를 회개하니 고통도, 사탄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뼈저리게 겪고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 도>

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말씀>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본 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

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앉혀 놓고 말씀하시듯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각자 개인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리 알고 귀를 기울여 잘 듣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쭙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하여 별 의식도 없고, 또 죄로 인하여 얼마나 그 대가를 받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죄를 지은 자나 안 지은 자나 서로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죄인들이라서 죄 속에서 살아가니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은 서로 해를 주기도 하는데 약자는 강자에게 당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그저 꾸념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해를 주었으니 나도 해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삶인데 사랑하며 생활한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고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죄를 지으면 왜 굳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죄를 지은 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필히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 마치 애인이 자기 애인을 앞에 앉혀 놓고 말하듯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신부 된 자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애인도 아니고, 신부의 자격도 없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말하세요. :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면 극히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옥과 천국은 있고, 죄로 인하여 지옥과 천국 중에 어디로 가게 될지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배워서 알고, 내 이름으로 회개를 했다. 회개한 자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의 대가를 모르고 죄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영혼이 영원히 고통 받는 지옥으로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대 집회 때 청중들이 밀려가듯,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서 지옥 불바다로 떨어진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를 안 믿거나, 믿어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영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 보았든지,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 본 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죄를 회개할 것이다.

너희는 지옥을 본 자가 지옥에 대하여 말하고, 나 예수가 지옥에 대하여 말할 때 깊이 듣고, 지체 말고 즉시 내 말대로 속 시원히 행하여라.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이 육적으로만 들리고 건성으로 듣게 된다. 기도를 깊이 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혼 깊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리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며 듣게 된다. (아멘.)

이 시간에도 나를 제대로 느끼고 아는 자는 육신도 영혼도 내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고 실천한다. 깊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거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말하여도 마치 농부가 씨를 딱딱한 길바닥에 뿌려 결실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가 말씀할 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가 알고,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도 알고, 나의 말을 얼마

나 귀히 여기는지도 다 안다. 천사는 각 사람 옆에서 그 마음을 다 기록하여 죄와 의로 결정하고, 후에 그같이 대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또 하나님이 보내어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 주고 대해 줘야 하기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항상 사랑으로 대해 준다. 이같이 모든 것을 다 잘해 줘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네 자신 때문에 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아마 하루라도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면, 이 땅에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육적으로나 마음으로 극도로 이를 가는 고통을 받아 본 자들아! 그 고통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고통에 불과하다. 내 말을 정녕 깨달아라.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의 고통을 겪어 보았느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그보다 수십억만 배 더 크다.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것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과 악령들이 그 영혼을 각종 줄로 묶어서 쇠몽둥이와 쇠 채찍으로 마구 때리며 지옥으로 끌고 간다.

<삽화 1 - 사탄과 악령들이 쇠몽둥이와 쇠채찍으로 때리며 영혼을 끌고 가는 모습>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진실로 회개하면 죄값을 회개로 해결하였기에 곧 풀려나서 천국의 생명길로 돌아오게 된다.

<삽화 2 - 예수님과 천사들이 회개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고 나오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일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전도하며 살아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는 그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다.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필요한지 정녕 깨달아라. (아멘.)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 시대 자기의 죄들을 모두 해결한다면 내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멘.)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죄를 지어 죄값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하자. 사랑하는 여자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대신 죽어 주어 애인을 살리고 영원히 같이 사는 길을 택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 그같이 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자가 죽기에 영원히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삶만 살면서, 일생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렇다고 죽이겠느냐.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며 잘해 주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남자의 몸을 주고 살린 여자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니 남자는 더 애간장이 타는 것이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내 심정의 고통을 알아주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자. 내 너희를 위해 천국에 집을 준비하였고, 너희가 상상 못 할 것들을 각각 준비해 놓았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줄 것이다. (아멘.)

이 남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너희를 각각 사랑하여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사정하며 살아간다. 정한 시간이 다 해 간다. 그 끝이 가까웠다. 이제는 권고할 시간도 부족하다. 나의 권고를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나의 권고를 받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곧 '회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도 이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모두 나의 심정을 깨달아라.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사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보람 있게 사는 데도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런데 하물며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어 주어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원하는 일을 행

하면서 사는 데는 수십 년만 걸리겠느냐. 이제 내 말을 듣고 오늘 밤부터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 준 값을 할 수도 없는 처지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었으니, 너희는 내 대신 살아 주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면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 주는 시간밖에 없다.

가장 첫 번째로 나의 심정을 알아라.

내 심정을 알아주는 자는 내 마음과 통해서 그에게 내 마음이 끌려가 내 심정을 깨닫게 함으로 그와 더불어 마음으로 대화하게 된 것이며, 그 영과 마음이 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기에 나는 그와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해 준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해야 서로 대화를 하게 되듯이, 누구나 내게 말을 해야 나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영은 육에게 천 마디를 해도 모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육신이 자기 영에게나, 내게 말하면 영이라서 바로 듣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육신 세계에 사는 육을 가진 자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여 영의 세계를 뚫고 올라와야 한다. 그래야 그 마음이 영의 세계를 느끼고, 영이 그 세계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된다.

지난 30년 동안은 육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 실제로 활동하면서 내가 나타나 역사했다. 실제 육신을 통해 말씀하고 행함으로 보여 주며 기적을 일으키면서 역사를 폈다.

지금은 내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죽어 다시 부활한 후에 영으로 나타났듯이, 영으로 나타나는 때다. 지금은 그때와 같이 너희 모든 자들에게 마음으로 나타나고 심정으로 나타나며 영의 역사를 하는 때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나를 밤낮으로 쳐다보고 마음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하여 역사를 일으킬 때다.

지금은 영의 시대다. 마음의 시대다. 정신의 시대다. 신령한 성령의 시대다. 내가 영으로서 직접 인도하는 때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하지 않고 나를 부르면 만나도 답답하다. 이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나를 부르면 곁에 있기에 대답하며 함께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그같이 할 수 없다. 만사에 때가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 할 많은 계시를 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때가 있었느냐?

마지막이라서 모두 들으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이 교회, 저 교회에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할 말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말해 줄 수 없다. 개성대로 쪼개어 해 주니 전체의 것을 다 들어야 된다.

사람이 자기 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도 자꾸 필요 없이 말을 하겠느냐. 내 할 말을 다 하면 나 역시도 그러하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지켜 주기만을 희망할 것이다. 내 꿈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너희 선생의 육신이 직접 외치고 뛰지 못하니 말로 지시해 주고, 너희가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듯이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 너희가 행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느냐. 내 몸이 되어서 내 꿈과 소원을 이뤄 줘야 한다.

‘나는 부족하여 전도도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설교하는 일, 집회 하는 일, 자기를 완벽하게 하는 일, 회개하는 일, 성령을 뜨겁게 받는 일, 자기 육과 영을 건강하게 하는 일 등 천하의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거나 어렵다고 하지 마라.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믿어 주고, 수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두 놀라게 할 수 있다.

계시를 받고 청중 가운데 나타나 외치는 자들을 보아라. 예전에는 교회에서 눈에 안 띄고, 부서에서도 눈에 안 띄는 자들이었다. 누가 존경하며 잘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이었다. 약하다고, 어린아이 같다고 늘 걱정하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아멘.)

그들은 “나 같은 어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몇 십 명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자에게 무슨 계시를 해 주십니까? 사람들이 제가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믿어 주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100개 중에 불과 몇 개만 하는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네게 말할 테니 너는 깊이 기도하라.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며칠, 몇 주일만 하다가 말면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하였기에 그에게 계시하여 “너희 선생에게 보여라. 너희 선생이 보고 허락하면 청중 앞에 서게 되고, 전 세계 섭리인들이 보는 화면 앞에도 서게 된다. 내가 너희 선생과 이미 의논했다. 너희 선생은 나와 늘 그같이 해 왔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즉시 알고 허락할 것이다. 내가 말해 준다.”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 못 한다고 했지만, 내가 말한 대로 너희 선생이 허락하여 그들이 청중 앞에서 외치지 않았느냐. 모두 듣고 내 말인 것을 알고 기이히 여기지 않았느냐. (아멘.) 지금은 모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며 자기에게도 계시해 달라고 하여 내가 수십 명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모든 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모두 내 말을 믿고, 나 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내 말대로 해 보아라.

내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깊고도 깊은 시골 산골짜기, 한국으로 말하면 무주 구천동같이 깊고 깊은 산골짜기의 늙은 한 할아버지가 나 예수를 부르고 찾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과 파티를 하다가도 입에 음식을 깨물며 그곳에 쫓아가 그를 본다.

이같이 나를 찾고 부르는 자를 나는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기에 가 본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면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겠느냐. 내 심정을 알아라.

성지땅 자연성전 야심작에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써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의 정신을 글로 써 돌에 새겨 놓은 것이다.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내 사랑의 글귀를 써 준 것이다.

내가 사람을 통해 많은 말을 해 주건만, 사람들은 그 말을 사람이 한 말로만 생각한다. 그러니 나의 답답함이 그 어떠하겠느냐.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내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고 보고 살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첫사랑을 해 보았던 자가 있지 않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신경 쓰고 사랑했던 만큼 내게 신경 쓰고 나를 생각해 주면, 그래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한다. 나도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때가 지나면 육신 쓴 너희는 기회가 없노라. 내 심정을 털어놓았으니, 나는 너희가 어떻게 할지 처분만 기다린다.

모두 나를 섬섬하게 해놓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땃땃이 나를 대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어찌 나를 생각지 않고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구해 준다. 너희에게 속더라도 또 해 준다.

너희가 각각 내게 약속하면서 무엇을 원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게 받고도 결심한 대로 안 해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사랑하기에 또 해 준다.

내 사랑은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다. 죽을 때까지 내게 은혜를 받고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무수하니, 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모두 내 사랑을 받고 세상을 위해, 자기를 위해 그 사랑을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쓰고 자기를 구원하는 데 써야 된다.

내 사랑을 받고도 세상에 미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느냐. 회개하라. 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어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 또 끝나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평생 내 말을 믿어도 사망으로 가게 된다.

섭리사 너희가 그래도 내 마음을 알기에 ‘신부’라고 하였으니,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예비하라. 내 마음을 풀어 달라. 내가 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겉으로 듣고 끝나면 내가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너희 선생이 오늘 밤 하고 싶은 깊은 말을 애인에게 말하듯이 해 달라고 하여 한다. 말하면 섭리인들은 달라서 즉시 받아들이고, 심정을 알아주고, 가슴 치며 회개도 한다고 하여 말한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이 순간만 받아들이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하려면 힘든 것이다. 내가 실천할 때까지 나는 문밖에서 떨어져서, 외로움 속에 짝사랑하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선생이 내 심정을 알아주었기에 역사를 시작했다.

나는 새 교파를 만들어 구교의 한을 풀려고 했다. 나의 마지막 재림 전에 사랑을 받고, 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짝사랑의 한을 다 풀기 원했기에 내가 극적으로 돕고 축복하며 역사했다. 고로 신교는 짧은 기간에 그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자만 중시하고 가는 역사가 되었다. 고로 다시 사람을 찾았고 내 심정을 아는 자를 찾았다. 나의 짝사랑의 한을 아는 자, 곧 너희 선생을 찾은 것이다. 너희 선생 한 사람이 내 심정을 알고 내 짝사랑의 한을 풀어 주었기에 섭리 역사를 시작하여 30년 동안 이같이 성장시킨 것이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으면 이같이 컸겠느냐.

섭리사에 물질이 없고 건물이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너희 선생과 다 의논했다. 너희 선생이 섭리사에 물질과 건물을 주면 또 나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치우치니, 그 대신 많은 생명을 달라고 한 것이다. 내가 건물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줄 것이 없어 못 주겠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나에게만 매달렸다가도 풍부하게 되니 사랑하는 자도 즉시 거기에 빠져 살면서 나를 멀리하다가 결국 사라지지 않았느냐. 모르고 투덜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나와 일체 되어라. 나와 일체 된 자는 세상을 다 얻은 자다.

세상을 얻고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못 생각하고 산 것을 회개하고, 나를 얻고 천국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너희 선생을 통해 조은이에게 말했다. “때가 되면 네가 선생 대신 설교하고 집회를 해야 된다.” 했다. 조은이가 “내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내가 원고를 써 주면 가서 읽어 주면 된다. 너는 내 심정 알고 목소리가 크니까 가서 외치면 된다. 그것이 설교다.” 했다.

왜 조은이가 대신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때 앞날이 이같이 될 것을 너희 선생이 말해 줄 수 있었겠느냐. 너희 선생도 단지 “너도 다른 목사들처럼 설교해야지, 교회 목회는 안 맞으니 내 대신 집회도 하고 다니고, 부흥 집회도 해야지.” 하며, 그런 식으로 알 정도였다.

내가 확실히 말을 안 해 주는데 아는 자 있겠느냐. 나는 항상 은밀히 말한다. 너희 선생도 오늘날 이같이 되어 질 것을 다 알았겠느냐. 역사는 다 말해 주고 못 하는 것이다. 너희도 지금 깨달아라. 은밀하게 말하는 내 심정을 알아라.

내 말을 지나가는 말같이 듣다가, 그 날이 닥쳤을 때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면 그제야 ‘아! 주님이 이래서 그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사람의 심중에서 한 말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다.

얼마 안 가서 엄청난 재해, 환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제야 ‘그때 그 말씀들이 계시자들의 말이 아니었구나. 설교 때 한 말씀들이 선생님이 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과연 천지는 없어져도 전능자의 말은 일정일확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말 그대로구나.’ 시인할 것이다.

보고 믿는 자는 작은 자다. 안 보고 믿는 자는 큰 자다.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후에 이루어짐을 믿어라. 믿겠느냐? (아멘.)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준비하고 급히 행한다. 너희가 대답이라도 크게 하니 내 마음에 얹힌 것이 내려가듯이 답답함이 풀린다. 꼭 실천할 것을 믿는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용기 내어 하라. 약속한 한 해가 거의 다 되었다. 끝이 좋아야 한다. 내가 기쁘게 좀 해 보아라.

마지막으로 나의 재림을 위해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말해 줄 테니,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행하라. 내가 재림의 주인이니 말한다.

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첫째, 완전한 회개다.

- 회개해야 원수 마귀들과 인사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 세상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이 진정 최우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난날 못 한 것이 복직되고, 못 한 것을 용서받는다. 그래야 신부로서 변화를 받는다. 그래야 나와 한 몸이 되고 일체 된다. 내가 목숨을 내주었으니 너희는 마음과 행동을 다 내게 줘야 내 아버지가 인정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여 행실의 깨끗한 세마포, 즉 나를 맞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해야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

<봉독>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넷째,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 지구 세상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니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할 테니 계속 성령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사탄을 다스린다.

사탄과 늘 싸워 이겨야 된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자가 없고 방해하지 않는 자가 없다. 너희 선생에게도 매일 사탄이 간다. 너희 선생은 이를 알기에 매일 사탄과 싸워 사탄을 물리친다. 기도해 주어라.

사탄이 방해하고 막고 육신과 정신과 영을 방해하기에,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자가 50% 이상이다. 내 말을 믿어라.

다섯째, 생명을 구원하라.

- 이 세상에, 너희 나라에, 너희 각자 주변에는 내가 예정하여 특히 기른 자들이 많다. 그들을 데려와라. 전도하라. 너희는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모른다. 전도하면 알게 된다. 전도하면 끝까지 잘해 주고 관리해 주어라. 사탄이 자기 생명을 데려갔다고 하며, 자꾸 악한 신앙인들을 건드리고 끌고 가고 방해한다. 이를 알아야 된다.

지도자들, 사명자들, 교회를 맡은 자들뿐 아니라 다섯 명을 맡은 대학교 CL이나, 한 생명을 맡은 자로부터 교회를 맡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할 때다. 그래야 생명을 전도하고 잘 관리하여 부흥하게 된다.

여섯째, 모두 화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화평으로 하나 되어 나의 군사가 되어라. 사탄을 능히 대적하는 이 시대 십자가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서로 원망 말고 온전하게 행하여라.

섭리역사는 30년 동안이나 내가 확실하게 이끌며 역사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데 유력한 신부들이다.

한 사람을 만들듯이 금방 한 종교를 새롭게 만들기 어려운 것이기에 너희를 시대에 맞추어 길러 왔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말씀과 예술로 길러 왔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생활처럼 되지 않았느냐. 어떤 교단이라도 그같이 금세 못 만들고, 신부적인 대상으로 그같이 금세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계시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는 나의 말을 각 나라는 소홀히 하지 말고 생명시하며 잘 듣고 즉시 지켜라. 안 지키면 사탄이 침범하여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린다. 주일과 수요일에 또 말씀하겠다.

평강이 너희 각자에게 충만하고 섭리나라에 충만할지어다.

주가 찾으실 때까지 찾고 응답하실 때까지 불려라

본 문 요한복음 15장 5절, 14장 20절

마태복음 7장 7-8절, 9장 15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일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일체 되고 주님과 일체 되는 것입니다. 일체 된 단계에 가면 최고의 위치에 간 것입니다.

종교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일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하와는 아담을 최고로 사랑하고, 아담은 하와를 최고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일체 된 삶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되니 환경도 삭막한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딸 같은 관계였고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종 같은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최고의 위치인 하나님과 일체 된 단계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다윗 왕, 욥 등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 되었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사랑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다 이루시고, 구약 40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사랑의 조건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과 뜻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뜻을 펴고 행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몸소 행하시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도 행실도 그같이 해야만 주님께 붙은 삶이 되고, 주님과 일체 된 신앙인이 됩니다. 주님과 일체 되고 붙은 자만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 휴거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된다.” 고 했습니다(고전 15:22-23).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자신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 된 것같이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와 하나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일체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가 되어 일체 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정신도, 몸도, 혼도, 영도 일체 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 된 몸으로서 주님과 일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든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과 일체 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귀히 보시고, 귀히 대하십니다.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가르쳐 주고, 얼마나 잘 실천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알았어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귀히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우리 섭리역사는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짝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들도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신앙 따로, 자기 인생 따로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의 섬길 자로만 생각하고 마치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듯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깨

달았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사고를 고치도록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듯, 너희도 그같이 사랑하라.’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고 살아도 주님과 일체 되지 않은 자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기 사랑하는 자를 첫사랑 때와 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일점일획이라도 행하면 안 된다. 이같이 사는 것이 주님과 사랑이 일체 된 삶이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짝사랑하도록 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을 짝사랑하는 삶으로 대항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그에게 계획된 구원과 모든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차원에 따라 구원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형식적 사랑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받아도 형식적으로만 구원 받고 살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연애하는 자들과 결혼한 자들은 말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말로 사랑하면 실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기도할 때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어떤 연결도 되지 않고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실을 할 때 그제야 주님과 일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말로 해서는 주님과 안 통합니다. 행실로 통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인답니다. 눈에 띄입니다. 행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외식적인 자들입니다. 외식의 입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행실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속인 자들입니다. 천사는 일일이 기록하여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가식적인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못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이 매일 지옥으로 조금씩 끌고 갑니다.

영계에 가 보나 마나 육의 행동의 실상이 영의 세계에 반영됩니다. 영계는 거울 속 같고, 육계는 거울 밖과 같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그 모양과 형체에 따라 그대로 비춰 보입니다. 영계는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육적 행위와 마음을 그대로 비춰 줍니다.

주님께 말로 약속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심정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같이 하라.**” 함입니다. 말로 하는 자에게는 주님도 말로 대해 주시고, 행실하는 자에게는 주님도 행실로 대해 주십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자요, 짝사랑에서 억울하게 끝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섭리세계는 말로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몸이 되어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일체 되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는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대화도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에서 나 예수를 사랑하며 그같이 말하고 행하고 사는 자들을 보면, 온전히 100%를 하지 못하고 70%, 혹은 80%, 혹은 90%, 혹은 95% 행하면서 산다. 영원한 구원 문제가 좌우되는데 왜 그같이 하느냐. 100%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100% 행하는 자는 산 정상에 오른 자와 같습니다. 또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100% 구원을 얻어 100% 사망에서 나온 자도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과 일체 된 자입니다.

“**어떤 자는 ‘천국으로 갈까? 못 갈까?’ , 혹은 ‘천국의 변두리 세계에 가게 될까?’ ,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 다시 1000년씩 교육받는 곳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고 하시며 “**모두 온전히 하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하든지, 90% 하든지, 80% 하든지 힘든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결심하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100m 앞에 계시는데 힘들다고 80m, 90m, 95m 가다가 말면 안 됩니다.

‘100%’ 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해시켜 주겠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되, 다른 남자는 1%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되,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반절만, 혹은 반절 조금 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두 개의 컵에 물이 있는데 하나의 컵에 물을 다 쏟아 붓듯이 열렬히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100%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랑할 것 다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중심한 사랑이라야 진실한 사랑입니다. 100% 사랑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한 시간에서 1분도 안 빼고 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100% 다 여쭙 보고 그 말씀만 듣고 행해야 됩니다. 100% 사랑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했어도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심하는 자는 주님과 일체 되지 못한 자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자기 앞에 주님과 1:1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범하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제대로 배우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십일조와 감사 생활은 하늘 백성으로서 기본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 기본입니다. 성경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내 못 하고 말면 정말 안 됩니다. 1000만원에서 십일조로 100만원을 헌금하면 하나님께 바쳤기에 자기가 쓸 때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계산이고 육적인 계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하여 거둬들인 것의 십일조만 땅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보아라. 씨 뿌린 것이 결실하여 곡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짓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곡식은 수확량의 30분의 1만 씨를 뿌리고, 어떤 곡식은 수확량의 `100분의 1정도만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씨를 뿌려 가꾸어도 못다 먹습니다. 뿌린 것의 300~600배 거두는 곡식도 있습니다. 고로 농사짓는 자들 중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십일조, 감사헌금, 각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옥토 밭에 씨를 조금 뿌리고 수백 배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섬리인들 중에서 꼭꼭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10의 3까지 한 자들을 보면 잘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편지들이 옵니다.

섬리사에서도 감사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인생들이 모여 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족하게 받고 사는 자들이 있고, 인사치레로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다 쓰는데도 부족하여 더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은 십일조와 감사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지 않았기에 몰라서 책임분담 못 하여 죄가 될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까 걱정되어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꼭 드림으로 축복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 계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생이 하늘 앞에 감사하는 일이나, 물질을 드리는 일이나, 시대적인 조건을 세웠기에 너희가 이같이 받고 그 덕분에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계시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내게 보내왔습니다. 선생은 그에게 “선생이 주님 앞에 무슨 조건을 세웠는지 대화할 때 주님께 묻지, 왜 내게 묻느냐.” 했습니다.

섬리인들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도 모르고, 직접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리사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합니까? 주님도 알고 계시나 말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금도 했으면 어디에 썼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다 쓰십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선생도 하늘 앞에 드릴 것을 꼭 드리면서 삽니다. 절대적으로 꼭 하고 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집은 천국에서 어떠하냐고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집도 별로고, 그 집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거의 없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받고, 또 천국에서도 자기가 드린 대로 각종의 것들을 100배, 1000배 받아 그 집에 정돈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천국에서 공적 세워서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공적 세워서 받은 것이 더 기쁨이 된다. 세상의 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세상에서 세운 공적대로 천국에서 받게 된다.” 하며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행하기 바랍니다. 애인에게 십일조만 줍니까? 모두 다 맡기고 돈을 타다 씁니다. 선생은 예전부터 그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것은 선생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내 것은 모두 하나님과 주님의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쓸 곳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걸핏하면 형제들이 섭리의 돈을 착취했다고 하는데 모두 모르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다 주님을 위해 썼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고, 성지땅을 위해 썼습니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함으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지 말기 바랍니다. 용서할 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는 죽은 후에도 안 풀립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죄보다 오해하고 모르고 악평한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전에 모르고 악평했다가 알아보고 회개하는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아직도 그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금전 문제는 예수님과 선생이 관련되었기에 무섭게 다 조사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서 주님께 계시받아 봐요. 선생이나 형제들이 하늘 돈을 착취했는지 주님께 여쭙 봐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당하셨고, 선생도 억울하게 당했기에 압니다. 억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는 정말 회개해도 씻어지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 앞에 드린 것은 섭리사를 위해서만 썼기에 30년 만에 이같이 생명들을 전도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교회를 짓기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섭리사의 목사님들뿐 아니라 기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관리하며 공적으로 뛰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먹고 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도와줍니까? 굶고 헐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관리하니 10만원, 20만원 씩이라도 줘야 되고, 먹는 것이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섭리사의 행사와 모든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면 1년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것을 누가 줍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오직 생명 살리는 데 다 나갑니다. 이같이 하여서 현재까지 이만큼 선교해 온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자는 주님과 선생을 모독한 자이므로 회개할 때까지 그 죄로 인하여 죄값을 받으면서 계속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선생이 선생의 것으로 집을 사 놓았겠습니까? 궁궐도, 좋은 집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도 못다 씁니다. 기도해야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품이 평안한 나의 집입니다.

이같이 세계 역사를 펴 올 때는 정신과 사상이 다른 자와 다르기 때문에 펴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선생 쓰라고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은 다 여러분들을 얻는 데 썼습니다. 집이나 땅을 사 놓았으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교회는 몇 개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 오면 거처하다가 가라고 얻어 놓은 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 돈을 가지고 사 놓은 집은 없습니다. 누가 집 사라고 돈을 주면 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님 구상이었습니다. 공적 돈이나 사적 돈이나 선생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여러분 것입니다. 선생은 주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27평 짜리 집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먹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 잘 곳이 뭐 그리 필요하냐? 네가 무슨 돈이 그리 필요하냐? 고생되어도 내게는 네가 필요하다.” 하시며, 산과 암벽과 굴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오직 주님 품만 파고들게 하셨습니다.

집이 필요할 때 내 집은 자연이었고 제자들의 집이었습니다. 내게 집이 필요할 때는 그곳에 가서 잠깐 자고 왔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오면 자야 하니 거처가 필요했지만, 선생은 정신 자체가 하늘 속에 살기에 그같이 하니 제자들은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선생이 그같이 사니 제자들도 반 거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선생은 “네 말을 이해하지만 내가 이같이 살지 않았으면 너도 전도하지 못하여 저 사망의 땅, 세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누릴 것이 있어도, 참새가 방앗간에 들어가면 먹고 즐길 것이 많아도 거기 앉지 않고 위로 날아가면서 그냥 지나가듯 살아왔습니다. 나그네가 정자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먹을 것이 많아도 도시락 먹어가면서 갈 길 가듯이 살아오지 않았으면 몇 개 교회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못하면 따르는 자들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선생을 따라온 자들도 모두 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선생은 습관이 들고 체질이 배어서 풍부한 세계는 안 맞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든지 편히 구원

역사를 펴 갈 수 있었지만 홀몸으로 사시며 잘 곳이 없으면 전도자들의 집에 들러 주무시고, 배 위에서, 혹은 산에서 기도하던 곳에서 잠깐 주무셨습니다. 먹는 것도 때가 되면 제자들과 거리에서 한 술 드시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섭리역사 30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그래도 선생같이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모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미래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만 쓰다 보니 결국 돈이 없으니 콘크리트 건물 성전을 못 지어서 자연 속에 자연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연성전을 만들어 놓으니 콘크리트 교회 건물보다 아주 귀하게 세계적으로 많은 청중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섭리사는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전도하고 관리하며 사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와 같이 섭리의 새 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러므로 30년 만에 세계 50개 나라에 복음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400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하지 않았으면 못 만들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애인이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는 신앙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해 봐야 합니다. 일반 신앙을 넣어 주는 것은 누워서, 혹은 잠을 자면서 해도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신앙을 하기 정말 어렵지요? 그렇게 되도록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꼭 십일조를 하늘 앞에 드려 주님을 위해, 자기 영과 육을 위해 써야 됩니다. 24시간의 십일조는 2시간 24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하고 쓰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은 10의 1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립니다. 하루 10의 8, 10의 7의 시간을 드리며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루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뺀다면 20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과 생명을 위해 썼는지 생각해 봐요. 20시간 중에 공적으로 10시간을 쓰면 10의 5를 드리는 자입니다. 공적으로 5시간을 쓰면 매일 10의 2.5를 드리는 자입니다.

매일 주님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면 시간을 꼭 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돈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때가 되면 떳떳하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산 자와 하늘을 위해 산 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그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만을 위해 산 자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자들을 통해서 감사 생활하는 것과 십일조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자다. 나의 재임을 코앞에 놓고 안 하고 나를 맞을 것이냐?”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일체 되는 삶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일체 되지 않으면 같은 섭리세계에서도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선생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데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안 하면 안 될 말씀을 가슴 저리게 하셨습니다. 깊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여자는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끝까지 부르고 찾아서 만들어 놓은 음식도 같이 먹고 하고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몇 마디 부르다가 대답 없으면 부르다 말고 또 찾다가도 몇 군데 가 보고 없으면 말고,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제 할 일만 한다.

나는 섭리 사람들과 지구라는 집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나를 몇 번 부르다가 대답 없으면 부르다 말고, 나를 몇 번 찾다가도 내가 없으면 찾다가 만다. 나는 나를 찾고 부르는 자를 쳐다본다. 얼마나 간절히 찾고 부르는지 보고 응답하고 나타난다.

지금은 지구라는 집안에서만 사니 내가 대답할 때까지 끝까지 목을 놓아 부르고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 애인을 찾는다면 불려도 찾아가도 대답이 없을 때는 온종일 울면서 찾을 것이다.

자기 삶이라는 집에서 나와 같이 살면서도 내가 대답할 때까지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나타날 때까지 나를

찾지 않으니 내가 어찌 대답하고 나타나겠느냐. 진실로 나의 신부로서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찾다가 말고, 부르다가 말 수가 없는 것이다.

지구라는 이 작은 집에 있으니 끝까지 부르면 다 대답해 줄 수 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북극에 있어도, 남극에 있어도 대답하고, 느껴지고, 내 눈에 보인다. 내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보이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데 안 보이겠느냐.

모두에게 내 말을 전해 주어 내 심정을 알리고, 내가 가기 전에 모두 속히 행하라. 어찌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부르다가 대답이 없다고 부르다 말고, 몇 군데 찾다가 없다고 찾다 마느냐.

만일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쓰러져 있는데 급히 옮겨 치료를 해 주지 못하여 죽으면 어찌하냐? 나를 너희 애인만도 못하게 대하는구나. 내가 너희 앞에 쓰러져 있고, 너희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좀 위로해 달라고, 내려 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듣는구나.

세상의 정말 사랑하는 애인 같으면 그같이 부르다 말고 찾다가 말지 않을 것이다. 정말 서운하다. 하늘나라에 와서 두고 보자 하는 심정이다. 내가 갈 날이 가까웠으니 할 말만 하고 간다. 너희가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까 봐 심정 쏟아 말하는 것이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느냐? 나 예수, 너희 신랑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찾아도 없으면 더 찾고 불러야 한다. 기도하다가 그냥 끝내지 말아라. 힘들어도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하여라. 나를 끝까지 찾아 만나도록 하여라. 나도 너희를 끝까지 부르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나를 믿고 살고 있는 것이다.

식기도 할 때도 그 정도만 감사하고 찾으면 나는 대답도 할 수 없다. 그 정도 찾으면 나타나고 싶지도 않다. 밥 갖다 놓고 진실로 애인을 찾아 같이 먹으려고 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여 나와 같이 먹자고 하여라. 내가 먹는다고 밥이 줄어드느냐? 양이 안 차서 서운하다고 하겠느냐?

이제는 형식으로 하는 습관을 다 버려라. 마치 그때그때 배설물을 버리듯이 잘못된 것들을 버려라. 이 지구촌에서 자기 혼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진실로 살아야 된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주님 모시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누가 구원하겠느냐. 나를 대하는 것에 따라 구원한다.

그릇된 사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굶어 죽는다. 옷이 없어 수치 속에 살다가 얼어 죽는다. 잘 곳 없어 거리에서 잔다. 고통을 당한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하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라.

이제 모두 깨달았느냐? 너희가 십일조를 해야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섭리역사가 더 크게 세계로 번져 나가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쓸 곳에 쓰지 않겠느냐.

이제 가슴이 뜨끔하지요?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자라면 절대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의 말씀을 좀 들어 볼까요?

선생이 유럽에 있을 때였습니다. 섭리인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내가 아니어도 세계에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 까 그들이 하겠지. 지도자들만 해도 수천 명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을 대하였기에 한때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달의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했고, 어느 때는 무엇을 사 먹고 싶어도 ‘저것을 사 먹고 싶은데 사 먹으면 돈이 바닥나니 어떻게 하지?’ 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한국에 돈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금방 소문을 듣고 돈을 보내 놓고 선생에게 돈 보냈다고 광고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100만원 보낸 것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모두 이와 같으니 주님도 오직 자기의 주님으로 각자 책임지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공원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공동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 개인의 신랑이십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의 1:1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일체 된 삶입니다. 주님은 자기 각자의 신랑이십니다.

한번은 낮에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 보이셨는데 거지같이 보였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주님은 “네가 나를 돕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선생이 산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였는데, 주님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산에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럼, 나는 힘이 없어서 너의 영도 육도 못 구하고 계획한 뜻도 못 이룬다.” 하시며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에 선생은 다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빛난 옷을 입으시고 얼굴이 빛이 나게 나타나셔서 내게 힘을 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봐요. 죽는 소리를 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몇 번 찾다가 안 나타나시면 찾다가 마는 신앙인들, 주님을 몇 번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시면 부르다가 마는 신앙인들, 모두 이 말씀을 해 주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신랑과 신부가 일체 되듯이 주님과 일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 하나 됩니다.

선생은 식기도 할 때만 귀한 음식을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요?

2007년에 중국에 있으면서 배춧국에 옥수수 빵 반쪽을 놓고 “끓어 죽지 않고 이것이라도 먹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여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만 먹느냐?” 하셨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여 눈을 감고 있는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와 같이 먹어야지. 내게 먹어 보라는 한마디도 없이 너만 먹느냐?” 하셨습니다. 내가 초라한 모습을 하고 못 먹을수록 주님은 더 함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 감사하다고만 하지 말고, 애인이니까 같이 먹자고 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은 옛날에 제자들과 빵 한 쪽을 같이 나눠 드셨듯이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랑과 신부의 삶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보고 “이 음식을 먹고 뭘 먹고 싶느냐?” 하시기에 내 입에서는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무슨 고기?”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돼지고기요. 새우젓과 돼지 족발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알았다.”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간수가 돼지고기 먹을 자들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족발 두 개와 돼지고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대로 그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간수에게 “오늘 이 나라 국경일입니까?” 물으니, 아니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음식을 받고 기도할 때 진실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생 : “사실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그같이 실체가 되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먹어요.”

주님 : “너 먹는 것 볼게.”

선생 : “왜요?”

주님 : “네가 막 먹다가 죽을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난 후에 간수들에게 다시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간수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가 네 집이나?”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돼지고기를 주시려고 나만을 위하여 특히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 때문에 모두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십니다.

식기도 할 때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식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극한 환경에서 머리카락만 한 작은 것도 신경 써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자세히 신경 써 봐요. 선생의 지금 현실에서도 주님은 정말하게 신경 써 주십니다. 좁지 않게 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다 해 주십니다.

애인은 항상 같이 먹고, 같이 가고, 같이 자고, 같이 노래하고, 함께합니다. 포도나무는 1년 열두 달 가지와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같이 잎을 피우고 열매를 엽니다. 겨울에도 같이 추위에 떨며 견딥니다. 주님과 같이 살면서 같이 생활해야 주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로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남녀가 연애하다가 첫사랑에 불이 붙어 같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자도 남자도 꼭꼭 같이 먹고, 모든 것을 같이 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랑이 식어 나태해지면서 같이 하지 않기 시작했다. 여자가 안 보이면 남자가 여자를 꼭 부르고 기어이 찾아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건만, 맘이 기쁠 때는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혼자 했다. 같이 살기는 했지만 사랑에 얽혀 살지 않고 삶에 얽혀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자기 애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 부엌, 화장실, 뒷방에 가 보고 없으니 찾다가 말았다. 실상 도둑은 여자를 뒷마당에 붙들어 놓고 봉대로 입을 틀어막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여자가 자기 애인을 속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찾다가 만 것이다.

그 도둑은 바깥에서 애인의 친구로 가장하고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 “네 애인과 식사를 하려고 하니 나와라. 네 애인은 화장실 갔다.” 고 했다.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나갔다. 도둑은 그 사이에 집을 털고 도망갔다. 남자가 돌아와 보니 자기 애인은 살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 버렸다.

첫사랑이 식고 찾지도 않으면 이같이 되고, 찾다가 말고 부르다가 말면 이같이 된다. 나타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그같이 하더니 결국 비극의 날이 오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나를 찾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 너희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주님을 부르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불러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행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도 그같이 행해야 됩니다. 선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선생에게도 “**끝까지 나를 먼저 찾아라.**” 하고 철저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그 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찾고 있습니다.

한번은 주님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결국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옆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어느 정도 부르고, 끝까지 부르는지 보았다.**” 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사는 데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왕처럼 모시고 늘 대화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 산 신앙입니다.

한번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부르고 찾으니 곧 대답하셨습니다. ‘계속 내 옆에 계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 나라 남미에 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나는 전능한 영이므로 지구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마치 집안에 같이 있는 것 같다.**” 고 하셨습니다. 멀리 계시나, 가까이 계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말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끝까지 주님을 불려서 응답받고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는 더 깊이 영계에 들어가 직접 보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되어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서게 됩니다. 힘들다고 찾다가 말고 부르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불려서 응답받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폐단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삶의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 사람 대하듯이 주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모순 된 행위로 대하니 주님과 안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고쳐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안고치고 전능자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고 사는 자는 자기 주관 속에 갇혀 사는 자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라면 끝까지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부르다가 말지 않고 찾다가 말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그 심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안 해 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선생은 그들에게 “너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지 모두 그 사연을 적어 보내라.” 했습니다. 모두 각각 달랐지만 어떤 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자는 추운 날 자연성전에 가서 혼자 새벽 1~4시까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섭리를 위해 그같이 기도하니 과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만하다고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안 해 본 자는 계시자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우쳐 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데 계시를 받았나?’ 생각합니다. 몇 달씩 새벽 일찍 일어나 깊은 기도를 해 봐야 압니다. 선생도 그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렇게 하는 자들의 심정을 알고 그들이 받은 계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는 자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응답이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참으로, 신실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21일을 남겨 놓고, 그 전까지 새롭게 온전히 변화하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하여 청산하고, 신앙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각자 영계를 뚫어야 됩니다. 선생도 극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연장 없이 심판을 받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낱알이 고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 때 제대로 눌러야 신호가 가고 통하듯 죄도 낱알이 고해야 됩니다.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온 세계 섭리인들은 이를 꼭 지켜 행하기를 빕니다.

연말에는 개인과 교회의 전도 상황을 볼 것이고, 기존 인원을 기준하여 어느 나라가 제일 우수하게 선교했는지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삼위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충만하고, 주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